이 책을 내면서

머나먼 옛날부터 이 나라 강토에서 한피줄을 타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높은 자랑과 긍지를 안고있다.

하지만 우리 조국의 력사는 지난날 력대반동사가들과 특히 일제의 식민지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무참하게 말살되고 외곡되였었다.

그러던 우리 조국의 력사가 오늘은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자랑의 상징으로 세계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으니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숭고한 애국, 애족사상을 지니시고 민족사를 빛내이시기 위하여 바쳐오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여 유구한 우리 조국의 력사를 찾을수 있었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의 력사가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며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빛나는 전통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될 때 깊이 심어질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13권, 375페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깊은 력사지식을 가지며 력사상식을 넓힐데 대하여 여러차례 말씀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조선력사자료집》편찬에서는 우리 나라 전력사를 개괄적으로 자료화해주어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

책에서는 원시시대와 고대 및 중세에 존재하였던 나라들을 기본단위로 하고 매 나라의 성립, 통치제도, 경제, 군사, 문화발전과 대외관계, 종말 등의 체계로 개괄하고 주요사변과 사건, 력사유적과 유물, 주요인물관련의 일화, 상식자료들도 모두 나라별로 주었다.

그러나 매 나라의 민족사적지위가 같지 않으므로 그에 맞게 분량과 구체화정도, 내용구성형식을 달리한것들도 있다.

뒤부분에 력사인물 210명을 나라에 관계없이 생존하여 활동한 시기차례로 주었다.

인물들은 대학교재들에 나오는 기준에서 선정하여 주요긍정적인물과 함께 부정적인물들도 주었다. 《조선력사자료집》을 학습에 널리 참고하면서 책을 더욱 완성하는데 방조가 될 좋은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

차 례

원시시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활동하여야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다.》(《김정일선집》 제13권, 458페지)

원시시대는 지구상에 인류가 발생한 첫 시기, 말그대로 원시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속성을 싹으로나마 가지고있은것으로 하여 공동체적인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며 발전시켜나가 계급사회에 도달하기까지 백수십만년에 걸친 시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사람의 기원과 우리 나라 원시사회문제를 명철하게 해명해주시였다.

조선사람의 기원과 원시사회문제는 우리 나라 력사의 첫 시작에 관한것으로서 조국의 력사를 체계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이다.

그런데 지난날 이 문제는 반동적인 《문화이동론》에 의하여 혹심하게 외곡말살되였었다.

왜나라어용사가들과 력대반동사가들은《문화이동론》을 꾸며가지고 조선에는 구석기시대가 없었고 신석기시대에 와서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와 살게 되였으며 그들은 청동기시대를 거치지 않고 이웃나라의 영향밑에 석기와 청동기, 철기를 같이 쓰게 된 이른바 금석병용시대를 거쳤다고 떠벌이였다.

실로 우리 나라 원시사회문제를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조선사람의 기원은 물론 민족의 존엄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데 한때 학계의 일부 학자들도 반동적인 《문화이동론》에 추종하면서 옛날에 황하류역에서 형성된 한갈래의 종족이 중국동북일대에서 살다가 몰려나오고 그후에는 남쪽에서 또 다른 갈래의 사람들이 흘러들어와 조선민족을 이루었을것이라는 주장을 세웠다.

이러한 주장은 다 우리 나라 원시유적들을 주체적인 립장에서 보고 연구분석하는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인된 인류발생지에 기원을 두고 해석하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식화된 학설을 맹목적으로 빌려온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주견을 엄하게 비판하시면서 철저히 우리 나라의 고고학적자료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해명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문화이동론》의 반동성과 허위성을 낱낱이 폭로하시고 우리 민족이 어느 외지에서 흘러들어온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땅에서 생겨났으며 아득한 옛날에 이미 독자적이고 고유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창조하였을것이라는 방향에서 력사를 연구해보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고고학연구집단이 주체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유적발굴사업을 진행한 결과 상원군 흑우리에서 구석기시대 전기의 로동도구들과 당시의 자연환경을 해명할수 있는 뼈화석들이 나온 검은모루유적과 승호군 만달리동굴유적을 발굴함으로써 인류발생의 첫시기부터 이땅에서 사람이 살았고 로동생활을 통하여 독자적인 인류문화를 창조해왔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고인인 《화대사람》, 《력포사람》, 《덕천사람》, 신인인 《승리산사람》과《만달사람》화석, 조선옛류형사람의 화석, 라선시 굴포리유적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여러지역에서 발굴된 원시시대의 유적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기원한 단일민족으로서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원시사회의 모든 발전단계를 거쳐왔다는것을 고찰할수 있었다.

원시공동체사회는 무계급사회이다.

즉 공동로동, 공동소유, 공동분배, 공동소비에 기초한 원시공동체적사회관계가 지배한 사회이다.

원시공동체사회는 사회관계를 징표로 하여 원시무리시기, 모계씨족공동체사회, 부계씨족공동체사회로 구분되며 로동도구를 만든 재료와 그 제작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로 나뉘여진다.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원시적인 석기제작방법인 때려깨기나 내리쳐깨기로 만든 타제석기를 쓰던 시기이다.

우리 나라의 구석기시대는 100만년이전부터 1만 5천년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구석기시대는 석기제작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다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뉘여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구석기시대 전기에 원인이, 중기에 고인이, 후기에 신인이 발생하였으며 그들은 타제석기를 만들어가지고 원시무리생활과 후기에 모계씨족공동체생활을 하였다.

구석기시대 전기

우리 나라에서 구석기시대 전기는 100만년이전부터 30만년전까지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상원군 흑우리 검은모루유적과 경기도 련천군 전곡리유적등이 있다. 특히 검은모루유적은 100만년이전에 원인들이 남긴 유적으로서 거기에는 당시 원인들이 사용하던 석기(로동도구) 와 29종의 짐승뼈화석들이 있었다.

구석기시대 전기에 출현한 원인은 동물계에서 갓 벗어난 첫 단계의 사람으로서 생김새에서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특징과 함께 원숭이를 련상케 하는 모습을 가지고있었다.

눈두덩부위가 발달하여 마치 채양이 있는 모자를 쓴것처럼 눈턱뚝이 쑥 나오고 현대사람과 달리 이마가 뒤로 푹 제껴져 머리정수리가 뒤로 드리워있는감을 주며 사유기관인 뇌수의 용적이 현대사람에 비하여 퍽 작아서 900~1 000㎤밖에 안되였다.(원숭이의 뇌수용적은 600㎤ 밖에 안되며 현대사람의 뇌수용적은 2 000㎤이다.)

이마는 매우 좁고 뒤로 푹 제껴졌으며 광대뼈가 두드려져나오고 넙적다리뼈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넓어져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잘 걷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원인들은 현대인과 구별되는 원시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있었으나 사유기능과 로동기능을 가지고있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이였다.

구석기시대 전기에 원인들은 규질석회암과 석영암 등으로 로동도구를 만들어썼다.

로동도구로는 주먹도끼모양석기, 사다리형석기, 뾰족석기, 자르개(박편도끼), 찍개, 량면찍개, 팔매돌 등이였으며 그것은 때려깨기와 내리쳐깨기수법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원인들이 사용한 로동도구들은 목적의식적으로 만든 타제석기들이였다.

구석기시대 전기에 원인들은 20~30명으로 무리생활을 하면서 타제석기와 몽둥

이를 가지고 나무열매를 따거나 풀뿌리를 캐고 짐승들도 사냥하여먹으며 살았다.

원인들이 짐승들을 사냥하여 식생활에 리용한것은 상원군 흑우리 검은모루동굴유적에서 나온 짐승뼈화석이 잘 보여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시사회의 유적과 유물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자료입니다.》

아득히 먼 원시시대사람들의 생활은 당시의 사람들이 남긴 유적유물로써만 밝혀낼수 있는것이다.

검은모루유적은 1966년에 발굴되였는데 여러가지 측정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100만년이전의것으로 편년되였다.

《검은모루》란 흑우리에 대한 고유조선말이다. 깊이가 30m쯤 되는 검은모루의 석회암동굴에는 29종의 짐승뼈화석들이 평균 2m 두께로 덧쌓여있었다.

29종의 짐승뼈화석을 분석하여 코끼리, 큰쌍코뿔이, 원숭이, 짧은턱히에나, 넙적큰뿔사슴, 메돼지, 범, 이리, 물소, 누렁이, 큰꽃사슴, 상원큰뿔사슴, 상원말, 굴곰, 오소리, 검은모루땅쥐, 북쪽갈밭쥐, 습들쥐, 쥐토끼, 해리, 산림쥐, 집쥐 등이라는것을 밝혀냈다. 이런 동물은 더운 지방에서 사는 종이거나 나무가 우거져있는곳과 무성한 초원지대에서 사는 종들, 비가 많이 내리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는 종의 동물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우리 나라가 아열대성온대기후를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며 이 유리한 자연환경은 검은모루일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살수 있게 하였고 그것은 곧 원인들의 사냥대상이 되여 식생활에 리용되였던것이다. 이처럼 구석기시대 전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이 발생하였으며 그들은 로동도구를 만들어 생산활동을 벌려나갔다.

구석기시대 중기

우리 나라에서의 구석기시대 중기는 30만년전부터 5만년전까지이다.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 중기의 유적들로는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리유적,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유적과 황해북도 승호군 화천동유적,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동굴유적아래층 등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우리 나라의 구석기시대 중기의 력사를 보여주는 인류화석과 석기들, 동물화석, 불무지자리 등이 발굴되였다.

고인의 화석은 석성리유적, 대현동유적과 승리산동굴유적 아래층에서 나왔으며 그 지명을 따서 《화대사람》, 《력포사람》, 《덕천사람》이라고 한다.

고인은 원시적인 특징과 함께 발전된 모습도 가지고있었다.

원시적인 특징을 보면 고인은 앞머리뼈의 경사가 상당히 느리며 이마와 눈확사이에 눈턱뚝이 있다.

그리고 코마루의 너비가 현대인보다 넓고 아래턱우무기가 얇다.

발전된 모습도 가지고있다.

웃머리뼈의 불룩이가 발달하고 뇌수용적(1 300~1 700㎤)이 현대사람의 크기(뇌수용적 1 400~2 000㎤)에 접근하였다. 그리고 고등신경활동에서 제지가 우세를 차지하기 시작하였고 목부위에 있는 경추의 가시도두리가 현대인과 같이 크고 두꺼우며 수평으로 놓이였다.

또한 팔과 다리뼈의 구조도 섬세하여졌다. 이처럼 고인들은 원인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있었다.

구석기시대 중기에 고인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로동도구가 개선되였다.

로동도구의 재료로는 석회암, 각혈암, 현무암, 화강편마암, 반암, 차돌 등이 리용되였다.

고인들은 작고 날이 예리한 새로운 로동도구들인 긁개, 찌르개, 주먹도끼, 찍개 등을 만들어썼다. 만든 수법은 때려깨기였다.

당시의 로동도구들은 구석기시대 전기의것보다 훨씬 작아지고 날이 예리하여졌다.

구석기시대 중기에 고인들은 무리생활을 하면서 몰이사냥과 채집을 하였으며 불도 사용하였다.

몰이사냥을 많이 한 사실은 10만년전의 유적인 상원군 로동리 고령산 몰이사냥터가 잘 보여준다. 이 사냥터에서는 동굴히에나, 표범, 토끼, 오소리, 족제비, 노루, 승냥이, 큰쌍코뿔이, 말, 복작노루, 누렁이, 꽃사슴, 물소 등 13종에 2 000점의 뼈화석이 발굴되였다.

고인들이 불을 사용한 사실은 승호군 화천동유적의 불무지자리가 잘 보여준다. 불의 리용은 사람들이 추위를 막고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수 있게 하였으며 음식물을 익혀먹음으로써 인체를 더욱 발전시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구석기시대 중기에 사람들은 원인보다 발전된 인체를 가지고 생산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갔다.

구석기시대 후기

우리 나라에서 구석기시대 후기는 5만년전부터 1만 5천년전까지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상원군 룡곡리동굴유적,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동굴유적 웃문화층,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유적 등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인류화석과 로동도구(석기, 뼈도구) 등이 발굴되였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고인은 신인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신인의 화석은 룡곡리동굴유적과 승리산동굴유적 웃문화층에서 나왔으며 그 지명을 따서 《룡곡사람》, 《승리산사람》이라고 부른다.

신인은 발전된 모습과 함께 원시적인 특징을 가지고있다.

발전된 모습을 보면 뇌수용적이 현대사람의 크기(2 000㎤)에 이르고 웃머리뼈와 뒤머리뼈의 불룩이가 발달하였으며 이마가 높고 곧았다.

그리고 아래턱불룩이가 발달하고 손과 발이 발달하여 섬세한 운동을 할수 있었다.

신인은 원시적인 특징도 가지고있었다.

신인을 보면 눈턱뚝의 잔재인 눈두덩이가 두텁게 있고 웃머리뼈의 웃가장자리가 낮고 곧으며 턱구멍의 위치(고인 42.9, 승리산사람 45.1, 현대인 50.8)도 낮고 턱구멍이 (승리산사람의 오른쪽의것은 5mm) 큰것이다. 그리고 머리뼈의 물림선들이 복잡하지 않고 턱불룩이도 잘 발달되여있다.

이처럼 신인들은 원시적인 잔재가 많기는 하나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있었다.

구석기시대 후반기에 로동도구는 더욱 개선되였다.

로동도구의 제료로는 화강석, 흑요석, 차돌, 짐승의 뼈와 뿔 등이 쓰이였고 만드는 방법은 대고때리기, 눌러뜯기수법이 적용되였다.

새로운 석기들로는 새기개, 찌르개, 칼날 등이 나왔고 이외에도 찍개, 긁개, 찌르개 등의 로동도구가 리용되였다.

짐승의 뼈나 뿔로 만든 도구도 있는데 한쪽끝을 갈아서 뾰족하게 한것과 조립식으로 된것이(길이 14cm, 직경 3.8cm) 있다.

구석기시대 후반기의 로동도구들은 형태가 세련되고 날이 예리하여 쓸모가 있는 것들이였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모계씨족제도가 발생하였다.

씨족이란 집단로동을 둘러싸고 혈연적으로 맺어진 견고하고도 항구적이며 긴밀히 결합된 집단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단위였다.

모계씨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당시 녀성들이 집단안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뿐아니라 집단혼이 지배하던 당시의 조건에서 피줄기는 어머니켠으로만 따질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씨족은 어머니켠으로 퍼진 자손들로 이루어진 혈연적인 집단인 모계씨족이였다.

모계씨족사회에서는 씨족공동체의 집단생활을 조직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을 녀성들이 담당수행하였다.

모계씨족사회는 씨족성원들이 공동체적인 관계에 기초하고있었다.

씨족안에서 씨족성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공동소유, 공동분배, 공동소비에 기초한 평등한 관계가 지배한 집단생활을 하였다.

모계씨족사회에서는 《씨족평의회》가 있었다.

여기서는 모계씨족을 운영해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토의결정하였고 씨족장이 있었다.

구석기시대 후기의 사람들은 생산활동을 더욱 넓혀나갔다.

그들은 채집과 함께 짐승사냥을 활발히 벌렸으며 물고기도 잡아먹었다. 이처럼 구석기시대 후기에 신인들은 생산과 사회관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중석기시대

중석기시대란 타제석기를 쓰던 시기로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중간에 놓인 시기를 말한다.

중석기시대는 세석기와 활과 화살을 쓴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우리 나라에서 중석기시대는 1만 5천년전부터 9천년이전까지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승호군 만달리동굴유적, 라선시 부포리 덕산유적, 함경북도 온성군 지경동유적 등이 있다.

이 유적에서는 인류화석과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로동도구(석기, 짐승뼈도구), 짐승화석들이 나왔다.

우리 나라에서 중석기시대에 산 사람으로는 《만달사람》이 있다.

《만달사람》은 1979~1980년에 승호군 만달리 석회암동굴에서 발굴되였다.

동굴에서는 머리뼈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화석들이 발굴되였는데 25~30살정도의 남자의 뼈화석은 유적의 이름을 따서 《만달사람》이라고 부른다.

《만달사람》은 여러모로 《승리산사람》보다 현대인에 가까운 신인이나 원시적인 특징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었다.

《만달사람》에게서 볼수 있는 원시적인 특징은 뼈물림선이 현대사람과 같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머리뼈치수를 대비해보면 《만달사람》은 146mm, 조선옛류형사람은 143.6mm, 현대조선사람은 142.4mm이다.

그리고 앞머리뼈에 긴 불룩이가 남아있고 눈두덩부위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점, 아래턱뼈마디우묵이가 얕은 점 등은 원시적인 표징들이다.

그러나 《만달사람》은 고인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있다.

뇌수용적이 2 000㎤로 현대사람의 크기에 이르고 이마가 높고 상대적으로 곧으며 머리뼈가 전반적으로 둥그스름하고 그 높이가 높은 점이다.

그리고 아래턱뼈도 발전하였는데 그 너비지수를 보면 승리산사람은 114.0인데 만달사람은 108.4로 현대사람에 가깝다.

이밖에 턱구멍의 크기, 위치 등에서도 현대사람에 더 가깝다.

《만달사람》은 현대조선사람의 특징도 가지고있다.

머리뼈가 높고 이마가 곧은 점 등은 조선사람의 기원이 매우 오래며 조선사람의 최초의 모습을 엿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징표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사람은《승리산사람》, 《만달사람》의 후예들로서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에서 발생발전하여온 인류학적집단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중석기시대에 로동도구는 더욱 개선되였다.

로동도구의 재료는 흑요석, 규암, 차돌, 짐승의 뼈와 뿔이고 만든 수법은 대고떼기, 눌러뜯기가 적용되였다.

로동도구를 보면 10㎝미만의 세석기들이고 그 모양은 삼각형, 사다리형, 릉형, 반달형 등 기하학적인 형태이다.

중석기시대는 세석기의 보급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이면서도 로동도구의 개선과 생산활동의 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과 화살이 보급되는 시대로 특징지어진다.

활과 화살의 발명은 원시시대기술발전에서 커다란 변혁이였다.

활과 화살은 다루기 편리하고 먼거리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이 좋아 짐승사냥에서 몇배의 능률을 낼수 있게 하였다. 중석기시대에 사람들의 생활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당시 사람들은 사냥을 많이 하였고 채집과 물고기잡이도 하였다.

그리고 짐승을 길들여 기르는 법도 알게 되였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길들여 기른 동물은 개였다. 중석기시대의 유적들에서 개의 뼈가 나온것은 그러한 사실을 반영한것이다.

중석기시대에 씨족제도도 발전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모계씨족제도하에서 살았다.

이처럼 사람들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끊임없이 증대되여나간 중석기시대에 생산력뿐아니라 씨족제도에서도 발전이 이룩되였다.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란 돌을 갈아서 로동도구를 만들어쓰던 새로운 석기시대를 말한다.

신석기시대는 갈아서 만든 석기와 질그릇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고 농사와 짐승기르기를 활발히 진행한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우리 나라의 신석기시대는 지역별로 나누어진다.

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

B.C. 7천년기부터 B.C. 4천년 전반기까지이다.

② 남부조선, 랴오둥지방, 남연해주를 포함한 동북조선지역

B.C. 6천년기초부터 B.C. 3천년 전반기까지이다.

③ 지린, 창춘지구 B.C. 6천년기 후반기부터 B.C. 4천년기 중엽까지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에 로동도구가 훨씬 개량되고 질그릇을 만들어쓰기

시작하였다.

로동도구인 석기제작에서 새 기술이 창안도입되였다. 그것은 돌을 갈아 석기를 만드는 방법과 구멍을 뚫는 방법이였다.

석기제작에서 새로운 방법의 도입은 석기의 종류를 늘어나게 하고 형태를 더욱 세련시키였으며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게 하였다.

마제석기와 함께 질그릇을 만들어 리용한것은 신석기시대문화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의 하나였다.

질그릇은 음식물을 담고 저장하며 농업과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사냥, 물고기잡이, 채집을 하는데 절실히 필요한것이였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오랜 고심끝에 빚기, 서리기, 테쌓기방법을 적용하여 생활과 생산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그릇을 만들어 용도에 맞게 리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에 생산활동이 더욱 확대되였다.

우선 채집활동으로부터 원시농업이 발생하였다.

구석기시대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채집활동과정에 사람들은 식물의 특성을 알게 되였고 그것을 기상기후조건과 토양의 성질에 맞게 재배할줄 알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원시농업이 발생하였다.

처음 재배한 작물은 피, 조, 기장, 콩, 팥 등이였다.

또한 사냥으로부터 목축이 발생하였다. 물론 중석기시대부터 개를 기르기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뚜렷해진것은 신석기시대부터였다.

구석기시대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한 사냥과정에 사람들은 동물의 성질을 알게 되였고 마침내 개, 돼지를 비롯한 짐승들을 기르게 되였다. 사람들이 짐승을 기를줄 알게 된것은 농업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치는 사냥활동과정에 쌓은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것이였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항구적인 정착생활을 하게 된것이다.

당시 정착생활은 많은 경우 농사를 짓는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한곳에 오래 머물러 살게 되면서 집을 짓게 되였는데 최초의 집은 움집이였다.

신석기시대에 모계씨족사회는 발전하여 절정에 이르렀다.

씨족집단이 커지면 여러개의 작은 씨족으로 갈라졌으며 한개의 씨족에서 갈라진 씨족들로 대씨족을 이루었다.

그리고 혈연적으로 친연관계가 있는 대씨족은 여러개로 부족을 이루었고 부족들사이에는 림시적인 부족동맹이 맺어지기도 하였다.

씨족의 사회적기능이 높아지면서 모계씨족평의회에서는 씨족장과 군사지휘관을 선출하였으며 씨족성원들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도 많아지게 되였다.

씨족은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그대로 붙인 자기의 고유한 이름도 가지고있었다.

당시 사람들속에는 자연과 동물을 숭배하는 아니미즘과 토테미즘이라는 신앙도 있었다.

이처럼 신석기시대는 인류가 목적의식적인 로동을 통하여 재부를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간 시대였다.

조선옛류형사람

우리 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승리산사람》, 《만달사람》 등이 조선사람의 선조인 《조선옛류형사람》을 형성하였다.

《승리산사람》, 《만달사람》에 연원을 둔 조선사람의 선조를 현대조선사람과 구별하여 《조선옛류형사람》이라고 부른다.

조선옛류형사람의 뼈화석은 평양시 강동군 림경산동굴유적에서 발굴되였다.

동굴의 크기는 길이 2.5m, 너비 3.1m, 높이 2m 되는데 동굴안의 퇴적층에서 1개체분에 해당되는 조선옛류형사람의 뼈와 1점의 짐승뼈, 200점의 질그릇쪼각이 나왔다.

조선옛류형사람들은 자기의 고유한 인종적인 특징을 가지고있다.

머리가 짧고 높다.
이마는 곧고 그 너비는 중간정도이다.
얼굴은 얼마간 넓거나 중간얼굴형이다.
광대뼈는 약간 두드려지고 얼마간 넙적하다.
턱은 밋밋하거나 우무러든 형이다.
코는 중간정도이고 눈확은 높다.

이와 같이 조선옛류형사람들은 고유한 인종적특징을 가지고있지만 현대조선사람과 유전학적으로 계승관계에 있다.

① 두 집단은 모두 높은머리형에 속한다.
머리높이지수를 보면 조선옛류형사람은 87.1, 현대조선사람은 88.2이다.

② 두 집단은 모두 턱이 밋밋하거나 우무러든 형이다.
턱의 돌출정도를 표시하는 얼굴각
조선옛류형사람은 85.1
현대조선사람은 84.0

③ 두 집단은 얼굴이 모두 중간형이다.

④ 두 집단은 코가 모두 중간정도로 크다.
코치수
조선옛류형사람은 49.6
현대조선사람은 48.6

⑤ 두 집단은 눈확이 모두 높은 형이다. 눈확의 높이에서 두 집단은 해당 시기 동부아시아에서 제일 높은것으로 이채를 띤다.

⑥ 두 집단은 머리가 모두 짧고 이마가 곧으며 입천정이 넓은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두 집단은 유전학적으로 계승관계를 가지고있는 피줄이 같은 조선사람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일본제국주의 반동학자들을 비롯한 부르죠아반동학자들은 조선사람의 선조와 그 발생지를 외곡하려고 책동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사람은 여기저기서 모여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혼혈족》이며 그 발생지도 아시아대륙의 북쪽 또는 남쪽이였다고 날조하려는데 그 반동적목적이 있었다.

놈들은 지금에 와서도 조선사람의 선조가 《알따이족계렬의 한갈래》라느니 《여기에 고아시아족과 남방민족의 징표가 섞여들고》 또 《고대로부터 중국민족, 일본민족 등이 혼혈되여 조선사람으로 되였다》고 하는 등 황당무궤한 잡소리를 치고있다.

놈들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론거》로서 단편적인 비교언어학적자료 및 신화전설들, 몇가지 원시민속잔재들을 들고있다.

조선사람의 선조와 그 발생지 같은 중요한 과학적문제들을 해명하는데서는 응당 인류학적 및 고고학자료들이 안받침되여야 하며 그와 동떨어진 단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은 그자체가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다.

따라서 놈들의 이와 같은 망설은 철저히 반동적인 《문화이동론》에 기초한것으로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력사적으로 감행해온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것 밖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보여준다.

과학적자료들과 력사적사실들은 조선사람은 오랜 력사적시기를 두고 우리 조국강토에서 형성되여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신석기시대 전기

우리 나라에서 신석기시대 전기는 B.C. 7000년기부터 B.C. 5000년기 말까지이다.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 전기는 문화가 일찌기 창조된 지역과 보다 늦게 창조된 지역 그리고 신석기시대가 일찌기 끝난 지역과 늦게 끝난 지역이 구별되기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 편년되여있다.

신석기시대 전기를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

B.C. 7천년기부터 B.C. 6천년기 전반기까지

유적으로는 봉산군 지탑리유적 제1기층문화와 온천군 운하리 궁산유적 제1기층문화 등이 있다.

② 남부조선, 랴오둥지방, 남연해주를 포함한 동북조선지역

B.C. 6천년기초부터 B.C. 5천년기 전반기까지

유적으로는 라선시 서포항유적 제1,2기문화층, 강원도(남) 양양군 오산리유적, 경상남도 통영시 상로대도유적,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신락유적 제1기층문화 등이 있다.

③ 지린, 창춘지구

B.C. 6천년기 후반기부터 B.C. 5천년기말까지

유적으로는 중국 지린성 눙안현 좌가산유적 제1, 2기층문화, 지린성 눙안현 원보구유적 등이 있다.

신석기시대 전기유적들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집자리와 로동도구, 질그릇 등 여러가지 유물들이 발굴되였다.

신석기시대 전기에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에서는 커다란 진보가 이룩되였다.

우선 조선옛류형사람들은 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하였으며 농사를 지었다.

당시의 집은 지붕형식이 원형과 량면경사의 네모집형이였고 움의 깊이는 1m가 넘었다.

바닥은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흙을 다지거나 불에 구워폈으며 복판에 돌 혹은 강돌을 둘러놓은 화독이 있었다.

문은 대체로 남쪽에 있고 집은 모두 움집이였다.

조선옛류형사람들은 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농사도 짓게 되였다.

그러한 사실은 유적들에서 괭이, 갈돌 등의 농사와 관련된 로동도구들이 나온것이 잘 보여준다.

농사의 시작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그것은 농사가 사람들에게 먹을것을 앞선 시기보다 훨씬 믿음직하게 마련할수

있을뿐아니라 로동도구의 제작과 질그릇제조 등의 발전을 촉진시키였기때문이였다.

조선옛류형사람들은 로동도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개조하였다.

로동도구가 훨씬 개선되였다.

로동도구를 보면 갈기수법이 적용되면서 종류가 늘어나고 형태가 세련되였다.

로동도구로는 석기와 짐승의 뼈, 뿔로 만든것이 있다.

석기로는 괭이, 활촉, 그물추, 칼, 도끼, 긁개, 마치, 숫돌, 닦음돌, 갈돌 등이 있으며 짐승의 뼈, 뿔로 만든것으로는 괭이, 뚜지개, 창끝, 비수, 활촉, 작살, 찍개살, 홀리개, 칼, 삿바늘, 바늘, 송곳 등이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로동도구들로 집과 농사를 지었으며 여러가지 생산활동을 벌리였다.

질그릇도 제조되였다. 질그릇의 재료는 진흙과 모래, 조개껍질가루 등이였고 종류를 보면 항아리, 단지, 바리, 보시기, 잔 등이 있었다.

형태를 보면 아구리는 거의 칼로 벤듯이 곧추 되였고 가운데는 배가 부르고 밑은 납작 혹은 뾰족하였다.

질그릇에는 무늬도 새기였는데 전나무잎무늬, 점선띠무늬, 평행사선띠무늬 등 여러가지가 있다.

질그릇의 색은 기본이 밤색이며 이러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질그릇을 새김무늬질그릇이라고 한다.

질그릇은 모두 600~800℃에서 구워낸 토기이며 빚기, 서리기, 테쌓기방법으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사냥과 물고기잡이도 하고 짐승치기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 유물로 활촉, 창끝, 칼, 작살, 찍개살, 그물추, 홀리개 등이 나오는것은 당시 사람들이 짐승사냥과 물고기잡이를 매우 활발히 진행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 생산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짐승치기가 시작된것이다.

짐승치기는 중석기시대에 그 싹이 나타났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것은 신석기시대 전기부터이다.

개뼈가 신석기시대 전기의 유적들에서 많이 나오는것으로 보아 이 시기 사람들에게 개가 매우 친숙해진 집짐승이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같이 농업에서 목축업이 분리된것을 제1차 사회적대분업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실낳이도 진행되였다.

궁산문화 1기층에서 뼈바늘과 함께 바늘에 베실이 감겨져있는것이 나온 사실에서 실낳이가 널리 진행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신석기시대 전기 모계씨족사회는 더욱 발전하였다.

당시 씨족의 사회적기능이 훨씬 높아졌다.

씨족안의 모든 성원들은 평등하였으며 씨족에는 씨족장과 군사지휘자가 따로 있었다.

씨족장과 군사지휘자는 전체 씨족성원들이 참가하는 씨족회의에서 선출되였다.

이처럼 신석기시대 전기에 생산활동은 더욱 넓어지고 모계씨족사회는 이전보다 한층 발전하였다.

신석기시대 중기

우리 나라에서 신석기시대 중기는 B.C. 6천년기 후반기부터 B.C. 4천년기까지이다.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 중기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

B.C. 6천년기 후반기부터 B.C. 5천년기 전반기까지이다.

유적으로는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제1기층문화,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유적 제2기층문화 등이 있다.

② 남부조선, 랴오둥지방, 남연해주를 포함한 동북조선지역

B.C. 5천년기 후반기부터 B.C. 4천년기 전반기까지이다.

유적으로는 라선시 굴포리 서포항유적 제3기층문화, 부산시 동삼동유적, 랴오닝성 현소두산유적 제2기문화층 등이 있다.

③ 지린, 창춘지구

B.C. 4천년기이다.

유적으로는 지린성 눙안현 좌가산유적 제3기층문화가 있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이 유적들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집자리와 로동도구, 질그릇 등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였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사람들은 신석기시대 전기의것보다 발전된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로동도구와 질그릇을 더욱 개선하여나갔다.

우선 신석기시대 중기의 집은 신석기시대 전기의것을 계승하면서도 변화발전하였다.

집을 보면 거의나 네모집으로서 움의 깊이가 40~60cm로 낮아졌으며 화독은 진흙으로 테두리를 만든것이 있다.

다시말하여 당시의 집은 벽체가 지붕과 분리된 량면경사지붕을 한 네모집이였다.

또한 신석기시대 중기에 로동도구들이 더욱 개선되였다.

신석기시대 중기 생산활동범위가 더욱 넓어짐에 따라 로동도구들은 세분화하여 만들어졌으며 종류가 늘어났다.

로동도구를 보면 공구, 농구, 사냥도구, 물고기잡이도구, 실낳이도구 등으로 나누어져있었다.

공구로는 도끼, 자귀, 끌, 대패날 등이 있는데 자귀, 끌, 대패날은 신석기시대 중기에 새로 만들어진 로동도구이다.

농구로는 보습, 낫, 삽, 괭이, 갈돌 등이 있는데 보습과 삽, 낫은 처음 이때에 만들어진 농구들이다.

사냥도구로는 창끝, 활촉, 단검 등이 있으며 물고기잡이도구로는 작살, 찍개살, 훌리개, 그물추 등이 있다.

이외에도 로동도구로는 가락바퀴와 뼈바늘, 삿바늘 같은것도 있었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이러한 로동도구들은 갈아서 만든 날이 아주 예리한 쓸모있는것들이였다.

다음 질그릇도 쓸모있게 제조하였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질그릇은 신석기시대 전기의것을 계승하면서도 형태에서 발전된 변화를 가져왔으며 무늬형상에서 다양한것이 특징이다.

질그릇을 보면 항아리, 단지, 사발, 바리, 보시기, 잔, 민그릇 등이 있는데 아구리는 밖으로 젖혀졌거나 오무라들었으며 목이 생기고 고리손잡이가 달리였다. 그

리고 질그릇밑에 굽과 발이 달리였다.

질그릇의 무늬도 타래무늬, 덧무늬 등이 새롭게 보인다.

다시말하여 신석기시대 중기의 질그릇은 재료, 형태, 종류, 무늬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신석기시대 중기에 사람들은 생산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원시농업이 더욱 발전하였다.

농업이 발전한것은 앞선 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농사도구들인 보습과 삽, 낫 등이 나온것이 잘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보습농사를 하고 낫으로 알곡작물을 가을하였으며 갈돌을 낟알을 가공하는데 리용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당시 재배한 작물은 피, 조 등이였다.

사냥과 물고기잡이, 집짐승기르기도 계속하였고 실낳이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사냥과 물고기잡이, 집짐승기르기는 농사를 기본으로 하였기때문에 생산활동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으며 실낳이는 가락바퀴가 많이 나오는것으로 보아 이전보다 활발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각품과 치레거리도 만들었다.

인형, 병아리, 뱀모양과 구슬, 비녀, 손목고리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신석기시대 중기에 원시공동체사회는 더욱 발전하였다.

이 시기 모계씨족사회안에서는 부계씨족공동체적요소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신석기시대 중기에 들어와 농사를 비롯한 생산활동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몫이 커지게 되면서 모계씨족사회는 부계씨족사회로 교체되여나갔다.

부계씨족사회에는 역시 씨족평의회가 있었다.

여기서는 씨족장과 군사지휘관을 선거하였으며 씨족공동체사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이처럼 신석기시대 중기에 자연과 사회를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신석기시대 후기

우리 나라에서 신석기시대 후기는 B.C. 5천년기 후반기부터 B.C. 4천년기 중엽까지에 해당된다.

우리 나라의 신석기시대 후기는 발생과 마감을 지역별로 나누어 편년되였다.

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

B.C. 5천년기 후반기부터 B.C. 4천년기 전반기까지이다.

유적으로는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제2기문화층 등이 있다.

② 남부조선, 랴오둥지방, 남연해주를 포함한 동북조선지역

B.C. 4천년기 후반기부터 B.C. 3천년기 전반기까지이다.

유적으로는 라선시 굴포리 서포항유적 제4, 5기문화층, 경상남도 김해시 수가리유적,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스포산유적 등이 있다.

③ 지린, 창춘지구

B.C. 3천년기초부터 B.C. 3천년기 중엽까지이다.

유적으로는 중국 지린성 둥펑현 서단량산유적 등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수많은 집자리와 로동도구, 질그릇 등 기타 유물들이 발굴되였다.

신석기시대 후기에 사람들은 중기의것보다 발전된 집을 짓고 살면서 더욱 쓸모있는 로동도구와 질그릇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우선 신석기시대 후기의 집은 중기의것을 계승하면서도 발전하였다.

신석기시대 후기의 집을 보면 움의 깊이가 50cm이하로 얕아지고 공동시설물과 두칸짜리집이 새로 생겨났으며 룡마루를 한 천정구성을 가지였다.

또한 로동도구도 더욱 개선되였다.

농사와 관련한 도구로는 곰배괭이, 갈돌, 낫, 뿔괭이 등이 있으며 이 시기 반달칼이 새로 만들어져 쓰이였다.

공구로는 도끼, 자귀, 대패날, 끌, 마치 등이 있으며 이때 달도끼가 새로 나타났다.

사냥도구로는 활촉, 창끝, 칼 등이 있으며 버들잎모양의 활촉은 이 시기 처음 보이는것이다.

물고기잡이도구로는 그물추, 작살, 낚시, 찍개살 등이 있고 묶음식낚시는 어로도구로 새롭게 보이는것이다.

실낳이도구로는 가락바퀴가 있으며 이외에도 송곳, 바늘, 긁개, 숟가락 등이 있다.

이 로동도구들은 모두 갈기, 자르기, 뚫기방법을 적용하여 아주 쓸모있게 만든것이였다.

다음 질그릇도 더욱 용도에 맞게 제조하였다.

질그릇을 보면 저장용그릇, 화식용그릇, 식기류 등인 독, 항아리, 단지, 바리, 사발, 고뿌, 접시, 보시기, 잔, 민그릇 등이 있으며 무늬도 전나무잎무늬, 삼각형무늬, 번개무늬, 돋을무늬, 덧무늬 등과 여러가지 무늬를 배합한것이 있다.

신석기시대 질그릇의 특징은 종류가 저장용, 화식용, 식기류 등으로 다양해지고 무늬가 새김무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배합된 무늬가 많으며 붉은색을 비롯한 여러가지 색칠을 하는 방법으로 장식한 붉은간그릇, 밤색간그릇 등이 있는것이다.

신석기시대 후기 당시 사람들은 발전된 농구들인 곰배괭이, 반달칼, 낫, 갈돌 등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며 사냥, 물고기잡이, 집짐승기르기, 실낳이와 천짜기도 진행하였다.

특히 조개를 비롯한 바다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리고 여러가지 인형과 짐승, 새모양치레거리 등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신석기시대 후기에 부계씨족사회는 더욱 발전하였다.

부계씨족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씨족의 사회적기능이 약화되였으며 가부장적가족제도를 출현시키였다.

가부장적가족제도란 남자를 중심으로 한 여러 세대의 친족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대가족을 말한다.

여기서 토지와 생산수단들은 공동소유였고 생산, 소비도 집단적으로 하였다.

이것을 가부장적가족공동체 혹은 가부장적세대공동체라고 한다.

이 공동체에는 씨족평의회가 있었다.

씨족평의회에서 씨족장과 군사지휘관을 선거하며 씨족안의 모든 문제를 토의결

정하였다.

부족도 이루고 생활하였다.

부족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었고 언어, 전통적인 종교행사, 부족평의회가 있었다.

부족평의회에서는 부족장과 군장, 씨족장들이 부족전체의 리해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그러나 부족은 혈연적으로 친연관계에 있는 씨족들의 련합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신석기시대 후기에 사람들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과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나갔다.

청동기시대

이 시대는 원시사회말기 청동으로 로동도구를 만들어쓴 시기이다.

우리 나라에서 청동기시대는 B.C. 4천년기 후반기부터 B.C. 3천년기초(국가성립이전)까지이다.

유적으로는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팽이그릇시기 제1기층의 집자리유적,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유적, 황해북도 연산군 공포리 돌관무덤, 황해북도 사리원시 상매리돌관무덤 등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유물들이 발굴되였다.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은 발전된 집을 짓고 살면서 발전된 무기류와 로동도구, 질그릇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우선 땅우에 량면경사지붕을 씌운 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당시의 집은 움집으로부터 땅우집으로 발전하였는데 방안에는 바닥을 일정하게 파고 강돌을 둘러놓은 화독이 있었다.

또한 청동으로 여러가지 무기 및 로동도구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청동을 발명한것은 생산활동에서 하나의 사변이였다.

청동은 인간이 처음으로 발견한 금속이 아니였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연동을 발견하여 금속제품을 만들었다.

그후 사람들은 오랜 고심끝에 1 000℃의 높은 온도에서 구리를 얻어내여 로동도구를 만들었으나 그것은 무르기때문에 주로 장식품재료로 쓰이였다.

그후 탐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주석, 아연, 연 등을 섞어서 청동을 얻어내여 여러가지 로동도구와 무기 등을 만들게 되였다.

청동기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석기시대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금속문화의 시작을 열어놓았고 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였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류와 도구로는 청동활촉과 기타 단추모양청동기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청동기와 함께 석기들도 쓰이였다.

이 시기 돌로 만든 무기류인 도끼(달도끼, 별도끼), 활촉, 창끝, 단검, 곤봉대가리 등과 공구류, 농구류로서 도끼, 끌, 대패날, 반달칼, 갈돌, 곰배괭이 등이 있다.

뼈로 만든 도구로는 송곳, 바늘, 숟가락, 바늘통 등이 있다.

로동도구들은 전시기에 비할바없이 종류가 늘어나 세분화되고 형태와 모양이 세련되였으며 날이 예리하여졌다.

이 시기 질그릇도 많이 만들어 리용하였다.

청동기시대에 질그릇의 용도상 구분이 뚜렷해지고 그 품종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형태가 훨씬 개선되였다.

저장용기, 화식기 등의 구분이 더욱 뚜렷해지고 밤색민그릇과 검정 및 붉은간그릇, 시루 등이 만들어졌다.

질그릇에는 독, 항아리, 팽이그릇, 조롱박형단지, 접시, 바리, 보시기, 뚝배기, 잔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청동기시대에 생산활동이 더욱 확대되였다.

보습농사가 진행되고 벼, 조, 기장, 콩, 팥 등 5곡이 재배되였으며 농업에서 수공업이 분리되는 제2차 사회적대분업이 일어났다.

그리고 집짐승기르기와 사냥, 물고기잡이가 활발히 벌어지고 교역(화페로는 알곡, 집짐승, 돌돈, 조개돈)도 진행되였다.

청동기시대에 부계씨족사회는 더욱 발전하였다.

씨족의 사회적기능이 약화되고 경제생활의 단위가 소가족으로 분화되였다.

가부장적가족으로부터 소가족이 발생하면서 생산 및 소비를 독립적으로 하는 경제단위가 나타나게 되였다.

씨족, 부족평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더욱 강화되였다.

씨족장, 부족장, 군사수장 등의 권한이 커지고 역할이 강화되였으며 전쟁참가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의무들이 지워졌다.

무덤도 여러가지 형식으로 쓰게 되였다.

고인돌무덤, 돌관무덤을 비롯한 움무덤 등을 만들어 주검을 처리하는 매장풍습이 있었다.

고인돌무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우리 선조들이 리용한 무덤형식으로서 청동기시대말기에 널리 쓰이였다.

이 무덤은 고인돌과 뚜껑돌로 둘러막았는데 그안에 주검칸을 얇은 판돌로 네모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것으로 침촌리고인돌무덤을 들수 있다. 이런 무덤은 주로 씨족장, 종족장, 군사우두머리들에게 해당되였다.

돌관무덤은 세움돌과 막음돌을 가지고 돌관을 조립한 형식의 무덤이다.

움무덤은 구뎅이를 파고 주검을 처리한 형식의 무덤이다.

이처럼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시공동체사회는 더욱 발전하였다.

원시공동체사회의 문화

원시문화

원시공동체사회의 사람들이 창조한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와 사회관계의 총체를 말한다.

원시문화의 특징은 무계급성을 띠며 유치하고 락후한것이다.

원시문화에는 원시지식과 예술, 원시신앙 등이 속한다.

원시문화는 비록 유치하고 락후한것이였으나 인류문화발전의 시초를 열어놓았고 고대문화를 창조할수 있는 밑천으로 되였다.

원시지식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사람들이 창조적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일정한 리치와 변화발전법칙을 깨닫게 되면서 얻어낸 지식을 말한다.

원시지식에는 소박한 의사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 창조된 언어와 채집과 원시농업, 사냥과정에 동식물의 특성, 계절, 집짐승(개, 돼지, 소, 말), 불에 대하여 그리고 의학(마늘, 쑥), 수자(1, 2, 3, 4, 5, …), 기상천문현상에 대한 원시적리해, 교역과정에 나온 화폐수단의 적용 등이 속한다.

원시지식은 당시 사람들이 사회와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원시예술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사람들은 창조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감정과 정서를 선률, 률동, 선 등으로 표현하는 수법을 창조하였다.

원시예술에서는 우선 전쟁승리, 사냥성공, 한해농사를 한 다음 진행한 노래와 춤이 대표적이다.

라선시 서포항유적에서 구멍이 13개이고 길이가 17cm인 뼈피리가 발굴되였다.

또한 조각품과 그림도 있다.

돌과 짐승의 뼈와 뿔, 이발, 진흙으로 만든 함경북도 청진시 농포유적에서 나온 녀자인형, 석장리유적에서 나온 뱀, 물고기, 고래, 개, 돼지, 새, 사슴, 좌가산유적 2기층에서 나온 룡조각 등과 바위벽에 그린 타래무늬(함경북도 무산군 지초리), 물결무늬(울산시 울주군), 사람이 춤추는 장면, 창으로 사냥하는 장면, 배탄 사람이 고래, 물고기를 잡는 장면, 그물로 짐승을 사냥하며 목책을 세워 범의 침습을 막는 장면 등은 원시예술의 일단을 보여준다.

원시예술의 특징은 무계급성을 띠고 생산활동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었으며 예술형상수준이 낮으면서도 원시신앙과 많이 결부되여있는것이다.

원시예술은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사람들이 창조적활동을 하면서 미적정서와 감정을 반영하는 과정에 창조된것이였다.

원시신앙

원시신앙은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원시인들이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미약한데로부터 자연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존재와 그 힘을 믿은것을 말한다.

원시인들이 원시신앙을 믿게 된 원인은 우선 당시 사람들이 소유하고있는 지식이 미약하였기때문이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장 단순한 현상에 대하여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였다.

즉 굶주림, 각종 질병, 맹수들의 습격, 번개, 우뢰, 지진, 폭풍, 홍수 등에 대하여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때문에 그들은 자연현상에 대한 신비와 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환상과 숭배심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자연과의 투쟁에서 무능력하였기때문이다.

도끼, 괭이, 낫, 반달칼 등을 비롯한 락후한 로동도구들을 가지고 거치른 자연과 맞서야 하였던 당시 사람들은 자연의 파괴적인 힘에 대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였고 그들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자연현상을 신비한 그 무엇인가의 조화로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숭배하게 되였다.

원시신앙에는 물활론, 토테미즘, 샤마니즘, 조상숭배 등이 있었다.

· 물활론 (아니미즘)

모든 자연물(만물)에 령혼(넋)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의 요소와 힘을 숭배하는 신앙이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늘에는 천신(광명과 비를 준다.), 땅에는 지신(오곡백과를 자래운다.), 강에는 강신(메마른 땅을 적시고 물고기를 자래운다.), 산에는 산신(온갖 초목과 짐승을 자래운다.) 등과 자연계의 모든 물체에 령혼이 있다고 믿었다.

· 토테미즘(동물숭배)

원시공동체사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씨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물을 숭배했던것을 말한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은 사냥과 원시농업을 하는 과정에 일정한 동물과 련관을 가지게 되였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씨족집단과 련관이 있는 동물에서 자기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자기의 씨족집단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씨족과 련관이 있는 동물을 숭배하기 시작하였고 씨족명, 종족명도 동물의 이름을 따서 붙이였다.

실례로 단군신화에서 범, 곰이 나오는것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것이다.

· 샤마니즘(마법)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자기들의 생활에 유리하게 리용할수 있다고 믿었던것을 말한다.

미신적행위로서 원시인들은 처음 인간의 운명에 작용하는 귀신 또는 초자연적인 힘을 제사하고 빌면 그것을 유리하게 리용할수 있다고 환상을 가지게 되였다.

이로부터 원시인들은 처음 마법을 누구나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자기의 뜻대로 일이 잘 안된다는것을 느끼고 마법도 신과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들만이 신과 의사를 통한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원시인들의 이러한 심리를 리용하여 어떤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신과 긴밀한 련관이 있는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이 출현하였는데 이자들이 곧 무당(샤만)이였다.

무당들은 주로 하늘에 대한 제사 혹은 미신적인 의식에 참견하여 주관함으로써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씨족장은 거의다 무당이였다.

· 조상숭배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숭배했던것을 말한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은 생명이나 꿈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였기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령혼(넋)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서 원시인들은 육체속에서의 령혼의 존재는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로 될뿐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의 원천으로 되며 반대로 육체로부터 령혼의 리탈은 정신활동의 중단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령혼은 후손들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조상을

숭배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원시인들이 무덤을 잘 만들고 껴묻거리를 묻은것이 잘 보여준다.

원시신앙의 해독성은 우선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이 주위세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한것이며 또한 원시사회말기 공동체성원들에 대한 착취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한것이였다.

고대(노예소유자사회)

우리 나라에서는 B.C. 30세기초에 단군에 의하여 고조선이 성립됨으로써 원시공동체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고대국가가 단군조선이라고 처음으로 밝혀진것은 단군릉이 발굴되고 단군의 유골이 B.C. 30세기초의것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된 결과에 의한것이다.

고조선은 오늘의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발전하였다.

B.C. 30세기 중말엽 고조선의 령역은 조선반도와 랴오둥지방, 쑹화강상류지방 이남, 두만강류역, 연해주남부지역을 포괄하고있었다.

B.C. 15세기 중엽 고조선에서는 단군조선왕조가 후조선왕조에 의하여 교체되였다.

동시에 B.C. 15세기 중엽에 고조선의 후국이였던 부여, 구려가 독립세력으로 장성하면서 고대국가를 세웠다.

그리고 B.C. 12세기이전에는 조선반도의 남부에 고조선의 후국으로 있던 진국이 독립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고조선, 부여, 구려, 진국이라는 4개의 고대국가가 존재하게 되였다.

고조선, 부여, 구려 , 진국은 모두 노예주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국가였다.

고조선의 후조선왕조는 B.C. 194년에 만왕조와 교체되는 사변도 겪었다.

고대국가들은 중앙과 지방에 정연한 통치기구와 노예주계급의 리익을 대변한 법과 군대를 가지고있었으며 노예소유자적경리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제도가 있었다.

고대국가들은 농업을 비롯한 경제가 발전하였으나 노예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과 봉건관계의 발생발전,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으로 점차 쇠퇴몰락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고조선은 B.C. 108년에, 부여는 B.C. 219년에, 구려는 B.C. 277년에, 진국은 1세기초 중엽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고조선을 비롯한 고대국가들의 멸망은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르는것으로서 새로운 봉건국가제도의 발생을 알리는 하나의 력사적사변이였다.

고 조 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이며 우리 나라의 첫 노예소유자국가입니다.**》(《**김일성**전집》 제85권, 42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많은 력사적문제들과 함께 고조선과 노예사회문제에 대하여서도 명철한 해명을 주시면서 민족의 력사를 찾아내고 빛내여주시였다.

일제와 반동사가들은 첫 고대국가를 세운 단군을 력사에서 제거하고 《기자동래설》(중국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나와 나라를 세워주었다는 궤변)과 우리 나라에는 노예사회가 없었다는 날조된 《학설》을 들고나와 첫 노예소유자국가인 고조선의 존재를 부인하고 력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였다.

게다가 사대주의사가들은 대국주의사가들의 궤변에 장단을 맞추어《기자동래설》을 주장하면서 평양에 《기자묘》라는것까지 만들어놓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학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고대력사발전의 독자성에 관한 문제로서 조선민족이 자주적으로 고대문명을 이룩하고 고대국가를 세웠는가 못 세웠는가 하는 민족의 존엄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언제나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빛내주시려는 숭고한 뜻을 지니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군릉을 발굴하도록 하시여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을 확증해주시였고 모란봉에 있던 《기자묘》를 파보게 하심으로써 《기자동래설》의 허황성을 낱낱이 발가놓게 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첫 노예소유자국가였던 고조선문제를 정확히 밝힐수 있도록 제반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2(1963)년부터 주체54(1965)년까지의 기간에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들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발굴대를 무어주시고 그의 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리하여 발굴대는 랴오둥반도의 남쪽끝에서 중국의것과는 전혀 다른 비파형단검을 비롯한 무기류들과 백수십명의 노예를 순장한 B.C. 2천년기의 강상무덤을 찾아내게 되였다. 발굴대는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강동군과 성천군 룡산리와 모란봉일대에 대한 발굴사업을 진행하여 단군과 그의 안해의 유골과 고조선초기의 순장무덤을 찾아냈다.

무덤은 고조선이 단군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상당히 발전한 노예소유자국가로서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여왔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고조선의 성립

고조선은 B.C. 30세기초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 세워진 우리 나라의 첫 노예소유자국가이다.

고조선을 세운 주민은 조선옛류형사람들의 후손들인 고대조선족이다.

옛 문헌들에는 고대조선족을 《부루》, 《불》, 《박》, 《새》, 《한》(중부조선이남지역) 등으로 기록하고있는데 그것은 다같이 《밝음》, 《광명》을 나타내는 옛 우리 말들이다.

해(태양)를 주되는 신으로 숭배하던 옛날 우리 선조들은 밝음, 광명을 주는 해신의 후손으로 자처하면서 자기들의 족명을 그러한 명칭으로 불러왔다.

이들을 통털어 《고대조선족》이라고 한다.

고조선을 세운 시조왕은 단군이였다. 단군은 평양에서 태여나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을 창건하였다.

단군을 고조선을 세운 왕으로 보는 근거는

첫째로, 단군의 유골이 발굴되고 단군릉에서 금동으로 만든 왕관앞면세움장식(복숭아씨모양)과 돌림띠쪼각이 나온것이다.

둘째로, 단군릉주변의 고장이름인 《대박산》, 《아사달》 등이 단군신화에 나오는 《박달》, 《아사달》 등과 통하고있기때문이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는 건국과정은 《단군신화》에 일정하게 반영되여있다.

《단군신화》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첫 왕인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있는 전설이다.

우리 나라의 옛날 책들인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기록되여있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의 기사만 보아도 알수 있다.

단군신화에는 B.C. 30세기말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생활형편이 반영되여있으며 고조선의 건국과정이 담겨져있다.

즉 신화적인 요소만 벗겨버리면 고조선이 다음과 같이 건국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단군이 태여나기전은 환웅의 시대였다.

당시 평양일대에는 하늘을 최고신(조상신)으로 숭배하는 종족이 동물을 숭배하는 종족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회적집단을 이루었다.

이 집단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것은 하늘신을 믿고있는 종족이며 그 추장은 바로 환웅이였다.

환웅은 곰을 토템으로 하고있는 종족의 우두머리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그리하여 출생한것이 바로 단군이였다.

단군이 성장하던 시기 씨족귀족들로는 풍백, 우사, 운사 등이 있었으며 일반공동체성원들은 3 000명 있었다.

그후 환웅이 죽자 추장이 된 단군은 계급적분렬과정이 촉진되고 사회생활이 복잡하여지자 원시적인 정치기구들을 계급간, 종족간의 대립을 억제하기 위한 폭력기구로 점차 발전시켜나갔다.

그리고 군대, 경찰과 같은 폭압무력도 조직하였다.

단군은 이에 기초하여 B.C. 30세기초에 평양을 중심으로 첫 고대국가를 세우고 왕이 되였다.

이처럼 단군신화는 원시사회말기 원시공동체사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고대국가가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건국설화의 하나이다.

고조선의 초기령역은 평양일대를 중심으로 한 한강이북과 청천강, 압록강하류류역에 걸치는 서북조선일대였다.

고조선의 성립은 우리 나라 력사에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펼쳐놓고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조선민족형성의 결정적계기를 열어놓은 하나의 큰 사변이였다.

《기자동래설》

대국주의적중국봉건사가들에 의하여 날조된 력사학설이다.

B.C. 3세기 진나라의 복생이 《상서대전》에서 처음 날조하였다.

내용을 보면 고대 주나라초기인 B.C. 11세기 중엽에 은나라왕족출신인 기자가

조선(고조선)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켰다는것이다.

다시보면 주나라무왕은 은나라를 정복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은나라왕족인 기자를 놓아주었는데 그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왕실의 용서를 받는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조선으로 달아났으며 이 소식을 들은 주나라무왕은 그를 조선후로 임명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기자동래설》이 완전히 날조된 학설이라는것은 다음의 사실이 보여준다.

우선 진나라사람 두예는 자기의 저서에서 기자의 무덤이 량국몽현(중국 허난성)에 있다고 한것이며 다음 고조선의 문화주류가 이 설의 부당성을 실증해주고있다는 것이다.

만일 기자가 수백명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조선에 와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켰다면 응당 문화의 주류는 중국의것이여야 한다.

그러나 고조선의 로동도구, 건축문화를 대표하는 비파형단검, 좁은놋단검, 질그릇, 무덤 등 모든것은 고대중국의 문화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평양 모란봉에 있던 《기자묘》의 정체가 잘 말해준다.

모란봉에 있던《기자묘》를 발굴한데 의하면 깨진 벽돌장 및 사기그릇쪼각 몇개밖에 없었다.

만일 가자가 조선을 세운 사람이라면 조상숭배심이 강한 고조선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무덤을 만들고 유물도 넣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모든것은《기자동래설》이 대국주의사가들에 의하여 날조된것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고조선의 통치기구

중앙통치기구

단군조선은 초기부터 세습적인 군주제형태의 왕조를 세우고 중앙과 지방에 통치기구를 설치하였다.

나라의 최고통치권은 왕에게 속해있었고 왕의 지위는 그의 자손들에게 세습되였다.

왕밑에는 호가(수석《가》로서 여러 《가》들을 통솔), 마가(국가문서취급), 우가(농업), 웅가(국방), 응가(형벌), 로가(보건), 학가(도덕륜리), 구가(지방통솔) 등이 있었다.

《가》는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말이며 대신급의 중앙관료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였다.

제가평의회

중앙의 대신급《가》들을 비롯한 그밖의 고위층관료귀족들을 망라한 귀족민주주의평의회기구를 말한다.

제가평의회에서는 왕위계승문제, 전쟁과 평화, 중죄인에 대한 형벌 및 대사, 흉년구제문제, 제천행사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제가평의회는 소수의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독재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조선의 계급신분관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적대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김정일**선집》 제5권(증보판), 93페지)

고조선의 지배계급, 착취계급은 노예주계급이였다.

노예주들은 신분적으로는 기본상 귀족이였다.

노예주계급은 중요벼슬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많은 토지와 노예를 소유하고 피압박대중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였다.

노예주계급은 대노예주와 중소노예주계층으로 갈라져있었고 제천행사 등을 주관하던 신관계층이 포함되여있었다.

고조선의 피지배계급, 피착취계급은 자영소농민을 비롯한 평민과 노예계층이였다.

평민에는 호민, 민(자영소농민), 수공업자, 상인, 하호 등이 있었는데 호민은 평민의 상층으로서 생산수단을 평민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노예와 하호를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계층이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제상 착취자에 속하였다.

기본계층은 자영소농민이였다.

자영소농민은 일정한 토지를 가지고 자체로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국가에 조세, 공물을 수탈당하고 군역(군사복무)의 의무를 졌다.

하호는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노예주와 호민층들에게 착취당하였으며 가정을 가지고 평민의 신분에 속하였다는 점에서 노예와 구별되였다.

평민중에서도 자영소농민과 하호는 부단히 몰락하여 노예로 굴러떨어졌다.

고조선에는 최하층신분에 속하는 노예도 있었다.

노예는 국가와 노예소유자들에게 완전히 예속된 아무러한 정치, 계급적권리도 없는 사람이였다.

그들은 가정을 가질수 없고 말하는 도구, 짐승이나 물건으로 취급당하였으며 매매, 양도, 순장되였다.

고조선의 주민은 이렇게 노예주계급을 한편으로 하고 노예와 평민을 다른편으로 하는 적대되는 두 계급으로 갈라져있었으며 이 두 계급사이의 치렬한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었다.

고조선의 경리형태

고조선에는 노예소유자적인 사회경제관계가 확대되면서 여러가지 경리형태가 존재하였다.

고조선의 경리형태는 크게 노예소유자적인 경리형태와 자영소농민적경리형태, 공동체적경리형태로 이루어져있었다.

이 경리형태에는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던 노예제경리와 개별적인 노예주들이 경영하던 경리가 있었다.

국가나 노예주들은 형벌과 채무, 전쟁포로 등 여러가지 공간을 통하여 노예수를 늘이면서 노예소유자적경리형태를 확대해나갔다.

자영소농민적경리형태는 량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것은 평민의 기본계층이 자영소농민이였던것과 관련되였다.

농촌공동체적경리형태도 있었다.

이 경리형태는 변방에 주로 있었는데 노예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노예소유자적경리형태로 전환되여갔다.

공동체적경리형태는 부락에서 공동으로 리용하는 산, 하천, 목초지와 부락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천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경작하는 토지 등이 속하였다.

후조선왕조의 교체

단군이 세운 고조선왕조는 점차 노예를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과 정치경제적힘을 키워 강해진 후국들의 분립책동에 의하여 점차 쇠퇴몰락하였다.

바로 이러한 환경속에서 B.C. 15세기 중엽에 단군왕조의 고조선에서는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B.C. 15세기 중엽에 고조선에서는 1500년 가까이 존속해온 단군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세워졌다.

이 왕조를 력사에서는 《후조선》이라고 한다.

후조선의 출현은 새 나라의 성립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본질상 고조선국가안에서 일어난 왕조교체였으며 전조선(단군조선)의 계승국이였다.

새 왕조의 집권층은 여전히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부르며 저들이 세운 나라를 전조선을 계승한 나라로 간주하였고 수도도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정치제도, 경제제도, 계급관계, 문화도 전조선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이것은 왕조교체가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후조선이 단군조선의 계승국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후조선이 단군조선의 계승국이였다는것은 후조선을 세운 왕이 전조선의 마지막왕과 그 후손들에게 높은 대우를 해준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삼국유사》의 《고기》에는 후조선의 성립과 관련한 기사와 단군조선의 마지막왕과 그 일족들을 잘 대우해준 자료가 있다.

즉 새 왕조를 세운 왕이 단군조선의 마지막왕과 일족들에게 옛 부수도인 당장경(장당경)일대를 봉지로 떼여주고 이곳을 지배하면서 살아갈수 있게 해주었다는것이다.

후조선의 수도는 평양(왕검성)이였다.

후조선의 초기령역은 후국들의 분립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서쪽은 오늘의 만리장성근방, 란하일대까지였으며 남쪽은 진국과, 북쪽은 부여와 린접하고 동쪽은 조선동해해안까지였다.

후조선의 중앙통치기구는 초기에 전조선의것과 같았으나 말기인 B.C. 3~B.C. 2세기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변화된 중앙통치기구를 보면 왕, 비왕, 상, 대부, 대신, 박사,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여기서 비왕은 왕의 정치를 돕는 가장 높은 벼슬이며 상은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왕에게 충고를 줄수 있는 관리이며 대신은 고위급관리이며 박사는 왕의 고문격으로서 정책수립, 문서작성을 하는 관리이며 장군은 군사를 말아보는 최고무관직이였다. 후조선의 지방통치단위로는 왕이 다스리는 직할지와 소읍이 있고 그밑에 읍락이 있었다.

후조선의 법《범금8조》

후조선에는 발전된 성문법인 《범금8조》가 있었다.

오랜 성문법인 《범금8조》는 원래 8개 조항으로 되여있었으나 현재 《한서》지리지에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있다.

3개 조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는 곡식으로 값을 갚아야 한다.
·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자는 그 집의 노비(노예)로 만든다. 만일 도적질한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

이 법률조항들은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되여있고 범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것처럼 되여있지만 실지로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전적으로 대변하고있다.

법조항에서 형벌의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을 죽인자》,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자》라는것은 노예주들의 학정을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들을 념두에 둔것이다.

따라서 첫째 조항은 노예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주성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할것을 노린것이고, 둘째 조항 역시 곡물배상과 같은 경제적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인민들의 반항을 억누르며 배상을 구실로 인민들을 채무노예로 만들기 위한것이며, 셋째 조항은 노예주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형벌노예의 원천을 권력으로 뒤받침해준것이였다.

《범금8조》는 이처럼 노예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신성불가침》한것으로 옹호하고 노예를 비롯한 피압박인민들의 반항을 가혹하게 탄압할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였다.

후조선의 군사력

후조선은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의 반항을 억누르고 대외적으로는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한 10만의 강력한 상비무력을 가지고있었다.

왕밑에 최고무관벼슬로서 장군이 있어 군사기관들을 통솔하였고 수도와 지방중심지, 국경지대에 상비적인 군대가 배치되여있었다.

군대는 무기, 무장이 우수하였다.

유적들에서 비파형단검, 좁은놋단검, 좁은놋창, 청동과 돌, 철로 만든 장검, 단검, 가지창, 과 등이 발굴된것이 잘 보여준다.

특히 《락랑단궁》, 쇠뇌(기계활), 긴창은 매우 우수한 무기로, 《과하마》(키작고 날랜 말)는 유명한 말로 이웃나라에 널리 알려져 이름떨치였다.

후조선의 군사력이 매우 강하였다는것은 B.C. 4세기말 연나라를 맞받아칠 기세를 보이면서 대부대를 파견하여 적의 무력침공기도를 파탄시키였다는 옛기록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 기록은 당시 후조선이 수십만의 보병과 전차 700여승, 기병 6 000명을 가지고있던 연나라를 압도할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노예순장제도를 보여주는 무덤

고조선시기에는 노예소유자적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여 노예순장이 널리 감행되였다.

노예순장이 널리 감행된것은 B.C. 30세기초의것인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 고인돌무덤과 B.C. 2천년기 중엽~말엽의것인 중국 랴오닝성 다리엔시 감정자구 후목성역의 강상무덤과 금현 동가구 와룡천무덤이 잘 보여준다.

성천군 룡산리 고인돌무덤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의 고인돌무덤은 B.C. 30세기초에 건설된 단군조선시기의 노예순장무덤이다. 무덤은 하부구조가 11칸으로 된 하나의 큰 집합식고인돌무덤으로서 동서 4.7m, 남북 3.6m의 크기를 가지였으며 30명분의 사람뼈가 나왔다.

무덤칸의 배치를 보면 중심에 한개의 노예주무덤칸이 있고 북, 남쪽에 각각 2

개, 동서쪽에 각각 3개가 있다.

노예주의 무덤칸은 길이 2.17m, 너비 1.04m이고 한장의 편마암돌로 바닥을 만들었다.

작은 무덤칸은 큰것이 길이 1.30m, 너비 1.22m, 작은것이 길이 1.08m, 너비 0.98m로 바닥에 돌쪼각을 깔았다.

무덤칸들의 이러한 배치상태와 구조는 중심에 묻힌 사람과 그밖의 무덤칸에 묻힌 사람들이 철저히 주종관계에 놓여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무덤에서 나온 사람뼈를 보면 중심의 큰 무덤칸에서 2명분, 작은 무덤칸에서 3~4명분의 뼈가 무질서하게 있는것이 나왔다.

그리고 무덤에서는 청동기쪼각과 돌도끼, 팽이그릇쪼각 등이 얼마간 나왔다.

이 무덤은 노예주와 노예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고조선초기의것으로서 고조선은 초기부터 노예제에 기초한 노예소유자국가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강상무덤

강상무덤은 B.C. 2천년기의 무덤으로서 한명의 노예주를 위하여 140여명의 노예를 파묻어죽인 큰 순장무덤이다.

무덤은 동서길이 28m, 남북길이 20m정도의 무덤구역안에 20여개의 무덤구뎅이를 만들고 거기에 노예를 순장한 다음 그우에 막돌을 덮은 돌무지무덤이다.

무덤구역안의 중심에는 노예주가 묻혔던 7호무덤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노예를 순장한 16개의 무덤들이 빙둘러 배치되여있으며 7호무덤을 원점으로 하여 방사선모양의 돌줄이 사방으로 뻗어있다.

노예주를 묻은 7호무덤은 판돌을 다듬어 묘곽을 만들었지만 노예들의 무덤은 되는대로 만들었고 무덤구뎅이들은 대체로 길이 2~2.3m, 너비 0.6~1.4m 되는 작은것들이다.

한구뎅이에 보통 2~3명, 많은것은 18명씩 마구 묻어놓았다.

강상무덤에서는 비파형단검을 비롯한 유물이 864점 나왔다.

강상무덤은 노예주를 위하여 죽음을 강요당한 노예들의 비참한 처지와 후조선순장제도의 가혹성을 잘 보여준다.

만왕조의 교체

후조선에서는 B.C. 3~B.C. 2세기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여 노예를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 외래침략자들의 침입도 빈번해져 국력이 점차 약화되였다.

특히 B.C. 3세기초에 후조선은 진의 침입으로 서쪽지역의 일부를 일시 빼앗기게 되였다.

그후 진나라는 말기에 이르러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여 진승의 폭동이 일어나 통치체계가 흔들리던 때인 B.C. 209년경에 후조선사람들의 후손인 만이 1 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데리고 패수(다링하)를 건너서 귀국하였다.

당시 후조선의 준왕은 귀국한 만을 신임하여 박사의 벼슬을 주고 서변의 100리땅을 지키게 하였다. 만의 후국은 패수동쪽의 요양하서쪽에 있었고 중심지는 험독이였다.

이때부터 만은 군사적힘을 키우면서 자기 주위에 정치세력들을 집결시키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B.C. 195년에 한나라의 제후인 로완이 반란을 일으켜 중국일

대는 전쟁마당으로 전변되였다.

한나라왕실은 주발을 토벌군 총대장으로 임명하여 로완의 반란을 진압하게 하였다.

주발이 이끄는 토벌군은 반란을 평정하면서 후조선의 변경으로 다가왔으며 이 전란을 피하여 한나라인민들이 후조선으로 밀려들었다.

정치군사적힘을 키워 후조선의 왕이 되려고 꾀하던 만은 준왕에게 한나라침략자들이 쳐들어오므로 왕궁을 보위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마대를 이끌고 수도에 들어와 정변을 일으키였다.

준왕은 할수없이 배를 타고 마한지역으로 쫓겨내려갔다.

그리하여 B.C.194년에 천수백년간 존속해오던 준왕조가 무너지고 만왕조가 서게 되였다.

만왕조 역시 나라이름을《조선》이라고 불렀고 수도도 왕검성(평양)에 그대로 자리잡았다.

만왕조 역시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정권이였다.

고조선-한전쟁, 고조선의 종말

중국에서는 B.C. 206년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섰다.

한나라태조 무제는 흉노와 주변나라들에 대한 정복전쟁을 끝내자 고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후조선은 한나라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되자 무제는 B.C. 109년에 섭하라는자를 사신으로 고조선에 파견하여 우거왕을 제놈에게 복종하도록 회유하였다.

그러나 우거왕의 단호한 립장으로 하여 제놈들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섭하는 돌아가는 길에 국경 패수가에서 바래주러 나왔던 고조선의 비장 장을 살해하고 도망하는 죄행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나라의 랴오둥군 동부도위를 습격하여 섭하놈을 잡아 죽이였다.

고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한나라 무제는 이 사건을 구실로 B.C. 109년 가을 고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한나라의 침략목적은 고조선을 완전히 강점하자는것이였다.

이 침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륙군과 수군이 협동하여 수륙병진으로 고조선왕이 나와있는 왕검성을 단숨에 점령하려는 전략전술을 세웠다.

수십만의 침략군으로 구성된 륙군은 좌장군 순체가, 수군은 루선장군 양복이 지휘하였다.

고조선인민들은 반침략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순체가 거느린 륙군은 패수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도망쳤으며 양복이 거느린 수군은 렬구에 이르러 륙군이 도착하기 전에 7 000명으로 고조선왕이 나와있는 왕검성(랴오닝성 카이저우시)을 공격하였다가 대참패를 당하였다.

양복은 간신히 산속에 피신하여 10일간 숨어서 벌벌 떨다가 도망치고말았다.

첫 전투에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은 한나라침략자들은 담판을 제기하여오면서 한편으로는 재침공을 준비하는 계책을 꾸미였다.

한나라 무제는 위산이라는자를 담판사신으로 파견하여 위협으로 침략목적을 달성해보려고 꾀하였다.

이때 우거왕은 놈들의 이러한 음흉한 속심을 꿰뚫어보고 태자로 하여금 군대 1만명과 말 5 000필을 가지고 무력시위를 하면서 패수를 건너가 담판할 태세를 취하게 하였다.

고조선의 태자가 거느린 기병 5 000명을 포함하여 1만명의 군사가 패수(오늘의 다링하)를 건너오는것을 보고 위산과 순체는 그냥 도망해가고말았다.

담판기도가 실패하자 무제는 무력을 다시 내몰아 고조선침공을 벌리였다.

한나라침략군은 패수에서 전선을 겨우 돌파하고 왕검성에 도착한 륙군과 수군이 합세하여 성을 포위공격하였으나 참패만을 거듭하였다.

여러달동안의 포위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침략군의 내부에서는 알륵이 조성되였다.

좌장군 순체는 공격만을 주장하였고 양복은 화의만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침략군의 우두머리들속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성공격에서 성과가 없게 되자 무제는 공손수를 현지에 파견하였다.

전투현장에 도착한 공손수는 순체의 말만 듣고 양복을 잡아가두고 양복의 군대를 모두 순체에게 소속시키였다.

이러한 소식을 받은 무제는 공손수가 일처리를 잘못하였다고 노발대발하면서 그자를 죽여버리였다.

그러나 B.C. 108년에 들어서면서 고조선통치층안에서 동요분자, 배신자들이 나타났고 정세는 달라져갔다.

고조선의 통치배들속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침략군의 책동이 악랄해짐에 따라 비겁한자들이 투항을 꿈꾸고 배신자들이 정체를 드러냈다.

고조선의 귀족들인 상 한음, 조선상 로인, 니계상 참, 장군 왕협 등은 우거왕에게 투항할것을 권고하였다.

왕이 투항을 거절함으로써 제놈들의 죄행과 본심이 드러나고 징벌을 면할수 없게 되자 이자들은 성에서 빠져나가 침략자들에게 투항하였다.

한나라침략군은 고조선의 통치층에서 투항분자들이 나오자 비렬하게 고조선의 내부와해를 더욱 조장하였다.

B.C. 108년 여름에 니계상 참은 졸개를 시켜 우거왕을 살해하였다.

침략자들은 더욱 항복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고조선의 군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성기장군의 지휘밑에 한나라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웠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침략자들은 이번에는 투항한 우거왕의 아들과 조선상 로인의 아들을 시켜 대신 성기장군을 비렬하게 암살하였다.

그리하여 고조선은 군민들의 용감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투항분자들과 악랄한 적들의 책동, 집요한 왕검성공격으로 하여 자기의 존재를 마치게 되였다.

한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고조선이 패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고조선사회내부의 심각한 모순으로 인한 노예제도의 위기와 함께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투항분자들 때문이였다.

고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적투쟁은 비록 일부 통치배들의 반역행위로 말미암아 최후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으나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고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투지와 용감성을 과시하였다.

《한4군》

한나라침략자들이 고조선의 부수도 왕검성(랴오닝성 카이저우시)을 B.C. 108년에 함락한 다음 랴오둥지방에 설치하였던 지방통치단위를 말한다.

고조선의 부수도 왕검성을 강점한 한나라침략자들은 고조선인민들의 완강한 항전에 부딪쳐 압록강이남지역으로 더 기여들지 못하고 일시 강점한 랴오둥지방에 락랑군, 현도군, 진반군, 림둔군 등의 4군을 설치하였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한4군》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4군》의 고조선유민들은 B.C. 277년에 성립된 고구려의 인민들과 힘을 합쳐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B.C. 82년에 진반, 림둔 2개 군이 페지되였으며 현도군은 계속 밀려나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쫓겨갔다.

고조선유민들은 A.D. 30년에는 락랑군에서 왕조의 지휘밑에 폭동을 일으키였다.

폭동군은 태수 류현놈을 잡아죽이고 성과를 확대해나가다가 우세한 적군에 패하였다.

이리하여 폭동은 진압되였으나 한나라통치배들은 단단대령(치리엔산줄기)동쪽 7현을 지배하던 락랑군 동부도위를 없애지 않으면 안되였다.

외래침략자들을 락랑, 현도군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투쟁은 고구려에 의하여 계속되였다.

락랑국

고조선왕조가 멸망한 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형성되여 3세기말까지 존재한 국가였다.

락랑국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평양일대를 중심으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의 대부분, 강원도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다.

락랑국은 고조선문화의 전통을 살려 자기의 발전을 계승하다가 남진하는 고구려에 의하여 A.D. 37년에 무너지고 남부에 있던 잔여세력도 3세기말까지 종국적으로 고구려에 통합되여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 평양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 락랑문화는 고조선인민들이 남긴 문화의 연장이였다.

부　여

부여의 성립

부여는 고대조선족이 세운 노예소유자국가이다.

단군조선의 왕조를 전복하고 후조선왕조가 성립되던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변은 북쪽에서 후국으로 있던 부여가 고조선에서 떨어져나가 새 고대국가를 형성한것이다.

단군조선의 후국이였던 부여지역에서는 B.C. 2천년경에 생산력이 더욱 발전하였다.

부여의 중심지역이였던 지린시가까이의 융지현 성성초유적에서 B.C. 13~B.C. 11세기의것인 비파형단검이, B.C. 14세기의것인 넌강류역의 지린성 백금보유적에서 돌거푸집이, 한서문화2기층유적에서 청동기와 거푸집이 50여개 나왔다.

이 지역에서 청동기와 그와 관련한 유물이 수많이 나타난것은 부여지역에서 생

산력이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생산력의 이러한 발전에 토대하여 부여후국의 통치자들은 점차 큰 세력으로 장성하였다.

그것은 지린시 소달구 산정동의 돌무덤(뚜껑돌길이는 2.3m, 너비는 1.02m, 두께는 0.4m)에서 청동도끼, 청동칼, 청동단추, 서단산형단지(고조선의 조롱박형단지)류형, 여러가지 구슬 등이, 지린시 산정동, 판스현일대의 고인돌무덤(평양일대의 고조선2~3기 오덕형고인돌무덤과 묵방형고인돌무덤의 양상이 있다.)에서 비파형단검과 서단산형단지 등이 수많이 나온것이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돌무덤에서 수많은 유물이 나오고 그전에 볼수 없었던 고인돌무덤을 갑자기 쓰게 된것은 부여후국의 지배층이 큰 세력으로 장성하였음을 실증하여준다.

강력한 세력으로 자라난 지린일대의 《예》국은 B.C. 15세기 중엽에 고조선에서 떨어져나와 주변에 대한 통합사업을 다그쳐나갔으며 바로 이때 북쪽의 넌강류역에 있던 《탁리국》에서 한 정치세력이 지린일대로 남하하여 《예》국과 련합하였다.

이 련합세력은 쑹화강, 넌강류역의 소국들을 통합하고 B.C. 15세기 중엽에 국가를 형성하였다.

국호를 《부여》라고 하고 수도를 지린시교외의 동단산일대에 정하였다.

《상서대전》 주관편에 B.C. 12~11세기경에 《구려》, 《부여》, 《한》, 《맥》 등이 중국의 주나라와 통하였다고 한 기록은 부여가 이때 독립국가로 존재하면서 주나라와 대외관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부여의 건국전설

부여의 건국전설은 《론형》 길험편에 실려있다.

《론형》에 실려있는 부여건국전설에 의하면 부여는 탁리국에서 나서자란 동명이 본국을 탈출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부여땅에 도읍하고 세운 나라였다고 하였다.

이 전설은 넌강류역에 있던 탁리국의 세력이 본래 부여의 중심지역인 지린지방에 남하하여 기성의 낡은 세력을 통합하고 부여국을 세운 사실을 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동명》이라는 칭호는 고대사람들이 천신숭배관념에서 건국시조를 신성화하여 붙인 존호로서 그 어떤 개별적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는 보통명사였다.

그것은 부여의 건국시조뿐아니라 고구려의 건국시조 주몽도 《동명》이라고 부른것을 보아 알수 있다.

부여는 나라를 형성한 후에 령토를 넓혀나갔다.

부여의 령역은 서변은 서랴오하중류로부터 북쪽으로 다싱안령산줄기를 따라 넌강중류에 이르는 계선이였고 동변은 우쑤리강계선이였으며 북변은 넌강중류로부터 동류쑹화강북쪽 일대이고 남변은 개현과 휘발하상류로부터 함경북도 해안지대에 이르는 계선이였다.

부여의 통치기구

중앙통치기구

부여에도 중앙통치기구가 정비되여있었다.

왕은 최고권력자이고 왕위는 세습되였다. 왕밑에는 상이 있었다.

상은 관료의 수반으로 국가사업전반을 총괄하였다.

상밑에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를 비롯한 대신급의 관직이 있었고 그밑에 대사, 대사자, 사자 등이 있었다.

부여에는 《제가평의회》도 있었다.

제가평의회는 《가》들이 참가하는 고위급귀족관료들의 협의회였다.

부여에서 제가평의회는 매해 12월 년중행사로 진행되는 《영고》를 계기로 특별히 소집하였다.

이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거행한 다음에 나라의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으며 엄중한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과 형벌을 진행하였다.

제가평의회는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자주 열리였고 여기서는 왕위계승문제, 정책수립, 법률제정, 전쟁과 대외관계 등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지방통치기구

부여에서는 전국을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5부(5개 구역)로 나누어 통치하였는데 수도를 포함한 나라의 중심부는 국왕이 직접 통치하였고 나머지 4개 행정단위는 가들이 통제하였다.

5개의 행정단위밑에는 크고작은 읍락들이 소속되였고 그 읍락들은 성과 촌으로 구성되여있었다.

부여의 법

부여에도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대변한 법이 있었다.

《삼국지》에는 부여의 법조항이 일부 기록되여있다.

그 조항을 보면 사람을 죽인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노예)로 만든다,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자는 도적한 물건의 12배에 달하는 량을 보상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들이 있다.

이 법조항들에서 표현된 《살인》, 《도적》 등은 모두 인민들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하여 박아넣은것이다.

특히 부여의 법은 매우 가혹하여 살인자를 죽였을뿐아니라 그 형벌을 가족들에게 넘겨씌워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부여의 법은 철저히 인민들을 억압하고 노예주들의 리익을 옹호한 반인민적인 법이였다.

순장제도

부여에서도 노예주들이 죽으면 노예들을 순장하는 제도가 있었다.

《삼국지》부여전에 의하면 부여에서는 《가》들이 죽으면 단번에 100명씩 순장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부여에서도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노예순장이 널리 성행하였으며 노예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부여의 종말

부여에서는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여 노예를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 지배계급들간의 권력싸움으로 하여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부여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던 B.C. 3세기초에 남쪽에서는 고구려가 새 봉건국가로 출현하여 국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던 부여의 통치배들은 고구려가 새로운 세력으로 자라나는데 위협을 느끼고 고구려를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기도하였다.

부여는 전한을 리용하여 고구려를 예속시키려고 하다가 기도가 실패하자 B.C. 246년에는 5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고구려에 대한 공격전을 벌리였다가 참패를 당하였다.

부여와의 관계를 신축성있게 조절하면서 국력을 키워온 고구려는 B.C. 3세기 말엽에 부여국에 대한 통합작전을 벌려나갔다.

B.C. 219년 2월에 고구려는 부여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세를 단행하였다.

이 싸움에서 부여군은 수많은 군사와 국왕(대소)까지 잃는 손실을 당하였다.

전쟁에서의 손실도 컸지만 그것이 부여사회에 미친 후과는 더 엄중하였다.

부여왕의 죽음을 계기로 통치층안에서 불안이 돌고 동요가 일어나면서 사분오렬되였다.

대소왕이 죽자 그의 막내동생은 B.C. 219년 4월에 추종하는자 100여명을 데리고 갈사수에 이르러 갈사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며 7월에는 대소왕의 사촌동생이 1만여명의 주민들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투항하였다.

부여귀족관료들의 련속적인 배반과 분렬은 이미 부여국가의 통치집단이 수습할수 없는 처지에 빠져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마침내 고대부여국은 B.C. 219년 고구려와의 전쟁후 얼마 안되여 종말을 고하였다.

부여국의 남부지역은 고구려에 의하여 완전히 통합되고 나머지지역은 속국, 속령으로 보다 방임상태에 있게 되였다. 《위서》에 구려(고구려)가 부여를 병합하였다고 한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구　려

구려의 성립

고대구려국은 고조선의 후국으로 있던 지역에서 독자적인 나라로 분립하여 성립된 노예소유자국가이다.

단군조선령역이였던 훈강류역의 후국 구려지역에서는 B.C.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농업과 수공업, 목축업이 전시기에 비하여 빨리 발전하였다.

생산의 장성과 함께 많은 재부를 축적한 후국의 통치자들은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자기의 정치적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면서 단군조선의 중앙왕권에 대립하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구려지역에서는 연나부, 관나부, 순나부, 계루부, 절나부 등의 5부정치세력이 있었는데 그가운데서 가장 큰 세력은 연나부였다.

연나부의 정치세력은 주변의 4개부의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보다 강력한 세력으로 자라났으며 마침내 B.C. 15세기중엽 단군조선왕조가 교체되던 시기 독자적인 국가인 구려국을 세우게 되였다.

《상서》권11 주관22주서에 대한 주석에서 주나라 무왕이 상(은)나라를 멸망시킨 후 구려와 서주(B.C. 1066년-B.C. 771년)왕실이 서로 외교관계를 가졌다고 한것이나《일주서》왕희해에 B.C. 11세기 중엽에 고이(구려를 가리킴)가 주나라와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전해진것으로 보아 구려가 이 시기에는 독자적인 국가를 이루고 주변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는 등 뚜렷이 존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구려국의 수도는 졸본(환런)이였다.

구려국의 령역은 훈강을 중심으로 압록강의 중상류, 타이쯔하상류, 훈하상류,

이통하류역(랴오닝성 환런, 신빈, 칭위엔, 지린성 류화, 퉁화, 지안, 자강도일대)을 포괄하고있었다.

구려의 통치기구

구려에서는 중앙통치기구를 고조선식을 따르면서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나갔다.

왕은 연나부귀족들만이 될수 있었다.

왕밑에는 여러 관직기구들이 있었고 귀족민주주의합의기구로서 《제가평의회》가 있었다.

구려의 지방행정단위는 5부로 편성되여있었다.

여기서 연나부는 국왕이 직접 다스리는 직할지이고 그밖의 나부(순나부, 절나부, 계루부, 관나부)는 부의 우두머리인 《대인》이 관할하였다.

구려의 종말

구려국에서도 봉건관계가 자라나고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면서 노예소유자국가의 중앙집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B.C. 3세기초에 고대부여국에서 주몽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구려국의 계루부에 남하하여왔다. 주몽은 구려국의 계루부에 이르러 봉건관계를 지향하는 세력들과 련합하여 군사정치적력량을 꾸리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구려의 북쪽에 있는 말갈족을 평정하고 계루부의 우두머리로 되였다.

B.C. 277년에 구려왕이 죽게 되자 왕의 사위인 주몽은 구려 5부의 지배자로 되여 고구려봉건국가를 세웠다.

그리하여 고대국가인 구려도 종말을 고하게 되였다.

진　국

진국의 성립

진국은 고대조선족의 하나인 한족이 세운 고대국가이다.

B.C. 3천년 전반기 중부조선이남지역은 단군조선의 령역에 포함되여 그의 지배밑에 있었다.

B.C. 3천년 후반기에 단군조선에서 중부조선이남지역에 남하한 세력들은 소국들을 형성하고 후국으로 되였다.

그후 B.C. 2천년에 이르러 중부조선이남지역의 후국은 농업을 비롯한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강력한 군사정치적힘을 가지게 되였다.

후국들의 력량이 자라나는 과정에 중남부조선지역에서는 새로운 정치적주도세력이 나타나게 되였다.

그러한 사실은 중부조선지역에 대형오덕형고인돌에 맞먹는 바둑판식고인돌이 있는것으로 설명할수 있다.

바둑판식고인돌은 무덤칸을 지하에 축조하여 마무리한 다음 고임돌을 놓고 그우에 뚜껑돌을 얹어 지상의 구조물이 바둑판처럼 보이는 고인돌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에 뚜껑돌의 크기가 동서 6.5m, 남북 5.3m, 두께 2m 되는 큰 바둑판식고인돌이 있다. 이런 대형바둑판식고인돌은 충청북도일대를 북쪽계선으로 하여 그 이남지역에 분포되여있는데 여기서는 비파형단검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물들이 나왔다.

그 규모로 보아 고조선의 중심지역의것에 못지 않은 바둑판식고인돌무덤에 비파

형단검과 비파형창끝을 소유한자들이 묻히게 된것은 중남부조선지역의 후국통치자들이 B.C. 15세기 중엽에는 고조선왕조에 대응할만 한 세력으로 자라났다는것을 보여준다.

후국들의 주도세력의 급속한 장성은 고조선으로부터의 분립과정을 촉진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였다.

큰 세력으로 자라난 후국들은 단군조선에서 후조선으로 교체되던 시기에 고조선으로부터 분립되였다.

분립된 세력은《한》이라고 불리웠는데 그중 가장 강한 주도세력은 남한강-금강류역과 그 주변일대에 형성된 마한이였다.

마한은 세력을 급속히 넓히면서 점차 다른 주도세력인 진한과 변한세력을 통합하여 B.C. 12세기경에 고대국가 진국을 세웠다.

진국가운데서 마한은 오늘의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지역이고 진한은 락동강동쪽의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북도와 강원도의 남부지역, 변한은 락동강하류 서쪽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남북도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진국의 수도는 처음에 마한의 월지국(오늘의 충청남도 직산)이였고 말기에는 국읍(오늘의 전라북도 익산)이였다.

진국의 령역은 례성강을 경계로 조선반도남부전체를 차지하고있었다.

진국의 통치기구

진국의 최고통치자는 진왕이였다.

진왕은 삼한(마한, 진한, 변한)전체를 지배하는 최고권력자였고 마한의 귀족들만이 될수 있었다.

진왕밑에는 한왕들이 있었다.

마한은 진왕이 직접 통치하고 진한, 변한의 왕은 자기 관할권의 지방행정단위인 소국들을 통치하였다.

마한에는 54개의 소국이 있었고 총 호수는 10만호였으며 큰 소국들이 1만여호, 작은 소국은 수천호씩 되였다.

큰 소국의 통치자를 《신지》, 작은 소국의 통치자를 《읍차》라고 불렀다.

진한과 변한에는 각각 12개의 소국이 있었고 그 총수는 4만~5만호였으며 큰 소국이 4천~5천호, 작은 소국은 600~700호정도였다.

소국의 우두머리는 등급에 따라 신지, 험측, 번예, 살해, 읍차 등 여러가지로 불렀다.

진왕은 마한에 대하여서는 직접 관할하면서 진한, 변한의 왕들로부터 그 지역의 일들을 보고받았으며 진한, 변한의 왕은 자기가 관할하는 소국들을 통치하면서 관할지역의 물품을 인민들에게서 수탈하여 일부를 진왕에게 공납의 형식으로 정상적으로 바치였다.

이와 같이 진국의 중앙과 지방통치는 후국통치방식으로 실현되였다.

진국의 종말

진국에서도 봉건관계가 발생발전하면서 커다란 정치적변화가 일어났다.

진국에서 봉건관계가 장성한 곳은 마한의 북쪽지방과 변한의 일부 지역들이였다.

마한의 북쪽 변방에서는 B.C. 3세기 중엽경에 고구려에서 이주해온 온조집단에 의하여 백제봉건소국이 출현하게 되였고 진한의 경주지역에서는 B.C. 1세기 초엽에 고조선계통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사로봉건소국이, 변한지역에서는 B.C. 1세기말에

구야(가야)국, 안야(아야)국 등 여러개의 봉건소국들이 형성되였다.

한편 봉건관계의 장성과 함께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노예를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그리하여 진왕의 지배력은 점차 약화되고 국가의 통치제도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B.C. 1세기말에 백제소국은 마한소국들을, 진한과 변한도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진왕의 지배밑에서 떨어져나갔다.

그러한 사실은 사로국의 호공이 마한을 방문하였을 때 진왕이 《진한과 변한은 원래 우리 나라의 속국인데 근년에는 공물을 바치지 않고있으니 큰 나라를 섬기는 례절이 이런가?》고 한《삼국사기》의 기록이 잘 보여주고있다.

진국에서 이와 같이 진한, 변한이 떨어져나간 결과 진왕은 마한의 소국들만 지배하는 존재로 되고 그것도 공고하지 못하였으며 통제력은 계속 약화되여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마한의 북쪽에서 큰 세력으로 자라난 백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점차 마한의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마한의 수도를 위협하였다.

A.D. 8년 백제국은 마한의 수도 국읍(익산)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마한왕조를 멸망시키였다.

A.D. 9년에 마한의 잔여귀족들은 원산성, 금현성, 우곡성에 의거하여 저항하였으나 그 역시 백제에게 점령당하고말았다.

백제에 의한 마한왕조의 멸망으로 조선반도남부지역에서 1천년간 존재하던 고대국가 진국은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고대 우리 선조들의 일본렬도에로의 진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발전된 문화는 일찍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주변나라들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가 고대일본의 문화발전에 준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고대시기 우리 선조들은 왜땅에로의 진출을 적극화하여 일본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 나라 고대국가의 주민들가운데서 왜땅으로 적극 진출한것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진국사람들이였다.

고대 우리 나라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여 전성기에 있었고 우리 선조들이 왜땅으로 적극 진출하던 시기 일본에서는 《죠몽문화》라고 불리우는 신석기단계에 있었다.

※ 《죠몽문화》란 일본의 신석기시대문화를 말한다.

질그릇의 무늬가 노끈무늬이기때문에 그 특징을 따서 노끈무늬(죠몽)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죠몽문화는 초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등 5개 시기로 나누어진다.

초기문화에서 특징은 마제석기가 일부 리용되고 채집, 사냥, 물고기잡이를 하고 밑굽이 뾰족한 질그릇에 노끈무늬를 새기였다.

집은 낮고 방이 좁으며 화독이 집밖에 있는 원시적인 집이였다.

흙으로 짐승, 새와 같은 조각품도 만들었다.

전기의 문화에서 특징은 로동도구를 갈아서 만들었지만 창, 활촉은 갈지 않았다. 움집에는 화독이 방안에 있고 질그릇의 밑굽은 납작하며 항아리가 많다.

흙과 돌로 녀자를 형상한 조각품이 있다.

후기와 말기문화의 특징은 집바닥에 자갈을 깔아 지상가옥 비슷한 집을 짓고 단지, 접시,

주전자 등의 질그릇을 만들었으며 조개무늬무덤과 독무덤을 썼다.

조각품으로는 녀자인물상, 개, 산돼지를 만든것이 있다.

죠몽문화는 일본의 모계씨족공동체가 발전하기 시작전부터 발전하던 시기의 문화이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일본에 B.C. 4세기-B.C. 3세기 우리 선조들은 왜땅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여《죠몽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농경문화, 금속문화인《야요이문화》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일본력사에서 《야요이문화》라고 하는것은 B.C. 4세기-B.C. 3세기경에 일본의 북규슈에서 갑자기 나타나 점차 동쪽으로 파급되여간 발전된 농경문화, 금속문화를 말한다.

《야요이문화》란 말은 1880년대에 일본 도꾜 야요이거리에서 발견된 조개무덤에서 특징적인 질그릇이 나온데 기초하여 그 지명을 따서 부른것이다.

《야요이문화》는 A.D. 3세기까지 약 600년간 계속되였다.

야요이유적을 남긴 사람들은 조선사람의 인류학적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였다.

북규슈일대에서 발굴된 야요이시기의 사람뼈는 당시 일본의 원주민보다 평균 신장이 크고 얼굴모양이 조선사람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이것은《야요이문화》를 창조한 사람이 조선이주민들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일본렬도에 진출한 우리 선조들은 발전된 농경, 금속문화를 보급하였다.

일본의 옛날력사책들에서 전하고있는바와 같이 고대조선사람들이 진출하기 전에 왜땅은 《갈대가 무성》한 황무지였고 원주민들은 식물채집과 짐승사냥, 물고기잡이 등 채집경제에 주로 종사하였다.

바로 이러한 왜땅에 진출한 우리 선조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아직 농업을 모르던 일본의 원주민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배워주었다.

일본의 후꾸오까현 하까다시 이다쯔께유적과 마가리따유적, 다데이와유적, 사가현 사라다께유적 등이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다쯔께유적은 첫 야요이농경문화유적이다.

유적은 집자리와 논밭유적으로 되여있는데 후꾸오까벌지대의 동북부에로 흘러가는 마가사강의 좌안에 위치하고있으며 약 10만㎡이다.

유물로는 5만개의 질그릇쪼각과 벼알, 탄화된 쌀알 20개 , 방비용도랑자리모양의 움구뎅이, 반달칼을 비롯한 마제석기, 시루식가마 등이 발견되였다.

오까야마현 아사히강기슭의 쯔시마유적에서도 건물, 도랑, 벼화분, 벼이삭, 물논에서 사는 100가지 잡초가, 사가현 나하다께유적에서는 논두렁, 논자리, 수로도 나타났고 현해탄연안지방의 여러 유적들에서는 논자리와 함께 움집, 돌활촉, 돌단검, 반달칼, 돌도끼, 돌낫, 괭이, 가래, 탄화된 쌀알 등이 나왔다.

유적에서 나온 벼알은 고대진국이 존재하였던 조선반도중남부에서 재배된 벼알과 같다.

벼알의 길이와 너비의 비률을 볼 때

북규슈의 벼알 1.76~1.94:1

경기도 려주의 벼알 1.694:1

충청남도 부여의 벼알 1.76:1

남중국, 인디아벼알 2.1:1(긴알형이다.)

유적에서 나온 집자리를 보면 움집, 반움집으로 구조짜임새가 고대 우리 나라의 집자리구조와 같으며 석기들인 반달칼, 활촉, 도끼, 낫, 괭이, 단지(미송리형) 등도

고대 우리 나라에서 만든 형태와 같다.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왜땅에 진출한 우리 선조들이 원시적인 상태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농사짓기, 집짓기, 질그릇제조, 마제석기제작방법을 배워주고 보급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일본렬도에 진출한 우리 선조들은 발전된 금속문화도 보급하였다.

그것은 무덤과 유물을 통하여 엿볼수 있다.

야요이시대의 무덤들로는 고인돌무덤, 돌관무덤, 돌돌림무덤, 독무덤, 움무덤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무덤은 고조선과 진국에서 쓴 가장 보편적인 무덤형식이며 시기적으로 보면 고조선과 진국의것이 훨씬 앞선다.

무덤의 구조짜임새도 고조선이나 진국의 무덤과 별로 차이가 없다.

무덤의 껴묻거리로는 좁은놋단검, 좁은놋창, 청동과, 잔줄무늬거울, 쇠도끼 등이 있는데 고조선, 진국의것과 같다.

이것은 무덤에서 나온 유물인 청동기와 철기가 고대조선사람들이 왜땅으로 진출할 때 고대조선에서 생산된 금속제품들을 가지고가 퍼뜨렸으며 차츰 금속제련 및 가공기술을 원주민들에게 배워주고 보급하였음을 보여주는것이다.

모든 사실은 《일본의 려명》이라고 하는 《야요이문화》의 기원이 우리 나라이며 그의 창조자도 바로 우리의 고대주민들이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고대국가들의 왕조계보

고조선의 왕조는 단군왕으로부터 고렬가왕까지 47대로 이어져 존재하였다.

고조선(전조선)왕조 47대

대	왕명	통치년간
1	단군	B.C.30세기초~?
2	부루	미상(이하 같음)
3	가륵	
4	오사	
5	구을	
6	달문	
7	한률	
8	우서한	
9	아술	
10	로을	
11	도해	
12	아한	
13	흘도	
14	고불	
15	벌음	
16	위나	
17	여을	
18	동엄	

19	주모소	
20	고흘	
21	소태	
22	석불루	
23	아물	
24	연나	
25	솔나	
26	추로	
27	두밀	
28	해모	
29	마휴	
30	내휴	
31	등올	
32	추밀	
33	감물	
34	오루문	
35	사벌	
36	매륵	
37	마물	
38	다물	
39	두홀	
40	달음	
41	음차	
42	을우지	
43	물리	
44	구홀	
45	서루	
46	보을	
47	고렬가	?~B.C.15세기 중엽

고조선(후조선)40여대

시조왕	B.C. 15세기 중엽
⋮	
부왕	B.C. ?-B.C. 221년
준왕	B.C. 221년-B.C. 194년

고조선(만조선)3대

만왕	B.C. 194년-?
○ ○ 왕	
우거왕	B.C. ?-B.C. 108년

부여

시조왕	B.C. 15세기 중엽

⋮

해부루왕 B.C. 4세기 중엽
금와왕 B.C. 4세기말-B.C. 3세기초
대소왕 ?-B.C. 219년

구려

B.C. 15세기 중엽-B.C. 277년
(구체적인 왕명과 통치년간은 전하는것이 없음)

진국

B.C. 12세기-A.D. 1세기초
(구체적인 왕명과 통치년간은 전하는것이 없음)

대동강문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상들은 고대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동방문화를 꽃피웠습니다.》(《**김일성**전집 》 제1권 , 554페지)

세계적으로 볼 때 고대선진문명은 산천이 수려하고 땅이 비옥한 강류역에서 형성되였으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이름과 결부된 문화로 불리워왔다.

우리 나라의 대동강문화도 구석기시대초기부터 고대시기의 문화유적, 유물이 수많이 드러난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의 중하류류역을 포괄하는 광범한 지역이 인류의 고대문명의 발상지, 중심지로 형성발전하였다.

대동강류역은 우선 인류와 조선사람의 발원지이고 고대문명의 발상지이다.

넓고 비옥한 평지와 맑은 강줄기를 가지고있는 대동강류역은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이였다.

이러한 곳에 자리잡고있는 상원군 흑우리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00만년전 원인들이 살던 검은모루유적이 드러났으며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리유적,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유적과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동굴유적에서는 고인인 《화대사람》, 《력포사람》, 《덕천사람》으로 명명된 고인의 화석이 발견되였으며 상원군 룡곡리 1호동굴유적, 승호군 만달리동굴유적에서는《룡곡사람》,《금천사람》,《승리산사람》,《만달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신인의 화석이 발굴되였다.

대동강류역은 구석기시대 전기, 중기, 후기의 유적들에서 발굴된 원인, 고인, 신인 등 인류 진화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오면서 조선사람의 옛 조상들이 아득한 태고로부터 태를 묻고 살아온 보금자리였으며 인류의 초기문화가 싹튼 력사의 성지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동강류역은 구석기시대 후기의 신인에 연원을 둔 조선옛류형사람들의 본고장이며 그들의 창조적로동과 지혜에 의하여 농경문화를 위주로 하는 신석기시대문화의 높은 수준의 금속문화인 청동기시대문화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발생발전하여온 원시문화의 발원지, 중심지였다는것을 확인해준다.

이에 대하여서는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과 표대유적,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상원군 룡곡리유적, 덕천시 남양유적, 온천군 운하리 궁산유적 등 대동강류역의 곳곳에 분포되여있는 신석기시대의 유적들과 팽이모양의 질그릇을 썼던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들이 잘 보여주고있다.

유적들에서는 보습, 괭이, 낫, 반달칼, 갈돌 등의 수많은 농기구들과 도끼, 대패날을 비롯한 공구류, 질그릇, 활촉을 비롯한 청동기들이 드러났다.

이처럼 대동강류역은 인류가 발생하여 원인, 고인 , 신인, 조선옛류형사람으로 발전하면서 원시문화를 창조해온 지역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대동강류역은 또한 고대문화의 중심지이고 조선민족의 성지이다.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은 B.C. 30세기초에 대동강류역의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동방에서 처음으로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을 세움으로써 새 문명시대를 펼쳐놓았다.

대동강류역이 고대문명의 중심지였다는것은 단군조선시기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무덤과 돌관무덤이 이 강류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여있는것만으로도 인정할수 있다. 고인돌무덤은 함경남북도, 량강도, 강원도, 랴오둥지방에서는 100~500기가 알려졌지만 대동강류역에는 1만 4 000여기가 분포되였다.

그것도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초기형으로부터 말기형에 이르기까지의 고인돌무덤이 다 있으며 특히 왕급의 지배계급들이 묻힌 특대형고인돌무덤이 많다.

그중에는 뚜껑돌의 넓이가 50㎡, 질량이 40~50t이상 되는 무덤이 적지 않게 있다.

이와 같이 큰 규모의 고인돌무덤이 집중분포되여있는것은 평양일대에 권력과 재부를 독점한 특권층들이 대대로 많이 살았으며 무덤축조에 들인 로력공수와 로동강도를 보아 그것이 집단적인 로동과 권력의 산물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동강류역에는 고인돌무덤과 함께 돌관무덤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다.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 순창리, 송석리, 태장리, 평안남도 성천군 금평리, 증산군 룡덕리, 평성시 경신리 등 여러 지역에는 돌관무덤떼들이 수많이 있다.

무덤에는 지배계급들만이 소유할수 있었던 금동 또는 순금으로 만든 귀걸이와 목걸이, 가락지, 청동띠고리, 재색도기 등 유물들이 나왔다.

금동, 순금으로 만든 이 제품들은 대동강류역이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다는것을 생동히 보여주는 유물이다.

대동강류역에는 나라의 방위를 목적으로 축성한 황대성(강동군 남강로동자구),

지탑리토성(봉산군 지탑리), 성현리토성(온천군 성현리) 등도 있다.

특히 황대성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전에 축조된것으로서 우리 나라 중세기에 쌓아진 토석혼축의 성과 비슷한것이였다.

이러한 토성유적은 대동강류역에 이미 그때에 상비군과 방어수단을 가진 고대국가가 존재하였으며 성의 축조술과 형식도 발전된 수준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대동강류역에서는 도시를 방불케 하는 큰 부락터유적들도 많이 발굴되였다.

15만㎡에 달하는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순안구역 석암유적,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유적, 황해북도 승호군 봉도리유적, 리천리유적, 황주군 고연리유적 등이 그러한 유적들이다.

유적들에서는 100~150여개의 팽이그릇집자리들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부락터와 수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이러한 큰 규모의 부락들이 집중되여있는것은 고대문명의 중심지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이다.

대동강류역의 유적들에서는 고대문명의 중심지에서만 볼수 있는 발전된 청동기와 도기, 철기제품들이 수많이 발굴되였다.

상원군 룡곡리 5호고인돌무덤과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유적의 팽이그릇집자리에서 비파형창끝이, 상원군 장리 1호고인돌무덤에서는 청동2인교예공예품이, 평양시 강동군 순창리 2호, 5호 돌관무덤에서는 금귀

걸이가, 황해북도 황주군 고연리유적에서는 철기가 나왔다.

이 제품들은 모두 고조선의 높은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것으로서 훌륭한 공예품이였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벼를 비롯한 5곡을 재배하고 이웃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석잠누에치기를 하였다는 물질자료와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 천문학의 시원으로 되는 별자리를 표시한 성좌도를 새긴것이 200여개나 발굴되였다.

이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은 우리 민족문화의 발상지이고 정치,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고대조선의 문화

말과 글

재능있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은 고조선의 전 지역에서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았으며 단군조선시기부터 고유한 민족글자를 가지고있었다.

단군조선시기 우리 인민이 사용한 민족글자로서는 신지글자와 가림토글자가 있었다.

옛 문헌인 《녕변지》에는 신지글자 16개가 전해지고있으며 8세기 대야발이 쓴 《단기고사》와 14세기 리암이 쓴《단군세기》에는 고조선의 3대왕 가륵때에 정음 38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림토글자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신지글자와 가림토글자는 고조선의 전 령역에서 쓰이였다.

17세기 사람 북애자는《규원사화》에서 6진지방의 바위에 신지글자가 새겨져있는데 이것은 신지라는 사람이 단군시기에 사냥을 하다가 사슴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16세기초의 사람 리맥은 《태백일사》에서 신지글자를 태백산, 허이룽강, 청구(고조선) 등의 지역에서 널리 썼다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고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고유한 민족글자가 널리 사용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고조선의 주민들은 우리 말을 사용하면서 중국의 뜻글자인 한자나 인디아의 범자와는 전혀 다른 고유한 민족글자를 쓰며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였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사상과 도덕

사상

먼 옛날부터 발전된 문화생활을 하여온 우리 인민은 철학사상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고대조선의 철학사상은 계급적성격을 띠면서 진보적사상과 반동적인 사상으로 갈라져 대립하면서 발생발전하였다.

고대조선에는 소박한 유물변증법적인 철학사상이 있었다.

소박한 《기》에 대한 사상과 《음양5행설》이 그러한것이다.

《기》를 주장하는 철학사상가들은 세계는 공기나 안개와 같은 무정형적인 혼동상태에 있는 물질적인《기》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끊임없이 운동변화한다고 하였다.

《음양5행설》을 주장하는 철학사상가들은 세계는 금(쇠), 목(나무), 수(물), 화(불), 토(흙) 로 이루어지고 《양기》(밝은기)와 《음기》(어두운기)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우주의 만물이 변화발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물변증법적사상은 소박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신비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종교관념론적철학사상에 타격을 주었으며 중세유물론철학사상발생의 기초를 이루어놓았다.

고대조선에는 종교관념론적인 철학사상도 있었다.

종교관념론적인 철학사상으로는《하늘신》숭배사상과《선인》사상, 령혼불멸설, 조상숭배사상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은《하늘신》숭배사상과《선인》사상이다.

《하늘신》숭배사상은 하늘을 자연그대로 리해하는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으로 전환시키고《하늘신》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주재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종교신비설이다.

즉《하늘신》은 사회와 자연, 인간생활의 모든것을 지배하고 창조하며 그것을 변화발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왕은《하늘신》의 아들이며《하늘신》의 의사의 집행자라고 신비화하였다.

고대국가들에서 해마다《하늘신》을 숭배하는 종교의식을 크게 벌린 사실과《단군신화》,《해모수신화》등에서 고대국가의 시조왕들을《천제》(하늘임금)의 자손으로 꾸며놓은것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선인》은 불로초인 선약을 먹으며 신심을 단련하면서 인격을 수양하면 장생하며 선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흥노예주계급의 리익을 대변한 사상이다.

고대종교관념론적철학사상은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고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자신의 운명개척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가로막고 과학문화발전을 저애하는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도덕

고대조선사람들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수양하여왔다.

고대로부터 조선인민은 조국을 보위하는 열렬한 애국심과 철저한 계급투쟁정신을 지니고있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였고 조국과 향토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위하려는 애국심이 높았으며 오랜 사회생활과 계급투쟁과정에 착취계급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지니였다.

고대로부터 조선인민은 근면하고 화목하게 사는것을 좋아하였으며 용감하고 명랑한 도덕품성을 지니고있었다.

옛 문헌들에는 조선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서로 만나면 길을 양보하고 비켜주는 례의범절을 지키였으며 사람들사이에 신의가 두텁고 부부, 가족, 친척, 이웃간에 화목하였다고 했다.

또한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지 않으며 밤에도 문을 걸고자는 법이 없었고 사람들이 깨끗한것을 즐겨 항상 옷차림과 집살림을 단정하고 깨끗이 하였으며 비록 살림이 어려워도 꾸밈새없이 락천적으로 생활하였다고 전하였다.

고대로부터 이루어진 우리 조상들의 고상한 도덕품성과 아름다운 풍습은 그후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이어지면서 하나의 민족적미풍량속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으로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문 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26권, 277페지)

고대조선의 문학은 원시문학에 토대하여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있다.

고대문학은 첫 계급사회의 문학으로 계급적성격이 뚜렷하고 개인창작이 출현하였으며 문학형상수법이 다양해진것이다.

고대조선의 문학유산으로 전해지는것은 건국설화들인 《단군신화》와 《해모수신화》, 고조선의 려옥이 창작한 서정가요인 《공후인》, 변한의 《영신가》(거북의 노래) 등이 있다.

단군신화

단군신화는 고조선인민들속에서 창조되고 전승되여오던 건국설화를 고조선의 통치계급들이 저들의 계급적리익에 맞게 윤색하고 체계화한것이다.

단군신화는 중인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되여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하느님의 서자로 환웅이라는이가 있어 자주 하늘아래에 뜻을 두면서 인간세상을 몹시 바라고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을 보니 인간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줌즉 한지라 이에 천부인 3개를 주어서 내려보내여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3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마루 신단수가에 내리니 이를 신시라 이르고 그를 환웅천왕이라고 하였다.

그는 바람을 맡은 어른, 비를 맡은 어른, 구름을 맡은 어른을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등과 선과 악을 주관하고 무릇 인간살이의 360가지의 일을 도맡아보아가며 정치와 교화를 베풀었다.

이때 곰 한마리와 범 한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늘 환웅에게 빌어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였다.

이에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날동안 해빛을 보지 않으면 쉽사리 사람으로 될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곰과 범이 그것을 먹고 기한지 21일만에 곰은 녀자의 몸이 되였으나 범은 기하지 못하여 사람으로 되지 못하였다.

곰녀자는 혼인할데가 없으므로 매양 신단수밑에서 자식이 있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되여 혼인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이라고 하였다.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고 칭하였고 나라를 다스린지 1500년동안 되였다.

…

단군신화는 비록 환상적이고 비과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있으나 원시공동체사회말기로부터 노예사회초기의 력사를 리해하는데 참고로 되며 당시 사회경제형편과 사람들의 의식수준 등을 엿볼수 있게 함으로써 문학사적으로 일정한 의의가 있다.

해모수신화

해모수신화는 원래 주몽전설의 앞부분에 있는데 《삼국유사》를 비롯한 력사책들에 전해지고있다.

그가운데서 문학적형상이 가장 풍부하고 신화로서의 짜임새가 잘 갖추어져있는

것은 12세기말 리규보의 장편서사시 《동명왕편》의 주해로 인용된 《구삼국사기》 동명왕본기의것이다.

신화에 의하면 해모수는 천제(하늘의 임금)의 아들로서 아침에는 북부여에 내려와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동할 때에는 다섯마리의 룡이 끄는 오룡차를 탔으며 신하 100여명이 흰따오기를 타고 따랐다. 그럴 때면 오색령롱한 채색구름이 뜨고 구름속에서 음악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는 신기한 말채찍으로 땅을 그어 구리궁전이 갑자기 솟아나게 한 다음 거기에 와서 노는 하백(바다신)의 맏딸 류화를 붙잡아 사랑관계를 맺었다.

아버지의 승인도 없이 류화와 혼인을 맺으려는 해모수의 무례한 행동은 하백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쳤다.

이때 해모수는 류화와 함께 오룡차를 타고 하백의 나라로 갔다.

해모수를 만난 하백은 그대가 천제의 아들이라면 어떤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있는가고 하였다.

재주겨룸을 청한 하백이 잉어로 변하면 해모수는 수달로 변하여 잡으려 하였고 하백이 사슴으로 되면 해모수는 승냥이로 되여 쫓으며 하백이 꿩으로 변하면 해모수는 매로 되여 잡으려고 하였다. 하백은 그제야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인줄 알고 류화를 안해로 삼도록 하였으며 해모수에게 술을 취하도록 먹인 후 그를 딸과 함께 가죽수레에 실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였다.

해모수는 오룡차가 아직 물속에서 채 나오기 전에 술에서 깨여나 류화의 황금비녀로 가죽을 뚫고나와 혼자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하백은 혼자 남게 된 딸 류화가 집안망신을 시켰다고 하며 그를 우발수가에 내버리였다.

이와 같이 신화는 이야기의 폭이 넓고 사건이 복잡하게 얽어지고 형상이 생동한것으로 하여 다른 신화들과 구별되며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크다.

물론 신화의 내용은 비과학적이고 통치배들에 의하여 윤색가공된 흔적도 없지 않으나 이 작품은 고대사회의 현실을 생활적바탕으로 하면서 내용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고대신화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공후인

고조선의 배사공 곽리자고의 안해인 려옥이 지은 서정가요이다.

《고금주》라는 옛날책에 《공후인》의 창작경위와 가사의 내용이 실려있다.

그것을 보면 어느날 새벽에 곽리자고가 나루배를 저어 강을 건느고있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로인이 물결 사나운 강물에 뛰여들어 건느려고 하였다.

뒤미처 따라온 안해가 남편을 애타게 부르며 강을 건느지 말라고 말렸으나 로인은 듣지 않고 깊은 강에 빠져죽고말았다.

뒤따라온 안해는 공후(악기)를 타며 슬피 통곡하다가 남편을 따라 자기도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말았다.

곽리자고가 집에 돌아와 안해 려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니 려옥은 로인부부의 비극적운명을 슬퍼하며 공후를 타면서 그 애달픈 사연을 노래불렀다. 그것이 바로 《공후인》인데 이 노래는 이웃에 사는 려용에게 알려졌으며 점차 널리 퍼지였다.

《공후인》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님아 가람 건느지 마소
그에 님이 건느시네
물에 들어 싀오시니
어저 님아 어이하리
(님아 강을 건느지 마소
그에 님은 건느시네
강물에 빠져죽으시니
이제 일을 어찌하리)

이 가요는 고대조선사회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의 불행한 처지와 남의 불행과 슬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가슴아파하는 고조선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반영되여있다.

가요의 제한성은 비극적인 색채가 진하고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기백이 없는것이다.

영신가(거부기의 노래)

《영신가》는 변한지방의 인민들이 창작한 가요이다.

기록내용을 보면 인민들이 구지봉에 올라가 수로왕을 맞이하면서 춤을 추며 부른 노래라고 되여있다.

《영신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들어라
들지를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 가요는 가락국성립이전 가야지방의 인민들에 의하여 창작된것으로서 흙을 쥐고 춤을 추며 부른 노래라는것으로 보아 그 어떤 로동활동을 형상한것으로 보아진다.

공예

비파형단검

비파형단검은 단군조선시기에 널리 쓰인 무기의 하나이다.

비파형단검은 칼날의 륜곽이 옛날악기인 비파를 련상시키게 한데서 그렇게 이름지은것인데 날부분과 검자루, 검자루맞추개 등으로 일식을 이루면서 그것을 조립할수 있게 된 독특한 짜임새를 가지였다.

단검의 자루에는 번개무늬를 비롯한 여러가지 무늬를 섬세하고도 정교하게 돋쳐서 단검의 장식적효과를 돋구었다.

검자루대가리에는 테두리가 있어 맞추개돌과 씌우개를 덮게 되여있다.

단검의 날은 칼끝부분이 뾰족하고 부리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넓어졌다가 갑자기 밋밋한 도두리를 이루었다.

그아래에는 우무러들었다가 다시 비파의 몸체부분처럼 불룩하게 생겼다.

단검의 한가운데는 세로 등대가 서있다.

예리하면서도 부드럽고 균형이 잡힌 선으로 잘 처리한것이 이 단검의 또하나의 특징이다.

이러한 단검형식은 그 어느 다른 곳에서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것으로 고조선문화의 높은 발전수준과 고유한 성격을 보여준다.

좁은놋단검

좁은놋단검은 고조선후기에 널리 사용된 독특한 구조를 가진 무기이다.

단검은 검몸과 검자루, 검자루대가리를 따로 만들어서 맞추게 되여있다는 점에서 비파형단검과 공통하다.

그러나 자름면이 복잡한 다각형으로 된 등대와 그 좌우에 피홈을 내고 다시 검몸의 가운데부분이 약간 들어간 매듭을 가진것은 좁은놋단검의 특징이다.

좁은 몸과 예리한 날, 깊고 곱게 패인 피홈, 여러개의 모가 난 등대, 완만한 매듭 등 모든것이 긴장한 선으로 이루어지고 굴곡이 있으며 조형적으로 잘 형상되였다.

좁은놋단검은 이처럼 무기로서의 실용성과 조형예술성이 잘 결합되여있는 점에서 그의 공예적특징을 잘 보여준다.

좁은놋단검은 재질이 우수하고 형태가 독특하고 기발한것으로 하여 당대에 이에 비길만 한 단검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잔줄무늬거울

고조선시기에 널리 사용된 거울의 하나이다.

재료는 청동이며 거울 앞면은 반들반들하게 하여 잘 비치게 하였고 뒤면에는 여러가지 무늬를 돋쳤는데 그 장식이 독특하다.

거울 뒤면가장자리에 자름면이 반원형인 테를 두르고 그 테두리안에 극히 정교한 잔줄무늬를 돋혔으며 2~3개의 꼭지를 붙이였다. 세밀한 잔줄을 평행시켜 채운 작은 2등변3각형을 한 단위로 하여 그것을 반복전개한 잔줄무늬, 수많은 직선들은 그 어느 하나도 찌그러지거나 맞붙은것이 없이 정밀하다.

특히 이 거울의 정확하고도 세밀한 잔줄무늬구성은 당시 기하학적장식도안법을 발전시킨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보여준다.

도기

고조선에서는 단군조선초기에 벌써 도기생산기술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른 도기들을 생산하여 리용하였다.

도기는 토기와 달리 밀페된 로에서 소성해낸것으로서 토기에 비하면 그 질이 훨씬 좋고 우월하다.

평양시 삼석구역 표대유적 2기에 속하는 집자리에서는 도기가 나왔는데 재색질이 매우 굳고 얇으며 흡수률이 14.1%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강동군 순창리, 뤼다시 감정자구 후목성역 쌍타자유적 2기층, 평양일대의 나무곽무덤에서 도기들이 드러났다.

도기의 화학성분조성을 보면 장석류, 백토, 석영과 적철광인데 토기에서는 볼수 없는 장석과 백토류가 많이 섞여있다.

고조선에서 만든 도기에는 단지와 항아리, 합, 바리 등 여러가지가 있다.

고조선의 도기는 생산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연질도기로부터 경질도기에로 이행하였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반만년전부터 우수한 도기를 만들어쓰면서 찬란한 도기문화를 창조하였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진취적이며 슬기로운 인민이다.

중 세 조 선

고 구 려

고구려사개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구려는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나라 고대국가의 하나인 구려국일대에서 성립된 우리 나라 력사상 첫 봉건국가로서 근 1000년동안 존재한 동방의 강대국, 자주적인 주권국가였다.

고구려는 B.C. 277년 동명왕(추모, 주몽)에 의하여 성립되였다.

《광개토왕릉비》,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롯한 국내의 력사책들과 《위서》(북위서-북위의 력사를 서술한 책), 《주서》(북주서-북주의 력사를 서술한 책) 등 국외의 여러 력사기록들에는 동명왕의 출생과 그가 나라를 세운 건국과정을 전하는 《동명왕전설》이 실려있다.

동명왕의 아버지는 해모수(부여 귀족출신)였고 어머니는 류화(당시 청하부근의 권력자였던 하백의 딸)였다.

류화는 기구한 경로를 거쳐 부여왕실에서 살던중 B.C. 298년(계해년)에 주몽을 낳았다. 주몽은 부여왕실에서 자라면서 어린시절부터 뛰여난 지략과 무술을 소유한 것으로 하여 뭇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로하여 주몽은 부여왕자들과 대신들의 모해와 박해를 받으며 말목장에서 일하면서 당시 첨예한 사회적모순을 알게 되였다.

나중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닥치게 되자 이미전에 사귄 오이, 마리, 협보 등과 함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부여를 탈출하여 구려땅까지 내려오면서 자기의 세력을 일정하게 확장하였다.

그가 구려에서 처음 자리잡은 곳은 구려 5부의 하나였던 계루부지역이였다. 주몽은 이 일대의 큰 세력자였던 연타발의 딸 소서노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기의 정치, 경제, 군사적지반을 닦아나갔고 B.C. 279년에는 그와 결혼하였다.

주몽은 구려국의 북쪽에 수시로 쳐들어와 략탈만행을 일삼던 말갈족부락을 들이쳐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복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주몽의 명성은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게다가 당시에는 사위된 사람이 장인의 뒤를 잇게 하는 관례가 있는지라 주몽은 B.C. 278년 계루부의 대인(왕)으로 되였다.

계루부의 대표자로 된 주몽은 구려왕을 만나 국사를 의논하게 되였다.

당시 구려국에서는 5부가운데서 연나부(연노부)의 우두머리가 국왕으로 되여있었다.

그즈음 구려국의 형편은 매우 복잡하였다. 극악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노예들의 폭동이 그칠사이없이 벌어졌으며 한편으로는 신흥봉건세력과 낡은 노예주세력사이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있었다.

고대말기의 위기에 처해 모대기고있던 구려왕은 주몽의 명성에 끌리여 그에게 나라의 장래를 맡길 생각으로 둘째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아들이 없었던 구려왕이 얼마후 죽자 사위인 주몽이 그뒤를 이어 왕위를 차지하였다.

주몽은 당시 장성강화되고있던 봉건세력에 의거하였으며 나라이름을 《고구려》라고 고쳤다. 이때가 바로 B.C. 277년이였다.

고주몽을 시조로 하는 고구려봉건국가는 이렇게 세워졌다.

고구려의 첫 수도는 졸본(현재 랴오닝성 환런)이였다. 주몽은 얼마후 졸본성(오녀산성)을 쌓고 수도를 옮기였다.

고구려의 초기령역은 구려국의 령역과 일치하였다.

고구려는 건국이후 주변의 여러 소국들과 정치세력을 통합하여 령토를 넓히면서 국력을 키우고 봉건적인 통치질서를 확대해나가는데 힘을 넣었다.

고구려는 처음 송양왕의 비류국을 통합(B.C. 276년)한데 이어 행인국, 북옥저, 량맥국, 개마국 등을 통합하였으며 B.C. 219년에는 고대국가 부여를 복속시킴으로써 중국의 진나라와 이웃하게 되였다.

고구려의 급격한 장성과 진출은 진나라통치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진시황이 B.C. 214년에 몽념을 시켜 만리장성을 완성하게 한것은 북쪽에서는 흉노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동북방으로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고구려의 소국통합은 1세기 중엽이후 기본적으로 끝나 이때 벌써 사방 2 000리에 달하는 넓은 령토를 차지하게 되였다.

여러 소국들의 통합과정에 봉건적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봉건적중앙집권체계가 확립되여나갔다.

고구려는 령토가 확장되고 봉건적중앙집권체계가 강화되는데 따라 A.D. 3년에 수도를 국내성(현재 지린성 지안시)으로 옮겼다.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과정은 곧 외래침략자들의 횡포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반침략투쟁과정이였다.

고구려는 B.C. 2세기말부터 끊임없이 달려드는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연나라(전연)침략세력을 그때마다 물리쳤다.

특히 고구려는 370년경에 전연에 대한 총공격전을 벌려 만리장성을 넘어 허베이성, 산시성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이 지역을 차지한 고구려는 여기에 유주라는 행정단위를 설치하고 진이라는 사람을 자사(유주의 장관)로 임명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정세가 안정되자 376년에 유주지역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하였다.

고구려는 이를 계기로 다링하하류지역을 확보함으로써 고조선의 옛땅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서쪽국경지역의 정세를 기본적으로 안정시킨 고구려는 4세기 70년대이후 삼국의 통일을 위한 남방진출에 집중하였다.

특히 광개토왕(391년-412년)시기와 장수왕시기(413년-491년) 후부여, 백제, 신라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고구려는 나라의 발전에 비추어 427년에 수도를 지안(국내성)으로부터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으로 옮기였다. 이때의 왕궁은 대성산부근에 자리잡고있었다.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국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지위를 높이며 나아가서 삼국의 통일을 다그쳐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고구려는 494년에 후부여를 완전히 통합하였다.

고구려는 백제, 신라 등을 대상으로 남방진출을 다그쳐 5세기말-6세기 초엽에 아산만-금강-소백산줄기-청하(후의 삼척)계선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북쪽으로 쑹화강을 넘어서고 서쪽으로 랴오하서쪽지대까지 차지하여 동서 6 000여리, 남북 수천리나 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한 강대한 나라로 되였다.

고구려는 백제, 신라, 가야를 다 합친것보다 거의 10배나 되는 대국으로 당시 우리 나라 전체 령역의 10분의 9를 차지한 나라로 등장하였다.

고구려에 의해 세나라사이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고구려의 발전된 제도와 성과들이 백제, 신라 등에 깊숙이 침투해들어감으로써 우리 민족의 단일성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고구려는 대국으로서의 위용에 맞게 552년부터 35년간에 걸쳐 오늘의 평양시 중구역, 평천구역일대에 둘레 23km나 되는 수도성(장안성이라고도 함)을 쌓고 586년에 수도를 옮기였다.

고구려는 6세기말이후 수,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장기적이고 간고한 투쟁을 벌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였으며 백제와 신라를 보호해주었다.

7세기 중엽에 이르러 고구려봉건국가앞에는 안팎으로 위급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666년 고구려의 강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애국명장 연개소문이 죽었다.

당나라는 연개소문의 죽음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고구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적들의 간교한 책동에 말려든 봉건귀족들은 연개소문의 세 아들인 남생, 남건, 남산 등을 끼고 추악한 권력쟁탈전을 벌렸다.

드디여 형제들사이의 권력싸움에서 몰리우게 된 연남생은(막리지의 벼슬에 있었다.) 당나라에 투항변절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러한 때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는 자기의 관할밑에 있던 12개의 성에 사는 3 500여명의 인민들을 데리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고구려지배층안에서 일어난 추악한 권력싸움과 투항변절은 강력한 중앙집권적봉건국가였던 고구려의 방위체계와 통수체계를 걷잡을수 없는 마비상태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틈을 리용하여 《라-당련합군》은 668년 고구려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하였다.

50만이상의 당나라침략군이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20만의 신라군이 남쪽에서 평양성을 향하여 밀려들었다.

668년 9월 평양성이 함락되고 보장왕이 투항함으로써 근 1000년동안 동방의 강대국으로 위용을 떨쳐온 고구려는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고구려의 멸망은 아무리 국력이 강대한 나라라 하더라도 내부가 분렬되고 투항변절자들이 외세와 결탁될 때에는 나라의 통치체제와 방위체계가 마비되여 자기 힘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으며 결국 망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고구려왕조계보

№	이 름	년 대	№	이 름	년 대
1	동명왕	(B.C. 277-B.C. 259)	18	서천왕	(270-292)
2	유류왕	(B.C. 259-B.C. 236)	19	봉상왕	(292-300)
3	여률왕	(B.C. 236-B.C. 223)	20	미천왕	(300-331)
4	대주류왕	(B.C. 223-B.C. 138)	21	고국원왕	(331-371)
5	애루왕	(B.C. 138-B.C. 93)	22	소수림왕	(371-384)
6	중해왕	(B.C. 93-B.C. 19)	23	고국양왕	(384-391)
7	류리명왕	(B.C. 19-A.D. 18)	24	광개토왕	(391-412)
8	대무신왕	(18-44)	25	장수왕	(413-491)
9	민중왕	(44-48)	26	문자명왕	(492-519)
10	모본왕	(48-53)	27	안장왕	(519-531)
11	태조대왕	(53-146)	28	안원왕	(531-545)
12	차대왕	(146-165)	29	양원왕	(545-559)
13	신대왕	(165-179)	30	평원왕	(559-590)
14	고국천왕	(179-197)	31	영양왕	(590-618)
15	산상왕	(197-227)	32	영류왕	(618-642)
16	동천왕	(227-248)	33	보장왕	(642-668)
17	중천왕	(248-270)			

고구려의 통치제도

고구려의 봉건지배층은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중앙 및 지방통치기구를 정비강화해나갔다.

고구려에서 국왕은 황제적지위를 차지하고 전제권을 행사한 최고통치자로 되여있었다.

고구려에서 국왕은 건국초기부터 여러 왕들우에 있는 성왕, 대왕, 황제 등 천자로 자처하고 불리웠다.

372년에는 《천자》의 나라에만 둘수 있다고 하는 최고교육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종합법전으로 인정되는 《률령》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중세기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서만 쓰는 자체의 고유한 년호를 사용하였다.

《건시》, 《영락》 등 년호들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고구려의 국왕들은 군사통수권, 관리임명권, 법률의 제정 등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고구려의 중앙통치기구는 바로 전제군주인 국왕의 중앙집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비되였다.

국왕밑에 최고의 관직으로서 국상이 있었다. 국상은 왕밑에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총괄하는 최고실권자였다. 국상직의 명칭은 여러차례 변화되였다. 건국초기에는 대보라고 부르다가 그후 대보는 좌보와 우보로 분화되였다.

166년에 국상으로 개칭되였고 고구려후반기에는 다시 막리지로 명칭이 바뀌였다.

국상밑에는 세분된 중앙통치기구들이 갖추어져있었고 매 관청들에는 해당한 벼슬아치들이 배치되여있었다.

3세기까지 고구려의 벼슬등급은 대로, 패자, 우태, 대주부, 구사자, 대사자, 주부, 소형, 형, 사자, 조의, 선인 등이 있었다.

5~6세기에는 벼슬등급이 보다 세분화되여 18등급으로 나누어져있었다.

즉 1품(토졸)에서 정 9품(선인)까지 있었고 매 품에 정, 종의 두가지 구분이 있었다.

무관직으로서는 3군대장군, 대장군, 장군과 대모달(막하라수지, 대당주, 위장군), 말객(군두, 중랑장) 등이 있었다.

지방통치기구도 정비강화되였다. 고구려봉건국가는 전국을 왕기(기내)와 외방(기외)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왕기는 국왕의 직할지로서 5부로 이루어져있었는데 수도부근을 포괄하고있었다. 5부는 원래 건국당시 5개 정치세력집단의 거주지였는데 고구려의 령토확장과 더불어 점차 수도부근(경기)의 행정단위로 변하였다.

고구려 경기5부의 구성은 표와 같다.

번호	5부의 이름	방위에 의한 이름	위치에 의한 이름	방위와 결부시킨 색에 의한 이름
1	파루(계루)부	중 부	내 부	황 부
2	환나(순노)부	동 부	좌 부, 상 부	청 부
3	연나(연노)부	서 부	우 부, 하 부	백 부
4	관나(관노)부	남 부	전 부	적 부
5	제나(절노)부	북 부	후 부	흑 부

5부의 장관은 녹살이라고 하였다.

외방은 기본상 국가직할지인 고을로 이루어져있었다.

고을은 크기에 따라 주, 군, 현의 세 등급으로 나뉘여있었는데 주가 군, 군이 현을 장악통제하는 령속관계를 이루고있었다.

주의 장관은 녹살 또는 수사, 군의 장관은 태수, 현의 장관은 현령, 재라고 불렀다.

지방행정단위의 장관들은 자기 고을안에서 군정을 위주로 민정까지 다 틀어쥔 왕권의 대행자들이였다.

고을들의 소재지는 거의다 방어시설인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었기때문에 주, 군, 현 등은 많은 경우 성 혹은 성읍으로 불리웠다.

고구려에서 지방행정구역단위를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설치한것은 지방행정체계가 그대로 국방체계로 되여있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고구려의 지방통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별도(부수도, 림시수도)제의 실시였다. 고구려는 넓은 령토에 대한 중앙집권력의 침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방중심지들에 별도를 두었다.

별도제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후 첫 수도였던 졸본을 별도로 삼은것이 그 발단으로 되였다.

국내성에 수도가 있을 당시 별도는 환도성, 졸본, 평양, 남평양(황해남도 신원군, 재령군일대)이였다.

평양천도이후에는 졸본, 국내성, 북평양(환도성, 봉황성), 남평양(신원군, 재령군일대에 있던 남평양을 6세기초 오늘의 서울일대로 옮겼다.) 등이 별도로 되여있었다.

별도는 부수도, 림시수도로서 수도와 거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국왕이 와있게 되면 곧 수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견지에서 설정한 하나의 정치적중심지였다.

별도의 설치는 해당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치를 강화하여 반침략투쟁과 국토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고구려의 상무적기풍과 강한 군사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슬기롭고 용맹하였을뿐아니라 조국의 방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무술을 배우는것을 남자들의 의무로 여기고 어려서부터 달리기와 말타기, 활쏘기와 칼쓰기를 배웠으며 민간오락과 경기들도 모두 무술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1권, 551페지)

고구려는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다.

고구려의 강성은 상무적기풍의 전사회적지배와 강한 군사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상무적기풍이란 무술을 숭상하는 기풍, 다시말하여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말한다.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적기풍은 옛 력사기록들과 무덤의 벽화, 유물들을 통하여 여러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의 기풍은 우선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우고 익히는것을 남자들의 의무로 여긴데서 표현되였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주몽전설》과 《류리왕전설》등 기록에는 고구려에서는 남자들이 어려서부터 활과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였고 쏘면 백발백중하였다는 자료들이 적지 않다.

중국력사책 《구당서》(류후가 쓴 당나라력사를 서술한 책)에 전하는 경당에 관한 기록은 고구려에서는 남자들이 어려서부터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는것을 보여준다.

《풍속이 책을 사랑하며 지어 천하고 가난한 집에 이르기까지 제가끔 큰 길가에 큰 집을 짓고 그것을 경당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결혼하기 전의 어린 남자들이 밤낮으로 글을 읽고 활쏘기를 배웠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도 고구려에서는 일반사람들의 교육시설인 경당이 각지에 설치되여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활쏘기와 글공부를 시켜 문무를 다 갖춘 사람으로 교육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적인 생활기풍은 또한 민간오락과 경기도 무술을 기본으로 진행한데서 표현되였다.

고구려봉건국가는 인민들의 상무적기풍에 편승하여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고 외세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해 국가적인 사냥경기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였다. 특히 3월 3일과 10월에 국가적인 사냥경기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에는 5부의 군사는 물론 온 나라의 이름난 무사들이 한데 모여 승부를 겨루었다.

민간에서도 사냥과 사냥경기, 말타기, 활쏘기와 같은 무술경기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였다.

현재까지 100여기의 고구려벽화무덤이 발견되였는데 그중 인물풍속도가 있는것이 50여기에 달하며 인물풍속도의 주제는 대부분 무술과 관련된것이였다.

사냥그림, 《마사희》(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경기), 씨름, 수박(손치기)들의 벽화들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고구려에서 상무적기풍은 또한 봉건국가가 사람을 평가하고 등용하는데서 무술과 지혜, 용감성을 기본으로 본데서 표현되였다.

6세기사람인《미천한》온달이 사냥경기에서 우승하고 등용되여 조국방위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당시 고구려에서 사람평가와 등용의 기준이 무술과 지혜가 기본으로 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에서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상무적기풍은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할수 있게 하였으며 군사력을 강화하여 그 어떤 외래침략도 능히 물리칠수 있게 하였다.

상무적기풍이 고구려사람들의 고유한 생활기풍으로 되게 한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고구려력사발전의 특성과 관련되여있었다.

고구려력사발전의 특징은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과정이자 곧 외래침략자들의 횡포한 침략을 반대한 반침략투쟁과정이라는것이다.

고구려는 외래침략세력을 물리치는 투쟁과정에 건국되였으며 외래침략세력의 끊임없는 침략을 격퇴하면서 발전하여왔다.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만행은 평화로운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고구려사람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반침략투쟁은 국가적인 요구로서 제기된 동시에 매 고구려사람들의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되였다.

당시 활, 창, 방패, 도끼, 말 등이 전쟁의 기본무기로 되여있었으며 집단적인 접전이 기본싸움형식이였다.

따라서 외적과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몸이 튼튼해야 하고 칼, 창 등을 능란히 다루며 말을 잘 타야 하였다. 끊임없는 전투과정에 이를 자각한 고구려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고향을 지키며 조국방위를 위하여 무술을 중히 여기고 생활의 전 과정이 몸을 단련하고 무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되게 하였다.

이 과정에 고구려사람들속에서는 열렬한 애국심과 용감하고 진취적인 기질이 형성되였으며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체질과 의지를 지닐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하여 고구려에서는 상무적기풍이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생활기풍의 하나로 되였다.

고구려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있었다.

고구려에는 애국심이 높고 무술에 능한 사람들로 편성된 수십만의 강한 군대가 있었다.

고구려의 상비군은 약 30만이였는데 유사시에는 온 나라 인민이 군대와 함께 싸움에 떨쳐나섰다.

고구려군대는 륙군과 수군으로 이루어졌는데 륙군병종에서 기병의 비률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기동력이 빠르고 전투력이 강했다.

고구려군대는 정연한 군사지휘체계에 의하여 움직이였다.

고구려에서는 국상을 비롯한 봉건관료들이 군대를 직접 통솔하였다.

지방장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구려에서는 군사에 밝은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행정권과 군사지휘권을 다같이 틀어쥐고있었으므로 평시에는 행정관리로, 전시에는 군사지휘관으로 되였다.

무술에 능한 고구려의 장정들은 모두 평시에는 생산자, 전시에는 전투원이였다. 그들은 늘 무기를 갖추고있었을뿐아니라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줄 알았다.

정연한 군사지휘체계의 확립, 이것은 고구려가 건국이래 반침략투쟁을 끊임없이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건에서 세워진 국방체계의 한 측면이였으며 군사력이 강한 고구려국가체계의 특성이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군대는 우수한 무기, 무장을 갖추고있었다.

고구려에서는 강철제무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성능이 좋은 무기가 많이 생산되여 군대의 무장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공격용무기로서는 활과 칼, 창이 기본이였다.

고구려에는 《맥궁》이라고 불리우던 활이 있었는데 그 성능이 좋아 이웃나라들에까지 널리 알려져있었다.

고구려의 칼은 질좋은 강철로 만든 우수한것이였다.

창에는 긴창(기병용)과 짧은창(보병용)이 있었다.

이밖에 공격용무기로서 《극》(갈구리창), 《월》(도끼), 《쇠뇌》(노기), 포차 등이 있었다.

방어용장구류로는 갑옷과 투구, 방패가 있었다.

고구려의 철기(개마무사-기병과 말에게 모두 갑옷을 입힌것)부대는 외래침략자들에게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되였다고 한다.

고구려에는 성방어체계가 정연하였다.

고구려의 성방어체계는 크게 네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다.

전초방어성(감시방어성), 전연방어성(국경방어성), 연도방어성(중간방어성), 수도방어성(최종방어성)이 있었는데 이 체계에 따라 기본요충지들에 수백여개의 성들이 배치되여 강력한 방어진을 형성하고있었다.

정연한 성방어체계의 수립은 외래침략자들의 집요한 침략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고구려는 이렇듯 강력한 군사력과 그를 안받침하여준 상무적기풍이 있음으로 하여 끊임없이 달려드는 외적의 침공을 단호히 짓부시고 삼국의 통일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위력을 떨칠수 있었다.

고구려시기의 주요사변

고구려-한전쟁

고구려인민들이 B.C. 2세기 말엽~2세기 후반기 한나라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운 전쟁이다.

한나라침략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은 일찍부터 줄기차게 벌어졌다.

B.C. 108년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는 고구려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고구려인민들앞에는 동족의 나라 고조선을 강점하고 나라의 서쪽지역에 기여든 한나라침략세력을 몰아내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섰다.

고구려는 자기 령토안에 일시 기여들어온 한라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반공격전을 벌리면서 더 나아가 침략세력을 짓부시고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후한은 A.D. 28년에 수도(국내성)부근까지 기여들었으나 위나암성전투에서 좌보 을두지가 지휘한 고구려군민들에 의하여 된타격을 받고 도망치고말았다.

고구려는 A.D. 49년 봄에 후한의 랴오둥군과 그 서쪽의 유베이핑, 위양, 상저우, 타이위엔 등지를 공격하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A.D. 55년에는 랴오하서쪽국경지대에 10개의 성을 쌓고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고구려군은 후한의 현도군에 대한 111년과 118년 두차례의 공격을 단행하고 121년-122년 후한군의 대규모공격을 물리침으로써 후한으로 하여금 오래동안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포기하게 하였다.

고구려는 서쪽으로부터 침입하는 한나라침략군에게 적극적인 반공격전을 진행하

는 동시에 남쪽으로도 진격하였다.

그리하여 3세기에는 대동강류역까지 장악하였다.

고구려군이 남진에 집중하는 기회를 엿보던 후한은 172년에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때 고구려군민은 국상 명림답부의 지휘밑에 위나암성에 의거하여 적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안기였다.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고구려의 청야전술에 걸려든 적들속에서는 심한 동요와 공포가 조성되고 도망하는자들이 나타났다. 적들이 할수없이 포위를 풀고 퇴각하려할 때 고구려군은 강한 기병으로 추격전을 들이대였고 좌원(타이쯔하상류지방)에서 일대 섬멸전을 벌려 큰 전과를 거두었다.《삼국사기》에 의하면 한마리의 말조차 돌아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고구려-위전쟁

3세기초에 한나라가 망한 후 중국은 위, 오, 촉 세나라로 분렬되였다.

북중국일대에 선 위나라는 정세가 안정되자 고구려의 일부 령역을 점령하는 배신행위를 하였으며 고구려침략에 더욱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239년부터 250년대말까지 고구려-위전쟁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특히 246년 위나라침략군을 격퇴하는 투쟁은 고구려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격전이였다.

관구검이 거느린 수만명의 침략군이 8월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2만명의 고구려군사들은 초기 비류수와 량맥골짜기에서 적 6 000명을 소멸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일시적인 승리에 자만한 동천왕의 실책으로 고구려는 그후 크게 패하였다.

림시수도 환도성이 함락되고 국내성은 파괴되였으며 동천왕은 남옥저(오늘의 함경남도지역)까지 피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애국적인 고구려군사들에 의하여 불리한 정세가 극복되고 사태는 역전되였다.

동부출신 밀우는 결사대를 무어 전장에서 쓰러질 때까지 용감히 싸웠다.

그사이 정세가 수습되여 고구려군은 대오를 정비하고 반격전을 준비할수 있었다. 특히 뉴유는 적들의 검질긴 추격을 분쇄하기 위하여 계책을 꾸며 적진속에 들어가 위나라장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체 하다가 칼로 그를 찔러죽이고 자신도 희생되였다.

지휘관을 잃은 위나라군사들이 혼란된 기회에 고구려군은 반격으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최종적으로 격퇴하였다.

259년 12월 위나라는 또다시 울지해를 우두머리로 하는 수만명의 대군으로 불의에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고구려는 5 000명의 정예기병을 마련하여 적들을 량맥골에서 포위공격하여 8 000여명을 소멸함으로써 침략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놈들은 더 침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치고말았다.

고구려-연전쟁

3세기 후반기 랴오시일대에서 큰 집단을 이루고있던 유목종족인 모용선비세력은 주변의 여러 세력을 통합하여 령토를 급속히 넓히면서 위험한 침략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모용선비의 추장 모용외는 고구려의 장성에 위압을 느끼면서 고구려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있었다.

모용외는 293년 고구려의 서북국경의 중요한 요새인 신성부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신성의 장관 고노자가 지휘한 고구려군은 적들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모용선비족은 첫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296년에 다시 고구려에 침입하였다가 고구려의 역습을 받아 쫓겨가고말았다.

고구려는 적들의 계속되는 침입에 대처하여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임명하여 서북방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여러차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고구려는 그후 20여년동안 주도권을 틀어쥐고 서쪽으로 진출하여 고조선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림으로써 랴오하동쪽의 넓은 지역을 되찾을수 있었다.

고구려의 장성강화되는 위력앞에 겁을 먹고 한동안 랴오하서쪽으로 밀려갔던 모용선비족들은 그후 4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추서기 시작하였다.

337년 연나라(전연)를 세우고 왕으로 된 모용황은 339년 대부대를 파견하여 고구려의 북방요새인 신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고구려군의 즉시적인 반격을 받고 쫓겨가고말았다.

고구려에 대한 침략에서 거듭 실패한 연나라통치배들은 342년 전례없는 대규모의 침략군을 동원하여 고구려에 침입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은 적들을 깔보고 구체적인 적정료해도 없이 병력배치를 잘못하여 불의의 타격을 받고 환도성까지 내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적들은 고국원왕의 어머니를 랍치하고 미천왕의 시체까지 파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때 고구려군민들은 불리한 정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큰길로 쳐들어오는 적군 1만 5 000명을 전멸시키고 환도성을 되찾았다.

고구려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침략자들을 물리치기만 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기 북중국일대에 혼란이 일어나고 전진과 전연사이에 치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유리한 정세를 리용하여 서쪽의 광활한 지대로 진출하였다.

369년 10월 고구려군은 만리장성을 넘어 전연에 대한 총공격전을 벌려 범양국(베이징남방), 대군(허베이성서북부, 산시성동북부)일대에까지 진출하여 차지하였다.

고구려는 370년경 새로 차지한 지역에 13개 군 75개 현으로 이루어진 유주라는 행정단위를 설치하고 진이라는 사람을 자사(유주의 장관)로 임명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1976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서 발견된 벽화무덤의 벽화와 묵서는 그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고구려는 376년에 유주지역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구려는 다링하하류지역의 무려산계선을 확보하고 서쪽경계로 삼음으로써 고조선의 옛땅을 완전히 확보할수 있었다.

그후 고구려는 385년에 4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다시 세워진 연나라(후연)의 랴오둥, 현도를 점령하고 1만명을 포로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후연침략군은 400년에 고구려에 불의침공하여 신성, 남소성을 강점하고 일시적으로 700여리의 땅을 차지하였다.

고구려는 405년과 406년 련속 기여드는 후연침략군을 물리침으로써 오랜 기간

에 걸친 후연과의 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고구려-연전쟁의 승리는 고구려가 4세기 후반기에 벌써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등장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고구려-수전쟁

598년부터 614년까지 고구려인민들이 4차례에 걸쳐 침입한 수나라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전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구려인민들은 70년동안이나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규모적이고 집요한 침략을 격퇴하고 나라의 존엄과 독립을 지켜냈다.》(《**김정일**선집》 제1권(증보판), 34페지)

수, 당나라침략자들을 련이어 구축한 고구려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많은 애국명장들을 배출하고 중세 세계전쟁사에 보기 드문 전과를 내였다.

수나라침략군의 제1차침입 격퇴

수나라는 581년에 북주왕실의 외척 양견이 북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이다.

중국은 220년 한나라가 망한 후 300년이상이나 분렬되여 서로서로 정복전쟁을 하는 전란의 시대를 거듭하였다. 이 전란은 589년 수나라에 의하여 결속되고 중국은 다시 통일되였다.

수나라통치배들은 저들의 《강대성》을 믿고 주변나라와 종족들을 정복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벌려놓았다.

고구려에 대해서도 위협과 공갈을 일삼는 한편 고구려국경일대에 많은 군사들을 집결시키면서 무력침공준비를 서둘렀다.

수나라 문제(양견)는 고구려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하로서 수나라의 법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왕을 쫓아버리겠다.》, 《한명의 장수로써 능히 고구려를 정복할수 있다.》고 위협도 하고 수나라 사신을 연금상태에 두고있다느니, 기병으로 수나라국경을 자주 침범한다느니 하면서 트집을 걸었다.

이와 함께 위충을 융저우(다링하중류 서쪽에 위치-차오양)총관으로 임명하고 여기에 침략무력을 집결시켰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598년 2월 1만명의 고구려군사들은 랴오시지방의 융저우를 들이쳐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돌아왔다. 이것은 정당한 자위적조치였다.

오래전부터 전쟁준비를 다그쳐온 수나라는 이를 구실로 그해 6월 100만명 침략군을 내몰아 고구려에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적들은 바다와 륙지로 밀려들어왔다.

륙군은 서쪽방면의 전초기지인 무려라성을 강점하고 랴오하계선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은 랴오하계선에서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겨 놈들의 침공을 완전히 좌절분쇄해버렸다.

수군은 평양을 목표로 정하고 동래(산둥반도)를 떠나 진격하던 도중 풍랑을 만나 거의다 전멸되고말았다.

중국의 봉건사가들까지도 이 사실에 대하여 수나라군사가 《9월에 돌아왔는데 죽은자가 10중 8~9였다.》고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수나라침략자들에게 안긴 첫 타격이였다.

제2차침입 격퇴

수나라통치배들은 첫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온 나라의 잠재력을 다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준비에 몰두하였다.

특히 604년에 제 애비를 독살하고 왕자리에 올라앉은 수양제(양광)는 근 10년간에 걸쳐 전례없이 큰 규모의 무력침공준비를 벌리였다.

수양제는 군마와 무기, 장구류들을 다 정교하고 새롭게 만들도록 강요하였다.

군마는 비싼값을 주고라도 사게 하였는데 당시 말값이 올라 한필당 10만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도 모자라는 수량을 채우기 위하여 산둥지방에 말기르는 전문관청까지 두었다.

수양제는 또한 611년 2월에 전국의 배사공, 수공업자들을 징발하여 산둥반도바다가에서 전함 300척을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수나라통치배들은 사람들을 주야로 물속에서 일하게 하고 휴식조차 주지 않아 허리아래에 구데기가 쓸 정도였고 죽은 사람이 10명중 3~4명은 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수양제가 침략전쟁준비를 얼마나 발광적으로 추진시켰는가 하는것과 함께 고구려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가 하는것을 반증해준다.

10년간에 걸쳐 전쟁준비를 다그쳐온 수나라침략자들은 612년 1월에 양제의 통솔밑에 고구려를 향해 탁군(베이징부근)을 출발하였다.

이 전쟁에 동원된 병력은 륙군전투부대만도 113만 3 800명이였고 치중부대(후방보장부대)는 그 2배나 되여 결국 적군의 수는 300만이 되였다.

탁군에서 첫 부대가 출발한 때로부터 마지막부대가 출발할 때까지는 40일이 걸렸고 행군대렬의 길이는 무려 1 040리에 달하였다. 한편 래호아가 거느리는 수군은 수백척의 함선에 나누어타고 산둥반도에서 대기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병력수와 군사장비 등은 그 규모에 있어서 당시까지의 세계전쟁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력사상 최대의것이였다.

수양제는 이만한 병력과 장비면 고구려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능히 굴복시킬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슬기롭고 용감한 고구려인민들은 외적의 침략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반침략전쟁에 떨쳐나섰다.

고구려에서는 적들의 대규모침략에 대처하여 을지문덕장군을 총지휘관으로 하는 지휘부를 부수도인 봉황성(북평양)에 두었다. 그리고 랴오하계선의 방어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612년 3월 수나라침략군은 드디여 고구려의 국경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군은 랴오하서쪽의 전초기지인 무려라와 통정진에서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적들은 3월 중순경 랴오하에 배다리를 놓고 강을 건느려고 시도하였다.

고구려군사들은 적들의 부교설치를 파탄시키는 큰 타격전을 벌렸다.

급해맞은 적들이 채 완성되지 못한 부교를 통하여 일부가 강을 건너 동쪽기슭으로 기여들자 고구려군사들은 높은 언덕에 의지하여 또다시 드센 타격을 들이댔다.

이 전투에서 《용맹》을 자랑하던 적군선봉장인 맥철장을 비롯한 장수 3명과 수많은 병졸들이 황천객이 되였다.

고구려군은 랴오하계선에서 근 한달동안 적들의 침공을 저지시키고 철수하였다.

적들은 랴오하를 건너 4월 중순경부터 신성, 랴오둥성, 백암성을 비롯한 랴오하동쪽의 고구려성들을 점령하려고 달려들었다. 특히 적들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요

충지인 랴오둥성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수십만의 대군이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밤낮으로 검질기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성은 끄떡없었다.

고구려의 완강한 항전에 초조해진 수양제는 6월 11일 직접 랴오둥성에 나타나 전투를 지휘하였지만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다. 전투는 7월말 적들이 쫓겨날 때까지 계속되였다.

랴오둥성만이 아니라 랴오하동쪽의 다른 성들에서도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랴오둥성에서 고구려군민의 장기적이고 완강한 항전의 결과 적들의 속전속결전략은 파탄되고 고구려는 전쟁의 주도권을 틀어쥐게 되였다.

극도로 당황한 수양제는 새로운 작전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봉황성을 쳐서 점령한 다음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보자는것이였다.

조성된 정황으로 보아 기본수도였던 평양성에 대한 공격은 도저히 불가능하였으므로 왕이 나와있고 전선지휘부가 자리잡고있는 봉황성만이라도 점령하려고 망상하였던것이였다.

이를 위하여 수양제는 랴오하계선에서 7개 군단을 선발하고 새로 2개 군단을 편성하여 9개 군단으로 된 별동대 30만 5 000명을 조직하였다. 수양제는 별동대로 하여금 화원진(다링하하류 서쪽)에 집결하였다가 타이쯔하하류쪽으로 해서 고구려의 방어진을 돌파하게 하였다. 한편 대기상태에 두었던 수군을 별동대와 합세시켜 봉황성을 공격하여 수륙병진작전으로 봉황성을 점령하고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였던것이다.

래호아가 거느린 적수군은 수양제의 명령에 따라 산둥반도를 떠나 압록강하구에 이르러 별동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무렵 9개 군단의 별동대는 아직 타이쯔하하류에 머무르고있었다.

공명심에 들뜬 래호아는 반대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만여명의 군사를 봉황성공격에로 내몰았다.

봉황성방어를 책임지고있던 고건무는 달려드는 적들을 유인하여 소멸할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웠다.

유인기만전술에 걸린 적들은 봉황성 라성(외성)까지 기여들었으며 그때까지 크게 이긴줄로만 생각하였다.

미리 매복하고있던 고구려군사들은 불의의 기습으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결과 4만여명의 적수군가운데서 살아도망친자는 불과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다.

겨우 목숨을 건진 래호아는 바다에서 별동대를 기다리다가 얼마후 도망치고말았다.

이 전투의 승리로 적들의 수륙병진작전은 결정적으로 파탄되게 되였다.

수군까지 녹아난 조건에서 수양제의 기대는 별동대에 집중되였다.

그러나 적별동대는 타이쯔하하류에 이르렀을 때 벌써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다싶이 되였다. 심한 식량난에 부닥쳐 전투행동을 할 엄두도 못낼 지경이였다.

별동대가 6월말 기지를 떠날 때 군사들이나 말들은 각각 100일분의 식량에다가 갑옷, 창, 천막과 같은 물자들을 지고가도록 되여있었다. 그러니 짐의 무게는 한명당 3석(약 240kg)이상씩 배당되는셈이였다.

물론 말잔등으로 더러 운반할수는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지나친것이였다.

아마도 기본전선을 뚫고 후방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부대인데다가 이전에 고구려의 청야전술에 녹아났던 교훈으로부터 내려진 조치였던것이다.

적장들은 《군량을 떨구어놓거나 버리는자는 목을 친다.》는 군령까지 내렸다.

그리하여 별동대가 그 짐을 모두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너무도 과중한 짐때문에 행군속도는 더디고 군사들도 말들도 며칠 못가서 다 맥이 빠지고말았다.

수나라군사들은 숙영지마다에서 천막안에 구뎅이를 파고는 짐을 덜어서 묻어버리군 하였다.

그러다보니 압록수(타이쯔하)에 가닿기도 전에 식량이 거덜이 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을지문덕은 적정을 구체적으로 탐지하기 위하여 담판을 구실로 적진속으로 들어갔다.

을지문덕은 담판을 질질 끌며 적내부실태를 료해하였다. 그는 적들이 기아에 허덕이고있으며 적장들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다는것도 포착하였다.

담판은 을지문덕이 임금에게 보고하여 론의한 다음 다시 하는것으로 매듭지었다.

을지문덕일행은 유유히 적진영을 벗어나 귀로에 올랐다.

사실 우중문은 수양제로부터 만일 고구려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꼭 사로잡으라는 비밀지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수양제가 파견한 상서우승 류사룡의 권고로 그 지령은 집행될수 없었다.

을지문덕은 적정을 료해한데 기초하여 유인기만과 청야전술로 놈들을 완전히 피로케 한 다음 손쉽게 타승할 작전을 벌렸다.

을지문덕장군의 작전에 따라 하루 7번 싸움을 걸되 매번 패하는척 하면서 적을 유인하였다. 국내깊이 점점 끌려들어오는 적들은 청야전술에 걸려 식량이나 소금 등을 얻을수 없었다.

고구려군은 유리한 계선에서는 적을 타격하였다. 고구려군은 험한 치리엔산(천산)산줄기를 넘어온 적의 치중부대를 오골성(수암성)에서 들이쳐 큰 타격을 주었다.

이것은 적의 숨통을 더욱 조여놓는 전략적인 타격전이였다.

겨우 대오를 수습한 침략군은 고구려군의 계속되는 유인전술에 걸려 동쪽으로 살수(소자하)를 건너 평양성밖(봉황성) 30리지점까지 기여들었다.

그제서야 우중문은 자기들이 함정에 빠졌다는것을 깨달았다.

적군이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져 전전긍긍하고있을 때 을지문덕은 적장 우중문에게 시 한수를 지어보냈다.

신통한 책략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하였네
싸움에서 이겨 공로가 이미 높거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떠하리

고구려명장의 담대한 기상이 시구마다 풍기는 시를 받아본 우중문은 기가 꺾이여 제놈들의 패배를 깨닫고 야밤에 퇴각명령을 내렸다.

을지문덕장군은 방진으로 대오를 짜고 퇴각하는 적들을 추격하게 하였다.

적들은 고구려군의 맹렬한 추격을 받으며 살수(샤오쯔하)가에 이르렀다.

을지문덕은 이미 살수에 많은 군사를 매복시켜놓았었다.

그리하여 7월 24일 살수에서 대규모의 포위섬멸전이 벌어졌다.

적군이 살수를 건느기 시작하자 매복하고있던 고구려군사들이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살수계선에서 적 별동대는 거의 전부가 녹아났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1개 군단의 적들이 설세웅의 지휘밑에 백석산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군은 적들을 수

십겹으로 포위하고 공격전을 벌려 거의다 소멸하였다.

살수전투의 전과를 두고 후세의 한 시인은

《살수의 푸른 물이 출렁이며 흐르고
백만의 수나라군사들은 물고기밥이 되였도다.》

라고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살수전투의 전과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것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국내외 문헌들에 9개 군단이 처음 떠날 때에는 30만 5 000명이나 되였는데 살수전투이후 랴오둥성근처까지 살아돌아간자는 겨우 2 700명밖에 안되였다고 전한 기록에서도 잘 알수 있다.

요행 목숨을 건진 놈들이 살수에서부터 압록수까지 450리나 되는 거리를 하루낮 하루밤사이에 줄행랑을 놓았다고 하니 적들이 얼마나 혼쌀이 났는가는 짐작키 어렵지 않다.

우리 선조들은 살수싸움에서 이룩한 큰 승리를 《살수대첩》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고구려의 강대성과 민족적기개의 상징으로 여기며 자자손손 긍지높이 전해왔다.

얼마간의 패잔병들이 당도할 때까지도 랴오둥성공격으로 세월을 보내고있던 양제는 별동대가 모조리 녹아났다는 보고를 받자 7월 25일 총퇴각명령을 내렸다. 악에 받친 양제는 패전의 책임을 부하장수들에게 들씌워 처벌하였다.

우문술은 사돈벌이 되므로 죽이지는 않고 평민신분으로 떨구어놓았고 류사룡은 을지문덕을 놓아준 죄로 참형에 처하였다. 그리고 우중문은 감옥에 갇혔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612년 수나라의 침략규모와 패전상이 당시 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것이였듯이 고구려의 전과는 중세전쟁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큰것이였다.

제3차침입 격퇴

거듭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당한 수양제는 거기서 교훈을 찾을 대신 고구려정복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613년에 세번째로 전쟁을 도발하였다.

양제의 명령에 따라 수나라는 전국을 동원하여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댔다. 양제는 4월에 침략군을 편성해가지고 고구려에 침입시켰고 제놈이 이 전쟁을 직접 지휘하려고 또다시 랴오하를 건너섰다.

우문술과 양의신이 침략군을 이끌었다. 양제는 평민으로 떨구었던 우문술을 다시 등용하여 3차침입때 선봉장으로 삼았다. 2차침입때 죄과를 이 전쟁에서 씻으라는 의도였다.

적들은 먼저 주요성새의 하나인 신성을 공격하였다가 좌절당하고 랴오둥성에 무력을 집결하였다.

양제는 랴오둥성을 기어이 점령해보려고 꾀하면서 장수들을 불러다놓고 정세에 맞게 임의로 전투를 진행할 권한을 주었다.

침략군은 비루(성을 우에서 공격하기 위하여 높은 다락을 설치한 성공격기재), 충차(성벽을 때려허무는 기구가 설치된 수레), 운제(높은 사다리)로 공격하기도 하고 땅굴을 파서 밑으로부터 성을 허물고 성안에 기여들려고 책동하면서 사방으로 달려들었다. 전투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치렬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수많은 주검을 내면서 20여일이 지나도록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약이 오른 양제는 자신이 직접 랴오둥성공격을 지휘하였다.

그는 100여만개나 되는 베자루에 흙을 채우고 그것으로 너비 30보(약 50m)에 높이가 성벽높이와 같게 뚝을 쌓아올리게 한 다음 거기에 군사들을 올려보내여 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한편 높이가 성벽보다 높고 바퀴가 8개나 달린 높은 다락수레를 만들어 뚝의 좌우에서 성안을 내려다보면서 화살을 날리게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랴오둥성 군민의 완강한 항전으로 실패만을 거듭하였다.

게다가 수나라안에서는 농민폭동이 일고 이 전쟁에서 식량보장을 맡았던 례부상서 양현감이 6월에 농민폭동기세에 편승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수양제는 대경실색하였다. 고구려정복은 고사하고 황제자리마저 위태롭게 된것이였다.

양제는 하는수없이 군수물자와 병영, 장막 등을 그대로 남겨둔채 밤중에 은밀히 퇴각하고말았다.

사태가 급변되자 양현감과 그전부터 친밀한 사이였던 병부시랑 곡사정이 화가 미칠것이 두려워 고구려에 망명하였다. 고구려군은 곡사정을 통하여 수나라침략군의 내부형편과 양현감의 반란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이틀이 지난 다음 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적들이 퇴각해 갈 때 곧 따라가며 족쳤더라면 보다 큰 전과를 거두었을것이다. 그런데 랴오둥성안의 일부 장수들이 소심하여 급변한 정세를 관망하다가 뒤늦게 추격명령을 내렸던것이다.

뒤늦기는 하였으나 고구려군은 적군을 80~90리 뒤에서부터 추격하여 아직까지 랴오하를 채 건느지 못하고 우물거리던 수만명의 침략군을 들이쳐 수천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613년 고구려군민의 승리는 고구려사람들의 애국적기개를 또다시 시위하였으며 수나라침략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제4차침입 격퇴

613년 세번째로 고구려에 침입하였다가 쫓겨갔던 양제는 8월에 가서야 양현감의 반란을 진압할수 있었다.

반란은 진압되였으나 수나라의 전국도처에서 타번지던 농민들의 투쟁은 더욱 드세차졌다.

614년 2월 양제는 고위급관료들을 불러놓고 고구려를《징벌》할데 대한 모의를 여러날 거듭하였으나 세차례나 겪은 고구려사람들의 용맹한 기질과 위력에 겁을 먹은 관료들은 감히 또다시 고구려를 치자고 주장해나서지 못하였다.

양제는 반대파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고구려침입을 명령하였다.

614년 7월 양제는 자신이 직접 이 침략전쟁을 지휘하려고 랴오시군 회원진으로 나갔으며 래호아가 지휘하는 수군으로 하여금 랴오둥반도에 있던 고구려의 성인 비사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국도처에서 통치배들의 학정을 반대하는 농민봉기가 쉴새없이 일어나면서 통치질서는 이미 완전히 마비되여 양제의 명령은 잘 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양제의 명령으로 랴오시지방으로 모이게 되였던 군사들이 거의나 오지 않았으며 뒤늦게야 왔다는 얼마 되지 않는 군사마저 식량이 없고 무기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다.

수나라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때에 포착한 고구려는 한편으로는 침입하는 적들을 호되게 쳐부시며 다른편으로는 고구려에 투항하였던 곡사정을 돌려보내면서 빨리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곡사정의 송환은 곤난한 처지에 빠져있던 양제에게 도망칠수 있는 구실을 찾게 하였다. 바빠맞은 양제는 8월에 혼란에 빠진 침략군을 수습도 못다한채 도망치고말았다.

수나라침략군들은 그후 다시는 고구려에 침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고구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던것은 우선 고구려군민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싸운데 있었다.

그것은 또한 침략군의 수적우세를 확고한 전략전술적우세로 맞받아싸운데 있었다.

고구려는 적정을 꿰뚫고 불의기습전, 유인기만전술, 청야수성전술, 매복전술 등 다양한 전략전술을 환경과 조건에 맞게 능숙하게 적용함으로써 적들의 수적우세를 타승할수 있었다.

또한 고구려의 국력이 그만큼 강한데 있었다.

고구려-수전쟁은 《천하의 대국》이라고 으시대던 수나라와 실제상 동방의 강국이였던 자주적인 주권국가 고구려와의 힘의 대결이였다.

이 힘의 대결에서 고구려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쟁의 결과는 고구려가《천하의 대국》도 자체의 힘으로 능히 타승할수 있는 그야말로 강성국가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고구려-수전쟁에서 고구려의 빛나는 승리는 그후 진행된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에 고무적영향을 주었으며 수나라의 멸망을 촉진시킨 계기로 되였다.

고구려-당전쟁

645년부터 648년까지 고구려인민이 3차례에 걸쳐 침입한 당나라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전쟁이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당한 참패가 주되는 원인이 되여 618년에 망하고 새로 당나라가 섰다. 당나라 역시 처음부터 주변나라들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전쟁에 매여달렸다.

그러나 고구려에 대해서만은 감히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화친》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국내정세가 안정되고 권력지반이 강화되자 고구려에 대한 침략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전쟁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642년 정변으로 실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로골적인 위협과 공갈, 내정간섭시도를 단호히 물리치면서 강경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변이후 연개소문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당나라의 간섭과 압력에 견결한 자세로 맞섰다.

당태종은 고구려침략의 구실을 찾으며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당태종이 전쟁준비를 위하여 얼마나 윈심을 썼는가 하는것은 그가 644년 10월에 수도 장안의 로인들을 불러놓고 자식들을 침략전쟁에 내보내라고 회유기만한 사실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그때 로인들은 수나라의 대참패의 여운이 아직도 력력한지라 자식들을 죽음터로 내보내기를 반대하였던것이다.

그러한속에서 11월에 전쟁준비를 완료한 당태종은 이 전쟁에서《승리할수 있는 다섯가지 조건》이라는것을 내놓았다.

물론 이것은 침략전쟁을 달가와하지 않는 자기 나라 인민들과 군사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어 전쟁터로 내몰기 위한 얼림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당나라침략자들은 고구려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오래전부터 철저히 진행하였다.

이것은 수나라침략군을 4차례나 물리친 고구려의 강대성에 대결하기 위한 대책이였고 당시 주변의 나라와 민족을 정복한 당나라가 기어이 고구려를 타승해보려는 야심에서 출발한것이였다.

645년 4월 당태종은 100만의 침략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이때 당나라의 전략은 수륙병진으로 랴오하계선의 주요방어성들을 점령하여 고구려의 주력을 격파한 다음 국내깊이 쳐들어가는것이였다.

이것은 수양제가 랴오하류역의 성들을 점령하지 못한채 별동대를 종심깊이 침입시켰다가 참패를 당한 교훈에 비추어 고안해낸 계책이였다.

이 계책에 따라 리세적이 거느린 륙군은 통정진방면에서 랴오하를 건너 남쪽으로 내리공격하였고 장량이 거느린 수군은 랴오둥반도에 상륙하여 비사성을 불의에 공격점령하고 북으로 올리공격하였다.

침략군은 먼저 신성과 건안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킬수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리세적의 침략군은 력량을 집중하여 개모성(평지성이였다)을 포위공격하였다.

당시 개모성에는 2만여명의 인원과 10여만섬의 량곡이 있었다.

적 대군의 집중공격을 받은 개모성군민들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12일만에 성은 함락되였다.

적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4월말~5월초 전략적요충지인 랴오둥성을 포위공격해갔다.

당태종은 이 전투를 총지휘하기 위하여 랴오둥성서남쪽 마수산에 주둔하면서 자신이 랴오하를 건너오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다리를 끊어버리게 하였다.

이때부터 랴오둥성에 대한 발악적인 공세가 시작되였다.

랴오둥성은 수백겹으로 포위되였고 적들은 밤낮으로 검질기게 달려들었다.

적군은 300근짜리 돌을 1리이상(560m)날리는 포차를 리용하여 성벽의 곳곳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방위자들은 성벽이 무너지면 나무를 쌓아 다락을 만들고(목책) 동아줄로 그물을 쳐서 보수하였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성벽을 파괴하는데 쓰는 충격용무기인 충차로써 성가퀴와 성문의 다락집을 파괴하였다.

적들은 충차꼭대기에 올라 남풍을 리용하여 성의 서남쪽다락에 불을 질러놓았다.

세찬 바람으로 불길이 번지는 통에 랴오둥성은 불바다로 변해버렸다.

이 틈을 타서 침략군이 랴오둥성으로 쳐들어왔다.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애국적인 고구려군사들과 인민들은 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웠으나 랴오둥성은 적들에게 강점되고말았다.

하지만 완강한 방어로 침략자들의 고구려국내깊이 쳐들어오려는 기도를 17일간이나 저지시키였고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내게 함으로써 645년전쟁의 전반적승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적들은 가까스로 료오둥성을 함락시킨데서 기운을 얻고 료오하동쪽 백암성으로 몰려들었다.

고구려지휘부는 백암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골성의 군사 1만여명을 뽑아 지원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지원군은 백암성에 이르기 전에 적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말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안의 방위자들은 높은 투쟁기세로 과감히 싸웠지만 6월에 지휘관이였던 손대음의 투항으로 성은 점령되고말았다.

그후 전선의 중심은 안시성으로 옮겨졌다,

안시성방어전투는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결전이였다,

그것은 안시성이 군사전략적으로 료오둥성 다음가는 위치에 있었고 특히 료오둥성, 개모성, 백암성, 비사성이 적들에게 강점되여 국경방어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되였던 사정과 관련되였다.

적들로서는 안시성만 점령하면 국경지대의 기본방어성들을 거의다 점령하는것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안시성은 처음부터 적들과의 가장 치렬한 결전장으로 되였다.

6월 중순경이후 당태종은 수십만의 침략군을 안시성공격에로 내몰았다.

당시 안시성에는 양만춘장군이 지휘하는 10만의 방어군이 있었다.

고구려총지휘부에서는 안시성방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5만여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증원군대렬은 무려 40리에 달하였는데 이를 본 당태종의 얼굴이 새까맣게 질렸다고 한다.

그러나 15만명의 대군은 고연수, 고혜진의 허세와 무능성, 투항으로 하여 적들의 사면포위에 걸려 막대한 손실만 당하였다,

결과 안시성은 외부의 지원을 받을수 없게 되였고 성은 적들의 완전포위에 들었다.

침략군은 안시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공성무기들을 총동원하여 매일 6~7차례씩 집요한 공격을 들이대였다.

성안의 방위자들은 양만춘의 지휘밑에 희생적으로 싸웠다.

밤에는 적진지를 기습하여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방위자들은 당태종이 나타나면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면서 기세를 돋구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마다 당태종은 성이 독갈이 올라 노발대발하고 리세적은 성을 함락시킨 다음 성안의 사람들을 다 생매장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고 한다.

거듭되는 패전으로 초조해진 당태종은 안시성의 동남쪽모퉁이에 흙산을 성보다 높이 쌓고 그것을 거점으로 성안을 내려다보면서 공격하려고 꾀하였다.

적들은 흙산을 쌓는데 주야 60일을 소비했고 거기에 50만공수의 로력을 들였다.

결과 흙산꼭대기가 성보다 두어길이나 더 높아졌다.

안시성방위자들은 이에 대처하여 성을 더 높이 쌓으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치렬한 공방전과 성보강이 벌어지는 가운데 흙산이 무너지면서 성벽의 한쪽모퉁이가 무너졌다.

이때 흙산을 맡고있던 적장 부복애가 제마음대로 자리를 뜨고 없었다.

지휘관이 없는 적들이 어물거리고있는 때를 놓칠세라 고구려군사들은 즉시 공격하여 흙산을 타고앉았다.

악에 받친 당태종은 부복애의 목을 베여돌리면서 3일동안 흙산을 탈환하기 위한 총공격을 들이대였으나 고구려군은 결사전을 벌려 고수하였다.

당태종은 숱한 주검을 내고 사기가 떨어진데다가 랴오둥지방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군량마저 밑창이 나서 전군에 퇴각명령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88일간에 걸치는 안시성전투는 고구려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고 여기서 전쟁의 운명은 결정되였다.

고려시기 문인 리곡의 가정집(14세기 전반기에 저술한 20권으로 된 문집)에 의하면 당태종은 안시성전투에서 고구려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애꾸눈이 되였다고 한다.

고구려군사들은 적들을 추격하여 만리장성을 넘어 유주일대까지 진출하여 놈들을 족쳤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연개소문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사들이 설치했던 군영자리들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645년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은 희생적인 투쟁으로 전쟁초기에 조성되였던 불리한 정황을 수습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당나라통치배들은 645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쓰디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47년과 648년에 또다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647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륙 두 방면으로 쳐들어온 당나라침략군은 고구려인민들의 반격을 받고 쫓겨가고말았다.

당태종은 648년에도(1월~9월) 설만철의 지휘하에 3만의 병력으로 고구려침략을 시도하다가 죽었는데 림종에 이르러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그만둘것을 명령하였다고 한다. 강대한 고구려의 위력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모양이라고 하겠다.

고구려는 강대한 나라였지만 력사적으로 당나라를 먼저 침공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태종을 비롯한 당나라통치배들은 팽창주의적야망밑에 끊임없이 고구려를 정복해보려고 하였다 .

그러나 그때마다 정의의 항전에 떨쳐나선 고구려군민들로부터 응당한 징벌을 받았던것이다.

자 료

남평양은 고구려의 남방진출의 기지

남평양은 고구려의 수도 남쪽에 위치하고있던 별도-부수도였다.

한때 고구려에는 3경이 있었는데 기본수도는 평양이였고 부수도는 북평양과 남평양이였다.

국내성에 있던 기본수도는 427년에 평양 안학궁일대로 옮기였고 586년에는 당시 평양 장안성으로 옮기였다.

북쪽에는 북평양(환도성, 후세의 봉황성)이 있었으며 남쪽에는 오늘의 황해남도 신원군과 장수산일대, 후에 서울부근에 남평양을 두었다.

신원군 아양리, 월당리일대에는 동서, 남북 10리이상 되는 큰 도시유적이 있고 이 도시유적북쪽 장수산에는 둘레가 25리가량 되는 장수산성이 있다.

그리고 도시유적주변에는 1 000여기 이상되는 고구려무덤떼들이 분포되여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고구려가 4세기 중엽에 신원에 남평양을 건설하고 그것을 새로 확장된 지역을 공고히 하며 남방진출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 거점으로 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고구려가 여기에 남평양을 건설하게 된것은 이곳이 곡창지대인것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북쪽에는 유사시 도시를 보위할수 있는 장수산성이 있어 군사적으

로 유리하며 재령강의 배길과 남북통로의 길목이므로 교통이 편리하여 확장된 령토의 관할과 남방진출의 기지로 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므로 남평양은 당시 삼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정치, 군사활동의 믿음직한 작전 및 후방기지였다.

이러한 거점이 있었기에 396년 고구려가 백제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왕을 항복시키는것과 같은 전과를 거둘수 있었고 백제가 신라땅과 백제지역으로 끌어들인 《왜》를 격파할수 있었다.

고구려는 475년(장수왕 63년)에 한성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넓은 지역을 통합해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에서는 부수도를 서울부근에로 옮기고 역시 남평양(평양)으로 부르게 되였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통합된 령토의 전연 가까운 지방에 부수도 남평양을 옮겨가면서 확장한 지역을 공고히 하였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남방진출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6세기 전반기에는 온 겨레와 강토의 대부분을 통합함으로써 세나라의 통일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그런데 이러한 력사적사실이 일부 사료에 외곡되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예지로 외곡된 력사문제들에 대한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1960년대 초엽에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문제를 재평가하시여 그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고 삼국시기 우리 나라 력사가 고구려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왔다는데 대하여 새롭게 밝혀주신것만 하여도 그렇다.

12세기초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사대적립장과 신라중심사관에서 력사를 외곡하여 신라에 의하여 삼국통일이 이루어진듯이 서술한것이 시초로 되고 오랜 세월 력대봉건사가들과 부르죠아 및 대국주의사가들의 가미화를 걸쳐 그것은 《정설》로 굳어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부정하시고 고려에 의하여 비로소 통일이 실현되였다는것을 밝혀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론문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이 문제의 부당성을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론문에서 신라가 당나라침략자들과 결탁하여 차지하고있던 령토우에 발해와 신라라는 두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밝히시였다.

사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대동강이남지역은 신라가 차지하였으나 그보다 몇배되는 대동강이북의 옛 고구려땅에는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창건된 발해국이 《해동성국》으로 이름떨치며 200여년동안이나 존속하였었다.

실제로 신라는 세나라를 통일하려는 지향도, 그럴만한 힘도 없었다.

력사적사실은 신라통치배들이 령토확장의 야망으로부터 외세를 끌어들이는 매국배족적죄행을 감행하였을뿐 세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 일이란 없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신라통치배들의 대표자였던 김춘추는 당나라통치배들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다음의 령토분할문제에 대하여 비밀협약을 맺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도 신라통치배들은 세나라령토의 전역에서가 아니라 대동강이남지역에서 저들의 통치를 유지강화하는데 급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력사적사실들을 들어 신라는 세나라를 통일하려는

지향이 없었으며 따라서 신라에 의한 세나라의 통일이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운데서 세나라를 통일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나라는 고구려라는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였다.

고구려는 오래전부터 동족의 나라들인 세나라의 통일문제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주변나라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러나 고구려의 남하정책은 신라와 당나라통치배들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였고 결국 국토통일정책은 10세기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고 실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사실은 삼국시기 우리 나라의 력사는 신라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온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실로 어느 력사학자도 생각지 못하고 밝히지 못했던 조국력사발전의 기본흐름을 대번에 바로잡아주시는 고귀한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국통일문제와 함께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발해를 력사서술의 기본체계에서 취급할데 대해서도 지적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에 서시여 력사의 갈피갈피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잔재들을 말끔히 쓸어버리시여 조선중세력사연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였다.

평양천도

고구려는 존재기간에 여러번 수도를 옮기였다.

고구려의 첫 수도는 오늘의 중국 랴오닝성 환런부근의 졸본이였으며 A.D. 3년에는 국내성(지린성 지안시)으로 수도를 옮기였다.

그후 고구려는 주변소국들을 통합하고 봉건적통치체제를 강화해나갔으며 서북쪽으로부터 기여드는 외적들의 침입을 막는데 힘을 돌리였다.

고구려는 서북방정세가 일정하게 안정되자 삼국통일을 위한 남방진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고구려는 삼국통일을 위한 남방진출의 거점을 마련할 목적으로 247년이래 대성산일대에 수도성건설을 진행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큰 힘을 넣어 수도시설을 건설한 다음 427년(장수왕 15년)에 수도를 지안으부터 평양으로 옮기였다.

당시 왕궁은 대성산일대에 자리잡고있었던 안학궁이였다.

평양은 우리 민족의 첫 고대국가였던 고조선의 수도로서 3000년간 번영해온 고대도시이며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민족의 발상지였다.

고구려는 우리 민족사발전에서 평양이 차지하는 전통적지위에 의거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강대한 통일국가를 일떠세울것을 지향하였던것이다.

또 평양은 군사, 경제적으로도 수도로 될만 한 적지였다.

고구려는 수도를 옮긴 후 평양을 거점으로 남방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6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온 겨레와 강토의 대부분을 통합할수 있게 되였다.

고구려는 그후 강대한 나라의 면모에 맞게 수도를 새롭게 건설할 목적으로 552년부터 평양성(장안성, 오늘의 평양시 중구역, 평천구역)건설에 착수하여 35년간에 걸쳐 그것을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586년에 새 수도성-평양성으로 다시 도읍을 옮기였다.

새 수도성-평양성은 총길이가 약 23km나 되는 큰 규모의 도성으로서 당시 동방의 강대국이였던 고구려수도의 위용을 시위하고 그 경제적위력과 높은 문화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연개소문의 무장정변

고구려의 명장 연개소문은 642년 국왕을 비롯한 부패무능한 관리들을 반대하여 무장정변을 일으키고 나라의 실권을 틀어쥐였다.

이 무장정변은 7세기 전반기 고구려에 조성된 국내외정세의 직접적인 반영이였다.

618년 고구려의 왕으로 된 영류왕(32대왕)은 지난 시기 고구려인민들이 이룩한 반침략투쟁의 성과를 공고히 할 대신 점차 당나라의 위협과 압력에 굴종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618년에 선 당나라는 초기에는 고구려와《화친》의 간판을 들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척 하다가 점차 나라가 안정되자 《천하의 대국》으로 자처하면서 고구려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며 위협적으로 나왔다.

영류왕을 비롯한 적지 않은 봉건통치배들은 당나라의 압력에 굴복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비굴한 통치배들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경관》이라는 건물을 당나라에서 허물어버리라고 강요하자 631년에 그것을 허물어치웠다.

또한 당나라에서 641년에 진대덕이라는자를 사신으로 들여보냈는데 그가 군사기밀과 지리를 탐지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도 용납하였다.

지어 고구려의 지형과 지세를 기록한 지도를 넘겨보내라는 당나라의 요구도 그대로 받아물었다.

영류왕의 이러한 굴욕적인 행위는 당나라통치배들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고 엄중한 민족적위기를 초래하였다.

연개소문을 비롯한 일부 관리들은 사대투항주의적인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편승하여 정변을 시도하였다.

영류왕은 저들에게 반기를 든 연개소문을 천리장성축성공사(부여성-발해만)를 감독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642년 1월 변방에 나가 살게 하였을뿐아니라 나중에는 수도에 돌아온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비렬한 음모까지 꾸몄다.

신변의 위험까지 느끼게 된 연개소문은 정변준비를 적극 다그쳤다.

642년 10월 연개소문은 관하부대의 열병식을 조직하고 여기에 100여명의 관리들을 초대하고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모조리 처단해버렸다.

이어 왕궁에 들어가 영류왕을 처단하고 그의 조카인 장(보장왕)을 왕위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최고관직인 막리지가 되여 모든 실권을 틀어쥐였다.

642년 연개소문의 정변은 통치층내부의 정권쟁탈전의 연장으로서 계급적제한성을 면할수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당나라에 대한 사대주의경향에로 기울어지던 투항분자들을 제거한것으로 하여 고구려력사발전에서 긍정적의의가 컸다.

즉 이 정변은 나라앞에 조성된 정세를 바로잡고 고구려의 자주권을 회복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 하나의 큰 사변이였다.

나라의 실권을 틀어쥔 연개소문은 국내의 사회경제적형편을 개선하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그리고 오만하게 놀던 당나라의 사신을 굴속에 가두는 등 고구려의 내정에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려는 당나라통치배들의 책동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강경한 태도로 맞서나섰다.

고구려사람들의 일본땅에로의 진출

고구려사람들의 일본땅에로의 진출은 대체로 4세기부터 시작하여 5세기이후 더욱 대대적으로 진행되였다.

당시로 말하면 고구려는 국력이 가장 강화된 시기이고 일본은 아직 통일국가가 서지 못하고 수많은 호족세력(소국)들이 각지에 할거하여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벌리던 전란의 시기였다.

이때까지 일본은 왜땅, 왜국(소국)으로 불리웠고 일본이라고 국호를 붙인것은 대화개신(645년)이후인 670년말이였다.

용감하고 진취적이며 문명한 고구려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던 일본땅에 건너가서 자기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락후한 일본의 사회문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이 일본땅에로 건너간 길은 백제나 신라의 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선동해안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 일본의 서부해안으로 가는 배길이였다.

고구려땅에서의 출발지점은 자세히 알수 없으나 일본땅에 도착한 지점은 고시노구니(일본말로 넘어온 나라라는 뜻, 오늘의 도야마현)와 쯔루가였다.

그것은 일본력사책들에 나타난 고구려사신들이 일본땅 도착지에 관한 기록을 보아도 알수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570년, 573년, 574년, 668년에 각각 고구려사신이 일본에 도착하였는데 모두 고시노구니에 왔다고 하였다.

물론 그밖에 쯔꾸시(후꾸오까현)나 이즈모(시마네현)지방에 도착한 례도 있다.

후세에 발해의 사신들도 역시 고시노구니로 해서 들어갔다고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일본땅에 건너가서 큰 정치세력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것은 일본땅에서 고구려계통의 유적유물이 여러곳에서 나타나고있는데서 알수 있다.

대표적인것은 나가노현과 야마나시현일대에서 새로 알려진 수많은 돌각담무덤을 들수 있다.

이것은 4세기 고구려의 돌각담무덤과 같은것으로서 나가노현에서 600기, 야마나시현에서 1 000~1 400여기나 발견되였다.

또한 오사까부의 동쪽으로부터 나라현의 서쪽인 고우찌 아스까를 중심으로 한 지방에 작은 돌칸흙무덤들이 많이 알려져있다.

이것은 고구려계통의 사람들이 남긴 무덤들이다. 또 와까야마현 기노가와하류일대에는 《이와세 센즈까》라고 불리우는 700여기에 달하는 고구려계통의 큰 무덤떼가 있다.

특히 1972년에 일본의 나라현에서 발견된 6~7세기경의 다까마쯔무덤은 고구려식의 돌칸흙무덤으로서 벽화의 내용도 고구려벽화와 신통히도 같다.

5세기 중엽이후부터 일본에서는 그전 시기에는 없었던 안장, 등자, 자갈, 말띠장식, 마면갑 등 발전된 마구와 고리자루긴칼, 패쪽갑옷, 금도금한 채양있는 투구 등 고구려계통의 우수한 무기와 무장의 껴묻거리들이 대량적으로 나왔다.

이와 같이 4세기이후~5세기 후반기에 고구려사람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문화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았다.

고구려사람들의 일본렬도에로의 진출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565년에 고구려사람 즈무리야헤 등이 쯔꾸시에 건너갔는데 일본에서는 그들을 야마시로노구니에서 살게 하였으며 그들이 우네하라, 나라야마무라 등 고구려사람들의 선조라고 하였다.

또한 595년에는 고구려의 중 혜자가 일본땅에 건너가 615년까지 20년간 일본의 실권자였던 성덕태자의 정치고문으로, 스승으로 있으면서 일본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법(17개조)을 작성발표하고 12품계로 된 위계제를 정립실시하는데 직접 관여하였다.

국가구조와 통치체제의 기간을 이룬다고 할수 있는 법과 위계제가 고구려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것은 고구려의 커다란 정치적영향의 일단을 보게 한다.

혜자는 성덕태자가 하나를 물어보면 열을 헤아렸으며 열을 물어보면 백을 헤아렸다고 한다.

고구려사람들은 정치분야에서뿐아니라 화가 담징을 비롯하여 문화발전에도 거대한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았다.

7세기 전반기에도 고구려사람들의 집단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옛날 고시노구니였던 노도시마에는《에조아나고분군》이라고 부르는 고구려계통의 무덤떼가 있다. 이것은 이 지방에 고구려사람들의 집단이 살았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바다를 건너간 고구려사람들은 일본섬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고살았으며 그것이 고시노구니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도야마현지방을 처음으로 개발하는데 고구려사람들이 논 역할은 매우 컸다고 볼수 있다.

5세기 중엽이후 일본의 여러곳에서 고구려사람들이 세운 소국들은 그 고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득한 옛날부터 벌써 조선사람들이 일본렬도에 적극 진출하여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초기 조일관계문제를 정확히 해명할수 있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주체61(1972)년 봄 일본 나라현 아스까촌에서 고구려의 벽화고분과 류사한 다까마쯔무덤이 발견되였을 때였다.

고분의 성격을 둘러싸고 동방의 여러 나라 학계에서 서로 다른 계통설을 주장하면서 론의가 분분하던 그때 일본학계에서는 고분의 정확한 감정을 위한 공동학술조사를 위하여 우리 나라 력사학자들을 초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일본에 갈 사회과학자대표단을 무어주시고 대표단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실물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하라고 하시면서 국내는 물론 멀리 중국 지안에 있는 고구려의 고분들을 촬영한 천연색기록영화를 비롯한 고분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가도록 온갖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대표단은 과학적자료를 가지고 일본의 력사와 문화에 미친 우리 나라 특히 고구려의 거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사리정연하게 론증할수 있었다.

우리 대표단이 준비한 고구려고분에 대한 기록영화와 실물자료를 보고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와 학계에서는 물론 고분감정에 참가한 동방 여러 나라 학자들은 다까마쯔무덤이 고구려계통의 고분이 틀림없다는것을 인정하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력사적사실의 흑백을 갈라 외곡된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새롭게 해명하여주신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고구려의 강성에 업적이 큰 광개토왕과 장수왕

광개토왕과 장수왕은 부자간이다.

광개토왕(국강상광개토왕평안호태왕, 본명 담덕)은 391년부터 412년까지 왕위에 있으면서 남방진출에 큰 힘을 넣어 백제의 적지 않은 지역을 통합하였다.

그의 왕호를 광개토왕이라고 하게 된것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서북방, 남방에 이르는 령토를 크게 넓히였다는데로부터 온것이다.

광개토왕은 왕위에 오른 첫 시기에 백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림진강계선을 확고히 장악하였다.

392년 7월에는 석현성을 비롯한 10여개의 백제성을 점령하였으며 10월에는 백제북쪽의 중요한 군사요새인 관미성을 함락하였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한강북쪽지역을 거의다 장악하였다.

396년 광개토왕은 수군을 직접 거느리고 가서 백제의 58개 성, 700개 촌을 련이어 점령하고 백제의 수도로 진격하였다.

더이상 견딜수 없게 된 백제의 아신왕은 화의를 맺을것을 제기하였고 남녀노비 1 000명, 가는베 1 000필을 바치고 영원히 고구려국왕의 《노객》(신하)이 되겠다고 맹세까지 하였다.

그리고 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볼모로 보냈다.

407년에 고구려는 또다시 5만명의 군대로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 공격전투가 있은 후 백제는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할 엄두를 못내고 계속 밀리기만 하였다.

광개토왕시기에 고구려는 신라와 가야지방에 침입한 왜군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주어 우리 강토에서 쫓아냈다.

고구려는 391년에 백제의 조종을 받아 바다를 건너온 왜군을 물리쳤으며 400년에는 보병과 기병 5만명을 보내여 신라땅에 기여든 왜군을 격파하고 계속 남쪽으로 진격하여 가야지방에 침입하였던 왜군까지도 쫓아냈다.

그후 404년에 왜군들이 또다시 서해로 침입해왔는데 이때 광개토왕은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가서 놈들을 모조리 소멸하였다.

광개토왕은 남방진출을 다그치는 한편 동북, 서북방에서도 주변종족들을 통합해나갔다.

그는 395년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비례(거란의 한 종족)를 징벌함으로써 서북방국경을 튼튼히 다졌으며 398년에는 식신(숙신)을 쳐서 조공국으로 만들었다.

410년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가서 동부여를 정벌하였는데 이를 전후하여 격파한 성이 64개나 되였다.

이후 동부여는 내리막길을 걷다가 494년에는 고구려에 통합되고말았다.

이처럼 광개토왕은 20여년간 통치기간에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방진출을 다그쳐 백제령역을 적지 않게 통합하였으며 동, 서, 북방의 국경을 튼튼히 다지고 그 령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광개토왕의 맏아들로서 아버지가 죽자 왕위에 오른 장수왕(본명 거련)은 98살까지 살며 79년동안 왕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죽은 후 왕호를 장수왕이라고 한것이다.

그는 아버지뒤를 이어 고구려령토를 계속 넓혀나가면서 국력을 강화하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도 높이였다.

장수왕시기에 옛 단군조선의 령역을 차지하게 되였는데 서북쪽으로는 다링하계

선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었다.

그는 이미전부터 고구려가 추진시켜오던 국토통합을 적극 밀고나가기 위하여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기였다.

그러면서도 당시 장수왕은 서북방의 군사적우세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436년에 위나라(북위)의 공격으로 연나라(북연)가 패하게 되자 주동적으로 연나라를 지원한다는 구실을 걸고 장수 갈로와 맹장에게 수많은 군사를 주어 연나라의 수도였던 허이룽성에 들어가 그 나라 왕과 관리들, 주민들을 고구려국내로 옮김으로써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된 위나라에 군사적위력을 보여주었다.

서북방의 정세가 완화되자 장수왕은 475년 가을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하였으며 그후 남방진출을 계속하였다.

또한 백제와 련합하여 고구려의 남진을 막으려던 신라에 대한 공격작전을 벌려 적지 않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나라령토의 대부분지역을 장악하고 국토통일정책을 거의 완성할수 있게 되였다.

장수왕시기에 고구려의 판도가 가장 넓어져 남쪽은 서해의 아산만으로부터 소백산줄기를 넘어 동해안의 영덕에 이르는 계선을 차지하고 서북쪽은 랴오하서쪽에 이르렀으며 서쪽은 다링하계선, 북으로는 쑹화강을 지나게 되였다.

장수왕은 아버지의《공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414년에 광개토왕릉비를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였던 국내성(오늘의 중국 지안시)부근에 세웠는데 지금도 그것이 보존되여있다.

491년에 장수왕이 죽었는데 이 부고를 받은 위나라의 효문황제는 상복을 입고 수도에서 애도식을 하였으며 사신을 보내여 조문하였다고 한다.

고구려를 위한 도림의 높은 수

도림은 지혜와 묘술이 뛰여나고 정탐을 잘 하기로 이름난 고구려의 중이였다.

475년 가을 3만여명의 고구려군사들이 장수왕의 지휘밑에 백제수도 한성을 점령하고 백제왕 개로를 죽이였으며 수많은 대신들과 주민들을 고구려에 포로로 끌어갔다.

그리하여 백제는 국경부근의 여러 성들을 고구려에 일시에 빼앗기고 수도를 옮기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였다.

이처럼 백제가 힘도 써볼사이없이 손실을 보게 된데는 도림의 활동과 크게 관련되여있었다.

당시 고구려는 고조선, 부여의 옛 땅들을 거의다 회복하고 서쪽국경이 다링하에 이르게 되자 남방의 국토통합정책을 강하게 추진시켜나가고있었다.

바빠맞은 백제의 개로왕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방의 전선지대에 성들을 다그쳐 구축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그때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더 큰 위력공세를 들이댐으로써 그들의 기세를 꺾고 국토통합에 유리한 정세를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다.

고구려는 전연지대깊이에서 은밀하게 군사들을 강도높이 훈련시키는 한편 백제왕정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작전을 하였다.

그를 위하여 적중한 인물을 비밀리에 탐문하였다. 여기에 자진하여 응해나선 사람이 도림이였다.

그때 도림은 평양의 어느 절간 주지로 있었다.

도림은 죄를 짓고 고구려에서 백제로 도망치는것으로 일을 꾸몄다.
그로부터 얼마후 백제에는 고구려에서 온 중의 바둑솜씨에 대한 소문이 짜하게 퍼졌다.
도림은 백제의 여러곳을 돌아다니다가 백제 개로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에 들어가게 되였다.
도림의 바둑솜씨가 여간 아니라는 소문이 한입두입 건너 왕궁에까지 전해져 바둑을 즐기는 개로왕의 구미를 바싹 당겨놓았다.
개로왕이 도림과 바둑을 두었는데 과연 백제에서는 볼수 없는 상대였다.
그리하여 도림은 백제왕의 바둑손님으로 궁정안에서 높은 대접을 받으며 지냈다.
도림은 개로왕에게 있어서 더없는 말동무, 바둑동무로 되였다.
어느날 도림은 개로왕에게 여쭐말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하였다.
《대왕님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과 둔덕이며 강과 바다이니 이는 하늘이 정한 요새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지형은 아니옵니다.
그러므로 사면에 있는 이웃전방들에서 감히 엿볼 마음을 먹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기기를 원할것입니다.
그런즉 대왕님께서는 응당 굉장한 기세와 호화로운 차림으로 위엄을 보여야 하겠으나 궁실이 웅장하지 못하고 선왕의 무덤이 초라하며 백성들의 집들이 허물어지고있나이다.
이것은 대왕님을 위하여 한시바삐 고쳐지어야 할줄아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온 백제땅은 죽가마끓듯 벅적대였다.
임금의 어명으로 나라안의 모든 장정들이 도성과 궁궐공사에 동원되였다.
선왕들의 무덤도 굉장하게 개축되였다. 국경지방의 수비병들까지 동원되였다.
이로하여 백성들은 더욱 궁핍해지고 국고는 거덜났으며 군사력은 여지없이 약화되였다.
이때 도림은 고구려에 돌아와 장수왕에게 그간 일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이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고구려군은 475년 9월 3만의 병력으로 백제에 대한 전면공격을 개시하였다.
고구려군은 1주일만에 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전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때 개로왕은 도망치다 붙잡혔는데 고구려군사는 다 백제에서 고구려로 도망쳐간 사람들이였다고 한다.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

동명왕릉

동명왕릉은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다.
동명왕은 우리 나라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의 시조왕으로서 오늘의 중국 환런지방의 졸본에다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 죽어서 그 고장에 묻혔었다.
대대로 시조왕을 숭상해오던 고구려에서는 42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시조왕인 동명왕의 무덤을 함께 옮겨왔던것이다.
고구려는 위치좋은 곳에 무덤구역을 크게 정하고 울창한 수림속에다 《진주못》도 파고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정릉사도 지어 숭엄한 분위기를 돋구게 한 다음 동명왕릉을 옮겨왔다.
그리고 그 일대에는 동명왕의 건국과 왕권강화, 고구려를 보위하고 강성하게 하

는데 이바지한 《충신》들의 무덤들을 배치하여 하나의 무덤떼를 이루어놓았다.

왕릉은 남향한 돌칸흙무덤이다.

무덤무지는 방대형으로 생겼는데 현재의 총 높이는 11.5m, 한 변의 길이는 34m이다.

무덤간은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졌는데 안길밖으로 무덤바깥길이 이어졌다.

무덤간은 석회암과 화강암을 다듬어 쌓은것이며 안칸천정은 꺾음식으로 되여있다.

안길 좌우밑부분에는 감실 같은것이 있다.

안칸의 천정과 벽문들에는 벽화가 있다. 여기에는 련꽃무늬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려져있다.

모두 641개로 짐작되는 련꽃무늬가운데서 지금 알아볼수 있는것은 104개이다.

동명왕릉에는 유물이 많았을것이다.

일본강도들의 도굴로 무덤내부와 그 주변에서 100여개의 금 또는 금동제품을 찾아냈을뿐이다.

평양에 동명왕릉을 옮겨만들 당시에는 고구려에서 무덤벽화로 여러 인물들과 생활풍속을 형상한 그림을 많이 그리던 시기이다.

그런데 이때에는 동명왕이 죽을 당시의 그의 용모와 생활을 알수 없었기때문에 련꽃무늬로 대치한것으로 보인다.

동명왕사망당시에는 고구려에서 아직 벽화무덤관습이 없었던것이다.

동명왕은 후세에 가면서 계속 숭상되였다.

그리하여 동명왕릉앞에는 고려시기와 그 이후시기에 만들어놓은 돌구조물들과 비석, 건물들이 있다.

동명왕릉은 고구려의 력사를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과 우리 당의 옳바른 민족문화보존정책에 의하여 동방천년강국 고구려의 시조왕릉답게 웅장하게 개건되였다.

정릉사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 동명왕릉앞에 있는 동명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지은 절간이다.

정릉사 뒤에는 동명왕릉이 있고 서쪽의 낮은 곳에는 《진주못》이 있다.

정릉사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74년에 대규모적으로 발굴되였는데 그때 발견된 질그릇에 새겨진 《정릉》, 《릉사》등의 글자들에 의하여 그 이름이 밝혀졌다.

이 글자들은 이곳의 큰 무덤이 동명왕의 무덤이며 정릉사는 왕릉을 위하여 지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원래 무덤앞에 절간을 짓는 법은 없었으나 후세의 봉건왕들은 왕의 무덤앞에만은 절간을 짓고 무덤주인공의 《명복》을 빌도록 하였던것이다.

정릉사터에서는 18채의 집자리와 10여개의 회랑터가 발굴되였다. 발굴된 건축터들은 규모가 크고 또 건축에서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능란하게 풀어나간 사실을 엿볼수 있게 한다.

정릉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옳바른 민족문화유산보존정책에 의하여 현재 보광전, 극락전, 룡화전과 8각7층돌탑, 회랑 등 기본건축구역이 훌륭히 복구되여 정릉사의 옛 모습을 알수 있게 한다.

장군무덤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였던 국내성(오늘의 지린성 지안시)부근 대왕촌 비석거리 뒤산중턱에 있는 고구려왕릉이다.

장군무덤은 계단식으로 쌓아졌는데 그 단수는 7단이다.

평면상으로 보면 한 변의 길이가 34m에 달하는 커다란 정방형이며 무덤의 높이는 13m에 달한다.

1단은 화강석을 잘 다듬어 4층으로 포개여쌓았고 2단부터는 3층으로 포개여쌓았다.

매 층의 돌들은 웃턱을 지어 그우에 놓인 돌들이 밀려나지 않게 되여있으며 1단둘레에는 매 면마다 큰 자연석으로 3개씩 버팀돌을 세워 무덤을 견고하게 하였다.

무덤무지 맨우에는 1.3m정도의 높이로 강돌과 석회를 섞어다져 마감하였다.

무덤무지우에는 기둥구멍들이 있고 기와쪼각들이 널려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지붕을 이었던 흔적이다.

무덤은 4~5단사이에 냈는데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졌다.

안칸은 한변의 길이가 5.3m인 정방형으로 생겼다.

주검을 안치하는 안칸바닥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빠질수 있게 되여있다.

주검을 놓은 관대는 2개이다.

무덤두리에는 3m 너비의 판돌을 깔고 그에 이어서 30m 너비로 강돌을 폈다.

그 밖으로는 한 변의 길이가 500m가 넘는 흙담을 둘러 묘역시설을 하였던 흔적이 있다.

흙담안에는 제사를 지내던 집터가 있고 흙담밖에는 8기가 달린 무덤이 있다.

장군무덤은 비록 왕의 무덤으로서《왕권》을 시위하기 위해 크고 웅장하게 만든것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고구려인민들의 발전된 건축술과 돌가공기술이 안받침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당시의 기념비적존재로, 가치있는 유산으로 되고있다.

지안다섯무덤의 5호무덤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가 있던 지린성 지안시에 있는 고구려벽화무덤의 하나이다.

지안에는 세칸무덤, 씨름무덤, 춤무덤, 마선구1호무덤, 통구12호무덤, 사신무덤, 다섯무덤의 4호, 5호무덤 등 고구려의 벽화무덤들이 많이 분포되여있다.

6세기말~7세기초에 쌓은 지안다섯무덤의 5호무덤은 무덤간이 안칸으로 이루어진 외칸무덤이다.

안길 앞으로는 무덤바깥길이 나있다.

이 무덤벽화에서 주되는 그림은 사신도이다.

사신도는 네 방위를 지킨다는 상상적인 동물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그린것이다.

사신들은 몸체의 균형이 잘 잡히고 날쌔고 기운차게 생겼다.

여기의 사신도는 방위신으로서의 용맹성을 잘 형상한 걸작품이다.

5호무덤의 사신은 련꽃 및 불꽃무늬의 바탕에 그려져 대상의 성격이 더욱 부각되고있다.

이 무덤천정돌에는 서로 엉키여 싸우는 룡과 범이 그려져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생동하다.

특히 나무를 사이에 두고 웃도리는 사람, 아래도리는 룡처럼 생기고 두손으로 머리우에 해와 달을 이고있는 그림은 인상적이다.

천정에는 이밖에도 소대가리를 가진 춤추는 신선, 둘이 마주서서 수레바퀴를 만

드는 신선도 있다.

이때의 사람들은 하늘에 날아다니며 사는 사람 즉 신선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것을 엿볼수 있다.

때문에 무덤의 벽화나 전설에 신선이 많이 나오는것이다.

무덤에는 악기를 연주하며 하늘을 나는 비천들도 많이 그려져있다.

안길에는 문지기가 앉아서 활에 화살을 메우는 모습이 또한 생동하게 묘사되여 있다.

이 무덤은 고구려의 발전된 건축술과 회화술,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풍속, 신앙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룡오리산성과 바위에 새긴 글자

평안북도 태천군 룡상리 산성산에 있는 룡오리산성안에는 이 성과 관련한 글이 새겨진 바위가 있다.

글은 바위의 앞면을 높이 70cm, 너비 50cm정도로 평평하게 쪼아다듬고 3줄로 22개의 글자를 내리새겼다.

글의 내용을 보면 《을해년 8월 전부에 속한 소대사자 어구루가 성을 684간 쌓았다.》는것이다.

여기서 전부란 고구려 5부에 속하는 관노부(남부)이며 소대사자는 고구려의 고유한 벼슬이름이다.

을해년이란 룡오리산성을 쌓은 년대이며 어구루는 성쌓는 공사를 감독지휘한 사람의 이름이다.

이 글자를 통하여 룡오리산성이 고구려의 성이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게 되였다.

이 성은 기름진 벌을 끼고 수륙교통이 편리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잘 리용하여 쌓아졌다.

성은 광주리를 기울여놓은듯 한 지형에 쌓았는데 성벽의 둘레는 2 020m에 달한다.

성벽은 돌로 든든하게 쌓았으며 중요한 지점들에 치를 설치하여 성벽에 다가오는 적을 치기 좋게 하였다.

유리한 위치에는 성문들을 두고 높은 봉우리들에는 남장대, 서장대, 북장대 등 여러 장대들을 설치하여 적들에 대한 감시와 전투지휘를 보장하게 하였다.

이 성에는 길게 삐여져나가면서 돌려쌓은 천성도 있다.

룡오리산성은 총체적으로 볼 때 산봉우리와 릉선을 잘 리용하여 쌓았기때문에 적이 공격하기에는 힘들고 아군이 적을 치기에는 유리하게 쌓은 성이다.

수도 평양을 방어하는 중간방어계선에 해당하는 위치에 견고하게 쌓은 룡오리산성은 고구려의 발전된 성쌓기기술과 성방어체계가 어떻게 되여있었는가를 알수 있게 한다.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자리잡고있는 고구려 고국원왕(21대왕, 331년-371년)무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7(1958)년 3월 하순 어느날 몸소 이 무덤을 찾으시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유산이라고 하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1(1962)년 1월에 이 무덤을 찾으시고 이 고분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민인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357년경에 쌓은 이 무덤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고구려벽화무덤으로서 우리 나

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벽화무덤가운데서는 제일 큰것에 속한다.

무덤은 언덕우에 있는데 동서 30m, 남북 33m, 높이 약 6m나 된다.

무덤간은 문칸, 앞칸과 안칸, 동, 서의 두 곁칸, 회랑 등 여러칸으로 이루어졌다.

무덤간은 큰 판돌로 벽을 쌓고 고구려에서 전형적인 평행3각고임천정을 얹었다.

무덤간은 거기에 그려진 벽화들과 결부하여볼 때 왕의 살림집을 방불케 한다.

문칸의 돌문은 한짝이 0.5t이 넘는것이지만 그것을 손가락으로 밀어도 쉽게 여닫기게 되여있다.

회랑벽에는 길이가 4.68m나 되는 판돌을 썼는데 그 높은 돌다듬기기술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무덤간의 실물기둥이나 두공 같은것은 력학적타산밑에 정밀하게 가공한것이다.

무덤간의 거의 모든 벽과 천정에는 벽화들을 가득 그려놓았다.

문칸에는 문지기장수를, 앞칸에는 기발을 든 군사와 춤추는 장면, 씨름장면을 배치하였다.

서쪽곁칸에는 왕과 왕비를, 동쪽곁간에는 부엌, 육고, 우물, 방아간, 외양간, 마구간, 차고 등 경리시설을 그렸다.

안칸에는 가면을 쓰고 춤추는 그림을, 회랑에는 대행렬도를 배치하고 천정에는 련꽃과 해와 달을 그렸다.

벽화에서 250여명이 등장하는 대행렬도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림은 왕의 소수레앞부분만 형상한것인데 그 뒤부분까지 합치면 이 행렬의 인원은 500여명이나 된다.

주인공은 왕을 상징하는 기발인 《성상번》을 달고나아간다.

주인공의 형상은 당시 인물화형상수준이 상당한 높이에 이르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주인공부부그림에는 그들의 성격과 사치하고 부귀한 생활이 잘 반영되여있다.

여기에는 수박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태권도의 연원이 멀리 고구려에 있다는것을 시사하여준다.

안칸의 탈춤그림은 흥미있게 그린것인데 그것은 우리 나라 탈춤의 력사가 매우 오래다는것을 말해준다.

행렬도안에 그려진 교예장면들에 대해서도 같이 말할수 있다.

이 무덤의 벽화들은 우리 나라 회화의 높은 발전수준과 채색화전통의 오랜 력사를 증시하여준다.

안악3호무덤은 웅장화려하고 발전된 구조형식과 다양하고 풍부한 벽화내용으로 하여 다른 고구려벽화무덤들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였다.

덕흥리벽화무덤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 있는 고구려벽화무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7(1978)년 2월 12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돌아보시면서 덕흥리벽화무덤은 영락18년이라는 절대년대가 씌여있는 아주 귀중한 무덤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영락이란 광개토왕의 년호이며 영락18년은 408년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100여기의 고구려벽화무덤들이 알려졌지만 이 무덤처럼 쌓은 년대가 명백히 밝혀져있는것은 아직 없었다.

600여자의 글자가 씌여있는 이 무덤이 발견됨으로써 고구려벽화무덤들의 년대를 가늠해볼수 있게 되였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고구려의 유주에서 자사라는 벼슬을 지낸 《진》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여러가지 벼슬을 지내다가 77살에 죽어서 이 무덤에 묻혔다.
덕흥리벽화무덤은 두칸짜리 돌칸흙무덤이다.
무덤간은 안길, 앞칸과 안칸, 사이길로 이루어져있다.
무덤간은 돌로 쌓고 회죽으로 미장한 다음 그 벽면과 천정면에 벽화를 가득 그렸다.
벽화의 주제는 사람들의 생활을 주로 형상한 그림이다.
당시 사람들은 육체는 죽어도 령혼은 살아있다는《령혼불멸》의 관념으로부터 죽어서도 생전에 누리던 부귀영화를 그대로 연장할것을 바라며 무덤안을 집처럼 꾸리고 거기에 벽화들을 그렸던것이다.
안길 량쪽벽에는 문지기괴물을 그리고 이 무덤의 문을 409년 2월 2일에 달았다는 내용의 글이 있다.
길이가 1.54m이고 높이가 1.43m인 안길을 지나 앞칸에 들어서면 마주치는 북쪽벽정면에 무덤주인공의 략력이 씌여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진》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고구려의 유주지방을 다스리던 지방장관이였으며 벼슬살이를 하다가 나이 77살에 죽어 408년 12월 25일 여기에 옮겨묻었다고 하였다.
앞칸벽화는 유주자사였던 무덤주인공의 공적생활과 관련되는 장면을 그린것이다.
즉 주인공이 방안에 앉아 관리들과 시종군들을 거느리고 정사를 보는 장면, 13개의 군 태수들이 한줄로 줄지어 서서《진》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거나 지시를 받는 장면, 수레를 탄 높은 급의 관리, 문관, 무관을 포함한 갑옷입고 말탄 무사들의 대렬속에서 꽃수레를 타고가는 주인공이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앞칸과 안칸의 사이길 좌우벽에는 주인공부부의 나들이장면이 그려져있다.
진의 안해는 가마수레를 타고 그뒤로는 색동주름치마를 입은 녀자들이 따르고있다.
안칸에는 주로 주인공의 개인생활과 관련한 그림들이 그려져있다.
이 무덤의 벽화에서 가장 흥미있는것은 말타고 활쏘기경기를 하는 장면이다.
방금 내달릴듯 한 기마수들, 말을 타고 앞뒤의 과녁을 쏘는 선수들, 엄한 표정을 한 두 심판원과 우스운 표정을 지은 기록원 등의 형상이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말타고 활쏘기를 좋아하였으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조국의 방위를 위해 일상적으로 무술을 련마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무덤에는 이밖에도 주인공이 타는 큰 말, 여물을 먹는 말과 소, 작두로 여물을 써는 아이들, 수레 등이 그려져있다.
덕흥리벽화무덤은 고구려가 한때 북중국에 진출하여 광활한 지역에 유주를 설치하였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고구려의 유주소재지는 오늘의 베이징이였다.
그만큼 고구려는 당시 동방의 대강국이였다.

약수리벽화무덤

이 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의 경치좋은 태성호반에 자리잡고있는 5세기초의 고구려벽화무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약수리벽화무덤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 여러차례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약수리벽화무덤은 두칸짜리 돌칸흙무덤이며 고구려의 인물풍속 및 사신도무덤에서 대표적인것이다.
고구려에서 인물풍속 및 사신도무덤은 인물풍속도 다음에 성행한 무덤이다.
무덤간은 안길과 앞칸, 안칸과 사이길로 이루어져있다. 안칸의 동서벽에는 작은 간이 하나씩 달려있다. 무덤간은 돌로 쌓고 걸면에 회죽미장을 매끈하게 하였으며 그우에 벽화들을 그렸다. 앞칸에는 큰 규모의 행렬그림과 사냥그림 그리고 주인공의 실

내생활도와 성곽, 마구간, 방아간, 외양간, 부엌과 문지기장수 등이 그려져있다.

안칸에는 주인공부부의 실내생활과 네 방위를 지킨다는 상상동물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그려져있다.

여기의 인물들은 봉건적인 벼슬등급법에 따라 신분이 높은 주인공부부는 크게 그리고 시중군들은 신분이 낮다 하여 작게 그렸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제도를 반영한것이였다.

이 무덤의 행렬그림은 행렬의 앞부분(전배), 가운데부분(중배), 뒤부분(후배)이 다 구색이 맞게 그려져있어 가치가 높다.

여기에서는 고구려군사들의 당당한 기세를 엿볼수 있는 형상들도 있다.

이 무덤의 사냥그림은 고구려사람들의 슬기와 용감성, 락천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사냥터로 향한 행렬, 몰이군, 산봉우리와 골짜기사이를 누비며 활을 쏘는 사냥군, 화살에 맞은 짐승, 이 모든것은 사냥장면을 직접 보는듯 하다.

고구려사람들은 조국방위를 영예로운 일로 여기고 무술을 배우는것을 남자들의 의무로 간주했으며 민간오락과 경기들도 모두 무술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무덤의 성곽도에서 네모난 성벽에 성문들과 각루들을 배치하고 성안에 기와집들을 그린 모습은 마치도 안학궁을 옮겨그린듯 하다.

약수리벽화무덤은 무덤간의 독특한 구조형식과 다양하고 풍부한 벽화내용으로 고구려인민의 슬기와 재능, 나라의 강대성을 보여준다.

수산리벽화무덤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에 있는 5세기 후반기의 고구려벽화무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산리벽화무덤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 여러차례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외칸의 돌칸흙무덤인데 무덤안길과 하나의 무덤간으로 이루어져있다.

무덤무지는 동서 약 26m, 남북 약 25m, 높이 약 4m의 방대형으로 되여있다. 무덤간은 동서 3.2m, 남북 3.2m, 높이 4.1m정도이며 무덤 안길의 길이는 4.5m이다.

무덤간은 반지하에 위치하고있는데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이다. 무덤간의 바닥에는 석비레를 다져깔았고 벽은 납작납작한 돌로 쌓았으며 천정은 평행삼각고임천정이다.

벽과 천정에는 회를 곱게 바르고 벽화를 그렸다.

안길의 두곳에 돌문을 달았고 마지막에 막돌로 무덤을 막았다.

벽화를 보면 안길의 벽에는 량손에 무기를 든 문지기장수가 그려져있고 무덤간 네벽 모서리마다에는 흘림기둥과 련꽃치레를 한 두공, 련꽃, 봉황 등의 무늬를 새긴 도리, 힘장수가 받들고있는 활개를 그렸다.

무덤안은 마치 땅우의 목조건물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하여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렸다. 무덤간 북쪽벽에는 주인공부부가 장막을 친 화려한 방에서 남녀시중군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실내생활도를 그렸으며 동쪽벽에는 아래우 두 부분으로 나누어 웃부분에는 검은모자를 쓰고 누른 겉옷을 입은 남자들을, 아래부분에는 악대를 앞세우고 수레를 타고가는 주인공의 행렬도를 그렸다. 서쪽벽에는 아래우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에는 주인공부부가 남녀시중군들을 거느리고 교예를 구경하는 장면을, 아래에는 남자시중군들과 말을 그렸다.

서쪽벽웃단 북쪽에는 조용히 걸어가는 녀주인공을 그렸는데 깃과 소매끝에 붉은 천을 달아만든 검은색저고리와 색동치마를 입었다. 남쪽벽에는 서쪽부분에 누른 겉옷을 입은 주인공이 양산을 쓰고가는 장면을, 동쪽부분에는 누른 겉옷을 입은 인물

이 양산을 쥐고나가는 장면을 그렸다. 벽화들은 섬세하고 우아하며 색갈이 선명하다.

1972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벽화무덤인 다까마쯔무덤은 이 무덤과 공통점이 많다. 벽화에 그려진 녀인들이 긴저고리에 색동치마를 입은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벽화배치와 벽화내용, 그림솜씨 등에서 공통성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수산리벽화무덤은 고구려의 문화와 풍습을 연구하는데서뿐아니라 고구려문화가 일본문화에 준 영향을 알수 있게 한다.

천왕지신무덤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리에는 천왕지신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은 실물활개가 많아 구조가 독특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진 고구려의 벽화무덤이다.

5세기 중엽에 만든 두칸짜리 돌칸흙무덤이다.

무덤간은 안길과 앞칸, 안칸 그리고 그 사이길로 이루어져있다.

앞칸의 평면은 동서로 긴 장방형을 이루었는데 그 좌우끝은 중간부분과 구분하여 각각 하나의 칸처럼 꾸렸다.

그 이전 단계에 성행한 결칸이 있는 여러칸무덤구조의 잔재를 반영한것이다.

앞칸의 천정은 5개의 보를 건너대고 6개 구획으로 나누었으며 그중 중간의 3개 보우에는 큰 실물활개를 올렸다.

안칸의 평면은 큰 장방형으로 생겼는데 그 천정구조가 특이하다.

네 벽면모서리도리밑에 실물활개를 하나씩 뻗쳐 천정이 도리부터는 8각으로 되게 하였다.

천정의 두번째 8각부분을 다시 4각으로 좁히고 그우에 삼각고임을 한 다음 마감돌을 덮었다.

천정 맨 우에는 두쌍의 실물활개를 ＋형으로 엮어놓아 마감돌의 중심을 지지하게 하였다.

실물활개와 그림활개, 실물두공과 그림두공을 잘 배합하면서 무덤의 천정을 다양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견고하게 꾸민것은 당시 건축술의 높은 발전수준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천당지신무덤은 구조적으로 째였을뿐아니라 그 벽화내용도 흥미를 끈다.

안칸에는 전면에 걸쳐 거북잔등모양으로 6각형무늬를 놓고 그안에 련꽃을 옆에서 본것처럼 그려넣었다.

그리고 북벽 웃부분에는 따로 네모테두리를 하고 거기에 주인공부부의 실내생활장면을 그렸다.

주인공부부는 기와집안에 꾸린 장방안에 들어앉아있는데 그곁에서 시중군들이 서성거리고있다.

도리부분에는 구름무늬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괴상한 그림들을 배치하였다.

천정부분에도 그림이 가득한데 거기에는 《천당》이라고 쓴 신선과 《지신》이라고 쓴 신선이 그려있다.

이 신선들의 이름을 따서 무덤은 천왕지신무덤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진파리 4호무덤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고구려벽화무덤이다. 발굴당시의 지명과 순서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이 무덤도 일제가 도굴하여 값진 유물을 다 가져갔다.

이 무덤의 봉토(무덤무지)는 방대형으로 생겼다.

그 한변의 길이는 23m, 높이는 6m이다.

무덤간은 무덤안으로 들어가는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져있다. 안칸의 네 벽은 옹근 한장씩의 판돌로 되여있는데 그우에 회죽미장을 하고 벽화를 그렸다. 큰 판돌을 잘 가공하여 벽체로 세운 고구려인민의 돌가공기술은 참으로 놀랍다.

벽화는 안길 좌우벽과 안칸의 네 벽, 안칸천정돌에 그려져있는데 그림내용을 보면 대체로 자연풍경과 상상동물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련꽃무늬, 별그림 등이다. 특히 무덤 안칸으로 들어가는 3.15m의 길이를 가진 안길 좌우벽에 그려진 풍경그림은 고구려의 다른 벽화무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훌륭한것이다. 그 그림의 한 장면을 보면 잔잔히 물결이는 련못을 중심으로 높낮은 산봉우리들이 둘러섰는데 거기에는 나무들이 우거지고 산밑은 절벽과 바위들로 둘러싸였다. 련못에는 크고작은 련꽃들이 만발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동방식정원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 고구려풍경화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준다. 이 무덤에서 특징적인것은 여러가지 색갈과 함께 금분을 많이 써서 벽화를 눈부시게 그린것이다.

강서세무덤

강서세무덤은 강서구역 삼묘리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6월 하순 그리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6(1957)년 10월 하순에 강서세무덤을 찾으시고 우리 나라의 귀중한 건축미술유산인 이 무덤을 잘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고구려의 돌칸흙무덤인 이 3기의 무덤은 한군데 몰켜있기때문에 강서세무덤이라 부르며 삼묘리란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된것이다. 세무덤가운데서 남쪽의것이 큰무덤, 북쪽의 2기가운데서 서쪽의것이 중무덤, 동쪽의것이 작은 무덤이다.

큰무덤과 중무덤에는 벽화가 있고 작은무덤에는 벽화가 없다.

이 세무덤은 각기 한칸으로 되여있는 외칸무덤이고 무덤간의 크기도 비슷비슷하다.

무덤간은 다 잘 다듬은 화강석으로 정밀하게 쌓았다.

큰무덤의 무덤간만 보아도 벽면은 2~3장의 길게 네모난 판돌로 쌓고 그우에 평행고임돌과 삼각고임돌을 놓아 천정을 형성한것인데 모두 종이 한장 끼워넣을 틈도 없이 정확히 맞물리였다. 그리고 필요한 선들에는 가벼운 곡선을 주고 사람의 시선이 잘 미치는 고임면들에는 약간 경사지게 변화를 주어 무덤간안이 아늑해보이게 하였다.

큰무덤과 중무덤의 벽화는 벽면과 천정면 돌우에 직접 그린것이다.

이 무덤벽화의 주제는 사신도이다. 사신도란 사방을 지키는 방위신을 형상한것인데 동쪽방위신은 주작으로, 북쪽방위신은 현무로 표현되였다. 사신도무덤은 고구려벽화무덤에서 후기에 속한다. 강서세무덤은 6세기말~7세기초의것으로 보고있다.

강서세무덤에서는 특히 큰무덤의 청룡과 현무, 중무덤의 청룡은 주어진 화면에 대각선으로 배치하면서 대가리를 쳐들고 크게 벌린 아가리에 눈을 부릅뜨고 네다리를 펼쳐 방금 달려나올듯 한 자세이다.

물기도는듯 한 몸뚱이는 마치 살아움직이는듯 하고 비늘가득한 몸뚱이에는 5색을 아롱지게 칠하여 립체감까지 난다.

중무덤의 백호는 앞을 쏘아보는 부릅뜬 눈, 크게 벌린 아가리, 날카로운 이발, 탄력있게 생긴 날씬한 몸뚱이, 우로 꿈틀거리면서 들어올린 긴 꼬리, 균형잡힌 네다리 등 어느하나 나무랄데없이 세련된 솜씨로 그려졌다.

큰무덤의 청룡이 격조높은 약동감을 나타낸다면 중무덤의 백호는 놀랄만 한 박력감을 느끼게 한다.

이 무덤들에는 벽면에 가득찬 사신도외에 천정에 넝쿨무늬 등 장식그림들과 비천, 신선, 산악, 여러 짐승이 실감있게 그려져있다. 그중에서 특히 큰무덤의 비천은 날띠를 휘날리며 미소머금고 피리를 불며 날고있는 모습이 아주 생동하다. 그리하여 강서세무덤의 벽화들은 세계미술사상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강서세무덤은 고구려건축술의 높은 경지를 보여줄뿐아니라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필치로 그려진 벽화들은 조선화의 유구한 전통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대성산성

대성산성은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위한 진출과 나라의 강성에 어울리는 수도를 평양에 둘 목적으로 건설한 수도방위성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구려시기에 쌓은 대성산성만 보아도 규모가 크고 축조기술이 매우 우수합니다.》(《**김정일**선집》 제2권(증보판), 37페지)

대성산성은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에 있다. 이 성은 3~5세기에 쌓은 산성으로서 고구려의 가장 큰 산성들가운데 하나이다.

대성산성은 둘레가 7 076m, 성벽의 총 연장길이는 9 284m에 달한다.

대성산성은 높이 274m의 을지봉을 중심으로 소문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6개 봉우리들을 련결하고 그안의 2개의 넓고 깊은 골짜기들을 끼고있다. 산성안에서는 식량창고터와 무기고터, 병실터, 장대터, 문터 등 많은 집터들과 못자리들이 발견되였다.

성벽은 4각추형으로 다듬은 돌로 봉우리들에서는 대체로 외겹쌓기방법으로 쌓고 골짜기를 넘어서는 곳들에서는 두겹쌓기방법으로 쌓았다. 중요한 대목에는 3겹으로도 쌓았다.

성벽우에는 톱날식으로 낮게 쌓은 담장인 성가퀴들이 있었으며 요소마다에는 치도 설치하여 성의 방비에 편리하게 하였다.

대성산성안에서 발굴된 못자리와 시설물들은 고구려사람들이 이미 성방어에 유리하며 싸움에서 오래동안 견디여내려면 지형지세가 묘하고 물원천이 풍부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특히 대성산성에는 물원천이 풍부하였는데 전설에도 99개의 못에 9마리의 룡이 살고있으면서 가물이 들어도 물이 차있었다고 했다. 현재 170여개의 못자리가 발굴되였다.

대성산성의 면적은 약 2.7㎢로서 수십만명의 군대를 수용할수 있는 산성으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믿음직한 보루로 되였다.

오늘 대성산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원상대로 복구되여 잘 보존관리되고 있다.

안학궁터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원상대로 발굴복구된 고구려시기의 왕궁이던 안학궁터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있다.

안학궁은 고구려가 427년 오늘의 지린성 지안에서부터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오면서 건설한 왕궁이였다.

그때 안학궁은 왕이 일상거주하면서 나라일을 보던 곳이고 대성산성도 유사시에 왕이 들어가있을 성이였다.

안학궁터는 토성벽으로 둘러막혀있다. 네모나게 생긴 궁성벽 한 변의 길이는 622m이다. 그리하여 궁터의 면적은 약 38만㎡나 되며 그안에 총건평이 3만

1 458m² 에 달하는 52채의 궁전들이 서로 처마를 맞대고 즐비하게 늘어서있었다. 궁성성벽밖으로는 해자(큰 물도랑)를 파서 성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성문은 남쪽성벽에 3개, 동, 서, 북쪽 성벽에 각각 1개 있었다. 성안의 궁전들은 남북중심축을 따라 배치되여있었다.

성안의 궁전들은 외전과 내전, 침전, 동궁과 서궁의 5개 건축군으로 나누어져있었다.

외전은 국가적인 행사를 하던 정전이고 내전은 왕이 일상적으로 정사를 보던 정전이며 침전은 왕의 생활거처지였다. 동궁에는 다음 왕자리를 이을 세자가 살고 서궁에는 궁전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살았으며 경리시설들이 집중되여있었다.

궁성안에는 크고작은 못들과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산이 있는 정원들이 꾸려져있었다.

안학궁터는 당시의 우수한 건축술을 능히 가늠해볼수 있게 한다.

고구려의 이러한 궁성제도는 당시 동족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에 전해지고 이후 우리 나라 봉건왕궁들에 계승되였다.

평양성

평양은 고조선, 고구려의 옛 도읍지로서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유서깊은 도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평양의 력사이자 우리 민족의 력사이다. 고구려가 수도를 오늘의 중국 지린성 지안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겨왔을 때의 위치는 대성산성과 안학궁을 포괄하는 일대였다.

고구려는 국력이 더욱 강성해짐에 따라 수도를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더 잘 지켜내기 위하여 552년~586년사이에 평양성을 쌓고 수도를 다시 옮겼다.

평양성은 북쪽으로는 금수산이 둘러싸여있고 동, 남쪽은 대동강, 서쪽은 보통강이 천연해자를 이룬 그야말로 천연요새였다.

평산성형식으로 쌓은 평양성(장안성)의 둘레는 약 16km에 달하였으며 성벽의 총 연장길이는 약 23km, 성안의 넓이는 11.85km²나 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구려가 한창 번성하던 시기 수도와 그 주변(경기지역)의 주민호수는 21만 508호에 달하였다.

평양성은 금수산의 모란봉(최승대가 있는 봉우리)을 북쪽끝으로 하고 을밀대, 만수대의 마루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통강안을 따라 서남쪽으로 뻗었다. 그리고 보통강과 대동강의 합수목에 이르러 방향을 바꾸어 동북쪽으로 대동강을 거슬러올라가 대동문, 련광정, 청류벽을 타고 전금문, 부벽루를 지나 다시 모란봉에 이르렀다.

평양성안은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나뉘였으며 북성에는 칠성을 붙였다.

고고학적유물과 옛 기록에 의하면 내성은 만수대언덕과 그 남쪽 대동문을 포괄하는 평지대를 차지하였는데 이곳은 주민지대로 되여있었다.

북성은 을밀대와 최승대사이를 차지하였는데 여기에는 영명사 등 절을 두고 중성(내성)의 북방방위시설을 두었다.

칠성은 모란봉에서 북으로 무봉을 감싸면서 120m가량 내쌓았다.

성벽은 산지대에서는 돌성벽을 쌓고 평지대에서는 돌과 흙을 섞어쌓았다. 성벽밖에는 일부 땅을 파고 대동강과 보통강을 해자로 삼아 방어력을 높였다.

성벽우에는 성가퀴를 쌓고 성벽의 곳곳에 치를 두었다.

평양성에는 크고작은 성문들을 두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성문들인 대동문(내성의

동문), 칠성문(내성의 북문), 보통문(중성의 서문), 전금문(북성의 남문), 현무문(북성의 북문)은 당시의 모습을 돌이켜볼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평양성에서는 성벽쌓기를 담당한 지방과 구간, 감독자의 직위와 이름 등을 밝혀 글자를 새긴 성돌이 4개 발견되였다.

평양성과 같이 고구려인민들이 창조한 평산성형식의 대규모수도성은 우리 나라 봉건도성의 전형으로 널리 전습되였다.

평양성은 축조이래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친 우리 인민의 가지가지의 투쟁이야기를 수많이 전해주고있다.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는 평양성은 오랜 력사의 증견자로 그 자태를 보여주는 성터들이 곳곳에 보존재현되여있다.

황룡산성

황룡산성은 남포시 룡강군 옥도리 오석산에 쌓은 고구려시기의 산성으로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방어하던 위성들중의 하나이다.

봉건사회때 나라마다 수도방위시설을 둔것은 사실이지만 고구려처럼 사방에 위성들을 쌓고 수도보위에 만전을 기한 나라는 드물다. 동쪽의 홀골산성, 서쪽의 황룡산성, 남쪽의 휴류산성, 북쪽의 청룡산성 등은 그 대표적인 위성들이다.

황룡산성은 군사,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교통에도 편리한 위치에 자리잡았다.

황룡산성은 고구려시기에 많이 쌓은 고로봉식산성이다.

고로봉식산성이란 고로봉형지형에 쌓은 산성을 말한다.

고로봉형지형이란 고리짝처럼 네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막히고 안에 골짜기들이 있어 물원천도 풍부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곳이다. 고로봉식산성은 안에서 방어하기에는 유리하고 적이 공격하기에는 불리성을 가진다.

황룡산성은 둘레가 6 620m나 된다. 성벽은 돌로 쌓았는데 그 높이는 낮은 곳이 4~5m, 높은 곳이 10~11m이다.

성의 동, 서, 남, 북 네면에는 모두 큰 성문이 있는데 특히 정문인 남문의 문루는 2층으로 된 웅장한것이였다. 성문들에는 그앞에 성문을 지키기 위하여 쌓은 옹성이 있었다. 지금도 남문앞에는 ㄱ형으로 성문앞을 감싼 옹성이 남아있다.

성에는 톱날형식으로 낮은 담장처럼 쌓은 2 877개의 성가퀴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것을 보면 높이가 1.1~1.6m정도이다. 성에는 성벽에로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며 옆으로 쏘기 위한 치도 4개소에 있었다.

산성에는 동, 서, 남, 북 봉우리마다에 군사지휘처인 장대가 있었으며 북장대인 오석봉에는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올려 련락을 하던 신호수단인 봉수터도 남아있다.

이 산성에는 물원천이 풍부하였으며 성안 여러곳에서 수많은 무기고와 식량창고, 병실터가 발굴되였다. 남문부근에 남아있는 수구문에는 물길을 따라 적들이 기여들지 못하게 세운 기둥(은주)자리가 남아있다.

황룡산성은 고려시기에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고려서북방방위의 중요한 거점으로 리용되였으며 리조시기에도 여전히 방위거점으로 유지되였다.

우리 인민의 오랜 투쟁경험과 발전된 축성기술에 토대하여 건설된 황룡산성일대에는 그 옛날 《황룡국》이 있었다는 전설도 있다.

국내성(통구성)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였던 왕궁성이다. 성은 압록강중류 자강도 만포시의 대안인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안시 통구에 있다. 따라서 그 이름을 통구성이라고도 한다.

고구려는 A.D. 3년에 수도를 졸본으로부터 이곳 국내성으로 옮기였으며 그후 427년 평양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여기에 수백년동안 수도를 정하고있었다.

국내성의 성벽둘레길이는 2 686m이고 4각형모양이다.

지금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5~6m, 성밑부분의 너비는 10m정도이다.

성벽은 잘 다듬은 4각추모양의 돌로 든든하게 쌓았다. 성벽의 밑부분은 계단모양으로 단을 지으면서 큰 돌로 쌓았으며 우로 올라가면서 차츰 작은 돌로 쌓았다.

성벽의 시설물로는 성문, 옹성, 치 등이 있다. 문터는 동, 서, 남, 북에 각각 하나씩 남아있고 북쪽벽에는 원래 있었던 문을 후에 막아버린 흔적이 있다.

성밖에는 넓은 해자를 둘렀는데 서쪽면은 통구하를 해자로 리용하였다.

성안은 남과 북, 동과 서의 성문을 련결하는 도로로 정연하게 구획되고 거기에는 왕궁과 관청이 자리잡고있었다.

성안에서는 잘 다듬어진 커다란 주추돌이 드러났고 고구려의 기와쪼각들이 수많이 나왔다. 이 성에서 서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험한 산성자산에는 수도를 방어하는 위나암성이 있었다.

고구려통치배들은 평시에는 왕궁성인 국내성에 있다가 유사시에는 위나암성으로 들어갔다.

국내성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후에도 전반적성방어체계에서 중요시 되여왔다.

국내성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랜 고구려의 도성으로서 견고한 성벽축조기술, 옹성, 치 등의 구조물 그밖에 일련의 성곽시설물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초기 고구려도성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장수산성

황해남도 신원군 아양리 황해금강이라고 불리우는 장수산의 동쪽끝에 자리잡은 장수산성은 고구려시기에 쌓은 성이다.

성은 하니봉과 동장재를 감싸면서 크고작은 봉우리들을 련결하여 쌓은 큰 산성으로서 그 둘레는 약 10km에 달한다.

장수산성은 고구려산성일반이 그러하듯이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다. 내성은 서쪽의 작은 골안을, 외성은 동쪽의 큰 골안을 둘러막고있다.

장수산은 가파로운 산이므로 우리 선조들은 자연절벽을 교묘하게 리용하면서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다.

곳에 따라 량면쌓기를 한데도 있고 외면쌓기를 한데도 있으며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리용한데도 있다.

외성 남문안쪽으로는 겹성도 쌓았다.

장수산성에는 내성과 외성의 남문터 그리고 외성의 북문터가 남아있는데 외성의 남문터는 신원벌로 통하고 북문터는 재령벌로 통하고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험준한 지형에 쌓은 장수산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산성의 사방에는 전망이 좋은 곳들에 장대를 두었는데 그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서장대(하니봉)와 동장대였다.

성안에는 수원이 풍부하였는데 옛날 수원이던 하니폭포는 지금도 마를줄 모른다.

고구려시기에 축성된 장수산성은 리조시기까지 나라의 중요한 방어거점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다.

수양산성

황해남도 해주시 수양산의 험한 산봉우리를 둘러막은 고구려시기의 산성이다. 1676년에 다시 쌓았다.

수양산성은 북쪽에 높이 솟은 장대산을 배경으로 하고 그 남쪽의 골짜기와 넓은 대지를 안에 넣고 둘러선 봉우리와 릉선을 따라 쌓은 전형적인 고구려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5 258m에 달한다.

성벽은 자연지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외면쌓기와 량면쌓기를 배합하여 쌓았다.

적들이 다가들기 쉬운 곳에는 치를 설치하였다.

성문은 사방에 다 있었다.

수구문은 남문동쪽옆골짜기에 나있다. 수구문밖은 곧 절벽이 되여 이곳으로 모여 흘러내리는 물은 곧 폭포를 이룬다. 이것이 수양폭포이다.

14세기 후반기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은 퇴각하는척 하면서 놈들을 유인하여 동쪽문으로 끌어들였다. 성안으로 끌려들어온 외적들은 유인매복에 걸려 한놈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1592년 임진전쟁때나 1636년 청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도 수양산성은 조국방위에 크게 기여하였다.

녕변 철옹성

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의 약산동대를 품에 안고있는 고구려시기의 산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4(1975)년 7월 철옹성을 찾으시고 이 산성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7세기에 고쳐쌓았다. 녕변읍을 고리짝처럼 둘러막은 산봉우리들을 따라 쌓아진 철옹성의 둘레는 14km이다.

철옹성은 본성과 그안을 구분하여 쌓은 약산성, 신성, 북성으로 이루어졌다.

고구려시기 약산성(덧쌓은 부분 약 1 000m)은 내성에 해당하고 본성은 외성이였으며 신성(덧쌓은 부분 약 3 000m)과 북성(덧쌓은 부분 약 2 000m)은 리조시기에 덧쌓은것이다. 철옹성은 말그대로 쇠로 만든 독처럼 견고하여서 지난시기 한번도 함락되여 본 일이 없다고 한다.

철옹성의 약산성은 약산을 둘러막고 본성은 약산성을 이어서 북쪽의 진망산, 동쪽의 모란봉, 남쪽의 남산을 거쳐 다시 약산성에 가닿았다. 북성은 본성의 서북쪽을, 신성은 본성의 서남쪽을 갈라쌓았다. 본성의 동, 서, 남, 북 네면에는 큰 성문들을 두었다. 지금도 남문에는 문루까지 잘 남아있다. 이 문루는 1789년에 고쳐세운것이다. 철옹성남문은 지금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문루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의 하나이다.

철옹성에서는 수구문이 유명하다. 강을 가로질러 4개의 무지개문을 내고 그우에 문루를 세운 기발한 형식의것이였다.

전망이 좋은 남산과 약산동대, 진망산과 모란봉에는 각각 장대를 두고 사방을 감시도 하고 군사지휘도 하게 하였다.

11세기초 거란침략자들은 여러차례 녕변철옹성앞에서 섬멸적타격을 받았다.

1236년 삭주를 거쳐 녕변에 기여든 원나라침략군도 철옹성에서 참패를 당하였으며 1636년 청나라침략자들도 이 성을 감히 다치지 못하였다.

광개토왕릉비

고구려광개토왕의《공적》을 찬양하여 그 릉앞에 세운 비석이다.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인 국내성(지린성 지안시)에서 동북쪽으로 6km 떨어진 대왕촌에 있다.

비석은 비몸돌과 대돌의 2개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대돌은 화강암을 가공한것인데 길이 3.35m, 너비 2.7m, 두께 약 0.2m의 판돌이다.

대돌우에는 응회암으로 만든 높이 6.34m, 너비 1.43~1.9m, 두께 1.53m의 큰 비몸돌을 세웠다.

매끈하게 다듬은 비몸돌 4개 면에는 가로세로 줄칸을 치고 새긴 글자가 빼곡이 차있다. 매개 글자의 크기는 대체로 12cm²이다.

비문은 모두 44줄로 내리새겼는데 1면에 11줄, 2면에 10줄, 3면에 14줄, 4면에 9줄이다. 글자는 줄마다 41자씩 새겨 약 1 800자를 새겼는데 비문의 내용은 대체로 3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다.

첫 부분에는 고구려의 시조전설로부터 광개토왕의 즉위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개괄되여있다. 둘째 부분에는 광개토왕이 령토를 넓힌 무공을 자세히 밝히고있다. 셋째 부분에는 왕릉을 지키는 묘지기의 정원수, 그들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이 새겨졌다.

이 비문에는 세나라의 통일을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과 념원이 일정하게 반영되여있다.

지난 시기 일제어용사가들은 비문의 《신묘년기사》등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임나-일본부설》(《미마나-미야께설》)을 조작한 일이 있으나 이 반동적인 궤변은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지금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는 광개토왕릉비가 실물처럼 만들어 진렬되여있다.

광개토왕릉비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비석가운데서 가장 오래고 가장 큰것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자랑할만 한것이며 그 내용의 풍부성으로 하여 고구려사와 세나라 호상관계 및 우리 나라 대외관계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사료로 되고있다.

중원고구려비

5세기 후반기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룡전리에 세운 고구려의 비석이다.

이 비석은 고구려가 번창하던 때 나라의 남쪽국경을 확장하여 세운 척경비이다.

이 비석은 높이 2.03m, 앞면너비 0.49~0.55m, 옆면너비 0.37~0.38m이다.

비문은 네면에 다 새겨져있다.

1면의 비문은 총 10줄에 230자인데 18자가 보이지 않고 2면의 비문은 7줄 101자인데 67자를 알아볼수 있으며 3면과 4면의 비문은 전혀 알아볼수 없게 되였다.

글자의 크기는 3~5㎠정도이다.

비석의 앞면 맨우에 새긴 《고려 건흥 4년》이라는 글에 의하면 건흥이라는 년호가 고구려의 년호이라는것과 비석의 내용이 건흥 4년(475년)경의 사실을 전하여준다는것을 알수 있다.

비문에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사이의 관계가 반영되여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고구려의 령토가 당시 중원(충주일대)까지 포괄하고있었다는것과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속국으로 취급하고있었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알게 한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한자를 가지고 자기 식의 리두문을 쓰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중원고구려비는 광개토왕릉비와 함께 고구려의 력사, 삼국 호상간의 관계를 해명하며 고구려의 강대성을 증명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나무다리유적

평양시 대성구역 청호동과 사동구역 휴암동을 련결하는 곳에서 고구려의 대동강다리유적이 발굴되였다.

이곳에 큰 다리가 놓이게 된것은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의 중심이 안학궁과 대성산성이였기때문이다.

고구려는 이 다리를 통하여 남쪽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았던것이다. 다리의 총길이는 375m이고 너비는 9m로서 대단히 큰 나무다리였다. 당시 이렇게 큰 규모의 나무다리가 발견된 일은 아직 그 어디에도 없다.

발굴된 유적유물에 기초하여 이 다리의 구조와 형식을 복원하여보면 다리의 입구부분은 나무를 부채살모양으로 깔았고 본체부분은 널판을 가로세로 깔았으며 량옆에는 란간을 세웠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다리의 기둥은 물에 닿지 않는 첫 부분에는 큰 각개우에 든든한 모기둥을 세웠고 물이 흐르는 대목에는 사개물림방법으로 귀틀을 짜고 그안에 돌을 가득 채웠다.

대동강나무다리에는 다리를 건느는 사람들을 밝혀준 등불자리도 발견되였는데 다리의 입구 동쪽의 잘 다진 바닥우에 길이 154cm, 너비 120cm의 크기로 귀틀모양으로 짜올렸던것이다.

대동강다리는 고구려사람들의 훌륭한 건축술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위력하였던 고구려의 강대성을 보여주고있다.

석각천문도

고구려에는 5세기말 또는 6세기초에 만들었다고 하는 석각천문도가 있었다. 석각천문도는 길이 약 2m, 너비 약 1.2m 되는 돌에 새긴 별자리그림이다.

당나라침략군이 침입하였을 때 강물에 빠뜨려 없어졌는데 그것을 대본으로 하여 종이에 찍어냈다고 하는 천문도가 리조초기에 한장 발견되였다.

이 천문도에 기초하여 1395년에 만들어진 《천상렬차분야지도》는 고구려시기에 만든 천문도의 기본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약간의 수정과 보충을 가한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통하여 고구려석각천문도의 기본내용을 알수 있다.

이 천문도에는 당시 북극을 중심으로 하여 널려있던 1 467개의 별들이 282개의 별자리들에 표시되여있고 적도원과 북극원, 황도원과 함께 경도선이 밝혀져있으며 은하수도 그려져있다. 이 천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성표의 하나이다.

중흥사 당간지주

고구려시기의 유적인 이 당간지주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 1동에 있다.

당간지주란 기발대의 지지기둥을 말한다. 대체로 2개의 돌기둥을 쌍지어 세우고 그사이에 기발대를 끼워세우게 되여있다. 절간에 흔히 세웠다.

중흥사 당간지주는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당간지주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이며 또 큰 축에 속한다.

중흥사는 고구려광개토왕때(391년-412년)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393년 평양에 세웠다고 하는 9개중의 하나였다고 인정된다.

중흥사는 큰 절간이였으며 고려시기와 리조초기까지도 있었다. 고려시기 평양에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관군들이 이 절간에 주둔하였다고 한다.

중흥사 당간지주는 바닥돌우에 세운 2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높이는

4m나 된다.

돌기둥에는 기발대를 회전시키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구멍들이 나있다.

대동강과 보통강사이에 자리잡은 평양성은 마치 배처럼 생겼는데 이 당간지주는 그 배를 매여두는 기둥인듯이 이야기된 전설이 있다.

일 화

부분노의 묘한 계책

고구려가 주변에 있는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여 령역을 넓혀나가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장수들이 서있는 모습을 말없이 굽어보던 유류왕이 드디여 근심어린 어조로 말을 이었다.

《군장들도 이미 아다싶이 지금 선비족이 지세가 험한것을 믿고 우리와 화친하려 하지 않으면서 정세가 유리하면 나와 로략질을 하고 불리하면 들어박혀 굳게 지키고있으니 이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수 없소. 어떻게 하면 저 선비족을 공격하여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게 할수 있겠소? 어디 한번 말들을 해보오.》

유류왕의 말이 끝났으나 장수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대답이 없었다. 분위기는 봄날에 때아닌 설한풍이 들이닥친 격이 되였다.

《그래 군장들중에 저 선비족을 혼쌀낼 장수가 과연 없단 말이요?》

처음 근심이 어렸던 유류왕의 어조는 대번에 노기를 띠였다.

이때 한 장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가 바로 20여년전에 행인국을 쳐서 복속시키는데서 큰 공을 세운 부분노였다.

《소인의 생각에는 무턱대고 정면으로 선비족을 공격하다가는 랑패를 볼것 같소이다.

원래 저 서북방에서 유목생활을 하고있다가 료오둥지방으로 내려온 선비족들의 일부는 지금 우리 나라의 서북산간지대의 험한 지세를 리용하여 성을 쌓고 완강하게 저항하고있소이다.》

유류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좀 더 자세히 그 방도를 내놓을것을 요구하였다.

《예, 소인의 생각에는 변방에 군사와 장비를 허술하게 배치해놓고 동시에 우리 사람들을 선비족에게 파견하여 우리가 위세를 부리지만 실속이 없다는것으로 거짓소문을 퍼뜨리면 그들은 우리를 업수이 보게 될것이며 자연히 탕개를 풀고 방비도 늦추게 될것이오이다.》

《음, 우리가 약하다는것을 보여주잔 말이지. 그대 계책이 그럴듯하니 그대가 이 일을 맡되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 이튿날부터 부분노는 이미 세운 자기의 계책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쳤다. 먼저 선비족과 린접한 변경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군사와 장비를 감쪽같이 국내깊이로 이동시켜 방비가 매우 허술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그후에 부하들중에서 날랜 사람들을 여러명 선발한 그는 그들을 소금장사로 가장시켜 선비국으로 들여보냈다.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얼마 안되여 고구려변방경비가 매우 허술하다는 소문이 선비족의 변강지역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선비족추장은 곧 간첩을 들여보내여 고구려변방지대를 정찰하게 하였다.

부하들로부터 그것이 사실이라는것을 보고받은 선비족추장은 탕개를 풀고 또다

시 고구려를 침략할 흉계를 꾸몄다.

한편 부분노는 어느날 깊은 밤 이미 대기하고있던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름길로 하여 선비족의 성이 바라보이는 수림속에 매복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 부분노의 계책에 따라 일부 군사를 이끌고 출동한 유류왕은 선비족의 성근처에 이르자 군사들로 하여금 북을 울리며 위세를 돋구게 하였다.

한동안 울리는 북소리며 함성소리에 성밖을 내려다본 선비족은 깜짝 놀랐다.

《아니, 저 몇명 안되는 고구려놈들이 감히 우리성을 공격하겠다고?》

고구려임금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성밑에 왔다는 소식은 선비족추장에게 전달되였다.

《뭐, 고구려 임금까지 왔다고, 내 그러지 않아도 고구려를 정복하고 임금을 사로잡자고 했댔는데 이렇게 제발로 오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로다. 고구려임금을 무조건 사로잡으라!》

추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선비족들은 성문을 열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적들이 미친듯이 달려나오자 처음에는 싸우는척 하던 유류왕은 곧 퇴각명령을 내렸다. 선비족은 고구려군을 추격하여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쫓아왔다.

이때를 기다리던 부분노는 군사를 성안으로 진격시켰다.

기본주력은 고구려임금을 사로잡으려고 모두 출동하였으므로 성안에는 불과 몇백명밖에 없었다.

고구려군사들은 저항하는 선비족군사들을 쓸어눕히고 추장을 잡았다.

《네가 선비족추장이냐?》

《그렇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나는 고구려의 장수 부분노다. 네놈들이 우리 나라를 자주 침략하여 못된짓만을 골라서 하기때문에 내 오늘 참을수 없어 이렇게 왔다. 그러니 어서 내 칼을 받으라!》

그러나 선비족추장은 기본부대의 회군을 믿으며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일부러 쫓기는척 하던 유류왕은 반격을 개시하였다. 날랜 기병들을 파견하여 량옆에 매복시키였던 국왕은 적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매복구역에 들어서자 《둥, 둥》 출전북을 울리게 하였다.

그러자 기병들은 적의 허리를 순식간에 꿰질러 혼란을 조성시켜놓고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쳐대였다.

이제껏 얕잡아보고 따라오다가 예상치 않았던 반격을 받은 선비족은 황급히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성에 거의 이르러 성벽우를 바라보던 선비족군사들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성문은 활짝 열려있고 성루에는 고구려군사들이 쭉 늘어서있는것이 아닌가. 선비족들이 어쩔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성을 차지한 부분노의 군사와 임금이 거느린 군사들이 앞뒤에서 공격하는 바람에 적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였다.이제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한 선비족추장은 드디여 항복하고말았다.

이리하여 고구려의 변경을 자주 침범하여 못되게 놀던 선비족들은 명장 부분노의 계략에 의하여 고구려의 속국으로 되였으며 고구려서북지방의 정세는 비로소 안정되게 되였다.

구도의 인생말년뉘우침

구도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을 받들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공신들중의 한사람이였다.

동명왕은 성실하고 근면한 구도를 총애하여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남먼저 그를 찾군 하였다.

갓 세워진 고구려가 강대한 외적의 끊임없는 침략을 물리치고 자기의 터전을 튼튼히 닦아놓을수 있은데는 구도의 남모르는 수고도 적지 않게 들어있었다.

그는 동명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나라를 위한 일에 자기 몸을 서슴없이 내대군 하였다. 그러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과시 동명왕의 신하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은 류수와도 같아 젊음에 넘쳐 동명왕과 함께 광활한 초원을 좁다하게 내달리던 일은 이제는 옛이야기로 되여버린듯 구도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하였다.

동명왕때의 신하들은 나이가 들어 하나둘 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얼마되지 않았다.

대주류왕은 그들을 중히 여겨 구도와 일구, 분구 세 사람을 비류부장으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공로를 전면에 내걸고 아래사람들을 깔보며 마구 다루었다.

관리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들인지라 항변 한마디 못하고 온갖 모욕을 묵묵히 감수하기만 하였다. 그러면서도 《오리 제물로 간다.》고 구도 등이 반드시 제곬으로 들어서리라는 한가닥 희망만은 버리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생각이였다.

그들의 교만성은 마침내 포악성으로 변하여 사람들에게 형언할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었다. 구도는 바쁜 농사철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궁궐과 같은 집을 짓게 하였으며 인물고운 녀자라면 그것이 설사 관리의 첩이라도 상관없이 닥치는대로 빼앗아 제것으로 만들어버리였다.

또한 남의 집 재물도 제멋대로 강탈하여 재산을 불구었으며 이에 불응하면 관가에 붙잡아다 애매한 죄명을 씌워 매를 안기였다.

일구, 분구도 경쟁적으로 못된짓만 일삼았다.

억울하게 땅을 잃고 집도 빼앗긴 백성들의 원한은 하늘땅에 사무치였다.

이들의 죄행을 탄핵하는 글들이 연방 왕궁에 날아들자 대주류왕은 그것을 차마 믿을수 없어 사람을 보내여 알아보게 하였다. 하지만 구도 등의 죄상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대신들은 구도, 일구, 분구 세 사람을 극형에 처할것을 주장하였다. 임금도 그들의 의견을 따르고싶었으나 동명왕의 옛 신하들이라는것을 고려하여 곤장을 쳐서 벌을 주게 하고 평민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추발소를 비류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졸지에 명예도 재부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여 한지에 나앉은 구도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평민으로서 백성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불행한 처지를 직접 목격하고서야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그릇된것이였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자기가 이때까지 자랑삼아 말해오던 《공로》란 결국 백성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것이였다.

(아, 내 늘그막에 무슨 망녕이 들어 이런짓을 했담. 저만 제일이라고 우쭐대던

그 못된 버릇이 나를 끝내 망하게 하고야 말았구나.)

자책감으로 모대기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구도는 어느날 추발소의 집으로 찾아갔다. 평소에 그와 안면이 있던 사이인지라 구도는 추발소를 보자 반색을 하며 마루우에 올라서려고 하였다.

이때 대들보가 울릴 정도로 큰소리로 질책하는 추발소의 엄한 추궁이 구도의 머리우로 날아들었다.

《죄인은 어찌하여 내 집 마루우로 함부로 오르려 하는고? 그대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는고.》

《내 공을 찾아온것은 회포나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요. 우리들은 소인이라 임금의 령을 심히 위반하였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소. 내 이제 무슨 면목으로 땅속에 들어가 선왕들을 뵈울수 있겠소. 원컨대 공이 우리들의 죄과를 용서하여 허물을 고치게 하여준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소》

이 말을 듣자 추발소는 빙그레 웃으며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사람이 어찌 허물이 없을수 있겠소. 잘못하고도 능히 고치게 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없다고 보오. 이제 공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바르고 성실하게 산다면 대왕께서는 다시 중히 써줄것이요》

이날부터 추발소는 구도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고 종전과 같이 지내였다. 구도, 일구, 분구 세 사람은 그럴수록 자기의 잘못을 다시한번 반성해보며 다시는 고약한 짓을 하지 않았다.

대주류왕은 이 사실을 알고《추발소가 위엄으로써가 아니라 지혜로 악한 사람을 고쳐주었으니 재능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라고 말하며 추발소에게 대실씨라는 성을 하사해주었다.

을두지의 지략

28년 7월에 랴오둥태수를 우두머리로 하는 수만명의 후한침략군은 불의에 고구려를 침공하여 수도 국내성을 향해 깊숙이 쳐들어왔다.

고구려의 대무신왕(재위 18년-44년)은 이때 좌보로 있던 을두지의 책략에 따라 군사들을 위나암성에 집결시키고 장기전으로 넘어갔다.

후한침략군은 곧 위나암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들이댔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미친듯이 달려든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성을 굳건히 고수하였다.

치렬한 전투속에서 적들이 위나암성을 포위공격한지도 수십일이 지나갔다.

수도성이 위험에 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고구려군사들이 달려왔으나 그들은 적들의 차단이 심한 조건에서 성안으로 뚫고들어오지 못하였다.

형세가 점점 험해지자 대무신왕은 불안감에 휩싸여 급히 을두지를 불렀다.

《지금 상태로서는 성을 더 지켜내기가 곤난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대왕마마께서는 크게 근심할것이 하나도 없소이다. 소신이 형세를 관망해보건대 군량이 떨어지고 힘이 진하기는 우리나 적들이나 피차 일반이오이다. 지금 한나라놈들은 우리가 돌바위투성이의 성에 있으니 물이나 샘이 없을것이라고 타산하고 오래동안 포위함으로써 우리를 곤난하게 만들려고 하고있소이다. 그러니 못속의 잉어를 좀 잡아가지고 적들에게 먹이도록 하려고하나이다. 그러면 적들은 반드시 물러갈것이오이다.》

을두지의 확신성있는 대답에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은 임금은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아 다시 다우쳐물었다.

《그 계책이 들어가 맞을가?》

을두지는 겸손하면서도 자신만만하게 말하였다.

《글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이다. 그저 잉어를 보낼 때 편지 한통만 써주시면 되겠소이다.》

을두지는 곧 임금의 편지와 함께 잉어와 술을 적장에게 보냈다.

고구려임금이 편지를 보내왔다는 보고를 들은 후한의 료오둥태수는 고구려가 저들의 검질긴 공격을 끝끝내 견디여내지 못하고 항복하는줄로만 생각하면서 득의양양해하였다.

료오둥태수는 기고만장하여 고구려임금의 편지를 집어들고 부하들이 다 듣도록 우정 큰소리를 내여 읽기 시작하였다.

《내가 우매하매 장군으로 하여금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경내에서 로숙생활을 하게 하였다. 장군의 후의에 보답할 길없어 이에 보잘것없는 물건을 보내니 널리 량해해주기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난 그는 소태먹은 인상을 해가지고 노기가 올라 불그락푸르락하였다.

글은 분명히 자기의 가련한 처지를 야유하는 내용으로 되여있었던것이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위나암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던 그는 화풀이나 하듯 함통을 발로 걷어찼다.

함통이 뒤집혀지면서 수초에 싸였던 잉어들이 쏟아져나왔다.

잉어를 보자 그는 광기를 멈추고 조용히 그앞에 마주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실 료오둥태수는 위나암성의 지형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안에 물원천이 없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래서 성을 오래도록 포위하면 고구려군사들이 기아와 갈증에 못이겨 항복하리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뜻밖에도 잉어의 출현은 자기의 계책을 한순간에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았던것이다. 수초에 싸여 살아있는 잉어는 성안에 수원이 풍부한 큰 못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사실 성안에는 못이 있었지만 장기전으로 물이 거의 말라가고있었다.

을두지는 이런 조건에서 바로 적장의 심리를 자극하여 물러가게 할 묘안을 세운것이였다.

고구려의 청야전술에 걸려 군량도 거의다 떨어지고 군사들도 지칠대로 지쳐 더는 싸울수 없는 상태에 이른 조건에서 저들의 포위전이 더이상 효과가 없으리라는것을 깨달은 료오둥태수는 더 큰 랑패를 보기 전에 삼십륙계줄행랑을 놓는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후한침략군은 숱한 주검만 내고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한채 황급히 저들의 소굴로 도망치고말았다.

태자의 자결

해명은 류리왕의 둘째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책읽기보다도 무술을 익히는것을 더 좋아한 그는 여러가지 병쟁기들을 귀신같이 다루었을뿐아니라 힘 또한 남달리 세여 그를 당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류리왕은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이듬해인 A.D. 4년에 16살난 해명을 태자로

삼고 졸본성으로 보냈다.

첫 수도였던 졸본성과 그 주변지역을 직접 다스리면서 태자로서의 자질을 하나하나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임금은 떠나는 그에게 주의사항을 주면서 특히 이웃에 있던 황룡국(오늘의 관티엔현일대에 있던 소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것을 신신당부하였다.

고구려의 서남방에 위치하고있던 황룡국은 당시 고구려에 맞설수 있는 비교적 큰 소국이였다. 그렇기때문에 류리왕은 수도를 옮기고 터를 튼튼히 잡을 때까지는 그 나라와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고 재삼 강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황룡국사신이 나타나 자기 나라왕이 해명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강궁을 바쳤다.

그리고 능글맞게 웃음을 지으며 간사하게 말하였다.

《태자께서 힘이 장사같으시고 활을 귀신같이 다루신다는것을 저희들은 소문을 들어 이미 알고있는터이니 그 솜씨를 한번 보여주시오이다.》

전례를 벗어나 부왕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선물》을 가져온것부터가 이상하게 여겨진 해명은 사신의 얼굴표정에서 황룡국왕이 강궁을 보낸 목적을 제꺽 알아맞히였다.

황룡국통치배들은 고구려가 고조선의 옛땅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는것과 함께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 복속시키면서 령토를 넓혀나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느라 모지름을 썼다. 그 과정에 나온것이 바로 《강궁책략》이였다.

황룡국의 강궁은 예로부터 질이 좋고 센것으로 하여 유명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 하여도 그것을 다루자면 헐치 않았다. 황룡국통치배들은 특별히 공들여 만든 강궁중의 강궁을 고구려에 보내여 자기 나라의 무기가 발전되였다는것과 이것을 다루는 장수들이 많다는것을 시위함으로써 고구려의 위세를 꺾어보려고 하였던것이다. 특히 그들은 이번 기회에 앞으로 임금이 될 해명의 기세를 단단히 눌러놓으리라 작정하였다.

황룡국왕의 계책은 해명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려놓았다.

치밀어오르는 격분을 가까스로 누르며 강궁을 집어든 해명은 온몸의 힘을 다하여 시위를 지그시 당기기 시작하였다. 그토록 세다고 하던 강궁은 엿가락처럼 휘여지더니 이내 《뚝》하는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이 광경을 숨죽이고 지켜보던 사신은 비지땀을 흘리며 사색이 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해명은 부러진 강궁을 한쪽구석에 집어던지고 궁전이 떠나갈듯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고 정색해서 사신에게 면박을 주었다.

《내가 힘이 센것이 아니라 활자체가 든든치 못하오. 다음번에 올 때는 이보다 더 센 활을 가져오면 좋겠소.》

해명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위압감을 느낀 사신은 《예》, 《예》 하며 외마디소리를 지를뿐 아무 말도 못하고있다가 체면을 차릴새도 없이 황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렸다.

황룡국의 강궁이 해명의 손에서 꺾어졌다는 소문은 삽시에 온 나라에 퍼졌다.

이 소식을 들은 류리왕은 성이 독같이 났다.

《그 녀석이 그만큼 신칙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황룡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나의 뜻을 어기였으니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식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여 극형에 처하라》

신하들은 저저마다 해명이 젊은 혈기를 믿고 잠시 실수한것이니 용서해주자고 거듭 간청하였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노여움이 너무나도 컸던 류리왕은 그들의 제기를 모두 묵살해치웠다.

《형벌을 집행하는데서는 사정이 없다. 그가 설사 태자라고 할지라도 임금의 령을 어겼으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 나라에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할수 없다.》

그러면서 류리왕은 검을 주어 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지시하였다.

해명은 부왕이 보낸 사신한테서 전후사연을 자세히 듣고 검을 받자 즉시 자결하려고 하였다. 이때 가까이에 있던 신하가 급히 나서서 말리며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맏아들이 불행하게도 일찍 돌아갔으니 이제는 둘째아들인 태자님으로 하여금 뒤를 잇게 해야 할것이오이다. 이제 대왕께서 보낸 사신이 한번 왔을뿐인데도 스스로 죽는다면 어찌 조서라는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겠나이까.》

그러자 해명은 서글픈 기색으로《전번에 황룡국왕이 강궁을 보내왔기에 그가 우리 나라를 업신여기는것이 괘씸하게 생각되여 짐짓 활을 잡아당겨 꺾어버리였소. 그런데 뜻밖에도 부왕의 책망을 받게 되였소구려. 지금 부왕이 나를 불효자식이라 하며 검을 보내여 자결하라 하였으니 어찌 부왕의 칙명을 피할수가 있겠소.》라고 말하며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였다.

그는 곧 숫돌나루동쪽언덕으로 가서 창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것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달려가 창끝에 찔리워 죽어버렸다.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였다.

해명태자의 자살에 대하여 봉건사가들은 그가 부왕의 명령을 어긴것은 잘못이지만 임금이 미리 교양을 잘 주지 못하고서도 명령을 한번 어긴것을 가지고 죽여버린것도 잘못이니 이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 제구실을 하지 못했기때문에 일어난것이라고 평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해명의 자살은 봉건유교적도덕관념이 몰아온 맹목적인 죽음이였다고 할수 있다.

을파소의 등용

191년 여름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안에서는 병쟁기들이 부딪치는 아츠러운 소리가 소름이 끼치는 비명소리와 함께 쉴새없이 울리였다.

국왕의 외척인 좌가려가 반란을 일으켰던것이다.

고국천왕(재위 179년-197년)은 수도의 군사를 동원하여 반란을 곧 진압하고 그의 잔당들을 극형에 처하거나 귀양보내였다.

봉건정부앞에는 이 반란을 계기로 조성된 왕실내부에서의 불안과 외척들의 전횡으로 첨예화된 사회계급적모순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만 한 인재가 없는것이 안타까운 노릇이였다.

반란진압후 고국천왕은 조정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근래에 벼슬은 총애받는자에게만 주고 직위는 덕에 따라 오르지 아니하여 그 해독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왕실을 자못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짐이 현명하지 못하여 초래된것이니 이제라도 그대들은 짐과 함께 정사를 의논하고 보좌할수 있는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추천하라.》

국왕의 말이 끝나자 귀족들은 모두 동부《환나부》귀족 안류를 추천하였으며 안류는 또 이를 사양하며 류리명왕때의 대신 을소의 후손 을파소를 추천하였다.

안류는 그가 서쪽 압록곡좌물촌에서 사는데 성질이 강직하고 지혜가 뛰여나 그를 불러다쓰면 만사가 잘될것이라고 하였다.

고국천왕은 안류의 말대로 을파소를 찾아내여 입궐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해가던 을파소가 수도에 올라오게 되였다.

고국천왕은 그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였다.

《짐은 외람되게 선왕의 위업을 이어받아 신하와 백성의 웃자리에 있으나 덕이 박하고 재주가 부족하며 사리에 밝지 못하오. 그대는 재능과 총명을 감추고 초야에 있은지 오래되였다는데 지금 짐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와주었으니 이는 짐에게 행운이 찾아온것이요, 나라와 백성에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할것이요. 지금 조건에서는 인재가 적어 국사를 처리함에 난감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요. 근간에는 외척들이 들고일어나 왕실을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으니 나라와 조정을 규찰하는 중외대부로 임명하고 우태의 직위를 주겠으니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직분에 충실하기 바라오. 그대의 가르침을 쾌히 받아들이겠으니 그대는 주저하지 마오.》

국왕의 말이 다 끝났으나 을파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답이 없었다.

을파소는 한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비록 나라에 몸과 맘 다바쳐 이바지할 결심이였으나 임금이 준 벼슬이 방금 들은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황송하오이다. 대왕마마, 이 미천한 소신이 하루아침에 임금님의 높은 신임을 받았으니 천지를 얻은듯 놀랍기만 하옵고 꿈을 꾸는듯 하오이다. 허나 우매한 신으로서는 감히 어명을 감당할수 없사오니 대왕마마께옵선 현명하고 어진이를 골라 높은 관직을 줌으로써 위업을 이룩케 하옵소서.》하고 말한 을파소는 머리를 숙이였다.

고국천왕은 그때 그의 뜻을 짐작하고 최고벼슬인 국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을파소의 출현과 그의 활동은 인차 일부 귀족들과 외척들의 미움을 사게 되였다.

을파소는 원래 최하층인민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당대사회의 계급적모순과 봉건지배층들 특히 왕실귀족들의 전횡과 그 페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그가 실시하는 개혁들이 임금의 가까운 신하들과 외척들의 마음에 들리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활동을 이모저모로 방해하였으며 을파소가 새로 등용된 사람인데도 오랜 대신들을 업수이 여긴다고 험담을 늘어놓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국천왕은 귀천에 관계없이 만약 국상에게 복종하지 않는자는 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엄한 령을 내렸다.

을파소는 곧 정치와 교화를 잘하고 상과 벌을 신중히 하였으며 외척의 반란으로 첨예화되였던 중앙의 대귀족들과 중하층귀족들, 봉건통치배들과 최하층인민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일정하게 해소시켰다.

또 그가 국상으로 된 다음부터 백성들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였고 국력은 점차 강화되였다.

고국천왕은 그후 을파소를 추천하였던 안류를 대사자로 임명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그대의 한마디말이 없었다면 짐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였을것이요. 을파소와 같은 명상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기에 만사가 다 정돈된것이니 이는 그대의 공로이기도 하오.》

을파소의 등용으로 고구려의 국내정세가 비로소 안정되고 고구려의 위력은 크게 높아졌다.

밀우와 뉴유

고구려는 3세기 중엽부터 새로운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위나라와 힘겨운 싸움을 벌렸다.

위나라통치배들은 고구려의 전 지역을 강점할 야망밑에 여러차례 쳐들어왔으나 그때마다 심대한 타격을 받고 쫓겨가고말았다.

악에 받친 위나라통치배들은 246년에 또다시 유주자사 관구검을 우두머리로 하는 수만명의 침략군을 내몰아 고구려를 침략하게 하였다.

적들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접한 고구려의 동천왕(재위 227년-248년)은 자기가 직접 보병과 기병 2만명을 거느리고 비류수가에 진을 쳤다.

얼마 안있어 적들의 무리가 나타나자 애국심에 불타던 고구려군사들은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일대 섬멸전을 벌려 적군 3 000여명을 목베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적들이 무질서하게 도망치자 고구려군은 100여리를 추격하여 량맥골짜기(오늘의 타이쯔하상류)에서 다시한번 크게 싸워 3 000여명을 살상포로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두차례에 걸친 큰 승리에 자만한 동천왕은 《위나라의 대군이 우리의 적은 군사만도 못하니 위나라의 명장이라고 하는 관구검의 운명도 오늘 나의 손아귀안에 있구나.》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속도가 빠른 철기병(말까지도 갑옷을 입힌 중기병) 5 000명을 이끌고 적군을 계속 추격하였다.

급해맞은 관구검은 이에 대처하여 방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막아나섰다.

동천왕은 적을 과소평가하였던 나머지 기병부대로 방진에 대한 무모한 공격을 진행하였다. 결국 고구려의 기병부대는 적들의 긴창부대, 활부대의 방어에 걸려 큰 손실을 입고 분산되였으며 련이어 반격해오는 적들에 의하여 난관을 겪게 되였다.

동천왕은 하는수 없이 남은 1 000여명의 군사를 데리고 압록원(압록강가의 벌지대)으로 후퇴하였다.

얼마후 관구검은 고구려의 환도성을 함락하고 수도 국내성을 파괴하였으며 현도태수 왕기를 시켜 동천왕을 추격하게 하였다.

동천왕은 가족을 데리고 남옥저(오늘의 함경남도)쪽으로 후퇴하여 죽령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때에는 따라오던 군사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태는 매우 위급하였다.

이때 동부출신의 장수 밀우가 찾아와 비분강개하여 말하였다.

《지금 적들이 코앞에까지 따라왔고 우리 군사들은 모두 지쳤으니 이대로 있다간 전멸될수 있소이다. 신이 죽기를 결심하고 적군을 막겠사오니 대왕께서는 빨리 피하옵소서.》

밀우는 즉시에 용맹한 군사들로 결사대를 뭇고 적들을 맞받아달려나갔다.

그사이에 몸을 뺀 동천왕은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 방비를 강화하고 추격에서 멀리 벗어날수 있었다.

동천왕은 생각되는바가 커서 하부사람 류옥구를 파견하여 밀우를 구원해오게 하였다.

류옥구는 적군의 눈을 피해가며 은밀히 싸움터로 가서 가슴에 화살을 맞고 쓰러져있는 그를 등에 업고 돌아왔다.

동천왕은 눈물을 흘리며 밀우의 머리를 조심스레 자기 무릎우에 올려놓고 직접 간호하였다.

얼마후 정신을 차린 밀우는 눈을 반쯤 뜨고 건재해있는 임금의 얼굴을 기쁜 마

음으로 쳐다보았다.

고구려군대는 남옥저까지 사이길로 빙빙 돌면서 간고한 후퇴를 계속하였다. 그럴수록 위나라군대는 고구려왕을 생포하겠다고 날뛰며 검질기게 뒤를 쫓아왔다.

이제는 앞으로 나갈 곳도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었다.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진 동천왕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 동부사람 뉴유장군이 조용히 찾아왔다.

《그대에게 무슨 좋은 계책이 있는고?》

그 어떤 기대라기보다도 위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형세가 위급한 이때에 대왕께서는 어찌 맥을 놓고 계시오이까. 소신에게 한가지 계책이 있사온데 음식을 차려가지고 적진속에 들어가 그들을 먹이는체 하다가 틈을 엿보아 적장을 제끼려하나이다. 만일 저의 계책이 성공하게 되면 대왕께서는 분발하여 적을 냅다 치시오이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것이오이다.》

《아, 어제는 밀우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홀로 결사전을 벌리더니 오늘은 또 장군이….

고구려에 이렇듯 충신의사들이 많을진대 짐이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소.》

동천왕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뉴유는 투항하는것처럼 꾸며가지고 적진속으로 들어갔다.

적장을 만난 그는 《우리 대왕이 큰 나라에 죄를 짓고 바다가에 피신하여왔으나 몸둘곳이 없게 되여 장차 항복하려고 우선 저를 보내여 변변치 못한 음식을 갖추어 장군을 대접하게 하였소이다.》라고 하며 락심한 표정을 보였다.

이 말을 들은 위나라장수는 자기가 큰 공을 세우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하여 머리가 핑 돌지경이였다.

《그럼 고구려왕이 보낸 음식을 한번 맛 좀 볼가.》

뉴유는 음식들을 담은 그릇을 들고 그놈앞으로 다가갔다. 다음 순간 그릇밑에 감추어두었던 비수를 재빨리 빼여들고 적장의 더러운 가슴팍에 힘껏 박았다.

《으악》 하는 적장의 비명소리에 적군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뉴유는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해 서서 자결하였다.

지휘관을 잃은 위나라의 군대가 혼란상태에 빠졌을 때 그 기회를 타서 고구려군대는 일대 반격으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침략자들은 고구려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고 제놈들의 소굴로 쫓겨가고말았다.

유주자사 진

서쪽국경의 정세를 주시하고있던 고구려는 전진(16국의 하나)과 전연사이에 큰 싸움이 붙어 전연이 궁지에 몰리게 된 유리한 기회를 리용하여 370년 10월초 중무장한 개마(갑옷을 씌운 말)부대를 선두로 하여 전연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11월에는 만리장성을 넘어 연계(베이징근방)지방까지 쳐들어갔다.

그러자 전연의 수도를 함락시킨 전진군이 북상하였다.

두나라는 공동으로 전연잔여세력을 격파하였다.

그런데 이것으로 전연침략세력이 밑뿌리채 제거된것이 아니였다.

이런 형편에서 고구려는 당분간 점령지역을 유지하면서 전연침략세력의 잔여분자들을 철저히 짓부시기로 하였다.

고국원왕은 그 일을 감당할수 있는 인재는 이미 랴오둥군에서 경험을 쌓은 진이

라고 생각하고 그를 급히 불렀다.

진이 왕궁에 당도하자 고국원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짐은 연계지방까지 영원히 차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근 백년세월을 두고 우리 나라를 괴롭혀온 모용선비놈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짓눌러놓아야 해. 그래야 전쟁의 화근을 막을수 있다. 짐은 유주자사로서 그대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대는 속히 그곳으로 가서 전연의 무리들을 사정두지 말고 쳐갈기도록 하라.》

《삼가 분부를 받들겠나이다.》

《뒤일은 그다음에 가서 보련다. 아무튼 이번의 유주원정은 고구려의 국위를 천하에 다시 과시할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렸다.》

고국원왕은 계속하여 백제와 신라 등과 같은 겨레의 나라들을 대고구려가 포섭해야 한다고 력설하고 그를 위한 남방진출이 바야흐로 일정에 오른것만큼 서북방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 일대에서 침략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상의 어지는 참말로 원대하옵니다.》

이렇게 되여 진은 유주의 장관으로 부임되여갔다.

유주의 포괄범위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여 랴오하하류에서부터 시작하여 만리장성의 동단(발해만에 면한 부근)을 포괄하는 2 000여리의 지역이였다.

유주는 13개 군 75개 현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유주자사로 임명된 진은 유주의 통치질서를 수습정리하는 한편 강력한 군사에 의거하여 전연의 잔여세력에 대한 소탕전을 벌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후 고구려는 유주지역에서 침략의 위험이 기본적으로 제거되고 정세가 완화되자 376년초 여기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하여 다링하계선 즉 이전의 고조선지역까지 물러났다.

고구려로서는 고조선의 옛땅만 되찾으면 그만이였던것이다.

1976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덕흥동)에서 발견된 벽화무덤에 의하여 고구려의 유주설치사실이 알려지게 되였다.

무덤의 주인공인 진은 고구려의 신도현 중감리(오늘의 평안북도 운전군 가산리) 출신의 귀족관료로서 젊어서부터 벼슬살이를 하다가 40대의 한창나이에 유주자사까지 지냈으며 77살에 죽었다.

이처럼 그는 고구려가 자기의 국력을 세상에 떨치게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훌륭한 벽화무덤에 묻힌것이다.

고구려 중 혜자와 성덕태자

595년의 일이였다.

일본의 나니와(오늘의 오사까)의 항구는 명절일색으로 흥성거리였다.

내륙지대인 야마또 아스까의 높고낮은 귀족들이 행렬을 지어 여기 항구도시에 모여들었다.

그것은 고구려에서 초빙되여오는 고승 혜자를 마중하기 위해서였다.

혜자는 고구려에서도 고명하기로 소문난 사람으로서 높은 학식과 인격으로 하여 만사람의 존경과 신망을 모으고있었다.

혜자가 일본에 가게 된것은 일본렬도를 기본적으로 통합한 야마또정권의 간청에 의한것과 함께 고구려의 막강한 정치, 문화적영향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것이였다.

6세기말~7세기초에 일본정치를 좌우지한것은 백제계통정치집단인 소가씨세력과

그와 련합한 성덕태자세력이였다. 이들의 정치적배경은 백제였으며 백제이주민기술집단에 의한 경제군사력이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성덕태자는 백제보다 더 큰 대국이고 문화적으로도 한층 수준이 높은 고구려에 대한 동경심으로부터 고구려문화를 섭취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였다.

그 일환으로서 혜자를 초청하게 된것이였다.

그때 일본 야마또정권의 국왕은 명목상 추고녀왕이였는데 그의 출신은 백제계통 소가씨였다.

성덕태자는 왕태자로서 추고녀왕의 섭정을 하였다. 실권은 성덕태자와 소가 우마꼬가 틀어쥐였다.

성덕태자(쇼도구다이시-신성한 덕이 있는 태자라는 뜻)의 본명은 우마야도노 오오지로서 그것은 마구간 왕자라는 뜻이다. 이러한 괴상한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만삭이 되여 마구간을 돌아보다가 마구간문짝에 치여 해산을 하였기때문에 붙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을수가 없다.

귀족부인이 만삭이 되여 마구간을 돌아볼 필요가 어디 있으며 설사 돌아본다 해도 마구간의 문짝에 치여 해산하였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다.

성덕태자에게 마구간 왕자라는 이름이 붙게 된것은 그가 강력한 기병집단의 우두머리집안에서 태여났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실지로 력사기록에는 그의 부하들가운데는 말을 잘 타는 기마수들이 많았다고 전해온다.

성덕태자는 불교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둘러싸고 소가씨와 모노노베씨가 대립되고있을 때 소가씨편에서 싸웠다.

그후 그는 소가씨와 운명을 같이하면서 조선의 세나라로부터 높은 수준의 문화를 섭취하기에 힘썼다.

그러다가 백제문화와 함께 고구려문화도 섭취하기 위해 이렇게 고구려에서도 명망높은 고승을 초청하는데 성공하여 문무백관들이 혜자를 마중나가도록 한것이였다.

나니와항은 전에없는 환영분위기에 휩싸였다.

다락집이며 거리들이 울긋불긋하게 단장되여있었다.

이윽고 고구려배가 들어오자 처음에는 돛대를 세운 배의 크기에 놀랐고 그다음은 성인과 같은 혜자의 단아한 얼굴과 몸가짐에 스스로 머리가 숙여져 저저마다 머리를 조아렸다.

혜자는 나니와에 설치된 고구려영빈관에서 려장을 푼 다음 며칠후 이꼬마산줄기의 사이길인 다께우찌거리를 거쳐 야마또 아스까에 들어섰다. 지나가는 거리마다 성인이 왔다는 소문에 모두가 떨쳐나 구경하는 형편이였다.

성덕태자는 혜자를 한번 만나보고는 대번에 혹해버렸다. 국가통치에 필요한 해박한 지식과 묘리에 정통한 그의 설법은 성덕태자를 크게 감동시켰다.

혜자는 595년에 일본에 건너간 다음 20년동안이나 야마또 아스까땅에 살면서 성덕태자의 스승으로 있었다. 그의 거처지는 법흥사였다.

법흥사는 아스까땅에 있었다고 하여 일명 아스까라고 하는데 후에는 원흥사라고도 불렀다.

법흥사는 야마또국가가 온 국력을 다하여 건립한 절로서 고구려, 백제기술자들에 의해 건설되였다.

이 절이 완공될 때 나라의 문무백관들 100여명이 모두 백제옷을 입고 기뻐 날

뛰였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다.

바로 그러한 큰 절간인 법흥사에 혜자가 백제의 중인 혜총과 함께 살면서 국가통치에 필요한 지식을 성덕태자에게 전해주었던것이다.

하루는 성덕태자가 법흥사를 찾았다.

둘이 마주앉자 혜자는 조용히 입을 뗐다.

《태자께 한마디 여쭐 말씀이 있소이다.》

《아니, 스님께서는 말씀을 낮추어주십시오. 저야 스님의 제자가 아니옵니까. 제발 말씀을 낮추어주시옵소서.》

《아니, 소승이 이곳에 오기 전에 임금의 지시로 태자를 군신의례로 대하라 하였거늘 어찌 대등한 관계로 하겠나이까. 소승이 하는 말을 가로막지 말아주시오이다.》

성덕태자는 어쩔수없이 잠자코있었다.

《태자께 여쭐 말씀이란 다름이 아니라 군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법적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것이옵니다.

지금 지방마다 곳곳에서 할거해있는 소국들이 야마또의 한지붕아래에 들어섰으나 아직까지도 복종하지 않는 소국들도 있사옵니다. 저 아이누족만 해도 그렇지 않사옵니까.

그러니 하루빨리 귀족들의 품계와 법을 제정해야겠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이까.》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관등품계가 정해져있소이다. 백제는 16등급으로 되여있고 고구려는 12품계로 되여있사온데 소승의 생각에는 우리 고구려의 품계를 따르면 할가 합니다.》

《스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또한 법도 역시 나라통치에 불가결이라 고구려의 법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좋을가 합니다.》

《스님이 초안을 만드시고 그것을 토의했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혜자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일본력사상 처음으로 17개조의 법이 작성발표되였고 12품계로 되는 신분위계제가 제정되였다.

12품계란 높고낮은 관등신분에 따라 여러가지 색갈의 비단으로 관복을 만들어 입게 한것이다.

이때 새롭게 정해진 법과 품계는 그때부터 일본사회에 고착침투되였다.

혜자는 성덕태자에게 많은것을 배워준 다음 동방의 강대국인 고국 고구려가 수나라 300만대군을 격파한 그 기운의 열기가 아직도 채 식지 않은 때인 615년 11월 15일 귀국의 길에 올랐다.

그동안 혜자와 성덕태자사이에는 학문으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사이 관계를 초월하여 인간적으로도 매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석별은 참으로 눈물겨운것이였다.

성덕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평양의 절간에서 전해들은 혜자는 매우 슬퍼하면서 그를 위해 극진한 제를 지내주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우수한 학자, 문인들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일본의 최고통치자들의 스승이 되여 고독한 섬나라의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지도를 줌으로써 그들을 계몽시키고 일본의 문명개화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상 식

고구려사절의 중앙아시아행차

1965년 이전 쏘련의 우즈베크가맹공화국의 싸마르깐드시의 북쪽교외에 있는 옛 시가지인 아흐라샤도브성지의 중심부에서 발굴된 궁전터의 화려한 벽화에는 여러 인물들과 함께 2명의 고구려사절이 그려져있는것이 발견되였다. 그들은 꽉대기에 2개의 새깃이 꽂힌 둥근 고구려의 관리모자인 《절풍》을 썼고 소매가 길고 넓으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띠를 맨 누런색저고리에 가랭이도 비교적 넓은 바지를 입었으며 끝이 약간 쳐들린 코신을 신었다. 그들은 허리띠에 고구려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고리자루긴칼(환두대도)을 차고 가슴앞에 모아쥔 두손을 소매안에 넣고 서서 앞쪽을 바라보고 서있다. 이들은 고구려-당전쟁이 벌어지고있던 650~660년대에 당나라의 배후를 견제하기 위하여 우호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돌궐족이 있던 당나라북쪽의 수천수만리 몽골대초원과 광활한 거비사막, 알따이산줄기를 넘어야 하는 자연조건이 매우 불리한 수만리의 긴 로정을 거쳐 싸마르깐드로 갔다고 추측된다. 이것은 그후시기에 조선사람으로서 가장 먼 외국려행을 한것으로 알려졌던 신라의 중 혜초의 8세기 20년대 려행보다 반세기이전에 고구려사람들이 단행한 머나먼 외국려행이였다.

이 력사적거사는 중세 대외관계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통이 큰 고구려사람들의 대담무쌍한 행동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실례로 된다.

쇠뇌(기계활)

B.C. 1세기~A.D. 1세기의 유물로서 운송리유적(자강도 전천군)에서는 1개의 쇠뇌(노)가 발굴되고 평양시 락랑구역 정백동 1호무덤과 8호무덤 및 37호무덤에서는 각각 2개씩의 쇠뇌가 발굴되였다.

이 쇠뇌들은 그 구조와 동작원리 및 가공기술이 우수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특히 쇠뇌들에 오늘날의 무기에서 볼수 있는 조준선까지 새겨져있어서 그 우수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하기에 다른 나라의 무기전문가들도《그 구조가 간단하고 교묘한것으로 하여 현대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오늘의 소총(보총)처럼 동작하니 흥미가 있다. 2천년전의 고안이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하였던것이다.

고구려의 활

고구려에서는 나라를 세운 초기부터 활을 만들어 평시에는 짐승사냥에 쓰고 전시에는 무기로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활은 성능이 우수하여 이웃나라들에까지 《맥궁》으로 이름을 떨쳤다. 고구려활의 유물로서는 평양역구내무덤(벽돌무덤)에서 나온것이 있다.

그것은 소의 갈비뼈로 만든 2개분의 활채의 량쪽과 가운데부분이다.

이것은 좌우량쪽부분과 손잡이부분의 량쪽끝부분을 덧놓고 끈으로 감거나 고리를 끼워서 고정시켜서 활을 조립한것임을 보여준다.

활채의 량쪽부분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굽혔는데 그것을 조립하여 시위(활줄)를 걸 때에는 본래 굽혔던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제껴서 걸게 되여있다.

활채의 길이는 1m미만이다.

고구려활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고구려의 벽화들에 그려져있는 활의 그림이 직관적으로 잘 보여준다.

벽화에 그려있는 활들은 전형적인 굽은활(짧은활)이다.

즉 옛 문헌에 나오는 고구려의 맥궁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 나라는 콩의 원산지

콩은 우리 선조들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작물이다.

수천년전에 해당하는 오동유적(함경북도 회령시)과 남경유적(평양시 삼석구역)에서 불에 탄 콩알이 발굴된것은 우리 나라에서 수천년전에 벌써 콩을 널리 재배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1972년에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에만 퍼져있는 반재배콩이 발견되였는데 현재의 재배콩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유래되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콩의 원산지라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된다.

한편 문헌적자료들에 의하면 2700여년전에 중국에서 우리 나라의 콩을 가져다가 《숙》또는 《호두》(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콩이라는 뜻)라고 하면서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숙》이라는 한자는 콩을 상징한 상형문자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의 콩을《대두》라고 하면서 가져다 재배하였고 유럽에서는 근세에야 콩을 가져다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콩에 대한 현대과학적인 연구와 여러 나라들의 문헌적자료들은 우리 나라가 콩의 원산지라는것을 확인해주고있다.

원년매김법(칭원법)

원년매김법이란 고대와 중세기에 임금의 통치년도를 표시하는데서 원년(첫해)을 매기는 법을 말한다. 원년매김법에는 해넘겨매김법(유년칭원법)과 달넘겨매김법(유월칭원법)이 있었다.

달넘겨원년매김법이란 먼저 임금이 죽거나 임금자리에서 물러난 다음달부터 새 임금원년으로 잡는 방법이고 해넘겨원년매김법은 그 다음해부터 새 임금의 원년으로 잡는 방법이다. 달넘겨원년매김법은 새 임금이 임금자리에 오르자마자 원년을 칭한다고 하여 즉위칭원법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전기신라)가 병존한 삼국시기와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에는 달넘겨원년매김법을 썼고 고려, 리조시기에는 해넘겨원년매김법을 썼다.

달넘겨원년매김법을 쓰던 시기에 임금이 마지막달에 죽고 새 임금이 즉위하였을 경우에는 자연히 해넘겨원년매김법의 경우와 같이 다음해부터 새 임금원년으로 잡았다.

례를 들어 고구려에서 412년 12월에 광개토왕이 죽고 장수왕이 즉위하였으므로 다음해인 413년을 새 임금의 원년으로 잡게 되였다. 한편 해넘겨원년매김법을 쓰던 고려, 리조시기에 먼저 임금이 물러나고 새 임금이 올랐을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새 임금원년으로 잡았다. 례를 들어 고려말기에 리성계를 우두머리로 하는《개혁파》량반들은 1389년 11월에 고려의 제33대왕인 창왕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제20대임금 신종의 7대손인 정창군(후의 공양왕)을 들여앉히고 그달부터 새 왕원년으로 잡았다.

해넘겨원년매김법을 쓰던 고려, 리조시기에 새 임금이 즉위한 다음해에 원년을 칭할 때까지는 즉위년이라고 하였다. 례를 들어 리조 제3대왕 태종이 18년(1418년) 8월에 아들(제4대왕 세종)에게 왕자리를 넘겨주었는데 그해말까지는 세종즉위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해(1419년)에 원년을 칭하였다.

(제2대 정종과 제3대왕 태종의 경우는 제외)

후 부 여

후부여의 성립

후부여는 B.C. 2세기초에 고대부여를 계승하여 세워졌던 봉건국가였다.

고대부여는 B.C. 219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큰 손실을 당한 후 그 통치집단이 와해되여 일단 멸망하였다.

그러나 이때 부여의 령토와 주민이 모두 고구려의 직접적인 통치체제밑에 들어간것은 아니였다. 부여는 남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령역과 주민을 계속 통치하면서 다만 고구려에 신속되였을뿐이였다. 그리고 부여의 통치층안에서 분렬이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부여왕실의 권위는 그대로 보존되여있었다.

부여는 력사가 오랜 나라였고 왕위가 부자상속에 의하여 계승되였던것만큼 그 왕실의 전통이 오래고 지반도 상대적으로 공고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왕족가운데서 누가 부여를 통치하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였을뿐 다른 귀족이 통치자로 나선것은 아니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부여의 신흥봉건세력은 왕족가운데서 유능하고 신망이 있는 자를 왕으로 내세우고 봉건적인 질서밑에 부여지역의 분렬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의 국가에 결속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B.C. 2세기초에 고구려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나라로 되였다.

건국당시 수도는 오늘의 지린지방이였다.

이때 새로 세워진 봉건부여국도 나라이름을 전과 다름없이 《부여》라고 하였는데 이를 고대부여와 구별하기 위하여 《후부여》라고 부른다.

후부여의 령역

A.D. 1세기- 3세기 중엽 부여의 위치에 대하여 언급한 《후한서》, 《삼국지》의 단편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그 수도는 후한과 위나라의 현도군에서 북쪽으로 1000리 되는곳에 있고 동쪽으로는 읍루, 서쪽으로는 선비,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각각 이웃하였으며 북쪽에는 허이룽강이 있다고 하였다. 고고학적자료에 의하면 후부여의 서변은 서랴오하류역으로부터 다싱안령산줄기를 따라 넌강상류일대에 이르고있었다. 후부여의 동변은 읍루의 동변 즉 오늘의 연해주해안지대에 있었다. 그것은 읍루가 건국초기에 후부여의 령역에 편입되여있었기때문이다. 북변은 허이룽강에 미치고 남변은 고구려와 접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건국초기 서남경계는 청하(랴오하지류)일대였으며 남쪽경계는 지린에서 멀지 않은 지역을 지나고 동남경계는 무러하(목릉하)중류지대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린지방을 포함한 남부지방은 고구려의 령토로 되였다. 3세기말-4세기초에 이르러 혹심한 자연피해와 지배층안의 알륵과 분쟁에 의하여 동부여, 북부여가 분렬되여나갔다. 346년이후 고구려는 부여지역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여 서쪽부여와 북부여를 병합하였다. 그후 련이어 광개토왕시기에 동부여마저 일부 령토를 고구려에 빼앗기고 예속상태에 있었다.

그후 외족(옛 읍루)의 강화와 침습으로 국력이 약화되자 동부여왕은 고구려에 나라를 바치고 투항하였다.

후부여의 통치제도

후부여는 고대부여의 왕실, 통치집단의 일부가 골간이 되여 세운 나라였으므로 관료기구도 고대부여의것을 적지 않게 이어받았다.

그러나 봉건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그에 알맞게 통치기구를 정비, 개편하였다.

후부여에서 최고통치자는 국왕이였다.

국왕은 중앙 및 지방통치기구를 거머쥐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왕위는 원칙상 맏아들이 상속하는 제도였다.

후부여에서도 고대부여에서와 같이 왕밑에 국가의 제반 행정사업을 총괄하는 관리가 있었다. 후부여의 최고위급 관료로서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다.

그 아래등급으로 대사자, 사자 등이 있었다. 이들은 중앙관청의 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된다.

후부여에서는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국왕의 직할지인 왕기가 있었고 방위에 따라 4개의 《부》가 있었다.

부아래에 성읍과 촌락들이 있었는데 성읍에도 등급이 있었다.

성읍의 장관을 압로라고도 불렀다.

읍루에 대한 부여의 통치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부족의 우두머리 즉 대인을 시켜 조(조세)와 부(공물)를 수탈하는것이였다. 오랜 전통을 가진 제가평의회제도는 후부여에서도 존속되였는데 이때에는 국왕의 전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있었다고 인정된다.

후부여의 경제

후부여에서는 주도적인 생산부문이였던 농업이 발전하였다.

땅이 기름져서 오곡을 재배하기에 유리한 조건과 질좋은 강철제농구와 개량된 목재공구, 부림짐승들이 농사일에 널리 리용됨으로써 농업생산을 장성시켰다. 후부여에서 재배한 농작물은 조, 수수, 기장, 보리, 콩 등의 5곡 그리고 삼과 같은 공예작물이였다.

목축업도 넌강류역을 포함한 지린서북일대와 쑹화강류역에서 특히 발전하였다.

후부여사람들이 많이 기른 짐승은 말, 소, 돼지, 양, 개, 닭 등이였다.

후부여에서 수공업도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대표적부문은 야금, 금속가공, 옥돌가공, 직조, 피혁가공, 질그릇제조, 목공 등이였다.

부여에서 경영한 야금업은 제철 및 제강업과 금, 은, 동의 제련이였다.

후부여의 유적들에서는 질좋은 강철로 만든 도끼, 끌, 대패, 송곳 등의 공구류, 괭이, 삽, 낫 등 농구류, 장검, 단검, 칼, 창, 활촉, 화살통, 갑옷, 투구 등 무기류와 말자갈, 수레굴대끝이 많이 드러났으며 이밖에 금, 은, 동, 청동, 금동으로 만든 귀걸이, 팔지, 가락지, 토시 등 몸치레거리와 띠고리, 단추 등 옷치레거리, 고리, 패물, 방울 등의 사치품, 말안장띠장식품과 같은 말치레거리 등 여러가지 금속공예품들이 수많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옥돌가공업도 발전하여 이 나라의 특산물로 되였다.

직조업이 발전하여 베천과 모직천, 여러가지 비단천이 생산되였다.

후부여에서는 또한 여러가지 광석과 옥돌을 채취하기 위한 채광업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여있었다.

후부여에서 농업, 목축업, 수공업, 채광업 등 생산의 발전은 국내상업과 대외무역을 발전시켰다.

후부여의 주되는 수출품은 말, 여러가지 고급모피류,황금구슬이였다.

후부여의 말은 명마로서 이웃나라들에도 소문이 났었다.

후부여의 종말

3세기 말엽이후 후부여에서는 모용선비세력의 대규모적침공과 지배층내부의 알륵으로 하여 국력이 약화되고 나라는 분렬되였다.

285년 부여-연전쟁으로 수도성은 강점되고 1만여명의 부여사람들이 강제련행되였다.

이때 국왕 의려는 자살하였고 일부 왕족들은 당시 부여땅이던 북옥저의 북변지방으로 피신하여 나라를 유지하였다.

의려의 아들 의라가 부여왕국을 재건하자 북옥저지방에 있던 부여는 《동부여》로 불리우게 되였다.

또한 3세기말부터 4세기초 일부 귀족세력은 부여의 북쪽 일부 지역을 떼내여 독립하였는데 나라이름은 《북부여》라고 하였다.

이러한 때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부여는 일부 령토를 떼우고 수도를 쓰미엔성(지린성 쓰핑)으로 옮기였다.

4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연은 자기들의 배후에 있던 고구려와 부여를 침공하여 대규모의 전쟁을 도발하였다.

342년 전연은 먼저 대규모의 병력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것은 후부여에 있어서도 교훈적이였다.

후부여의 통치자들은 조성된 정세를 제때에 판단하고 앞으로 있을수 있는 전연의 침략에 대처한 방어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하였으나 고구려-연전쟁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아무러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었다. 결과 346년 부여-연전쟁으로 수도는 함락되고 후부여왕 현과 5만의 인민들이 붙잡혀 끌려갔다.

동족의 나라 후부여의 파국적사태를 제때에 포착한 고구려는 후부여지역으로 진출하여 그 령역을 차지하고 통치체제를 수립하였으며 그 기회에 북부여국마저 통합하였다.

이리하여 후부여를 이은 나라로서는 동부여만이 남게 되였다.

고구려에 의한 부여의 대부분지역의 통합은 동족의 나라 부여가 외적에게 강점당할수 있는 위험을 막고 그 령역과 주민을 지켜내게 한 매우 정당한 조치였다.

5세기에 고구려앞에는 부여의 통합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그것은 고구려가 남진정책을 적극화하고있던 조건에서 부여와의 관계를 해결하는것이 성숙된 문제로 나서고있었으며 또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고구려의 력사적숙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고리로 되였기때문이였다.

이와 같은 력사적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구려는 광개토왕시기에 부여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였다.

그리하여 동부여를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5세기 중엽 후부여의 예속밑에 있던 물길족(읍루)이 급속히 강화되여 동부여를 침공할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이리하여 나라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동부여왕은 494년 2월 동족의 나라 고구려에 나라를 바치고 의거하였다.

이로써 봉건국가 후부여는 종말을 고하였다.

백 제

백제사개관

백제는 B.C. 3세기 중엽 온조에 의하여 례성강 -한강류역(초기에 100리 지역)에 형성되였다가 B.C. 1세기 말엽에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장성한 나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조이야기는 백제도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것을 말하여 줍니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백제건국전설에 의하면 백제는 고구려시조 동명왕의 아들인 온조에 의하여 세워졌다.

동명왕에게는 구려에 와서 낳은 비류와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다.

후에 동명왕은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인 유류가 찾아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다. 그러자 태자로부터 보복이 있을가 두려워 한 온조는 오간, 마려 등 10여명의 신하와 백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나갔다.

온조는 하남위례성(서울부근)에 도읍을 정하고 처음 나라이름을 십제라고 하였다.

그후 위례로 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따랐다고 하여 나라이름을 백제라고 하였다고 한다.

백제는 그후 중앙집권체계를 정비강화하면서 령토를 넓혀나갔다.

백제력사에서 4세기 후반기는 최대전성기였는데 371년에는 남평양성(황해남도 신원) 에까지 진출하여 고구려와 맞설 때도 있었다.

특히 백제는 일본렬도내에 강대한 자기 세력을 가지고있었다.

백제계통의 이주민세력들은 처음에는 북규슈에, 나중에는 야마또지방에까지 진출하였다.

백제의 선진문화는 이 세력들에 의하여 일본땅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4세기말-5세기초에 림진강류역을 잃어버리고 475년에는 수도 한성(경기도 광주)을 빼앗기고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겨갔다.

그후 538년(성왕 16년)에 다시 수도를 사비(부여)로 옮기고 나라이름을 남부여로 부른 일이 있었다.

그리고 령역을 넓혀 551년이후 백제는 신라와 합세하여 한때 한강류역을 차지한 일도 있었다.

그후 동쪽 및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전쟁을 계속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백제통치배들은 6세기 중엽이후부터는 신라에 대한 정복전쟁을 계속함으로써 국력을 더욱 약화시켰다 .

642년 7월에 백제는 미후성을 비롯한 신라의 40여개의 성을 점령하였으며 655년에는 고구려 등과 합세하여 신라의 30여개 성을 차지하였으나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형편을 돌려세우지 못하였다.

세번씩이나 수도를 옮긴데다가 634년에 백제통치배들은 굉장히 큰 왕흥사건설을 끝내는 한편 궁전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의 물길을 째여 큰 호수를 만들었다.

호수가운데는 인공섬을 만들고 버드나무를 심어 큰 놀이터까지 만들었다.

인민들의 생활에 전혀 무관심하였던 통치배들은 599년(법왕)에는 살생을 금한다는 명목밑에 민가에서 기르던 사냥용매를 다 놓아주게 하고 어구들을 불태워버리는 망동을 부렸다.

이로하여 인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자 의자왕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가혹하게 처형하였다. 656년 3월 성충이 의자왕의 부패타락한 통치에 대하여 충고하였다고 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어 굶어죽게 하였다.

이밖에 의자왕은 41명의 왕자들에게 모두 좌평의 높은 벼슬과 식읍을 주어 인민들을 통치하고 반대파세력을 억누르게 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결과 650년대말에 이르러 나라의 형편은 더욱 악화되였다.

이러한 틈을 타서 660년 10만여명의 라-당련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의자왕은 끝까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자 라-당련합군에 투항하였다. 그리하여 백제는 망하고말았다.

그러나 백제인민들은 당나라군대를 반대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전 백제장군 복신과 도침이 지휘하는 항전군은 주류성을 중심으로 한때 금강 서쪽의 당나라군을 궁지에 빠뜨리기도 하였으며 지수신이 거느리는 항전군은 임존성(대흥산성)을 중심으로 끝까지 적과 싸웠다.

그러나 백제항전군은 지휘관들의 내부분렬로 력량이 분산되였기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백제유민들의 당나라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그후 신라인민들과 련합으로 진행되면서 그 세력은 신라에 통합되였다.

백제에서는 일찍부터 벼농사를 비롯한 농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관개수리사업이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330년에 언제가 1 800보나 되는 저수지인 벽골제를 오늘의 전라북도 김제시에 만들어놓았다는 사실은 백제기술자들의 수리공학지식수준과 시공기술을 보여준다.

백제에서는 벼뿐아니라 밀, 보리, 콩, 남새, 뽕나무 등을 많이 재배하였다.

또한 소와 돼지, 말 등의 짐승들도 많이 길렀다. 백제의 밀종자는 신라와 일본땅에 넘어가 널리 퍼지였고 누에치기도 보급되였다.

백제에서는 수공업기술 특히 제철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5세기 후반기에 백제국왕이 일본 북규슈의 백제계통의 후국의 왕에게 준 칼은 팔십련철로 만든것이였고 오늘도 일본의 나라현 이소노가미신궁에 보물처럼 보관되여있는 《백제칠지도》는 백련철로 만든것이다.

수공업장과 민가에서 생산된 비단, 삼베 등의 천은 질이 매우 높았으며 염색기술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백제에서는 천문학, 의학, 력사학, 지리학 등 여러 분야의 과학도 발전하였다.

백제의 의학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진것은 당시의 의료경험과 지식을 종합체계화한 의학책인 《백제신집방》이 편찬된것이다.

력사편찬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는데 지금 기록에 보이는 력사책들로서는 《서기》,《백제고기》,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왕본계》 등이다. 백제의 과학기술은 그후 우리 나라 중세기 과학기술발전의 큰 밑천으로 되였을뿐아니라 일본의 과학기술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백제에서는 국내상업과 함께 대외무역이 또한 활발하였다.

고구려 및 신라와의 무역은 물론 바다로 남중국, 왜나라와의 무역도 계속 진행하였다.

백제의 왕조계보

백제봉건소국(7대로 추정)

1.온조왕(B.C. 3세기 중엽) 2.음태귀수왕(?) 3.덕좌왕(?)

№	이 름	년 대	№	이 름	년 대
1	구태(시조왕)	(B.C. 1세기 말엽)	17	아신왕	(392—405)
2	다루왕	(28—77)	18	전지왕	(405—420)
3	기루왕	(77—128)	19	구이신왕	(420—427)
4	개루왕	(128—166)	20	비유왕	(427—455)
5	초고왕	(166—214)	21	개로왕	(455—475)
6	구수왕	(214—234)	22	문주왕	(475—477)
7	사반왕	(234)	23	삼근왕	(477—479)
8	고이왕	(234—286)	24	동성왕	(479—501)
9	책계왕	(286—298)	25	무녕왕	(501—523)
10	분서왕	(298—304)	26	성왕	(523—554)
11	비류왕	(304—344)	27	위덕왕	(554—598)
12	설왕	(344—346)	28	혜왕	(598—599)
13	근초고왕	(346—375)	29	법왕	(599—600)
14	근구수왕	(375—384)	30	무왕	(600—641)
15	침류왕	(384—385)	31	의자왕	(641—660)
16	진사왕	(385—392)			

백제의 통치제도

백제통치제도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통치기구였다.

당시 백제에서는 최고통치자를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로 《어하라》 또는 《건길지》라고 불렀다. 백제의 국왕은 그밑에 다시 제후적인 작은 왕을 거느렸다.

왕족출신의 귀족들가운데서는 《왕》 또는 《후》의 칭호를 가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백제군주의 밑에서 지배권을 행사한 제후와 같은 존재들이였다.

탐라국(제주도), 랴오시군의 통치자 그리고 왜국렬도에 있던 백제계통이주민들이 세운 소국들의 통치자들도 모두 백제임금의 통제를 받는 작은 왕들이였다. 임금의 밑에 있던 작은 왕들은 그밖의 최고위급벼슬아치들과 함께 저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귀족민주주의평의기구인 정사암(천정대)회의를 운영하였다,

정사암회의에서는 대신들을 선출하였다. 임금의 밑에는 그의 통치를 돕는 중앙행정통치기구가 있었다.

백제가 마한소국들을 병합하기 이전 시기에는 좌보, 우보의 벼슬밑에 얼마간의 중앙관직이 있었다.

백제의 중앙통치기구가 전반적으로 정비강화된것은 3세기 중엽(고이왕통치시기)이후부터였다.

즉 260년에 6좌평제도와 16등의 벼슬등급제도가 제정되였다.

6좌평은 백제의 최고관리로서 일정한 직무를 담당수행하는 장관들이였다.

6좌평은 16등 위계의 6개 중앙관청들의 장관벼슬이름이기도 하였다.

내신좌평- 왕명을 전달하고 귀족관리들의 제의를 왕에게 제출

내두좌평- 물자와 창고에 관한 일 주관

내법좌평- 례의, 외교, 교육담당

위사좌평- 왕궁과 수도를 보위하는 군사담당

병관좌평- 지방군지휘

조정좌평-경찰, 사법담당

408년에는 6좌평우에 상좌평의 벼슬을 제정하였다.

상좌평은 좌평우에 있는 최고관리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였다.

백제의 중앙관청으로는 내관(왕궁소속관청)과 외관(국가관청)이 있었는데 내관에 11개, 외관에 10개, 모두 21개의 관청이 있었다.

지방통치기구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5부 5방제였다.

처음에는 전국을 동서 2부, 후에 동서남북 4부로 갈랐다가 다시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를 5부로 나누고 각 부에는 각각 5개씩의 항(동)을 두었다. 부여에 수도를 옮긴후 지방에는 5방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5부와 5방은 순수한 행정조직기구인것이 아니라 군사적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군사행정단위였다.

수도 부여성은 상부, 전부, 중부, 하부, 후부로 나뉘였으며 각 부에는 5개 항이 있었다.

지방에는 5개의 방성이 있었는데 중앙-고사성, 동방-득안성, 남방-변성, 서방-도선성, 북방-웅진성 방에는 방령 1명과 그 보좌관으로서 방좌가 있었다.

방아래에 각각 10개의 군이 있었고 그 장관은 장군이였다.

이것은 방아래에 꼭 10개의 군이 있었다는것이 아니라 방에 속할 군의 최고한도를 규정한것이다.

군밑에는 모두 200여개의 성이 있었는데 그 장관은 성주였다.

백제의 봉건통치배들은 통치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지배계급을 계층적으로 편성하였다.

자 료

계백장군의 최후결전

계백(? —660년)장군은 660년 신라와 당나라침략자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애국적명장이다.

7세기 중엽 백제는 통치배들의 부패타락으로 나라의 형편이 심히 악화되였다.

이런 때 령토확장을 위하여 당나라를 끌어들인 신라는 동족의 나라인 백제를 침공하였다.

660년 7월 김유신이 거느린 5만여명의 신라군은 아무러한 저항도 받음이 없이 천연의 요새인 탄현을 넘어 황산벌(충청남도 론산시 련산)로 밀려들어가고 13만의 당나라침략군은 금강을 거슬러오르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동서량쪽에서 수도 사비성(부여)을 향해 물밀듯이 쓸어들었으나 백제통치배들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명장 계백이 지휘하는 백제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웠다.

계백은 5 000명의 군사들로 결사대를 무어가지고 황산벌에 먼저 도착하여 세곳에 군영을 설치한 후 신라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이 세길로 나누어 네차례나 백제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발악적으로 달려들었으나 그때마다 백제군에 의하여 격파당하였다.

이렇듯 백제군은 나라의 운명을 내걸고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10배가 넘는 신라군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이 싸움에서 계백이하 많은 군사들이 희생되였다.

그는 싸움에 나가기에 앞서《한 나라의 군사로서 당나라군대와 신라군대병과 맞다들게 되였으니 나라의 존망을 알수 없구나. 나의 처자가 적에게 사로잡혀 노비로 될가 념려되니 살아서 치욕을 당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는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처자들을 자기손으로 죽이고 떠났다고 한다.

한편 백제군은 금강을 거슬러 기여드는 당나라군대를 맞받아 두차례에 걸친 완강한 방어전을 벌려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신라에 가서 이름을 떨친 건축가 아비지

백제의 이름난 건축가였던 아비지는 645년 신라에 초청되여가서 황룡사 9층탑 건설의 기술적지도를 담당하였다.

그는 200여명의 건축기술자들을 데리고 탑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아하여 무려 높이 225자에 달하는 웅장한 나무탑을 세워놓았다.

황룡사 9층탑은 백제의 정림사 5층탑이나 돌탑과 같이 탑몸과 탑지붕의 차례줄임이 조화롭고 탑전체의 형태구성이 균형적인 매우 아름답고 웅장한 탑이였다. 그러나 이 탑은 13세기 중엽 몽골침략자들이 파괴하였으므로 지금은 그 주추돌만 그냥 남아있다.

고구려문화의 영향밑에 발전한 백제건축술은 이렇듯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그것은 신라건축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 건너가 이름날린 백제화가들

백제의 이름난 화가 아좌는 597년 왜나라에 건너가 추고녀왕의 아들 성덕태자의 화상을 그려주었다.

유명한 그림《성덕태자상》은 량옆에 어린아이를 데리고있는 태자를 선자세로 그린것인데 그 섬세한 필치와 담박한 색채, 인물들의 개성을 묘사한 회화적표현은 화가의 뛰여난 기량과 당시 백제인물화의 높은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그림은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어 높이 평가되고있다.

아좌보다 먼저 463년에 일본에 건너간 백제화가 인사라아는 일본회화의 시조로 되였고 그 후손들도 화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588년에 건너간 백제화가 백가도 그림을 잘 그려 이름을 날렸다.

백제의 유적과 유물

미륵사탑

전라북도 익산군 룡화산기슭 미륵사터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돌탑이다.

지금은 웃부분이 마사지고 6층까지 남아있는데 그 높이만도 14.24m이다.

이 탑을 본래의 형태로 복원하여보면 그 높이가 약 23m에 달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이 탑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돌탑이라고 씌여있다,

미륵사탑은 한단의 널직한 밑단과 9층의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다.

밑단의 네 모서리에는 대각선방향으로 한마리씩의 돌사자가 놓이고 네면 복판에는 각각 계단이 놓여있다.

탑몸 첫층은 앞면과 옆면을 다 3칸으로 짰는데 가운데칸돌에는 나들이문이 있다.

네면의 가운데문사이는 서로 통로로 이어졌고 동서, 남북통로의 교차점에는 4

가지형의 중심기둥이 세워져있다.

미륵사탑은 7세기 전반기에 세워진것으로서 우리 나라 초기돌탑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우선 이 탑은 목조건물을 많이 닮았다는것이다.

목조건물의 토방처럼 꾸민 밑단과 가볍게 들리운 처마를 보면 마치 나무로 만든 루각 비슷하다.

기둥돌, 처마돌, 고임돌, 지붕돌 할것없이 모든 요소들은 다 토막돌로 무어졌다.

그것은 또한 탑의 규모가 매우 큰것이다.

초기나무탑들의 규모는 매우 컸다. 황룡사탑은 높이가 225자나 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나무탑을 닮은 초기돌탑의 규모도 자연히 컸었다.

후세에 돌탑의 규모는 자체특성에 맞게 규모가 이보다 작게 정해졌다.

미륵사탑은 우리 나라 탑변천의 한 과정을 뚜렷이 나타내고있을뿐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높은 건축술을 과시하고있다.

사비성

백제의 마지막수도인 부여에 있던 6세기 초엽에 건설한 수도성이다.

백제는 수도를 세번 옮겼는데 첫번째 수도는 지금의 서울부근에 있던 위례성이였고 두번째 수도는 충청남도 웅진(공주)이였으며 세번째 수도가 충청남도의 사비(부여)였다.

백제는 국토통일을 위한 고구려의 적극적인 공세로 하여 두번째 수도인 웅진(공주)으로부터 수도를 사비(부여)로 옮기였다.

그리하여 부여는 538년부터 660년까지 백제의 수도로 있었다.

이 고장은 금강류역의 넓은 벌을 끼고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수륙교통이 발전하였으며 강과 벼랑이 있어 군사적으로도 유리한 곳이다. 사비성은 수도전체를 포괄하는 도성으로서 그 동서는 약 4km, 남북은 약 5km나 된다.

사비성의 성벽은 부소산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남쪽으로 구불구불 내려오면서 지금의 부여시가를 반달형으로 둘러막고 다시 부소산으로 되돌아갔다.

사비성은 내성인 부소산성과 외성인 만월성으로 이루어졌다. 내성에는 왕궁이 있었고 외성에는 가옥들이 있었다.

내성안에는 높지 않은 2개의 봉우리가 있었다.

서쪽의 봉우리인 송월대와 동쪽의 봉우리인 명월대사이는 좀 낮아져 말안장처럼 보인다. 내성에서는 많은 집자리들이 발견되였다.

외성에는 규칙적으로 구획을 나누었던 도시자리가 있다.

사비성주변에는 수도방위를 위한 청산성, 규암산성, 성흥산성 등 여러 위성들이 있었으며 산리무덤떼를 비롯한 많은 백제의 유적들이 남아있다.

정림사 5층탑

백제 후기의 돌탑인 정림사 5층탑은 충청남도 부여에 자리잡고있던 수도성인 사비성의 외성안에 정림사라는 절간이 있던 자리가 있다.

이 탑은 탑의 1층기둥에 새겨진 글자에 의하여 660년이전에 세워졌다는것이 판명되였다.

화강석을 다듬어쌓은 정림사 5층탑은 밑단과 5층으로 된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졌는데 탑머리는 대부분 없어졌다.

지금 남아있는 탑의 높이는 약 10m이다.

탑의 밑단은 한단인데 4각형 한변의 길이는 3.68m이다.

탑은 우로 올라가면서 점차 차례줄임을 주어 탑이 날씬해보이게 하였으며 매층 지붕의 처마끝은 약간씩 들려 상쾌한 감을 주고있다.

그리고 넓은 기둥사이에는 넙적한 면돌을 세우고 기둥돌은 밑부분보다 우로 조금씩 좁게 한데다 안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세워 나무탑같은감을 준다.

정림사 5층탑은 전반적으로 균형이 잡혀 경쾌하면서도 안전해보인다.

이 탑은 고구려자에 기초하여 설계되였으며 바닥돌 한변의 너비를 기준으로 하여 탑의 모든 요소들의 크기가 정해졌다.

정림사 5층탑은 우리 나라의 이른시기 돌탑으로서 나무탑으로부터 돌탑으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저수지—벽골제

전라북도 김제시에는 백제인민들이 건설한 벽골제라는 저수지터가 있다.

남북으로 일직선을 이루고있는 저수지뚝의 길이는 약 1 800보였고 높이는 북쪽끝이 4.3m, 남쪽끝이 3.3m이다.

수문자리라고 인정되는 곳이 세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높이가 5.5m나 되는 2개의 돌기둥이 4.2m 거리를 두고 서있다.

돌기둥에 홈까지 있는것으로 보아 나무로 미닫이수문을 해달고 물량을 조절하였던것 같다.

벽골제는 호남벌의 1만 4 000여결의 논을 적시던 당시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였다.

사실 백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농사를 하고있었기때문에 관개용저수지문제가 중요하게 나섰던것이다.

그리하여 백제인민들은 벽골제와 같은 큰 규모의 저수지를 쌓는데 힘과 지혜를 아끼지 않았다.

후기신라때인 790년에는 여러 지방의 인민들을 동원하여 벽골제를 증축하였다.

그후 여러차례 확장도 하면서 수백년동안 리용하여오다가 리조말기에 파괴된이후 다시 복구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권세있는 량반지주들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저수지를 파괴하여 논으로 만들었던것이다.

《삼국사기》(1145년 김부식편찬)에는 이 저수지를 330년 신라가 쌓은것으로 되여있는데 18세기의 력사가였던 안정복은 그것이 백제의것인데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잘못보고 신라의것으로 써놓았다는것을 밝혔다.

옛날 중국사람이 그린 백제의 사신

오늘의 중국령토안에는 옛날 여러 봉건국가들이 존재하였는데 그중 6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당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그를 그림으로 그려 화첩을 만들어놓군 하였다.

한 화첩에는 서역이나 남양지방에서 온 12개 나라 사신들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그가운데 백제사신의 전체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백제국사도》라고 한다.

그림뒤면의 글에 의하면 이 그림은 6세기 20년대말-30년대초에 그린것이다. 오늘까지 중국의 난징박물원에 보존되여 전해내려오는 그림은 8~9세기경에 본래의 그림을 모사한것이다.

그림은 원색으로 실감있게 그려졌다.

이 그림 해설문에는 당시 백제의 형편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고 그림자체가 백제

사람의 의복, 관모, 신발 등 차림새를 정확히 실감있게 보여주고있기때문에 귀중한 력사자료로 된다.

삼천궁녀이야기

충청남도 부여시의 옛 백제수도였던 부여읍에는 백마강(금강)이 흐르고있다.

백마강기슭에는 높지 않은 부소산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백마강에 뿌리를 내린 락화암이라는 벼랑이 있다.

이 벼랑은 백제가 멸망할 때 삼천궁녀가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 하여《꽃이 떨어진 바위》라는 뜻에서 락화암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660년(의자왕 20년)에 라-당련합군(당나라군 13만, 신라군 5만)이 사비성을 침공하였다.

이때 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은 공주로 도망쳤으나 궁녀들은 당나라침략군에게 포로되는것보다 차라리 자결하는 편이 낫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였다.

그리하여 부소산의 벼랑에 올라 백마강의 검푸른 물속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 벼랑을《락화암》이라고 부르게 되였으며 여기에 고란사라는 절간을 지어 그들의 넋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고란사에는 고란정이라는 샘이 있으며 고사리과에 속하는 고란초라는 풀이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궁녀들에 대한 일화가 깃들어있다.

의자왕은 궁녀들을 시켜 고란정의 물을 떠오게 하여 그 물을 마셨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험하여 때때로 궁녀들이 다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갔다.

이 사실을 간신이 왕에게 귀띔한 다음부터 왕은 고란정의 물을 떠올 때 여기에서만 자라는 고란초의 잎을 띄워오도록 하였다고 한다.

락화암에서 궁녀들이 몸을 던진것만은 사실이겠지만 그들이 3 000명이나 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근거가 명백치 않다.

일반적으로 궁녀의 수를 3 000명이라고 부르게 된것은 중국의 진시왕이 아방궁이라는 큰 궁전에 3 000명의 궁녀를 두었다는 력사기록에서 유래된것이다.

이것은 봉건통치배들의 횡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신 라

신라사개관

신라는 노예소유자국가인 진국의 왕경(경주)부근 진한의 12개 소국가운데 하나였던 사로국에 북방으로부터 선진문화를 가진 고구려사람들의 일부가 이주해와서 봉건관계를 장성시킴으로써 B.C. 1세기 초엽에 사로봉건소국을, A.D. 1세기 초중엽에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성립된 나라이다.

성립전후 신라는 이웃한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점차 강화되였다.

즉 신라는 세나라가운데서 가장 뒤늦게 발전한 나라로서 고구려, 백제의 영향밑에 봉건통치제도를 꾸리고 경제문화를 발전시켰다.

4세기말—5세기초에는 고구려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6세기초에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정리하고 우역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중앙기구도 신설 또는 보충정비하고 정을 단위로 한 군사집단의 강화에 힘씀으로써 정치군사적으로 봉건통치질서를 한층 강화하였다.

6세기 중엽까지 신라는 가야국가들을 통합하고 백제의 령토였던 한강하류일대

까지 확장하였다.

신라의 봉건통치배들은 령토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력을 강화하는 한편 당나라세력을 끌어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라통치배들은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있던 당나라의 침략세력을 끌어들이는 죄악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당나라군을 끌어들여 라-당련합군으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백제유민들의 반침략투쟁을 진압하는 한편 백제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당나라군의 이 지역에 대한 간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였다.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백제지역이 안정되여가자 당나라침략군들과 야합하여 668년에는 고구려의 남과 북으로 일시에 침공하여 동족의 나라를 기어이 멸망시키는 반민족대죄를 저질렀다.

한편 백제, 고구려를 라-당련합으로 짓밟은 당나라침략자들이 신라까지 병합할 기도를 드러내놓았다.

이때에야 각성한 신라군민은 당나라침략자들을 구축하기 위한 고구려, 백제유민들의 투쟁에 합세하였고 신라통치배들은 저들의 통치유지를 위해 이 투쟁에 편승하였다.

신라군민이 고국회복을 위해 싸우는 고구려, 백제유민들의 투쟁에 편승함으로써 당나라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공동투쟁이 벌어졌다.

세나라인민들은 668년 말엽부터 피어린 반침략투쟁을 벌려 676년에 당나라침략군을 압록강이북으로 몰아냈다.

이때 신라통치배들은 투쟁을 포기하고 고구려, 백제의 재생을 가로막으면서 대동강이남지역만을 확보하는데 매여달리였다.

그리하여 고구려, 백제유민들은 발해국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간고한 반침략투쟁을 계속하게 되였다.

대동강이남지역을 차지한 후기신라(세나라시기는 전기신라라고 한다.)시기에는 외래침략이 거의 없이 안정되여있었다.

그러나 당나라침략세력-외세를 끌어들였던 신라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는 우리 나라의 력사발전에 막대한 부정적후과를 미치였다.

후기신라봉건통치배들은 봉건관료들을 체계적으로 육성등용하기 위하여 682년에 국학을 설치하고 또 788년에 봉건관료를 선발하는 시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유교경전해석을 기본으로 한 학문을 장려하였다.

또한 그들은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를 강화할 목적에서 정전제도, 록읍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전성기시기 수도 왕경(경주라는 이름은 고려시기에 붙였다.)의 규모는 17만 8 936호, 1 360방, 55리에 달하였다.

지배계급에 의한 토지겸병의 촉진과 착취의 강화, 통치자들의 사치생활과 도덕적부패는 신라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격화시키고 봉건통치계급의 정치적몰락을 촉진시켰다.

특히 이 시기 봉건통치자들의 왕위쟁탈전은 극도에 달하였다.

8세기 중엽부터 9세기초에 이르는 70여년간에 무려 13회에 이르는 통치집단내부의 추악한 정권쟁탈전이 일어났으며 그동안에 제명을 산 왕은 거의 없으며 9대의 왕이 꼬리를 물고 교체되였다.

이러한 정권쟁탈전은 국력을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었으며 인민들의 불만을 더욱 야기시켰다.

특히 889년(진성녀왕 3년)에 신라봉건국가는 온 나라 각지에 관리들을 파견하여 강제로 조세를 수탈하도록 하였다.

이해에 사벌주(경상북도 상주)의 농민들은 원종과 애노 등의 지휘밑에 폭동을 일으켜 사벌주를 장악한 다음 악질관리들을 처단해버렸다. 이것이 9세기말 농민전쟁의 시작이였다.

그들은 봉건정부가 파견한 《토벌군》을 격파하면서 맹활동을 벌려나갔다.

사벌주농민군에 뒤이어 891년 북부지방인 북원(원주)에서는 량길, 죽주(죽산)에서는 기훤 등이 지휘하는 농민군부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력량은 매우 강하였다.

이러한 때인 891년 흉악한 정치적야욕을 품고있던 궁예는 농민폭동군에 가담하여 지휘자로 나섰다.

궁예의 부대는 남강원도 북부와 동부일대의 10여개 군, 현들을 공격하여 장악하였으며 897년까지는 오늘의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지방의 30여개 성들을 차지하였다.

농민군이 차지한 지역들에서 신라봉건국가의 권력은 물론이고 그 지방에 할거하고있던 봉건세력들도 대부분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궁예는 고구려를 다시 일떠세울것을 념원하고있던 이 지방 인민들의 지향을 리용하여 옛 고구려를 회복하겠다는 구호를 내들었다.

평양을 비롯한 패서(대동강이서)지방농민군, 증성(증산)지방의 농민군들도 궁예의 농민군부대에 합류되였다.

이 시기 후기신라의 서남부지방에서도 많은 농민군부대들이 활동하였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부대는 완산주(전라남도 전주)일대에서 활동한 봉건령주인 견훤이 지휘한 농민군부대였다.

견훤은 이 지방에서 옛 백제를 회복하겠다는 구호를 들었다.

견훤의 부대는 급격히 장성하여 892년에는 5 0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그들은 오늘의 공주이남 충청도일대와 전라도의 대부분의 군, 현들을 차지하였다.

896년에 신라의 서남부에서 일어난 붉은바지농민군은 락동강을 건너 왕경서쪽 모량리계선까지 진출하였다. 농민군이 수도공격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봉건통치배들에게 준 타격은 컸다.

이밖에도 염주(연안)지방의 농민군 등 9세기 후반기 신라에서는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농민군들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의 투쟁성과는 농민전쟁대렬에 정치적야욕을 품고 끼여들었던 궁예와 견훤과 같은 권력야심가들에 의하여 빼앗기고말았다.

견훤은 후백제를, 궁예는 태봉국을 세우고 각각 그 왕으로 되였다.

918년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고려는 고구려의 국토통일정책을 계승하여나갔다.

고려는 곧 후백제를 통합하였고 후기신라의 경순왕이 왕족을 이끌고 고려에 항복해옴으로써 신라는 종말되였다.

신라의 경제, 과학발전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벼농사를 비롯한 농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관개수리사업도 널리 진행되였다.

429년에 만든 뚝의 길이가 2 170보나 되는 저수지인 시제 등 수많은 크고작은 저수지들이 있었다.

신라인민들은 일찍부터 바다를 개척하여 수산자원을 개발하고 바다로 기여드는 왜구들을 무찔렀으며 특히 조선남해의 해상권을 틀어쥐고 해상무역 및 문화교류도 하였다.

신라에서는 수공업도 발전하였다. 특히 금은세공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경주의 신라금관무덤의 순금으로 만든 관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신라의 귀금속재료들은 그 질이 매우 높았으므로 은은 페르샤, 윈난(중국) 등의 은과 함께 높이 평가되였으며 동은 종주조의 가장 좋은 재료로 인정되였다.

또한 주조기술도 발전하였는데 574년에 구리 3만 5 007근을 녹여서 주조하였고 거기에 1만 198푼의 금을 도금한 황룡사 장륙불상은 단꺼번에 부어낸 주조물이다.

이와 함께 고급비단, 질좋은 질그릇, 가죽제품 등이 생산되였다.

신라에서는 기상, 천문학, 건축술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

633~647년사이에 건설된 경주첨성대는 당시의 건축술과 함께 천문학발전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신라사람들은 이처럼 견고하고 훌륭한 천문대와 관측기구들을 가지고 관측하고 기록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여 기상학과 천문학발전에 기여하였다.

력사편찬사업도 활발하였는데 《국사》, 《신라고기》, 《신라고사》, 《삼한고기》, 《제왕년대기》 등이 그 대표적인 책들이다.

철학사상도 발전하였는데 그것은 후기신라시기에 불교철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해동종(조선불교학파)이라는 새로운 불교사상을 내놓고 절대적인 정신실체인 《일심》을 주장한 원효의 철학 특히는 《화엄경》의 사상에 기초하여 자기의 관념론적철학세계를 형성한 의식 《일심》을 기본범주로 하여 자기의 철학사상을 내세운 대현 등에 의하여 불교철학이 발전하였다.

의학도 발전하였는데 후기신라의 의학학교들에서 의사양성교재로서 의학의 기초리론적인 내용을 담고있는《갑을경》, 내과리론과 치료방법을 주로 쓴《소문경》, 침구 및 외과부문에 대하여 쓴 책인 《침경》과 《명당경》, 약물학을 다룬 《본초경》을 썼다는것은 의학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신라의 건축술은 고구려, 백제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여 발전하였는데 대표적인것들로는 황룡사 9층탑, 불국사의 다보탑, 석가탑을 들수 있으며 얼음창고인 석빙고, 인공지하절간인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 등을 들수 있다.

신라의 과학기술은 일본의 과학기술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신라에서는 국내상업은 물론 대외상업도 크게 발전하였다.

당나라,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하였는데 청해진의 설치와 그의 활동, 신라방의 설치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신라왕조계보

사로국(2대)

1.박혁거세거서간(B.C. 1세기 초중엽) 2.남해차차웅(기원전 후시기)

신라봉건국가

№	이 름	년 대	№	이 름	년 대
1	유리니사금	(1세기 중엽)	28	문무왕	(661-681)
2	탈해니사금	(57-80)	29	신문왕	(681-692)
3	파사니사금	(80-112)	30	효소왕	(692-702)
4	지마니사금	(112-134)	31	성덕왕	(702-737)
5	일성니사금	(134-154)	32	효성왕	(737-742)
6	아달라니사금	(154-184)	33	경덕왕	(742-765)
7	벌휴니사금	(184-196)	34	혜공왕	(765-780)
8	나해니사금	(196-230)	35	선덕왕	(780-785)
9	조분니사금	(230-247)	36	원성왕	(785-798)
10	정해니사금	(247-261)	37	소성왕	(799-800)
11	미추니사금	(262-284)	38	애장왕	(800-809)
12	유례니사금	(284-298)	39	헌덕왕	(809-826)
13	기림니사금	(298-310)	40	흥덕왕	(826-836)
14	흘해니사금	(310-356)	41	회강왕	(836-838)
15	나물리사금	(356-402)	42	민애왕	(838-839)
16	실성니사금	(402-417)	43	신무왕	(839)
17	눌지마립간	(417-458)	44	문성왕	(839-857)
18	자비마립간	(458-479)	45	헌안왕	(857-861)
19	소지마립간	(479-500)	46	경문왕	(861-875)
20	지증왕	(500-514)	47	헌강왕	(875-886)
21	법흥왕	(514-540)	48	정강왕	(886-887)
22	진흥왕	(540-576)	49	진성녀왕	(887-897)
23	진지왕	(576-579)	50	효공왕	(897-912)
24	진평왕	(579-632)	51	신덕왕	(912-917)
25	선덕녀왕	(632-647)	52	경명왕	(917-924)
26	진덕녀왕	(647-654)	53	경애왕	(924-927)
27	태종무렬왕	(654-661)	54	경순왕	(927-935)

신라의 통치제도

건국초기부터 신라통치배들은 자기들의 계급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치제도를 정비강화하였다.

먼저 소국들을 통합하고 령주세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여나갔다.

력사기록에는 2세기말-5세기의 중앙관제에 이벌찬(서불한), 이찬(이척찬) 등의 벼슬을 가진자들이 중앙과 지방의 군사관계사업을 도맡아보았다는 자료가 있다.

건국초기 신라의 왕권은 공고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 군주는 그 칭호가 거서간(제1대 혁거세), 차차웅(제2대 남해), 니사금(제3대 유리-제16대 나해), 마립간(제17대 나졸-제22대 지증) 등으로 일정하게 많았다.

《삼국사기》에는 제18대 실성까지 니사금, 제19대 눌지부터 마립간으로 부른것

으로 되여있다.

임금의 자리도 세습되지 않고 왕경일대의 박가, 석가, 김가의 대귀족문벌이 엇바꾸어가면서 차지하였다.

6세기초까지 임금가운데서 박가계통이 제1대 혁거세를 비롯하여 7명, 석가계통이 제14대 탈해를 비롯하여 7명, 김가계통이 제13대 미추를 비롯하여 8명이다.

임금은 전국의 령토와 인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최고관리로서 대보등을 두었으나 나라의 정사를 토의결정하고 집행한것은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인 정사당 또는 남당이였다.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는 군주를 선출하는 일까지 토의결정하였는데 제1대 혁거세를 비롯하여 제5대 파사, 제9대 벌휴, 제13대 미추, 제18대 실성 등의 임금들은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에서 선출하였다는 력사기록이 있다.

이 시기 지방통치기구로서는 주, 군, 현, 진 등을 설치하고 거기에 주주 또는 군주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말단행정단위를 관할하는 상급지방군사행정장관으로서 군주가 임명되였다.(군주는 후에 총관으로, 그후 다시 도독으로 고쳐졌다.)

6세기초이후 지증마립간(500년-514년)부터 군주세습제가 강화되였다.

이 시기에도 통치기구에서 중요한것은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였는데 이 시기에는 그것을 화백 또는 4령지회의라고 하였다.

그리고 531년에 대귀족세력의 리익을 대표하는 부왕격의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수석인 상대등벼슬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6세기초이후 중앙집권적통치기구가 확립되여갔는데 501년-651년에 병부를 비롯한 18개의 중앙관청이 설치되였으며 651년에는 이전에 《름부》라고 부르던 최고관청의 이름을 집사부로 고치고 그 장관으로서 《중시》(후의《시중》)를 배치하였다.

중시(시중)는 상대등의 관할밑에 국가의 기밀사무를 맡아처리하였는데 고려시기의 시중, 리조시기의 령의정에 해당하였다.

6세기초이후 지방통치기구도 강화되였다.

우선 실직주를 비롯한 규모가 큰 주들이 설치되였는데 주는 관할지역안의 군, 현, 진 등을 관할하였으며 그 장관인 군주는 해당 주의 행정, 군사관계사업을 지휘감독하였다.

군과 현에는 태수, 현령(또는 현소수)이 배치되였다.

일부 지방중심지들에 소경(작은 수도)을 두고 그 장관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지방토호들의 팽창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660년대에 백제의 전령역과 고구려의 남부지역을 병합한 후기신라는 보다 많아진 주민과 넓어진 령토를 관리하는데 맞게 중앙집권적통치기구를 크게 늘이는 한편 지방통치기구를 정비하여 9주 5소경제도를 실시하였다.

화백제도

신라에서 봉건귀족들을 위하여 실시된 귀족민주주의적정치제도이다.

《당서》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국왕이 정치문제를 귀족들과 토의하여 결정지었으며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만두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화백이라 한다고 하였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네곳의 《신령스러운》 땅(《4령지》)이 있었는데 국가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그중 어느한 장소에서 대신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토의결정하였다고 한다.

7세기 중엽에도 정책적문제를 토의하던 최고위급귀족들의 회의가 경주 남산 오

지암에서 열렸던 사실을 전하고있다.

이러한 회의는 곧 화백회의와 같은것이거나 화백제도의 유습으로 볼수 있다.

신라의 화백 즉 고위급귀족관료회의의 운영은 중앙집권력이 강화된 후에도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면서라도 정치에 개입하려는 봉건귀족세력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귀족민주주의제도는 고대국가들에 있었던 노예소유자적귀족민주주의제도의 변형이라고 볼수 있다.

신라는 봉건통치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지배계급신분을 골품제도에 따라 편성하였다.

골품제도는 골품과 벼슬등급제도를 결합한 계층제도로서 관리들의 골품(혈통)에 따르는 벼슬등급을 규정한것이였다.

왕으로 될수 있는 집안은 골에 속했으며 그 아래신분층을 두품이라고 하였다.

골은 다시 성골과 진골로 나뉘여졌는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거서간으로부터 제26대 진덕녀왕에 이르는 왕들은 성골에 속하며 무렬왕이후의 왕들은 진골에 속하였다.

성골신분은 성골신분끼리 결혼해야 그 자식들도 성골이 될수 있었다.

두품은 원래 6개가 다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나 지금 기록에 보이는것은 6두품, 5두품, 4두품뿐이다.

6두품은 득난이라고도 하는데 진골 다음가는 귀족신분이였고 5두품은 그아래에서 중간급관료로, 4두품은 하급관료로 될수 있는 신분층이였다.

4두품아래에 해당하는것이 백성이였다.

신라의 통치배들은 우아래의 차별을 절대화하는 계층적인 봉건적관료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17개의 벼슬등급을 제정하였다.

17개의 벼슬등급은 다음과 같다.

1.이벌찬, 2.이척찬, 3.잡찬, 4.파진찬, 5.대일찬, 6.아찬, 7.일길찬, 8.사찬, 9.급별찬, 10.대나마, 11.나마, 12.대사, 13.소사, 14.길사, 15. 대오, 16.소오, 17.조위

신라의 통치제도는 철저하게 전제적인 왕권을 강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압박을 목적한 반동적인것이였다.

화랑제도

신라에서 6세기경부터 실시된 화랑제도는 7세기 중엽이후 일정한 기간까지 봉건통치배들속에서 중요시되였다.

화랑제도의 전신으로 원화제도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신라봉건통치배들이 귀족출신자식의 료해, 선발, 등용을 목적으로 내온 청소년수양조직이였다.

원화제도에서는 그 조직의 책임자를 원화(《본》이 되는 인물)라고 했는데 원화로는 녀자가 임명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6세기 후반기(진흥왕시기)에 남모와 준정이란 두명의 소녀를 원화로 선발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원화를 받들어 무리지어 놀게 하였는데 두 녀자는 미모의 남자를 놓고 서로 질투하다가 드디여 준정이 남모를 살해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신라통치배들은 녀자를 중심으로 조직했던 원화제도를 없애고 남자로만 조직한 화랑제도를 내왔다.

화랑집단은 유력한 진골출신의 청년을 화랑(국선이라고도 한다.)으로 삼고 그

아래에 귀족청소년들(이들을 랑도라고 했다.)을 묶어세운것으로서 그러한 집단은 같은 시기에 여러개가 있을 때도 있었다.

화랑집단에 망라된 청소년들은 어릴때부터 명승고적 등을 유람하는 집체생활을 통하여 도덕수양과 학습, 무술련마 등을 하면서 지식을 넓히고 심신을 단련하였으며 충군사상을 키웠다.

신라봉건국가는 화랑집단과 관계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화주라는 벼슬을 따로 두어 그들을 보호, 장악, 통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길러낸 청년들을 관리나 군사지휘관으로 등용하였다.

화랑도는 신라의 팽창정책 특히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는 배족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화랑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다함, 관창 등이다.

화랑집단은 7세기 말엽에 들어서면서 봉건귀족들의 정권쟁탈전에서 폭력단으로 리용되기도 하였다.

신라고유의 종교적인 화랑도의 사상과 봉건인재양성제도는 유교, 불교 등이 들어오는데 따라 그 지위를 점차 잃게 되였다.

후세에 와서 화랑이라는 말자체가 봉건통치층내에서 《천한》무당의 남편으로서 노래와 춤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되였다.

오늘 남조선괴뢰들은 맹목적인 봉건충군사상으로서의 《화랑도정신》을 부활시키면서 그것을 매국배족적인 파쑈통치의 사상적도구의 하나로 변형악용하고있다.

자 료

장보고와 청해진

장보고(? - 846년)는 9세기 전반기 신라의 해상활동가였다. 그의 이름은 옛 문헌에 궁복 또는 궁파라고 적혀있다.

장보고는 헤염을 잘 쳤을뿐아니라 무예도 남달리 뛰여났다고 한다.

9세기 초엽에 당나라에 건너가있으면서 당나라해적들이 신라의 해안지대에서 감행하는 만행을 보고 격분하여 신라에 돌아온 후 국왕에게 이런 현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오늘의 완도에 청해진(수군기지)을 설치할것을 제의하였다. 828년에 그는 청해진대사로 임명되여 1만명의 수군부대를 거느리고 조선서해와 조선남해를 방비하여 해적들을 견제함으로써 얼씬 못하게 하였다.

청해진은 신라와 당나라, 신라와 일본, 당나라와 일본사이의 해상교통 및 무역의 큰 중심지로 번창하였다.

이미 820년대부터 상업과 무역을 통하여 큰 세력으로 자라난 장보고의 함대는 그후 더욱 강한 군사정치세력으로 되여 신라왕정의 왕위쟁탈전에까지 끼여드는데 이르렀다.

839년에 그는 부하 정년에게 군사 5천명을 주어 민애왕에게 몰리웠던 김우징(신무왕)을 도와 그를 왕자리에 올려세웠다.

그러나 그는 신무왕의 아들인 문성왕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 살해되였다.

최치원의 문필활약

최치원(857 - ?)은 9세기 신라의 학자로서 경주 사량부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2살에 당나라에 들어가 유학공부를 하였으며 18살에 당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지방 또는 중앙관청에서 벼슬을 지내다가 885년에 신라로 돌아왔다.

귀국후 한림학사, 병부시랑, 지서서감 등으로 벼슬을 지냈고 벼슬등급이 아찬에 이르렀다.

그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위기를 바로잡으려하다가 오히려 집권파들의 박해를

받고 지방관리로 밀려났으며 그후 벼슬자리를 떠나 오래동안 방랑생활을 하다가 가야산 해인사에서 일생을 마쳤다.

최치원은 당나라에 있을 때 《비오는 가을밤에》, 《산양에서 고향친구를 만났다가 헤여지면서》 등 고향산천을 그리는 서정시들과 《강남녀》와 같은 억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의 생활을 담은 서정시들을 썼다.

그는 신라로 돌아와서 봉건통치배들의 추악상을 폭로비판한 서정시인《붓길가는 대로》와 《소박한 생각》, 봉건적인 억압착취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그들의 정신세계를 노래한 서정시인 《촉규화》(접시꽃), 인민들속에서 창작공연된 가무극을 보고 노래한 관극시인 《향악잡영》(5권)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썼다.

그가 쓴 시 《소박한 생각》의 한 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우가 재주넘어 미인이 되고
삵은 변하여 선비가 된다네
그 누가 알랴 짐승의 무리들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난것을

그가 귀족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진보적인 작품들을 쓸수 있었던것은 지방관리노릇을 할 때와 방랑생활을 할 때에 억압과 착취속에서 허덕이는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처지를 보게 되였고 또 벼슬살이과정에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을 직접 맛본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계급적제한성도 있다. 그는 봉건유교도덕규범을 내세우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문란해진것은 사람들이 정신도덕적인 《수양》을 하지 않은데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가 량반출신으로서의 립장에 서있었다는것을 말한다.

최치원의 작품집으로서는 《계원필경》(20권), 《중산복궤집》(5권),《제왕년대력》, 《사륙문집》 등이 있다.

신라의 유적과 유물

다보탑과 석가탑

다보탑과 석가탑은 경상북도 경주의 불국사에 있다. 두 탑은 모두 밑탑과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형태는 매우 대조적이다.

다보탑의 높이는 10.4m이고 기단너비는 4.34m이다. 석가탑은 높이가 8.2m이고 기단의 너비는 4.4m이다.

다보탑은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되여있다면 석가탑은 간결하게 되여있으며 생김새에서는 다보탑이 화려하고 섬세하여 녀성적이라면 석가탑은 장중하고 탐탐하여 남성적이다.

석가탑에는《무영탑》이란 별명이 있다. 여기에는 절간건설에 강제로 동원된 남편이 하도 소식이 없어 먼길을 찾아간 안해가 공사가 끝나야 만날수 있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늪에 나타난 허영을 보고 기쁜김에 늪에 뛰여들어 물에 빠져죽었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다.

이것은 당시 인민들이 절간건설에 얼마나 혹사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말하여준다.

8세기 중엽경 우리 나라에서는 돌탑건축술이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다보탑과 석가탑은 그 대표적유물의 하나로 된다.

불국사

신라시기의 절간으로서 경주 토함산중턱에 있다. 6세기 중엽에 처음 지었고 8세기 중엽에 크게 확장하였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8세기 중엽에 이 절을 확장할 때 세운것이다.

크고작은 건물들이 70여채 즐비하게 늘어서있던 불국사는 임진조국전쟁때 일본침략자들에 의해 몽땅 불타없어지고 축탑과 돌계단 등 돌구조물만 남았던것인데 18세기에 대웅전, 극락전 등 건물들을 다시 지었다. 불국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동쪽구역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서쪽구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매 구역은 회랑으로 둘러싸여있다.

구역들에는 많은 집터들이 있다.

불국사는 산비탈면에 지으면서 앞면에 전반적으로 두단의 축담을 정교하게 쌓았다.

동쪽구역앞에 백운교와 청운교를 놓아 자하문을 통하여 절간구역안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서쪽구역앞에는 칠보교와 련화교를 놓아 안양문을 통하여 구역안에 들어가게 하였다.

동쪽구역의 대웅전은 정연한 밀단우에 세운 앞면 5간, 옆면 5간의 합각집이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대웅전앞마당에 동서로 나란히 놓여있다.

불국사에서 볼수 있는 하나하나의 돌구조물들은 화강석을 능란하게 가공하여 훌륭한 조각품과 구조물을 만들어낸 당시 우리 인민들의 재능을 잘 보여준다.

불국사의 돌구조물뿐아니라 리조시기에 고쳐 지은 대웅전과 자하문을 비롯하여 목조건물 또한 세계에 자랑할만 한것이다.

봉덕사종(에밀레종)

이 종은 경주의 봉덕사에 있었는데 지금 경주박물관에 보관했다고 한다.

신라의 경덕왕은 아버지 성덕왕이 죽자 그의 《명복》을 빈다고 하면서 이 종을 만들게 하였다. 그런데 자기대에 다 만들지 못하고 아들인 혜공왕대(771년)에 가서야 완성하였다. 봉덕사종은 박한미를 비롯한 4명의 기술자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종의 무게는 12만근이고 종아구리직경은 2.47m이며 종의 높이는 3.33m이다.

단일체로 부어만든 이 종은 조선종의 고유한 구조형식을 다 갖추고있다. 즉 어깨로부터 아구리까지 내리흐르는 풍만한 곡선, 어깨와 아구리에 두른 보상화무늬띠, 종머리와 종꼭지에 붙인 조선종에서만 볼수 있는 삽기, 매다는 고리를 룡조각으로 해붙인것은 참으로 묘하다.

당시에 이렇게 큰 종을 세부까지 조형예술적으로 잘 만들어낸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은 실로 놀랍다.

이 종의 아름답고 은은한 소리는 100리밖에서도 들린다고 한다.

종의 몸체에는 또한 1 000여자의 글자를 새겨 종의 래력과 제작경위를 전하고있다.

봉덕사종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봉덕사의 중들은 죽은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종을 만든다고 하면서 인민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긁어갔다. 그런데 어느 한 집에서는 너무도 가난하여 아무것도 낼것이 없다고 하면서 중에게 우리 집에는 아이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수많은 재물을 들여 종을 만들었는데 웬일인지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종을 만드는 일에서 두번씩이나 실패한 그들은 그 원인이 백성들에게 있다고 꾸며냈다. 즉 백성들이 왕의《명복》을 비는데 성의가 없으며 부처에게 제물바치기를 싫어하는

데 있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중들은 세번째로 종을 부어만들 때에는 아무것도 낼것이 없다고 한 가난한 집에 달려들어 어린 아이를 빼앗아다 쇠물가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종은 칠 때마다 어미때문에 죽었다는 의미에서 《에밀레 에밀레》하며 구슬픈 소리를 내였다고 한다.

에밀레종이란 이름은 여기서부터 나온것이다.

분황사탑

경상북도 경주시 분황사터에 있는 분황사탑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오랜 모전탑이다.

모전탑이란 돌탑이기는 하지만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벽돌탑처럼 쌓은 탑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는 모전탑이 경주,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얼마간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인차 중단되였다.

분황사탑은 634년에 분황사와 함께 세워진 탑이다. 이 탑은 검은밤색의 안산암을 네모난 벽돌처럼 가공하여 벽돌탑쌓듯이 쌓은 돌탑이다. 가공한 돌의 너비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길이는 36.4~54.5cm, 높이는 7.58~9.1cm이다. 분황사탑의 평면은 정4각형이며 밑단과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다. 밑단은 한단이며 그 한변의 길이는 13m이다. 밑단의 네모서리에는 조각한 돌사자가 대각선방향으로 한마리씩 세워져있다. 앞다리를 버티고 선 사자의 높이는 약 1.21m인데 이렇게 사자를 조각해놓은것은 이 짐승이 탑을 지키게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탑몸은 지금 3층까지만 남아있는데 《동경잡기》에는 분황사탑이 신라의 세가지보물가운데 하나로서 9층탑이였다고 전한다. 지금 높이는 9.3m이다. 탑몸 첫층의 너비는 한변이 6.5m이고 높이는 2.61m이며 돌을 34단 쌓았다.

탑몸의 매 면 한가운데에는 문이 있다. 문좌우에는 문설주를 대신하는 정방형의 판돌을 하나씩 세웠는데 거기에는 높이 돋우새긴 인왕상이 있다. 문안에 하나씩 만든 작은 칸에는 부처들을 앉혔다. 2층부터는 탑몸을 갑자기 줄이여 쌓았다. 1915년경 2층탑몸의 복판에서는 금, 은으로 만든 유물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유물이 들어있는 돌함이 나왔는데 일제가 강탈해갔다. 분황사탑은 왕의 놀이터였던 못인 안압지를 사이에 두고 첨성대와 마주서있다. 그래서인지 분황사탑과 첨성대는 한사람의 지휘밑에 세워졌다는 말도 있고 밤이면 분황사탑과 첨성대가 안압지기슭까지 서로 다가와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헤여진다는 전설도 있다.

석굴암

경상북도 경주시 동쪽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석굴형식의 불교절간이다.

751년에 관리 김대성이 발기하여 불국사를 크게 고쳐지을 때 석굴암도 만들게 하였다고 한다.

석굴암은 원래 석불사라고 불렀다. 그때에는 여기에 석굴외에 다른 기와집들도 있었다. 그후 석불사는 지림사에 소속되면서 석굴암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였다.

석굴암은 아침해살을 잘 받도록 토함산중턱에 동쪽을 향하여 건설하였다. 조선동해에서 아침해가 솟아오르면 그 해살이 곧추 석굴암안에 흘러들어 굴칸복판에 있는 석가여래상의 이마 한가운데에 박은《백호》를 비추어주어 그것이 반짝반짝 반사되면서 신비한 세계를 이루게 하였다. 구조상으로 볼 때 석굴암은 자연동굴을 리용한 다른 나라 석굴절간과는 달리 산중턱에 터를 잡고 화강암으로 돌칸을 꾸린 다음 그우에 흙을 덮어만든 석굴절간이라는데 그 특색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에서

돌칸흙무덤을 만들던 그 솜씨를 이어 석굴절간을 세웠던것이다.

석굴암은 장방형평면의 앞칸과 원형평면의 굴칸 그리고 그 사이길로 이루어졌다. 석굴암의 내부공간은 굴칸평면의 반경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였다. 이렇게 어떤 기준크기를 두고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전체와 부분들의 크기를 정하는것은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 특히 쐐기돌들을 겹쳐 해살형으로 배치하여 구조적으로 견고성을 보장하면서도 하늘의 해살이 퍼지는것 같게도 하고 방금 한송이의 꽃이 피여나는것 같게도 한 궁륭천정은 참으로 볼만 하다.

석굴암에서 특히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것은 불상조각들이다.

석굴암에는 본래 40개의 불상이 있었다. 불상들은 굳은 화강암을 나무다루듯이 마음대로 다듬어 재간스럽게 만든것이다.

석굴암의 중심불상은 굴칸복판에 있는 석가여래상인데 살찐 름름한 몸집에 올방자를 틀고앉은것이 그 높이는 약 3.5m이다. 이 불상의 광배는 흔히 하는대로 부처의 머리뒤에 달지 않고 부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굴칸뒤벽 한가운데에 붙임으로써 쳐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웅장해보이게 하였다. 광배가장자리에 새긴 련꽃은 우로 올라갈수록 크게 돋쳐 거리에 따라 작아보이는 착각을 느끼지 않게 하였다.

앞칸에 있는 8상의 부신상과 2상의 인왕상, 사이길의 사천왕상도 잘되였다. 11면관음상을 중심으로 굴칸벽면에 돌려새긴 10상의 라한상, 4상의 보살상 그리고 굴칸벽면과 천정사이 감실들에 새긴 작은 보살상 모두가 표정과 동작형상이 비반복적이다.

석굴암의 조각상들은 중심불상인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통일되여있다. 높고낮은 돋을새김, 돌려새김(환각) 등 그 조각수법은 우리 민족의 뛰여난 재능을 잘 보여준다. 석굴암의 조각상들은 동양에서 으뜸가는 불교미술조각품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첨성대

경주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천문대가운데서 제일 오랜 첨성대가 옛 모양그대로 남아있다.

첨성대란 별을 바라보는 대라는 뜻으로서 오늘날의 천문대와 같은것이였다.

경주첨성대는 정확한 력학적계산에 기초하여 화강석을 잘 가공하였고 그것을 27단으로 쌓아만든 천문대로서 당시의 기상천문학발전과 함께 높은 건축술을 보여준다.

선덕녀왕(632년-647년)시기에 건설된 이 첨성대는 밑단과 몸체, 관측기구를 올려놓기 위한 틀로 되여있다. 밑단은 4각형이고 몸체의 밑부분직경은 약 4.9m이며 웃직경은 약 2.9m이다. 그리고 첨성대의 전체 높이는 약 9.1m이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밑단의 네면을 4방위에 일치시킨것이다.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동서남북을 정확히 알수 있다. 첨성대꼭대기의 기구들은 귀틀형식으로 짠것으로서 그 한변의 길이는 약 2.85m이며 역시 4방위를 맞추어놓았다.

몸체의 남쪽 중간쯤에 관측대우로 나들기 위한 네모난 구멍이 있다.

신라에서의 천문관측자료기록들은 대다수가 경주첨성대가 세워진 후의것들이다.

황룡사와 9층탑

황룡사는 터만 남아있고 그 뜰에는 9층탑 밑단과 주추돌이 남아있다. 황룡사는 553년-566년기간에 건설된 대단히 큰 절간이였다.

황룡사에는 금 1만 198푼, 구리 3만 5 007근을 들여 부처를 앉혀놓았고 당시에 유명한 화가 솔거를 시켜 소나무를 벽에 그렸다.

황룡사의 불상은 9층탑과 함께 당시 신라에서는 국가적인 보물로 여기였다.

황룡사 9층탑은 백제사람인 아비지가 200명의 기술자를 데리고와서 3년간 공사하여 645년에 완공한 나무탑이였다.

신라는 이렇듯 큰 나무탑을 세워본 경험도 기술도 없어 백제에 의뢰하였던것이다.

이 탑은 평면상으로 보면 4각형으로 되여있었다. 밑단,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는 이 탑의 크기는 옛날 력사책인《삼국유사》에 씌여있는 내용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황룡사탑의 층수는 9층이고 탑머리부분의 높이는 42자이며 이 탑몸의 높이는 183자라고 하였다. 이것을 합하면 225자인데 밑단높이까지 계산한다면 탑전체높이가 80m를 넘는다.

현재 남아있는 밑단의 높이는 1.21m이다. 탑몸의 앞면과 옆면은 각각 7단(22.08m)이였다.

이렇게 높고 웅장한 탑에 벼락이 자주 내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있다.

탑은 건설된 후 여러번 수리도 하고 고쳐짓기도 하면서 내려오다가 1238년 원(봉건몽골)침략자들에 의해 몽땅 불타버렸다.

금 관

삼국시기에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하여 값비싼 금, 은, 금동 등으로 머리에 얹는 관을 만들어썼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개의 금관이 발견되였다. 신라의 금관들도 여러개 나왔는데 경주의 금관무덤과 서봉무덤, 천마무덤, 황남동 98호무덤들에서 나온 금관들은 순금으로 만든 금관으로서 그 제작기술이 뛰여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금관무덤의 금관을 보면 우선 그 구상이 기발하고 만듦새가 호화찬란하다.

금관은 크게 외관과 내관으로 갈라져있다.

외관은 먼저 테두리를 만들고 그우로 다섯개의 가지들이 뻗어나게 한 다음 가지마다에 각각 곁가지를 주고 곁가지끝마다 꽃망울을 만들어 매달았다.

내관은 새의 깃을 본따서 두개의 나래가 뒤로 퍼져올라가게 하였다. 그리고 비취옥으로 만든 수십개나 되는 굽은 구슬과 얇은 금판을 오려서 만든 둥근 쪼각들을 가는 금실로 가지들마다에 달아놓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비취옥구슬과 금편이 흔들리면서 은은한 소리를 내므로 금관의 현란함을 더욱 돋구어준다. 또한 금관의 좌우에는 속이 빈 금구슬이 길게 달려있는데 끝에 비취옥으로 만든 굽은 구슬을 달아매놓았다.

금관무덤에서 나온 금관의 높이는 44.4cm이고 외관의 직경은 약 19cm이다. 이런 금관들은 비록 왕들의 《위용》을 돋구는 사치품에 지나지 않으나 그것을 만든 당대 공예사들의 높은 기교를 보여주고있다.

안압지

안압지는 경주의 월성북쪽에 있는 못이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인공적인 못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적풍격이 짙은 정원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민족적정서와 기호,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독특한 정원예술을 창조하였고 그것은 겨레의 나라들과 이웃나라들에도 전수되였다.

안압지는 후기신라때 궁성후원의 인공련못으로서 당시 왕족들의 놀이터였는데 674년에 완공하였다. 안압지의 본래 이름은 월지였다.

안압지의 테두리는 구불구불 자연미가 나게 하였다.

신라왕족들은 저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인민들을 동원하고 그들의 재부를 빼앗아 별궁(림해전)을 짓고 원림을 조성하였다. 이 원림안에 안압지를 파고 그가운데에 인공적으로 3개의 섬산을 만들었다. 이 산들을 다리로 이어놓고 건너다니였다.

그리고 이 산에다 갖가지 꽃을 심고 특이한 새와 짐승들을 기르게 하였던것이다.

안압지밖에도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도 세워놓았다.

궁궐들은 주로 못의 서쪽과 남쪽에 자리잡고있었다.

림해전이라고 하던 서쪽의 3개 건물은 회랑으로 이어져있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그 근처에 못을 바라보며 연회 같은것을 하던 5개의 건물터가 더 있다. 고구려에서 뿌리내린 우리 인민의 독특한 정원예술은 후세에 전해지면서 신라의 안압지에도 이어졌던것이다.

《신라장적》

신라때 서원경(충청북도 충주)부근 4개 촌의 호구, 논밭 및 그밖의 국가적착취대상물들을 기록한 대장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지방행정통치자료집이라고 할수 있다.

신라때 봉건적수탈을 위하여 인구, 토지면적 등을 장악하는 대장으로 만든것인데 지금 남아 전해지는것은 서원경부근의 일부 지역에 대한 통계집이다.

이 《신라장적》의 작성년대에 대하여서는 816년설을 비롯하여 756년설, 876년설 등이 있다.(756년, 816년, 876년은 모두 《병신년》이다.)

이 장적에는 사해점촌, 살하지촌 등 4개 촌에 대하여 각각 3년에 1차씩 촌의 둘레, 가호와 인구수, 논밭과 마전의 넓이, 백자, 추자, 뽕나무 등의 나무그루수와 소, 말의 마리수 등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였다.

《공연》으로 표시된 호는 9등급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인구는 역을 들씌우는데 편리하도록 정조자, 추자, 소자, 제공, 로공으로 구분하고 녀자에 대해서는《녀》자 또는 《모》자를 덧붙이였다.

인구는 또 현수자뿐만아니라 전번 등록이후의 변동도 기록하고있다.

이것은 봉건국가가 공물과 부역, 병역 등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밝힌것이였다.

토지에 대해서는 촌락별 논밭결수가 밝혀져있는데 그가운데서 논만은 촌관모답(촌공유지 또는 촌관유지), 관모답(국유지), 내시령답(민유지), 촌주위답(촌주의 봉급으로 할당한 수조지) 등으로 나누어지고 해당 넓이를 결, 부, 속, 파의 단위로 기록하고있다.

이것은 결부제가 신라시기부터 존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장적은 신라의 사회경제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된다.

이 장적의 단편이 일본 나라현의 정창원(쇼소잉)에서 발견되였다.

일 화

필란의 절개

신라왕궁의 악공인 만덕은 궁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걸음이 더딘것만 같았고 가슴은 갈수록 높뛰였다. 집안의 복이 되고 딸에게는 행운이 되는 소식을 안고가기때문이였다.

가야금을 만들어 온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스승인 우륵이 자기 딸을 며느리

로 삼겠다니 이 아니 경사이겠는가!

우륵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인물도 잘난데다가 총명하여 학문에 뛰여나서 궁궐의 관리들이 은근히 침을 흘리는 신랑감이였다.

그런데 자기와 같이 보잘것 없는 악공의 딸에게 장가를 들이겠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였다.

얼마전에 자기의 집에 우연히 들리였다가 숙성한 딸을 보고 인물맵시와 례절에 탄복한 우륵이 오늘 정식으로 만덕에게 청혼했던것이다.

만덕은 과분한 청혼을 놓칠가 두려워 딸과 의논하여 성례를 곧 치를 결심이였다.

만덕은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로 딸을 불러 우륵의 집에서 청혼해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자, 얼마나 좋은 신랑감이냐? 나는 성례를 인차 치르려하는데 네 생각도 다른게 없겠지?》

얼굴을 붉히면서도 기뻐할줄 알았던 딸 필란은 뜻밖에 수심에 잠겨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만덕이 대답을 독촉해서야 필란은 입을 열었다.

《아버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찌 도리를 어기시고 저를 다른데로 시집보내려 하시나이까?》

《도리라니?!》

만덕은 딸의 말에 어리둥절하였다.

《아버님은 이미 제가 태여나는 날에 저의 혼처를 정해주시고 제가 자랄 때에는 옛말처럼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범랑은 내 랑군이라고.》

《뭐라구? 범랑이…》

만덕은 말끝을 흐리였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우륵이 가야국에서 오자 그의 제자로 뽑히운 만덕과 함께 범치라는 동갑이도 뽑히였는데 음악을 배우는 기간에 장가도 같이 들고 집도 나란히 지어 살아온데다 자식도 같은 날에 보게 되였다.

다르다면 만덕은 딸을 보았으나 범치는 아들을 본것이였다.

첫 자식을 본 기분에 들떠있던 그들은 같은 날 벗들의 집에서 아들딸이 태여난것이 우연치 않으니 분명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아닌가 하면서 혼인을 맺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애들이 자랄 때 만덕의 딸은 범치의 며느리라, 범치의 아들은 만덕의 사위라 부르면서 지내왔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범치의 내외가 병을 앓아 일찍 세상을 떠났고 걸음마를 겨우 떼던 아들은 이웃마을에 노비로 혼자사는 녀인이 가져다기르게 되였다.

그런데 범치의 아들은 여나문살 났을 때에 시름시름 앓다가 눈이 멀었고 뒤이어 말도 못하게 되였다.

십여년세월이 흘러 만덕은 범치의 아들을 자기의 사위라고 부르던 말도 없어지고 그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앞을 못 보는데다 말까지 못하는 소경에 벙어리를 자기 사위로 삼으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가져보지 못했던 만덕이였다.

그런것을 오늘 새삼스레 딸이 말하니 만덕이로서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얘야. 그건 옛날에 친구끼리 롱으로 한 말이였다. 설사 롱이 아니였다한들 내가 어찌 너에게 그런 소경에 벙어리를 신랑감으로 정해주겠느냐. 그런 말은 아예 입밖에 내지도 말아라.》

만덕은 이렇게 딸애를 달래였다.
그러나 필란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따를수 없나이다. 우륵선생의 아드님은 인물도 잘나고 재간도 많으며 또한 그 집은 만인이 우러러본다 하시였으니 그가 저 아니고 다른 처녀를 구할수 없겠나이까. 그러나 범랑은 앞 못 보고 말도 못하는 병신이오니 만약 저까지 그를 버린다면 그가 어찌 제 집을 이루고살수 있겠나이까. 저는 절대로 그가 홀로 세상을 마치게 할수 없나이다.》
만덕은 딸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도고한데 성이 났다.
《그래. 너는 그 병신만 생각하고 이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느냐!
벗의 도리도 도리지마는 아버지와 딸의 도리도 있지 않느냐. 그래. 그런 병신에게 곱게 기른 딸을 주는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생각지도 않느냐? 그리구 이것은 스승과 결말을 맺는 혼사이니 달리할수 없다. 달리할수 없어! 래일 당장 선보러 올터이니 옷손질을 하고 몸단장이나 잘하여라.》
만덕은 이렇게 딸을 욱박질러 제방으로 돌려보내였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만덕은 궁궐에 나가기에 앞서 딸이 몸치장과 옷손질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보려고 그의 방문을 열었다.
순간 만덕은 놀랐다.
딸의 삼단같던 머리태는 간데없고 앵두같이 붉고 예쁜 얼굴에는 얽은것처럼 검은 점들이 가득 박혀있었다.
필란은 간밤에 머리를 깎고 얼굴을 바늘로 찍어 먹물을 먹였던것이였다.
《이게 무슨짓이냐!》
만덕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그러나 필란은 태연한 자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유순한 어조로 말했다.
《아버님. 걱정마소이다. 아버님은 스승이 정한 혼사라 물리기 어려워하셨는데 이젠 우리가 거절치 않아도 저의 이 모양을 보면 그들이 저절로 물러날것이 아니오이까?》
《뭐라구? 아이쿠!》
이런 변을 당하고 대궐에 나간 만덕의 얼굴이 범상할리 없었다.
우륵은 만덕의 얼굴이 병든것처럼 하얗게 질려있고 기분도 갑자기 침울해진것이 이상하여 물었다.
《아니, 몸이 몹시 편치 않으시오?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었소?》
만덕은 하는수없이 자기 딸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우륵이 만덕에게 심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큰일을 저지를번 했소. 친구의 도리를 저버릴번 한것도 큰일이였지만 우린 음악가로서 더 좋은 노래를 지을수 없고 더 훌륭하게 가야금을 탈수도 없게 될번 했소. 친구의 도리를 어긴 우리들이 노래를 지은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남의 행복을 앗은 우리들이 가야금을 탄들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수 있었겠소.》
우륵은 곧 옛 제자인 범치의 아들과 만덕의 딸의 혼례를 치르자고 하였다.
이리하여 필란은 만사람의 축복속에 소경이며 벙어리인 범치의 아들과 혼례를 치르었다.

소경이며 벙어리인 남편을 맞은 필란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약을 지어다 그에게 달여먹이였고 좋다는 약초를 캐기 위하여 산발을 넘나들었다.

필란의 지극한 정성으로 하여 7년만에 남편은 앞을 보게 되였으며 말도 하게 되였다. 그와 동시에 필란의 얼굴에 박혔던 먹물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필란이 남편의 약을 달여서는 한술씩 떠먹어보고 온도를 맞추고 농도를 헤아리는 과정에 약물이 몸에 배여 효험을 나타냈던것이다.

앞을 보고 말을 하게 되자 너무도 기뻐 어쩔줄 모르게 된 그의 남편은 안해의 손을 붙잡고 궁궐로 찾아가 만덕을 만났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범랑은 땅에 꿇어앉아 만덕에게 큰절을 하며 눈물을 흘리였다. 만덕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사위를 붙잡고 어쩔줄 몰라했다.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시이냐? 네가 눈도 뜨고 말도 하게 되다니…》

《이것은 다 아버님께서 도리를 지켜 저를 돌보아준 은혜이옵니다.》

《아니다. 이것이 어찌 인력으로 바랄 일이냐? 하늘이, 하늘이 굽어살피신것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노래가 사람을 감동시킨다 하지 않으셨나이까? 바로 사람의 도리를 굳게 지키시는 아버님의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며 인력으로 바랄수 없는 이 기적이 제몸에 베풀어진것이옵니다.》

《아, 그랬을가.》

하늘을 우러르는 만덕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였다. 기쁨과 감격, 자책과 행복의 눈물이였다.

이때 우륵이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내 평생 내 가야금이 내는 소리보다 아름다운것이 없다고 생각했더니 도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노래보다 아름답구나. 내 오늘 노래가 아름다와야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와지기보다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와야 노래가 또한 아름다와짐을 다시 느끼는바이다.》하고는 다소곳이 서있는 필란의 어깨를 오래도록 두드려주었다.

솔거가 그린 그림

솔거는 신라사람이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그리기를 몹시 즐겨하였다. 생활이 가난하여 끼니를 번지는 날도 많았으나 그림을 그리지 않는 날은 없었다고 한다.

그의 그림솜씨는 당시 누구도 따를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있었다.

그는 황룡사벽에다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가 그린 그림은 한그루의 늙은 소나무였다.

신비로운 화법으로 그려진 로송은 수백년 세파에 부대끼면서도 꿋꿋이 자라온듯 거북잔등같은 껍질이 터진 줄기와 방금 이슬을 머금은듯이 빛을 뿌리는 새파란 솔잎으로 하여 신통히도 살아있는 생신한 소나무와 같았다.

그 로송이 어찌나 생동했던지 까마귀와 소리개, 제비와 참새들이 날아들었다가는 그만 벽에 부딪쳐 떨어지군 하였다.

그리하여 그 그림은 우리 나라에서 보배로 전해오게 되였다.

세월은 흘러 해빛과 눈비와 바람에 그림은 퇴색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아쉽게 여긴 황룡사의 중들이 갖은 정성을 다해 원색을 찾아 애써 색칠을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로송에는 새들이 날아들지 않았다.

솔거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화법은 복구할수 없었던것이다.

우륵의 론거

우륵은 6세기 중엽의 가야사람으로서 가야금을 제작완성하고 수많은 곡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가야국의 정사가 어지러워져 장차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자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넘어왔다.

신라왕은 그를 받아들여 안착시키고 그에게 악공들인 계고, 주지, 만덕 등을 붙이여 가야금을 배우도록 하였다.

우륵은 그들에게 가야금을 배워주고 좋은 곡을 골라 인식시킨 다음 왕앞에서 연주하게 하였다.

왕은 여러 관리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가야금의 음률에 감동되여 매우 기뻐하였다.

한번은 왕의 곁에 있던 한 간사한 관리가 왕에게 일러바쳤다.

《저 가야금에서 울려나오는 음악은 가야를 망친 음악이니 장려할수 없다고 보나이다.》

이 말에 우륵은 통분함을 참지 못해 왕앞에 나섰다.

《옛 사람들이 음악을 만든것은 사람들이 말로나 행동으로 다 표현할수 없는 기쁨이나 슬픔을 전하거나 토로하자고 한것이였으니 그것이 어찌 나라의 쇠락의 근원으로 되겠나이까?

음악이 나라의 쇠락과 멸망의 근원으로 된다면 이 세상에 성하는 나라엔 음악이 없고 쇠락하는 나라에만 음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음악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음악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나이다.

흥하는 나라에선 음악을 바로 쓰고 망하는 나라에선 음악을 바로 쓰지 못할뿐이라고 보나이다.》

이 말에 관리는 얼굴이 붉어져 아무 대답을 못하였고 왕은 우륵의 론거를 찬동하였다.

《네 말이 옳다. 가야가 망한것은 가야왕이 음탕하고 란잡하며 정사를 바로 못한탓이지 음악에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러니 어찌 나라의 태평과 어지러움이 음악에 달려있다고 하겠느냐?》

이리하여 왕은 우륵의 가야금을 더 널리 장려하게 하였다.

설총의 《화왕계》

신라 신문왕때 어느해 여름날이였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드는 궁궐의 정원에서 한가하게 부채질을 하고있던 왕이 설총을 불렀다.

《오늘은 궂은비가 멎고 남풍이 불어 서늘한데 술맛도 나지 않고 음악도 듣기

싫어 마음이 울적하니 그대가 요즘 색다른 소문이라도 들은것이 있으면 나를 위로하여 한마디 하지 않겠느냐?》
설총은 왕의 청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한마디 들은 이야기가 있나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저, 꽃왕에 대한 이야기옵니다.》
《꽃왕이라? 꽃에도 왕이 있단 말이지? 그것 참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 재미있겠다. 그럼 어서 이야기해보아라.》
왕은 눈을 감으며 귀를 기울이였다.
설총은 왕앞에 꿇어앉은채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어느 한 꽃나라에 봄이 찾아오니 온갖 꽃들이 피는중에 꽃왕은 뛰여나게 탐스러이 활짝 피여났습니다.
그러자 멀고 가까운 곳들에서 여러 꽃들이 분주스럽게 찾아와 뵈우면서 저마다 환심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염하게 차림을 한 장미꽃이 꽃왕앞에 얌전하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저는 흰눈같이 깨끗한 모래가에서 거울같은 바다에 얼굴을 비쳐보고 봄비에 몸을 씻으며 청풍을 즐기는 한가로운 장미옵니다. 저는 임금의 높으신 덕을 삼가 듣고 향기로운 당신을 곁에 모시기를 원하오니 제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라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뒤이어 지팽이를 짚고 굽은 몸을 비틀거리며 꽃왕을 찾아온 할미꽃이 말하기를 〈저는 저 높은 산기슭에 부지하여 피는 할미꽃이옵니다. 예로부터 아무리 고량진미로 배를 채운다해도 약을 써야 기운을 보태고 아무리 좋은 옷감이 있다고 하여도 풀껍질로 짠 굵은베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나이다. 그래 용모는 보잘것 없으나 부족한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는가 해서 왔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장미꽃과 할미꽃이 서로 써주기를 바래 꽃왕앞에 엎드려서 꽃왕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보고있던 한 신하가 꽃왕앞에 나서며 물었습니다.
〈장미꽃과 할미꽃들이 왔으니 어느것을 취하고 어느것을 버리려 하시나이까.〉, 꽃왕은 어여쁜 장미꽃과 허리굽은 할미꽃을 번갈아보면서 〈할미꽃의 말도 옳긴 하나 이처럼 아름다운 장미꽃도 얻기 어려우니 이를 어찌면 좋을고.〉 하면서 망설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할미꽃이 꽃왕앞에 한걸음 나서며 웨쳤습니다.
〈대체로 임금된이치고 간사한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곧은자를 멀리하지 않는이가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임금님은 총명하고 의리를 안다기에 찾아왔더니 인제 알고보니 틀렸나보오이다.〉
할미꽃은 이렇게 탄식조로 말하고 돌아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꽃왕은 벌떡 일어나 할미꽃을 붙들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라고 사과를 하면서 할미꽃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답니다.》
설총이 이야기를 끝마쳤다.
설총의 이야기를 눈을 감고 듣고난 왕은 한동안 조는듯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얼마후 눈을 뜨고 설총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자책으로 어찌할바를 몰라하는것 같았다.

《그대의 이야기에는 실로 깊은 뜻이 있으니 잘 기록하여 왕이 된자들이 훈계로 삼도록 하여라.》

왕은 이와 같이 자기 심정을 고백하였다.

설총은 이 이야기로써 평시에 왕에게 하고싶었던 충고를 드디여 하였다.

이 이야기가 후에 정리되여 《화왕계》라는 중세기의 우수한 우화작품으로 되였다.

설총의 《화왕계》는 그후 왕들을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으로 되였으며 고려의 현종은 그의 업적을 평가하여 《홍유후》라는 칭호까지 주었다.

서동요

신라 진평왕(579년-632년)의 셋째 공주 선화를 자기 안해로 삼으리라 마음먹고있었던 백제의 젊은 총각 서동이 장가갈 나이가 되였을 때에 신라의 수도로 찾아왔다.

서동은 원래 백제의 수도 사비성(오늘의 충청남도 부여)남쪽 어느 한 산기슭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다. 그는 산에 가서 마를 캐다 팔아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왔는데 그를 마캐는 총각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한문자로 마《서》자를 붙이여 서동이라고 하였다.

서동이 어렸을 때 어느날 동무들과 마를 캐러 산으로 오르다가 이웃동네에 새로 시집온 한 새각시를 두고 잘 생겼다, 못 생겼다 말씨름이 벌어졌다.

서동은 친구들앞에서 《나는 잘 생긴 처녀한테 장가들테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한 친구가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생겼다는 공주 선화한테 가지.》라고 하였다.

《선화공주? 그가 정말 세상에 으뜸가는 미인이라면 그한테 장가들테다.》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은 와그르르 웃었다.

《얘, 선화공주가 너같은 거렁뱅이한테 시집오겠대?》

《왜? 나도 총각이 될텐데.》

《하하하… 총각이 되면 아무한테나 장가들수 있다더냐?》

친구들의 놀림을 받게 된 서동은 약이 올랐다.

《들지 않구, 내 꼭 선화공주를 색시로 삼고말테다.》

《하하하…》

이렇게 롱으로 시작된 말에서 기어이 공주를 안해로 삼으리라 마음먹었던 서동은 자라면서 동무들의 롱을 그저 빈말로 넘겨버릴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기골이 장대하게 자라 장가갈 나이가 되자 친구들에게 한 언약을 실행하고저 신라의 수도로 왔던것이다.

그는 공주를 찾아다니면서 만약 공주가 자기를 거렁뱅이라 배척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동리에서 여러번 목격하고 들어온것처럼 공주가 혼자 다닐 때 업어오거나 밤에 그의 방에 뛰쳐들어가 자루에 넣어가지고오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신라의 수도에 와보니 그의 계책은 물거품처럼 산산이 흩어지고말았다.

우선 여기에서 공주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내기도 힘들었다.

서동이 람루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화공주가 어디 사는가고 물으면 모두 대주지 않았을뿐아니라 도리여 미친놈이 아닌가 하여 피해버렸다.

선화공주가 사는 곳이 사량궁이라는것을 겨우 알아내여 찾아갔으나 이번엔 궁을 지키는 군사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어느때건 공주가 궁밖으로 나올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도 볼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은 바질바질 타들었다. 어떻게 하여야 공주를 불러내겠는가?

그를 만나자고 뉘한테 부탁할수도 없는것이고 궁의 담벽앞에서 한번 나오라고 소리를 쳐서 공주를 불러낼수도 없는 일이였다.

《공주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번민속에 모대기고있을 때 매일같이 궁안에서 들려나오는 노래소리와 거리와 골목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그의 머리를 틔여주었다.

《그렇지! 노래로 공주를 불러내자. 노래는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궁궐에 들어갈것이고 노래를 막는 군사도 아직 없지 않는가?》

그는 곧 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는 곡과 공주와 자기의 관계를 담은 가사를 지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길량식으로 가지고왔던 마를 구워 거리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노래를 배워주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을 가서
서동이를
밤이면 안고잔다네

이 노래는 참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거리 저 거리로 퍼졌고 얼마후에는 온 장안에, 나중에는 궁궐에까지 번져가게 되였다.

그러자 공주의 비행을 비난하는 여론이 궁궐안팎에서 떠들썩 했고 고관들은 왕에게 꼬리를 물고 상소하였다.

《이 소문은 근거없는것이오나 공주가 례의법도를 문란시켰다는 소문이 왕성과 온 나라에 퍼지고있으니 무지한 백성들더러 그것이 거짓이라는 한두마디를 해가지고서는 가셔버리기 어렵게 되였나이다. 하는수없이 공주를 궁궐에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하여 온 나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나라의 법도와 만인이 굳게 지켜야 할 례절이 있다는것을 알려야 할가하나이다…》

노한 왕은 신하들의 제의에 따라 선화공주를 멀리 정배보내라는 지시를 내리였다.

억울하게도 공주는 서동의 노래로 하여 궁궐밖으로 쫓겨나오게 되였다.

서동은 사량궁근방에 지켜있다가 귀양지로 가는 공주의 뒤를 따랐다.

《공주님, 저도 귀양지쪽으로 가는 사람이온데 불쌍하게 된 공주님을 위하여 그곳까지 호위해드리고저하오니 저의 소원을 허락해주시기 바라나이다.》

쓸쓸하던 공주는 서동의 청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서동이 공주를 가까이하고보니 선화공주는 소문대로 이 세상에 더는 없을 미인이였고 마음도 어지였다. 서동은 한없는 기쁨과 행복에 가슴설레였다. 그는 밤낮없이 공주곁에서 떠나지 않고 적극 돌봐주고 보호해주었다. 그리고 원래 노래를

잘 부르는 서동인지라 공주의 울적한 기분을 가셔주려고 여러가지 흥겹고 즐거운 노래도 지어 불러주었다.

선화공주는 매우 기뻐하며 거닐 때나 류숙할 때나 서동을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재미나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노래를 청하군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정이 들었다.

드디여 귀양지에 도착하였다.

서동은 공주의 숙소를 마련하여 불편없이 들게 한 다음 공주더러 자기는 할 일을 다 했으니 그만 물러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주는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정배살이가 끝날 때까지 자기를 위로하는 뜻에서 좋은 노래를 불러주기만 해도 보수는 달라는대로 주겠으니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는것이였다.

이 순간을 기다린 서동은 넌지시 공주의 마음을 떠보았다.

《하지만 제가 남자로서 공주님의 곁에 어찌 있겠나이까? 그러다 서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공주님께서는 좋지 않을테니 제가 물러남이 좋을가 생각하나이다.》

《서동이요? 호호호… 난 아직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있어요. 그 사람이 어찌면 이렇게 남을 곤경에 빠뜨려놓을수 있을가요? 한번 속시원히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찌겠나이까?》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이 원한을 기어이 보복하고말터이니 그대는 조금도 겁내지 말아요.》

이때 서동은 정색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가 바루 그 서동이옵니다.》

《아니?!...》

공주는 깜짝 놀랐다.

《저는 백제사람이온데 어렸을 때부터 공주님이 인물이 잘나고 품행이 바르다는 소문을 듣고 기어이 안해로 삼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어 신라에 와서 공주님을 찾고찾다가 나중엔 그런 노래를 지어 나의 뜻을 표하게 되였나이다.》

《…》

공주는 어안이 벙벙해 서있을뿐이였다.

《그러니 저에게 보복을 안기고 내쫓아주기 바라옵니다.》

《아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는 땅에 엎드리고있는 서동의 두손을 잡아일으키고 오래동안 올려다보았다.

공주의 맑고 아름다운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윽토록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며 어깨를 들먹이다가 서동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여 울었다.

이렇게 하여 서동은 선화공주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때 서동이 공주를 불러낸 노래는 《서동요》로 후세에 전해졌다.

백결의 《방아타령》

백결은 신라사람으로서 경주 량산밑에서 살던 음악가였다.

그는 살림이 가난하여 끼니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였고 입고다니던 옷은 마치 백가지 천오리를 붙여 기운것 같다고 하여 그에게 《백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였다.

그는 생활이 그렇듯 가난하였어도 조금도 상심하지 않았고 오직 거문고를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어떠한 감정도 다 표현할수 있게 연주하는데 정력을 다 바쳤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과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였으며 성을 내기도 하고 불평을 토하기도 하였다.

어느해 설명절을 앞둔 날이였다.

명절준비로 이웃집들에서는 방아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쓸쓸한 방안에서 이 소리를 듣다 못해 안해가 백결에게 푸념을 했다.

《남들은 명절맞을 쌀을 찧고있는데 우리만 곡식이 없어 빈방에 앉아있으니 무엇으로 설명절을 쇠겠나이까?》

백결은 넌지시 웃고나서 조용한 말로 달래였다.

《여보, 남의 집 방아찧는 소리가 그렇게 부러우면 내 그대를 위해 방아노래를 지어 위로하겠소.》

백결은 거문고를 당겨 《쿵덕쿵, 쿵덕쿵》방아찧는 소리를 담아 노래를 지어 즐겁게 연주하였는데 그 소리가 집안에 차고넘치였다.

이웃집들에서도 백결의 집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맞추어 방아를 찧으며 노래를 배웠는데 그것이 《방아타령》이였다고 한다.

상 식

《신라방》

8세기 중국(당나라)에 있었던 신라사람들의 거주지역.

중국 산둥성으로부터 쟝쑤성에 이르는 연안일대에는 해외무역에 종사한 신라사람들의 거류지가 많았는데 문등을 비롯한 초주(쟝쑤성)와 사주, 련수현 등주 적산촌 등지에 신라방이 설치되였다.

등주의 신라방에는 신라거류민을 감독하는 신라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으며 그밖의 신라방에는 신라사람인 총관 또는 대사를 비롯하여 전지관과 통역원 등이 배치되여있었다.

신라의 유명한 해상활동가이며 대상인인 장보고가 등주 적산촌에 법화원이라는 절간을 짓고 경영하게 된것도 이 지역에 대한 신라방의 세력침투와 관련되여있었다.

신라방거류민들은 당시 신라를 포함한 동방 여러 나라 봉건통치계급의 사회생활에 쓰는 물품들을 교역하여 치부하였다.

가 야

가야국의 성립

가야는 세나라시기 봉건국가의 하나였다.

B.C. 1세기초 중엽에 봉건소국으로 형성되였다가 1세기 중엽에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등장하였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가야봉건국가 성립직전에 구야(가야)국은 9개 촌, 7만 5 000명의 주민을 가진 상당히 큰 집단이였으며 촌의 우두머리(간, 한)들을 망라하는

자기의 고유한 정치조직을 가지고있었다.

이미 B.C. 1세기 말엽에 구야(가야)국, 안야(아야)국 등을 비롯한 락동강의 중하류일대에 있던 변한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봉건소국들이 세워지게 되였다.

구야국, 안야국을 비롯한 봉건소국들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고있던 시기에 김수로를 우두머리로 하는 북방의 일정한 정치세력집단이 남하하였는데 이들은 토착세력과 결탁하여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A.D. 1세기 중엽에 김수로의 금관국을 중심으로 하는 6개 가야봉건소국들의 련합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이 봉건소국들의 련맹체가 바로 가야봉건국가였다.

가야국은 가락국, 가라국이라고도 불리웠다.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의하면 김수로가 《가락의 9촌을 바라보고》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김수로전에 이미 소국으로서의 가락이란 지명(국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삼국시기에는 받침이 없었기때문에 받침《ㄱ》는 발음되지 않고《ㄹ》는 항상 《ㅇ》와 통합하였다. 따라서 가락은 가라이며 가야이다.

가락국은 대체로 금관가야국을 가리킬 때가 많았다.

6가야중에서 가장 큰것은 락동강어구 오늘의 김해지방에 있던 금관가야국이였다.

6가야의 이름과 중심지는 다음과 같다.

금관가야	경상남도 김해
아라가야	경상남도 함안
소가야	경상남도 고성
대가야	경상북도 고령
성산가야	경상북도 성주
고녕가야	경상북도 함창

이와 같은 가야국들은 분립되여있으면서도 오래동안 공고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금관가야의 중심지는 가야국의 수도로 되였으며 김수로는 건국시조가 되였다.

김수로는 나라이름을 대가락국 또는 가야국이라고 하였다.

김수로가 금관가야국을 세운 때가 A.D. 42년으로 되여있다.

가야의 령역

가야국의 령역은 시기에 따라 변하였다.

《삼국유사》가락국기에 의하면 가야의 령역을《동쪽은 락동강, 서남쪽은 바다,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다.》라고 한것은 고령 대가야가 주도적세력으로 되여있던 5~6세기경의 령역을 말하는것으로 보인다. 가야계통의 지명과 문헌기록 그리고 고고학적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가야의 령역은 제일 강성을 떨칠 때인 3~4세기에는 북쪽은 함창(고녕가야)과 상주, 선산일대까지 미쳤다고 보아진다. 그후 4세기말~5세기초에 와서 고구려를 등에 업은 신라에 의하여 크게 락동강이동지역과 성주(성산)이북지역을 떼운 가야는 동쪽으로 창녕을 제외하는 락동강계선과 그리고 성주와 가야산, 거창, 합천, 지리산, 함양일대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령역이 좁아졌다.

가야의 건국설화(김수로전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실려있는 김수로전설은 대략 아래와 같다.

세상이 생겨난 후 이 땅에는 아직 나라도 왕도 신하도 없었다.

여기에 9명의 한(9한)이 있어 추장이 되여 백성들을 통솔하였다.

어느날 그들이 사는 구지라는 곳에서 수상한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따라 구지봉에 200~300명이 모이니 《여기에 누가 있는가?》하는 소리만 들리였다. 9한들이 《우리가 있습니다.》하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하였다. 《구지입니다.》하니《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하늘에서 보라빛 노끈이 드리워졌는데 그끝에는 붉은 보로 싼 금함이 매달려있었고 금함에서 큰 알 6개가 나왔다. 이튿날 아침에 6개의 금알에서 6가야의 왕들이 나왔다.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여 《수로》라고 하였고 금관국의 왕이 된 김수로는 신답벌에 궁궐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나머지 5명은 5가야의 왕이 되였다.

이 건국설화는 수로의 금관국의 건국을 신비화하면서 봉건국왕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듦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통치를 보다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지만 거기에는 오랜 민간설화, 풍속 등도 반영되여있다.

가야의 경제

가야가 위치한 락동강류역은 온화한 기후와 락동강이 날라온 막대한 량의 토량으로 이루어진 충적벌로 된 지역이였다. 이와 같은 지리적조건은 논농사를 비롯한 농업생산에 매우 유리하였다. 가야사람들은 농사에 유리한 조건을 적극 리용하여 땅을 많이 개간하였다.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에《신답평》(새로 푼 논) 등의 말이 나오는것은 가야농업의 한 측면을 반영한 기사이다. 가야고분에서 쇠보습, 괭이, 호미, 낫 등의 농업도구들이 많이 나오는것은 발전된 가야농업의 수준을 엿보게 한다.

B.C. 1세기경의 유적으로 알려진 다호리유적(경상남도 의창군 동면)은 가야국의 발전모습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다호리무덤에서는 26종에 달하는 유물들이 나왔는데 그가운데는 여러가지 쇠도끼와 따비(보습보다 작고 날이 좁은 농구), 자귀, 괭이 등 철제공구와 쇠검, 놋창과 쇠창 등의 무기류, 유리구슬, 청동거울, 동물모양의 허리띠걸개, 치레거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당시 이 지역에서 철기가 널리 보급되고 경제와 문화가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야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공업이였다. 그중 철정(쇠덩어리)과 제철가공품은 락랑국과 그리고《왜》등지에도 수출되였고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발전된 가야의 쇠부리 및 철가공술은 농업과 함께 가야경제의 2대요소를 이루는 부문으로서 생산력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배무이기술이 발전하였는데 일찍부터 배를 타고 왜땅에 건너가 소국을 세우고 원주민들에게 경제문화적영향을 주었다.

가야의 계급신분관계

가야는 이웃나라들인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으로는 왕과 왕족, 귀족들, 촌락의 우두머리 등이 있었다. 지배계급에 속하는 왕족들과 층층으로 된 귀족관료들은 권력과 재산을 독차지하고 온갖 전횡을 부리였다.

대가야의 지배계급들의 무덤인 지산동 44호, 45호무덤, 합천옥전무덤떼를 비롯한 지배계급의 무덤들에서는 금귀걸이와 금목걸이 등 호화롭고 사치한 껴묻거리들이 나왔고 또 권력의 상징인 고리자루장식큰칼, 재부의 표식인 막대한 량의 쇠도끼와

철정 등이 드러났다. 이것은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얻은 물품들이였다.

피지배계급으로는 크게 량인과 노비가 있었다.

량인은 노비들보다 사회적처지가 좀 나았지만 지배계급의 수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매일반이였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일반사람》이라고 불리운 량인들은 신분적으로는《자유》로왔으나 가혹한 조세와 공물, 부역, 군역 등을 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편 노비는 지배계급들의 완전소유물로서 온갖 천대와 악형을 받는 처지에 있었다.

지산동 44호, 45호무덤, 김해 례안리무덤떼, 창녕 계남리무덤떼를 비롯한 6가야의 중심지에 있는 무덤떼들에서 흔히 보는 지배계급의 무덤들에서는 순장을 한것이 적지 않다.

노비들은 《삼국유사》가락국기 등에 의하면 가정도 이루지 못하며 고된 육체적로동만을 강요당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가야의 대외관계

중세기초에 봉건국가들가운데서 가장 령토가 작고 사방 큰 나라들과 접해있었던 가야는 능동적으로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졌다.

무엇보다먼저 가야는 일찍부터 긴밀한 관계에 있던 신라와의 관계를 신축성있게 가지였다.

가야는 령토확장을 위하여 부단히 공격해오는 신라를 황산강(락동강)전투를 비롯한 여러 싸움에서 방어하는 한편 평화적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실례로 음집벌국과 실직곡국사이에 국경분쟁이 일어났을 때 신라왕의 요청에 의하여 가야국왕이 중재재판을 한것 등은 그러한 실례이다. 그리고 아직 가야에 병합되지 못한 나라들인 포상8주가 아라가야를 쳤을 때 신라가 가야를 지원하여 포상8주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가야는 신라의 병탄정책을 누잦히기 위하여 왕자를 신라의 이찬 비조부(비지배)의 누이에게 장가보내는 전략결혼을 하는 등 융통성있는 대외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가야와 신라와의 관계는 신라의 령토확장책동으로 말미암아 대체로 비우호적이였다.

가야는 신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하여 백제에 적극 접근하여 상하의 동맹관계를 맺었다. 그리하여 391년 가야는 백제와 함께 자기의 손아래동맹자인 《왜》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가야와 백제의 의도는 신라를 지원한 고구려군의 진격으로 하여 실패하고말았다. 그후 또다시 가야와 백제는 399~400년사이에 《왜》의 군사들을 신라지경에 침입시켰으나 고구려의 5만대군은 그들을 격파하고 금관가야국의 종발성을 비롯한 가야의 여러 성들을 함락시켰다.

4세기말~5세기초의 대전쟁은 가야의 국력을 극도로 소모쇠약케 만들었으나 이 전쟁을 통하여 가야는 고구려와 직접 접하면서 고구려문화를 섭취하게 되였다. 가야-백제《동맹》관계는 그후 나라가 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가야는 고구려, 백제와 접촉하면서 선진문물 등을 따라배우기에 힘썼다. 가야유물들에 가야고유의것과 함께 발전된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물이 적지 않은것은 가야의 이러한 자세와 직접 관계된다.

실례로 가야땅에서는 고구려벽화무덤들에서만 보이는 말투구, 갑옷, 기꽂이(사행모양철기), 투구, 갑옷 등이 적지 않게 드러났는데 이것들은 고구려기마무사들을

본따서 만든 강철제품들이다. 한편 가야는 고령대가야가 맹주국으로 있던 5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중국 남제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가야가 남제에 사신을 보내여 일정한 벼슬과 물품들을 주고받은것은 국제적으로도 고령대가야의 맹주적지위를 인정받으며 가야의 대외적권위를 세우려는 의도에서였다.

가야의 종말

일찌기 가야봉건국가(련합체)의 맹주국으로 된 금관가야국은 생산력을 높이고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신라와 맞서싸웠다. 그러나 10여년간 계속된 고구려-신라를 한편으로 하고 백제-가야-《왜》(이또찌마반도의 가야계통세력)를 타방으로 한 4세기말~5세기초의 대전쟁으로 말미암아 금관가야국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리하여 5세기초에는 가야봉건국가의 맹주적지위는 고령대가야에로 넘어갔다. 대가야는 금관가야국의 유력한 집단들을 새로 인입하여 국력을 강화하는 한편 계속 완강하게 신라와 맞서싸웠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로 하여 국내의 사회계급적모순이 격화되면서 대가야는 급속히 약화되였다.

554년 대가야는 백제와 동맹하여 신라의 관산성(옥천)을 들이쳤으나 패하고말았다.

이 싸움에서 패한 대가야는 형식적으로 신라에 복속되였는데 562년 대가야는 마지막힘을 모아 반기를 들고 신라에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신라군의 불의의 공격을 미처 막을수 없었던 가야는 최종적으로 망하고말았다.

이에 앞서 금관가야국도 좌지왕통치시기(407년-421년)의 사회계급적모순 등으로 국력이 쇠약해지자 더는 신라의 공격을 막을수 없게 되여 532년(신라 법흥왕 19년)에 마지막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 그리고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자 료

가야금

우리 나라의 특색있는 민족악기 가야금은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하여 이름지어진 악기이다. 가야고라고도 한다.

가야금은 6세기 중엽에 활동한 가야국의 음악가인 우륵이 당시까지 가야사람들속에 전해진 슬(호슬)과 고구려, 백제에서 전수된 쟁(탄쟁, 추쟁)이라는 현악기를 본따 창안제작한것이다.

가야금의 초기형태는 복판(공명통), 양이두, 담괘, 기괘로 되여있었고 줄은 12줄이였다. 음계는 도, 레, 미, 쏠, 라의 5음계였다.

리조 전반기까지 그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가야금줄을 한줄 더 늘여 13줄로 하였고 조현법은 한가지방법으로 고정시킴으로써 누구나 쉽게 줄을 맞출수 있게 하였다.

종래의 가야금은 5음계체계로서 음역도 넓지 못하여 모든 노래들을 연주하는데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가야금은 7음계체계로 개량된 현대적인 민족악기의 하나로 되였다.

《미마나 미야께》설

삼국시기에 일본 야마또왕정이 금관가야를 거점으로 남부조선일대를 4세기-6세기기간 지배하였다고 하는 궤변, 허황한 설이다.

일본의 옛책에 씌여있는 《미마나》는 가야사람들이 왜땅에 건너가 세운 소국을 가리킨것이다. 가야는 야마또왕정에 관리를 파견하여 자기의 소국을 지배하였는데 그 관리가 있는 기관을 《미야께》라고 하였다. 결국《미마나 미야께》란 왜땅에 있던 《소국에 대한 통제기관》인것이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미마나》가 조선반도남단에 있던 가야국이라고 하면서 거꾸로 된 《미마나 미야께》설을 꾸며내여 억지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어용사가들이 저들의 조선침략책동을 합리화하려는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발 해

발해의 성립과 발전

발해봉건국가는 일찌기 동방의 천년강국이였던 고구려를 계승하여 7세기말부터 10세기초까지 200여년간 존재한 우리 민족의 당당한 주권국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7세기말부터 10세기초까지 200여년간 존재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가 크게 발전하여 해동성국으로 이름을 떨치였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고구려유민들의 투쟁과정에 세워진 나라이다.

668년에 당나라침략자들에 의하여 고구려가 멸망하기는 하였어도 넓은 고구려의 땅이 전부 강점당한것은 아니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동모산(오늘의 중국의 돈화)을 중심으로 하여 백두산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고구려유민들의 정치세력이 형성되게 되였다.

《삼국유사》 권1 말갈발해의 기록에 의하면 《의봉 3년 교종 무인년(678년)에 고(구)려유민들이 태백산(백두산)아래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우고 〈발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후세에 발해국을 세운 정치세력이 670년대에 벌써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형성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정치세력은 그후 보다 강화되여 684년에는 대중상, 대조영에 의하여 소국인 진국을 성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왕운기》(하)에서는 《앞서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이 태백산 남성에 의거하여… 갑신년(684년)에 개국하여 나라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협계태씨족보》 권1 선조세계시조 중상란에서는 《…(그가) 고구려유민들을 이끌고 태백산 동(서)쪽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우고 진국이라고 하였다.》고 전하고있다.

이 진국이 그후 발해황제국의 전신국가였다.

나라를 황제국으로 발전시키려는 큰 포부를 가진 진국왕 대중상은 고구려의 옛 지역을 회복하고 당나라의 동쪽에로의 침략기도를 물리치기 위하여 영주지방에 은밀히 별동대를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영주지방에 파견된 대조영은 696년에 이곳에 살고있던 거란, 말갈인

들과 함께 당나라통치자들을 반대하는 폭동을 조직하고 지휘하였다.

대조영은 고구려유민들과 말갈인들을 이끌고 고구려의 옛땅회복을 위하여 동쪽으로 진격하였다.

697년 4월에 당나라는 돌궐족과 련합하여 서쪽의 거란인 폭동부대를 격파하고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대조영의 부대를 공격하여나섰다.

698년초 대조영은 추격해오는 당나라군대를 천문령(중국 랴오닝성 장우현서쪽)의 유리한 지형을 리용하여 매복진을 펴고 기습전으로 완전소멸하였다.

이때 대중상이 직접 부대를 이끌고와 대조영의 부대와 합세하였다.

이 천문령전투는 발해국창건의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았다. 대조영은 대오를 확대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진격하였다.

진국의 수도 동모산에 도착하자 대조영은 무려 40여만명으로 확대된 대오를 국가방위와 관리에 부합되게 개편하고 698년에 발해황제국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발해국》이란 우리 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스스로 《밝은 사람(나라)》으로 불러오던 관례를 살린 국호였으며 또 이전 고구려때와 같이 실지로 발해연안지역을 차지하였던데로부터 붙인 이름이였다.

발해는 철두철미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

《삼국사기》에서는《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한데 모여 태백산밑을 의지삼아 나라를 세워 그 이름을 발해라고 지었다.》고 하였으며 《삼국유사》, 《구당서》 등 여러 력사문헌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있다.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것은 발해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써놓은 기록과 일본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발해왕은 727년 8월에 첫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면서 일본통치자에게 국서를 써보냈는데 그 국서에서는 발해는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였으며 부여(고구려)의 풍속을 계승하고있다고 하였다.

발해왕의 국서를 받은 일본왕은 답서에서 발해가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고 이전 고구려와 같이 일본과 국교를 가지게 된데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고 하였다.

발해는 나라를 세운 후 국토를 완정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힘을 돌리였다.

발해는 국력이 강화되면서 옛 고구려의 령토를 모두 되찾고 그것을 확장하는 일에 력량을 돌려 사방으로 령토를 많이 넓히였다.

발해국의 령역은 남쪽은 서부의 대동강류역에서 동부의 금야강부근에 이르는 계선을 경계로 하여 신라와 접하였고 동쪽은 멀리 로씨야 연해주, 하바롭스크주에 이르는 조선동해안의 전 지역을 차지하였고 서쪽은 서랴오하하류지방을 포함한 지대를 차지하였으며 북쪽은 허이룽강의 지류인 제야강상류와 오호쯔크해에 이르는 지역을 다 포괄하였다.

그리하여 옛날 고구려령역가운데서 대동강이남부분은 일부 잃었으나 그대신 동쪽과 북쪽에서는 고구려때보다 더 넓은 지역을 새로 차지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발해는 《해동성국》으로 이름떨치였다.

발해의 통치기구는 국왕밑에 중앙정부인 3성 6부와 산하 각 관청들이 있었으며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고 그밑에 현을 두었다.

15부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5개의 부들에 수도와 부수도격의 경을 두었는데 상경룡천부, 중경현덕부, 동경룡원부, 서경압록부, 남경남해부 등의 경을 5경이라 하였다.

발해의 수도는 상경룡천부였다.

경과 부는 다 발해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는 곳이였다.

발해는 고구려의 발전된 경제를 이어받은것으로 하여 경제도 크게 발전하였다.

발해인민들은 자기의 창조적로동으로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고 농업, 수공업, 수산업, 상업과 대외무역 등을 발전시키였다.

발해인민들의 경제생활에서 기본은 농업이였다.

발해에서는 여러가지 곡식과 남새, 과일 등을 생산하였다.

곡식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곡식과 일부 지방에서 벼를 재배하였다.

발해에서는 또한 돼지, 말, 소, 양 등 집짐승기르기도 많이 하였는데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말이였고 발해사람들은 말을 많이 길러서 군마와 교통운수수단으로 리용하였을뿐아니라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발해문화는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아 그 발전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발해사람들은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애국심과 상무적기풍을 계승하여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나라의 번영을 이룩해나갔다.

당시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발해사람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고 발해사람 셋이 모이면 맨손으로도 호랑이를 때려잡을수 있다고 하였다.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발전시켰다는것은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발해의 종말과 유민들의 투쟁

발해는 9세기말~10세기초 자국내의 계급적모순의 악화로 국력이 점차 약화되고 또 그 틈을 노리던 거란침략자들의 침공을 받아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발해는 거란침략의 초기인 924년 5월에 거란의 랴오저우(선양서쪽)를 쳐서 타격을 주었으나 그 성과를 공고히 하지 못하였다.

거란침략자들은 925년말부터 대규모무력침공을 감행하여왔다. 거란태조 야률아보기는 침략군을 내몰아 발해 서쪽의 주요성인 부여성을 포위공격하였다.

부여성군민들은 용감히 싸웠으나 력량상 큰 차이로 하여 926년 1월초에 성을 강점당하였다.

거란침략자들은 곧 발해의 수도에로 달려들었다. 적장 안단이 거느린 1만의 거란선봉군을 맞받아나간 발해의 대신 로상이 지휘한 수도방위군은 용감히 싸웠지만 적을 견제하지 못하고 수도성(홀한성)을 포위당하였다. 홀한성의 군민은 거란침략군의 공격을 여러차례 물리치며 피의 싸움을 벌리였지만 비겁한 국왕 인선을 비롯한 발해봉건통치배들이 침략자들에게 투항함으로써 수도를 점령당하고 나라의 존재를 마치게 되였다.

발해말기의 력사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자만도취하고 안일해이되여 국력을 강화하는 일을 등한시하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기였다.

발해는 멸망하였으나 유민들은 강점자들을 몰아내고 국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옛 발해땅에는 정안국, 오사성발해국, 흥료국, 대발해국 등 발해를 계승한 여러 소국들이 세워졌다.

정안국은 부여부의 동쪽 혼돈강(쑹화강), 압록강의 중상류일대에 오씨가 세운 발해유민들의 소국이였다.

정안국은 국력을 강화하면서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반거란동맹을 형성해나갔다.

970년에 2대왕 오렬만화, 981년 3대왕 오현명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여 반거란동맹을 무으려 하였으나 송나라통치배들의 나약한 태도로 하여 실현을 보지는 못하였다.

정안국은 동족의 나라 고려와의 동맹과 련합에도 적극 노력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안국은 부단히 침입해오는 거란침략군을 물리치고 때로는 적들이 강점하고있는 지역들에 쳐들어가 타격을 안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안국이 언제까지 존재하였는가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사료적으로 뚜렷한것만으로도 80~90년간은 국권을 지키며 반거란투쟁을 벌리였음을 알수 있다.

오사성발해국은 부여부를 중심으로 오씨가 세운 소국이였다.

오사성발해국은 반거란투쟁을 과감히 벌리면서 비교적 오랜 기간 존재하였다.

오사성발해의 군민이 995년에 오소경(오소도)의 지휘밑에 거란침략군을 크게 격퇴해버린 기록이 있으며 《료사》의 기록에는 1114년경 녀진의 거란공격에 합세한것으로 되여있다.

국토회복을 위한 발해유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1029년 8월초 거란관할하의 동경도의 직할현 9개 소속 주, 부, 군 87개 지역의 발해유민들은 동경도관하 발해군의 군장관(사령관격)이였던 대연림의 지휘밑에 거란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폭동에 궐기하였다. 폭동군은 거란의 동경류수 부마도위 소효선과 그의 처 최팔을 동경성(랴오양성)에 잡아가두고 거란관리들을 처단하였으며 새로운 발해유민국가인 흥료국을 세웠다. 대연림이 흥료국왕으로 되고 년호를 《천경》으로 제정하였다.

흥료국은 랴오둥지방의 전체 인민을 반거란투쟁에 일떠세우며 동시에 한인, 녀진인들이 여기에 지원하도록 해나갔다. 또한 보주성의 장군 하행미에게 이 투쟁에 합세할것을 호소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한편 발해유민들의 폭동급보를 받은 거란황제 성종은 각 도에 명령하여 랴오둥으로 진공하도록 하였고 흑산현일대의 부마도위(절도사) 소필적이 랴오하도하지점들을 가로막아 폭동군의 서쪽으로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일시 불리한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그러한 속에서도 폭동군은 10월초 대규모무력으로 공격해오는 거란침략군을 격파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수산전투에서 다시금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들이 총력을 다해 반격하여오자 랴오양성에서 방어전으로 이행하였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대연림은 고길덕을 고려에 보내여 군사적지원을 청하였으나 당시 고려통치배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음으로써 고립적으로 싸워야 하였다. 흥료국의 발해유민들은 1년동안 굴함없이 싸웠으나 지배층안에 투항분자들이 나타났다. 랴오양성방어를 지휘하던 장군 양상세라는자가 성문을 열어놓고 투항함으로써 흥료국도 존재를 마치였다.

발해유민들은 1115년 2월에 묘주(네이멍구 츠펑)에서 고욕을 대왕으로 내세우고 폭동을 일으키였다. 이때 보병, 기병 3만여명이 달려드는 침략군을 두차례 격파하였으나 곧 적들의 계책에 걸려들어 패하고말았다.

발해유민들이 1116년 1월에는 동경랴오양부를 중심으로 발해무용마군 지휘관이였던 고영창의 지휘밑에 류수 소보선을 처단하고 랴오양성을 장악하였다.

초기에 벌써 그 투쟁대오가 8 000명을 넘었고 국권회복기운은 매우 높았다.

고영창은 이에 기초하여 대발해국의 창립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여 년호까지《륭기》라고 제정하였다.

대발해국은 산하 각 주에 부대들을 두고 발해유민들을 집결하면서 거란관리들을

처단하였으며 거란침략군을 견제하였다. 대발해는 거란에 대처하는데서 녀진(금)과의 동맹을 중요시하였다.

거란통치배들은 급격히 장성하는 대발해국을 초기에 제압할 기도밑에 남부재상 장림에게 대병력을 주어 공격하도록 하였다.

대발해군민은 거란군과 30여차의 격전을 벌려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투쟁성과를 확대공고화하기 위하여 중첩되는 난관을 굴함없이 맞받아나갔다.

그러나 거란이 결정적타격을 가해올 때 금나라배신자들이 거란에 기울어짐으로써 실패당하고말았다.

이와 같이 발해유민들은 높은 애국심을 안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을 세기에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하여왔다.

그러나 발해유민들의 투쟁은 통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간악한 침략자들의 책동과 시기시기 투쟁대오의 지휘층에서 투항분자들이 나타나는 등으로 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발해왕조의 계보

№	왕명	년대	№	왕명	년대
①	고왕	(대조영698-719)	⑨	간왕	(816-817)
②	무왕	(719-737)	⑩	선왕	(817-830)
③	문왕	(737-793)	⑪	화왕	(이진 830-857)
④	○왕	(원의 793-794)	⑫	원왕	(건황 857-871)
⑤	성왕	(794)	⑬	경왕	(871-894)
⑥	강왕	(794-808)	⑭	○왕	(위해 894-906)
⑦	정왕	(808-812)	⑮	애왕	(인선 906-926)
⑧	희왕	(812-816)			

발해의 교육

발해의 교육은 봉건지배계급의 계급적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데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었다.

발해의 교육은 고구려의 교육을 계승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에 있었다.

발해시기 교육기관은 크게 봉건관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의 주자감과 민간교육기관으로 갈라볼수 있다.

주자감은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발해봉건국가의 중앙교육기관이였다.

거기에는 감, 장과 같은 벼슬을 가진 교관들이 배치되였다.

발해의 주자감은 봉건관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된 국가의 중앙교육기관이였으므로 거기에서는 지배계급의 자식들만 공부할수 있었다.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가 자리잡고있던 동경성유적에서 당시 주자감에 세워졌던것으로 짐작되는 비석이 나왔는데 그 비문의 내용은 발해의 주자감이 매우 흥성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발해의 교육기관에는 주자감뿐아니라 고구려의 경당과 같이 일정한 범위의 평민들의 자식까지도 공부할수 있는 학교들이 운영되고있었다.

9세기초에 제정공포된 발해봉건국가의 기본률령인 《전법9사》의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학교는 인간의 륜리를 밝게 내걸고 나라의 명맥을 배양한다.》(《협계태씨족보》 권1 발해국왕세략사 건흥 11년 9월)

봉건국가의 기본률령에서 학교제도를 강조하고있는것은 발해에서 교육에 그만큼 국가적인 큰 관심이 돌려지고있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주자감을 비롯한 발해의 학교들에서는 유교경전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력사, 법률, 의학, 글씨, 수학, 음악, 무술 등 다양한 과목을 교육하였다.

력사자료에 의하면 발해에서는 의학교육을 주기 위하여 약물학서적인 《본초경》과 의학의 기초리론과 관련한 《갑을경》 그리고 내과리론 및 치료방법을 주되는 내용으로 삼고있는《소문경》, 침구술과 외과부문의 전문서적들인 《침경》,《명당경》등을 교재로 리용하였다.(《협계태씨족보》 권1 발해국왕세략사 고왕)

발해의 교육에서 특히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있은것은 무술교육이였다.

발해사람들도 고구려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예를 숭상하고 무술을 배우는것을 하나의 의무로 간주하고있었으며 이로부터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 창쓰기와 같은 무술교육에 큰 관심을 돌리였다.

이밖에 발해의 학교교육에서는 수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부문의 교육도 진행되였다.

859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간 오효신이 천문력서를 가지고가서 리용방법을 일본인들에게 가르쳐주었다는 사실은 발해의 천문학교육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861년부터 1684년까지 823년동안이나 《선명력》을 사용하였다.

발해의 교육발전면모는 중앙에 문적원이라는 기관을 두고 각종 도서들을 장서하고있은 사실을 통하여서도 찾아볼수 있다.

발해의 통치제도

발해는 건국초기부터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통치기구를 편성하고 그것을 점차 정비강화하였다.

발해의 중앙통치기구는 3성 6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각 관청들이 배합되여 구성되여있었다.

3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등 3개의 성이였고 6부는 충부(리부), 인부(호부), 의부(례부), 지부(병부), 례부(형부), 신부(공부) 등 6개의 행정부서였다.

정당성은 6부를 지도하는 최고행정기관이였다.

6부가운데서 충부는 문관관리들을 임명, 파면하고 공훈급수를 정하며 작위를 봉하고 관리들의 《성적》을 고시하는 등 봉건국가의 인사행정사업을 맡아보는 부서였으며 인부는 토지, 호구, 조세, 재정 등을 담당한 재정경제부서였다. 의부는 각종 의례, 제사, 과거시험, 학교운영, 대외관계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부서였으며 지부는 무관의 임명과 파면, 군대와 군마, 무기, 군량, 왕궁경비, 성새 등을 담당한 군사행정부서였다. 그리고 례부는 법률과 명령, 형벌, 노비재판 등 사법행정을 맡아보는 부서였으며 신부는 산림, 도로, 강하천, 공사 및 수공업경영을 맡아보는 부서였다.

정당성의 장관은 대내상이였으며 그 다음가는 대신은 좌사정, 우사정이였고 사정의 밑에 좌윤, 우윤이 있었다.

행정 각 부밑에는 그 산하기관이 각각 있었는데 그것을 정사, 지사라고 하였다.

각 행정부서의 장관으로는 경이 1명씩 있었으며 부밑의 정사, 지사에는 각각 1명의 랑중과 1~2명의 원외감이 있었다.

선조성은 왕의 명령, 지시를 선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기관이였는데 그 장관은 좌상이라고 하였다. 좌상밑에는 대신급벼슬로 좌평장사, 시중이 각각 1명씩 있었고 또 그밑에 좌상사, 간의 등의 벼슬이 있었다.

중앙기관으로서 또한 왕의 명령지시초안을 작성하는 중대성이 있었는데 그 장관은 우상이라고 불렀다.

우상의 밑에는 우평장사, 내사가 각각 1명씩 있었고 또 그밑으로 조고, 사인등이 있었다.

3성 6부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봉건국왕의 권위를 보장하고 중앙집권적통치를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발해국가에는 3성 6부아래에 많은 행정관청들이 있었다. 그러한 관청으로서 중정대, 전중시, 종속시, 문적원, 태상시, 사빈시, 대농시, 사장시, 사선시, 주자감, 항백국, 화간원 등을 들수 있다.

발해의 지방행정구역으로는 5경 15부 62주가 정비되여있었고 각 주의 밑에는 여러개의 현들이 있었다.

경과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을 두어 통치하였다.

지방장관들은 대체로 민사행정뿐아니라 재판권, 군사권도 장악한 방대한 권력을 소유하고있었다.

발해국의 군대제도는 중앙군대와 지방군대로 나뉘여져있었다.

중앙군대로서는 좌맹분위, 우맹분위, 좌웅위, 우웅위, 좌비위, 우비위, 남좌위, 남우위, 북좌위, 북우위 등 이름을 가진 10개 부대가 있었는데 위들에는 각각 대장군 1명, 장군 1명과 일정한 수의 무관들이 있었다.

중앙군은 근위부대와 도성을 지키는 일반부대로 갈라져있었다.

지방군대는 경, 부, 주, 현의 도독(절도사), 자사, 현승 등 지방행정장관들이 각각 겸임하여 지휘하는 부대들과 독립적인 지휘체계를 가진 부대들이 있었다.

발해국가의 관료기구는 구체적인 벼슬과 함께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높고낮은 등급을 규정하는 벼슬등급(위계 또는 품계)제도가 안받침되여있었다.

벼슬등급은 일반적으로 1품에서 9품에 이르는 9등급으로 나누고 같은 등급안에서 정(같은 등급안의 웃자리)과 종(같은 등급안의 아래자리)을 구분하며 일부 등급에서는 정, 종안에서 다시 상(우), 하(아래)를 구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정, 종, 상, 하의 계층들에는 각각 해당한 이름을 붙이였다. 이러한 발해의 봉건적계층제도는 지배계급내부에서의 차별을 규정하는 제도인 동시에 인민들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의 구체화였다.

발해-당나라관계

발해국이 세워진 후에도 당나라는 발해를 자기 세력밑에 두려고 계속 책동하였다. 발해국의 고왕 대조영은 당나라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하여 서방의 돌궐 등 주변나라들과 접근하여 동맹관계를 맺었다.

8세기초 제2대왕 무왕통치시기(719년-737년)에 발해가 안정되고 국력을 강화해나가게 되자 이에 불안을 느낀 당나라는 흑수말갈을 조종하여 발해를 공격하는 등 침략책동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726년 흑수말갈에 대한 발해의 공격과 732년 대장 장문휴의 당나라 등주(오늘의 산둥성 펑라이현 동남)공격으로 도리여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이에 당황한 당나라는 733년에 또다시 발해를 침략하려 하였으나 그때에도 사전제압당하였다.

그후에도 발해에 대한 당나라의 침략야욕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러차례의 원정개혁이 실패됨으로써 더는 발해침공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떠들어대지 못하였다. 발해는 8세기 중엽이후 당나라의 복잡한 대내외정세를 유리하게 리용하면서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해나갔다.

발해는 당나라와 무역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것은 사신래왕때에 례물교환의 형식이나 당나라상인들과 직접 교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발해의 수출품은 여러가지 공예품과 고급털가죽, 각종 약재류, 여러가지 천, 구리, 말과 양, 물고기 등이였으며 수입품은 견직물, 마포, 특수한 약재 등이였다.

9세기말 이후 거란족이 일어나고 당나라가 쇠약해지자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였다.

발해-일본관계

발해가 8세기 전반기(무왕때)부터 일본과 정식 사신을 교환한 후 나라가 존재하는 전기간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비교적 가까왔다.

727년 사신 고인, 덕주, 고재덕 등이 처음으로 일본에 파견된이래 배구가 일본에 간 920년까지 발해사신의 왕래는 30여차례에 달하였다.

발해 무왕이 727년에 일본왕에게 편지를 보내여 발해가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문화를 계승한 고구려왕국의 후계국이라는것을 선언하고 앞으로 두 나라사이에 래왕이 있기를 바란다고 정식통고하였다.

일본왕은 이듬해 6월 답례로 사신을 보내여왔다.

발해의 무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를 고구려국왕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후 두 나라사이에는 사신들의 래왕이 비교적 자주 있었다.

발해통치자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주되는 목적은 정치적인것보다도 경제적거래를 가지려는데 있었다.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거래는 주로 사신이 오고갈 때에 국왕들의 선사품교환의 형식으로 진행되였고 때로는 이 사신일행에 따라가는 상인들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발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바다길은 사나운 풍랑과 싸우는 험난한 길이였으나 위험을 무릅쓰고 사신들을 보내고 무역을 진행하였던것이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공예품과 여러가지 털가죽, 천류, 인삼을 비롯한 약재 등이였다.

수입품은 비단을 비롯한 천류, 수은 등이였다.

일본은 발해에 류학생을 파견하여 언어와 음악 등을 배워갔다.

9세기 중엽 발해에서 일본에 전달된 《선명력》이라는 천문력서는 그후 일본에서 800여년동안 리용되였으며 발해사람 양태사, 왕효렴, 배정 등은 일본에 건너가 시문학으로 이름을 떨치였고 발해의 음악은 일본음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

발해의 유적과 유물

상경룡천부터

상경룡천부터는 중국 헤이룽강성 닝안시에 있다.

상경룡천부는 발해의 수도였다.

처음에 수도를 동모산(오늘의 둔화지방)에 정하였던 발해는 인차 수도를 중경현덕부(오늘의 허룽시 서고성터)로 옮겼다가 국력이 강해지고 령토가 확장됨에 따라 큰 규모의 수도성을 상경룡천부에 건설하고 755년에 거기로 수도를 옮겼다. 그후 785년부터 794년까지 동경룡원부에 옮겨갔다가 다시 상경룡천부로 옮긴 후 계속 발해의 수도로 번영하였다.

상경룡천부터는 주위가 수백리에 달하는 평탄한 분지 한가운데에 자리잡고있는 대규모의 평지도시성이다.

상경룡천부터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생겼는데 네 성벽 한 변의 길이는 10리 안쪽둘레는 1만 6 296.5m 즉 약 40리에 달한다. 성벽밖으로는 해자를 돌리고 무단강물을 끌어들여 물을 채웠다.

상경룡천부는 외성과 황성, 궁성으로 구분되였고 황성과 궁성은 성의 북쪽중앙에 위치하였다.

외성의 성벽은 돌로 성심을 넣고 겉에 흙을 씌우는 토석혼축방법으로 쌓았으며 동서남북 서로 대칭되는 위치에 10개의 외성문을 세웠다. 외성의 성문들사이는 크고작은 도로들로 이어졌다. 그중 중앙대통로의 너비는 110m에 달한다.

외성은 주민지대로서 당시 도시구획의 단위인 리방들로 가득 채워졌다.

리방을 뭇는 방식은 민족적특성을 반영하는데 상경룡천부의 리방결합방식은 리방을 4개씩 田모양으로 묶은것이다.

리방들 주위에는 돌로 쌓은 리방벽이 돌려졌다.

황성에는 당시 중앙정부기관들인 3성6부 등이 차지하고있었다.

황성남문이 발굴되였는데 그것도 3개의 문길을 가진 대문채식의 문이였다.

황성의 북쪽에 위치한 궁성은 중심구역과 동, 서, 북쪽의 4개 구역으로 구분되였다.

여기에서 기본은 중심구역이며 그 남북길이는 720m, 동서너비는 620m, 둘레는 2 680m이다. 여기에서 37개의 궁전터들이 확인되였다.

궁전터들가운데는 동서길이가 약 56m 되는 제1궁전터도 있고 동서길이가 약 120m나 되는 제2궁전터도 있으며 구들시설을 갖춘 제4궁전터, 제4궁전 서전터, 궁성서구 침전터 같은것들이 있다.

궁성의 동쪽구역에는 궁성놀이터인 《금원지》가 전개되고 기본궁전들의 서쪽에는 경리구역이 배치되여있다.

상경룡천부터의 지리적환경과 규모, 성의 구성, 궁성의 배치와 건물형식, 난방시설 그리고 외성의 리방조직형식 등은 고구려 평양성, 안학궁의것과 비슷하다.

고구려 평양성의 둘레가 약 16km이며 성안이 외성, 내성(환성), 궁성 그리고 북성(발해에서는 궁성의 북쪽구역)으로 구분된 점, 궁성의 규모가 비슷하고 배치원칙이 같다는 점 등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뚜렷이 보여준다.

상경룡천부 궁성서구 침전터

상경룡천부 궁성의 중심구역은 다시 중구와 동구, 서구로 구분되는데 이 집터는 북쪽부분에서 발굴되였다.

궁성서구 침전터의 평면은 동서로 긴 장방형이며 기단의 크기는 동서 28.95m, 남북 17.31m, 높이 0.15m이다. 기단우에는 회랑에 둘러싸인 몸채가 있고 기단뒤로 2개의 큰 굴뚝이 뻗었다. 기단과 굴뚝둘레에는 물도랑이 돌려졌다.

회랑은 정면 10간, 측면 5간으로 되였으며 동서로 잇달린 3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몸채의 크기는 동서 19.5m, 남북 7.55m이다.

이 침전터의 구조상특징은 3개의 방과 서, 북회랑에 구들을 놓은것이다. 난방시설형식은 민족을 구분하는 풍속상 가림징표의 하나인데 구들은 조선민족에게 고유한 난방형식인것이다.

여기에 놓은 구들가운데서 북회랑의 2개 구들만 외고래이고 나머지는 두고래이다.

외고래구들은《조돌》의 역할을 하였다. 모든 구들들은 기단북쪽에 낸 2개의 큰 굴뚝에 이어졌다.

굴뚝의 규모는 동서 약 5m, 남북 5.3m나 되며 기와잇듯이 이은것이였다.

궁성서구 침전터의 구조구성과 난방형식은 고구려의 동대자유적과 매우 비슷하다.

고구려 동대자유적도 기단우에 3개의 방으로 이루어지고 방들에 구들이 놓여있었다.

이것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문화와 풍속 등에서 공통성을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로 된다.

상경룡천부 제1절터

상경룡천부에는 10여개의 절간이 있었는데 건물은 모두 없어지고 그 터만이 남아있다.

그가운데서 제일 크고 대표적인것이 제1절터이다.

이 절터는 동반성에 자리잡고있는데 여기서 정전이라는 건물자리만 발굴되였다.

발굴에 의하면 정전은 본채와 좌우의 곁채가 하나로 련결된 밑단우에 남향으로 놓여있었으며 본채와 곁채사이는 통로로 이어져있었다. 정전이 서있던 밑단의 동서길이는 50.66m에 이른다.

밑단은 건물주위를 따라 상대석, 중대석, 하대석이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돌을 규모있게 놓고 그우에 회죽으로 미장하여 반듯하면서도 굳게 하였다.

계단은 남쪽에 2개, 북쪽에 1개 있었다.

본채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그것은 정면 5간, 옆면 4간으로 되여있었다.

본채안의 중앙에는 정면 3간, 옆면 2간의 속칸을 이루고 그안에 한단 높게 만든 불단이 있었다.

불단우에는 9개의 불좌석이 놓여있었는데 주불좌석은 8각형 비슷하게 다듬어 만든것이였다.

본채의 앞면 5간은 모두 문을 내여 사람이 드나들게 되여있었다. 뒤면에는 중앙 한칸에만 문이 있었고 좌우에는 통로를 통하여 곁채로 나가는 문이 있었다. 좌우 곁채의 평면은 방형이며 그것은 각각 앞면 3간, 옆면 3간으로 되여있었다.

곁채들은 불교와 관련한 책들을 보관하던 경루와 종을 매달았던 종루로 보인다.

정전에서는 풀색유약을 바른 기와, 지붕의 용마루, 괴상한 얼굴모양을 한 장식판이 수많이 나왔다.

그리고 본채자리에서는 큰 기와가 나왔고 곁채자리들에서는 작은 기와가 알려졌다.

이것은 지붕을 칠물을 발라 반들거리는 풀색기와로 화려하게 이으면서도 건물의 규모와 사명에 따라 기와의 크기도 서로 다르게 하였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채자리에서는 많은 조각들과 함께 벽화쪼각들이 발굴되였다. 이것은 본채내부가 매우 화려하게 장식되여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본채에서는 많은 흙부처와 함께 사기단지도 나왔다. 사기단지의 색갈은 어두운 가지색이다. 이러한 사기단지는 리방벽에서 나온 흰사기보시기와 함께 발해도자기공예술을 알수 있게 하는 유물이다.

상경룡천부 제1절터는 고구려자를 계승한 발해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밀하게 세워진 훌륭한 건물터로서 당시 우리 인민의 높은 건축기술을 보여준다.

연해주에 있는 발해유적

로씨야 원동의 연해주지방에 있는 챠삐끄우강 좌안 아브리끄쏘브언덕 북쪽기슭에는 발해시기의 절간자리가 있다.

이것을 이 지방이름을 따서 아브리끄쏘브절터라고 한다.

연해주지방에는 발해시기 여러 부들이 자리잡고있은것으로 하여 발해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발굴된 절간자리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대지의 복판에 있다.

절터의 평면은 정방형이며 그 한변의 길이는 8.45~8.5m이다. 밑단 앞뒤에는 계단이 하나씩 놓이고 밑단둘레에는 도랑이 있다.

밑단우에는 앞면 4간, 옆면 4간으로 된 몸채가 놓여있었다.

몸채복판에는 넓은 공간을 조성하여 불상도 놓고 공양드리는 장소로도 쓰게 하였던것이다.

벽체에는 회죽으로 곱게 미장하고 기하학적무늬를 그렸던 흔적이 있다.

이 절터에서는 여러가지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 물결무늬와 공작새무늬를 새긴 암기와는 물론 등이 휘여오른 곱새기와, 마루새기와는 발해의것과 모습이 같다.

절간자리에서는 이밖에도 룡마루장식기와인 치미도 나왔다.

치미는 상상동물인 룡대가리에 날짐승의 깃을 단 형식으로 만든것인데 그 높이는 80cm나 된다.

이곳에서 발굴된 짐승조각, 부처들, 수많은 그릇류들은 발해의 지방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있었다는것과 발해의 령역이 당시 상당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상경돌등

상경돌등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 제2절터에 남아있는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가장 크고 오랜 돌등가운데 하나이다. 상경돌등은 발해가 수도를 상경룡천부로 옮겨올무렵인 8세기 중엽에 만든것으로서 현재의 높이는 약 6m에 달한다. 그것을 원상대로 복구해놓으면 높이는 6.3m 된다고 한다.

이 돌등은 우리 나라에서 돌탑과 함께 독특하게 발전한 조형예술품이다.

검푸른 현무암으로 만든 상경돌등은 받침대, 기둥, 불집, 머리의 4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기둥돌과 돌등머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받침돌과 불집들은 8각정자를 방불케 만들고 기둥돌은 배부른기둥으로 되였다.

우아래의 균형이 잘 째이고 각 부분이 잘 조화되여 전체로 보아 웅건하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특히 아래부분을 크고 듬직하게 하고 웃부분을 가볍고 섬세하게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기운차게 보이게 하였다.

또한 탁탁한 받침대와 시원한 불집, 살진 기둥자리들과 아기자기한 기와를 서로 마주 세움으로써 돌등 각 부분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상경돌등은 형태와 축도기준, 조각수법 등에서 고구려적성격을 짙게 풍기고있다.

이 돌등은 비록 불교의 교리를 선전하는 시설물의 하나였지만 그 높은 조각기술은 아름답고 웅건한 돌등의 전형으로 되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걸작품의 하나로 평가되고있다.

청해토성터

청해토성은 발해령역의 남단인 조선동해에 림한 평지성으로서 함경남도 북청군 하호리에 있다. 이 성은 청해토성이란 이름밖에도 북청토성, 신창토성, 하호토성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여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거산성과 평리무덤떼, 절골유적 등 발해유적이

있고《발해고도지》라고 새긴 비석이 있다. 성이 자리잡았던 부지는 동서로 길게 생겼는데 지금 그 서쪽부분에만 성벽이 남아있다. 그 길이는 동쪽 332m, 서쪽 342m로서 그 둘레는 1 342m이다.

성의 둘레에는 본래 해자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남쪽성벽의 서쪽부분에 치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외에 치가 더 있었다. 서쪽성벽 중간쯤에는 성문터가 있으며 성의 동남모서리에는 문확들이 있었다.

20세기초까지 지금 남은 성벽이외에 동쪽대지까지 포괄하는 성벽이 더 있었다고 한다.

1916년에 작성한 지도에도 그 흔적이 표시되여있다.

그것을 보면 동남모서리에서 나온 문확들은 본래 성의 남중문터에 해당하는것이였음을 알수 있다.

동쪽대지까지 포괄한 성의 규모는 동쪽과 서쪽이 각각 342m, 남쪽과 북쪽이 각각 724m로서 그 둘레는 2 132m에 달한다.

지금 이 동쪽대지에 《동경수》라고 불리우는 발해때의 8각돌우물이 남아있는데 《동경수》가 있는 동반성을 《동경》으로, 지금 성벽이 남아있는 서반성을 《서경》으로 불렀을수 있다고 보아진다.

성문은 축대를 높이 따로 쌓지 않은 대문채식이였으며 지금 성안 도로들로 구분된 구획에는 건물들이 있었다.

성안 북쪽부분에서 기와집터들과 구들시설들이 발굴되였는데 여기에서《동경수》까지 포함하여 3개의 돌우물이 알려졌다.

유적에서 발굴된 갑옷쪼각, 활촉, 창끝을 비롯한 무기무장류, 말등자 등 마구부속품, 낫, 작두, 삽 등 생산도구류, 기와와 벽돌, 그릇류 등은 이 토성에 급이 높은 통치집단이 살았다는것을 짐작케 한다.

청해토성은 발해 5경의 하나인 남경남해부가 자리잡았던 곳이다.

732~733년 발해-당전쟁

고구려를 계승하여 일떠선 발해는 건국후 20여년동안에 속말말갈땅(오늘의 둥징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비롯한 말갈족의 대부분지역들과 오늘 우리 나라의 북부, 중국동북지방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광활한 지대를 개척하여 남쪽은 신라, 동쪽은 바다(조선동해), 북쪽은 흑수말갈, 서쪽은 거란과 각각 접하게 되였으며 정예부대 수십만명을 가진 강국으로 장성하였다.

발해가 동방의 강국으로 장성하는데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긴 당나라는 감히 정면으로 대결하여 나설수는 없고 하여 흑수말갈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겨 그를 리용하려고 하였다. 흑수말갈은 직접 발해에 속해있지는 않았지만 발해가 두려워 초기에는 감히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726년에 와서 흑수말갈인들은 발해에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않고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그의 《보호》를 요청하여나섰다.

흑수말갈의 힘을 빌어 발해를 침공하려고 계획하고있던 당나라통치배들은 이것을 더없는 좋은 기회로 리용하여 흑수국을 《흑수주》로 개칭하고 거기에

자기의 장사(감독관)를 파견하여 통제하게 하였다.

이것은 발해에 대한 당나라의 로골적인 위협인 동시에 심한 배신행위였다.

그리하여 발해는 대군으로 흑수말갈을 들이치고 그를 굴복시켰으며 앞으로 발해를 반대하여 당나라와 협력하지 말것을 다짐받았다.

당시 발해의 왕이였던 무왕은 련이어 당나라를 타격할것을 결심하고 전쟁준비를 해나갔다.

드디여 발해는 732년 9월에 대장 장문휴에게 수군무력을 이끌고가서 등주(지금의 산둥성 펑라이현동남)를 공격할것을 명령하였다.

장문휴가 거느린 발해군은 곧 압록강입구와 랴오둥반도남단의 수군기지들을 떠나 바다길로 당나라 등주를 기습하였다.

등주관내에는 주로 당나라의 동해연안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병력의 수군과 륙군이 있었으나 발해군은 전격전으로 이 방어군들을 소탕하고 곧바로 등주성을 습격하여 그 자사 위준을 잡아죽였다. 발해군은 계속하여 반항자들을 모조리 섬멸하고 곧 철수하였다.

무왕은 한편으로 륙군무력을 이끌고 랴오시방면으로 진격하여 당나라의 영주산하 고을들을 점령하고 마도산(도산)으로 진격하였다.

급해맞은 당나라통치배들은 반역자 대문예를 유주에 보내여 군사들을 징발하여 싸우게 하는 한편 유주절도사로 하여금 《허베이채방처치사》를 겸임하게 하고 상주, 락주, 패주, 기주, 위주 등 16개 주를 관할하면서 평주(로룽)에 있게 하였다. 또한 당나라에 가있던 신라왕족 김사란을 돌려보내여 신라군이 남쪽으로부터 발해를 치도록 하였다.

마도산까지 진격한 발해군을 막기 위하여 당나라군대의 지휘자 오승자(오승흡)는 숱한 로력을 동원하여 만리장성계선 400리구간에 깊이, 높이가 각각 3길이나 되는 참호와 성벽 방위시설을 만들었다.

발해는 전쟁의 목적이 배신적인 당나라통치배들의 오만성을 꺾어놓고 그 침략기도를 좌절시키는데 있었던것만큼 얼마동안 차지하고있다가 733년초에 주동적으로 철수하였다.

후기신라통치배들은 당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적립장과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에 대한 적대시정책으로부터 많은 군사를 발해남쪽으로 내보냈으나 때마침 그해 겨울에 큰 눈이 와서 수많은 동상자, 동사자를 내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물러가고말았다.

이리하여 732~733년 발해-당전쟁은 발해군의 커다란 승리로 끝났다.

자 료

고구려를 발해로 이어놓은 대조영

발해봉건국가의 건국자인 대조영은 고구려의 귀족이고 군사지휘자, 장군이였다.

고구려가 무너진 후 그 유민들가운데 일부가 랴오하를 건너 영주지방(오늘의

랴오시, 러하일대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지방)으로 강제이주당하였다.

고구려유민들과 함께 적지 않은 말갈인들도 이 지방에 이주되게 되였다.

고구려유민들은 696년 5월 영주에서 말갈족, 거란족과 련합하여 당나라침략군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대조영은 고구려폭동군을 이끌고 말갈인부대와 함께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폭동군들은 영주의 동방 및 동남방의 여러 성들을 쳐서 침략군을 소멸하고 9월에는 랴오시 고성(다링하하류지방)에 옮겨와있던 《안동도호부》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당나라침략군은 리해고가 지휘하는 대군을 파견하여 고구려군과 말갈군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당나라 《토벌》군은 먼저 말갈군과 맞다들었다.

말갈폭동군은 용감히 싸웠으나 력량상 차이로 결국은 부대가 격파되게 되였다.

적장 리해고는 다시 고구려폭동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적들은 698년에 천문령(중국 랴오닝성 장우서쪽 산지대에 있는 령)에서 대조영이 이끄는 고구려군의 매복진에 걸려 거의 전멸당하였고 리해고자신은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치고말았다.

천문령전투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한 고구려군은 대조영의 지휘밑에 랴오하를 건너 동모산(중국 지린성 둔화부근)에 자리잡았다.

대조영은 동모산을 근거지로 하여 이전 고구려령역안의 많은 유민들을 집결하고 그들사이에 련합을 강화하면서 적들의 침입에 대처할 준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봉건세력집단이 형성강화되게 되였다.

대조영은 이미 이룩한 군사적승리와 정치적력량에 기초하여 698년에 새 봉건국가인 발해를 세웠다.

대조영은 나라를 세운 후 선행한 고구려문물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봉건통치체제를 정비강화해나갔다.

한편 북방의 돌궐, 거란 등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당나라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였다.

양태사와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

8세기 중엽에 발해의 외교가로 활약한 양태사는 시인으로 이름이 더 높았다.

그는 귀덕장군이라는 벼슬을 지내면서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외교활동을 하면서도 문학연구와 창작에 힘을 돌려 많은 시를 안고 귀국하였다고 한다.

그가 지은 시들은 향토애와 애국정신에 바탕한것들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일부가 전해지고있다.

그의 대표적인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는 그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듬이소리를 들으며 조국이 그리워 창작한것이다.

서리찬 가을밤에
은하수 유난히 빛나고
나그네 고향생각
시름 더욱 깊어가네

긴긴밤 홀로 앉아
수심만 잦아질제
문득 들려오네
이웃 아낙네 다듬이소리
…
생각은 그지없이
옛고향 달리건만
다시 듣는 다듬이소리
매여둘 곳 전혀없네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볼가 하되
하그리 긴 수심에
잠인들 차마 오리

시는 고향생각에 묻힌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을 그리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는 그러한 고향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는 다듬이소리와 다듬이질하는 녀인의 모습에 대한 상상, 그 녀인의 모습에서 자기 안해의 심정을 그려보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것으로 하여 잠들지 못하고 더욱더 고향생각을 애타게 하는 주인공의 심리세계 등 네개 부분에 걸쳐 자기의 사상감정을 토로하고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이 시는 민족적정서가 흘러넘치게 잘 형상된 가치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인의 높은 예술적재능을 잘 보여주며 동시에 발해시가문학의 발전수준을 보여준다.

고 려

고려의 성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김정일**선집》 제14권, 414페지)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예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 또한 남다르게 강하다. 그러나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의 세력다툼과 사대매국배족행위로 하여 후삼국시기까지 국토통일을 이루지 못하였었다. 고구려의 국토통일정책을 계승한 고려봉건국가가 섬으로써 국토통합을 위한 투쟁이 적극화되여 마침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5년동안 존재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높은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민족사를 뚜렷이 빛내였던 자주적인 봉건국가였다.

고려는 오늘의 개성지방에서 유력한 봉건세력을 이루고있던 왕건이 918년에 궁예의 태봉국을 뒤집어엎고 세운 나라이다. 9세기말~10세기초 후기신라의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난 각지 인민들의 과감한 투쟁은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급속히 번져갔다.

온 후기신라땅이 농민전쟁과 폭동의 도가니로 들끓고있던 시기에 인민들의 투쟁에 편승하여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서는 궁예가, 서남지방에서는 견훤이 더 많은 령토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치렬히 벌렸다.

궁예는 원래 몰락한 신라왕족출신으로서 일찌기 중이 되여 선종이란 이름을 가지고 절간에서 숨어지내다가 농민전쟁이 터지자 왕권을 장악할 야망을 품고 892년에 북원(원주)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량길의 농민군지휘부에 기여들었다.

궁예는 894년~895년사이에 수많은 전투를 벌려 오늘의 강원도 녕월, 평창, 린제, 화천, 김화, 철원일대를 차지하였다.

대동강이서지역에서 활동하던 농민군의 일부가 자기 부대에 합류하자 량길의 농민군을 배반한 궁예는 《군(임금)》으로 자칭하고 통치체제를 꾸렸다. 이때 개경지방의 신흥봉건세력출신인 왕건이 합류해와서 궁예의 부하로 되였다.

궁예는 896년 승령(련천), 림강(장단)지방을 점령하고 이듬해에는 인물현(풍덕)을 병합한데 이어 898년에는 오늘의 대동강서부, 황해도일대와 경기도 양주부근을 자기의 통제밑에 넣었다. 이어 송악군(개성)에 수도를 정하고 계속 령토를 늘이기 위한 전투들을 진행하였으며 899년에는 자기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있던 량길지휘하의 농민군을 선손을 써서 격파하였다.

900년에는 왕건을 시켜 량길의 농민군이 통제하고있던 경기도의 일부와 충청북도의 북부일대까지 차지하였다.

궁예는 강성하였던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는 이 지역 인민들의 념원을 정권야욕실현에 악용하여 짧은 기간에 중부조선일대를 병합한 다음 901년에 드디여 나라이름을 《고려》(후고구려)로 하고 스스로 왕위에 앉았다.

궁예는 904년에 나라이름을 《마진》으로 고치고 《무태》라는 년호를

제정하였으며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다. 911년에 나라이름을 다시 《태봉》으로, 년호를 《수덕만세》로 고쳤다.

궁예와 때를 같이하여 조선의 서남부일대에서는 견훤이 후기신라를 반대하여 진출하였다.

원래 상주지방에서 태여난 견훤은 일찌기 군대에 들어가 왕경(경주)에서 복무하다가 서남해변방위군 비장(참모격)이 되였다.

그는 당시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편승하면 정치적야욕을 손쉽게 이룰수 있으리라는것을 타산하고 농민폭동군의 두령으로 나섰다.

892년에 그가 지휘한 부대는 경상도방향으로 진격하여 왕경서남의 여러 주, 현들을 들이쳐 점령하였다.

견훤이 이끈 폭동군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삽시에 5 000명의 대부대로 자라났다.

견훤은 지체없이 무진주(전라남도 광주)를 공격하여 점령한 후 전라도일대에서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한 지반을 닦았다.

그는 옛 백제지역이였던 그 지방 인민들의 반신라감정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백제를 부흥시킨다고 선전하였다. 그는 900년에 드디여 완산주(전주)를 수도로 정하고 후백제국가의 건립을 선포하였으며 자기가 왕이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판도에는 신라(후기신라), 태봉, 후백제 세 나라가 병립하는 시기가 있게 되였다. 이 세나라를 력사에서 후삼국이라고 부른다.

이미 쇠퇴할대로 쇠퇴한 신라는 후백제와 태봉국에 맞설만 한 힘이 없었으므로 패권다툼을 피하였으며 싸움은 주로 견훤과 궁예사이에 벌어졌다. 태봉국과 후백제사이의 싸움은 해마다 벌어졌으며 이 전란으로 하여 인민들은 2중3중의 고통에 시달리였다.

이 시기에 태봉국왕 궁예의 포악무도한 정치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물론 통치배들에게서까지 강렬한 반항을 촉발시켰다.

궁예는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화려한 궁전을 짓고 부화타락한 생활을 일삼았으며 《미륵불》로 자처하면서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지어 처자들과 태봉국에 투항하여온 신라사람들까지 모조리 잡아죽이였다.

궁예에 대한 저주와 원성이 극도에 이른 때 태봉국의 최고벼슬인 시중의 자리에 있던 왕건은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등 무관들과 공모하여 918년 6월에 정변을 일으켰다.

태봉국을 전복한 왕건은 새 왕조를 세우고 그 첫왕(태조)으로 되였다. 나라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고려》라고 정하고 《천수》라는 년호를 제정하였으며 수도를 개경(개성)으로 하였다.

고려에 의한 국토의 통일

고려봉건국가성립후 봉건통치배들은 새 왕조의 정치적안정을 위하여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회유정책을 쓰면서 국토통일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후기신라말기에 각 지방에 할거하였던 봉건세력들을 포섭하여 후삼국통합의 지반을 닦는 한편 국력이 약해진 신라를 끌어당기면서 후백제를 군사적으로 제압하였다.

고려는 또한 건국초기부터 외적의 침입을 막고 고구려옛땅을 되찾기 위하여 서북지방을 장악하는데 큰힘을 넣었다.

건국직후인 918년 8월에 평양에 대도호부를 설치하고 서경이라 불렀으며 이곳을 서북지방장악을 위한 정치군사적중심지로 튼튼히 꾸렸다. 동시에 대동강이북의 여러 지역에 성을 쌓으면서 서북쪽으로 계속 령토를 넓혀나갔다.

이 시기 고려는 네이멍구지방에서 새로 출현한 거란(료)에 의하여 926년에 발해가 망하자 그 유민 10여만명을 받아들이였다.

한편 930년초까지 지방의 봉건할거세력들을 포섭하는데 성공한 고려봉건국가는 국토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935년 후백제의 통치층내부에서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싸고 권력다툼이 벌어져 맏아들 신검에게 밀려난 견훤이 6월에 망명해오고 그해 11월에는 신라의 마지막왕 김부(경순왕)가 고려에 투항해왔다. 이런 유리한 정세속에서 고려는 936년 9월 후백제군을 일리천(경상북도 선산군)전투에서 최종적으로 격멸하고 국토의 통합을 실현하였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가 출현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하나의 피줄과 언어, 풍습,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 인민은 단일국가의 테두리안에서 자기의 민족력사를 창조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후삼국의 통합과 서북지방에로의 령토확장 및 국방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은 생산과 문화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파괴적인 내전이 끝남으로써 전쟁에 강제동원되였거나 떠돌아다니던 인민들이 생산활동에 되돌아오게 되였다. 인민들의 창조적인 로동에 의하여 경제가 복구되고 생산은 점차적으로 장성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봉건국가의 통치배들은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을 중심으로 한 봉건통치체제를 정비강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토지제도와 수탈제도가 개편되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통치기구와 통치체계가 재편성되였으며 군사제도, 신분제도, 형벌제도 등 필요한 봉건통치제도가 갖추어져갔다.

이러한 통치체제들은 11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완비되였다.

고려봉건국가는 불교, 유교를 정치적지배의 사상적도구로 삼았다.

대외적으로는 거란과 녀진침략세력에 대하여 강경한 립장을 취하면서 있을수 있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국방력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고려인민들은 자주성을 실현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고수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고려의 애국적인민들과 군인들은 세차례에 걸쳐 침입한 거란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조국강토를 영예롭게 지켜냈다. 거란침략자들을 련속 물리침으로써 고려의 대외적위신은 훨씬 높아지고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반거란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려는 북쪽변경의 안전을 위하여 1033년부터 1044년까지 압록강어구로부터 정평군바다가에 이르는 천리장성(고려장성)을 쌓았다.

고려는 1107~1109년에 동북지방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완안부녀진에 대한 대규모적인 원정을 단행하여 그의 고려침략야망을 꺾어버렸다.

고려봉건국가는 12세기에 이르러 대토지소유자들의 세력이 자라나고 통치배들 내부에서 권력싸움이 잦아졌다. 1126년에 리자겸의 반란이 있었고 1135년에는 묘청의 정변이 일어났으며 1170년에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봉건통치배들의 권력싸움은 다른 사회경제적요인들과 함께 고려봉건국가의 통치체제를 현저히 약화시켰다.

량반관료들은 봉건통치체제가 문란해진 공간을 리용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전례없이 감행하였다.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극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량반통치배들과 인민들사이에 계급적대립과 모순이 첨예화되였다.

12세기 후반기~13세기초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전국적범위에서 계속된 대농민전쟁은 봉건통치체제를 뒤흔들어놓았다.

13세기 중엽부터 수십년동안에 걸쳐 고려인민들은 봉건몽골(원)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벌렸다.

이 시기 봉건통치배들은 강화도에로 수도를 옮기고 저들의 정권안정만을 생각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인민들은 온갖 곤난을 이겨내면서 적들과 영용하게 싸웠다.

그리하여 침략력사상 패전을 모른다던 봉건몽골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패배를 안기고 나라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후 인민들에 대한 봉건통치배들의 수탈과 착취의 강화, 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기 위한 통치배들사이의 끊임없는 권력싸움으로 하여 고려봉건국가는 급속히 무너져갔다.

이러한 형편에서도 인민들은 14세기 중엽이후 집요하게 계속된 왜적의 침습을 물리치고 나라를 굳건히 지켜냈으며 북쪽으로부터 침략해온 홍두적을 격멸하였다.

고려의 종말

외적의 계속되는 침습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은 고려봉건국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국왕을 비롯한 일부 관료들은 통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1388년에 대토지소유자들을 정권에서 몰아냈으며 당시 로골화되고있던 명나라통치배들의 침략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랴오둥원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랴오둥출병은 이미부터 왕권탈취의 야망을 품고 기회를 노려오던 리성계가 위화도에서 배신적으로 원정군을 되돌려세움으로써 실패로 돌아갔으며 고려봉건국가는 종말에 직면하였다.

이 사건이후 정치적실권을 장악한 리성계는 왕조교체를 반대하는 량반관료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류혈적으로 탄압하였다.

리성계는 1392년 7월 마침내 고려의 마지막왕인 공양왕을 내쫓고 리왕조를 세웠다. 이로써 34대에 걸쳐 근 500년간 내려온 고려왕조는 멸망하였다.

고려의 문화

고려시기에 우리 인민들은 앞선 시기에 이룩된 문화적성과들을 이어받아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고려의 문화는 특히 11~12세기에 그 개화기를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가 발명된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또한 도자기기술과 종이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여 고려의 도자기와 종이는 세상에 명성을 크게 떨치였다. 인쇄, 종이만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출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특히 《팔만대장경》과 그 인쇄판목은 고려시기의 우수한 출판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방대한 규모와 높은 인쇄기술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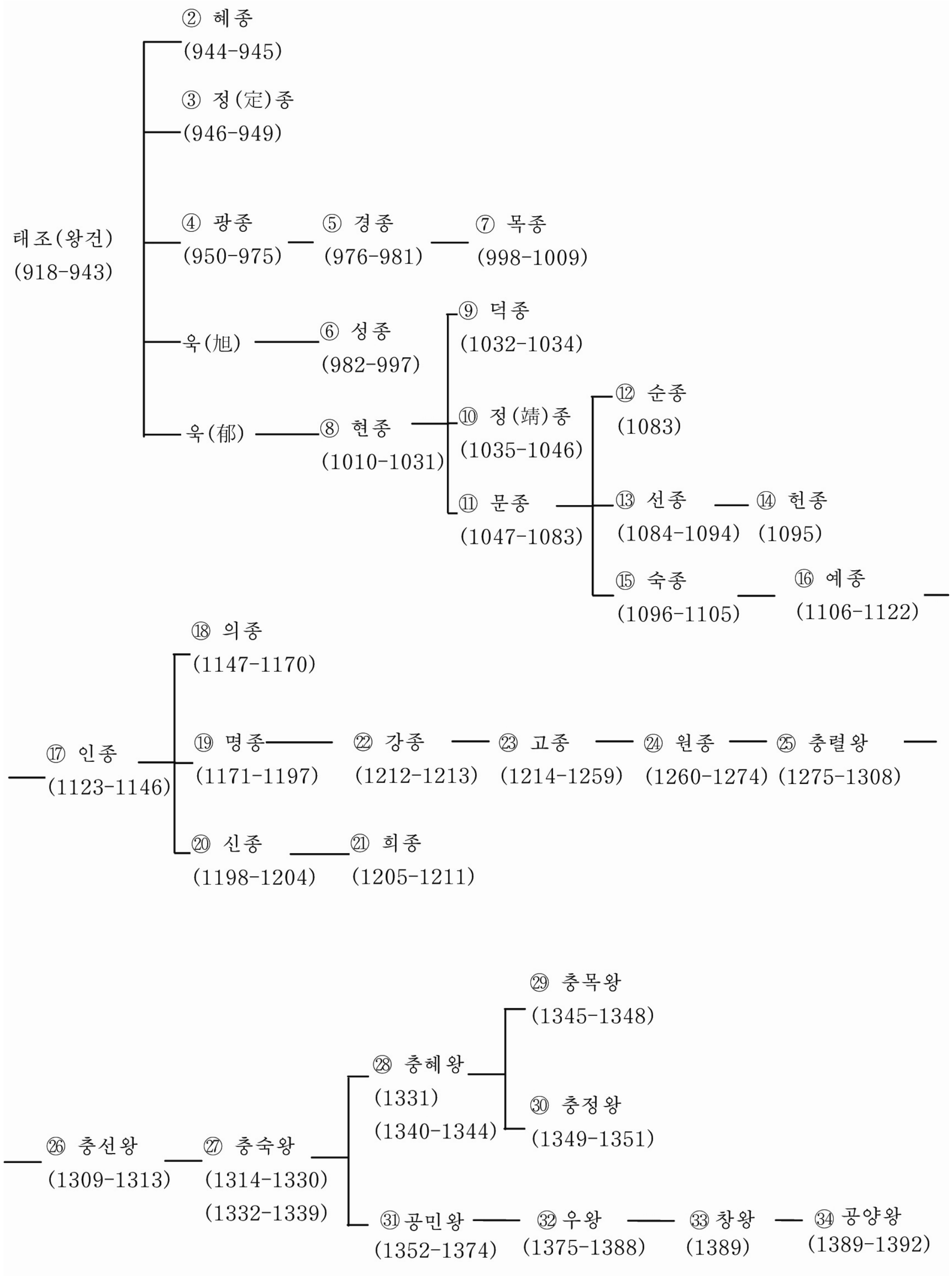
천문기상학, 력학, 의학, 건축학 등 자연과학분야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13~14세기 외적들의 침입을 반대하는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슬기로운 우리 인민들은 중단없이 문화를 꽃피웠다.

이 시기 과학기술발전에서 특출한 성과는 최무선에 의한 화약의 발명과 문익점에 의한 목화재배의 보급이다.

또한 이 시기에 리규보, 리제현, 리곡 등 진보적인 문인들에 의하여 사실주의적문학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고려왕조계보



고려의 통치기구

강대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는 그 초기에 황제국가로서의 틀을 가지고있었다.

우선 군주가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고 황제만이 입도록 되여있는 적황색도포를 입었다. 또한 신하들이 군주에 대하여 황제와 황후, 황태자 등에게만 쓰는 존칭인 《폐하》라고 하였으며 군주의 명령(서)을 조(서), 칙(서), 제(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960년에 수도 개경을 황제국가의 수도라는 뜻에서 《황도》라고 고치였으며 군주(대왕)밑에 여러 왕 즉 《소왕》들이 있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고려가 당당한 황제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고려의 통치기구는 령토와 호구가 늘어난 새로운 정황에 맞게 전시기에 비하여 전면적으로 확대강화되였다.

고려의 통치기구는 11세기 후반기(문종때)에 정비확립되였다.

중앙통치기구

이때 중앙통치기구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던것은 3성 6부 그리고 중추원이였다.

중서문하성은 군주의 명령을 아래에 알려주고 관리들의 의견을 군주에게 전달하는 기관(군주의 권력행사를 돕는 기관)이였으며 상서도성은 형식상의 최고행정집행기관이였다.

중서문하성의 장관은 문하시중(종1품)이였으며 그밑에 중서령(종1품), 평장사(정2품), 참지정사, 정당문학(종2품) 등 재신들이 배치되여 국가의 정치를 도맡아보았으며 정3품 상기상시이하 관리들은 국왕의 행동에 대하여 《충고》하는 일(《간쟁》)을 맡아보았다.

상서도성은 중앙의 6부와 경기와 경, 도호부, 목 등을 총 관할하는 최고행정통치기관이였다. 상서도성의 장관은 상서령(종1품)이였으나 고려의 거의 전기간 이 관직은 왕의 일가족속인 종친들에게 주는 명예직이였다. 그리고 상서도성의 관할밑에는 6부(리부, 병부, 호부, 례부, 형부, 공부)가 있었는데 그 직능은 아래와 같았다.

상서리부-문관들의 임명, 해임, 상벌 등

상서병부-무관들의 임명, 양성, 상벌, 군주의 외출시 호위, 군대의 편성, 훈련 등

상서호부-토지에 대한 통제장악과 인민들에 대한 조세, 공물, 수탈과 부역동원 등

상서례부-봉건유교도덕과 교육, 과거, 외교, 제사 등

상서형부-립법, 사법 등

상서공부-토목건설과 보수, 수공업 등

각 부의 장관인 판사(종1품)는 중서문하성의 재신들이 겸임하였으므로 상임장관은 정3품인 전서였다.

그러므로 중서문하성과 상서도성가운데서도 보다 중요한 실권을 잡은 가장 높은급의 중앙관청은 재신들이 배치된 중서문하성이였다.

다음 중요한 관청으로 중추원이 있었다.

중추원은 군주의 명령을 아래에 전달하고 신하들의 제의를 군주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군주의 신변을 호위하고 군사기밀을 맡아보는 중앙관청이였다.

중추원에는 종2품관리인 판원사, 원사(2명), 지원사, 동지원사 등이 배치되였는데 《추신》이라고 하여 중서문하성의 재신들과 함께 고려의 가장 높은급 관료들이였다.(재신과 추신을 아울러 《재추》라고 하였는데 리조시기 당상관에 해당하였다.)

그밖에도 삼사를 비롯한 재정 및 수탈기관들, 어사대를 비롯한 감찰 및 탄압기관들, 도병마사(후에 도평의사사로 고침)를 비롯한 군정기관, 한림원, 홍문관, 국자감 등 학술 및 교육기관, 력사편찬기관인 사관 등이 있었다.

중앙관청으로서는 정부기관외에 궁정에 복무하는 잡다한 관청이 있었다.

지방통치기구

지방통치기구는 11세기 전반기에 확립되였다.

이때 전국을 경기와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 등 5개의 도, 동계와 북계 두개의 계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경기와 5도량계의 현위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경기-개성부근

양광도-개성부근을 제외한 경기, 강원도, 황해도 일부

경상도-경상남북도

전라도-전라남북도, 제주도

교주도-강원도

서해도-황해남북도

동계-함경남도, 강원도 북부

북계-평안남북도, 자강도

그러나 고려전기에 도에는 고정적인 도행정장관이 없는 조건에서 전국의 모든 고을을 직접 통치할수 없었다.

그러므로 3경, 4도호부, 8목 등 큰 고을을 설치하고 경에는 류수관, 도호부에는 부사, 목에는 목사를 파견하여 후세의 도행정장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3경-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양주)

4도호부-안서대도호부(해주), 안북대도호부(안주), 안변도호부(안변), 안남도호부(전주)

8목-황주, 광주(경기도), 충주, 청주, 전주, 라주, 상주, 진주

3경, 4도호부, 8목을 계수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파견된 관리들은 자기에 속한 령군현(원이 파견된 군현)과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속현(원이 파견되지 않은 현)을 지배통제하는 한편 자기 관내 속현의 인민들을 통치하였다.

고려봉건국가는 계수관외에 107개의 주요 군현에도 고을원을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군, 현을 령군현이라고 하였다.

령군현에 파견된 원(군에는 지군사와 판관, 현에는 현령, 감무 등)들은 직할지역 인민들은 물론 관내 속현의 인민들까지 통치하였다.

고려전기에 고을원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수는 380여개에 달하였다.

고려중기(12세기초)이후 90여개의 작은 현들에 감무가 새로 파견되였으나 속현수는 전체 군현의 절반이상이나 되였다.

고려봉건국가는 이러한 많은 현들을 령군현에 파견된 원들이 그 지방의 호족들 즉 호장을 비롯한 향리들을 통하여 통치하게 하였다. 이것은 고려지방통치제도의 주요특징의 하나였다.

고려의 벼슬등급

고려에서는 초기에 지방호족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있던 벼슬등급(향직)에 덧붙여주는 문산계를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995년(성종14년)에 29등급의 문산계가 제정되였으나 그것은 그 이름과는 달리 무관관리들에게 주는 벼슬등급은 아니였다.

문산계는 문종때(1047년-1083년)에 최종적으로 제정되여 실시되였다. 이때 제정된 문산계는 사실상 고려의 유일적인 벼슬등급이였다.

고려의 벼슬등급가운데 종2품이상은 재추(정3품의 일부가 포함됨), 정3품-종5품은 참상, 정6품-종9품은 참외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벼슬등급(위계)3분법은 극소수 특권관료층인 재추들이 정권을 독점하고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것이였다.

고려시기 벼슬등급(문산계)표

등급	벼슬등급	벼슬등급이름
1	종1품	개부의 동삼사
2	정2품	특진
3	종2품	금자광록대부
4	정3품	은청광록대부
5	종3품	광록대부
6	정4품(상)	정의대부
7	정4품(하)	통의대부
8	종4품(상)	대중대부
9	종4품(하)	중대부
10	정5품(상)	중산대부
11	정5품(하)	조의대부
12	종5품(상)	조청대부
13	종5품(하)	조산대부
14	정6품(상)	조의랑
15	정6품(하)	승의랑
16	종6품(상)	봉의랑
17	종6품(하)	통직랑
18	정7품(상)	조청랑
19	정7품(하)	선덕랑
20	종7품(상)	선의랑
21	종7품(하)	조선랑
22	정8품(상)	급사랑
23	정8품(하)	징사랑
24	종8품(상)	승봉랑
25	종8품(하)	승무랑
26	정9품(상)	유림랑
27	정9품(하)	등사랑
28	종9품(상)	문림랑
29	종9품(하)	장사랑

(종1품우에 정1품이 있었으므로 실지는 30등급이였다.)

고려시기 도제의 변천

우리 나라에서 도가 지방행정단위로 된것은 고려시기였다.

고려때에 지방통치체제가 새롭게 정비강화되였는데 995년에 10개의 도로 구분설치되였다.

10도(995년)

번호	도이름	현재 행정구역
1	패서도	평안남북도
2	삭방도	강원도, 함경남도일부
3	관내도	경기도, 황해남북도
4	충원도	충청북도
5	하남도	충청남도
6	강남도	전라북도
7	해양도	전라남도
8	령남도	경상북도북부
9	령동도	경상북도남부, 경상남도동부
10	산남도	경상남도서부

그후 고려의 지방통치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10도는 5도량계로 바뀌였다. 5도량계란 5개의 도와 2개의 계를 말한다.

5도량계

번호	도 이 름	현재행정구역
1	양광충청주도(후에 양광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2	경상진주도(후에 경상도)	경상남북도
3	전라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4	삭방도	강원도
5	서해도(후에 교주도)	황해남북도
6	동계	강원도 북부, 함경남도일부
7	북계	평안남북도, 자강도

고려시기 주요사변

고려-거란전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반거란전쟁은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과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결합되여 벌어진 의의있는 투쟁이였습니다.》

제1차 고려-거란전쟁

거란은 고려의 북방진출을 좌절시키고 고려를 저들의 지배밑에 넣으려고 하였을뿐아니라 송나라와의 정복전쟁을 예견하면서 배후의 안전을 목적으로 고려《평정》을 위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첫 전쟁은 거란침략자들이 993년 10월 80만의 대병력을 내몰아 고려땅을 침공함으로써 벌어졌다.

고려에서는 이미 적들의 침입기도를 포착하고 수십만의 방어군을 3군으로 편성하고 해당한 지휘관들을 임명하였으며 지휘부를 안북부(안주)에 두었다.

고려방어군은 봉산성(구성동남쪽 15리지점)과 연주성(운산)에서 적들에게 타격을 안긴 후 청천강계선의 강력한 방어선에서 적들의 남진을 가로막았다.

중군사 서희가 이끄는 고려군의 드세찬 반격으로 된타격을 받은 적들은 더 전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도 수적우세를 믿고 고려에 《항복》을 강요해나섰다. 적들의 오만무례한 위협공갈에 겁을 먹은 왕과 개경의 일부 통치배들은 서경이북의 땅을 떼여주고 강화를 맺자고 하였다. 그러나 군대와 인민의 높은 투쟁기세에 편승한 서희 등 관료들의 완강한 주장으로 왕의 투항주의적책동은 저지되게 되였다.

고려는 그후 적들의 약점(식량난, 말먹이부족 등)을 간파하고 놈들의 요구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었다.

초조해난 적들은 모험적인 군사적공세를 벌려 위기를 타개하고 주도권을 쥐려고 얼어붙은 청천강을 건너 안융진으로 달려들었다.

당시 안융진(안주 서쪽 65리지점)은 크지 않은 토성(2 500자-800m정도)으로서 방어군이 불과 수백명밖에 없었다.

적들은 고려군의 방어가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되는 이 성을 점령하고 안북부를 측면과 배후로부터 공격하려고 꾀하였던것이다.

안융진방어자들은 중랑장 대도수의 지휘밑에 희생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력량상 수백배나 되는 적들의 검질긴 공격을 맞받아치며 굴함없이 싸웠다.

완강한 항전에 부닥친 적들은 강북쪽으로 쫓겨났다.

안융진전투는 허장성세하던 거란군의 기를 꺾어놓고 적들로 하여금 피동에 빠져 강화담판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안융진전투이후 적진에서 고려와 거란사이에 강화담판이 진행되게 되였다.

담판은 처음부터 심각하게 벌어졌다.

우리측대표 서희는 인사형식문제에서부터 적장 소손녕의 부당한 요구를 일축해버렸으며 고구려 옛땅문제, 송나라와의 관계문제와 거란과의 국교정상화문제 등에서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적장이 고려가 차지한 고구려의 옛땅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자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그렇기때문에 국호도 〈고려〉라고 달고 수도도 평양으로 정하였다.》고 하면서 거란이 차지한 랴오둥반도도 고구려 옛땅이므로 그를 계승한 고려가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적장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다.

7일간의 담판은 고려의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담판이 끝나자 소손녕은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뒤끝에 락타 10필, 말 100필, 양1 000마리, 비단 500필을 《선물》로 주고 그해 12월에 쫓겨가고말았다.

제2차 고려-거란전쟁

1004년 12월 오랜 전쟁끝에 송나라를 굴복시켜 송나라로부터 해마다 20만필의 비단과 10만량의 은을 조공의 형식으로 바치도록 해놓고 강화를 맺은 거란은 기고만장하여 고려에 대한 재침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기회를 노리던 거란은 1009년 2월에 일어난《강조의 정변》을 침략의 구실로 삼았다.

강조가 목종을 죽인《죄》를 따지고 징벌한다는것이였다.

1010년 11월 거란왕 성종이 거느린 40만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달려들었다.

고려는 이미 강조를 서북면행영도통사로 임명하고 30만의 방어군을 편성하여 주력을 청천강서북쪽 통주(동림-지휘부를 둠)계선에 배치하였다.

첫 전투가 흥화진에서 벌어졌다.

흥화진방어군은 도순검사 양규와 진사 정성의 지휘밑에 용감히 싸웠다.

군사적공세만으로는 성을 여러날째 점령할수 없게 되자 거란왕 성종은 성안의 내부를 분렬와해시키려고 3차례나 편지를 성안에 들여보냈으며 방어군지휘관들을 매수하려고 비단옷과 은그릇을 《선물》로 보내주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안에서는 세번째 지위에 있는 인물인 리수화의 이름으로 2차례의 회답을 보냈는데 거기서 자기들의 굴함없는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우리는 눈보라와 찬서리에 견디면서… 몸이 비록 가루가 되더라도 천년위업을 길이 받들 결심이다.》 이것이 회답서에 밝힌 흥화진방어자들의 립장이였다.

흥화진방어군은 7일간(11월 16일-22일)이나 적들의 검질긴 공격을 막아내고 성을 굳건히 고수하였다.

거란왕 성종은 성에서 물러나 린주(의주군)남쪽 무로대에 20만의 병력을 떨구고 통주로 향하였다.

적들이 통주로 밀려들자 강조는 적들에게 주동적인 반격을 가하기 위하여 서남쪽의 강을 앞에 두고 세 편대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고려군은 검차(창과 칼을 꽂아만든 방어용무기)라는 무기를 일선에 주런히 세워놓고 적들에게 화살과 돌벼락을 안겨 무리죽음을 주었다.

적들은 첫날 여러차례 달려들었지만 견고한 방어선을 돌파할수 없었다. 첫 승리는 고려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첫 승리에 자만한 강조는 적들을 얕보고 지휘부안에서 장기만 두면서 전투지휘를 태공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적기마대가 지휘부를 습격하여 강조이하 지휘부성원들을 체포하였다.

혼란된 기회를 리용하여 적의 주력이 들이닥치고 고려군사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방어진지가 무너지자 남은 군사들은 통주성안에 들어가 혼란을 수습하면서 완강한 방어전을 벌렸다.

방어자들은 완강한 방어와 과감한 반돌격으로 10여일간이나 성을 고수하였다. 적들은 통주를 점령하지 못한채 곽주(곽산)와 안주를 점령하고 국내깊이 기여들었다.

침략군의 공격속도를 크게 지연시킨것은 서경이였다.

적들이 서경을 포위하고 달려들자 서경군민들은 완강한 항전을 벌려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서경을 점령할수 없게 된 적들은 포위를 풀고 개경으로 향하였다.

서경에서 도망해온 관료들로부터 《서경군이 패하였다.》는 거짓보고를 받은 국왕과 일부 통치배들은 앞뒤를 가릴새없이 투항을 기도하였다.

강감찬장군은 일시 개경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항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 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은 라주로 피난가고 1011년 1월 1일 개경은 적들에게 일시 점령되였다.

그러나 고려군의 련속적인 타격과 청야전술에 걸려들어 무서운 곤경에 빠지게 된 적들은 개경을 점령한지 10일만에 개경을 불바다로 만들어놓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고려군의 반격이 두려워 침공해온 길을 피해 내륙지대의 산간도로를 따라 근 1주일만에 구성지방에까지 도망쳐갔다.

거란왕 성종은 제 목숨을 건지려고 정신없이 말을 달려 3일동안에 압록강까지

도망쳐갔다.

고려군은 도순검사 양규와 구주별장 김숙흥 등의 지휘밑에 쫓겨가는 적들을 구주(구성)일대에서 통쾌하게 포위섬멸하였다.

고려군의 포위공격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적들은 1월 29일 압록강을 건너 제놈들의 소굴로 뺑소니쳤다. 결과 제2차 반거란전쟁은 고려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제3차 고려-거란전쟁

거란은 두차례의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에 1018년 12월 소배압을 우두머리로 하는 10만의 병력을 내몰아 고려에 또다시 침입하였다.

고려는 이미 1017년 8월 흥화진에 대한 거란의 대규모침입이 있은 후 20만 8300명의 방어군을 편성하고 기본주력을 안주이북에 배치하였으며 지휘부를 녕주(안주)에 두었다. 강감찬이 서북면행영도통사로 임명되였다.

적들은 앞선 싸움에서의 교훈에 기초하여 도중싸움을 최대한 피하면서 기동이 빠른 기병으로 개경에 쳐들어가 고려왕의 항복을 받자고 타산하였다. 강감찬장군의 지휘밑에 고려군은 흥화진동쪽 삼교천을 소가죽으로 막고 1만 2000명의 기병을 매복하여놓았다.

적들이 밀려들자 물막이를 터쳐 놈들에게 물사태를 들씌우고 맹렬히 공격하여 그 예봉을 꺾어버렸다.

고려군은 도중전투를 피하고 개경을 향해 무모하게 달려드는 적들을 자주 래구산(평성부근), 마탄(승호구역 봉도리)에서 타격하는 한편 개경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1만명의 희생을 낸 마탄전투에서 넋을 잃고 어물거리던 적들은 1019년 1월초에 신은현(신계)까지 기여들었다.

그러나 개경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1월 23일 련주(개천)와 위주(녕변)사이에서 지키고있던 고려군은 쫓겨가는 적들을 기습하여 500명을 죽여버렸다.

침략군에 대한 마지막섬멸전은 구주에서 벌어졌다.

강감찬은 구주에서 대포위전을 벌리기 위하여 녕주(안주)계선의 주력부대와 서북지방의 여러 성을 지키던 군대들을 모두 구주로 집결시켜 진을 쳤다. 2월 1일 퇴각하던 적들이 구주에 나타났다.

구주동쪽들판에 진을 치고있던 고려군은 적들이 나타나자 일시에 공격을 가하였다.

적들은 퇴로를 차단한 고려군의 포위진을 뚫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쌍방사이에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을 때 개경에서부터 적들을 추격하여오던 병마판관 김종현의 부대가 적들의 배후를 들이쳤다. 앞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적들속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고려군은 때마침 남쪽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을 리용하여 총공세로 넘어갔다.

고려군은 수많은 적들을 쓸어눕히고 곧 추격전으로 넘어가 석천(구성황하천)을 건너 반령(구성 팔원령)까지 뒤쫓아가면서 적들을 모조리 쓸어눕혔다. 구주부근의 들판은 적의 시체, 말, 락타, 갑옷 기타 병쟁기들로 한벌 쭉 덮였다. 이 싸움에서 거의다 전멸당하고 살아돌아간자는 겨우 수천명에 불과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거란왕 성종은 소배압에게 편지를 보내여 《네가 적을 얕잡아보고 고려깊이 들어갔다가 이 지경이 되였으니 나는 너의 얼굴가죽을 벗겨죽이겠다.》고 분풀이를 하였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싸움을 《구주대첩》(구주큰승리)이라고 부르면서 자랑스럽게

전해왔다.

고려인민과 군대는 993년-1019년에 이르는 근 30년기간에 3차례에 걸치는 거란의 대규모적인 침략을 쳐물리치고 나라를 영예롭게 지켜냈다.

고려-거란전쟁의 승리로 고려의 경제, 문화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였으며 고려의 대외적위신은 크게 높아졌다. 고려-거란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강조의 정변

11세기초에 들어서면서 고려의 국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1004년《전주맹약》을 통하여 송나라를 굴복시킨 거란(군)이 고려에 대한 재침을 서두르고있었다.

국내에서는 목종의 어미 천추태후와 김치양일당이 결탁하여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부화사치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김치양일파는 나중에 자기와 천추태후사이에 난 아들을 국왕으로 들여앉힐 계획밑에 왕의 후계자로 예정된 대량원군(현종)을 중으로 만들어 쫓아버렸다.

1009년 1월 왕궁에서 일어난 큰 화재사건과 김치양일당의 왕권탈취음모에 불안을 느낀 목종(당시 병석에 있었다.)은 황보유의를 보내여 대량원군을 맞아오게 하였다. 한편 서북면도순검사로 나가있던 강조에게 급히 련락을 띄워 군대를 끌고올라와 왕궁을 지키도록 하였다. 왕의 통지를 받은 강조는 즉시 군대를 출동시켜 동주(서흥군) 룡천역에 도착하였다. 이때 김치양에게 불만을 품고있던 서북면의 관리들인 위종정, 최창이 강조에게 찾아와 왕권을 노리고있는 김치양과 천추태후가 저들에게 복종하지 않을가봐 왕의 명령이라고 날조하고 그(강조)를 소환한것이라고 하면서 정변을 사촉하였다. 강조는 목종이 이미 죽고 봉건정부는 김치양일당에게 완전히 장악된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동요하였다. 이무렵 김치양일당은 강조를 제거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여 절령(황해북도 자비령)을 차단하고 지키게 하였다.

사태발전을 주시하던 강조의 아버지는 자기집 종의 머리를 깎아 중으로 변장시킨 후 그에게 왕은 죽고 간신들이 정권을 잡고있으니 빨리 군대를 거느리고와서 국난을 안정시키라는 편지를 참대지팽이속에 넣어주면서 강조에게로 보냈다.

그 종이 얼마나 급히 달려왔는지 편지를 전달하자마자 숨졌다고 한다.

편지를 받은 강조는 급히 500명의 군대를 출동시켰다. 이와 함께 서경분사의 관리인 김승인을 시켜 삼각산 신혈사에 있던 대량원군 순을 맞아오게 하였다.

개경으로 향한 강조의 군대는 절령계선에서 김치양이 보낸 수비군을 격파하였다. 강조는 군대를 지휘하여 개경으로 들어가 왕궁을 점령한 후 김치양부자와 그 일당 7명을 처단하고 30명을 귀양보냈다. 이어 목종을 페위(후에 사람을 보내여 죽여버렸다.)시키고 대량원군 순(현종)을 왕자리에 올려앉히였다.

그후 강조는 국가의 군사문제와 왕의 명령의 전달, 왕궁의 경비를 담당한 중추원, 남북원, 은대 등을 통합하여 중대성을 새로 내왔다.

그리고 자신이 중대성의 총책임자인 중대사가 되여 나라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강조의 정변은 부패타락한 목종과 김치양일당에 대한 인민의 불만을 리용하여 국왕을 바꾸고 그자신이 국가의 실권을 장악한 봉건통치층내부의 상층정변이였다. 그러나 이 정변은 거란의 침략을 앞두고 혼란된 국내정세를 수습할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의의를 가지였다.

12세기초 동북지방원정 (녀진정벌)

11세기말~12세기초에 큰 세력으로 자라난 완안부녀진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고려의 동북지방정세는 매우 긴장해졌다. 완안부녀진추장 영기는 고려에 거짓《호의》를 보이면서 석적환을 시켜 갈라전지방(두만강이북으로부터 함경남북도일대)을 차지하게 하였다.

1104년 완안부녀진침략군은 천리장성계선의 정주성(함경남도 정평군)에까지 기여들어 고려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였다. 고려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동북지방의 방비를 강화하는 한편 갈라전일대에서 녀진침략세력을 쫓아내고 나아가서 고구려, 발해의 옛강토였던 동북쪽지방을 회복할것을 계획하였다.

고려는 1104년 2월에는 판동북면행영병마사 림간의 지휘밑에, 3월에는 동북면행영도통사 윤관의 지휘밑에 정주성부근에서 두차례의 전투를 벌려 적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고려는 이 전투후 녀진과 강화를 맺은 기회를 리용하여 적들을 갈라전지방에서 내몰기 위한 대규모의 원정준비에 착수하였다. 고려는 새로 별무반을 조직하고 기병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었으며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원정준비를 끝마친 고려군은 1107년 10월 새로 편성한 별무반의 열병을 진행한 후 17만의 병력으로 출병을 개시하였다. 윤관을 원정군의 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한 고려군은 개경을 떠나 행군을 다그쳐 12월 4일에 장춘역(문천-정평사이)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정주성에 도착한 최홍정의 선봉군은 녀진침략군 400명을 성안으로 유인하여 섬멸함으로써 원정군의 대규모적인 출병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뒤이어 천리장성계선에 도착한 주력부대는 12월 14일 본군, 좌군, 중군, 우군, 선군(수군) 등 5개의 대부대로 나뉘여 장성이북의 갈라전지방으로 진격하였다.

완안부녀진은 고려의 강대한 병력에 위압되여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한채 산으로 뿔뿔이 도망치고 들에는 집짐승들만 널려있었다. 고려원정군은 1108년 1월까지 녀진인들의 135개 촌을 격파하고 근 5천명을 소멸하고 1만여명을 포로하였으며 두만강건너 멀리 공험진, 선춘령계선까지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을 고수하기 위하여 9개의 성 즉 함주, 영주, 웅주, 길주, 복주, 공험진, 의주, 동태진, 평융진에 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6 466호의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녀진에 대한 대규모원정과 9성지역을 되찾은것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옛 강토에로 판도를 넓혀나가는데서 큰 사변으로 되였다.

그후 고려군대와 인민들은 9성지역을 강점하려고 발광적으로 달려드는 완안부녀진의 침공을 짓부시고 이 지역을 고수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벌렸다.

완안부녀진은 참패를 거듭하면서도 9성지역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한편 사신을 파견하여 9성지역을 내줄것을 여러차례 간청하였다. 봉건정부는 다시는 고려를 배반하지 않고 《부모의 나라》로 정성으로 섬기겠다는 그들의 《맹세》를 재삼 확인한 다음 1109년 7월 일단 9성지역을 내주었다.

그후 녀진족은 약속대로 해마다 사신을 보내여 조공하여왔으며 거란(료나라)을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세운 후에도 고려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고려인민들은 이후시기에도 동북지방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 점차적으로 이 지역을 수복해나갔다.

리자겸의 반란

12세기에 들어와 봉건정부안에서 가장 큰 권력자로 등장한것은 여러 왕들과 인척관계를 맺고있던 특권문벌인 인주(인천) 리가출신의 리자겸이였다.

리자겸은 자기의 첫째, 둘째딸을 예종(1106년-1122년)의 왕비로 들여앉히여 국왕의 장인이 되고 평장사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다. 예종이 죽고 자기 딸이 낳은 인종이 왕이 된 후 셋째, 넷째딸을 왕비로 들여놓고 새로 공신칭호를 받았으며 중서령 벼슬에 방대한 식읍을 받았다.

1124년에 또다시 조선국공으로 책봉되고 식읍 2 000호, 식실봉 2 000호를 받았다. 그는 자기의 세력이 커감에 따라 《숭덕부》라는 개인재산관리기관까지 설치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닥치는대로 강탈하여 제 배를 불리웠다.

리자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생일을 《인수절》(원래 봉건사회에서는 왕들만이 생일을 〈절〉이라고 쇠게 되여있었다.)이라고 하고 중서성에 앉아서 고관들의《축하》를 받았으며 지방에서 공물로 바치는 특산물을 가로채여 자기 소유물로 만들었다. 최대의 권력자, 수탈자로 된 리자겸은 《말타면 견마잡히고싶다》는 격으로 왕자리까지 노리게 되였다.

한편 리자겸의 지지밑에 14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된 인종은 그의 권력이 나날이 커지는데 불안을 느끼고 마침내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1126년 2월 인종은 내시 김찬, 상장군 최탁 등 자기 심복들과 짜고 군대를 동원하여 리자겸일당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먼저 병부상서 탁준선(탁준경의 동생)과 탁준(탁준경의 아들)을 비롯한 여러명의 관리들을 죽여버렸다.

급보를 받은 리자겸과 측근자인 탁준경(리자겸의 아들 리지원의 장인)은 휘하의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왕궁을 포위하였다. 이때 리자겸의 아들로서 중노릇을 하던 의장이 현화사의 중 300명을 데리고 달려와 반란군에 합세하였다. 따라서 형세는 반란군에게 유리하게 급변하였다. 반란을 일으킨 리자겸일당은 그날 밤 왕궁에 불을 지른 다음 왕의 침전문밖까지 침입하였다. 국왕 인종은 밤중에 왕궁을 빠져나와 걸어서 산호정에 몸을 피한 후 혹시 자기를 해칠가 두려워 리자겸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편지를 보내였다. 그러나 리자겸은 문무백관들의 반대가 무서워 자기에게는 왕위를 차지하려는 딴 마음이 없다는 거짓 우는 소리를 하면서 왕의 편지를 되돌려보냈다. 이어 리자겸일당은 인종의 심복들로서 자기들을 반대해나선 최탁, 권수, 고석, 오탁 등 많은 관료들을 체포처형하였다. 리자겸은 반대파관료들을 정계에서 제거한 후 인종을 협박하여 자기집에 억류하였다.

봉건정부의 권력을 독차지한 리자겸은 십팔자(한문 《李》자를 분해하면 十八子가 된다)가 왕이 된다는 요언을 퍼뜨리면서 왕위찬탈을 위해 인종을 독살할 음모를 여러번 꾸몄으나 실패하였다. 리자겸일당의 반란은 사실상 더 큰 권력과 재물을 차지하기 위한 봉건통치층의 권력다툼으로서 국력을 약화시키고 인민들에게 더욱 혹심한 재난을 들씌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묘청의 정변

1126년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던 리자겸일파가 제거된 이후에도 개경의 집권자들은 금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립장을 버리지 않았다.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집권자들의 비굴한 사대주의적립장은 인민들은 물론 일부 량반관료들속에서도 격분을 자아냈다.

그 대표적인물은 묘청, 정지상, 백수한 등 서경출신의 량반관료들이였다. 그들은 금나라에 사대하려는 김부식일파와는 달리 《건원칭제》(고려를 황제국으로, 왕을 황제로 칭하며 독자적인 년호를 쓴다는 뜻)하여 나라의 위력을 내외에 떨쳐야 한다는 반사대주의적립장에 섰다. 묘청 등 서경출신량반관료들은 이와 함께 당시 류행되던 음양도참설(지리풍수설)을 리용하여 개경으로부터 서경(평양)으로 수도를 옮길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개경은 이미 《왕업》이 쇠진하였고 궁궐이 불타(1126년 리자겸의 반란때 궁궐이 불탔음) 없어졌으나 서경은《왕기》가 도는 곳이므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겨야 왕실의 운명을 연장하고 나라의 위력을 떨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경의 림원역은 명당자리이므로 여기에 궁궐을 짓고 수도를 옮기면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하여올것이고 나머지 이웃나라들도 고려에 복종하게 될것이라고 왕을 설복하였다. 묘청의 지지자인 무관 최봉심은 자기에게 장사 1 000명만 주면 금나라에 들어가 왕을 잡아오겠다고 나섰다. 서경출신량반관료들의 주장은 북송이 멸망하고 금나라가 급격히 강화된 당시의 대외정세에 불안을 느끼고있던 국왕(인종)과 그 측근자들인 홍이서, 리중부, 문공인, 림경청 등 정부안의 적지 않은 관료들의 지지를 받았다. 정부안에서 발언권이 점점 커지게 되자 묘청, 백수한 등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들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하여 1128년 9월 서경에 행차한 국왕은 림원역근방에 새 왕궁을 지을 터를 잡게 하고 내시랑중 김안에게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 다섯달만에 완공되였으며 새로 지은 왕궁에《대화궁》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묘청 등 서경출신관리들은 새 왕궁이 선 후 국왕에게 황제라고 선포할것과 새로운 년호를 정하여 쓸것을 여러차례 제의하는 한편 《대화궁》의 터가《큰 명당자리》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음양비술》(땅의 형편을 점쳐보는 술법)에 의한 각종 의식을 벌렸다.

그들은 또한 대화궁주위에 8개의 신주(귀신을 표시한 나무패쪽)를 앉힌 이른바 《팔성당》이란 당집을 짓고《8성》(국내의 8개의 명산에 자리잡고 산다는《신선》)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들은 8개의 《신주》가운데서 백두산에 산다는 《귀신》을 맨 첫자리에 내세우고 서경에 산다는《귀신》을 개경의 《귀신》보다 웃자리에 놓음으로써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으려는 건국초기의 리상과 수도 개경의 전통적권위를 부정하고 고구려의 옛수도인 서경을 내세우려는 립장을 반영하였다. 한편 서경출신량반관료들은 신기한《사건》들을 련이어 꾸며내여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도록 왕을 유혹하였다. 이밖에도 불타버린 개경왕궁수축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하였으며 서경지방의 토착량반들인 《부로》들을 시켜 국왕에게 《건원칭제》하여 민심에 의거하여 금나라를 공격할것을 제의하도록 하였다. 서경출신량반관료들이 1128년부터 추진시켜오던 수도를 옮길 계획은 처음 얼마간 국왕의 지지까지 받게 되였고 진척되였다.

그러다가 그들의 기도는 개경집권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김부식, 리중, 문공유 등 대신들은 묘청, 백수한과 그의 지지자들을《요망한 무리》라고 하면서 즉시에 처단할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다 대화궁이 벼락맞아 수십곳이 파괴되고 그들이 조작했던 신기한《술법》의 내막이 드러났다.

묘청과 그의 지지자들은 왕을 끼고 평화적방법으로 수도를 옮기려던 저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드디여 1135년 1월 서경에서 정변을 일으켰다.

묘청은 서경분사의 관리들이였던 조광, 류감, 조창언, 안중영 등과 함께 군대를 동원하여 당시 서경과 서북지방에 와있던 개경출신의 량반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소금창고에 가두었다. 한편 군대를 파견하여 개경으로 통하는 절령을 차단하였으며 서북지방 여러 성의 군대와 서경부근목장의 말들을 끌어들여 력량을 크게 늘이였다. 이어 나라이름을 《대위》로 선포하고 《천개》라는 년호를 제정하였으며 통치기구를 조직하고 고을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관리들을 서경출신량반들로 임명하였다.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절령이북의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차지한 서경출신량반관료들은 개경의 인종왕에게 《특사》를 보내여 그가 서경에 와서 황제가 되여줄것을 요구하였다.

묘청의 정변소식이 개경에 전해지자 국왕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김부식을 총지휘자로 하는 《토벌군》을 조직하여 서경을 치도록 하였다.

김부식은 개경을 떠나기에 앞서 묘청의 지지자들로서 당시 개경에 있던 백수한, 정지상, 김안을 궁문밖에서 죽이고 최충심, 리순무 등 묘청과 한패라고 인정된 관리들을 모두 섬에 귀양보냈다. 김부식이 거느린 대규모의 《토벌군》은 절령길을 피해 오늘의 평산, 수안, 성천, 개천, 안주로 우회하여 2월에는 서경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서경이 고립되자 조광 등이 동요하다가 묘청, 류감의 머리를 베여 김부식에게 보내면서 항복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김부식은 항전군내부실태를 포착하고 조광의 특사를 체포하였다.

조광은 할수없이 서경군민들의 투쟁에 편승하여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개경량반들이 투항을 권고하여 보내온 김부, 황문성과 그 수원들을 잡아죽이는것으로써 자기들의 투쟁결의를 표명하였다. 서경군민들은 대동강연안에 1730여간의 성을 새로 쌓았으며 대동강을 장악하려고 기여든 50척의 함선을 두루섬에서 짓부셔버렸다.

김부식은 견고한 방어시설과 강한 군대를 가진 서경을 쉽사리 점령할수 없다는것을 타산하고 5군을 동원하여 서경성에 대처한 작은 성을 쌓게 하고 장기전을 시도하였다.

개경군은 3월부터 이 성들에 의거하여 서경성을 수십차례 공격하였으나 그때마다 서경군민들의 영용한 항전에 부딪쳐 격파되고말았다.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경성안에는 식량사정이 점점 어려워졌다. 김부식은 이 약점을 리용하여 서경서쪽 5리지점에 흙산을 쌓게 하고 성을 공격하려고 시도하였다.

서경군대와 인민들은 개경군의 기도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결사대를 뭇고 성밖으로 나가 기습전을 벌렸으며 성우에 설치한 노와 포로써 화살과 돌들을 비발치듯 날리면서 견결히 싸웠다.

1135년 11월 흙산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자 《토벌군》은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또다시 항전에 일떠선 서경군민들은《토벌군》의 집요한 공격을 분쇄하였으며 반공격에로 넘어가 개경군의 많은 력량을 소멸하였다.

서경군민들은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속에서도 중성(겹성)을 쌓고 계속 용감하게 싸웠으나 1136년 2월 성은 드디여 개경군에게 함락되였다.

정변의 지휘자인 조광은 불속에 휩싸인 집안에서 자살하였다.

서경이 함락된 후 개경통치배들은 투쟁에 앞장섰던 서경의 군대와 인민들의 얼굴에 《서경역적》 또는 《서경》이라는 글자를 새긴 다음 먼 섬으로 귀양보냈다.

이밖에 많은 사람들을 각 지방의 향, 부곡으로 강제이주시켜 《천민》으로 만들었으며 묘청 등 정변주모자들과 그의 지지자들의 처자들은 노비로 만들었다.

묘청의 정변은 서경출신량반관료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한 권력다툼이였으나 굴욕적인 사대외교를 반대하고 고려의 위력을 떨치려고 지향한 점으로 하여 긍정적의의를 가진다. 묘청의 정변으로부터 시작된 서경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고려봉건정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12세기 후반기에 벌어진 대농민전쟁의 서막으로 되였다.

무신정변

고려봉건정부는 11세기이후 무신들에 비하여 문신들을 우대하고 내세우는 정책을 계속 써왔다. 권력과 토지의 대부분은 문신관료들에게 집중되고 같은 관료이면서도 무신들은 모든 면에서 차별천시되였다.

문무간의 차별과 무신들에 대한 멸시정책은 의종통치년간(1147년-1170년)에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의종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문관들은 가혹한 인민수탈로서 얻어낸 막대한 재부를 가지고 온갖 향락을 누렸지만 무신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문관들은 의종왕의 부화방탕한 사치생활과 무시로 벌려놓는 유흥놀이에 한몫 끼우고 권세를 누릴수 있었으나 무신들은 끼니마저 굶고 경비나 서주는 형편이였다. 문무관료들의 대립과 알륵이 극도에 이른 때에 정중부, 리의방, 리고, 리의민 등 무관들은 문관들을 반대하여 서로 결탁하였다. 그들은 은밀히 정변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그들은 의종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보현원에 가는 날을 정변일로 삼았다.

1170년 8월 의종이 문관들을 거느리고 보현원에 가던 도중 5병수박희를 벌려놓았다.

경기승부가 났을 때 종5품의 문관인 한뢰가 종3품의 무관인 대장군 리소응이 졌다고 하여 뺨을 후려쳐서 섬돌아래로 떨어뜨리였고 이것을 보고있던 의종과 문관들은 좋아라 손벽을 치며 리소응을 비웃었다. 리고, 정중부 등이 칼을 빼들고 항의하였다.

왕의 만류로 그자리에서 일은 크게 번져지지 않았다.

무신들은 이미 계획한대로 왕이 보현원에 도착하자 순검군을 리용하여 한뢰를 비롯한 국왕과 동행했던 문신들을 모조리 쳐죽이고 그길로 개경에 들어가 문신들과 환관들을 닥치는대로 처단하였다.

이어 의종을 거제도로 추방하고(후에 죽여버렸다.) 그의 동생 호(명종)를 왕자리에 들여앉혔다.

이를 력사상 《정중부의 란》 또는 《무신의 란》이라고 한다.

정변후 정중부 등 무관들은 의종이 가지고있던 별궁과 금은보화들, 처단된 문신들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아 나누어가지였다. 그리고 새로 앉힌 국왕 명종을 끼고 정부의 주요관직들을 독차지하였다. 이처럼 무신정변은 본질에 있어서 권력과 토지 및 노비를 빼앗기 위한 봉건통치배들의 권력싸움이였다.

이때로부터 1270년 6월까지 100년간 무신집권시기가 계속되였다.

12세기 후반기~13세기초의 전국적인 대농민전쟁

1170년 무신정변이후 무신집권자들의 무지막지한 전횡과 가혹한 수탈로 인하여 사회경제적모순이 격화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여지없이 짓밟혔다. 이리하여 12세기 후반기-13세기초에 전국적인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이 시기 농민전쟁은 크게 세차례의 고조기를 이루며 진행되였다.

제1차 고조기(1174년-1179년)

이 시기의 대표적인 투쟁은 서경을 중심으로 한 서북농민군과 공주를 중심으로 한 망이농민군의 투쟁이였다.

1174년 9월 서경의 군대와 인민은 조위총의 반란을 계기로 무신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일어났다. 서북지방 40여개 성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여기에 합세함으로써 대오는 삽시에 수만명으로 늘어났다.

서북지방농민군은 개경으로 통하는 절령(황해북도 서흥 자비령)을 차단하고 도처에서 개경무신집권자들이 파견한 관리들과 악질적인 토호들을 축출, 처단하였다. 1174년 10월 서경군은 절령계선에서 달려드는 개경군을 격파하였다. 또 다른 한 부대는 당시 동북면병마사영이였던 화주(금야)를 점령하였다.

무신집권자들은 농민군의 맹렬한 활동으로 서북지역에 대한 통치가 위태롭게 되자 《토벌군》을 증원하여 내몰았다.

윤린첨, 두경승이 이끈 관군은 1175년 3월 서북농민군의 중요한 군사적거점의 하나였던 련주(개천)성을 점령한 후 서경을 포위하였다. 서경에 집결한 농민군은 이해 6월까지 수차에 걸쳐 검질기게 공격해오는 관군과 치렬한 싸움을 벌리면서 성을 굳건히 고수하였다.

서경이 개경통치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후에도 서북지방의 여러곳에서는 농민군의 항전이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다.

1175년 5월 서경을 다시 장악한 서북농민군은 대오를 급속히 확대하면서 《토벌》에 동원된 관군을 타격하는 한편 서경부근 여러 고을들을 기습하여 지방관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서북농민군의 활동이 얼마나 드세찼던지 개경집권자들은 고려에 오는 금나라사신을 위해 전례없이 신기군을 보내여 다른 길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서북면병마사로 임명된 두경승은 감히 서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청(평안남도 평원)에 머물러있을수밖에 없는 형편이였다. 1177년 9월 서북농민군은 투쟁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군사활동에 유리한 묘향산으로 이동하였다.

중군, 전군, 후군의 3군으로 부대를 편성한 서북농민군은 1178년 4월까지 묘향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간지대를 류동하면서 맹렬한 군사활동을 벌려 서북지방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멀리는 황해도일대에까지 진출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서북농민군은 극도의 식량난과 개경통치배들의 간교한 회유기만책동에 넘어간 일부 지휘관들의 투항으로 하여 그해 10월에 흩어지고말았다. 그후에도 서북농민군의 잔여부대들은 1179년 2월 우방전 등의 지휘밑에 다시 궐기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1176년초에 서남지방농민들도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섰다. 1176년 1월 이미부터 억압자들과의 결전을 준비해오던 공주 명학소의 농민들이 망이를 산행병마사로 하는 전투부대를 뭇고 투쟁에 일떠섰다.

망이농민군에는 산간지대에 본거지를 두고 오랜 기간 봉건통치배들과 투쟁을 벌려오던 농민군들도 합세하였다.

그들은 우선 공주를 점령하고 악질적인 량반관료들을 처단하고 무장대오를 훨씬 늘이였다. 공주가 점령되였다는 급보를 받은 왕과 무신집권자들은《선유사》를 농민군에 보내여 회유하려던 처음의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대장군 정황재에게 3 000명의 관군을 이끌고가서 진압하도록 하였다.

망이농민군은 이해 3월초에 공주에 기여든 관군을 통쾌하게 물리쳤다.

당시 관군의 거의 전부를 서북지방농민군의《토벌》에 내몬 관계로 관군을 새로 조직하여 보낼수 없었던 개경의 무신두목들은 궁지에서 벗어나보려고 회유기만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무신집권자들은 이해 6월초에 명학소를《충순현》으로 격을 올리고 현령, 현위를 새로 파견하였다. 농민군의 지휘자인 망이는 국왕의 이른바《인자한 정치》와 무신집권자들의 회유기만술책에 넘어가 1177년 1월초에 개경에 가서 통치배들과《화의》를 맺었다.

이 기회에 충청좌도병마사로 출두한 정세유는 관군을 이끌고 곧바로 명학소에 달려들어 망이의 어머니와 처를 랍치하였다. 이에 격분한 농민군은 1177년 2월에 다시 들고일어났다. 망이농민군은 우선 가야사(충청남도 례산군)를 습격하고 뒤이어 2월 19일에는 진주(충청북도 진천)와 황려원(경기도 려주)을 들이쳤다.

3월에는 홍경원(충청남도 천원)을 습격하고 계속하여 아주(충청남도 아산)를 비롯한 여러개의 고을들을 공격함으로써 이 시기 청주를 제외한 그 관하의 55개의 고을들을 모두 점령하였다. 1177년 4월에 이르러서는 오늘의 충청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충청남북도의 전지역과 경기도의 일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봉건정부는 점차 력량을 수습하여가지고 망이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적공세를 취하였다. 망이는 이런 정세에 대처하여 농민군의 투쟁을 더 적극화할 대신에 이해 6월부터 개경통치배들과 또다시《화의》를 맺으려고 하였다. 교활한 무신집권자들은 이 틈을 타서 망이, 망소이 등을 체포하고 농민군을 진압하였다. 망이농민군의 투쟁은 자체의 약점과 국왕에 대한 환상 등으로 하여 비록 실패하였으나 개경무신집권자들과 지방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망이농민군의 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충청좌우도에서는 손청, 리광이 각각 이끈 농민군부대들이 1177년 2월까지 투쟁을 계속하여 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제2차 고조기(1193년-1194년)

이 시기의 투쟁은 주로 경상도일대를 무대로 하여 벌어졌다.

당시 대표적인 농민군부대들은 운문산과 초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부대들이였다. 김사미, 효심이 이끈 이 농민군부대들은 1193년부터 경주부근의 여러 고을들을 공격하여 악질적인 지방관리들과 량반, 토호들을 처단하고 경주일대를 완전히 통제하였다.

1193년 2월 농민군은 동남도안찰부사 김광제가 이끌고온《토벌군》을 격파한데 이어 이해 7월에는 대장군 전존걸, 장군 리지순(무신두목 리의민의 아들)이 지휘한《토벌군》을 련속 통쾌하게 쳐부시였다.《토벌군》의 두목이였던 전존걸은 거듭되는 패전의 책임이 두려운 나머지 기양현(경상북도 례천)에 이르러 자살하고말았다. 농민군의 완강한 투쟁에 겁을 먹은 개경통치배들은 농민군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회유기만책동에 달라붙었다.

1194년 2월 적들의 회유기만에 넘어간 김사미는 관군의 병영에 찾아갔다가 체포되여 적들에게 희생되였다.

김사미의 농민군은 그후 효심이 지휘하는 농민군과 합세하였다.

1194년 4월 효심농민군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수만명의 관군과 밀성(경상남도 밀양) 저전촌에서 일대 격전을 벌려 적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그후 농민군은 개경통치배들의 회유기만과 군사적공세가 계속됨에 따라 대오안

에 동요가 일어나 점차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해 12월 농민군의 총지휘자 효심이 관군에게 체포되여 희생된것을 계기로 이 시기 경상도농민군의 투쟁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경상도지방에서의 농민군의 투쟁은 1190년대 후반기 최충헌이 집권한 시기에도 계속되였다.

제3차 고조기(1198년-1204년)

이 시기 투쟁에서 기본은 최하층신분인민들의 적극적인 진출이였다. 《천한》신분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의 첫 봉화를 든것은 무신집권자 최충헌의 집종 만적을 비롯한 개경안의 수백명의 공, 사노비들이였다. 그들은 1198년 5월에 무신정권을 뒤집어엎을 대규모폭동을 계획하였다. 만적의 폭동계획은 대오안의 변절자에 의하여 사전에 폭로되여 실패하였으나 최가집권자들을 비롯한 통치배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200년 4월에는 경상도 진주의 공, 사노비들이 폭동을 일으켜 탐관오리들을 습격하고 그들의 집 50여호를 몽땅 불태워버렸다.

진주폭동군은 근 1년동안 용감하게 투쟁하다가 이 폭동군의 지휘자였던 향리 정방의의 변절로 하여 실패하였다.

1202년 10월 무신정권에 반기를 든 경주별초군의 투쟁을 계기로 경상도일대에서 농민군의 활동은 본격화되였다.

패좌(발우)가 총지휘한 농민군은 1203년 1월 경주에 기여든 관군과 경주남쪽 헌양현(울주)에서 일대 격전을 벌려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그후 농민군은 패좌의 지휘밑에 헌양현 등을 들이쳐 점령하고 여기에서 달려드는 관군에게 또 한차례의 타격을 가하였다.

패좌의 농민군이 관군과 격전을 벌리고있을 때 태백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아지의 농민군도 관군과 용감하게 싸웠다.

이해 7월 패좌의 피살과 8월 아지의 체포로 하여 흩어졌던 경상도의 농민군은 다시 김순의 지휘밑에 방대한 무력으로 달려드는 관군을 족치면서 그 이듬해인 1204년 5월까지 완강히 싸웠다. 12세기 후반기부터 13세기초에 걸치는 반세기동안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벌어진 전국적규모의 대농민전쟁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고려인민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1216년-1219년 거란침략군격멸

13세기초 고려의 서북방에서는 새로 일떠선 몽골과 거란족의 료나라, 녀진족의 금나라가 서로 싸움질을 벌리는 전란이 계속되였다.

압록강서쪽에서 벌어진 봉건세력들사이의 싸움질과 여기에 봉건몽골침략세력이 끼여들어 싸우는 동란의 파도는 마침내 고려에까지 미쳤다.

1216년 7월 금나라군대에게 얻어맞고 몽골군에게 밀리게 된 거란침략자들은 8월에 아아와 걸노의 지휘밑에 수만명의 무력으로 고려에 쳐들어왔다. 고려의 식량과 재물을 략탈하며 나아가서 고려를 병합하려는 야욕밑에 압록강을 건는 거란침략군은 오늘의 평안북도 산간지대의 여러 고을에 달려들어 낟알과 집짐승을 닥치는대로 략탈하면서 9월초에는 조양진(개천군)에 이르렀다.

거란침략군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선 서북지방의 인민들과 지방군은 도처에서 놈들에게 호된 징벌을 안겼다.

고려정부는 거란군의 침공에 대한 급보를 받자 황급히 방어군을 편성하여 적들을 치게 하였다. 9월초 방어군은 조양진에서 거란군과의 첫 전투를 벌려 큰 승리를 거두었고 계속 공세를 취하여 련주와 창주(창성), 구주(구성)의 직농촌과 삼기부,

태주의 장흥역과 연주(녕변) 등지에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수많은 말과 무기를 로획하였다. 9월 25일 개평역(녕변)에서 적의 주력부대와 대결전을 벌린 고려방어군의 주력부대는 후군병마사 김취려의 지휘밑에 용감히 싸워 적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하였다. 고려군은 패전하여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여 묘향산일대에서 2 400명을 섬멸한 후 청새진(희천)에서 놈들을 다시한번 답새겼다.

싸움마다에서 패전을 거듭한 거란침략군은 청새진을 넘어 창주로 도망쳤다.

이해 9월말 거란은 더 많은 병력을 긁어모아가지고 재차 고려에 쳐들어왔다. 고려방어군은 즉시 반격으로 넘어가 오늘의 녕변, 박천일대에서 침입한 적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였다.

침략군은 성주(성천)와 연주성밖에서 또다시 되게 얻어맞고도 무모하게 남하하여 11월에는 서해도(황해남북도)에 기여들었다.

1216년-1217년초 안주(재령), 염주(연안), 안서도호부(해주)를 비롯한 각 지방인민들은 거란침략군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면서 치렬한 항전을 벌리였다. 그러나 새로운 방어군편성에 등한했던 무신집권자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하여 고려군의 활동이 약해진 틈을 노리던 적들은 1217년 여름 장단, 철원, 문천을 지나 원주에까지 기여들었다. 원주를 비롯한 각지 인민들은 우세한 적들을 맞받아 굴함없이 싸웠다.

한편 개경의 노비들로 대오를 보강한 고려방어군주력은 드디여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하였다. 방어군은 1217년 7월 제주(제천)에서 침략군의 주력을 격파하는 대전투를 벌리였다.

김취려의 지휘밑에 박달령의 유리한 지점을 미리 차지한 방어군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가 달려드는 수천명의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한 적들은 대관령을 넘어 무질서하게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고려군의 맹렬한 추격에 바빠맞은 거란침략자들은 무기와 말들을 내버린채 8월말에 천리장성을 넘어 자기 소굴로 쫓겨갔다.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은 거란침략자들은 압록강건너에 있던 제놈들의 군대와 합세하여가지고 1218년 4월 고려에 대한 제3차침략을 감행하였다. 5군으로 편성된 고려의 방어주력군은 1218년 9월 동주(서흥)에서 거란침략군과 싸워이기고 그길로 성주(성천)에 이르러 지방군과 합세하여 다시 한번 적주력을 통쾌하게 짓부셨다. 적들은 성주격전에서 만회할수 없는 패배를 당하자 그 일부만 겨우 도망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퇴로가 끊어진 형편에서 강동성에 몰려들었다.

고려의 방어주력이 강동성을 포위하고 섬멸전을 준비하고있을 때 뜻하지 않게 합진이 거느린 1만명의 몽골군과 2만명의 동진군이 거란군을 친다는 명목밑에 강동성에 밀려들었다. 고려정부는 예상치 못했던 사태에 대처할 방책을 론의하던 끝에 새로운 침략자들을 거란군을 치는데 리용하기로 하였다.

몽골군과 동진군과의 직접교섭에 나선 김취려, 조충은 능란한 외교로써 세 나라 군대의 협동작전을 성공시켰다. 고려군은 총공격에 앞서 적들이 도망갈수 없도록 성주위에 빙둘러 깊은 도랑을 팠다.

1219년 1월 드디여 강동성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였다.

도망칠수도 싸울수도 없게 된 거란침략자들은 그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 적장은 자살했고 이어 성문을 열고나와 항복하였다. 고려군은 침략군의 괴수를 비롯한 100여명의 관료들을 처단하고 포로 5만명을 각 주, 현에 나누어보내여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고려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고려사람들은 거란인이 모여사는 곳을 거란장이라고 불렀다.

합진의 몽골군은 원래 고려를 가로타고앉을 계획으로 밀려들었으나 저들보다 우세한 고려군의 위력앞에서 감히 침략을 확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려임금에게 경의를 표할 사신을 남긴채 철수하였다. 고려인민과 군대는 10세기말~11세기초 고려-거란전쟁후 한세기가 지나 또다시 달려든 거란침략군을 련이어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조국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고려-몽골(원)전쟁

13세기초에 나라를 세우고 세계적인 판도에서 정복전쟁을 일삼던 봉건몽골침략자들은 1231년 8월말 고려를 병합하려는 야심밑에 대규모적인 침략을 시작하였다.

살례탑이 이끄는 적들은 압록강을 건너 함신진(의주)과 철주(철산)를 점령하고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서북지방의 중요군사거점들인 서경과 구주성에로 육박해왔다.

고려정부가 부랴부랴 조직한 방어군은 동선역(황해북도 봉산군)에서의 첫 싸움에서 적의 선봉을 격파한 후 계속 북으로 진격하여 10월 하순 적주력과 안북부(안주)에서 전투를 벌렸다.

그러나 이 전투는 비겁하고 무능한 지휘관들의 잘못으로 실패하였다.

안북부전투실패후 무신집권자 최이(최우)는 강화교섭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인 항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 틈을 타서 몽골침략군은 개경을 포위하면서 국내깊이 충주계선까지 기여들었다.

봉건통치배들의 무저항적인 책동에도 불구하고 애국적인 인민들은 도처에서 적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족쳤다.

특히 구주성방어자들은 1231년 9월초부터 이듬해 1월 적들이 물러갈 때까지 4차례에 걸친 적의 포위공격을 물리치고 성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구주성방어전투

적들이 구주성으로 밀려온다는 급보를 받은 서북병마사 박서는 부근고을의 지방군을 집결시키고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었다.

침략군의 선봉이 접근하자 성문을 열고나간 김경손의 결사대는 달려드는 적장수를 쏘아눕히고 수많은 몽골군을 쳐죽인 다음 성안으로 유유히 돌아왔다.

성안의 군민은 적들의 거듭되는 공격을 물리치는 한편 성문을 열고나가 반격을 가하여 몽골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악에 받친 적들은 루차(성벽에 기여오르는 기재)와 큰목상(나무상자), 대포차(돌을 날리는 무기) 등 온갖 수단을 리용하여 성을 파괴하려고 발악하였으나 구주성인민들은 끓는 쇠물과 진흙물을 퍼붓고 포차로 돌을 날리면서 적들의 모든 기도를 파탄시켰다.

30일간의 포위공격에서 참패만을 거듭한 적들은 마침내 포위를 풀고 달아나면서 《이와 같은 작은 성으로 대군을 막아내는것은 하늘의 도움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라고 아우성을 쳤다.

구주성을 점령하지 못하고서는 청천강이북지역을 제압할수 없다는것을 안 몽골군은 10월과 11월에 재차 구주성을 포위공격하였다.

수십문의 포차로 성벽을 파괴하고 돌입해오는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구주성의 군민들은 결사전을 벌려 적들을 족치고 성을 보수하면서 용맹하게 싸워 승리하였다. 12월초 적장 살례탑은 고려정부와의 강화를 교섭하면서 네번째로 구주성공격을 감행하였다.

살례탑이 박서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을 때 박서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방어자

들의 항전을 옳게 지휘하여 적들의 공격을 보기 좋게 짓부셔버렸다.

구주성방어전투는 제1차몽골침략을 반대하는 고려인민의 투쟁을 가장 빛나게 장식한 전투였다.

구주성전투와 때를 같이하여 자주(평성시 자산), 서경인민들도 희생적인 투쟁을 벌려 성을 사수하고 침략군의 배후를 견제하였다.

충주성의 최하층신분인 노비를 비롯한 인민들로 무어진 《노군》과 《잡류별초》는 충주성을 끝까지 지켜내여 삼남지방을 침공하려던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다. 고려인민들의 용감한 항전기세에 겁을 먹은 몽골침략군은 봉건정부와의 사이에 화의가 이루어지자 1232년 1월에 황급히 철퇴하였다. 그러나 몽골침략자들은 화의후 고려에 막대한 물자를 강요하는 한편 다로가치(감독관)들을 파견하여 고려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해나섰다. 최이를 비롯한 무신집권자들은 저들의 통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밑에 1232년 7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다로가치들을 처단하였다. 그러자 한달후인 1232년 8월 살례탑이 거느린 몽골군은 또다시 고려에 쳐들어왔다. 적들은 속전속결을 꾀하면서 도중전투를 피하고 개경으로 미친듯이 달려들었다.

항전에 일떠선 개경의 군민들은 수도를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함선을 만들어 강화도를 공격하려던 적들의 시도를 파탄시켰다.

광주, 처인성(경기도 룡인군)을 비롯한 각지 인민들은 봉건정부가 방어군을 편성하지 않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희생적인 투쟁을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자기의 향토를 끝까지 지켜냈다.

처인성전투에서 김윤후가 적장 살레탑을 쏴죽이자 혼란에 빠진 침략군은 처인성군민들에게 다시한번 얻어맞고 급기야 제소굴로 물러갔다. 몽골의 제3차침입은 적장 당고의 지휘밑에 1235년-1238년에 감행되였다. 고려인민들은 동북면과 서북면, 동부와 남부 등 적들의 발길이 미치는 곳마다에서 견결한 항전을 벌렸다.

1235년 10월 지평현(경기도 양평)전투, 1236년 7월 개주(개천)전투, 온수(충청남도 아산)전투, 죽주성(경기도 안성)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고려인민들은 견고한 산성에 의거하여 맹렬한 습격전과 완강한 방어전을 벌려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고려인민들의 줄기찬 항전에 의하여 1236년말~1237년초 적들의 침략책동은 일시 중단되고 교전쌍방간에 강화를 위한 외교담판이 벌어지게 되였다.

고려인민의 항전기세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간파한 봉건몽골은 침략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고려정부의 요구를 접수하고 1239년 4월 자기들의 군대를 끌어내갔다. 고려왕의 몽골방문을 요구하며 부단한 압력을 가해오던 몽골침략자들은 1247년 7월 고려에 네번째로 쳐들어왔다. 적장 아모간이 거느린 침략군은 염주(황해남도 연안)까지 기여들었으나 테무친(칭기스한)의 손자들사이에서 권력다툼이 벌어진 저들의 내부사정으로 더이상 전쟁을 확대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몽골의 봉건통치배들은 1253년 7월 고려를 위협공갈하여 굴복시킬 목적밑에 적장 야굴이 지휘하는 수많은 병력을 제5차로 침략에 내몰았다.

적들은 8월에 벌써 서해도를 거쳐 충청도지경에까지 침입하였다.

고려정부가 강화교섭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을 때 인민들은 또다시 외래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싸움에 용감히 일떠섰다. 인민들은 도처에서 수십, 수백명으로 이루어진 기동적인 소부대를 무어 매복, 습격전으로 우세한 적을 무찔렀다.

춘추(강원도 춘천)성, 등주(안변)성을 비롯한 수많은 성의 인민들은 전통적인 산성전을 벌려 달려드는 적들을 때려부시고 침략자들의 배후를 견제하였다. 몽골의 제5차침입을 물리치는 투쟁을 가장 빛나게 장식한것은 충주성방어전투였다.

충주성방어전투

1253년 10월 적괴수 야굴이 직접 침략군을 거느리고 충주성을 포위공격하였다.

충주성인민들은 방호별감 김윤후의 지휘밑에 70여일간이나 치렬한 전투를 벌려 성을 지켜냈다.

싸움이 오래 계속되는 가운데 식량이 떨어져 가장 어려운 고비에 닥쳤을 때 김윤후는 성안에 보관되였던 노비문서들을 인민들앞에서 불살라버리고 로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주면서 모두다 최후결사전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 조치는 방어자들의 기세를 부쩍 높여놓았다.

노비출신을 주력으로 하는 충주성방어자들은 한사람같이 결사전에 떨쳐나서 모든 힘을 다하여 성을 끝까지 고수하여 남으로 계속 진출하려던 침략군의 기도를 완전히 파탄시켰다.

충주성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얻어맞아 만신창이 된 적들은 물러가지 않을수 없었다.

고려정복의 야망을 버리지 못한 몽골침략자들은 차리대의 지휘밑에 1254년-1259년사이에 제6차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고려인민들은 적들의 야수적만행과 략탈이 계속되고 흉년으로 하여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전국각지에서 굴함없이 싸웠다.

무력으로써는 고려를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몽골통치배들은 1259년 3월에 고려와 강화를 맺고 철수하였다.

1260년 대한의 자리를 차지한 홀필렬(원세조)은 고려의 국권과 령토를 인정하는 국서를 보내여왔다.

고려인민들의 30년가까운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몽골은 저들의 침략력사상 처음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강화를 맺지 않을수 없었다.

강화수립후 고려국왕과 그 추종자들은 무신세력을 제거하고 몽골과 공공연히 결탁하는데로 나갔다.

이에 격분한 강화도의 삼별초군은 1270년부터 장군 배중손, 지유, 로영희의 지휘밑에 국왕을 비롯한 반역적인 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치렬하게 벌렸다.

1273년 4월까지 계속된 삼별초의 항전은 봉건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벌어진 고려-몽골(원)전쟁에서 고려인민은 무비의 용감성과 불굴의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조국을 영예롭게 보위하였다.

강화도에로의 수도옮김(강화도천도)

고려에 대한 몽골침략자들의 제1차침입이 있은 후인 1231년 12월 당시 무신집권자 최이(최우)는 피난지를 물색해오던중 승천부사 윤린으로부터 강화도가 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윤린 등을 현지에 보내여 알아보게 하였다. 1232년에 들어서면서 몽골침략군의 괴수 살례탑이 재차침입을 로골화하자 최이는 수도를 개경으로부터 강화도로 옮길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300년동안이나 수도로 내려오던 개경을 버리고 당장 섬으로 옮겨앉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왕궁을 비롯한 수많은 관청들과 수만명의 주민을 옮기며 방대한 량의 물동을 운반해야 하는 이 일은 주도세밀한 준비와 일정한 시간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도를 옮기는것은 몽골에 대한 항전태도와 관련되는 문제였으므로 몽골을 반대하는 단호한 립장을 취하지 않고서는 결정될수 없었다.

1232년 2월부터 5월까지 봉건정부에서는 반몽항전대책을 거듭 토의하였는데 최이의 제의에 따라 매번 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중요하게 론의하였다.

최이는 1232년 6월 자기의 집에서 고위관료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수도옮기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의논하였다.

회의에서 최이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의 침략을 막자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의 주장에는 적극적인 반몽항전보다도 저들의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하여 해상전투에 능하지 못한 침략자들의 약점을 리용하여 지연전술을 쓰면서 적들과 유리한 조건에서 강화를 맺으려는 속심이 깔려있었다.

참지정사 유승단을 비롯한 일부 량반관료들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것은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투항주의적주장을 들고나오면서 수도를 옮기는것을 반대하였다.

최이의 집에서 수도옮기는 문제가 토의된다는것을 알고 달려온 야별초 지유, 김세충은 문을 열어제끼고 들어와 력대로 지켜온 개경은 성벽이 튼튼하고 군사가 넉넉하므로 수도를 끝까지 지켜 싸워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해나섰다.

그러나 최이는 모든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김세충을 죽이였다.

그리고 결정을 짓지 못한채 우물쭈물하는 국왕을 움직여 강화도에로 수도를 옮길것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그는 해당 관청에 지시하여 날자를 정해놓고 수도안의 5부의 주민들을 떠나보내도록 하였으며 이어 정해준 날자를 어기는자는 군법으로 다스릴것이라는 포고문을 써붙이게 하였다.

동시에 사신을 여러 도에 보내여 인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옮겨가 살도록 하였다. 봉건정부에서는 강화도천도를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업을 추진시키면서 내시 윤복창을 북계에 보내여 여러 성에 있는 몽골의 다로가치 수십명을 무장해제시키거나 처단하게 하였다.

최이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록봉을 운반하는 수레 100여채를 빼앗아 자기의 재산을 강화도에 실어갔으며 군대를 강화도에 파견하여 궁궐을 짓도록 하였다.

봉건정부가 부랴부랴 수도를 옮기게 된것은 바로 그전날 몽골에 사신으로 갔다가 먼저 빠져나온 교위 송립강으로부터 몽골군의 재침기도에 대하여 보고받았기때문이였다.

7월초에 벌써 국왕과 봉건정부는 강화도에 옮겨가 자리를 잡았다.

력사에서는 수도를 옮긴 이 사변을 강화도천도라고 부른다.

그후 강화도는 강화에 자리잡은 수도라는 뜻에서 《강도》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수도옮김을 봉건통치배들의 항전포기로, 안전한 피난처에로의 도주로 락인한 각지 인민들은 강화도천도직후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1258년정변

무신집권자 최항(최충헌의 손자)에 뒤이어 정권을 잡은 최의는 할애비, 애비와 마찬가지로 끝없는 치부를 위해 인민수탈에 광분하였다.

당시 몽골과 계속되는 전쟁의 온갖 부담을 걸머진 인민들의 처지는 말할수 없는 곤난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였다.

그러나 최의를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호화방탕한 생활을 위해 각지에 수확사를 파견하여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곡식을 깡그리 빼앗았다. 1255년에는 온 나라가 기근에 휩싸였으나 최의의 집창고에서는 곡식이 썩어났다. 그러나 그는 인민들을 구제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이는 인민들의 불만을 크게 야기시켰다. 이와 함께 수도를 지키는 별초군속에서도 최의를 반대하는 기운이 점차 높아갔다.

봉건관료들속에서도 대립과 모순이 날로 커갔다.

최가정권에 아부하여 출세한 소수의 문무관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하층관료들은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수조지는 물론 록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하층관료들의 불만은 결국 대토지소유자이며 국가재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인 최의에게로 돌려졌다.

그들의 불만은 몽골과의 강화교섭이 성숙됨에 따라 더욱 커졌으며 마침내 신의군의 도령랑장 박희실, 랑장 리연소 등 중하층장교들이 최의를 반대하는 정변음모를 꾸미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변음모에 최의의 밑에서 큰 권세를 쥐고있던 류경, 김인준 등을 끌어들이고 왕궁에서 있을 4월 8일 연등회를 계기로 거사할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김인준의 아들 김대제가 자기의 가시아버지 최량백(최의의 측근자)에게 이 사실을 루설함으로써 음모는 사전에 발각되였다.

당황한 최의는 급히 심복인 류승을 불러 의논하고 다음날 야별초를 동원하여 이 정변음모를 진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대재의 처가 이 사실을 엿듣고는 남편에게 알려주고 김대재는 다시 자기 애비인 김인준에게 알리면서 일이 급해졌으므로 속히 손을 쓸것을 공모하였다. 김인준은 날이 어두워지자 정변음모자들을 불러들여 대책을 토의하고 수도를 지키던 삼별초를 동원하였다.

김인준, 류경은 랑장 림연 등을 시켜 최의가 동원하기로 한 야별초 지유, 한종래를 죽이게 하였다.

동틀무렵 김인준이 이끈 삼별초군은 최의의 집에 쳐들어가 그를 잡아죽이고 류승 등 그의 심복들도 모조리 수색하여 처단하였다.

이로써 60여년간 존속되여온 최가정권이 끝장나고 정권은 형식상 국왕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1258년정변은 봉건통치배들이 최가정권에 대한 인민들과 군대의 불만을 리용하여 더 큰 권세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일으킨 정변이였다.

최가정권은 붕괴되였으나 김인준일파의 무신통치가 계속되였으며 인민들과 군인들의 비참한 처지는 여전하였다.

무신정권의 종말

1258년 3월 최의를 제거하는 정변에 참가하여 공신으로 된 림연은 1268년 12월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 당시의 무신집권자였던 김인준과 그의 일당을 제껴버리고 권력을 독차지하였다.

그는 1269년 6월 시중 리장용, 참지정사 유천우 등 문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몽적인 립장에 기울어진 국왕 원종을 쫓아내고 안경공 창을 왕으로 앉히였다.

교정별감으로 임명된 림연은 야별초를 변경지대에 보내여 몽골에서 돌아오는 태자(원종의 아들)를 붙잡게 하였다.

1269년 7월 귀국도중에 림연의 정변소식을 듣게 된 태자 심은 연경(오늘의 베

이징)으로 돌아가 홀필렬(원나라 세조)에게 림연일파를 타도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줄것을 요구하는 반역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때 몽골은 고려통치층안에서 일어난 알륵을 리용하여 고려를 분할해서 강점하려는 흉책을 꾸미였다.

1269년 11월 고려에 온 몽골의 병부시랑 흑적은 원종을 다시 왕으로 삼을것을 림연에게 요구했다.

이해말 몽골의 지지밑에 다시 왕으로 된 원종은 몽골을 방문하여 제놈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려는 목적밑에 무신집권자들을 제거하는데 협력할 군대파견을 요청하는 매국배족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은 몽골은 서경이북에 수천명의 침략군을 다시 들이밀었고 1270년 2월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자비령이북의 넓은 지역이 몽골의 직할지로 떨어져나가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다.

림연은 몽골에 간 원종이 침략군을 끌고올것을 예견하여 야별초를 각 지방에 파견하고 인민들을 섬으로 들여보내는 등 적극적인 항전대책을 세우다가 도중에 병으로 죽었다.

1270년 2월 교정별감이 된 그의 아들 림유무는 림연의 정책을 그대로 이었다. 1270년 5월 원종은 귀국에 앞서 정자려 등 관리들을 강화도에 보내여 수도를 개경으로 옮길것을 강요하였다.

림유무는 국왕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각 성에 산성방호별감을 파견하고 야별초를 륙지에 보내여 몽골침략군대를 막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국왕편으로 기울어진 많은 봉건관료들은 야별초들을 잡아가두고 국왕을 기다리고있다가 원종이 몽골군의 호위를 받으며 귀국하자 그와 야합하였다.

고려에 돌아온 원종은 림유무를 없애버리기 위한 음모부터 꾸미였다.

그는 1270년 5월 림유무에게 불만을 품고있던 어사중승 홍문기와 직문하성 송송례를 사촉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그들은 삼별초를 동원하여 림유무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와 그의 매부 대장군 최종소를 목베여죽이고 많은 관료들을 귀양보냈다.

림유무의 타도를 계기로 100년간 계속된 무신정권은 종말을 고하였다.

이 사변후 국왕일파가 외래침략자들과 공공연히 결탁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삼별초의 항전

1270년 5월 몽골과 결탁한 국왕 원종은 수도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옮길것을 공포하였다.

그러자 삼별초(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3개 부대에 대한 이름으로서 별초란 특별히 선발한 군대라는 뜻)가 이에 반기를 들었다.

5월 29일 원종은 장군 김자저를 강화도에 보내여 몽골과 끝까지 항전할 결심에 충만된 삼별초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국왕의 배신적인 행위에 격분한 삼별초는 이에 폭동으로 대답하였다.

6월 1일 장군 배중손과 야별초의 지유, 로영희가 이끈 삼별초는 수도안의 애국적인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켜 순식간에 무장대오를 크게 늘이였다.

폭동에 궐기한 삼별초와 인민들은 금강고(무기창고)를 열고 무장을 갖추었다.

항전군은 강화도의 수비를 강화하면서 개경으로 달아나려는 량반관료들의 탈출기도를 엄격히 단속하였다.

이와 함께 장군 리백기와 시학 정문감 등 항전에 응하지 않은 량반관료들과 몽골에서 파견한 중을 거리에서 처단하였다.

배중손, 로영희를 비롯한 항전지휘자들은 왕족인 승화후 온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몽골과 결탁한 개경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견결한 립장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직적인 항전을 벌릴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한편 항전기지를 장기적인 싸움에 유리한 진도로 옮길것을 결정하였다.

6월 3일 삼별초와 인민들은 1 000여척의 배에 나누어타고 강화도를 떠나 진도로 향하였다.

1270년 8월 19일 진도에 도착한 항전군은 룡장성을 새로 쌓고 방어시설들을 구축하는 등 기지건설을 다그쳤다.

삼별초는 새로 꾸린 항전기지에 의거하여 이해 9월부터 서남해안을 제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벌리였다.

먼저 전라도 장흥부(전라남도 장흥군)에서 관군을 격파한 항전군은 라주, 전주를 련이어 공격하여 투쟁성과를 확대하였다. 11월초에는 남해안의 중요 군사기지인 제주도를 공격하여 점령함으로써 제2의 항전기지를 확보하였다.

이에 질겁한 개경정부는 김방경과 몽골장수 아해가 거느린 1 000여명의 《토벌군》을 진도로 급히 파견하였다.

서해와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한 항전군은 진도대안에 주둔한 《토벌군》에게 주동적인 타격을 가하여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이어 항전군은 12월말에 있은 울돌바다싸움에서 적들에게 참패를 안기였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적들이 김방경을 끌고 황급히 도망쳐갔다. 패전의 책임을 진 아해는 파면당하고 많은 장수들이 철직되였다.

몽골침략자들은 진도의 항전군을 진압하기 위해 1271년 3월 흔도를 두목으로 하는 6 000명의 둔전군을 조직하였다.

흔도는 두차례나 진도에 《항복》을 요구하는 《사절》을 파견하였다.

배중손은 그때마다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침략군이 물러갈것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당시 삼별초의 항전에 고무된 륙지의 인민들은 도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동적인 통치배들을 족쳤다.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삼별초는 투쟁을 확대하여 장흥부의 조양현 합포(경상남도 마산), 동래, 김주(김해)를 공격하여 몽골의 함선건조기지를 파괴하는 등 큰 전과를 거두었으며 남해, 창원, 거제 등 30여개의 섬을 장악하였다.

항전군의 눈부신 활동으로 몽골의 일본침략계획은 큰 타격을 받게 되였으며 해상교통로를 봉쇄당한 고려정부는 수탈한 조세수송에서 장애를 받게 되였다.

날로 앙양되는 삼별초의 항전에 크게 질겁한 적들은 1271년 5월 수천명의 병력과 100여척의 함선으로 불의에 진도를 공격하였다.

당시 항전군은 대오안에 기여들었던 일부 량반관료들이 사전에 적들에게 비밀을 넘겨주고 대부분의 력량과 함선들이 남해연안에 나가싸우고있었으므로 불리한 정황에서 적들의 대병력과 맞서게 되였다.

배중손의 지휘밑에 항전군은 세 방면으로 쳐들어오는 적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다.

이 싸움에서 배중손이 전사하자 항전군은 김통정의 지휘밑에 혼란된 대오를 수습하여가지고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제주도를 항전기지로 튼튼히 꾸린 항전군은 먼저 남해의 추자도, 서해의 흑산도 등 조선서남해안의 여러 섬을 장악하여 해상활동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1272년 3월부터 또다시 투쟁을 적극화한 항전군은 그해 6월까지의 사이에 서남해안의 여러 고을을 습격하여 악질관료들을 처단하고 수많은 조세운반선을 로획하였으며 멀리 중부조선의 서해안까지 진출하여 고려봉건정부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해 11월에는 대담한 작전으로 안남도호부(경기도 부천시)를 기습하여 부사를 생포하였으며 이어 합포와 거제현을 들이치고 일본침략을 위해 몽골이 준비한 전함 수십척을 불살랐다.

1273년 1월에는 다시 합포를 공격하여 전함 32척을 불살랐다.

제주도로 투쟁기지를 옮긴 후 1년동안 삼별초는 인천 앞바다로부터 조선남해일대의 제해권을 틀어쥐고 도처에서 몽골침략군과 그와 결탁한 봉건통치배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겨 적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이에 바빠맞은 적들은 1272년 봄부터 제주도공격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항전군을 《항복》시키려는 회유술책에 매달렸다.

1272년 8월 적들은 김통정의 조카인 랑장 김찬을 비롯한 여러명을 제주도에 들여보냈으나 항전군은 김찬만 남기고 나머지놈들을 모조리 처단하였다.

회유기만술책이 통하지 않자 적들은 1273년 4월 김방경과 흔도가 이끈 160여척의 함선과 1만명의 병력으로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삼별초는 김통정의 지휘밑에 우세한 적들의 공격을 맞받아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하게 결사전을 벌리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다.

이리하여 3년동안 조선서남해와 그 연안을 뒤흔들던 삼별초의 항전은 막을 내렸다.

삼별초의 항전은 12세기 후반기이후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과 13세기 중엽 몽골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인민들의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결합시킨 투쟁으로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중세 우리 나라 인민들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홍두적격퇴

홍두적은 머리에 붉은수건을 쓴 침략자라는 의미에서 불리운것으로서 홍건적이라고도 하였다. 홍두적은 원래 원의 지배를 반대하여 일떠선 농민폭동군(홍두군)이였는데 1358년 12월 원나라의 제2수도인 숭도(개평부)를 점령하고 7개월간 이곳에 머물러있다가 다시 랴오둥일대를 지나 1359년말에는 압록강가에 이르러 변경을 넘어서게 되였다.

이때부터 홍두군은 농민폭동군으로서의 진보적성격을 버린 략탈부대, 침략부대로 변질되였다.

1359년 11월 홍두적은 3 000명으로 압록강을 건너 고려에 침입하여 략탈을 하고 돌아갔다. 12월초에는 4만여명의 무력으로 또다시 고려에 침입하여 의주를 점령하고 정주, 린주를 강점한 후 철주(철산)에 달려들었다.

고려의 군민은 서북면부원수 안우의 지휘밑에 적은 력량으로 용감히 싸워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철주성을 끝끝내 지켜냈다.

서북면의 여러 성의 군대와 인민들은 아직 고려의 방어주력이 도착하지 못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굴함없이 싸웠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은 서경까지 침입하여 점

령하였다.

전쟁의 불길이 청천강이남지역으로 확대되고있을 때 고려의 군민은 적들의 배후에서 치렬한 투쟁을 벌려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반공격으로 넘어간 고려군은 1360년 1월 서경을 공격하여 침략군 수천명을 소멸하고 서경을 되찾았다.

이해 2월 고려군은 함종으로 달아난 적군을 추격하여 격전끝에 2만명을 몰살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안우, 리방실이 지휘한 1 000여명의 기병부대는 김득배가 이끈 방어군과 힘을 합쳐 연주천계선에서 적들을 모조리 무찌른 후 계속 추격전을 벌려 멀리 변경밖으로 쫓아냈다.

고려에서 패하고 랴오둥지방을 거쳐 도망치던 적들은 다시 원나라의 상도를 공격하였다. 1360년 9월 원나라군대와의 싸움에서 진 홍두적은 만리장성너머 허베이지방으로 갈길이 막혀버리자 1361년 10월 또다시 고려에 침입하였다.

반성, 관선생 등을 두목으로 한 20여만의 홍두적은 압록강중류를 건너 삭주, 니성(창성)일대에 물밀듯이 기여들었다.

고려정부는 리방실을 서북면도지휘사로 임명하여 서북면으로부터 개경의 중간지대를 튼튼히 지키게 하는 한편 안우, 김득배 등이 군대를 거느리고 적들을 치게 하였다.

11월초 고려군대는 남하하는 적들을 개주, 연주(은산), 박주전투들에서 호되게 답새겼다.

적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도 수적우세를 믿고 집요하게 달려들어 11월 9일 안주를 점령하고 오만하게도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까지 보내왔다.

싸움은 국내깊이에로 옮겨져 적들은 11월 16일에 개경방어의 관문인 절령(황해북도 서흥군 자비령)을 넘어서 흥의역까지 달려들었다.

당황한 고려봉건정부는 최영 등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경을 떠날 준비만 서두르면서 적극적인 방어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11월 24일 적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개경에 기여들었다.

적들은 개경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자 학살과 략탈을 감행하면서 귀중한 문화재를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불살랐다.

고려인민들은 적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한 지역들에서 결사적인 항전을 벌려 침략군의 개경이남침공을 저지시키고 놈들을 개경성안에 못박아두었다.

충주에서 다시 복주(경상북도 안동)에 자리잡은 봉건정부는 남쪽지방에서 대규모의 방어군을 편성하고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임명하여 개경의 적주력을 치도록 하였다.

1362년 1월 20만의 고려군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적들은 소와 말가죽을 성벽우에 씌우고 그우에 물을 뿌려 얼구는 등 최후의 발악을 다해 대항하였으나 고려군의 드세찬 포위공격을 막아낼수 없었다.

개경전투에서 고려군은 적의 두목 관선생을 비롯한 10여만의 침략군을 포위섬멸하였다.

개경전투후 적들은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으며 살아남은 놈들은 간신히 압록강너머로 도망쳤다.

고려인민은 두차례에 걸친 홍두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나라의 안전을 튼튼히 지켜냈다.

왜구격멸

왜구(일본의 바다도적무리)는 14세기 중엽에 들어와 대규모의 무력으로 동서남해안일대에 빈번히 침습하여 온갖 만행과 날강도질을 감행하였다.

왜구의 야수적인 살인과 파괴, 략탈은 고려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고려인민들은 나라의 안전과 겨레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흉악한 왜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1350년대로부터 136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고려인민들은 원침략세력과 홍두적 등 외적들과의 싸움에 군대를 동원해야 했던 당시의 간고한 형편에서도 무시로 침입하는 왜적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향토와 생명, 재산을 지켜냈다.

1360년대초 침입해온 홍두적과 납합출의 랴오둥군대, 원침략세력을 련이어 격멸소탕한 후 고려정부는 왜적을 쳐부시기 위한 첫 대규모의 작전을 벌리였다.

진해현전투

1364년 5월 3 000명의 왜적이 진해현에 기여들자 고려정부는 경상도도순문사 김속명에게 즉시 반격을 가할것을 명령하였다. 그가 거느린 고려군은 긴급히 출동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놈들에게 드센 타격을 가하였다.

배를 탈 겨를도 없었던 왜적들은 진해현북쪽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여 목책을 만들어놓고 집요하게 저항하였다.

고려군은 총공격으로 넘어가 침입한 왜적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였다.

왜적 3 000명을 전멸시키는 대승리를 거둔 진해현전투는 고려정부가 왜적과의 투쟁에서 일대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준 큰 전투였다.

진해현전투이후 고려정부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의 침습을 단속할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홍산전투

1366년이후 수년간 수그러들었던 왜적들은 137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대규모적으로 고려에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왜구들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떼를 지어 륙지에 기여올라 내륙깊이 침입하여 장기간 류동하면서 온갖 략탈과 만행을 일삼았다.

고려의 군민들은 가증스러운 왜적들을 쳐물리치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 도처에서 섬멸전을 벌리였다.

대표적인 전투는 6도도순찰사 최영이 지휘한 홍산(충청남도 부여군)전투였다.

1376년 7월 금강을 거슬러올라온 왜적들은 부여를 점령하고 공주에 달려들었으며 충청남도의 석성, 련산일대를 횡행하면서 략탈과 방화, 살인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고려군을 지휘하던 양광도원수 박인계가 전사하자 더욱 기승을 부리였다.

이때 최영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마당으로 나가 홍산에서 적들과 격전을 벌리였다.

왜적들은 먼저 삼면이 절벽으로 된 높고 험한 지대를 차지하고 고려군에 대항해나섰다.

백전로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최영은 입술에 화살을 맞고도 선두에서 부대를 지휘하였으며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적진으로 돌격하여 왜적들의 대부분을 포로하거나 소멸하였다.

홍산전투는 고려군의 위력을 다시금 시위하였으며 왜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밖에도 50척의 왜적선을 격파한 1377년의 황산강(락동강하류)전투, 승천부(개풍군)에 기여들어 수도 개경을 엿보던 왜적들을 전멸시킨 1378년 4월의 해풍(개풍)전투, 적기병 700명과 보병 2 000명을 격멸한 1379년 5월의 반성현(경상남도 진주시)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고려군민은 왜적들에게 호된 징벌을 안기였다.

내륙깊이 침입한 왜적들을 짓조기던 때 고려정부는 한편으로 수군건설을 다그쳤다.

고려정부는 최영의 제의에 따라 싸움배를 건조하는데 착수하여 빠른 기간에 수백척의 싸움배를 무어냈다.

또한 최무선의 제의에 따라 1377년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포와 화통 등 그가 발명한 화약무기를 함선들에 장비하였다. 고려정부는 이와 함께 왜구의 침입을 단속할데 대한 교섭의 임무를 주어 라흥유, 안길상, 정몽주를 일본에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도 적극화하였다.

진포앞바다싸움, 운봉전투

고려군대와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응당한 징벌을 받은 왜적들은 거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1380년대에 들어와 계속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였다.

1380년 8월 왜적들은 500여척의 함선과 수만명의 대병력으로 진포에 기여들었다.

고려의 수군은 라세, 심덕부, 최무선의 지휘하에 화포를 실은 100여척의 싸움배로 진포앞바다로 나갔다.

고려의 함선들이 적선을 향하여 돌진하자 왜적들은 고려의 함선이 적은것을 얕보고 일제히 배에 올라 싸울 태세를 취하였다.

고려함선에 위력한 화약무기가 장비된것을 알리없었던 왜적들은 여러척씩 묶은 선단을 끌고나와 달려들었다.

고려함선들은 달려드는 적선을 향하여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적들의 배에는 불이 달리고 짙은 연기와 거센 불길이 하늘을 뒤덮었다.

든든한 바줄에 묶여진 적선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좌왕우왕 하다가 가라앉고 말았으며 배에 탔던 놈들은 모조리 바다에 빠지거나 불에 타죽었다.

500척의 적선은 크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여지없이 격멸되고말았다.

승리의 함성이 바다를 진감하는 속에 고려수군은 포로되였던 330여명의 인민들을 구원하여가지고 개선하였다.

진포바다싸움은 력사상 처음으로 해전에서 화약무기를 사용한 전투로서 지금까지 배전을 서로 맞대고 싸우던 전법대신에 먼거리에서 적선을 쳐부시는 새로운 전법으로 이긴 싸움이였다.

이 싸움은 고려수군의 위력을 시위하고 바다싸움에서 주도권을 틀어쥔 고려함대가 적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갔음을 보여준 력사적인 전투였다.

진포바다싸움에서 겨우 죽음을 면한 왜적들은 이미 륙지에 올라 로략질을 감행하던 적들과 합세하여 충청남북도일대를 싸돌아치다가 경상도지방으로 기여들었다.

왜적들은 타고왔던 함선들을 몽땅 잃고 도망갈 길이 끊어지자 상주, 선주(선산), 함양에 발악적으로 쳐들어왔다.

그후 적들은 전라도지경으로 넘어와 남원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해안으로 도망하려고 운봉현(전라북도 남원군)에 달려들었다.

이때 양광, 전라, 경상도 도순찰사가 지휘하는 고려군은 남원으로 진출하여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왜적들이 몰켜있는 운봉을 향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해안으로 나가려는 기도가 파탄되였다는것을 안 적들은 험준한 산중에 진을 치고 고려군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고려군은 산우의 적을 올리공격해야 하는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길 아닌 길을 열며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여 적의 지탱점을 빼앗았다. 고려군은 적들의 반돌격을 물리치면서 빼앗은 방어지역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로 적개심에 불탄 고려군사들은 더욱 용기백배하여 적괴수 아기발도를 비롯한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놈들의 반항을 제압하였다.

고려군은 1 600여필의 말과 수많은 무기와 전투기재를 로획하여가지고 개선하였다.

운봉전투는 진포바다싸움과 함께 30여년간 왜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크고 빛나는 승리를 거둔 전투였다.

이 전투를 통하여 고려군은 바다는 물론 륙지에서도 적들에게 결정적패배를 안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일본해적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욱 높여주었다.

고려함대는 그후 1382년 곤양(경상남도 사천군)앞바다싸움과 1383년 박두양(경상남도 남해군 앞바다)싸움에서 대규모로 침입한 적선들을 짓조기고 련이어 큰 승리를 거두었다.

쯔시마원정

고려인민에 의하여 여러차례 바다싸움에서 대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랄한 왜적들은 빈번히 고려에 기여들어 학살, 로략질을 그만두지 않았다.

기여드는 왜적들을 바다에서 기다리다가 쳐부시는것만으로는 놈들의 침략을 완전히 막아낼수 없었다.

마침내 고려정부는 왜적들의 해외침략의 중요소굴인 쯔시마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1389년 2월 경상도원수 박위가 지휘하는 100여척의 고려함대는 불의에 쯔시마를 공격하였다.

고려수군은 쯔시마에 정박하고있던 300척의 왜적선을 불사르고 연안의 적소굴들을 들부시였다.

고려원정군의 강력한 타격으로 공포에 질린 적들은 싸울것을 단념하고 깊은 산속으로 뺑소니쳐 목숨을 건지기에 급급하였다. 고려원정군은 왜적들이 침략에 리용하던 해안시설들을 파괴하고 적들에게 랍치되였던 100여명의 인민들을 구원한 다음 승전고를 울리며 개선하였다.

쯔시마공격은 40여년간에 걸친 왜구의 침략을 끝장내기 위하여 고려가 단행한 정의의 원정이였다.

쯔시마원정을 계기로 고려함대의 위력에 질겁한 왜적들은 다시는 큰 규모로 고려에 기여들지 못하였다.

쯔시마원정은 고려의 대외적위신도 크게 높아지게 하였다.

1389년 8월 류뀨국(오늘의 일본 오끼나와)의 중산왕은 사신을 보내여 고려의 쯔시마원정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자신을 고려의 신하로 자칭하였다.

또한 왜적에게 포로되여 류뀨국에 가있던 고려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 지방의 특산물인 류황, 후추 등을 보내왔다.

당시 왜구의 침입과 략탈을 입던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왜적의 소굴을 들이친 고려의 승리에 경탄을 표시하였다.

쯔시마원정을 계기로 왜구의 침략을 묵인하거나 조종하던 일본의 서부지방의 봉건세력들도 고려에 굴복하였다.

규슈탐제 이마가와 료순은 사신과 함께 특산물을 보내면서 고려와《영원히 평화적인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저자세를 취하였다.

고려인민은 오랜 기간에 걸친 왜구와의 투쟁에서 적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안겨주었으며 조국의 강토를 피로써 지켜냈다.

14세기 후반기 왜구격멸에서 거둔 성과와 풍부한 경험은 이후시기의 수군건설과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1369년-1371년 랴오둥원정

원나라봉건통치배들은 농민폭동에 의하여 뒤흔들리는 통치위기수습에 급급하면서도 고려를 침략하기 위하여 1360년 전반기《동녕부》라는 침략기관을 랴오양에 다시 설치하였다.

고려정부는《동녕부》를 침으로써 원침략세력의 침공기도를 미리 꺾어버리고 놈들을 랴오둥지방에서 몰아낼 목적밑에 랴오둥원정을 단행하였다.

고려군은 제1차 랴오둥원정시기 두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양백연이 지휘하는 서북면의 군대는 1369년 11월에 개경을 떠나 압록강하류를 건너 랴오양으로 쳐들어갔다. 원정부대는 친원세력의 두목 기철의 아들인 기새인첩목아를 추격하여 그를 동녕성(랴오양성)에 몰아넣었으며 저항하는 적들을 쳐부시고 그 두목 50여명을 포로해가지고 1370년 2월 하순에 개선하였다.

한편 1370년 1월초에 함흥을 떠난 동북면의 고려군은 1월 14일 압록강을 건너 야둔촌전투에서 동녕부의 리오로첩목아(고려사람 리원경)의 항복을 받고 계속 진격하여 랴오둥의 주요군사적거점인 올라산성을 점령한 후 개선하였다. 고려군은 제1차원정을 통하여 고려를 침략하려던 원침략세력과 반역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고려정부는 1370년 8월 제2차 랴오둥출병을 결정하고 그 준비를 다그쳤다. 이 시기 기새인첩목아는 랴오둥지방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군대를 긁어모아 고려의 북부변경에 침입하려고 획책하였다.

11월초 수만의 고려원정군은 서북면상원수 지룡수, 부원수 양백연의 지휘밑에 원침략세력의 본거지인 랴오양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원정도중 고려군은 포고문을 발표하여 랴오둥원정의 목적을 밝혔다. 원정군은 랴오둥성에 이르러 3 000명의 기병으로 위력정찰을 한 후 적들을 성밖으로 끌어내여 일대격전을 벌렸다. 고려주력부대의 드세찬 공격앞에 넋을 잃은 적장 처명은 말에서 내려 머리를 땅에 박고 항복하였다. 고려군은 총돌격전을 벌려 랴오둥성을 점령하였다.

성을 함락한 고려군은 군사시설들을 파괴하고 성의 우두머리들을 포함한 수많은 적들을 포로하였으며 많은 물자들을 로획하였다. 원정군의 주력이 랴오둥성을 공격할 때 만호 배언이 지휘하는 원정군의 다른 한 부대는 석성에 둥지를 튼 고가노의 부대를 들이침으로써 적이 고려군주력을 측면과 배후로 공격할수 없게 하였다. 제2차 랴오둥원정에서 승리한 고려군은 랴오둥지방이 옛날부터 우리의 강토였다는것을 선포하면서 이곳에 살고있는 고려인민들에게 귀순할것을 요구하는 포고문을 여러곳에 내붙인 후 유유히 개선하였다.

고려정부는 1371년 9월 압록강너머에 대한 제3차원정을 단행하였다. 서경도만호 안우경과 안주상만호 리순이 지휘하는 원정군은 압록강중류를 건너 이해 10월에 동가강건너편의 올라산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성을 함락한 원정군은 원침략세력을 격멸소탕하고 당시 이 지방에 할거한 봉건세력들을 위압하여 고려에 대한 침략기도를 버리게 하였다. 고려군의 랴오둥원정이 있은 후 이 지방에 침투한 명나라와 대치하기까지의 20여년간 고려의 변경은 비교적 평온하였다. 고려는 일시적인 안정을 리용하여 새로운 강적으로 나타난 왜구를 격멸하는데 힘을 돌릴수 있었다.

제주도(탐라)원정

고려인민과 군대는 1350년대부터 원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인민들의 드높은 투쟁기세에 편승하여 고려정부는 단호한 반원정책을 실시하였다.

고려정부는 친원파두목들인 기씨일족을 타도하고 고려내정에 대한 간섭의 도구였던 《정동행성리문소》를 철폐하였으며 동북면과 서북면에로 대군을 출동시켜 원나라침략세력을 압록강너머로 쫓아버리고 적들이 타고앉았던 쌍성지방(동북부지방)을 되찾았다.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과 고려정부의 군사적조치로 원침략세력은 고려땅에서 쫓겨났으나 제주도에는 의연히 적들이 둥지를 틀고있었다. 일찍부터 제주도(탐라)에 눈독을 들여온 원침략자들은 1273년 삼별초항전을 진압하자 이곳을 강점하고 수많은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후 제주도는 원침략자들의 일본침공을 위한 군사기지로, 군마목장으로 되였다.

1294년 고려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원나라봉건정부는 마지못해 제주도를 고려에 반환하느라고 하였으나 저들의 군대는 그대로 눌러두고 목장을 관리하는 답사관을 파견하였다. 원침략자들은 제주도를 고려에서 떼여내려고 계속 집요하게 책동하였으며 몽골인목부(기병)들은 자주 란을 일으켜 고려관리들과 인민들을 살해하고 재물들을 로략질하였다.

몽골인목부들은 1356년 10월과 1362년 6월에 고려를 반대하는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을 조장한 원나라봉건정부는 저희 관료들을 탐라만호로 임명하여 제주도를 다시 예속시키려고 꾀하였다. 당시 고려는 침입해온 홍두적과 압록강너머의 원침략세력을 몰아내는 긴장한 싸움을 벌리는 형편에서 당장 제주도에 원정할수 없었다. 1367년에 들어와 멸망을 감촉한 원나라봉건통치배들은 유사시 제주도를 피난처로 삼으려고 많은 병력과 물자를 여기에 집중하였다. 제주도에서 몽골침략세력을 몰아내는것은 더 미룰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였다.

1374년 7월 고려정부는 제주도원정을 결정하고 그 준비를 다그쳤다. 그리고 한달후 최영을 도통사로 하고 2만 5 600명의 군대와 314척의 함선으로 편성된 원정군은 라주에 집결하여 행동방향을 결정한 다음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원정군은 먼저 포고문을 내여 인민들과 토호세력을 안심시키는 한편 적편에 가담한자들도 항복하면 용서해준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원침략세력의 두목들은 3 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명월포에서 상륙한 원정군에 대항해나섰다. 원정군은 적들을 들이답새겨대면서 패주하는 적들을 30리나 추격하였다.

명월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원정군은 적들에게서 빼앗은 말을 타고 기동력을 더욱 높이였다. 고려군이 한나산아래에 모여 휴식할 때 싸움을 걸어온 적들이 거짓 패하는척 하면서 달아났다.

넓은 벌판으로 유인하여 기병으로 반격을 가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알아차린 원정부대는 놈들에게 력량을 수습할 여유를 주지 않고 급히 추격하여 섬멸전을 벌리였

다. 살아남은 적들이 호도로 빠지자 고려군은 빠른 병선 40척으로 섬을 포위하였다. 뒤미처 섬에 도착한 주력부대는 일대 소탕전을 벌렸다. 파멸을 눈앞에 두고 허우적거리던 적장들은 항복하거나 자살하였다. 호도의 적들을 전멸시킨 고려군은 제주성에 의거하여 저항하는 나머지적 수백명을 쓸어눕힘으로써 침략세력을 몽땅 소멸하였다. 제주도에서 원침략세력을 종국적으로 구축한 고려군은 성안의 말 전부와 수많은 무기, 물자들을 로획하여가지고 개경으로 개선하였다.

제주도원정은 14세기 후반기 원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하고 조선남해에 정치군사적거점을 튼튼히 마련하여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였다.

신돈의 《개혁》

14세기 후반기에 더 많은 토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량반관료들의 추악한 싸움으로 하여 봉건통치는 어지러워지고 사회경제적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해먹는 이른바 세신대족들은 권력을 휘둘러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차지함으로써 봉건국가의 수탈원천을 줄어들게 하고 왕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공민왕은 1352년에《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토지와 노비의 소유권에 대한 옳고그름을 따지여 바로잡는《변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대토지소유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문란해진 봉건통치를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량반관료들과 정실관계가 없는 인물을 등용하여 과단성있게 《개혁》을 밀고나가야만 하였다.

공민왕은 그러한 인물로 중 신돈을 내세우고 1363년에 그를 정부의 고관으로 등용하였다. 국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게 된 신돈은 먼저 관리임면권을 틀어쥐고 왕권에 대립한 수많은 량반관료들을 내쫓고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에 자기의 심복들을 앉히였다.

신돈은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닦자 국왕이 결심한 《개혁》에 착수하였다.

신돈은 1366년에 《전민변정도감》을 다시 설치하고 자신이 그 판사가 되여 전국에 명령을 내리였다. 신돈은 명령에서 먼저 나라가 병들고 왕권이 약해진 원인이 토지와 노비를 비법적으로 차지한 량반권세가들의 협잡과 략탈행위에 있다는것과 그들이 독차지한 토지와 노비를 본 주인에게 되돌려주는것이《변정》의 중요한 내용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수도에서는 15일, 지방에서는 40일안에 비법적으로 빼앗아가진 토지와 노비를 스스로 내놓는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 발각되는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선포하였다. 명령발포후《개혁》은 얼마동안 비교적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적지 않은 량반관료들이 강탈했던 토지와 노비를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본래 량인이였다고 고소하는 수많은 노비들을 량인으로 만들어주었다. 력사에서는 이 《변정》사업을 《신돈의 개혁》으로 부른다.

이《개혁》은 날로 커가는 대량반관료들의 정치경제적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데 있었다.

신돈은 이러한 목적으로부터《개혁》을 반대하는 세신대족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면서 《변정》사업을 밀고나갔다. 하지만 그의 《개혁》도 실패의 운명을 면하지 못하였다. 신돈을 반대하는 세신대족들이 점차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권력이 커지는데 불안을 느낀 공민왕도 신돈을 멀리하였다. 신돈에 대한 국왕의 신임이 약해지는 기미를 알아차린 세신대족들은 그를 여러모로 비방중상하였다. 국왕의 배척을 받고 세신대족들의 맹렬한 반항에 부딪친 신돈은 선손을 써서 국왕을

제거할 정변을 꾀하였다. 그러나 1371년 그의 음모가 발각되여 그 일당은 체포되고 신돈은 수원으로 류배당하였다가 얼마후에 처형되였다.

그리하여 신돈이 집권한 다음 약 5년간 진행되던 《변정》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신돈의 《개혁》은 13세기 후반기이후 6차례에 걸쳐 벌어진 《변정》사업들 가운데서 비교적 철저하게 진행된 《개혁》이였다.

《위화도회군》

1388년 고려원정군이 랴오둥으로 진격할 때 리성계가 위화도에서 배신적으로 군대를 돌려세운 사건이다.

1388년 2월 명나라는 철령이북 서북지방의 고려의 령토를 요구하였으며 압록강 중류(강계)에《철령위》라는 행정군사단위를 설치하였다는것을 고려정부에 알려왔다.

명나라의 통치배들은 그 지역이 원나라가 관할하던《쌍성총관부》에 속해있었다는것을 구실로 원나라가 멸망하자 그 지역을 저들이 차지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이에 대처하여 고려는 명나라가 랴오둥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정료위에 대한 공격문제를 토의하고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철령위설치계획을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명나라는 그해 3월 랴오둥도사의 병력 1 000여명을 강계에 침입시켜 기어이 철령위를 설치하려고 시도하여나섰다. 그런 조건에서 당시 고려의 최고위급대신인 시중 최영은 명나라의 야망을 분쇄하기 위한 랴오둥원정을 단행할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때 최영의 다음 벼슬자리를 차지하고있던 야심가 리성계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것은《도의》에 어긋난다는것,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것은 계절로 보아 부적당하다는것, 랴오둥원정에 국력을 동원하면 그름을 타서 왜구의 침입이 있을수 있다는것, 원정을 장마철에 하게 되면 활에 먹인 아교가 녹고 군인들이 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등으로 최영의 주장을 반대하여나섰다. 그러나 고려정부는 최영의 강경한 제의에 따라 그를 8도도통사로 하고 조민수를 좌군도통사, 리성계를 우군도통사로 하는 5만여명의 원정군을 편성하여 4월 18일에 출정케 하였다.

최영은 국왕과 함께 평양에 머무르면서 원정군을 지휘하고 조민수와 리성계가 전투부대를 직접 통솔하고 북상하였다. 원정군의 기본부대는 5월초에 의주 위화도에 도착하였다. 한편 니성(창성)에 주둔하고있던 강계부의 군대는 먼저 압록강을 건너 랴오둥지방의 적의 몇개 요새들을 치고 개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화도에 주둔하고있던 리성계는 장마로 강물이 불어서 강을 건늘수 없다는 구실로 원정군을 철수시킬것을 지휘부에 여러차례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영은 계속 출격할것을 명령하였다. 고려왕권을 빼앗으려는 야망을 품어온 리성계는 명나라의 땅을 침범하면 화가 당장 미칠것이라고 하면서 5월말에 원정군을 돌려세워 개경(개성)으로 쳐들어갔다. 이것을 《위화도회군》이라고 하였다.

리성계의 반란소식을 들은 최영과 국왕은 황급히 개경으로 달려가 방어군을 조직하여 싸우려고 하였으나 력량상 상대가 되지 않았다. 6월초에 리성계일파는 반란군을 지휘하여 개경을 점령하고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최영을 귀양보냈으며 우왕을 내쫓고 그의 아들 창을 왕자리에 앉히였다. 얼마후 리성계는 최영을 랴오둥공격을 주장한《반역죄》로 몰아서 처형하였다. 리성계가 감행한 배신적인《위화도회군》은 명나라통치배들을 더욱 오만하고 횡포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또한 리조통치배들에게 명나라에 대한 사대굴종사상을 부식시켰으며 고

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으려는 우리 인민들의 국토수복의지를 말살하고 압록강이남지역에 주저앉게 하는 죄악적후과를 가져왔다.

고려의 유적과 유물

천리장성

천리장성은 고려시기에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장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장성을 보시고 이 성은 우리 선조들이 외적과 싸우느라고 쌓은 성이라고 하시면서 잘 보존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고려는 거란과 녀진침략자들을 막기 위하여 1033년부터 1044년사이에 압록강하구로부터 함경남도 동해바다가(함경남도 금야군 련동리와 정평군 동호리)에 이르는 천여리구간에 장성을 쌓았다.

현재 평안북도의 신의주시, 의주군, 창성군, 동창군, 운산군, 자강도의 희천시, 동신군, 평안남도의 녕원군, 함경남도의 요덕군, 금야군, 정평군 등지에 그 성벽이 잘 남아있다.

천리장성의 성벽은 대부분 돌로 쌓았고 부분적구간에만 흙으로 쌓았다.

성벽의 높이는 4~7m이고 성벽우의 너비는 2~5m이다.

성을 쌓을 당시 돌성벽의 높이와 너비를 다같이 25자로 하였다가 1119년에 다시 3자씩 더 높이 쌓았다고 한다.

성벽우에는 성가퀴를 쌓고 거기에 활을 쏘는 구멍을 냈다.

그리고 교통에 편리한 거점마다에는 크고작은 성문들을 내고 적이 잘 볼수 없는 산비탈에는 암문을 냈다.

천리장성에는 겹성도 있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1 600리나 된다.

천리장성은 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고려인민들의 애국심과 높은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구주성

구주성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고려시기의 성이다.

고려시기에는 구성을 구주라고 불렀다. 구주 또는 구성이라는 이름은 산줄기들이 수많은 가지를 뻗쳐 시내를 가로세로 내지르는 모양이 마치 거북잔등같다는데서 온것이다.

구성은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침략자들을 막는데서 중요한 지역이였으므로 고려정부는 한때 이곳에 대도호부를 두고 군사상 중심지로 삼았다.

《고려사》에 의하면 구주성은 994년에 쌓았다고 한다.

성은 1009년과 그후 여러차례 보수되였고 리조말까지 리용되였다.

구주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둘레는 약 7km이다.

성벽은 외면쌓기방법과 량면쌓기(평지대)방법으로 쌓았으며 주요돌출부마다 치를 설치하였던 자리가 20여군데 남아있다.

구주성에는 성가퀴와 문을 비롯한 유사시 전투를 지휘하는 북장대, 서장대, 남장대 등 기타 시설들이 있었다.

그가운데서 내성의 남문은 무지개문길이 있는 축대우에 앞면 3칸, 옆면 3칸으로 포식두공에 합각식지붕으로 된 웅장한 2층문루였다.

남문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6(1957)년 10월 중순 어느날 구성시를 찾으시여 파괴된 남문을 원상대로 복구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구성남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옛모습대로 웅장하게 일떠서 고려인민들의 애국투쟁의 력사를 자랑할수 있게 되였다.

구주성은 거란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018년 12월에 10만여명의 거란침략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애국적군민들은 구주성동쪽벌판에서 무리죽음을 주었다.

력사상《구주대첩》(구주대승리)으로 이름난 이 전투는 1019년 2월 1일에 있었는데 용감한 고려군은 강감찬장군의 지휘밑에 총공격으로 넘어가 거란침략군에 대한 일대 섬멸전을 벌리였다.

이 전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용맹떨친 처녀 설죽화의 용감한 투쟁일화도 전하고있다.

구주성은 1231년 8월 살례탑이 거느린 몽골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도 난공불락의 요새로 자랑떨친 기록을 남기고있다. 4개월간에 걸친 치렬한 구주성싸움에서 패한 몽골의 70살 난 장수는《내가 어려서부터 전쟁에 많이 참가하였으나 이처럼 맹렬한 공격을 받고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은 처음 본다.》고 비명을 질렀다.

구주성은 이렇듯 자랑스러운 투쟁력사를 가지고있으며 고려시기의 높은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건축문화유산이다.

철옹성

철옹성은 녕변군 녕변읍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4(1975)년 7월 9일 철옹성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철옹성은 고려때 처음 쌓고 그후 여러번 보수한 성으로서 본성의 둘레는 14km이다.

성은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져있다.

그중 약산성과 본성은 고려시기에 쌓은 성이고 신성은 리조시기인 1683년에 본성안의 서남부에, 북성은 1684년에 본성안의 서북부에 쌓았다.

철옹성은 녕변일대의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하여 외면쌓기방법과 량면쌓기방법으로 쌓았다. 여기서 신성과 북성의 성벽높이는 6~7m 된다.

성벽에는 성가퀴를 두어 활이나 총을 자유롭게 쏠수 있게 구멍을 냈으며 요충지마다 포루, 암문, 수구문 등을 설치하였다.

특히 본성의 남문은 1789년에 고쳐세웠는데 2층으로 된 아름답고 웅장한 문루로 되여있다.

철옹성에는 남산에 남장대, 약산성에 서장대(약산동대), 진망산에는 북장대, 모란봉에는 동장대 등이 있고 3개의 골짜기로 흐르는 깨끗한 물과 50개나 되는 우물이 있었다.

철옹성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친 투쟁이야기가 수많이 깃들어있다.

11세기초 철옹성을 지키던 군민들은 거란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였고 1236년에는 몽골침략자들을 격퇴하였다.

그후 홍두적의 침입도 물리치고 1636년에는 3만명의 청나라침략자들이 이 성을 점령하려고 7일간이나 맹렬한 공격을 하였지만 끝내 격퇴당하고말았다.

이렇듯 철옹성은 언제나 외래침략자들에게 참패만을 안겨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반침략투쟁력사를 담고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개경성

개경성은 고려시기의 수도성이다.

이 성은 태봉국때인 896년에 송악산기슭에 쌓고 발어참성이라 하였다.

지금 개성시 송악동에 있는 만월대의 궁성과 황성이 바로 그것이다.

918년에 고려왕조가 선 다음 발어참성은 그대로 고려의 수도성으로 되였다.

고려는 초기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려는 구상밑에 서북방개척사업에 큰 힘을 넣었으므로 수도 개경을 둘러막는 도성건설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그후 3차에 걸치는 거란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수도를 방위하는 도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고려는 도시전체를 둘러막는 성을 쌓았다. 이때 쌓은 성이 발어참성의 동남쪽에 덧붙여쌓은 라성이다.

라성은 1009년부터 1029년 기간에 쌓았는데 길이가 16km나 된다.

《고려사》에 의하면 이 성을 쌓는데 30만 4 400공수의 로력이 들고 장정 23만 8 938명과 기술자 8 450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라성에는 큰 문만 하여도 8개, 중간크기의 문이 4개, 작은 문이 13개이며 그중 가장 크고 건축기교가 높은 문은 서쪽의 오정문(신의문)이였다.

고려말기인 1391년부터 방어를 강화할 목적으로 발어참성 동남쪽 라성안에 내성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1394년에 완성되였다. 내성의 총길이는 8.5km이고 그 평면이 반달모양이라고 하여 반월성이라고 불렀다.

내성에는 남대문을 비롯하여 7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동대문과 서소문은 일제강점자들이 파괴하였고 남대문의 문루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야수들의 폭격에 의하여 불타버리였다.

개경성은 라성(외성), 내성, 황성, 궁성으로 이루어진 총 23km에 달하는 도성으로 고구려 평양성에서 창조된 수도성건설방식을 계승하여 건설된것이다.

고려의 수도성이였던 개경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대문을 비롯한 파괴되였던것이 원상복구되여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다.

개성 남대문과 연복사종

개성남대문은 개성시 북안동에 있는 개경성 내성의 남문이다.

1391년-1393년에 개경성 내성을 쌓을 때 세웠다.

1899년에 크게 보수하였으며 1950년 12월 미제공중비적들의 야수적인 무차별폭격으로 불타버렸다. 주체42(1953)년 8월 어느날 몸소 개성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대문을 원상대로 복구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개성 남대문은 주체43(1954)년에 원상대로 복구되였다.

남대문은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져있다.

축대는 다듬은 네모난 화강석으로 쌓았고 복판에 무지개문길을 냈다.

문루는 축대우에 세웠는데 앞면 3칸(13.63m), 옆면 2칸(7.96m)이다. 기둥은 네모를 죽인 높이 1m의 돌기둥우에 배부른 기둥을 이어 세웠다.

두공은 포석두공으로서 짧은 소혀형제공에 점차를 맞추어 안팎 3포로 짜올렸다. 지붕은 겹처마의 합각지붕으로 하였고 문루에는 모루단청을 입혔다.

남대문문루에는 연복사종이 있다.

이 종은 1346년에 만들어 연복사에 달았던것인데 1563년 화재로 절이 불타없

어지자 남대문에 옮겨온것이다.

연복사종은 청동으로 주조하였는데 높이 3.12m, 아구리직경이 1.9m, 두께 23cm, 무게가 약 14t에 달한다.

아구리테두리는 물결모양으로 굴곡을 지우고 그 테두리를 따라 물결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의 물고기, 룡, 봉황, 기린, 게 등을 새기였으며 그우에는 문장가인 리곡이 쓴 종을 주조한 년대와 종의 래력을 밝힌 글이 새겨져있다. 종명우에는 빙 둘러가며 불교의 경전을 새기고 그 웃부분에는 동, 서, 남, 북에 부처들을 돋우새겼다.

종어깨에는 두마리의 룡이 서로 뒤틀고있는 모습을 형상한 조각이 있다.

연복사종은 형태가 우아하고 그 조각들이 섬세할뿐아니라 소리가 맑아 이름있는 종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었다.

개성 남대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쾌한 모습과 우리 나라 옛 건축물의 뛰여난 건축미를 나타내고있다.

개성 남대문과 연복사종은 당시 우리 선조들의 성건축술과 종주조기술, 조각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만월대

개성시 송악산남쪽기슭에 있는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왕궁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2(1953)년 8월 어느날 개성의 고적들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 간곡한 교시를 주시면서 그 대책과 방도까지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개성에 주둔한 인민군부대들은 왕궁터를 정전된 그해에 복구하였다.

918년에 건국된 고려는 919년 만월대에 왕궁을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설하여놓았다.

그리하여 만월대는 고려의 거의 전기간 왕궁으로 있었다.

만월대는 1361년 홍두적이 침입하였을 때 불타버렸다.

만월대란 궁성과 황성 즉 왕궁터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지만 원래는 왕이 정사를 보는 집인 회경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궁전들이 있던 대지를 말한다.

면적은 125만m^2이고 궁성과 황성으로 나뉘여지는데 궁성의 면적은 약 39만m^2나 된다.

궁성의 정문은 남쪽에 있는 승평문이고 서쪽에 서화문, 동쪽에 동화문, 북쪽에 현무문이 있다.

궁성안에는 루정과 회경전, 장화전, 원덕전, 건덕전 등 수많은 궁전들이 있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왕궁 동쪽에 지은 《태평정》이라는 정자지붕은 값비싼 고려청자기와로 이어져있었다고 한다.

당시 왕궁의 정자들에 이을 청자기와는 전라도 남해안지방에서 만들었는데 그곳 인민들은 1 000리가 넘는 개성까지 소잔등에 싣거나 등짐으로 운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인민들이 왕궁을 건설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불행을 당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황성에는 고려의 중앙관청들과 구정(격구를 비롯한 체육경기와 열병식을 하던 곳) 등이 있었다.

황성의 정문은 동쪽에 있는 광화문이고 북쪽에 태화문과 장추문, 서쪽에 영추문, 남쪽에 주작문 등과 여러개의 작은 문들이 있었다.

만월대의 고려궁유적에서 주목되는것은 구성과 주요궁전터의 짜임새가 고구려의 강한 문화적영향을 보이고있는것이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이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되여있었는데 내성과 중성은 바로 왕이 살던 궁성과 중앙관청들이 있던 황성이다.

고려왕궁이 궁성과 황성으로 구성된것은 바로 고구려의 전례를 이은것이다.

특히 고구려의 궁성인 안학궁에는 복판에 중심건축군이 있고 그 서쪽에 서궁, 동쪽에 동궁이 있었다. 만월대의 유적을 보면 바로 안학궁과 같이 배치되여있었다.

그리고 안학궁의 궁전들이 ＋형의 평면을 가졌는데 만월대의 유적에서도 주요궁전들의 평면은 다 이렇게 ＋형으로 되여있었다.

이것은 만월대의 고려왕궁이 고구려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만월대는 최대의 착취자, 지배자였던 고려왕의 거처지이고 착취기관들이 있던 유적이지만 그것은 고려인민들의 높은 건축술과 예술적재능을 엿볼수 있게 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고려태조 왕건왕릉

고려태조왕건왕릉은 개성시 해선리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81(1992)년 5월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왕건은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통일국가를 세운 태조왕인것만큼 그의 릉을 잘 꾸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왕릉을 잘 꾸리고 주변에 나무도 많이 심어 릉의 품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택에서 손수 키우신 잣솔나무를 가져다 심어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 이후에도 왕건왕릉을 꾸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개건형성안도 몸소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듭되는 세심한 가르치심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왕건왕릉은 빠른 시일안에 훌륭히 개건되여 민족의 력사를 자랑하게 되였다. 송악산의 가지줄기가 뻗어내려온 만수산의 나지막한 등성이우에 자리잡고있는 왕건왕릉은 고려태조왕인 왕건(877년-943년)의 무덤이다.

개성지방의 유력한 봉건세력으로서 태봉국의 시중벼슬을 하던 왕건은 918년에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를 일떠세웠다. 그는 고조선의 계승국이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온 고구려를 이을 목적으로 국호를《고려》라고 하였으며 건국후 26년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943년에 사망하였다.

왕건왕릉은 고려시기에만 하여도 외래침략자들이 침입할 때마다 네차례나 파서 다른 곳에 옮겼다가 제자리로 가져왔으며 일제강점시기에 여러번 도굴을 당하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였다.

현재의 왕건왕릉은 1994년에 개건된 돌칸흙무덤이다.

새로 개건된 왕건왕릉에는 릉문의 앞마당(왕릉의 입구)에 왕릉개건비가 세워져있다. 개건비의 높이는 6.8m이며 비문이 새겨진 비돌우에 평지붕을 씌웠다.

비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고려태조왕건왕릉개건비**》라는 글이 비의 중심에 금문자로 깊이 새겨져있다.

비의 뒤면에는 왕건왕릉을 개건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애국애족의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글이 새겨져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령도의 찬연한 해발
송악산기슭 옛 도읍지에 따사롭게 비치여
오백년 왕업의 고려 첫 통일국가로 빛나고
태조의 왕릉도 새 모습으로 일떠서게 되였어라
양춘의 서기 한아름 안으시고
길이 험해도 가봐야 한다시며
만수산언덕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
왕건왕릉을 개건하라 하실 때

강산은 감격에 설레였어라
아 이 나라 민족의 슬기로운 력사 빛내이시려
수령님의 거룩한 애국애족의 뜻이여
주체의 빛발로 세기를 밝히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영광스러운 우리 당
일찌기 고려를 첫 통일국가로
민족사의 빛나는 자리에 내세워주시더니
또다시 하해같은 은정 베풀어주시였네
하여 선조의 업적 빛나고
고려의 위용 비낀듯
태조왕릉 웅장하게 꾸려졌으니
오랜 세월 묻혀있던 고려의 통일기상
로동당시대에 자랑떨치게 되였어라
전설같은 미덕과 탁월한 령도 비문에 새겨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노라

1993년 5월 5일 세움

개건비앞마당의 북쪽에는 릉의 대문이 있는데 3문체식배집으로 동서 40m, 남북 15m이다.

릉문을 지나면 동서 49m 되는 마당이 있고 동서변두리에 제당을 비롯한 건물이 있다.

마당에서 북쪽으로 38m 올라가면 무덤구역이 있다.

아래층단과 가운데층단에는 문관과 무관들이 동쪽과 서쪽에 4상씩 있는데 모두 고려건국후 왕건의 사업을 적극 도와준 최언휘, 홍유, 최지옹, 김부, 유금필, 신숭겸, 배현경, 대광현 등의 신하들이다.

웃층은 동서 32.94m, 남북 32.64m인데 릉주위에 돌범, 망주석, 상돌이 배치되여있으며 중심에 왕릉이 있다. 왕릉은 직경이 19m이고 높이가 8m이다.

왕릉은 무덤칸이 돌칸으로 된 외칸무덤이다.

무덤칸은 무덤안길과 주검을 넣는 안칸으로 이루어져있고 천정은 한단의 평행고임을 한 평천정이다.

무덤안길은 길이 48cm, 너비 138cm, 높이 156cm이다.

무덤안칸에는 벽화가 있는데 1 0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옛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동벽의 벽화는 매화와 참대를 그린 《매죽도》와 《사신도》의 청룡을 결합한것이고 서벽의 벽화는 소나무와 작은 매화나무, 《사신도》의 백호를 그리였다.

북변의 벽화는 많이 손상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알수 없으나 현무도를 그리였으리라고 보아진다.

천정에는 매화와 별자리그림이 그려져있다.

벽화들은 당시 고려의 높은 회화술을 보여주며 고구려 무덤벽화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왕건왕릉은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를 세운 태조왕의 무덤,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개성첨성대

개성첨성대는 개성시 송악동에 있는 만월대의 서쪽에 있다.

고려의 천문대로서 만월대의 궁성을 쌓으면서 그 초기에 세운것으로 보아진다.

현재 첨성대는 화강석을 다듬어만든 축대부분만이 남아있다.

원래 축대우에는 천문현상을 관측하던 기구들이 놓여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 없어졌다.

방형평면으로 된 축대는 기둥돌들과 그우에 상처럼 짜놓은 대돌로 이루어졌는데 높이는 2.8m이며 그 한변의 길이는 2.6m이다.

기둥돌은 모두 5개인데 4개는 네 모서리에 세우고 1개는 그 복판에 세웠다. 매개 기둥돌의 세로자름면은 정방형이며 기둥돌밑에는 주추돌을 받치였다.

대돌은 네모난 긴 돌로 가로세로 日형으로 틀을 짠 다음 그사이에 판돌을 깔아만들었다.

대돌웃면 네 모서리에는 직경 12cm, 깊이 9cm의 구멍이 뚫어져있고 그밖에도 여러개의 구멍이 나있다. 이것은 아마 관측기구들을 고정하기 위하여 쓰던 구멍인것 같다. 첨성대의 축대는 동서남북방위와 일치하고 그 시공이 정밀하며 부재들의 물림이 든든하게 되여있는데 당시의 건축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고려시기 천문학이 매우 발전한것은 《고려사》의 기록에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여 기록한것이 1105년부터 고려말까지 50건이나 있는것이 잘 말해준다.

개성첨성대는 고려의 높은 건축술과 천문학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숭양서원

숭양서원은 개성시 선죽동에 있다.

고려말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지은 사립교육기관이다.

숭양서원은 원래 고려말기의 봉건관리이며 이름난 유학자인 정몽주가 살던 집자리인데 지금의 건물은 1573년에 고쳐세운것이다.

이 서원은 리조시기 개성량반들이 자기 지방과 관련이 있는 유학자들을 제사지내면서 동시에 자식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웠다.

숭양서원은 당시 서원의 전형적인 형식과 짜임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것으로서 자남산 동남쪽 중턱의 약간 비탈진 자리에 규모있게 배치되여있다.

정방형의 높은 담장으로 둘러막은 서원의 바깥삼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동재와 서재가 마주서있고 좀더 나가면 3개의 돌계단으로 오르는 높은 축대우에 강당이 있다.

강당뒤에 낸 3개의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 서원안 앞뒤를 가로막은 담장을 지나면 서원의 중심건물인 사당에 이른다. 그리고 바깥삼문 서쪽에는 부속건물들이 있다.

숭양서원의 중심건물인 사당은 1.3m의 높은 밑단우에 앞면 4간(9.43m), 옆면 2간(4.83m)으로 되여있는데 흘림기둥에 두공이 없는 배집지붕을 한 집이다.

강당은 앞면 5간(12.79m), 옆면 3간(6.96m)인데 1.6m의 높은 밑단우에 흘림기둥을 세우고 두공이 없이 지은 홑처마합각집이다. 가운데는 마루를 깔고 량켠 모서리칸에는 온돌방을 꾸렸다.

유생들의 합숙으로 쓰인 동재와 서재는 두공이 없는 배집지붕을 한 건물로서 앞면 5칸, 옆면 2칸으로 규모가 큰 건물이다.

숭양서원은 사립교육기관으로서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에 복무하던 곳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지방교육형편과 서원의 배치형식, 짜임새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개성성균관

개성시에 있는 개성성균관은 고려초엽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지은 교육기관건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81(1992)년 5월 몸소 개성성균관을 찾으시여 그 래력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하여주시면서 개성에 있는 경공업단과대학을 경공업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고 《고려성균관》으로 부르도록 교시하시고 몸소 친필을 남기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주체81(1992)년에 《고려성균관》창립 1 000돐 행사를 크게 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악기들을 보내주시는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개성성균관의 전신은 11세기 초엽에 건설한 별궁인 대명궁이다.

고려 11대왕 문종이 쓰던 이 건물은 그후 외국에서 오는 사신을 류숙시키는 숙소로 쓰면서 《순천관》이라고 부르다가 유교경전에 관한 사무를 보는 《승문관》으로 되였다.

1089년에 고려정부는 오늘의 내성동부근에 있던 고려의 최고교육기관인 《국자감》(992년에 설치)을 이곳으로 옮겨왔다.

봉건정부는 1304년 《국자감》에 새로 대성전과 그밖의 건물들을 건설하여 최고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1310년에 그 이름을 《성균관》이라고 고치였다.

고려말 성균관의 대사성(책임자)은 이름난 유학자 리색이였으며 정몽주와 같은 학자들이 여기서 유학 등 관리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치였다.

지금의 건물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이 불태워버렸던것을 1602년에 대성전과 서재를, 1605년에 동무와 서무, 명륜당을, 1610년에 동재 등을 지어 옛모습대로 복구하였다.

개성성균관은 대성전과 명륜당을 비롯한 20여채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송악산 동쪽기슭 비탈진 곳에 자리잡고있는 성균관은 남북중심축에 따라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북쪽구역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남쪽구역으로 나누어 배치되여있다.

북쪽구역 맨뒤 제일 높은 밑단우에는 대성전(앞면 5간 14.69m, 옆면 3간

9.75m, 단익공두공을 얹은 겹처마합각지붕의 집)이 있고 그 앞뜰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있으며 대성전 서쪽에는 계성사가 있다.

북쪽구역을 둘러막은 담장의 남쪽 중앙에는 안삼문이 있다.

남쪽구역 맨뒤 중심에는 명륜당(앞면 5간 19.3m. 옆면 3간 9.34m인 바닥에 마루를 깔고 단익공두공을 얹은 겹처마배집으로 유학을 가르치던 강당)이 있고 그 동쪽에 향실, 서쪽에 존경각이 있으며 그앞 좌우에는 동재와 서재가 마주서있다.

남쪽구역을 둘러싼 담장 한가운데는 바깥삼문이 있다.

특히 명륜당은 봉건시기의 강당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동재와 서재는 공부를 하는 유생들이 숙식하는 건물이였다.

개성성균관은 고려의 국가적인 교육기관의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유적으로서 당시의 교육제도와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공민왕릉

고려 31대왕인 공민왕의 무덤으로서 개성시 해선리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6(1957)년 8월 어느날 공민왕릉앞에 서있는 무관과 문관을 형상한 돌조각을 보시고 참으로 우리 선조들의 재간이 대단하다고 하시며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공민왕무덤은 현릉(공민왕무덤)과 정릉(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쌍무덤으로서 1365년-1372년의 공민왕의 권세와 사치스러운 생활이 죽어서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만든것이다.

무덤은 무선봉의 나지막한 산중턱에 남쪽을 향하여 자리잡고있는데 높이 15m의 3층단으로 구성되여있다.

1층단의 크기는 동서 40m, 남북 24m이다.

현릉과 정릉은 1층단 가운데에 1m 높이로 쌓은 12각돌밑단우에 만들었다.

무덤무지 밑둘레에는 바닥돌, 연돌, 갑돌, 기둥돌, 당김돌로 이루어진 화려한 12각의 병풍돌을 둘러놓았으며 그와 병행하여 12각형의 돌란간을 둘렀다.

돌란간과 병풍돌사이에는 1.2m너비의 복도를 마련하고 두 무덤을 련결시키였다.

무덤무지의 높이는 약 6.5m이고 그 대각직경은 13.7m이다.

현릉의 무덤칸은 동서 2.97m, 남북 3m, 높이 2.29m이며 평천정인데 벽화로 12지신, 북두칠성, 삼성, 해 등을 그리였다.

병풍들의 면돌에는 그 방위에 해당하는 짐승대가리를 얹고 구름을 탄 모양을 형상한 관을 쓴 12지신상을 부각하였으며 갑돌, 바닥돌, 당김돌에는 꽃무늬를 아로새기였다.

무덤앞에는 길이 3.36m, 너비 1.82m, 두께 0.45m 되는 상돌이 있고 무덤좌우에 망주석이 세워져있으며 두 무덤의 둘레에는 돌범과 돌양이 엇바꾸어있다.

2, 3층단에는 돌등이 있고 좌우에 4상의 문관상과 무관상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형상조각되여있으며 제사터, 정자각터, 광통보제선사비 등이 있다.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은 헌병, 경찰, 군대까지 동원하여 이 무덤을 폭파하고 귀중한 유물 10만여점을 모조리 일본으로 략탈하여갔다.

공민왕릉은 비록 고려봉건통치계급의 최고권력자인 왕의 무덤이기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조형예술적인 재능과 무덤건축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령통사 5층탑과 대각국사비

령통사 5층탑은 개성시 오관산 남쪽기슭 령통사에 있다.

이 탑은 고려초기의것으로서 화강석을 다듬어쌓아 만들었다.

밑단 한변의 길이는 2.25m이고 높이는 약 6.48m가량 된다.

탑은 넓은 판돌로 된 밑단과 다섯층의 탑몸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구조형식상 고려초기의 돌탑특징을 잘 보여주고있다.

대각국사비는 고려시기의 중 의천(대각국사)을 기념하여 1125년에 세운 비석으로서 바닥돌, 거북받침, 비몸, 비머리로 이루어져있다.

높이는 약 4.5m이고 비문을 오인후가 썼는데 앞면은 해서체이고 뒤면은 행서체이다.

비문에는 세계에 자랑할만 한 목판조각기술과 출판인쇄기술을 보여주는 《속장경》(4 769권)출판에 기여한 중 의천의 경력이 적혀있다.

령통사 5층탑과 대각국사비는 고려의 건축, 출판, 미술 등을 연구하는데 사료로 되는 문화유산이다.

현화사 7층탑

현화사 7층탑은 개성시 방직동에 있다.

1020년에 세운 돌탑이다.

탑은 방형평면의 탑으로서 한단의 밑단과 7층의 탑몸, 탑머리로 구성되여있다.

탑의 높이는 8.64m이며 탑몸의 매 면에는 련꽃잎을 새기고 오모기속에는 세련된 솜씨로 석가상, 사천왕상, 라한상 같은것을 정교롭게 돋을새기였다.

현화사 7층탑은 고려시기 불교를 퍼뜨리는데 리용되였지만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 탑으로서 거기에는 당시 인민들의 재능과 조각기술이 반영되여있다.

보현사 8각13층탑과 4각9층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웅전마당에 있는 8각13층탑과 만세루앞에 있는 4각9층탑은 우리 나라 중세기의 발전된 석조건축술을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건축물입니다.》(《**김일성**전집》 제10권, 264페지)

보현사 대웅전마당에 있는 8각13층탑은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에 있다.

탑은 높이가 10.03m이며 화강석을 섬세하게 다듬어쌓아 만들었다.

탑의 아래밑단은 바닥돌우에 대돌을 3층으로 놓았고 밑돌의 웃면에는 아래로 향한 련꽃을 아로새겼고 그우의 돌에는 모서리마다 모기둥을 돋쳤으며 갑돌밑에는 우로 피여오르는 련꽃을 돋우새겼다.

8각으로 된 밑단 한변의 길이는 1.2m이며 아래밑단을 이룬 매개 대돌의 옆면과 웃밑단 밑돌과 갑돌의 옆면들에는 선새김으로 토막토막 네모나게 구간을 나누고 그안에 오모기를 나타냈다.

탑몸은 높이가 6.58m 되는데 우로 올라가면서 높이와 너비를 줄여서 안전감을 주었다.

몸돌모서리마다에는 가늘게 모기둥을 나타내고 면들에는 테를 둘러 아담하게 하였다.

지붕돌의 처마는 웃선과 아래선을 량끝에서 들어올려 경쾌하게 하였고 8각으로 된 매층 지붕돌의 추녀끝마다에는 바람방울(풍경)이 104개 달려있다.

이 풍경과 탑머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풍경과 탑머리는 최근에 다시 만들었다. 이 탑을 《석가탑》이라고도 불렀다.

만세루앞에는 4각9층탑이 있다.

첫층의 탑몸뒤면에 새겨져있는 글에 의하면 1044년에 세웠다는것을 알수 있다.

탑의 높이는 6m이며 재색화강석을 정교롭게 다듬어만들었다.

탑의 맨 밑에는 두층의 바닥돌을 깔고 그우에 두단의 밑단을 올려놓았다. 아래밑단가운데돌에는 매 면마다 련꽃오모기를 3개씩 새기였다.

갑돌웃면에는 돌아가면서 련꽃잎을 돋우새겼으며 웃밑단의 가운데돌 네면에는 하나씩의 커다란 련꽃오모기를 새겼다.

갑돌은 웃면과 아래면을 가르고 면마다 세겹으로 된 련꽃잎을 돋우새겼다.

밑단 한변의 길이는 3.55m이다.

탑몸은 9층으로 되여있으며 우로 올라가면서 높이와 너비를 차례로 줄이였다.

탑의 첫층 몸돌 남쪽면에 높이 50cm, 너비 45cm, 길이 65cm의 네모난 불감이 있는데 그전에 여기에 《다보》부처가 있었다. 그래서 이 탑을 《다보탑》이라고도 한다.

첫층 몸돌의 북쪽면에는 탑을 세운 목적과 그 년대를 적은 글자가 새겨져있다.

매층 몸돌의 밑에는 띠모양의 2단고임을 주고 몸돌의 면들에는 모서리부분들에 홈을 파서 테를 나타내는 특수한 수법을 적용하였다.

지붕돌의 물매는 급하고 밑에는 3단의 처마받침을 하였으며 처마선은 비교적 얇게 하면서도 량끝을 살짝 들어주어 장중한 느낌을 주게 하였다.

추녀끝에는 풍경을 달았던 자리가 남아있고 탑머리에는 로반만 남아있다.

이와 같이 오모기와 련꽃잎을 다양하게 형상하고 모기둥을 나타내면서 지붕들의 처리를 탑몸에 어울리게 잘 하고 풍경을 달아 탑의 전체모양을 살린것은 고려시기 탑의 특징의 하나이다.

보현사의 탑들은 불교의 교리를 선전하기 위하여 세운것이지만 고려시기의 훌륭한 석조각건축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경천사탑

경천사탑은 고려말기인 1348년에 만든 희귀하고 아름다운 특수형의 대리석탑이다.

본래 개성시 광수리 부소산기슭 경천사에 있던것인데 일제침략자들이 략탈하여 갔다가 조선인민의 항의에 못이겨 서울에 가져다놓은채로 있다.

탑의 높이는 약 13.5m인데 3층의 밑단과 10층의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졌다.

경천사탑은 전반적으로 비례가 잘 맞고 우로 솟아오르는 기분을 강하게 안겨준다.

아래 3층은 중간돌출부가 있는 4각평면에 어울리게 지붕구조를 가지면서도 세층의 정면지붕형태를 서로 다르게 처리하였다. 우의 7층탑몸은 여기에 대조되게 단순한 구조로 시원하게 솟아오르게 하였다.

탑머리에는 로반이 남아있다.

경천사탑은 형태자체를 조형예술화하면서 그 겉면전반에 걸쳐 여러가지 주제의 섬세한 조각을 하였다.

테와 면, 밑면과 웃면 그 어느곳에도 다 조각하였다.

꽃묶음테, 사람들과 부처, 꽃무늬, 넝쿨무늬, 룡과 새, 짐승, 잡상,《령상회》,《미타회》,《약사회》 등 12가지 불교행사의 조각품들은 우리 선조들의 높은 조각술을 보여준다.

경천사탑은 강융이라는 사람의 지휘밑에 고려의 기술자들이 만든 특수형의 탑이며 이것이 리조에 계승되여 원각사탑 같은것을 낳게 하였다.

경천사탑은 비록 불교를 선전하고 전파하기 위한 탑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시 고려사람들의 훌륭한 건축, 조각기술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된다.

금장암 사자탑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금장암터에 있는 고려초기의 돌탑이다.

밑단부분을 돌사자로 대신한 특수형에 속하는 돌탑중의 하나이다.

사자탑이란 이름은 밑단에서 4개의 돌사자가 기둥을 대신하고있는데서 온 이름이다.

바닥돌우에 놓인 밑단은 보통탑에서와 마찬가지로 밑돌, 가운데돌, 갑돌로 이루어져있다.

가운데부분의 네귀에는 두다리를 힘있게 뻗치고있는 각각 한마리의 돌사자를 놓고 그 복판에는 부처 한상을 놓았다.

그리고 그우에 보통의 돌탑과 다름이 없는 3층탑몸과 보주형탑머리가 있다.

탑의 높이는 3.87m에 이른다.

금장암 사자탑은 조형예술적가치가 매우 높은 탑으로 고려시기의 탑건축술을 보여주는 민족유산의 하나이다.

묘길상

묘길상은 고려시기의 바위돌부처조각인데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만폭동의 웃골짜기 사선계에 있다.

높이 40m의 벼랑에 새긴 이 큰 부처의 높이는 15m, 너비는 9.4m로서 얼굴만 하여도 높이 3.1m, 너비 2.6m, 눈의 길이 1m, 귀의 길이가 1.5m나 된다.

묘길상조각은 크기도 하거니와 바위에 새긴 조각으로서도 잘된 대표작의 하나이다.

묘길상은 올방자를 틀고있는 모습인데 오른손은 우로 쳐들고 왼손은 아래로 내리우고있다.

미소를 지은 얼굴, 길다란 눈섭, 가늘게 째진 눈, 이마의 둥근《백호》, 늘어진 긴 귀, 퉁퉁한 볼, 밭은 목, 옷주름 등은 고려시기 부처의 특징을 잘 나타냈다.

높은 돋을새김과 낮은 돋을새김을 잘 배합한 조각수법은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있다.

이 부처는 본래 아미타여래상인데 18세기말 이 조각 오른쪽아래에 《묘길상》이라고 새긴 때부터 묘길상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묘길상은 고려시기 대표적인 부처조각의 하나로서 비록 불교를 선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고려인민의 훌륭한 조각술이 반영되여있는 민족유산이다.

월정사탑

월정사탑은 남강원도 평창군 오대산기슭 월정사터에 있는 8각9층탑이다.

월정사탑은 고려탑의 기풍이 짙게 풍기고 특히 돌과 금속으로 만든 탑머리가 가장 잘 남아있는 돌탑의 하나이다.

탑을 세운 년대는 고려말이며 높이는 15.15m이다.

밑단은 2층으로 되여있는데 아래단과 웃단에 넙적한 8각대돌을 하나씩 놓아 수평을 강조하여 높이 솟아도 안전해보이게 하였다.

탑의 모서리마다 돋친 약간 배부른 기둥은 탑이 퍽 온화해보이게 하며 탑몸 1층의 동, 서, 남, 북 네면에는 감을 냈는데 부처를 새겨놓았던것 같다.

지붕돌에는 몇단씩 처마받침을 주었는데 그가운데것에는 둥근면을 주어 부드러움을 돋구었다.

탑의 전체 규모와 구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탑머리에는 로반과 복발, 앙화와 보륜, 보개, 수연, 룡화, 보주 및 모 등의 요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지고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탑머리에는 보륜까지 돌이고 그우는 금속인데 돌과 금속을 어찌나 잘 가공하였던지 그 재질을 갈라볼수 없을 정도이다.

월정사탑은 우리 선조들의 높은 축탑기술을 보여주는 고려말기의 대표적인 탑의 하나이다.

은진미륵

충청남도 론산시의 관촉사에 있는 큰 돌부처이다.

은진이란 론산의 옛이름이며 미륵이란 미륵보살(부처 다음가는 성인)의 준말이다.

높이가 18.12m나 되는데 우리 나라 불상유물가운데서 가장 큰것이다.

이 미륵보살은 968년에 시작하여 1006년까지 38년동안의 오랜 세월에 걸쳐 제작하였다.

허리로부터 우, 아래가 각각 1개의 화강석으로 되였으며 머리우에는 보개(금동으로 만든 풍경과 구슬을 단 높은 관)를 올리였다.

이 부처는 불교가 요구하는 엄격한 도식과 제한속에 추상적인 우상물로 만들어졌으나 조각으로서는 잘된것이다.

돌부처앞에는 균형이 잘 잡힌 돌등이 있다.

은진미륵은 불교를 선전하기 위해 만든 부처이지만 고려시기의 높은 조각술이 반영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문화유산의 하나로 된다.

통군정

통군정은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에 있는데 고려전반기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다시 지은 루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4(1975)년 3월 어느날 통군정을 찾으시고 주변의 100정보일대에 모두 나무를 심고 공원으로 꾸려 인민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5(1966)년 8월 어느날 통군정을 찾으시고 통군정은 관서8경의 하나로서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슬기와 건축술을 잘 보여주며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통군정은 의주성의 북장대로서 군사지휘처로 쓰이였다.

990년에 편찬된 《임사총기》의 기록을 보아 고려전반기에 처음 세운것이 분명하며 지금 있는 통군정은 1538년에 고쳐세운것이다.

통군정은 루정건물가운데서 짜임새와 형식이 뛰여나고 주위환경에 어울리도록 화려하게 장식한 훌륭한 건물이다.

통군정은 2익공의 합각식지붕을 얹었는데 앞면 4간(14.41m), 옆면 4간(11.85m)이다. 바닥은 앞부분 절반만 단을 주어 널마루를 깔고 바닥주추돌웃면에서 아래마루까지의 높이는 71cm, 아래마루에서 웃마루까지의 높이는 33cm로서 앞은 높고 뒤는 낮게 함으로써 루정의 쓸모를 크게 하였다.

천정은 통천정으로 하면서도 모든 부재들에 조각장식을 붙여 건물안을 시원하고 화려하게 하였다.

통군정은 목재를 적게 쓰면서도 힘을 많이 받도록 한것이 특징이다.

대들보를 겹으로 한것, 동자기둥대신에 제공으로 틀어올린것과 퇴보, 측보로 기둥을 잡아 틀목을 강화한것 등으로 건물의 립체적억세기를 높인것 등이 그러한것이다.

통군정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욱이 깃들어있다.

주체7(1918)년 11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청수동으로 가시던 길에 통군정에 오르시여 독립운동자들에게 통군정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서 여기에는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한 우리 선조들의 애국의 넋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명승고적으로 이름난 이 통군정을 인민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통군정에는 김형직선생님의 명제비가 세워져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포격에 의하여 심한 피해를 입었던 통군정은 우리 당의 옳바른 문화보존정책에 의하여 옛모습대로 복구되여 오늘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묘향산 보현사

묘향산 보현사는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묘향산에 있는 문화유산은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훌륭한 예술적기교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10권, 263페지)

보현사는 력사가 오랜 큰 절간의 하나이다.

보현사의 전신인 안심사는 1028년에 지었는데 보현사의 서북쪽에 있었다.

지금의 보현사는 1042년에 처음 세운이래 1095년, 1361년, 1449년, 1634년, 1765년 등 여러차례 고쳐지으면서 내려온것이다.

보현사는 남북으로 길게 중심축을 설정하고 그 축우에 중심건물인 대웅전, 만세루, 탑과 문들을 놓고 그 좌우에는 관음전, 만수각, 령상전, 수충사 등이 배치되여있으며 보현사로 들어가는 문으로는 조계문, 해탈문, 천왕문이 있다.

조계문 좌우문방에는 각각 금강신상이 놓여있다.

해탈문 좌우문방에는 푸른 사자를 탄 문수보살상과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상이 있다.

천왕문 좌우문방에는 사천왕상을 놓아 각각 문들의 특색을 돋구었다.

천왕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서면 처음 마주치는것이 보현사 9층탑이다.

1044년에 만들었다는 글을 새긴 보현사 9층탑은 4각탑으로서 높이는 6m이다.

옛날 첫층 불감속에는 《다보》부처가 있어 이 탑을 다보탑이라고도 불렀다.

고려시기의 모습으로 복구된 만세루는 비탈진 대지에 턱을 지우고 앞부분은 2층으로, 뒤부분은 단층으로 지은 합각집이다.

만세루는 정면 5간(23.04m), 옆면 3간(11.52m)으로 되여있는데 그 가운데칸에는 문길이 나있다. 그전에는 여기에 무게 1 600근의 큰 종과 2개의 큰 북을 놓고 아침에는 종을, 저녁에는 북을 울렸다고 한다.

만세루를 지나면 뜨락에 고려말기에 만들어진 보현사 13층탑이 있는데 일명 석가탑이라고도 한다. 이 탑에 종이(풍경) 104개 달려있다.

탑뒤에는 이 절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이 있는데 앞면 5간, 옆면 3간으로 된 합각집이

다. 이 건물은 두공, 문살을 비롯한 나무조각이 훌륭하며 집안에 부처들이 놓여있다.

대웅전 동쪽에 있는 관음전은 앞면 5간, 옆면 4~5간으로 된 리조초기의 건물이며 여기에도 부처들이 놓여있다.

관음전 서쪽에는 만수각이, 동쪽에는 령상전과 서산대사와 사명당을 기념하여 세운 수충사가 있다.

묘향산 보현사에는 상원암, 불영대, 법왕대, 상비로암을 비롯한 많은 암자들이 속해있었다.

묘향산 보현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보살피심에 의하여 《팔만대장경보존고》가 우리 시대 민족건축술로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1950년 11월 미제의 야수적폭격(대웅전, 만세루를 비롯한 13동의 유적건물과 7 400점의 귀중한 유물들이 재더미로 됨)에 의하여 재더미로 되였던 대웅전과 만세루가 원상복구되였다.

묘향산 보현사에는 이외에도 유점사종과 성동리 다라니석당이 옮겨져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묘향산 보현사에는 우리 인민의 자랑찬 반침략투쟁이야기도 깃들어있다.

1216년 고려군민들은 거란침략자들이 묘향산에 쳐들어와 보현사에 불을 지르며 략탈하는데 항전하여 적 2 400여명을 족쳤으며 임진조국전쟁때 서산대사는 70이 넘은 고령으로서 전국의 중들에게 격문을 보내여 조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때에 모인 승병들은 5 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서산대사는 1593년 1월 의병부대들을 지휘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는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묘향산 보현사는 불교로 인민들을 기만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세워진 절간이지만 우리 선조들의 높은 건축술과 조각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성불사

성불사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산에 있는 고려시기의 대표적인 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성불사는 우리 인민들의 훌륭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오랜 건물이므로 잘 보존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10(1921)년 10월 정방산 성불사 청풍루에서 혁명조직성원들의 모임을 열고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하여서는 조선사람이 한사람같이 굳게 단결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놈들을 때려부셔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성불사를 처음 세운것은 898년이며 다시 지은것은 고려말이다.

성불사는 5층돌탑을 중심으로 극락전, 응진전, 명부전, 청풍루, 운하당, 산신각으로 이루어졌다.

극락전, 응진전, 5층돌탑은 고려시기의것이고 나머지는 리조때의것이다.

여기서 중심건물은 극락전이며 제일 오래된것은 응진전이다.

극락전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파괴된것을 전후에 복구한것인데 앞면 3간(12m), 옆면 2간(6.3m)이고 3익공두공에 겹처마배집이다.

응진전은 앞면 7간(22.75m), 옆면 3간(6.7m)이고 3포두공을 얹은 겹처마배집이다.

응진전의 배부른기둥과 간결하고 소박한 포식두공, 집안에 활개를 쓴 모습은 고려풍이 짙게 풍기고있다. 게다가 고려때의 단청까지 그대로 보존되여있어 력사적가치가 매우 크다.

정방산 성불사는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봉건통치배들에게 순종할것을 강요하여온 불교를 선전하고 퍼뜨리는 절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재능이 깃들어있다.

숭인전

숭인전은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에 있는 옛날 제사를 지내던 사당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숭인전은 오랜 건축물이라고 하시면서 그 주변을 잘 정리하여 보존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숭인전은 고려시기인 1325년에 처음 세워진것이 보수를 거치면서 오늘까지 전하여내려왔다.

숭인전은 임진조국전쟁때 왜적들과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원상대로 복구되였다.

숭인전은 본래 본전외에 3간량통으로 된 정문과 동쪽행랑, 서쪽행랑, 7간짜리 재계청 등 10여채의 건물들로 이루어져있었으며 지금은 본전만 남아있는데 숭령전곁으로 옮겨놓았다.

숭인전은 밑단우에 세운 앞면 3간(12.97m), 옆면 3간(8.72m), 안팎 3포의 포식두공을 얹고 겹쳐마합각지붕에 모루단청을 한 아담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다.

특히 배부른기둥에 포식두공을 한 숭인전은 균형이 잡히고 구조가 간결한것이 특징이다.

옛날 조선건축의 품격을 잘 갖추고있는 숭인전은 비록 종교를 선전하는 건물이지만 고려시기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연탄 심원사

연탄 심원사는 황해북도 연탄군 연탄읍 자비산에 있다.

1374년에 고쳐짓고 지금까지 보수하면서 전하여진 건물이다.

심원사는 보광전을 중심으로 응진전, 향로각, 청풍루, 칠성각 등으로 구성되여있는데 보광전이 고려때의것이고 나머지건물들은 리조때의것이다.

고려말에는 불탑이 없는 무탑식절건설이 일반적흐름이여서 이 절에 탑을 세우지 않았다.

심원사는 중심축을 남북으로 설정하고 북쪽중앙에 보광전을 놓고 그 앞마당에 대칭되게 응진전과 향로각을 마주서있게 하였으며 중심축 남쪽에 다락건물인 청풍루를 배치하였다.

보광전은 앞면 3간(10.98m), 옆면 3간(7.55m)으로 안팎이 7포로 된 합각집이다.

건물안은 깊숙이 세운 2개의 중심기둥에 의거하여 높직한 불단을 만들고 그우에는 화려하고 섬세한 닫집을 드리워놓았다.

내부에는 단청도 입혔는데 은근한 풀색계통의 색조를 많이 쓰고 간단한 휴를 붙이였으며 여러가지 꽃무늬와 비단무늬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특히 네모서리 두공우에서 날아내리는 동자조각은 아주 잘되였다.

이 절 청풍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는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 뒤에는 천녀봉을 이고 앞으로는 백운봉, 청학대, 청룡봉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있고 멀리 관음봉이

가물거리며 보인다. 발밑으로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린다.
심원사는 불교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였으나 당시의 발전된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봉정사

봉정사는 경상북도 안동시 대장동에 있다.

672년에 처음 세운 절인데 건물들가운데서 극락전은 12세기경에 고쳐지은것으로 추정되며 대웅전은 13~14세기경에 고쳐세웠다.

이 절의 나머지건물은 리조시기의것이다.

높은 밑단우에 세운 극락전은 정면 3간, 옆면 4간의 배집지붕을 이고있으며 통간으로 된 건물안에는 부처가 놓여있다.

극락전의 구조형식은 정방산 성불사의것과 통하는 점이 많다.

봉정사는 비록 불교를 선전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고려와 리조시기의 높은 건축술을 엿볼수 있게 하는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부석사

경상북도 영풍군 북지리에 있다.

676년에 중 의상이 세운 절인데 13세기경에 고쳐세운 무량수전과 1377년에 고쳐세운 조사당이 남아있다.

부석사의 중심건물인 무량수전은 앞면 5간(18.75m), 옆면 3간(11.6m)의 합각집이며 3개의 돌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여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배부른기둥을 쓰고 오랜 형식의 두공인 접시받침이 있는 의공식 두공을 얹었다. 내부는 통천정으로 하고 마루도리는 대공과 함께 활개를 받쳐놓았다.

건물안에는 불단우에 흙부처인 아미타여래상이 놓여있다.

무량수전뒤에는 조사당이 있는데 정면 3간, 옆면 1간의 자그마한 배집이고 익공식두공을 얹히였으며 내부에는 활개가 있다. 건물전반에 푸른기가 도는 은은한 단청을 입혔다.

무량수전 동쪽언덕우에는 3층돌탑이 있으며 앞마당에는 불집돌에 4개의 보살상이 새겨져있는 돌등이 있다.

부석사는 불교를 선전하는데 리용된 절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고려건축유산의 하나이다.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1145년 봉건관료인 김부식에 의하여 씌여진 력사책이다.

50권으로 되여있는 이 책은 첫 봉건국가들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력사를 나라별로 기전체편찬형식으로 서술되여있다.

기전체는 편년체로 서술된 제왕들의 본기들과 년표, 지, 개별적인 인물들의 전기를 취급하는 렬전 등을 쓰는 력사편찬방식이다.

《삼국사기》는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년표, 지, 렬전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본기(1권-28권)들에서는 매개 나라들의 건국과정과 발전과정, 봉건국가의 여러가지 시책들, 반침략투쟁과정, 세나라의 호상관계 등이 서술되여있고 년표(29권-31권)에는 매개 왕대의 년표가, 지(32권-40권)에는 제사, 음악, 무용, 봉수제도, 수

례와 가옥제도, 지리 등이, 렬전(41권-50권)에는 개별적인물들의 전기가 기록되여 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의 봉건유교사상과 사대주의적립장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력사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신라의 사대외교를 긍정한 점과 함께 인민대중의 활동내용을 도외시하고 왕조중심으로 력사를 기록한 결함도 있지만 옛날 력사책가운데서 제일 오래된것으로 삼국시기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되는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삼국유사》

13세기말 중 일연이 편찬한 야사이다.

야사는 봉건국가에서 편찬한《정사》와는 달리 개별적인물들이 고정된 체계를 따르지 않고 서술한 력사책을 말한다.

《삼국유사》는《삼국사기》에 반영하지 않은 단군신화와 당시까지 전해오던 옛 기록들을 비롯하여 수십편의 민간설화들 등 여러가지 자료들을 널리 수집정리하여 편찬하였다.

《삼국유사》는 불교적색채가 농후하고 과학적오유가 많으며 신라중심으로 서술된 결함도 있지만 고대로부터 세나라와 고려전기까지의 력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되는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대장경》

대장경은 경(불교의 교리를 묶은것), 률(불교의 규학과 규범), 론(경과 률에 대한 설명)외에 전기, 기행문 등을 담고있는 불교의 총서를 말한다.

고려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불교대장경을 출판하였다.

1011년-1087년 기간에 무려 6천권에 달하는 불교경전을 출판하였고 12세기에는 이름있는 중 의천이 모아놓은 1 000종의 불교책 4 769권을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찍어냈다. 이것을 의천의 《속장경》이라고 한다.

이때 출판된 속장경의 판목과 판본의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 전해지고있다.

이것은 당시 주변나라들의 경전이 5~6천권정도밖에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참으로 방대한 수자이다.

두차례에 걸친 대장경출판때 만든 판목은 10만여매에 달한다.

《8만대장경》

13세기에 고려사람들은 판목을 8만여개 만들어 방대한 량의 《대장경》을 출판하였다.

이때 출판된 대장경이 지금 세계적으로 꼽히며 널리 알려져있는《8만대장경》이다.

원래 고려에서는 11세기에 두차례에 걸쳐 10만매에 달하는 대장경판목이 제작되여 출판이 진행되였으나 몽골침략때 불타버렸으므로 1236년부터 강화도에서 16년간에 걸쳐 3차로 대규모적인 목판조판사업을 진행하였다.

강화도에《대장도감》을 내오고 진주에《분사》를 두고 박달나무, 자작나무를 찍어다가 판목을 8만여매 만들고 불경책 1 539종에 6 793권을 찍어냈다.

판목은 길이 69.6cm, 너비 24cm, 두께 3.7cm이며 한줄에 14자씩 23줄에 글이 새겨져있다.

판목의 네귀에는 청동띠를 두르고 판목이 틀어지지 않도록 량쪽끝에 나무기둥을 덧대였으며 좀먹고 썩지 않도록 옻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8만대장경》의 문화사적가치를 평가해주시면서 그것을 번역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묘향산 보현사에 보존고를 건설하고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재로 잘 보관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8만대장경》은 고려의 출판문화발전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유산으로 될뿐아니라 중세 불교관계사연구에서 세계적의의를 가지는 사료이기도 하다.

금속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사람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색과 문양, 모양이 특출하여 세상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고려자기를 만들어내여 우리 나라의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쳤습니다.》(《**김일성**전집》 제1권, 555페지)

고려에서는 12세기 전반기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에서는 금속활자로 출판하는《서적점》이라는 기관이 1047년-1083년에 설치되여있었다고 한다.

고려에서는 1170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된것으로 인정되는 《고문진보대전》이 출판되고 1234년-1241년에 50권으로 된 《상정고금례》(상정례문)가 금속활자로 인쇄되였다.

이상의 사실은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늦어서 12세기 전반기에 발명된것으로 보아진다.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금속활자인쇄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당시 인쇄기술의 발전면모를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개성 만월대에서 발견된 고려금속활자는 이 시기의 인쇄기술의 면모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금속활자의 높이는 8mm이고 《이마전》이라고 글자를 새긴 면의 크기는 가로 12mm, 세로 10mm이며 그 주성분은 동, 주석, 연이고 부성분은 규소, 철, 알루미니움 등이다.

이것을 통하여 고려의 활자주조 및 인쇄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최근까지 1423년에 네데를란드의 코스타와 1450년 도이췰란드의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발명한것이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인정되여왔지만 실지 고려에서는 이보다 300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에 리용하였다.

고려의 금속활자인쇄본으로는 1297년~1298년에 인쇄된 《청량탑순종심요법문》과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출판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절요》(직지심경)가 알려져있다.

《직지심경》은 세계적으로 전해오는 금속활자인쇄물가운데서 가장 오래된것으로 인정되고있으며 1972년 《국제도서의 해》의 행사로서 프랑스 빠리에서 진행된 《책의 력사》종합전람회에 이 책이 전시되였다.

고려의 금속활자의 발명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판인쇄기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놓은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고려자기

고려자기는 중세 도자기공예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조선민족의 귀중한 문화적재보의 하나이다.

고려자기의 우월성은 우선 색갈이 맑고 아름다운데 있다.

고려자기의 색가운데서 가장 뛰여난것은 비색이다.

비색이란 반투명이면서도 푸른색이 나는 비취옥의 색갈보다 훨씬 더 깊고 은근한감이 있는 우아하고 미묘한 흑청색의 아름다운 색갈이다.

고려자기의 우수성은 또한 형태와 종류가 다종다양한것이다.

고려자기는 형태가 여러가지이다.

고려자기의 형태에서 특징적인것은 그릇전체를 동물이나 식물의 모양을 본따서 처리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나타낸것이다.

실례로 참대, 참외, 수박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주전자와 병, 비둘기, 사자, 룡, 원앙새, 원숭이, 물고기 등 동물의 모양을 본딴 연적 등을 들수 있다.

고려자기는 종류도 다종다양하다.

고려자기는 색갈에 따라서 푸른자기, 흰자기, 밤색자기, 검은자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하는데 그릇종류로서는 밥그릇, 찬그릇, 병류로서는 기름병, 술병, 꽃병과 그외에 단지, 항아리, 주전자, 잔, 접시, 문방구, 위생용구 등이 있다.

또한 무늬수법에 따라서도 구분하는데 무늬박이자기, 뚫음무늬자기 등이 있다.

고려자기는 같은 품종에서도 크기와 모양이 다종다양하다.

실례로 같은 그릇종류에 속하는것이지만 거기에는 깊은것과 얕은것, 목이 있는것과 없는것, 굽이 있는것과 없는것 등 여러가지이다.

고려자기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문양이 독특한것이다.

고려자기의 장식수법에서 독특한 경지를 개척한것은 상감수법(무늬박이수법)이다.

상감수법이란 그릇겉면에 홈을 파서 문양을 새기고 거기에 여러가지 색갈의 흙을 메꾼 다음 그우에 사기물을 발라 구워내는 방법이다.

고려자기의 무늬들로서는 동물, 식물, 자연풍경, 인물, 상징무늬 등 다양한것들이 있다.

고려자기는 색갈의 아름다움과 형태와 문양의 기발성과 다양성으로 하여 중세도자기공예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석빙고

석빙고는 여름철에 쓸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우리 나라에서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쓴 력사는 매우 오래다.

고대부여에서 지배계급들이 여름에 얼음을 썼다는 력사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 왕이 관청에 명령하여 얼음을 저장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씌여있다.

그러한 석빙고가 황해남도 해주시와 경상북도 경주시에 남아있다.

경주석빙고는 삼국시기부터 있던것을 1741년에 자리를 옮겨 고쳐지은것이다. 반토굴에 천수백개의 화강석을 잘 다듬어 맞물려쌓은 이 석빙고는 너비 약 5.8m, 높이 약 5.3m이며 길이는 약 17m이다. 문은 안팎 2개로 겹문이고 웃면을 2m이상 흙으로 덮고 잔디를 입혔다.

해주석빙고는 해주시 옥계동에 있다.

이 석빙고는 고려초에 처음 지었고 1735년에 보수한것이다. 이것 역시 화강석을 다듬어쌓은것인데 너비 4.5m, 높이 약 6m, 길이 28.3m이다. 외부를 흙과 석회를 섞어 다졌기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도 열을 받지 않게 되여있다.

리조시기에도 봉건통치배들은 서울과 지방의 중요도시들에 빙고를 지어놓고 저들에게 얼음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서울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동빙고와 서빙고가 있었다.

서울 두모포에 있던 동빙고에는 봉건왕실이나 국가에서 하는 제사때에 쓰는 얼음을 저장하였고 한강아래 둔지산기슭에 있던 서빙고에는 왕이나 고위급관리들에게 공급하는 얼음을 보관하였다.

석빙고들은 봉건통치배들의 사치한 생활상요구에 따라 만들어진것이지만 우리 선조들의 돌건축술과 우리 나라 랭동시설의 오랜 력사를 보여준다.

리 씨 조 선

리조봉건국가의 성립

1350년대이후 고려의 내외정세는 실로 복잡다단하였다.

문란해진 봉건통치제도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제도가 혼란에 빠지고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와 억압이 강화된것이였다.

따라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사이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지배계급내부에서 알륵과 대립이 격화되였다. 당시 국제정세도 복잡하였다.

중국대륙을 지배하던 몽골족의 원나라는 1360년대에 주원장(명나라 태조)이 지휘하는 한족의 명나라군대에 의하여 거듭 패하여 외몽골로 쫓겨났으며 압록강건너편의 랴오둥일대에는 몽골봉건령주들의 세력과 명나라의 세력사이에 각축전이 벌어지고있었다.

대륙정세의 혼란과 그 여파는 고려에 미쳐 몽골침략세력이 자주 침입하였고 또한 침략군으로 변질된 홍두적이 두차례에 걸쳐 침입하였으며 남쪽에서는 1350년부터 근 반세기동안에 걸쳐 400여차에 달하는 왜구(일본해적)의 침입이 계속되였다.

그리하여 고려인민들은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외래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세차게 벌리였다.

남북으로 침입하는 외래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치렬하게 벌리고있을 때인 1388년에 명나라통치배들은 고려에 대하여 대국주의적압력을 가하면서 철령이북의 고려의 판도를 떼여내라는 침략적요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해 3월에는 강계지방에 저들의 군사기관인《철령위》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리들을 파견하는 란폭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엄중한 도발에 격분한 고려정부는 이 기회에 명나라의 침략거점인 랴오양을 들이쳐 타격을 줌으로써 적들의 침략기도를 저지파탄시키며 더 나아가 랴오둥지방의 옛 강토를 되찾으려고 하였다.

고려정부는 5만여명의 랴오둥원정군을 편성하였으며 8도도통사(총지휘관)로는 최영, 좌군도통사로는 조민수, 우군도통사로는 리성계를 임명하였다.

랴오둥원정군은 1388년 5월초에 압록강하구의 위화도에 이르렀으며 그에 앞서 니성(창성), 강계 등지에서 출발한 선봉부대는 압록강을 건너 랴오둥지방으로 진격하여 적들의 중요기지들을 격파하였다.

고려의 강경한 정책에 당황한 명나라통치배들은《철령위》설치기도를 포기하고 강계에 침입하였던 군사와 관리들을 철수하였다

이때 고려정부에서는 주력부대들이 빨리 진격해나갈것을 명령하였다. 전반적정

세는 매우 좋았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던 리성계는 나라의 모든 군사력이 랴오둥원정에 동원된 기회에 무장정변을 감행할것을 획책하면서 랴오둥원정을 반대해나섰다.

리성계는 진군을 다그치라는 정부의 지시를 거역하고 장마를 핑게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마침내 5월말에 위화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원정군을 되돌려세웠다.

이것을 력사에서 《위화도회군》이라고 한다.

이때 리성계는《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것은 옳지 않은것》이라는 사대주의적인 망발을 늘어놓는가 하면 랴오둥원정은 여러가지 군사전략상조건으로 보아 고려에 불리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을 롱락하였다.

이리하여 랴오둥원정은 중도에서 좌절되고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

위화도에서 돌아선 리성계는 반란군을 내몰아 6월초에 개경(개성)을 점령하고 가장 두려워하던 정치적적수인 최영을 귀양보낸 다음 우왕을 내쫓고 9살 나는 그의 아들 창왕을 왕자리에 앉히였다.

다음해인 1389년에는 다시 창왕을 추방하고 고려왕실의 먼 친척인 요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올려놓았다.

이것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였다.

그리고 우왕과 창왕을 고려왕실의 후예가 아니라 신돈의 아들, 손자라고 하면서 얼마후에는 류배지에서 죽여버렸다.

이와 함께 리성계는 중소지주계층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진관료들인 정도전, 조준, 남은 등 일파와 결탁하여 대토지소유자들인 대관료층을 비롯한 반대파들을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정계에서 몰아내거나 살해하였다.

반대파세력에 대한 살륙은 참혹하게 벌어졌다.

리성계일파는 반대파들을 집단적으로 대량학살하였는데 여러차례에 걸쳐 배에 싣고나가 흑산도앞바다에 처넣어 죽이거나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는 방법으로 수만명을 죽이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우왕, 창왕의 족속이라고 하면서 왕가를 잡아 죽이였는데 왕가들은 하도 급하여 문패에 쓴 왕자에 사람인자를 덧그어 온전전자 전가 또는 두줄을 내리그어 밭전자 전가로, 점을 하나 찍어 구슬옥자 옥가로 변성을 하여 화를 면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리성계일파는 반대파관료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한편 왕권탈취를 위한 경제적 지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정리와 파전법을 실시하였다. 리성계일파는 사전정리를 위하여 1388년 6월에 왕실창고인 료물고에 속한 360개의 장처전가운데서 절간에 기증한 토지를 모두 회수하며 지난 시기 봉건국가가 동, 서북면에 국방상 필요에 따라 개인수조지를 설정하지 않은 틈에 이 지방의 량반토호들이 비법적으로 차지한 사전을 모두 몰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전들로부터 3년동안 조세를 받아내여 그것을 국가의 일반수요와 관리들의 록봉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의 토지를 다시 조사등록하는 토지측량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전정리를 끝낸 리성계일파는 1391년 5월 경기와 5도의 토지측량사업을 마친데 기초하여 토지 및 조세제도의 일반적법규로 되는 파전법을 발표하였다.

리성계일파는 또한 왕권탈취를 위한 야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발판으로 될수 있는 권력기구도 동시에 준비하여나갔다.

리성계는《위화도회군》에서 큰 역할을 논 조민수를 쫓아내고 모든 무력을 완전

히 틀어쥐였으며 이 기회를 틈타서 1388년 8월 정방에 속하였던 관료임면권을 리부와 병부에 돌리고 저들을 지지하는자들로 관료대렬을 꾸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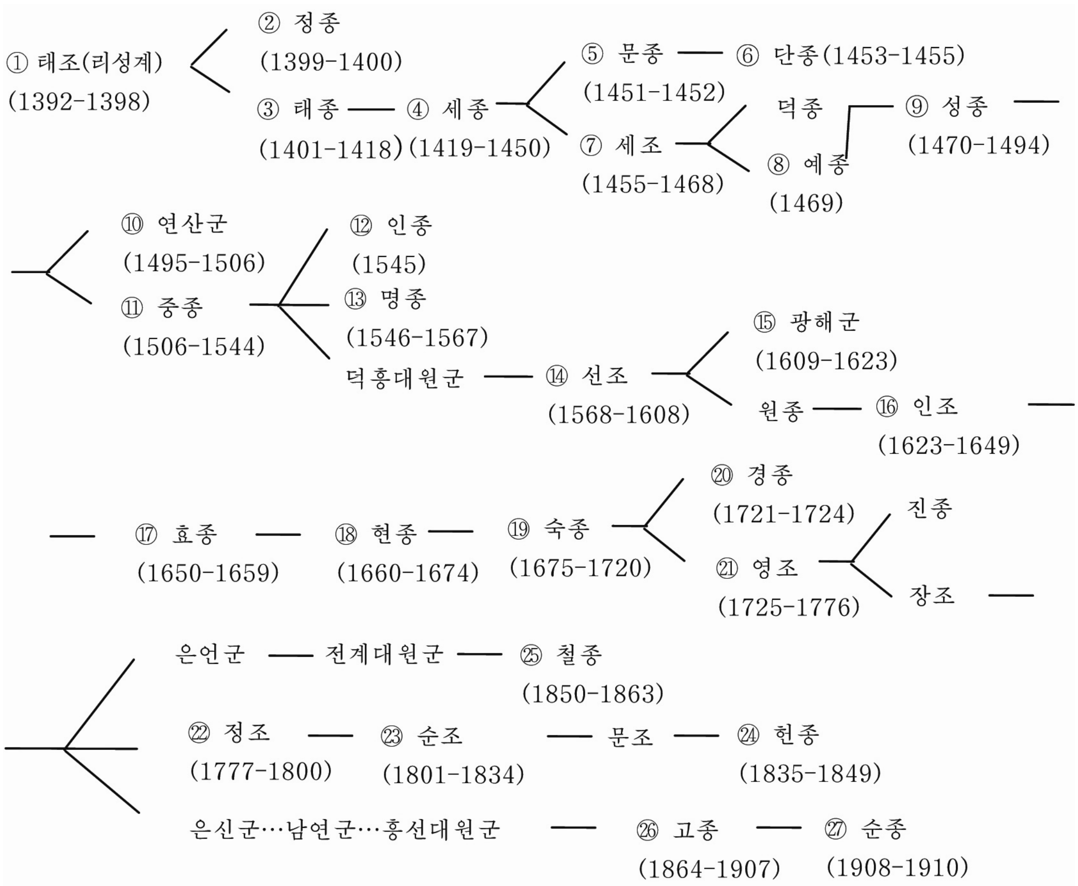
그리고 도평의사사의 권한을 늘이고 3군도총제부를 설치하는 등 관료기구를 저들의 집권을 보강하는 방향에서 개편하였다.

1392년 4월 리성계는 자기 아들 방원을 시켜(리방원이 사위인 조영규를 시켰다고도 한다.) 왕권탈취음모에 가담할것을 끝까지 거부한 대학자이며 최고위관료였던 수문하시중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함으로써 반대파세력의 마지막 인물을 제거해버리였다.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리성계는 1392년 7월 12일 드디여 공민왕비 안씨를 강박하여 고려왕조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내쫓고 다음날 자기가 《권서고려국사》(림시로 국왕을 대리한다는 뜻)로 되였으며 5일후인 17일에는 도평의사사에 들여앉힌 《혁신파》관리들의 《추대》를 받는 형식으로 왕자리를 탈취하고말았다.

이리하여 475년간 존속한 고려왕조는 끝장나고 리조봉건국가가 성립되였다. 이때부터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리왕조의 계보



리조봉건국가의 통치기구

봉건국가라 하여도 나라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통치기구에는 일련의 차이들이 있었다.

리조봉건국가의 통치기구는 앞선 왕조인 고려의 통치기구를 기본적으로 답습하면서 여러번 고쳐지다가 15세기 60년대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정비되였다.

리조의 통치기구는 1485년 리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 고착되였고 그후 《속대전》(1744년)과 《대전통편》(1785년) 및 《대전회통》(1865년)에서 수정보충되면서 리조말기에 이르렀다.

리조의 통치기구는 소수 봉건통치배들이 다수의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는 앞선 봉건국가들의 통치기구와 본질적으로 같았으나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 지방침투를 더 심화하게끔 되여있었다는 점에서 특색을 가지였다.

리조봉건국가의 통치기구는 량반관료집단의 최고대표자인 국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게 꾸려져있었다.

중앙통치기구를 크게 나누어보면 국왕에게 전적으로 복무하는 왕실, 궁중관계기관들과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의정부, 중앙행정기구로서 6조가 있었다.

그리고 그밑에 지방통치기구를 가지고있었다.

중앙통치기구

최고통치기관-의정부

의정부는 국왕을 도와 모든 관청들과 관리들을 통솔하고 일반정사를 처리하며 국가를 운영한다는 법제상의 직능을 가진 리조봉건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이였다.

괴부, 도당, 묘당, 황각이라고도 하였다.

국왕의 중요한 정책적문제들을 처리할 때에는 대체로 의정부의 의정을 비롯한 고관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였다.

의정부에는 정부수반급인 령의정, 부수반급인 좌의정, 우의정이 각각 1명이 있었는데 모두 정1품의 관리였다.

령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통칭하여 《3정승》이라고 불렀다. 3정승 아래벼슬로서 종1품 관리인 좌찬성, 우찬성, 정2품 관리인 좌참찬, 우참찬이 각각 1명 있었다.(이상 당상관) 그밖에 사인(정4품), 검상(정5품), 사록(정8품) 등 관리들이 배치되여있었다.

리조봉건국가가 성립된 초기에는 고려시기의 합의기구였던 도평의사사를 그대로 두고 문하부, 삼사, 중추원의 고위급관리들이 모여 중요한 군사적문제들을 토의하다가 1400년(정종 2년)에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고치였다.

1401년(태종 1년)에 고려시기의 정권집행기관이던 문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정부에 옮겨놓음으로써 합의기능과 집행기능을 겸한 최고통치기관으로 되였다.

의정부는 법제적으로는 최고통치기관이지만 태종(1401년-1418년)이 직접 6조와 각 도의 일을 통제하면서부터 왕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게 되였다.

그후 세종때(1419년-1450년) 다시 의정부에 6조와 각도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가 세조때(1455년)에 다시 폐지되였다.

1555년(명종 10년) 일본해적침략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정부의 3정승이하 주요고위급관료들을 망라하여 비변사라는 림시관청이 설치되여 그곳에서 군사, 외교, 중요한 대내외정책들을 토의하게 되고 령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비변사의 도제조를

겸하게 된 후부터 의정부는 그 기능이 약화되여 이름만 남은 허수아비기관으로 되고 말았다.

그후 1864년(고종 원년) 대원군에 의하여 비변사가 페지되면서 의정부는 그대로 남아 1894년 부르죠아개혁(갑오개혁)이후 내각으로 고쳐졌다가 1896년에 다시 의정부로 되였으나 1907년 다시 내각으로 개편되여 리조봉건국가가 망할 때까지 존재하였다.

중앙행정기구 6조

리조봉건국가의 최고의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였던 6조는 리조, 호조, 례조, 병조, 형조, 공조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6조는 리조봉건국가의 반인민적체제안에서 골간적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고려때부터 있던 제도를 정비개편한것이다.

6조에는 당상관으로서 판서(정2품), 참판(종2품), 참의(정3품)가 각각 1명 있었는데 이를 3당상이라 하였다.(병조에는 참지(정3품)가 더 있었다.)

당하관으로서는 랑청으로 불리우는 정랑(정5품), 좌랑(정6품)이 각각 3명(병조와 형조는 4명) 있어서 실무를 담당처리하였다.

이밖에 호조와 형조에는 수학과 법률을 전문하는 교수, 별제, 훈도, 산사와 계사, 명렬과 심률 등의 기술관을 더 두었다.

6조에서는 사(맡을 사)라는 이름으로 각기 부서를 나누어 사무를 분담하였고 각 사는 랑관이 주관하였다.

6조이외의 모든 중앙관청들은 6조의 소속관청으로 나누어 이에 속해있었다.

리조-문관들의 임면과 조동 및 관리들의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던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서 6조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관이였다.

리조에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 등의 부서가 있었으며 충익부(《공신》들의 일을 담당), 종부시(왕의 족보의 작성과 종실들의 민사, 형사상문제의 처리담당), 상서원(왕의 공인, 부패의 관리), 내시부(왕의 명령전달, 식사감독, 각궁의 수직과 청소담당), 사옹원(국왕과 그 일족들의 음식물공급담당), 내수사(국왕과 그 일족들의 개인재산관리), 액정서(왕의 명령전달, 왕이 쓰는 문방구공급, 궁궐문과 대궐들의 설비관리) 등의 관청이 소속되여있었다.

호조-호구와 토지의 장악, 공물, 조세, 부역 등 경제수탈관계의 일을 맡아보던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였다.

호조에는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 등 부서가 있었다.

호조에는 또한 내자시(왕실용쌀, 국수, 장, 기름, 꿀, 남새, 파일공급담당) , 내섬시(각궁과 2품이상 고위급관료들에게 술을 내주고 일본인과 녀진인을 접대하는 일, 각궁에 필요한 천을 담당), 사도시(왕의 음식을 만드는데 쓰는 쌀과 부식물담당), 사재감(왕실용물고기, 고기, 소금, 땔나무 등을 담당), 사온서(왕실용술담당), 사포서(왕실용남새밭, 파수원관리), 사섬서(종이돈발행 및 노비로부터 《몸구실》수탈을 담당), 제용감(수탈한 천들과 왕의 이름으로 내주는 옷과 비단들을 담당), 군자감(군수용량곡관리), 평시서(시전의 감독 등 수도상업통제를 담당) 그리고 풍저창, 광흥창, 의용고, 장흥고, 양현고 등 관청이 소속되여있었다.

례조-봉건적의식, 외교, 교육 등과 관련한 일을 맡아보던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였다.

례조에는 계제사, 전향사, 전객사 등 부서가 있었으며 봉건유교사상을 연구하고 선전하는 기관들인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교서관, 봉건관리들을 양성하는 기관들인 성균관, 4학, 종학, 세자시강원, 과학문화기관들인 관상감, 장악원, 도화서, 의학기관들인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각종 제사를 지내는 기관들인 봉상시, 종묘서, 사직서, 소격서, 대외사업기관들인 승문원, 례빈사, 사역원 등 20여개 관청들이 소속되여있었다.

병조-봉건국가의 군사관계일을 맡아보던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였다.

병조는 리조에서 다루는 고위급무관을 제외한 모든 무관들과 그밖의 군사지휘성원의 선발배치, 무관선발시험인 무과의 운영, 일반군사행정, 왕의 호위조직, 역참조직, 무장장비, 성문의 경비 등을 맡아보았다.

병조에는 무선사, 승여사, 무비사 등 부서가 있었으며 5위(봉건국가의 중앙군), 훈련원(군사훈련과 군사학연구 등을 담당한 기관), 사복시(왕과 왕실에서 쓰는 가마, 말을 관리하는 기관), 군기시(무기와 그밖의 군수기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기관) ,전함사(함선을 만드는 기관) 등 관청이 소속되여있었다.

형조-반인민적악법의 적용, 민사, 형사사건의 취급 , 법률관계관료를 양성하는 일과 노비와 포로들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였다.

형조에는 상복사, 고률사, 장금사, 장예사 등 부서가 있었으며 전옥서(《죄인》들을 가둬넣는 감옥), 장예원(공노비들을 다루는 기관) 등 관청이 소속되여있었다.

공조-봉건국가의 건설, 수공업, 도량형, 산림, 강하천, 도로와 관련한 일을 맡아보던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였다.

공조에는 영조사, 공야사, 산택사 등 부서가 있었으며 상의원(왕실용의복, 일용품 등의 제작, 공급, 보관사업담당), 선공감(건설담당), 조지서(종이생산담당), 와서(기와, 벽돌생산담당), 수성금화사(리조전반기 궁성, 도성, 도로, 교량 등의 수축과 화재방지사업담당), 전년사(리조전반기 궁궐의 위생문화사업담당) 등의 관청이 소속되여있었다.

왕권행사에 직접 복무한 기관들

승정원 -국왕의 명령, 지시와 국왕에게 제출되는 모든 문건이나 의견을 맡아 처리하는 중앙기관이였다.

국왕의 정무집행을 돕는 역할을 하던 중앙기관으로서 정원, 후원, 은대, 대언사라고도 불렀다.

1400년에 나왔다가 다음해에 승추부에 통합되였으며 1405년에 다시 설치되여 리조말기까지 존재하다가 1894년갑오개혁때 승정원으로 고쳐졌다. 국왕과 국가의 모든 통치기관들은 승정원을 통하여 련결되였다.

승정원의 기구는 리방, 호방, 례방, 병방, 형방, 공방 등 6방으로 구성되였고 정3품관리들인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가 6방의 사업을 각각 나누어보았다. 그외에 실무처리를 맡은 주서(정7품) 2명, 사변가주서(정7품) 1명이 있었다.

승정원은 봉건정부의 크고작은 모든 일에 간섭하는 관청이였으므로 그 관리로는 량반들가운데서도 특별히 문벌이 《좋고》국왕이 신임하는자들만이 될수 있었다.

사헌부 -봉건정부의 시책집행, 봉건관리들의 규률과 행동 등을《감찰》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한 중앙기관이였다.

리조시기 봉건지배계급은 통치계급의 전체적인 리익에 저촉되는 개별적관리들의

지나친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 관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지배층안에서 당파싸움이 시작된 16세기이후 이 관청은 다른 당파를 공격하는 도구로 리용되였다.

사헌부에는 대사헌(종2품), 집의(종3품) 각각 1명, 장형(정4품) 2명, 감찰(정6품) 24명이 있었다.

사간원 -국왕의 지나친 언행을 이른바《충고》하는 일을 맡아보던 중앙기관이였다.

사간원은 국왕의 전횡으로 봉건통치에 큰 위험이 조성되는것을 막아보려는 목적에서 설치되였다.

사간원은 1392년에 고려시기의 문하부관제를 그대로 두고 그안에 일부 관리로 하여금 왕에게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거나 왕의《훌륭한》정치를 내세우며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강화하는데 어긋나는 왕의 행동을 고치도록 말하는 일 등을 맡아보게 하다가 1401년에 독립된 기관으로 내왔다.

15세기말～16세기초(연산군통치시기)에 한때 페지된 일이 있었으나 곧 다시 설치되여 리조말까지 존속되였다.

사간원에는 대사간(정3품), 사간(종3품), 헌납(정5품) 각각 1명, 정언(정6품) 2명이 있었다.

국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은 무한한 독재적전횡을 부리면서도 마치 그것을 제한조절시키기라도 하는것처럼 환상을 조성하여 전제정치를 미화하였다.

홍문관 -국왕의 학술고문기관으로서 봉건유교사상의 선전을 맡아보던 중앙기관이였다.

옥당, 옥서, 영각, 서서원, 청연각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웠다.

1463년에 당시 이름있던 관료학자인 량성지의 제의에 의하여 설치되였으며 그것은 리조말까지 존재하였다.

홍문관은 봉건통치배들이 매우 중요시한 중앙관청의 하나였던만큼 그 관리로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높은》문벌출신으로서 학술적권위가 있는 문관량반들을 골라 임명하였으며 봉건통치의 사상적무기로 된 봉건유교경전을 더 깊이 연구선전하고 국왕의 정치학술적고문노릇과 왕실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홍문관에는 령사(정1품, 의정이 겸임), 대제학(정2품), 제학(종2품),부제학(정3품), 직제학(정3품), 전한(정5품), 응교(정4품), 부응교(정4품), 교리(정5품), 부교리(종5품), 수찬(정6품), 부수찬(종6품), 박사(정7품), 저작(정8품), 정자(정9품) 등이 있었다.

부제학부터 부수찬까지를 옥당벼슬이라고 하였다.

예문관 -국왕의 명령서, 지시문을 작성하는 일을 맡아보던 중앙기관이였다.

리조초기에 예문춘추관으로 부르다가 1401년에 예문관과 춘추관이 다시 독립관청으로 분리되여 리조말까지 존속하였다.

예문관에는 령사(정1품, 의정이 겸임), 대제학(정2품), 제학(종2품), 직제학(정3품, 도승지가 겸임), 응교(정4품) 각각 1명, 봉교(정7품), 대교(정8품) 각각 2명, 검열(정9품) 4명이 있었다.

예문관의 고위급관리는 홍문관의 관리를 겸임하였고 봉교, 대교, 검열은 왕실의 력사를 기록하는 관리인 사관이 겸하였다.

예문관의 관리들은 봉건량반가운데서도 문벌이《높고》학식이 높은자들로서 임명되였다. 그러므로 비록 검열(한림이라고도 하였다.)을 비롯한 예문관의 낮은 벼슬

자리에 임명되더라도 매우 《영예로운》것으로 간주되였다.
승문원 -외교문서를 작성, 보고하는 일을 맡았던 중앙기관이였다.
고려시기에 설치된 문서응봉사가 1411년에 승문원으로 개편되였다. 승문원에는 판교(정3품), 참교(정3품), 교감(종4품), 교리(종5품), 교검(정6품), 박사(정7품), 저작(정8품), 정자(정9품), 부정자(종9품) 등 관리가 있었다.
승문원에는 문과합격자들가운데서 성적이 우수하고 문벌이《높은》고관의 자식들로 임명된 권지부정지라는 벼슬이 있었다.
봉건시기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봉건통치의 유지에서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통치배들은 승문원의 기구와 기능을 강화하는데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적지 않은 힘을 넣었다.
교서관 -리조봉건국가에서 유교선전에 필요한 책을 비롯하여 도서들을 출판인쇄하던 중앙기관이였다.
1392년에 설치된 교서감이 1401년에 교서관으로 개편되였으며 1460년에 금속활자주조사업을 맡은 주자소가 여기에 통합되였다.
그후 1466년에 전교서로 고쳐졌다가 1484년에 다시 교서관으로 되였다. 교서관에는 판교(정3품), 교리(종5품), 겸교리(종5품), 별좌, 별제,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 등이 배치되여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100여명의 전문인쇄기술자들을 비롯하여 출판인쇄작업을 직접 진행하는 장인(수공업자), 노비들이 있었다.
1776년에 규장각이 다시 설치된 후 점차 확대됨에 따라 1782년부터 교서관은 그에 소속되였다.
규장각은 15세기 중엽(세종통치시기)과 17세기 후반기～18세기초(숙종통치시기)에 각각 설치되였던 일이 있었다.
규장각은 1776년에 다시 설치된 후 교서관을 소속시키고(이것을 규장외각이라고 하였다.) 강화도에는 외각을 두었는데 외각들과 구별하여 왕궁안에 있는 규장각을 규장내각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규장각에는 력대왕들의 시문, 글씨, 유언장, 화상들과 국내외에서 수집한 많은 책들이 보관되여있었다.
또한 규장각은 정치, 경제, 력사, 의학, 외교법전, 군사, 사전류 등 여러 부문의 서적들을 편찬 및 출판하는 한편 활자개조사업도 진행함으로써 당시 국내출판사업의 중심으로 되였다.
규장각에는 제학(종1품~종2품), 직제학(종2품~정3품당상관), 직학, 대교, 직감, 검서관 등이 배치되여있었다.
춘추관 -국왕의 행동과 왕실 및 봉건국가에 벌어진 제반사실들을 기록해놓는 일을 맡아보던 중앙기관이였다.
춘추관은 력사편찬사업을 맡은 중앙관청으로서 여기서 력대왕의 실록을 비롯한 력사를 편찬하여 국왕을 비롯한 봉건통치계급의 반인민적정책을 미화분식하였다.
리조초기인 1392년에 예문춘추관을 두었다가 1401년에 예문관과 춘추관을 분리시켰다.
춘추관에는 령사(정1품, 령의정이 겸임)1명, 감사(정1품, 좌, 우의정이 겸임), 지사(정2품), 동지사(종2품) 각각 2명, 수찬관(정3품), 편수관(정3품~종4품), 기주관(정, 종5품), 기사관(정6품～정9품) 등이 배치되여있었다.
상서원 - 왕의 각종 도장과 부패를 보관관리하던 관청이였다.

국왕은 상서원을 설치하고 거기에 봉건관리들을 두어 국왕의 각종 도장과 병부, 순패, 마패 및 각 도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들의 표식기발 등을 보관관리하도록 하였다.

※ 국왕의 도장을 새보라고 하였는데 옥으로 만든것을 새,금으로 만든것을 보라고 하였다. 국왕의 도장에는 법령을 시행하는데 쓰는 시령지보, 왕의 명령서에 쓰는 유서지보, 과거합격증에 쓰는 과거지보, 규장각에서 쓰는 규장지보 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결재의 도장이였으므로 왕실에서만 보관하고있었다.

상서원에는 정(정3품, 도승지가 겸임), 판관(정5품), 직장(종7품), 부직장(정8품) 등이 있었다.

경연 -국왕에게 반인민적통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강의하는 사업을 맡아보던 기관이였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봉건적통치기구를 재정비하며 왕에게 최고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도덕을 가르치기 위하여 상설기관인 경연을 설치하였다.

경연에는 의정들이 겸임하는 령사(정1품) 3명과 지사(정2품), 동지사(종2품) 각각 3명, 승지와 홍문관의 부제학이 겸임하는 참찬관 7명, 홍문관의 직제학이하 관리들이 겸임하는 시강관(정4품), 시독관(정5품), 검토관(정6품), 사경(정7품), 설경(정8품), 전경(정9품) 등이 있었다.

※《경연》은 국왕에게 강의하는 기관이름으로도 쓰이고 강의하는것, 강의장소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씌였다.경연에서 진행된 강의들에서는 주로 유교경전에서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며 봉건적의식을 차리는데 필요한 문제들이 취급되였다.

경연에는 왕과 함께 고위급대신들이 참가하였기때문에 봉건유교사상에 대한 강의와 관련된 현행정치문제들이 토론되고 결정되는 때가 많았다.

의금부 -리조시기 인민탄압과 형벌, 감옥관계의 일을 맡아보던 중앙기관으로서 금오, 왕부, 순군이라고도 하였다.

고려후기의 순군만호부가 리조시기에 그대로 내려오다가 1402년에 순위부로, 1403년에 의용순금사로 되였으며 1414년에 의금부로 개편되였다. 1894년에 다시 의금사로 고쳐졌다.

봉건통치배들은 의금부를 설치하여 정권쟁탈과 관련된 반역음모사건이나 큰 규모의 계급투쟁에서 주도적역할을 한 인물들을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고문 또는 재판하였다.

의금부에는《죄인》을 심문하는 곳인 호두각이 있었고 이밖에 당직청을 두고 도사 한사람씩 번갈아 당직하면서 《신소》사건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의금부는 국왕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중요정치범들을 심문, 재판한다는 점에서 형조나 다른 형벌담당 관청들과 구별되였다.

의금부에서 취급하는 범죄사건에서 고위급관료들과 종친들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왕이 직접 결재하였다.

의금부의 판서(종1품), 지사(정2품), 동지사(종2품) 등 당상관 4명은 다른 중요중앙관청의 고위관리들이 겸하고있었으며 경력(종4품), 도사(종5품, 종9품 각각 5명,흔히 금부도사라고 부름) 등 당하관 10명이 실무처리를 맡았다. 이밖에 200여명이상의 라장들이 있었다.

충훈부 -국왕과 봉건국가에 이른바《공훈》을 세운 관리들인《공신》들을 위한 관청이였다.

《공신》들에게는 군(정1품~종2품)의 칭호를 주고 그것을 세습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경력(종4품)이 배치되여 실무처리를 맡았다.

성균관 -량반자식들에게 유교를 가르쳐 봉건관료로 양성하던 최고교육기관이였다.

리조초기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 숭교지방에 성균관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게 하였다.

성균관에는 정2품 지사 1명, 종2품 동지사 2명, 정3품 대사성 1명, 종3품 사성 1명,정4품 사예 2명, 정5품 직강 4명, 정6품 전적 13명, 정7품 박사, 정8품 학정, 정9품 학록, 종9품 학유 각각 3명이 배치되여있었다.

성균관에는 강당으로 사용하는 명륜당과 학생들의 합숙인 재 두채(동재, 서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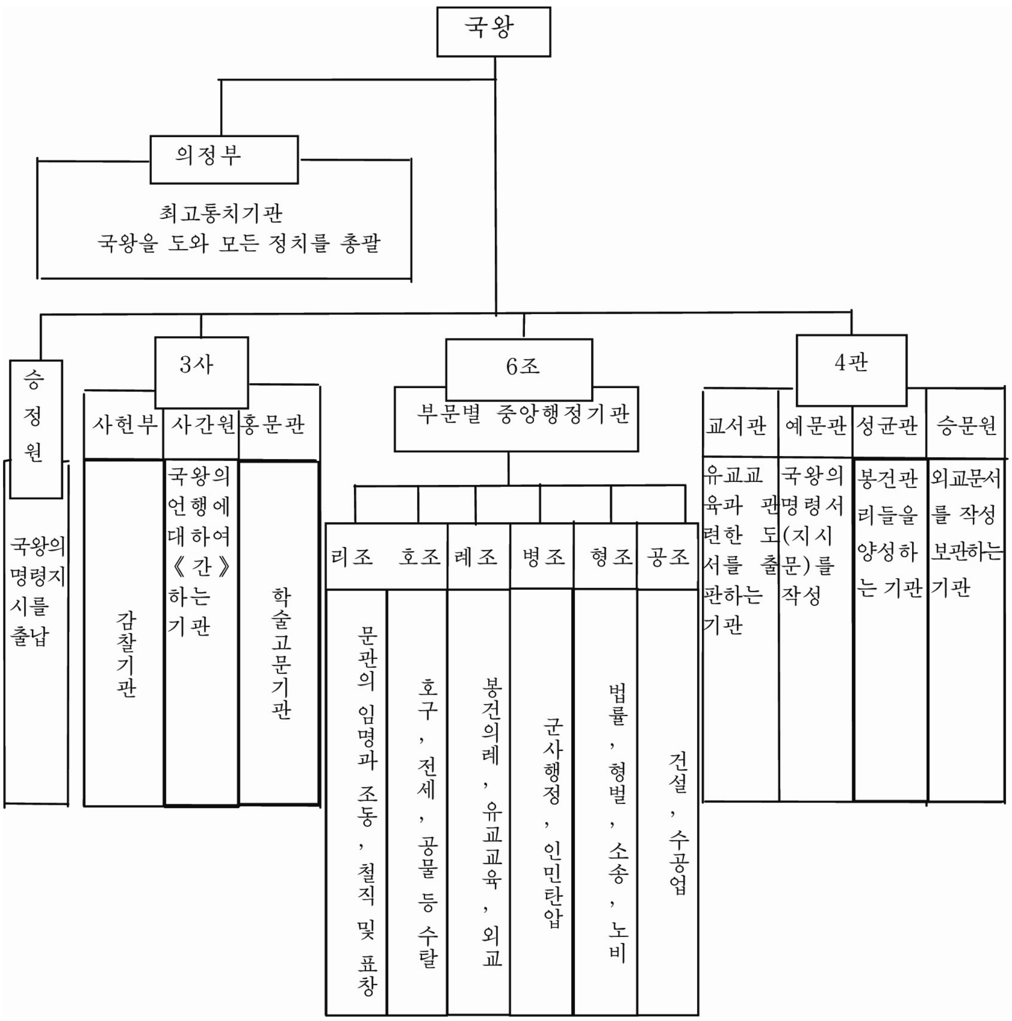
성균관의 학생정원수는 200명이였으며 입학대상자는 량반으로서 생원과 진사의 자격이 있는자들 가운데서 뽑았다.

모자랄 때에는 서울안에 사는 량반자식들의 교육기관인 4학의 학생가운데서 선발보충하였다.

성균관학생들은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임명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봉건정부는 관료후비를 양성하는 성균관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량의 재정을 지출하였다.

15세기 리조의 주요중앙통치기구



왕실 및 궁중관계 기관들

왕실관계 기관들

종친부-봉건왕족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였다.

종친부는 명목상 력대국왕의 족보와 그림, 화상의 보관관리, 왕과 왕비의 옷보장과 왕실일족을 통솔하는 일을 맡고있었다.

봉건지배계급들은 종친부를 설치하여 력대왕의 자손들에게 대군(왕의 본처의 아들에게 주는 칭호), 군(왕의 첩의 아들에게 주는 칭호) 등의 칭호를 주어 봉건국가로부터 해당한 특권적지위와 물질적보수를 보장함으로써 높은 지위를 가지고있으면서 하는 일 없이 안일사치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였다.

종친부에서는 대군, 군, 정종경 등으로 왕의 아들, 손자, 증손자들을 맏이와 중자, 적자와 서자의 차별을 두면서 정1품부터 종2품까지 10개의 명예직급이 있었고 실무처리는 정(정3품)이하 참봉(종9품)에 이르는 13개 직급으로 구분된 관리들이 맡아하였다.

의빈부-왕과 그 후계자인 왕세자와 사위들의 《권위》를 높이며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였다.

리조초기에는 공신제군부로 부르다가 1418년에 이성제군부로 고쳤고 그후 1444년에는 부마부로, 1466년에는 의빈부로 고쳐져 리조말까지 존재하였다.

공주(왕의 본처의 딸)의 남편으로 된자는 종1품 《위》로 임명되였다가 정1품 《위》로, 옹주(왕의 첩의 딸)의 남편으로 된자는 종2품 《위》로 되였다가 정2품 《위》로 승급시키였다.

군주(왕세자의 딸)의 남편은 정3품～종3품인 《첨위》로 임명되였다.

여기에는 실무처리를 담당한 경력(종4품), 도사(종5품) 각각 1명이 있었다.

봉건지배계급은 의빈부를 설치하고 왕과 왕세자와 사위들에게 벼슬을 주어 특권과 《권위》를 부여하며 동시에 그들의 정권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돈녕부-왕과 같은 성 또는 다른 성을 가진 친척으로서 종친부에 들어갈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였다.

봉건지배계급은 돈녕부를 설치하여 왕과 같은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9촌까지, 다른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6촌까지, 왕비와 같은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8촌까지, 다른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5촌까지, 왕세자 처와 같은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6촌까지, 다른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3촌까지의 일가붙이를 관직에 임명하였다.

이자들은 령사(정1품), 판사(종1품), 지사(정2품), 동지사(종2품), 도정(정3품) 등의 관직을 가지고 봉건국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았다.

여기에는 실무처리를 담당한 관리로서 첨정(종4품),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종9품)들이 배치되였다.

종묘서-국왕의 조상들의 사당(신주를 모시는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였다.

종묘서에는 겸임관으로 도제주, 제주 각각 1명이 있었으며 령(종5품), 직장(종7품), 봉사(종8품), 부봉사(정9품) 등의 직제가 있었다.

봉건통치배들은 또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왕족의 조상들의 묘지를 건(왕실의 조상으로서 후에 왕이나 왕비로 《추증》된자들의 위패나 초상을 보관하던 장소), 릉(왕이나 왕비의 무덤), 원(왕세자 또는 왕세손으로서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자 및 왕의 친어머니의 무덤), 묘(왕족의 무덤)로 구분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청까지 만들어놓았다.

궁중관계 기관들

내명부-후궁(왕과 왕세자의 첩)과 궁중에서 봉사하는 녀관들을 내명부라고 하였다.

왕의 후궁(첩)으로 빈(정1품)을 비롯하여 귀인, 소의, 숙의, 소용, 숙용, 소원, 숙원(종4품) 등 8명이 있었고 왕궁에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백명의 궁녀들을 통솔하는 상궁,상의(정5품)로부터 주변치, 주치, 주우, 주변궁(종9품)에 이르기까지 27개의 궁인직이 있었다. 상궁은 여러 궁녀직의 책임자격이였고 그밑에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상의, 의복관계를 담당하는 상복, 음식관계를 맡은 상식, 침구류를 맡은 상침 등을 비롯하여 왕의 뒤치닥거리를 맡은 여러가지 직무로 분할되여있었다.

세자의 후궁으로 량제(종2품)를 비롯하여 9개의 궁인직이 있었다.

내시부-왕궁내에서의 왕의 명령전달, 식사의 감독, 각 궁정문의 수직, 청소 등의 잡일을 맡은 내시들을 관할하는 관청이였다.

내시부에는 140명의 내시들이 있었는데 그중 59명이 종2품 상선으로부터 종9품 상원에 이르는 직제가 있었다. 내시들은 모두 고자였다.

내시부에 소속된 내시들은 왕궁안에서 왕의 손발이 되여 방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였고 궁중의 권력에 빗대여 세력을 부리고 전횡을 일삼았다.

액정서-왕의 명령전달,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궁궐문을 닫고 여는 일, 의례용물품을 시설하고 건사하는 일을 맡은 관청이였다.

액정서에는 사알(정6품), 사약(종6품), 사안(정7품), 사포(정8품), 사소(정9품) 등의 관리가 있었다.

액정서의 관리들은 주로 국왕을 위한 잡다한 일에 복무하는 이른바 잡벼슬로서 문관들의 멸시를 받았으나 그중 일부 관리들은 직책상 왕을 가까이 할수 있는 특권을 리용하여 갖은 횡포한짓을 다하였다.

내수사-왕과 그 일족의 사치한 생활을 누리는데 소비하기 위하여 인민들로부터 수탈한 낟알, 천류와 그밖의 물자들과 토지, 노비 등을 맡아보던 관청이였다.

1430년(세종 12년)이전에는 내수별좌로 불러오다가 1430년 6월 내수소로 되고 1466년 내수사로 고쳤다.

내수사에는 전수(정5품), 별좌(정,종5품), 부전수(종6품) 등 관리들이 배치되여있었다. 내수사는 왕실직속의 토지를 관리하면서 그 땅에 얽매인 노비들로부터 각종 부가세와 그밖의 여러가지 명목으로 많은 량의 낟알, 천, 돈 등을 착취하였다. 특히 내수사는 대리(고리대)를 통하여 막대한 낟알을 수탈하였다.

사옹원-리조봉건국가에서 국왕과 그 친척들의 사치한 식생활, 봉건적의례, 외국사신접대 등에 쓸 음식물의 공급을 맡아보던 관청이였다.

사선사, 상식사, 주원이라고도 하였다.

1468년 사옹방을 사옹원으로 고쳤으며 1895년에는 전선사로 고쳤다.

사옹원에는 정(정3품)아래 제거, 제검, 첨정, 판관, 주부 등의 관리들과 잡벼슬로서 실지 일하던 재부, 선부, 조부, 임부, 평부 등이 있었다.

사옹원은 경기도 광주에 분원을 두고 저들이 쓰는 사기를 직접 만들었다. 또한 인민들에게서 수탈한 세납, 공물 등을 호조를 비롯한 여러 중앙관청들로부터 넘겨받았을뿐아니라 직접 장사도 하는 등으로 인민들을 착취하였다.

내자시-궁중에 쌀, 국수, 장, 기름, 꿀, 남새, 과일, 각종 천을 공급하는것과 궁중연회를 담당한 관청이였다.

15세기에는 정3품 장관인 정과 부정, 첨정, 판관 등이 배치되였으나 18세기이후에는 종6품 주부가 장관으로 되였고 직장, 봉사가 각각 1명 있었다.

내섬시-각 궁전과 2품이상의 고위급관리들에게 술을 공급하고 일본인과 녀진인을 접대하는 일, 각 궁전에 필요한 천을 마련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였다.

15세기에는 정3품 장관인 정이 배치되여있었으나 18세기이후에는 종6품 주부가 장관으로 되였고 그아래 직장, 봉사가 각각 1명 있었다.

제용감-인민들로부터 수탈한 천, 인삼 및 왕의 이름으로 내주는 옷과 비단들을 맡아보던 관청이였다.

15세기에는 정3품 장관인 정이 배치되였으나 18세기이후에는 종5품 판관이 장관이 되였고 그아래 주부, 봉사 등이 있었다.

사재감-궁중에서 소비하는 물고기, 고기, 소금, 땔나무, 홰불 등을 맡아보던 관청이였다.

리조시기 1392년(태조 원년)에 고려의 사재감을 그대로 두고 어장, 하천, 산림 등을 맡아보게 하였다. 1403년(태종 3년)에는 군함의 제조와 수리 및 해상운수를 맡아보던 관청인 사수감을 이에 합쳤다.

사재감에는 정(정3품)과 부정(종3품)이 있었으나 후에 페지되고 첨종(종4품)이 장관으로 되였다.

1882년(고종 19년)에 페지되였다.

사포서-리조시기 왕실소요의 과수원과 남새밭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중앙관청이였다.

1405년에 짐장고로 설치되였고 1466년(세조 12년)에 사포서로 고쳐져 1882년까지 존속하였다.

사포서에는 사포(정6품), 별제(6품), 직장(종7품), 별검(8품) 등의 관리들이 배치되여있었다.

상의원-리조시기 궁중에서 소요되는 옷과 옷감, 일용품, 금은보화 등 여러가지 사치품을 제작, 공급, 보관하던 관청이였다. 장복, 중상, 공조 또는 상방이라고도 하였다.

상의원은 가장 큰 관영수공업장의 하나로서 여기에는 68가지의 수공업부문에 597명의 수공업자들이 속하여있었다.

상의원에는 겸임관인 제조 2명, 부제조 1명과 정(정3품), 첨정(종4품), 판관(종5품), 주부(종6품) 등이 배치되여있었다.

통례원-봉건관리들이 국왕앞에 모이는 조회와 기타 왕정의식의 집행을 맡아보던 관청이였다. 중문, 사범서 또는 통려원이라고도 하였다.

리조초에는 통려원으로 부르다가 1466년(세조 12년)에 통례원으로 고쳐져 1894년까지 존속되였다.

통례원에는 좌, 우통례(정3품), 상례(종3품), 봉례(정4품), 찬의(정5품) 각각 1명, 인의(종6품) 8명 등 관리들이 배치되여있었다.

봉건통치배들은 종교적, 정치적환상을 조성하는 번잡한 봉건의례를 격식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국왕과 고위급관리들의 《위신》을 돋구는데 복무하였다.

장악원-리조시기 궁중음악을 관할하던 관청이였다.

1458년(세조 4년)에 장악서를 설치하여 태상시와 관습도감에서 나누어 맡아보던 궁중음악을 통일적으로 관할하게 하였다.

1505년(연산군 11년)에 련방원으로 고쳐졌다가 16세기초에 장악원으로 고쳐져 1894년까지 존속하였다.

장악원에는 정(정3품), 첨정(종4품), 주부(종6품), 직장(종7품)이 각각 1명 있었고 잡벼슬로서 전악, 부전악, 전률, 부전률, 전음, 부전음, 전성, 부전성 등이 배치되여있었다. 이밖에 악사, 악공, 악생, 관현맹 등이 있었다.

장악원은 음악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향락생활을 보장해주며 또 봉건국가 왕실의 여러가지 의식에 음악을 적용함으로써 그 《권위》를 높이는데 복무하였다.

빙고-봉건지배계급의 호화로운 생활에 필요한 얼음을 보관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였다. 리조시기 서울에 동쪽빙고와 서쪽빙고가 있었는데 동쪽빙고(서울 두모포에 있었음)는 봉건왕실이나 국가에서 하는 제사때에 쓰는 얼음을 보관하였고 서쪽빙고(한강아래 둔진산기슭에 있었음)는 국왕과 고위급관리들에게 공급하는 얼음을 보관하였다.

지방의 중요도시들에도 빙고가 있었는데 해주와 경주에는 지금까지 빙고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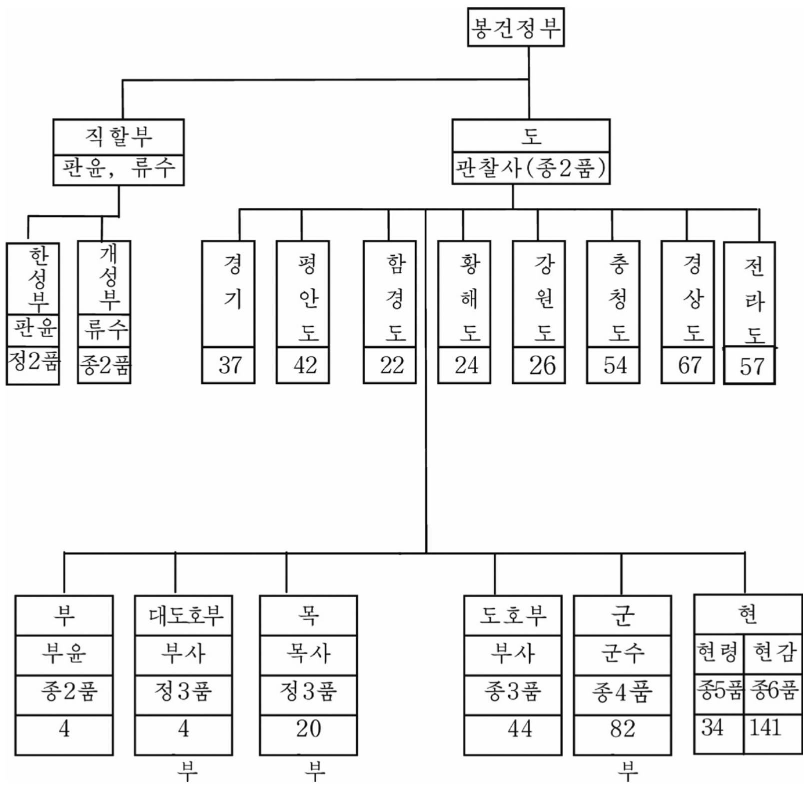
빙고에는 별좌, 별제, 별검 각각 1～2명, 리속으로는 서원, 고직, 군사 등이 배치되여있었다.

지방통치기구

리조봉건국가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중앙통치기구와 함께 지방통치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집권력의 지방침투를 강화하였다.

15세기 리조봉건국가의 지방통치체계를 직관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15세기 리조의 지방통치체계도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중앙집권적봉건통치제도를 유지하며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고 인민들의 계급투쟁을 진압함으로써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강화할 목적에서 지방통치체계를 수립하였다.

리조시기 지방통치기구는 전국을 경기와 7개의 도(8도라고도 한다.)로 나누고 매 도의 명칭을 그 도안에서 제일 중요한 두 고을의 이름 첫자를 붙여서 지었다.

이밖에 특별히 한성부, 개성부(19세기 중엽에는 강화부, 광주부, 수원부가 더 포함되였고 1888년에는 춘천부까지 포함)는 경관직(중앙관직)에 속하게 하였다.

그것은 한성부는 수도인것으로 하여 그리고 그밖의것들은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행정단위인 류수부인것으로 하여 지방관직과 구별한것인데 류수부는 행정체계상 도급이였고 류수도라고도 불렀다.

《류수》라는 말은 왕이 있지 않는 동안에 그곳에 머물러지킨다는 뜻이며 따라서 류수도는 부수도격의 지역을 의미하였다.

이는 현대국가들에서 도급의 특별시와 비슷한것이다.

도에는 종2품이상의 관찰사(감사)를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관찰사밑에 실무처리를 맡은 도사(종5품) 1명씩을 배치하였다.

관찰사가 파견되여있는 각도의 감영에는 중앙행정기구와 비슷한 6방 즉 리방, 호방, 례방, 공방, 병방, 형방을 두고 거기에 일정한 수의 아전(서리 또는 향리라고도 한다.)들을 두었다.

관찰사는 도안의 일반행정뿐아니라 군사 및 사법행정까지 맡아보았으며 관할구역안의 각 군, 현들에 배치된 원들을 통솔하고 지휘감독하였다.

도아래에는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으로 불리우는 고을을 설정하고 모두 도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도아래의 지방행정단위를 통털어 부를 때 군, 현이라고 하였다.

다같이 도밑에 있는 행정단위인데도 그 이름을 달리 부른것은 그 급수상 차이를 표시한것으로서 현대에 와서 같은 군이라고 하더라도 1급군, 2급군 … 등으로 차이를 둔것과 비슷한것이다.

도아래단위인 부에는 종2품관인 부윤, 대도호부에는 정3품관인 대도호부사, 목에는 정3품관인 목사, 도호부에는 종3품관인 도호부사, 군에는 종4품관인 군수, 큰 현에는 종5품관인 현령, 작은 현에는 종 6품관인 현감을 배치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관리는 군, 현까지였다.

군, 현아래단위인 면과 리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다.

이상의 군, 현들에는 벼슬등급이 각이한 지방관들이 파견되였으나 군사관계를 제외하고는 군, 현들사이에는 서로 명령복종관계는 없었으며 모두 관찰사에게만 복종하게 되여있었다.

각 부, 목, 군, 현들에도 6방을 두고 아전들이 있었다.

군, 현아래의 지방행정의 보조적인 단위로 고을원이 통제하는 면과 리가 있었다.(《면》을 《사》로, 《리》를 《방》으로 부르는 곳도 있었다.) 면에는 풍헌, 부헌(약정), 권농, 검속 등의 면임을 두었으며 리에는 리정, 리감(존위), 기찰 등의 리임이 있었다.

면임이나 리임 등은 면과 리에서 공문의 전달이나 호구의 장악보고 및 각종 조세수탈 등의 일을 향림과 함께 집행하였다.

이처럼 수립된 지방통치기구에 따라 리조봉건국가는 고을원에 의한 군, 현통치

로 전국을 운영하였다.

리조시기에 도소재지에 상주하는 전임도장관이 파견되고 도와 군, 현들사이의 행정상의 복잡한 중간단위들이 단일화된것은 중앙집권의 지방침투가 강화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봉건국가의 일반적형태와 특징

인간이 이 세상에 생겨난 때로부터 인류사회는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소유자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 등 다섯개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여왔다.

인류사회발전의 세번째 단계에 속하는 봉건사회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예들의 투쟁에 의하여 첫 계급사회인 노예소유자사회가 멸망하고 그와 교체되여 생겨난 계급사회의 두번째 형태였다.

인류력사의 시기를 구분함에 있어서 인류의 첫 계급사회인 노예소유자사회를 고대사회라고 하며 봉건사회를 중세사회라고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당 사회의 성격은 정권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떤가에 따라 규정됩니다.》(《**김일성**전집》 제37권, 251폐지)

봉건지배계급이 국가정권과 토지를 틀어쥐고 토지에 얽매여있는 농민들을 억압착취하는 계급사회가 바로 봉건사회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각이한 자체의 특성을 가지면서 봉건사회의 력사적과정을 거치였다.

우리 나라에서 봉건사회는 B.C. 277년 고구려성립시기부터 시작하여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였다.

서유럽에서는 봉건사회가 서로마제국의 붕괴로부터 17세기 영국부르죠아혁명과 18세기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까지 존재하였다.

봉건사회에 존재하였던 매개 나라들은 그 나라의 구체적인 계급력량관계에 따라 일련의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여왔다.

일반적으로 봉건국가의 전형적형태는 군주국 즉 왕국 또는 제국이였다.

군주라는것은 《임금》을 이르는 말인데 군주국은 《임금》인 황제나 왕이 최고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말한다.

군주제도하에서는 황제나 왕의 후손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국가를 통치하여왔다.

《군주》, 《임금》, 《황제》, 《왕》이라는 말은 다같이 봉건국가의 전제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자를 가리키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그 이름을 써왔다.

봉건국가의 최고주권자를 일반적으로 부를 때 보통 《군주》, 《임금》이라고 하였다.

여러 왕국들로 이루어진 큰 나라의 임금은 보통《황제》,《대왕》으로 부르며 작은 나라의 임금은 《왕》으로 부른다. 그러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소속시킨 큰 나라가 아니더라도 왕의 격을 높여 황제 또는 대왕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봉건국가들가운데는 간혹 중세유럽봉건도시국가들에서와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공화국형태도 존재하였다.

봉건군주들도 매개 나라마다 그 형태에서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었다.

같은 봉건국가이지만 국가형태에서 서로 차이를 가지게 된것은 그 나라가 처했던 사회경제적형편과 계급적력량관계가 서로 달랐던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봉건군주국의 경우에 대체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나라들은 중앙집권제가 강한

것이 일반적특징으로 되여있었다.

우리 나라 봉건국가들은 초기부터 대체로 중앙집권적인 관료통치기구를 갖춘 군주국으로 발전하였다.

봉건군주들의 국가기구는 군주를 정점으로 하고 농민을 기층으로 하는 하나의 피라미드와 같은 봉건적위계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군주는 무제한한 전제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그의 명령은 곧 법이였고 그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경우에 따라 군주가 실권을 쥐지 못하고 실지로 실권을 쥔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나 언제나 권력행사는 군주의 명의로 진행되였다.

군주밑에는 그의 전제권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각종 국가권력기관들이 있었다.

나라안의 토지와 주민들을 관리, 통제하는 기관, 강탈적인 착취를 보장하는 기관, 계급적지배와 압박을 위한 군사-경찰폭압기관, 지배계급의 사상리론적도구로 복무하는 종교기관, 교육기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외래침략으로부터의 방위를 위한 군대통수기관으로 통치기구를 편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집권적군주제와 통치기구의 기본형태가 고구려에서 처음 마련된 후 삼국시기의 백제, 신라와 발해, 고려, 리조에 전승되였다.

초기부터 중앙집권적왕권이 존재한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기에 따라 일정한 변화는 있었으나 계급적모순이 증대되고 격화됨에 따라 중앙집권제가 점차 더욱 강화되여갔으며 군사-관료기구도 한층 강화되여갔다. 유럽나라들에서의 봉건군주국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처음부터 중앙집권적왕권이 존재하지 못하였다.

유럽의 봉건군주국은 할거제봉건군주국, 신분대표제군주국, 절대군주국 등 3개의 형태를 거쳐 발전하였다.

할거제봉건군주국은 유럽봉건사회의 초기분산적할거시기의 국가형태로서 페쇄적인 자연경제가 지배적이였던 사회경제적조건에 기초한것이였다.(10~13세기)

이 국가형태의 특징은 중앙집권적국가권력이 약하고 한개 봉건국가안에 여러개의 독립적인 또는 반독립적인 령주국들이 존재하고있는것이다.

이 시기 령주들은 령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령지내에서의 령지안의 주민들로부터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자기 군대와 재판소를 가졌으며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령주들사이에는 계층적인 복종관계가 있어서 작은 령주는 큰 령주의 신하로 있었으나 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복종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 시기의 왕권은 사실상 그자신의 령지안에 국한되여있었으며 큰 령주들은 왕권의 강화를 백방으로 저애하였다.

할거제시기에 관료기구와 상비군은 크게 발전할수 없었다.

신분대표제군주국은 중앙집권적왕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귀족과 도시상층부에 의거하고있던 시기의 봉건국가형태였다.(14~16세기)

이 국가형태는 당시 봉건사회내부에서 도시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여 도시주민들의 사회경제적세력이 장성하고 도시귀족상층부의 사회정치적영향력이 증대된 결과로 생겨난것이였다. 도시수공업자들과 상인들은 국내상품류통에 저애를 주는 봉건적분산성을 극복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소토지소유자들도 봉건령주들의 특권과 전횡을 제거하고 시장에서 농산물을 자유롭게 교역할것을 요구하게 되였다.

한편 지주들은 빈번한 농민폭동을 진압할수 있는 강력한 상비군을 가진 중앙집권적왕권확립을 꾀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봉건군주는 귀족들과 도시주민들의 지지

밑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이런 과정에 신분대표제군주국이 형성되였는데 이로써 귀족, 승려들과 아울러 도시주민의 상층들이 중요한 국가사업에 참가하게 되였다.

신분대표제군주국에서는 각 신분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창설되고(례하면 프랑스에서 1302년에 창설된 3부회의 같은것) 여기서는 조세징수, 전쟁의 선포와 강화의 체결, 법령의 제정 등 문제들이 취급되였다.

그러나 봉건군주는 왕권이 강화되고 그의 재정적기초와 상비군이 확립된 이후부터는 신분대표제기관의 합의를 의무적인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또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게 되였다. 그리하여 점차 신분대표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였으며 신분대표제군주국형태는 절대군주제로 교체되게 되였다.

절대군주제는 봉건사회태내에서 자본주의적생산관계가 발생발전하고 봉건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던 시기의 봉건국가형태였다.(16세기후)

수공업과 상업의 가일층의 발전은 단일하고 통일적인 국내시장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였으며 상당한 부분의 귀족들자신도 산업 및 상업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 대령주들의 할거를 반대하여 나섰다.

그리고 농촌에서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은 농노적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가혹하게 하였으며 계급적모순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봉건지주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더한층 장성함에 따라 봉건지주계급은 농민들에 대한 독재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봉건군주는 상비군에 의거하여 자기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며 령지안에서는 봉건령주들의 행정, 사법권을 배제하면서 모든 권력을 자기 수중에 집중하게 되였다.

절대군주제하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 군주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권한을 제한받지 않았다.

그는 모든 부문에 걸쳐 독단적으로 법령을 제정발표하고 관리를 임면하며 세금을 징수하였다.

복잡한 군사관료기구는 농민들과 근로자들을 여지없이 결박하여놓았다.

이밖에 중세기에 유럽의 일련의 상업도시들에서는 봉건적도시공화국이 출현하였다.

도시공화국은 중세기 도시들에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여 도시주민들의 사회경제적세력이 장성하면서 도시가 봉건령주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적자치를 획득한 결과로 발생하였다. 도시들은 자치권을 돈을 주고 령주로부터 사기도 했고 혹은 무력으로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도시공화국에서 권력은 부유한 도시주민 즉 도시귀족들에게 속하여있었다.

도시공화국은 도시의 기본주민인 장공, 도제 기타 소수공업자들에 대하여 도시귀족들이 독재를 실현하며 령주들의 침해로부터 도시귀족들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였다.

도시공화국에서 도시귀족들의 대표들이 시평의회를 구성하고 고위급관리들을 선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도시공화국도 그 본질에 있어서 역시 봉건제적국가였다.

그것은 당시 도시생산의 기본인 수공업이 봉건적관계에 기초하고있었으며 도시공화국이 봉건적인 계급적모순의 산물이였다는 사정과 관련되는것이다.

이처럼 봉건시기 국가형태는 다양하였으나 그의 계급적본질은 다를바 없었다.

그것은 모든 봉건국가는 농민들을 비롯한 인민대중들에 대한 봉건지주계급의 독재기관이였다는것이다.

봉건사회의 신분제도

신분제도는 노예소유자사회나 봉건사회에서 사람들을 그 혈통에 따라《존귀한 》사람과 《천한》사람으로 갈라놓은 반동적인 제도이다.

신분제도는 당시 사회에서 지배계급, 착취계급들이 저들의 정치, 경제적인 모든 특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까지 영구히 물려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는 본래 《귀》한 씨와 《천》한 씨가 있으며 그것은 《신성불가침》한것이라고 허위선전함으로써 생겨났다. 지배계급, 착취계급들은 자기들의 착취와 지배를 보장하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정당화하는 여러가지 신화와 전설들을 조작해내기도 하고 국가권력을 통하여 온갖 법규정들을 만들면서 신분제도를 고착시키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신분제도는 원시사회가 붕괴되고 서로 적대되는 계급들인 노예소유자계급과 노예계급이 출현하면서 생겨난 노예소유자국가때부터 존재하였다.

고조선, 부여, 구려, 진국 등 노예소유자국가들에서 지배계급신분으로 노예주들과 피지배계급신분으로 노예, 하호, 평민 등이 있었다.

지배계급신분인 노예주들은 생산수단은 물론 생산자들인 노예까지 자기의 소유물로 점유하고있었다.

노예주들은 노예를 마음대로 팔고살수 있었으며 죽여도 무방하였다. 그들은 노예의 생산물을 모두 점유하고 온갖 정치군사적특권을 행사할수 있었다.

피지배계급인 자주성을 유린당한 노예들은 《말하는 도구》로서 가장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였고 노예주의 완전소유물이였다.

또한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노예주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하호나 얼마되지 않는 토지와 수공업장을 가지고 자신의 로동으로 독자적인 경리를 운영하는 자영소농민인 평민들 역시 지배계급인 노예주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았으며 점차 몰락하여 노예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신분제도는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시기,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고려시기, 리조시기 등 봉건사회의 여러 단계를 걸쳐 오랜 기간 존재하면서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였다.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 신분관계는 곧 계급관계를 표현하였다.

그것은 봉건사회에서 사회의 계급, 계층들이 일정한 신분으로서 법적으로 규정되여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 신분관계는 크게 지배계급신분으로서 왕과 량반, 피지배계급신분으로서 량인, 천인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왕과 량반신분은 봉건지주들로서 기본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한 착취자들이며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통치하는 지배계급이였다.

량인신분은 천인보다 나은 사회적처지에 있었으나 이들은 기본생산자대중을 이루는 피착취자들이였고 국가정치생활에 사실상 참가할수 없는 무권리한 피지배계급이였다.

천인신분은 사회의 최하층신분으로서 국가관청들에 직접 신분적으로 예속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가장 천시되던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혹하게 억압착취당하던 피착취, 피지배계층들이였다.

봉건적신분은 세습적으로 후대들에게 전승되였으며 신분적차별은 매우 엄격하여 이를 《문란》케 하는 온갖 표현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였다.

또한 국가사회정치생활을 비롯하여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옷, 가구 등의 색, 규격과 문양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구별되였다. 신분과 함께 직업도 세습되였으므로 직업이자 곧 신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신분관계는 계급관계의 변천을 반영하여 봉건사회의 각이한 시기에 서로 일정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였으나 그 변화의 일반적특징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신분제도가 점차 페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것이였다.

신분제도는 실로 사람들의 도덕품성이나 능력 등에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고 또 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을 억제하며 사회발전을 심히 제동한 반동적인 제도였다.

량반 -량반은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 지배계급의 기본을 이루고있던 특권신분층이였다.

량반이란 말은 고려초기에 봉건관료체계에서의 문반과 무반을 문무량반이라고 부른데로부터 나왔는데 그후 점차 두 반렬에 속한 사람들을 통털어 부르는 말로 마침내는 문무관료가 될수 있는 특권층전체를 가리키는 신분규범으로 되였다.

량반을 사대부라고도 하였다.

량반은 봉건국가의 관료가 될수 있다는 특권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회적특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던 특권층이였다. 봉건국가의 문무관료는 오직 량반신분층만이 될수 있었다. 량반은 또한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있던 착취자들이였다.

량반내부의 층은 복잡하였다. 리조시기의 량반은 땅도 가지고 벼슬도 차지한 층, 땅은 없으나 벼슬만 차지한 층, 땅만 있고 벼슬을 가지지 못한 층 등으로 나뉘여졌다. 극히 드물게는 땅도 벼슬도 가지지 못한 량반도 있었으나 그들도 노비만은 가지고있었다.

량반은 자기는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봉건국가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주로는 자기의 예속밑에 있는 사노비를 직접적으로 억압착취하는 동시에 봉건국가기구를 통하여 량인과 공노비를 억압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기생층이였으며 특권층이였다.

중인-리조봉건국가의 중앙에서 주로 기술관벼슬(잡벼슬)을 하던 지배계급에 속하는 신분층이였다.

중인은 량반 다음가는 신분층으로서 대체로 사역원이나 관상감, 도화서, 내의원 등 중앙관청들에서 주로 역관(통역관), 의관(의사), 천문관, 지관(풍수보는 관리), 산관(계산원), 률관(법을 말아보는 관리) 등 기술관벼슬을 하였다.

이가운데서도 역관, 의관, 천문관, 지관 등은 다른 기술관벼슬자리보다 좀 높은 신분에 속해있었다.

중인이란 말은 이러한 기술관들이 서울의 중심지역에 모여서 살았기때문에 생겨난것이다.

지방에 따라서 기술관외에 아전(향리)을 가리켜 중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문무량반들은 신분적으로 중인을 저들과 엄격히 구별하여 천시하였으며 이러저러한 제한정책으로 그들이 높은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중인의 신분과 직업은 세습되였고 결혼도 저들끼리만 할수 있었다.

이들은 세습적인 직업과 전문적인 기술지식을 가지고있었으며 통치집단속에서 일정한 지반과 권력을 가지고있었다.

그가운데서 특히 사역원의 통역관으로 복무한 중인들은 외국에 가는 기회에 무역 또는 상인들의 무역관계교섭 등으로 부자로 된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중인들은 량반이 하는 관료벼슬은 할수 없었으나 경제적처지는 량반에 못지 않았다.

아전(서리)-아전은 봉건국가의 중앙과 지방관청들에서 말단행정사무를 맡아보던 하급관리로서 지배계급에 속하는 신분층이였다. 서리라고도 하였다.

서울의 중앙관청에서 복무하는 아전을 경아전(또는 경리), 지방관청에서 복무하는 아전을 외아전, 향아전이라고 하였다.

경아전으로는 주로 해당 관청의 문서처리, 기록사무, 련락사무 등을 맡은 록사, 서리, 조예, 라장, 제원, 오장차비, 반당(시중원) 등이 있어 그 관청 고위급관리의 서기역을 담당하거나 실무를 맡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6조의 판서, 참판들에게는 록사와 서리 각각 1명, 참의(병조는 참의와 참지)들에게는 서리 1명이 있었고 6조안의 각 사들에는 5～7명의 록사(모두 37명)와 15～46명의 서리(모두 180명)가 소속되여있었다.

중앙관청의 록사, 서리들은 근무기간에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았으며 오래동안 근무한 록사들은 고을의 원으로, 서리는 역 또는 승(나루)으로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

외아전으로는 서원, 일수, 라장, 차비군 등이 있었다. 아전들은 주로 각 도의 감영 또는 고을관청의 행정부서들인 6방에 배속되여 해당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봉급이 없었으며 국가적인 특권도 없었다.

외아전중에서도 감영에 복무하는 영리보다 고을에 복무하는 아전 그리고 그보다도 역아전의 신분이 더 낮았다.

아전신분의 사회적처지는 력사적으로 볼 때 서로 달랐다.

고려시기의 향리는 량반과 그리 큰 신분적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과거도 볼수 있었고 중앙의 벼슬도 할수 있었다. 그러나 리조시기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분적처지는 떨어졌다.

그들은 고을원의 권력행사에서의 집행자로 되였고 차림(옷, 갓 등)도 량반과 차이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전은 신분적으로는 지배계급에 속하나 역은《천역》으로 인정되였다.

그러나 아전은 대대로 세습되는 신분으로서 봉건통치배들의 직접적인 하수인이 되여 갖은 협잡과 롱간으로 인민들을 억압착취하고 못살게 구는 착취자들이였다.

량인-량인은 봉건사회의 기본생산자대중으로서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신분층이였다.

량인을 보통 평민, 상민, 서민, 백성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량인은 노비와 함께 생산의 기본대중을 이루었으며 노비보다 우의 신분규범에 속해있었다.

량인의 절대다수는 농민이였다.

량인농민은 조상때로부터 제손으로 일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소농민들이였다.

그들은 봉건국가에 예속된 이른바《공민》들로서 병역의 기본을 담당하였으며 전세, 공물, 부역 등 각종 형태의 봉건적착취를 당하였다.

량인들중에는 농업이외에 수공업이나 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수는 전체 량인들가운데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량인가운데서 일부는 신분적으로는 량인이지만 직업이《천하고》또《천한 일》로 봉건국가에 복무한다고 하여 일반량인들과 구별하여 신량역천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직업과 국가에서 그들에게 지우는 역은 노비와 다름이 없었다. 소금구이하는 염간, 바다에서 물고기잡이하는 해척, 도자기구이하는 사기간, 철을 제련하는 철간 등은 다 신량역천으로 불리웠다.

이처럼 신량역천은 하층량인으로서 봉건국가의 관청수공업장들에 나가서 일정한 기간 강제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또한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공물로 국가에 바쳐야 하였다.

신량역천신분에는 가장 천대받던 신분층으로서 백정이 있었다.

리조시기 백정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버들고리를 만들고 주로는 소, 개 등 집짐승을 잡는 일을 맡아하면서 가혹한 봉건적착취를 당하였다.

백정은 노비신분은 아니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노비보다 더 천시되였고 1894년갑오개혁이후 명목상으로나마 노비제도가 페지된 후에도 백정들만은 계속 《천민》으로서 박해와 천대를 받아왔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과 천대가 심하였던 조건에서 그들은 따로 부락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량인신분가운데는 그 상층인 《한량》으로 불리운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

한량은 주로 지방의 중소토지소유자들이였다.

그들은 신분적으로는 량인에 속하였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인민들을 착취하는 봉건적착취자였다.

그들은 병역도 비교적 헐하고 벼슬로 간주되는것(국왕의 친병인 내금위, 별시위를 비롯하여 갑사 등 하급군사지휘관)을 담당하였다.

노비-봉건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억압착취당하던 최하층의 피지배계급신분이였다.

노비를 《종》이라고 불렀는데 노는 남자종, 비는 녀자종을 가리킨것이다.

노비는 량인과 함께 생산의 기본대중을 이루고있었다.

노비의 신분은 대대로 물려받게 되여있었으며 부모의 어느 한쪽이 노비인 경우에는 그 자손도 노비로 되였다. 극히 례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한 제한조건아래 노비신분에서 면제되였다. 노비는 봉건사회의 전기간 봉건지배계급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억압과 착취, 모진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사람들이였다.

노비의 상전(노비소유자)들은 노비를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고팔거나 남에게《선물》로 넘겨주고 받을수 있었으며 제멋대로 죽일수는 없었으나 죽이더라도 법적추궁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노비는 그 상전이 국가인가, 개인인가에 따라 공노비(국가에 매워있는 노비), 사노비(개인에게 매워있는 노비)로 나뉘여졌다.

사노비는 또한 그 예속상태에 따라서 솔거노비(상전과 같이 있는 노비)와 외거노비(별거노비, 상전과 따로 사는 노비)로 나뉘였다.

노비가 상전과 따로 사는 경우에는 상전이 시키는 일정한 기간의 로동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한 량의 공물을 수탈당하였다.

노비중에서 절대다수를 이룬것은 사노비들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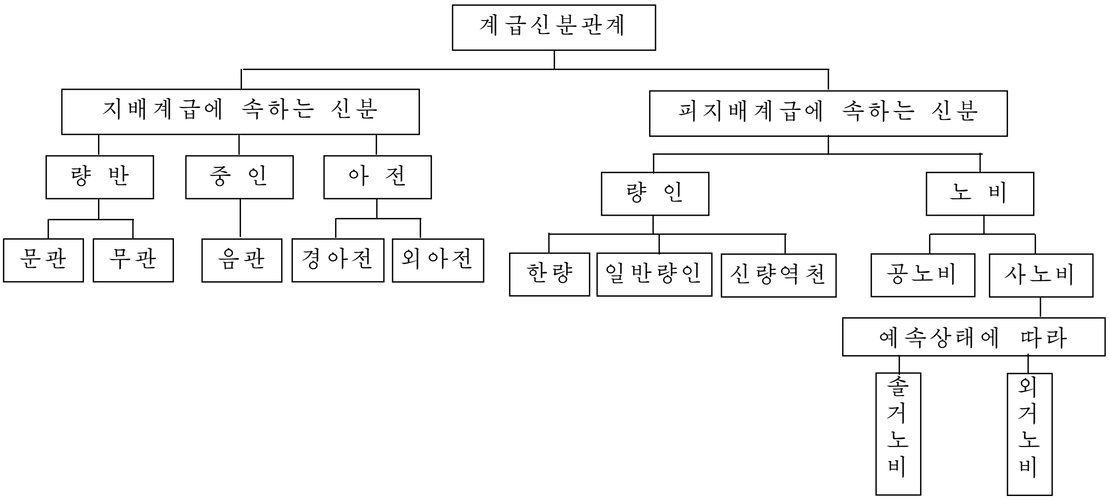
노비의 직업은 여러가지였으나 관청 또는 량반지주들의 하인노릇을 하는 사람들중 관노비 또는 솔거노비를 제외한 대부분은 농업이였다.

노비들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짓밟히고 항상 무서운 고통속에서 생활하였으며 자기들의 사회경제적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리조봉건통치배들은 1801년에 공노비, 각사노비(서울에 있는 중앙의 각 관청에 예속된 노비)의 《해방》을 선포하였으며 그후 1894년갑오개혁이후 노비제도는 제도로서 철페되였다.

그러나 노비제도가《철페》된 후에도 지난날 노비였던 최하층인민들은 실제적으로 노비나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15세기 리조봉건국가의 계급신분관계



리조시기의 몇가지 관직명

정승 -리조봉건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인 의정부의 령의정, 좌의정과 우의정을 통칭하여 정승이라고 불렀다.

령의정은 정부의 수반급관리였으며 좌의정과 우의정은 부수반급의 관리였다.

이들은 모두 정1품의 관리로서 국왕을 도와 모든 관청과 관리들을 통솔하고 일반정사를 처리하는 제일 높은 급의 관리였다.

1894년부르죠아개혁(갑오개혁)때의 정부관제가 개편되면서 정승들의 이름이 고쳐졌는데 령의정은 총리대신으로, 좌의정은 좌찬성으로, 우의정은 우찬성으로 불렀다.

그후 총리대신은 다시 의정대신, 참정대신 등으로 자주 고쳐지다가 1907년 내각을 설치할 때 다시 총리대신으로 리조정부가 붕괴되던 1910년까지 불리웠다.

3당상-리조봉건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 6조의 당상관들인 판서(정2품), 참판(종2품), 참의(정3품) 등 3명을 가리켜 3당상이라고 하였다.

판서는 해당 조의 장관이였고 참판은 부장관이였으며 참의는 그 아래급의 고관이였다.

그들을 부를 때에는 《리조판서》, 《병조판서》, 《례조판서》 등으로 해당 기관의 이름과 함께 불렀다.

관찰사(감사)-리조시기 각 도의 장관. 감사, 방백, 도백, 도신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고려말, 리조초에는 도관찰출척사 또는 도관찰사라고도 하다가 1466년(세조 12년)에 관찰사로 고쳐졌다.

관찰사는 처음에는 지방에 상주하지 않고 관할지역안을 수시로 돌아다녔다.

따라서 그가 머물러있는 곳을 순영 또는 행영이라고 하였다. 관찰사가 지방에 상주한것은 리조성립후 수십년이 지난 뒤였는데 관찰사가 지방에 고정적인 관청을 두게 되면서 이곳을 관찰사영 또는 감영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관찰사(종2품)는 해당 도의 지방장관으로서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을 모두 틀어쥐고 관할지역을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도안의 부윤(종2품), 대도호부사(정3품), 목사(정3품), 도호부사(종3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등 자기밑의 지방장관들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관찰사밑에는 그의 사업을 도와주는 도사(종5품), 판관(종5품), 중군, 검률(종9품), 심약(종9품) 등 관리들이 있었다.

관찰사의 임기는 처음에 1년이였으나 후에 2년으로 되였다.

관찰사는 해당 도에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벼슬자리가운데 하나를 겸하게 되여있으므로 그 권한이 컸다.

관찰사는 큰 권한을 악용하여 인민들을 억압착취하였다.

병마절도사(병사)-리조시기 각 도의 륙군부대를 지휘할 책임을 진 군사지휘관, 병사라고도 하였다.

병마절도사는 종2품관리로서 각 도에 1~3명을 두었으며 그중 1명은 관찰사(감사)가 겸임하였다.

절도사가 있은 곳을 주진이라고 하였다.

병마절도사는 변방고을의 원이나 방어사를 지낸 경력이 있는자로서 임명하였다.

리조시기에 전국적으로 병마절도사가 16명 있었는데 강원도에 1명,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에 2명씩, 경상도, 함경도에 3명씩 두었다. 함경도와 평안도의 병마절도사는 수군절도사를 겸임하였다.

병마절도사들은 군대를 움직여 외적의 침입을 막거나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군절도사(수사)-리조시기 각 도의 수군함대를 지휘할 책임을 지닌 군사지휘관, 수사라고도 하였다.

수군절도사는 수군을 동원하여 해당 군관구의 해상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수사는 정3품관리로서 각 도에 1~3명을 두었으며 그중 1명은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15세기에 수사는 전국적으로 모두 17명이 있었는데 경기, 충청도, 황해도에 2명씩,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에 3명씩, 평안도, 강원도에 1명씩 두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수군절도사는 감사와 병마절도사가 겸임하였다.

수군통제사-경상, 전라, 충청, 3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무관벼슬(종2품). 흔히 3도수군통제사라고 한다.

임진조국전쟁의 일시적휴전기간인 1593년 8월에 설치되였다.

그전에는 3도에 각각 좌도수군절도사와 우도수군절도사가 1명씩 배치되여있었다.

임진조국전쟁 첫 단계의 교훈에 비추어 우리 나라 수군의 기본력량이였던 3도의 수군을 련합하고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울 필요를 느끼게 되였다. 그리하여 3도 6개의 함대를 총지휘하는 무관벼슬로서 3도수군통제사를 새로 내오게 되였다.

첫 수군통제사는 애국명장 리순신이였다.

수군통제사가 주둔하는 기지는 통제사영이라고 불렀다.

통제사영은 처음 한산도(경상남도 통영군)에 있었으며 1597년-1598년 일본침략군의 재차침입당시는 진도(전라남도 진포군), 고금도(전라남도 완도군) 등지에 있었다.

도체찰사-리조시기 봉건국가가 국가적무력동원이 있을 때 림시로 행정군사적인 권한을 주어 지방에 파견하던 최고위급관리였다.

봉건국가는 농민폭동군을 진압하거나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군사행동을 조직할 때 그 보장을 위하여 령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가장 높은 급의 관료들에게

군사적직책을 띤 림시벼슬을 주어 파견하였다.

그 벼슬이름은 때에 따라 얼마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대체로 벼슬등급이 정1품인자는 각각 도체찰사로, 종1품인자는 제찰사로, 정2품인자는 도순찰사로, 종2품인자는 순찰사로 임명되였다. 도체찰사는 해당 군사행동전반사업의 추진에서 최고권력을 가진 관리였으며 그 군사행동이 끝나면 해임하게 되여있었다.

순변사-리조시기 군사임무를 가지고 지방 특히 변방에 림시로 파견되던 중앙관리이다.

리조전반기에 봉건정부는 녀진인거주지역과의 접경지대인 함경도와 평안도, 왜구의 침입이 잦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순변사를 보내여 군대, 무기, 군량, 성곽 등 실태를 검열하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일이 여러번 있었다.

임진조국전쟁(1592-1598)시기 순변사는 해당 도의 무력을 장악하고 지휘하여 관찰사, 병마절도사들이 지휘하는 군대와 함께 전투를 진행하였다.

순무사-리조시기 봉건정부가 농민폭동 또는 지배계급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에 림시로 파견한 중앙관리이다.

리조시기 봉건정부는 1811~1812년 평안도 농민전쟁때 량서순무사를 파견한 일이 있었고 1728년(영조 6년) 청주의 리린좌반란때 도순무사를 보낸 일이 있었다.

안핵사-리조시기 봉건정부가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한 관리이다.

1862년 진주에서 농민폭동이 일어났을 때 봉건정부는 그곳 병마사와 목사를 갈아치우고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하였으며 갑오농민전쟁때 봉기한 농민들을 회유기만하여 투쟁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장흥부사 리용태를 안핵사로 임명하여 현지에 파견하였다.

안핵사들은 원래 조사관으로 파견되였으나 현지에 가서 폭동진압대책을 세우기에 날뛰였으며 특히 폭동주모자들을 체포하는 등 만행을 감행하였다.

암행어사-리조시기 왕의 명령으로 비밀리에 주민들의 동태와 관리들의 행정사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되던 관리이다. 리조초기에는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각도에 파견되였으나 후기에는 대체로 필요한 경우에 왕이 직접 임무를 주어 비밀리에 내려보내였다.

암행어사에게는 사태가 엄중할 때 모든 문제를 현지에서 자기 결심에 의하여 국왕의 명의로 처리할수 있는 큰 권한이 부여되여있었다.

18~19세기에 가혹한 봉건적착취와 탐관오리들의 전횡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자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투쟁을 억제하며 봉건통치를 강화할 목적에서 자주 암행어사를 파견하였다.

그들은 봉건왕권을 침해하고 봉건통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지방관리들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기와 같은 당파에 속해있거나 이러저러하게 인연이 있는 집안출신의 관리들을 두둔하고 세력없는 관리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것이 보통현상이였으며 더구나 인민들의 리익을 위한 문제처리는 전혀 할수 없었다.

포도대장-리조시기 봉건적억압,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던 인민들과 일반《범죄자》들을 잡아가두고 형벌을 가하던 중앙사법기관의 하나인 포도청의 장관이다.

포도청에는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장이 각각 1명 있었다.

좌포도청의 장관을 좌포도대장, 우포도청의 장관을 우포도대장이라고 불렀다.

이자들은 수하에 종사관 3명, 부장 4명과 리속들인 서원 4명, 사령 3명, 군사

64명을 거느리고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포도대장들은 자기의 폭력기구를 가지고 인민들의 계급투쟁을 탄압하였으며 수도안의 밤경비를 많이 하였고 왕이 외출할 때에는 그것을 호위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원-도 아래급 지방행정장관들을 통칭하여 부른 관직이름이다.

원들은 고을의 이름에 따라 부윤(종2품), 대도호부사(정3품), 목사(정3품), 도호부사(종3품), 군수(종4품), 현령(큰 현의 장관, 종5품), 현감(작은 현의 장관, 종 6품) 등의 정식관직이름이 있었다.

원은 국왕이 직접 임명하여 해당 고을에 파견한 관리로서 자기 관할지역안의 행정, 사법, 군사 등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였다.

원들의 임기는 당하관이면 2년반, 당상관이면 20개월, 먼 지방의 원은 보다 단기로 제정되였다.

등급이 높은 원은 기본적으로 문관들로 임명되였다.

변방과 그밖의 특정한 지역의 원들만 무관으로 임명하거나 문관과 무관을 엇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은 자기 관하에 중앙행정기구와 류사한 6방 즉 리방, 호방, 례방, 병방, 형방, 공방을 두고 거기에 일정한 수의 아전들을 배치하여 그들을 통해서 지방을 통치하였다.

우리 나라 봉건국가들의 벼슬등급과 위계3분법

봉건사회를 특징지을 때 일반적으로 신분사회라고도 한다.

봉건사회에서 신분적규범은 일반사회생활에서뿐아니라 관직제도에서도 철저하였다.

봉건국가의 여러 벼슬자리들가운데서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는 력대로《좋은》문벌출신이라야 등용될수 있었다.

봉건국가는 해당한 관직에 오를수 있는 벼슬등급 (관등 또는 위계라고도 한다.)을 규정해놓고 그것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이것은 관료층내부의 신분등급이라고도 말할수 있는것이다.

지금 력사기록들에 보이는 벼슬등급은 고구려에 14개, 백제에 16개, 신라에 17개, 고려에는 29개, 리조에는 문관 31개, 무관 23개이다.(가야와 발해에도 벼슬등급이 있었다는 기록은 보이나 그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다.)

봉건국가들에서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벼슬등급을 가진자라야 임명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관직과 벼슬등급은 뗄수 없는 두 측면을 이루고 서로 밀접히 결합되여 있었다.(벼슬은 관직만 나타내는 말로도 썼다.)

관직과 벼슬등급과의 관계를 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때 문하부의 시중은 종1품, 상서 6부의 상서들은 3품의 벼슬등급을 가진자들이므로 의정(정승)은 정1품, 6조의 판서는 정2품, 도의 장관인 관찰사는 종2품, 군수는 종4품,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 규장각의 제학은 종2품～종1품의 벼슬등급을 가진자들이 임명될수 있었다.

물론 삼국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초기에 벼슬등급과 벼슬이 갈라져있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백제의 좌평을 들수 있는데 1품인 좌평은 본래 관직이름이였는데 후에 벼슬등급으로도 쓰이게 된것으로 보인다.

그후 봉건제도가 점차 강화되면서 관직과 벼슬등급이 갈라지게 되였으며 매 관직에는 그에 해당한 벼슬등급을 가진자만이 임명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물론 그후에도 일부 관리들이 벼슬등급보다 높거나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례로 리조시기에《계고직비》라고 하여 벼슬등급보다 낮은 벼슬(관직)을 하는 경우와 《계비직고》라고 하여 벼슬등급보다 높은 벼슬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관직은 해당한 벼슬등급을 가진자로 임명하는것이 원칙이였다.

벼슬등급은 관직을 주는 기준으로 되였을뿐아니라 세땅(조세를 받아먹을 권리를 주는 땅)을 나누어주는 기준으로도 되였다.

례를 들어 고려에서 988년에 실시한 전시과에서 종1품에게는 세땅 100결을 주고 정, 종9품에게는 27결을 주기로 규정하였으며 1391년 리성계일당이 실시한 과전법에서는 벼슬등급에 따라 150결부터 10결까지의 세땅을 나누어주었다.

벼슬등급은 공복(관복)의 재질과 색갈 지어 주택의 규모 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도 되였다.

우리 나라 벼슬등급제도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2개의 큰 마디가 있어 관료들은 크게 3개의 무리(군)로 구분되여있었다.

이것을 《위계3분법》이라고 하였는데 이 법은 고구려때 생겨난 후 백제와 신라에 전해졌고 그후 고려, 리조에 전승되였다.

력대봉건국가들의 벼슬등급의 두 마디에 의하여 구분된 관리들의 3개의 무리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안의 수자는 등급을 표시함)

나 라	제1관료군	제2관료군	제3관료군
고구려	① 1품 토졸 ⑤ 종3품 조의두대형	⑥ 정4품 대사자 ⑩ 정4품 소형	⑪ 종7품 제형 ⑭ 정9품 선인
백제	① 1품 좌평＊2 ⑥ 6품 나수	⑦ 7품 장덕 ⑪ 11품 대덕	⑫ 12품 문독 ⑯ 16품 극우
신라	① 이벌찬＊3 ⑤ 대아찬	⑥ 아찬 ⑪ 나마	⑫ 대사 ⑰ 조위
고려	① 정1품 개부의동심사＊4 ② 종2품 금자공록대부＊5	④ 정3품 은천광록대부 ⑬ 종5품(5) 조산대부	⑭정6품 (상)조의랑 ㉙ 종9품 (하)장사랑
리조 문반	⑨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 ⑩ 정3품 통정대부	⑪ 종3품 통훈대부 ㉕ 종6품 선무랑	⑱ 정7품 무공랑 ㉓ 종9품 장사랑
리조 무반	② 정3품 절충장군	② 종3품 어모장군 ⑰ 종6품 병절교위	⑱ 정7품 적순부위 ㉓ 종9품 전력부위

※ 1 고구려의 벼슬등급이름은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에 씌여있는것이다.

※ 2 좌평우에 상좌평이 있었다.

※ 3 이벌찬우에 대각간, 태대각간 등 가장 높은 급의 벼슬등급이 있었다.

※ 4 종1품우에 정1품이 있었다.

※ 5 제1관료군에는 정3품 벼슬등급을 가진자들이 일부 들어있었다. 삼국시기에는 3개 관료군의 매 관료군에 대한 칭호가 없었으나 고려시기에는 제1관료군을 재추, 리조시기에는 당상관이라고 하였으며 제2관료군을 참상관, 제3관료군을 참의(고려), 참하관(리조)이라고 하였다.(리조에서는 참상과 참하를 아울러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력대봉건국가들에서 위계3분법을 실시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극소수의 가장 높은 급 관료들이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력대봉건국가의 군주들은 자기와 운명을 같이할 대귀족출신의 관료들을 일반관리들과 구별하고 그들에게 온갖 특권을 다 보장해주었으며 일반관료들은 토지소유정도와 계급신분에 따라 다시 2개로 나누어 중소토지소유자들과 지방토호세력들을 제2관료군으로 만들고 일정한 특권을 줌으로써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는데 협력하게 하였던것이다.

벼슬등급제도에서 삼국시기와 고려, 리조시기사이에는 일련의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후세에 올수록 벼슬등급이 세분되였다는 사실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각각 10여개의 벼슬등급이 있었으나 고려는 29개(정1품을 포함하면 30개), 리조에는 31개(문반벼슬등급)가 있었다. 그리고 리조시기에는 문반벼슬등급과 함께 무반벼슬등급(23등급)이 있었다.

그 차이는 다음으로 삼국시기에는 가장 높은 급의 무관들이 제1관료군에 속하였다면 고려시기에는 상장군, 리조시기에는 어모장군이하의 높은 급 무관들이 제2관료군의 반렬에 굴러떨어진것이다.

고려에는 무관벼슬등급(무반계-문반계와 마찬가지로 종1품부터 종9품《하》에 이르는 29개 등급이 있었다.)제도가 있었으나 그것은 이름과는 달리 무반관리에게 주는 벼슬등급이 아니라 초기에 지방호족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있던 벼슬등급(향직)에 덧붙여주는 일종의 《명예벼슬등급》이였다. 그러므로 무반들로 문관벼슬등급을 받았는데 상장군이하 높은 급 무관들이라야 정3품～종6품 즉 참상 등급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리조시기에는 정3품 웃등급인 어모장군이하 높은 급 무반관리들이 참상등급밖에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봉건유교사상이 보급되면서 문존무비(문관을 높이보고 무관을 낮추보는것)의 사조가 대두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였다. 그 차이는 또한 고려, 리조시기에 제3관료군(참외관, 참하관)반렬에 중소토지소유자들과 자영소농민(량인)상층 출신이 많이 끼여들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고려에서 12세기 후반기~13세기 후반기 무신이 집권하였을 때 《천인》신분출신들이 제3관료군(참의)에 많이 끼여들게 되였다.

관료군을 3개의 큰 무리로 구분하는 아래마디(고려-종5품과 정6품사이, 리조-종6품과 정7품사이)는 바로 이러한 계층출신이 높은 관직에 오르는것을 막기 위하여 설정되였다.

특히 고려에서는 《천인》신분출신은 7품이하의 벼슬만 주었는데 이것을 《상식7품》이라고 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제1관료군이 귀족민주주의적평의기구(고구려의 제가평의회, 백제의 정사암회의, 전기신라의 남당회의, 후기신라의 4령지회의 또는 화백회의)의 성원으로서 특권을 행사하였다.

고려시기에 와서 대귀족관료들은 삼국시기의 대귀족관료들과 같은 유력한 세력은 아니였다.

그러나 재추들은 도평의사사의 합좌성원으로서 특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면 봉건

국가들에서 가장 높은 급 벼슬등급을 가진 극소수 관료들이 어떻게 그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 유지하였는가에 대하여 고려, 리조의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고려때 가장 중요한 관청은 군주의 권력행사를 돕는 중앙관청인 내사문하성과 군주의 명령을 아래에 전달하고 신하들의 제의를 군주에게 보고하며 그의 신변을 호위하는 등 일을 맡은 중요한 관청인 중추원(추밀원이라고도 한다.)이였다.

이 중요관청의 가장 높은 급 관료들인 재상들(종1품인 내사문하성의 문하시중과 중서령, 정2품인 평장사들과 참지정사, 정당문학 등)과 추신들(종2품인 판원사, 원사, 지원사, 동지원사)이 최고행정집행기관인 상서6부(리부, 병부, 호부, 례부, 형부, 공부)의 장관(판사)을 겸임하고 독판치기정치를 하였다.

우에 든 재신과 추신을 아울러 재추라고 하였는데 문벌로 따지면 불과 10여개의 특권성씨문벌이 대대로 재추의 관직을 독점하고있었던것이다.

사정은 리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리조시기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의 령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들을 아울러 의정 또는 정승이라고 함)으로는 정1품, 좌, 우찬성으로는 종1품, 좌, 우참찬으로는 정2품의 벼슬등급을 가진자들이 임명되였다.

리조시기에는 고려시기처럼 재상(의정부의 당상관)들이 6조의 장관(판서)을 겸임하는 제도는 없어졌으나 의정들은 여러 중앙관청의 령사 또는 감사, 도제주를, 찬성, 참찬은 지사, 제주 등을 겸임하여 그 관청들을 장악통제하였다. 이러한 높은 벼슬등급은 전주리가, 안동김가를 비롯한 불과 수십개의 특권성씨문벌들이 독차지하였다.

리조시기 낮은 벼슬 몇가지

리조시기 중앙의 중소관청들에는 실무를 담당한 하급관리들이 많았다.

그가운데서 옛날 소설이나 비석 같은데 많이 보이는것은 주부, 직장, 봉사, 참봉 등이다.

주부는 종6품관리(참상관)로서 각 지방에서 인민들로부터 수탈하여 올려보낸 특산물들을 왕궁에 올려보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내자시, 내섭시, 의영고 등)들과 《백성들의 병을 치료》해준다는 혜민소 등에 배치되여있었다.

(지난날 고려의사와 고려약방주인들도 주부라고 불렀다.)

주부밑에는 참하관으로서 직장(종7품), 봉사(종8품)가 있었다.

이밖에 참봉(종9품)이 있었는데 왕의 무덤인 릉을 지키는 릉참봉이 많았다.

(지난날 봉사와 참봉은 남자어른소경을 이르는 말로도 쓰이였다. 심청의 아버지를 심봉사라고 부른것은 그 한 례이다.)

리조시기 벼슬하지 못한 량반들의 호칭 몇가지

과거(문과)예비시험인 소과에서 유교경전해석시험을 생원시, 시짓기시험을 진사시라고 하였으며 그 합격자를 각각 《생원》, 《진사》라고 하였다.

생원, 진사들은 다시 본시험인 대과에 응시합격하여야 벼슬을 할수 있었다.

과거(무과)에 합격한 사람가운데서도 벼슬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을《선달》이라고 하였다.

선달과 생원, 진사가운데서 대과에 응시하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자들도 비록 벼슬을 하지 못하였으나 량반으로 행세하였다.

생원, 진사, 선달은 성다음에 붙여 원생원, 리진사, 김선달 등이라고 불렀다.

량반가운데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여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선비를 《학생》이라고 하였다.

비석 같은데서 많이 볼수 있다.

고려, 리조시기 관직, 관리를 부르는 법

리조시기 관직(직함이라고도 하였다.)을 공식적으로 부를 때는 맨 먼저 벼슬등급, 다음에 관청이름, 끝으로 관직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령사, 판사, 지사 등의 관직이름에서 《령》, 《판》, 《지》등은 역시 관청이름앞에 붙였다.

례를 들어 상서병부판사는 판상서병부사로, 장흥부 지사는 지장흥부사, 안악군지사는 지안악군사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공신칭호를 받은 관리들은 고려때나 리조때를 막론하고 그것을 제일먼저 붙였다.

례를 들어 고려때 윤관의 벼슬이름을 부를 때는 추충좌리평융척자공신 문하시중판상서리부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리의 이름을 비공식적으로 간단히 부를 때는 흔히 성과 벼슬만을 불렀다.

례를 들어 고려때 6도도통사를 지닌 최영장군은 최도통이라고 불렀으며(19세기말~20세기초에 나온 애국명장들의 전기가운데 하나인 최영의 전기를 《최도통전》이라고 하였다.) 리조시기에 리가 성을 가진 정승은《리정승》, 김가성을 가진 판서는《김판서》라고 불렀다.

관리를 부를 때 성과 이름사이에 벼슬이름을 끼워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례로 고려말 정당문학벼슬을 지낸 안목을 안정당목이라고 한것은 그러한 례이다.

지어는 고을원인 경우 성과 이름은 부르지 않고 그가 원노릇을 하는 고을이름만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춘향전》에 남원부사 변학도가 자기 생일잔치에 왔다가 비렁뱅이행세를 하는 리몽룡이 암행어사라는것을 제일먼저 눈치채고 달아나는 운봉현감 보고 《운봉, 왜 가시려오?》라고 한것은 이런 경우이다.

왕족들을 부르는 말

왕의 안해(본처)는 《비》라고 하였으며 봉호는 《왕후》라고 하였다.

례를 들어 고종의 본처는 민가성을 가진 왕비였으므로《민비》라고 하였는데 봉호는《명성왕후》였다. 왕비를 직접 대면하여 부를 때에는 중궁(가운데《중》, 궁궐《궁》)마마라고 불렀다.

왕의 첩(제2부인)은《빈》이라고 하였으며 역시 《현빈》, 《소빈》등 봉호를 가지고있었다.

왕의 아들은 왕자라고 하였으며 그가운데서 대를 이을 아들을 왕세자(세자), 왕태자, 동궁(동녘《동》, 궁궐《궁》)이라고 하였다.

왕자가운데서 왕비가 낳은 아들은 《대군》, 빈을 비롯한 첩(궁녀)들이 낳은 아들은 《군》의 칭호를 주었다.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된 세조는 수양대군이였다. 왕세자를 직접 대면하여 부를 때에는《동궁마마》, 《전하》라고 하였다. 왕의 딸가운데서 왕비가 낳은 딸은 공주, 《빈》과 첩(궁녀)들이 낳은 딸은 옹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왕의 사위들은 부마 또는 의빈이라고 하였다.

그가운데서 공주의 남편은 정, 종1품《위》, 옹주의 남편은 정, 종2품《위》를 받았으므로 《위》라고 불리웠다.

왕족을 비롯한 봉건지배계급에게 붙이는 《존칭》

마마-왕과 그 가족들의 칭호뒤에 붙여 높이는 뜻을 나타내였다.

례를 들어 왕은 상감마마, 대전마마, 왕비는 중궁마마, 내전마마, 왕세자는 동궁마마라고 하였다.

전하-왕과 왕비, 왕족을 높이여 부른 말이다.

(례: 왕대비전하, 공주전하)

대감- 정2품이상 관리를 높이여 부른 말이다.

의정부의 의정(정승 정1품), 찬성(종1품), 참찬(정2품)들과 6조의 판서,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모두 정2품)들, 의금부의 판사(종1품), 지사(정2품) 등을 《대감》이라고 불렀다.

령감-종2품과 정3품(당상관)을 높이여 부른 말이다.

6조의 참판과 사헌부의 대사헌, 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들, 성균관과 의금부의 동지사들(이상 모두 종2품) 그리고 승정원의 승지, 성균관의 대사성(정3품 당상관) 등을 《령감》이라고 불렀다.

나으리(나리)-당하관(정3품아래 벼슬등급인 통훈대부이하)을 높이여 부르는 말이였다.

상왕, 태상왕과 왕대비, 대왕대비

왕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왕자리를 자기 아들이나 동생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를 상왕이라고 하였으며 왕이 또 왕자리를 다음 왕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왕은 《상왕》, 상왕은 태상왕이라고 하였다.

고려때 충숙왕(제27대)이 1313년에 자기 아들 충혜왕에게 왕자리를 넘겨주었다가 1314년에 다시 왕으로 되였는데 충혜왕이 왕자리에 있는 기간 그는《상왕》으로 불리웠다.

리조때 리성계가 자기 다섯째아들 방원의 압력에 못이겨 왕자리를 둘째아들 방과(제2대 정종)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상왕》으로 되였다. 그후 정종도 방원의 압력에 못이겨 자기 동생인 그에게 왕자리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하여 정권을 잡은것이 태종(제3대)인데 이때부터 정종은 《상왕》, 태조 리성계는 《태상왕》으로 불리웠다.

대비란 왕의 어머니이다.

보통 성을 붙여 《조대비》, 《엄대비》등으로 불렀다.

대왕대비란 살아있는 전전왕의 안해를 이르는 말이다.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어떤 왕의 손자가 왕자리를 이었을 경우에는 왕의 할머니가 대왕대비로 되였다.

섭정, 수렴청정

임금이 어리거나 그밖의 사정으로 그를 대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섭정이라고 한다.

주로 임금이 어릴 때 그의 어머니나 할머니 등이 섭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왕의 어머니, 할머니 등 섭정하는 녀자앞에 신하들이 볼수 없게 발을 드리우고 그뒤에 앉아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정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수렴청정(드리울《수》, 발《렴》, 들을《청》, 정사《정》)이라고 하였다.

삼국시기 고구려의 태조대왕(53년-146년)이 7살에 임금이 되였으므로 왕태후(왕의 어머니)가 수렴청정하였다는것이 력사기록에 보이는 첫 수렴청정이다.

그후 력대봉건국가들에서 수렴청정한 일이 있었는데 리조시기의 실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왕 이 름	왕과의 관계	즉위년대	수렴청정한 사람	기 간
8대 예종	아들	1469년	어머니 정희황후	1년
9대 성종	조카	1470년	할머니 정희황후	7년
13대 명종	동생	1546년	큰어머니 문정황후(윤씨)	8년
14대 선조	조카	1568년	큰어머니 인순황후	1년
23대 순조	아들	1801년	증조할머니 정순황후	3년
24대 헌종	손자	1835년	할머니 순원황후	6년
25대 철종	칠촌	1850년	작은어머니(오촌) 순원황후(김씨)	3년
26대 고종	칠촌	1864년	큰어머니(칠촌) 신정왕후(조씨)	약 2년

남자가 섭정하는 경우도 삼국시기부터 있었다.

리조시기 섭정한 대표적인물은 제26대왕인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리하응)이다.

1863년에 철종이 죽었는데 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7촌조카인 리명복이 왕(고종)으로 되였다.

그때 그의 나이가 11살이였으므로 7촌 큰어머니인 조씨(신정왕후 제24대왕 헌종의 어머니)가 약 2년간 수렴청정하였다.

그후 명목상으로는 고종이 직접 정사를 보게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 리하응이 나라의 정사를 좌우하였다.

《군주》와 관련한 자료

군주는 우리 나라 고유말로 임금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제(임금《제》)로 쓰고 왕(임금《왕》)으로도 쓴다. 세나라가운데서 가장 늦게 봉건국가로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그전시기의 낡은 유습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있던 신라에서는 임금의 칭호가 고유조선말로 전해지고있다. 즉 시조 혁거세는 《거서간》 제2대임금 남해는 《차차웅》이며 제3대 유리부터 제18대 실성까지(《삼국유사》에는 제16대 흘해까지)는 《니사금》, 제19대 눌지(《삼국유사》에는 제17대 나물부터)는 《마립간》으로 되여있다.

그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이발의 금》을 의미하는 《니사금》(닛금, 잇금)에서 《임금》이 나왔다는 설은 널리 알려져있다.

강대한 고구려는 황제국가의 틀을 갖추고있었으며 고구려를 계승하여 우리 나라에 첫 통일국가를 세운 고려도 여러 측면에서 황제국가의 틀을 갖추고있었다는것이 력사기록에 남아있다. 즉 고려 첫시기 임금들은 자기를 《제》(황제)라고 칭하였으며 960년에는 개경을 《황도》(황제국가의 수도)라고 고쳤다는 기록이 전한다.

임금도 자기의 이름(본명)외에 자, 호를 가지고있었다.

죽은 다음에는 묘호를 정하였다.

례를 들어 리성계의 자는 군진, 별호는 송헌이였는데 죽은 후에는 태조라고 불렀다.

리조 제4대 임금 세종(묘호)의 이름은 도였고 자는 원정이였다.

묘호는 대체로 ㅇ조, ㅇ종 두가지였는데 《조》자는 시조=태조를 비롯하여 나라를 처음 세웠거나 어떤 임금의 대가 끊어져 새로 된 임금 그리고 임금자리에서 쫓아내고 새로 임금자리에 올라선 임금들에게 붙였다.

리조에서 묘호에《조》자가 붙은 임금은 세조(제7대), 선조(제14대), 인조(제16대), 영조(제21대) 등인바 세조는 나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자리에 들어앉았으며 인조는 폭군 광해군(15대)이 쫓겨난 후 그리고 선조와 영조는 각각 그 먼저 왕들인 명종(제13대)과 경종(제20대)의 대가 끊어졌으므로 아래 또는 같은 항렬의 친척이 임금자리를 잇게 되였다.

그러나 묘호를 반드시 우와 같은 원칙에서 붙였다고는 볼수 없다.

중종(제11대)은 먼저 왕인 폭군 연산군이 쫓겨난 후에 그리고 철종(제25대)과 고종(제26대)은 먼저 왕의 대가 끊어졌으므로 왕자리에 올랐으나 묘호에 《종》자를 붙였으며 정조(제22대)는 우와 같은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조》자를 붙였다.

포악한짓을 많이 하다가 쫓겨난 임금에게는 죽은 다음에 묘호를 정하지 않았고 살아있을 때 받았던《군》칭호를 그대로 불렀다. 연산군(제10대)과 광해군(제15대)이 그러한 례이다. 세조에게 살해당한 단종(제6대)도 처음에는 《로산군》이라고 부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묘호를 정하였다.

임금은 죽은 후 릉호(무덤이름)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례를 들어 고려 공민왕의 릉호는 현릉이며 리조 세종의 릉호는 영릉, 성종의 릉호는 선릉이다.

《격쟁》에 대한 자료

꽹과리를 쳐서 왕에게 억울한 사연을 신소하는것을 말한다. 격쟁제도를 실시한 목적은 봉건통치질서를 유지하고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적발하고 그것을 무마하거나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왕이 왕궁에 있을 때에는 차비문밖에서, 행차때에는 호위행렬밖에서 신소케 하였다. 기소내용은 형벌이 자기와 관계되거나 부모와 자식의 억울한 사정, 적자와 첩사이의 억울한 문제, 량인과 천인사이의 억울한 문제 등 봉건적통치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후에 자손이 부모와 조상을 위하거나 안해가 남편을 위한것, 동생이 형, 종이 주인을 위하는 등 봉건유교도덕규범에 맞는 내용을 더 늘였고《백성들에게 폐단으로 되는것》은 특별히 받아들인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격쟁제도는 그 규정과는 관계없이 위선적이였다.

그리하여 1560년에는 왕궁에 들어와 격쟁하는 현상에 대하여 처벌하라는 왕의 지시가 내렸으며 1777년에는 행차때 호위행렬밖에서만 격쟁케 하였고 1858년에는 규정외의 내용을 격쟁하는데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격쟁제도는 인민들을 봉건적통치질서에 얽어매놓기 위한 수단이였으며 봉건통치배들의 위선적본성을 까밝혀주는 실례로 된다.

왕자의 란

1398년과 1400년 리성계의 아들들사이에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무장정변이 벌어졌다.

당시 리성계에게는 아들 8명(신의왕후 한씨가 낳은 아들인 둘째 방과, 넷째 방간, 다섯째 방원 등 6명과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아들인 일곱째 방번, 여덟째 방

석)이 있었다.

리성계는 세자(왕자리를 이을 왕자)를 정하기 위하여 대신들과 토의하였다.

배극렴을 비롯한 일부 대신들은 본처인 한씨가 낳은 왕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계비(후처) 강씨는 자기의 아들들인 방번이와 방석에게 왕자리를 물려줄것을 획책해나섰다.

여기에 개국공신들인 정도전과 남은 등 대신들이 방석을 세자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한씨가 낳은 아들들과 강씨가 낳은 아들들사이에 패가 갈라져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대립이 첨예해졌다.

리성계의 아들들가운데서 고려왕조를 뒤엎고 왕권을 탈취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자는 다섯째인 방원이였다. 방원은 이미 고려때에 문과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였으며 리성계가 왕권을 가로채기 위한 거의 모든 권모술수를 꾸며낸자였다. 그리하여 방원은 리성계의 뒤를 이을 왕자리에 앉을자는 자기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당시 왕자들과 대신들이 사병(개인이 거느리는 군대)을 거느리고있던 조건에서 대립되는 두패는 무장을 갖추고 맞서게 되였다. 1398년 8월 방원의 지휘밑에 왕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대신관료들과 그들의 사병은 무장정변을 일으켜 방석과 방번, 정도전과 남은을 쳐죽이였다. 이리하여 리성계는 왕자리를 내놓게 되였는데 뒤를 이을 맏아들은 이미 죽었기때문에 둘째인 방과에게 돌아가게 되였다. 방원이 굳이 사양하는척 하니 부득이 방과가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가 바로 리왕조 2대왕인 정종이였으며 리성계는 왕자리를 내놓은 상왕이 되고말았다.

정도전과 남은 등 대신세력을 물리치고 리왕조의 실권을 잡은 리방원은 넷째형 방간을 부추겨 자기의 실권을 빼앗으려는 박포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방간은 1400년 1월 사병들을 이끌고 방원을 치려고 떨쳐나섰다. 이미 모든 준비를 하고있던 방원은 이에 맞서나섰다. 정종이 이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대신들을 보내였으나 사건현장에 미치지 못하여 방원과 방간의 무리들은 대판싸움을 벌리였다. 두패의 접전끝에 방간의 군대가 먼저 패배하고 그는 끝내 붙잡히였다. 봉건정부의 관료들은 방간을 사형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정종이 허락하지 않고 토산에 귀양보내였는데 방간은 끝내 귀양지에서 죽고말았다. 이리하여 방간의 패거리들이 숙청되여 나라의 모든 권력은 더욱 방원에게 집중되게 되였다. 왕자리를 더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안 정종(방과)은 끝내 왕자리를 동생 방원에게 넘겨주었다.

이리하여 방원은 1400년 11월에 왕이 되였는데 그가 바로 리왕조의 3대왕 태종이였다.(이때부터 리성계는 태상왕, 방과는 상왕으로 되였다.) 두번에 걸치는 정변은 왕자들이 누가 더 많은 권력과 재부를 차지하는가 하는 추악한 권력쟁탈전이였다. 그들은 일신의 공명과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부자와 형제사이의 의리와 우애도 아랑곳하지 않고 칼부림을 서슴없이 감행하여 쳐죽이고 내쫓는 개싸움을 벌렸던것이다.

다른 편으로 《왕자의 란》은 대신중심정치와 강력한 국왕의 전제정치사이의 충돌로서 국왕전제제도가 강화되여간 력사적사실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리성계가 국왕으로 있던 시기만 하여도 대신들의 권한은 매우 컸다. 정도전, 남은 등이 정계에서 밀려나고 처단당한 리유의 하나도 결국 그들이 세자 리방석을 끼고 대신중심의 정치를 하려다가 실패한데 있었다. 그리하여 《왕자의 란》은 국왕의 전제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억압과 착취를 강화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수양대군의 왕위탈취사건

1450년 리왕조의 4대왕인 세종이 죽고 그의 맏아들인 문종이 왕이 되였으나 2년만에 죽고 다시 그의 아들인 로산군(단종)이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당시 나이가 겨우 12살밖에 안되는 어린 로산군에게는 여러명(18명)의 삼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왕자리를 노리게 되였다.

이러한 때에 단종의 왕자리를 보호하고있던자들은 세종으로부터 어린 로산군을 도울것을 부탁받은 성삼문을 비롯한 문관들이였다.

반면에 무관들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고있던 수양대군(세종의 둘째아들이며 단종의 맏삼촌, 이름은 유)은 앞날의 거사를 준비하면서 우선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유능한 관료였던 좌의정 김종서를 죽이고 또한 친동생인 안평대군을 강화도에 귀양보냈다가 죽이였다. 이와 같이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수양대군은 드디여 리왕조의 왕족으로서는 될수 없는 령의정(총리대신격)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외병마도통사의 관직까지 겸임하여 정치, 군사적실권을 틀어쥐였다.

그리하여 단종은 더욱 고립무원한 상태에 놓이게 되였으며 마침내 왕자리를 물려줄것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1455년에 수양대군은 끝내 단종을 몰아내고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는데 그가 바로 리왕조의 7대왕인 세조이다.

세종이래 충직한 신하였던 문관귀족들은 세조의 왕위찬탈을 반대하여나섰다. 그들은 유교도덕에 의한《대의명분(마땅히 지켜야 할 큰 의리와 직분)》관념에서 세종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단종의 왕위를 회복할것을 기도하였다.

1456년 승지 성삼문을 비롯한 일부 관리들은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때에 성삼문의 아버지인 성승과 총관 유응부 등이 의장용 큰칼인 운검을 들고 왕의 곁에 서게 될 기회를 리용하여 세조와 지지자들을 목잘라 죽이고 강원도 녕원에 감금되여있던 단종을 왕자리에 도로 앉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김질의 밀고로 사전에 드러나 단종은 녕원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그 주모자로서 성삼문, 형조참판 박팽년, 직제학 리개, 유응부, 례조참의 하위지, 사예 류성원 등 6명이 구금되였다. 철저한 봉건적정통사상과 충군사상의 소유자들이였던 6명의 관료들은 세조의 온갖 회유와 잔인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항거하다가 죽었다. 이들을《사6신》이라고 전해오고있다. 그리고 6명의 신하와 련루된 70여명의 귀족들이 세조의 잔악한 처형을 받고 사형당하였다.

한편 세조가 왕자리를 빼앗은데 대하여 극도로 분개한 일부 관리들은 새 왕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서 벼슬을 버리고 방랑하거나 또는 은둔생활로 일생을 마치였다. 그 대표적인물은 김시습, 남효온, 원호, 리맹전, 성담수, 조려 등인데 이들을《생6신》이라고 하였다.

수양대군(세조)의 왕권찬탈은 리왕조성립후 근 반세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봉건체제의 재편성행정에서 형성된 봉건통치배들의 내부모순의 결과였다. 그것은 세종때(1419-1450) 형성된 량반귀족들의 대토지소유자계층에 대한 중소토지소유자계층의 공격이였으며 따라서 왕정내의 변란은 결국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서 이러한 방향에서 취하여진 일련의 정책들과 그 강압적인 집행은 결국 피지배계급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와 억압의 강화를 가져왔던것이다.

1506년정변(《중종반정》)

리왕조 10대왕인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자리에 들여앉힌 정변이다.

연산군은 력대왕중에서도 폭군으로서 이름이 높았다.

연산군은 일찌기 성종의 왕후였던 자기 어머니 윤씨의 페비사건(연산군의 에미 윤씨는 성질이 포악하여 왕비에서 내쫓기우고 그후 사형당하였다.)에 대하여 비통하게 생각해오던 끝에 1504년 4월에 윤씨의《명예를 회복》하여 정현왕후로 부르게 하였으며 성종묘에 함께 두고 제사지내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권달수, 리행 등 일부 관료들이 반대해나섰다.

연산군은 크게 노하여 이들을 죽이거나 귀양보냈으며 윤씨페비사건에 관련이 있는자들은 벼슬이 높건낮건 가리지 않고 용서없이 처단하였다.

연산군의 이러한 폭정은 결국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잃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였다.

리왕조의 량반귀족들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관료들이나 낮은 급의 관료들이 모두 그를 반대해나서게 되였다.

그뿐아니라 연산군은 극도의 사치와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국고를 마구 탕진하였다.

그는 1504년 6월에만도 황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베 2만 9 000필을 랑비하였으며 9월에는 금과 진주를 사들인 값이 베 17만 7 114필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덜난 국가재정을 메꾸기 위하여 노비들의 몸구실(신공)을 1인당 무명 1필씩 더 늘이는 가혹한 착취를 감행하였다.

악명높은 폭군 연산군은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였을뿐아니라 부화방탕을 일삼았다.

그는 전국 8도로부터 기생 300여명을 불러들여 밤낮 호화로운 연회를 차렸다.

그는 처녀이건 유부녀이건 상관없이 얼굴이 곱고 노래나 악기 다루기에 능하면 끌어다가 자기의 수욕을 채웠으며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눈치가 보이면 참혹하게 죽여버렸다.

리조시기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술놀이터로 변하였으며 원각사는 기생들이 노래부르고 춤추는 장소로 되여버리였다.

그는 또한 사냥터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주변 100리 어간을 구획하고 그안의 백성들의 살림집을 강제로 철거시키였는데 1504년에만도 2만 550여명의 주민이 쫓겨났으며 묵은 땅은 무려 5 700여결에 달하였다.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날을 따라 더욱 심해져 학정에 견딜수 없어 도망치는 노비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연산군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망친 노비의 얼굴에《도노》(도망한 남자종이라는 뜻),《도비》(도망한 녀자종이라는 뜻)라고 자자(먹물로 살속에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것)하는 악형을 적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폭군에게는 신하들로부터 형식적인 《충고》조차도 허용될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악독한 통치에 대한 언론을 막기 위하여 모든 관리들에게《신언패》(말을 주의하라는 패쪽)를 차게 하였다.

그리고 국왕통치의 고문격의 역할을 담당한 기관들인 홍문관, 사간원 등을 페쇄해버리였으며 경연(왕에 대한 강의)도 페지하였다.

반면에 향락과 사냥을 위하여 필요한 관청이였던 장악원과 사복시의 기구는 대

대적으로 늘이였다.

이와 같은 연산군의 폭정에 대하여 인민들은 두말할것도 없고 일부 량반귀족과 관리들, 유생들과 승려들까지도 반대하게 되였다.

1506년 1월에는 서울의 종로기둥에 왕을 처단하는 투쟁에 일떠설것을 호소하는 글이 나붙었으며 인민들은 그의 비행을 국문(《훈민정음》)으로 적어 투서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산군은《언문》(국문)을 가르치지 말고 배우지도 말며 또 이미 배운 사람도 쓰지 못하게 하고 서울시내의 《언문》아는 사람을 전부 적발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찌기 들어보지 못한 폭정과 학정을 감행하는 연산군을 제거하려는 기운이 높아지게 되였다. 연산군을 반대하여 나선것은 리조판서 성희안, 례조판서 류순정, 중추부지사 박원종 등이였다.

그들은 1506년 9월 무장정변을 일으켜 연산군을 내쫓고 성종의 둘째아들(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인 진성대군(중종)을 왕자리에 앉히였다.

이 사건을 력사에서는 《중종반정》이라고 하는데 《반정》이란 《악정을 페기하고 옳바른 정치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연산군은 작은 섬인 교동도로 쫓겨나 가시울타리속에서 살게 되였다.

《중종반정》은 리왕조의 왕권과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왕족과 량반귀족내부에서의 정권교체에 지나지 않은것으로서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억압착취에서는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사 화

15세기말-16세기 전반기 훈구파량반들이 신진관료들을 탄압한 사건이다.

리왕조가 성립된 후 100여년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량반관료들의 세력이 확대강화되면서 그들속에서는 파벌세력이 형성되게 되였다.

봉건관료들가운데서 리성계의 정권탈취에 공로 있는 개국공신을 비롯한 여러 공신들과 그 후손들, 높은 벼슬을 하는자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는데 그들을《훈구파》라고 하였다.

이들은 큰 권력과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있었다.

한편 신진관료들이 자라나 점차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주로 유교성리학의 봉건도덕을 들고나왔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학문도덕을 주장하는 선비들의 풍모를 가지고있다고 하여 《사림》이라고 불렀다. 사림은 중소토지소유자출신으로서 토지와 노비도 훈구파에 비하여 적게 가지고있었으며 권력도 크지 못하였다.

봉건통치계급내부에서 이 두 파벌은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리였는데 처음에는 사림이 훈구파에게 탄압당하였다.

이것을 력사에서 《사화》(사림이 화를 입었다는 뜻)라고 하였다.

사화는 1498년부터 근 반세기동안에 4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첫번째 사화는 1498년(무오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이다.

세습적인 대귀족들인 리극돈과 류자광 등은《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당시 사림의 대표적인물이였던 김일손의 실록초고에 세조를 비방한 기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스승인 김종직의 글이였다는것을 구실로 연산군을 부추겨 사림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김종직을 비롯하여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등은《반역죄》로 몰려《릉지처참》(머리, 몸뚱이, 손, 발을 토막치는 극형)형을 당하였고《부관참시형》(관을

헤치고 시체를 목베는 형벌)을 당하였으며 이밖에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귀양을 갔으며 재산을 몰수당하였다.

두번째 사화는 1504년(갑자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이다.

성종왕의 왕비이며 연산군의 에미인 윤씨는 행실이 나쁘다는 리유로 왕비로부터 내쫓기우고 사약(왕이 내려보낸 독약)을 먹고 죽었다.

연산군이 왕이 되자 윤씨의《명예를 회복》하였는데 일부 관료들이 그를 반대하였다.

연산군은 크게 노하여 반대자들을 죽이거나 귀양보내고 윤씨를 내쫓는 사건에 관계한 사람들도 사형에 처하였는데 그 수는 50여명에 달하였다. 이 갑자사화때에는 사림들뿐아니라 훈구파의 일부 관료들도 처형되였다.

세번째 사화는 1519년(기묘년)에 일어난 《기묘사화》이다.

중종은 집권초기에 훈구파대신들의 지나친 세력확장을 일정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사림들을 등용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지방출신 사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이리하여 훈구파와 사림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였다.

김종직의 학파에 속하였던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받아 대사헌이 되였으며 그들은 마침내 《중종반정》때에《공신》 70여명의 평가가 잘못되였다고 하면서 깎아내리였다.

이를 계기로 례조판서 남곤, 도총관 심정을 비롯한 훈구파관료들은 조광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며 사림들을 탄압하였다.

이 사건때 조광조를 비롯한 75명의 사림들이 살해당하였다.

사화가운데서 이 《기묘사화》때 사림들이 가장 큰 화를 입었다.

네번째 사화는 1545년(을사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였다.

중종왕이 죽은 후 왕자리를 잇는 문제를 둘러싸고 외척들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였다.

중종은 왕비 장경왕후 윤씨가 죽은 후 문종왕후 윤씨를 들여앉혔는데 1545년에 중종이 죽은 후 장경왕후가 낳은 인종이 즉위했다가 다음해에 그가 죽자 문종왕후가 낳은 명종이 왕이 되였다.

이렇게 되면서 그 외삼촌인 윤원형이 권력을 잡게 되였는데 그의 일파는 그의 반대파인 윤임(장경왕후의 동생)과 그를 지지하던 사림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벼슬자리에서 내쫓았는데 희생자는 47명이나 되였다.

네차례에 걸쳐 벌어진 사화는 본질에 있어서 대지주들인 훈구파와 중소지주들인 사림사이의 권력쟁탈전이였다.

사림들은 훈구파의 계속되는 탄압에도 꺾이지 않고 1567년 선조왕이 즉위한 후에는 다시 중앙정권에 진출하여 끝내 대귀족량반들을 내쫓고 봉건정부의 중요한 벼슬자리들을 차지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후에는 사림내부에서 권력쟁탈전인 당파싸움이 벌어지게 되였다.

당파싸움

리조시기 량반봉건통치배들이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쟁탈전을 말한다.

사림량반들은 훈구파의 거듭되는 타격을 받았으나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하면서 봉건정부안에서 자기들의 지반을 닦아나갔다.

그리하여 16세기 중엽이후 봉건정부는 사림세력으로 바뀌여지게 되였다.

그후 권력을 쥔 사림관료들사이에 또 새로운 형태의 파벌싸움이 시작되였는데 이 권력쟁탈전을 력사에서는 당파싸움(당쟁)이라고 불러왔다.

당쟁은 처음에 신진관료들과 권력있는 오랜 관료들사이의 다툼으로부터 시작되였다.

1575년에 리조 전랑 (전랑은 관리의 임명, 해임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실무를 다루던 관리)의 추천문제를 둘러싸고 신진관료인 김효원과 오랜 관료인 심의겸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계기로 동인과 서인의 두 당파로 갈라졌다.

이때 김효원의 집이 서울 동쪽에 있었으므로 그의 일파를 동인파, 심의겸의 집이 서울 서쪽에 있었으므로 그의 일파를 서인파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의 구별이 권세있는 관료들과 신진관료들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났으나 차츰 그것은 문벌, 지방별, 학벌 등을 기준으로 하는 량반들의 파벌들로 변하였고 그후 더욱 복잡하게 분화되여갔다.

정권을 잡았던 동인들은 1591년 반대파인 서인에 대한 태도에서 리발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북인으로, 우성전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는 남인으로 갈라졌다.

량반통치배들의 이러한 당파싸움은 1592년에 시작된 임진조국전쟁때에도 계속되여 일본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막대한 저해를 주었다.

임진조국전쟁후 남인들이 북인 남이공 등에게 몰려서 중앙정부의 요직에서 쫓겨난 후에는 북인들이 봉건정부의 요직을 독차지하게 되였다.

그러나 북인 내부에서 또다시 분렬이 일어나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졌다.

1609년 광해군이 왕이 되자 대북파는 그후 15년동안 정권을 독차지하게 되였다.

이때 소북파는 광해군의 즉위를 반대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하였으므로 광해군에 의해 정부에서 쫓겨났다.

한편 정권에서 밀려난 서인들은 대북인들을 정권에서 몰아낼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1623년에 서인파들은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과 대북인들을 몰아내고 약 50년동안 권력을 잡게 되였다.

이때 같은 서인들가운데서도 인조를 왕으로 내세우는 정변에서 《공》을 세운 김류, 리귀 등은 공서(훈서)파를, 정변에 관계하지 않았던자들은 청서파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17세기 중엽에 다시 공서파는 원당과 락당으로, 청서파는 산당과 한당으로 갈라졌다.

이 시기 김집, 송시렬을 비롯한 산당과 김자점을 비롯한 락당사이에 정권쟁탈전이 추악하게 벌어졌다.

그 틈에 남인들이 간혹 정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1659년에 죽은 효종의 상복을 조대비(효종의 어머니)가 몇년동안 입을것인가 하는《례론》문제를 둘러싸고 서인들과 남인들사이에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다가 결국 서인들이 정권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1682년에 남인들이 다시 쫓겨나고 서인들이 봉건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였다.

그후 서인가운데서도 남인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김석주 등은 로론, 이와 대립한 소장파 조지겸 등은 소론파를 형성하게 되였다.

1689년에 숙종은 자기의 뒤를 이을 세자를 결정하는 문제를 남인 목래선 등과 공모하고 서인들을 추방하였다.

그후 1694년에 남인들이 다시 정권에서 내쫓긴 다음 남인파의 리린좌 등의 무

장반란이 일어난 1724년까지 약 30년간은 로론, 소론사이의 당파싸움이 일찌기 볼수 없었던 추악성을 띠고 되풀이되였다.

1725년에 왕이 된 영조는 이른바 《탕평정책》을 실시하여 당파싸움을 없앨것을 념불처럼 외웠으나 그것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탕평정책》의 간판은 그후 정조왕대에 이르기까지 약 80년간 계속되였으나 당파싸움은 그치지 않았으며 이 기간에도 영조의 뒤를 이을 장헌세자에 대한 지지파인 시파와 반대파인 벽파간에 싸움이 계속되였다.

이 파쟁은 주로 로론과 소론파량반통치배들사이에 벌어졌으며 시파에는 남인도 가담하였다.

그러나 이 두 파가운데서 어느 파가 우세하든지간에 정권을 틀어쥔것은 로론파였다.

19세기에 들어와 안동김가의 세도정치가 계속되면서도 당파싸움은 의연히 없어지지 않았다.

16세기 후반기이후 330여년간 추악하게 벌어진 량반통치배들의 당파싸움은 겉으로 내놓은 구실이 어떻든간에 본질은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토지와 노비들을 차지하기 위한 정권쟁탈전이였다.

당파싸움이 되풀이되는 과정에 봉건통치배들은 더욱더 타락하여 나라의 경제와 문화, 국방에는 관심을 전혀 돌리지 않고 개인의 권세와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더 많은 파벌을 낳게 하여 구경에는 나라까지 망하게 하였다.

1623년정변

임진조국전쟁후 봉건통치배들내부에서 당파싸움이 더욱 격화되였다. 전후에 남인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북인들은 광해군이 왕이 된 후 다시 리산해, 리이첨, 정인홍 등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와 류영경, 남이공, 김신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북파로 갈라졌는데 광해군통치시기에 대북파가 항상 우세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 임진조국전쟁으로 하여 나라의 생산력이 파괴되고 인민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한편 압록강, 두만강연안에 살던 녀진의 침략위험으로 하여 북방정세가 매우 긴장하여졌다.

대북파의 집권을 시기하고있던 서인파의 김류, 리귀, 김자점, 리괄 등은 광해군이 폭정을 실시하고 명나라에 배신하는 반면에 후금과 타협하였다고 하면서 정변을 일으켰다.

1623년 3월 12일 반란을 일으킨 리서의 군대는 장단으로부터, 리중도의 군대는 이천으로부터 출발하여 한성의 홍제원에서 김류의 군대와 합류하였다. 리괄을 대장으로 한 반란군은 창의문으로부터 궁성에 쳐들어가 대궐을 점령하고 국왕인 광해군을 내몬 다음 그의 조카벌되는 릉양군(인조)을 왕자리에 앉히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 정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류, 리귀 등 33명이 《정사공신》칭호를 받고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대북파의 관료들을 내몰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였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인조반정》이라고 한다. 1623년정변은 리조통치배들내부의 추악한 권력쟁탈전으로서 당파싸움이 국왕을 갈아치우는데까지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정변을 계기로 정권을 틀어쥔 서인당파는 저들의 정권유지에만 급급하고 당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녀진족에 대한 방비대책과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아무

러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당파싸움을 더욱 격화시켰을뿐아니라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여 계급적모순을 첨예화시키였다.

세도정치

18~19세기에 이르러 봉건지배계급내부에서 당파싸움이 더욱 격화되여 봉건통치질서는 걷잡을수 없이 헝클어지고 문란해져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었다.

한편 이 시기 날로 고조되는 인민들의 반봉건투쟁기세와 여러가지 형태의 거세찬 투쟁들은 봉건국가와 봉건제도를 점차 멸망의 구렁텅이에로 몰아가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환경속에서 세상에 나타난 세도정치는 개인 또는 한개 가문출신의 고관들이 정권을 독차지하고 독판치는 배타주의적문벌정치였다.

1776년 왕이 된 정조는 당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왕자리를《안전》하게 유지할 생각으로 자기가 깊이 신임하던 신하 홍국영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버렸다.

이리하여 홍국영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였다.

승정원의 도승지, 금위대장, 숙위대장 등으로 임명된 홍국영은 최고의 벼슬자리를 차지한것은 아니였으나 관리들의 임명과 해임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실권을 틀어쥐였다.

모든 중요한 국가적문제들은 홍국영에게 먼저 보이고 의논한 다음에야 국왕에게 제출되였다. 홍국영의 이러한 세도정치는 몇년 가지 못하고 1781년에 끝장이 났다.

그러나 세도정치는 19세기초부터 외가, 처가들의 세도로 바뀌여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1800년에 어린 순조가 왕자리에 오르면서 정조의 유언에 따라 김조순이 순조를 돕게 되였다. 김조순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1802년에 자기의 딸을 순조의 왕비로 박아넣었다.

1804년에 정순왕후(영조의 왕비)의 《수렴청정》이 끝나면서 나라의 모든 실권은 왕의 장인인 김조순에게 집중되였다. 이때로부터 봉건국가의 권력은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김가들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고말았다. 이것을 보통 《안동김가(장동김가)의 세도》라고 한다. 안동김가의 세도는 한때 풍양조가의 세도에 맞다들려 추악한 권력싸움을 벌렸다. 이 틈을 타서 세자의 장인인 조만영을 비롯한 풍양조가들이 안동김가세력을 밀어내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효명세자가 4년만에 죽고 순조가 다시 정사를 보게 되자 안동김가가 또다시 득세하였다.

그후 1834년에 순조가 죽고 8살 난 그의 손자 헌종이 왕자리에 오르고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김조순의 딸)가 《수렴청정》을 하게 됨으로써 안동김가의 세도는 계속되였다.

그러다가 1842년에 순원왕후 김씨가 죽고 신정왕후(익종의 처 조씨)가《대왕대비》행세를 하게 되면서 풍양조가의 세도는 절정에 달하고 안동김가의 세력은 일시 약화되는듯 하였다. 안동김가세력은 1846년 조만영의 죽음을 계기로 풍양조가세력을 밀어내고 다시 판을 치게 되였다. 안동김가의 세도는 1849년에 철종이 왕자리에 오르고 김문근의 딸이 바로 이 철종의 왕비로 들어앉게 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안동김가의 세도정치는 1863년에 대원군이 집권할 때까지 계속되였다.

세도정치 전기간 안동김가들은 왕을 밀어제끼고 전횡을 부리였다.

나라의 모든 정책은 안동김가의 사랑방에서 결정되였고 관리의 임명, 행정, 사법, 군사 등 모든것이 거기에서 조종되였다. 매관매직이 공공연히 성행하였으며 인

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무한대로 증대되였다.

새로 자라나던 자본주의적관계발전이 억제되였으며 나라의 방위력이 극도로 약화되였다.

세도정치는 이처럼 봉건사회의 내부모순들을 더욱 격화시켜 봉건제도, 봉건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1467년 함길도농민전쟁

15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봉건정부는 봉건왕조의 강화를 위하여 량전사업과 호패법의 실시, 군액(군대수)확장, 신세포(굿세)와 매잡이의 부과 등으로 함길도지방인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게다가 함길도지방인민들은 무역을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녀진사람들의 짐운반과 려행도중의 뒤치닥거리로 하여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있었다.

날로 강화되는 봉건적착취와 억압의 강화는 함길도농민들의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날로 증대시켰다.

한편 이 시기 봉건정부는 함길도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실시하여오던 이 지방출신의 관리등용제한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토호들에게 예속되여있던 인민들을 호적에 등록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시책들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토호들의 리해관계를 침범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전부터 함길도지방토호들에 대한 차별대우에 불평불만을 품어왔던 회령부사를 한바있고 함길도에서 손꼽히던 토호였던 리시애 등은 이것을 리용하여 집권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킬것을 꾀하였다.

리시애는 1467년(세조 13년) 5월 10일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마침 그곳에 와있던 함길도절도사 강효문과 길주목사를 잡아죽이고 고을을 점령하였다.

리시애는 반란을 일으킨 후 곧 정부에 사람을 보내여 《함길도 민심이 소란하니 본도의 사람으로 도안의 각급 지방관리들을 임명할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 고을에 련락하여 봉건정부가 파견한 남도출신관료들을 처단하도록 하였다. 반란소식이 함길도 여러 고을에 전해지자 농민들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2만여명의 농민군부대가 편성되였으며 폭동은 마침내 농민전쟁으로 전환되였다.

당황한 봉건정부는 부랴부랴 왕족인 리준이라는자를 4도병마도통사로 임명하고 3만여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농민폭동군을 진압하는데 내몰았다.

그리하여 6월 하순경에 북청에서 농민군과 《토벌군》사이에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6월 24일 농민군은《토벌군》을 북청읍안에 끌어들인 다음 10여차에 걸치는 맹렬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토벌군》은 당황망조하여 함흥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지휘층의 동요로 하여 전투성과를 계속 확대공고화하지 못하고 그 주력이 리성(리원)으로 퇴각하였다. 북쪽으로 퇴각하던 농민군은 만령고개에 진을 치고 《토벌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리원지방에 퇴각해있던 리시애도 주력부대를 이끌고 만령으로 나와 농민군을 지휘하였다.

농민군은 용감히 싸워 고개로 기여오르는 《토벌군》을 여러번 물리쳤으나 우세

한 병력으로 공격해오는《토벌군》에 의하여 난관에 부닥친 농민군은 만령을 고수해내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였다.

만령에서 퇴각한 후 지휘층에 끼여들었던 토호들은 《토벌군》에 투항하거나 도망쳐버렸으며 이를 계기로 농민군도 흩어져버렸다. 리시애도 달아나다가 변절한 토호들의 손에 붙잡혔고 그후 《토벌군》에 의하여 처형당하였다.

이리하여 만 3개월만에 함길도농민전쟁은 진압되고말았다. 함길도농민전쟁은 농민군이 옳은 지도를 받지 못하고 지휘층을 차지하였던 토호들의 동요와 량면성으로 하여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력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1559년-1562년 림꺽정농민무장대의 투쟁

16세기 중엽에 10년이상이나 흉년이 든데다가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로 말미암아 황해도일대에서는 농민들을 기본으로 하여 수공업자-장인들, 노비신분의 인민들이 정든 고장을 떠나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그 중심에는 본래 경기 양주의 백정출신으로 총명하고 힘장수이며 용감한 림꺽정이 서있었다.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억압착취로 하여 살아나갈수 없어 제고장을 뜬 농민들은 자체로 활, 창, 칼, 철퇴 등 무장을 갖추고 산골짜기에 모여들어 압제자들과 수탈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나갔다.

림꺽정은 투쟁초기부터 서림을 무장대의 참모격인 모사로 삼고 지휘부를 조직하였으며 1559년 3월에는 황해도 연안과 우봉(금천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림꺽정은 투쟁기지를 개경부 장통방에 꾸리고 투쟁을 경기, 황해도 일대에로 확대해나갔다.

연안, 우봉 등지에서 들고일어난 림꺽정무장대는 부근 고을들을 습격하고 악질관리들을 처단하였다. 연안과 우봉의 관리들이 관군을 풀어 무장대의 일부 성원들을 체포한데 격분한 림꺽정무장대는 이 고을들에 쳐들어가서 대낮에 관청을 습격하고 봉건관리들을 처단하였으며 갇히운 무장대성원들을 구출하였다. 무장대는 또한 사신들이 오가는 고을들에 진출하여 재물을 빼앗아내고 무장대의 활동에 대하여 관청에 고발하는자들을 모조리 처단하였다.

농민무장대의 세찬 투쟁에 질겁한 봉건정부는 그들을 체포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항을 만들어 공포하였는데 그중에는 여러 고을원들에게 50～60명의 군사를 주어 림꺽정을 찾아내게 하고 행처를 알아내면 서로 힘을 합쳐 체포하라는것과 또한 림꺽정을 체포하는자에게는 그가 량인이면 군관벼슬을 주고 노비인 경우에는 《천인》신분을 면제해주며 고을원인 경우에는 벼슬등급을 올려준다는 등 여러가지 《표창》내용이 들어있었다.

봉건통치배들의 발악이 심해질수록 농민무장대의 활동은 더욱 치렬하게 벌어졌다.

농민무장대는 신계고을에 진출하여 수탈자들을 징벌하였으며 일부 성원들은 개경에 머물러있으면서 활동을 벌려나갔다.

신계를 징벌하고 개경부근에 돌아온 림꺽정무장대는 리억근이 거느린 정부군의 포위공격을 받았으나 드센 반타격으로 적의 포위를 돌파하고 《토벌군》을 전멸시키였으며 리억근도 7대의 화살에 맞아 희생되였다.

이 전투후 관군의 발악에 의하여 림꺽정을 비롯한 일부 무장대성원들의 가족들이 체포되였다.

이에 격분한 무장대는 개경과 황해도 서흥의 관청을 습격하고 감옥에 갇히운 가족들을 구출하는 투쟁도 벌리였다.

농민무장대는 황해도, 강원도, 경기, 평안도 등 여러 지역으로 민활하게 기동하면서 고을관청을 습격하고 악질관리들을 처단하였으며 수탈자들의 재물을 빼앗는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 억압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특히 농민무장대는 봉산, 서흥, 구월산 등지를 중심으로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무장대의 활동은 여러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벌어졌는데 때로는 《중앙정부의 관리》로, 황해도감사의 《친척》으로 가장하여 각 고을과 서울에 드나들면서 봉건통치배들의 기도를 탐지하고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군 하였다.

또한 무장대는 여러 지역에 통보망을 늘여 봉건정부의 움직임을 손금보듯이 알고있었으며 그에 해당한 대책을 미리 취하여 아무리 진압하려고 해도 허사였다.

농민무장대는 관청을 들이쳐 재물을 빼앗은 다음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일부는 개경과 한성의 상인들에게 넘기여 군량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봉건정부가 대규모적인 《토벌군》을 파견한다는 정보에 접하면 평안도의 성천, 양덕, 맹산 등지와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민첩하게 옮겨갔으므로 적들로 하여금 추적할 때마다 허탕을 치게 하였다. 림꺽정농민무장대가 투쟁을 맹렬히 벌리던 1560년 11월 참모의 역할을 하던 서림이가 한 대오를 지휘하여 한성 남대문밖에 주둔하고 투쟁을 벌리다가《토벌군》에게 체포되였다. 가혹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한 서림은 봉건정부에 투항변절하여 무장단의 내부형편은 물론 체포된 림꺽정의 처를 구원할 계획을 한다는것과 11월 26일 황해도 평산 마산리에 사는 리춘동의 집에 모여 봉산군수 리흠례를 처단할 계획을 세우고있다는것을 실토하였다.

무장대의 움직임을 장악한 봉건정부는 500여명의 《토벌군》을 평산에 급히 파견하여 봉산군수를 처단하러 가는 무장대를 도중에서 쳐부시려 하였다.

11월 27일 무장대는 림꺽정의 지휘밑에 평산군 마산리에서 《토벌군》과 격전을 벌리게 되였는데 적의 움직임을 미리 탐지한 농민군은 유인전술로《토벌군》을 산골짜기로 끌고들어가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토벌군》의 패전소식은 국왕에게까지 알려져 봉건정부는 12월 1일 종2품의 무관들을 뽑아서 황해도와 강원도의 순검사로 파견하는 등 일대 소동을 피웠다. 국왕의 독촉을 받고 황해도에 내려간 순검사 리사증은 한달이 지나도록 무장대의 지휘자를 잡지 못하여 초조해하던 끝에 1561년 1월 무장대의 다른 지휘성원인 가도치라는 사람을 붙잡아 혹독한 고문으로《자백》을 받아낸 다음 림꺽정을 잡았다고 정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변절자 서림과 대면시키니 그는 림꺽정이 아니라 그의 형이라는것이 드러나 리사증은 철직되고말았다.

큰《표창》을 바라면서 가짜 림꺽정을 조작한 사건은 평안도감사를 통해서도 제기되였는데 그도 역시 형벌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같이 림꺽정무장대의 기묘한 전술에 의하여 집권자들은 계속 수세에 빠지고 통치배들속에서는 혼란이 계속되였다.

혼란과 수세에 빠진 국왕은 황해도감사를 새로 파견하면서 관리들의 비겁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무장대가 두려운줄만 알게 하고 나라가 있는줄은 모르게 하였다.》고 아우성을 쳤다.

무장대의 기묘한 기동전술에 혼란과 피동에 빠지게 된 봉건정부는 변절자 서림까지 무장대《토벌》에 끌어내였다.

림꺽정무장대는 봉건통치배들의 발악적책동이 강화될수록 더욱 세찬 투쟁을 벌렸다.

1561년 10월 무장대는 황해도 평산에서 봉건지주들을 습격처단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한편 무장대의 일부 부대는 한성에까지 진출하여 활동을 벌리였다.

이 정보에 접한 한성의 봉건통치배들은 질겁하여 한성의 모든 성문을 닫아매고 군사를 풀어 온종일 장안을 수색하는 소동을 피웠다.

그들은 인민들의 가장집물을 파괴하고 략탈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는 행패를 하였으나 림꺽정무장대는 한 사람도 잡지 못하였다.

림꺽정무장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통치를 할수 없었던 봉건정부는 남치근을 황해도 토포사로, 백유검을 강원도순검사로 하는 대규모적인 《토벌군》을 림꺽정농민무장대를 진압하는데 내몰았다. 남치근이 이끄는 《토벌군》은 황해도에서 여러달동안 묵으면서 무장대를《토벌》하는 한편 인민들을 마구 체포하고 그들의 재산을 닥치는 대로 략탈하는 행패를 부리였다.《토벌군》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에서 농민무장대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였으며 점차 식량을 마련하는것도 어렵게 되였다. 그리하여 림꺽정농민무장대는 1561년말에 황해도의 구월산에 들어갔다.

토포사 남치근은 재령에 주둔해있으면서 수많은 《토벌군》을 내몰고 변절자 서림을 앞세워 무장대를 포위공격하였다.

림꺽정은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강을 건너 어느 한 농촌집에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적의 포위속에 들게 된 그는 대담하게 활과 칼을 든《토벌군》으로 가장하고 그들의 대렬에 섞이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림꺽정은 적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빠져나가려는 때에 변절자 서림에 의하여 발각되여 적기마병의 추격을 받았으며 마침내 부상을 입고 체포되여 1562년 1월 최후를 마치였다.

지휘자를 잃은 무장대는 점차 흩어지고말았다. 이리하여 3년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경기,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고 강원도, 평안도 등지에서 봉건통치배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을 세차게 벌린 림꺽정농민무장대의 투쟁은 막을 내리였다.

림꺽정농민무장대의 투쟁은 무장대를 보다 단합된 력량으로 묶어세우지 못하고 광범한 농민들의 봉기와 결합되여 대규모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비록 실패하였으나 봉건통치배들에게 된타격을 주고 억압과 착취로 고통을 당하고있던 인민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한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1811년-1812년 평안도농민전쟁

19세기초 안동김가의 세도정치의 실시, 상품화페관계의 장성과 더불어 전례없이 악랄해진 봉건적압박과 착취는 인민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인민들은 착취와 압박에 시달려 극도의 무권리와 빈궁속에서 신음하였으며 따라서 봉건통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날로 커갔는데 그중에서도 평안도인민들의 반항심은 더욱 높았다. 그것은 평안도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지방적차별대우와 멸시가 더욱 심했기때문이다. 게다가 청나라에 오가는 사신들의 뒤치닥거리로 다른 지방보다 더 많은 부담을 걸머졌다.

그리하여 평안도일대의 농민들은 물론 광산로동자, 품팔이군, 상인, 광산업자 등 각계층주민들속에서는 봉건통치 특히 세도정치와 신분적차별에 대한 불만이 급격

히 높아졌으며 서북지방의 량반들까지도 집권량반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있었다.

이리하여 각 계층들의 계급적리해관계는 서로 달랐으나 세도정치와 신분적차별을 반대하여 하나의 흐름에 련합될수 있었다.

평안도농민전쟁은 홍경래의 지휘밑에 1808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였다.

평안도 룡강현의 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여나서 1801년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지방차별로 급제하지 못한 홍경래는 가산군 다복동(오늘의 평북도 운전군 가산리)을 본거지로 하여 상인이며 광산주인 구성의 우군측, 대상인겸 광산주인 곽산의 리희저 등과 손을 잡고 농민과 도시빈민, 광산로동자, 품팔이군들을 집결하여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시켰으며 일단 유사시에 호응해나서게 하기 위하여 10명씩 조를 무어 각 고을에 파견하였다.

몇년간에 걸쳐 준비를 갖추어 온 농민들은 마침내 홍경래를 평서대원수, 김사용을 부원수로 삼아 1811년 12월 18일 투쟁을 개시하였다.

이날 농민군은 가산고을을 습격하여 군수를 처단하고 관청을 점령하였다.

그후 홍경래가 지휘하는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계속하여 박천을 점령하고 청천강연안으로 진출하였고 부원수 김사용이 지휘한 다른 부대는 정주, 곽산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진격하였다.

농민군은 점령지대들에서 관청창고를 헤쳐 인민들에게 돈과 곡식을 나누어주었으며 무기고의 병쟁기를 압수하여 무장하였다. 수많은 농민들이 농민군에 참가함에 따라 농민군의 력량은 수천명의 대부대로 장성하였고 농민군은 짧은 시일안에 태천, 선천, 룡천, 철산 등 청천강이북의 거의 전지역을 점령하였다.

농민군은 장차 안주-평양-한성으로 진격할 목적으로 안주 맞은편으로 진출하였다.

12월 29일 홍경래가 지휘한 800명의 농민군은 송림에서 2 000여명의 관군과 첫 전투를 진행하여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관군이 력량을 보충하면서 계속 달려들었기때문에 농민군은 력량을 수습하는 한편 정주성을 본거지로 삼아 방어를 강화하였다.

이때 농민군의 력량은 2 000명이였다.

1812년 1월 초순부터 관군의 대부대가 모여들기 시작하였는데 그 력량은 8 000여명에 달하였다.

관군은 정주성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 1월 중순부터 대규모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4분의 1의 력량밖에 안되는 농민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관군의 계속되는 공격을 물리치면서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때로는 농민군이 성문을 열고 돌격전을 벌려 관군의 지휘관 허항을 비롯한 수많은 적을 살상함으로써 관군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3개월간에 걸친 치렬한 전투에서 농민군은 극도의 식량난과 무기와 무장의 부족으로 많은 곤난을 겪었으나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정주성을 함락시킬수 없었던 관군은 4월 3일부터 18일까지 성밑으로 땅굴을 파고 이튿날 새벽 화약을 폭발시켜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 성안으로 밀려들었다.

19일 농민군은 관군을 맞받아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력량상 엄청난 차이로 관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홍경래는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지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드디여 성은 함락되였다.

성안에 기여든 관군은 근 2 000명에 달하는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이리하여 근 4개월동안이나 줄기차게 벌어진 농민전쟁은 실패하고말았다.

평안도농민전쟁은 아직 중세농민전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준비와 광범한 계층이 참가한 점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농민전쟁은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봉건제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새로 자라나고있던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또한 평안도농민전쟁은 봉건통치배들의 부패성과 무능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인민대중의 억센 힘을 보여줌으로써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4군6진설치

15세기초에 이르러 압록강과 두만강일대에서 수십개의 부족으로 갈라져 살고있던 오도리, 우디거, 오랑캐 등 녀진족들은 자주 우리 나라에 침입하여 략탈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적들의 침입을 자주 받은 곳은 려연(오늘의 중강)과 경원지방이였다.

녀진족들은 1400년과 1409년에는 경흥지방에 침입하였고 1406년과 1410년에는 경원지방에 침입하여 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녀진족들의 침입이 잦아지고 그에 따르는 인명손실도 적지 않았으므로 봉건정부는 1410년 3월 길주도찰리사 조견으로 하여금 1 150명의 원정군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두문(오늘의 투먼)으로 진격케 하였다.

원정군은 모련위녀진추장을 비롯하여 백수십명을 살상포로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녀진의 여러 부족들의 침입은 나날이 심해졌다. 특히 1413년이후 건주위녀진이 파저강(혼강)류역으로 이동해온 후 려연, 강계지방에로의 침입이 빈번했다.

이러한 정세에서 북부변경일대의 방비를 강화하는것은 리조봉건정부앞에 나선 가장 긴급한 과제의 하나였다.

리조봉건정부는 긴급한 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북부변경일대에 진, 보와 군, 현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416년에 함경도 갑산부의 소훈두의 서쪽지역을 분리하여 려연군을 설치하고 평안도에 소속시켰다.

그러나 녀진족은 려연관내에 계속 침입하였다.

특히 1432년 12월에는 지린지방에서 살던 녀진족 추장 리만주가 거느린 기병대 400여명이 려연에 침입하여 많은 주민들을 랍치하고 집짐승들을 략탈해갔다.

리조봉건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녀진침략자들에게 철저한 반격을 가하고 변경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봉건정부는 1433년 4월에 1만 5 000여명의 원정군을 편성하여 평안도절제사 최윤덕의 지휘밑에 압록강을 건너 파저강류역의 건주위녀진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6월에는 군사상 요충지인 려연군의 서남부에 자성군을 설치하였다.

그후에도 녀진족들의 침입이 계속되자 1437년 9월에 7 793명의 원정군을 편성하여 평안도절제사 리천의 지휘밑에 강계지방에서 압록강을 건너가 오미부의 녀진침략자들을 정벌하였다.

그리고 1440년에 려연군의 동남부에 무창현(오늘의 김형직군)을 설치하고 1442년에 군으로 승격시켰으며 1443년에는 려연과 자성의 중간지대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예구자를 우예군(오늘의 중강군)으로 승격시켰다.

이리하여 압록강중류지대에 려연, 자성, 무창, 우예의 4군이 새롭게 설치되였다.

4군의 설치는 녀진족들이 침입하는 길목을 막는 일이였던것만큼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조치만이 아니라 군사적조치이기도 하였다.

리조봉건정부는 4군설치와 함께 두만강류역변경지대에 새로운 군, 현을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봉건정부는 1398년에 공주(오늘의 경흥)를 경원부로 승격시키고 조성된 정세에 따라 부거(오늘의 청진시 청암구역)로 옮겼던 경원부를 1428년에는 회가(오늘의 경원군)로 옮겼다. 그러나 경원부의 관할지역이 매우 넓었으므로 1432년에 그 서남지역을 떼여 석막을 중심으로 녕북진(후에 부로 승격됨)을 설치하였다.

그후 이 두 고을을 각각 분할하여 6개의 군사행정단위-6진을 설치하였다.

1434년 10월 녕북부를 진으로 떨구고 군사상 중요한 회령진을 도호부로 승격시켰으며 1435년 7월에는 회령의 동쪽 버연수소의 400호로 종성군(현재 온성군에 소속됨)을, 경원부의 남쪽 공주의 400호로 공성현을 설치하였다.

공성현은 1437년에 경흥군으로 개편되였다.

이때 설치한 경원부, 회령부, 종성군, 경흥군을 4진이라고 하였다.

리조봉건정부는 4진을 설치한 후 두만강 중류지역의 방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440년 11월 버연수소에 있던 종성군을 수주로 옮기고 그 북쪽 다온평에 온성군을 새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449년에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부거현(1438년에 오늘의 청진시 청암구역에 설치되였던 고을)을 석막으로 옮기고 부령도호부로 승격시켰다.

그리하여 두만강류역에는 6진이 설치되였다.

4군6진의 설치는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고 령토를 완정하는데서 의의를 가지였으며 당시 북부국경지대의 방비를 강화하고 생산을 장성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1419년 쯔시마원정

14세기 80년대이후 더욱 심해진 일본해적(왜구)들의 침입은 우리 인민의 응당한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였다.

일본해적들은 겉으로는 평화적인 무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략탈행위를 감행하였다.

쯔시마의 봉건령주들은 우리 나라와의 무역상특권을 거의 독점하여 많은 리익을 얻는 한편 왜구들의 략탈물에서 한몫을 받아먹고 그들의 뒤를 대주고있었다.

일본해적들은 1393년 3월 중순 고만량(충청도 보평군 주포면)에 침입한 후 이 한해동안에만도 10차가까이 침입하였으며 그후 1407년까지 61차나 쳐들어왔다.

특히 1419년 5월에 일본해적들은 50척의 함선으로 명나라를 침략하러 가던 도중 충청도 비인현 도두음곶과 황해도 해주의 연평곶에 침입하여 강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리조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쯔시마원정준비를 다그쳤다.

5월 14일 리조정부는 원정함대를 편성하고 리종무를 3도 도체찰사로 임명하였으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싸움배 200척을 6월 8일까지 견내량에 집결시켰다.

또한 리조정부는 일본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단속하게 하였으며 병마도절제사 조전 등을 서해연안 각도에 파견하여 해안경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포구들에 남겨둔 싸움배들을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싸움할만 한 사람들을 모두 동원하여 해안을 지키게 하였다.

드디여 6월 17일 싸움배 227척에 1만 7 285명으로 편성된 조선함대는 리종무

의 총 지휘밑에 거제도를 떠났다. 그러나 바람이 사나와 일단 돌아왔다가 19일에 다시 그곳을 떠나 20일 낮에 쯔시마의 쯔찌요리(두지포)에 이르렀다.

이때 쯔시마의 왜적들은 자기 편이 돌아오는줄로 알고 마음놓고있다가 조선함대가 들이닥치자 모두 넋을 잃고 도망쳤다.

불의의 기습작전에 성공한 원정군은 그전에 귀순한 일본인들을 적진에 보내여 쯔시마도주에게 투항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아무런 반응도 없게 되자 원정군은 포구를 수색하여 적선 124척을 불사르고 34척을 로획하였으며 섬에 상륙하여 1 939채의 집을 불사르고 수많은 적들을 살상포로하였다.

그후 왜구에게 랍치되여갔던 명나라사람들을 통하여 적들이 거의 량식을 못가지고 도망쳤다는것을 알게 된 조선함대는 후나꼬시(훈내곶)에 목책을 설치하고 쯔찌요리에 머무르면서 적들을 끝까지 섬멸할 태세를 보이는 한편 날마다 군대를 파견하여 왜구의 소굴과 배들을 불사르고 대항하는 왜구들을 소탕하였다.

조선함대의 불의의 습격과 포위섬멸전에 기가 꺾인데다가 식량부족까지 겹쳐 궁지에 빠진 적들은 마침내 항복하고야말았다.

적들의 항복을 받은 원정군은 7월 3일 거제도로 돌아왔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기해(1419년)동정》이라고 한다.

쯔시마원정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원정이였다.

이 원정을 통하여 치명적타격을 받은 왜구들은 그후 근 한세기동안 감히 우리나라에 기여들지 못하였다.

삼포왜란

1510년 3포(부산포, 염포, 냉이포)에 거류하던 왜놈들이 배신적으로 일으킨 침략행위를 진압한 사건이다.

14세기 중엽이후 일본의 막부《쇼궁》을 비롯한 봉건령주들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략탈적인 해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정부는 1419년 쯔시마원정을 단행하여 왜구의 준동을 일단락지었다.

그후 일본령주들과 쯔시마령주들은 조선정부에 무역을 허락해주고 일정한 장소에 거류하면서 상업을 할수 있게 하여줄것을 자주 간청하여왔다.

리조정부는 왜구를 단속하고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424년에 쯔시마도주의 증명서를 가진자만이 무역에 참가할수 있게 엄격히 단속하였으며 1426년에는 부산포, 염포(울산포), 냉이포(진해시 제포)의 세 포구에서만 교역을 하도록 하고 그 거류민수도 60호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그후 삼포거류왜인의 수는 계속 늘어나 15세기말에는 1만여호에 달하였다.

삼포거류왜인들은 초기에는 리조정부의 법을 지키는척 하였으나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연해에서 략탈행위를 감행하였을뿐아니라 국내깊이에까지 돌아다니며 나라의 내부형편정탐과 밀무역을 비롯한 온갖 위법행위를 감행하였다.

삼포가운데서도 거류왜인의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비법행위가 심하게 나타난 곳은 냉이포였다.

조선의 지방관청들에서는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왜놈들을 엄격히 단속하였다.

그러나 점차 오만무례해진 왜놈들은 조선관청의 통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침내 쯔시마의 해적(왜구)들과 공모하여 침략사건을 도발하였다.

1510년 4월 4일 쯔시마령주가 그 대관(대리인, 보좌관) 성친이란자를 두목으로 삼고 무어보낸 왜적선 100여척의 무리와 함께 삼포거류왜인들이 냉이포와 부산포에

쳐들어왔다.

이 사건을 력사에서는 《삼포왜란》이라고 불러온다.

이날 이른새벽 해적떼와 야합한 삼포의 왜놈들의 무리 4 000～5 000명은 불의에 냉이포성밖 주민들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성을 포위하여 강점하고 다음날에는 웅천성에 밀려들었다.

또한 왜적의 한 패거리 200여명은 부산포를 공격하여 강점하고 첨사 리우증을 살해하였으며 또 한 패거리는 거제도의 영등포에 기여들어 주민들의 집에 마구 불을 지르면서 재산을 략탈하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웅천성안에는 얼마 안되는 지방군과 주민들밖에 없었으나 밀려드는 왜적들을 맞받아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면서 6일 새벽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왜적의 다른 무리는 여러곳에 기여들어 만행을 감행하였다.

애국적인 인민들과 군인들은 가증스러운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 떨쳐나섰다. 지방군과 인민들의 강력한 반격이 가해지자 겁을 먹은 왜적들은《화의》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교활한 놈들은《화의》를 제기하고도 일시 강점한 곳들에서 략탈과 학살만행을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왜적들에 대한 결정적인 소탕전을 시급히 벌리는것이 필요하였다.

리조정부는 경상도의 지방군을 동원하여 4월 19일에 웅천에 둥지를 틀고있던 왜적을 무찌르는 공격전을 벌리였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군대는 적의 두목 다섯놈을 생포하고 적선 5척을 격침시켰으며 약 300명의 적을 살상하고 많은 군수기재를 로획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들이 버리고 도망친 배만 하여도 100여척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삼포왜란은 15일만에 완전히 진압되였다.

삼포왜란이 진압된 후 리조정부는 쯔시마와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응징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조선과의 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리득을 얻고있던 쯔시마령주와 상인들, 생활거처를 잃은 삼포거류왜인들을 심한 곤경에 몰아넣었다.

1512년 조선정부는 삼포왜란의《주모자》들의 머리를 베여가지고 사죄하러온 일본막부사신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다시는 침략사건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다음 왜인들의 삼포거류를 승인하고 무역선의 수와 무역품종과 량을 정해주었다.

일본해적의 사량침입사건(《사량왜변》)

1510년 삼포왜란후에도 왜적들의 침입은 계속되였다.

왜인들의 비법적인 준동이 심해지자 조선정부는 1541년 11월 쯔시마령주에게 냉이포에 와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할데 대하여 추궁하는 동시에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선법에 의하여 처형하겠다는것을 통고하였다.

조선정부는 또한 왜적들의 침략만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1543년 그들의 주요한 기항지, 은거지로 되여온 가덕포에 진을 설치하여 방어군을 주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교활하고 간악한 쯔시마도주를 비롯한 일본령주들은 조선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뿐아니라 그후에도 매해 무역선수의 증가를 집요하게 요청하였다.

그들은 저들의 부당한 요청이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다시금 무력침략을 감행

하는데로 나갔다.

1544년 4월 12일 이른새벽 쯔시마령주의 사촉밑에 왜적선 20여척이 경상도 고성앞바다의 사량섬에 몰래 접근하였다.

동쪽 강어구에서 상륙한 200여명의 왜적들은 방비가 약한 뒤면으로부터 사량성에 달려들었다. 당시 성에는 매우 적은 수의 방어군밖에 없었다.

적들이 불의에 달려들었으므로 성안의 군인들은 미처 전투준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가까운 진포인 경우에도 바다길로 수십리 떨어져있었으므로 지원을 기대할수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방어군은 단독으로 적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였다.

그러나 성안의 군인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적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그들은 포를 쏘고 화살을 날리면서 적들을 무찔렀다.

성 남쪽 옹성이 파괴된 위기일발의 순간에도 성안의 군인들은 침착하게 성을 보수하는 한편 적들의 공격을 물리쳤다.

전투는 오전 10시경까지 만 6시간동안 치렬하게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적들은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고 많은 전투기재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리하여 왜적들의 침략은 사량성 군인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완전히 격퇴되였다.

이 사건을 력사에서 《사량왜변》이라고 한다.

리조정부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왜구에 대한 징벌조치로서 조선에 와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대우를 낮추고 또 일본국왕(막부의 장군)이 보낸 무역선외에는 일체 무역선의 래왕을 금지하였다.

그후 쯔시마도주는 저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 금지령의 해제를 간청하여왔으므로 1548년에 그전보다 훨씬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가하였다.

1555년 일본해적침입사건(《을묘왜변》)

1544년 사량왜변후 일본해적들의 침입은 한동안 뜸하였으나 1555년에는 좀 더 규모가 큰 일본해적들의 침입사건이 일어났다. 이해가 을묘년이므로 이 사건을 《을묘왜변》이라고 불러왔다.(《달량왜변》이라고도 하였다.)

당시 명나라 연해일대에서 해적행위를 감행하며 돌아치던 해적떼의 한 무리는 이해 5월 11일 70여척의 배를 몰고 불의에 전라도 령암군 달량포에 기여들었다.

해적무리들은 성밖에 사는 주민들의 집들에 마구 불을 지르고 략탈만행을 감행한 후 달량성을 포위공격해왔다.

성안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밀려드는 왜적의 유생력량에 타격을 주면서 용감하게 싸워 3일동안이나 성을 고수하였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격파할수 없었다.

달량성을 강점한 왜적들은 한동안 이곳에서 략탈만행을 감행한 후 남해도의 림포를 침범하고 진포의 남도보와 금당보에 기여들었으며 5월 21일에는 전라도병영에, 이튿날에는 장흥부에 침입하고 뒤이어 령암에 기여들었다.

왜적들은 5월 24일 동쪽과 서쪽 두곳에 진을 치고 령암성을 공격해왔다.

왜적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령암성에 집결해있던 지방군대와 인민들은 25일에 적들과 치렬한 싸움을 벌리였으며 날쌔고 용감한 군인들로 무어진 습격조는 향교에 도사리고있던 적의 지휘부를 찾아내여 들이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또한 령암성방위자들은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적진지에 맹렬한 공격을 들이댔다. 이에 바빠맞은 진지의 적들은 도망쳐 제놈들의 지휘부가 있는 향교안으로 모여들었다.

방어군은 적들에게 숨돌릴 여유를 주지 않고 향교에 모여든 왜적들에게 비발치듯 화살을 쏘아대면서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였다.

이 향교전투에서 령암성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왜적 104명의 목을 자르고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여 무리로 쓸어눕혔다.

살아남은 왜적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령암전투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은 모두 200명의 왜적들을 쳐죽이는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령암전투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적들은 그후 가리포, 회령포, 독도 등지에 또 침입해왔다.

왜적들은 금당포에 기여들었다가 다시금 전라도수군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패주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1 000명의 왜적이 제주도에 침입하여 발악하다가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강한 반격을 받고 쫓겨갔다.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약 한달반동안이나 남해지방의 섬들과 연해에 기여들어 살인과 방화, 략탈을 감행하던 왜적의 무리들은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무리죽음을 당하고 쫓겨갔다.

그후 왜적들은 수십년동안 조선에 기여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1592년-1598년 임진조국전쟁

16세기 리조봉건통치체제는 문란해지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계급적모순은 날로 첨예화되였다. 게다가 봉건통치층내부에서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재물과 노비를 차지하기 위한 추악한 당파싸움은 일본의 침략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수 없게 하였다.

한편 100여년동안 계속되던 내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잡은 일본봉건령주들의 두목 도요도미 히데요시(풍신수길)는 조선침략을 통하여 해외침략의 야망을 실현하며 반대파세력의 군사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기 정권의 만전을 도모하려고 꾀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침략무력과 침략군대를 실을 배를 준비하는 한편 조선전쟁을 지휘하기 위하여 나고야에 침략군대의 지휘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오사까와 나고야사이의 련락을 보장하기 위하여 10리마다 역참을 설치하고 역졸을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침략의 구실을 조작하기 위한 군사적도발과 외교적책동을 감행하였다.

일본침략군의 제1차침입

이미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온 일본침략자들은 《수륙병진》의 전략적기도를 세우고 우리 나라를 단꺼번에 집어삼키려는 야망밑에 1592년 4월 13일 20여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쯔시마를 거쳐 부산에 침입하였다.

당시 당파싸움에 몰두하고있던 봉건통치배들이 전쟁준비를 거의 하지 않은 탓으로 형편은 무방비상태나 다름없었다.

방대한 일본침략군이 불의에 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적군민들은 용감한 투쟁을 벌리였다. 4월 14일 적들이 부산에 상륙하자 부산과 동래의 군대와 인민들은 부산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의 지휘밑에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맞받아 치렬한 항전을 벌려 적들에게 첫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적들은 나라의 방비가 약한 틈을 타서 5월 3일 한성을 강점한 후 계속 북쪽으로 기여들었다.

한성에는 우끼다가 남아서 침략군을 지휘하였고 고니시 유끼나가(소서행장)는 평안도로, 가또 기요마사(가등청정)는 함경도로, 구로다 나까마사(흑전장정)는 황해도로 침입하였다.

강점한 지역들에서 왜적들의 략탈과 파괴, 학살만행은 말과 글로써 이루 다 표현할수 없으리만큼 야수적으로 감행되였다.

닥치는대로 략탈하고 파괴하였으며 지어는 산 사람의 코와 귀를 잘라 소금에 절구어 침략의 괴수 도요도미놈에게 바치여 제놈들의 《전공》을 평가받는 형편이였다. 조성된 사태는 엄중하였으나 조선인민은 륙지와 바다에서 나라와 겨레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왜적을 무찌르기 시작하였다.

바다에서의 싸움

바다에서는 조선수군이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1592년 5월부터 9월까지 4차에 걸친 출전에서 련전련승하여 일본침략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조선수군의 제1차출전, 옥포앞바다싸움

5월 4일 왜적함대가 기여든다는 경상우수사 원균의 급보를 받은 리순신장군은 리억기가 거느리는 전라우도의 수군과 련합하여 려수를 떠나 제1차출전의 길에 올랐다.

이때 조선함대는 싸움배인 판옥선 24척과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모두 85척으로 무어져있었으며 5월 6일 거제도앞바다인 당포에서 원균이 거느린 경상우도의 함선 5척이 여기에 합세하였다. 5월 7일 조선수군은 옥포앞바다로 나갔다. 옥포항구에는 적선 50여척이 선창에 머무르고있으면서 륙지에 기여올라 략탈과 방화, 살인 등 만행을 감행하고있었다. 조선함대는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재빨리 적선을 포위하고 연안에로 압축하면서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리고 총통을 맹렬히 쏘는 한편 장편전, 불화살들을 퍼부어 적선을 격침, 격파하였다. 이어 조선함대는 도망치려는 적선을 추격하여 또다시 큰 타격을 주었다. 몇시간동안의 격전끝에 조선함대는 적함선 26척을 격침시키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 승리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선수군의 첫 승리였다.

조선함대는 계속하여 합포에서 5척을, 적진포에서 13척의 적선을 격침시키였다.

제1차출전에서 조선함대는 모두 44척의 적선을 격침시키고 수많은 적을 살상하였으며 쌀 300여섬과 수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들을 로획하였다.

조선수군의 제2차출전

제1차출전에서 돌아온 후 조선수군은 적함대가 다시 서쪽으로 침략해올것을 예견하여 제2차출전을 준비하고있었다. 5월 27일 경상우수사로부터 적선이 사천, 곤양 등지로 기여들고있다는 보고를 받은 리순신장군은 거북선과 군함들로 무어진 23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5월 29일 또다시 출전하였다.

사천앞바다싸움

전라좌수영(려수)을 떠난 조선함대는 로량앞바다에 이르러 경상우수영의 함선 3척과 련합하였다. 이어 조선함대가 적을 추격하여 사천앞바다에 이르자 적 400여명은 산우에 진을 치고있었고 선창에는 다락배 12척이 머물러있었다.

조선함대는 썰물로 해서 포구로 들어갈수 없을뿐아니라 적이 고지를 차지하고있어서 공격하기가 불리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선함대가 적을 넓은 바다에 끌어내기 위하여 퇴각하는척 하자 적들이 산에서 내려와 배를 타고 공격해왔다. 때마침 밀물이 시작되였으므로 조선함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배머리를 돌려 적선을 향해 공격하였다. 맨앞에 선 거북선이 포탄을 퍼부으면서 공격하고 뒤를 따라 다른 함선들이 《학익진》(학이 나래를 편것과 같은 전투서렬)을 짜가지고 적선을 향하여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리순신장군은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적탄에 맞아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으나 끝까지 싸움을 지휘함으로써 적함 12척을 모조리 격침시키고 1척을 나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당포앞바다싸움

사천앞바다에서 적을 소멸한 조선함대는 다시 동쪽으로 전진하여 6월 2일 아침 당포앞바다에 이르렀다. 당포에는 적장 구로시마와 가메이가 이끄는 21척의 적선이 머물러있었다.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조선함대는 거북선을 앞세우고 먼저 적의 지휘함을 공격하여 격침시켰다. 지휘함이 격침당하자 적의 전투서렬은 혼란에 빠졌고 적들은 도망치려 하였다. 조선함대는 적선을 량쪽으로부터 포위하고 총공격으로 넘어가 21척의 적선을 격침하고 많은 전투기재를 로획하였다.

당항포앞바다싸움

당포앞바다싸움에서 큰 승리를 쟁취한 조선함대는 당포부근에서 전라우수사 리억기가 지휘하는 싸움배 25척과 합류하여 51척의 함대로 6월 5일 당항포앞바다에 기여든 적함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조선함대는 먼저 거북선이 총통을 쏘아 지휘선을 격파하도록 하고 이어 여러 함선들이 엇바꾸어 드나들면서 적선들에 탄환과 화살들을 퍼부었다.

그리고 적함을 바다 한가운데로 유인하여 적지휘함을 불태워버리고 도망치려는 적선들을 모조리 격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선 30여척을 격침하고 거기에 탔던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였다.

제2차출전에서 조선함대는 적선 70척을 격침격파하고 많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으며 적장 10여놈을 포함한 수천여명의 적을 소멸하였다. 그리하여 적의 주력함대의 하나인 구로시마함대를 전멸시키고 적의 《수륙병진계획》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바다싸움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게 되였다.

조선수군의 제3차출전

한산도앞바다싸움(한산도대승리)

조선수군함대의 두차례에 걸치는 출전을 통하여 심대한 참패를 당한 일본침략자들은 《수륙병진》작전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꾀하였다.

그리하여 놈들은 와끼사까, 구끼, 가또 등이 지휘하는 3개 함대를 새로 편성하였다.

73척으로 무어진 적의 제1함대는 7월 6일 김해를 출발하였고 제2, 제3함대가 그뒤를 따랐다. 조선수군은 새로 편성된 적의 함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7월 6일 려수를 떠나 제3차출전의 길에 올랐다. 이때 조선함대는 90척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조선함대가 견내량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는 와끼사까가 지휘하는 적의 제1함대 73척이 진을 치고있었다. 그런데 견내량은 해협의 너비가 500m밖에 안되였고 암초가 많으므로 거북선과 판옥선과 같은 큰 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었다.

리순신장군은 적을 한산도앞바다에 유인하여 섬멸할 작전을 세우고 판옥선 5~6척으로 적을 공격할 기세를 보이다가 뒤로 물러나도록 하였다.

조선함대가 적은 력량이라고 알본 적들은 유인전술에 걸려 넓은 바다로 나왔다.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한산도 북쪽기슭에 은페하고있던 조선함대의 주력은 학익진을 치면서 일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조선함대는 거북선을 선두로 적진을 향해

돌격하면서 여러가지 총통을 쏘아 전투를 시작한 첫 순간에 적선 3척을 깨뜨렸다. 불의의 타격에 사기를 잃은 적들은 혼란에 빠져 도망치려고 하였다.

조선함대는 적선을 포위하고 량익측으로부터 강력한 포화력을 퍼부었다. 조선함대는 이날 격전에서 적선 73척가운데서 59척을 격침하였다. 포위진에 들지 않았던 나머지 14척은 제놈들이 녹아나는것을 보고 질겁하여 도망치고말았다.

우리 인민은 한산도앞바다에서 거둔 승리를 《한산대승리》(《한산대첩》)이라고 자랑해왔다.

안골포앞바다싸움

한산도앞바다에서 큰 승리를 거둔 조선함대는 안골포에 42척의 적함선이 정박해있다는 정보를 받고 7월 10일 적진을 향해 진격하였다.

함대를 2개 제대로 편성한 다음 리순신장군은 우선 제1제대를 소함대로 나누어 파장식으로 련이어 공격하면서 적선에 총통과 화살을 퍼붓게 하고 이어 예비대로 두었던 제2제대를 인입하여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였다.

우리 함대는 적의 지휘선인 3층루선(다락배)과 그옆에 있던 2층루선에 집중포화를 들이대여 격파하였으며 배를 버리고 륙지로 기여올라 도망치는 적들에게 명중탄을 퍼부어 소멸하고 적들이 버리고간 배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렸다.

이 싸움에서 조선함대는 적선 42척을 모두 격침하고 수많은 적을 살상하여 적의 제2함대를 완전히 소멸하였다.

제3차출전에서 조선함대는 적의 주력함대인 와끼사까, 구끼 등이 이끄는 함대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적선 100여척을 격침, 격파하고 9 000명의 적을 살상하였다. 그리하여 평양과 함경도 일대에 기여든 적들이 더 북쪽으로 침공할수 없게 하였으며 싸우는 우리 인민과 군대를 크게 고무하였다.

조선수군의 제4차출전, 부산앞바다에서의 대승리

7월말부터 수세에 빠진 적들은 본국으로부터 증원을 요구하는 한편 부산앞바다에 집결하여 우리 함대와의 싸움을 피하고있었다.

조선함대는 수세에 빠진 적함대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적의 주력함대를 소멸하고 본국과의 배길을 끊어 륙지에 침입한 적을 완전히 고립약화시킴으로써 침략군을 섬멸구축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부산앞바다의 적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8월 24일 부산을 향하여 출전한 조선함대는 장림포, 화준, 구미, 다대포, 서평포, 절영도 등지에서 모두 34척의 적선을 격침한데 이어 9월 1일 아침 부산포로 진격하였다.

이때 수백척의 적선은 부산선창으로부터 동쪽산기슭사이에 머물러있었고 큰 배 4척이 초량항으로부터 조선함대의 정찰선을 향해 마주오고있었다.

거북선을 포함한 조선함대는 먼저 우리 정찰선을 추격해오는 적의 큰 배 4척을 순식간에 격파하고 적함대가 집결되여있는 포구로 돌입하였다.

우리 함대의 위력과 공격에 겁을 먹은 적들은 배를 연해에 붙이고 산우의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륙군의 지원밑에 저항해나섰다.

우리 함대는 여러 편대로 나누어 물결식으로 공격을 들이댔고 산우의 적들을 화력으로 제압하면서 해안에 붙은 적선을 련속적으로 격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함대는 해안에 정박하여있던 적선 100여척을 격침하고 수많은 적을 살상하였다.

이 바다싸움의 승리로 적들의 《수륙병진》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였

고 남해에서의 조선수군의 제해권이 더욱 공고화됨으로써 적들의 침략계획수행에 치명적인 위기를 조성하였다.

륙지에서의 싸움

한편 륙지에서는 각지 인민들이 의병을 뭇고 일본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경상도에서는 곽재우가 의병투쟁의 첫 봉화를 들고 궐기하여 투쟁을 벌려나갔으며 뒤이어 량인출신 제말이 지휘한 의병부대, 노비들로 이루어진 김면의 의병부대, 권응수, 정인홍, 손인감, 정대임 등이 지휘한 의병부대들도 각지에서 왜적들을 쓸어눕히였다.

충청도에서는 조헌이 거느린 의병들이 령규의 의병부대와 협동하여 청주, 금산일대에서 용감하게 싸웠으며 경기도에서는 홍계남, 홍인수의병부대가 수원, 안성, 강화도 일대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강원도 금강산에 있던 유정(사명당)은 의병부대를 무어 평양에 진출하였으며 황해도에서는 김만수, 황하수, 리정암 등이 의병대를 무어 항전에 일떠섰다.

평안도일대에서는 림중량, 차은진, 김진수, 조호익, 양덕록, 휴정(서산대사) 등이 지휘하는 의병들이 맹렬한 활동을 벌리였다.

함길도에서는 정문부의 지휘밑에 의병들이 용감한 투쟁을 벌려 길주이북지역의 왜적을 소탕하였다.

이 시기 각지에서 벌어진 의병들의 투쟁은 전쟁전반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연안성방어전투(연안대승리)

8월 22일 연안성으로 들어간 리정암의병부대는 그의 지휘밑에 불과 며칠사이에 방어태세를 튼튼히 갖추었다.

8월 28일 구로다 나가마사놈이 거느린 3 000명의 일본침략군이 연안성으로 달려들었다. 적들은 연안성을 사면으로 포위하고 밤낮으로 맹렬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성안에 있는 인민들과 의병들은 성벽으로 기여오르는 놈들에게 돌과 끓는 물을 퍼부어 쓸어눕히였고 적들이 성밖 남산우에 높은 다락을 만들고 공격할 때에는 흙으로 성벽을 높이면서 놈들의 기도를 짓부셔버렸다.

또한 그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놈들에게 돌과 홰불을 던져 죽이였으며 사다리를 놓고 기여오르려는 놈들은 몽둥이로 까고 끓는 물을 퍼부어 무리죽음을 주었다. 여러날에 걸치는 공격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들은 마침내 9월 2일 수많은 시체를 남기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성의 방어자들은 성문을 열고 달려나가 적들을 추격하여 수많은 적을 살상하였다.

그리하여 북쪽과 남쪽지방의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주를 강점한 적들로 하여금 달아나지 않을수 없게 함으로써 황해도 남부지방을 되찾을수 있게 하였다.

진주성방어전투(진주대승리)

각지에서 벌린 인민들의 강력한 반침략투쟁에 의하여 궁지에 빠진 일본침략군은 진주를 강점하고 다시 서쪽으로 남원을 공격하여 전라도를 강점함으로써 륙지와 바다에서의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흉계밑에 적들은 적장 하세가와놈의 지휘밑에 김해, 부산 등지에 둥지를 틀고있던 3만명의 병력으로 창원, 함안을 거쳐 진주성에 달려들었다.

당시 진주성안에는 3 800명의 관군과 얼마 안되는 의병이 있을뿐이였다. 애국

적인민들과 군인들은 김시민의 지휘밑에 방어태세를 튼튼히 갖추었다. 10월 6일 밤부터 적들은 성을 두겹, 세겹으로 포위하고 집요하게 공격하여왔다.

적들이 성가까이에 접근하였을 때 성안의 방위자들은 일제히 화살과 조총, 총통으로 명중사격을 퍼부어 무리죽음을 주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의병장 곽재우, 리달, 최강 등이 지휘하는 의병부대는 진주성으로 달려드는 적을 뒤로부터 타격하였다.

이에 고무된 성안의 방위자들은 기세충천하여 10월 7일~8일에 달려드는 적들에게 현자포, 질려포, 진천뢰 등으로 명중탄을 퍼붓고 끓는 물과 불뭉치, 돌벼락을 안기여 놈들의 공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쳤다.

성안의 방위자들의 용감한 투쟁과 여러곳의 의병부대들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 더욱 곤경에 빠진 적들은 10월 10일 최후발악적인 총공세를 취하여왔으나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수많은 시체를 남긴채 도망치고말았다.

이 전투에서 적 지휘관 300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침략군을 소멸하고 성을 굳건히 지켜내였으며 적들의 침략기도를 완전히 분쇄하였다.

평양성탈환전투

1593년에 들어서면서 모든 전선에서 적들에 대한 전면적인 반공격이 시작되자 조선군대는 평양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당시 평양에는 일본침략군가운데서도 《정예》를 자랑하는 1만 5 000여명의 고니시 유끼나가(소서행장)부대가 도사리고있었고 이곳을 강점한 적들은 장차 침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평양을 리용해보려고 망상하고있었다.

이 전투에는 김응서, 서산대사 등이 지휘하는 2만여명의 관군과 의병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명나라군대도 참가하였다.

1월 6일 새벽 조선군대는 명나라군대와 협동하여 성을 포위하고 모란봉과 보통문, 함구문의 세 방향에서 적을 공격하였다.

서산대사가 지휘한 의병부대는 모란봉의 적을 공격하여 섬멸적타격을 주고 그 일부를 점령하였으며 김응서장군이 지휘한 부대는 성의 서쪽과 남쪽방향에서 적을 성밖으로 유인하여 소멸하였다.

1월 8일 이른새벽 아군은 평양성탈환을 위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아군은 여러가지 총통포화력을 퍼부으면서 함구문, 모란봉, 칠성문, 보통문의 네 방향에서 동시에 성안으로 쳐들어갔다.

이 싸움에서 김응서장군은 선봉장으로서 함구문으로부터 공격하여 왜적을 쳐부시고 작전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리하여 1만여명의 적을 소멸하고 평양성을 되찾았다.

행주산성방어전투(행주대승리)

1593년 1월 평양성을 되찾는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애국적의병부대들과 정부군은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한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개시하였다.

당시 권률(3도체찰사, 전라도순찰사)이 지휘하는 2 300명의 군대는 행주산성에 주둔하면서 한성을 공격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봉건통치배들은 한성공격을 늦춤으로써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게 되였다.

한성에 몰려온 적들은 아군의 공세가 일시 약화된 기회를 리용하여 행주산성에 집결한 의병들을 먼저 격파함으로써 제놈들의 패배를 만회하여 한성을 계속 견지해보려는 망상밑에 2월 12일 새벽 적장 우끼다놈이 지휘하는 3만여명의 침략군이 행

주산성을 공격해왔다. 성안의 방위자들은 권률의 지휘밑에 통나무로 목책을 둘러치고 그안에 돌과 흙으로 내성을 쌓아 방어준비를 갖추었다. 적들이 가까이 접근하자 방위자들은 화살과 돌벼락을 들씌워 수많은 적들을 살상하였다. 성안의 부녀자들도 싸움에 떨쳐나서 치마폭에 돌을 담아 날라다줌으로써 싸우는 군인들을 적극 도와주고 크게 고무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행주치마》라고 부르는 녀성들의 앞치마의 이름도 이 행주산성 싸움에서 생긴것이라고 한다.

적들은 여러차례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화공전술, 성폭파작전 등 여러가지 전술을 쓰면서 발악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군인들과 인민들은 용감한 투쟁을 벌려 적의 공격을 물리쳤다. 9차례의 공격을 들이대여서도 성을 점령할수 없었던 적들은 수많은 주검을 남긴채 어둠을 타서 도망치고말았다.

행주산성싸움에서의 승리는 한성으로 몰려든 적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놈들로 하여금 부랴부랴 남쪽으로 총퇴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일본침략군의 제2차침입

1593년 6월 진주성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이후 일본침략군은 경상도 남해안의 좁은 지역에 들어박혀 다시 침략을 확대할 기회를 기다리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해 7월이후 전쟁은 일시 중단상태에 들어서게 되였다.

궁지에 빠진 적들은 《화평담판》을 제기하면서 그 막뒤에서 대규모적인 재침공을 준비하였다.

3년간의 휴전기간 리조봉건정부는 속오법에 기초하여 군대편제를 개편하고 중앙상비군인 훈련도감을 설치하였으며 무기와 무장을 마련하고 산성을 보수하며 리순신장군을 3도(경상, 전라, 충청)수군통제사로 임명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봉건통치배들호상간의 당파싸움으로 말미암아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597년 1월 그동안 재침준비를 다그쳐오던 일본침략자들은 14만 1 500명의 륙군과 130여척의 함선으로 장비한 수만명의 수군을 내몰아 또다시 대규모적인 침공을 감행해왔다.

특히 적들은 1차침입에서 수군이 약하여 《수륙병진》을 실현하지 못한 《교훈》에 기초하여 수군을 강화하는데 무진 애를 썼다. 한편 적들의 간계에 빠진 리조봉건정부는 리순신장군을 3도수군통제사직에서 해임하고 무능한 원균을 그 자리에 임명하였다. 원균의 모험적인 작전으로 말미암아 6월 안골포싸움, 7월 중순에는 칠천도앞바다에서 다시 패하여 조선함대는 거의 전멸상태에 빠지였다.

그리하여 적들은《수륙병진》으로 륙지에서는 남원을 거쳐 충청도로 쳐들어왔으며 바다에서는 남해를 장악하고 서해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칠천도 앞바다싸움에서 실패하였다는 보고에 접한 리조봉건정부는 당황망조하여 리순신장군을 다시 3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애국적인민들과 군인들은 륙지와 바다에서 또다시 일본침략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직산전투

일본침략군이 계속 북쪽으로 침공해오는데 대처하여 봉건정부는 도체찰사 리원익으로 하여금 죽산방향으로 진출하여 정주목으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막게 하는 한

편 평안도의 군사 5 000여명과 황해도와 경기의 군사 수천명을 동원하여 한강나루와 창고들을 방어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도원수 권률이 거느린 일부 부대와 충청병마사 리시언이 지휘하는 부대는 직산계선에서 기여드는 침략군을 막도록 하였다. 직산에 도착한 방어군은 소사평의 유리한 지세에 의거하여 적을 단매에 쳐부실 계획밑에 3개 부대로 나뉘여 진지를 차지하였다. 이 작전에는 명나라군대도 참가하였다.

9월 5일 새벽 모리와 구로다놈이 거느린 부대가 천안으로부터 소사평에 침입하였다.

이때 이곳에 은밀히 매복하고있던 아군은 적들을 가까이 접근시킨 다음 강력한 기습전을 벌리였다.

아군은 3개 방향으로 적진에 육박하여 침략군을 무리로 쓸어눕히였다.

6차례에 걸친 공방전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들은 다음날 조총수를 앞세우고 남은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해왔다.

아군은 포로써 적들의 조총사격을 제압하는 한편 적진을 향하여 돌격해나가 또다시 수많은 침략군을 섬멸하였다.

그리하여 적들은 청주를 거쳐 남쪽으로 도망치고말았다.

직산전투는 북쪽으로 기여들려던 적의 선봉부대인 구로다부대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가또부대의 예봉을 꺾음으로써 아군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수 있는 계기를 열어놓았다.

울돌바다싸움(명량대승리)

1597년 8월 3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리순신장군은 곧 흩어진 수군을 수습하고 건설하는데 착수하였다. 단 12척의 배와 120명의 군대밖에 넘겨받지 못한 리순신장군은 급히 수군을 다시 추겨세우는데 힘썼다.

9월 15일 아침에 리순신장군은 함대를 회령포로부터 진도의 벽파진으로 옮겼다.

그것은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해양조건들을 타산하여 우수영 앞바다인 울돌(명량)해협에 진을 치기 위해서였다.

싸움을 앞두고 리순신장군은 군사들에게 이 바다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두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며 명령을 엄격히 지킬것을 지시하였다. 조선함대는 울돌해협의 밀물을 따라 공격하는 적함대와 싸우다가 썰물이 빠지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강한 반격으로 격파할것을 결심하였다. 다른 편으로 우리 함대가 12척인 조건에서 고기배들을 싸움배로 위장시켜 함대의 뒤에 배치하였으며 뭍에 기여오르는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륙전대를 조직하여 해협의 연안에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적은 수의 함선으로도 적함에 많은 량의 포화를 퍼부을수 있도록 많은 총과 포로 함대를 장비시키였다.

9월 16일 아침 드디여 왜적장 도도, 구로시마 등이 지휘하는 330여척의 적함대가 밀물의 흐름을 따라 울돌해협으로 밀려들었다. 우리 함대는 수적으로 적었으나 리순신장군의 지휘함을 선두로 일자형을 지으면서 울돌물목을 가로막아 봉쇄진을 쳤으며 뒤의 고기배들도 물목을 막았다. 적들은 우리 함대가 수적으로 적은것을 얕보고 일격에 소멸할 심산으로 포위진을 치면서 달려들었다. 일부 지휘관들이 적함의 수가 많은데 겁먹고 물러선 결과 지휘선이 적선의 포위에 들 위험에 빠지였으나 리순신장군은 자신이 타고있는 지휘함으로 하여금 닻을 내려 멈추게 하고 결사전을 벌리도록 하였다.

왜적함대의 발악적인 공격으로 조선함대는 힘겨운 싸움을 벌리였다.

결정적인 순간에 리순신장군은 돌격명령을 내리였다. 리순신장군의 엄격하고도 능숙한 지휘와 지휘선의 결사전에 고무된 함대는 맹렬한 돌격으로 구로시마가 탄 적 지휘함을 비롯한 3척의 적함을 격침시키였다. 지휘함을 잃은 왜적함대는 사기가 떨어져 혼란이 일어났다.

리순신장군은 썰물때를 기다리면서 싸움을 다그치였다. 싸움을 시작할 때는 밀물때여서 적함대에 유리하였으나 썰물이 시작되자 적함대는 썰물에 밀리여 불리하게 되였고 우리 함대는 썰물을 타게 되여 공격에 매우 유리하였다. 적함대는 세찬 썰물에 밀리여 배머리를 돌리지도 못하고 서로 부딪치면서 일대 혼란에 빠지였다.

순간을 놓칠세라 리순신장군은 적함대에 돌격명령을 내리고 지휘함을 선두로 적진으로 육박해들어가면서 적함을 련이어 들부시였다. 이 싸움에서 우리 함대는 무려 30여척의 적선과 4 000여명의 왜적을 무찌르는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바다싸움의 승리는 적해군의 서해안으로의 침공기도를 완전히 파탄시키였으며 적의 륙군도 남해의 좁은 지역에 움츠러들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로량앞바다싸움(로량대승리)

울돌앞바다싸움을 비롯하여 여러 바다싸움에서 리순신장군이 지휘하는 조선함대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고 륙지에서도 권률이 지휘하는 관군과 도처에서 일떠선 의병들에 의하여 타격을 받은 적들은 남해안의 좁은 지역으로 몰키게 되였으며 마침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황속에서 리순신장군이 지휘하는 조선함대는 적의 도망갈 길을 끊고 이를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적장 시마즈놈이 지휘하는 사천과 고성 남해앞바다에 머물러있던 500여척의 적선은 순천의 고니시부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11월 19일 로량(남해군)으로 공격해왔다.

정찰을 통하여 적선들이 접근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군의 주력함대는 적들을 앞질러 분쇄하기 위하여 로량앞바다로 진격하여 적선을 량쪽으로부터 공격하였다. 불의공격을 받은 적함대는 갈팡질팡하였다. 조선함대는 적함대를 포위하고 드센 공격을 들이대여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하였다.

치렬한 격전장에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함대를 능숙하게 지휘하던 리순신장군은 전투가 거의 승리로 끝날무렵 적탄에 치명상을 입고 최후를 마치게 되였다. 그는 손에 쥐였던 지휘기를 옆에 있던 조카 리완에게 주면서《지금 싸움이 한창고비이니 내가 죽은것을 숨기고 대신 지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의 유언대로 리완은 지휘기를 더욱 힘있게 휘두르면서 장병들을 최후섬멸전에로 불렀다.

이 바다싸움에서 조선함대는 적선 200여척을 격침, 격파하였으며 근 2만명의 적병을 소멸하였다.

이 전투는 임진조국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빛나는 승리였다.

이리하여 7년간 계속되던 임진조국전쟁은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임진조국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던것은 애국적인민들이 남녀로소 할것없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철천지원쑤 왜적을 쳐부신데 있었다. 인민들과 군인들은 자발적으로 의병을 뭇고 적의 발굽이 미치는 곳마다에서 싸웠고 관군에 참가하여서도 용감하게 싸웠다. 또한 녀성들도 결백한 지조와 슬기를 자랑하면서 용감히 싸웠으며 량인농민들과 노비들은 더 말할것 없고 애국적유생들과 중들, 량심적인 일부 량반관료들까지도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싸웠다. 특히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조선수군의 영용한 투쟁은 일본침략자들의 《수륙병진》기도를 파탄시키고

전쟁을 승리적으로 종결짓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임진조국전쟁의 승리는 나라와 겨레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영예를 떨치는데 큰 의의가 있었을뿐아니라 당시 동방나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정묘호란

명나라의 지배밑에 있던 녀진족은 1616년 압록강건너 건주위녀진의 추장 누루하치(후의 청나라 태조)에 의하여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1618년 누루하치는 선양지방의 우순과 랴오양의 청하보를 점령하고 명나라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위급한 사태에 직면한 명나라는 조선에 후금을 반대하는 공동작전을 벌릴것을 요청하여왔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아무러한 타산도 없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적립장으로부터 1619년에 강홍립을 도원수로 하는 1만 3 000명의 원정군을 파견하였는데 원정군은 심하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1621년에는 랴오양에서 후금군에게 격파된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패잔병을 끌고 우리 나라에 쫓겨들어왔다.

《심하원정》과 모문룡부대가 조선국내에 머물러있게 된것은 조선과 후금과의 관계를 극도로 첨예하게 만들었다.

누루하치가 죽고 그의 아들 태종이 집권하자 후금통치배들은 우선 모문룡을 공격한 다음 산하이관, 녕원 등지를 탈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침략의 예봉을 조선에 돌리였다.

후금통치배들의 목적은 우선 조선을 굴복시켜 명나라를 침략할 때 있을수 있는 조선과 명나라의 련합작전에 의한 배후타격을 미리 막자는데 있었다.

이 침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후금침략자들은 조선이 명나라의 패전장수 모문룡을 도와주고있으며 또 리조정부가 자기들을 적대시하고있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조선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감행하였다.

1627년 1월 13일 적장 아민은 3만의 침략군을 끌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공격하였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정묘호란》 즉 정묘년(1627년)의 오랑캐란리라고 한다.

적들은 의주, 곽산, 안주, 평양을 거쳐 1월 하순에는 평산계선까지 기여들었다.

정세의 변화에 암둔하고 국방강화대책도 세우지 않은 국왕과 통치배들은 후금의 침략에 당황망조하여 마침내 제 한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강화도로 도망쳤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민들은 높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의병투쟁에 떨쳐나섰다.

1월말부터 평양, 룡강, 의주, 곽산 등 평안도지방에서 의병부대들이 적의 배후를 타격하기 시작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으로 하여 적들은 강점지역에서 군량과 마초를 얻어낼수 없었고 더 전진할수도, 전쟁을 계속할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적들은 할수없이 《화의》에 나서지 않을수 없어 마침내 3월초에 쌍방간에 《화의》가 맺어졌다.

그 내용은 조선과 후금이 외교관계를 맺는다는것, 앞으로 후금과 명나라가 전쟁을 하는 경우에 조선은 어느쪽에도 가담하지 않는다는것, 후금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거한다는것 등이였다.

그러나 후금침략자들은 조선 전지역에서 철수할 대신 모문룡의 부대를 친다는 구실로 청천강이북지역을 강점하려고 책동하였다.

이리하여 후금침략군을 반대하는 의병투쟁이 다시 세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룡골산성(룡천)에 기지를 둔 정봉수의병부대의 세찬 투쟁을 비롯하여 소위포에 기지를 둔 김우, 리립 등의 의병부대, 철산지방에서 투쟁을 벌린 김려기의 의병부대, 정주, 선천의 애국적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적들은 8월에 침략군을 걷어가지고 도망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후금침략자들의 제1차침입은 적들의 참패로 끝났다.

병자호란

후금의 제1차침입이 있은 후에도 리조봉건통치배들은 당파싸움에만 몰두하면서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날로 강성해지는 후금의 침략에 대처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1636년 4월에 후금은 나라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저들의 군주의 칭호를 《황제》라고 자칭해나섰다.

그리고 조선에 봉건적인 사대종속관계를 맺을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무력으로 조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까지 하였다.

제놈들의 오만한 요구가 일축당하게 되자 청나라 태종은 이것을 구실로 1636년 12월 12만명의 대병력을 끌고 불의에 침공하여왔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병자호란》 즉 병자년(1636년)의 오랑캐란리라고 하였다.

압록강을 건너선 적들은 1차침입때와는 달리 도중전투를 극력 피하면서 직접 한성을 향하여 침입하였는데 4일만인 12월 14일에는 한성입구에까지 들이닥치였다.

부패무능한 국왕과 봉건통치배들은 적들이 안주계선을 통과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자 12월 13일에 먼저 가족들을 강화도로 피난시키고 14일에 강화도로 가려고 하다가 적들에 의하여 길이 막혔다는 통보를 받고 제2피난처인 남한산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한성에 기여든 적들은 부대를 3개 방면으로 내몰아 한 부대는 강화도를 공격하게 하고 다른 한 부대는 각 도에서 올라오는 응원군을 막게 하며 주력군으로는 남한산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12월 16일 적들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남한산성에는 1만 3 800여명의 방어군과 60여일분의 군량이 있었다.

12월 18일에 북문을 방어하던 부대는 성문을 열고 나가 공격하여 적지 않은 적들을 소멸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성안의 군대의 사기는 더욱 앙양되였다.

19일에는 방어군이 또다시 성문을 열고나가 돌격전으로 남쪽 성문밑으로 기여드는 적을 섬멸하였으며 21일에는 서문과 북문에서도 문을 열고 나가 공격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다.

23일에 성밖으로 출전한 부대는 적 50여명을 쳐죽이고 적지 않은 군수기재를 로획하였다. 전투는 24일에도 벌어졌으며 전과도 매우 컸다. 청나라침략자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침입기간에 청나라 군사 7 000여명과 지휘관 300여명이 죽었다고 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남한산성에서 격멸되였던것만큼 남한산성에서의 애국적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은 참으로 치렬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성안의 식량이 떨어져가고 각 도의 응원군들이 도중에서 모두 적들에 의하여 좌절되여 전투는 더욱 어려워졌다.

게다가 1637년 1월 22일에 강화도가 적들에게 강점되자 성안의 일부 통치배들과 군사지휘관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나 적들과 타협하는 길로 나가려고 하였다.

성을 끝까지 지키려는 애국적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았고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서 의병들의 투쟁이 벌어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 인조를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은 마침내 1월 30일에 굴욕적인 《화의》를 맺음으로써 40여일간에 걸친 남한산성방어전투는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화의를 인정하지 않고 의병투쟁을 힘있게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대동법의 실시

종래에 수백, 수천가지의 지방특산물을 현물로 빼앗아들이던 공물수탈체계는 17세기이후에 토지면적을 단위로 하여 쌀로 받아들이는 《대동법》으로 바뀌였다.

리조봉건국가에서 공물은 중요한 착취형태의 하나였다.

공물착취는 16세기이후 더욱 악랄해졌으며 16세기말~17세기초에는 절정에 이르게 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공물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을뿐아니라 그 수탈량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특히 인민들에게 고통을 준것은 하급관리들의 중간협잡과 공물을 대신 납부하는 《방납》현상이였다.

인민들은 이러한 가혹한 공물수탈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인민들의 투쟁에 겁을 먹은 봉건통치배들은 공물착취에 그 어떤 수정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편 수공업이 발전하고 상품류통이 촉진되여 돈만 있으면 필요한 물건을 시장을 통하여서도 살수 있는 조건이 점차 성숙되여가고있었다.

그리하여 16세기부터 이 문제를 계속 론의하여오던 봉건정부는 17세기초에 와서 공물을 쌀로 대신 수탈하는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였다.

대동법은 1608년에 경기에서 먼저 실시되였다.

대동법의 내용은 중앙관청에 바치던 공물과 진상, 지방관청에 바치던 각종 현물등을 다 없애고 그대신 토지 1결당 쌀을 16말씩 받는다는것이였다.

그해 5월 대동법을 집행하는 관청으로 선혜청을 새로 설치하였다.

대동법은 그후 1624년에 강원도에서, 1651년에는 충청도에서, 1657년-1662년에는 전라도에서, 1677년에는 경상도에서, 1708년에는 황해도에서 각각 실시되였다.

그리하여 1608년에 경기에서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대동법은 100년이 걸려서야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까지 실시되였다.

공물제도가 대동법으로 교체된것은 한 착취형태가 다른 착취형태로 바뀌여진데 지나지 않으며 착취관계에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난것은 결코 아니였다.

대동법의 실시는 봉건사회안에서의 상품생산의 발전과 그 류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화폐류통을 다그치게 하는데서도 일정한 역할을 놀았다.

금속화폐의 전국적류통

17세기이후 농업, 수공업이 발전하고 상품류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력사적으로 내려온 현물화폐인 쌀과 무명, 베 등의 제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사회경제생활에서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현실은 현물화폐보다 쓰기에 편리하고 가치판단을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할수

있는 그러한 화페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한편 봉건통치배들도 화페주조와 류통을 틀어쥐고 거기에서 리득을 짜내여 재정의 부족을 메꾸어볼 타산으로부터 금속화페류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17세기이후 봉건정부안에서 구리로 만든 금속화페를 류통시킬데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론의가 벌어졌으며 1620년대부터는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1625년에 구리돈인 《동국통보》와 《십전통보》가 주조되였다. 뒤이어 1634년에 상평청에서 《상평통보》라는 구리돈을 주조하였다.

이와 함께 봉건정부는 구리돈을 류통시키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그러나 그때 금속화페는 그 량도 얼마되지 않았거니와 1627년, 1637년 후금, 청나라의 침략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류통되지 못하였다.

금속화페류통은 165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나 전국적범위에서 류통되기 시작한것은 1678년이후부터였다.

봉건정부는 1678년에 금속화페의 전국적류통을 선포하고 뒤이어 호조, 상평청, 진휼청, 어영청, 사복시, 훈련도감 및 평안, 전라 두 도의 감영들에서 일제히 많은 량의 《상평통보》를 주조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금속화페는 전국적범위에서 중단없이 류통되게 되였다.

금속화페 《상평통보》의 전국적류통은 사회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였다.

1801년 공노비《방량》

봉건사회의 최하층신분으로서 온갖 멸시와 억압착취를 당해온 노비들은 언제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견결한 투쟁을 벌리였다.

극악한 노비법, 노비제도를 반대하는 노비신분인민들의 치렬한 계급투쟁의 불길속에서 노비제도는 점차 무너져갔다.

18세기말에 이르러 공노비의 수는 10여만을 훨씬 넘었으나 적지 않은 노비들이 노비대장에서 빠져나가 실지로 신공(신포)을 받을수 있는 공노비는 얼마되지 않았다. 봉건통치배들은 공노비의 존재가 이름만 남게 된 조건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차라리 페지함으로써 저들의 《선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치렬하게 벌어지는 노비들의 투쟁을 무마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봉건정부는 1801년 1월 28일에 공노비의 《방량》(노비를 량인으로 《해방》시킨다는 뜻)을 선포하였다.

이날 봉건정부는 3만 6 974명의 궁노비들을 등록한 160권의 노비명단과 2만 9 093명의 공노비를 등록한 1 209권의 노비명단을 창덕궁의 돈화문밖에서 불살랐다. 이리하여 6만 6 067명의 공노비와 궁노비들이 량인으로 되였다.

1801년 공노비《방량》은 노비제도의 전반적인 철페도 아니며 공노비제도의 철저한 변혁도 아니였다. 다만 한성과 지방에 있는 궁방 및 중앙 각 관청소속의 공노비들을 《방량》하였을뿐이였다.

중앙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의 《방량》이 있은 다음에도 전국의 도들과 군현들에 소속된 관노비, 역들에 소속된 역노비 등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또한 개인량반들이 가지고있던 사노비에 대해서는 전혀 다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공노비들은 《방량》되였으나 토지와 그밖의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천 자 문》

중국의 자전(글자사전)이다.

남조시기 량나라의 무제(6세기 전반기)가 주홍사에게 명하여 명필 왕희지의 필적에서 한자 1 000자를 골라 그것으로 한 글자의 중복도 없이 4자 250구로 된 문장을 만들게 하여 이루어진것이라고 한다.

주홍사가 이 글을 하루밤에 다 짓고 머리가 희여졌다고 하여 《천자문》을 《백수문》이라고도 한다.

《천자문》의 작자에 대하여서는 이밖에도 여러 설이 있으나 옛날부터 서당에서 이 책으로 한문을 가르치기 시작한것은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명필 한석봉의 필적으로 된 《천자문》이 알려졌다.

규 장 각

우리 나라는 일찍부터 가치있는 민족고전들을 가지고있었으며 그것을 귀중히 보관관리하며 열람하는 기관을 두었다.

고구려시기에는 태학을 설치하여 옛날책을 보관하고 열람하였으며 고려시기에는 림천각, 청연각을 설치하고 민족고전들을 보관열람하였다.

리조시기에 와서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수많은 옛날책들을 수집보관하고 열람하였을뿐아니라 출판사업까지 진행하였다.

규장각은 리조봉건국가의 중앙도서관이며 출판기관이였다.

리조봉건국가가 규장각을 설치한 목적은 봉건제도를 유지공고화하는데 필요한 도서를 수집보관하고 유교적관념에서 이른바 《리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자는데 있었다.

1464년에 처음으로 량성지가 규장각을 설치할것을 제기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694년에 비로소 설치하게 되였다.

규장각은 내각과 외각으로 되여있었는데 내각은 규장각 본각이며 외각은 규장각의 분관으로서 교서관과 강화도 외각으로 구성되여있었다.

내각은 규장각의 전반사업을 조직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도서의 수집, 보관, 정리사업과 그 편찬 및 간행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규장각에는 총 1 208건에 4 727부 3만 203책의 옛날책들이 보관되여있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민족고전의 수량과는 대비할것이 못되지만 약 200년전에 이와 같이 많은 장서를 가지고있었다는것은 놀라운 일이다.

리조시기의 도량형

리조봉건정부는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실현하는데서 기준으로 삼을 도량형제도를 통일적으로 제정하였다.

리조시기 도량형제도에 관한 규정은 15세기 후반기에 제정공포된 리조봉건국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공전에 실려있다.

《도》 즉 물건의 길이를 재는 자로서는 그 길이가 각이한 5가지의 자를 썼다.

이자들은 각기 10리가 1푼, 10푼이 1치(촌), 10치가 1자(척), 10자가 1길(장)이였다.

5가지 자의 이름과 m단위로 환산한 길이, 그 용도는 아래와 같다.

1. 포백척－1자=44.66㎝
용도－저수지, 화살대 등의 길이측정
2. 조레기척－1자=27.27㎝
용도－관청도장의 길이측정
3. 황종척－1자=33.13㎝
용도－각종 자의 기준
황종(악기의 한가지) 등의 크기측정
4. 주척－1자=약 20㎝
용도－도로의 길이측정, 토지측량
5. 영조척－1자=29.78㎝
용도－수도(한성)성안의 도로의 너비, 도랑의 크기 , 건물의 크기, 곤장과 신장의 길이, 사격거리 등 측정

《량》 즉 물건의 용적을 재기 위해서는 작, 되(승), 말(두), 섬(석) 등의 용기를 썼는데 10작이 1홉, 10홉이 1되, 10되가 1말, 15말(평석) 또는 20말(장석)이 1섬이였다.

말을 L단위로 환산하면 5.18L였다.

1894년 새 도량형법을 실시하면서 《소두》를 쓰게 되였는데 홉, 되, 말, 섬은 각각 종전의 0.58(례를 들어 1홉은 0.58홉, 섬《평석》은 8.7말)로 되였다.

《형》 즉 물건의 질량을 달기 위해서는 리, 푼, 돈, 량, 근을 썼는데 10리가 1푼, 10푼이 1돈, 10돈이 1량, 10량이 1근이였다.

《돈》, 《량》을 화페와 구별하기 위하여 말할 때는 흔히 《두돈중》, 《한량중》 등《중(질량)》을 붙여썼다.

g단위로 환산하면 1돈은 3.75g, 1근은 600g이였다.

3대고려의학고전

일찍부터 고려의학이 발전되여온 우리 나라에는 수많은 고려의학책들이 전해진다.

그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향약집성방》(85권, 1433년 유효통, 로중례, 박윤덕 편찬), 《의방류취》(1차 365권, 1433년-1445년에 편찬, 2차 266권, 1477년에 편찬), 《동의보감》(25권, 1610년 허준 편찬, 1611년 출판)이다.

《향약집성방》은 우리 나라 민족의학의 성과를 종합한 책이고《의방류취》는 동방의학을 집대성한 책이며《동의보감》은 동방의학의 모든 성과를 하나의 체계로 소화하여《고려의학》이라는 새로운 높이의 의학체계를 창조한 고려의학백과전서이다.

비 차

비차란《날아가는 수레》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타고 비행할수 있는 일종의 활공기인데 임진조국전쟁초기에 창안리용된 특출한 발명이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임진조국전쟁초기에 왜적이 경상남도의 진주성을 포위하였을 때 비차에 사람이 타고 30리를 날아 외부와의 련계를 보장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보다 이른 시기인 13세기와 14세기에도 사람을 태운 큰 연을 리용한 사실이 전해지고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비차는 가죽으로 된 큰 연에 날개를 붙이고 그안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여 사람이 움직이도록 한것인데 여기에 련결된 발줄을 움직이면 바람을 내면서 공중에 떠서 날아가게 되여있었다.

비차는 세계적으로 볼 때 사람이 타고 비행한 최초의 군용활공기로 된다.

사실 중세기에 《나는 수단》에 대한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할수 있다. 있었다면 도이췰란드와 중국에서《나는 수단》에 대한 착상이 일부 제기되였으나 그것마저 실용화되지는 못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 이러한 착상이 제기된것이 1845~1855년이였다는것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에서의 비차는 그보다 250년이상이나 앞서서 실용화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비격진천뢰

비격진천뢰는 임진조국전쟁초기에 만들어져 리용된 신관이 있는 시한탄이다.

당시 평범한 화포기술자였던 리장손은 종래부터 일부 써오던 진천뢰(하늘을 뒤흔드는 벼락이라는 뜻)를 개량하여 《대완구》를 비롯한 포로써 발사할수 있게 만들었다.

비격진천뢰는 대완구포에 넣고 쏘면 500~600보가량 날아가 떨어졌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 터지게 되여있었다.

비격진천뢰의 폭발시간은 참대통안에 있는 신관으로 조절하였다.

즉 참대통안에 감아놓은 화약선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폭발지연시간을 조절하였다.

비격진천뢰는 크게 보아서 별대비격진천뢰(바깥직경 33㎝, 질량 71.62㎏)와 대비격진천뢰, 중비격진천뢰(바깥직경 19㎝, 질량 17㎏)가 있었다. 비격진천뢰는 그 폭발위력과 파편, 요란한 폭음으로 하여 임진조국전쟁시기 적들을 당황망조케 하였다.

1592년 8월 적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했던 경주성을 되찾는 전투에서 비격진천뢰를 사용하였는데 적들은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고《귀신의 조화》라고 하면서 도망쳤다.

비격진천뢰는 세계적으로 볼 때 신관장치가 달린 시한탄의 첫 형태였다.

그러므로 세계의 화포력사에서도 비격진천뢰를 최초의 시한탄이라고 평가하고있는것이다.

16세기의 화포

16세기의 화포로서 대표적인것은 천자, 지자, 현자, 황자총통이였다.

이것은《천자문》에 있는 첫 네개 글자(천지현황)의 순위로 보아 제1호총통, 제2호총통, 제3호총통, 제4호총통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인데 모두가 직사포였다.

이 포들에서는 고려시기보다 포신이 훨씬 길어졌고 구경도 훨씬 늘어났으며 명중률도 많이 높아졌다.

이 화포들에서는 손잡이쪽에 있는 구멍으로 화약을 다져넣은 다음 심지에 불을 달면 포신아구리로 넣었던 쇠나 돌덩이, 불화살들이 화약의 폭발력에 의해 발사되게 되여있었다.

천자총통인 경우 질량이 50근(30㎏)이나 되는 대장군전을 1 200보까지 날려보낼수 있었다고 한다.

화 차

1409년에 최해산이 화차라는 전투장비를 창안하였는데 그것은 일종의 장갑차였다.

화차는 화약무기(화포)를 차우에 싣고다니면서 불화살들을 쏠수 있게 한 수레였는데 사수를 보호하는 장갑장치가 붙어있었다.

그후인 1451년에는 더욱 개선된 화차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신기전》이라는 불화살 100개를 쏘는 7층구조의 련발발사대를 싣고 다니게 되여있었다.

이 화차에는 사수들의 몸을 가리우는 방패가 설치되여있었고 불이 달리는것을

막기 위하여 당반과 화살이 나가는 구멍에까지 철판을 씌웠으며 화차의 앞과 옆에는 칼과 창들을 꽂아 적이 접근할수 없게 하였다.

1451년에 이러한 화차들이 337량이나 제작되여 국경과 해안의 군사기지들에 배치되였고 임진조국전쟁때에는 경주성해방전투와 행주성방어전투 등에 널리 리용되였다.

불화살－《신기전》

불화살인 《신기전》은 그 크기와 구조에 따라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으로 구별되여있었다.

소신기전은 화살의 꼬리부분에 있는 《약통》에 불을 달았을 때 뒤로 내뿜는 화약가스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 화약이 다 탔을 때 그앞에 있는《외통》에 불이 넘어가 먼곳까지 날아갈수 있게 한 일종의 《2단로케트》였다.

중신기전은 소신기전보다《소발화》라고 하는 화약통이 하나 더 있는것이였고 대신기전은 《약통》, 《외통》, 《지화》, 《소발화》의 4개 화약통이 달려있는것이였다. 특히 대신기전은 허리부분에 날개까지 달려있어서 정확히 비행할수 있었다. 15세기에 이처럼 우수한 불화살을 창안제작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무기발전사에서 하나의 큰 자랑으로 된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러한 다계단 불화살을 리용하기 시작한것은 17세기부터였다.

단천련은법

1503년에 지금의 함경남도의 단천에서 김검동과 김감불이라는 사람이 광석에서 연과 은을 따로 뽑아내는 새로운 제련법을 발명하였는데 그것을 단천련은법이라고 불렀다.

이 제련법에 의하면 쇠로 만든 남비의 안벽에 석회를 가공한 내화물질을 바르고 광석덩어리를 채운 다음 남비전체를 질그릇쪼각으로 덮고 그 우아래에 쌓은 숯에 불을 달아 광석을 녹이게 되여있었다. 광석이 녹으면 연이 먼저 흘러내리고 은은 우로 끓어오르게 되여있으므로 은과 연을 손쉽게 갈라낼수 있었다.

석탄의 자연발화의 원인을 처음으로 알아낸 기록

석탄속에 포함되여있는 류황성분에 의하여 석탄이 자연발화한다는것을 처음으로 발견한것은 조선사람들이였다. 옛 기록에 의하면 1445년 4월 녕해에서 땅불이 일어났는데 푸른 연기가 나고 석류황이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하였으며 석탄속에 류황이 포함되여있어 불탄다고 하였다. 이 발견은 유럽에서 석탄의 자연발화의 원인을 처음 연구하여 발표한 영국인 드르글로드(1686년)보다 200년이나 앞선것으로서 당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간 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서 년, 월, 일, 시간과 방향 등을 표시하는데 10개의 《간》(천간)과 12개의 《지》(지지)를 썼는데 이것을 《간지》(또는 6갑)라 하였다.

10간은《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이며 12지는《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이다.

10간과 12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맞추면 12지의 마지막 두 글자는 10간의 다음 돌기의 첫 두 글자에 맞추어진다. 그다음 12지의 두번째 돌기의 첫글자는 10간의 두번째 돌기 세번째 글자와 맞추어진다.

이렇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같은 60개의 서로 다른 맞춤이 된 다음 61번째는 《갑자》부터 되풀이된다.

사람들이 나이 60살이 되면 《회갑》 또는 《환갑》나이라고 하는것은 60갑자를 다시 맞는 나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동갑》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중세기와 근대에 력사적년대를 쓸 때에는 간지도 함께 쓰는것이 보통이였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가 선 해(918년)는《영락 1년 태조 무인》, 우리 민족의 고유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1443년 음력)는 《세종 25년 계해》라고 하였다.

옛날의 력사적사실들도 흔히 간지에 의하여 불리여오고있는데 대표적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임진(1592년)조국전쟁
병자(1636년)전쟁(조선- 청전쟁)
병인(1866년)양요
신미(1871년)양요 (미국함대의 격퇴)
임오(1882년)군인폭동
갑신(1884년)정변 (개화파의 정변)
갑오(1894년)농민전쟁, 갑오개혁(부르죠아개혁)
을사(1905년)5조약 조작
정미(1907년)7조약 조작
경술년(1910년)망국(리조봉건국가 멸망)
기미년(1919년)만세투쟁 (3.1운동)
경신년(1920년)《토벌》 (일제침략군의 지엔다오(간도)《토벌》)

12지는 시간을 표시하는데도 쓰이였다.

자시	밤	11시- 1시	오시	낮	11시-1시
축시	밤	1 시- 3시	미시	낮	1시-3시
인시	밤	3시- 5시	신시	낮	3시- 5시
묘시	새벽	5시- 7시	유시	낮	5시- 7시
진시	아침	7시-9시	술시	저녁	7시-9시
사시	아침	9시-11시	해시	밤	9시- 11시

낮 12를 《정오》라고 하며 밤 12시는 《자정》이라고 한다.

근세에 와서 《정오》전을 《오전》, 《정오》후를 《오후》라고 하게 되였다.

12지는 방향을 표시하는데도 쓰이였다.

오늘 쓰는 자오(북-남)선 묘유(동-서)선도 12지에서 나온것이다.

밤시간을 나타내는 《경》

중세기 우리 나라에서 밤시간을 표시하는데 12지와 함께 《경》도 썼는데 하루밤을 다음과 같이 5경으로 나누었다.

초경	오후	8시-10시	4경	오전	2시-4시
2경	오후	10시-12시	5경	오전	4시-6시
3경	오후	12시-오전 2시			

《야밤3경(제일 깊은 밤중)》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것이다.

경(120분)은 5점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1점은 24분이다.

례를 들어 오전 1시경을 3경 2점이라고 하였는데 정확히는 0시 45분-1시 12분사이이다.

우리 나라 년호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년호가 쓰이였다.

특히 황제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고있던 고구려와 발해, 고려(전반기)에서는 년호가 널리 쓰이였다.

그러나 봉건력사가들이 사대주의적립장에서 제대로 기록해놓지 않았으므로 다는 알수 없다.

현재 력사책들과 비석 등에 남아있는 우리 나라 년호를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년대순)

년호	나라	통치자	쓰기 시작한 해	쓴 해수
건시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	3
태녕	고구려	소수림왕	374년	4이상
영락	고구려	광개토왕	391년	22
태화	백제	전지왕	405년	4이상
연가	고구려	장수왕	413년	7이상
연수	고구려	장수왕	451년	1이상
건흥	고구려	장수왕	472년	5이상
백선	고구려	문자왕	508년	4이상
건원	신라	법흥왕	536년	16
태화	고구려	양원왕	544년	3이상
개국	신라	진흥왕	551년	17
영강	고구려	평원왕	565년	7이상
태창	신라	진흥왕	568년	4
홍제	신라	진흥왕	572년	13
건복	신라	진평왕	584년	50
인평	신라	선덕녀왕	634년	14
태화	신라	진덕녀왕	647년	4
천통	발해	고왕	698년	23
인안	발해	무왕	719년	19
대흥	발해	문왕	737년	약 50
보력	발해	문왕	774년	7이상
중흥	발해	성왕	794년	1
정력	발해	강왕	794년	15
영덕	발해	정왕	808년	5
주작	발해	희왕	812년	5
태시	발해	간왕	816년	2
건흥	발해	선왕	817년	14
경운	장안국	김헌창	822년	1
함화	발해	대이진	831년	27
건황	발해	원왕	858년	13
현석	발해	경왕	872년	13
위해	발해	경왕	894년	12
무태	마진(태봉)	궁예	904년	2

성책	마진(태봉)	궁예	905년	7
인선	발해	애왕	906년	20
수덕만세	태봉	궁예	911년	4
정개	태봉	궁예	914년	5
천수	고려	태조	918년	16
광덕	고려	광종	950년	2
준풍	고려	광종	960년	4
원흥	정안국	오현명	976년	16이상
천경(천흥)	흥료국	대연림	1029년	2
륭기	대발해	고영창	1116년	1
응순	대발해	고영창	1116년	1
천개	대위국	묘청	1136년	2
건양	리조	고종	1896년	2
광무	리조	고종	1897년	11
륭희	리조	순종	1907년	4

조 보

우리 나라에서 15세기초에 낸 세계 최초의 신문이다.

《기별지》라고도 하였다.

조보는 봉건통치배들이 국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변들과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정형을 제때에 통보할수 있게 하기 위해 발행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신문처럼 그 어떤 신문제호가 붙은것이 아니라 종이에 날자를 쓰고 각이한 사변들을 라렬식으로 써내려간것이였다.

조보는 19세기말에 이르러 근대적신문인 《한성순보》로 발전하였다.

도의 딴이름 몇가지

중세기 경기와 7개 도는 딴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평안도는 《관서》, 함경도는 《관북》, 강원도는 《관동》이라고 하였으며 황해도는《해서》, 충청도는 《호서》, 전라도는 《호남》, 경상도는 《령남》이라고 불렀다.

평안도지방의 8개 명승을 《관서8경》, 임진조국전쟁때 함경도지방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른 승리를 《관북대승리》, 전라도지방의 벌을 《호남평야》라고 한것이 그 실례이다.

《관동》, 《관서》, 《관북》은 각각 고려때 《철령관》이라는 관원이 설치되여 있던 철령의 동쪽, 서쪽, 북쪽이라는 뜻이며 《해서》는 바다(조선서해)서쪽, 《호서》와 《호남》은 옛날 관개용저수지인 의림호(의림지)의 서쪽과 남쪽이라는 뜻이 그리고 리조시기에 태백산줄기를 경계로 그 동쪽을 《령동》, 서쪽을 《령서》라고도 하였다.

이밖의 도들도 그 남도와 북도지역을 딴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즉 평안도는 청천강을 경계로《청남》,《청북》, 함경도는 마천령을 경계로《남관》, 《북관》으로 불렀다.

경기 역시 한강을 경계로 그 남북지역을《한남》,《한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2~3개의 도의 딴이름을 아울러 《기호》(경기와 충청도), 《량서》(평안도와 황해도), 《량호》(충청도와 전라도), 《량남》(전라도와 경상도),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8도와 13도실시, 도명칭의 유래

1413년에 8도로 됨.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1896년에 13도로 됨.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평안도-평양의 《평》과 안주의 《안》

함경도-함주의 《함》과 경성의 《경》

황해도-황주의 《황》과 해주의 《해》

강원도-강릉의 《강》과 원주의《원》

충청도- 충주의《충》과 청주의 《청》

전라도-전주의 《전》과 라주의 《라》

경상도- 경주의 《경》과 상주의 《상》

남도와 북도, 좌도와 우도

리조시기 일부 도들을 남도와 북도 또는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다.

그중 충청도는 금강을 경계로 그 좌안을 좌도, 우안을 우도로, 전라도는 로령을 경계로 그 남쪽을 좌도, 북쪽을 우도로, 경상도는 락동강을 경계로 그 좌안을 좌도, 우안을 우도로 나누었다.

그러나 남도와 북도, 좌도와 우도는 13도때의 함경남도, 함경북도나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과 같은 지방행정단위는 아니였다.

그러므로 우에 든 도들에 행정장관인 관찰사(감사)는 한명씩 배치하였다.

그러나 병마절도사(병사)와 수군절도사(수사)는 남도와 북도, 좌도와 우도에 각각 따로 배치하였다.

중세기 조선사람의 이름과 별호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이름을 여러가지로 지어 불러왔다.

어릴 때의 이름을 아명, 집안의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을 본명, 별명을 자, 죽은 다음 관청에서 지어주는 이름은 시호라고 하였다.

아명-어린아이에게 붙여 막 부르는 이름이다. 갑오농민전쟁의 지휘자 전봉준의 아명은 녹두, 명숙이였다.

본명-집안의 어른들이 가문의 항렬(같은 성씨의 대수를 나타내는 우의 글자 또는 아래글자)에 맞추어 지어주는 이름이다.

모든 국가적인 공문서에는 본명을 썼으며 다른 이름은 쓰지 못하게 되여있었다.

본명도 고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례컨대 정몽주의 첫 이름은 몽란, 두번째 이름은 몽룡, 마감으로 고친 이름이 몽주이다.

자-장가간 다음에 짓는 이름인데 이것은 당시 봉건적관념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웃어른들이 지어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하여 쓰이였다.

자도 2개이상 있는 경우가 있었다.

호-본명밖에 비공식으로 허물없이 쓰기 위하여 지은 이름이다. 별호라고도 한다.

옛날 봉건관료, 학자, 문인, 서예가, 화가 등은 대개 본명과 자 이외에 호를 가지고있었다.

호는 대체로 두 글자로 지었는데 아래글자는 물《강》(송강-정철), 골짜기《곡》(률곡-리이), 시내《계》(리퇴계-리황), 못《담》(화담-서경덕), 집《당》(완당-김정희), 문《문》(록문-임성주), 봉우리《봉》(지봉-리수광), 정자《정》(초정-박제가),

집《재》(용재-성현, 규재-남병철), 내《천》(약천-남구만), 마을《촌》(양촌-권근), 물가《포》(서포-김만중), 마루《헌》(담헌-홍대용), 호수《호》(성호-리익), 바위《암》(의암-류린석), 늙은이《옹》(력옹-리제현), 구름《운》(고운-최치원), 언덕《애》(서애-류성룡), 동산《원》(혜원-신윤복) 등으로 되여있다.

호는 중들도 가지고있었는데 이름난 중 휴정의 호는 서산 또는 청허자였고 유정의 호는 송운 또는 사명당이였다.(서산대사, 송운대사는 그들을 높이여 부른 말이다.)

호에는 3자 또는 4자로 된것도 있었는데 매월당(김시습), 두성령(리암), 명남주(최한기), 고산자(김정호) 등과 녀류시인이며 화가인 신씨의 사임당, 녀류시인 허씨의 란설헌 등은 널리 알려져있다.

그리고 백운거사(리규보)는 4자로 된 호이다.

호는 한사람이 2개이상 지어 10개이상이나 가지고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호를 많이 가지고있던 사람으로서 정약용(다산, 여유당, 사암, 죽옹, 균암, 렬초, 심미자)과 김정희(추사, 완당, 레당, 시암, 적고당 등등) 등을 들수 있다.

호는 연암 박지원과 같이 성과 이름앞에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정다산과 같이 성과 호만 부르는 경우 《지봉선생집(리수광의 문집)》과 같이 호에 《선생》을 붙여 부르는 등 여러가지로 불리웠다.

학자, 문인들의 저서작품들을 묶은 문집을 대개 《○○선생문집》,《○○유고집》등으로 부른다.

옛날 관료, 학자, 문인, 서예가, 화가 등 가운데서 본명보다도 호가 더 널리 알려진 사람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실례로서 리률곡, 리퇴계 등 호가 국내는 물론 일본에까지 널리 알려진 리이, 리황과 류형원(호 반계)을 비롯한 실학자들, 우리 나라 3대명필로 꼽히는 양사언(호 봉래), 한호(호 석봉), 김정희(호 추사) 그리고 명화가인 안견(호 현동자), 김홍도(호 단원) 등을 들수 있다.

시호-죽은 다음 봉건국가가 이름난 정치가, 학자, 장군 등에게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주는 칭호이다.

임진조국전쟁때 가장 큰 군공을 세운 리순신장군의 시호는 《충무》였으며 고려말기 리성계일파의 왕위찬탈을 반대하고 고려왕조에 대한 《충의》와 절개를 끝까지 지킨 정몽주의 시호는 《문충》이였다.

시호는《공》자를 붙여《충무공》(리순신장군의 문집은《리충무공전서》라고 한다),《문춘공》 등으로 불렀다.

봉호-왕족들과 봉건국가에 공로가 있는 인물들에게 주는 칭호이다.

리조말 고종때 섭정한 리하응은 흔히 《대원군》으로 부르는데 그의 봉호는《흥선대원군》이였다.

그리고 고려말에 화포를 제조하여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큰 공로가 있는 최무선은 《경성부원군》의 봉호를 받았다.

이밖에 자나 호도 아닌《별명》으로 알려진 인물로서 리조말기 풍자시인《김삿갓》(본명 김병연)과 그림《농민생활도》로 이름난 화가 우진호(본명 우수관 호는 송파) 등을 들수 있다.

물론 시호나 봉호는 말할것 없고 자나 호도 량반들이나 량인 상층만이 가질수 있었고 량인 하층이나 《천민》(노비)들은 가질수 없었다.

특히 《천민》들은 성은 물론 똑똑한 이름도 가질수 없었다.

근대조선

19세기 60년대-80년대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

상업의 발전

개인상인들가운데서 개경상인들의 활동이 특히 활발하였다.

그들은 전국 각지의 상업중심지들에《송방》을 차려놓고 각종 천류들과 갓량, 약재, 피물 등을 팔아서 막대한 리득을 얻었다.

특히 인삼의 판매권을 독차지한 개경상인들은 비밀리에 홍삼을 만들어 지방상인들과 긴밀한 련계밑에 안주, 의주 등지에 가져다가 팖으로써 큰 리익을 보았다.

개경상인들의 상업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였는가 하는것은 송상들의 상업부기책인 《타급장책》의 기록에 의해서도 알수 있다.

송상 박광수의 1년간 상품취급거래회수는 무려 400~600회이상에 이르렀으며 그 자금은 최고 45만 9 000여량에 달했고 해마다 수만량 지어는 수십만량씩 장성하였다.

송상 박광수의 자금장성표

년 대	상품취급거래회수	년간 거래총액(단위량, 전)
1877년	434	68 801 68
1878년	423	110 984 74
1879년	415	163 556 56
1880년	381	91 864 48
1881년	514	146 671 63
1882년	616	187 456 19
1883년	488	222 021 46
1884년	66	459 101 26

19세기 후반기 상업발전에서의 특징은 시장망이 확대되고 전국적규모에서 상품교류가 더욱 활발해진것이다.

18세기말~19세기초 중엽에 이미 시장망이 발전하고 지역적시장권이 공고하게 형성된데 기초하여 19세기 후반기에는 지역과 지역간 시장망들의 련계가 강화되면서 마침내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시장망이 형성되게 되였다.

당시 개천에는 읍내장, 북원장 등 큰 장들이 있었는데 읍내장에서는 안주, 녕변, 가산, 박천, 은산, 순천, 덕천 등지의 상인들이 모여들어 산간지대에서 생산되는 물건들과 평야와 바다가지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해산물들이 교환되였다.(《조양읍지》) 그리고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녕변, 박천, 진두 등지와 련결되여있는 북원장은 북으로는 희천, 강계의 상인들이, 남으로는 안주, 박천 등지의 상인들이 자주 오가면서 여러가지 상품을 교환하는 큰 장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 장들은 종래의 협소한 지방적시장의 범위를 벗어나 점차 비교적 넓은 지역을 포괄하게 되였다.

이러한 지역적범위의 시장권들은 다른 지역의 시장권과 서로 밀접한 련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점차 전국적인 시장망으로 형성되여갔다.

황해도 봉산의 은파장에는 전라도지방에서 생산되는 수공업제품 특히 참대수공

업품들이 적지 않게 류통되고있었다. 그리고 은파장에는 함경도상인들에 의하여 베천들이 적지 않게 흘러들어왔으며 황해도지방에서 생산되는 목화와 면직물들이 함경도지방에로 팔려갔다.

19세기 후반기에 화평의 포상(베장사치)들은 회령, 부령, 온성, 종성, 경원, 경흥 등 6진지방의 특산물인 가는 베를 사가지고 원산장에 가서 팔고 남쪽지방에서 생산되는 무명을 비롯한 여러가지 상품들을 사감으로써 남방의 시장들과 북쪽의 시장들을 련결시키였다.

종래 함경도상인들의 활동범위는 남으로는 대체로 함흥, 원산 등지에 국한되여 있었다. 물론 함경도상인들이 멀리 남쪽까지 진출하는 일은 있었지만 배를 리용하지 않는 상인들이 원산이남에 진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기에는 포상들이 한성에까지 진출하여 그곳 포전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기 시작하였으며 한성근방에서 공개적으로 상품을 벌려놓고 경쟁적으로 상업을 진행하였다.

황해도 토산의 비천장은 개경상인들의 독점무대로 된 장시로서 이곳에는 6진지방의 북포(베천)와 원산지방의 마른 고기, 미역 등 해산물들이 적지 않게 류통되였으며 중부이남지역의 무명과 기타 상품들도 많이 모여들었다.

이와 같이 동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상품들이 륙로를 통하여 호상 교류되는가하면 전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생산물들이 서부지역으로 류통되여가기도 하였다.

국내시장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던 상품은 자본주의적수공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이였다.

개천의 쇠부리, 가마부리제품들은 우에서 본 서부지방의 시장권내의 장시들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안성놋그릇공장들에서 나오는 놋그릇제품은 적어도 한해에 60만개에 달하였고 납청놋그릇공장들에서는 30만~40만조에 달하였는데 그 제품들은 안성의《붓배기》, 납청의《방장》이란 이름으로 전국 각지 시장들에서 팔렸으며 당시 인민들이 쓰는 놋그릇의 거의 대부분은 자본주의적수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였다.

또한 각종 종이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종이제품들도 상업자본에 의하여 생산지에서 소비지에로 수송되여 전국 각지에서 팔렸을뿐아니라 많은 량이 또한 대외시장에도 진출하였다.

당시 생산된 종이류들가운데서 간지, 장지, 주문지, 표전지, 도련지, 상표지, 서계지, 안지, 재화지, 백주지, 화약지, 선지, 백로지, 설화지 등이 유명하였는데 전라도에서 생산된 종이는 전주에 집결되였다가 한성으로 수송되였으며 평양과 북부지역의 상인들에 의하여 서부 및 동북지역 시장들에까지 팔렸다. 경상도에서의 종이시장은 진주, 의령, 하동 등지였는데 여기에 집결된 종이는 부산, 인천, 대구 등지에로 류통되여갔다.

또한 각지 직포공장들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점차 국내시장에서 가내수공업제품들을 밀어제끼고있었으며 개경유지제조업에서 생산된 각종 부채, 양산, 우산, 비옷, 종이함, 담배쌈지를 비롯한 일용잡화들도 국내시장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었다.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

봉건경제의 태안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적단순협업은 공장제수공업으로 발전하며 그것이 다시 기계제생산에로 이행하는것은 자본주의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19세기초에 발생성장하기 시작하였던 놋그릇제조업에서 자본주의적관계는 19세기 6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정주의 납청에서 큰 놋그릇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장을 경영하고있었던 렴아무개와 같은자는 놋그릇점을 경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놋그릇점에 자금과 원료를 대주고 그 리익을 절반씩 나누어가지였다. 그는 놋그릇생산을 직접 지배하면서 고용로동자들을 착취하는 기업주인 동시에 소영업장들을 자신의 자본에 예속시키고 그들의 놋점들을 직접 분점으로 전환시켜 상업리윤까지 착취하는 대경영주이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납청에는 이러한 놋그릇수공업공장들이 30여개나 있었다.

자본주의적방법으로 경영되는 놋그릇제조업은 비단 개경, 납청에서뿐아니라 경기의 안성과 전라도의 구례, 전주, 황해도 재령군의 상방면과 은산면 일대에서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19세기 중엽에 이미 홍원읍 남문밖의 《놋점거리》에서만도 13명의 경영주에 의해서 20개의 작업장이 운영되고있었다.

박천군 룡계면 원산동에서도 19세기 80년대에 10개의 놋그릇공장제수공업장이 있었다.

여러가지 그릇을 만드는 각지의 놋그릇제조업자들은 서로 생산적 및 지역적련계를 맺고 생산을 전문화하면서 경쟁적으로 판로를 확대하였다.

철가공공업에서도 자본주의적경영이 확대발전하였다.

이전부터 철가공공업의 중심지의 하나였던 개천 무진대는 이 시기에 들어와서 철제품생산의 발전으로 하여 더욱 성황을 이루었다. 19세기말에 이곳 호수는 150호였는데 그 50%이상이 가마부리수공업에 종사하고있었다.

19세기 60~70년대에는 박아무개밖에도 3~4명의 큰 가마부리물주들이 솥을 생산하였다. 박아무개가 경영하는 3개의 작업장에는 80~90명의 로동자들이 고용되고 있었다.

매개의 가마부리수공업장은 한개의 로를 단위로 하여 조직되였으며 매개 수공업장에서는 약 30명씩의 고용로동자들이 원대장(책임기능공)의 지휘밑에 분업적협업에 기초하여 생산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장들에서는 10일간에 크고작은 여러가지 솥 1 000여개를 생산하였다.

1885년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의 홍아무개가 경영하는 솥공장에서는 50여명의 로동자들이 고용되여있었다.

1886년에는 황해도 금천군 금천면 천리에 《박통운주물공장》이 설치되여 솥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였다.

철제품생산이 더욱 전문화되면서 농기구생산에서도 자본주의적기업이 출현하였다.

1887년에 자본가 김아무개가 창설한 《김철공장》에서는 여러가지 농기구생산을 전문화하고 제품에는 《김》자를 새겨 자기 기업소제품의 질을 자랑하였다.

자본주의방법으로 농기구를 생산하는것은 이밖에 평양, 안주, 의주, 녕변, 개천, 덕천, 신천, 수원, 한성, 인천, 전주 등 많은 지역에서 발전하고있었으며 보습, 호미, 낫, 작두, 칼 등과 각종 단조품그릇, 장식품들이 수출되여 대외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세기 후반기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에서 주목되는것은 오랜 기간 가내수공업단계에 머무르고있던 면직물생산과 견직물생산부문에서 자본주의적경영형태가 나타난것이였다.

1884년 견직공업을 위한 회사들이 창설되고 자본가들에 의하여 직포공장이 세

워졌다.

1899년에 민간인 자본가와 봉건관료들의 합작형태로《한성방적고분회사》가 나왔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면공장, 염직소, 직조소 등이 창설되였다.

한성의 자본가 박아무개외 몇몇의 자본가들은 약 15만냥의 돈을 모아 직조회사와 염직회사를 무었는데 이 회사들은 방직, 제사, 염색공업을 다 경영하였으며 1906년 현재 400여명의 로동자를 고용하고있었다.(《황성신문》광무 10년 6월 22일) 19세기말부터 방직공업에서는 근대적기계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백목전도고가 조직한 회사의 녀성로동자들은 직조기 기대당 날마다 70~80자의 천을 짰다. 기계제생산이 출현함으로써 방직공업에서는 생산공정이 단축되고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지게 되였다.

기업가들은 방직공업에 기계제생산을 받아들인 후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하던 가난한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고용하여 매우 낮은 임금으로 그들의 로력을 착취하였다.

종이생산부문에서도 종이에 대한 국내외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본주의적생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종이생산에서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에로의 이행과정이 촉진되고 기계제생산이 도입된 결과 전업적인 종이공장이 수많이 건설되였다.

《중률제지소》(1869년), 《마안제지소》(1873년) , 《김동원제지공장》(1877년) ,《김문삼제지공장》(1887년), 《교안제지공장》(1887년), 《청운제지공장》(1889년) 등은 19세기 60~80년대 전라도, 경상도지방에 새로 창설된 대표적인 공장들이였다.

이러한 제지공장들이 창설된 결과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질좋은 각종 종이가 많이 생산되여 끊임없이 늘어나는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게 되였다.

조선종이수출정형(해상무역)

년 도	수출량(단위당)	금액(단위 US＄)	단가(1인당US＄)
1886년	48	600	12.5
1887년	84	1 989	23.5
1888년	594	13 061	21.98
1889년	347	7 954	22.93
1890년	1 127	23 444	23.46

(《조선지》, 434~435페지)

요업부문에서도 자본주의적경영방법이 발전하고 확대되였으며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의하여 기계가 도입되였다.

민간의 봉건적도자기생산조직체인《사요》가 개인자본가들의 소유로 전환되고 봉건국가의 도자기생산조직체였던 《관요》는 해체되면서 자본가들의 손에 넘어갔다.

※ 경기도 광주 분원리에 있던 봉건국가의 한 자기소는 1890년에 페지되고 도서원의 개인소유로 되였으며 이에 따라 분원리 수백호의 농민들은 종전처럼 거기에서 부역로동을 당한것이 아니라 고용로동자로 전화하였다.(《조선의 요업》130~131페지)

도자기작업장에서도 자본주의적관계에 의하여 생산이 진행되였으며 편수와 청장, 불편수 등의 전문기능공들과 질굴장, 질발이이군, 뒤일군 등으로 불리운 보조성원들

사이에서 분업적협업이 이루어지고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경영된 비교적 큰 규모의 도자기공장은 1895년 현재 35개나 있었다.(《조선의 요업》14~52페지)

그가운데서도 19세기 후반기에 창설된 대표적요업공장으로서는 《리병익도자기공장》 (1868년 황해도 수안), 《 안룡건자기점》(1872년 평안도 선천),《 장상국도자기공장》(1881년 전라도 장성), 《명준길제옹소》(1887년 평안도 대동군), 《박수동도자기공장》(1893년 경상도 청도) 등이 있었으며 그후에도《장선원도자기공장》(1898년), 《오동룡자기공장》(1897년), 《장봉세자기공장》(1899년) 등 큰 공장들이 련이어 창설되였다.

19세기 후반기에는 가공공업에서뿐만아니라 채취공업부문에서도 자본주의적관계가 현저히 발전하였다.

봉건정부는 1884년 광무국이라는 기구를 조직하여 개인광업경영을 통제하였으며 광군(광산로동자)수에 따라 세금(년평균 금광에서는 한 사람당 금 7푼)을 현물로 수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써는 개인물주들에 의하여 계속 장성하는 자본주의기업(종전의 잠채)의 발전을 막아낼수 없었다.

영흥(금야)금광에서는 1885년에 약 2 000명의 광군들이 일하였는데 그것이 1890년초에는 약 4 000명으로 늘어났으며 1885년이전에 평강의 금광들에서도 약 3 000명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금이 생산되였고 회양의 금광들에서는 1877년경에 4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일하였다고 한다.

19세기말에 이름난 금광들인 홀동금광의 광주 리근영을 비롯하여 락연금광, 운산금광, 안변금광의 광주들은 대체로 수십수백명의 로동자들을 고용하고있었으며 순안금광의 광주들인 리명순, 리태순 등은 500~600명의 로동자들을 고용하여 금을 캤다.

금생산과 함께 은, 동생산도 발전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큰 은광수는 21개소였다.

당시 장진은광에는 100여명의 고용로동자들이 일하고있었는데 이들의 일부는 자본주의적으로 경영하는 개인광주에게 예속되여 일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관영기업에 고용되여 일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동광수는 24개로 늘어났는데 그가운데서 갑산 고진동광산은 가장 큰것으로 알려져있었다.

쇠돌생산부문에서도 자본주의적관계가 확대발전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철광수는 39개소에 이르고있었는데 무산, 단천, 은률 등 광산의 규모가 가장 컸다. 개천과 은률지방의 광산들에서 생산되는 쇠돌량도 많았다. 1900년을 전후하여 은률지방의 광산들에서는 7만t에 가까운 쇠돌이 생산되였으며 안악에서도 년 5만t의 쇠돌이 생산되였는데 그 생산량의 적지 않은 부분은 개인물주들에 의하여 생산된것이였다.(《조선연구》(일문) 335-336페지)

이 시기 탄광개발이 시작된것은 우리 나라 산업발전에서 특기할만 한 사실이다.

1880년대부터 평양부근(삼신, 사동)의 탄광들과 평안도 남부지방의 탄광들이 개인기업가들에 의하여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 탄광들의 개발은 처음에 평안도의 어느 한 관리에 의하여 시작되였는데 그는 봉건정부에 바치는 세금때문에 평양에 거주하는 개인기업가 량아무개에게 채굴권을 넘김으로써 탄광은 자본주의적관계에 의하여 개발되고 경영되게 되였다.

채취공업에서의 자본주의적경영의 발전은 이 분야에서의 자본의 축적과 경영규

모의 확대발전에서도 뚜렷이 표현되였다.

1898년 강원도 당현의 석금광 경영주는 광산설비에 약 20만냥의 자본을 투자하였으며 홀동광산에서는 정아무개를 비롯한 몇몇 경영주들이 광산설비확장에 14만 8 000냥을 투자하였다.

19세기 후반기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의 다른 하나는 기계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한것이였다.

19세기 50년대이후 광업부문에서는 일종의 기계화가 도입되였다. 그것은 천공발파법에 의하여 대량적으로 채굴된 광석을 밀차로 운반한것이다.

광업부문에서 밀차의 도입은 당시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단계로 볼 때 그것은 기계의 도입이 실현단계에 들어서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였다.

공장제수공업으로부터 기계제생산에로의 이행과정은 이전의 기술적성과와 새로운 자본주의적생산조직에 토대하여 발전하여온 놋그릇제조업, 야금업, 철가공공업 그리고 그밖의 종이생산업, 요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의 기계의 부분적인 도입에 의하여 실현되였다.

또한 1883년 6월부터는 한성 증촌에 개인자본가들에 의하여 담배를 만드는《권연국》, 술을 만드는 《양춘국》 그리고 두부와 떡을 만드는 《두병국》 등이 설치되였으며 여기에서는 근대적인 기계기술을 받아들여 식료품들을 가공하였다.

19세기 후반기 사회계급관계의 변화

19세기 후반기의 계급구성에서는 새로 발생한 로동자와 자본가가 끼여들었다. 그리하여 사회정치력량관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농촌계급구성의 변동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자작농이 급속히 줄어들고 소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의 대렬이 늘어난것이다.

19세기 전반기에 전라도지방에서 전체 농호의 5%가 지주이고 25%가 자작농이며 70%가 소작농(또는 자작 겸 소작농)이였는데 일제강점직후인 1913년에 이르러서는 조선농호 357만 3 000여호가운데서 지주는 3.1%, 자작농은 22.8%, 자작 겸 소작농은 32.4%, 순수 소작농은 41.7%였다.(《조선의 소작정형》하(일문) 252폐지)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 농촌에는 지주의 땅을 부치는 소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이 70%를 차지하고있었다.

19세기 후반기 사회계급관계의 변화에서 일어난 중요한 특징의 다른 하나는 로동자들과 자본가들이 늘어난것이였다.

농촌에서 계급분화가 빨리 일어남에 따라 조상전래의 농토에서 쫓겨난 많은 농민들가운데 절대다수는 다시 소작농이나 고용농으로 되여 토지에 얽매이게 되였으나 다른 일부는 자유로운 로동력으로 전환되여 광산마을이나 도시에 밀려들어가 로동자로 되거나 날품팔이군으로 되였다.

1885년 영흥(금야)광산에 약 2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고용되였고 정평부근의 한 금광산에서는 1889년에 2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었다는 사실은 로동자의 수가 늘어나고있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조선지》 212~213폐지)

개항이후 항구도시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두로동자들의 대렬도 부쩍 늘어났다.

1890년대말에 우리 나라의 주요항구들인 원산, 남포, 인천, 목포, 부산의 5개 항구도시에 사는 주민수는 5만명이였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상 항만로동자들이였다.

가공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공장로동자대렬도 늘어났다.

대원군의 대내외정책

대원군의 통치는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간 계속되였다.

국가정권을 틀어쥔 대원군은 무엇보다먼저 봉건통치층의 정치적부패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세도정치를 없애고 왕권에 기초한 강력한 정치적지배권을 세우는데 달라붙었다.

19세기초부터 순조, 현종, 철종 등 3대왕이 통치하던 60여년간 계속된 왕의 처가켠인 안동김가의 세도정치는 리조봉건국가의 정치제도를 걷잡을수 없이 문란하게 만들어놓았다.

세도문벌들은 봉건왕권의《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초보적인 질서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주요 벼슬자리들을 저들이 독차지하는 한편 나머지 벼슬들을 거의 돈있는 놈들에게 팔아넘기는 매관매직행위를 공개적으로 감행하였다.

권력을 잡은 량반관료들은 허수아비로 된 국왕을 등에 업고 각종 루명을 씌워 정치적반대파들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는 한편 인민수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세도문벌들은 리조봉건국가의 수탈체계인 전정, 군정, 환정 등 3정의 착취를 통한 인민수탈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이제는 관권을 발동하여 인민들에 대한 무제한한 억압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세도문벌들은 개인향락과 방탕한 생활을 위하여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하여 조세항목을 제멋대로 늘여 강제로 수탈하는외에 이름모를 잡세들을 수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내려먹이고 그들에게 죄아닌《죄》를 들씌워 재물을 략탈하였다.

빼앗은 재부의 대부분은 략탈자들의 방탕한 개인생활에 탕진되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토지를 사는데 리용되였다.

세도문벌들과 그 앞잡이들인 탐관오리들의 손아귀에 봉건사회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가 집중됨으로써 농민대중이 급격히 파산몰락되였다.

1811~1812년 서북일대를 휩쓴 평안도농민전쟁과 1862년 진주에서 시작되여 삼남일대에 파급된 농민폭동은 리조봉건사회말기 첨예화된 사회적모순의 직접적발현이였으며 이것은 위기에 다달은 봉건제도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다.

세도정치의 후과는 또한 국고를 텅 비게 한데서도 나타났다.

국가재정이 말라들게 된것은 봉건사회의 기본생산자대중인 수많은 농민들의 파산몰락, 세도량반들과 대토지소유자들의 탈세행위로 하여 국가재정수입원천이 줄어든데다 각급 관료들이 나라의 재정을 훔쳐내고 왕실을 비롯한 봉건국가기관들에서의 랑비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생긴 후과였다.

한집안, 한족속의 부귀와 영화에만 눈이 뒤집힌 세도량반관료들은 나라의 국방대책에 대하여 완전히 손을 떼고말았다.

19세기 중엽이래 우리 나라에 대한 유미렬강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있던 환경속에서도 통치층은 봉건주의의 깊은 잠에서 깨여나지 못하고있었다.

이 시기 인민들에 대한 착취는 나날이 강화되여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지출이 계속 줄어들었다. 그 결과 전국각지의 요새들은 황페화되였고 무기고들은 텅 비여있었다.

락후한 무기로 장비된 군인들에게 훈련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나라는 완전히 무방비상태에 놓인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나타난 이 엄중한 후과를 놓고 봉건유생이였던 황현은《외척은 망국의 화근》이라고 한탄하면서《장동김가(안동김가를 의미함)… 그 후손에 이르러서는 드디여 탐욕스럽고 완고하며 교만하고 사

치하였으니 실로 외척은 망국의 화근으로 되였다. 그러나 나라의 정권을 잡은지 이미 오래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장동김가가 있다는것만 알고있지 국가가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다. 어떤 사람은 장동김가는 나라의 기둥이며 초석이라고 말하고있으나 어찌 그렇게 될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매천야록》 권1, 상, 고종 원년)

김병국 등 안동김가의 열두집안의 열두개 사랑방이 관리임면권을 행사하는 개인사무실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60년간 계속된 안동김가의 세도정치를 청산해버렸다.

1864년 4월 안동김가로서 당시 국가권력을 한손에 틀어쥐고있던 령의정 김좌근이 해임되였으며 그 이듬해인 1865년 1월 한때 령의정을 지내던 령돈녕부사 김홍근이 해임된데 이어 안동김가의 족속들이 차례로 국가의 주요벼슬자리들에서 제거되였다.

이리하여 안동김가의 세도권력은 완전히 무너졌다.

대원군은 또한 세도정치로 인한 지배층안의 정치적암투와 분렬을 막고 왕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치층안의 관리구성을 다시 짰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권에서 오래동안 제외되였던 왕의 일가붙이들에게 높은 벼슬길에 오를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종친과라는 특별과거제도의 설치는 종친(왕의 일가)들을 벼슬자리에 등용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였다.

종친과제도에 의하여 1864년 4월 종친들인 리근수, 리세기, 리창호 등이 과거제도의 첫 시험인 초시와 두번째 시험인 복시를 거치지 않고 가장 높은 급의 시험인 전시에 응시하였으며 1866년 2월 리원협 등 49명의 종친들이 전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종래의 여러 계단으로 설치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과거제도에 비하여 격식에 몹시 어긋나는 과거제도인 종친과제도를 통하여 수많은 종친들이 관리로 등용되였다. 이것은 척신들의 세도정치에 의하여 위축되였던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되였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또한 과거 지배층안의 파쟁으로 말미암아 반역자로 처형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벌어졌다. 1864년 5월 왕족과 그의 가까운 일족들가운데서 억울하게 죽은자들을 조사할데 대한 지시가 내렸으며 그에 기초하여 이해 7월에는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왕족, 대신 등 100여명에게 죄명을 벗겨주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다른 하나의 조치는 전국의 종친들을 총동원하여 전주리가의 족보인 《대동보》를 발간한것이였다.

1866년부터 시작한 《대동보》의 발간사업은 1868년까지 진행되였으며 여기에는 6만~7만명이 참가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놓고 대원군은 《내가 국가를 위하여 10만의 정병을 얻은것》이라고 하였다. (《매천야록》 권1, 상, 고종 4년)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벼슬자리를 나누어주는데서 통치층의 전반적세력균형을 보장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안동김가의 세도정치가 무너진 다음에도 안동김가인 김병학에게는 좌의정벼슬을, 김병기에게는 좌찬성벼슬을 각각 주었으며 오래동안 당파싸움에서 몰려 정권에 참가할수 없었던 남인파인 류호조, 한계원, 북인파인 임백경, 강로 등을 각각 정승급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남인파의 조성교에게 대제학벼슬을 주었다. 지어는 종래에 주요벼슬자리에 오를수 없었던 서얼(서자와 그 자손), 서북 및 개경사람, 중인서리들도 적지 않

계 등용하였다.

1867년 1월 개경출신 왕정양이 병조참의로 등용되였으며 1872년 3월 만월대에서 개경출신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실시한 과거시험에서는 왕성협 등 5명이 문과에 급제하여 왕성협은 종전에 개경사람들이 할수 없었던 홍문관교리로 배치되였고 그밖의 사람들도 주요벼슬자리에 각각 임명되였다. 중인출신의 류홍기, 오경석 등도 주요벼슬자리에 등용되였다.

특히 대원군정권의 경무사업을 도맡아본 천의연, 하장일, 장순규, 안필주 등은 모두가 서민 또는 중인출신 관리들이였다.

대원군은 여지없이 떨어진 왕권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을 비롯한 각급 관청건물건설을 전국적규모에서 벌려놓았다.

리조봉건통치 500년간 두차례에 걸치는 큰 전쟁(임진조국전쟁, 조선-청전쟁)에서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였으나 그것은 대원군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다시 건설되지 못하고있었다.

대원군은 1865년 4월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하여 영건도감이라는 기관을 내왔으며 그 총책임을 자기자신이 지고 그밖에 관리들로 일을 분담하였다.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은 1865년 4월에 시작하여 1868년 7월 2일 국왕이 옮겨앉을때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총 부지면적 12만 6 976평의 넓이를 차지하고 높이 6.6m의 돌담으로 둘러싸인 경복궁은 근정전, 사정전 등 왕이 쓰고사는 수많은 전각들과 궁전의 대연회장인 경회루를 비롯한 크고작은 루각들 그리고 각종 조각품들과 원예물들로 째여진 조화롭고 웅대한 대건축군을 이루었다.

경복궁재건에는 총 780만냥의 돈이 들었다.

경복궁을 다시 짓는 사업과 함께 리조봉건국가의 최고통치기구인 의정부, 최고군사통수기관인 3군부, 중앙통치기관인 6조, 력대국왕의 계보와 화상을 보관하며 왕족들을 통솔하는 기관인 종친부 등 중앙 각 관청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그리하여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으로부터 한성성의 남대문인 숭례문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환히 트인 큰길 좌우량쪽에는 여러 중앙통치기관들이 늘어서게 되였다.

건설사업은 중앙에서만 진행된것이 아니라 지방의 각 도소재지와 군현의 소재지들, 각지의 군사요충지들에서도 벌어졌다.

대원군은 경제적측면에서 일련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대원군은 무너져가는 봉건통치제도를 수습하며 봉건국가의 재정수입을 늘이기 위한 한 고리로서 3정(전정, 군정, 환정)에서의 페단을 수습하기 위한《개혁》을 진행하였다.

3정의 《정리》는 우선 전정부터 시작되였다.

대원군은 각 궁방과 왕실의 토지, 노비, 그밖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관인 《내수사》에 빙자하여 비법적으로 수탈하던 페를 엄격히 단속하였다.

봉건국가는 1867년 12월에 새로 궁방을 설치하는 경우 법전에 따라 궁방전을 《부토》로 할것(즉 국가수조지가운데서 일부 토지의 전세를 받을 권리를 줄것)과 조상에게 조상지내는 대수가 끝나면 토지를 회수하여 그 누구에게 주든지 거기에서 다시 전세를 내도록 지시하였다.

또 여러 궁방들이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전세를 물어야 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대원군은 군정에 대한 《개혁》도 진행하였다.

1870년 대원군의 명령에 의하여 군적에 들어있는 사람이 군사복무를 하지 않을 때 그대신으로 거두어들이는 군포를 량반신분층도 모두 부담하게 하였다.

이것을《호포》또는《동포》라고도 불렀다. 이 제도는 국가의 법규로 결정(1871년 3월)되였다.

호포제도가 실시되자 지금까지 호포를 물지 않으면서 특권을 행사하던 량반층은 일치하게 량인신분만 부담하던 군포를 량반들까지 물게 하는것은 량반의 《체면》을 깎아내리우는것이라고《항의》하였다. 심지어 령의정 홍순목까지도 1872년 12월 국왕에게《저 어리석은 백성들이〈나도 호포를 내고 량반도 포를 내니 상스럽기나 천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저들이 왜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가.〉(《고종실록》 권9, 9년 12월 4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규률과 질서가 문란해지므로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제기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대원군은 또한 환정에 대한 《개혁》도 실시하였다.

량반이나 아전들은 의무적성격을 띠는 환자곡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가지고있었다.

대원군은 결환제도 즉 토지결수를 단위로 하여 환자부담을 들씌우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결국 환자곡수탈대상자를 하나도 빼놓지 않기 위한 방법이였다.

대원군은 또한 환정을 통한 관리들의 롱간을 막기 위하여 사환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이전과 같이 국가관리가 관할하던 환자운영법을 없애고 사창(동네창고)을 설치하여 량곡을 저장하고 그것을 마을주민이 주동이 되여 관리하는것이였다.

탐관오리들과 토호들의 협잡을 막고 문란한 3정의 피해를 수습하며 봉건적착취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대원군이 취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하여 봉건국가의 수입은 훨씬 늘어나게 되였다. 즉 1864년-1873년 대원군이 정권을 쥔 10년동안에 국가수입에서 금은 51%, 돈은 255%, 무명은 158%, 베는 673%, 쌀은 165%, 콩은 299%로 늘어났다.

대원군은 봉건적착취체계를 다시 정비하면서 극도로 문란하여진 수탈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대원군은 1864년 9월에 공금이나 국가량곡을 가로챈 관리들의 죄행을 조사보고하여 그 경중에 따라 처벌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공금횡령 및 국가량곡략취자들을 발가내고 벌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

1865년 3월 충청도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이 도에서만도 100섬이상의 국가량곡략취자의 수는 76명, 100섬이하의 략취자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이에 대하여 봉건정부에서는 국가량곡 1 000섬이상을 략취한 김로홍에 대해서는 사형할것과 900섬이하 200섬까지 략취한자들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따라 귀양보낼것이며 그 이하는 해당 읍에서 벌을 줄것을 명령하였다.

이밖에도 리조봉건정부는 1864년 3월 27만 3 700냥을 횡령한 의주부윤 심리택을 의금부에 잡아들여 엄격히 취조한 다음 한성 종로네거리에 끌어내여 군중앞에서 된매를 안기고 제주도에 귀양보냈으며 그해 9월 남양부에서 대동미를 잘라먹은 윤영관을 잡아다 사형하고 그 고을원을 의금부에 잡아들여 취조하도록 하였다.

대원군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우선 군대의 최고통수기관으로서 3군부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는 1868년 3월 3군부를 내오고 여기에 그전에 비변사가 수행하던 기능을 부여하였을뿐만아니라 봉건정부의 최고관리들인 의정들과 병조판서로 하여금 각각

3군부의 책임적임무를 겸임하여보도록 함으로써 일단 유사시에는 군사통수권과 함께 행정집행권까지 발동시킬수 있게 하였다.

리조봉건정부는 군사통수권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세웠다.

이 사업은 1867년 1월 훈련대장 신광호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제안에 기초하여 진행되였다.

첫째; 국왕이 나들 때 그를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협련군과 무기고를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별파진과 그밖에 여러가지 일에 동원되는 인부들인 잡색군을 모두 전투대오에서 뽑아내고 군대대오를 정비강화할것이며 훈련에서 상벌제도를 엄격히 세우고 무기를 정상적으로 정비수리해두며 화약은 각 지방의 군영들에서 자체로 만들어쓰는것을 제도화할것.

둘째; 서북지방의 포수들을 시험의 방법으로 뽑아서 별초를 조직하여 교대제로 근무시킬것.

훈련도감은 무술에 뛰여난 사람을 뽑는 과거시험을 쳐서 선발된 사람을 해당 지방의 별장으로 임명할것.

셋째; 해안 및 국경연선의 요충지대에는 인민들이 자체로 보루를 만들어 일단 유사시에는 그에 의거하여 향토를 지키게 하는 제도인 민보제도를 실시할것.

넷째; 함경도지방에서부터 우선 호병(연병)제도를 실시하되 무기는 국가에서 보장하고 그들의 군사훈련을 정상화할것.(《고종실록》 권4, 4년 정월 21일)

군사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도 적지 않게 벌어졌다.

리조봉건정부는 1866년 9월 3만냥의 돈을 내여 각 수영의 배들을 수리하게 하였다.

또한 애국적인 무관, 기술자들은 새로운 무기를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린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867년 신광호가 창안제작한 수뢰포는 락후하였던 당시의 군대장비를 개선하는데서 긍정적역할을 하였다.

1867년 9월 국왕이 《어제 수뢰포를 시험발사하였는데 큰배도 능히 격파하였으니 외래침략자들을 무슨 근심할것이 있겠는가》(《고종실록》 권4, 4년 9월 11일)고 한것은 수뢰포가 이전에 있던 화포들보다 큰 위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리조봉건정부는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북부국경일대의 방어시설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들도 진행하였다.

특히 한성을 둘러싼 주변 방위구역들인 강화, 개경, 광주, 수원 등 4도류수부의 방어시설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밖에도 대원군은 종래에 실시하여온 문관을 우대하고 무관을 천대하던 《문존무비》정책과는 달리 무관들의 대우를 높이는 문제, 군인들의 생활보장문제, 군사지휘관의 선발배치문제 등에서도 앞선 시기와는 구별되는 일련의 새로운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대원군의 대외정책은 철저한 쇄국정책이였다.

대원군은 적극적인 양이정책을 실시하였다.

대원군은 외래자본주의침략의 위협이 다가오던 1866년 새해벽두부터 프랑스선교사들과 국내카톨릭교도들에 대한 대검거선풍을 일으켰다.

《병인사옥》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1866년 1월 5일 한성에서부터 시작되여

전국 각지에 퍼져갔으며 이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계속되였다.

리조봉건정부는 1866년 8월 이단(봉건유교교리에 어긋나는 교리)을 배척하라는 국왕의 지시문인《척사륜음》을 전국 각지에 내려보내여 봉건유교사상과 대립되는 카톨릭교세력을 철저히 숙청할데 대하여서와 외래침략자와 결탁한 카톨릭교도들을 매국역적죄로 엄격히 다스릴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대원군은 《서양놈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는데 이들과 싸우지 않는다는것은 곧 그들과 화의를 하자는것이다. 침략자들과의 화의를 주장하는것은 곧 나라를 파는것이다.》라고 한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도록 하였다.

대원군은 봉건중국(청나라)정부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종래와 같은 사대교린관계를 단순히 반복하지 않았다.

카톨릭교도들에 대한 처단사건을 구실로 프랑스침략자들이 대규모적무력침공준비를 하고있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봉건중국정부는 그와 맞서 싸울것이 아니라 타협의 길을 탐구하라고 리조봉건정부에 권고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투항주의적제안에 대하여 대원군은 1866년 7월에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국법을 어기고 카톨릭교를 퍼뜨린 프랑스선교사들을 처단한것은 응당한 주권행사이며 우리 나라법을 무시하는 프랑스침략자들과는 추호도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회답하였다.(《고종실록》권3, 3년 7월 8일) 또한 리조정부는 우리 나라 령해에 침입하여 고기잡이를 하던 중국어민들과 서해연안에 기여들어 인삼밀무역을 감행하던 중국상인들을 엄격히 단속하였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비타협적립장을 취하였다.

해외침략의 척후병인 하찌노에란놈이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신문지상에 미국, 영국, 프랑스침략자들이 조선을 침략할 때 일본막부도 함께 출병할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린데 대하여 리조정부는 1867년 일본막부에 그를 강력히 규탄하는 항의문을 보내는 한편 동래에 있는 왜관을 엄격히 단속하였다.

1866년 미국침략선 《셔먼》호의 격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김일성**전집》제41권, 413페지)

1840년대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을 기도한 미국침략자들은 침략의 척후병으로서 《셔먼》호를 파견하여 무장침략을 감행하였다.《셔먼》호의 침입목적은 평양주변의 옛 무덤들에 묻혀있는 금은보화를 략탈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리조봉건통치배들을 굴복시켜 예속적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놓으려는데 있었다.

《셔먼》호는 미국의 악명높은 해군제독 셔먼이라는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전투함선으로서 4문의 대포를 비롯한 중무기로 장비하고 오래전부터 중국, 웰남, 샴(타이)과 그밖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정탐행위를 일삼아온 침략선이다.

미국침략자들은 조선침략목적을 가리워보려고 《선원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경치좋은 조선의 산천구경을 떠난다.》고 헛소문을 퍼뜨려놓고 1866년 6월 18일에 중국 티엔진을 떠나 산둥성지부를 거쳐 7월 7일(양력 8월 16일) 대동강하구에 침입하였다. 여기에는 프레스톤을 괴수로 하고 토마스를 길잡이로 하는 90여명의 침략자들이 타고있었다.

미국침략자들은 이른바《통상》이요,《무역》이요 하는 구실로 침략적정체를 가리워보려고 책동하였다.

평양부 관청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외국과의 교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였으니 돌아가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오만무례하게도 위협공갈을 꾀하였고 대동강을 계속 거슬러오르면서 도발행위와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침략무리들은 7월 13일에는 만경대대안의 두루섬앞에, 16일에는 한사정(평천)앞에까지 기여들어 정탐과 살인, 강도행위를 감행하였고 18일에는 경계근무중에 있는 평양감영의 중군(무관)을 비롯한 3명의 조선군인들을 랍치하여 두 사람을 물에 던져 죽이고 중군을 《셔먼》호에 억류하는 참을수 없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그를 석방할데 대한 평양부 관청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쌀 1 000섬과 많은 금, 은, 인삼을 내라고 강요하였다.

미국침략자들의 만행과 강도적요구는 우리 인민을 크게 격분시켰다. 분노한 평양인민들과 군인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 떨쳐나섰다.

이 싸움의 앞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서계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만경대와 평양인민들을 미국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 궐기시키는 한편 화공전술로써 적을 소멸할데 대한 창발적발기를 하시였다.

7월 22일부터 《셔먼》호를 격멸소탕하기 위한 총공격이 시작되였다.

적들은 총과 대포를 쏘아대면서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애국적인민들과 군인들은 김응우선생님의 지도밑에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결사대원들은 여러척의 작은 배들을 한데 무어가지고 거기에 나무단을 가득 싣고 불을 달아 그것을 상류로부터 《셔먼》호쪽으로 떠내려보냄으로써 마침내 7월 24일(양력 9월 2일) 침략선을 불태워 대동강물속에 처박아넣었으며 거기에 탔던 침략자들을 모조리 섬멸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첫 투쟁은 력사적승리로 끝났다.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격침시킨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19세기 60~70년대에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던 미국침략자들의 야망을 꺾어버리고 조선인민의 애국적기개를 과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는 당시 《셔먼》호에 장비하였던 대포가 그대로 보존되여 미국침략자들의 죄행을 폭로하고있다.

1866년 9월 프랑스함대의 격퇴

프랑스침략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진행되였다.

1866년 9월 18일 문수산성전투에서 우리 인민은 적들에게 첫 타격을 안기였다.

김포반도의 끝에 강화도를 마주하여 위치한 문수산성은 염하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에 있는 중요한 요새였다.

프랑스침략자들은 통진에서 한성으로 통하는 첫 길목의 중요한 요새지를 장악할 목적밑에 이날 오전 10시경에 100여명의 침략군을 상륙시켜 문수산성을 공격하였다. 당시 문수산성에는 초관 한성근과 집사 지홍관의 지휘밑에 광주별파진 군사 50여명이 방어하고있었다.

100여명의 침략군이 산성의 남문을 향하여 접근해올 때 한성근은 방어군을 이끌고 앞장에서 달려드는 적을 맞받아나가 복수의 불벼락을 안김으로써 50~60명의 적을 쓸어눕히였다. 첫 전투에서 타격을 받은 적들은 남문에 불을 지르고 황급히 도주하였다.

놈들은 9월 21일에 강화어영창고와 옥강포주변의 주민부락 및 룡진진 화약창고, 광성진 건물과 성문에 불을 지르고 2척의 군함을 출동시켜 조강포와 강녕포에 포사

격을 가하여 그곳에 있는 배들을 소각하였다. 또한 다음날에는 군함 2척을 파동부 앞바다에 내몰아 우리 나라 배들과 수영진의 관아에 포사격을 가하고 황해도 연안부 각포의 물길을 측량하면서 갖은 만행을 다하였다.

10월초에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두번째 전투가 벌어졌다.

프랑스침략자들은 문수산성을 점령하려던 기도가 실패하자 이미 강점한 강화성을 지탱하면서 강화도 남쪽에 위치한 정족산성까지 점령하여 강화도를 완전히 강점하고 그 주변 연해를 제압해보려고 발악하였다.

침략군사령관 로즈는 정족산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10월 1일 60여명의 침략군을 정족산성에 파견하여 지형정찰을 시키였다.

놈들은 이날 무방비상태에 있는 산성에 기여들어 전등사건물을 파괴하고 물러갔다.

적들의 기도를 탐지한 순무영에서는 이날밤에 천총 량헌수를 수성장으로 하고 초관 17명, 경초군 121명, 표하군 38명, 외융군 367명, 모두 550여명으로 무어진 방어부대를 정족산성에 파견하였다. 이 방어군은 1일 밤에 은밀히 손돌목에서 염하를 건너 산성의 동문과 남문진지를 차지하고 매복하였다.

밤사이에 매복진이 펼쳐진것을 알지 못한 적들은 10월 2일 마음놓고 산성에 기여오르다가 놈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던 우리측 방어군들의 불의의 습격을 받았다.

량헌수의 지휘밑에 군인들은 복수의 명중탄을 퍼부어 당장에 여섯놈을 꺼꾸러뜨리였다.

당황망조한 적들은 전투서렬을 수습할 생각도 못하고 전투기재와 군량들을 집어던진채 급히 도망치고말았다.

이날 첫 타격을 받은 침략자들은 10월 4일 낮에 160여명의 병력으로 정족산성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였다. 우리 군인들은 산성에 의거하여 돌격해오는 적들에게 맹렬한 반격을 가하였다. 당시 전투를 목격한 프랑스침략군의 한놈은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병사들은 3대로 나뉘여 문전 300야드(274.32m)가까이까지 돌진하였다. 성안은 죽은듯이 고요하였다. 돌연히 한줄기의 불길이 성벽에서 번쩍하였으나 검은 머리와 흰옷(조선군사를 이르는 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프랑스군의 종대는 와해되고 한명의 병사도 더는 앞으로 나갈수 없었다. … 그리하여 지금 남은자는 겨우 80명이 되였다. 프랑스군의 소부대는 세번이나 조선군의 공격을 받았다.》(《은둔국 조선》 384~385페지)

우리 군사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적들이 퇴각하기 시작하자 방어부대는 성문밖으로 뛰쳐나와 달아나는 적들을 추격하여 놈들에게 큰 타격을 안기였다.

※ 당시 정족산성 수성장이던 량헌수는 전투보고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어제 밤 마을의 백성들이 와서 말하기를 저놈(프랑스침략군)들이 행군해가면서 또한 죽은자가 40여명이나 되였다. 모두 시체를 뭉그려가지고 여러대의 짐수레에 실어갔는데 저놈들이 죽은 수는 50여명이였다.》(《고종실록》 권3, 3년 10월 5일)

정족산성전투는 적들의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미국침략자들의 남연군의 묘도굴책동

미국침략자들의 계획은 조선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는 풍습을 리용하여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해낸 다음 그 유해를 미끼로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려는것이였다.

이 침략책동에 가담했던 오페르트는 《쇄국한 나라》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

《조선사람들에게는 옛날부터 완고한 조상숭배에 대한 미신이 있으며 특히 사실상의 집권자로서 쇄국조선에 군림하고있는 대원군은 미신을 굳게 믿고있는 사람으로서 조상대대의 유물을 모두 남모르는 자기 아버지의 묘에 묻어두고 이것으로 자신과 일가의 안녕과 행복을 믿고있다. 대원군은 자기 아버지의 묘인 남연군묘를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있는데 이제 그것을 발굴하여 관속에 있는 매장물을 탈취하면 대원군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수 없다. 대원군과 조선정부는 매장물을 되찾기 위하여 개국의 요구에 응할것이며 조약에 조인하게 될것이다.》(《쇄국한 나라》 298페지)

놈들은 상하이주재 미국총사령관의 이전 통역이였던 젠킨스를 강도단의 우두머리로 하고 조선근해에 여러번 침입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도이췰란드국적을 가진 유태인 해적 오페르트 등을 인입하여 강도단을 꾸려가지고 남연군묘를 도굴하기로 하였다.

젠킨스일당은 강도단의 배와 인원, 무기 및 일체 비용을 중국주재 미국외교당국으로부터 해결받았다. 중국주재 미국대리공사 윌리암스는 침략책동의 구체적조직과 미국 본국과의 절충문제를 상하이주재 미국총령사 죠지 시워드에게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이 침략계획은 1868년에 죠지 시워드에 의하여 미국무성에 보고되였다.

죠지 시워드는 미국무장관 윌리암 시워드의 조카였다.

1868년초 미국무장관 윌리암 시워드는 중국 상하이주재 미국총령사 죠지 시워드의 조선침략방안을 지지하면서 그에게 《셔먼》호 승무원중에서 살아남은자를 구원할것, 《셔먼》호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낼것, 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할것 등 내용의 훈령을 주었다. 미국무장관의 이 훈령은 당시 미국자본주의의 대아시아전략을 직접 반영한것이였다.

미국날강도들은 4월 18일, 홍주 행담도(오늘의 삽교천과 안성천의 하구에 있는 작은 섬)에 기여들어 그곳을 거점으로 덕산군 가동(가야동)(오늘의 례산군 서쪽지역)에 있는 남연군묘를 도굴하기 위한 강도행위를 개시하였다.

미국강도단은 우리 인민들의 고기배 2척을 강탈한 다음 18일 이른새벽에 《그레타》호와 고기배 2척에 100여명의 해적무리들을 갈라 태워가지고 삽교천을 거슬러올라왔다.

놈들은 제놈들을 로씨야군대라고 하면서 지방관청을 습격하여 무기를 략탈하고 관청건물을 파괴하였다. 놈들은 지방관리가 사유를 물으려 하자 그에 대답할 대신 총을 쏘아대고 칼질을 하면서 접근조차 못하게 하면서 곧바로 가동으로 갔다.

이 소식을 들은 공충(충청)감영에서는 공주영장 조희철에게 100여명의 지방군사들을 인솔하여 가동으로 가게 하고 홍주와 해미 두 진영의 군사들도 밤새로 출동하게 하였다.

조선군사들이 도착하기에 앞서 미국강도단은 오후 5시경에 가동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미국강도단들의 남연군묘 도굴흉계가 쉽사리 성사될수는 없었다. 《묘귀》(묘를 파는 귀신)들의 흉악무도한 도굴만행을 목격한 가동인민들은 호미와 괭이 등 농쟁기들을 들고 놈들에게 항거해나섰다. 덕산군수 리종신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 《가동의 백성들은 죽기내기로 저항하였다.》라고 썼다. (《고종실록》 권5, 4월 21일)

가동인민들의 항거를 받으면서 허겁지겁 도굴에 달라붙어 밤새껏 석회로 굳게 다져진 무덤의 한쪽구석을 겨우 파헤쳤으나 예견했던 문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도

굴에 성공할수 없었다.

4월 19일 새벽 날이 밝아오자 더욱 격렬해지는 인민들의 반격에 질겁한 강도무리들은 도굴을 걷어치우고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지방군영의 조선군사들이 가동에 이르기 전에 이곳 인민들은 미국놈들의 남연군묘 도굴책동을 좌절시키였다.

간악한 침략자들은 도망치던 길에 덕성군 하평리 후포부락에서 인민들의 집을 습격하여 재물을 략탈하는 강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젠킨스일당의 흉악무도한 남연군묘 도굴책동은 실패하고말았으나 놈들은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려는 침략야망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갖은 만행을 감행하면서 《챠이나》호에 도망쳐간 강도무리들은 제 소굴로 돌아갈 대신 4월 22일 경기만의 영종도 앞바다에 기여들어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박》편지를 조선정부에 전해줄것을 영종첨사에게 요청하였다.

《삼가 말하건대 남의 무덤을 파는것은 례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사용하여 백성을 도탄속에 빠뜨리기보다는 나으므로 하는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 본래 관을 여기에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너무 지나친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만두었다. 이것이 어찌 례의도덕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석회를 팔 기구가 없겠는가. 우리의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였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당신네 나라의 안전과 존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으니 만약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거든 높은 관리 한 사람을 보내여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어떻겠소. 만일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고집하여 나흘만 넘긴다면 먼데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하니 지체하지 말것이다.

몇달되지 않아 반드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환을 당할것이니 후회하지 않게 되였으면 아주 다행이겠다.》(《고종실록》 권5, 5년 4월 23일)

영종첨사는 다음과 같은 반박문을 써보냈다.

《너희들의 나라와 우리 나라와의 사이에는 원래 서로 련계도 없고 또 서로 은혜를 입거나 원쑤진 일도 없었는데 이번 덕산묘지에서 저지른 사건이야말로 어찌 사람의 도리로써 차마 할수 있는 일이겠는가? 또한 방비가 없는것을 엿보다 몰래 들이닥쳐 소동을 일으키며 무기를 빼앗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는것도 사리로 볼 때 어찌 할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런 사태에서 우리 나라 신하와 백성들은 다만 있는 힘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네놈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것을 다짐할뿐이다.

…몇달뒤에 설사 싸움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도 방비할 대책이 있다. …》(《고종실록》 권5, 5년 4월 26일)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침략야욕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자 4월 25일 오전 10시경에 미국강도 수십명이 영종도를 습격하였다. 영종도의 수비병들은 적들의 침공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였다.

영종도에서 징벌을 받은 적들은 그날로 제 소굴로 도망치고말았다.

1871년 미국침략함대의 대규모적무력침공과 그 격퇴

1871년 3월 19일 중국주재 미국공사 로우와 미국아시아함대사령관 로제쓰는 중국 상하이를 떠나 3월 22일 일본 나가사끼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기함 《콜로라도》호를 비롯한 5척의 군함에 80문의 대포와 1 230명의 침략군을 싣고 3월 27일 나가사끼를 떠나 4월 8일에 한성침공을 위한 거점으로 예견된 강화도 남쪽 물치도 앞바다에 침입하였다.

미국침략군 두목인 로우는《동방정부나 인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관대성을 가질 때 그것은 정책상의 오유로 된다.》고 떠벌이면서 포악무도하게 덤벼들었다.

미국침략함대의 침공으로 또다시 나라에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자 인민들과 군인들은 멸적의 기세로 반침략투쟁에 떨쳐나섰다.

4월 9일 리조정부의 문정관이 적함에 가서 비법적으로 조선령해에 기여든 놈들의 침략행위를 추궁하였다. 그러나 파렴치한 침략자들은 높은 급의 관리가 전권위임장을 가지고 나와서 조약을 성사시킬 때까지 함대를 철수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오만무례하게도 문정관과 상대하지도 않았다.

한편 놈들은 함대를 강화도쪽으로 접근시키면서 도발책동을 감행하였다.

손돌목전투

침략자들과의 첫 전투는 4월 14일(양력 6월 1일) 손돌목에서 벌어졌다. 이날 미국침략자들은 강화해협의 군사요충지인 손돌목에 군함들을 들이밀어 포대들에 대한 불의의 습격을 기도하였다. 손돌목을 지키고있던 우리 포병들은 적함선들이 사격권내에 기여들자 포사격을 가하였다.

적함에서 함포들을 미친듯이 쏘아댔다.

광성진포대, 덕진포대, 덕포진포대의 조선군인들은 적의 포탄이 비발치듯 쏟아지는 속에서도 침착하게 명중사격을 가하였으며 드디여 적함《모노시카》호가 큰 타격을 받고 움직이기 힘들게 되자 적함들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수비병들은 도망가는 작은 함정들에 련속적인 타격을 안기였다. 손돌목전투는 도발자들의 참패로 끝났다.

초지진전투

미국침략자들은 첫 전투에서 당한 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조선정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 대한 조선측의 방비가 채 갖추어지기 전에 공격을 개시하여 단번에 한성으로 쳐들어갈것을 시도하였다.

4월 23일(양력 6월 10일) 미국함대사령관 로제쓰는 함대의 엄호밑에 450여명의 륙전대를 강화도 초지진에 상륙시키였다.

이것은 이곳으로부터 해협연안의 진지들을 차례로 점령함으로써 강화해협을 제압하려는것이였다.

침략군이 초지진에 기여든 첫날 초지진첨사 리렴이 지휘한 조선군대는 미국침략군 숙영지를 야간에 기습하여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무질서하게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면서 불벼락을 안기였다.

불의의 습격을 받아 전멸당할번 하였던 적들은 함대의 엄호를 받아 겨우 퇴각하였다. 초지진전투에서 우리 군대는 미국침략군 100여명을 살상하였다.

광성진전투

미국침략자들은 초지진전투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진전투가 있은 다음날인 4월 24일(양력 6월 11일) 광성진에 대한 최후발악적인 공격을 감행해왔다.

이날 이른새벽 륙지로 기여오른 적 주력부대는 광란적인 함포사격의 엄호밑에 초지진포대와 덕진포대를 파괴한 다음 험준한 산발을 타고 광성진포대를 향하여 기여들었다.

또한 다른 한 지상부대는 주력부대의 익측과 후면을 엄호하면서 광성진 서남쪽으로부터 기여들었다.

이와 함께 바다에서는 두척의 포함을 광성진보루밑에 바싹 접근시켜놓고 맹렬한 함포사격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광성진을 수륙3면으로 포위하고 포대를 완전히 초토화할 작정이였다. 그때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덤벼들었는가에 대하여 미국의 남북전쟁에 참가하였으며 광성진전투를 직접 지휘한 불레익중령은《남북전쟁에서도 저처럼 작은 장소와 짧은 시간에 그처럼 치렬한 포화와 탄우와 초연이 집중된 때는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일떠선 조선군대의 적극적인 반격으로 원쑤들은 심대한 타격을 면할수 없었다.

초지진과 덕진포대에서 일시 퇴각한 조선군대는 산악의 유리한 위치에 매복진을 치고 광성진으로 다가드는 적들에게 불의의 불벼락을 안기였다. 진무중군 어재연의 지휘밑에 광성진 수비병 700여명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맞받아 용감하게 싸웠다.

광성진 수비병들은 적포함 2척에 심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달려드는 적의 륙전대와 치렬한 육박전을 벌려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광성진 수비병들의 용감한 투쟁모습에 대하여 미국놈자신도 조선군대는《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해가면서 성벽에 올랐다. 그들은 아군을 돌로 내려깠다. 무기가 없는 경우 그들은 침입자의 눈을 멀게 하려고 손으로 흙을 쥐여뿌렸다. 그들은 한치한치의 땅을 가지고 싸웠으며 오로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은둔국 조선》, 416페지)라고 썼다.

광성진방위자들은 나라의 요새를 지키기 위하여 탄환과 화살이 다 없어지고 총과 칼이 다 부러질 때까지, 마지막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희생적으로 싸워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미국침략자들은 이틀동안의 전투에서 저들의 수적우세로 초지진과 광성진을 일시 점령하였다. 그러나 전투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들은 조선군대의 애국적투쟁기세에 전률하고 수많은 매복전과 증원부대에 위압당하여 한걸음도 더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패배감에 휩싸여있었던 반면에 우리 인민은 적을 능히 격멸할수 있다는 신심에 차있었다.

미국침략자들은 더욱더 큰 참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광성진전투가 있은 다음날인 4월 25일 이른아침에 급히 배를 타고 본함대의 정박지인 물치도 앞바다로 도망쳐갔다.

리조정부는 4월 25일 반침략적립장을 밝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국에 공포하였다.

《이 오랑캐들이 화친하려고 하는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수 없으나 수천년동안 례의를 숭상해오는 나라로서 어찌 개, 돼지같은 짐승들과 화친할수 있겠는가? 몇해동안 서로 버티더라도 기어코 거절하고야말것이니 만일 화친하자고 말하는자가 있으면 나라를 팔아먹은 죄목으로 처형할것이다.》(《고종실록》 권3, 8년 4월 25일)

또한 같은 날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한성 종로거리와 전국의 고을들에《척화비》를 세우게 하였다.

조선인민의 결사적인 항전과 강력한 반침략적기세에 미국침략자들은 어떤 수단으로써도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패잔병들을 끌고 5월 16일 (양력 7월 3일) 우리 나라 연해에서 도망치고말았다.

후날 미국무장관이 되여 동북아시아침략에서 악명을 떨친 포스터가 이 전쟁의 실패에 대하여 말하면서 《미해군의 신용을 훼손하고 동양에서의 미국외교의 실책을 폭로한 사건》(《미국의 대극동외교》, 368~369페지)이라고 비명을 지른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척 화 비

리조정부는 1871년 4월 25일 정부의 명령으로 한성 종로거리와 전국의 고을들에 《척화비》를 세우게 하였다.

《척화비》에는 《〈서양오랑캐들이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것은 나라를 파는것이다.〉 병인년(1866년)에 이 글을 지었고 신미년(1871)년에 비에 새겨 전국에 세웠다. 우리 천만년 자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노라》라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19세기 초중엽 유미자본주의렬강의 침략선들 우리 나라 침입정형

시기	침입지역	침입한 배	비고
1816.7	충청도 마량진 달곶	영국군함 《알세스트》호와 《리라》호	음료수 구입
1832.6	황해도 장연현 몽금포	영국 무장상선 《로드암허스트》호	무역을 요구
1840.12	제주도 대정현 모슬포, 가파도	영국침략선 2척	40여명이 상륙하여 총질하면서 소를 략탈
1845.5	제주도와 전라도해안	영국군함 《사마랑》호	지형, 수심측량
1846.6	충청도 홍주 의연도 앞바다	프랑스군함 3척	프랑스선교사처단을 시비하는 편지제출
1847.6	전라도 고군산진 신치도 부근	프랑스군함 《글로와트》와 《빅토리우스》호	프랑스선교사처단건 회답요구
1849.4	함경도 리원	국적불명의 외국배 3척	18명 상륙하여 벌목
1849.4	함경도 북청	국적불명의 외국배 1척	
1850.2	강원도 울진현 죽벽진	국적불명의 외국배 1척	단속하는 조선군인 5명을 살해하고 도주
1851.3	제주도 대정현 모금진(모슬포)앞바다	프랑스군함 1척	식량요구
1852.2	전라도 부안군 비량도	프랑스군함 1척	난파된 프랑스군함의 잔해요구
1852.12	경상도 동해 룡당포 앞바다	미국포경선 《머리개》호	표착
1854.4	함경도 덕원, 룡성진, 영흥(금야), 대강진	짜리로씨야배 《팔라따》호와 《워스또크》호	살인만행
1855.6	강원도 통천 앞바다	포경선으로 가장한 미국배	표착
1855.6	두만강과 동해안 각지	프랑스군함 《비르지니》호	측량
1855.6	경상도 동래앞바다	영국배 《씰바아》호	
1855.6	독도	영국군함 《호네트》호	측량
1856.7	충청도 홍주목 장고도	프랑스군함 1척	략탈만행
1856.7	함경도, 충청도 해안	국적불명의 유럽해적선	략탈만행
1856.8	황해도 풍천해안	국적불명의 유럽해적선	략탈만행
1859.5	경상도 동래부, 룡당포 앞바다	영국상선 《애소아말》호	표착
1859.11	경상도 동래부	영국상선 2척	표착

	신초량 앞바다		
1860.윤3	경상도 동래부 신초량 앞바다	영국상선 《남백로》호	말수출요구
1860.4	전라도 녕암군 추자도 앞바다	영국상선 1척	표착
1860.2 1860.6	충청도 서산군 조도와 해미현 조금진 앞바다	영국상선 《토나》호	통상요구
1866.2	경상도 동래앞바	미국상선 《사블》호	표착
1866.5	평안도 철산부 선천포 선암리	미국상선 《싸플라이스》호	표착
1866.7	충청도 해미현앞바다	도이췰란드 《엔펠레》호	통상요구
1866.7 (음력)	평안도 룡강군 주영포	미국무장침략선 《셔먼》호	살인만행
1866.8	경기 부평부 물치도 부근	프랑스함대	측량, 정찰
1866.9	경기 부평부 강화도	프랑스 군함 7척	방화, 살인, 략탈
1866.12	황해도 장연 오차포	미국군함 《웨취셀》호	측량, 정찰
1868.3	대동강 하구	미국무장해적선 《쉐난도아》호	군사적도발, 략탈만행
1868.4	충청도 홍주군 행담도	미국해적선 《챠이나》호	남연군묘도굴
1870.5	경상도 동해앞바다	도이췰란드군함 《헤르탕》호	통상요구
1871.4	충청도 해미현 가덕포, 경기 강화도	미국침략함대 군함 5척	방화, 살인, 략탈만행

동학의 발생

동학이란 동방의 학문 다시말하여 조선의 학문이란 뜻인데 이것은 서학 즉 카톨릭교에 대립하여 붙인 이름으로서 여기에는 당시 우리 인민의 민족적각성정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여있다.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우려한 일부 선각자들은 인민들의 반봉건반침략투쟁에 고무되면서 조선사람은 외국에서 들어온 남의 교리를 믿으며 살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학문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는 일정한 자각을 가지고 조선의 학문을 부르짖게 되였다. 동학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1860년대에 발생하였다.

동학사상의 기본성격은 최제우가 서술한 《룡담가》(1860년), 《교훈가》(1861년), 《야심가》(1861년), 《몽중로소문답가》(1861년), 《론학문》(1861년), 《도수가》(1861년), 《권학가》(1861년), 《도덕가》(1862년), 《흥비가》(1863년) 등에서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반봉건반침략적인 교리로 전개되고 체계화되였다.

최제우는 당시의 현실세계를 부정하기 위하여 그가 살고있던 시대를 기존 및 현존 사회질서(이 시대를 실천시대라고 불렀다.)에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보았다. 즉 인류의 력사는 백성이 《하느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내던 상고시대와 《성인》이 나타나 백성들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수 있게 만든 중고시대를 지나서 개인의 욕심이 하느님을 거역하게》 된 근세시대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제 이 말세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여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는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사이의 기본차이점을 선천시대에서는 《성인》들이 나

와서 그들이 《하느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가르쳤다면 후천시대에서는 《하느님》이 직접 매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려와서 가르치는데 있다고 꾸며놓았다. 또한 그는 《새 세계》는 지상의 《신선》이 사는 세계로서 그것은 《저승》에 있는것이 아니라 땅우의 현실세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후천시대는 이때까지 압박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라고 설교하였다. 그가 자기의 저서들에서《우리 또한 빈천자로 초야에 자라나서 … 우리와 무슨 팔자 고진감래 없을소냐》(안심가),《민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로세》(교훈가) 라고 한것은 그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또한 그는 피압박대중이 복을 누릴수 있는《지상천국》에 들어서는 방도는 주문을 외우고 이른바 《신령스러운 부신》(못된 《귀신》을 쫓아 재앙을 물리친다고 하여 만든 종이쪽지)을 가지는 간단한 방법으로써 해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동학은 봉건적지배사상인 성리학적세계관을 반대하며 농민대중의 반봉건적지향을 종교적교리의 형식을 빌어서 대변한것이였다.

동학에는 반침략적지향도 반영되여있었다.

최제우는 자본주의침략은 낡은 선천시대가 끝장나는 계기로 될뿐아니라 국가와 인민도 멸망을 당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때문에 이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할《보국안민》의 과업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오직 동학만이 그것을 해결할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동학이 당시 인민들의 반침략적지향을 반영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동학에서는 당시 피압박대중의 반봉건반침략적지향을 반영한 측면과 함께 그 교리를 만든 최제우가 처하고있는 몰락한 량반들의 계급적제한성이 일관하게 반영되여 있었다.

최제우가 동학교리를 내놓게 된 동기를 설명한《룡담가》에는 자기 집안의 몰락에 대한 불안, 초조, 원망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고있으며 그 불안감과 참을수 없는 생활난에서 오는 심리적고통을 극복하려는것이 교리를 만들어낸 동기로 되였다는것이 시사되여있다.

1862년에 지은 《도덕가》에서는 《문벌세가》에 대한 반항이 절정에 이르고있으나 그 반항자체가 그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일정한 계선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악인의 음해》(나쁜 놈의 음흉한 해독)의 《악인의 설교》를 혁명적으로 극복할것이 아니라 륜리도덕을 가지고 극복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동학교리에서의 현실부정이 당시의 봉건제도, 부당한 현실에 대한 가장 혁명적부정으로 되는 농민봉기에 호흡을 같이하지 못하고있었으며 계급투쟁을 통한 현실부정에 미치지 못하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한것이다.

동학과 그 교리의 본질적약점은 그것이 사람들의 사회적의식발전에 해독적후과를 미치게 되는 환상적인 종교미신형태를 띠고 나온것이였다.

동학은 이러한 본질적약점을 가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봉건적반침략적요소로 하여 설교된 첫날부터 봉건정부의 가혹한 탄압밑에서도 농민들속에 급속히 퍼져갔다.

최제우가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한 2년후인 1862년에는 접주제도를 두어 교도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기 시작하였고 1863년에 이르러서 동학발생지인 경상도 경주같은데서는《동학교리를 외우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장사하는 아낙네들과 나무하는 아이들가운데서 교문을 외우지 않는자들이 없다.》(《고종실록》 권1, 총서 계해년 12월 20일)고 할 정도로 널리 퍼져갔다.

동학이 농민대중속에 빨리 퍼짐에 따라 동학도들속에서 그를 현실변혁의 수단으로 삼고 농민들의 봉기와 결합시켜 반봉건투쟁을 조직하려는 지향이 강화되였다.

리필제의 시도는 그의 대표적실례로 된다.

리필제는 1863년에 동학에 들어갔고 1869년말에는 경상도 고령에서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고 광양농민봉기의 본을 따서 폭동을 일으킬것을 계획하였고 1870년 2월에는 전주, 통영을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큰 규모의 농민봉기를 조직하려다 비밀이 드러나 실패하였다.

또한 리필제의 지도밑에 1871년 3월 10일 경상도 울진, 녕해, 영덕, 청하, 경주, 문경 등 지역에서 일떠선 500여명의 농민군은 녕해부를 들이쳐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부사를 처단하였다.

《운양》호사건

1875년 8월 일본침략자들의 군함《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하여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건이다.

교활한 침략자 이노우에가 이끈《운양》호는 1875년 8월 중국의 우장까지 가는 배길을 측정한다는 구실밑에 비법적으로 우리 나라 연해깊이 침입하여 수심측량과 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 조선남해를 거쳐 강화도로 향하였다.

강화도는 당시 리조봉건국가의 수도인 서울의 주요관문이며 군사요새지로서 봉건정부의 승인없이는 마음대로 접근할수 없는 곳이였다.

침략선《운양》호는 8월 20일 월미도앞바다를 지나 21일에는 정산도앞바다에 침입하였다. 이날 함장 이노우에는 20여명의 무장인원을 작은 배에 옮겨싣고 강화도 남쪽에 접근하여 초지진포대를 불의에 습격하였다.

초지진의 수비병들은 아무런 통고도 없이 침범하는 침략자들을 향해 경고발포를 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계속 달려들었다.

초지진수비병들은 자위적조치로 침입자들에게 사격을 가하였다.

때를 기다리고있던 《운양》호의 침략자들은 저들의 국기와 군함기를 내건 다음 초지진포대를 향하여 포사격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격분한 우리 수비병들은 더욱 맹렬한 포사격을 들이대여 적들의 공세를 꺾어버렸다.

초지진전투에서 패한 침략자들은 8월 22일 비교적 방어력이 약한 정산도에 침입하였으며 23일에는 영종도에 침입하여 포대를 파괴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인민들의 재산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였으며 나중에는 불을 질러 섬을 완전히 페허로 만든 후 도망쳤다.

《운양》호사건은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행한 계획적인 무장도발행위였다.

이때로부터 일본침략자들의 조선침략은 그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한 강도적인 방법으로 감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1876년에는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체결

1876년 1월 17일에 일본대표와 조선대표사이의 담판이 시작되였다.

구로다놈은 제놈의 상전으로부터 받은 침략적인《훈령》을 한수 더 떠서 작성한 예속적조약초안을 내놓고 조선대표에게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조선대표 신헌은 조선의 개국통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금칙 6조》를 내놓았다.

1) 일본인들의 상평전사용을 금지한다.

2) 낟알의 무역을 금지한다. 왜관에서도 낟알무역을 하지 않는다.

3) 무역은 다만 물물교환의 방법으로만 하되 되거리, 고리대금업을 금지한다. 이 두가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두 나라사이에 헤아릴수 없는 큰 페단을 일으키는 화근으로 된다.

4) 우리 나라는 일본과만 수호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일본인은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5)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편을 먹거나 피우지 않으며 그리스도교는 국법에 의하여 엄금되여있다. 따라서 아편이나 성서(그리스도교 교리를 적은 책)를 끌어들이면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파괴하는것으로 인정한다.

6) 두 나라의 표류민들을 서로 돌려보내주는것은 옛날부터의 규정으로 되여있다. 그리고 망명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표류한 무리들은 반드시 적발하여 서로 본국에 돌려보내여 그 나라 법에 의하여 처단하게 할것이다.(《왜사일기》 권2, 병자년 1월 26일)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측에서 제기한《금칙 6조》는 다만 구두합의만 보고 기본조약체결원문에서는 밝히지 않는다는 그러한 간교한 수법으로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제놈들의 침략적요구를 계속 강요해나섰으며 마침내 2월 3일(양력 2월 27일)에 12개조로 된 《조일수호조규》(이른바 《강화도조약》)라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르렀다.

《강화도조약》은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부결한 예속적인 조약이였다.

조약에는 조선의 항구들을 일본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위해서 개방하여야 한다는것이 규정되였다. 개항장으로서는 부산이 지정되였고 다시 20개월동안에 경기, 충청, 경상, 함경 5도연해에서 편리한 지점 두곳을 지정하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약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였다.

《조선의 부산 초량항에 있는 일본공관은 지은지 오래되여 이미 두 나라사람들의 통상기구로 되였으니 지금은 종전의 관례들과 해마다 배를 보내던 일같은것은 없애버리고 새로 맺은 조약에 준하여 무역사무를 처리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조선정부는 따로 제5조에 지적된 두곳의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사람들이 오가면서 통상하게 하며 그 지방에서 낸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림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것을 각기 편리한대로 하게 한다.》(4조)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5도의 해안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곳을 골라서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할 날자는 일본력으로는 명치 9년 2월부터 계산하여 20개월내로 한다.》(5조)

《두 나라가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두 나라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수도 없다.》(9조)

국가의 아무러한 간섭이 없이 자유로 무역을 진행할수 있다는《자유무역》의 조항이 규정된것은 일본자본침투의 길을 열어놓은것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치외법권의 조항을 《강화도조약》에 규정하였다.

《일본사람이 조선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졌을 경우 만일 조선사람과 관련되면 모두 일본에 넘겨서 조사판결하게 한다.》(10조)

조약은 조선연해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측량 및 지도작성의 자유를 보장할데 대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정치경제적침투뿐아니라 군사적침략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 조약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였다.

《조선연해의 섬들과 암초를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측량하고 도면을 만들어서 두 나라 선객들로 하여금 위험한데를 피하고 안전한데로 다닐수 있게 한다.》

일본침략자들에 의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의 유린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강화도조약》에 대한 보충적협정으로서 1876년 7월 6일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부록》과 잠정적통상협정인 《조일무역규칙》에서는 다시 개항장들에서의 일본화페의 류통권, 수출입상품에 대한 수년간의 면세권이 규정되였다.

그리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아무런 담보도 없는 휴지장같은 일본화페를 강제통용시켜 조선의 부원을 공짜로 빼앗아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화페교환률을 롱락하여 조선의 금융을 틀어쥐는 한편 일본상인들에게 은행을 통한 융자를 하여 일확천금의 길을 열어주었다.

개항의 후과

그것은 무엇보다 개항을 전후하여 리조봉건정부의 대일무역에서의 수출초과로부터 수입초과에로의 반대현상을 빚어내게 하였다.

개항직전 조일무역액 (단위 일본 ¥)년 도	수 입	수 출
1873	52 382	59 664
1874	55 935	57 552
1875	59 787	68 930
1876	82 572	81 374

(《조선통신》 (일문) 1880년)

우의 통계표는 개항전의 조일무역에서 조선측이 항상 수입에 비한 수출의 초과를 가져온 무역관계를 맺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관계는 개항후에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년 도	수 입	수 출
1876(12월)~1877	334 935	137 430
1878	244 544	181 469
1879	566 954	112 174
1880	1 174 301	1 251 244
1881	1 947 854	1 373 073
1882	1 599 797	1 202 475
1883	2 211 866	1 021 795
1884	753 501	444 629

(《력사학연구》(일문) 1962년 6호 17페지)

우의 통계표는 개항후 무역이 시작된 첫 1년동안의 리조봉건정부의 대일무역액이 1873년-1875년 3년간의 무역총액의 1.3배이상을 나타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침략자들은 유미자본주의렬강으로부터 수입한 공업상품을 우리 나라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비싼 값으로 팔고 그 대신 조선의 귀중한 부원을 헐값으로 빼앗아감으로써 막대한 상업리윤을 짜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877년 하반년도부터 1882년 상반년기간에 일본에 의해 조선에 투입된 상품가운데서 일본제품은 11.7%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88.3%는 유미자본주의국가의 상품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이 이러한 중개무역을 통한 부등가교환에서 얼마나 많은 리윤을 짜내였는가 하는것은 원산개항후의 시장물가시세에서만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1881년 현재 그곳에서는 백미 1관(일본의 5되)에 27~30센(일본화폐 100센이 1¥)이였고 소 한마리에 15~18¥이였는데 일본에서 가져온 자기꽃병 한개는 40¥이였다.

이것은 일본침략자들이 자기꽃병 1개 대신에 조선에서 쌀 75말(한말을 10되로 환산하여) 혹은 소 3마리를 략탈해갔다는것을 말하여준다.(《일본외교문서》(4권)(일문) 1963년판, 356페지) 《강화도조약》 체결이후에 개항된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부산 - 1876년 12월 17일(양력 1877년 1월 30일) 일본조계로 개항, 1888년 2월 29일(양력 4월 10일) 청나라조계로 개항 원산- 1880년 3월 23일(양력 5월 1일) 일본조계로 개항, 1888년 2월 29일(양력 4월 10일) 청나라조계로 개항 인천- 1883년 8월 30일(양력 9월 30일) 일본조계로 개항 같은 해 8월 15일(양력 10월 3일) 각국 공동조계로 개항 이밖에 1890년대에 남포와 목포(1897년 10월 16일), 성진(김책)과 군산, 마산(1899년 6월 2일) 등이 각각 공동조계로 개항되였는데 모든 곳에서 일본침략자들이 주도적이였다.(《근대조선사연구》(일문), 15~16페지)

일본침략자들이 1876년 12월에 부산에 일본인거주지를 설치한 후 《이민》으로 기여든 일본인수

1876년 1월말 현재로 부산에 기여들어와있던 일본인이 82명이였던것이 그해 12월에는 약 500명, 1879년에는 700명, 1880년에는 2 066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근대조선조계사연구》(일문), 60페지)

위정척사운동

19세기 중엽 자본주의침략으로부터 봉건국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애국적유생들이 중심이 되여 벌린 반침략투쟁이다.

위정척사론은 자본주의침략의 앞잡이로 침투한 카톨릭교를 반대하는 애국적유생들의 사상으로 발생하였다.

《위정척사》란 《바른 학문》(유학)을 지키고 《사학》(요사스러운 학문 즉 카톨릭교)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19세기 중엽 봉건사회의 위기가 격화되고 유미자본주의침략이 더욱 강화되자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에 고무된 애국적유생들은《척양척왜》의 구호를 들고 위정척사운동을 벌렸다. 위정척사운동의 대표자는 기정진, 리항로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들인 최익현, 류린석 등이였다.

1866년에 프랑스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을 때 위정척사론자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기정진은 1866년 8월 국왕에게 낸 글에서 봉건정부가 반침략적립장을 취할것을 제기하면서 자본주의침략의 위험을 낱낱이 발가놓았다. 리항로를 비롯한 위정척사론

자들은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직접 참가하였다.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은 대원군집권시기에 봉건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받았다.

1873년 11월 민비일당이 정권을 잡은 후 봉건정부가 외래침략자들에게 굴종하는 매국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위정척사운동은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특히 위정척사론자들은《강화도조약》체결후 강화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상소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1876년 1월 최익현, 류린석, 류기일, 홍대우 등 50여명의 유생들은 상소투쟁에 나섰다. 최익현은 상소문에서 일본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되는 리유를 들어 민가일당의 투항주의적정책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이밖에도 애국적관리들인 사간 장호근, 우통례, 오상현 등도 상소투쟁을 벌려 봉건통치배들의 매국적행위를 규탄하고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칠것을 강조하였다.

1880년대에 이르러 민족적위기가 더욱 격화되자 위정척사운동은 더욱 적극화되였다.

1881년 2월 경상도유생들은 령남만인련소를 가지고 상소운동에 나섰으며 뒤이어 경기,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의 유생들이 한성에 모여들어 봉건정부에 상소하였다.

애국적유생들은 상소문들에서 리유원, 리최응을 비롯한 매국적관료집단의 우두머리들을 규탄하였으며 봉건정부의 대내외정책을 준렬히 비난하였다. 위정척사론자들은 그이후 민족적위기가 더욱 격화되자 반일의병투쟁에 참가하였다.

위정척사운동은 새로운 력사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낡은 사상과 제도의 테두리안에서 민족적위기를 타개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는 근본적인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개항을 반대한 위정척사론자들의 구국대책안

1) 우리 나라에 발붙인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침략자들에게 투항하는 매국노들을 처단할것.

그들은 이미 개항한 원산과 부산에서 침략자들이 함부로 나들지 못하게 엄격한 법규를 제정하여 철저히 집행할것이며 외래침략자들과 결탁한 매국노들을 엄격히 처단할것을 주장하였다.

2) 조선봉건통치층과 청나라봉건통치층의 결탁에 의해서 준비되고있는 미국과의 조약체결기도를 저지시킬것.

그들은 미국과의 조약체결이 자본주의침략을 더욱 강화시킬수 있을뿐이라는것을 꿰뚫어보고 그것을《백가지 해독은 있어도 한가지의 리로운것은 없다.》라고 명백히 단정하였다. 그들은 미국과 련계를 맺을것을 주장하는《련미설》을 국가를 모독하는것으로 락인하였고 그 설이 제마음에 꼭 든다고 한 리최응을 유미침략자의 앞잡이로 규탄하였으며 사태가 이쯤되였으니《삼천리조국강토가 오늘에 이르러 짐승의 손에 떨어진다.》(《고종실록》 권18, 윤 7월 6일)라고 격분을 참지 못하였다.

3) 자본주의침략을 막기 위한 엄격한 외교적조치를 취할것.

그들은 일본침략자와 체결한 조약을 페지할것을 요구하여나섰다. 즉 이미 개방을 허용한 개항장에서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되 무역기간을 월 2회로, 1회에 올수 있는 배를 2~3척으로 제한하고 무역에서 일체 서양물품과 쌀, 포목은 금지하며 교역품에는 50%의 세금을 붙이되 현물교역만 허용하고 화페의 외국류출을 방지하며 경기 인천에는 해군기지를, 부평에는 륙군기지를 설치하고 매 기지들에는 방

어시설을 튼튼히 구축할것이며 외교사절의 교환은 1년에 1차로 하되 그 장소는 동래부에서 할것 등을 주장하였다.

4) 내정을 충실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것.

그들은 민족적위기를 타개할수 있는 힘이 외교에 있는것이 아니라 민심에 있다고 보았다.

《백성들의 … 마음이 성처럼 튼튼히 쌓아진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일본, 서양, 로씨야가 어찌 강할소냐.》(《고종실록》 권 18, 18년 3월 23일)라고 하였다. 때문에 흩어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치를 개혁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인정하였으며 그를 위해서 일문일족의 안녕을 위해 탕진하고있는 민가일당의 막대한 재정랑비를 금지시키고 국가재정을 절약하며 사치와 부화하는 해로운 풍습을 없애고 애국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며 특히 군대를 강화할것을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고종실록》 권18, 18년 3월 23일)

위정척사론자들의 반침략적립장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관련한 당시의 기록자료

《최익현은 여러차례에 걸쳐 상소하였다.…

최익현이 의금부에 갇혀있다가 출옥하게 되였는데 한성시민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술을 가지고 오고 향불을 피워 환영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메였으며 〈최충신재생〉이라고 경축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최충신의 이름이 온 나라에 퍼지고 그의 상소문은 집집마다 서로 전하며 읽혀졌다.(《매천야록》권 1 상)

또한 봉건정부의 매국적정책에 강경한 상소로 대항하다가 1881년 윤 7월 20일에 사형당하게 된 홍계학에 대한 인민들의 태도에 대하여 《인민들이 〈충신이 죽는다.〉고 하면서 거리가 메게 나가서 저마다 통곡하며 슬퍼하였다.》(《소의신편》권 8)고 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는 《홍계학을 사형하려고 할 때 의금부의 라장이 옥문을 여는데 열쇠가 세번이나 떨어졌으며 사형장으로 떠날 때에 차축이 또 부러졌다. 그래서 이것은 원통한 기가 감응한바라고 말들 하였다.》(《매천야록》권 1 상)고 썼다.

이리하여 《강화도조약》체결과 개항을 반대하는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은 대중적인 반침략투쟁개시의 서막으로 되였다.

당시 홍계학은《나와 같은 상소자 몇사람을 전하(국왕)의 힘으로 형벌할수도 있고 귀양보낼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8도백성이 집집마다 노호하고 사람마다 분격하고있으니 전하의 힘으로도 막을수 없을것이다.》(《고종실록》 권 18, 18년 윤 7월 6일)라고 서리발같은 경고를 주었는데 그것은 당시 인민들의 앙양된 반침략투쟁기운을 옳게 평가한것이였다.

민가일당의 집권후 나라의 방위력의 약화

1873년 11월 민가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방강화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나라의 방위력은 더욱 약화되였다.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데만 급급하던 민가통치집단은 국방력을 강화하기는커녕 도리여 이미 있던 낡은 봉건적병제마저 마구 헝클어놓음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걷잡을수 없이 약화시키는 범죄적책동을 감행하였다.

이 시기 실지 전투에 참가할수 있는 군인수는 매우 적었다.

중앙군영인 5영은 이름뿐이였으며 거기에 군인은 얼마 되지 않았다.

5영가운데서 그래도 일정한 군인수를 계속 보유하고있던 금위영의 경우에도 군인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만 들었다.

1691년의 규정에 의하면 금위영은 5부 25사, 125초(1초 백수십명)로 편성되였으며 그 관할에는 전국적으로 경군이 1만 5 925명이 속해있었다.(※《만기요람》군정편 금위영)

그러나 1808년에는 경군(중앙군) 1초를 새로 모집한 후 향군(지방군) 25초에 속한 군인들은 번을 들지 않고 군포를 물게 하였으며 1817년에는 금위영의 재정부족으로 향군 2초의 96명과 그밖의 군인들도 거의 모두 군포만을 물게 하였다.(《고종실록》권 11, 11년 3월 5일)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금위영에는 약 1만 6 000명의 군인들이 등록되여있었으나 그가운데서 실지 번을 드는 군인수는 극히 적었다.

형편은 5영의 다른 영도 이와 비슷하였다.

이 시기 각 군영의 초(구분대)의 수는 법전에 규정된 그대로 유지되였으나 등록된 인원수(군액, 군종)는 많이 줄어들었다.

군액이 줄어들었을뿐아니라 군총에 계속 올라있는 수도 거의 대부분 허위등록된것이였다.

당시의 이러한 형편에 대하여 승정원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지금 각 군현의 군총은 모두 허위문건이며 속오군, 아병은 모두 거짓이름이다.

군총에 등록된 이름은 모두 죽은 사람이며 군사훈련대상자도 거지반 젖먹이아이들이다.》

군사제도의 문란은 봉건적군사복무를 규정한 군역제도에서의 무질서와 혼란에서도 나타났다.

리조봉건국가의 기본법에는 왕궁에 들어가 수직을 서는 입직,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행순, 왕을 호위하는 시위, 수자리번을 드는 부방, 부역로동, 전쟁시기에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것 등을 비롯한 군인들의 각종 임무들이 규정되여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역제도는 봉건제도가 무너져감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있었으며 특히 민가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그것은 완전히 헝클어지고말았다.

이 시기의 중앙군의 군역은 왕궁과 한성의 성문을 지키는것외에는 주로 궁전들을 다시 짓기 위한 강제로동이였다.

지방군의 군사적임무도 형식상으로만 남아있었고 주로는 지방관리들과 관청을 위한 강제로동만이 남게 되였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 군사기관들의 재정도 고갈되였다.

인민들로부터 수탈한 액수는 매우 많았으나 봉건통치배들은 그것을 대부분 가로채고 군영에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각 군영들은 재정이 부족하여 얼마 안되는 군사비마저 제대로 지출할수 없었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군영들의 재정을 류용하여 연회와 기타 용도에 써버림으로써 군영들의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 1881년 12월 국왕은 왕궁에서 잔치를 차리는 돈 12만냥을 마련하는데 선혜청에서 9만냥,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에서 각각 6 000냥씩, 병조에서 5 000냥, 총융청에서 4 000냥, 사복시에서 3 000냥을 지출할것을 명령하였다.(《고종실록》 권 18, 18년 12월 23일)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군영의 재정은 더욱더 고갈되였다.

※ 1881년 5월 호조가 의정부에 낸 보고에 의하면 중국사신의 접대비용으로 은돈 7 000냥을 대주는데 그 돈을 선혜청에서 천은(중국에서 수입한 은) 200냥, 정은(장정 정, 은 은)(70% 은) 2 200냥, 훈련도감에서 정은(바를 정, 은 은)(100% 은) 700냥, 정은(70% 은) 1 600냥, 금위영에서 천은 200냥, 정은(70% 은) 400냥, 어영청에서 정은(70% 은) 500냥, 총융청에서 천은 1 200냥을 각각 지출하게 하였다.(《고종실록》권 18, 18년 5월 20일) 각 군영에서는 군대를 양성할만 한 재정도 없었으며 그밖의 지출도 보장할수 없었다.

무기제조를 담당한 군기시도 간단한 무기조차 제대로 만들수 없게 되였다.

1881년 군기시에서는 갑옷 13부를 만드는데 드는 몇푼 안되는 돈조차 없어서 선혜청에서 돌려쓰지 않을수 없었다. (《고종실록》권 18, 18년 10월 27일)

봉건중국과 일본침략자들의 야합에 의한 1882년 군인폭동의 실패

봉건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조선을 침략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리해관계가 대립되고있었으나 반침략력량을 탄압하며 대원군정권을 타도하는데는 서로 같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놈들은 대원군정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충돌을 극력 피하면서 서로 야합하였다.

두 침략세력의 공모결탁은 7월 3일 제물포에서 있은 봉건중국대표 마건충과 일본대표 다께소에의 비공식적면담으로부터 구체화되여갔다.

이날 면담에서 다께소에는 마지엔중에게 일본군이 봉건중국군대와 대결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주면서 조선정부에서 탈취할 각종 특권을 제기하였다.

봉건중국군대와 정면충돌을 피하겠다는데 만족한 마지엔중은 다께소에의 조선에 대한 침략적요구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였다.

봉건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결탁은 7월 11일 인천에서 진행된 마지엔중—하나부사회담에서 반일적립장을 견지하고있는 대원군을 정권에서 제거하고 폭동군인들을 탄압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지엔중은 자기가 책임지고 대원군을 제거하며 폭동군인들을 탄압하겠다고 다짐해나섰다.

이와 같이 봉건중국의 통치배들은 일본침략자들의 사촉밑에 7월 13일 외교적의례방문차로 봉건중국의 군영을 방문한 대원군을 랍치하여 그날로 남방을 거쳐 자기나라에 강제로 끌고가 억류하였다.

대원군은 일본침략세력을 반대하는것과 같이 봉건중국의 침략세력에 대해서도 응당히 경계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봉건중국군대의 침입을 방임하였을뿐아니라 그들에게 스스로 찾아가 놈들에게 랍치당하게 되였다.

이것은 대원군이 봉건지배계급으로서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빚어진 후과였다.

음모적방법으로 대원군을 랍치하여간 봉건중국침략자들은 곧 민가일당의 충실한 심복인 리유원을 내몰아 제물포에서 일본침략자들과의 굴욕적인 교섭을 시작하도록 하는 동시에 폭동에 참가하였던 애국적군인들에게 불의에 야수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위엔스카이(원세개)의 지휘밑에 봉건중국군대는 7월 16일 밤부터 그 다음날 새

벽에 걸쳐 왕십리일대에서 애국적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동적공세를 감행하였다.

또한 오장경이 거느린 봉건중국군대는 리태원일대에서 반동적인 군사행동을 벌렸다. 불의에 우세한 봉건중국군대의 공격을 받은 폭동군인들은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적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폭동군인들은 공격해오는 적들을 맞받아 용감하게 육박전을 벌렸으며 싸움끝에 부상당하거나 싸울 힘이 없어지면 적들에게 잡히는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

※ 이에 대하여 봉건중국군벌까지도 자기 정부에 보낸 보고에서《기운과 힘이 진해서 잡히리라는것을 아는자는 모두 칼로써 자기 배를 찔러 창자가 드러나게 하는데… 이것으로 그들이 죽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것을 가히 알수 있다.》(《마건충동행삽록》)고 썼다.

이러한 용감한 항전은 이틀동안이나 계속되였으나 애국적군인들의 폭동은 진압되고말았다.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항전이 진압된 후 폭동지휘자들과 참가자들에게 야수적인 탄압이 가해졌다.

놈들은 7월 17일에 10여명의 폭동군인들을 사형하였으며 7월 29일과 8월 24일에 또다시 김장손을 비롯한 폭동지도자 11명을 사형하였다.

1882년 군인폭동 (임오군인폭동)이후 민가일당의 정부기구 재편성책동

민가일당은 군인폭동이후 저들의 정치적지반을 강화할 목적밑에 1883년말에 정부기구를 개편하여 통리내무아문을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통리외무아문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바꾸어놓고 이를 계기로 민가일족과 그 주구들을 중요직무에 배치하는 한편 개화파인물들을 부차적인 자리에 옮겨놓거나 제거하였다.

재편성된 정부구성은 다음과 같다.

독판내사 및 재상	민태호(수구파)
독판리용 및 군무	김병서(수구파)
독판농무사	조녕하(수구파)
독판감공사	정림조(수구파)
협판농상군무	윤태준(수구파)
협판농상군무	구완식(수구파)
협판리용사	리교익(수구파)
협판리용사	조준영(수구파)
협판전선사	한장식(수구파)
협판전선사	어윤중(개화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	민영목(수구파)
협판장교사	김홍집(개화파)
협판장교사	리조연(수구파)
협판정권사	몰렌도르프(수구파)
협판부교사	민영익(수구파)
협판부교사	김옥균(개화파)
협판우정사	홍영식(개화파)
협판동문사	김만식(개화파)

군사부문에서도 요직에는 모두 민가일당이 배치되였다.

친군영제독	김병시
좌영감독	리조연
우영감독	윤태준
전영감독	한규직

이와 같이 민가일파의 세력이 정부구성에서 압도적우세를 차지하였다면 개화파세력은 수적으로 적었을뿐아니라 부차적인 지위에 밀려났다.

임오군인폭동당시 민비자신이 폭동자들에게 처단당할 위험한 처지에 처하였을 때 그를 구출한 무예별감 홍계훈은 령장급으로 승급시켰다.

그후 1894년 갑오농민전쟁시기에는 농민군토벌대 총사령을 시켰다.

홍계훈이 업어온 민비를 윤태준이 화동의 자기 집에서 변장시켜 충주로 보낸 다음에는 좌영대장 및 당상대관자리에 승급시켰다.

민비가 경기도 려주 민영환집에 잠간 있을 때 대원군의 밀정과 토벌대들이 순회한다는 정보를 받고 민응식이 충주 장호원에 있는 자기 집에 피신시켜주었다고 하여 리조판서자리를 주었고 지어 경비를 담당한 민긍식을 승지로 임명하였다.

한성과 장호원사이 200리길을 다니면서 한성의 정세를 민비에게 전달하여준 물지게군 리용익에게 정6품의 감관의 자리를 주었다. 지어 장호원 민긍식의 집에서 민비의 말동무로 지낸 점쟁이 박소사를 궁중에 불러 신령군으로 우대하였다.

거문도사건

1885~1887년에 걸쳐 영국침략자들이 조선남해에 있는 전라남도의 거문도를 불법침입하였던 사건이다.

일찍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친 유미침략자들은 거문도를 군사침략기지로 략탈하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이미 1880년대에 거문도에 군사기지를 두려고 획책하였다. 리조봉건국가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1882년 10월에 예속적인《조영수호조약》을 강압체결하고 조선침략을 적극화한 영국침략자들은 1883년 3월 저들의《극동함대》를 끌고와서 거문도를 강점하였다.《아가맴논》호를 비롯한 4척의 군함과 수송선 2척을 끌고 거문도에 기여든 영국함대 사령관 하밀톤은 제 이름을 따서 섬이름을《하밀톤》이라고 고쳤으며 영구강점을 꾀하였다. 놈들은 거문도를 아시아침략의 군사기지로 리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강력한 항의에 부닥친 영국침략자들은 1887년 2월에 거문도에서 쫓겨나고야말았다.

개화사상의 발생발전

개화사상은 19세기 50년대부터 중인출신지식인들에 의하여 싹트기 시작하였고 19세기 60~70년대에 더욱 성숙되였으며 1880년대에 이르러 하나의 사상조류로서의 체계를 이루는 력사적발전단계를 거치게 되였다.

부패한 봉건제도를 대신할 새 사회를 찾으려는 지향을 처음으로 가진 사람은 통역관출신의 오경석(1831년-1879년)이였다.

그는 20대의 청년이 되면서부터 우리 나라에 조성된 심각한 민족적위기와 썩어빠진 사회상에 대하여 깊은 주목을 돌리게 되였고 국가정치를 바로잡아야 할 방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그는 자신이 관계하는 직업(통역관)과 사회적지위로 하여 안팎의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수 있었고 또한 외교사절의 통역관으로서 다른 나라에 갈수 있었던 조건에서 당시 조선사회의 어느 층보다도 세계대세를 민감하게 포착할수 있었다.

그에 대한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있다.

《오경석은 … 세계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정형을 보고 듣고 하여 크게 느끼는바 있었다.

뒤에 세계각국의 력사와 각국 흥망사를 연구하고 우리 나라 정치의 부패와 세계대세에 뒤떨어져있음을 깨닫고 어느때나 앞으로 반드시 비극이 일어날것이라는것을 생각하여 크게 개탄하는바 있었다.》(《김옥균전》상(일문), 48~49페지)

오경석자신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였다.

《계축년(1853년)으로부터 갑인년(1854년)에 걸쳐 연경(베이징)에 멀리 기행하게 되였고 … 견문이 더욱 넓어지게 되였다.》(《천죽제답록》)

이 자료들은 봉건제도를 변혁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여야 한다는 정치적식견이 오경석에게 이미 1853~1854년에 형성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새로 형성되기 시작한 이 사상, 봉건제도로부터 자본주의제도에로 넘어가야겠다는 사상이야말로 개화사상의 알맹이이였으며 그것은 앞선 시기의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정치사상조류로서의 실학이 넘어서지 못한 계선을 넘어선 근대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죠아계몽사상의 싹이였다.

오경석은 외교사절을 따라서 외국에 갔다올 때마다 봉건제도보다 앞선 자본주의적문물제도와 부르죠아혁명운동의 경험이 씌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책들을 구해오기에 힘썼다.

※ 오경석이 구해온 책들가운데서 현재까지 전해지는것으로서는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이다.

이 책들에서는 자본주의제도를 소개하고있다.

즉 봉건적인 군주전제정치를 비판하고 부르죠아정치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자본주의나라들의 상공업의 발전상을 소개하고있다.

오경석과 함께 초기 개화사상의 대표자로 나서게 된 사람은 의관출신인 류홍기였다.

오경석이 구해온 새로운 책들과 새 지식은 류홍기에게 전달되였고 류홍기는 그러한 세계의 추세에 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자신의 연구를 거듭하여나갔다.

이 두 사람은 사상적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되고 서로 만나면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움에 처한것을 한탄하였으며 어느때인가는 일대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일치하게 이야기하였다.

오경석, 류홍기들이 들고나온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나라 정치의 부패》를 자각하고 《일대 혁신》을 도모할 정치개혁사상이였다.

즉 봉건제도를 전복하고 자본주의제도를 수립하여 근대적국가를 건설하자는것이였다.

둘째로, 새로운 경제사상이다.

그들은 부국을 위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며 특히 선진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상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경석은《우리 나라에 화선(근대적기선)을 구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언

제 이것을 볼 날이 도래하게 되겠는가.》(《일본외교문서》9권 27페지)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나라의 지리와 자연부원을 연구한 기초우에서 그것을 개발하여 근대적공업을 건설할 리상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매장량이 풍부한 철과 석탄을 채굴하여 리용함으로써 부국강병을 도모할수 있다고 확신하고《우리 나라도 철과 석탄채굴법을 알게 되면 나라는 반드시 부강해진다.》(《일본외교문서》9권 38페지)고 하였다.

그들은 근대적공업발전에서 철의 중요성과 동시에 석탄의 필요성을 잘 알고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철을 중세기적인 락후한 방법으로 채굴제련할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공업적방법으로 대량생산하며 농기구는 물론 근대적인 기계, 기선건조, 무기생산 등 국내수요를 충족시킬뿐아니라 외국과의 교역품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들은 철과 함께 석탄의 리용가치에 대해서도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많은 견문과 저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석탄이 공업원료로 리용되여 부국의 밑천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연부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근대적인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로,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려는 사상이다.

그들은 세계가 자본주의적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썩어빠진 봉건제도를 그냥 두고서는 자본주의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리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고 일대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오경석, 류홍기는 또한 나라의 근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일대 혁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무대에 나설수 있는 한성 북촌의 문벌량반출신의 청년들속에서 계몽사업을 벌려 그들을 사상적으로 전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경석, 류홍기의 사상이 탐구로부터 실천으로 넘어가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중인출신지식인들속에서 개화사상조류가 싹트고있을 때 당시 선진적관료들속에서도 그러한 사상들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의 대표적인물이 박규수였다.

량반가정에서 출생한 박규수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박지원의 저서들은 물론 실학자들의 사회정치개혁론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현실을 비판적으로 대하였다.

그는 봉건국가의 높은 급 관리로 복무하면서 봉건제도의 부패와 자본주의침략의 위험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는 곡산부사 등 지방관직을 력임하면서 나라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었다.

봉건통치배들의 부패타락, 정권쟁탈을 위한 추악한 당쟁, 무질서한 략탈에 의한 경제의 쇠퇴와 국력의 쇠퇴들을 간파한 그는 내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861년 그는 열하부사로 청나라에 갔을 때 제2차 아편전쟁의 후과를 직접 목격하고 약육강식의 무리들이 미구에 우리 나라에까지 마수를 뻗치리라는것을 인식하고 내정개혁으로 부국강병을 도모하여 안으로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외래침략자를 물리칠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였다.

그후 그는 례조참의, 참판 등의 관직을 경유하여 1866년 2월에는 평안도관찰사로 임명되였다.

1866년 미국해적선《셔먼》호 침략사건을 목격한 박규수는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더 한층 자각하게 되였다.

적들은 철갑선으로 침입해오는데 우리는 목선으로 대항하며 적이 현대적총포를 사용하고있는데 우리는 화승총이나 활과 화살로써 대적하는 등 그 투쟁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음을 느끼고 무장장비를 시급히 갖출데 대하여 력설하였다.

이와 함께 박규수는 쇄국을 할것이 아니라 개국을 하여 문물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서양 각국은 모두 교역과 상업을 중요하게 여기고있으며 … 스스로 부강해지는 길을 택하고있다.

세계 각국에 통상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오직 우리 나라만이 통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해동안 사건들이 생긴것은 그 까닭이다.》(《일성록》고종 19년 6월 25일) 라고 주장하였다.

19세기 5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한 개화사상은 70~80년대에 이르러 김옥균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여갔다.

김옥균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대한 자질이 비상하였으며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매우 높았다.

그는 어린시절 리률곡의 고향인 령동지방에서 자라면서 그의 저서인《동호문답》,《학교모범》,《성학집요》,《답성호원》등과 력대 우리 나라 학자들의 학문적유산을 탐독하였다.

또한 그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선행시기의 진보적사상가들의 선진사상을 연구하였다.

특히 박연암, 정다산의 사상유산에 대한 그의 심오한 연구는 그로 하여금 19세기에 벌어지고있던 사회악의 근원을 파악할수 있게 하였다.

그는 또한 발전된 나라의 새 문명을 섭취하려는 지향과 연구심이 강하였다.

김옥균은 어려서부터 박규수로부터 해외정세에 대하여 들었고 그를 연구할수 있는 도서들을 받았다.

김옥균이 강릉에서 한성에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17살의 청소년이였으나 인덕과 학식이 출중할뿐아니라 해외정세에 대한 일정한 리해력을 가진 진보적사상의 소유자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김옥균은 개회사상가인 류홍기를 만나게 되였다.

나라를 구원할 길을 찾고있던 김옥균이 한성 북촌의 문벌출신의 청년들속에서 동료를 모으기에 힘쓰고있던 류홍기와 처음으로 만난것은 그의 나이 스물이 되던 해인 1870년경이였다.

류홍기는 김옥균과 처음 만났을 때 벌써 그가 뛰여난 정치적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는것을 알고 바로 이 청년이야말로 자기가 뜻하는바를 내맡길수 있는 동료라고 보면서 그에게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게 되였다.

류홍기는 봉건정부의 혹독한 탄압과 감시속에서도 깊이 간직해두었던 근대자본주의문물제도에 대하여 쓴 여러가지 책들을 김옥균에게 넘겨주었다.

이때의 사실이 오경석에 대한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어느날 류대치(류홍기)는 오경석에게 묻기를〈우리 나라의 개혁을 어떻게 하면 이룩할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오경석이 이때 대답하기를〈먼저 동료를 북촌의 량반자식들가운데서 구하여 혁

신의 기운을 일으키는데 있다〉고 하였다.

…류대치는 …북촌방면에 교제를 넓혀 늙은이와 젊은이들을 가리지 않고 인물을 찾고 동료를 모으고있었다.

때마침 우연히 청년 김옥균과 만나 세상이야기를 하게 되였을 때 이 청년이 비범함을 알았고 사상, 인격, 학문적재능이 단연 월등하여 장차 반드시 큰 일을 도모할수 있는 인물임을 깨닫고 오경석으로부터 얻었던 지리, 력사의 번역본과 새 책들을 김옥균이 읽도록 전부 제공하였다.

또한 열심히 세계의 대세를 설교하고 조선개혁이 급하게 해야 할 일임을 력설하였다.

오경석이 …감득한 새 사상은 류홍기에게 전해졌고 류홍기는 이를 김옥균에게 전하였다.

이 과정은 김옥균의 새 사상을 낳게 하는 과정이였다.》(《김옥균전》(일문) 1944년판 49페지-50페지)

개화사상이 체계화되는데서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것은 김옥균이 박규수로부터 받은 사상적영향이였다.

김옥균은 자주 박규수의 집에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박규수로부터 세계정세의 흐름과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안목을 끊임없이 넓혀갔다.

김옥균이 어느날 우의정 박규수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자기 벽장속에서 지구의를 꺼내여 김옥균에게 보여주었다.

박규수는 지구의를 빙빙 돌리면서 《오늘의 중국(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 어데 있는가?… 이렇게 돌려놓고보면 조선이 〈중국〉이 되며 어느 나라든지 어디 정한 〈중국〉이 있느냐?》(《지동설의 호력》)

박규수의 이 말은 당시 사대주의에 물젖어있던 반동지배층에 대한 야유였으며 실학파의 애국사상이 개화사상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옥균의 새 사상형성의 경로자체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에 의한 개화사상의 발전과정은 실학의 사상유산을 계승하는 기초우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받아들인 근대적인 새 지식을 섭취하는 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류홍기, 박규수 등의 영향과 그들로부터 받은 책들을 통하여 김옥균은 당시의 세계정세와 낡은 봉건국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자본주의의 길을 찾을수 있게 되였으며 깊은 사색과 탐구를 거쳐 이미 체득한 개화사상을 전개해나감으로써 개화사상의 대표자로 등장하게 되였다.

개화사상의 바탕에는 실학사상의 긍정적요소가 놓여있다.

김옥균이《치도략론》에서 도로를 근대적으로 건설할 필요성을 쓰면서 첫머리에 《구구한 의견보다도 문제는 실사구시이다.… 현실을 멀리 떠난 대책을 떠벌여온 롱담만 해서는 안될것이다.》(《한성순보》1884년 윤 5월 11월)라고 강조한것은 실학파들의 실사구시사상이 모든 문제고찰의 기초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정치세력으로서의 개화파의 형성

우리 나라 부르죠아개혁운동의 력사에서 1870년대초는 시대의 선각자들인 개화파의 활동이 사상적탐구단계로부터 새로운 선진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활동단계에로 옮겨지는 력사적시기였다.

이 새로운 시기에 김옥균이 정계에 등장하여 맹활동을 하였다.

※ 김옥균은 22살 되던 1872년 2월에 과거에 응시하여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그후 홍문관 교리, 사간원 정언, 승정원 우부승지 등을 차례로 지내여 벌써 서른살이 되기 전에 쟁쟁한 청년정치가로 두각을 나타내였다.

그의 뛰여난 학식과 정치적식견은 한성장안에서 소문이 났고 그 소식은 당시 집권자였던 대원군에게까지 알려져 정부와 민간에서 그를 주목하게 되였다.

김옥균은 류대치, 오경석 등과 함께 1872년경부터 동지를 규합하게 되였으며 개화사상에 공명한 선각자들을 규합하여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김옥균은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개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꾸리기 위한 비밀활동을 꾸준히 벌렸다.

그의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인 방조를 준것은 류홍기, 박규수 등이였다.

그들은 자기의 영향을 받고있던 사람들이 김옥균과 결합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나섰다.

김옥균의 친근한 방조자로서 활동한 리동인도 류홍기의 주선으로 개화사상을 지지하고 김옥균과 결합되게 되였다.

중인출신의 지식인인 리동인은 벼슬에 오를길이 없어 한성 북한산밑에 있던 봉원사의 중이 되였다.

그는 류홍기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 김옥균과 사귀게 되였으며 김옥균의 풍부한 학식과 선진사상에 탄복하여 개화운동에 몸바쳐나서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김옥균, 리동인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후에 부르죠아개혁의 중요한 지도성원으로 된 홍영식이나 박영교 같은 인물들도 류홍기, 박규수의 알선에 의해서 김옥균과 손잡게 되였고 개화운동에 몸을 바치게 되였다.

김옥균은 또한 자기자신이 직접 모든 기회를 리용하여 새 사상을 선전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에 힘썼다.

그는 앞으로 벌리게 될 개혁의 요구에 비추어 당시 문벌과 가문, 귀천을 엄격히 따지는 봉건규제와는 상관없이 사회의 각 계층속에서 지지자들을 모으기에 힘썼다.

김옥균의 직접적인 노력에 의하여 유생출신 류상오가 이미 1870년대초에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투쟁에 몸바칠것을 결의해나섰으며 유생출신인 박재경도 개화사상가들의 영향밑에 들어섰다.

궁녀, 내시들가운데서도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하여 김옥균의 영향밑에 들어선 성원들이 적지 않았다.

※ 《궁녀 고씨는 년령이 42세… 평시 고대수라는 별호로 불러왔고 곤전(민비의 거처지)의 근시로 뽑혀있는분인데 벌써 10년전부터 오당(개화파)에 밀사를 통보해주는자이다.》(《갑신일록》12월 1일조)

1874년경부터 김옥균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해준 궁녀 고씨는 김옥균이 과거에 급제한 후 관청에 나들면서 영향을 준 사람이였다.

※ 《갑신일록》에 의하면 환관가운데 개화사상가들의 영향밑에 있은 사람들이 있었다.

※ 김옥균이 환관들을 자기 영향밑에 끌어들인것은 왕의 측근자들인 그들로부터 왕궁과 정부에서 봉건통치층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군인들속에서도 개화파의 세력이 확대되였다.

군인들을 인입하는것은 개혁수행의 폭력적수단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였다.

때문에 김옥균은 군인들을 인입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장교출신의 신중모, 신복모, 백락운, 윤영관, 리병환, 하사관출신의 리인종, 김봉균, 김기준, 윤경완 등을 자기들의 영향밑에 넣었다.

한성 종로를 비롯한 여러곳의 자본가들과 보부상출신인물들속에서도 김옥균을 지지하여 그와 결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남흥철과 한성 종로에서 금방을 경영하던 박상인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업자본가의 대표인물들이였다.

개화파에 인입된 자본가들은 앞으로 부르죠아개혁준비를 위하여 요구되는 자금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세력이였다.

이밖에 당시 사회에서 최하층의 신분층에 속했던 적지 않은《천민》들이 개화사상을 지지하여 김옥균의 영향밑에 들어섰다.

개화사상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김옥균의 사상적영향밑에 뭉친 사람들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였으며 이때로부터 그들은 개화파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그리고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은 수구파라고 불리웠다.

개화파는 자기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비밀결사형식의 조직을 가지게 되였다.

갑신정변과 관련한 봉건정부의 재판기록에 의하면 개화파는《충의계》라는 자기의 조직을 가지고있었다.

《충의계》는 부르죠아개혁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비밀결사였고 개화파세력의 핵심조직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적정치조직의 맹아였다.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지도성원들은 핵심들을《충의계》에 묶어세우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벼슬자리에 오른 청년관리들에게 사상적영향을 주기에 적극 힘썼다.

김옥균은 청년시절부터 친한 벗이였던 김홍집 그리고 어윤중, 김윤식 등 혁신관리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정부안에서 혁신적기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놀도록 하였다.

일찌기 김옥균과 아래웃집에 살면서 친교관계를 맺고있던 김홍집은 기회있을 때마다 국왕에게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주었다.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돌아와 국왕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우리 나라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네데를란드가 어떻게 되여 일본에 군사기술을 배워줄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나라가 크고작은데 관계없이 무기를 정예하게 하고 나라자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있을따름이다.》(《고종실록》권 17, 17년 8월 28일)라고 하였다.

어윤중은 1872년에 국왕과 자주 접촉할수 있는 서독관으로 된것을 좋은 기회로 하여 국왕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가 국왕에게《근본을 다스려 민심을 헤아릴 일대 기회이다. 국가란 다스리지 않으면 어지러워지고 성하지 않으면 쇠하는 법이다. 반드시 상하가 맹세하여 낡은 유습을 일신하고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베풀어야 할 정책과 바로잡아야 할 폐해는 지금 일일이 꼽을수 없다.》(《동정년표》1, 고종 11년 4월)라고 하였다.

《나라가 비록 작고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만약 상하가 한마음이 되여 백성을

보양하는 정치를 더 하고 국가를 지키는 정책을 잘한다면 대국이라 할지라도 어찌 두려울것이 있겠는가.》(《동정년표》2, 고종 14년 4월)라고 말한것은 개화파의 영향밑에 어윤중이 국가정책의 방향을 자수자강하는데로 돌리도록 국왕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힘썼다는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김윤식도 김옥균의 영향밑에 그와 사상을 같이하는 립장을 취하게 되였다. 김윤식이《처음에 고우(김옥균)는 환재선생(박규수)의 문하에 들어가 세계대세에 통달하게 되였고 동료들과 함께 나라일을 우려하게 되였다. 신사년(1881년)에 나는 령선사로 티엔진으로 가고 고우 등 여러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 시찰을 하게 될 때 서로 나라를 도울것을 약속하였다.》(《속음청사》하, 부록 추보)라는 기록은 그들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개화파는 1870년대 전반기에 우리 나라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확고하게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개화파의 부르죠아적개혁활동

김옥균은 부르죠아적개혁사업을 추진시키면서 무엇보다먼저 근대적국가의 무력적기초로 될 신식군대의 양성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를 적극 추진시켜나갔다.

김옥균은 개화파의 영향밑에 있는 청년들을 다른 나라 사관학교에 파견하는 한편 신식군대를 조직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1883년봄부터 경기 광주에 특별군영을 설치하고 한성의 4개영가운데서 후영의 한 부대를 골간으로 하고 군인폭동당시에 해산당한 군인들과 지방청년들을 모집하여 약 1 000명에 달하는 군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군대의 편성과 훈련을 근대적방법으로 진행하여 짧은 기간안에 그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1883년말에 진행된 500명의 신식군대열병식은 개화파가 조직한 군대가 종전의 군대에 비해 월등하게 훈련된 전투력있는 무력으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 후에 갑신정변에 참가한 신중모, 김봉균, 리인종 등은 모두 이 군대에서 핵심적역할을 한 사람들이였다.

김옥균은 신식군대의 양성과 함께 또한 근대적인 국가건설에 필요되는 인재를 미리부터 키우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전망성있는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외국에 류학보내였다.

※ 일본에서 류학하고 그후 갑신정변에 적극 참가하였던 신복모는 1882년 여름에 일본을 방문하였던 김옥균이 그곳에서 류학하고있던 학생들을 닥쳐올 부르죠아혁명에서 한몫 할 일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일찌기 일본에 건너가 어학을 배우고 귀국하였다. 당시 일본에 건너간 20여명가운데서 나를 비롯한 14명은 사관학교에서 1년 반동안 공부하였는데 그후 김옥균이 일본에 왔으므로 매 7일에 한번씩 모이는 날에 가서 만나보게 되였으며 자주 상종하였다.》(《대역부도죄인 리희정국안》)

새 지식으로 각계각층을 계몽시키는것은 이 시기 부르죠아적개혁사업을 추진시키는데서 개화파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였다. 이 시기 계몽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우리 나라의 최초의 근대적신문인 《한성순보》의 발간이였다.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성원들은 통상사무아문을 지도하는 중요직책에 있으면서 근대적출판기관의 창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드디여 1883년 3월

20일 정부직속의 출판국으로서 박문국을 창설하였고 거기에 김만식 등 개화파성원들과 젊은 진보적지식인들을 망라시켜 편집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10월 1일부터 열흘에 한번씩 발간되는 《한성순보》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한성순보》는 국내에서 벌어지고있는 소식들을 널리 소개하여 각계각층의 견문을 넓혀주며 특히 근대적문물제도에 대하여 소개선전함으로써 그들을 계몽시키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웠다.

신문은 발간사에서 그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였다.

《오늘 문화가 점차 열리고 과학이 발전하여 기선은 지구면의 여러 대양을 달리고 전선은 모든 나라를 련결하며 공법의 제정, 외교의 설정, 항만의 구축, 무역의 개통으로 이상한 모양을 가진 먼 외국인들마저 이웃처럼 린접하여 살게 되였다.

사물의 변화와 갖가지 문물제도의 발전은 시국에 관심을 가진 당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다.

이때문에 조정에서는 박문국을 설치하고 직원을 두어 널리 외국소식을 번역보도하고 함께 국내사건들을 실어 내외에 배포코저 하는데 그 이름을 〈순보〉라고 짓는다.

세계 각국의 위치와 이름난 산과 강이며 각국의 령역, 법률, 재정, 기계, 빈부, 국민생활, 인물의 선악, 물가시세들을 모조리 실어 똑똑히 밝힘으로써 지식을 비판적으로 섭취하자는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이 근시안적이거나 또는 낡은데 달라붙어서 새것에 암매하다면 이는 우물안의 개구리같이 자고자대하는자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세를 밝게 인식하고 들뜨지도 말고 구애되지도 말며 옳고 그른것의 취사선택을 원칙에 립각하여 하고 공정한 립장을 잃지 않는다면 본국을 설치한 목적실현을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보》에는 김옥균의 론설 《치도략론》을 비롯하여 여러 개화사상가들의 론설기사들 그리고 많은 자료와 소식들이 실렸다. 《영국지략》과 《유미립헌정체》와 같은 론설에서는 근대부르죠아국가제도가 상세하게 소개되였고 립헌정치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회사설》등 론설에서는 근대적인 자본주의기업체의 우월성이 강조되였고 그러한 새 기업이 문명개화의 길을 열어주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웰남에 대한 프랑스의 침략내용을 소개하면서 망국의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식민주의자들의 무력침공, 차관, 매수 등 각종 교활한 침략수법도 해설하였다.

이와 함께 《순보》에서는 자본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자체로 개화하고 부강해지는데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순보》는 일관하게 개화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실현하여야만 나라를 구원할수 있다는 애국애족사상과 함께 조선사람도 결심하고 달라붙는다면 능히 부국강병을 실현할수 있다는 사상을 해설선전함으로써 독자들을 각성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문명개화를 말함) 서양나라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왕과 신하도 시기를 살피고 정세를 헤아려 신중하게 연구하여 계획이 선 후에 행동하고 시기가 이른 뒤에 실천하며 그릇된 리론에 흔들리지 않고 외국인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화륜선을 배로, 철도를 수레로 삼을수 있으며 지방에는 전선을, 거리에는 가스등을 가설할수 있으며 부하고싶으면 부하고 강하고싶으면 강할수 있으니 이로부터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와 첫자리를 경쟁할수 있을것이며

자기 나라를 지킬수 있을것이다.》(《한성순보》 1883년 10월 21일)

《오늘 서양 여러 나라들과 마주 대하고있는 나라로서는 림시변통하는 식으로 낡은 제도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제때에 떨쳐나서 과학지식을 습득하고 륙해군의 군비를 충분히 준비한 후에야 세상일에 전망을 가질수 있으며 인민들이 편안히 지낼수 있을것이다.》(《한성순보》 1883년 10월 11일)

이것은 침략자를 반대하고 분발해서 제 나라를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한다는 개화파의 확고한 주견을 반영한것이다.

개화파에 의한 국가기구의 개편

1882년 군인폭동후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근대적문명과 기술로부터 멀리 뒤떨어진 나라형편을 개탄하면서 개혁사업을 국가존망의 근본문제로, 민족의 사활적 문제로 간주하였다.

※ 김옥균은 《갑신일록》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국내의 사태는 망국의 위기가 급히 다가오고있다고 하니 홍영식은 이때 우리는 오늘과 같은 절박한 시기를 당해서 일신의 생명을 바쳐 기어코 한번 개혁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갑신일록》 10월 31일)

김옥균은 또한 《갑신일록》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절박한 사태는 닭알고임우에 선것 같다. 그러므로 좌우를 돌보지 말고 오직 변혁의 길로 매진하되 형세에 따라서 변혁을 결정할수 있다.》(《갑신일록 》11월 13일)라고 하였다.

개화파의 한 사람이였던 홍영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대로 몇년을 지나가면 그때에 가서는 변혁된다 하더라도 다시는 조선사람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것은 어렵게 될것 같아 념려되여 견딜수 없다.》(《조선교섭자료 》상권, 292페지)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수구파정권을 타도하는데는 두가지 방도 즉 국왕을 끌어들여 평화적으로 수행하는 방도와 폭력으로 수행하는 방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김옥균은 이러한 방도들을 다같이 예견하면서 첫째로, 국왕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 이미 시작된 개혁사업을 추진시킴으로써 나라의 근대화에 유리한 정치조건을 마련하며 둘째로, 신식군대의 양성, 무장력의 강화 등으로서 변혁의 무력적지반을 닦으며 셋째로, 계몽사업을 강화하여 부르죠아개혁의 정치적지반을 확대하며 넷째로, 이 모든 사업을 실현할수 있는 재정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것이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고 보았다.

김옥균은 개화파앞에 제기된 당면한 과업들을 밝힌 후 국가기구의 개편을 기본내용으로 개혁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개화파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1882년 7월 25일에 새로운 기구로서 기무처가 조직되였다.

기무처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문에서 정책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작성하고 의정부를 통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협의제기관인 동시에 사실상의 최고권력기관이였다.

기무처가 조직되던 날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기무처 성원으로서 조녕하, 김병식, 김홍집, 김윤식, 홍영식, 어윤중 등이 임명되였다.

임명된 기무처 성원 7명중 병조판서 조녕하, 호조판서 김병식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개화파성원들이거나 그의 지지자, 동정자들이였다.

기무처가 나온지 얼마 안되는 10월 20일에 국가의 지나친 재정지출을 줄이며 지나치게 비대해진 전제통치기구와 그 기구를 축소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비상설적기구로서 감생청이 나왔다. 감생청은 근 500년동안 유지해오던 리조봉건국가의 관료통치기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것을 개편할 대책안을 만들것을 개화파성원인 류홍기에게 위임하였다.

1882년 12월 29일 감생청에서는 국가기구에 대한 일련의 개혁안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감생청은 국가기구개혁안에서 리조봉건국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내용을 대담하게 뜯어고칠것을 제기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종친부(국왕의 친척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의 종정경벼슬자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개혁안에는 국왕의 10촌이 넘는 사람에게는 종정경이 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거기에서는 의정부 당상관으로서 70살이상이 되는 사람은 모두 축소한다는것, 충훈부청의 둔토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그의 피해가 심하여 널려있는 둔토를 모두 호조에 넘기며 충훈부의 비용은 충익위(공신들의 자손들이 속해있던 군사관청)경비가운데서 지불해주며 따라서 공인, 계인들이 물품을 바치는 제도를 페지한다는것 그리고 유명무실해진 군사행정기관인 5위 도청부와 국왕의 호위기관인 호위청, 왕실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청들인 사도시, 내섬시, 내자시, 사재감, 의영고, 장원서, 사포서 등을 모두 페지한다는것을 밝혔다. 국가기구개혁안에서는 또한 《6조의 랑관은 문관, 음관, 무관의 구별이 있으므로 그것이 인재를 등용하는데 장애가 되기때문에 앞으로는 문벌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등용한다.》(《고종실록》권 19, 19년 2월 29일)는것을 규정하였다.

감생청은 또한 정부로 하여금 착취체계를 재정비하는 사업도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감생청의 발기에 의하여 리조봉건국가는 1882년 12월 30일에 각급 관청들의 모든 회계장부에 대한 검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관청들에서 국가적으로 제정한 종목이외의 세금과 공납을 받아들이는 비법적인 현상을 금지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1882년 12월 4일 통리내무아문을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통리외무아문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 민가반동통치집단에 의하여 심히 혼란되였던 국내통치질서를 바로잡으며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진 대외정책문제들을 주동적으로 풀어보려고 한 개화파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였다.

국정개혁을 위한 개화파들의 활동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세력은 자본주의침략을 막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급히 국정개혁을 단행하는 방법으로 정치적변혁을 일으키는것이라고 보았다. 개화파는 국정개혁에 앞서 그 준비사업으로서 자기 세력을 확대하며 영향력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김옥균은 홍문관 교리로 있던 시기 (1874년-1879년)에 《기화근사》라는 책을 썼다. 그는 여기에서 나라의 근대적발전의 필연성을 론증함으로써 당시 개화사상선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 책이 당시에 논 역할은 1882년에 지석영이 국왕에게 보낸 상소문에 반영되여있다.

《지금 국가정책에서 … 민심을 안착시키는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그

러므로 외교에 뜻있는자를 보면 곧 이를 간사하고 능갈친 말에 물든자라고 주목하고 이를 비방하고 욕하기가 례사이다.

대개 이런것을 의심하고 비방하는것은 결국 모두 시세를 모르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교리 김옥균이 저술한 〈기화근사〉, 승지 박영교가 편찬한 《지구도경》 등의 책은 모두 편견을 바로잡고 시대의 임무를 깨우치는데 필요한 책들이다.

요컨대 한 기관을 세워 이런 책들을 수집비치하여 매 읍에서 글과 문장이 높은 유생관리 각각 한명씩 선발하여 그 기관에 오게 하고 새로운 책들과 기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깊이 세상일을 알자.》(《고종실록》권 19, 19년 8월 23일)라고 하였다.

김옥균, 박영교 등이 쓴 책과 함께 1876년 5월에 제1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기수가 1876년 2월에 쓴 《동유기》, 어윤중이 1881년 4월부터 년말까지 중국과 일본을 시찰하고 와서 쓴 《중동기》 등이 역시 계몽적역할을 하였다.

이밖에도 외국의 여러가지 새 책들이 많이 보급되였다.

이 시기 보급된 책들로서는《중서문견》,《만국공법》,《공사》,《지구영환》,《신보》, 《흥아회잡사》, 《시속금일초》, 《공업륙학》 등을 볼수 있다. (《고종실록》권 18, 18년 3월 23일)

개화파는 계몽도서들을 합법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의 보급이 국가정치를 바로잡는 선결조건으로 된다는것을 정부로 하여금 똑똑히 알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 1881년 6월 8일 이전 장령 곽기락은 상소에서《보건대 지금 국가의 창고가 텅 비여 군사는 굶주리고 사치를 숭상하여 나라와 개인의 재산은 다 고갈되였다. 뢰물이 성행하고 탐오가 판을 쳐서 규률은 해이되고 도적은 횡행하며 벼슬자리를 다투는데서는 렴치도 없어지고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할수 있는 길이 막힌 까닭으로 아첨쟁이들이 날치고있으니 나라의 운명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생활이 곤경에 빠진것도 주로 이런데 기인되며 그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적은 없었다.

그러니 여러 선비들의 립장에서 우리 임금에게 말씀을 하려면 이상의 여러 조목들을 긴박한 임무로 삼아서 안으로는 정사를 잘하게 되고 밖으로는 침략하는 적을 막게 되여야 할것이며 기계에 관한 기술과 농업에 관한 책과 같은것도 만약 리익이 될수 있다면 선택하여 써먹을것이지 그들이 쓴것이라고 해서 좋은 법까지 다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고종실록》권 18, 18년 6울 8일)

개화파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각계각층들속에서는 개화사상을 지지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였다.

개화파와 그 지지자들의 계몽서적집필사업과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그들의 정치적지반은 빨리 확대되여갔다. 이미 1881년초에는 《해외의 형세를 통찰하고 외교를 열고 상업로를 통해야 한다는것을 깨닫고 귀족의 청년층과 합세하여 내정을 개혁할것을 원하고있는》 세력이 조정과 민간의 정치세력의 절반이나 되는 정도로 되였다.(《일본외교문서》 14권, 331~342페지)

이 기록은 개화파가 정치세력으로 형성된 때로부터 10년이 못되는 기간에 이미 낡은 통치세력에 대항해서 싸울수 있는 큰 정치세력으로 되였고 국내정세도 보수진영과 혁신진영의 두 세력으로 갈라졌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개화파세력이 국가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도로 자란 조건에서 김옥균이 본격적인 정치투쟁의 길에 나섰다.

김옥균은 《자수자강》을 개화파의 기본정치강령으로 제기하였다.

김옥균은《사태는 부득불 한차례의 대경장을 하여 정치를 개혁한 후에야 국가와 민생을 구할수 있고 나라를 보할수 있게 되였다.

… 여기에 있어서 첫째가는것은 독립국가로 만드는것이다. 독립하자면 정치외교를 불가불 자수자강해야 한다.》(《조선학보》일문 17집, 124~125페지)

어윤중은 자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의 정세를 보건대 부강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보존할수 없다. …일본이 침략하여올 뜻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들에 달린것이 아니라 우리자체에 있으니 우리가 부강할수 있는 길을 찾아 그를 수행한다면 그가 어찌 감히 침략할 의사를 품을수 있겠는가.》(《종정년표》2 고종 18년 12월 14일)

《자수자강》의 구호아래 개화파는 국가정치를 조성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개변시키기 위한 국정개혁사업을 밀고나갔다.

개화파는 자신의 투쟁과 자기 파의 영향아래에 있는 정부안의 개화파를 지지하는 혁신관료들을 추동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구의 점차적개조를 실현해나갔다.

1880년 12월 21일 새로운 행정기관인 통리기무아문의 창설은 그 첫걸음이였다.

이 기관은 국내외의 정치와 군사관계의 사무를 총체적으로 관할할 권한을 가지게 되였고 그밑의 기구로서 근대적행정직무에 부합되는 12사를 두었다.

이 기구는 종래의 전제왕권의 자문 또는 보좌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던 의정부나 6조와는 달리 중요한 대내외정책들을 토의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할것을 각사, 각영, 8도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각급 통치기관들에 명령하고 지도통제할 권한을 가졌다.

이것은 봉건통치의 부패를 일소하고 무력해진 각급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1881년 2월 5일 그 내부에 총리통리기무아문과 경리통리기무아문을 두기로 하였고 11월 9일에는 12사대신에 경리통리기무아문에 동문사, 군무사, 통상사, 리용사, 전선사, 률례사, 감공사의 6사를 두고 다시 통리기무아문에 군무사를 직속시켰으며 그밑에 총무국, 참모국, 교련국의 3국을 두어 초보적으로나마 근대적인 행정기구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정부기구의 개편과 함께 군사개혁도 진행되였다.

1881년 4월에는 별기군을 설치하여 근대적군사훈련을 시작하였고 그해 12월에는 군사편제상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훈련, 룡호, 금위, 어영, 총융 등 5영군문을 페지하고 무위, 장어 2개 영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가간부를 새로 양성하기 위하여 리인종, 리규정, 리규완, 신중모, 림은명, 리건영, 리병초, 전종진, 백락설, 박응학, 하응선, 신응희 등 개화사상에 공명하는 청년들을 외국에 군사, 어학, 공업, 외교 등을 배울 류학생과 근대적기술을 배우기 위한 실습생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시작되였다.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개화파들의 대책

정치세력으로 형성된 개화파는 날로 강화되고있는 자본주의침략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는것도 당면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개화파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주의국가와 통상할수 있는 자체의 준비를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개항을 하여 통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1. 인천개항을 일찍 실현하는것을 반대할것.
2. 기선 여러척을 사들여 삼남으로부터 한성에 쌀을 날라오는 일에 만전을 기할것.

3. 국방을 보강하고 신식대포, 총, 포함을 구입할것.

4. 개화파성원 3~4명을 일본에 파견하여 직접적견문과 사찰에 기초하여 장차 국가정치에서 주동적역할을 할 사람들이 방향을 정할수 있게 할것.

5. 이 사업에 대한 재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돈많은 사람들로써 회사를 창립하여 회사가 채주가 되여 외채를 얻을것.(《일본외교문서》 14권, 344~346페지)

개화파는 세워진 계획에 따라 우선 1881년초부터 정부안의 개화파활동가 여러명을 일본에 파견할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그해 4월에는 홍영식, 어윤중 등 37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김옥균자신도 그해말에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시찰을 진행하는 한편 차관, 무기구입 및 그밖의 긴박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김옥균의 일본방문과 관련한 보도를 취급하면서 당시의 《오사까닛뽀》는 김옥균 등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려비를 장만하기 위하여 2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진 상회에 대부를 의뢰하였다는것과 《개화파의 한 성원이였던 리동인외 2명이 … 평소에 마음을 두고있는것은 공업을 건설하며 국가의 리익을 도모하는데 있었고 따라서 이번 시찰의 목적도 주로 다까시마탄광, 제련소, 조선소, 오사까포병공장, 조페국(돈찍는 기관), 이꾸노광산 및 기타에 있는 이름있는 공장을 참관하여 먼저 조페기계, 동, 철제련, 탄광, 제혁 등의 여러 종류의 기계를 구하는 등에 있다.》고 전하였다.(《근대사학》 19호, 101~102페지)

이것은 그들의 시찰목적이 조선의 자본가세력과 직접적인 련계를 가지고 진행되였다는것과 나라의 근대화를 준비해나가려는데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다른 한편 개화파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통리기무아문에서는 1881년 7월 김윤식을 령선사로 임명하고 그의 지휘밑에 69명으로 구성된 류학생, 실습생들을 파견하여 근대식 군사편제와 훈련법, 전투조법, 외국어학습을 기본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습생들은 물리, 수학, 화학, 기계학 등의 기본을 배우면서 무기제조법을 익혀나갔다.

이와 함께 령선사일행은 각종 근대적과학서적들을 대량적으로 구입하였으며 일부 무기제작을 위한 공작기계들과 실험기구들, 신식무기들을 구입하여왔다.

개화파성원들은 또한 외래자본주의침략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로서 일본침략자들에게 무관세를 규정한 강도적인 《조일통상장정》을 갱신하기 위하여 적극 힘썼다.

1880년 7월 김홍집은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수출입품관세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를 정식 제기하였다.

그는 수년간의 면세조치는 일시적인 《편의》를 도모한것이고 그러한 사태를 언제까지나 내버려둘수 없는 문제이며 따라서 조선정부는 관세징수에 착수하려는 차비이므로 통상협정을 맺기 위한 교섭을 시작할것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다.

통상조약교섭을 제기한 다음해 8월 구체적교섭에 들어가기 위하여 조병호가 제3차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였다.

8월 중순에 시작된 예비회담에서는 조선측에서 내놓은 35개 조로 된 거류지의 땅세와 선박세의 대폭인상, 개항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처벌규칙의 확대, 쌀과 콩, 홍삼의 수출금지, 수출입세의 인상을 3개월이전에 예고하기만 하면 언제나 시행할수 있게 하는것, 아편 및 그리스도교관계도서수입금지, 항구정박중의 선박선원이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 처벌하는 문제였다.

또한 새로 작성한 관세규칙에 의하면 수입세에 있어서는 쌀, 밀, 콩 및 금은화

페와 금, 은 그리고 제품으로 만들지 않은 금덩어리는 모두 무세로 하며 술에 대해서는 35%, 시계 및 서양사치품에 대해서는 25%, 일반상품은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품은 종류여하에 관계없이 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것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반대하였다.

놈들은 알곡수출을 금지하고있는 조항을 페지하며 수입품관세를 5% 내리자는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왔다. 그리하여 담판은 결렬되였다.

신식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개화파들의 활동

임오군인폭동이후 되살아난 수구파반동들은 무력을 재조직하기에 급급하였다. 수구파들은 조선군대의 훈련 및 무장장비를 전적으로 청나라에 의존하였다.

개화파들은 수구파들을 타승하기 위한 자체의 무장을 갖추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일본에 수신대사로 갔던 개화파의 한 성원이 1882년 12월에 한성판윤으로 되면서 그 직권을 리용하여 개화파의 영향하에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여 신식군대조직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활동은 수구파반동들의 저항에 부닥치게 되였다.

민가일당은 그를 한성에 두는것이 위험하다고 하여 한성판윤직에서 해임시키고 1883년 3월 광주류수로 임명하여 지방으로 내보냈다.

광주류수가 수어사를 겸하고 병권을 가질수 있는 조건을 리용하여 그는 국왕에게 신식군대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왕의 승인을 받은 그는 광주에 특별군영을 설치하였다.

군영은 한성시내 4개 영가운데서 후영의 한 부대를 골간으로 하고 군인폭동당시에 해산당한 군인들과 지방청년들을 모집하여 약 1 000명으로 편성하였다. 편제와 훈련은 근대적방법으로 조직진행하였고 1881년과 1883년초에 일본사관학교에 파견한 10여명의 류학생을 소환하여 훈련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관학교출신 신복모를 그 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개화파들이 창설한 신식군대는 날을 따라 몰라보게 장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1883년 12월 1일부 《한성순보》 4호에는 광주에서 훈련받은 500명의 군대가 열병훈련에 참가하여 거둔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광주에서 훈련된 신식군대의 규률성과 조직성, 전투기술수준이 결코 다른 나라의 근대화된 군대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개화파들의 경찰제도의 개혁시도

1883년 1월 23일 통리군국사무아문은 한성부에 순경부를 설치하고 그 규칙과 규모는 본 아무에서 토의결정하고 집행할데 대한 문제를 국왕에게 제기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것은 경찰제도를 근대화할데 대한 개화파의 활동의 결실이였다.

경찰제도를 근대화하는것은 봉건통치층의 정치적부패와 타락, 그로 인하여 더욱 조장된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을 수습하는데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부르죠아적과제의 하나이다.

낡은 봉건적중앙경찰기관인 포도청은 《도적》과 《간사한짓》을 하는 《나쁜놈》들을 체포구금하고 민간에서 밤에 순찰을 조직하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었다.

포도청은 허위와 기만으로 은페된 봉건법을 집행하는 경찰기관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량반, 봉건적지주의 리익을 옹호하여 그와 대립되는 인민들을 억압하고 징벌하

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찰조직이 봉건세력과 대립되여 새로 자라나고있던 자본가, 상인을 비롯하여 새로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옹호해나설수는 없었다.

개화파들은 개화파의 한 성원이 한성판윤의 지위에 오르게 된 기회에 근대적인 경찰기구로서 순경부를 내오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화파성원이 곧 한성판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순경부를 조직하고 그를 관리운영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근대적경찰제도를 세우기 위한 개화파들의 투쟁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1884년 7월 개화파성원인 남원유학 오감이 《론재판경찰법》이란 책자를 만들어 국왕에게 바치였다.

이 책에서는 근대적경찰기구창설의 필요성을 력설하면서 우리 나라의 낡은 경찰기관인 포도청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것을 설득력있게 론증하고 《… 경찰이란 순사를 말하는것인데 그것은 민간에서 규률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 잡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직무를 실속있게 수행하도록 애써 노력하게 하는》데 (《승정원일기》 고종 21년 7월 24일)절실히 필요한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이와함께 이 책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있는 경찰제도의 시행세칙을 연구분석한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의 경찰세칙을 만들어 첨부해놓았다.

개화파의 근대적우편제도의 실시

봉수나 역마와 같은 낡은 봉건적통신제도는 사회가 자본주의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순응할수 없었다.

우편제도를 근대화하기 위한 사업은 개화파의 주동인물의 한명인 홍영식이 담당수행하였다.

홍영식은 1882년 12월 행정기구로서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나왔을 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한 기관인 우정사의 협판자리를 차지하고 우편제도를 근대화하기 위하 사업을 추진시켰다.

그후 1883년 6월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의 부사로 임명되여 미국에 건너가 그 나라 각지에 설치된 전신제도를 세심히 조사연구하고 돌아왔다.

11월 21일 미국방문귀확보고를 하기 위하여 국왕과 만난 자리에서 홍영식은 미국의 형편을 보고하는 한편 체신제도를 근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기하여 합의를 보게 하였다.

개화파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1884년 3월 27일 조선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통신기관인 우정총국의 설립을 보게 되였으며 그의 총관으로 홍영식이 임명되였다.

홍영식은 1884년 우정총국신설과 관련하여《계략장정(계획)》을 작성하였으며 9월 11일에는 구체적으로 우정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로서 우정총국 《적제잠정》, 《사무장정》, 《우정규칙》, 《경성내우정왕복개설규범》 및 《경성인천간왕복우정규범》 등 체신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정과 세칙 등을 작성하여 국가의 승인을 받았다.

1884년 10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체신사업이 개시되였다.

기기창의 설치와 근대적기업체들의 창설을 위한 개화파들의 활동

개화파들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병기공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데로부터 자체의 근대적무기제조업창설에 큰 관심을 돌리였다.

1881년 김윤식이 령선사가 되여 류학생 및 기술자 69명을 데리고 중국의 티엔

진조병창에 가서 무기와 각종 기계제작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것은 그러한 준비사업의 한 고리였다.

군인폭동후 김윤식은 귀국할 때 12㎰원동기와 함께 공작기계, 화학실험기구들을 사들여왔으며 동시에 중국의 기술자 4명을 고용해왔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1883년 4월 한성 삼청동 북창에 기기창을 설립하고 신식무기제작사업에 착수하였다.

기기창의 설치에 뒤이어 무기제조와 기계공업발전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군국아문은 군국사와 기기창을 합하여 1883년 5월 23일 기기국을 창설하였고 그의 총판으로 김윤식을 임명하였다. 개화파들은 국가적으로 산업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민간기업체를 국가기관이 도와주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근대적인 산업을 창설해나갔다. 1883년 6월 평안도 사람들로 대동상회가 창설되였는데 이것은 외아문에서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한성의 중촌상인들이 장통방 준천사에서 장통상회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내아문에서 보호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권연국(담배제조기업체), 양춘국(술, 간장, 된장기업체), 두병국(두부, 떡을 비롯한 식료공업기업체) 등이 창설되였다.

자금문제를 풀려는 개화파들의 활동을 방해한 일본의 책동

김옥균이 제2차 일본방문때에 진행한 차관교섭에 대하여 일본측은 17만￥을 주었는데 그중 5만￥을 군인폭동때에 입은《배상금》으로 떼여내고 거기에 년 8%의 높은 리자와 2년후부터 원금까지 갚기 시작하여야 한다는 가혹한 조건을 붙였다. 이것은 당시 일본지배층이 표방한 《원조》의 약속과 그들의 실제행동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과의 차관교섭은 매우 곤난할것이 예견되였다.

그렇다고 하여 개혁운동을 포기할수도 없었고 개혁운동의 자금원천을 다른데서 마련할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것이였다.

김옥균은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1883년 6월 제3차로 일본에 가게 되였다.

김옥균은 일본외무경 이노우에를 찾아가 300만￥의 차관을 요구하면서 국왕의 위임장을 내놓았다.

이노우에놈은 이전에 조선국왕의 외채구입위임장이 있는 조건에서 300만￥의 차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옥균이 내놓은 국왕위임장이 《위조문건》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이미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졌다.

이노우에놈의 이러한 파렴치한 배신행위는 개화파의 차관교섭을 파탄시키며 더나아가서는 조선에서의 개혁운동을 가로막으려는 내외반동세력의 발악적인 책동의 직접적산물이였다.

민가일당은 조선봉건정부의 외교 및 재정고문으로 기여든 몰렌도르프를 사촉하여 그로 하여금 조선에 와있는 일본공사 다께소에를 통하여 김옥균이 가져간 위임장이 위조문건이라고 허위중상하게 하고 다른편으로는 다께소에로 하여금 이를 일본정부에 보고하게 하였다.

김옥균의 차관교섭과 관련하여 그를 방해하기 위하여 꾸며낸 내외반동의 음모책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은것은 다름아닌 일본외무경 이노우에놈이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우에는 김옥균의 위임장이 허위문건이라는 생트집을 걸어 차관제공을 거부하였다. 일본주재 미국공사 삥헴이란 놈도 일본정부의 립장을 지

지함으로써 김옥균의 차관교섭을 방해하였다. 그후 김옥균은 별도교섭으로 일본 다이이찌은행에서 20만￥의 차관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것도 일본반동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실패하고말았다.

이리하여 개화운동의 자금조달문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였고 국정개혁운동도 많은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개화파들의 개혁사업을 가로막기 위한 수구파들의 책동

수구파들은 개화파들에 의하여 창설된 내아문, 외아문을 비롯한 새로운 국가기관들의 요직을 차지하고 근대적국가기관으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뿐아니라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중요성원들을 정치적으로 박해하여나섰다.

수구파들은 개화파들을 정부의 요직에서 점차 부차적인 직책으로 돌려놓거나 중앙관직에서 지방관직으로 옮겨놓는 책동을 하였다.

1883년 3월 김옥균은 동남제도개척사겸 포경사로 밀려내려갔다가 그후 그 직책도 박탈당하였고 개화파가 육성한 군사지휘관이였던 신복모는《해상방비》총독의 직책에서 철직되였다.

수구파들은 개화파들이 광주에서 양성하고있던 신식군대 약 1 000명을 해산시키고 그들을 수구파의 우두머리들인 윤태준, 한규직이 장악하고있던 친군 전영과 후영에 편입시켰다.

이때 개화파들이 육성한 군사지휘관인 신복모도 전영에 편입되여 부평에 가서 군사복무를 하게 되였다.

수구파들은 《한성순보》를 통한 개화사상의 전파와 그 영향력을 말살하기 위하여 편집내용에 간섭해나섰으며 개화사상을 거세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1884년 1월 청나라군대가 한성에서 최태영약국을 습격하여 조선사람들을 살해한 사실을《한성순보》가 폭로하고 그 범죄자들을 처벌할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 기사가 발표된 후 사회적여론이 환기되자 수구파들은 이것을 구실로 침략자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기사를 쓰지 못하게 신문편집사업에 제멋대로 간섭하였다.

부르죠아개혁을 파탄시키기 위한 내외반동들의 책동은 1884년 봄에 극단에 이르렀다. 조선봉건정부의《재정고문》으로 기여들어 청나라의 조선침략의 현지사환군노릇을 하고있던 몰렌도르프는 수구파들에게 《조선에서 없애야 할 해독은 당오전이 아니라 김옥균이니 우선 그를 제거해야 한다. 김옥균이 백방으로 여러분을 모해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호상 결합하여 이 나라의 제일가는 폐단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갑신일록》서설)라고 말하였다.

개화파들이 토의결정한 정변수행방도

1884년 9월 17일 다음과 같은 세가지안을 내놓았다.

첫째안, 우정국락성연을 계기로 하여 정변을 단행할것.

둘째안, 어두운 밤을 리용하여 자객을 청국사람으로 변장시켜 단번에 민영목, 한규직, 리조연 등 3명을 처단하고 그 죄를 민태호부자에게 들씌워 이들 역시 처형할것.

셋째안, 경기감사 심상훈을 얼리여 홍영식의 별장이 있는 백록동의 정자를 빌어서 연회를 차려놓고 여기에서 수구파를 처단할것.

개화파들은 세 안을 놓고 심중한 토의를 거듭하던 끝에 첫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였다.

개화파들은 10월 14일 회합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을 세우고 정변날자는 10

월 17일로 결정하였다.

1) 우정국락성식연회에는 외교단을 주빈으로 하고 전영사 한규직, 후영사 윤태준, 좌영사 리조연, 우영사 민영익을 배빈으로서 초대할것.

2) 안국동 별궁에 불을 지를것.

3) 별궁에 화재가 일어나면 4영사는 직책상 현장에 급히 달려갈것이다. 그 기회를 엿보다 우정국밖거리에 행동대를 매복시켜 처단할것 .

4) 창덕궁 금호문밖에는 전영의 교관 신복모가 교관 리웅호이하 전영군졸 14명을 인솔하여 매복시켰다가 별궁의 화재에 의한 문안차로 민태호, 민영목, 조녕하가 왕궁에 들어가는것을 처단할것.

5) 창덕궁 수위를 담당한 전영군병은 그날 밤 윤경완의 지휘밑에 있으므로 대응할것.

6) 창덕궁 인정전 행랑 및 기타 여러곳에 폭약을 장치하여 폭음으로 위협할것.

7) 안국동 별궁의 방화와 함께 일본국공사관으로부터 군졸 30명을 파견하여 금호문과 경우궁사이의 거리를 경계근무시킬것.

일본을 정변수행에 리용하기 위한 개화파들의 활동

1884년 9월 12일에 일본공사 다께소에가 서울에 다시 기여들었다.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의 우파의 우두머리들인 이다가끼, 고또 등은 중-프전쟁을 리용하여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시작하여 개화파세력을 지지해줌으로써 조선침략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일본주재 프랑스공사 상크위치와의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건과정을 알고 놀란 일본정부안의 고위급관리층은 조선과의 관계가 복잡해질것을 고려하여 야당세력의 진출에 대처해서 선손을 쓰기 위하여 황급히 다께소에를 조선에 파견하여 마치 일본이 조선의 진보와 개화를 위하여 《원조》를 줄 용의를 가지고있는것처럼 행동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화파는 매우 심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김옥균은 1884년초까지만 하여도 일본이 개화운동을 방해하고있다는것을 알고 그 점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있었다.

김옥균은 일본정부의 속심을 잘 알고있었으므로 일본측과 그리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던것이다.

일본에 대한 김옥균의 불신임은 그후 더욱 굳어졌다.

그것은 일본공사관 서기관 시마무라놈이 어느날 공사관에 찾아온 김옥균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타진해보려고 하였을 때 김옥균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 사실을 통해서 명백히 알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지금 조선의 형편이 얼마 견대여낼것 같지 못하다는것을 통론하고 일본정부가 아해와 같이 정책을 바꾸고있음을 한탄하였다.》 또한 《하루는 다께소에공사가 장차 한성에 오게 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이것을 우려하였다. 지금 한편의 당파(수구파)가 청나라의 세력을 업고 나라를 망쳐먹고있는판에 다시 또 다께소에가 와서 몰렌도르프와 한짝이 된다면 그 해독이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지 헤아릴수 없는 일이다.》(《갑신일록》 서설)

그러나 1884년 9월 12일 일본공사 다께소에가 서울에 다시 온 이후 종전의 반개화파정책을 버리고 청나라봉건정부를 반대하는 행동을 로골화하자 이때로부터 개화파는 일본을 정변목적에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개화파는 박두한 정변에서 일본군대를 왕궁호위에 리용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시 개화파에게 필요한 일이였다.

그것은 정변에 일본군대를 인입함으로써 개화파를 반대하는 봉건중국군의 공격을 견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었고 개화파정권의 반격태세를 완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적여유를 얻어낼수 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 고려밑에서 활동을 벌린 결과 9월 17일에 개화파는 정변에 일본군대를 동원시킬데 대한 약속을 일본측으로부터 받아냈다.

이리하여 조선침략을 노리는 일본과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개화파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정변에서 공동행동을 취하게 되는 관계가 성립되게 되였다.

이것은 개화파로서 하나의 외교적성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받아낸 후에도 개화파는 일본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대하였다.

개화파는 안팎이 다른 그전날의 일본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그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정변은 어디까지나 자체로 단행하여야 한다는 원래의 방침을 고수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9월 29일 류홍기를 방문하였을 때 김옥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령 일본정부의 원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의사로 볼 때에는 우리 나라 사태가 절박하기가 마치 다리없는 강을 등지고 군량이 떨어진 조건에서 적과 맞서있는것 같으니 일본정부의 행동을 기다릴수는 없는것이다.》(《갑신일록》 １１월 １６일) 김옥균은 이처럼 개화파의 힘을 위주로 할데 대한 립장을 견지하면서 일본측과의 교섭에서 얻어낸 약속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활동하였다.

개화파의 이러한 적극적인 립장은 그들이 일본지배층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정변을 일으킬 날자를 택한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났다.

다께소에는 김옥균에게 왕궁호위에 일본군대를 출동시킬데 대한 약속을 한 후 9월 25일에 자기 나라 정부에 일본군대를 정변에 가담시킬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지어 회답해줄것을 요구하였다.

다께소에의 질문에 대한 일본정부의 회답은 10월 20일에 일본정기우편선으로 도착될것이 예견되고있었다.

그러나 김옥균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자기의 결심대로 정변단행날자를 10월 17일로 결정하였던것이다.

뿐만아니라 개화파는 일본군을 인입하는 조건에서도 정변을 독자적으로 보장할 목적밑에 다께소에와의 새로운 교섭을 통해서 일본군이 왕궁호위에 협력할 임무만을 담당하고 정변수행과 내정개혁에는 개입하지 않을데 대한 사전합의를 보았다.

김옥균이 정변을 앞두고 다께소에에게《민가일족을 제거하는것은 나에게 맡기고 일이 벌어진 후 군대를 통솔하여 우리를 위하여 청군을 막을것을 공사가 맹세한다면 나는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하니 다께소에는 그에 동의하였다.（《갑신일록》 10월 ８일）개화파는 바로 이와 같은 전술적립장을 취하면서 그 어떤 외국세력이 나라의 독립과 변혁을 진정으로 협력해줄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의 힘을 리용하는 정책은 오직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취하지 않을수 없는 부득이한 방편으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그것은 김옥균이 1885년 국왕 고종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을 위해서 도모하건대 청나라는 본래 믿을만한것이 되지 못할것이며 일본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지

적하고《신（김옥균자신） 등이 당시 외국의 힘을 빌었다고 평하는자가 있으나 이것은 당시 내외사정으로 보아 부득이한데서 나온것이다.》(《김옥균》564－568페지）고 쓴데서 알수 있다.

1888년 한성(서울)시민들의 반미봉기

1882년군인폭동때 반일투쟁에 떨쳐나섰던 한성시민들은 1888년 또다시 반미봉기에 궐기하였다.

이 봉기는 개항후 미국침략자들의 교활한 사상문화적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첫 투쟁이였다.

미국침략자들은 1882년 4월에 침략적인 《조미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침략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상문화적침략을 강화하였다.

특히 미국침략자들은 침략의 길잡이, 사상문화적침투의 척후병들인 그리스도교 선교사들과 《의사》, 《교원》, 《고문》 등을 수많이 침투시켰다.

조선에 기여든 미국선교사들은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한편 한성에 서양식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근대문명에 생소한 조선사람들을 기만롱락하면서 침략책동을 강화하였다.

미국선교사 호라스 뉴톤 알렌스는 1885년 2월부터 한성 재동에 《광혜원》이라는 병원을 차려놓았으며 스크랜톤은 1886년 5월에 《리화학당》을, 텐리지 아펜셀러는 《배제학당》을 꾸려놓고 그것을 사상문화적침략의 거점으로 만들었다.

미국침략자들은 또한 1885년 9월에 헨리 베루디를 조선정부의 해관총세무사로 침투시켰으며 1886년 6월에는 죠지 기르모아, 방카, 호마, 텔버트 등을《소학교 교원》의 명목으로 우리 나라에 들여보냈다. 또한 1888년 2월에는 륙군소장 타이, 대좌 카민스, 소좌 리이 등을 군사《고문》으로 침투시켰다.

《선교사》, 《교원》, 《의사》, 《고문》 등 각종 명색을 띠고 조선에 기여든 간첩들인 미국침략자들의 현지사환군들은 각 방면으로 숭미사대주의사상을 퍼뜨리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노예적굴종사상을 주입시키려고 광분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은 이러한 기만적인 설교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놈들의 파렴치한 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안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나섰다.

한성시민들의 반미봉기의 직접적원인으로 된것은 우리 나라에 와있던 외국인들, 주로는 미국놈들이 조선어린이들을 노예무역의 대상으로 끌어간것이였다. 《의사》나 《교육가》의 탈을 쓴 미국침략자들이 침략한 후 한성에서는 부모들 모르게 강제로 《학교》와 이른바 《고아원》에 끌려가거나 또는 노예무역의 대상으로 랍치되여 종적을 모르게 되는 어린이실종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한성에서 어린이들이 잃어지는 사건의 범죄자가 미국놈들이라는것이 알려지게 되자 인민들속에서는 놈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가 폭발하였다.

1888년 봄부터 인민들은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하였다. 초기에 투쟁은 서양침략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풍설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봉건정부에서는 형조와 한성부 및 좌우포도청을 동원하여 풍설을 단속하려고 하였으나 풍설은 더 널리 퍼지면서 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인민들의 격분에 당황한 봉건정부는 그들의 투쟁이 더 커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1888년 3월 미국공사에게 각서를 보내여 미국인들의 그리스도교전도와 학교설립을 금지한다는것을 통고하였다.

각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약(조미조약)에서는 전도와 어떠한 학교개설도 지적되여있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해준것 이외에는 어떤 학교도 엄금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민들가운데서 전도를 허가하지 않는다. 폭동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전도를 담당한 미국인들을 친절히 권고하여 우리의 요구를 승낙하도록 하여야 한다.》(《미국외교문서》 1888년 447페지)

그러나 봉건정부의 통고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미국선교사들은 우리 나라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교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4월부터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등이 북부조선일대에 대한《답사》를 시작한데 뒤이어 련이어 선교사들마다 각지에 《지방답사》로 싸다니면서 도전하였다.

미국침략자들이 조선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범죄행동을 계속하자 이에 대하여 국왕 고종까지도 《요즈음 민간에서 아이를 잃는 일이 있어서 거리와 마을들의 소란스러움이 이처럼 심해본적이 없다.》(《고종실록》권 25, 25년 5월 10일)고 아우성을 칠 형편이였다.

1888년 5월 초순부터 한성시민들은 반미폭동을 시작하였다.

폭동에 궐기한 인민들은 미국놈들이 모여살고있는 곳인 정동을 포위하고 놈들의 활동을 봉쇄하였으며 미국공사관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서양침략자들의 앞잡이들을 처단하고 미국놈들을 단죄하였다.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아가는데 당황망조한 유미침략자들은 저마다 제놈들의 군함을 인천항에 끌어들이는 소동을 피웠으며 특히 미국침략자들은 인천에 왔던 군함《에섹스》호에서 해병대를 한성에 끌고들어와 시민들의 반미투쟁을 탄압하려고 책동하였다.

한성시민들은 미국침락자들의 군사적위협에 굴하지 않고 시위와 항의투쟁을 6월까지 계속하였다.

투쟁이 한달동안이나 완강하게 계속되는데 질겁한 미국공사 딘스모아는 저들의 힘만으로는 이를 탄압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영국, 도이칠란드, 프랑스, 일본공사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모의한 후 조선정부에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할것을 강요하였다.

딘스모아는 6월 10일에 《한성에서 끊임없이 증대되고있는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긴급조치를 취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생존은 위험에 처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해서나 조선정부를 위해서 매우 좋지 않은 일이 생길수 있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진압대책을 취할것을 조선정부에 최후통첩식으로 강요하여나섰다.

인민들의 드높은 반미항쟁기세에 위압되여 초기에는 미국인의 선교활동과 학교설립을 금지한다는것을 공식통고하였던 봉건통치배들은 이 사건을 거짓소문이 퍼져서 일어난것으로 만들어놓고 봉기참가자들을 류언비어를 류포시킨《란동분자》로 몰아 체포투옥하면서 봉기를 진압하였다.

한성시민들의 반미봉기는 투쟁의 자연발생적인 미숙성과 미국침략자들과 결탁한 봉건통치배들의 탄압으로 진압되였으나 우리 나라에 함부로 기여들어와 제멋대로 날뛰던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놈들의 강도적인 침략적본성을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인민들을 반침략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역할을 놀았다.

1890년-1891년 제주도인민들의 반일투쟁

1890년대초에 제주도인민들은 조선어장에 불법침입하여 략탈과 온갖 만행을 감행하는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제주도인민들이 반일투쟁에 일떠서게 된것은 개항후 어업부문에 대한 일본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이 혹심하였기때문이다.

개항 첫 시기부터 우리 나라 동남해안일대에서 비법적으로 수산자원략탈책동을 감행하여오던 일본침략자들은 점차 조선침략의 지반을 확대하면서 1883년 6월 22일 리조봉건정부에《조일통상잠정》을 강요하고 전라, 경상, 강원 및 함경 4개도 연해에서의 어업권을 탈취하였다. 이때로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연해에서의 수산자원략탈은 종래처럼 밀어의 형태로가 아니라《합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되였으며 일본어민들은 무리를 지어 조선연해에로 밀려들었다.

우리 나라 령해에 밀려든 일본어민들은 남해일대에 상륙하여 살림집까지 짓고 그곳에 살면서 수산물을 마구 략탈하였을뿐아니라 군사정탐임무까지 수행하였다.

일본물고기도적떼들의 이러한 해적행위는 단순한 경제적침략행위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리조봉건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침략행위를 동반한것이였다.

일본해적들의 침략행위는 일본반동정부의 적극적인 추동과 뒤받침으로 하여 날을 따라 더욱 횡포성을 띠고 감행되였는데 그것은 이름난 어장인 제주도부근에서 더욱 심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잠수기를 사용하는 등 앞선 어로방법으로 물고기자원을 남김없이 략탈함으로써 조선연해어장을 독점하였으며 일본도를 비롯한 살인흉기를 휘두르면서 륙지에까지 기여올라 살인, 략탈, 파괴, 방화, 강간 등 야수적만행을 아무런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1887년 4월 일본해적무리가 제주도 대정현 가화도에 벌거벗은채로 기여들어 300여호의 이곳 주민들을 마구 내쫓고 재물을 파괴략탈하는 만행을 감행한 사실과 그해 8월에 일본해적 수십명이 6척의 배를 타고 모슬포에 기여들어 닭, 돼지 등 집짐승을 마구 강탈하면서 무고한 주민 리만송을 살해하고 김성만, 정종무, 리흥복 등 주민들에게 치명상을 입힌것 등은 그러한 만행의 일부였다.

1883년 이후 일본해적무리들의 이와 같은 강도적행위로 하여 남해안어민들 특히 제주도어민들은 기본생계와 생활터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였다.

일본해적무리들의 침략적책동은 제주도어민들을 무한히 격분시켰다.

제주도어민들은 일본해적무리들을 반대하여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한편 놈들의 략탈행위와 살인만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봉건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제주도어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을 때마다 봉건정부는 일본인해적범죄자들을 체포하여 넘겨줄것과 손해배상금을 지불할것을 일본측에 요구하군 하였으나 그것으로 놈들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킬수는 없었다.

교활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령사재판권》을 내걸고 살인악당들을 뒤로 빼돌리군 하였을뿐아니라 일본어민들의 해적행위를 합법화할 목적밑에 부패무능한 리조봉건통치배들을 강박하여 1889년 10월에 제놈들의 수산자원략탈권을 규정한《조일량국통어잠정》을 강압체결하였다.

일본어선들은《통어잠정》을 방패로 조선연해에 물밀듯이 쓸어들었다.

1890년에 들어서면서 제주도어민들은 제주도어장에서의 일본인들의 어로권철회를 요구하여 일본해적들의 만행에 맞서서 전면적인 반일투쟁에 궐기하였다.

제주도어민들은 해변가를 피로 물들이면서 침략자들을 까눕히며 굴함없이 투쟁하였으나 봉건통치배들은 제주도어민들을 돕는것이 아니라 침략자를 돕는 용서할수 없는 죄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제주도어민들은 1890년 3월 들고일어나 어민

들을 회유하려고 봉건정부가 파견한 관리놈을 쫓아내고 일본해적들과 치렬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제주도어민들은 일본침략자들에게 투항굴종하는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에 강경한 항의를 계속 들이대는 한편 일본침략자들을 맞받아 투쟁을 벌리였다.

1891년 5월 15일 일본해적들이 수십척의 무장어선을 몰고 제주도 건입포에 기여들었을 때 이곳 인민들은 일본놈들의 총칼부림에 16명의 희생자를 내면서도 끝까지 놈들과 싸웠으며 6월 16일 군천리, 북포리어민들도 이곳에 기여올라 살인, 략탈만행을 감행하는 일본해적들과 결사적으로 싸워 놈들을 물리쳤다.

제주도인민들은 일본해적들이 침입할 때마다 굴함없이 싸웠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이 자체로 만든 변변치 못한 무기를 가지고서는 5~6월 사이만도 100여척씩이나 련이어 덤벼드는 일본해적선을 저지시킬수 없었다.

일본해적들의 만행과 그 후과에 대하여 1891년 8월 제주목사는《일본배들은 허가장도 없이 불의에 들이닥쳐 어부들을 만나기만 하면 잡은 물고기를 빼앗고 결박하여 물에 처넣었다. 백성들이 고기배에 타는것을 금지하면서 그들은 총검을 마구 휘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있으며 갑자기 민가에 뛰여들어 부녀자들을 위협하고 식량과 의복, 닭, 돼지 등을 략탈하는 등으로 못하는짓이 없이 행패질을 하므로 온 섬의 형편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였다.》(《비변사등록》 리태왕 신묘 8월 22일)고 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의 행패가 더 심해지고 그에 따라 인민들의 강력한 반일투쟁과 반정부투쟁이 계속 고조되자 봉건통치배들은 1891년 7월 일본공사 가지야마에게 일본어민들의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것을 또다시 요구하는 동시에 8월에는 통리아문 주사 리현상을 책임자로 하는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조일통상잡정》과 《통어규칙》을 고칠데 대한 담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은 담판의 기회를 리용하여 보다 침략적인 요구를 달성하려고 간교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일본어민들의 해적행위가 발생하는것은 조선측에서 해안경비를 소홀히 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태의 진상을 완전히 전도하면서 그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웠으며 일본정부가 어민들의 해적행위에 대한 단속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평양을 개방하고 대동강하구의 철도와 인천사이의 항행권을 일본에 넘길데 대한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왔다.

일본침략자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강도적요구로 말미암아 담판을 통하여 일본어민들의 해적행위를 근절시켜보려던 리조봉건정부의 시도는 실패하고말았다.

제주도인민들의 1890~1891년 반일투쟁은 봉건통치배들의 비굴한 태도로 하여 일본해적들의 행패를 끝장내지 못하였으나 우리 인민들의 견결한 반일투쟁정신을 보여주었으며 일본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1893년 동학농민들의 반침략투쟁

1893년에 전라, 충청도지방의 동학농민들은 한성과 보은(충청북도)에서 대중적인 반침략투쟁을 벌리였다.

동학하층 농민대중이 벌린 이 투쟁은 민족종교의 형태로 발생한 동학이 내건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구호밑에 벌어진 반침략투쟁이였다.

1860년 최제우에 의하여 처음 발생한 동학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세력이 크게 확대되였다. 동학교도들의 상층은 몰락한 량반계급출신들로 이루어져있었으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하층은 기본이 농민대중이였다. 동학의 상층과 하층은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달랐다.

동학상층은 당시 고조되고있던 농민대중의 반침략반봉건투쟁기세를 리용하여 몰락한 자기들의 사회적처지를 개선하려고 하였으며 하층인 농민을 기본으로 한 피압박피착취대중은 자본주의적 및 봉건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려는 요구를 해결하는데서 동학에 기대를 걸고있었다. 동학상층과 하층의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은 통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동학의 하층농민들은 그 상층이 봉건정부에 대하여 타협적이여서 투항주의적인 태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 삼례집회이후부터 독자적인 실력투쟁으로 넘어갔다.

※ **삼례집회**

1892년 11월 전라도 삼례지방에서 동학상층에 의하여《교조신원》등 사학(요사스러운 학문)을 전파한다는 죄목으로 사형당한 제1대교주 최제우의 억울한 《죄명》을 벗길데 대한 구호를 내걸고 교도들의 집회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확대된 동학세력을 리용하여 비법화되여있는 동학의 합법성을 이룩함으로써 몰락한 저들의 사회적처지를 개선하려는 동학상층의 종교적야심의 산물이였다.

동학상층은 삼례집회투쟁에 수만명의 농민대중이 참가하여 드높은 투쟁기세를 보이자 닥쳐올 봉건정부의 탄압에 겁을 먹고 집회의 해산을 선포하면서 대중의 진출을 무저항주의적종교운동에 국한시키려고 하였다.

동학상층의 비렬한 배신행위와 타협주의적책동에 격분한 하층농민들은 자기들의 계급적리익에 맞는 행동방향을 다시 정하게 되였다.

삼례집회투쟁이 있은 후 동학교도에 대한 봉건통치배들의 탄압과 략탈이 더욱 심해지자 해산되였던 동학교도들은 다시 충청북도 보은지방으로 모여들면서 새로운 투쟁을 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동학상층은 하층농민들의 대중적진출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40여명으로 된 《상소단》을 무어가지고 한성으로 올라가 1893년 2월 경복궁 광화문앞에 꿇어엎드리여 국왕에게 교조신원을 애걸하였다.

상소운동을 계기로 한성에 집결하였던 동학하층-농민들은 상층들이 비겁하게 광화문앞에 엎드려 목숨을 살려줄것을 애걸하고있을 때 일본 및 유미렬강의 침략을 반대하는 반침략투쟁에 궐기하였다.

본래부터 반침략투쟁열의에 들끓고있던데다가 한성에 올라가서 나라의 수도가 외래침략자들의 소굴로 전변되고있는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 동학농민들은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참을길 없었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 기록은 《이전에는 동학이 충청, 전라, 경상 3개 도의 먼곳에 잠재하여 외국인과 접촉하지 않았기때문에 배외주의도 발휘될 기회가 없었으나 지금은 경성(서울), 인천사이에 진출하는데 미쳐 곧 외국인이 주의를 환기하고 중대한 외교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르렀다.》(《근대일본관계연구》하권 (일문), 222~223페지)고 썼다.

동학상층이 상소운동을 벌리려고 한성에 올라오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한성에 들어온 하층군중은 1893년 2월 13일 밤 미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기여든 유미침략자들의 공사관과 교회당, 살림집, 담벽들에 놈들의 범죄적인 침략책동을 폭로하며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격문을 써붙이면서 강력한 반침략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너희들은 급히 행장을 차리여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충신의 무장과 인의의 방패로 죄를 폭로하고서 오는 3월초 7일에 치겠으니 그리 알라.》라고 하면서 놈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고 즉시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단호한 징벌을 가할 기세를 보이였다.

이처럼 동학하층은 한성에 들어와있는 유미침략자들과 폭력으로 대항할 기세를 보이는 한 편 일본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격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하늘땅사이에 사람이 살며 나라마다 국경이 확정되여있고 임금이 있고 나라가 있으며 삼강오륜이 있다. …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존중하는자를 사람이라 하고 그것을 침범하는자를 오랑캐라 하나니 …너희들이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미 사람인 이상 마땅히 자기 나라에서 생업에 힘쓰고 국토를 길이 보존하되 우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자손을 키워야 하거늘 망령되게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이웃나라를 침범하여 공격을 일삼고 살륙에 힘쓰니 그 무슨 마음이며 장차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그 옛날 임진란때에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 너희들이 국력을 다하여 침략해왔으며 너희들이 패하여 돌아간 후 우리의 참혹한 재화는 눈을 뜨고 볼수 없는 형편이였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잊지 못할 복수의 원한이 있거늘 너희들이 도리여 우리를 침노하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수 없으며 너희들의 운명은 오래지 않았다.

동국(조선)의 성스러움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또한 서산대사의 가르침과 사명대사의 재주를 너희들은 벌써 잊었느냐.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을것이냐, 우리를 해할것이냐. 너희들은 생사와 안위의 길을 너희들자신이 택하라.》(《조선교섭자료》(일문) 71페지)

이것은 일본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민족적분노의 표현인 동시에 놈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려는 드높은 반일투쟁결의의 표시였다.

동학하층군중들의 반침략진출이 강화되자 외래침략자들은 그에 대한 탄압을 가하도록 봉건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을 저지시키려고 책동하였다.

한성주재 미국공사 허드는 제놈들의 공사관에 나붙은 격문을 리조봉건정부의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을 찾아가 그에 대하여 《추궁》하고 탄압대책을 세울것을 강요하였으며 영국, 일본령사와 함께 탄압대책을 모의하였다. 한편 군함 《제봉》호를 끌어들이였다.

청나라통치배들도 군함 《래원》, 《정원》호를 침입시키고 평양에 주둔시키고있던 300여명의 침략군까지 한성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군함 《야에야마》호를 인천에 침입시키는 한편《만일의 경우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일본거류민들에게 시안의 동정을 탐문하게 하고 공사관 및 령사관 경찰들을 륙해군 병사와 함께 무장시켜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을 탄압할 준비를 서둘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무장한 경찰들을 거리에 내몰아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리조봉건정부로 하여금 반침략투쟁에 나선 군중들을 탄압할것을 강요해나섰다.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에 대한 일본 및 유미렬강의 탄압강요책동은 횡포한 내정간섭이였으며 파렴치한 강도적행동이였다.

그러므로 리조정부는 응당 놈들의 침략책동을 금지시키고 인민들의 의로운 반침략투쟁에 합세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앞에 조성된 위기를 막아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일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한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정당한 반침략투쟁을 지지할 대신에 그것을 탄압하는 매국

매족적책동을 감행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침략자들의 강압과 사촉에 따라 통위영, 장위영의 군사들로 매일 밤 각국 공사관을 순찰하게 하고 한성 동, 서, 북 문밖에 각각 300여명의 군사를 내몰아 살벌한 계엄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국왕은 투쟁의 주모자를 체포하고 군중들을 해산시킬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탄압소동으로 한성에서 반침략투쟁을 계속할수 없게 된 동학하층군중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벌릴 목적밑에 동학교도들이 모여있는 충청도 보은지방으로 향하였다.

2월 중순부터 20여일간에 걸쳐 동학농민들이 한성에서 벌린 반침략투쟁은 격문을 써붙이는것과 같은 소극적인 투쟁이였으나 외래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한성주재 일본공사 오이시가 일본외무대신 무쯔에게 2월 24일 군함을 파견해줄것을 요청하면서《현재 한성에 머무르고있는 일본인은 거의 700명이나 되는데 갑자기 참변에 부닥칠 위험이 있다.》고 아우성을 친것이라든가 3월 2일 리조봉건정부에《항의》하면서《이즈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우리 거류상인들이 안심할수 없고 영업상 방해가 적지 않다.》고 우는 소리를 한것은 침략자들이 받은 타격의 일단을 보여준다.

한성으로부터 충청북도 보은으로 자리를 옮긴 동학하층군중은 그곳에 모이였던 동학교도들과 함께 1893년 3월 10일 집회군중의 이름으로 반침략투쟁을 호소하는 통문을 돌리였다. 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왜놈과 서양의 원쑤들이 깊이 들어와서 큰 란리에 이르렀는데 실로 오늘의 한성형편을 자세히 보면 마치 이것은 오랑캐의 소굴이라 가만히 생각컨대 임진의 원쑤와 병인(1866년)의 수치를 어찌 참을수 있고 어찌 잊을수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 동방삼천리강토는 이 짐승의 발자취로 뒤덮이고 500년의 종사(종묘와 사직, 리조봉건왕조를 의미함)가 드디여 망할 징조를 보이나 인의례지와 효제충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은 비록 궁벽한 산골의 어리석은 백성이나 …우리들 수만명의 힘을 합쳐 죽음을 맹세하고 왜놈과 서양오랑캐들을 쓸어버리려 한다. …1893년 3월 10일 동학창의 유생》 통문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유미렬강의 침략책동으로 조성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구원하려는 애국애족의 뜻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광범한 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보은집회투쟁의 소식에 접한 각지의 애국적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보은으로 모여들었고 그 기세는《골짜기에 넘치는 물과 같고 료원의 불길과 같아 막을 도리가 없다.》 라고 봉건통치배들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높았다.

집회군중의 수는 3월 20일 현재 2만여명이나 되였다.

군중들은 통문을 돌리면서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닥쳐올 내외반동들의 탄압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그들은 반침략애국투쟁에 참가하려고 달려온 각지의 군중들과 함께 보은장안에 진을 치기 시작하였다.

군중들은 장둘레에 돌성을 쌓고 동, 서, 남,북과 중앙에 각각《척왜양창의》라는 글을 쓴 큰 기발과 각도(동학의 교단조직단위)의 이름을 쓴 기발들을 세워 반침략투쟁의 구호밑에 뭉친 대중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보은지방에서 동학농민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자 그 화살이 오늘은 비록 외래침략자들에게 돌려지고있으나 래일에는 그것이 저들에게 돌려지리라는것을 우려하여 집회군중을 해산시키려고 책동하였다. 3월 16일 국왕은 집회의

해산령을 공포하고 17일에는 대신회의에서 병마절도사 홍계훈에게 군사를 주어 탄압할 대책을 토의하였다. 또한 어윤중을 량호(충청도, 전라도) 도어사로 임명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집회군중들이 해산하지 않으면 잡아가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군중들은《수십만명이 어찌 관청의 명령으로 돌아가는것이라 하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쟁기없는 병사이나 아주 강한 왜양을 물리치고저 한다.

각기 믿는바가 있으니 누가 막아나서면 … 천하에 어찌 수십만을 잡아가둘 감옥이 있겠는가.》(《속음청사》 권 7 고종 30년 3월 26일)

집회군중은 정부의 해산명령을 거부하고《토벌》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들은 24일 집회소의 북산과 남산우에 망기(표식기)를 세우고 40~50명씩 감시병을 배치하였으며 성밖에 오가는 사람들을 엄격히 단속하였다. 그리고 성가운데 대오를 배치하고 몽둥이를 준비하면서 기세를 올리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봉건정부는 3월말에 어윤중을《량호선무사》로 임명하고 국왕의 《칙유문》을 발표하여 해산을 강요하는 한편 군사적탄압을 가하게 하였다.

3월 29일부터 동위영, 장위영의 군사 1 400여명이 대포로 무장하고 보은집회를 탄압하기 위하여 청주로 출발하였다.

4월 1일 《토벌》군이 도착하자 《선무사》는 집회군중에게 3일안으로 해산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층군중들의 강력한 투쟁을 외면할수 없어 대오에 끼여들었던 동학상층은 《토벌》군의 최후통첩적위협공갈속에 겁을 먹고 4월 2일 밤에 행방을 감추었다.

당시 자기 계급의 리익을 대변해나설수 있은 지도세력을 가지고있지 못했던 하층군중들은 봉건정부의 탄압이 다가오고 상층이 뿔뿔이 도망해가자 4월 3일 후 해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3월 10일부터 20여일간 계속된 보은에서의 동학농민들의 반침략투쟁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동학농민들의 1893년 투쟁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근대 우리 나라 농민들의 반침략투쟁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며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은 전라도 고부농민폭동을 계기로 일어났다.

전라도 고부지방은 원래 호남벌의 중심에 자리잡고있는 곡창지대여서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봉건적수탈과 폭압이 가혹한 고을의 하나였다.

고부농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것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비행과 관련된다.

1892년 고부군수로 내려온 조병갑이라는자는 순종왕후《조대비》의 일족으로 그 권세를 믿고 악랄한 방법으로 인민들을 수탈하고 갖은 행패를 다하였다.

이놈은 봄에 농민들에게 묵은 땅을 개간하여 전세도 바치지 말고 부쳐먹으라고 승인해주고는 가을에 가서는 전세미를 강제로 빼앗아내여 제배를 채웠다.

이것은 묵은 땅을 개간하였을 경우에는 3년간 세를 바치지 않게 되여있는 리조봉건국가의 수세법에도 어긋나는 비법적인 행동이였다.

또한 이놈은 인민들로부터 대동미를 받아갈 때면 한섬을 좋은 쌀 16말(원래 한섬은 15말이다.)값으로 쳐서 돈으로 받아가고는 국가에 나쁜 쌀을 사서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떼먹었다.

이놈은 이러한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인민들을 수탈하였을뿐아니라 인민들에게《불효》죄니《불목》죄니 하는 여러가지 터무니없는 죄목을 날조하여 들씌우고는 돈을 강탈하는 날강도적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치부한 돈만도 5만냥이 넘었다.
지어 이놈은 일찌기 태인군수를 지낸 제 애비의 비석을 세운다고 하면서 인민들로부터 1 000냥의 돈을 빼앗아냈다.
조병갑의 비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고부지방농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로 된것은 인위적으로 꾸며낸 만석보에 대한 물세징수사건이였다.
원래 이 고장에는 동진강상류를 막아 관개용수로 써오던 만석보라는 저수지보뚝이 있었다.
그런데 조병갑놈은 만석보를 리용하여 농민들을 크게 수탈하기 위한 새로운 흉계를 꾸미였다.
당시 만석보는 무너질 위험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병갑놈은 농민들에게 돈 한푼 주지 않고 그들을 부역으로 동원시켜 본래있는 뚝앞에 보뚝을 하나 더 쌓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는 가을에 가서 만석보의 수세미로서 좋은 땅 한마지기(200평)에서는 2말, 나쁜 땅 한마지기에서는 1말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빼앗아 사복을 채운것만해도 700여섬이나 되였다.
조병갑놈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의 강도적수탈로 더는 그대로 살아갈수 없게 된 농민들은 마침내 군수 조병갑을 상대로 항의투쟁에 일떠섰다.
1893년 11월 전창혁을 선두로 고부군안의 16개 면에서 뽑은 40여명의 농민대표는 진정서를 가지고 관청으로 달려가 군수놈에게 집단적항의를 들이대였다.
그런데 조병갑놈은 도리여 농민대표들을 붙잡아 혹독한 매질만 하여 쫓아냈다.
그해 12월 고부지방농민들은 또다시 60여명의 대표를 보내여 군수놈의 비렬한 행위와 탐욕과 학정을 규탄하고 물세를 낮추며 모든 악패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들이대였다.
이번에도 군수놈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에 이들을 《란민》이라고 하며 마구 내쫓았으며 이 항의투쟁의 앞장에 섰던 전창혁을 잡아가두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893년말에 벌어진 고부농민들의 이 투쟁은 봉건통치배들에게 항의하는 소극적인 투쟁으로써는 결코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이리하여 고부농민들은 원한의 대상인 조병갑놈을 폭력으로 내쫓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이 폭동의 앞장에 선 사람은 전창혁의 아들인 전봉준이였다.
전봉준(자는 명숙)은 1854년 고부군 궁농면 향교리의 훈장가정에서 태여났다.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의 지도밑에 투쟁에 일떠선 약 1 000여명의 농민들은 만석보 남쪽 말목장에 모였다.
격분한 농민들은 손에 참대창을 들고 20리를 걸어서 마침내 군 관청을 습격하였다.
농민들은 악질관리놈들을 끌어내여 징벌하는 한편 무기고를 까부시고 무장하였고 수세미를 주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소식에 고무된 15개 부락농민들이 여기에 합세하여 농민들의 투쟁대오는 삽시에 만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단결의 표식으로 머리를 흰수건으로 동이였다.
고부관청을 습격점령한 농민들은 토지문서와 노비문서 등 공문서를 불살라버렸

으며 무기고를 짓부시고 무기를 탈취하였다.

폭동에 궐기한 농민들의 불의습격에 혼비백산한 조병갑놈이 전주로 도망쳤으므로 폭동군중은 남아있는 악질관리들을 끌어내여 징벌하는 한편 옥문을 열어 억울하게 갇히였던 무고한 인민들을 석방하고 창고를 헤쳐 놈들이 강탈하였던 세곡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또한 폭동군은 비법적인 수세징수의 구실로 되였던 만석보의 새 보를 허물어버렸다.

농민들이 군관청에 쳐들어갈 때 담장을 넘어 도망친 조병갑놈은 19일에야 전주감영에 도착하여 농민군이 봉기한 사실을 알리였다.

조병갑놈과 다름없는 악질관리인 전라감사 김문현놈은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는 한편 비장인 정석진놈에게 50여명의 군대를 주어 당장 농민봉기의 지도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정석진놈은 전봉준을 직접 만나 투항을 설교하는 한편 농민으로 가장시킨 군대를 봉기군안에 잠입시켜 폭동지도자들을 체포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각성높은 농민들에 의하여 이놈들은 모조리 붙잡혀 처형당하였다.

폭동군은 이것으로 자기들의 목적이 실현되였다고 생각하면서 흩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고부농민폭동은 1월 22일경에 끝났다.

고부농민폭동은 한개 고을원을 상대로 불과 열흘남짓한 기간 계속된 인민들의 폭력적인 투쟁이였다.

특히 고부와 이웃하고있는 태인, 금구, 정읍, 부안, 무장 등지의 농민들속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기세가 드높아지고 폭동으로 넘어갈 기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적지 않은 지방에서는 직접 투쟁에 합세하였다.

고부농민들의 반봉건진출에 놀란 봉건통치배들은 군수 조병갑을 처벌하고 장흥부사 리용태를 고부지방에 파견하였다.

이것은 회유와 폭압을 배합하여 농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려는 봉건통치배들의 교활한 술책이였다.

신임 고부군수 박원명과 안핵사 리용태는 폭동뒤수습을 한다는 구실밑에 죄없는 인민들을 마구 잡아가두고 닥치는대로 재물을 빼앗아냈다.

그리고 폭동참가자들과 그 가족들을 학살하는 등 갖은 만행을 감행해나섰다.

안핵사의 학살과 략탈만행은 고부지방을 벗어나 태인과 정읍 등지에서도 감행되였다.

전라도 여러 지방에서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불만과 원한은 더욱 커지고 인민들의 투쟁기세는 날로 높아갔다.

이러한 정세밑에서 전봉준은 이웃고을들에 통문을 보내여 나라를 지키며 백성들을 편안케 한다는 《보국안민》과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한다는 《폐정개혁》을 위해서 투쟁에 일떠설것을 호소하는 《창의문》을 발표하였다.

3월 3일부터 고부와 그 이웃지방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농민폭동은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전봉준은 이미부터 폭동을 벌리고있던 각 지방 인민들을 묶어세워 그 대오를 확대하였다.

이때 백산에는 고창, 무장, 흥덕, 정읍, 태인, 금구, 김제 등지에서 모여온 약 8 000여명의 농민들이 집결되여있었다. 여기에서 전봉준은 더 강력한 투쟁을 벌리

기 위하여 봉기한 농민들로 부대를 편성하고 그 지휘부로서 호남창의대장소를 조직하였다. 농민군의 요구에 따라 전봉준이 농민군대장으로, 손화중, 김개남이 부대장격인 총관령으로 되였다.

농민군은 호남창의대장소의 명의로 광범한 인민들을 투쟁에로 호소하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여기에 이른것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데 있지 않고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우에다 두려고 하는것이다. 안으로는 악질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려고 한다.

량반과 부자들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감사)과 고을원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자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에 일떠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돌이킬수 없을것이다. 호남창의대장소, 백산에서》

3월 25일 농민군은 자기들의 4대행동강령을 내세웠다.

첫째, 사람을 죽이지 말며 재물을 파괴하지 말것이다.

둘째, 효성과 충성을 다해 세상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것이다.

셋째, 왜놈과 서양오랑캐들을 소멸하여 왕의 정치를 밝게 할것이다.

넷째, 군사를 몰아 한성으로 쳐들어가 특권귀족들을 모조리 소멸할것이다.

농민군의 이 투쟁강령에는 그들이 동학의 교리에서 받은 종교적환상과 계급적제한성이 반영되여있기는 하나 그들의 투쟁목적에서의 반침략반봉건적성격과 투쟁에서의 엄격한 규률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백산에서 대오를 편성한 농민군은 전라도 행정중심지이며 군사요충지인 전주를 치기 위하여 3월 29일부터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농민군의 한 대오는 금구현 원평방향으로 진출하고 다른 한 대오는 태인현으로 진출하였다.

농민군의 대오가 급속히 늘어나고 활동지역이 빨리 확대되는데 질겁한 전라감사 김문현은 령관 김경호로 하여금 300여명의 지방군과 보부상대 1 000여명을 이끌고 4월 3일 백산을 공격케 하였다.

농민군은 다음날 새벽에 일제히 반격을 가하여 놈들을 쳐부시였다.

백산전투의 승리는 농민군을 소멸하고 다른 지방에로의 진출을 막아보려던 적들의 기도를 완전히 파탄시켰다.

승리한 농민군은 4월 4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통문을 띄웠다. 이에 호응한 각계층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농민군에 참가하였다.

농민군은 부안, 금구를 해방하고 관군의 공격에 대처하여 고부군의 도교산에 집결하였다.

농민군은 6일 밤부터 7일 새벽에 걸쳐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과 큰 싸움을 벌리였다.

농민군은 이 전투에서 800여명의 감영군을 살상하고 대포 2문과 총통 600여정을 로획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황토현전투는 방금 편성된 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대규모의 전투로서 그것은 농민전쟁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황토현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처음에 계획하였던 전주에 대한 공격을 뒤로 미루고 남진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기세충천한 농민군은 남진을 개시하여 7일 저녁에는 정읍현을, 8일에는 홍덕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한 부대는 고창, 무장을 각각 들이쳤다.

고창에서 농민군은 감옥을 파괴하고 옥에 갇힌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석방하였으며 무기를 탈취한 다음 량반지주들의 집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렸다.

농민군은 4월 12일에는 무장을 떠나 련광으로 진격하였다.

여기에서 사흘간 머무른 농민군은 16일에 함평을 들이쳤다.

농민군의 맹렬한 진격으로 전라도 남부지방의 여러 고을이 농민군의 손안에 장악되여 호남지방은 순식간에 농민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였다.

농민군의 영향밑에 투쟁의 불길은 충청도지방에도 파급되였다.

농민전쟁의 파도는 공주, 청산, 옥천, 문의, 보은, 목천, 토성 등 군, 현을 휩쓸었다.

공주이남의 여러 지방에서는 관청들이 페쇄되고 악질관리들이 처단되였으며 토호량반들이 도망하여 봉건정부의 지방통치는 완전히 무너지고말았다. 농민군의 승리는 삼남지방뿐아니라 그밖에 경기, 황해도 등 각지 피압박대중에게 희망과 신심을 북돋아주었으며 리조봉건통치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다.

농민군의 세력이 급격히 장성하고 그들의 투쟁지역이 날로 늘어나는데 바빠맞은 봉건정부는 탄압과 회유를 배합하는 교활한 조치를 취하는데로 나갔다.

봉건정부는 4월 18일 전라감사 김문현을 파직시키고 조병갑을 의금부에 가두었으며 리용태를 정배보내는 등 기만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총제영중군 황현주로 하여금 증원군을 이끌고 인천을 떠나 법성포에 기여오르게 하였다.

정부군이 밀려온다는 소식에 접한 농민군은 정부군을 쳐부시기 위하여 남진을 중지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장성을 향하여 적을 맞받아나갔다.

농민군이 장성으로 진출한다는것을 알아차린 홍계훈은 4월 22일에 장위영내관 리학송으로 하여금 병졸 300명과 야포 및 기관포 1문씩을 가지고 장성으로 앞질러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장성에서 농민군은 정부군과의 첫 전투를 하게 되였다.

4월 23일 정부군은 장성군 월평강 황룡촌에서 식사중에 있는 수천명의 농민군 주력부대를 발견하고 불의의 공격을 들이댔으나 농민군의 반공격에 의하여 정부군은 무기를 내버리고 도망치고말았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수많은 정부군을 살상하고 대포 2문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로획하였다.

농민군은 장성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로 전주를 향하여 진군을 다그쳤다.

전주성은 당시 2 000여호를 가진 성시로서 전라도지방의 정치군사적중심지이며 봉건통치의 중요한 거점이였다.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하고 호남지방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장차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한성을 공격하려고 계획하였다.

4월 24일 장성을 떠난 농민군은 정읍, 태인현을 지나 전주성을 지척에 둔 삼천에 이르렀다.

장성패전의 소식에 놀란 봉건정부는 4월 27일 리원희를 《량호순변사》로 임명하는 동시에 약 1 000명의 군대와 야포 2문을 주어 전주에 파견하였다.

정부군이 도착하지 못하여 전주성이 빈 상태에서 농민군은 4월말에 전주성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전주성을 점령하자 전봉준은 지휘처를 선화당에 정하고 성의 방비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질서를 세우도록 하였다.

농민군의 전주성점령에 당황망조한 봉건통치배들은 농민군이 점령한 지역을 미처 공고히하기 전에 전주성을 되찾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달려들었다.

농민군은 5월 1일과 3일 두차례에 걸쳐 정부군에 대한 대규모적인 반격전을 벌리였다.

전주가 점령당한 직후인 4월 30일 봉건정부는 일부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엔스카이(원세개)에게 봉건중국군대의 출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민족반역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5월 1일 봉건중국정부의 베이양(북양)대신 리홍장은 즈리(직예)제독 섭지초, 산시태원진촌명 섭사성과 베이양(북양)해군제독 정여창에게 조선출병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농민군을 반대하는 내외반동세력의 련합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1 500여명의 봉건중국군대는 5월 5일부터 9일에 이르는 사이에 충청도 아산에 상륙하여 곧 아산과 공주 일대에 진을 쳤다.

다른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조선과 봉건중국에 대한 침략준비를 끝내고 기회만 엿보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94년에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4월 29일(양력 6월 2일)에는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을 단행할것을 결정하였으며 다음날에는 전시최고군사통수부인 이른바 《대본영》을 설치하고 히로시마 5사단에 동원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일본해군의 거의 전부와 1만명의 혼성려단이 인천과 한성일대를 비법적으로 강점하였다.

한편 농민군의 전주성점령에 당황망조한 봉건통치배들은 봉건중국정부에 출병을 요청하는 한편 위협과 회유로써 농민군대오를 와해시키며 전주성을 찾으려고 책동하였다.

정부군은 농민군지휘부와 농민군을 호상 리간시키기 위하여 전봉준을 잡아오면 《상》을 주겠다는 비렬한 수법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전봉준이 《전사》하였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군측은 농민군과의 《화의》를 들고나오기도 하였다.

농민군은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기만과 회유책동에 결코 롱락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엄중한 정세와 농민군자체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주성을 주동적으로 내여주고 정부군과 정화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5월 8일 전주에서 농민군과 정부군사이에는 담판이 진행되였다.

이날 농민군은 페정을 개혁하기 위한 27개 조의 요구조건을 봉건통치배들에게 접수시키고 봉건정부가 그것을 실현하는 조건에서 정화상태에 들어갔다.

이것을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전주화의라고 한다.

농민군은 전주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한 이후 패정개혁안의 실시를 통제하고 감독할 사명을 지닌 농민대표기관으로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페정개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집강소는 봉건관료기구인 감영과 지방관청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건에서 활동하였으나 사실상 지방자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집강소는 농민군의 요구를 담은 12개조페정개혁안을 자기의 시정방침으로 삼았다.

12개조폐정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1. 종래 동학도들과 정부사이에 맺혀있던 반감을 씻어버리고 정치를 협력할것.

2. 탐관오리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것.

3. 횡포한 부호들을 엄격히 징벌할것.

4. 불량한 유생들과 량반들을 징벌할것.

5. 노비문서를 태워버릴것.

6. 온갖《천인》들의 대우를 개선하며 백정들의 머리에 씌우는 평량갓을 벗겨줄것.

7. 청춘과부의 재혼을 허락할것.

8. 규정외의 여러가지 잡세들을 다 폐지할것.

9. 관리의 채용은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본위로 할것.

10. 일본인과 내통하는자는 엄중히 처벌할것.

11. 국가에 대한 빚이나 개인에 대한 빚이나 이전에 진 빚을 다 무효로 할것.

12.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부칠것.

이상과 같이 12개조폐정개혁안에는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당시 농민대중과 최하층인민들의 애국적지향과 절실한 사회경제적요구들이 반영되여있다.

그러나 개혁안은 봉건제도자체를 완전히 철폐하고 사회를 근대적으로 개혁할데 대한 근본적인 정치적요구를 제기하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전주화의이후 일시 투쟁을 멈추었던 농민군은 1894년 9월 중순에 또다시 투쟁에 떨쳐나섰다.

농민군이 다시금 투쟁의 봉화를 들게 된것은 첫째로, 나라안에 기여든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짓밟힌 국권을 회복하자는데 있었으며 둘째로, 매국배족행위만을 일삼는 리조봉건정부의 위정자들을 소탕하려는데 있었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전주화의에서 페정개혁을 한다고 인민들을 속이고는 도리여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봉건중국군대를 배신적으로 끌어들이였고 일제놈들로 하여금 강도적인 무력침공까지 감행하게 하였다.

그뿐아니라 봉건통치배들은 일본침략자들에게 비굴하게 굴복하면서 놈들과 결탁하여 전주화의의 《약속》까지 배반하고 농민군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였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와 비렬한 배신행위는 인민들을 더욱 격분케 하였다.

전주화의이후 정세를 예리하게 살펴오던 전봉준은 더욱 엄중해지는 민족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또다시 투쟁을 벌릴것을 결심하였다.

전봉준은 9월 중순 투쟁의 길에 올라 전주 북쪽 삼례(전라북도 완주군)에 도착하여 여기에 투쟁본부를 정하였다.

그때 삼례에는 4 000여명의 농민군이 집결되여있었다.

삼례에서 전봉준은 각 지방 동학조직을 통하여 구국항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전라도 각지에서 또다시 봉화를 든 농민군부대들이 홍수처럼 삼례로 밀려들었다.

이 시기 투쟁은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등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다.

투쟁에는 농민뿐아니라 각계각층 인민들이 망라되였으며 지어 일부 애국적인 량반들과 유생들, 아전, 관군의 병사들도 참가하였다.

투쟁에 다시 떨쳐나선 후 농민군은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부대들을 한데모아 전투대오를 편성하는 한편 장차 한성으로 쳐들어갈 목표밑에 필요한 준비사

업을 하였다.

그들은 현대적무기를 가지고있는 일본침략자들과 성과적으로 싸우기 위하여 제각기 자기 지방의 관청들을 습격하고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기 위한 활동을 벌렸다.

그런데 동학상층들의 무저항주의적인 립장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향하에 있던 충청도 농민군과의 련합을 실현하지 못하고있었다.

전봉준은 자기 대표를 보은에 보내여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상층들과 담판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호남과 호서농민군의 련합이 실현되였고 충청도 농민군이 투쟁에 호응하여나서게 되였다.

호남과 호서의 농민군은 10월 20일경 충청도 론산에 집결하였는데 그 수는 2만 7 000여명에 달하였다. 농민군은 10월 21일에야 한성진격에 오르게 되였다. 농민군이 한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공포를 느낀 일제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하여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하였고 10월 7일에는 일제침략군의 배비변경을 진행하였다.

일제침략군은 론산에 집결한 농민군이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농민군의 주력을 《소멸》시킬것을 획책하였다.

이로부터 적들은 한성으로부터 3개 방향으로 농민군에 대한 포위망을 조성하고 농민군을 전라도 남쪽에서 섬멸할 흉계를 꾸미였다.

다른편으로 봉건통치배들은 호위부장 신정희를 《순무사》로 임명하고 3 000여명의 정부군을 편성하여《토벌》에 내몰았다. 그러나 갓 편성되여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정부군은 농민군앞에서 무력하였다. 그들은 농민군의 투쟁기세에 위압되여 동요하고있었다.

이와 함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일제의 횡포한 내정간섭책동에 대하여 민족적의분을 금치 못해하고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전봉준은 정부군과의 반일련합을 실현할 결심을 가지고 10월 15일 론산에서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적력량이 단결하여 싸우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농민군의 애국적호소에 감동된 적지 않은 관군지휘관들은 농민군《토벌》을 그만두고 농민군측에 의거하여왔다.

농민군주력부대는 전봉준의 지휘밑에 드디여 10월 21일 론산을 출발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전봉준은 한성으로 쳐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공주를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당시 공주계선에는 농민군《토벌》에 동원된 2 000여명의 일제침략군가운데서 기본주력과 3 000여명의 관군《토벌》대가 진을 치고있었다.

농민군과 적들과의 큰 싸움은 10월 21일 목천 세성산에서 벌어졌다.

목천은 충청도로부터 경기도로 들어가는 접경지대가까이에 위치한 곳으로서 농민군의 북진을 보장하는데서나 일제침략군과 정부군의 증원을 저지시키는데서 전술상 매우 중요한 지점이였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근 1만명의 농민군이 집결되여있었다.

일제침략군은 이날 아침부터 공격해왔다.

농민군은 1시간동안 격렬한 공방전을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잘 무장된 적과의 이날 전투에서 농민군은 세성산에서 서쪽으로 철수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수많은 손실을 당하였다.

세성산전투이후 농민군과 적들과의 대격전이 공주에서 전개되였다.

농민군은 공주를 세면으로 포위할 계획밑에 3개 방향으로 공세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경까지 근 20일간 전투는 공주지구에서 벌어지게 되였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적병 120명을 죽이고 30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공주 주변 산들은 전부 농민군이 차지하였고 관군은 농민군의 포위속에서 공포에 떨고있었다. 바빠맞은 적들은 2개 대대 약 1 600여명의 침략군을 공주에 더 투입하여 10월 25일에 총반격으로 나왔다.

농민군은 일진일퇴를 거듭하였으나 일제침략군의 저지선을 돌파할수는 없었다. 11월 8일 농민군은 무너미와 리인에 도사리고있던 관군을 격파하고 다음날에는 제2차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길 하나, 봉우리 하나를 위하여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속을 뚫고 거의 40~50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11월 11일에 이르러 농민군은 많은 손실을 당함으로써 수십일간에 걸치는 제2차 공주공격작전은 실패하고말았다.

여러차례의 전투들에서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농민군은 적들의 발악적인 추격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세한 적과 힘에 부치는 전투를 계속한다는것은 무의미하다는것을 깨닫고 핵심력량을 보존하는 한편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농민군대오를 해산하였다.

황해도, 강원도지방 농민군의 투쟁은 1895년 1월까지 계속되였다.

이로써 거족적인 갑오농민전쟁은 우리 인민의 근대투쟁력사를 애국서사시적화폭으로 빛나게 장식하고 드디여 막을 내리게 되였다.

갑오농민전쟁의 총지휘자였던 전봉준은 순창 피로리에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다가 12월 2일 변절자의 밀고로 불행하게도 체포되였다. 그는 1895년 3월 29일(양력 4월 23일) 손화중, 최경선, 성두환, 김덕명 등 농민군지휘자들과 함께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학살당하였다.

그러나 침략자들의 그 어떤 만행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고향에 돌아가 은신하고있던 농민전쟁참가자들은 계속 동료들을 묶어세워 각종 형태의 투쟁을 계속 벌려나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청일전쟁도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는데서 주되는 적대세력은 봉건청나라세력이라고 인정하였다.

그것은 조선에 침입한 청나라군대를 몰아내야만 저들이 마음대로 조선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수탈을 강화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청일간의 모순은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더욱 표면화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894년 7월에 일제침략자들은 이미전부터 준비해온 작전계획에 따라 청나라무력이 더 증강되기 전에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가하는것으로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일제침략군은 서해바다 풍도해상에서 청나라군함들을 격파하였다.

풍도해전은 《요시노》호를 비롯하여 3척의 군함으로 1894년 7월 25일 새벽 충청도 풍도해상에서 청나라군함 《제원》호, 《광을》호를 불의에 공격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일본해적선과 청나라 해군함선의 해전끝에 청군의《제원》호는 도망치고《광을》

호는 자폭하였다.

한편《대본영》의 명령을 받은 조선주둔 오시마려단장놈은 성환작전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충청도의 성환작전은 청나라군대의 한 주력집단을 격멸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다른 전선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충청도 아산에 상륙한 청나라군대의 작전적기도는 한성에 침입한 일본침략군의 성환공격을 완강한 방어로 격파함으로써 평양작전의 승리를 보장하자는것이였다.

오시마놈은 성환의 청문을 타격할것을 계획하고 7월 25일 4개 대대의 병력과 포 8문을 끌고 한성을 떠나 성환으로 향하였다.

29일 새벽 3시 30분부터 성환작전이 시작되여 4시간동안에 청나라군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였다.

이 작전에서 일본침략자들은 장교 6명, 병사 76명의 사상자를 내고 청군은 사상자 500여명을 내였다.

일제침략군은 중국연해의 워이하이워이(위해위)를 비롯한 랴오둥반도를 공격하는 작전을 동시에 벌렸다.

성환과 풍도작전에서 승리를 거듭한 일제침략군은 1894년 8월 21일부터 평양이북에 대한 공격작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평양에는 청나라 주력군부대들과 성환작전에서 패한 1만 5 000여명이 전투태세를 갖추고있었다.

청일침략군사이의 맹렬한 교전끝에 1894년 9월 15일 청군의 패배로 평양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패주하던 청나라군대는 평양에서 추격하는 일본침략군과 원산에 상륙하여 쳐들어오는 일본침략군과 합세한 무력앞에 평양과 의주사이에서 격파당하였다.

1894(갑오)년 부르죠아개혁

1894년 부르죠아개혁(갑오개혁)은 1884년 부르죠아개혁(갑신정변)의 새로운 계승발전으로서 이 시기 부르죠아민족운동의 기본형태였으며 그 주되는 조류였다.

이 시기 부르죠아개혁의 실시는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갑오개혁이 진행되던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침략과 반침략, 진보와 보수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었다.

특히 1894년 농민전쟁은 반봉건적사회개혁을 밑으로부터 힘있게 추동하였다. 갑오농민전쟁에 의하여 큰 타격을 받은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반항을 불러일으키는 악정의 일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봉건통치를 더 유지할수 없음을 깨닫게 되였다.

농민전쟁발발직후에 벌써 봉건통치층내부에서는 낡고 부패한 정치를《개혁》할데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였다.

1894년 4월초(음력)에 열린 대신회의에서는 당시 가혹한 봉건적착취와 학정으로 당하는 인민들의 형편과 패정개혁의 절박성이 론의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개화파의 지지자, 동정자들로서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해오던 김홍집, 어윤중 등 혁신관료들이 부르죠아개혁사업에 적극 나서게 되였다.

그러나 그들이 개혁사업을 밀고나가는데는 처음부터 많은 난관이 제기되였다.

그것은 수구파반동들의 방해책동과 함께 일제의 무력간섭음모행위와 관련되였다.

일제는 1894년 농민전쟁을 계기로 5월말까지 한성, 인천지구에만 하여도 1만명

의 무력을 들이밀었으며 새로운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에 이른바 《내정개혁》을 강요하여나섰다. 혁신관료들은 이처럼 첨예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 자체의 힘으로 근대적개혁을 실시할것을 완강히 주장하면서 그것을 적극 밀고나갔다.

5월 25일(음력) 대신회의에 참가한 령의정 신순택, 좌의정 조병세, 우의정 정범조, 판정추부사 김홍집 등은 내정개혁은 어디까지나 우리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내정개혁과 관련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확정하고 구체적준비들을 빨리 다그쳐나갈것을 결정하였다.

6월 6일에는 개혁사업에 착수한다는 국왕의 명령이 공포된 후 련이어 각 부문별로 개혁방향이 검토되였다.

6월 11일에는 개혁사업을 담당할 관청으로서 교정청이 창설되고 전직 및 현직 대신들이 교정청의 총재관으로 임명되였다.

6월 13일에는 10년이래에 부과한 모든 잡세는 모두 페지하기로 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이미 《전주화의》에서 농민군이 제기한 요구에 기초하여 12개조의 개혁안을 선포하였다.

교정청이 창설되고 그가 선포한 개혁안이 집행되게 되자 극도로 당황한 일제는 조선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의 실시를 방해하기 위하여 갖은 모략과 책동을 다해나섰다.

일제침략자들은 리조봉건정부가 이미 개혁사업에 착수하였으니 이른바 《내정개혁안》을 거두어가지고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으나 도리여 6월 21일 조선왕궁을 습격점령하고 수많은 무기와 군수기자재들, 보물과 문화기재들을 략탈해갔으며 조선군대를 무장해제시키는 횡포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왕궁습격후 일제침략군은 6월 23일(음력) 아산만의 풍도해상에서 청국군함에 대한 불의의 공격으로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나라와 민족앞에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게 되자 혁신관료들은 또다시 정계에 등장한 대원군을 적극 리용하면서 혁신정권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그리하여 6월 25일 혁신관료들은 김홍집을 총재로 하는 국정개혁기구로서의 군국기무처를 창설하고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새 혁신정권을 수립하였다.

김홍집은 정부의 수반인 령의정이 되였고 어윤중은 호조판서 겸 선혜청 당상으로 임명되였으며 그밖의 적지 않은 혁신관료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였다.

새로 창설된 군국기무처는 17명의 회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제립법기관으로서 국가적인 모든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 다음 조칙(국왕의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군국기무처는 법제상 의정부밑에 속하게 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였다.

군국기무처는 창설된 후 국정개혁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갔다.

우선 정치분야에서 국가행정기구를 근대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관리선발방법을 제정하였으며 노비제도와 중세기적인 가혹한 형벌인 《련좌법》을 페지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국가재정체계를 단일화하고 조세, 화폐, 도량형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근대적사회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재혼의 허가, 의복제도의 간소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군사분야에서는 전반적군사제도의 개편을 선포한 후 친위대로서의 《친위군》을 조직하고 부대들을 재편성하였으며 군대의 무장장비도 근대화할것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개혁에 의하여 봉건국가관료기구들이 근대적인 국가기구로 개편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대적발전의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그러나 개혁은 일본침략자들의 파괴음모책동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이른바《내정개혁》을 접수할것을 봉건정부에 계속 강요하는 한편 박영효를 비롯한 친일주구들을 개혁정부에 잠입시켜 그들로 하여금 괴뢰정권을 조작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1일(음력) 군국기무처는 강제해산당하고 결국 갑오개혁은 실패하고말았다.

1894년 부르죠아개혁은 일본침략자들의 횡포한 무력간섭과 악랄한 파괴모략책동 그리고 혁신관료들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실패하였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봉건제도에 타격을 주고 나라의 근대적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죠아민족운동을 추동하였다.

3국간섭

19세기말~20세기초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벌어진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쟁탈전에서 가장 악랄하게 책동한것은 일제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청일전쟁을 통하여 타이완, 랴오둥반도, 펑후렬도 등 광대한 령토와 막대한 배상금을 빼앗아냈을뿐아니라 청국정부에 조선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인정시켰다.

조선과 중국령토에 대한 일제침략세력의 급격한 팽창은 이 지역의 세력권을 노려온 짜리로씨야를 비롯한 다른 제국주의렬강들을 크게 자극시켰다.

그리하여 《시모노세끼조약》체결직후인 1895년 4월 짜리로씨야의 발기로 일본에 대한 로씨야, 도이췰란드, 프랑스의 3국간섭이 있게 되였다.

이 세 나라는 이른바《동양의 평화를 위하여》일본이 랴오둥반도의 령유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청국에 반환할데 대한 《우의적권고》를 일본정부에 들이댔다.

일제침략자들은 3국의 《우의적권고》를 받게 되자 즉시에 《대본영》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의하는 한편 미영제국주의자들의 힘을 빌어 3국간섭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영제국주의자들은《엄정중립》이라는 구실밑에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것은 우선 미영이 일본을 위해 3국과 대결하여 피를 흘리려 하지 않았기때문이며 또한 일본의 지나친 세력팽창이 저들에게 미치게 될 후과도 고려하였기때문이였다.

결국 3국간섭에 대항할수 없었던 일제침략자들은 3 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대신 랴오둥반도를 청국에 반환하게 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을 둘러싼 일제와 짜리로씨야사이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대한제국의 선포

갑오개혁이 실패한 후에도 우리 인민들은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고수하고 봉건적인 부패를 청산하며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세울것을 요구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이 시기 인민들의 투쟁은 대중적으로 정치제도개혁문제를 제기하고 추진시켜나갔다는 측면에서 종래의 투쟁보다 더욱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였다.

갑오개혁후 리조봉건통치층안에서도 사회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주 울려나왔다.

갑오개혁이후시기에 외세의 침략과 간섭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고 봉건국가의 붕괴과정이 촉진되는 정치적혼란속에서 지배계급이 저들의 통치를 유지하자 해도 수습대책으로서 사회정치적개혁의 필요를 인정할수밖에 없었다.

특히 1895년 8월의 《을미사변》과 11월의 《단발령》, 1896년 2월의 《아관파천》은 리조봉건통치층들에게 국가의 자주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외세가 신성불가침의 한 나라 왕궁에 침범하여 왕비를 살해하는가 하면 조상전래의 풍습을 짓밟고 국왕의 머리를 깎으려드는 《단발령》이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것은 리조봉건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였으며 참을수 없는 민족적모욕이였다.

더우기 국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옮겨가 앉아 정사를 보는《아관파천》까지 일어나자 통치층내부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봉건정부는 국가통치체제를 세계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는 립장에 서서 우선적으로 년호도 바꾸고 국왕의 호칭과 국호를 제정하는 운동을 벌리였다.

그에 따라 리조정부는 1897년 8월 16일 나라정사의 새 출발을 알리는 표시로서 년호 《광무》를 제정하는것과 함께 그해 10월 12일에는 국왕을 황제로 높여 부르도록 하고 《대한제국》의 국호를 온 세상에 공포하였다.

이것은 봉건통치층의 부패타락과 외세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대내적으로 해이될대로 해이된 국가의 규률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입을 막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고수할것을 요구하는 애국적 및 혁신세력의 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대한제국》국제에 의하여 립법, 사법, 행정 및 군사통수권과 함께 전쟁의 선포와 강화의 체결,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의 체결, 대표의 파견 등 대내외정책에서 제기되는 모든 권한은 황제의 한손에 쥐여지게 되였다.

《대한제국》의 황제전제권은 종래의 봉건적군주전제권과 본질상 차이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대한제국》국제는 절대주의적인 군주전제권에 비하여 법치주의적인 성격을 띤것으로 하여 단순한 계승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개혁적내용을 담고있다.

대한제국체제하에서의 내정개혁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적진보를 한사코 방해하여나선 일제는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갑오개혁을 저지파탄시켰으나 이미 시작된 우리 나라에서의 내정개혁의 파도를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갑오개혁후 민영환, 박정양, 리용익, 리기 등 진보적관리들은 근대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고 나라의 독립을 고수할데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에 편승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개혁안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정치적으로는 국왕의 전제권강화에 따라 갑오개혁시기의 중앙행정기구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궁내부를 확대하였다.

궁내부는 원래 갑오개혁때에 국가행정사무와 왕실사무를 명확히 구별하며 국가사무에 대한 왕권의 지나친 간섭을 막기 위한 혁신적조치로 설치된것이였다.

그러나 1896년 《아관파천》후 통치층은 전제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응당 국가행정부서에 소속시켜야 할 경제기구부서들을 궁내부에 소속시키면서 그 기능을 확대시켜나갔다.

이와 함께 갑오개혁시기의 사법, 경찰제도를 근대적으로 유지발전시켜나갔다.

경제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원천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면적을 새로 측량하였으

며 근대적인 철도운수 및 통신제도, 화페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였다.

군사적으로는《원수부》가 설치되여 황제의 군사통수권이 수립되고 시위대(중앙군)와 진위대(지방군)라는 근대적인 군사편제와 보병, 포병, 공병, 치중, 군악대 등의 병종들이 새로 꾸려졌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세우고 관리들이 관복을 개정하며 훈장을 제정하여 표창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나라의 근대적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소학교, 중학교와 함께 의학교, 농상공학교와 같은 전문교육기관들이 설립운영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내정개혁들은 일본침략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중도반단되고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독립협회

상층개혁운동으로서 1884년 및 1894년 부르죠아개혁이 실패한 후 리상재, 남궁억, 정교를 비롯한 애국적지식인들은 인민대중의 투쟁에 편승하여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봉건주의의 후진성과 부패성을 극복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봉건주의의 후진성과 부패성을 극복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면한 문제가 대중을 계몽시키는데 있다고 인정하고 그러자면 이러한 정치조직이 필요하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애국적지식인들은 1896년 2월 사교구락부의 형식으로《건양협회》를 조직하였다가 그것을 그해 7월에 정치단체의 성격을 띤 《독립협회》로 개편하였다.

《독립협회》는 창설초기부터 회장, 위원장, 위원 등 정연한 기구정원을 두고 회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발표하였다.

《독립협회》는 우리 나라에서 《민권》운동을 촉발시키는데서 주도적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립협회》는 우선 수백년동안 조선사람들의 민족자주의식발전을 저애한 《모화사대》(중국을 흠모하고 섬기는것) 사상을 뿌리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방도의 하나로 《독립문》, 《독립회관》 등 독립상징물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였다.

독립의 상징물건설에 대한 발기는 그 애국적성격으로 하여 각계각층인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독립협회》결성당일에 거기에 참가했던 성원들이 즉시에 독립상징물건설자금으로 510원을 기증하였으며 그후 왕실에서도 왕태자의 명의로 1 000원을 기증하였다.

이것은 국왕이 《독립협회》를 합법적인 대중정치단체로 승인했다는것을 의미한다.

《독립협회》는 결성된 후 4개월만인 1896년 11월 21일 5 000~6 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립문건설착공식을 진행하였다.

인민들의 들끓는 열의속에서 1897년 5월 23일에 봉건사대외교의 유물인 《모화관》(중국사신이 조선에 오갈 때 맞아들이고 전송하면서 국가연회를 차리던 집)을《독립관》으로 개조하여 활동본거지로 삼았으며 11월 20일에는《영은문》(중국의 사신을 맞기 위하여 한성 서대문에 세운 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설하였다.

1898년에 들어서면서《독립협회》는《독립신문》과 잡지《독립협회회보》를 통하여 애국문화계몽활동을 벌리는 한편 매주 일요일마다 사회정치적으로 절박하게 제기되는 사회정치문제들을 놓고 대중토론회를 조직전개하였다.

《독립관》을 거점으로 하여 각계층 인물들이 연사로 출연하여 많은 청중들을 대상함으로써 그 선전선동적효과가 신문이나 잡지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독립협회》의 정치적주장은 전제주권하에서 의회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적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민이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공장제수공업으로부터 기계제공업으로 넘어가며 채취공업에 힘을 넣을것을 주장하였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관공립학교제도를 세우고 사립학교를 광범히 설립하며 롱아(벙어리)학교와 맹인(소경)학교를 관리운영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녀성교육과 함께 국문을 널리 보급할것을 주장하였다.

군사분야에서는 문존무비사상을 타파하고 숭무사상을 고취하며 국방력을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독립협회》가 제기한 이러한 사상은 비록 부르죠아지의 계급적리익을 대표한것이였으나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부국강병을 이룩하며 봉건적억압과 구속을 배격하는 등 애국적이며 진보적인것으로 하여 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있었다.

그리하여 《독립협회》는 창설초기에 수십명의 회원을 망라하고있었으나 1898년에는 각계각층의 인민들 4 000여명을 망라하고 그 조직도 인천, 황주, 의주, 선천, 강계, 북청, 목포 등 지방에까지 확대되였다.

만민공동회투쟁

갑오개혁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부르죠아《민권》운동은 1898년 3월부터 년말까지 반침략반봉건적군중집회투쟁인 만민공동회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 투쟁은 《독립협회》의 지도성원들이였던 리상재, 남궁억, 정교 등 애국적지식인들에 의해 조직되였으며 여기에는 지식인, 청년학생, 상인, 도시빈민, 로동자, 애국적종교인, 지어 백정 등 광범한 계층이 참가하였다.

만민공동회투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계기로 된것은 조선봉건정부가 짜리로씨야세력을 조선에서 내쫓을데 대한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것과 관련되였다.

당시 짜리로씨야는《아관파천》을 계기로 조선에서 친로정권이 조작된 기회를 리용하여 1896년 10월에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을 들이밀었으며 1897년에는 부산 절영도의 저탄장설치권을 탈취하고 1898년 3월 1일부터 한로은행을 설립하였다. 조선에 대한 로씨야세력의 깊은 침투는 인민들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리조봉건정부의 안팎에서 반로기세가 높아지자 로씨야공사는 3월 7일 조선측에 재정고문과 군사고문의 철거여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해나섰다.

이에 대하여 봉건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자 《독립협회》는 3월 9일 서울 종로네거리에서 대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서울시민들은 짜리로씨야의 절영도 《조차권》과 재정 및 군사고문등용문제, 한로은행설치권의 요구를 거절할것, 부산 절영도에 설치한 석탄저장고를 당장 철수시킬것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준렬히 성토한 다음 대표들이 봉건정부에 가서 항의문을 들이댔다.

봉건정부는 3월 11일 만민공동회에서 제기된 요구조건들을 접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해 9월 애국적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궁정수비대》라는 침

략무리들을 쫓아내기 위한 만민공동회투쟁을 벌렸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왕궁을 장악할 야망밑에 리조정부의 《법부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그리스 하우스로 하여금 미국, 영국, 도이췰란드, 프랑스, 짜리로씨야의 불량배 30여명을 무장시켜 《궁정수비대》라는 이름으로 9월 17일 서울에 끌어들이였던것이다.

그러나 무장악당들은 서울에 기여든지 10여일만에 쫓겨나지 않을수 없었다.

끊임없이 벌어진 만민공동회투쟁과정에 반동적이고 불견실한 세력들은 떨어져나가고 민족적립장이 확고한 애국적력량으로 대중조직들이 확대되여갔다.

만민공동회투쟁은 1898년 9월에 일어난 《고종독살미수사건》을 계기로 완강히 벌어졌다.

9월 11일 밤 국왕에게 독약을 섞은 차를 먹이려다가 발각된 《고종독살미수사건》은 외래침략세력에 붙어서 파쟁을 벌리던 봉건통치층안에서 빚어진 음모사건이였다.

10월 7일 《독립협회》, 《중앙총상회》 등 정치단체의 성원들과 각계각층의 서울시민 1만여명은 왕궁앞에 모여 민족의 자주권과 민권을 보장하지 못한 의정 심순택, 참정 윤용선, 궁내부대신 리재수, 군부대신 심상훈,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신기선, 법부협판 리민우 등 7명의 봉건관리들을 당장 내쫓을것을 요구하는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군중들은 한편 갑오개혁에서 제기되였던 근대적법령들을 정부가 제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회(정치단체)의 정치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10월 15일 《독립협회》부회장 남궁억 등 만민공동회대표들은 봉건정부의 대신들을 만나 지난 시기 정부의 자문기관이였던 중추원을 개편하고 중추원의관의 절반인원을 《독립협회》의 대표로 구성하자는것을 제기하였다.

10월 29일에는 서울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만민공동회가 열리였는데 여기에는 군중의 요구로 10여명의 정부대신들까지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봉건정부의 매국적책동을 저지시키며 국가의 재정적기초를 튼튼히 하고 근대적재판법을 실행하며 국왕의 관리임면권을 제한하고 근대적인 법률을 실행할것 등 6개 조항의 의안을 가결채택하고 그 집행을 봉건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만민공동회투쟁이 이처럼 고조되는데 당황한 봉건통치배들은 회유와 기만, 탄압술책으로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하였다.

10월 30일 만민공동회결의안을 접수한다는 국왕의 《조칙》을 발표하여 마치 만민공동회의 요구를 들어주는듯이 군중을 기만한 봉건통치배들은 뒤에서는 이를 탄압할 흉계를 꾸미면서 봉건정부를 철저히 반동분자들로 개조하였다.

그리고 11월 4일에 만민공동회가 《국권탈취》를 기도한다는 내용의 《닉명서》를 시내의 각곳에 붙이고 리상재, 정교 , 남궁억 등 만민공동회 주최성원 17명을 체포하여 경무청에 감금하였다.

여기에 격분한 군중들은 11월 5일부터 6일동안 계속 철야항의투쟁을 벌려 17명의 《민권》운동자들을 처형하려던 봉건통치배들의 흉계를 파탄시키고 그들을 석방시키게 하였다.

음모적방법으로 군중집회를 해산시킬수 없게 되자 봉건통치배들은 어용보부상들을 시켜 만민공동회장을 습격하도록 하는 한편 미일침략자들과 결탁하여 친일파 박영효와 친미파 서재필을 중추원의관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만민공동회의 《반역행위》로 선포하고 만민공동회집회장소와 거

리마다에 수많은 군대를 배치한데 이어 12월말에 만민공동회참가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하였다.

내외반동세력의 음모와 탄압책동으로 말미암아 근대적인 정치단체들도 모조리 강제해산되고 만민공동회투쟁은 계속되지 못하였다.

만민공동회투쟁은 강력한 지도력량의 통일적지도를 받지 못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으며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의 무력탄압에 대응하여 폭력투쟁으로 맞서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성격으로 하여 인민들의 민족적자각과 투쟁기세를 높여주고 부르죠아적자유, 평등사상의 전파와 20세기초 애국문화운동의 발생발전을 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일제의 로일전쟁도발과 침략적인 《한일의정서》, 《한일협정서》의 조작

청일전쟁후 근 10년간 우리 나라를 독점하기 위한 침략전쟁준비를 갖춘 일제침략자들은 1904년 2월 8일 인천과 려순항에서 짜리로씨야함대를 불의에 공격하였다.

이날 일제침략군 륙군선견대는 인천에 상륙한 후 서울에 기여들었으며 10일 짜리로씨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침략적인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강점지대로 전변시켜놓고 리조봉건국가의 주권을 마구 짓밟았다.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리조봉건정부와 침략적인 《한일의정서》를 강압체결하였다.

6개조로 된 《한일의정서》에서 일제는 리조정부에 이른바 《정치의 개선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일것과 조선에서 로일전쟁수행을 위한 자유로운 군사행동과 군사전략상 필요한 임의의 지점을 리용할수 있는 권리들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합법화》하였다.

일제는 이 《조약》을 강요하면서 《동양의 평화》니, 《조선의 독립과 령토의 보존》이니 하고 떠들었으나 《한일의정서》는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침략전쟁마당으로 리용하고 전쟁수행의 무거운 부담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우며 조선을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강도적인 침략적조약이였다.

일제는 리조봉건국가를 군사적으로 제압한데 뒤이어 곧 정치적예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1904년 8월 22일 또다시 새로운 침략적조약인 《한일협정서》를 조작하였다.

《한일협정서》에서는 리조봉건정부가 일제가 《추천》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채용하여 그의 의견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처리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것은 놈들의 침략책동이 조선내정에 대한 간섭단계로부터 직접적인 지배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일제는 리조정부의《재정고문》으로 일본대장성 수세국장인 메가다를, 《외교고문》으로 일본외무성 고문인 미국인 스티븐스를 그밖에 《경찰고문》으로 경시청 경시 마루야마를, 《궁내부고문》으로 조선주재 일본공사 가또를, 《군사고문》으로 륙군중좌 노즈를 각각 들여앉혔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침략자들의 악명높은 《고문정치》가 시작되였으며 이로 인하여 리조정부는 정책수행에서 독자성을 잃고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되였다.

일제는 《고문정치》를 실시하는 한편 강점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1905년 1월 집회와 결

사를 통제금지할데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악법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일제의 폭압밑에 들어갔으며 정치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다.

《을사5조약》의 날조

로일전쟁후 일제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의 공모결탁밑에 조선에 대한 실제적인 식민지 지배권을 규정한 《조약》을 날조하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1905년 10월 27일 《한국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의견》이라는데서 《보호조약》체결의 기한을 1905년 11월초로 정해놓고 침략군대를 서울에 끌여들여 국왕과 정부를 위협하며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최후수단으로서 《보호권확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려는 강도적계획을 작성하였다.

같은 해 11월 16일 당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는 이또 히로부미에게 리조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끌어다 회의를 하며 거기에서 락착이 되지 못하여 어전회의를 해야 할 경우 왕궁으로 가는 도중에 도망쳐버리는 대신들이 나오게 될것은 분명하므로 《호위》의 명목으로 헌병들을 붙여 대신들에 대한 감시를 조직하는것을 하세가와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단《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내각성원중 한두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근심이라고 하였다.(《나의 70년을 말한다.》 하야시 곤스께 223~224페지)

일제는 이러한 계획밑에 11월 17일 아침 조선에 주둔하고있던 일본군을 모두 서울에 끌어들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계년사》는 《기병 700~800명, 포병 4 000~5 000명, 보병 2~3만명이 사처에 종횡질주하여 우리 국민은 한치도 자유롭게 걸을수 없었으며 궁성안팎은 겹겹이 포위되여 드나드는 대소관리들을 전률케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폭로하였다. (《을사5조약에 대한 자료》35페지)

11월 17일 ~18일 일제는 서울 남산의 외성대일대에 군대를 배치하고 왕성앞 종로부근에서 보병 한개 대대, 포병중대, 기병련대의 군사연습을 진행하여 위압을 주었다.

17일 저녁 이또 히로부미는 만일의 경우 즉시 명령을 하달할수 있도록 하세가와조선주둔군사령관, 사또헌병대장, 보병, 기병, 헌병들과 순사들을 끌고 궁성으로 쳐들어가 궁성안팎을 둘러싸고 위협공갈하였다.

이날 이또는 리조《왕실위문》이라는 사명에 어긋나게 리조정부대신들이 회의를 시종일관 직접《사회》하면서 제멋대로 가부를《결정》하였으며 참정대신 한규설이 반대하자 《나는 우리 〈천황페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임무에 림하고있다. 제군들에게 우롱당하여 가만있지 않을것이다.》라고 대신들을 위협공갈하였다.(《한국병합사료1》 41~48페지)

이또의 부하였던 니시요쯔지 고교는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17일…대관정에서 좋은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이또후작과 하세가와대장은 …참다 못해 헌병대장이하 다수의 헌병관헌을 끌고 …서슴없이 회의장에까지 들어가 전권위원인 하야시공사를 제껴놓고 연필을 빨면서 각 대신들에 대한 지능검사를 시작하였다.

〈언제까지나 꿈지럭거리면서 생각했댔자 판이 나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 반대인가, 찬성인가 의견을 묻겠는데 명확히 답변해달라. 먼저 참정대신의 의견은…〉하고 말하자 한규설참정대신은 절대반대라고 대답했다.

한참정대신이 소리내여 통곡하기 시작하였으며 종내 별실에 끌려나갔다. 이때

이또후작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정 떼질할것 같으면 죽여버리라.〉고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조인하는 단계가 되여도 한참정대신은 의연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를 의아하게 여기자 이또후작은 〈죽여버렸을테지〉라고 중얼거리더니 태연하게 앉아있었다.》(《한말외교비화》)

1904년과 1907년 런던 《데일리 메일》조선특파기자로 와있던 맥켄지도 일제의 위협과 강요, 무력시위가 리조봉건대신들로 하여금 《일본군이 민비를 살해한 그 1895년 밤의 일을 련상》시켰다는것, 참정대신 한규설이 일본공사관의 서기관에 의해 《옆방에 갇혀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이또까지도 한규설에게 가서 강요하였다는 사실 등을 폭로하였다.(《의병투쟁으로부터 3.1독립운동에로》 78~83페지)

이처럼 일제는 《을사5조약》의 날조를 위해 나라의 최고주권자인 고종과 리조정부대신들을 위협, 협박, 공갈하여 그들을 공포의 분위기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을사5조약》은 국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의 비준을 받지 못한것이였다. 일반수호통상조약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빼앗는《조약》에 주권자의 비준이 필요없다는것은 상상밖의 부당한 주장이다.

일제는 조약체결에 황제의 승인과 서명, 옥새날인이 필수적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1905년 11월 15일 고종황제를 만난 이또는 외교권을 일본정부에 넘기라는 요구에 황제가《짐의 독단으로 체결할수 없다.》고 하자《페하는 만사를 총람하는 대권을 가지고있지》 않는가고 하면서 황제의 대권론을 주장하였다.(《외교시보》 제9권, 제98호, 31페지)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리완용 등 일제의 주구들이 고종에게 몰려가 《1905년 11월 17일의 신조약에 어새를 찍을것》을 강요한것도 그 표현이였다.(《황성신문》광무 11(1907)년 7월 19일)

그러나 고종은 《조약》의 승인과 비준을 끝까지 거부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을사5조약》이 완전히 일제의 날조품이며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는 허위문서라는것을 실증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마치 《조약》이 《체결》된것처럼 일방적으로 공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강도적식민지통치를 감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40여년간의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게 되였다.

《을사5조약》에 대한 황제의 무효선언

리조봉건국가의 최고주권자이며 조약체결권리자인 고종이 선언한 일제의 불법행위와 《조약》의 무효선포는 《을사5조약》이 당초부터 불법적이였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애당초 《조약》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어전회의에서 대신들과 함께 《조약》체결을 거부하기로 하였던 고종은 일제에 의해《을사5조약》이 날조되자 그 무효를 선포하였다.

고종은 《을사5조약》이 날조된 직후인 1905년 11월 26일 워싱톤에 간 특사 헐버트에게 이《조약》은《무력협박과 감금속에서 강요된것이며 따라서 무효이라는것을 선언한다. 나는 그것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의사가 없다. 이것을 미국정부에 전달하라.》는 전보를 보냈다.(《의병투쟁으로부터 3.1 독립운동에로 》 87페지)

고종은 또한 1906년 1월 29일부로 미, 로, 도, 프 4개국 수반들에게 보낸《친

서》에서 자기는 이 《조약》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국새를 찍지 않았다는것, 이《조약》을 일본이 제멋대로 발표하는것을 반대하였다는것, 독립황제권을 추호도 타국에 양도한 일이 없다는것 , 외교권과 관련한 강제조약은 근거가 없는것이고 내정과 관련한것도 전혀 허락한 일이 없다는것,《통감》의 주재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황실권을 조금이라도 외국인이 행사하는것을 허락한 일이 없다는것 등을 선언하였다.(《대한 매일신보》 1907년 1월 16일)

또한 고종은 1906년 6월 22일부로 된 미국, 영국, 로씨야, 도이췰란드 등 9개나라 《수반》들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성에 대하여

첫째로, 대신들의 서명은 위협과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둘째로, 내각에 문건을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적이 없다.

셋째로, 문건이 서명되였다는 내각회의는 일본인들자신이 소집한것으로서 당연히 비법이다. 앞으로 헤그국제재판소에 상소하려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주장한 고종의 《친서》들에는 국새가 찍혀있고 이른바《조약》원본에는 국새가 없는것을 보아도 그 진위여부를 판별할수 있다.

《정미7조약》의 조작

《헤그밀사사건》에서 타격을 받은 일제는 고종이 그에 개입하였다는것을 구실로하여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는데 이 사건을 리용하려고 강도적인 흉계를 꾸미였다.

네데를란드주재 일본공사로부터 《헤그밀사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일제는 7월 12일 내각회의를 열고 《현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국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데 대한 이른바 《한국처리방침》이라는 새로운 침략방안을 결정한 다음 통감《이또》에게 그것을 집행할것을 명령하였다.

일제는 이 기회에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제거하고 나어린 그의 아들을 황제자리에 앉히여 지금까지의《고문정치》형식을《차관정치》형식으로 바꾸며 외교권뿐아니라 내정권까지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더욱 철저히 세워놓으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또는 《헤그밀사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자 고종을 찾아가 이 사건은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한것과 같기때문에 일본은 조선에 선전포고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위협하였다.

리완용, 송병준 등 친일매국역적들은 이또의 지시에 따라 고종에게 황위를 내놓을것을 강박하였다.

고종이 황제의 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자 이또는 7월 18일 밤 매국역적들을 몰고 직접 궁성에 기여들어 고종에게 황제자리에서 물러날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다음날 아들 순종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하였을뿐 8월 27일까지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일제는 미리 계획한 침략안에 따라 보병 1개 련대를 출동시켜 궁성을 점령케하고 포병 1개 중대를 남산에 배치하는 등 서울시내에 삼엄한 경계진을 편 다음 마침내 7월 24일 《정미7조약》(한일협약)을 조작하였다. 일제의 《정미7조약》의 조작으로 리조정부는 내정권까지 빼앗기고 우리 나라는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통감》의 《추천》으로 리조정부에 들어박힌 일제의 《차관》들은 각 부서의 실권을 쥐고 좌지우지하였다.

《정미7조약》 역시 《을사5조약》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는 불법무효한 침략문서였다.

순종이 일제에 의하여 황제자리에 올라앉은 1907년 8월 27일까지 고종이 황제자리를 내놓지 않고있었던 조건에서 7월 24일에 조작된 《정미7조약》은 응당 고종의 비준을 받았어야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었다.

고종은 이 조약의 체결을 완강히 반대하였다. 따라서《정미7조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는 날조문서였다.

애국문화운동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진보적지식인들이 인민들에 대한 정치, 문화계몽을 목적으로 하여 벌린 부르죠아민족운동의 한 형태이다.

우리 나라에서 애국문화운동은 19세기 70~80년대에 발단하여 1919년 3.1인민봉기에 이르기까지 근 반세기에 걸쳐 진행되였다. 애국문화운동의 주도세력은 근대적사상으로 계몽각성된 애국적지식인들이였으며 그 지도리념은 부르죠아민족주의였다.

이 운동은 봉건적락후성을 가시고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이룩하며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존엄을 고수할것을 지향한 애국애족적인 운동이였다.

애국문화운동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조직전개되였다.

그 첫 단계는 19세기 70~80년대초부터 1905년《을사5조약》의 날조에 이르는 기간인데 이때는 애국문화운동이 시작되며 점차적으로 앙양의 길에 들어선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을사5조약》이 날조된 이후부터 1910년 일제의 국토병탄에 이르는 시기로서 애국문화운동이 급속히 확대발전하던 때이다.

셋째 단계는 일제가 국토를 병탄한 때로부터 1919년 3.1인민봉기까지의 기간인데 이때는 운동이 점차적으로 쇠약해지고 종말되던 시기이다.

이 운동은 애국적인 언론출판활동과 민족교육운동, 국학운동, 문예활동, 대중계몽활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인민대중속에 반일애국정신과 민족의식을 높이며 근대적지식을 키우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전개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우선 애국적정치문화단체들을 조직하고 그를 통한 대중계몽활동을 벌리였다. 1896년 7월 첫 근대적정치단체인《독립협회》가 조직된데 이어 그후 《공진회》등 여러 단체들이 무어져 활동하였다.

1903년 3월에는 이미 해산당한《헌정연구회》(회장 리준)를 계승하여 장지연 등 애국적지식인들에 의하여 《대한자강회》가 출현하였다.

이 정치단체는 출판물과 강의, 강연 등을 통하여 대중속에서 정치문화계몽활동과 일제와 친일주구들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그후에도《대한협회》,《신민회》,《산직계》,《기성뽈단》,《송죽회》 등 조직들이 무어져 애국적문화계몽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1906년 10월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가 조직되고 1908년 1월에는 이 두 학회가 《서북학회》로 통합개편되였다.

1907년 7월 《호서학회》, 《호남학회》, 《관동학회》, 1908년 1월에는 《기호학회》 등 여러 학회들이 무어졌다.

이 학회들은 나라의 독립과 국권회복의 기초를 쌓기 위하여 정치, 교육, 산업의 발전에 힘을 기울일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삼은 애국적단체들이였다.

애국문화운동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애국적언론출판활동이였다.

장지연, 신채호, 주시경, 량기탁 등 애국적지식인들은《황성신문》,《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 조양보》 등 신문들과 《자강회월보》, 《서우》, 《서우학회월보》, 《기호학회월보》, 《소년한반도》 등 잡지들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애국계몽도서와 문학작품들도 수많이 발행하였다. 이러한 도서, 신문, 잡지들은 일제와 그 주구들의 죄상을 폭로하고 애국정신을 높이며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지식을 주는 내용을 실음으로써 인민들을 계몽각성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또한 반일민족교육운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애국적지식인들은 교육사업을 국권회복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 내세우고 전국 각지에 사립학교들을 설립하였으며 종래의 서당들을 일부 근대적교육기관들로 개편하고 야학도 조직하였다.

사립학교운동의 전성기에 우리 나라에 4 000~5 000교에 가까운 각종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여있었다.

그가운데서 평양 대성학교, 안악 양산학교, 정주 오산학교 등은 많은 애국청년들을 길러낸 이름있는 학교들이였다. 민족교육운동을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속에 반일애국사상과 민족의식, 근대적지식을 심어주는데 힘을 넣었다.

애국문화운동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나라 말과 글, 력사를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학》운동이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우리 나라 력사가 민족의식을 높이고 국권회복을 위한 정신적자강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 민족사연구와 그 저술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김택영, 신채호, 박은식 등 애국적지식인들은《력사집략》,《대한계년사》,《독사신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혈사》. 《조선상고사》 등 력사책들과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최도통전》, 《리충무공전》 등 애국명장들의 전기들을 집필하여 내놓았다.

애국적지식인들은 우리 나라 말과 글을 고수발전시키는것을 자기들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민족어의 우수성을 해설하고 그를 깊이 연구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였다. 주시경, 지석영, 최광옥 등 애국적언어학자들은《대한문전》,《초등국어어전》,《국어문전음학》, 《조선어문법》, 《말의 소리》, 《조선어전》 등 적지 않은 조선어관계서적들과 글들을 연구발표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이밖에 민족경제를 보호발전시키기 위한 애국계몽활동과 국채보상운동을 통한 계몽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중계몽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된 근대애국문화운동은 우리 인민들에게 반일애국사상과 민족의식을 북돋아주고 근대적사상과 지식을 계발하며 그들을 나라의 근대적부강발전과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문화분야에서 봉건적락후성을 극복하고 당시의 조건에서 근대적인 민족문화건설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그 주도세력인 애국적부르죠아인테리들의 계급적정치사상적제한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간주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계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나라의 근대화와 국권회복을 위한 실천활동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지 못하였다.

이 운동은 또한 애국적전위조직의 지도를 받을수 없었던 관계로 통일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산만하게 진행되였다.

독립군운동

1910년대에 들어와 반일의병운동은 쇠퇴하였으나 일제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무장활동은 계속되였다.

그것은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독립군운동으로 전개되였다.

독립군운동의 준비사업은 이전의 반일의병장들과 애국문화운동가들에 의하여 추진되였다.

그들은 독립군운동을 준비하면서 활동무대를 국내로부터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와 잇닿은 중국동북지방과 로씨야연해주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것은 당시 그곳들에 여러 의병부대들이 모여있었으며 한편 일제의 침략마수가 아직 깊이 뻗치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들은 독립군운동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군사간부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리동휘 등 애국적지식인들이 조직한 단체인 《신민회》의 일부 성원들에 의하여 난만 류허현 싼웬푸에 신흥강습소(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로 개칭)가 세워지고 둥만 왕칭현 대전자에 동림무관학교 등이 세워졌다.

한편 이전의병장들인 홍범도, 서일 등에 의하여 조직된 《포수단》, 《중광단》을 비롯한 반일독립운동단체들에 의하여서도 군사간부양성사업이 진행되였다.

그들은 독립군운동을 벌리기 위한 준비로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무기를 사들이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적을 기습하여 빼앗는 방법으로도 무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무장대오를 늘이며 부대를 근대적으로 편성하고 무장성원들에게 근대적인 무장훈련을 주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군운동을 준비해오던 민족주의자들은 1919년 3.1인민봉기를 계기로 독립군부대들을 뭇고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지엔다오지방에서는 홍범도 등이《조선독립군》을 조직한것을 비롯하여 안무, 최진동, 서일 등이 독립군부대를 무었으며 연해주지방에서도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독립군부대들이 무어졌다.

1919년 여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조선독립군》사령 홍범도는 그해 8월 200여명의 성원을 거느리고 은밀히 국내에 들어와 갑산, 혜산 등지를 오가면서 여러번 일제침략군 병영을 습격하였으며 이 일대의 일제식민지통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홍범도는 10월에 또다시 부대를 거느리고 강계와 만포, 자성 등지를 기습하여 일제침략군놈들을 적지 않게 살상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리동휘 등이 무은 독립군부대는 국내에 들어와 일제놈들을 습격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독립군부대들의 활동에 당황한 일제침략자들은 독립군이 활동하는 지역들에서 애국적조선인민에 대한 야수적학살만행을 감행하는 한편 한개 련대의 병력과 남양《수비대》를 동원하여 1920년 여름에 둥만독립군의 주요거점인 왕칭현 봉오골에 대한 《토벌》을 계획하였다.

적들의 기도를 미리 알아차린 홍범도독립군부대는 서일 등이 조직한 독립군부대들과 련합하여 6월 4일에 봉오골에 기여드는 일제침략군의 일부를 유리한 지점으로 유인하여 120명을 살상하였다.

독립군부대에 대한 제1차 《토벌》에서 실패한 일제침략자들은 보다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해 10월초에 마적단의 우두머리들을 매수

하여 제놈들의 령사관이 있는 훈춘을 습격하게 하였다.

이 사건(《훈춘사건》)을 구실로 일제는 당시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말살하기 위하여 씨비리에 출동시켰던 병력과 조선주둔군 19사단의 1개 련대, 함경남북도의 경찰대 등 수많은 병력을 훈춘, 왕칭, 허룽일대에 들이밀어 조선사람 3만여명을 무참히 학살하고 6 000여호의 살림집을 파괴소각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10월 31일 일제침략군을 유리한 지점에서 소탕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독립군부대들은 허룽현 칭산리에서 적들과 불의에 맞다들어 3면포위에 들게 되였다.

그러나 독립군부대들은 용감히 싸워 련대장을 포함한 10여명의 장교와 수백명의 일제침략군놈들을 소탕하는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당시의 정세는 지엔다오지방동포들을 일제의 학살만행으로부터 보호할데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립군부대들은 칭산리전투후 허이룽강연안의 쏘중국경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전투력량을 재정비한 후 침략군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후 베이만으로 이동한 독립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연해주등지에서 조직된 독립군부대지휘관들은 세력권문제를 둘러싸고 반목대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21년 6월에는 흑하시(《자유시》라고도 하였다.)에서 무장충돌까지 빚어내게 되였다.

이것을 흑하사변이라고 하는데 이 사변을 계기로 독립군의 적지 않은 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말았으며 나머지 세력도 호상간의 세력다툼으로 사분오렬되고말았다.

그러나 량심적인 지휘관들이 이끈 일부 독립군부대들은 그후에도 난만일대에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독립군의 일부 하층병사들은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에 공감하면서 진보적운동조류에 합류하여 나섰다.

독립군운동이 이처럼 급속히 와해되기 시작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독립군의 근본성격과 관련되여있었다.

독립군은 부르죠아민족주의를 사상적바탕으로 하는 민족주의적인 군대로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었으며 지휘관과 병사들사이의 단합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또한 독립군부대들의 조직 및 활동에서의 본질적약점과 관련되여있었다.

독립군부대들은 개별적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독립운동단체들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따라서 그 활동은 분산성과 산만성을 면치 못하였다.

3.1인민봉기

조선인민이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한결같이 들고 일어나 일제강점자들을 반대하여 희생적으로 싸운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전민족적투쟁을 전개한 날이며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날입니다.》(《**김일성**전집》 제3권, 185페지)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 10여년간의 쌓이고 맺힌 조선인민의 민족적울분과 사무친 원한의 폭발이였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극악한 식민지무단통치체제를 만들어놓고 우리 인민을 야만적방법으로 통치하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조선인민은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고 그 처지가 나날이 어렵게 되여 더는 그대로 살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그리하여 애국적인 우리 인민들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여러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벌리였다.

1918년 말경부터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에 의하여 큰 규모의 반일봉기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사업이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곳에서 진행되였다.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과 사무친 원한은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전민족적인 반일감정으로 폭발하고야말았다.

3.1인민봉기는 평양에서 있은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첫 봉화로 하여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3월 1일 평양에서는 사전계획에 따라 낮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수천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장대재(오늘의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있는 언덕)에 있던 숭덕녀학교운동장에 물밀듯이 모여들었다. 오후 1시 한 청년학생대표가 연단에 뛰여올라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은 독립국가라는것을 선포하였다.

애국적청년학생들을 선두로 한 수천명의 군중들은《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의 구호를 웨치면서 거리를 누비며 행진하였다.

시위군중속에는 독립운동가가 울려퍼졌다. 시위대렬은 삽시간에 10여만으로 늘어났다.

시위군중들은 달려드는 일제침략군과 경찰놈들을 맞받아 계속 전진하였으며 시내 여러곳에서 놈들과 용감히 싸웠다.

3월 1일 서울에서도 큰 규모의 반일독립만세시위투쟁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의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시내한복판에 있는 탑동공원에 모여들었다. 오후 2시 30분 청년학생대표가 탑동공원 단우에 뛰여올라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은 자주독립국가라는것을 선포하자 군중들은 한결같이 반일항쟁에 떨쳐나섰다.

군중들은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시위행진을 벌리였다. 시위대렬이 3개 대오로 나뉘여 시내 각곳으로 퍼져나가자 청년학생들과 함께 로동자, 도시소시민 등 각계각층 군중이 합류하여 그 대렬은 무려 수십만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안은 애국적시위군중에 의하여 교통이 차단되고 일제의 식민지통치질서가 마비상태에 빠졌다. 당황한 일제침략자들은 서울시안의 헌병, 경찰은 물론 룡산주둔 제20사단병력까지 동원하여 시위군중을 탄압학살하였다.

거리는 삽시에 피바다를 이루었으나 시위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인민대중이 일제의 탄압을 박차면서 시위투쟁을 벌리고있을 때 33명의 《조선민족대표》로 자처한 부르죠아민족운동 상층분자들은 청년학생대표들과 한 약속을 다 줴버리고 명월관(료리점) 지점인 태화관에 모여 먹자판을 벌려놓고는 《독립선언서》조차 읽지 않고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에게 전화를 걸어 투항변절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러나 인민대중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3.1인민봉기의 불길은 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지를 비롯한 전국 각지로 번져나갔다.

반일항쟁이 급속히 확대되는데 따라 평화적인 만세시위투쟁은 점차 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더욱 견결하게 전개되였다.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오늘의 평양시 만경대구역)인민들의 대중적시위투쟁은

처음부터 폭동적성격을 띠고 진행되였다.

3월 3일 만경대일대의 인민들은 열렬한 반일혁명투사이신 강진석선생님의 지도밑에 남자, 녀자, 늙은이, 젊은이 할것없이 떨쳐나서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면서 평양으로 힘있게 전진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덟살 되시는 어리신 몸으로 반일봉기대렬에 참가하시여 보통문까지 가시였다.

보통문까지 진출한 시위군중들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격렬하게 투쟁하였다.

강동에서도 봉기가 치렬하게 벌어졌다.

강동에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와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에 망라되였던 200여명의 성원들이 앞장에 서서 대규모적인 반일봉기를 일으켰다.

여기에 참가한 각 리의 1 000여명의 군중들은 강동읍으로 쳐들어가 일제강점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족쳤다.

그후 광범한 대중의 폭력적진출은 전국 각지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3월 중순이후 투쟁은 중부 및 남부조선 각지에 급속히 확대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철도연선지구에서 깊은 산골에까지 번져갔다.

폭동군중들은 일제통치기관을 습격파괴하고 일제침략자들을 처단하면서 과감히 투쟁하였다.

3.1인민봉기가 폭발한 후 그해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3 200여회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으며 그 불길은 전국의 232개의 부, 군가운데서 229개의 부군을 휩쓸었다.

반일항쟁의 불길은 국내에서만 일어난것이 아니라 중국동북지방과 로씨야연해주, 일본,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인거주지역들에서도 세차게 타번지였다.

일제는 3.1인민봉기를 탄압하기 위하여 조선에 주둔한 모든 군대,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였으며 일본에서 보병 6개 대대이상의 침략무력까지 끌어들여 전국 방방곡곡에 배치하고 피비린내나는 대중적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우리 인민은 희생을 무릅쓰고 과감히 투쟁하였으나 놈들의 야만적탄압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3.1인민봉기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전민족적인 애국투쟁으로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첫째로, 조선인민의 열렬한 애국정신과 투쟁기세를 크게 시위하였다는데 있으며 둘째로, 일제식민지통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각성을 높여주었다는데 있으며 셋째로,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발전에 고무적영향을 주었다는데 있다.

3.1인민봉기의 실패는 우리 인민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3.1운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의 령도와 혁명적당의 지도가 없이는 어떤 혁명투쟁이든지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민족주의가 더는 민족해방투쟁을 대표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3.1운동은 또한 혁명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하며 무장한 원쑤와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그 지도사상과 지도세력에서 낡은것과 새것의 교체가 일어나게 되여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이 점차 새로운 단계에로 들어서게 되였다.

상하이림시정부

1919년 3.1인민봉기후 우리 나라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전면적인 쇠퇴몰락은 해외에 있던 민족운동상층분자들의 매국배족책동에서도 나타났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2천만겨레가 반일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서 피흘리며 싸우고있을 때 정세발전의 추이를 관망하고있던 자산계급출신의 일부 민족운동상층분자들은 해외에서 망명단체를 조직하고《독립운동》을 표방하면서 사대주의적인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1919년 4월 중순 중국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조계지에서 조직된 망명단체인《림시정부》는 그러한 대표적인 단체의 하나였다.

《상하이림시정부》는 생겨난 첫날부터 민족운동상층분자들의 파벌싸움마당으로 되였다.

《상하이림시정부》안에서 파벌싸움은 《자치파》와 《독립파》사이에 벌어졌는데 친미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대표되는《자치파》는 제국주의렬강에《청원》하여 나라의 독립을 《선사》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의 《위임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위임통치설》을 들고나온 대표적인물은 친미매국역적인 리승만과 정한경이였다.

《독립파》는《무력전》의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으나《무력전》은 자체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이들의 주장 역시 사대주의적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림시정부안에서는 어느 한 파의 인물이《수석》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파가 그의 허물을 들어 헐뜯었고 새로 다른 파의 인물이 세력을 쥐면 또 다른 파가 그들을 헐뜯어 자리를 빼앗는 싸움이 련이어 벌어졌다. 이러한 혼란속에서《림시정부》안에서는 《내각개조》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192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국무령》자리를 서로 엇바꾸어 차지하는 《국무위원교체수석제》까지 생겨났다.

《상하이림시정부》안의 민족운동상층분자들은 강대국들에 독립을《청원》하는 구걸행각도 감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제1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렬강들이 세력범위를 재분할하기 위하여 1919년 5월 중순에 소집한 빠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조선독립청원서》를 제출한 사실과 1921년 11월부터 열리기 시작한《워싱톤회의》에 리승만과 서재필 등을《대표》로 파견하여《청원운동》을 벌리도록 한 사실을 들수 있다.

이러한 《청원》놀음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을 훼손시켰을뿐 어느 한 나라의 지지나 동정도 받지 못하였다.

《상하이림시정부》가 벌린 반인민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책동의 주요측면의 하나는 인민수탈을 위한 책동이였다.

친미사대주의적인 민족운동상층분자들은《림시정부》를 조작하기 바쁘게 모든 조선사람에게서《인두세》를 정기적으로 받아들이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구국의무금》을 모집한다는 《명령》과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지어 《독립》후 줄 《벼슬》임명증명서인 《사령장》을 만들어 팔아먹는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이러한 인민수탈을 위한 《림시정부》의 책동은 자기의 세력지반을 넓히기 위한 책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되였다.

그것은《림시정부》의 《요인》들이 중국동북지방에 뻔질나게 드나든 사실만 보

아도 잘 알수 있다.

《상하이림시정부》의 이러한 매국배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책동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을뿐아니라 중국 베이징파 난만 등지에서 활동하고있던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의 커다란 분격을 자아냈다.

그리하여 《림시정부》는 국내외 각계각층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게 되였다.

조선공산당

우리 나라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인 1925년에 창건되였다가 3년만에 해산된 공산당이다.

조선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로동운동을 비롯한 대중투쟁이 자라나는 과정에 1925년 4월 17일 서울에서 창건되였다.

공산당의 창건은 로동운동, 농민운동, 청년학생운동 등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일정하게 추동하였다. 그러나 당지도부안에 정치적 및 계급적립장이 튼튼하지 못한 소부르죠아출세주의자들이 들어앉아있었고 당조직이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지 못하였음으로 하여 그리고 종파분자들의 파벌싸움으로 하여 당대렬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혁명투쟁에 대한 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화요파, 서울파, 북풍회파, 엠엘파, 서상파와 같은 여러 파로 갈라져 서로 파벌싸움을 벌렸다.

공산당은 원래 종파적대립이 극복된 조건에서가 아니라 서울파를 제껴놓고 화요파를 중심으로 북풍회파, 상해파들사이에 일시적인 결탁이 이루어져 나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에 망라된 파벌들과 당밖의 파벌사이의 대립과 함께 당안에서의 파벌싸움이 계속되게 되였다.

파벌싸움은 1926년에 서울파의 일부와 다른 여러파들의 결탁으로 엠엘파가 생기고 일부가 결합된 서상파가 형성됨에 따라 더욱 심해졌다.

결국 조선공산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단결을 한시도 이룩할수 없었다.

일제침략자들은 종파분자들의 분렬행위를 리용하여 조선공산당을 파괴하기 위한 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는 당안에 기여든 투항변절자를 통하여 비합법적조직으로서 조선공산당이 있다는것을 알아내고 1925년 12월 《제1차 공산당검거사건》을 일으켜 수많은 당원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련이어 1926년과 1928년에 제2차, 3차, 4차 검거소동을 벌려 공산당조직을 파괴하였다.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이와 같은 탄압책동과 종파분자들의 파괴행위로 하여 창건된지 3년만인 1928년에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안의 종파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이르꾸쯔크파, 상하이파, 서울파, 화요파, 북풍회파, 엠엘파, 서상파 등 형형색색의 파벌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일제가 조선의 국토를 병탄한 후 일부 조선사람들이 로씨야의 원동지방으로 망명하였는데 그들은 1918년 1월에 하바롭스크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인 《한인사회당》을 조직하였다.

그후 이 단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두 파로 갈라졌는데 한 파는 중국의 상하이로 나와 《고려공산당》이라는것을 만들고 원동의 이르꾸쯔크에서 자기들대로 또 《고려공산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리하여 상하이파와 이르꾸쯔크파가 생겨나게 되였다.

이 시기 국내에서도 여러 파벌들이 생겨났다.

1921년 1월에 조직되였던 《서울청년회》를 지반으로 하여 서울파가 나왔다.

서울파는 《서울청년회》가 국제당에서 얻은 돈을 어느 한 배신자에 의하여 횡령당한것을 계기로 분렬되여 생긴 파인데 이 파는 그후 서울신파와 서울구파로 갈라졌다.

또 서울파와 대립한 분파로서 화요파가 나왔다.

화요파는 1921년초 서울에서 조직된 《무산자동지회》와 《신인동맹》이 합쳐 이루어진 《무산자동맹》이 1923년 5월에 국내에 들어온 이르꾸쯔크파의 일부와 결탁하여 형성한 종파였다.

처음에는 《신사상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가 1924년 11월에 맑스의 탄생일인 화요일을 따서 《화요파》라는 이름을 붙인 종파이다.

북풍회파는 1923년 1월 일본 도꾜에서 조선인류학생들로 형성된 종파였다.

처음에는 《북성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그후 국내에 들어와 《북풍회》라고 하였다. 엠엘파는 1926년 4월에 서울신파의 일부와 만저우공청파의 일부 그리고 《1월회》 성원들과 《북풍회》관계자 등이 결합되여 이루어진 종파였다.

만저우공청파는 《공청만주총국》에 기초하여 형성된 종파였고 《1월회》는 도꾜에서 조선인류학생들이 1925년 1월에 조직한 종파였다.

서상파는 1927년 12월 서울파의 일부와 상하이파의 일부가 결합되여 형성된 종파였다.

이렇게 생겨난 파벌들에 망라된 종파분자들은 민족주의계렬의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인테리들과 몰락한 봉건귀족, 량반출신인테리들로서 당시 앙양되는 혁명운동의 조류에 휩쓸려 들어온자들이였다.

종파주의는 사회계급적으로 볼 때 로동운동안에 침습한 부르죠아사상의 발현이며 그것은 력사적으로 과거 봉건지배층안에 극심하였던 당파싸움과 그후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안에 생겨난 분파들의 무리싸움의 연장이였다.

1920년대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발생한 종파들은 저마다 혁명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면서《령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파벌싸움을 계속하였으며 결국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 엄중한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조선로농총동맹

1920년대 전반기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적극 벌어졌다.

이 시기 로동계급은 점차 각성되여 일제와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그들은《조선로동공제회》, 《로동조합》, 《조선로동련맹회》 등 많은 로동단체들을 전국각지에 조직하고 파업투쟁을 자주 진행하였다.

1921년 9월 부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과 1923년 7월 서울고무공장로동자들의 파업, 8월 평양양말공장로동자들의 파업, 1924년 3월 군산정미공장로동자들의 파업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1920년대 전반기 농민들은 로동계급의 방조밑에 일제와 지주들의 가혹한 략탈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소작인조합》, 《농우회》, 《농민공제회》 등 농민단체들을 수많이 조직하고 소작쟁의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군중적투쟁을 벌렸다.

이 시기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투쟁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 투쟁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여러 지방에서 지역별 및 단체별 통합을 위한 투쟁이 진행되였다.

대중투쟁에 대한 통합운동에 기초하여 1924년 4월 서울에서 《조선로농총동맹》이 창립되였다.

총동맹은 강령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해방과 새 사회의 건설, 자본가계급과의 투쟁, 로동자, 농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처지향상 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확립, 8시간로동제의 실시, 소작료 3할제실시, 지세 및 공과금의 지주부담, 《동척》이민반대 등의 당면한 투쟁목표를 제기하였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동맹은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리용하여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고 그들의 투쟁을 조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동맹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을수 없었던탓으로 하여 옳은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고 혁명의 객관적요구에 맞는 정확한 투쟁목표를 제기할수 없었다.

또한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해독적영향을 받아 이 조직의 상층부는 개량주의로 굴러떨어졌다.

《조선로농총동맹》은 1927년 9월 《조선로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갈라졌으나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였다.

민족개량주의의 대두

1919년 3.1인민봉기후 우리 나라 부르죠아민족운동상층분자들가운데서는 매국배족적인 민족개량주의가 대두하였다.

3.1인민봉기후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이 그 계급적처지로부터 동요하고있을 때 간악하고 교활한 일제는 그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특히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들의 혁명적진출이 급격히 장성하기 시작하자 민족주의운동《지도자》들가운데서는 정치적동요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매국배족적인 민족개량주의가 대두하게 되였다.

리광수를 비롯한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조선이 독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정신적면에서 《민족성을 개량》해야 한다는 일제침략자들의 설교에 맞장구를 치면서 《민족개조론》을 들고나와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조선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싸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매 사람의 《자아수양》이 필요하다고 떠벌이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또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에 의하여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조건에서는 결코 실현될수 없는 망상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며 우리 인민을 일제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얽어매두려는 매국배족적인 책동이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또한 나라의 《독립》을 위한 민족의 《대동단결》을 실현하려면 로동자, 농민과 지주 , 자본가사이의 《계급협조》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이자들은 지어 일제침략자들의 《민족자치》에 대한 기만선전에 발맞추어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도 《자치권》을 얻기만 하면 조선사람들이 《지위가 향상된다.》고 설교하면서 《자치운동》을 벌리였다.

이러한 운동에서는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인 김성수, 최린, 조만식, 송진우 등이 앞장섰다.

일제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진 자산계급출신민족운동《지도자》들에 의하여 벌어진 민족개량주의는 그의 반인민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성격으로 하여 처음부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조선인민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으며 그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아 파멸되고말았다.

민족주의운동단체들사이의 파벌싸움

3.1인민봉기이후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중국동북지방과 로씨야연해주지방으로 망명하여 계속 독립운동을 벌리면서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을 내오고 그를 통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단체들은 완고하고 협애한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서로의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파벌사움을 일삼았다.

3.1인민봉기후 독립운동단체들사이의 파벌싸움은 먼저《통의부》와 《의군부》사이에 벌어졌다.

1923년 8월 난만지방에서는《한족회》를 중심으로《독립단》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이 《련합》하여 《통의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통의부》는 그 초기부터 그안에서 매 단체를 이끈 민족주의자들의 분파적악습으로 하여 공고한 단합을 이룰수 없었다.

《통의부》의 내부에서는 자리배치를 놓고 《독립단》계렬과 《한족회》성원들사이에 파벌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졌으며 일부 민족주의자들은《통의부》에서 떨어져나가 《의군부》라는 단체를 새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통의부》안에서의 싸움은 마침내 《통의부》와 《의군부》 사이의 싸움으로 벌어졌다.

1920년대 중엽에 들어와서는 민족운동단체들호상간의 세력싸움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이른바 3부사이에서 치렬하게 벌어졌다.

《참의부》는 《통의부》와 《의군부》사이의 세력싸움에 불만을 품은 《통의부》무장집단인 《의용군》 5개 중대가운데서 4개 중대가 떨어져나와 1923년 8월에 따로 조직한 단체였다. 조직초기에 이 단체는 지안, 푸쑹, 창바이, 안투, 퉁화 등 여러곳을 자기 관할지역으로 하였다.

《정의부》는 1923년 10월 《통의부》를 모체로 하여 《의성단》 등 여러 단체의 련합으로 조직되였다. 이 단체는 중국동북지방에서 가장 큰 민족주의세력을 이루고있었다.

《정의부》는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던 푸쑹, 반스, 관티엔, 왕칭먼, 싼웬푸, 화디엔 등 지역에 총판서라는 자치적인 기구까지 가지고있었다.

이 단체는 반일투쟁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기 산하에 6개의 독립군중대를 두고 있었으며 화디엔에 독립군 군관학교인 화성의숙을 설치하고 독립군 간부들을 키워냈다.

《신민부》는 1925년 3월 베이만(북만)에서 《대한독립군단》, 《북로군정서》, 《대진청년회》 등 여러 단체들의 련합으로 조직되였다.

이 단체는 베이만과 둥만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활동하였다.

《신민부》는 성동군관학교를 설치하고 군사간부를 키우는 한편 지방주민들속에서 민족주의사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가 성립됨에 따라 중국동북의 여러 지

방에 있던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단체들은 대체로 이 단체의 어느 하나에 속하였다.

이때부터 중국동북지방에서는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민족주의자들의 싸움이 주로 이 3부사이에 벌어지게 되였다.

민족주의대표세력들은 일제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면서 파벌싸움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인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자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며 저들의 권력싸움을 완화할 목적으로 3부의 통합문제를 들고나왔으며 드디여 지린에서 《3부통합회의》를 열고 1927년 4월에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게 되였다.

민족주의자들이 《국민부》로 합쳐진것은 명색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지로는 그후에도 제가끔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 없이 오히려 민족해방투쟁을 저애하였다.

6.10만세시위투쟁

1926년 6월 10일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일제를 반대하여 벌린 대중적시위투쟁이였다.

1926년 4월 리조의 마지막왕인 순종이 죽은것을 계기로 대중의 반일감정이 앙양되였다.

그것은 리씨왕조에 대한 그 어떤 미련에서가 아니라 일제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밑에서 쌓이고쌓인 민족적울분에서 치솟는 감정에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각계각층 군중을 반일시위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지도밑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위투쟁을 준비하였다.

5월 중순에는 서울 인쇄로동자, 청년학생들이 동원되여 비밀리에 5만여매의 삐라와 격문을 인쇄하였다.

선각자들은 각지에 파견되여 지방에서 활동하고있던 공산주의자들과의 련계밑에 대중을 반일투쟁에로 궐기시키기 위한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이 기미를 냄새맡은 일제경찰은 야수적인 탄압망을 펴고 투쟁의 주모자들을 검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과의 련계가 끊어졌으나 공산주의자들과 인쇄로동자들, 청년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여 시위투쟁준비사업을 계속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시위투쟁은 처음에 계획하였던대로 6월 10일에 벌어지게 되였다.

이날 순종의 상여가 창덕궁을 떠나자 길좌우에 늘어섰던 군중은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삐라와 격문을 뿌리고 대중적반일시위에로 일떠섰다.

시위자들은 군중을 해산시키며 체포하려고 덤벼드는 일제경찰들을 주먹으로 때려눕혔다.

일제경찰은 160여명의 시위자들을 부상시키고 200여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청년학생들을 체포구금하였다.

이날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도 반일만세시위투쟁이 벌어졌다.

6.10만세시위투쟁은 그 대오안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야수적탄압을 막아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종파분자들은 이 투쟁에서 자기들의 종파적리익을 내세웠다.

투쟁이 일어났을 때 화요파는 저들의 종파적견지에서 조직사업을 하고 서울파는 이에 대하여 방해공작을 하였다.

그리하여 청년학생들과 인민대중이 용감히 싸웠으나 투쟁은 제대로 전개될수 없었으며 곧 실패하고말았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가혹한 파쑈테로폭압밑에서도 굴하지 않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정신을 시위하였다.

이 투쟁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서는 투쟁대렬안에 침입한 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춘생문사건

1882년 《조미조약》체결을 계기로 침략의 마수를 뻗친 미제침략자들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일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빠진 틈을 리용하여 조선봉건정부를 뒤집어엎고 친미괴뢰정부를 세우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발생한것이 바로 춘생문사건이였다.

춘생문사건의 총지휘는 서울주재 미국공사였던 알렌이 담당하였다.

그는 미해병대 약 100명과 동별영에 주둔하고있던 시위대병사 800명을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점령하고 30여명의 자객이 별동대로서 정부대신들을 살해할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조선침략의 현지사환군들인 리젠드르, 언더우드, 아펜셀러 등이 대기하고있다가 정부전복음모가 성사되면 국왕을 미국공사관에 유인해내기로 하였다. 다른한편 알렌은 왕궁호위를 직접 담당하고있던 친위대 대대장 리진호에게 비밀편지를 보내여 시위대가 왕궁을 습격할 때 친위대는 안으로부터 호응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음모를 미리 알고있던 조선정부의 사전대책과 시위대병사들의 민족적각성에 의하여 저지파탄되였다.

친미분자들의 기만술책에 일시 넘어갔던 시위대병사들이 경복궁의 동북쪽문인 춘생문에 접근하여 성벽을 넘으려 할 때 군부대신대리 어윤중은 직접 시위대병사들앞에 나서서 민족적량심에 호소하여 스스로 퇴진할것을 호령하였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음모군들에게 속히웠다는것을 깨달은 시위대병사들이 자진하여 물러갔다.

민족적의분을 느낀 일부 병사들은 림최수, 리도철을 비롯한 친미분자들을 체포하여 법기관에 넘기였다.

춘생문사건은 미제야말로 저들의 흉악한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음흉한 무리들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폭로하였다.

민비학살사건(을미사변)

19세기말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책동이 강화되자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외래침략세력을 쳐물리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끔 외세와 결탁하는데로 나갔다.

1894년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을 계기로 청나라세력을 조선에서 밀어제낀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청나라를 등에 업고 정권을 유지해오던 국왕과 민비일파는 《3국간섭》이후 일본의 국제적지위가 약화되자 일제의 내정간섭에 대항하여 이번에는 짜리로씨야세력에 의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침략자들은 리조봉건정부안에서 친로세력을 제거하고 저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실현하기 위하여 그 우두머리인 민비를 학살할 흉계를 꾸미였다.

일제는 민비를 살해할 하수인으로 군벌출신인 미우라놈을 지명하고 그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임명하였다.

이노우에 대신에 서울에 기여든 미우라는 저들의 군대, 경찰, 불량배들을 면밀히 준비시키면서 왕궁습격에 대원군과 제놈들의 영향밑에 있던 훈련대를 리용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이 사건을 대원군과 민가일당사이의 정권쟁탈전으로, 왕궁수비대사이의 충돌사건으로 보이게 하자는데서였다.

마침내 1895년(을미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 조선주재 일본공사 미우라놈을 비롯한 1 000여명의 무장악당들이 왕궁을 불의에 습격하였다.

사다리를 놓고 은밀히 성벽을 넘어 왕궁안에 기여든 놈들은 왕궁을 지키던 시위대 련대장 홍계훈을 무참히 학살하고 거침없이 국왕과 왕비의 거처인 건청궁을 포위점령하였다.

일본깡패무리들은 련이어 국왕의 침실인 곤녕전에 뛰여들어 총칼을 휘두르면서 민비를 내놓으라고 국왕을 협박하였다. 일본깡패의 한 무리는 민비의 침실인 옥호루에 뛰여들었다.

이놈들은 저들의 만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맞받아나오는 궁내부대신 리경식을 쏴죽이였고 궁녀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면서 민비를 찾으려고 날뛰였다. 마침내 놈들은 방구석에 숨어있던 민비와 그 시녀들을 끌어내다 긴칼로 내리쳤다.

칼에 맞아 쓰러진 세명의 녀자들중에 한명이 민비라는것을 확인한 깡패무리들은 아직 완전히 숨지지 않은 민비를 흰보로 둘둘 말아 근방의 수림속으로 날라다가 장작더미우에 놓고 석유를 뿌려 불태워버렸다. 민비학살만행은 삽시에 내외여론을 끓어번지게 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강력한 반항과 세계여론에 부닥치자 뻔뻔스럽게도 제놈들이 왕궁에 들어간것은 대원군의《호위》와 조선국왕의 신변《보호》를 위한것이였다고 뇌까렸으며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미우라이하 48명의 진범인들을 일본 히로시마감옥에 데려다 《재판》을 벌리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석방》하는 광대놀음을 벌리였다.

민비학살만행은 일제야말로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쑤이며 류례없이 포악하고 야수적인 침략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아관파천

당시 로씨야를 《아라사》라고 불렀으므로 이 사건을 왕이 로씨야공사관(아관)으로 옮겨앉았다(파천)는 뜻에서 아관파천이라고 불렀다.

을미사변, 춘생문사건을 계기로 인민대중뿐아니라 리조정부안에서까지도 반일, 반미감정이 높아지게 되자 이번에는 조선주재 로씨야공사 웨베르가 그것을 리용하여 친로정권을 조작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였다.

이를 위하여 웨베르는 민비학살사건이후 일제와 미제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있는 국왕 고종을 자기들의 공사관으로 빼돌리려고 하였다.

웨베르는 이 흉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사관《보호》의 구실밑에 인천에 와있던 200여명의 해병대무력을 서울에 끌어들이였다.

계속하여 웨베르는 친로파로 전락된 리완용, 리범진, 리윤용 등을 통하여 련계를 맺고있던 국왕과 왕세자를 로씨야공사관에 유인해내는 작전을 전격적으로 감행하였다.

웨베르의 각본에 따라 국왕과 왕세자는 1896년 2월 11일 새벽 궁녀의 승교(가마)를 타고 경복궁의 서쪽문인 영추문을 무사히 빠져나가 로씨야공사관으로 옮겨앉았다.

그리고 짜리로씨야공사관에서 리범진, 김홍륙, 리완용 등을 우두머리로 하는 친로정권이 조작되였다.

짜리로씨야는 이 친로정권을 조정하여 함경북도 경성, 종성 등지의 채광권, 두만강, 압록강 상류지역 및 울릉도의 산림채벌권, 서울-원산사이의 전신선가설권을 비롯한 각종 리권을 빼앗았으며 리조정부의 군사권과 재정권을 틀어쥐였다.

애국적인민들은 친로정권의 조작과 그것을 통한 짜리로씨야의 내정간섭을 반대하여 상소, 항의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국왕은 1년만인 1897년 2월 20일 짜리로씨야 공사관으로부터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아관파천은 조선침략을 위한 제국주의침략자들사이 특히 로일간의 대립과 봉건통치배들의 사대매국적인 죄행을 폭로하였으며 자주적인 정권이 없이는 나라의 독립이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고종독살미수사건

로씨야공사관으로 옮겨앉았던 국왕이 왕궁으로 돌아온 후 조선봉건정부안에서는 외세를 등에 업고 파벌들사이의 싸움이 더욱 격화되였다.

그것은 1898년 9월 고종독살미수사건을 계기로 조선봉건정부가 와해되기 시작한것과 관련되였다.

1898년 초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렬강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정치, 군사적침략과 경제리권강탈책동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그러므로 당시 인민들과 애국적지식인들은 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각계각층 시민들이 만민공동회를 열고 군중적인 항의시위투쟁을 벌리였다.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투쟁기세에 극도로 당황한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사대매국적죄행과 부정부패행위를 전부 한성판윤 김홍륙에게 넘겨씌워 1898년 8월 23일 국왕의 지시로 그를 체포하고 흑산도로 류배보냈다.

김홍륙은 류배지로 떠나면서 국왕을 독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8월 25일 류배지로 떠나는 길에 아편 1량을 전선사 주사 공홍식에게 넘겨주었다. 공홍식은 왕궁주방에서 일하는 김종화에게 은화 1 000원을 준다고 약속하고 아편을 넘겨주었다.

김종화는 9월 11일 그 약을 커피에 타서 황제와 황태자에게 드리였다.

이때 고종은 커피맛이 좀 이상하므로 마시지 않았으나 황태자는 커피를 좋아하다나니 잔을 비우게 되였는데 그러자마자 구토를 하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황한 내시와 궁녀 10여명이 커피를 맛보았는데 그들 역시 중독되였다.

김홍륙, 공홍식, 김종화는 10월 10일 《모반죄인》으로서 교수형에 처하였다.

고종독살미수사건은 외래침략세력에 붙어서 파쟁을 벌리던 봉건통치층안에서 벌어진 음모사건이였다.

헤그밀사사건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우에 놓이게 된 때에 리준(전 평리원 검사), 리상설(전 참찬), 리위종(전로씨야주재 조선공사관 서기) 등 우국지사들은 기막힌 나라의 처지를 국제사회계에 호소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리는 제2차《만국평화회의》를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의 비법성과 강도성을 폭로규탄하는 연단으로 리용할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고종황제를 리용한다면 능히 일을 성사시킬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당시 고종은 애국적인민들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이 강화되고 일제가 회유와 위협공갈로 황제의 전제권을 하나하나 빼앗아내는 형편에서 커다란 불안에 휩싸여있었다.

리준, 리상설 등 우국지사들은 고종의 이러한 동요를 리용하여 그의 밀서를 얻어 조선대표의 자격으로 제2차《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한편 고종은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평화》의 허울로 가려볼 목적밑에 벌려놓은 이른바《만국평화회의》에 환상을 가지고 리준 등을 이 회의에 참가시켜《을사5조약》이 일제에 의하여 날조된것임을 폭로케 함으로써 외세의 동정을 얻어 일제에게 빼앗긴 자기의 전제권력을 회복해보려고 망상하였다.

이리하여 리준일행은 고종의 비밀편지와 위임장을 가지고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 도착하여《만국평화회의》에 조선대표로 참가하겠다는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각종 모략과 음모속에서 진행되는 이 회의는 조선대표의 참가를 거절하였다.

특히 일본대표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을사5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구실로 리준일행을 조선대표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백방으로 방해하여나섰다.

리준일행은《만국평화회의》의 정식대표로 참가할수 없는 조건에서 온갖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일제의 강도적인 조선침략책동을 폭로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그들은 6월 27일 그곳에서 발간되는 신문《쿠리에르 데 라콘 페란스》지상에《조선은 왜 만국평화회의에서 제외되여야 하는가》라는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평화》와《친선》의 간판밑에 강도적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귀중한 재부들을 략탈하고있는 일제의 침략책동을 낱낱이 폭로규탄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국권을 강탈할것을 목적한《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만천하에 발가놓았다.

이것은 국제사회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사회여론이 어느 정도 높아진 환경속에서 조선대표는 7월 9일 국제기자협회에서 조직한 집회에 참가하여 조선형편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리위종은 1시간동안에 걸쳐 일제의 조선침략책동을 력사적으로 폭로규탄하고 일제침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피어린 투쟁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면서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제와 싸우는 조선인민을 지지하고 원조해줄것을 호소하였다.

조선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각국 기자대표들이 연단에 뛰여올라 일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연설들을 하였다.

한 연설자는 일본에 대한 격분을 참을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사태를 판가름하기 위하여 국제재판정을 설치하는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 취해진 일본의 폭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제지원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기자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한갖 사회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지나지 않는것이였지만 일제와 그를 뒤받침해주고있던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일정한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세 밀사들의 활동으로 타격을 받은 일제는 국왕이 이 일에 개입하였다는것을 구실로 하여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는데 이 사건을 악용하려고 획책하였다.

헤그밀사사건은 조선인민에게 자본주의렬강이 들고나오는 《평화》와 《친선》의 구호는 순전한 위선과 기만이며 그것은 전쟁과 침략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너울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당시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한 어느 렬강도 조선대표들을 《회의》에 참가시키려 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지지하고있었다.

이것은 제국주의렬강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소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민족적독립은 오직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해서만 유지될수 있다는 심각한 력사적교훈을 주었으며 뿌리깊은 사대의식을 흔들어놓은 일대 경종이였다. 《만국평화회의》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그것이 어긋나자 리준은 자기의 배를 갈라 죽는것으로써 항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리준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리준은 제국주의렬강대표들의 면전에서 스스로 배를 갈라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하시였다.

헤그에서의 조선대표단의 활동은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조선에 대한 그들의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촉발시키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리재선사건

위정척사운동의 앙양에서 봉건지배층안의 반침략세력이 큰 고무와 힘을 얻었다.

그들은 민가일당의 근 10년간에 걸치는 투항주의적정치를 청산할 때가 왔다고 간주하였다.

이른바 《리재선사건》이라고 불리운 민가일당을 반대하는 정변준비가 이러한 환경에서 생기게 되였던것이다.

대원군은 자기의 서자 리재선과 안기영, 권정호를 심복으로 삼고 위정척사운동자들의 상소운동이 고조되고있던 1881년 5월부터 정변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령남만인소》를 내오는데 활동하였던 강달선과 리두영, 리종학, 리철구 등 4명을 군자금모집, 무기획득 등 준비사업에 동원시켰다. 그러나 준비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7월에 이르러서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시켰다.

즉 다가오는 8월 21일에 경기도에서 과거시험을 보려고 많은 선비들이 서울에 몰려드는 기회에 그들을 동원하여 거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때에 세워진 계획에 의하면 동원한 선비를 3개 대로 나누어 제1대는 왕궁을 습격하며 제2대는 미국, 일본과 결탁하려는 매국적정부관리와 중신들을 습격처단하며 제3대는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여 일본인들을 처단하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거사예정일이 되였으나 준비가 아직 불충분한것으로 인정되여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정변준비에 참가했던 변절자의 밀고에 의하여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 대규모적인 검거선풍이 일어나게 되였고 정변기도는 완전히 파탄되게 되였다.

상하이홍커우공원사건

1908년 충청남도 례산군 덕산면에서 출생한 윤봉길은 반일애국의 뜻을 품고 1926년 중국 칭다오로 갔으며 1931년에 상하이로 갔다.

그는 《림정》의 조소앙을 만났다.

조소앙은 그에게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하면서 특히 리봉창의 일본《천황》폭살미

수사건에 대하여 애국적장거로 크게 선전하였다.

조소앙의 소개로 김구를 만난 윤봉길은 《한인애국단》단원으로 입단한 다음 쟝지에스국민당군 상하이병공창의 김홍일을 통하여 마련한 밥곽형의 폭탄과 구체적인 테로작전지시를 받았다.

1932년 1월 28일 《상하이사변》으로 상하이를 강점한 일제는 일본천황 히로히또의 생일날인 4월 29일 홍커우공원에서 상하이점령 축하를 겸한 군관민합동축하대회를 열기로 하였던것이다.

면밀한 작전밑에 이날《점심밥곽》을 꽁무니에 차고 축하시민대렬에 끼여들어 행사장인 홍커우공원의 중앙주석단앞 10m거리까지 접근한 윤봉길은 오전 11시 40분 상하이주둔일본군사령관 시라가와대장이 경축사를 하는 순간 주석단가운데로 꽁무니에 찼던 폭탄을 던졌다.

하늘땅을 울린 폭음에 홍커우공원은 수라장이 되였다.

시라가와대장은 전신에 24개의 파편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5월 26일에 죽고 상하이일본거류민단 단장놈은 창자가 파렬되여 죽는 등 여러명의 사상자가 났다. 일본륙군 제9사단장 중장 우에따와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 중국주재 일본공사 시게미쯔는 다리가 부러졌고 여러명의 중경상자가 났다. 현장에서 체포된 윤봉길은 5월 29일 오사까로 압송되여 12월 19일 가네사와시 륙군작업장에서 24살의 청춘에 총살형으로 순국하였다.

앵전문(사꾸라다몬)사건

1900년 서울에서 출생한 리봉창은 룡산 문창보통학교를 나온 다음 1925년 일본에 건너가 오사까에서 로동을 하면서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되게 되였다.

그는 반일독립투쟁에 헌신할 일념으로 1931년 상하이림정을 찾아갔다.《한인애국단》에 망라된 그는 김구로부터 수류탄사용법을 훈련받고 조소앙으로부터 일본의 조선침략력사와 일본의 정치, 경찰, 사법제도, 도꾜의 거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당시 쟝지에스의 국민당군 상하이병공창에서 근무하는 반일적인 조선인군관 김홍일을 통하여 입수한 2개의 수류탄과 함께 김구의 구체적인 거사지령을 받은 리봉창은 그해 12월 17일 상하이를 떠나 19일 고베를 거쳐 22일에는 도꾜에 도착하였다.

다음해인 1932년 1월 8일 그는 일본륙군관병식에 참가하고 돌아오는《천황》을 폭살할 계획밑에 도꾜궁성가까이에 있는 앵전문밖 경시청정문앞까지 잠입하였다.

잠시후 대신들이 탄 마차들이 들이닥쳤다.

그는 맨앞에 탄 쌍두마차에 일본《천황》이 탔으리라고 짐작하고 거기에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은 꽝음을 울리며 작렬했고 여러명이 나가 뻐드러졌다.

그런데 그것은 궁내대신이 탄 마차였고《천황》이 탄 마차는 그로부터 30m뒤에서 따르고있었다.

리봉창은 뜻을 이루지 못한채 현장에서 체포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총리대신이하 일본 전 내각이 인책사직서를 내고 경시청장을 비롯한 여러명의 관리들이 형벌을 받았다.

리봉창은 일제교형리들의 극악한 고문끝에 그해 10월 10일 32살의 나이로 도꾜 이찌가야형무소에서 사형당하였다.

흑하사변

일제의 조선강점이후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준비되여오던 반일독립운동은 3.1인민봉기이후 무장부대들의 조직과 본격적인 무장활동에로 넘어갔다.

홍범도와 최진동이 거느린 독립군부대들이 북부국경지대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가한데 이어 리동휘휘하 무장부대도 국내진출을 서두르고있었다.

이러한 때인 1920년 6월 오동진을 총영장으로 하는 《광복군총영》산하에는 6개영(군법부장 겸 제1영장 변대우)에 3 780명의 병력이 있었다.

국내에는 천마산에 천마별영, 벽동군에 벽파별영을 두었다.

독립군부대들의 맹렬한 활동에 당황한 일제는 1920년 5월-8월의 1차《토벌》에 이어 10월에는 대학살선풍의 2차《토벌》을 감행하였다.

《광복군총영》을 비롯한 독립군부대들을 겨냥한 일제의 1차《토벌》에 의해 무려 365명의 조선의 애국자들이 체포되였다.

일제는 그해 7월 한개 련대의 병력과 남양수비대를 총동원하여 둥만독립군의 주요거점의 하나인 왕칭현 봉오골에 대한 《토벌》을 계획하였다.

적들의 《토벌》기도를 사전에 간파한 홍범도부대는 7월 9일 김좌진, 서일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의 독립군부대들과 련합하여 봉오골에서 일제 《토벌》대 120여명을 요정내는 전과를 거두었다.

《토벌》에서 실패한 일제는 둥만에 대대적인 병력을 들이밀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마적단두목들을 매수하여 제놈들의 령사관이 있는 훈춘을《습격》케 하는《훈춘사건》을 조작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씨비리에 출동시켰던 병력과 조선주둔군 제19사단의 1개 련대, 함경남북도의 경찰대들까지 총동원하여 둥만의 훈춘, 왕칭, 허룽일대에 대한 《대토벌》을 감행하였다.

그때 일제는 조선인 3만여명을 학살하고 6천여호의 살림집을 파괴소각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둥만일대는 말그대로 피바다로 변하였다.

이것이 《경신년 지엔다오대토벌》로 전해지는 1920년 10월의 대학살사건이다.

이와 병행하여 일제는 조선독립군 부대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10월 20일-23일 김좌진휘하의 부대를 비롯한 여러 독립군 부대들은 허룽현 칭산리에서 불의에 조우한 일제《토벌》대와의 치렬한 격전에서 련대장과 10여명의 장교를 포함한 수백명의 왜놈들을 소탕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두차례의 전투승리에서 신심을 얻은 독립군부대들은 군력을 통합보강하고 전투준비를 더욱 원만히 할 전략적목적으로 1921년 1월 중로국경지대인 연해주의 자유시(쓰와보드느이)일대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홍범도의《대한독립군》, 김좌진, 서일의《북로군정서》의 일부 부대들이 군력통합강행의 명분으로 그곳에 모여들기는 했지만 령도권을 노린 민족주의상층인물들의 우심한 알륵과 암투로 통합은커녕 부대들의 호상관계는 살륙분쟁의 험악한 형세로 치닫고있었다.

이들의 반목질시를 더욱 부추긴것은 국제당원동파견원과 로씨야의 원동완충정부를 각각 등에 업고 독립군부대들을 제편으로 끌어당기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이르꾸쯔크파》공산당과 《상하이파》공산당의 막후모략이였다.

1921년 6월 28일 독립군부대들사이의 암투는 끝내 무장충돌의 류혈참사를 빚

어내고야말았다.

쏘고 찌르고 때리고 죽이는 류혈사태는 로씨야원동공화국의 적위군이 개입하여 진압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류혈비극끝에 홍범도휘하부대는 로씨야적위군에 편입되고 일부는 베이만으로 나오고 투옥되였거나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것이 력사에 《흑하사변》으로 전해지는 반일독립군들의 류혈분쟁이였다.

《민족자결론》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 토마스 우드로우(1856년-1924년)는 1918년 1월 8일 미국회에 제1차 세계대전 종결후의 강화조건으로 《14개조항》이라는 《교서》를 보냈다.

그가운데 제5조에서는 《식민지의 주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리익은 관계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동일하게 중시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식민지적요구를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 무슨 《자치》와 《평화》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식민지민족의 주권을 식민지종주국의 요구와 동등하게 중요시하면서 식민지문제를 해결한다고 한 윌슨의 이러한 주장들을 총칭하여 《민족자결론》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력사가 증명한것처럼 《민족자결론》은 다민족국가였던 로씨야를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며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식민지약소국가인민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단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리시키는 한편 전패국들을 희생시켜 그 령토를 차지해보려는 미제의 탐욕적이고 위선적인 구호였다.

독립선언서

미국대통령 윌슨의《민족자결론》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조선독립을 미국을 비롯한 렬강들에게 청원하는 방법으로 성취할수 있으리라는 허망한 기대밑에 조소앙은 자신이 발기하고 안을 내여 만든《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중국 동북 지린(길림)에 가서 려준, 김좌진, 류동렬, 김동삼을 비롯한 반일독립운동자 39명의 서명을 받아 1918년 11월에 발표하였다.

일명《무오독립선언서》라고 불리우는 이것이 우리 나라 최초의《독립선언서》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김상덕, 백관수, 리광수를 비롯한 11명의 도꾜조선류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에 《2.8독립선언서》라는것을 작성발표하였다.

해외에서 련이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서 충격을 받은 천도교상층인물들은 1919년 2월 상순에 그리스도교의 오하영, 김창준, 불교의 한룡운 등 33명《민족대표》들의 명의로 작성된《독립선언서》를 3.1인민봉기때 발표하였다.

이것이 당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기미독립선언서》이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오늘 우리의 임무는 결코 지난 시기의 원한과 일시적감정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비롯하여 일제와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아부와 굴종, 타협을 설교한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약점을 다분히 드러내고있었다.

대한민국

원래 《대한제국》이란 리조 26대왕 고종이 청일전쟁후인 1897년 10월 12일에 내온 국호였다.

이 국호가 외교관계상 처음으로 쓰인것은 1904년 2월 23일《한일의정서》의 체

결때부터이다.

그러나 애국적인 인민대중은 결코 대일관계에 오용된 《대한제국》(략칭 한국) 국호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나라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3.1인민봉기때에도 목숨을 내대고 《조선독립 만세!》를 목터지게 불렀던것이다.

상하이에 망명한 민족주의독립운동자들은 《림시정부헌장》을 기초할 때 치욕적인 《대한제국》국호를 《대한민국》(한국)이라는 림시적인 국호로 개정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림시국호는 중국에서 1911년 신해혁명당시 《대청제국》(만청정부)을 없애고 새롭게 《중화민국》을 세운것을 본딴것이다.

상하이림시정부헌법토의때 손정도, 신채호 등 애국지사들은 아침해 빛나는 의미를 담은 《조선》이나 제일 고운 나라라는 의미에서 《고려》를 국호로 정하자고 주장하였다.

갑론을박끝에 앞으로 나라의 완전독립이 성취된 다음 전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최고주권기관에서《조선》또는《고려》라는 국호를 정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는《대한민국》으로 하기로 락착하였다.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의 략칭이 《한국》이라는 표현으로 같아졌기때문에 《대한제국》을 《구한국》이라는 략칭으로 구별을 지었었다.

고려공산당

리동휘는 1918년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우리 나라 최초의 사회주의그루빠인 《한인사회당》을 결성하였다.(이것이 《고려공산당》의 전신이다.)

그후 리동휘가 상하이림시정부 국무총리로 선임되여 상하이에 와있을 때인 1920년 5월 상순 어느날 려운형은 상하이프랑스조계지에 있는 김만겸의 집에서 코민테른(제3국제공산당)의 중국파견원 웨덴스끼로부터 《조선을 해방하며 사유재산제도를 청산하고 공산제도를 수립할것을 목적》으로 하는《고려공산당》을 리동휘와 함께 조직할데 대한 권유를 받았다. 이리하여 리동휘가 주동이 되여 상하이에서 또 하나의 《고려공산당》을 조직하게 되였다.

이 《고려공산당》에서는 려운형이 번역위원, 조동우가 출판위원이 되여 《공산당선언》, 《공산주의 A, B, C》 등 공산주의서적들을 번역출판하여 상하이와 만저우, 국내에 보급하는 활동을 벌렸다.

한편 《대한국민의회》의 지도적핵심이였던 문창범이 1921년 5월에 이르꾸쯔크에서 《한인사회당》의 주요인물들로 《고려공산당》이라는것을 만들어놓았는데 김만겸은 상하이에 있는 반리동휘파인물들을 긁어모아 이르꾸쯔크에 있는 《고려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조직인 《고려공산당 상하이지부》를 내오도록 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리동휘는 자기가 주동이 되여 조직한 상하이 《고려공산당》이 《한인사회당》의 후신으로서의《공산당의 정통파》라고 자처하면서 김만겸을 공격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1918년 6월에 나온《한인사회당》도 두개의 파로 분렬되여 파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서로 물고뜯는 란투극을 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리동휘의 《공산당》을 상하이파공산당, 김만겸의 《공산당》을 이르꾸쯔크파공산당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리조시기의 유적과 유물

진북루

진북루는 리조시기 갑산읍성의 정남문으로 유명하였다.

그런데 일제강점시기 일제침략자들이 갑산읍성과 함께 허물어버렸던것을 1980년에 원상대로 복구하였다.

갑산은 북방방위에서 주요한 위치에 놓여있으므로 고려말기 이 지방에 갑주만호부가 설치되고 1393년에는 여기에 성을 쌓게 되였다.

갑산읍을 둘러막은 갑산읍성의 성벽의 둘레는 2 281자였고 높이는 9자였다.

그리고 읍성 서쪽에 허천강까지 둘러막은 외성의 길이는 535자, 높이는 9자였다.

갑산읍성에는 진북루를 비롯한 4개의 성문과 각루들, 수항루를 비롯한 여러개의 루정들, 포루들이 있으며 성벽우에는 성가퀴들이 설치되여있었다.

갑산중심부에 웅장하게 일떠선 진북루는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져있다.

검푸른 용암을 다듬어 단정하게 쌓은 축대의 복판에는 무지개문길이 나있다.

축대우에는 우가 평평한 톱날식으로 생긴 성가퀴가 있다.

문루의 앞면 3간, 옆면 3간의 2층으로 되여있다.

기둥은 배부른 기둥이고 그우에는 2익공식두공을 올렸다.

천정에는 소란반자를 댔는데 그아래에 옆면으로 댄 보가 몸뚱아리가 되고 대들보를 타고 대가리를 쭉 내민 룡의 형상은 살아서 꿈틀거리는것 같다.

진북루는 갑산읍성과 함께 외래침략자들을 막아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복궁

경복궁은 서울시에 있는 리조시기의 기본궁성이다.

이밖에 서울에는 창덕궁, 경희궁 등 여러 별궁들이 있었다.

경복궁은 1394~1395년사이에 처음으로 건설되였다.

경복궁은 원래 수도를 개경으로부터 한양(서울)으로 옮기면서 지은 정궁인데 임진조국전쟁때 불탔다.

대원군은 정권을 잡은 후 왕권의《위엄》을 보이기 위해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는 영건도감이라는 기구까지 내왔고 제가 직접 경복궁건설을 감독하였다.

당시 대원군이 경복궁건설에 인민들로부터 원납전（자원적으로 바치는 돈）이라는 이름으로 짜낸 돈과 왕실재정, 국고금은 모두 780만냥이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복궁은 1865~1868년사이에 개건되였다.

북악산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경복궁둘레에는 높은 돌성벽이 쌓아졌는데 그안의 면적은 고구려를 비롯한 력대 봉건궁성들의 면적과 비슷하다.

궁성의 네 모서리에는 각루가 세워졌다.

궁성의 남쪽에는 정남문인 광화문, 동쪽에는 건춘문, 서쪽에는 영추문, 북쪽에는 신무문 등 웅장한 문들을 세웠다.

궁성안은 담장의 회랑들로써 여러 구획으로 나뉘여져있었는데 경복궁의 기본건축물들은 광화문을 통하는 남북중심축을 따라 배치되였다.

광화문은 높은 화강석축대와 2층 문루로 이루어진 웅대한 정문이다.

축대에는 3개의 무지개문길을 가지런히 놓았는데 가운데 문길은 좀 크고 높게 하여 중심을 강조하였다.

문루는 1층과 2층을 다 앞면 3간, 옆면 2간으로 하고 아래, 우를 다 바깥 5포, 안 7포로 하여 웅장성을 돋구었다.

광화문은 일제침략자들이 《총독부》를 지으면서 건춘문 북쪽으로 옮겨놓았다.

광화문을 지나면 홍례문이 나서고 그안에 금천교가 놓여있다.

이것이 궁궐의 바깥뜰에 속한다.

이어 근정전구획이다. 기본정전인 근정전은 근정문을 포괄하는 회랑안에 위엄있게 놓여있다.

거의 정방형평면인 2단의 화려한 밑단우에 앞면 5간, 옆면 5간으로 된 장중한 2층합각집인 근정전은 지금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목조건물들중의 하나이다.

근정전안에는 왕이 앉는 옥좌가 마련되여있다.

옥좌뒤 병풍앞에는 다섯개의 봉우리를 그린 벽화를 겹놓았다.

근정전 앞뜰에는 의식을 지낼 때 관리들이 설 자리를 표식한 대리석표말들이 주런히 서있다.

그다음은 사정전구획이다.

사정문에 들어서면 회랑안에 사정전이 있고 그 량쪽에 만춘전과 천추전이 있다.

그뒤는 침전구획이여서 여기에는 왕이 사는 집인 강녕전과 교태전이 있고 강녕전 서쪽련못 가운데는 대연회장인 경회루가 있다.

이 일대에는 훌륭하게 꾸려진 후원이 펼쳐져있다.

강녕전과 교태전은 리조시기 왕족이나 높은 귀족주택의 전형적인 형식을 띠고있다.

이 집들은 일제침략자들이 창덕궁으로 옮겨놓았다.

앞면 7간, 옆면 5간으로 된 경회루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2층루각이다.

련못속의 흰돌기둥우에 떠받들려있는 경회루는 한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다.

경복궁의 후원은 민족적정서에 맞게 꾸며졌다.

경복궁은 우리 인민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력대 침략자들은 경복궁을 거듭 파괴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침략하자마자 경복궁에서 몇개의 건물만 남기고 4 000여간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1926년에는 궁성앞부분을 모조리 헐고 그 자리에 《총독부》를 세웠다.

지금 경복궁안에는 근정전과 경회루 등 몇채의 건물만이 겨우 남아있다.

한양성

한양성은 리조 500년간의 수도성이다.

리조는 건국하자마자 곧 수도를 한양으로 옮길것을 타산하고 1394년-1396년사이에 둘레 약 16.7㎞의 한양성을 건설하였다.

한양성의 성벽은 북쪽의 북악산,동쪽의 락타산, 서쪽의 인왕산, 남쪽의 남산(목멱산)을 끼고 돌면서 자연지형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쌓은 돌성벽이다.

성벽은 처음에 일부 구간에서는 돌로, 일부 구간에서는 흙으로 쌓았던것인데 후에 돌성벽으로 다 고쳐졌다.

성돌로서는 자연석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약간 다듬어 쓰기도 하였다.

성벽우에는 포대와 같은 성곽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었다.

그리고 전투를 지휘하던 곳인 남장대와 북장대가 있었다.

한양성에는 숭례문(남대문), 홍인문(동대문), 돈의문(서대문), 숙청문(북문)의 네 대문과 동남쪽에 광희문(수구문), 서남쪽에 소덕문(서소문), 서북쪽에 장의

문, 동북쪽에 홍화문(혜화문 또는 동소문) 등 작은 문들이 있다.
한양성의 남문인 숭례문은 1448년에 고쳐지은것이 전해내려오는데 무지개문길을 낸 화강석축대와 앞면 5간, 옆면 2간의 2층문루로 이루어졌다.
약간 배부른 기둥에 우진각지붕을 이은 남대문은 위용이 있고 균형잡힌 오랜 성문의 하나이다.
오늘의 흥인문은 1869년에 고쳐지은것인데 역시 무지개문길을 낸 화강석축대와 앞면 5간, 옆면 2간의 2층문루로 되여있다.
한양성의 남장대에는 불을 피워올려 신호를 보내는 봉수대가 있어 전국 각지에 봉수체계를 통해 신호를 교환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한양성안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궁성들이 건설되였다.
한양성안은 1396년 부방제도가 실시되여 동, 서, 남, 북, 중의 5부로 나누어지고 그것은 다시 52방으로 구분되여있었다.
한양성건설에는 수많은 인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였는데 그들은 돌과 나무와 같은 자재는 물론 식량까지 자체로 부담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를 위험한 벼랑우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다.
그러기에 한양성을 쌓는 공사에 동원되였다가 성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간 사람이 얼마 안되였다고 한다.
한양성건설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웠는가 하는것은 당시의 한 효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말해준다.
한양(오늘의 서울)건설에 동원되였던 한 농민이 고역에 시달리다 못해 병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 경기도 광주의 판교원에서 앓아눕게 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딸 도리장은 남자옷차림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났다.
도리장은 서울로 올라가면서 길가에 앓아누운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만 같아 다 찾아보았다.
그러던중 판교원에 이르렀을 때 중태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였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향에서 천만뜻밖에 딸을 만난 아버지는 딸의 지극한 간호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였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한양에 도성축조도감이라는 기구까지 두고 인민들을 수도성과 궁전건설에 끌어내여 혹사하였다.

송광사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산에 있는 송광사는 우리 나라에서 이름난 큰 절간의 하나였다.
송광사는 삼국시기에 처음 세워졌다고 하며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리조초기에 고쳐세운것이다.
중심건물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웅진전, 설법전, 약사전, 화엄전, 령상전, 국사당 등과 조계문, 천왕문, 침계루 같은 60여채의 크고작은 건물들로 구성되여있는 송광사는 호남지방에서 제일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하였다.
정연하게 세운 밑단우에 앞면 3간, 옆면 3간으로 지은 대웅전은 이른 시기의 건물임을 보여주는 배부른 기둥에 바깥 7포, 안 9포의 포식두공을 얹은 건물이다.
앞면 가운데칸 량쪽기둥우에는 그런 구슬만 가지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는 《여의주》를 다루는 청룡과 황룡조각을 해올렸다.
합각지붕을 잇고 천정에는 화려한 소란반자를 댔으며 단청을 입혔다.

국사당은 앞면 4간, 옆면 3간의 배집이다.

두리기둥우에 2익공식두공을 얹고 천정에 소란반자를 댄 국사당은 고려시기 건축술의 모습이 짙게 깃들어있어 이 절의 오랜 력사를 알수 있게 한다.

절간 첫 어구에 세운 조계문은 2개의 기둥에 의지하여 큰 지붕을 이은 이른바 일주문이다.

이 문의 두공은 무려 9포나 되는데 그 조각솜씨가 훌륭하다.

절간구역을 흐르는 시내가에 세운 침계루와 륙감정은 강쪽으로는 2층으로, 뒤는 1층으로 만든 풍치좋은 루정이다.

절간 구역안에는 인공적으로 파놓은 련못과 거기에 놓은 무지개다리가 있다.

그리하여 못의 맑은 물우에 비낀 옛 건물들과 자연풍치는 동방식정원의 정서를 함뿍 안겨준다.

여러가지 형식의 건물들이 구색에 맞게 배치되여있는 송광사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민족건축유산이다.

정양사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에 있는 정양사는 표훈사뒤에 있는 방광대라는 산기슭에 위치하고있는 아담한 절간이다.

이 절을 정양사라고 하는것은 금강산에서도 가장 양지바른 곳에 지은 절간이라는데서 온것이다.

정양사는 600년전에 처음 세웠다고 전한다.

정양사에는 지금 남북중심축을 따라 돌등, 탑, 약사전, 반야보전 등이 차례로 놓여있다.

여기에 더 있던 령산전, 라한전, 헐성루 등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불타버렸다.

지금의 반야보전은 리조초기에 다시 세운 건물인데 앞면 3간, 옆면 3간으로 되여있다.

건물안에는 불단을 놓고 천정은 소란반자로 처리하였다.

약사전은 리조후기에 다시 세운 6각지붕으로 된 특이한 건물이다. 집안에 하나의 대들보도 건너대지 않고 지붕틀을 짜올린 솜씨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화려한 단청까지 입힌 천정은 마치 꽃밭을 방불케 한다.

정양사 3층탑은 신계사 3층탑, 장연사 3층탑과 함께 《금강산 세 옛탑》의 하나로 일러온다.

탑은 정양사와 함께 600년전에 세운것으로 전한다.

이 탑은 2단의 밑단을 갖춘 4각 3층탑이다.

탑앞의 6각형 돌등은 그 조각수법에서 돌탑과 같다.

정양사는 그 위치가 외져서 한때 《팔만대장경》판목의 일부를 보관하였던 일이 있다.

세계최초의 측우기

우리 선조들은 천문학에서 달성한 관측경험에 기초하여 기상학을 발전시켜 농업생산에 적극 리용해왔다.

1428년 3월에는 기상관측결과에 대한 년도별로 되는 일별기록을 책력과 똑같이 편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해양기상일지도 따로 기록하였다.

1441년 8월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측우기를 창안하였다. 이보다 앞서 리조봉건정부는 각 지방에 비가 온 후에 땅속에 스며든 비물의 깊이를 측정하여 보고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 토양의 질과 그 상태에 따라 비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깊이가 다르며 또 그 깊이를 측정하기도 곤난하다는것을 고려하여 1441년 8월에 서운관에서 높이 2자(약 40㎝), 직경 8치(약 16㎝)의 측우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물을 받아 강수량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측우기의 본을 따서 각 지방에서도 사기 혹은 질그릇으로 측우기를 만들어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강수량을 측정하여 중앙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세웠다.

그 다음해에는 강수량측정기구의 규격과 관측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측우기의 제작은 유럽에서 1639년 이딸리아사람인 베네데또 까스뗄리가 만든 측우기보다 근 200년 앞선것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측우기를 만든 1441년에 마전다리 서쪽에 물깊이를 재는 기둥을 세우고 한강가의 바위에 량수표를 새겨 강물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것도 측정하였다.

보통문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 천리마거리가 시작되는 곳에 서있는 보통문은 지금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성문들가운데서 제일 오랜것의 하나이다.

고구려 평양성 중성의 서문인 보통문은 고구려가 수도성을 쌓은 6세기 중엽에 처음 세웠으며 그후 여러차례 보수개건을 거듭하여왔는데 지금의것은 1473년에 고쳐세운것이다.

보통문에는 한때 《유양관》이란 딴이름이 있었다.

《보통문에서 손님 바래우는 광경》은 평양8경의 하나로 예로부터 이름이 높았다.

보통문은 전체로 보아 균형이 잡히고 장중하게 생겼다.

그 요소요소들에는 이전 시기의 건축술을 계승한 리조초기의 건축술이 깃들어있다.

보통문은 듬직한 화강석축대와 웅장한 2층문루로 이루어져있다.

축대복판에는 무지개문길을 냈는데 거기에는 쇠비늘이 붙은 널대문이 남아있다.

무지개문길의 테는 부채형으로 다듬은 성돌로 쌓았는데 성돌들은 서로 맞물려 고운 곡선을 그리면서 우의 돌들을 믿음직하게 받치고있다.

앞면 3간(14.8m), 옆면 3간(9.15m)으로 된 2층문루는 듬직한 배부른 기둥들에 떠받들려 하늘높이 처마를 펼치고있다.

보통문에는 기술이 뛰여난 두 목수에 대한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두 목수는 스승과 제자사이였다.

스승인 목수는 대동문을 맡고 제자인 목수는 보통문을 맡아 지었다.

문이 거의 완공되여갈무렵 스승은 자기 제자가 짓는 보통문을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제자가 지은 보통문이 대동문 못지 않게 잘된데 만족한 스승은 기뻐하며 제자를 도와 보통문을 완성하였다는것이다.

임진조국전쟁때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은 보통문으로 돌입하여 성안에 도사리고있던 왜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폭격으로 보통문에 불이 달렸을 때에도 평양시민들은 희생적으로 불을 끄고 이 문을 지켜냈다.

보통문은 우리 당의 옳바른 문화보존정책에 의하여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였으며 유구한 평양의 민족적정취를 한층 돋구고있다.

가학루

강원도 안변군 안변읍에 있는 가학루는 옛날 안변객사이던 학성관의 부속건물이다.

학성관은 당시 객사(량반, 관리들의 숙박소)들가운데서 규모도 크고 설비도 잘 갖추어졌던 대표적인 객사의 하나였다.

당시 객사들에는 이런 루정들이 세워져 놀이터, 연회장 등으로 리용되였다.

학성관에는 여러 건물들이 있었는데 여기 객사루정 가학루는 738년-742년에 처음 세우고 1486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지금은 가학루만이 남아있는데 중심건물인 정전과 그 결채들, 중문과 바깥문, 회랑 등은 일제강점자들이 허물어버렸다.

가학루는 정전의 동남쪽에 자리잡고있었다.

안변의 력사를 쓴 책을 《학성지》라고 하는것처럼 《학》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가학루란 이름도 학이 날아와 앉은것 같은 루정이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가학루는 나지막한 밀단우에 세운 높다란 2층루정이다.

루정은 앞면과 옆면이 다같이 3간으로 되여있는 겹처마합각집이다.

보통 이러한 루정에는 흔히 익공식두공을 쓰는데 여기 가학루에서는 특별히 포식두공을 썼다.

루정안은 통천정으로 되여있어 시원한감을 준다.

통군정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에 있는 통군정은 옛날 의주읍성의 북쪽 장대이다. 장대란 군사지휘처란 뜻인데 통군정이란 이름은 바로 군대를 통솔하는 루정이라는 말이다.

통군정은 의주읍성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삼각산에 자리잡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7(1918)년 11월 통군정에 오르시여 친히 《통군정의 노래》를 지으시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4(1975)년 3월 하순에 통군정을 찾으시고 주변 100리정보일대에 모두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꾸려 인민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5(1966)년 8월 하순 어느날 통군정을 찾으시고 관서8경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이곳은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하시였다.

통군정에 오르면 의주성의 옛 성벽이 바라보이며 아래로는 압록강 푸른물에 떠있는듯 한 여러 섬들이 굽어보인다.

서쪽 멀리로는 신의주, 룡암포일대의 풍경이 바라보이며 남쪽으로는《의주금강》으로 일러오는 석송산과 백마산일대의 크고작은 산봉우리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이렇듯 주위의 그림같은 풍경을 다 볼수 있는 통군정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일러왔다. 통군정은 고려전반기에 이미 세워져있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1538년에 고쳐세운것이다. 통군정은 앞면 4간, 옆면 4간으로 되여있으면서 그 평면이 거의 정방형으로 되여있는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앞쪽 절반에만 마루를 깔고 한단 높게 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올라서서 내려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인것 같다. 통군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주남문이 남아있다. 《장변루》, 《래훈루》라고 불리우던 의주남문은 장엄한 2층문루로서 외래침략자들을 막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통군정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리조시기 군대들이 훈련하던 《백일원》터가 있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의 술놀이터로 리용되여오던 통군정은 오늘 우리 인민의 유원지로 전변되였다.

개구리 울다 그쳤다는 부용당터

황해남도 해주시 부용동에는 지금 네모난 련못안에 4각기둥들이 주런히 서있는 유적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7(1948)년 8월 부용당을 찾으시고 잘 보존하여 후대들에게 계급교양을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것이 옛날 봉건관료배들의 놀이터로 리용되던 부용당터이다.

여기의 련못은 고려말기에 해주읍성을 쌓으면서 유사시에 쓰기 위한 물저장용으로 파놓은것이다.

이 련못에 멋있는 루정이 있었다.

처음에는 련못 북쪽 언덕가에 루정 한채가 있었는데 그것이 련꽃(부용)같은 루정이라는 뜻에서 그것을 부용당이라 불렀다.

1526년 련못가운데 돌기둥을 세우고 새 루정을 하나 짓고 련못가의 루정과 다리로 련결시켰다.

그리하여 그 루정을 하나의 루정으로 취급하면서 합하여 부용당이라 불러왔다.

못가와 못안의 루정이 하나로 련결되여 아름다운 자태를 물그림자로 비치던 부용당은 《련당청우》(련못루정에서 비오는 소리를 듣는것을 즐기는 일)라 하여 해서8경의 하나로 일러왔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불타버리고 지금은 돌기둥만 남아있다.

부용당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있다.

부용당 련못에는 수많은 개구리가 모여들어 밤새껏 울어대군 하였는데 그 소리는 봉건통치배들의 잠을 방해하였다.

통치배들은 인민들에게 련못에 밤새껏 돌을 던져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하라고 강요하였다.

이것은 인민들에게 있어서 큰 부담과 고통이 아닐수 없었다.

이때 이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사정을 알고 련못가에 다가서서 물속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창 울어대는 개구리를 향해 글을 써서 던졌다.

글의 내용인즉 《너희들이 비록 미물이라 하나 어찌 한창 농사일에 바쁜 백성들의 고단잠을 방해하여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댄단 말인가. 썩 울음을 그치여라.》라는 것이였는데 그날 밤부터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그쳤다고 한다.

자혜사

황해남도 신천군 서원리 절골에 있는 자혜사는 고려초에 처음 세우고 1572년에 다시 지은 절간이다.

지금 자혜사에는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돌탑, 돌등과 승방이 남아있는데 대웅전과 돌탑, 돌등은 남북중심축상에 놓이고 그 동쪽에 승방이 놓여있다.

다박솔이 뒤덮이고 봄이면 진달래 붉게 피는 이 아늑한 골짜기에 옛 자태를 뚜렷이 자랑하며 서있는 자혜사의 대웅전은 앞면 3간, 옆면 4간의 정방형건물로서 나지막한 두단짜리 밑단우에 서있다.

이 건물에서는 주추돌을 밑단우에 드러나보이게 놓고 또 그우에 북처럼 생긴 주추돌을 올려놓아 든든하게 하였다.

배부른 기둥을 세우고 익공식두공을 올렸으며 두공과 건물안 마루도리를 받친 화반대공 등을 소박하게 조각한 대웅전은 고려풍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보통 리조시기 대웅전과는 달리 지붕을 합각으로 하지 않고 단정한 배집지붕형식으로 하였다.

건물에는 금단청(비단무늬단청)을 입혀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건물안에는 불단과 닫집을 설치하고 부처들을 놓았는데 고려시기의 조형예술적 기교를 잘 보여준다.

자혜사에는 돌탑과 돌등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고려시기에 만든것이다.

탑의 높이는 5.94m이다.

자혜사는 우리 선조들의 세련된 건축술과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상원암

묘향산 보현사에 속해있는 암자인 상원암은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지구의 상원골에 있다.

태고연한 수림속에 천년 이끼오른 바위들이 키돋움하고 금강폭포, 대하폭포, 산주폭포와 룡연폭포 등이 한눈에 안겨오는 상원골의 경치는 향산에서도 으뜸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에서 자랑할만 한 명승지인 묘향산에서 상원암일대가 제일 경치좋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묘향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원암의 경치를 구경하고 돌아가게 해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지닐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상원암으로 오르는 가장 좋은 등산로정을 확정하여주시고 그 등산길을 훌륭히 만들어놓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상원암 등산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면 기묘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솟아있고 산새들의 은방울굴리는 소리, 조약돌을 굴리는 계곡의 물소리가 아름다와 어느새 황홀경에 빠진다.

인호대 맞은편 그윽한 자연풍치속에 의젓이 앉아있는 상원암은 고려시기에 처음 지은것인데 지금의 건물은 1580년에 고쳐세운것이다. 상원암은 본전과 칠성각, 불유각, 산신각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전은 앞면 5간, 옆면 2간의 건물이다.

《상원암》이라고 쓴 현판의 글씨는 19세기 명필이던 김정희(호 추사)가 썼다고 한다.

칠성각은 본전의 동쪽에 있다.

이 아담한 합각집의 네 기둥은 한대의 나무로 토막내여 세웠다는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그리하여 이 네 기둥의 굵기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점차 가늘어졌다.

불유각에는 맑은 샘물이 흘러나온다.

불유각이란 이 샘물이 부처의것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칠성각 동쪽으로 돌아가면 룡각석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룡의 뿔같이 생겼다는 룡각석우에 서있는 두그루의 소나무가 매우 인상적이다.

안변보현사

평안북도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강원도 안변군 령신리에 있는 보현사를 안변보현사라고 부른다.

안변보현사는 737년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다시 지은 절간이다.

초기에는 10여채의 건물들이 떼지어있었는데 이 절간은 지은 후 세번이나 불탔다고 한다.

지금은 보광전, 응진전, 정화실, 극락전, 명부전, 일주문, 산신각 등이 남아있다.

보광전은 이 절의 중심건물인데 16세기에 다시 지은것이다.

보광전은 높은 밑단우에 세웠는데 거기에 오르내리는 돌층계좌우에 새겨 세운 돌사자들이 용맹스럽게 형상되였다.

보광전은 앞면 3간, 옆면 2간으로 되였다.
네 모서리의 기둥들을 가운데 기둥들에 비하여 통이 굵고도 높게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게 세웠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건물을 견고하게 꾸미면서도 눈의 착각을 바로잡아 건축미를 능숙하게 살려냈다는것을 보여준다.
안변보현사의 건물들은 모두 아름답고 특색있게 지어졌는데 그가운데서도 일주문의 구조가 매우 특이하다고 할수 있다.
안변보현사에 들어서는 첫 문인 일주문은 리조초기의 양식을 보여준다.
문은 2개의 기둥에 의지하여 커다란 겹처마합각지붕을 이은 특수한 건물이다.
기둥은 크고 긴 주추돌우에 나무기둥을 이어 세운 형식이다.
안변보현사앞에는 이 절간을 처음 지을 때 놓았다는 무지개다리가 남아있다.

귀진사

황해북도 서흥군 송월리의 숭덕산 중턱에 놓인 귀진사에는 력사가 오랜 불경의 판목들이 많이 보관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었다.
그가운데서 《룡감수경》은 997년에 간행된 불교사전이였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을 일제침략자들이 략탈하여갔다.
귀진사는 12세기 중엽에 처음 세운 절이며 지금의 건물들은 16세기에 다시 지은것이다.
지금 귀진사에는 남북중심축을 따라 북쪽에 중심건물인 극락전이, 남쪽에 주악루가 남아있고 중심축 서쪽에 심검당이 놓였다.
본래 여기에는 동선당과 서승당, 향로전, 칠성각, 관음대와 같은 건물들과 7층탑이 더 있었는데 오래전에 없어졌다.
극락전은 높이가 2m가 되는 밑단우에 세운 웅장한 합각집이다.
앞면 3간, 옆면 3간으로 된 이 건물은 전반적으로 큰 부재들을 써서 보기에도 듬직해보인다.
극락전에는 련꽃, 국화, 모란꽃 등을 새긴 문짝들을 달았는데 리조초기의 꽃무늬조각술이 계승된것이다.
건물안에는 높직하게 소란반자를 대고 여기저기에 룡대가리, 봉황새조각을 해올렸는데 그 솜씨가 대단하다.
극락전에 그린 단청무늬와 여러가지 단청그림들은 당시 회화술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한다.
앞면 5간, 옆면 3간의 주악루는 루정형식의 문루인데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축에 속한다.
지붕의 형식은 배집이다.
귀진사는 리조시기 건축술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통도사

경상북도 량산군에 있는 통도사는 400여간이나 되는 조선남해바다가에서 이름난 큰 절간이다.
643년에 처음 세운 절인데 임진조국전쟁때 거의다 불타버렸다.
지금은 1601년에 고쳐세운 대웅전을 비롯하여 약사전, 관음전, 응진전, 극락전, 령산전 등 40여채의 크고작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큰절의 모습을 갖추고있다.

특히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앞면 5간, 옆면 3간에 겹처마합각지붕을 이은 웅장한 건물이다.

밑단앞면에는 6단짜리 돌층계가 있어 오르내리게 되여있다.

대웅전은 꽃뚫음무늬로 된 문짝들과 가장 화려한 금단청(비단무늬단청)으로 하여 제일 훌륭하다.

통도사에는 종심을 따라 들어가면서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등이 겹쳐있는데 2개의 기둥에 의지하여 9포의 커다란 지붕을 씌운 일주문의 건축술은 참으로 볼만 하다.

통도사의 건축구성의 다양성, 시공의 치밀성, 조립의 정확성, 섬세한 조각술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을 잘 보여준다.

촉석루

경상북도 진주시 남문부근에 있는 촉석루는 진주읍성의 장대터(군사지휘처)였다.

장대터는 앞을 바라보는 경치가 훌륭하기때문에 평상시에는 흔히 봉건통치배들이나 부자놈들의 술놀이터로도 리용되였다.

진주읍성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군민들이 일본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준 유명한 곳이고 촉석루는 애국녀성 론개의 희생적장거가 있는것으로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전하여지고있는 이름난 고장이다.

1593년 여름 어느날 애국녀성 론개는 왜놈우두머리들을 꾀여서 촉석루에서 술에 만취시켰다.

그리고 왜놈우두머리와 춤을 추다가 그놈을 그러잡고 남강물속에 몸을 던져 자신도 함께 희생되였다.

지금도 촉석루에서 강가로 통하는 길목에는 론개를 기념하는 사당이 서있다.

촉석루는 바위돌들이 나무숲처럼 우뚝우뚝 솟아있는 강가 낭떠러지 바위우에 솟아있다.

그리하여 촉석루라는 이름도 붙게 되였다.

처마를 길게 내뽑고 낭떠러지우에 서서 남강물결우에 거꾸로 그림자를 비끼고 서있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정서를 자아낸다.

촉석루를 처음 세운것은 고려시기인데 지금의 건물은 1618년에 다시 세운것이다.

촉석루는 우리 나라 루정가운데서 그 규모가 크고 건축구성이 잘된 대표적인 루정이다.

촉석루는 강가의 비탈진 곳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앞에서는 2층, 뒤에서는 1층으로 되게 세웠다.

루정은 앞면 5간, 옆면 4간으로 하고 안은 통칸으로 시원하게 틔워놓았다.

마루는 앞기둥의 중간쯤에 걸려있으며 둘레에는 간소하게 장식된 란간이 둘러있다.

기둥은 이 시기 흔히 쓰던 흘림기둥 즉 자름면이 둥근 2개 기둥인데 뒤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츰 굵어진 기둥을 썼으며 그우에다 익공식두공을 올렸다.

여기 두공은 익공식두공으로서는 비교적 복잡한 3익공식이다.

룡흥사

함경남도 영광군 봉흥리 백운산에 있는 룡흥사는 력사가 오랜 절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7(2008)년 5월 24일 룡흥사를 찾으시고 원상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룡흥사를 처음 세운것은 고려초기인 1048년이며 지금의 건물은 1794년에 고쳐 세운것이다.

이 절은 처음 세웠을 때는 그 이름을 성불사라고 하였다.
룡흥사가 자리잡은 산의 이름을 백운산이라고 하는것은 산이 높아 산마루에 언제나 흰구름이 끼여있기때문이라고 한다.
백흥산에는 백운산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만장폭포를 비롯한 명소들이 많다.
룡흥사에는 중심건물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무량수각, 운하루, 향로전, 산신당 등 건물이 있다.
대웅전은 앞면 3간, 옆면 3간의 건물로서 푸른 기운이 도는 은은한 단청을 입혀 옛풍을 돋구고있다.
대웅전안에는 불단과 15포짜리 화려한 닫집이 설치되여있다.
무량수각은 앞면 6간, 옆면 4간의 큰 합각집인데 여기에는 5백라한을 놓았었다.
운하루는 화려한 다락건물이며 향로전은 아담한 합각집이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절간인 불지암이 있다.

법주사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에는 오래된 5층나무탑이 남아있어 그 이름이 높다. 법주사는 553년에 처음 지었다고 전한다.
여기에는 아직 대웅전, 팔상전, 천왕문을 비롯한 여러채의 건축물들과 신라때의 돌구조물들이 남아있다. 법주사의 팔상전은 1624년에 다시 지은것으로서 규모가 크고 희귀한 나무탑이다.
나무탑인 팔상전은 밑단부분과 탑몸부분, 탑머리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탑의 높이는 약 27m이다.
밑단을 잘 다듬은 화강석으로 쌓고 매면가운데에 돌계단을 놓고 오르내리게 하였다. 탑몸은 5층으로 쌓으면서 반칸씩 줄여올라갔다.
맨 밑층은 앞면 5간, 옆면 5간으로 하였는데 4층은 량쪽끝칸을 반칸씩 줄여 4간크기로 하였으며 3층은 3간크기로, 2층은 4층처럼 량쪽 끝칸을 반칸씩 줄여 2간크기로, 5층은 1간 크기로 하였다.
탑몸에서 두공도 층에 따라 변화를 주어 건축미를 돋구었다.
1층에서는 2익공식으로, 2, 3, 4층에서는 3익공식으로, 5층에서는 7포식으로 짜올려 지붕처마의 차례줄임과 균형을 맞추었다.
탑몸에는 화려한 단청을 입혔다.
탑머리에는 로반과 앙화, 보륜, 보개 등으로 이루어진 찰간형탑머리를 얹었다.
팔상전주위에는 4개의 돌등이 있다.
팔상전앞에는 석련지(돌로 만든 련꽃모양의 못)가 있는데 활짝 핀 련꽃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조각하여 올라간 모습이 참으로 훌륭하다.

대동문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성문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동문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력사유적이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대동문은 고구려때 수도였던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6세기 중엽에 처음으로 세워진 후 여러차례 보수개건되였다.
현재의것은 1635년에 고쳐세운것이다.
대동문에는《읍호루》라는 딴이름도 붙어있는데 그것은 대동문에서 허리를 굽혀 대동강의 맑은 물을 떠올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밖의 덕바위아래쪽에는 고구려때부터 리조말기까지 쓰던 나루터가 있다.

대동문 건너편을《선교》라고 부르게 된것은 이곳에 배다리가 놓여있었기때문이라고 한다.

대동문은 화강석축대와 2층문루로 이루어졌다.

축대의 복판에는 무지개문길을 냈으며 문루는 앞면 3간, 옆면 3간으로 되여있다.

대동문에는 여러가지 무늬와 색갈들을 배합한 은근한 단청을 입혔다.

고려의 건축술을 이어받은 리조전반기 건축의 대표적건축물이다.

대동문은 평양성방위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1592년에 벌어진 임진조국전쟁때 우리 군사들은 대동문을 드나들면서 배를 타고 강건너편에 있는 왜적들을 족치군 하였다고 한다.

대동문은 오늘 평양의 유구한 력사를 말해주는듯 옛모습그대로 보존되여 이곳을 찾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준다.

량천사

함경남도 고원군 락천리 산기슭에 있는 량천사는 구조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벽화가 있어 이름난 절간이다.

량천사는 753년 처음 세워진이래 시대를 내려오며 계속 운영되였다.

량천사에는 대웅전과 만세루, 극락전 등이 남아있다.

대웅전은 1636년에 다시 지은 건물인데 앞면 3간, 옆면 3간으로 되여있다.

우리 나라 절간의 대웅전들을 보면 웅장한것이 특징인데 량천사 대웅전은 웅장하면서도 아담해보인다.

대웅전의 단청은 금단천(비단무늬단천)을 입혀 말그대로 꽃비단과 같이 아름답다.

특히 큰 소나무밑에서 젊은 남자가 악기를 타는 장면, 산천을 구경하는 장면, 부처와 룡,봉황새와 보상화, 련꽃, 학, 범그림들과 퉁소, 가야금을 비롯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장면은 매우 실감있게 그려졌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량천사 대웅전은 하나의 《미술전당》이라고 하였다.

만세루는 1729년에 세운 2층다락집이다.

앞면 5간, 옆면 3간으로 크게 지은 만세루에도 금단청을 입히고 룡과, 범, 사자, 사슴 등 동물들과 보상화, 매화, 련꽃 등 꽃들이 가득 그려져있다.

만세루의 단청은 대웅전의것보다 좀 늦게 그려진것이다.

그것은 대웅전에 그려진 룡의 발가락수는 4개인데 만세루에 그린 룡의 발가락수는 5개로 되여있는데서도 뚜렷이 표현된다.

량천사의 단청은 17세기 이후 우리 나라 절간의 단청미술을 대표하는것으로서 당시의 회화수준의 발전상과 함께 중들의 내부생활, 생활풍속 같은것도 엿볼수 있게 한다.

화엄사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서쪽기슭에 있는 화엄사는 규모가 크고 특이한 구조물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이름난 절간이다.

화엄사는 544년에 처음 세웠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오랜 돌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절간의 건물들은 리조시기에 다시 세운것이다.

화엄사에는 대웅전과 각황전, 명부전, 응향각, 일주문 등 10여채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다.

각황전은 1643년에 다시 지은 웅장한 고층건물인데 그 규모가 현재로서는 서울 경복궁의 근정전 다음가는 큰 건물이다.

각황전을 장륙전이라고도 부른다.

요란하게 쌓은 축대우에 지은 각황전은 앞면 7간의 2층합각집이다.

각황전의 축대는 대웅전과 련결되여 절의 웅장성을 돋구어준다.

대웅전은 앞면 5간의 합각집이다.

일주문은 두 기둥에 의지하여 큰 합각지붕을 이은 정교한 문인데 7포로 된 포식두공으로 되여있다.

문에는 《지리산화엄사》란 현판이 걸려있다.

화엄사에 남아있는 사자탑은 후기신라사자탑가운데서도 우수한 작품에 속한다.

2개의 층으로 된 밑단가운데서 웃단은 네마리의 돌사자로 이루어져있다.

탑은 3층탑인데 탑몸 첫층에는 《문》과 부처들이 돋우새겨져있다.

탑머리에는 로반과 복발, 보주 같은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화엄사 사자탑앞에는 돌상이 놓여있는데 이 돌상도 네마리의 돌사자에 의해 떠받들려있다.

각황전앞의 돌등 높이가 약 6.36m로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돌등가운데의 하나이다.

화엄사에는 이밖에 2개의 5층돌탑이 남아있는데 그중 하나는 8세기 중엽경에 세워진것이다.

이 절간의 원통전앞에 있는 부도에도 돌사자조각이 있다.

화엄사의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돌사자조각들은 그 우수한 조각술로 하여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낸다.

관음사

고려의 수도성이였던 개경성의 위성으로 이름높은 대흥산성안에 있는 관음사는 그 일대의 화려한 경치와 높은 건축술로 하여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37m의 높이에서 맑은 물을 흩날리는 박연폭포는 유명한 명승지여서 예로부터 《개성금강》이라 불리운다.

박연폭포 그자체는 대흥산성의 북쪽 수구문이기도 하다.

박연폭포곁에는 대흥산성의 북문도 보존되여있다.

관음사는 970년에 처음 세운 절간인데 지금의 건물은 1646년에 고쳐세운것이다.

지금 대웅전과 승방, 관음굴과 7층탑이 남아있다.

높은 밑단우에 세운 대웅전은 앞면 3간 우진각집이다.

절간에 우진각지붕을 이은 경우는 매우 드문데 여기서는 룡마루를 짧게 하면서 사방으로 추녀를 늘여 거의 방형평면의 몸체를 넓은 지붕으로 덮게 하였다.

대웅전안에는 부처들을 놓고 17포나 되게 섬세하게 짠 화려한 닫집을 놓았다.

대웅전에는 채 완성하지 못한 하나의 문짝에 대한 전설이 깃들어있다.

이 절 건설에 조각에 능한 운나라는 소년이 동원되고있었다.

그가 한 문짝을 조각하고있었는데 한짝은 완성하고 다른 한짝은 한창 조각중에 있었다.

어느날 이 소년은 어머니의 병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통채배들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던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받게 되였다.

소년은 억울함과 슬픔을 참지 못하여 스스로 자기의 한손을 잘라버리고 절간을

뛰쳐나와 농민폭동군에 참가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그 문짝은 끝내 완성되지 못하였다는것이다.

관음굴에는 젖색대리석으로 만든 2개의 관음보살상이 보존되여있었다.

우수한 조각술을 보여주는 이 조각상가운데서 하나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여있다.

대웅전앞 서쪽에 있는 7층탑은 고려시기의것이다.

옛 건물의 특징을 갖추고있는 관음사는 오늘 귀중한 건축유산으로 잘 보관관리되고있다.

련광정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대동강가 덕바위우에 높이 서있는 련광정은 우리 나라 루정건축을 대표할만 한 걸작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6세기에 일시 평양성에 기여들어온 일제침략군 우두머리놈이 련광정이 걸려있는 현판에서 《천하》라는 글을 없애버린것을 인민들이 아쉬워한다는것을 아시고《천하》라는 글을 다시 현판에 써넣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련광정에는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이 걸려있게 되였다.

련광정은 6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수도 평양성을 쌓으면서 그 내성의 동쪽 장대로 처음 세운것인데 1111년 고려가 서경건설을 하면서 여기에 루정을 다시 세우고 그 이름을 《산수정》이라 하였다.

그후 이 루정의 이름을 련광정이라 고쳐부르게 되였다.

련광정의 지금 건물은 1670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련광정이란 이름은 전망경치가 아주 좋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곳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꼽히였다.

련광정에는 경치가 하도 좋다고 하여 《천하제일강산》이란 현판이 걸려있으며 《제일루대》, 《만화루》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였다.

련광정은 2층으로 된 2개의 장방형루정이 ㄱ자형으로 서로 맞붙은것처럼 생겼다.

루정의 남쪽채는 앞면 3간, 옆면 34간이고 북쪽채는 앞면 2간,옆면 4간인데 각각 2간이 서로 이어져 통하게 되여있다.

두채의 루정은 이어져있으면서도 기둥과 두공마루구조 등이 조금씩 다르게 되여있으며 지붕도 2개의 합각지붕이 교차된 형식으로 되여있다.

루정으로는 남쪽에 낸 10단짜리 긴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여있으며 루정의 바닥둘레에는 기둥이 닭의 다리모양으로 생긴 계자각란간을 돌렸다.

련광정에서 대동강쪽으로는 성벽을 쌓고 그우에 성가퀴를 세워 전투지휘에 편리하게 하였다.

루정에는 전반적으로 단청(장식무늬와 그림)을 입혔는데 굵직한 대들보 같은데는 비단무늬까지 놓아 루정을 매우 화려하게 꾸몄다.

련광정에는 임진조국전쟁때 김응서장군이 애국녀성 계월향과 합심하여 당시 왜적의 우두머리의 목을 베였다는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보덕암

보덕암은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내금강 만폭동골안에 있다.

하나의 구리기둥에 의지하여 산중턱 벼랑에 한칸으로 지은 독특한 형식의 절간이다.

보덕암은 표훈사에 속한 암자인데 고구려때 처음 세웠다고 전하며 지금의 건물

은 1675년에 고쳐 지은것이다.

그리고 지금 건물이 의지하고있는 높이 7.3m의 구리기둥과 건물을 바위에 붙잡아 맨 쇠줄은 1511년에 설치한것이다.

높이가 20m 넘는 아슬아슬한 벼랑중턱에 매여달린듯 한 보덕암을 보고 고려의 시인 리제현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서늘한 바람은 바위돌사이로 불어오고
골짜기의 물은 푸르다 못하여 쪽빛이 나누나
작대기에 기대여 낭떠러지우를 바라보니
나는것 같은 추녀끝이 구름과 나무우에 솟았구나

보덕암은 원래 본채와 판도방의 두채의 건물로 이루어져있었다.

본채는 길이 3.35m, 너비 0.85m의 마루바닥 집인데 단칸이면서도 지붕을 세겹으로 이었다.

맨 아래에는 겹처마의 합각지붕을 얹고 그우에는 박공이 앞으로 난 배집지붕을 올린 다음 맨우에 우진각지붕을 이어댔다.

보덕암의 본채는 그뒤의 보덕굴과 련결되여있다.

보덕굴은 깊이 5.3m, 너비 1.6m, 높이 2m의 자연굴이다.

보덕암의 판도방과 15층 탑은 본채우에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

금강산에는 보덕각시와 관련한 여러가지 전설이 전하여지는데 그 가운데 한가지가 마음씨 착하고 가난한 집 딸 보덕각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하여 보덕굴이라 한다는것이다.

보덕굴 벼랑아래 만폭동개울가에는 보덕각시가 머리를 감았다는 세두분이라는 샘구멍이 있고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보덕각시가 세수를 하고 수건을 걸었다는 수건바위가 있다.

벼랑중턱에 기묘한 건축술로 세워지고 흥미있는 전설이 깃들어있는 보덕암은 금강산의 경개를 더욱 빛내여주고있다.

정광사

함경남도 리원군 원사리에 있는 정광사는 리조중기의 절간건축술을 보여주는 유산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6(2007)년 9월 12일 정광사를 찾으시고 선조들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을 잘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정광사는 고려이전에 처음 세워진 절인데 지금의 건물들은 1679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정광사는 본래 10여채의 건물로 이루어져있었는데 지금은 대웅전과 명부전, 무량수각이 남아있다. 이 절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높은 밑단우에 세운 앞면 5간, 옆면 3간의 합각집이다. 대웅전안에는 높은 불단을 놓고 조각이 잘된 부처들을 올려놓았다. 명부전은 앞면 3간, 옆면 2간의 배집이다.

무량수각은 온돌방으로 이루어졌다.

인풍루

인풍루는 자강도 강계시에 있는 리조시기의 루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8(1949)년 10월과 그후 여러차례 이곳을 찾으시여 관서8경의 하나인 인풍루를 잘 보존하며 그 주변을 잘 꾸려 인민들의 휴

룡한 문화휴식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관서８경의 하나로 꼽히고있는 인풍루는 강계읍성의 서북쪽장대（군사지휘처）로서 이 읍성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인풍루에서 바라보이는 강건너편에는 독산이 솟아있다. 이 독산은 본래 자강도 위원땅에 있었는데 강계남산의 아름다움에 끌리워 하루밤사이에 달려오다가 장자강의 거센 흐름에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인풍루를 처음 세운것은 1472년이며 1680년에 다시 세운 일이 있다. 인풍루는 유사시 군사지휘처의 장대이면서도 군사훈련과 열병식도 하던 장소이다. 인풍루를 비롯한 강계읍성의 여러곳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은 강계포수로서 싸움 잘하는것으로 이름 높았다. 1866년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침략군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용맹을 떨친 《관서포수》들의 핵심은 바로 강계포수들이였다.

인풍루는 서쪽면은 5, 남쪽면은 3의 장방형의 루정이다. 동쪽면은 한 칸을 덜어 4간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전망을 트이게 하려는데서부터였다.

인풍루는 강가 바위우의 자연비탈면을 잘 리용하여 벼랑쪽에서는 2으로 보이게 하고 그 반대쪽에서는 단층으로 하여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하였다.

인풍루에서는 부재를 구조적요구보다 실한것을 썼기때문에 방대한 지붕을 떠받들고있어도 안정한 느낌을 준다. 특히 부재들 서로의 맞물림과 자연풍경에 잘 어울리는 단청 등은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지혜와 예술적재능을 잘 보여준다.

인풍루와 그 주변은 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져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군자루

함경남도 금야군 금야읍에 있는 군자루는 본래 여기 객사앞마당에 세웠던 루정이다.

통치배들이나 사신들의 숙소로 쓰던 당시 객사들에는 이러한 루정들이 있어 그들의 놀이터로 리용되였다.

군자루는 우리 나라 객사루정의 일반적모습을 보여준다.

군자루는 지금 금야읍을 한눈에 안아볼수 있는 청룡봉에 자리잡고있다.

군자루를 처음 세운 년대는 밝혀지지 않고있으나 지금의 건물은 1687년에 고쳐지은것이다.

군자루는 앞면 3간, 옆면 3간의 2층다락건물이다.

2층은 1층과 달리 가운데 기둥을 세우지 않아 시원한감을 주고있다.

합각지붕을 씌우고 시원하게 꾸민 천정에는 모두 단청을 입혔다.

훈련정

평안남도 평원군 평원읍 미두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훈련정은 리조시기 군사용루정가운데서 비교적 큰 축에 속한다.

본래 여기에는 여러 건물들이 남아있었으나 오래전에 없어지고 지금은 이 루정과 비석만 남아있다.

리조시기 평원에는 군사행정단위인 진을 두었다. 훈련정은 바로 이 시기 지방군인들을 훈련도 시키고 사열도 하던 루정이다.

지금도 여기에는 활쏘기련습을 하던 장소들이 보존되여있다.

훈련정의 지금 건물은 1630년에 세운것이다. 훈련정은 앞면 5간,옆면 4간의 큰 루정이다.

건물안의 기둥들은 겹기둥체계로 하여 두줄로 사방에 돌려세웠는데 남쪽과 동쪽의 바깥기둥만은 높이 1m정도의 돌기둥우에 나무기둥을 이은 형식으로 하였다.

단군과 동명왕을 제사지내던 숭령전

평양시 중구역의 평양학생소년궁전옆에는 두채의 건물이 나란히 서있는데 그 동쪽의것이 숭령전이다.

얼핏보면 두채의 건물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서쪽의 숭인전은 고려때것이고 동쪽의 숭령전은 리조때것이여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두 건물의 나이차이는 약 400년이나 된다.

숭령전을 처음 세운것은 1429년이나 지금 건물은 1714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숭령전은 단군과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을 함께 제사지내던 사당이다.

《단군》의 사당에서 동명왕의 제사를 같이 지내게 된것은 15세기초부터이다.

본래는 《단군사》, 《단군전》이라 불러오던것이 1725년 단군과 동명왕을 제사지내게 되면서부터 숭령전이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전한다.

숭령전은 본래 행랑 등 여러채로 이루어져있었으나 지금은 본채와 대문채만 남아있다.

숭령전의 본채는 정면 4간, 옆면 3간으로 된 큰 집이다.

본래 우리 나라 옛 건물에서는 보통 건물의 정면간수를 홀수로 하고 짝수로 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본채의 정면간수를 짝수로 한것은 한 건물안에 단군과 동명왕을 함께 제사지내게 된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여기 동쪽 2간에는 동명왕제단을 놓고 서쪽 2간에는 단군제단을 놓고 제사를 지냈던것이다.

칠성문

칠성문은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북문이다.

칠성문이란 이름은 북두칠성에서 딴 이름으로 북쪽에 있는 문이란 뜻에서 붙은것이다.

칠성문은 6세기 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처음 세워졌는데 지금의 문루는 1712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칠성문은 평양성의 북쪽성벽이 만수대등성이로 뻗어내려간 유리한 곳에 자리잡아 방어하기에 편리한 성문이다.

게다가 칠성문은 묘한 구조로 하여 그 방어력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여있다.

칠성문구조에서 특이한 점의 하나는 량쪽 성벽을 10m쯤 어기여 쌓고 그사이에 성문을 모로 배치하였으며 밖으로 내민 성벽을 좀 더 돌출시키면서 그것을 옹성으로 삼은것이다.

칠성문구조에서 특이한 점의 다른 하나는 무지개문길안과 그앞에 급한 비탈길을 내여 오르내리기 힘들게 함으로써 성으로 올라오는 적들을 타격하기 좋게 만든것이다.

성문의 축대는 따로 쌓지 않고 어기여 쌓아진 량쪽 성벽사이에 무지개문길을 내는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오래된 성문에서 흔히 보는 형식이다.

둥글게 내민 옹성우에는 성가퀴를 쌓았으며 옹성밑부분에는 보강뚝을 만들어놓았다.

우에는 앞면 3간, 옆면 2간의 홑처마합각지붕을 이은 간소한 문루를 세웠다.

1010년 수십만의 대병력으로 우리 나라에 침입한 거란침략군은 칠성문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임진조국전쟁때인 1593년 1월 평양성탈환전투에 떨쳐나선 우리의 의병들과 관군들은 맨 먼저 칠성문으로 돌입하여 경상골과 련광정에 도사리고있던 왜적 1만여명을 족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구천각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있는 구천각은 옛날 함흥성의 북장대였다.

이 루정을 한때 북상루라고 불렀던 일이 있다.

구천각이 자리잡은 함흥 동흥산에는 함흥성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다.

이 함흥성은 북방으로부터 침입해오는 적을 막기 위하여 1108년에 쌓은것이다.

구천각은 함흥성 장대의 하나로서 그때 처음 세워졌을것이다.

지금의 구천각은 1713년에 고쳐세운 건물인데 높은 축대와 그우에 세운 루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구천각의 축대높이는 6.5m나 된다.

축대우에는 성가퀴들이 있는데 옛날 여기에는 여러가지 무기가 갖추어져있었다고 한다.

계단은 축대속으로 나있고 그 입구는 무지개형으로 생겼으며 계단수는 21단이다.

축대우에 세운 루정의 평면도 역시 방형이며 앞면과 옆면을 다같이 3간으로 하고 서까래우에 부연을 댄 겹처마의 사각지붕을 이었다.

루정의 기둥은 높은 산마루에서도 비바람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밑부분은 돌로, 웃부분은 나무로 되여있다.

천정에는 소란반자를 댔으며 건물전반에는 소박한 모루단청을 입혀 주위와 어울리게 하였다.

현무문

평양 모란봉의 을밀대와 최승대사이에 있는 현무문은 고구려시기의 독특한 성문형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다.

문에 현무라는 이름이 붙여진것은 북쪽문이라는 뜻이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이 보여주는것처럼 북쪽벽에는 언제나 현무(거부기와 뱀이 엉켜있는 그림)가 그려져있다.

옛날사람들은 방위신인 사신(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운데서 현무는 북쪽을 지키는 신으로 여겼다.

현무문은 고구려의 수도성인 평양성의 북성을 쌓으면서 그 북쪽성문으로 세워진것이다.

현무문을 처음 세운것은 6세기 중엽이고 지금 남아있는 문루는 1714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성문의 축대부분도 약간 수축은 하였으나 그전체 모습에서는 고구려의 풍을 엿볼수 있다.

그것은 성문의 평면이 서로 어기게 쌓은 량쪽사이에 모로 놓이고 바깥쪽 성벽을 성문앞으로 내밀어 옹성을 대신케 한것이다.

물론 성돌도 고구려식대로 4각추형으로 다듬어쌓았다.

그러므로 이런 성문에서는 축대를 따로 쌓지 않았다.

성문을 이렇게 배치하면 성문을 나드는 아군의 은밀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들이 쳐들어오려면 좁은 통로로 구불구불 에돌아야 하기때문에 아군이 타격하기 좋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있다.

정면 3간, 옆면 1간으로 된 문루는 간소하지만 은은한 단청으로 하여 주변의 경치와 잘 어울린다.

을밀대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마루에 자리잡고있는 을밀대는 우리 나라 옛 루정을 대표하는 유적의 하나로서 6세기 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으면서 그 내성의 북장대로 처음 지은 루정이다.

을밀대는 그후 고려, 리조로 내려오면서 계속 장대로 쓰이였는데 지금의 건물은 리조시기인 1714년에 고쳐지은것이다.

이 장대의 이름(을밀)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들이 전한다.

아득히 먼 옛날 하늘에 《을밀》이라는 선녀가 있었는데 그가 이곳의 경치에 반하여 자주 내려와 놀았기때문에 그 이름을 땄다고도 하고 고구려때 이 장대를 굳게 지켜 싸운 장군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을밀》이였기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였다고도 한다.

평양의 훌륭한 경치들가운데서도 특히 뛰여난 《을밀상춘(을밀대의 봄맞이)》이라 하여 평양8경중의 하나로 꼽아왔다.

을밀대의 구조상특징은 높이가 11m나 되는 높은 축대우에 하늘높이 시원하게 나래를 펼치고 거연히 서있는것이다.

산탁에 깊이 뿌리박고 가파롭게 솟아있는 축대!

이것은 그 어떤 강적과도 맞서 싸워이길수 있다는 우리 인민의 기상을 보여주는 듯싶다.

그 밑부분은 고구려때 쌓은 큰 돌들이 그대로 보존되여있어 을밀대의 오랜 력사를 전해주고있다.

축대우에는 축대와 대조되게 경쾌한 루정이 서있다.

돌기둥우에 나무기둥을 이어세워 사방을 트이게 한 이 루정을 《사허정》이라고도 불렀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올라서서 사방의 훌륭한 경치를 다 시원하게 바라볼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겹처마로 된 지붕과 겹으로 된 화반은 을밀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구어준다.

을밀대에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륭성번영하는 평양의 모습을 부감하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천주사와 서운사

천주사는 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에 있는 약산동대의 산중턱에 자리잡고있는 특수한 형식의 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38(1949)년 10월 어느날 이곳을 찾으시고 이 절과 약산동대의 고적들을 잘 관리할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약산동대는 관서８경의 하나로 그 경치가 황홀하다. 이 경치속에 묻혀있는 천주사 역시 훌륭한 건축미로 하여 이름높다. 천주사는 1684년 여기 성을 고쳐 쌓으면

서 함께 세운 절인데 지금의것은 1722년에 고쳐지은것이다. 처음 세울 때 천주사는 80여칸이나 되였다고 한다. 천주사는 보광전과 천주루 그밖의 몇채의 건물로 이루어져있다. 건물들은 또한 급한 산비탈면에 놓여있으면서도 종심이 깊다.

천주루 앞마당에서 보광전바닥까지 높이는 7.3m나 되지만 그 배치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였다.

보광전은 이 절의 중심건물인데 제일 뒤 높은 축대우에 자리잡았다.

그러면서도 밑단을 규모있게 꾸리고 따로 쌓고 그우에 정면 3간, 옆면 2간의 합각집을 지었다.

건물의 규모에 맞게 포석루공의 단수를 높여 바깥은 7포, 안은 11포로 하였다.

그리고 문짝들에는 뚫음무늬를 새기고 건물전반에는 푸른 기운이 짙게 도는 단청을 입혀 옛맛을 돋구고있다.

천주루는 관청집 비슷한 형식을 갖춘 다락집이다.

가운데에 큰 마루방이 있고 그 좌우로 긴 복도들이 련결되면서 그 복도 량쪽끝에는 《향일헌》, 《망월대》라는 다락들이 있다.

이 다락들뒤에는 여러 방으로 된 단층집들이 잇닿아있다.

이런 건물구성은 옛 관청과 같은감을 준다.

천주사가 이런 형식의 절로 건설된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임진조국전쟁때 왕(선조)이 녕변으로 피난을 왔는데 숙소때문에 불편을 느낀 일이 있었다. 그후 녕변부사가 천주사를 세우면서 왕이 만일 다시 녕변에 오는 경우 그것을 숙소로 쓰기 위하여 그렇게 지었다는것이다.

천주사는 지난날 청천강이북의 승군(승려들로 무어진 군대)지휘처로 리용된 일도 있었다.

천주사에서 약산동대를 넘어서면 약산의 제일봉 산허리에 서운사가 남아있다.

서운사는 1345년에 처음 세운 절인데 지금의 건물은 1654년에 보수한것이다.

서운사에는 여러 건물터들이 많으나 지금 남아있는것은 대웅전과 청운당이다.

서운사의 대웅전은 앞면 3간, 옆면 2간의 합각지붕인데 이 건물에는 룡대가리, 봉황대가리, 도깨비모양의 라치(귀신을 쫓는다는 상상동물들), 비천, 꽃봉오리 등 나무조각들이 많고 아름다운 금단청(비단무늬단청)을 하면서도 벽면들과 두공사이벽 등에 여러가지 주제의 그림들을 많이 그린것이 특이하다.

평양종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종은 우리 선조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 리용한 귀중한 문화유물이라고 하시며 해방후 첫 설날인 주체35(1946)년 1월 1일 0시에 이 종을 쳐서 인민들에게 해방된 감격을 더욱 새롭게 하여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평양종은 원래 대동문 문루안에 매달려있었는데 1714년에 평양성 북성을 고쳐쌓으면서 그 북장대로 옮겨갔다. 여기서 화재가 일어나 종도 이때에 깨여졌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인 1726년에 약 4개월동안 청동을 녹여부어 만든것이 지금있는 평양종이다. 평양종은 높이가 3.1m, 아구리직경이 1.6m, 질량이 12t 914㎏이다. 종에는 여러가지 무늬와 종의 래력에 대하여 쓴 글들이 새겨져있다.

특히 균형잡힌 형태, 룡머리에 틀어올린 룡틀임조각은 통이 크면서도 섬세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에 감탄을 금할수 없게 한다.

평양종은 1890년대까지 비상경보와 시간을 알려줄 때 쳤다.

평양종은 보통때에는 밤 10시와 새벽 4시에 쳤다고 한다.

종이 밤 10시에 28번 울리면(이것을 인경이라고 하였다.) 평양성 내성 4개의 큰문이 동시에 닫겨 통행이 금지되였으며 새벽 4시에 33번 울리면(이것은 《파루》라고 하였다.) 성문이 열려 사람들이 통행하였다.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알리는 경보를 울릴 때에는 회수의 제한없이 쳤는데 이때에 울리는 종소리는 인민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고 한다.

륙승정

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에는 리조시기 관청앞에 세웠던 륙승정이라는 루정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륙승정은 참 좋다고 하시면서 륙승정주변에 나무도 심고 꽃밭도 잘 가꾸어 로동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륙승정이란 이름은 이 루정에서 울려오는 구성진 피리소리,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무술 익히는 소리, 천주사의 저녁종소리, 학교에서 글읽는 소리 등의 여섯가지 아름다운 운치를 감상할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륙승정의 동쪽에는 아름다운 녕변의 모란봉이 있고 서쪽에는 관서8경의 하나인 약산동대가 그림처럼 펼쳐져있으며 남쪽에는 남산과 함께 네귀번듯한 철옹성남문이 하늘높이 솟아있다.

하기에 련꽃만발한 련못에 두둥실 떠있는듯 한 륙승정의 자태가 너무도 훌륭하여 옛날에는 륙승정을 청천강이북의 루정가운데서 제일이라고 하였다.

지난날 량반관료배들은 저들의 향락을 위하여 녕변부사의 관청앞에 이 루정을 세웠던것이다.

륙승정은 1727년 가을에 련못을 파고 다음해인 1728년 여름에 세웠다고 하며 그후 그 모양을 고치기도 하였다고 한다.

륙승정은 련못가운데에 쌓은 돌축대우에 세워졌다.

륙승정은 앞면 3간, 옆면 2간인데 북쪽가운데칸에 한칸이 덧붙어있다.

루정안에 올라서면 사방이 트이고 안팎의 경치가 훌륭하여 저절로 시를 짓고싶은 감정이 떠오른다.

륙승정은 오늘 주변의 자연경치에 잘 어울리게 꾸려져 녕변읍의 민족적풍치를 한껏 돋구며 인민의 유원지로 흥성거리고있다.

백상루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백상루는 고려시기에 처음 세운 건물로서 안주성의 북장대였다.

백상루는 옛 장대건물로서는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것의 하나였다.

1753년에 고쳐 지었던 백상루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모조리 파괴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에 백상루를 옛모습대로 복구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복구공사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백상루는 1977년에 원상대로 훌륭히 복구되였다.

안주의 백상루라 하면 예로부터 관서８경의 하나로 세상에 이름이 높았다.

백상루란 이름은 이곳에서 백가지 좋은것을 다 볼수 있다는 의미로 붙인것이다.

참으로 백상루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매우 황홀하다.

그리하여 백상루를 《관서제일루》라고도 하였다.

백상루는 안주성 내성의 북쪽성벽 청천강가 언덕우에 서있다.

남쪽앞면 7간, 동쪽옆면 6간, 서쪽옆면 4간으로 되여있다.

백상루의 평면을 이렇게 구성한것은 안주성의 북쪽장대에서 청천강과 그 앞벌에서 벌어지는 적정과 상황을 감시하기 헐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백상루는 2층다락으로 하고 아래층과 웃층의 기둥을 이어대였다.

아래층의 층고도 2m가 넘게 하였기때문에 아래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게 되여있다.

2층마루둘레에는 닭의 다리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계자각란간》이라고 부르는 란간을 돌려세웠다.

백상루에 입힌 단청은 훌륭하다.

백상루에서 그림을 그릴만 한 곳에는 거의다 단청을 입혔는데 련꽃무늬를 비롯한 여러 꽃무늬들사이에는 소나무, 대나무, 룡과 같은 단청그림도 그려있다.

백상루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장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오늘 백상루는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함흥 선화당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있는 함흥 선화당은 리조시기 함경도 관찰사(감사)의 본영으로서 인민들을 통치하던 지방관청건물이다.

함흥 선화당은 1416년 함흥이 함흥부로 승격되고 관찰사본영을 여기에 두게 되였을 때 처음 세워진 건물이다.

지금의 건물은 1764년에 다시 세운 건물이다.

함흥 선화당에는 본래 수많은 관청건물들이 늘어서있었으나 지금은 기본건물인 선화당과 부속건물인 정청각만이 남아있다.

선화당은 앞면 8간, 옆면 4간으로서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잘 째인 건물이다.

높은 밑단우에 높이가 6m나 되는 4각형 주추돌을 놓은 다음 굵직한 흘림기둥 24개를 돌려세운것은 관청건물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것이였다.

건물안은 소란반자로 하고 안기둥들을 세워 여러칸으로 나누었는데 칸들마다에는 우로 들어올릴수 있는 문짝들을 달아 필요할 때에는 그 큰 집안을 모두 하나의 통칸으로 쓸수 있게 하였다.

당시 선화당으로 들어가려면 감영의 정문인 2층-다락문 포정루와 안삼문을 거쳐야 했다.

선화당 앞면 좌우에는 하급관리들이 일을 보던 영리청과 비장청이 마주 서있고 선화당 뒤쪽에는 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안채가 있었다.

그밖에 지방특산물들을 임금에게 올려보내는 일을 맡아보던 진상전, 세무를 보던 도리청, 관찰사의 음식과 의복을 준비하던 영고청, 관찰사의 약재를 마련하던 심약청 등이 한채씩 자리잡고있었다.

정청각은 여러 칸으로 나뉘여진 수수한 건물이다.

선화당일대는 한때 함흥10경의 하나로 그 경치를 자랑하였다.

리조봉건통치를 반대하여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은 당시 통치의 거점인 이 선화당을 들이치군 하였다.

1467년 함길도농민전쟁때 인민들은 선화당에 쳐들어와 당시 함길도 관찰사를 처단하였다. 1862년 농민봉기군들은 선화당을 공격하고 당시 관찰사를 체포하였다.

그때《선화당상에 선화당이요, 락민루하에 락민루하라(좋은 정치를 베푼다는 선화당우에는 화가 서리였고 백성이 즐거워야 할 락민루 아래서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도다)》라는 유명한 격문이 나붙었다고 한다.

함흥 선화당은 리조시기 관청의 모습과 그 건축술을 잘 말해준다.

해인사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해인사는 우리 나라의 이름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판목을 보관하고있던 곳으로 하여 유명하다.

1236년-1251년에 걸쳐 판각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의 판목은 우리 인민의 높은 목판인쇄술을 자랑하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이 판목에 의하여 인쇄된《팔만대장경》이 지금 묘향산 보현사에 소중히 보관되고있다.

해인사건물들은 802년에 처음 세워진 후에 후세에 다 고쳐지은것들인데 처음 세울 때의것으로서는 기발대 지지기둥인 당간지주와 3층돌탑, 돌등뿐이다.

해인사는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구광루, 해행전, 보장각, 극락전, 명부전, 홍하문 등 50여채의 크고작은 건물들로 이루어져있었다.

해인사 건축군은 해탈문과 대적광전, 장경고를 잇는 중심축을 따르면서도 자연지세에 맞게 잘 배치되였다.

해인사의 중심건물인 대적광전은 1769년에 다시 지은것인데 앞면 5간, 옆면 3간의 큰 규모의 건물이다.

흘림기둥우에 바깥 5포, 안 7포의 포식두공을 얹고 합각지붕을 이은 대적광전안에는 부처들을 앉히고 부처들을 그린 탱화를 가득 걸어놓았다.

3층돌탑과 돌등은 대적광전앞뜰에 서있다.

대장경판고는 두채로 되였는데 대적광전뒤 높은 대지에 자리잡고있다.

1488년에 다시 지은 이 판고는 앞, 뒤채가 다 각각 앞면 15간, 옆면 2간이다.

대장경판고 벽체의 높은 부분들에는 창문들이 주런히 나있어 건물안의 환기를 잘 보장하게 되여있다.

건물안에는 덕대를 규모있게 매여 대장경판목들을 질서있게 보관하도록 되여있다.

안국사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안국사는 지금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2층절간이다.

안국사비에 의하면 이 절은 503년 즉 고구려시기에 건설되였다.

안국사에는 지금 본전인 대웅보전과 루필대, 태평루와 료사 등이 남아있으며 9층돌탑과 부도들도 있다.

안국사는 본래 규모가 큰 절간이였다.

대웅보전은 특별히 웅장한 2층건물이다.

대웅보전도 여러차례 고쳐졌는데 지금의것은 1785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높은 밑단우에 정면 5간, 옆면 4간으로 된 건물의 규모에 어울리게 바깥면에 18개의 듬직한 배부른 기둥을 돌려세우고 두공조직을 변화있게 한것이 특이하다.

두공들은 한결같이 공예품처럼 다듬어졌는데 1층과 2층의 두공이 다르고 또 같은 1층에서도 옆면과 뒤면의것이 다르다.

1층앞면의 두공은 바깥 7포, 안 9포로 하면서 꽃가지형, 구름형으로 하였다면 1층옆면과 뒤면의것은 소혀형으로 하고 2층의 두공은 안팎이 다 같은 3포로 소박하

게 하였다.

두공들에는 룡조각과 인형조각을 올려 건축미를 돋구었다.

대웅보전내부에는 벽을 따라 10개의 기둥을 세워 속칸을 이루게 하고 그 속칸이 그대로 2층까지 올라가게 하여 웅장하게 만들었다.

건물내부의 불단에는 불상도 놓고 그우에 화려한 집을 만들었다.

대웅보전에는 눈부신 금단청(비단무늬단청)을 입혔다.

대웅보전의 문짝들은 꽃무늬들을 뚫어새겨 화려하게 꾸렸다.

대웅보전동쪽에 있는 루필대는 임진조국전쟁때 왕이 잠시 머물렀다고 하여 지어놓은 작은 건물이며 태평루는 큰 축에 속하는 절간루정이다.

안국사는 고구려때 세운이래 시대를 내려오면서 계속 절간으로 리용되였다.

안악 월정사

이 절은 황해남도 안악군 월정리에 있기때문에 강원도(남) 평창의 월정사와 구별하여 안악 월정사라고 부른다.

옛날 책들에는 안악 월정사를 846년에 처음 세운것으로 되여있다.

지금의 건물들은 리조초기의 양식을 보여주고있다.

《월정사비》에 의하면 이 절간은 세워진이래 여러번 보수개건되였으며 1650년부터 1871년까지의 사이에 5차례 보수하였다.

월정사는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하고 명부전, 수월당, 만세루, 재실 등으로 이루어졌다.

건물들은 만세루와 극락보전을 련결하는 남북중심축을 중심으로 명부전과 수월당이 놓였으며 극락보전서쪽에 재실이 자리잡고있다.

구월산의 아사봉에서 흘러내린 산줄기를 배경으로 하고 깊숙이 놓인 극락보전은 고려말기의 건축술을 이어받아 세워졌다.

이 건물은 정연한 밑단우에 앞면 3간, 옆면 2간으로 되여있다.

극락보전과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앞쪽에 있는 만세루는 앞면 5간, 옆면 2간의 2층다락집이다.

높이가 1.2m나 되는 돌기둥들을 세우고 그우에 마루를 깐 다음 다시 나무기둥을 이어 세운것으로 하여 루정이 높으며 여기에 오르면 앞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와 뭇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수 있다.

오늘 구월산을 찾아오는 우리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축성전

향산군 묘향산의 상원암 동쪽에 있는 축성전은 1875년에 당시 왕실의 《안녕》을 빌 목적으로 세운 특수한 절간이다.

축성전은 리조말에 민비가 왕세자를 낳고 그의 장수를 빌 목적으로 지은것이다.

그때 민비는 이 절을 지음에 있어서 많은 관리, 궁녀, 무당들이 살수 있게 서울량반귀족들의 살림집형식을 많이 본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 절간에는 생활에 편리하도록 온돌방도 많이 두었다.

축성전은 앞면 5간, 옆면 2간의 본채에 량옆앞쪽에 한칸너비씩의 나래채가 달려있어 평면을 이루고있다.

본채 다섯간가운데서 북쪽 한칸은 부엌이고 나머지는 모두 온돌방이며 나래채 두칸가운데서도 한칸은 온돌방이고 다른 한칸은 마루방으로 되여있다.

본채앞을 따라서는 퇴마루가 놓였다.

축성전에는 앞쪽 3간길이(8.83m)의 퇴마루에 긴 액방을 건너대여 건물앞의 경치를 바라보기 좋게 한것이 특이하다.

축성전은 은근한 단청도 입히고 단청그림들도 그려놓아 리조후기의 건축술을 여러모로 보여주는 귀중한 건축유산이다.

표훈사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 만폭동어구에 있는 표훈사는 장안사, 유정사, 신계사와 함께 금강산에서 손꼽히는 절간의 하나이다.

다른 절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파괴되였는데 표훈사만은 피해가 비교적 적었다.

표훈사로 가는 길목에 삼불암이 있다.

길가의 바위에 세부처와 《삼불암》이란 글자를 새겨놓았다.

세부처는 석가불, 미륵불, 아미타불을 각각 새긴것인데 고려시기의 높은 조각술을 보여준다.

부처들의 높이는 3.7m나 된다.

여기에서 좀더 오르면 벽화암터가 나서는데 여기에 임진조국전쟁시기 승병 수천명을 거느리고 왜적을 무찔러싸운 서산대사의 공적을 기념하여 세운 서산대사비와 그의 부도가 남아있다.

표훈사는 670년에 처음 세운 절이며 당시에는 신림사라 불렀다.

표훈사는 그후 산불,큰물 등의 피해를 받아 고쳐세우군 하였는데 지금의 건물들은 1778년에 지은것이다.

표훈사에는 중심건물인 반야보전, 릉파루, 명부전, 령산전, 어실각, 칠성각, 판도방 등이 남아있다.

지난 시기에는 여기에 극락전, 영빈관, 함영교, 청덕재, 설선당, 청차재, 천왕문과 같은것이 더 있었다.

표훈사의 전반적건물들은 반야보전과 릉파루를 잇는 남북중심축에 따라 배치되였다.

반야보전은 앞면 3간, 옆면 3간의 합각식다락건물인데 1층에는 14개의 8각기둥을 세우고 2층에는 10개의 두리기둥을 세워 다락의 시원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표훈사의 다른 건물들은 다 특색이 있고 아담하게 꾸며졌다.

표훈사는 력대왕실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있었으므로 진귀한 유물들을 많이 가지고있었다.

그중 53개의 부처를 조각한 쇠탑과 40말의 밥을 단번에 쪄낼수 있었다는 500근의 큰 놋시루는 일제침략자들이 략탈하여갔다.

수원성

경기도 수원을 둘러막은 수원성은 우리 나라 중세기의 발전된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이다.

수원성의 설계와 구상을 담은 민족고전이 《화성성역의궤》이다.

1794년-1796년 사이에 축성된 수원성은 팔달산과 그 동서북면의 평지를 포괄하여 쌓은 평산성인데 그 둘레는 약 5.5km에 달한다.

성벽은 화약무기가 사용되는 조건에 맞게 두껍게 하고 또 성벽의 허리가 안으로 휘여들게 요고형으로 하여 적들이 기여오르기 힘들게 하면서 우에서 내려누르는 힘

에 성벽허리가 밀려나가 무너지는것을 막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벽은 산지대에서는 앞면에는 성돌을 대는 외면쌓기방법을 쓰고 평지대에서는 량면쌓기방법을 써서 적은 로력과 자재가 들게 하였다.

성벽을 따라서는 성문에 다가오는 적을 치기 위해 성문곁에 쌓은 적대와 성벽에 바투 다가온 적을 옆으로 쏘기 위해 성벽밖으로 내밀어 쌓은 장치도 설치하였다.

수원성에는 북쪽에 장안문, 남쪽에 팔달문, 서쪽에는 화서문, 동쪽에 창룡문 등 4개 문을 내고 그 사이사이에도 5개의 암문과 2개의 수구문을 두었다.

큰 성문들은 무지개문길을 낸 축대와 웅장한 문루로 이루어졌는데 무지개문길에는 쇠쪼각을 빼곡이 붙인 문짝을 달고 문짝에 불이 달리는 경우 그것을 끌수 있는 장치까지 해놓았다.

성문들에는 여러가지 형식의 옹성 (성문을 지키기 위해 주로 성문밖에 쌓은 성)을 두었으며 암문(비밀문)도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들었다.

성안에는 행궁과 많은 창고들이 있었다.

수원성축조에는 거중기라고 하는 일종의 기계가 도입되여 작업을 헐하고 빠르게 하였다.

성쌓기에는 전국의 많은 인민들과 기술자들이 동원되였으며 성돌과 건설부재들을 비롯한 축성재료들도 전국이 분담하여 규격재로 만들도록 하였다.

수원성은 어려운 고역속에서 생겨났다.

발전된 축성리론과 그에 기초한 엄밀한 설계에 따라 건설된 수원성은 우리 인민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양화사

평안북도 태천군 상단리에 있는 양화사는 평안북도지방에서는 묘향산의 보현사 다음가는 절간으로서 리조의 각 시기 건축술을 다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양화사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봉축전, 심검당, 봉향각, 천왕문과 해탈문 등 10여채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양화사를 처음 지은것은 872년이라고 한다.

양화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1879년에 다시 지은것인데 앞면 3간, 옆면 2간으로 되여있다.

대웅전에서는 요식두공과 비슷하게 생긴 익공식두공을 올리고 두공의 조각을 복잡하게 하였으며 특히 룡조각을 많이 해올린것이 눈에 띄운다.

앞면 5간, 옆면 2간으로 된 명부전은 대웅전의 동쪽에 있는데 기둥우를 가로지른 평판방아래는 리조초기의 양식을, 그우는 리조중기의 양식을 보여주고있다.

양화사로 들어가는 입구의 해탈문은 앞면 3간, 옆면 2간의 합각집인데 문길 왼쪽에는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의 조각상을 놓았다.

해탈문 다음에 있는 천왕문은 앞면 3간, 옆면 2간으로 되였는데 해탈문에 비하여 규모가 좀 크다.

여기에는 사천왕상을 놓아 문의 신비성을 돋구었다.

양화사의 봉축전이나 심검당, 봉향각 등 다른 건물들도 다 아담하고 아름답다.

양화사에는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는 길이 30m, 너비 15m의 련못이 있다.

이 련못으로 하여 절의 풍치는 한결 돋보인다.

강계아사

자강도 강계시 북문동에 있는 강계아사는 리조시기의 관청건물이다.

리조시기 각 도에는 관찰사(감사)가 다스리는 선화당이란 관청이 있었으며 그아래고을에는 부사나 군수 등 원이 다스리는 아사란 관청이 있었다.

강계아사는 지금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옛 관청건물이다.

1663년에 처음 세웠던것인데 그후 불이 나서 1888년에 다시 세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지금 강계아사에는 동헌과 내천 그리고 륙모정이 남아있다.

동헌은 아사의 기본건물로서 앞면 8간, 옆면 4간의 큰 기와집이다.

여기서는 원이 관청일을 보았다.

앞쪽의 첫 기둥들사이는 대부분 살문으로 막혀있다.

이 살문들은 일을 보거나 연회 같은것을 할 때는 우로 말아올려 넓은 공간을 이룰수 있게 만든것이다.

동헌은 두리기둥우에 2익공두공을 얹고 련꽃모양의 제공을 올렸으며 네 모서리 기둥우에 룡대가리로 조각까지 하여 위엄있게 꾸며졌다.

원이 거처하던 내헌은 동헌의 뒤쪽에 있는데 앞면 6간, 옆면 2간의 아담한 건물이다.

동헌곁에는 봉건관리들의 놀이터로 리용되던 륙모정이 있다.

봉건시기 관청은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억압의 소굴이였으며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이였다.

1892년 강계지방 인민들이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 이 아사에서 악질관리인 방어사를 처단한 일이 있다.

패궁정

패궁정은 량강도 혜산시 북쪽의 압록강에 면한 절벽우에 있다.

패궁정이란 이름은 옛날 이곳에 주둔한 군인들이 이 루정에 활을 걸어놓고 감시해오다가 침입해오는 외적을 막아 싸웠다는 뜻에서 붙은것이다.

패궁정은 본래 혜산진성 남문의 문루였다.

혜산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둘러쌓은 혜산진성은 둘레가 약 750m에 달하는 돌성이였으며 성문도 네 면에 다 낸 비교적 완비된 성곽이였다.

이 네 성문가운데서 남문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혜산진성 남문의 이름은 처음에 복융대라고 하였다.

복융대란 북으로부터 빈번히 침입하던 녀진인들을 제압하고 복속시킨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였다.

복융대는 1631년에 고쳐진 일이 있는데 그때 패궁정이라고 고쳤다.

패궁정은 그후 북방방위에서 큰 역할을 놀았다.

그런데 지난 시기 일제침략자들은 혜산진성을 허물어버리고 패궁정에도 불을 질렀다.

우리 인민들은 1937년 타다남은 패궁정을 건져 오늘의 위치에다 옮겨 세웠다.

패궁정은 정면 3간, 옆면 3간의 단정한 루정이다.

마루는 10개의 긴 두리기둥중턱에 높직하게 걸려있다.

마루둘레에 돌린 닭의 다리모양기둥을 세운 《계자각란간》과 규모가 째인 합각지붕은 주변의 경치와 잘 어울린다.

오늘 패궁정은 옛모습대로 잘 보존관리되여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고있다.

경암루

경암루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중심부의 경치좋은 경암산 북쪽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아담한 루정이다.

경암루는 본래 봉건시기 황해도 봉산군의 군수가 들어앉아있던 관청의 루정이다.

원래는 1436년 봉산군 마산리에 세웠었는데 1798년에 오늘의 봉산군 구읍리로 옮겨지였다가 1917년 지금의 위치에 다시 옮겨지은것이다.

앞면 3간, 옆면 2간의 경암루는 산경사면을 효과있게 리용하며 세웠기때문에 앞에서 보면 2층같고 뒤에서 보면 곧추 마루에 오를수 있게 보인다.

기둥은 밑의 돌기둥우에 나무기둥을 이어세워 비바람에 잘 견디도록 하였다.

보통 루정에서와 같이 두리기둥우에 꽃가지들이 피여난 모양의 익공식두공을 올리고 두공과 두공사이에는 련꽃무늬라반을 단정하게 놓았으며 천정은 통천정으로 하면서도 일부는 격자무늬처럼 만든 소란반자를 대고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나라 단청가운데서 중간급으로 화려한 모루단청을 입혀 주위의 경치와 잘 어울리게 하였다.

개심사

함경북도 명천군의 세계적명승지 칠보산의 개심대에 있는 개심사는 발해때 처음 세워진 절로서 유명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5(1996)년 6월 어느날 개심사를 찾으시여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력사문화유적을 잘 보존관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1948년 개심사를 보수할 때 이절 대웅전의 룡마루에서 나무함이 드러났는데 그 안에 있던 종이에 이 절이 발해 선왕 9년에 세워졌다는것이 밝혀져있었다.

이 년대가 바로 826년이다.

이 종이에는 당시 이 고장의 행정구역이름도 씌여있다.

함경북도일대는 발해의 중요한 령역이였으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발해 5경의 하나인 남경 남해부터도 남아있다.

최근 함경남북도일대에서 자주 알려지고있는 발해유적들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개심사는 여러차례 고쳐지으며 내려왔는데 지금의 건물들은 리조시기에 다시 지은것들이다.

개심사는 대웅전과 심검당, 음향각, 관음건과 산신각 등으로 이루어졌다.

땅생김새에 맞추어 중심건물인 대웅전이 서향하고있는것이 특이하다.

1784년에 다시 지은 대웅전은 높은 밑단우에 앞면 3간, 옆면 2간으로 되여있다.

이 건물에서는 여러가지 모양의 룡조각이 볼만하다.

대웅전안에는 부처가 놓이고 화려한 닫집이 설치되여있다.

개심사의 다른 건물들은 대웅전에 어울리게 서있다.

개심사에는 200년 묵었다는 유명한 약밤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일대에는 참대의 일종인 칠보산 조릿대가 많이 자라고 있다.

참대는 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 일대에서 이런 대나무가 자라게 된것은 우리 선조들이 외적과 싸울때 쓸 화살을 만들기 위해 풍토순화시켜 정성들여 가꾸었기때문이라고 한다.

령남루

령남루는 경상남도 밀양군에 이는 옛날 량반관리들의 숙박소인 객사 밀주관(밀양관)의 루정이다.

옛날 객사들에는 대체로 루정이 다 있어 손님들의 휴식장소로 리용되였다.

밀양객사 령남루는 이러한 객사루정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의 하나이다.

밀양강을 낀 가파로운 언덕우에 자리잡은 령남루는 앞의 경치가 탁 트이여 시원하다.

령남루가 처음 세워진것은 고려말기인데 지금의 건물은 리조시기에 고쳐지은것이다.

령남루는 객사루정치고는 비교적 크게 앞면 5간, 옆면 4간으로 되여 있으며 서까래에다 부연까지 이어 겹처마로 된 합각지붕을 이었다.

루정은 마루를 높이 달아 1, 2층 다 시원하게 틔워놓았다.

령남루 구조에서 흥미있는것은 루정에로 오르내리는 계단구조이다.

루정으로 오르내리는 통로는 앞면과 좌, 우, 옆면 세군데 있다.

앞면의 계단의 절반 아래는 돌층계이고 우는 나무층계이다.

루정의 왼쪽에는 왼쪽나래점에서 건너올수 있도록 놓은 다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3개의 널마루층으로 된 다락형식의 계단이 있다.

령남루의 지붕생김새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마치도 크고작은 여러마리의 학이 줄지어 날아오르는듯 하다.

령남루내부는 조각도 많이 하고 단청도 정교하게 입혀 화려하다.

리조시기의 민족고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대한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공으로 하여 우리의 민족문화를 수록한 수많은 책들이 불타버리거나 략탈당하였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남아 전해지고있는 민족고전들가운데서 비교적 학술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소개한다.

《경국대전》

리조봉건국가의 기본법전이다.

이 법전은 1469년에 출판된 리조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에 대한 국가적지배를 실현하는 통치수단으로 삼은 반인민적인 법전이다.

최항, 서거정 등이 편찬하였는데 모두 6권으로 되여있다.

1388년 《위화도회군》이후 정권을 탈취한 리성계일파는 새 왕조의 정치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1397년(태조 6년)까지 10년간의 법례를 정리하여 그해 《경제륙전》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그후 이것을 고쳐《륙전속록》(1413년),《신륙전속록》(1428년),《신찬경제속륙전》(1433년)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 법전들은 복잡하고 잘 째이지 못하였기때문에 다시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460년과 1461년에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등 봉건국가의 수탈을 규정한 호전과 노비제도, 형벌제도를 취급한 형전을 먼저 완성공포하였다.

뒤이어 나머지 4개(리, 례, 병, 공)부문의 법전을 완성하여 1469년에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였다.

그후에도 법전보충사업이 계속 진행되였는데 1471년에 이른바 《신묘대전》이,

1474년에 《갑오대전》이, 1485년에 《을사대전》이 나왔다. 이 《을사대전》이 오늘 전하는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에는 서문이 있고 리전, 호전, 례전, 병전, 형전, 공전의 순서로 법조문들이 실려있다.

리전에는 리조봉건국가의 중앙 및 지방통치체계에 관한 규정이 서술되여있고 호전에는 토지의 조사장악과 조세의 수탈체계에 관한 규정이, 례전에는 봉건적인 의례, 과거제도, 외교관계 등에 관한 규정들이, 병전에는 군사관계규정들이, 형전에는《범죄》와 그에 관한 형법제도가, 공전에는 국가적인 토목공사, 수공업 등에 관한 규정이 서술되여있다.

《경국대전》은 봉건법전으로서는 가장 상세하게 정리된것들중의 하나로서 15세기의 사회경제문제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된다.

그러나 이 법전은 그것이 봉건국가의 독재의 무기로서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전 다시말하여 철두철미 반동적인것이다.

《고려사》

고려왕조기간 475년(918년-1392년)의 력사책이다.

이 책에 기록된 력사는 고려왕조가 망한 후 앞선 왕조의 전사를 쓰는 봉건시대 력사편찬의 관례에 따라 1451년 리조봉건국가의 춘추관(력사편찬기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편찬한 이른바 정사체의 단대사(한 왕조를 포괄범위로 하는 력사)이다.

이 책은 모두 139권으로 되여있다.

《고려사》의 편찬을 주관한 사람은 김종서였으나 그는 그후에 리조왕실의 역신(반역자)으로 몰렸기때문에 후세에 《고려사》들에서는 그의 이름이 없어지고 정린지이하의 이름만이 남게 되였다.

《고려사》는 1957년에 과학원출판사에서 출판되였으며 1962년-1964년에 11책으로 번역출판되였다.

《고려사》는 목록 2권과 세가(1권-46권), 지(47권-85권), 년표(86권-87권), 렬전(88권-139권)으로 되여있다.

세가는 고려 1대왕 태조(왕건)로부터 마지막왕 공양왕에 이르는 475년간에 봉건국가 봉건왕실을 중심으로 하고 각 방면의 력사적사실들을 왕대별 년월일순서로 라렬기록한것이다.(우왕과 창왕에 대한 자료는 렬전에 실려있다.)

여기에는 12세기말의 전국적농민전쟁을 비롯하여 고려시기에 봉건적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인민들의 각종 형태의 계급투쟁에 관한 사실들이 이러저러하게 외곡된 형태로나마 기록되여있으며 또한 거란(료), 금, 몽골(원), 명, 왜구 등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들의 투쟁이 많이 서술되여있다.

지에는 천문, 력서, 오행, 지리, 의례, 음악, 수레와 목, 과거, 관청과 관직, 경제, 군사, 형법 등 12개의 부문이 설정되고 통치기구,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천, 법률제도, 농업, 수공업, 상업 등 경제제도, 조세, 공물 및 수탈제도, 천문, 력서, 음악, 문화제도, 군사 및 병역제도 등 자료들이 체계화되여있다.

년표에는 고려 각 왕대의 매해가 간지(갑자, 을축 등)로 표시되여있다.

렬전에는 고려시기의 이른바 주요인물 수백명이 후비, 종실 ,공주, 제신, 량리, 충의, 료무, 렬녀, 방기, 환자, 혹리, 페행, 간신, 반역 등으로 나뉘여 서술되였다. 이와 같이 《고려사》는 봉건통치계급에 의하여 편찬된 봉건왕조의 력사에 관한 책으로서 많은 시대적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모든것이 봉건유교사상에 철저히 립각하고있으며《왕도정치》

와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의 견지에서 씌여져있다.

특히 왕권찬탈자 리성계에 의한 리왕조성립의 《필연성》이 설교되고 이에 유리하게 모든 내용들이 전개되였다.

그런가 하면 응당 세가에 들어가야 할 우왕과 창왕에 대한 자료는 세가가 아니라 렬전에 들어갔으며 고려초기에 임금을 《제》(황제)로, 그의 명령을 《칙》으로 쓰이였다는 기록들이 삭제되였다.

다음으로 이 책에는 사대주의적표현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이 책에는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내용들도 적지 않다. 특히 천문지나 오행지의 내용이 그러하다.

《고려사》는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사회문화적형편과 기술문화에 관한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고 상세히 담겨져있고 외국의 력사적사실들도 적지 않게 실려있어 고려시기의 력사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리용되고있다.

《고려사절요》

고려왕조기간(918년-1392년)의 력사를 년대순으로 쓴 책이다.

《고려사》가 기전체로 쓴 정사이라면《고려사절요》는 편년체로 쓴 력사책이다.

《고려사절요》는 1451년에 김종서, 정린지 등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하여 다음해에 완성되였으며 그 다음해에 출판되였다.

이 책은 《고려사》에 비하여 훨씬 간단하다. 이 책은 《고려사》의 본기, 렬전, 지 등에 있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서술되여있으므로 각 시대의 중요한 사실들을 일괄하여 보는데 편리하다.

또한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에 없는 기사들도 가끔 실려있고 《고려사》에 밝혀지지 않은 날자들도 더러 밝혀져있어 고려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가치있는 사료로 된다.

물론《고려사절요》도 역시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하여 씌여지고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들을 담고있을뿐아니라 리조봉건왕조의 성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고려말기의 력사적사실을 외곡한 결함을 가지고있다.

《금오신화》

15세기 중엽 이름있는 작가 김시습(호는 매월당, 1435-1493)이 창작한 우리 나라의 첫 소설집이다.

김시습은 1464년부터 약 6년간 경주 금오산에 들어가서 살 때에 단편소설 5편을 써서 《금오신화》라는 소설집으로 묶어놓았다.

《금오신화》에 들어있는 《만복사의 윷놀이》와 《리생의 사랑》은 주로 사랑에 대한 봉건적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지향을 보여주고있으며 《남염부주이야기》와 《룡궁의 상량잔치》는 작가의 사회정치적, 철학적견해를 담고있다.

《부벽루의 달맞이》는 개성에서 사는 홍생이라는 청년이 평양에 왔다가 부벽루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고조선 유민처녀와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이야기로 엮어져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작가는 오랜 력사를 가진 자기 조국의 옛 도읍지인 평양에 대한 사랑의 감정 등을 반영하였다.

우의 소설들가운데서 《리생의 사랑》(《리생과 최랑의 사랑》이라고도 함)은 김시습의 대표작으로서 우리 나라 중세소설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소설은 남주인공 리생과 녀주인공 최랑이 남몰래 련애를 하던중 리생의 아버

지의 방해로 하여 서로 갈라졌다가 끝내 소원대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리생과 최랑이 부모도 모르게 서로 사랑하며 백년가약을 맺는것은 봉건유교도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대담한 행동이다.

《금오신화》는 우리 나라 중세소설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금오신화》의 작품들은 작가가 뚜렷한 창작적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소재를 자기의 상상력으로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그 성격창조와 세부묘사도 잘 형상하였으나 량반들의 생활만을 취급하고 비현실적인 환상세계를 끌어들이였으며 묘사의 구체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설화적인 서술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것과 같은 제한성도 있다.

《동국병감》

약 B.C. 2세기부터 14세기말까지의 우리 나라 전쟁기사 37건을 하나로 묶어놓은 대표적인 군사관계책이다.

이 책은 1450년경에 리석형 등 봉건사가들에 의하여 편찬출판되였는데 2권 2책(상하권)으로 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몸소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시여 교원학생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나라에《동국병감》이라는 유명한 병서가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진 결과 1955년에 주석을 단 번역문이 출판되였다.

《동국병감》상권에서는 한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전쟁(B.C. 109년)으로부터 시작하여 거란의 침략을 반대한 전쟁(10세기말-11세기초)에 이르기까지의 20건의 전쟁사를 서술하였다.

하권에서는 12세기초 녀진의 침략과 봉건몽골(원)의 침략을 반대한 전쟁, 고려말기에 녀진의 침략을 물리친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17차례의 전쟁기사를 서술하였다.

《동국병감》에는 우리 선조들이 발휘한 애국주의사상과 슬기와 용맹이 반영되여있으며 전쟁에서 쓰인 전략과 전술이 기록되여있어 이 책은 당시의 전쟁사를 군사전략상면에서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로 된다.

또한《동국병감》은《고려사》나《고려사절요》에 없는 일부 자료들도 싣고있으므로 고려시기의 력사연구에서 보충적사료로 된다.

《동국병감》은 전쟁사료선택에서 편협하고 일방적인 립장을 반영하였으며 전쟁의 승리도 마치 몇몇 사람의 역할에 의해 이룩된것처럼 묘사하였을뿐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에 대하여서는 관심조차 돌리지 않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또한 책의 여러곳에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반영되여있다.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는 있으나《동국병감》은 우리 나라 고대, 중세의 전쟁사료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으로서 당시의 군사제도와 군사기술,우리 인민의 애국적투쟁 등을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사료로 된다.

《동국세시기》

19세기 전반기의 량반출신이였던 홍석모가 봉건시기의 우리 나라 년중행사와 민족적풍속자료들을 실은 책이다.

리자유의 머리글을 통하여 이 책이 1849년이전에 저술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1911년에 《렬양세시기》, 《경도잡지》를 붙여서 한 책으로 출판되였고 1958년에 과학원에서 번역출판되였다.

《동국세시기》는 봉건시기의 명절때마다 있은 각종 의식들, 특수한 음식물과 놀이들을 월별 및 지방별로 서술하였다.

이 책에 실려있는 자료들을 통하여 전국적성격을 띠는 민속으로서 어느달에 어떤 행사가 있었으며 어떤 명절에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먹고 어떤 의식을 거행하고 어떤 놀이를 어떻게 벌렸는가를 알수 있으며 지방적인 풍속들과 그 특징을 엿볼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자료들은 오늘 날로 발전되여가는 민족경기와 날로 향상되여가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민족적정서와 구미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풍족하게 하는데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양식과는 맞지 않는 봉건통치배들의 라태하고 호화로운 생활방식과 미신적이며 저속한 생활유습을 전하는 자료들이 적지 않고 사대주의적립장에서 민속자료를 소개하고 고증하는 등 심각한 결함들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로동계급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동국지리지》

16세기-17세기 우리 나라 실학파의 선구자의 한 사람이며 이름난 력사지리학자였던 한백겸(호는 구암, 1552년-1615년)이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의 령역과 중심지, 이름난 산과 강, 요새들의 위치를 고증한 력사지리책이다.

1640년에 한 책으로 출판되였다.

책의 첫머리에 저자의 아들 한흥일이 쓴 머리글이 있고 마지막에는 리명웅의 맺는 글이 붙어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를 새롭게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내외력사책들의 오유를 비판하고 선행학자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으려는데 있었다.

때문에 저자는 력사지리연구에 새로운 실증적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매 편마다 먼저 그와 관련되는 기본사료들을 인용한 다음 그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관련된 사료의 오유와 기성학설의 부족점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서술형식을 취하였다.

《동국지리지》의 가치는 우선 우리 나라 력사지리책들가운데서 력사지리연구에 새로운 실증방법을 적용한 첫 지리책이라는데 있다.

저자가 동옥저의 위치를 고구려, 읍루, 부여, 예맥 등 이웃세력들과의 호상관계를 고려하여 함경도일대로 규정한것, 《두씨통전》에서 옥저의 동쪽에 녀자만 사는 나라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것은 허황한것이라고 지적한것 등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저자의 이러한 새로운 연구방법은 그후 리익, 안정복, 신경준, 정약용 등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였다.

《동국지리지》의 가치는 또한 일련의 기본적인 력사지리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는데 있다.

저자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것을 밝히고 발해를 우리 민족력사의 뗄수 없는 한부분으로 정당하게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는 저자의 견해에서 부정확한 점들이 적지 않으며 사대주의적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들도 있고 중국의 력사기록들을 지나치게 믿은것, 서술체계가 산만한것 등의 결함들이 있다.

《동사강목》

18세기의 실학자 안정복(호는 순암, 1712년-1791년)이 1759년에 써두었던 초고를 다시 정리하여 1778년에 완성한 력사책인데 고대로부터 고려말기까지의 우리나라 력사가 기록되여있다. 모두 20권 20책이다.

저자는 국내의 력사책들과 개인문집들을 포함한 40여종의 책들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력사책에 실린 조선관계기록들을 참고로 하여 이 책을 썼다.

이 책의 앞머리에는 실학자 리익이 쓰다가 다 마무리하지 못한 글 한편과 저자의 머리글, 부록, 일러두기, 력대왕조의 《정통》을 밝힌 전수도, 력대력사지리도, 관직연혁도 등 지도와 도표가 실려있다.

그 다음부분은 본문에 해당하는것으로서 상하로 나뉘여진 통사부분(17책)인데 여기서 저자는 선행력사책들에 실린 《사론》과 저자가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해당시기의 력사적사실들과 인물들에 대하여 평가를 주었다.

이 책의 부록으로서 《고이》, 《괴설변》, 《잡설》, 《지리고》, 《강역고정》, 《분야고》 등이 덧붙어있는데 고이편은 여러가지 평가가 주어져있는 력사적사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힌것이고 괴설변편은 력대신화전설들에 대하여 비판한것이다.

이 책은 이전의 력사책들이 가지고있던 부족점을 보충한 통사로서 내용이 풍부하고 력사적고증이 비교적 정확하므로 우리 나라 봉건시기의 력사책들중에서 가장 우수한것의 하나로 된다.

《대동여지도》

19세기의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1861년에 작성하여 직접 판각출판한 근대적인 체계를 갖춘 실측조선전도이다.

모두 22첩으로 되여있다.

김정호는 이미 《동국지도》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우수한 지도들과 다른 나라의 지도를 널리 연구하고 1834년에 《대동여지도》의 기초로 된 조선전도인 《청구도》를 만들었었다.

그는 이 지도의 일련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27년간이나 우리 나라 방방곡곡의 현지를 답사하면서 지형을 조사연구하고 실지 측량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그는 백두산에만도 두번이나 올라갔다고 한다.

《대동여지도》는 전 국토를 지구의 위도선에 따라 22개 부분으로 가로 나눈 다음 그 매개 부분을 1첩으로 하고 각각 병풍식으로 접어 책처럼 즉 첩본으로 만들었다.

매 첩본의 한 면은 30㎝×20㎝의 크기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남북 120리×동서 80리에 해당하는 지역도이다.

22첩의 전체 도면을 붙이면 33㎡의 완전한 조선지도로 된다.

《대동여지도》는 1:162 000의 축척도이다.

지도에 삽입된 부분들인 《5부》(서울 5부)는 1:13 000, 경도(서울)는 1:56 000의 축척으로 더 자세하게 만든것이다.

이 지도는 지형, 지물 등 자연조건과 력사, 경제, 문화, 군사 등에 관한 광범한 내용들을 포괄하고있는데 도면에 있는 지도주기의 총수 즉 기호, 글자로 표시된 사항은 무려 11 600여개나 된다.

김정호는 바다와 해안, 강하천, 호수, 산과 산줄기, 평원과 특수지형에

대하여 글자와 기호를 배합하여 비교적 정확하고 세밀하게 묘사하였으며 해당단위의 묘사를 할 때에는 주, 군, 현의 경계와 그아래의 특수한 단위들의 경계를 지어주고 주민지점도 부, 읍, 리 그리고 농촌과 향, 부곡에 이르기까지도 표시하였다.

그는 경제적의의를 가지는 저수지들, 산림, 대나무밭, 염전, 시장 및 수공업생산시설들과 서원, 향교, 루각, 궁궐, 절간, 옛 전쟁터들도 상세히 묘사하였고 도로, 역참, 나루, 다리, 암초 등 교통상 대상물들도 묘사하였다.

《대동여지도》에는 군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형조건과 해안상태, 주민지점의 특성 특히 관방, 진보, 관청, 관문과 성들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둔전, 창고들에 대하여 그 연혁, 시설, 배치 등이 상세히 실려있다.

《대동여지도》는 그 구체성과 실용성으로 하여 여러번 재판되였다.

이 지도는 실측에 기초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측정수단들이 발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하여 정밀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며 지도의 기호표시에서 유교적관점을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는 당시의 우리 나라 지리지도발전수준을 리해하며 력사지리를 연구하는데서 가치있는 자료로 된다.

김정호는 서울 서대문밖에서 자기의 딸과 함께 지도의 판각을 만들었다고 한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김정호가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국가비밀을 루설했다는 부당한 죄명을 씌워 판각을 압수소각하였으며 김정호를 잡아가두고 고통을 주었다.

김정호는 투옥되여 고초를 겪다가 옥사하고말았다고 한다.

《대전회통》

리조 500년간의 기본법규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리조말기의 법률책이다. 모두 6권 5책이며 편찬자는 봉건관리인 조두순 등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계급적모순이 더욱 첨예화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전이 필요하게 되자 리조통치배들은 15세기의 《경국대전》(1469년) 이후 편찬된 《속대전》(1744년), 《대전통편》(1785년) 등 법전들을 종합하여 한데 묶고《대전통편》의 간행이후 약 80년간에 발표된 왕의 명령, 법령, 법조문 등을 첨가하여 1865년에 《대전회통》을 편찬출판하게 되였다.

《대전회통》은 머리말과 목록 그리고 리전, 호전, 례전(3권), 병전, 형전, 공전으로 구성되였다.

리전에는 중앙과 지방의 통치기구가 규정되여있고 호전에는 조세를 비롯한 수탈관계가, 례전에는 봉건적의례와 과거제도, 외교관계가, 병전에는 군사관계가, 형전에는 형벌관계가, 공전에는 건설과 수공업관계의 내용들이 규정되여있다.

《대전회통》은 봉건통치계급의 통치제도를 유지공고화하며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계급적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여있으며 국왕정치를 《어진 정치》로 내세우고 봉건제도와 왕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담고있다. 《대전회통》은 리조시기의 반인민적인 관료기구, 통치체제 및 사회경제형편을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사료로 된다.

《란설헌집》

16세기의 녀류시인 허란설헌(1563년-1589년)의 시문집이다.

허란설헌의 호는 란설헌이다.

허란설헌은 량반학자 허엽의 딸로 태여나 어려서부터 오빠인 허성과 허봉, 동생인 허균과 함께 진보적인 시인 리달에게서 글을 배우고 시문을 습작하였다. 그는 김

성립과 결혼하였으나 단란하게 살지 못하였으며 26살의 젊은 나이에 일생을 마치였다.

허란설헌은 짧은 생애에 많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시만 하여도 방안에 차리만큼 많았다고 하는데 죽을 때 많은 작품들을 스스로 태워버렸다고 한다.

《란설헌집》은 그가 죽은 뒤 남동생인 허균(소설《홍길동전》의 작가)이 남은 작품들을 모아서 묶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책은 중국에서도 간행된 일이 있다.《란설헌집》에는 그의 작품으로서 5언고시, 7언고시, 5언률시, 7언률시, 5언절구, 7언절구 등 203수의 시와 《광한전백옥루상량문》과 다른 한편의 산문이 실려있다.

허란설헌의 작품들은 시인자신이 녀성으로서의 사회적처지와 관련하여 주제령역이 매우 제한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봉건사회현실을 반영하고있으며 특히 봉건유교도덕에 얽매여 시름속에서 살아가던 녀성들의 생활과 그 내면세계를 섬세한 필치와 부드러운 정서로 꾸밈새없이 펼쳐보여주고있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 인식적의의가 있다.

5언절구 3수로 된 서정시 《가난한 집 처녀의 노래》는 추운 겨울밤에 얼어드는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베를 짜고 옷을 지어도 모두 부자집 딸에게 주어야 하는 가난한 집 처녀의 서글픔을 깊은 동정을 가지고 읊었다.

시인은 또한 반침략애국주의감정을 노래한 시《성 쌓는 괴로움》에서 부역에 나간 인민들이 애써 성을 쌓고있으나 썩어빠진 봉건정부가 능히 외적을 막아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함으로써 당대봉건사회의 어지러운 현실을 반영하였다.

시 《그네뛰는 처녀》, 《손가락에 봉선화를 물들이며》, 《동뚝우에서》, 《한밤중에 홀로 앉아서》, 《변방노래》 등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도 그의 시적특성을 볼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작품들에는 당시 첨예하게 나서고있던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적고 주로 량반부녀자들의 한가스러운 생활이 그려져있고 그들의 안일한 정서가 흐르고있다. 또한 이 책에는 다른 나라 력사에 나오는 고사들을 많이 인용한것, 허황한 신선놀이를 노래한것, 남의 시구를 본딴것들이 적지 않다.

《력대병요》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의 주요 전쟁,전투기록을 추려서 묶은 책인데 모두 13권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책은 봉건관료이며 학자인 정린지, 리석형 등이 세종의 명령으로 편찬한것인데 그후 집현전의 학자들인 성삼문, 박팽년 등이 개작하여 1452년에 완성하였다.

1456년에 강원, 경상, 전라 3도에서 만든 나무판본으로 인쇄되였다. 그후 1461년에 우부승지 리석형 등에 의하여 초판에 남아있던 틀린 점이 어느 정도 바로잡혔다.

《력대병요》는 봉건통치를 무력으로 보장할 임무를 지닌 무관들의 군사, 전쟁에 관한 지식을 넓혀줄 목적에서 편찬되였는데 오래동안 무관들의 학습교재로, 무관시험과목의 하나로 리용되였다 .

이 책은 우리 나라에서 있은 23차례의 전쟁과 기원전 수십세기전에 있었다고 하는 중국의 전설적인물인 황제가 치우와 싸우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13세기 후반기 원나라가 일본을 침략한데 이르기까지 중국의 고대 및 봉건국가들이 진행한 230여차의 전쟁기록들을 실었다.

이 책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전적으로 조선의 전쟁사를 내용으로 한 《동국병감》이 발간된 조건에서 이《력대병요》의 편찬자들은 우리 나라의 전쟁기록은 되도록 함

축하여 두 책사이의 내용상 중복을 피하려고 하였다.

이 책은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전쟁사에 조선의 전쟁기록을 간단히 포함시킨 책이라고 볼수 있다.

《력대병요》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인 투쟁자료를 전해주는 귀중한 책이다.

이 책은 또한 매개 전쟁의 발단경위와 전쟁의 개시, 과정, 결과 등을 밝히고 해당 전쟁에 대한 비판적평가를 실었으며 봉건시기의 전쟁사와 그 당시 사람들의 전쟁, 군대, 전략전술에 관한 견해를 연구하는데도 일정한 참고로 된다.

《력대병요》는 그 체계와 내용, 서술방법에서 부족점들도 있다. 이 책에는 과거의 우리 나라의 전쟁을 서술하면서도 침략자들을 중심에 놓고 내용을 전개한 부분이 적지 않으며 또한 고조선인민들이 벌린 한나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비롯하여 기원전후시기부터 수백년간에 걸쳐 있었던 중요전투기록이 실려있지 않다.

다음으로 이 책은 황제, 왕, 장수 등 지배계급의 대표적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쟁에서의 인민대중의 역할과 중세기 조선과 중국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대규모적인 반봉건투쟁, 농민전쟁에 대하여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그리고 14세기말 외래침략자를 반대한 투쟁에서는 리성계의 역할을 과장하고 리왕조의 창시자를 우상화함으로써 리왕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리조실록》

리조봉건국가가 존재한 519년(1392년-1910년)동안의 사실들을 기록해놓은 력사책이다.

《리조실록》(1 763권)은 내용의 풍부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세계최대의 력사책의 하나로서 우리 인민의 가장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리조봉건국가의 정사(국가적으로 편찬된 력사책)인 《리조실록》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정사인 《삼국사기》(50권),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정사인 《고려사》(139권)가 기전체형식으로 서술된것과는 달리 일지형식으로 서술되여있다.

※ 기전체란

각 왕대별 년월일순서로 기록한 《본기》(《고려사》에서는 《세가》): 천문, 지리, 력서, 의례, 음악, 관직제도, 경제, 군사, 형벌 등 부문별로 서술한《지》: 개인들의 전기를 묶은 《렬전》;《년표》로 구성된것을 말한다.

《리조실록》에는 제1대왕인 태조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왕인 순종에 이르는 27대의 력사가 왕대별, 년월일순서로 기록되여있다.

《리조실록》에는 리조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에 관한 자료들뿐아니라 다른 력사책에서는 흔히 찾아볼수 없는 사상과 신앙, 륜리와 도덕생활에 관한 자료들;천문, 기상, 지리, 의학 등 자연현상들과 과학기술에 관한 자료들; 인민들의 생활풍속에 관한 자료들 등 각 분야의 력사자료들이 풍부히 실려있다.

《리조실록》에는 또한 중국과 몽골, 녀진 등 북방의 나라와 종족들, 일본, 대마도(쯔시마), 류구(류꾸) 그리고 멀리는 타이,쟈와(인도네시아), 만먀 등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물론 로씨야, 도이칠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방나라들과의 관계와 그 나라들의 력사관계자료들까지 실려있다.

먼저 정치관계자료에 대하여 보면 여기에는 봉건국가의 정책과 통치기구, 법질서와 관련한 문제, 봉건통치계급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의 력사를 비롯하여 넓은 범위의 내용을 포괄하고있다. 그중 법관계자료에 대하여 본다면《태조실록》에서《세종실록》까지 초기 4대실록 58년간의 기사가운데만도 4 900여건이나 실려있다.

그가운데서도 법기관들의 권리행사와 제기되는 사건처리, 형벌적용 등에 관한 기사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봉건지배계급이 인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억압, 구속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정치관계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는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계급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에 관한 기사이다. 《 선조（제14대왕）실록》의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기사들을 비롯하여 여러 왕대의 실록에는 일본침략자들의 침입을 쳐물리친 투쟁자료가 풍부하게 실려있다.

특히 근대에 와서 있은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자료들과 《셔먼》호사건을 비롯하여 미국침략자들의 침입을 쳐물리친 내용이 반영되여있다.

《 리조실록 》에는 1467년 함길도농민전쟁과 1811년-1812년 평안도농민전쟁, 1862년 전국적인 농민폭동과 1894년(갑오)농민전쟁 등 큰 규모의 투쟁에 대하여서는 물론 1446년 평양대성산농민폭동, 1483년-1491년 김막봉이 지휘한 재령농민폭동, 1559년-1562년 림꺽정농민무장대의 투쟁을 비롯하여 평양노비들의 감옥탈출사건, 남평노비들의 세금반대투쟁 등 많은 투쟁자료들이 실려있다. 경제, 군사, 외교, 과학, 문화관계자료들도 풍부하게 담겨져있다.

특히 경제관계자료들에는 18세기이후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한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실려있다.

《리조실록》에는 천문기상학, 의학, 지리학과 농업, 수공업, 광업기술 등 과학기술자료들도 풍부하게 실려있다. 천문기상관계자료만 보더라도 《세종실록》(1419년-1450년)에 무려 1 758건이나 실려있는데 특히 13세기-15세기에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던 력법리론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가장 대표적인 천문학저서인《칠정산》은 부록으로 8권에 걸쳐 실려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리 나라 력사지리연구의 귀중한 자료들이 실려있다. 그리고 예술부문의 자료로서는 음악, 무용, 회화, 조각, 각종 악기류에 대한 기사를 비롯하여 많은 내용이 실려있다.

특히 《세종실록》과 《세조（제７대왕）실록》에는 악곡집이 각각 8권, 12권이나 실려있다.

도덕, 풍습관계자료들도 다양하고 풍부한데 성종(제９대왕) 5년(1470년-1474년)동안의 기사에만도 969건이나 실려있다.

《리조실록》은 그 포괄범위가 넓을뿐아니라 중세기 국내외 다른 력사책들에 비하여 당대의 현실을 깊이있고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리조봉건통치계급이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기는 하지만 경제자료 특히 조세징수, 부역동원 등과 관련한 기사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

《리조실록》에서 자료의 구체성은 천문기상현상을 비롯한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비내림현상에 대한 기록만 보더라도 비가 내린 형태, 지속시간, 지역, 피해정도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일식과 월식을 비롯하여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과 화산분출, 지진, 해일,

이상기후현상 등에 대한 기록도 매우 구체적이다.

특히 1441년 세계최초로 발명된 철제측우기를 리용한 계통적인 강수량측정에 대한 자료와 《중종(제12대왕)실록》 14년(1519년) 6월 신미조에 실려있는 경주에서 관측한 극광에 대한 자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극광관측자료인데 매우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리조실록》의 자료들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객관성이 보장되여있다.

각 왕대실록은 국가적인 력사편찬기구인 춘추관이나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는데 그 책임자는 재상(대신)급 관리였으나 직접 력사자료를 다루고 편찬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낮은급 관리인 사관(력사기록관)들이였다. 사관들에게는 취재활동에서 특권과《사실대로》쓸 권한 그리고 력사편찬자료의 비밀을 보장받는것이 전통적인 관례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력사기록이 국왕이나 통치계급의 리익에 조금이라도 저촉될 때에는 그들의 활동을 각방으로 저해하였으며 지어 그들을 사형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므로 력사적사건들을 사실대로 쓴다는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사실대로 쓸 권한이 보장되였다고 할지라도 사관들자체의 계급적 립장과 력사관, 능력 등에서 제한성이 있었으므로 사실그대로 쓰일수 없었다.

특히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어용사가들과 친일주구들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찬하게 한것이므로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실록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매 왕대의 실록은 각각 4부씩 인쇄되여 서울 춘추관의 실록각과 충주, 성주, 전주에 있는 사고(실록보관창고)들에 보관되였다.

임진조국전쟁때 다른 사고들에 보관되여있던 실록들은 없어지고 전주사고에 있던것이 현재 묘향산에 옮겨 보관되였다. 전후 1603년에 다시 3부 인쇄되여 전주본은 강화도 정족산에, 새로 인쇄된것은 춘추관과 강원도 태백산, 전라북도 적성산에, 교정본은 강원도 오대산에 보관되였다. 그중 춘추관본은 화재로 하여 없어지고 오대산본은 일제에게 략탈당하여 일본으로 옮겨졌다가 간또대지진때 불타버렸다. 《리조실록》은 매우 귀중한 력사책이지만 지난날 널리 리용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귀중한 《리조실록》을 잘 보관하고 학자들이 널리 리용할수 있도록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쟁의 불길속에서 《리조실록》을 구출해오도록 하시고 영구보존대책까지 세워주시였으며 그후 그것을 번역하고 연구정리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리조실록》번역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1981년까지 끝났으며 뒤이어 400책으로 된 번역본 (복각본 합본)이 모두 출판되였다.

《리충무공전서》

애국명장 리순신(시호 충무, 1545년-1598년)의 저술과 그에 관한 후세사람들의 시문들을 실은 책이다.

1795년에 리조봉건정부의 위임으로 윤행임이 이 책을 14권으로 편찬하였다. 그후 이 책은 여러번 간행되였다. 여러차례의 간행과정에 판본들사이에는 그 편목과 내용에서 약간씩 차이가 생겼으나 판본들모두가 대체로 리순신의 군무수행정형과 전투결과를 봉건정부에 보고한 장계와 장달, 그가 임진조국전쟁기간에 쓴《란중일기》

와 약간의 시문들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또한 판본들의 첫머리에는 거북선을 비롯한 군기의 그림과 설명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그의 행장을 비롯한 부록이 있다.

장계와 장달은 리순신이 직접 조직진행한 전투의 결과와 적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군무수행정형 등을 국왕과 왕세자에게 보고한것이다. 이 보고서들은 당시 주요한 해전들을 직접 조직지휘한 리순신이 쓴것들인것만큼 임진조국전쟁시기 수군의 투쟁과 이 전쟁의 전반적형편을 사실그대로 리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된다.

일기는 전쟁 첫해인 1592년 1월 1일부터 마지막해인 1598년 11월 17일까지의것이 있는데 당시의 상황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책에는 리순신의 시조와 한자시 몇수가 있고 편지를 비롯한 몇편의 글도 있다.

리순신의 몇편의 시문을 가지고도 당시 부패타락한 일반량반들에게서는 볼수 없었던 그의 애국심과 일본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서 그가 남긴 공적을 넉넉히 엿볼수 있다. 부록에는 후세사람들이 리순신의 경력과 업적에 대하여 쓴 행장과 그의 가계와 년보 등이 들어있다.

이 책을 통하여 리순신장군의 애국적인 활동과 뛰여난 전략전술 그리고 그가 세운 공훈뿐만아니라 일본침략자들의 략탈만행자료들이 많아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일본침략자들의 악랄성과 교활성도 잘 알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리순신의 사상이 결코 지배계급의 립장에서 벗어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으로는 될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주는 내용 다시말하여 그의 계급적제한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갈피갈피에 있으며 봉건유교도덕에 기초한 충군사상과 관료들의 사생활 및 허황한 꿈에 대한 관념론적해석을 단 대목들이 적지 않다.

《림원16지》

리조말기의 봉건관료 서유구(호는 풍석, 1764년-1845년)가 봉건사회의 경제와 문화에 관한 각종 문헌자료들을 부문별로 113권에 정리하여놓은 책이다.

경제 및 문화부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던 저자는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우선 정치를 잘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특히는 가난한 선비들이 다 농업, 공업, 상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참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필요로 하여 《림원16지》를 쓴다고 하였다.

이 책은 책이름자체가 보여주듯이 다음과 같은 16개의 《지》로 구성되여있다.

1.	본리지 (13권)	낟알농사에 관한 책
2.	관규지 (4권)	남새, 약초가꾸기에 관한 책
3.	예원지 (5권)	화초가꾸기에 관한 책
4.	만학지 (5권)	관수, 산림가꾸기에 관한 책
5.	전공지 (3권)	천생산에 관한 책
6.	위선지 (4권)	기후, 흉풍의 예측에 관한 책
7.	전어지 (4권)	목축과 양어, 사냥, 고기잡이에 관한 책
8.	정조지 (5권)	료리법에 관한 책
9.	섬용지 (14권)	건축 및 수공업에 관한 책
10.	보양지 (8권)	위생에 관한 책
11.	인제지 (28권)	의학에 관한 책
12.	향례지 (5권)	향촌례식에 관한 책
13.	유예지 (6권)	기예에 관한 책

14. 이운지 (3권) 서재생활에 관한 책
15. 상택지 (2권) 집터잡기에 관한 책
16. 예규지 (4권) 재물모으기에 관한 책

매개 지에서는 다시 여러 항목들을 설정하고 내용을 전개하였다.

16지의 내용전반에서 반영된 긍정적측면을 보면 우선 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저자의 견해이다.

저자는 농업과 상업의 발전여부는 중요하게 수공업의 발전여하에 달려있다고 여러번 강조하고 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금, 은 , 동, 철, 석탄을 캐서 써야 한다고 썼다. 또한 이 책에서 진보적인 측면은 실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것이다. 저자는 공리공담을 일삼거나 놀고먹는 타락한 량반생활을 비판하면서《우리 나라 량반들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자기 가문의 10대이내의 조상가운데서 벼슬한 사람이 한명만 있으면 자기는 골재주도 없으면서 농쟁기를 손에 대지도 않고 문벌만 팔면서 수공업과 상업에 대해서 말하는것조차 수치로 여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저자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을 급선무로 삼는 실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가난하고《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동반하는 그러한 치부방법을 많은 면에서 소개선전하였으며 종을 팔고사고 부리는 교활한 방법, 집자리를 잡는 미신적방법 등도 여러 항목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부족점들을 비판적으로 본다면 《림원16지》는 중세기의 경제와 문화를 연구하는데서 좋은 자료로 리용될수 있다.

《매월당집》

15세기의 이름있는 작가이며 학자였던 김시습(호는 매월당, 1435년-1493년)의 개인문집이다.

봉건량반출신인 김시습은 1455년 세조가 자기 조카인 단종을 비렬한 방법으로 몰아내고 임금자리에 오른것과 관련하여 벼슬을 단념하고 방랑생활을 하면서 시와 소설창작을 주로 하였다.

이 책은 1582년 교서관에서 처음으로 출판되고 그후 지방에서도 출판되였다.

《매월당집》은 시집, 문집, 부록으로 구성되여있는데 1582년본은 17권 9책이다.

그후의 판본들가운데는 23권 6책으로 된것도 있다.

시집에는 주로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노래한것, 당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것, 량반통치배들의 포악한 착취적본성을 폭로한것, 저자의 외롭고 불우한 생활처지를 하소연한 시편들이 들어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매월당집》에는 당시의 사회적모순을 폭로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동정하며 조국의 자연과 력사에 대하여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노래한, 문학사적으로 의의있는 시편들이 실려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시로는 《산골백성들의 고생》, 《배를 타고》 등을 례들수 있다.《매월당집》에는 또한 당시의 사회정치생활을 리해하거나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료들도 실려있다. 인재의 등용에서의 《평등사상》을 제기한 《인재설》, 정치에서의 《민본사상》을 주장한것 등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인것이였다.

《매월당집》에는 불교와 도교를 반대한 무신론적내용들과 작품창작에서의 내용의 우위성을 강조한 미학사상도 부분적으로 실려있다. 이와 같이《매월당집》은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견해를 비롯하여 일련의 긍정적인 견해를 담고있다. 그러나 저자

의 계급성과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으로 하여 몇가지 결함도 가지고있다.

우선 책에는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적극 옹호한 표현, 복고주의적 및 사대주의적 표현들이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관념론적인 륜리도덕관이 설교되는 현실도피적이며 염세주의적사상감정이 반영되고있다.

《매월당집》은 이러한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15세기 사회정치생활과 력사와 철학 특히 그 시기의 한문문학유산연구에 일정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가치있는 책으로 된다.

《반계수록》

17세기의 이름난 실학자 류형원(호는 반계, 1622년-1673년)의 글들을 실은 대표적인 도서의 하나이다.

《반계수록》은 1737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였고 1769년, 1770년에 재판되여 널리 보급되였다. 전부 26권으로 되여있다.

류형원은 량반지배계급출신의 선비였지만 벼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고향인 전라도 부안군에서 살면서 일생을 학문연구로 보냈다. 민간에 있으면서 당시 날로 심화되여가는 사회정치적모순을 체험할수 있었던 저자는 임진조국전쟁과 《병자호란》이후 리조봉건국가의 토지제도, 군사제도 등 모든 분야가 극도로 문란하여진 당시의 실태를 반영하여 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개정안을 체계성있게 서술하였는데 그것이 《반계수록》에 담겨져있다.

제1권부터 제8권까지에는 당시의 토지제도와 그와 관련되는 호적, 조세, 운수, 수리, 화페, 시장, 환자법 등에 관한 개혁안이 실려있는데 이 부분이 책의 중심부분으로 되고있다.

제9권부터 제12권까지에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에 관한 개혁안이, 제13권부터 제18권까지에는 관리의 추천, 임명, 상벌, 봉건국가의 중앙 및 지방관리에 관한 개혁안이, 제19권과 제20권에는 봉건관리들의 록봉제도에 관한 개혁안이,제21권과 제22권에는 군사제도와 그와 관련되는 성지, 전차, 군마, 부역제도에 관한 개혁안이 서술되여있으며 제23권과 제24권은 《병제고설》과 《병제후록고설》로 되여있다.

《속편》뒤에는 부록으로 상소문 2편이 실려있고 책 앞편에는 서문 2편과 총목이 있다.

책뒤에는 저자의 략전과 행장이 붙어있다.

이와 같이《반계수록》에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일련의 견해들이 반영되여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의 하나는 토지제도를 바로잡는것을 사회정치적문제해결의 기본열쇠로 보고 나라의 모든 토지를 공전으로 만들고 다시 나누어줄것을 주장한것이다.

이밖에도《반계수록》에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수공업과 상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견해, 봉건적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진보적인 견해 등이 반영되여있다. 이러한 진보적인 측면들과 함께 이 책에는 시대적제한성과 저자의 계급적립장으로 하여 본질적약점들도 있다.

그것은 우선 제반제도를 고칠데 대한 견해를 사대주의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제기한것이며 그 바탕에는 복고주의사상이 진하게 깔려있는것이다. 또한 저자가 제기한 공전제는 본질에 있어서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봉건통치제도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반계수록》은 그 내용의 풍부성과 사료적가치로

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사, 정치제도사, 경제사상사 등의 연구와 실학자들의 사회정치적견해를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

《산림경제》

18세기의 봉건량반관료출신의 실학자 홍만선이 우리 나라의 농업관계책들인《농사직설》, 《금양잡록》, 《양화소록》, 《색경》, 《지봉류설》 등을 비롯한 많은 책들과 다른 나라의 책들을 참고하여 쓴 농학책이다. 모두 4권인데《복기》,《섭생》, 《종수》, 《치선》, 《치포》, 《목양》, 《양잠》, 《양화》, 《치약》, 《구급》, 《구황》 등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여있다.

이 책에는 농산, 축산, 과수, 원예, 양잠, 의약, 식료가공 등의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15종의 알곡과 18종의 남새재배법, 9종의 집짐승의 성질과 그것들을 기르는 법, 병을 고치는 법, 200여종의 생약재료, 여러가지 병치료법들이 실려있다.

이 책은 농촌의 량반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리해관계와 생활조건, 생활수준에 맞게 글을 서술하였으며 또한 씨앗고르기, 씨뿌리기, 밭갈이 등 농사일과 장담그기, 술빚기, 집자리정하기 등의 면에서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있다.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는 있지만《산림경제》는 당시 농학,의학,약학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한것으로 하여 그 분야의 발전면모를 연구하는데서 참고로 된다.

《성호새설류선》

중세기의 천문, 지리, 철학, 력사, 정치, 경제, 군사, 풍속, 문학 등 여러 분야의 내용을 계적으로 묶어 10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저자 리익(호는 성호, 1681년-1763년)은 주로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실학자이며 편찬자 안정복(호는 순암)은 리익의 제자인데 특히 력사연구에 조예가 깊은 실학자이다. 안정복은 리익의《성호새설》을 다시 정리하여 1762년에 《성호새설류선》이라는 제목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은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1915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였다.

이 책의 천지편(제1권)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는 종래의 천원지방설을 반대하고 저자가 주장한 땅이 둥글다는 기구설, 하늘이 도는것이 아니라 땅이 돈다는 지전설 등이 들어있다. 그밖에 천문현상, 지각의 변동, 기후현상에 대한것 그리고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의 령역을 고증한 력사지리문제와 정상기의《동국지도》에 대한 소개 등이 들어있다.

인사편(제2권－제5권)에는 봉건유교도덕의 기본을 이루는 3강5륜에 대한 기록을 비롯하여 저자의 일련의 사회정치적견해가 있고《성선설》과《격물치지》에 대한 글 특히 우리 나라 해부학의 력사를 보여주는 자료도 있다.

경사편(제6권－제10권 상)에는 중국의 유교경전과 력사책에 대한 론의내용이 많으며 특히 독도문제로 일본에까지 갔다온 안룡복의 업적과 리순신장군의 공로 등에 대한 기록도 있다.

만물편(제10권 중)에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단편적인 견해가, 시문편(제10권 하)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의 문학작품을 읽는 과정에 느낀 내용을 적은 글들이 들어있다.

《성호새설류선》의 가치는 당시 우리 나라 자연과학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자료가 풍부하고 우리 나라 중세기의 진보적인 철학적견해를 비교적 잘 보여준데 있다.

또한 그 가치는 악법을 고쳐야 한다는 저자의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견해를 담고 있는데 있다.

《성호새설류선》에는 이와 같은 긍정적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저자자신의 사상적,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한《충군》사상이 전면에 나서고있고 봉건국가와 봉건통치계급의 리익을 내용전반에 반영하고있는 부정적측면도 있다.

또한 이 책에는 경제개혁에 대한 주장에서 저자의 보수성이 반영되여있고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내용도 적지 않게 반영되여있다.

이러한 부정적측면들을 가지고는 있으나《성호새설류선》은 당시 우리 나라의 사상조류와 사회경제관계를 연구하는데서 참고자료로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에 봉건관리 리행 등이 55권으로 편찬한 우리 나라 지리에 관한 백과전서적인 책이다.

리조봉건국가는 수탈원천을 확보하고 국방을 강화하며 봉건적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행정지역별로 되는 정확한 전국지리지의 편찬사업을 추진시켜왔다.

전국적인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1424년에 변계량이 각도 지리지를 편찬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1432년에는 맹사성 등이 《팔도지리지》를 만들었다.

1454년에는 《팔도지리지》에 수정을 가하여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되였다.

1468년에 제2차로 진행된 조사에 기초하여 1477년에 《신찬지리지》가 편찬되였는데 1478년에 《동문선》이 편찬되자 로사신, 량성지 등이 중심이 되여《동문선》의 시문들을《신찬지리지》의 해당 군현들의 항목에 덧붙여 1481년에 《동국여지승람》(50권)을 편찬하였다.

그후 1485년에 김종직 등이 이것을 수정보충하여 55권으로 출판하였고 1499년에 성현 등이 다시 수정하여 출판하였으며 1530년에 리행 등이 그동안의 변천된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여 완성한것이 바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책의 구성을 보면 첫머리에 머리말과 8도총도(조선지도)를 준 다음 전국을 경도（제1권, 제2권）, 한성부（제3권）, 개경부（제4권, 제5권）, 경기（제6권－제13권）, 충청도（제14권－제20권）, 경상도（제21권－제32권）, 전라도 (제33권－제40권）, 황해도（제41권－제43권）, 강원도（제44권－제47권）, 함경도（제48권－제50권）, 평안도（제51권－제55권）의 차례로 되여있다.

각 도편에서는 도의 총론적인 서술을 한 다음 군현별로 설치연혁, 군명, 성씨, 풍속, 경승, 산천, 토산, 성곽, 관방봉수, 학교, 루정, 역원, 불우（절간）, 사당, 릉묘, 고적, 명관（이름난 관리）, 인물, 효자, 렬녀, 제영（시와 글）등 20여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내용을 주었다. 이 책은 선행시기의 지리학의 성과들을 종합하고 총화하여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지리학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책에서 밝힌 각 도와 고을의 력사지리적연혁의 내용들은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연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토산과 풍속에 밝혀져있는 자료들은 16세기 해당 고을들의 경제형편과 지방적특징들을 밝히는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기 례주를 비롯한 각 고을의 고적조에 밝혀진 향, 소, 부곡, 장, 처 등에 관한 자료들은 세나라시기이래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향, 소, 부곡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된다.

또한 이 책의 제1권과 제2권에 실린 흠경각, 보루각, 간의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15세기 우리 나라 자연과학기술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며 기타

《경승》, 《산천》, 《고적》에 인용된 수많은 시와 산문, 전설 등에는 문집이 없어진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실려있어 중세문학사의 연구에 가치있는 자료로 된다.

그밖에도 봉수, 성곽, 관방, 진과 영 등 당시의 군사관계연구에 필요한 자료들과 언어학연구에 참고로 되는 자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봉건량반지배계급의 략탈적요구와 그 기호에 맞게 도식적이며 사실라렬식으로 편찬되였고 선행시기에 만들어진 《８도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들에 담겨있는 풍부한 현실적인 사회경제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줄어든 반면에 봉건지배층이 술이나 마시고 자연을 노래한 시들이 많이 첨가되였다. 또한 이 책에는 여러 항목들이 봉건지배계급출신의 량반관료학자들을 소개선전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고 봉건유교사상과 관련된 종교미신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이 책에는 사대주의적사상독소도 적지 않게 담겨져있다.

이러한 결함들이 있으나《신증동국여지승람》은 앞선 시기의 지리지편찬의 성과들을 총화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내용의 풍부성과 방대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지리학사, 문학사전반에 대한 연구에서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증보문헌비고》

우리 나라 고대, 중세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제도를 부문별로 나누고 다시 항목별로 그리고 년대순으로 나누어 정리한 일종의 사전이다. 모두 250권 50책이다. 이 책은 1770년에 처음으로 신경준 등에 의하여 《동국문헌비고》(100권, 40책)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고 그후 여러차례 보충되여오다가 1903년-1907년에 최종적으로 보충편집되고 1908년에 《증보문헌비고》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였다.

편찬자는 박용대를 비롯한 관료학자들이였다.

1965년-1969년에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제126권까지를 ３분책으로 복각하였다.

이 책은 《상위고》(제１권－제12권), 《여지고》(제13권-제39권), 《제계고》(제40권－제53권), 《례고》(제54권－제89권), 《악고》(제90권－제108권), 《전부고》(제141권－제153권), 《재용고》(제154권－제160권), 《호구고》(제161권, 제162권), 《시적고》(제163권－제170권), 《교빙고》(제171권－제183권), 《선거고》(제184권－제201권), 《학교고》(제202권－제213권), 《직관고》(제214권－제241권), 《예문고》(제242권－제250권)의 16개 항목으로 되여있다.

《증보문헌비고》가 담고있는 내용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즉 중세기 우리 나라의 여러가지 제도와 사건, 문물과 함께 특수한 자연현상까지도 부문별, 년대순으로 소개되였다. 례컨대 천문, 기상을 비롯한 자연현상들이 전문서적에 비하여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며 지리적내용도 매우 포괄적이고 자세하다.

경제관계기록과 관제에 관한 기록들은 단순한 사전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기본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것이 적지 않다.

《악고》에 소개된 우리 나라 악기, 악곡, 가사는 음악사연구를 위한 사료로 된다.

또한 이 책에는 고려시기에는 리조시기와는 달리 량반사대부들까지도 군인으로 징모되였다는 사실을 밝힌것을 비롯하여 리조시기 군사력이 약화된 원인에 대하여 전하는 기사들이 실려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결함들도 많다.

저자의 사대주의적관점으로 말미암아 《기자동래설》을 날조한 내외의 기록들이

무비판적으로 거의다 소개되고있는 등 력사를 외곡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또한 봉건유교사상이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소개되여있으며 미신적관념에 기초한 비과학적인 내용도 적지 않게 서술되여있다. 이밖에도 서술, 편찬에서 불충분하고 미미한 부분들이 있다.

《증보문헌비고》는 이러한 결함들이 있으나 담고있는 다방면적이고 포괄적인 사료들로 하여 우리 나라의 귀중한 민족고전문헌의 하나로 되고있다.

《지봉류설》

16세기말-17세기초의 실학자 리수광(호는 지봉, 1563년-1628년)의 저서이다. 1614년에 완성되였으며 모두 20권 10책으로 되여있다.

이 책은 저자가 관료생활을 할 때 보고 듣고 체험한것들과 책을 읽는 과정에 느낀것들을 실은 책이다.

저자는 348종의 저서, 2 265명의 봉건관리, 학자들의 글에서 정치제도사와 문화사적으로 특기할만 한것이라고 생각되는것들을 고르고 거기에 천문, 지리, 자연, 동식물과 외국에 대한 소개까지 첨부하여 모두 25개의 부로 나눈 다음 부를 다시 182개의 항목으로, 이 항목을 또 3 400여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달았다. 이 책은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여놓은것이므로《류설》로, 거기에 저자의 호가 붙어 《지봉류설》로 불리우게 되였다.

책의 내용구성을 보면 제1권은 천문부, 시령부, 재이부, 제2권은 지리부, 제국부, 제3권은 군도부, 병정부, 제4권은 관적부, 제5권은 유도부, 정서부, 제6권은 경서부, 제7권은 문자부, 제8권－제14권은 문장부, 제15권은 인물부, 성행부, 신형부, 제16권은 어언부, 제17권은 인사부, 잡사부, 제18권은 기예부, 외도부, 제19권은 궁실부, 복용부, 음식물부, 제20권은 훼목부, 금충부로 되여있다.

《지봉류설》에는 당시에 잘 알려져있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이 소개되여있고 제도변경에 대한 주장에서도 일정하게 평가할만 한 점이 있다. 우선 이 책에는 고조선시기 랴오둥의 위치와 고구려 안시성의 위치에 대한 서술자료 등 력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

다음으로 이 책에는 국방력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군사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선진적인 견해가 반영되여있다. 저자는 국왕이 사는 궁궐은 인민들을 학살하는 곳 즉 《편형지》라고 지적하였으며 량반벼슬아치들의 자식들이 공부하는 독서당을 《독사당》이라고 하면서 봉건통치배들의 억압착취와 비법적인 행위를 신랄히 폭로비판하였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인재등용에 대한 자기의 견해, 우리 나라 문학예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중국, 일본, 녀진, 몽골, 류뀨와 같은 다른 나라들과 그 서쪽, 남쪽 여러 나라들의 사정에 대한 자료들이 반영되여있어 초기 실학을 대표하는 저서로 된다.

그러나 《지봉류설》은 봉건유교사상과 그에 기초한 사대주의사상을 소개선전하고 미신적인 음양오행설을 신비화하였으며 지배계급의 리익을 대변하여 사물현상을 판단하고 인민들에게 순종을 설교한것 등의 제한성과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징비록》

임진조국전쟁때 리조봉건정부의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문제의 처리를 직접 담당하였던 류성룡(호는 서애, 1542년－1607년)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체험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1592년부터 17세기초까지 서술한 전쟁기록이다.

《징비록》은 저자가 죽은 후 30여년이 지난 1643년-1644년에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출판되였고 그후에도 여러차례 출판되였다. 과학원출판사에서는 1960년에 그것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출판하였다. 《징비록》은 모두 16권 8책으로 되여있으며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책의 첫머리에는 저자의 간단한 머리글이 있고 내용구성상 첫 부분(제1권, 제2권)에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전쟁과정이 총괄적으로 서술되여있다.

저자는 전쟁과정의 주요사건과 복잡한 군사외교적문제들을 개괄하면서 전쟁의 경험과 교훈을 자기의 견해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리순신장군의 경력과 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썼다.

책의 둘째 부분(제3권－제16권)에는 국왕에게 제출된 건의서, 보고문들과 지방관청과 군문들에 보낸 공문 등 각종 문건들이 실려있다.

그중 제3권부터 제5권까지는《근폭집》으로서 국왕에게 제출된 군사, 경제, 사회정책에 대한 의견을 쓴 문건들이, 그다음 제6권부터, 제14권까지는 《진사록》으로서 전쟁개시후 첫 두해에 저자가 임무수행과 관련되는 문의사항, 집행정형, 적정에 관한 정보 등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복명한 문건들이 날자별로 실려있다. 임진년(1592년)과 계사년(1593년)을 포괄한다는 뜻에서 제6권부터 제14권까지를《진사록》이라고 하였으나 거기에는 1594년이후의 문건도 20여건 들어있다.

제15권, 제16권은《군무등록》으로서 지방군개편을 중심으로 한 군대편제와 관련된 문제들, 군사규률과 질서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실었다.

이 책의 셋째부분은《록후잡기》라고 이름을 단 잡록 한편으로서 저자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교훈, 일화들, 외교관계에서의 리면 등을 서술한것이다. 임진조국전쟁을 개괄한 책으로서는《징비록》이 가장 잘된 책이다. 사료적가치도 이 책에 견줄만 한것이 없다.

《징비록》은 방대한 자료를 년월일순으로 잘 정리하여 싣고 전쟁시기의 중요국가적시책과 일화들까지도 실은것으로 하여 당시의 정세와 분위기를 리해하는데 좋은 자료로 된다.

또한《징비록》에는 사물에 대한 고찰과 분석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씌여있고 봉건통치배들내부의 부패한 진상도 어느 정도 비판적립장에서 폭로되여있다.

《징비록》은 이와 같은 사료적가치를 가지고있으나 많은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이 책은 철저하게 통치계급의 립장에서 봉건유교사상에 립각하여 씌여졌으며 명나라를 사실과 맞지 않게 추어올리고 우리 나라를 근거없이 낮추는 사대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또한 동인파에 속하였던 저자가 당파적편견에서 사물을 고찰하고 평가한 그릇된 립장도 나타냈다.

《칠정산》（내편，외편）

《칠정산》（내편, 외편）은 13세기-15세기에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던 력법리론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가장 대표적인 천문학저서이다.

내편은 정흠지（1378년－1437년）, 정초(?-1434년), 정린지（1396년－1478년）등이 그리고 외편은 리순지(?-1465년), 김담(1416년－1464년) 등이 편찬한것이다.

칠정이란 해, 달, 5성(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한다.

《칠정산》은 당시 우리 나라의 력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력서제작법만이 아니라 천체들의 위치와 운동에 관한 리론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책이다.

자연경제가 지배하던 봉건사회에서 정확한 력서를 만드는 일은 인민들의 농업생

산과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였다.

그러나 당시 사실과 잘 맞는 력서를 만든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고 또 당시 중국의 력서를 그대로 쓰고있던 사정은 우리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부족점들을 초래케 하였다.

이러한 부족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나라 학자들의 손으로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 력서를 만들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한것이 곧 《칠정산》이다.

《칠정산》의 저술자들은 1433년에 편찬에 착수하여 10년만인 1442년에 책을 완성하였다.

《칠정산》의 내편은 우리 나라에서 직접 실시하기 위한 력법으로서 편찬되였으며 외편은 과학기술적토대를 더욱 확고히 해주며 천문 및 력법연구의 참고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였다.

《칠정산》의 내편에서는 첫머리에 간단한 서문과 력서계산에 필요한 천문산수들의 값 67개를 주고 다음에 7개의 주요 장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상권	제1	력일
중권	제2	태양
	제3	태음
	제4	중성
하권	제5	교식
	제6	5성
	제7	4여성

서문에는 이 책 편찬자들이 국내외의 모든 문헌들을 참고하여 그 우결함을 분석하면서 력서의 깊은 리치를 해명하였다는것 등이 밝혀져있고 그다음에는 력서의 원기 즉 력계산의 기준순간을 1280년으로 취하였다는것과 1년의 길이가 오랜 기간에 변동하는 값이 있다.

다음에 서술된 67개의 천문상수부분에는 천구상의 각도에 대한 상수 5개, 태양과 관련된 상수 25개, 달과 관련된 상수 29개, 월식과 일식에 관련된 상수 8개가 들어있다.

《력일》에는 주로 24절기가 드는 순간과 삭(초하루)이 되는 순간을 결정하는 방법이 서술되여있다.

《태양》에는 태양의 매일 시운동(눈에 보이는 대로의 운동)과 그 위치에 대한 세밀한 계산이, 《태음》에는 달의 운동과 위치의 계산방법이 서술되여있다.

《중성》에는 한성에서의 낮과 밤의 길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결정하는 방법이, 《교식》에는 일식과 월식을 예보하는 리론이 서술되여있다.

《5성》에는 다섯개의 행성의 위치와 운동에 관한 리론이, 《4여성》에는 4개의 특수한 별이라고 인정되는 자기, 월패, 라후, 게도들의 운동과 그 위치가 서술되여있다.

《칠정산》 내편은 우리 나라 력법의 체계를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킨 15세기의 대표적인 천문학저서로서 당시의 우리 나라 천문학발전수준을 잘 보여준다.

이 내편리론에 따라 만들어진 력은 그후 오래동안 쓰이였으며 17세기 후반기에 시헌력이 나온 다음에도 리조말기까지 계속 쓰이였다.

《칠정산》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법》리론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를 중심으

로 계산을 진행하여놓은 천문학저서이다.

외편의 첫머리에는 력계산에 필요한 상수들이 있고 기본내용은 상권, 중권, 하권의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상권	제1	태양
	제2	태음
중권	제3	교식
하권	제4	5성
	제5	태음5성릉범

《태양》에서는 태양의 황경을 산출하는 리론을 소개하면서 원기로부터 경과할 년월일에 대한 태양의 위치표를 주었다.

《태음》에서는 달의 황경과 황위를 결정하는 리론을 전개하였다.

《교식》은 일식과 월식의 예보리론에 관한것인데 여기서 《5성》은 매개 행성들의 임의시각의 황경을 결정하는 방법을 서술하였다.

《태음5성릉범》에서는 달이나 행성들이 별을 가리거나 그것에 접근하는 현상 즉 달과 행성에 의한 행성의 식과 접근현상에 대한 리론을 서술하였고 이에 필요한 수표로서 황도부근의 278개의 주요 항성들의 위치표를 주었다.

이와 같이《칠정산》외편은 순태음력체계로서 절기의 개념이 없이 음력달에 따라 1년을 12개월로 하였다.《칠정산》은 15세기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택리지》

18세기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인 리중환이 쓴 우리 나라의 최초의 경제지리지이다.

모두 4권으로 되여있다.

리중환(호는 청화산인, 1690년-1753년)은 량반출신 유학자로서 병조좌랑의 벼슬을 지낸 봉건관리였으나 일찌기 벼슬을 그만두고 지방에서 살면서 국내각지를 널리 유람하였는데 이 과정에 보고 들은것에 기초하여 1753년 즉 생의 말년에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널리 퍼져서 내려오는 과정에《팔역지》,《산수록》,《진유승람》,《총화》,《박종지》등 여러가지 제목으로 불리우면서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1912년에 《택리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였다.

이 책에는 18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 주민, 문화, 력사, 지리에 대한 내용들이 씌여져있다.

책의 첫머리에는 1753년에 정언유가 쓴 서문이 있고 그 뒤부분은 4민총론, 8도총론, 복거총론, 총론의 편목으로 되여있다.

4민총론에서는 4민(선비, 농민, 수공업자, 상인)의 발생발전과 그 특징을 지리적조건과 결부하여 서술하였으며 사대부가 생기게 된 원인을 썼다.

8도총론에서는 우리 나라의 위치와 크기, 8도의 위치 및 연혁 등에 대하여 썼으며 평안도로부터 경기도에 이르기까지의 각 도별 서술에서는 자연, 력사, 지리, 경제, 문화, 주민, 풍속 등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복거총론에서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의 소항목을 설정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고르는데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서술하면서 대체로 살만 한 곳을 고를 때에는 먼저 자리를 보고 다음에 생리(물산)를 보며 그다음에는 인심을 보고 또 산과 물을 보

아야 하는데 이 넷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였다.

총론에서는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에 대하여 썼는데 우리 나라에서의 성씨의 유래와 리조봉건사회의 복잡한 신분층의 구별을 보여주고 리조중엽이후 발생한 당파싸움이 마침내 서로 반대파를 살륙하는데까지 이르게 된 조건에서 사대부들이 살만 한 곳을 알려주기 위하여 글을 쓴다고 하였다.

《택리지》는 봉건시기 우리 나라의 첫 경제지리지로서 우리 나라의 지리학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 책에는 저자의 실사구시적인 태도가 반영되여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지배계급의 리익을 대변한 저자의 계급적립장이 반영되여있으며 또한 풍수지리적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지리적환경을 절대화한 결함이 있다.

또한 사대주의적표현도 적지 않다.

《평양지》

평양의 자연, 경제, 문화, 력사 등에 대한 자료를 묶어놓은 9권으로 된 지방지이다.

편찬자는 평안도 관찰사 겸 평양부윤을 지낸 대봉건관료 윤두수(1533년—1601년)이다.

그는 평안도 관찰사로 있는 동안 평양에서 조사수집한 자료들과 《삼국사기》, 《후한서》 등 16종의 국내외 력사책들에서 평양과 관련된 자료들을 뽑아묶어서 1590년에 《평양지》를 편찬출판하였다.

《평양지》는 총 34개의 항목으로 되여있는데 그것들은 크게 평양의 력사, 자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인물 그리고 사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여있다.

력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평양이 단군이 도읍하였던 곳이라는 전설로부터 리조초기까지의 평양의 정치적변천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자연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평양의 지리적위치, 산천과 명승고적들을, 정치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평안감영과 평양부의 통치기구와 관리구성, 평양부의 행정구역에 대한 자료들을 실었다.

경제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평양부의 국가창고, 토산물, 경지면적, 호구, 중앙관청에 바치던 공물품종과 수량 등을,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평양지방의 풍속, 고적, 교육제도, 시문 등을, 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평양부의 군인수, 봉수, 역참 등을 소개하였다.

인물로서는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들과 《효자》, 《렬녀》, 과거합격자들을 소개하고 《신기한 사실》로서는 괴이한 자연현상들을 미신적각도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주었다.

《평양지》에는 16세기이전의 평양과 당시의 사회경제실태를 연구하는데 참고할만 한 자료들이 적지 않게 실려있다.

《평양지》의 가치는 우선 평양의 력사와 문화유물, 16세기말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일대의 사회경제실태의 일부를 반영하였으므로 지난날의 력사연구에 도움이 된다는데 있다.

이 책의 가치는 또한 서지적측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평양지》는 그 항목설정에서나 내용전개에서 지방지로서의 독자적인 형식을 갖추고있으며 개별적인 지방지로서는 가장 최초에 편찬된것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평양지는 후날 거의 모든 고을들에서 저마다 만든 읍지들의 편찬에서 일정한 표준으로 되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평양지》에는 저자의 계급적제약성과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부정적측면들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리조봉건통치제도를 미화분식하고 강화하려는 지배계급의 계급적립장과 봉건유교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는것이며 둘째로, 사대주의적립장으로부터 허황한《기자동래설》과 관련된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올리고있는것이며 셋째로, 미신적이며 비과학적인 자료들도 일부 들어있는것이다.

또한 《평양지》에는 고을의 형편에 대한 기사보다도 한가한 선비들이 심심풀이로 지은 별로 가치없는 시편들이 많다.

《향약집성방》

15세기 초엽까지 우리 나라에서 달성한 고려약의 연구업적과 국내산약재로 병을 치료한 경험을 종합한 고려의학의 림상전서이다.

로중례, 유효통, 박윤덕 등이 1431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433년에 85권으로 편찬출판하였다.

《동의보감》, 《의방류취》와 함께 우리 나라 고려의학고전의 하나이다.

이 책은 1478년, 1633년, 1944년에 다시 출판되였다.

1962년에는 의학출판사에서 번역출판하였고 1983년-1986년에는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 다시 번역하고 주해를 달아 원문과 함께 5분책으로 묶어서 출판하였다.

《향약집성방》은 《림상치료편》(제1권-제75권)과《동약학편》(제76권-제85권)으로 구성되여있는데 《림상치료편》에서는 외과, 부인과, 소아과 등 각 과에 해당한 모든 질병들을 54문에 959개의 병증으로 나누고 병증에 따르는 원인, 증상을 밝혔다.

그다음 치료처방과 민간료법을 주었는데 그 수는 약 10 700여개의 처방과 1 500종에 가까운 침, 뜸치료법이다.

그리고 병치료에 쓰이는 수많은 고려약처방가운데서도 주로 우리 나라에서 나는 약초로 구성된 처방들을 기본으로 하여 주었고 개별적약들에 한해서는 누구나 약초를 알고 리용할수 있도록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까지 써주었으며 주요한 약재들에 한해서는 산지까지 밝혀주었다.

그래서 책이름을 《향약집성방》이라고 하였다.

《동약학편》에는 고려약(향약본초)에 대한 당시까지의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하여 학문으로 체계화하여놓았는데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여있다.

총론에서는 처방구성과 약을 만드는 방법과 쓰는 방법, 약의 용량과 250종의 약재의 조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었다.

각론에서는 우리 나라 생약재를 기본으로 하여 광물성약재 105종, 식물성약재가운데서 뿌리와 전초를 쓰는 약재 189종, 동물성약재 130종을 비롯한 약 700종에 달하는 약재를 10부로 나누어주었다.

개별적인 생약들은 약이름과 학명을 주고 약의 성미, 효능, 적응증, 채취시기, 가공법, 배합금기 등을 여러 문헌자료들에서 인용대비하면서 비교적 내용을 풍부하게 주었다.

《향약집성방》에는《향약혜민경험방》,《향약간이방》,《향약제생집성방》,《삼화자향약방》, 《어의촬요》, 《향약구급방》, 《동인경험방》, 《본초경험방》, 《향약채취월령》, 《향약고방》, 《제중법효방》 등에 씌여있는 우수한 경험들과 리조시기의 우수한 경험들이 많이 실려있다.

《향약집성방》은 오늘도 그 실용적, 문화사적가치에 있어서 높이 평가되고있다.

그러나《향약집성방》에는 당시의 시대적 및 저자들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리론들과 치료법이 들어있고 봉건군주와 통치배들의 이른바 《선정》, 《인정》에 대하여 선전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비판적으로 참고하여야 한다.

《훈몽자회》

16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이름난 학자 최세진(?—1542년)이 1527년에 편찬한 교재인데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것이다.

《훈몽자회》라는 말의 뜻이 바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글자를 모은것》이다.

《훈몽자회》는 상, 중, 하권으로 나뉘여져있는데 매권마다 1 120자씩의 한자가 실려있다.

상권에는 머리말과 일러두기, 세권의 총 차례가 있고 천문, 지리, 꽃, 나무, 풀, 열매, 알곡작물, 남새, 새, 짐승, 물고기, 벌레, 몸, 가족과 친척, 학문, 글 등과 관련된 한자들이 부류별로 묶어져있다.

중권에는 사회, 집, 통치기구, 세간불이, 음식, 옷, 배, 수레, 말타는 도구, 무장과 무기, 빛갈, 천(베, 비단), 금은보화, 음악, 질병, 초상과 장례 등과 관련되는 한자들이 있다.

하권에는《잡동사니말》들 즉 상, 중권에 있는것들외의 필요한 여러가지 한자들이 들어있다.

이 책의《일러두기》에서는 정음자모 27자를 설명하였는데 이것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즉 모음 11자《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를 들고 자음으로서는 첫소리와 받침으로 쓸수 있는 《ㄱㄴㄷㄹㅁㅂㅅㅇ》의 8자와 받침으로는 쓰지 못하고 첫소리로만 쓸수 있는 《ㅋㅌㅍㅈㅊㅎ》의 두갈래로 갈라놓았다.

그리고 글자마다 이름까지 달아놓았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벌써 훈민정음 28자 가운데서 《ㆆ》자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것을 밝혀주며 글자차례는 오늘의 차례와 기본적으로 같으며 글자이름도 그때에 이미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있는것과 같은 틀거리를 이루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책에서는 3 260개의 한자마다에 그 음과 함께 우리 말과 글자로 새김(뜻)을 달아놓았는데 한자의 음은 그때까지의 《유경언해》, 《불경언해》 등에서 전혀 비현실적인 동국정운식 고친 음에 근거한것과는 달리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는 실제적인 음에 근거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약 2 000여개의 고유어휘와 400여개의 한자어휘를 수록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말 력사연구에서 가치있는 사료로 된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여러가지 점에서 가치있는 책이지만 당시의 봉건통치계급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글자의 부류적갈래와 용어가 오늘의 기준, 개념 등과는 맞지않는 등 부족점들도 있다.

《훈민정음》(해례)

1443년 12월(양력 1444년 1월)에 우리 인민의 고유한 글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후 이에 대한 풀이를 하고 례를 들어 보인 책인데 1446년 9월에 완성되였다.

이 책은 훈민정음 즉 지금 우리가 쓰고있는 글자를 만드는데 이러저러하게 관계를 가졌던 정린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박팽년 등 집현전의 학자들이 세종의 명

령을 받고 집체적으로 연구하여 완성한것이다.

이 책은《훈민정음》이라는 첫째 부분과《훈민정음해례》(훈민정음의 풀이와 례)라는 둘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훈민정음》부분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글자 훈민정음을 만들어 발표하면서 붙인 세종의 머리글, 글자에 관한 규정, 글자적기에 관한 규정들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종의 머리글에는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과 동기 등이 씌여있는데 여기에서는 인민들이 한자를 몰라서 말하고저하는바 있어도 끝내 그 뜻을 글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것을 딱하게 여겨서 새로 우리 글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글자에 관한 규정에는 훈민정음을 이루는 28자의 차례와 모양 및 소리값, 첫소리글자가 나타내는 자음들의 이루어지는 자리에 따르는 소리갈래 등이 규정되여있다.

글자적기에 관한 규정에는 맞춤의 기본원칙과 기본방식을 비롯하여 실지 글을 쓰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기초적인 규정과 규범들이 씌여있다.

이와 같이 첫째부분은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어 발표할 때의 내용 그대로이다.

《훈민정음해례》부분은 제자해(글자만듦의 풀이), 초성해(첫소리의 풀이), 중성해(가운데소리의 풀이), 종성해(끝소리의 풀이), 합자해(글자어울림의 풀이), 용자례(글자쓰임의 례)로 구성되였는데 이 《훈민정음해례》부분이 바로 이 책의 중심내용을 이룬다.

제자해에서는 정음자의 글자모양과 그 제작원리를 설명하고 매개 말소리의 조음상 특징을 서술하였으며 초성해에서는 소리마디(음절)속에서 첫소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중성해에서는 소리마디속에서 가운데소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각각 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종성해에서는 끝소리가 소리마디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례를 들어 설명하고 사성과 끝소리의 호상관계를 밝혔다.

합자해에서는 첫소리, 가운데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소리마디를 이루게 되는 경우에 그것들이 합쳐지는 방법과 정음자를 실지 쓰는 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용자례에서는 정음자를 실지 써서 94개의 고유어휘로 례를 들었다.

이 해례의 매 해설끝에는 그 뜻을 요약하여 쓴 7언시가 있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해례)은 우리 말의 우수성과 유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언어수단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이 책은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음양오행설과 천지인삼재설로부터 끌어냄으로써 비과학적인 관념론에 떨어졌으며 우리 글자의 소리값(음가)을 표시함에 있어서 한자에 기계적으로 맞추는 등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훈민정음》(해례)은 언어학연구의 가치있는 유산의 하나이다.

《해동명장전》

18세기 봉건유학자 홍량호(1724년—1802년)가 삼국시기로부터 17세기초까지의 이름있는 장군이라고 본 인물들의 전기를 6권으로 실은 책이다.

1794년에 6권으로 저술된 후 1816년을 비롯하여 수차 활자본으로 출판되였으며 1956년에 국립출판사에서 번역출판되였다.

이 번역본에서는 명장이라고 볼수 없는 백제의 배반자 흑치삼지와 고려시기 삼별초군의 항전을 진압한 김방경을 삭제하였다.

이 책에서는 매 인물들의 집안래력과 그들의 성장과정을 간단히 주고 그들이 세운 공훈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썼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물들에 대한 내외력사가들의 평을 간단히 주고 일부 인물들에 대해서는 저자의 평을 달았다.

삼국시기의 애국명장들로는 수나라의 거듭되는 침략을 물리치는 항전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한 을지문덕과 당나라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능숙하게 지휘한 안시성성주 양만춘을 비롯하여 기타 인물들의 업적과 전기를 주었다.

고려시기의 명장들로는 강감찬, 양규, 윤관, 오연총, 조충, 김취려, 박서, 송문주, 김경손, 최영, 안우, 최방실, 정세운을 비롯한 인물들의 전기를 주었다.

리조시기의 명장들로는 중세해전력사에서 보기 드문 빛나는 승리를 거둔 명장 리순신을 비롯하여 최윤덕, 권률, 김시민, 리정암, 곽재우, 정문부, 김덕령, 림중양, 림경업, 정봉수 등과 그밖의 무관들의 전기를 주었다.

그밖에도 책에는 봉건왕조의 수립과 왕권의 유지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 인물들의 전기도 들어있다.

《해동명장전》은 우리 나라 애국명장들의 사상과 활동정형을 리해하는데 참고로 되며 중세기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사적도 엿볼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저자가 봉건통치계급의 립장에 서서 봉건유교적인 정치도덕적표징에 의하여 인물들을 선정하고 봉건왕조와 국왕에 대한《충성심》을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성기, 장수인, 온달, 연개소문, 배중손, 김종서, 남이 등 응당 력사적 인물로, 애국명장으로 평가해야 할 인물들은 빼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이 책은 인민의 립장에서 보면 응당 반역자로 락인을 찍어야 할 인물들 특히 농민폭동의 탄압자인 흑치상지, 김부식, 리자성, 김방경 등과 당나라침략자들을 끌어들인 김유신 등을 명장으로 만들었다.

이밖에 명장들의 출생을 신비화하기 위하여 덧붙인 미신적인 설화, 허황한 이야기들, 사대주의적인 표현들도 썼다.

그러므로 이 책에 실린 인물들의 진보성과 제한성을 엄밀히 갈라보아야 할것이다.

《해동역사》

18세기 후반기의 봉건유학자 한치윤(1765년—1814년)이 고조선으로부터 리조중엽에 이르는 왕조사를 통사체로 개괄하여 편찬한 력사책이다.

저자는 량반출신의 력사학자로서 진사과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은 하지 않고 학문연구에 전심하였다.

그는 나라의 력사를 정확하게 리해하려는데로부터 10여년간에 걸쳐 중국과 일본의 옛날책들에 나오는 조선에 대한 자료들을 모조리 뽑아 이른바 기전체의 형식으로 모두 71권에 묶었다.

이밖에 1823년에 그의 조카 한진서가 중국의 책들에 나오는 조선지리관계자료들을 뽑고 자기의 주해를 붙여 《해동역사속》(15권)을 만들었다.

이 책들은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1911년-1912년에 인쇄본으로 발행되였다.

이 책의 앞머리에는 서문과 함께 인용도서목록과 총목록이 있으며 기본내용부분은 세기, 지, 고, 속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인용도서목록에는 523종의 중국서적과 22종의 일본서적이 들어있다.

세기(제1권—16권)에는 조선고대종족에 관한 기사로부터 시작하여 단군이후의 일에 관한 기사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등 조선의 력대봉건국가들, 가라, 탐라, 태봉, 후백제, 검안국 등 소국들에 대한 자료들이 실려있다.

지(제17권—59권)부분은 그 분량상 이 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데 수록내용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여러 범위의 중요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제60권—제70권)부분에서는 고대로부터 리조시기에 이르는 조일관계, 건주위녀진과의 관계, 외국에 알려진 인물들과 다른 나라에서 활동한 고조선사람들에 대한 자료들을 주었다.

《해동역사속》은 고대로부터 리조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령토의 변천과정을 11장의 지도와 도표로 된 조선8도의 연혁도, 고조선, 예, 맥, 옥저, 3한, 한4군, 부여, 읍루,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 고려, 리조 등의 령역과 경제, 성읍, 조선의 산과 섬, 강들의 연혁에 대한 자료들을 실었다.

《해동역사》와《해동역사속》에는 이와 같이 조선의 력사와 문화의 유구성을 증명해주는 자료를 비롯하여 조선력사연구에 참고로 되는 다방면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낡은 사상독소를 퍼뜨리며 조선력사를 정확히 리해하는데 방해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실려있으므로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화담집》

16세기 전반기의 철학자인 서경덕의 문집이다.

서경덕(호는 화담, 1489년—1546년)은 하층량반출신인데 일생을 주로 학문연구와 저술사업에 바친 철학자이다.

《화담집》은 16세기에 처음으로 출판되고 1605년, 1770년에 다시 출판되였으며 1965년에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번역본으로 출판되였다.

이 책은 4권으로 구성되여있는데 제1권에는 주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견해를 쓴 시문들이, 제2권에는 《원리기》, 《리기설》, 《태허설》, 《귀신사생론》을 비롯한 저자의 대표적인 철학저서들이 실려있다.

제3권과 제4권은 부록인데 여기에는 저자의 생애와 활동자료들인 년보, 신도비명, 유사, 문인록 등이 실려있다.

《화담집》은 조선중세철학사연구에 필요한 가치있는 자료들을 담고있다.

저자의 대표적인 저작들인 《유물음》, 《원리기》, 《태허설》, 《귀신사생론》 등에서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자연관을 제기하였다.

《유물음》은 유물론적경향성이 뚜렷하고 그 사상이 심오한 시인데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무한한 세계의 물질성과 물질의 운동, 변화에 대하여

물질이란 오고와도 그 오는것이 다하지 않나니
오던것이 다하자마자 또 뒤를 따라오누나

라고 썼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한 유물론적견해라고 할수 있다.

무신론적사상을 제기한《귀신사생론》에서는《죽고사는것이나 사람과 귀신은 이것이 다만 기가 보이고 흩어지는것뿐》이라고 하면서 《기》의 물질성과 그 불멸성을

확인하였다. 이 책의 일부 대목에서는 또한 독경식학습방법을 배격하고 경험과 관찰에 의거하는 인식방법을 제기함으로써 인식령역에서 기본적으로 유물론적립장에 섰다. 이밖에도 《화담집》은 《기》와 《리》의 해석에서 기본적으로 기일원론의 편에 선 철학사상을 제기함으로써 중세철학의 유물론적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화담집》에는 이와 같은 진보적인 면이 있지만 일련의 심중한 결함도 있다. 그것은 우선 유물론적견해와 관념론적견해가 뒤섞여있고 복고주의사상을 고취한 점이며 또한 한적한 은거생활을 동경하고 현실을 떠난 학문연구를 리상화하는 등 현실도피사상을 고취한 점이다.

《악학궤범》

우리 나라 중세기 음악, 무용, 가사 등에 대하여 쓴 책이다.

1493년에 례조판서 성현(호는 용재, 1439년－1504년) 등이 9권 3책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은 1592년 이전에 출판된 일이 있고 1610년과 1742년에도 출판되였다. 1956년에 국립출판사에서 영인본과 번역본을 출판하였다.

《악학궤범》은 음악리론편(제1권), 실천편(제2권－제5권), 악기와 무대소도구 및 무대의상편(제6권－제9권)으로 이루어져있다.

음악리론편에는 60조와 12률 등 중세기 우리 나라 음악기초리론이 씌여있고 실천편과 악기, 무대소도구편에서는 각각 아악, 당악, 향악으로 나누어 연주방식과 음악, 무용의 종합연구인 《정재》에 대해서와 민족악기, 무대의상 및 소도구들에 대하여 그림을 붙여 해설하였다.

이 책에는 고려때부터 연주된 50여곡의 당악곡을 비롯하여 《동동곡》, 《정읍곡》 등 20여곡의 대향악곡, 30여종의 정재무, 200여수의 가사와 가곡들이 실려있으며 특히 세나라시기의 구전민요인 《동동》, 《정읍사》, 《처용가》 등이 국문으로 씌여있다.

이 책에서 비로소 우리 나라 아악이나 향악에 관한 리론적해명이 주어졌고 그 운용에서 나타난 력사적관례나 특수성이 해명되게 되였다. 《악학궤범》은 특히 가야금, 향비파 등 17종의 향악기와 특종, 편경 등 39종의 아악기, 방향, 당비파 등 13종의 당악기 등의 도해와 규격들을 밝힌것으로 하여 당시의 음악과 민족악기를 연구하는데서 기본자료로 된다. 또한 73종의 무대의상과 39종의 무대소도구에 대한 도해는 당시의 민속을 연구하는데도 좋은 자료로 된다. 《악학궤범》은 중세음악무용 및 가사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참고자료로 되지만 리왕조의 권위를 높이고 봉건유교례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편찬된것이므로 많은 결함과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연암집》

리조 말기에 봉건관료였으며 이름있는 실학자였던 박지원의 개인시문집이다. 총 57권 24책이다.

박지원(호는 연암, 1737년－1805년)은 봉건량반출신이였으나 젊어서는 벼슬을 하지 못하고 늙어서야 몇개 고을의 원을 지냈다. 그는 철학,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깊은 지식을 가지고있었다.

《연암집》은 다른 사람들의 시문집과는 달리 매권마다 해당한 제목을 달았다.

《연산각선문》(제1권－제6권), 《공작관문고》(제7부－제10권), 《영대정

잡영》(제11권),《영대정잉목》(제12권－제13권), 《종북소선》(제14권, 제15권), 《고반당비장》(제56권),《엄화계수일》(제57권) 등에는 서문, 기문, 론, 전, 편지, 발문, 제문, 묘지명 등 여러가지 산문과 시가 실려있고 《방경각외전》(제16권)에는 《량반전》을 비롯한 문학작품들이 실려있으며 《열하일기》(제17권－제40권)에서는 당시 우리 나라의 수공업과 농기구, 각종, 문물제도에 관한 자료를 실으면서 상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장하고 그 사상을 소설《허생전》에서 전개하였다.

《과농소초》(제41권－제50권)에는 농업기술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 여기에서《열하일기》는 저자가 1780년에 자기의 팔촌형 박명원이 청나라에 사절단성원으로 갈 때 수원으로서 열하까지 동행하였던 전 행정 4개월간의 기행문이다.《연암집》에는 우선 《방경각외전》에 실린 《말거간전》,《량반전》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통하여 당시 봉건사대부들의 부패상과 죄행,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이 반영되여있다.

또한 이 책에는《한민명전의》를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을 통하여 당시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며 생산력을 발전시킬데 대한 일정하게 진보적인 실학사상이 반영되여있다.

다음으로《연암집》에는《광문전》,《예덕선생전》,《량반전》,《총석정의 해돋이구경》을 비롯한 문학사적의의가 큰 문학작품들이 많이 실려있다.

이와 같이《연암집》에는 량반사대부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봉건도덕의 허위성과 기만성, 허례허식과 무위도식, 근로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내면세계 등이 훌륭한 예술적필치로 형상되였다.

그러나《연암집》의 여러 작품들에서는 봉건제도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당시의 사회적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봉건제도의 개혁조차 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더욱 공고화할것을 주장하였다.

박지원은 또한 작품들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는데서도 매우 불철저한 립장을 취하였으며 봉건국왕에 대한《충군사상》, 남편에 대한 녀성들의 맹목적인 순종 등 봉건유교사상을 극구설교했는가 하면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점패까지 인정하였다.

《임진록》

임진조국전쟁시기(1592년－1598년)부터 창조되여 전해지던 구전설화에 기초하여 전쟁시기의 우리 선조들의 반침략투쟁을 17세기초에 형상한 소설이다. 작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있다.

소설에서는 리순신장군을 비롯한 애국명장들의 투쟁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첫 부분에서는 일본침략자들의 전쟁준비과정과 당시의 리조봉건통치배들의 부패상을 보여준다. 둘째 부분에서는 전쟁초기의 나라의 형편을 묘사하면서 이 시기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것은 량반관료배들이 부패무능하기때문이라는것을 폭로하고 인민들의 위훈, 일본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보여준다.

셋째 부분에서는 바다에서의 리순신함대의 투쟁과 각지에서 궐기한 의병들의 투쟁에 의하여 승리가 이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넷째 부분에서는 왜적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낸 후 일본에 사신을 보내여 최후항복을 받는 과정을 보여준다.

《임진록》은 일관한 이야기줄거리가 없이 리순신, 정문부, 곽재우, 김덕령, 김응서, 서산대사, 사명당 등의 애국명장들과 의병장들의 투쟁을 력사적순차에 따라 이어가면서 그들의 용감성과 애국적인 투쟁을 높이 찬양하였다. 소설에서는 또한 나라의 운명에는 아랑곳없이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비굴하게 행동하며 지어는 반역행위까지 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죄행과 남의 나라에 기여들어 살인과 략탈, 방화를 일삼으며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페허로 만든 왜놈들의 야수적본성을 신랄하게 폭로, 저주하였다. 이 작품은 당시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을 예술적으로 폭넓게 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용감성, 불굴의 투쟁정신을 훌륭히 보여주었으며 17세기 애국적인 소설문학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개별적인 명장이나 의병장들을 과대평가하였으며 서산대사, 사명당을 지나치게 내세웠다. 또한 우리 나라에 와서 싸운 명나라군대를 묘사하는데서 개별적인물들의 지략을 지나치게 찬양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애국사상의 묘사에 손색을 주었다.

그러나 《임진록》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취급한 인민창작의 소설이라는데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의방류취》

15세기까지의 동방의학의 성과들을 집대성한 백과전서적인 총서이다.

《동의보감》, 《향약집성방》과 함께 우리 나라 3대고려의학고전의 하나이다.

이 책은 이름있는 의학자였던 로중례, 김례몽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1443년부터 1445년까지 사이에 365권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은 그후 세차례의 면밀한 교열과 수정과정을 거쳐 1477년에 총 266권으로 출판되였다.

의학출판사에서는 1974년부터 1980년까지 29분책으로 출판하였다.

《의방류취》는 총론 3권과 각론 263권으로 구성되였다.

총론에서는 진찰법, 처방법, 약 먹는 법, 의사가 지녀야 할 품성, 치료원칙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각론에서는 내과, 외과, 안과, 구강과, 피부과, 부인과, 소아과 등 현대의학에서 취급되는 모든 질병들을 다 포괄하여 95개의 병문으로 나누고 그에 속하는 병들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약, 침, 뜸, 안마, 몸단련법, 식사료법) 등을 밝혔다.

그리고 국내외의 153종의 의학책을 인용하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한 책의 리론을 쓰고 다른 책의것과 내용이 같으면 어느 책의것과 같다고만 하였으며 차이나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주었다.

또한 예방법도 밝히고 민간료법도 소개하였다.

《의방류취》에는 당시까지 동방나라들에서 이룩한 풍부한 림상경험이 방대한 규모로 집대성되여있는데 《부인문》에서만도 5 400여종의 처방을 제시하고있다.

이 책은 유럽에서 최초의 의학백과전서로 인정되는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 1807년에 출판된《의학 및 외과학사전》(전7권)보다 년대와 규모에서 훨씬 앞선 방대한 전서이다.

《의방류취》는 이와 같이 규모의 방대성과 내용의 풍부성, 편찬형식의 독특성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1861년에는 일본에서도 출판되였다.

그러나 이 책에는 당시의 사회력사적 및 과학발전의 제한성으로 하여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리론들과 방법들이 있는 부족점도 있다.

《동의보감》

17세기초까지의 우리 나라 고려의학발전성과를 집대성한 의학백과전서적인 책으로서 《의방류취》, 《향약집성방》과 함께 3대고려의학고전으로 전해지고있다.

당시 이름난 학자 허준(1546년-1615년)이 오랜 림상경험과 국내외의 수백여권의 의학책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체계로 1610년까지 집필편찬하고 1611년에 출판하였다.

《동의보감》은 목록 2권, 내경편 4권, 외형편 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구편 1권, 총 25권으로 되여있다.

내경편에는 주로 인체의 5장6부의 생리적기능과 그에 해당한 병, 외형편에는 몸겉면에 생기는 병과 이비인후과, 안과질병에 대한것을 주었다. 잡병편 1권-9권에는 진찰법과 병의 원인 그리고 내경편과 외형편에서 취급되지 않은 여러가지 내과적질병들에 대한 증상과 치료법, 처방들을 주었고 10권에는 부인과, 11권에는 소아과에 대한것을 주었다.

탕액편에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흔히 쓰이고있던 고려약 1 400여종의 효능, 적응증, 채취법, 가공방법을 소개하고 산지까지 밝혀주었으며 고려약의 이름밑에는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을 우리 말로 써주었다.

침구편에서는 침뜸법과 혈의 위치, 적응증을 서술하였다.

《동의보감》은 우리 나라에서 1814년, 1874년 등 여러차례 다시 출판되였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번 출판되였다.

1962년에는 의학출판사에서 번역출판되였고 1982년에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다시 번역하고 주해를 달아 원문과 함께 5분책으로 묶어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당시 시대적제한성과 저자자신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리론들과 치료법들이 들어있으므로 비판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

19세기의 실학자 리규경이 자연과 사회의 제반현상들을 고증, 변론한 글들을 실은 60권으로 된 책이다.

리규경(호는 오주, 소운거사, 1788년-1863년)은 실학자 리덕무의 손자로서 역시 조예가 깊은 유학자였다.

저자는 청년시기부터 실학의 긍정적측면을 계승한 기초우에서 근대적인 과학기술발전에 많은 관심을 돌리였다.

이 책에는 종래 유학자들이《이단》처럼 생각해오던 과학기술부문의 문제들이 상당한 정도로 취급되였다.

1 400여개의 항목으로 된 각 부문(론설문이 분류되지 않은채로 실려있으므로 편의상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몇 부문으로 나누게 된다.)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자연, 기술과학부문은 천문, 수학, 물리, 식물학, 동물학, 지리학, 광물학, 의학, 식료학, 기계 및 기구학 등이며 사회과학부문은 철학,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 력사학, 어문학, 예술, 종교 등이다.

이 부문들에 대한 변론, 고증에서 특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기계, 기구에 대한것인데 여기에서 저자는 기계보습, 자동방아, 풍구, 물푸는 기계를 비롯한 농기계;자행거, 수륙거, 비선과 륜선 등의 교통수단; 측량기, 기어통, 습도측정기,

자명학 등 과학기구; 신기화법을 비롯한 무기류에 대하여 썼으며 리용후생과 생산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애쓴 자신의 실사구시적인 학문연구태도를 잘 반영하였다.

저자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업을 개선하고 광산을 개발하며 교통을 확장하고 기술교육에 힘쓸것 등의 견해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그의 학문연구목적이 당시의 나라의 침체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과학부문의 여러 항목들에서는《리기이원론》을 부정하고《기일원론》을 긍정하였으며 토지문제, 다른 나라와의 통상교역문제에 대한 견해를 비롯하여 력사, 어문학, 예술 등에 대한 일련의 긍정적인 평가와 견해들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오주연문장전산고》는 국내외의 많은 서적들을 참고하여 광범한 부문의 학술적문제들을 고증분석한것으로 하여 당시의 문화수준을 반영한 큰 저작으로서 우리 나라 19세기 전반기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된다.

그러나 이 책에는 저자의 계급적제한성과 당시 사회의 력사적제한성으로 하여 서술내용에서 미신적이며 운명론적인 견해, 보수적이며 량면주의적인 립장, 관념론적이며 유교적인 철학견해, 사대주의적이며 복고주의적인 견해도 있다.

인 물 편

단 군

우리 민족의 시조이며 고조선을 세운 건국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단군릉을 훌륭하게 개건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슬기를 대를 이어가며 길이 전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여러 기회에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비록 신화적인 전설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을 무시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구월산, 묘향산 등 전국각지에 있는 단군유적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증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고 수많은 력사책들과 문헌들, 자료들을 해당 부문에 보내주시였다.

단군릉에서 유골이 나오고 그것이 5천여년전의것으로 확증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였다.

주체82(1993)년 9월 력사학자들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전설로만 전해오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고증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라는것이 명백하여졌으며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왔다는것이 확증되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0고령임에도 몸소 강동땅을 찾으시여 대박산기슭의 명당자리에 최상의 수준에서 릉을 개건하도록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적인 령도에 의해 우리 민족은 자기의 력사를 새로이 찾고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 떨치게 되였다.

단군은 B.C. 30세기초에 오늘의 평양일대에서 출생하였다.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고 할아버지는 환인이였다.

단군의 아버지는 평양일대에서 부족련합체의 추장이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씨족

장의 딸이였다.

단군의 고향인 평양일대는 산천이 수려하고 대동강을 낀 무연한 벌이 펼쳐져있어 물산이 풍부한데다가 기후도 온화하여 살기 좋은 고장이였다.

남달리 큰 체격과 영민한 두뇌를 가진 단군은 어릴 때부터 창쓰기, 활쏘기 등을 련마하여 무술에 뛰여난 인물로 성장하였다.

또한 그는 청년시절에 자연과 사회의 리치를 알고 공동체안에 내재하고있는 일련의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을 해결할 방도를 모색하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이 된 후 단군은 공동체안의 정치적기구를 계급과 부족간의 대립을 억제하기 위한 폭력기구로 발전시켜나갔다.

이렇게 하여 단군은 B.C.30세기초에 우리 나라 력사상 첫 고대국가인 《조선》을 세우고 도읍지를 평양에 정하였으며 스스로 그 첫 왕이 되였다.

이처럼 단군은 동아시아에서 제일먼저 나라를 세우고 주변의 여러 씨족, 부족들과 정치세력들을 통합하여 넓은 령토를 가진 국가로 만들었다. 단군이 이룩한 건국위업은 그의 네 아들인 부루, 부소, 부유, 부여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단군이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세움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에서 원시사회는 끝나고 우리 민족은 계급사회,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성 기 (?-B.C.108년)

고조선말기에 한나라침략군을 반대하는 최후결전을 지휘한 무관이다.

B.C.109년과 B.C.108년에 고조선을 침범한 한나라침략군의 우두머리 무제는 고조선인민들에 의하여 계속적인 타격을 받게 되자 마침내 고조선의 통치계급내부의 모순을 리용하는 교활한 방법을 쓰게 되였다. 이리하여 고조선의 통치계급내부에서는 한나라침략자들과 결탁한 반역자들이 생겨나게 되였고 변절자들에 의해 우거왕이 살해당하게 되였다.

그러나 고조선인민들은 한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다.

고조선의 대신이였던 성기는 일시 조성된 혼란을 수습하고 대오를 정비하여 반공격을 계속하였다.

한나라침략자들은 수적인 우세를 믿고 왕검성을 포위하고 계속 공격하여왔다.

왕검성은 랴오하하류에 있던 고조선의 부수도였는데 여기서 용감히 싸우던 성기장군은 침략자들과 결탁한 반역자들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그가 살해된 다음 왕검성은 오래 가지 못하고 함락되였으며 B.C.108년에 고조선왕조는 끝장을 보게 되였다.

려 옥 (B.C. 5세기-B.C. 4세기)

고조선의 녀류시인이며 당시 이름있는 음악가였다.

어느날 새벽 려옥의 남편이였던 배사공 곽리자고가 나루터에 나가서 오가는 손님들을 배에 태워 건늬여주고있었다. 이때 강기슭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이 달려와서 강에 들어섰는데 그는 강을 건느지 말라는 안해의 만류에도 아랑곳함이 없이 사품치는 강물에 들어서서 빠져죽고말았다. 뒤따르던 녀인은 강기슭에서 통곡하다가 남편을 따라 자기도 강물에 몸을 던지였다.

배사공 곽리자고는 집에 돌아와 려옥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였다.

려옥은 그 부부의 비극적운명을 슬퍼하면서 공후에 담아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였다. 이것이 곧 《공후인》이다.

려옥이 지은《공후인》은 그후 이웃에 사는 려용이라는 부인에게 알려졌으며 점차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였다.

려옥은《공후인》을 통하여 당시 사회적불합리로 뒤엉켜진 고조선사회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던 비참한 인민들의 불행한 처지와 비극적운명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민들의 불행과 슬픔에 대한 동정과 고조선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작품에 비극적색조가 진하게 표현되여있고 막막한 정황앞에서 눈물만 짓고있는것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갈만 한 힘을 발견할수 없었던 려옥이 가지고있는 제한성의 반영이였다.

이처럼 려옥의 작품은 비록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으나 우리 나라 문학발전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동 명 왕(고주몽) (B.C. 298년- B.C. 259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명왕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봉건국가의 시조왕입니다.》

동명왕은 고구려의 시조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슬기와 애국혈통을 빛내이시려고 동명왕릉 발굴고증사업을 몸소 이끄시였다.

그리고 발굴사업에 이어 릉개건사업을 펼치시고 친히 여러차례 공사장을 찾으시여 고구려시조왕릉다운 체모를 원만히 살릴데 대한 문제, 왕릉과 제당, 정릉사를 비롯한 력사유적들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고구려시기의 력사가 잘 반영되게 개건할데 대한 문제 등 왕릉개건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고 풀어주시였다.

동명왕의 성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 추모, 중해이고 왕호는 동명성왕이다.

고주몽은 고구려국가를 세우고 장차 강대한 나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고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이고 어머니는 류화였다. 류화는 구려(졸본부여) 이웃지역의 유력한 정치세력자인 하백의 딸이였다. 해모수는 류화가 있던 부근의 한 귀족출신의 인물이였다. B.C 298년 부여왕실에 가서 나그네살이를 하고있던 류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주몽이였다.

주몽은 어려서부터 보통사람과 달리 자기 손으로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하였다고 한다.

그는 자라면서 뛰여난 재능과 함께 무술도 갖추었다. 문무를 갖춘 주몽으로부터 위험을 느낀 부여왕과 그의 7명의 아들은 주몽을 시기하여 그를 해치려고 하였다.

이 기도를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여를 떠날것을 권고하였다.

그래서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 뜻을 같이하던 벗들과 함께 부여를 떠났다.

그들은 엄호수에서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물리치고 남쪽으로 갔다.

그는 구려에 이르러 이곳 봉건세력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다. 그해가 B.C.277년이였다. 그때 주몽의 나이는 22살이였다. 동명왕은 나라를 세운 후 봉건적인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여 령토를 넓히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나갔다.

동명왕은 장차 고구려를 강대한 나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쌓아놓고 B.C.259년 40살에 사망하였다.

명림답부 (67년-179년)

고구려의 첫 국상이였으며 무관이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병서를 많이 읽고 선행한 전쟁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는 일찌기 벼슬길에 올랐고 명망이 높았다.

연나부출신 조의였던 명림답부는 165년에 폭군인 차대왕을 처단하고 신대왕을 왕위에 올려앉혔다.

명림답부는 새 왕조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공로와 재능으로 하여 166년 100살나이에 고구려국가의 최고관직에 올라 첫 국상으로 되였다.

국상으로 된 명림답부는 168년에 한나라의 유주와 병주지방을 공격하여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는 현도태수에게 수만명의 군사를 주어 고구려를 침략케 하였다. 명림답부는 172년 11월에 좌원벌전투에서 청야수성전술로 수만명의 한나라침략군을 격파하고 승리하였다.

이처럼 명림답부는 한나라침략군의 대규모적인 침입을 물리치고 고구려의 령토를 지켜낸 고구려의 명장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179년 9월에 죽었는데 그의 나이는 112살이였다.

을 파 소 (?-203년)

고구려의 봉건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봉건관리였다.

을파소는 고구려의 대신이였던 을소의 손자로서 벼슬은 국상의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다.

을파소는 어려서부터 책읽기와 무술을 련마하는것을 좋아했다. 그는 성격이 굳세고 대가 바르고 정직한 연나부출신이였으나 정계에 나서지 못하고 입록곡 좌울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있었다. 중외대부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 등이 왕의 외척으로서 왕을 반대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고국천왕은 정변을 진압하고 을파소를 중외대부로 임명하였으며 191년에 국상으로 등용하였다. 국상이 된 을파소는 나라의 봉건적통치체제를 강화하는데 힘을 돌렸다.

그는 194년에 관료들의 토지겸병을 법적으로 중지시켰으며 《진대법》이라는 국가고리대적착취제도를 실시하였다.

을파소는 197년에 고국천왕이 죽은 후 봉건지배층안에서 벌어진 왕위쟁탈전을 수습하였고 반역자 발기의 배신행위를 계기로 침입해온 공손도의 침략군을 격퇴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을파소는 적들의 있을수 있는 침입에 대처하여 198년에 환도성을 쌓도록 하였다.

203년 병으로 죽었다.

이처럼 을파소는 고구려의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고구려봉건국가강화에 기여하였다.

뉴 유 (?-246년)

동부여출신의 고구려장수이다.

246년 유주자사 관구검이 거느린 위나라 침략군이 불의에 고구려를 침공하여 환도성이 함락되자 동천왕은 피신하여 남옥저로 향하였다.

그런데 길이 험한데다가 적군의 계속되는 추격으로 사태가 위급해졌다.

이때 뉴유가 죽기를 각오하고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음식을 갖추고 대접하는 척 하다가 그릇에 감추어가지고 간 칼로 적장을 찔러죽이고 자신은 결연히 자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적내부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이때를 기다리던 고구려군은 세방면으로 반공격을 하여 적들을 몰아냈다.

고구려봉건국가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죽은 후 구사자의 벼슬을 주고 아들 하우에게는 대사자의 벼슬을 주었다.

고국원왕 (고사유) (?-371년)

고구려의 제21대왕이다.

시호는 소렬제, 소, 왕호는 국원왕이다.

후에 다른 국원왕(국강상왕)과 구별하기 위하여 고국원왕이라고 이름지었다. 미천왕의 아들로서 314년 태자로 되였고 왕위에 올랐다.

그의 통치기간에 고구려는 후부여와 고조선의 옛땅을 많이 통합함으로써 크게 령역을 넓혔다.

그는 당시 서북지방에서 강화되고있던 전연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신성, 환도성, 국내성 등을 신축, 보수하였으며 336년 동수, 곽충, 송황 등 전연의 망명자들을 받아들이여 그들과 전연을 협공할 태세를 갖추기도 하였다.

342년 서북방진출을 위하여 환도성을 고쳐쌓고 부수도로 리용하였다.

이해 10월에 전연왕 모용황이 고구려를 침공하였을 때 그는 적군이 길이 넓고 평탄한 북쪽으로 침공하리라고 타산하고 5만명의 정예군사들을 그쪽에 보내고 자신은 얼마 안되는 군사로 길이 험한 남쪽길을 지키였다.

그러나 적군의 주력인 정병 4만명이 남쪽길로 쳐들어옴으로써 싸움에서 실패하고 단웅곡으로 피신하였다.

북쪽길로 침공하였던 1만 5 000명의 적군은 전멸되였으나 남쪽전선의 붕괴로 환도성은 함락되였다.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왕족, 귀족 등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있다가 적들에게 붙잡힌데다가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훔쳐갔으므로 봉건적륜리도덕관념에 사로잡혀있던 그는 전연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진귀한 물건들을 보내여 343년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왔고 355년에 가서야 어머니를 귀국시킬수 있었다.

343년 평양동쪽 황성으로 자리를 옮기고 평양과 남평양(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일대)건설에 큰 힘을 넣었다.

345년 전연의 침략으로 후부여가 멸망하자 그는 군대를 보내여 후부여지역을 차지하였다.

전연에 대한 복수전을 준비하고있다가 370년말에 전진의 공격으로 전연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대군을 랴오서와 유주지방에 보내여 전연세력을 크게 무찔렀다.

그는 371년 10월 국토통일과 후방의 공고화를 위하여 남평양에 나가있다가 불의에 공격해온 백제군의 눈먼 화살에 맞은것이 원인이 되여 죽었다.

그의 무덤(《안악제3호무덤》)은 안악군 오국리에 있다.

광개토왕 (374년-412년)

고구려의 령토를 넓히고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데서 큰 역할을 한 고구려의 24대왕이다.

이름은 담덕이며 왕호는 광개토왕이다.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23대 왕인 고국양왕의 아들로 출생하여 12살에 태자가 되였으며 17살(391년)에 왕자리에 올랐다.

그가 즉위한 시기는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위하여 남방진출을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고구려는 첫 전투인 치양성(황해남도 배천)싸움이래 백제와 여러차례 싸움을 벌렸으나 대체로 일진일퇴가 반복되였을뿐이였다. 이러한 시기에 왕이 된 그는 각방으로 령토를 넓히였고 특히 남방진출에 힘을 넣어 20여년 통치기간에 백제의 적지 않은 지역을 통합하였다.

광개토왕은 392년과 396년 전투에서 백제의 수많은 성들을 함락하고 수도에 육박하였다.

광개토왕은 또한 신라와 가야지방에 침입한 왜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어 우리 강토에서 쫓아냈다.

391년에 바다를 건너온 왜적을 물리쳤으며 400년에는 신라땅에 기여든 왜적을 격파하고 계속 남으로 진격하여 가야지방에 침습했던 왜적까지도 몰아냈다. 그후 404년에 왜적들이 또다시 조선서해로 침입해왔을 때 광개토왕은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가서 놈들을 모조리 소멸하였다.

광개토왕은 남방진출을 다그치는 한편 서북방에서도 주변종족들을 통합해나갔다. 광개토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395년에 비려(거란의 한 종족)를 징벌함으로써 서북방국경을 튼튼히 다졌으며 398년에는 식신(숙신 즉 말갈)을 쳐서 조공국으로 만들었다.

410년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동부여를 공격하여 58개의 성을 점령하였다.

이처럼 광개토왕은 20여년간에 남방진출을 다그쳐 백제의 령역을 적지 않게 통합하였으며 고구려국경을 튼튼히 다지고 그 령역을 넓혔다.

그의 왕호를 광개토왕이라고 부르게 된것은 그가 왕으로 있는 기간에 고구려의 령토를 크게 넓혔다는 의미에서였다.

왕 산 악 (4세기)

4세기 고구려의 음악가이다.

왕산악은 고구려봉건국가의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다.

우수한 기악연주가이며 작곡가였던 그는 당시 널리 쓰이던 《금》이라는 악기의 결함을 시정하고 그것과는 구조, 원리에서 차이를 가진 고정대가 있는 7현금을 새로 만들었다. 그것이 우리 나라 민족고전음악에서 중요한 악기의 하나인 거문고이다.

왕산악은 이 악기의 표현능력에 맞는 새 곡조들을 100여곡이나 창작하였다.

그가 창작한 곡을 이 악기로 연주하였더니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었다고 하여 악기이름을 거문고(현학금)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거문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악기의 하나로서 음악에서뿐아니라 악기제작에서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일찌기 발전한 나라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을지문덕 (6세기 말엽- 7세기 초엽)

7세기초 수나라침략군을 쳐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낸 고구려의 애국명장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예를 닦는데 힘썼고 군사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었다.

후에 그는 봉건정부의 대신급의 높은 벼슬을 하였다.

612년 수나라의 양제는 300만의 대군을 륙지와 바다로 침입시켜 속전속결의 전술로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수나라침략군은 랴오하를 건너 고구려에 침입하여 랴오둥성을 공격하였으나 고구려군사들과 인민들의 완강한 방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수나라의 양제는 바빠맞아서 랴오둥성을 계속 공격케 하는 한편 30만 5천의 별동대를 조직하여 고구려의 종심깊이 침입시키고 수군을 이동시켜 고구려의 부수도인 북평양성(봉황성)을 함락시키려고 하였다.

을지문덕은 적들의 침략기도를 알아차리고 적들의 내부정세를 탐지하기 위하여 단신으로 압록수(타이쯔하)를 건너 적진속에 들어가서 적장 우문술, 우중문과 담판을 하였다.

이 과정에 적내부가 무질서하며 또 식량난을 겪고있는것을 간파하고 곧 돌아와서 유인전술과 청야전술로 적들을 국내깊이 끌어들여 소멸할 결심을 하였다.

을지문덕은 군사를 지휘하여 압록수(타이쯔하)를 건너 침입한 적들과 매일 《7전 7패》의 기만전술로써 국내깊이 끌어들이였다. 《승리》에 도취한 적들은 오골성을 지나고 살수(샤오쯔하)를 건너 봉황성 30리지점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나 적들은 철옹성같이 튼튼한 봉황성을 보고 도저히 공격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을지문덕장군의 청야수성전술에 걸린 적장 우중문이 어찌할바를 몰라하고있을 때 그는 적장에게 시 한수를 써보내였다.

신통한 전술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하였네
싸움에서 이겨 공로가 이미 높거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떠하리

그의 이 시는 적장에게 퇴각할 구실을 마련해주었다.

전투사기가 떨어지고 식량과 마초마저 떨어진 적들은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을지문덕은 고구려군사들을 이끌어 살수(소자하)에서 퇴각하는 적들을 공격하여 무리죽음을 주었다. 이를 력사에서 《살수대첩》(살수에서의 대승리)이라고 한다.

살수전투에서 살아남아 랴오둥성근처까지 도망한자는 겨우 2 70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612년 고구려－수전쟁때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데서 을지문덕장군의 역할이 컸다.

온 달 (6세기-7세기)

고구려의 평민출신의 장수이다.

온달은 미천한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온달은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먹을것을 빌어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며 자랐다. 당시 사람들은 헌옷을 입고 동냥하러 다니는 그를 《바보온달》이라고 불렀다.

고구려 평강왕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어려서 울기를 잘해서 달랠 때면 왕이 롱담으로 《바보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군 하였다. 딸의 나이가 16살이 되자 왕이 상부 고씨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공주는 《대왕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안해가 되라고 하였는데 오늘 왜 전날에 하신 말씀을 변경하십니까? 〈임금은 롱담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대왕의 말이 그릇되므로 저는 받을수 없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은 성을 내면서 공주를 왕궁에서 쫓아냈다.

공주는 왕궁에서 나와 온달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온달과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오게 된 사유를 자세히 말하면서《만일 마음만 같이하면 되지 어찌 부유하고 귀하여야만 함께 살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함께 살 뜻을 명백히 하였다.

온달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공주는 가지고 온 금팔걸이를 팔아서 밭, 집, 소와 말, 가구를 갖추어 살림을 꾸렸다.

온달은 준마를 타고 산과 들을 달리면서 칼쓰기, 창쓰기, 활쏘기 등 무예를 익혔다.

그리하여 온달은 남다른 무술을 지닌 무인으로 자라났다.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수가 된 온달은 해마다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3월 3일 사냥경기에서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여 단연 우승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왕이 온달을 불러 이름을 물었다.

온달의 이름을 들은 왕은 놀라는 한편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온달은 반침략투쟁에서 큰 공을 세워 그 이름을 떨치였다.

이무렵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의 랴오둥지역을 침략해왔다.

왕이 고구려군을 거느리고 배산들판에서 맞받아싸울 때 온달은 선봉장으로 앞에서 적병 수십여명의 목을 베였으며 군사들은 충천한 기세로 적진을 들이쳐서 크게 승리하였다.

싸움이 끝난 후 전공을 평가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온달의 공로가 제일이라고 하였다.

왕이 감탄하여 《이 사람이 나의 사위로다》라고 하면서 례를 갖추어 그를 영접하였으며 그에게 대형의 벼슬등급을 주었다. 이때로부터 무인으로서의 온달의 지위가 날로 높아졌다.

온달은 삼국통일을 위한 전투에서도 전과를 이룩하였다.

이미전인 5세기말에 남쪽의 아산만으로부터 영덕계선까지 진출했던 고구려는 그이후 백제, 신라와의 싸움에서 적지 않은 땅을 잃었었다.

고구려는 6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복잡한 국내외정세속에서도 삼국통일을 위한 남방진출을 강화하면서 중부조선일대의 잃은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온달은 이 시기에 삼국통일을 위한 싸움마당에 자진하여나갔다. 그는 왕앞에서 《계립령과 죽령의 서쪽지역을 우리 땅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는 중부조선일대에서 잃은 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벌리다가 한강북쪽의 아차성(아단성)아래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그가 죽은 후 조정관리는 물론 일반군사들까지 슬퍼하였다.

온달은 이렇듯 반침략투쟁과 삼국통일을 위한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애국명장이였다.

담 징 (579년-631년)

고구려의 중으로서 재능있는 화가, 기술자이다.

담징은 610년에 일본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일본에 건너갔다.

당시 일본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스까문화가 한창 발전하고있던 때였으므로 유명한 학자기술자들이 더 많이 요구되였다.

담징은 일본에 건너가서 조선건축기술자들의 손으로 세운 법륭사 금당의 벽화를 맡아 그리였다.

금당벽화는 안팎 모두 12폭의 불교관계의 크고작은 그림들과 천정밑에 20여개의 작은 벽면에 2개씩 그려놓은 비천그림들로 이루어졌다. 수많은 그림들가운데서도 불교교리를 선전하는 모습을 형상한 6폭의《아미타여래상》이 제일 우수하다. 벽화의 세련된 필치, 신묘하고 선명한 채색 그리고 률동적이며 균형이 잡힌 째임새는 담징의 예술적재능과 함께 당시 고구려회화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준다.

담징은 일본에 건너가서 회화뿐아니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서도 큰 역할을 놀았다.

그는 발전된 고구려의 과학, 기술, 문화에 기초하여 물감, 종이, 먹, 물방아 등을 만들어쓰는 기술을 가르쳐주었다. 이처럼 화가이며 기술자인 담징은 당시 일본의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연개소문 (?-666년)

고구려의 애국명장이다.

그는 서부대인인 막리지(벼슬은 대대로) 연태조의 아들이다.

귀족가문에서 출생한 그는 어려서부터 무술과 병법을 익혀 당시 무관관료들가운데서는 그와 비길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몸집이 커서 위풍이 있는데다가 온몸에 칼을 다섯개나 차고 다녔다고 한다.

연개소문은 642년초에 부여성으로부터 발해만에 이르는 1 000여리의 장성을 쌓는 일을 책임지고 추진시켰다.

당시 영류왕을 비롯한 일부 봉건통치배들은 당나라의 압력과 간섭에 수그러드는 비렬한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연개소문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다.

이것을 알아차린 연개소문은 642년 10월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비롯한 투항주의적문무관료 100여명을 처단하고 최고벼슬인 막리지가 되였다.

그후 그는 더욱 강경한 태도로 대외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는 관료통치기구체제를 정비강화하는 한편 고구려봉건국가의 국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다하였다. 그동안 끌어오던 장성건설도 그가 집권한지 5년후인 646년에 다 쌓았다. 그는 삼국통일의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643년에 백제와 련합하여 당나라와 련계를 가지려는 신라의 사대주의적정책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나라는 644년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여나섰다. 고구려는 이러한 간섭을 단호하게 물리쳤다.

이렇게 되자 그해 9월에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당나라침략자들은 645년 3월 수십만의 륙군과 수군으로 불의에 고구려에 침공하여왔다.

적의 륙군은 랴오하상류를 건너 침입하였고 수군은 바다를 건너 랴오둥반도 남

안으로 침입해왔다. 연개소문은 고구려인민들을 반침략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당나라침략군은 안시성으로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연개소문은 안시성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15만의 증원군을 보내였다. 고구려의 군사들과 인민들은 몇달동안이나 계속된 안시성방어전투에서 당나라침략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당나라침략군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고구려군사들의 완강한 방어에 타격만 받다가 퇴각하고말았다. 그후 647년~648년 두차례나 고구려를 침입하였으나 그때마다 당나라침략군은 연개소문장군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사들에 의하여 격퇴되였다.

후에 당나라사람들속에서는 《연개소문이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도 뚝 끊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7세기 중엽에 고구려국가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당나라침략자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던 연개소문은 666년에 죽었다. 그는 고구려인민들을 조직지휘하여 당나라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애국명장이였다. 그러나 그의 애국심은 고구려봉건국가를 지키기 위한것이였다.

양 만 춘 (7세기)

7세기 고구려의 명장이며 안시성의 성주였다.

645년 당나라침략군의 괴수인 태종이 100만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여 랴오둥성, 백암성, 개모성 등을 점령하고 안시성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연개소문의 명령으로 고구려의 15만 군사들이 안시성의 군사들과 인민들의 어려운 싸움을 도우려고 달려왔다. 그런데 지휘관인 고연수는 적의 계책에 걸려 크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전하였다. 적들은 수십겹으로 안시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안시성의 군사들과 인민들은 성주 양만춘의 지휘밑에 공격해오는 당나라침략군을 막아 용감하게 싸웠다. 악에 받친 당나라침략군은 50만공수의 로력을 들여 안시성옆에 성벽보다 높은 흙산을 쌓고 충차, 포석 등 여러가지 공성무기를 동원하여 매일 여러차례 공격하여왔다.

그러나 양만춘은 성안의 군인들과 인민들을 동원하여 적이 달려들 때마다 새로운 방어대책을 세우면서 88일동안이나 성을 방어하였다. 이때 당나라침략군이 쌓은 흙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의 성벽이 무너지자 양만춘은 군사들과 인민들에게 총공격명령을 내려 흙산을 점령케 하고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마침내 안시성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적들이 퇴각하기 시작하자 안시성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도망치는 당나라침략군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침략의 괴수 태종의 눈을 활로 쏘아 애꾸눈으로 만들었다. 양만춘이 발휘한 애국심은 고구려봉건왕정에 대한 맹목적인 충정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러나 당시 그의 애국적활동은 당나라침략자들을 격퇴하는데서 의의를 가지였다.

리 문 진

고구려봉건국가에 복무한 력사학자이다.

태학박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고구려초기에 100권으로 편찬된 《류기》를 요약하여 《신집》이라는 고구려력사책을 편찬하였다.

12세기에 편찬된《삼국사기》에도 그 내용이 전혀 인용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이 책이 그 이전에 이미 없어진것으로 보인다.

온 조 (?-B.C 3세기)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아들이며 백제봉건국가의 성립자이다.

동명왕에게는 구려땅에 와서 본 비류와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명왕은 북부여에서 본처가 낳은 아들이 찾아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다. 태자로부터 보복이 있을가 두려워한 온조는 10여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온조는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이름을 십제라고 하였다.

그후 위례로 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따랐다고 하여 나라이름을 백제라고 하였다. 이때가 바로 B.C. 3세기 중엽이였다.

아좌태자

백제의 왕자로서 이름난 화가이다.

아좌는 597년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왕 추고녀왕의 아들인 성덕태자의 화상을 그려주었다.

유명한 그림 《성덕태자상》은 량옆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있는 성덕태자를 선 자세로 그린것인데 그 섬세한 필치나 담박한 색채 등 인물들의 개성을 묘사한 회화적 표현은 화가의 뛰여난 기량과 당시 백제인물화의 높은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그림은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는데 높이 평가되고있다.

아 비 지

백제의 이름난 건축가이다.

아비지는 645년 신라에 초청되여가서 황룡사 9층탑건설의 기술적지도를 담당하였다.

그는 200여명의 건축장공인들을 데리고 탑의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맡아하여 높이 225자에 달하는 웅장한 목탑을 세워놓았다.

황룡사 9층탑은 백제의 정림사 5층탑이나 미륵사돌탑과 같이 탑몸과 탑지붕의 차례줄임이 조화롭고 탑전체의 형태구성이 균형적인 매우 아름답고 웅장한 탑이였다.

그러나 이 탑은 13세기 중엽 봉건몽골침략자들이 파괴하였으므로 지금은 주추돌만이 남아있다.

계 백 (?-660년)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침략자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백제의 애국명장이다.

7세기 중엽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계급적리익과 령토확장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나라침략자들을 끌어들여 동족의 나라 백제를 공격하는 천추에 용서 못할 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당시 백제의 안팎의 형편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의자왕을 비롯한 백제의 봉건통치배들은 적들이 무력침공을 기도하고있는 긴박한 정세속에서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여 외적을 막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대신 극도로 부화방탕하고 안일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백제통치배들은 655년에 인민들을 강제로 부역에 끌어내여 태자궁을 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꾸리였으며 왕궁 남쪽에 망해정을 새로

지었다. 그리고 의자왕은 숱한 궁녀들을 끌고다니면서 술놀이판을 련속 벌려놓았다. 의자왕의 부패타락으로 인하여 백제의 형편은 650년대말에 극도에 달하게 되였다. 당나라통치배들과 신라봉건통치배들은 이 틈을 리용하여 660년에 백제를 침략하였다. 660년 7월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은 아무러한 저항도 받음이 없이 천연의 요새 탄현을 넘어 황산벌(충청남도 론산군 련산)로 밀려들고있었으며 당나라침략군은 금강을 거슬러오르기 시작하였다.

라—당련합군은 동서 량쪽에서 수도 사비(부여)성을 향해 물밀듯이 쓸어들었다. 이 엄혹한 시기에 명장 계백이 지휘하는 백제의 군대와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웠다. 계백장군은 5 000명의 군사들로 《결사대》를 무어가지고 황산벌에 먼저 도착하여 세곳에 군영을 설치하고 신라군이 오기를 기다리였다.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이 세 길로 나뉘여 네번이나 백제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발악적으로 달려들었으나 그때마다 백제군에 의하여 격파당하였다.

이렇듯 백제군은 나라의 운명을 내걸고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10배가 넘는 신라군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이 싸움에서 계백도 희생되였다. 그는 싸움에 나가기에 앞서《한 나라의 군대로서 당나라침략군과 신라군의 대병과 맞다들게 되였으니 나라의 존망을 알수 없구나. 나의 처자가 적들에게 사로잡혀 노비가 될가 념려되니 살아서 치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처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는데 이것은 그가 나라를 위해 한목숨을 기꺼이 바칠 각오를 다지고 싸움에 나섰다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백제군은 금강을 거슬러 기여드는 당나라침략군을 맞받아 두차례에 걸친 완강한 방어전을 벌리였다. 이들도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침략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처럼 인민들은 나라를 지켜 싸움에도 불구하고 침략군이 수도 사비성을 포위하기 시작하자 백제의 마지막왕인 의자왕은 수도를 버리고 웅진(공주)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리하여 7월 13일에 적들이 사비성을 차지하게 되였다.

수도가 함락되자 의자왕은 인민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항복하고말았다.

이리하여 백제는 660년 7월에 멸망하였다. 계백은 백제의 운명을 지켜내지는 못하였으나 라—당련합군과의 최후결전에서 용맹을 떨치고 희생된 애국명장이였다.

우륵(5세기-6세기)

6세기 음악가이다.

평민출신인 우륵은 본래 가야국 성열현 사람으로서 오래동안 왕궁악사로 복무하였다.

이 과정에 우륵은 가야금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많은 악곡들을 창작하였다. 6세기 중엽에 가야국이 신라에 통합된 뒤에 그는 제자 니문과 함께 류랑생활을 하였다. 551년 봄에 신라의 랑성(오늘의 청주)지방을 류랑하다가 진흥왕을 만나게 되였으며 그의 신임을 얻어 국원(오늘의 충주)에서 창작과 음악가양성에 힘쓰면서 신라왕조에 복무하였다.

그는 여러 지방의 민요들에 기초하여 많은 악곡들을 창작하였는데 그가운데서 12곡은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곡조들은 큰 강물의 흐름과도 같은 깊은 정서가 안받침되여있고 새로운 참대순이 돋아나는듯이 깨끗하고 선명한것이 특징이다.

우륵, 니문 등 음악가들이 이룩한 우수한 음악성과는 당시 봉건통치배들에게 리용되였으며 신분적억압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었다.

박 제 상 (?-419년)

5세기 신라봉건국가의 외교가이다.

박제상은 5세기초에 삽량주(오늘의 경상남도 량산지방)의 한(태수)의 직책을 지냈다.

당시 신라에서는 이웃나라들과의 빈번한 충돌을 막기 위하여 402년에 왕자 미해를 왜나라에, 412년에 왕자 보해를 고구려에 각각 볼모로 보내였다.

그후 미해와 보해의 형인 눌지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외교술이 능한 사람을 선발하여 동생을 찾아올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의지가 굳세고 용감하며 지혜가 있는 박제상이 뽑히였다. 박제상은 례방하는 절차를 갖추고 고구려에 가서 장수왕을 만나 말하기를《지금 우리 임금의 사랑하는 동생이 여기에 있은지가 거의 10년이 가까와오므로 우리 임금이 형제간에 간절히 생각하는 회포를 항상 잊지 못하고있습니다.》라고 애절하게 말하였다. 박제상은 계속하여 《만일 대왕께서 그를 고맙게 돌려보낸다면 우리 임금이 대왕에게서 입은 덕은 헤아릴수 없을것이오니 대왕께서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소서!》하니 고구려의 장수왕은 옳다고 하면서 왕의 동생 보해를 박제상과 함께 돌아가게 하였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자 왕은 기뻐하였고 박제상을 위로하면서 왜나라에 가있는 미해마저 데려오도록 하였다.

박제상은 고구려는 큰 나라이며 대왕도 무던한 임금이므로 한마디 말로써 그의 마음을 돌려세웠으나 왜나라는 말로 타일러서는 듣지 않을것이니 꾀임수로써 미해를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왕에게 내가 왜나라로 가거던 자기에게 나라를 배반하였다는 죄를 내려 왜인들이 알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제상은 죽기를 결심하고 처자도 만나지 않고 울포(경상도 울산지방)로 나가서 배를 타고 왜국으로 향하여 떠났다. 그는 그길로 왜국에 들어가 마치 도망하여오는것처럼 가장하여나섰다.

박제상은 미해를 배에 태워 신라로 떠나보내고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남았다. 미해가 멀리 떠나간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왜왕은 박제상을 체포하여 모진 고문을 가하는 한편 왜왕의 신하로 되면 많은 상과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회유하였다.

그러나 박제상은 《내 차라리 계림(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될수 없으며 차라리 계림의 매를 맞을지언정 왜국의 벼슬과 록을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끝내 신라왕정에 대한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악에 받친 왜왕은 그의 발바닥가죽을 벗기고 대를 벤 갈밭에서 뛰게 하였다.

이로써도 그의 마음을 꺾을수 없었던 왜왕은 잔인무도하게 그를 목도라는 섬에서 장작을 쌓고 거기에 불을 지펴 태워죽인 후 목을 잘랐다.

이처럼 박제상은 죽을지언정 지조를 지켜낸 사람이다.

복 신 (?-663년)

백제유민의 반침략고국회복투쟁지휘자의 한 사람이다.

무왕의 조카로서 627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온 일이 있다.

660년 7월 백제멸망후 임존성(충청남도 례산군 대흥면)을 거점으로 항전군을 조직하고 지휘하였다.

그는 8월에는 소정방이 거느린 당나라침략군의 공격을 물리쳤으며 9월 23일 사비성(충청남도 부여)을 포위공격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20여개 성의 백제유민들이 호응해나섰다.

그는 항전군민들의 추천으로 좌평이 되였으며 왜(일본)에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귀국시켜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중출신의 장수 도침과 함께 전과를 확대하여 넓은 지역을 장악통제하였다.

661년초 류인계가 거느린 당나라후원군이 왔을 때 웅진강구전투에서 패하고 사비성포위를 풀었다.

이 시기 그는 상잠장군의 칭호를 가지고 주류성부근으로 거점을 옮기였으며 당나라를 지원하는 신라의 증원군을 고사성(전라북도 고부부근)에서 맞받아쳐서 격파하였다.

662년 5월 왜에서 돌아온 부여풍을 국왕으로 받들고 한때 벌방인 벽성으로 옮겨앉았다가 다시 주류성에 의거하였다.

항전군내부에 의견상이가 일어나자 그는 도침을 죽이고 그 휘하 군사들까지 통솔하였으나 곧 리간분자들에게 살해되였다.

이것은 항전군의 전투력을 심히 약화시켜 마침내 9월에 있은 백강전투에서의 패배를 가져왔다.

《일본서기》 등에는 그의 성을 귀실이라고 하였다.

김 춘 추 (?-661년)

신라의 27대왕이다.

진지왕의 맏아들인 김룡수의 아들로 나서 삼촌(김룡수의 동생)의 양아들로 자랐다.

일찍부터 정치적야심을 품고 오랜 문벌세력을 반대하고 지방출신의 새 귀족세력과 결탁하였다.

642년 이찬으로 있던 그는 백제가 신라서부지방의 40여개 성을 점령하자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고구려에 원조를 요청하러 갔다.

그러나 그는 612년 고구려-수전쟁당시 신라가 배신적으로 차지한 고구려의 마목현(계립현)과 죽령이북지역을 포함한 500여리의 땅을 도로 내놓을데 대한 고구려측의 강경한 립장에 응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감금되였다.

그때 그는 고구려귀족 선도해에게서 《토끼전》을 듣고 신라가 차지한 지역들을 반환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하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후 고구려와 백제의 대대적인 공세를 막고 신라령토를 확장할 목적밑에 당나라침략세력을 끌어들이는 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는 643년 당태종에게 고구려, 백제를 쳐줄것을 요청하였으며 645년 고구려-당전쟁때에도 3만여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의 남방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김유신의 처남이 되여 정치적지반을 닦아나가다가 647년 반란을 일으킨 비담일파를 진압하고 실권을 완전히 틀어쥐였다.

648년 아들과 함께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의복제도를 당나라식으로 고치며 자기 아들을 숙위로 떨구겠다는 등으로 빌붙으면서 당태종과 백제와 고구려를 공동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패강(대동강)이남은 신라가, 이북은 당나라가 차지한다는《라-당비밀협약》을 맺었다.

654년 성골출신의 마지막 왕인 진덕녀왕이 죽자 김유신 등의 도움으로 진골출신의 첫 왕이 되였다.

그해에 《리방부격》60여조를 제정하였다.

김유신의 막내누이동생 문희를 왕후로 맞았으며 전처의 소생인 자기의 셋째딸 지소를 김유신에게 시집보냈다.

659년 아들 김인문을 당나라에 보내여 또다시 원병을 요청하여 660년 당나라군과 련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으며 백제유민들의 항전을 진압하였다.

그의 배족적정책은 그의 아들 문무왕때도 계속됨으로써 우리 민족사발전에 커다란 저해를 주었다.

김 유 신 (595년-673년)

신라봉건국가의 귀족출신의 무관이며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와 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반역자, 사대주의자이다.

김유신은 15살에 화랑이 되여 무술을 닦았으며 그후 벼슬길에 올라 상장군에 이르렀다.

그는 643년 선덕왕 12년 9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두 나라군대가 련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할것을 요구하였으며 645년에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그를 도와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648년에는 김춘추의 당나라방문을 계기로 신라, 당 두 나라가 《련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대동강이남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대동강이북의 고구려땅은 당나라가 차지한다는 내용의 《비밀협약》까지 맺었다.

이처럼 김유신은 신라의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나라침략군을 끌어들이는 천추에 용서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654년 진덕녀왕이 죽자 봉건정부안에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그는 매부인 김춘추를 왕으로 앉히는데 적극 협력하였다.

660년에 그는 당나라군대와 련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리하여 김유신은 백제를 멸망시킨 《공로》로 대각간의 높은 벼슬을 차지하였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는 대대각간이라는 신라관제에서 일찌기 없었던 가장 높은 벼슬등급을 받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진 신라봉건통치계급의 대표자로 되였다. 이처럼 김유신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큰 죄악을 남긴 반역자이고 사대주의자였다.

보 장 왕 (?-682년)

고구려의 제33대왕, 영류왕의 아들인 고대양의 아들로서 연개소문의 정변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다.

이름이 보장이고 나라가 망했으므로 왕호는 따로 없다.

즉위후 그는 연개소문과 함께 국내의 사회경제적형편을 개선하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웠으며 구귀족세력의 지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도

교를 장려하도록 하였다. 한편 외래침략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북방에 천리장성공사를 벌리고 신라에 빼앗긴 남부지방을 되찾고 국토통일위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643년 이후로는 백제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협동하여 신라를 치기도 하였다.

645년, 647년-648년, 650년대, 661년-662년에 감행된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견결한 립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666년 연개소문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을 비롯한 통치층의 권력다툼으로 나라앞에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을 때 그것을 옳바로 수습하지 못하고 668년 평양성까지 침입한 당나라군대에게 투항하였다.

고구려 멸망후 당나라에 끌려가 사평태상백의 벼슬을 지냈다.

그후 당나라통치배들은 677년 그를 료오동주도독 조선왕으로 임명하여 옛고구려의 료오둥지방으로 파견하여 고구려유민들의 투쟁을 무마해보려고 하였으나 그는 말갈(후의 진국-발해를 세운 고구려유민세력)과 련계를 가지고 고구려국가를 재건하려다가 탄로되여 681년에 체포구금되였으며 공주(쓰촨성)로 귀양가서 그곳에서 죽었다.

고 안 승

재건된 고구려국의 왕, 보장왕의 서자이다.

고구려가 망한후 669년 2월 4 000여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넘어갔으며 사야도(덕적군도 소야도)에서 살다가 고구려항전군의 장수, 검모잠을 만나 670년초에 한성(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일대)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국》의 임금으로 되였다.

670년 7월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나라의 성립을 통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671년 이후 당나라침략군이 여러차례 공격해오자 673년경에 끝까지 싸울것을 주장한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났다.

신라의 문무왕은 그를 금마저(전라북도 익산)에 가있게 하고 674년 9월에 《보덕왕》의 칭호를 주었다.

680년 4월 신라왕의 누이동생(김의관의 딸이라고 한다.)과 결혼하였다.

이것은 신라통치배들이 고구려왕이 건재해있는듯한 인상을 주어 고구려유민들의 반침략투쟁을 일시 리용하다가 《보덕왕》마저도 없애버리자는 흉계에 따른것이였다.

683년 신라통치배들은 그를 수도에 불러들여 김씨성과 소판의 벼슬등급을 주고 또 집과 토지를 주어 수도에서 살게 하였다.

이리하여 사실상 그의 《고구려국》은 없어지고 말았다.

이에 분개한 그의 아들벌 되는 장군 대문 등은 684년 금마저에서 폭동을 일으키려다가 발각되여 피살되였고 이를 계기로 일어난 고구려유민들의 폭동도 진압되였다.

이후 《보덕성(보덕왕성)》은 금마군으로 개편되였다.

고안승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항전을 회피하고 일신의 안락만을 추구한것으로 하여 고국회복을 이룩할수 없었고 신라통치배들의 리용물로 되고말았다.

구 진 천

신라의 무기기술자이다.

구진천은 7세기 중엽 신라의 이름있는 활제조기술자였다.

그가 만든 노(쇠뇌－기계활)는 쏘면 능히 천보나 갔으므로 이를 천보노라고 하였다.

국가에서는 그의 공로를 평가하여 관직까지 주었다.

660년 백제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당나라침략자들은 천보노의 우수한 성능을 알고 그 제작기술을 알아내려고 끈덕지게 책동하였다.

669년에 당나라통치배들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여 구진천을 초청한 후 천보노제작기술을 빼내려고 하였다.

새로운 무기의 비밀을 당나라에 전하지 않으려는 굳은 마음을 가졌던 구진천은 자기의 기술을 숨기였다.

그가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겨우 30보를 날아갔다. 당나라왕은 너의 나라에서는 화살이 천보나 가는데 어찌하여 30보밖에 가지 않는가고 하면서 구진천을 위협하였다.

구진천은 당나라목재가 나쁜 탓이라고 대답하였다. 당나라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여 신라의 나무를 구해오도록 하였다. 그래서 신라에서 가져온 나무로 활을 만들었으나 이번에는 60보밖에 나가지 않았다. 또다시 멀리 못가는 리유를 묻는 당나라왕에게 구진천은 대답하기를 신라에서 넓은 바다를 건너 먼거리를 오다나니 나무에 습기가 차고 바람에 그슬려 재질이 변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후에도 그들은 천보노의 제작기술을 알아내려고 구진천을 위협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진천은 어떤 감언리설과 회유에도 천보노의 제작기술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그 비밀을 지켜냈다.

이처럼 구진천은 천보노라는 새로운 무기를 발명한 기술자였고 나라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싸운 애국자였다.

설 총

7세기말 신라의 봉건유학자, 문학가, 어학자였다.

설총의 자는 총지인데 이름난 중인 원효의 아들이였으며 어머니는 요석공주였다.

그는 처음에 중이 되였으나 후에 불교를 버렸으며 유교경서와 력사공부를 하여 당대의 큰 학자로 되였다.

그는 종전에 써오던 리두식표기법을 체계화하여 발전시켰으며 유교경전 등을 우리 말로 풀어서 강의하였다.

이와 같이 설총은 봉건지배계급의 교육과 당대의 우리 말 적는 법의 정리에 일정한 공로를 세웠다.

그는 692년에 신문왕의 요청에 의하여 꽃을 사람에 비유한 작품인 《화왕계》(《할미꽃의 충고》)를 지었다.

그리하여 설총은 봉건시대 문학사에서 일정하게 평가되고있다.

김 생 (711년-?)

8세기 신라의 유명한 서예가(명필)였다.

김생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나 어려서 글쓰기를 매우 즐겨했고 한평생 다른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80살이 넘도록 손에서 붓을 놓지 않고 글씨를 썼다.

김생은 예서, 행서, 초서 등 여러가지 글씨체도 다 잘 썼으며 력대명필들의 좋은 기법들을 받아들이면서 힘찬 박력을 가진 자기의 독자적인 필법을 개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당대의 명필로 이름떨치였고 력대학자들과 서예가들도 그의 글씨를 본보기로 하여 글씨를 다듬어나갔다.

《동국리상국집》에서는 고려이전의 4대명필을 들면서 김생을 첫자리에 놓았고 《파한집》에서는 《계림사람 김생이 글쓰기를 귀신같이 하였다》고 평가했으며 《용재총화》에서는 《김생은 재능있는 서예가로서 아무리 가는 글씨라도 다 정묘하게 썼다》고 그의 높은 서예기능을 평가하였다.

이렇듯 김생은 특출한 명필이였기때문에 그의 작품들이 귀중하게 간직되여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771년에 주조된 유명한 봉덕사종의 허리에 쓴 글씨의 일부도 그의 글씨로 추측되고있다.

이처럼 김생은 우리 나라 중세서예사를 빛나게 장식한 손꼽히는 명필서예가였다.

혜 초 (8세기)

신라의 중으로서 8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 최초의 대려행가였다.

혜초는 불교교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당나라에 가있다가 719년 바다길로 불교의 발생지인 인디아에 가볼것을 결심하고 바다길을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방을 걸쳐 인디아의 동쪽바다가에 이르렀다.

다시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 페르샤(오늘의 이란)를 거쳐 중앙아시아 려행을 계속한 후 727년 11월 중국 장안(시안)에 도착하였다.

10여년이라는 세월 언제나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채 창안에서 한생을 마쳤다. 혜초는 무려 10여년동안의 려행기간에 10만여리의 답사과정에 보고 들은것을 정리하여 적었다.

혜초가 쓴 려행기《왕오천축국전》은 오래동안 전하지 못하고 다만 혜림이 지은 《일체경음의》 제100권에 겨우 책이름만이 알려져오다가 1910년에 중국 둔황명사산 천불동에서 앞뒤부분이 떨어져 없어진 원본이 발견되였다.

이 책은 불교의 발생지인 인디아땅에 가서 소위《심오한》교리를 배워옴으로써 불교계에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며 허황한 불교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파시킬 목적으로 쓴것이였다.

그러나 이 려행기는 세계에서도 매우 오랜 먼거리려행기의 하나이며 8세기초의 인디아와 중앙아시아 및 그 서쪽지역의 력사, 지리, 경제, 민속 등에 관한 자료도 적지 않게 담고있다.

그러므로 당시 문헌자료가 거의 없어진 지금에 와서 이 책은 그 사료적가치가 매우 높은 책으로 력사, 지리, 풍속, 문학연구에 귀중한 참고로 된다.

이처럼 혜초는 중으로서 불교교리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위하여 오래동안 장거리려행을 하고 글로 써놓은 우리 나라의 최초의 대려행가였으며 8세기초의 인디아, 중앙아시아 및 소아시아 등 여러 나라들의 력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남긴 사람이였다.

장 보 고 (9세기 전반기)

9세기 전반기 신라의 해상활동가였다.

장보고의 이름은 궁복 또는 궁파라고 전하고있다.

그는 헤염을 잘 쳤을뿐아니라 무예도 남달리 뛰여났다. 그는 힘이 세고 용맹스러웠다. 그는 당나라에 가서 무령군 소장으로 있을 때 말을 타고달리며 창을 쓰는데

당나라사람들이 당해낼수 없었다는 용맹한 사람이였다.

그는 9세기 초엽에 당나라에 설치한 신라방에 건너가있는 동안에 당나라해적들이 신라연해에 침습하여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랍치하여 당나라에 끌고와서 노예로 매매하는 현상을 보고 격분을 참지 못하였다. 그는 신라로 돌아와서 청해진을 설치하여 당나라해적들을 막을것을 국왕에게 제기하였다. 왕은 828년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으며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하고 그에게 군사 1만명을 주었다. 장보고가 능란한 군사적솜씨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림으로써 청해진이 설치된 후 조선서해에는 당나라해적들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후부터 청해진은 신라—당나라, 신라—일본, 당나라—일본사이의 해상교통무역의 가장 큰 중심지로 번성하였다.

820년대부터 자기의 상선대를 가지고 상업무역을 통하여 큰 해상세력으로 자라난 장보고는 그후에 강한 군사정치세력으로서 마침내 신라왕정안의 왕위쟁탈전에까지 끼여들게 되였다.

839년에 장보고는 왕경에 쳐들어가 민애왕을 제거하고 김우징을 왕(신무왕)으로 올려놓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무왕이 죽자 그의 아들 문성왕은 장보고에게 《진해장군》의 칭호를 주고 그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완고한 신라귀족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장보고는 청해진에서 왕정을 반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청해진의 군사세력이 매우 강하기때문에 왕정의 신라귀족들은 감히 토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염장이라는 사람을 청해진에 보내여 841년 장보고를 암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장보고가 암살되자 반정부세력은 진압되고말았다.

이처럼 장보고는 봉건관리로서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을 면치 못하였으나 당나라해적들을 제압하고 서남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신라상인들의 해외진출을 도운것은 그의 업적으로 된다.

최 치 원 (857년-?)

9세기 신라의 학자였다.

최치원은 경주 사량부에서 서자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려서 찬찬하고 민첩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였다.

그는 11살 때인 868년에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였고 18살에 파거에 합격하였다. 그는 지방 또는 중앙관청에서 벼슬을 지내다가 28살 때인 885년에 신라에 돌아왔다.

그후 그는 한림원학사, 병부시랑, 지서서감사 등을 지냈고 벼슬등급은 이찬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그는 집권파들의 박해를 받아 지방관리로 밀려났으며 오래동안 방랑생활을 하다가 가야산 해인사에서 여생을 마쳤다.

최치원은 신라봉건국가와 그 통치제도를 옹호하는 립장에 서있은 사람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악질봉건통치배들의 행동이 봉건통치체제의 정상적인 유지강화에 방해가 된다고 보면서 그들을《좀벌레》로,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운 관료배들을《여우》로 비판하였다.

그의 저작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것은 《계원필경집》, 《동국여지설》, 《제왕년대력》, 《사륙문집》 기타 시문들이 있다고 하며 그가운데서 토막글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전해지고있다.

최치원의 대표적문학작품들로서는 봉건통치배들의 추악상을 폭로한 서정시인 《붓길 가는대로》, 《소박한 생각》,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그들의 정신세계

를 노래한 서정시인 《촉구화》(접시꽃), 인민들속에서 창조공연된 가무극을 보고 노래한 관극시인 《향악잡영》 등이 있다. 최치원의 력사관은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조선고유의것에 대한 허무주의적태도를 발로시킨 약점을 가지고있었다.

솔 거 (8세기)

신라의 이름난 화가이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여났으나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의 이름난 화가 솔거는 벽에 소나무를 어찌나 잘 그려놓았던지 날아가던 새들이 그것이 진짜 소나무인줄로 알고 거기에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김일성**전집》 제37권, 325페지)

솔거는 황룡사벽에 늙은 소나무를 그렸는데 굵은 줄기의 나무껍질이 얼기설기 터진 모양과 여러번 굽이쳐진 가지들과 무성한 소나무잎의 모양을 훌륭한 기법과 생신한 색채로 실감있게 잘 그렸다. 때문에 날아가던 까마귀, 소리개, 제비, 참새들이 산 소나무로 알고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쳐 떨어지군 하였다고 한다. 그후에 그림의 색갈이 흐려져 황룡사의 중이 다시 덧그렸는데 그다음에는 새들이 날아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솔거는 조선화의 우점을 옳게 살린 예술적재능이 뛰여난 화가였음을 잘 알수 있다.

이밖에 그의 그림으로 경주 분황사의 관음보살상과 단속사의 유마상이 유명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솔거는 고조선의 시조 단군화상 1 000여상을 그렸다고 한다.

대 조 영 (?-719년)

발해봉건국가의 시조(건국자)이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은 고구려의 귀족이였고 장군이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대중상이였다.

668년 당나라에 의해 고구려가 무너진 후 그 유민들가운데 일부가 러하를 건너 영주지방(오늘의 랴오시 러하일대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지방)으로 강제이주당하였다. 고구려유민들과 함께 적지 않은 말갈인들도 이 지방에 이주되게 되였다. 고구려유민들은 696년 5월에 영주에서 말갈족, 거란족과 함께 당나라침략군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대조영은 고구려폭동군을 이끌고 말갈인부대와 함께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폭동군들은 영주의 동방 및 동남방의 여러 성들을 쳐서 당나라침략군을 소멸하고 9월에는 랴오시, 고성(오늘의 다링하하류지방)에 옮겨와있던 《안동도호부》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당나라침략군은 당나라에 투항한 거란인 장수 리해고가 지휘하는 대군을 동방에 파견하여 고구려폭동군과 말갈인폭동군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당나라《토벌》군은 먼저 말갈인폭동군과 맞다들었다. 말갈인폭동군은 용감히 싸웠으나 력량상 차이로 결국 격파당하였다. 적장 리해고가 거느리는 《토벌》군은 이어서 고구려폭동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적들은 698년 천문령(중국 랴오닝성 장우현 서쪽에 있는 령)에서 대조영이 이끄는 고구려폭동군의 매복전에 걸려 거의 전멸당하였고 리해고자신은 겨우 목숨이 붙어 도망치고말았다.

천문령전투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한 고구려폭동군은 대조영의 지휘밑에 랴오하를 건너 계속 동쪽으로 진군하여 쑹화강상류 휘발하를 건너 동모산(중국 둔화시)에 자리잡았다.

대조영은 동모산을 근거지로 하여 이전 고구려령역안의 많은 유민들을 집결하고 그들사이에 련합을 강화하면서 적들의 침입에 대처할 준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봉건세력집단이 형성강화되였다.

대조영은 이미 이룩한 군사적승리와 정치적력량에 기초하여 698년 새 봉건국가인 《발해》황제국을 세웠다.

대조영은 발해(진국)의 제1대왕으로 되였다.

그가 죽은 뒤에 묘호를 고왕이라 하였다. 대조영은 나라를 세운 후 선행한 고구려문물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봉건통치체제를 정비강화하였다.

또한 북방의 돌궐, 거란, 해 등 나라 및 종족들과의 대외관계를 맺었다.

그후 수도를 동모산으로부터 상경(허이룽강성 닝안시 발해)으로 옮기였다.

발해가 성립됨으로써 고구려의 옛땅을 차지하려던 당나라침략자들의 기도를 완전히 끝장내게 되였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대조영을 왕으로 하는 발해국이 성립됨으로써 신라봉건통치배들의 외세의존정책에 의하여 빚어졌던 엄중한 민족적위기는 극복되고 우리 나라 력사에는 이전의 세 나라대신에 발해와 후기신라 두 나라가 생기게 되였다.

발해는 이후 200여년간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우는 동방의 대강국으로 존재하였다.

양 태 사

8세기 중엽에 활동한 발해의 시인이다.

그는 귀덕장군이라는 벼슬을 지냈으며 일본에 외교관으로 가서 이름을 떨치였다.

그는 일생동안 문학에 관심하면서 많은 시를 썼는데 현재 전해지는것은 얼마 안된다.

양태사가 지은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는 그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듬이소리를 듣고 조국이 그리워 창작한 시이다.

서리찬 가을달밤에
은하수 유난히 빛나고
나그네 고향생각
시름 더욱 깊어가네
… …
생각은 그지없이
옛고향 달리건만
다시 듣는 다듬이소리
매여둘 곳 전혀 없네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볼가 하되
하그리 긴 수심에
잠인들 차마오리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이 시는 민족적정서가 흘러넘치게 잘 형상한 가치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인의 높은 예술적재능을 잘 보여주며 동시에 발해시가문학의 발전수준을 보여준다.

궁 예 (?-918년)

신라 헌안왕의 서자로서 10살 남짓할 때 세규사(강원도 〈남〉녕월군)의 중이 되여 선종이라고 이름을 고치였다.

후기신라에서 9세기말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891년 개산군(경기도 안성군동부) 농민군의 지휘자 기훤을 찾아갔다가 랭대를 받고 북원(강원도〈남〉원주)농민군의 지휘자 량길에게 가붙었다.

량길의 부대에서 기병 100명을 거느리고 치악산(원주) 석남사를 거점으로 하여 북원동쪽과 명주(강원도 〈남〉강릉)관내의 주천(녕월군 주천면) 등 10여개 군, 현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 그의 부대는 3 500명, 14개 대오로 장성하였으며 김대검, 모흔, 장귀평, 장일 등의 농민군 지휘자들을 사당(부대장)으로 하는 정연한 군사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되자 장군으로 자칭하면서 량길농민군에서 떨어져나와 독자세력으로 나갔다.

895년 8월에 저족(강원도〈남〉린제), 성천(화천), 한주관내의 부약(김화), 철원 등 10개 군, 현을 점령하였다.

896년에는 송악군(개성) 지방토호 룡건을 포섭하여 금성태수로 삼고 그의 아들 왕건을 송악군 발어참성의 성주로 임명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898년 7월 패서도(례성강 서북쪽)와 한주(경기도 광주)관하의 30여개 성을 점령한 다음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여 통치기구를 두고 임금으로 자처하였다.

899년 비뇌성까지 진격하여온 량길의 부대를 선제공격하여 격파하고 900년에는 왕건을 시켜 량길휘하의 한주, 증원(충주), 서원(청주), 당은(당성), 괴양(괴산)지역의 농민군을 공격하여 지휘자들인 청길, 신훤 등을 흡수하게 함으로써 세력을 더욱 확장하였다. 그는 신라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재건할것을 표방하였다.

903년 왕건에게 수군을 거느리고 무주관하의 금성군(라주) 등 10개 고을을 치게 하였으며 그곳에 군사를 주둔시켜 후백제의 후방을 위협하였다.

904년 신라의 통치제도를 참작하여 관직제도를 완비하고 국호를《마진》, 년호를《무태》로 정하였으며 수도를 송악으로부터 철원성으로 옮기기 위해 증원의 백성 1 000호를 이주시켰다.

905년에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왕궁을 사치하게 건설하였으며 년호를《성책》으로 고치였다.

이 시기에 패강도에 13개 진을 나누어 정하고 평양성의 우두머리로 자칭하던 검용의 농민군부대와 명귀가 거느리는 증성(증산)의 《붉은옷부대》, 《누런옷부대》들을 자기 관하에 인입하였다.

906년 3 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상주에서 여러차례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령토를 더욱 넓히였다.

911년 국호를《태봉》, 년호를《수덕만세》로 고치고 914년 년호를 다시《정개》로 고치였다.

그는 미륵보살로 자처하면서 금장식한 고깔을 쓰고 중의 옷을 입었으며 맏아들은 청광보살, 둘째아들은 신광보살이라고 하였다.

밖으로 나갈 때는 늘 비단장식한 흰말을 타고 일산과 향기로운 꽃을 받쳐든 아이들을 앞세우고 녀자중 200여명에게 불교노래를 부르면서 뒤따르게 하였다. 포악한 그는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이라면 신하들과 지어는 자기 안해, 자식까지 서슴없이 죽인 살인자였다.

신라사람이라면 귀순해오는 사람들까지 죽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5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었다.

918년 6월 왕건과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등이 일으킨 정변으로 쫓겨나 부양(평강)에서 농민들에게 잡혀죽었다.

견 훤 (867년-936년)

후백제의 왕, 본래의 성은 리씨이며 경상북도 상주 가은현에서 평민의 아들로 태여났다.

병역을 지고 왕경에 가있다가 후에 서남해안방비에서 공을 세워 비장이 되였다.

892년 서남지방농민들의 반봉건투쟁이 앙양되자 이에 편승하여 전주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왕경 서남쪽고을들을 들이쳐 한달사이에 부대를 5 000여명으로 확장하였다.

그는 전주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 왕이 될것을 꿈꾸면서 전라남북도와 그 주변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였다.

무주(전라남도 광주)를 점령한 후에는 식읍 2 000호를 차지하였다.

그는 당시 북원(강원도〈남〉원주)지방에서 활동하던 농민군지휘자 량길에게 비장벼슬을 보내면서 그 세력을 포섭하려고 하였다.

900년 완산주를 수도로 하는 후백제를 세우고 통치기구를 제정하였다.

한편 동쪽으로 령역을 넓히는데 힘을 넣어 901년 신라의 강양군(대야성-경상남도 합천)을 공격하다가 실패하였고 906년 정기대감 왕건이 거느린 마진군과 상주에서 여러차례 싸워 패배하였다.

907년 신라의 승선군(일선군-경상북도 선산)이남 10여개 성을 점령하였다. 912년에 덕진포(전라남도 령암군)에서 왕건의 태봉국 수군에게 패전하였다.

916년 신라의 강양군을 또다시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918년 8월 왕건이 고려를 세우자 사람을 보내여 축하하였다.

그것은 신라를 먼저 차지하고 고려를 치려는 전략에 따른것이였다.

920년 10월 1만명의 군대로 신라의 강양군을 함락하고 진례성(김해군 진례면)으로 진격하였다.

924년-925년 조물성(경상북도 의성부근)에서 고려군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가 림시화의를 맺고 볼모를 교환하였으며 12월 거창 등 신라의 20여개 성을 점령하였다.

927년 9월 신라의 근암성(문경지방)을 점령하였고 고울부(영천지방)를 차지하였으며 11월 왕경을 습격하여 포석정에서 유흥에 취해있던 경애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족, 재상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신라왕실의 재부를 략탈하였다.

그리고 왕족인 김부를 왕으로 올려놓고 일부 왕족, 재상들과 유능한 수공업자들을 랍치해가지고 돌아왔다.

돌아오던 길에 공산(팔공산)밑에서 왕건이 거느린 5 000여명의 고려기병들을

격파하고 대목군(경상북도 칠골군 익목면)까지 진격하였다.

928년 5월 신라의 강주(진주)를 함락하였다.

930년 고창군(안동) 병산전투에서 왕건이 거느린 고려군에게 패하였다.

932년 9월 수군을 보내여 고려의 례성강까지 쳐들어가 염주(연안), 백주(배천), 정주의 배 100여척을 소각하였으며 저산도목장의 말 300필을 략탈하게 하였다.

934년 9월 운주(홍주)에서 고려군에게 패하고 웅진(공주) 이북 30여개 성을 잃었다.

대외적으로는 남중국의 오월국과 북중국의 거란, 일본과 관계를 맺고 자기의 정치적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935년 3월 넷째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다가 맏아들 신검과 그 동생들인 강주도독 량검, 무주도독 룡검 등의 정변으로 쫓겨나 금산사에 갇히였다가 3개월만에 금성(전라남도 라주)으로 피신하여 고려에 투항하였다.

고려왕조에서 상모의 대우를 받으면서 모든 관리들의 웃자리를 차지하고 양주를 식읍으로 받았으며 각종 재물과 노비, 말 등을 받았다.

936년 6월 고려태조 왕건으로 하여금 후백제를 징벌하여 통합하는데 적극 가담하였다.

그러나 그후 룡검과 량검이 처형되고 신검이 고려왕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벼슬을 하게 되자 번민증으로 앓다가 황산절간에서 죽었다.

량 길

후기신라의 농민폭동군지휘자이다.

그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봉건투쟁이 각지에서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던 9세기말에 신라의 북원(강원도〈남〉원주)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큰 규모의 농민폭동군을 거느리고 활동하였다.

891년 자기 부대에 찾아온 궁예(후의 태봉국왕)를 신임하여 100여명의 기병을 주어 북원동쪽부락들과 명주(강릉)부근의 10개 군, 현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신은 북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897년경에 중원(국원-충주) 등 30여개 성을 차지하고 부하들을 점령한 성과 고을에 우두머리로 임명하였다.

그는 894년 명주를 점령한 후부터 궁예가 장군으로 행세하며 농민군을 배반하고 봉건세력으로 변질되자 그를 제거하려고 나섰다.

그리하여 899년 중원을 비롯한 10여개 성의 농민군을 거느리고 비뇌성에까지 진출하였다가 도리여 참패를 당하였다.

그 이듬해에 그의 영향하에 있던 중원, 서원(청주), 괴양(괴산) 등지의 농민군지휘자들이 궁예에게 투항하였다.

그후 그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전해진것이 없다.

왕 건 (877년-943년)

우리 나라 력사상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건국자이다.

그의 자는 약천이며 묘호는 태조이다.

왕건은 신라말엽에 개성지방에서 큰 봉건세력을 이루고있던 토호의 집안에서 태여났다.

그는 송악군 사찬(신라의 8번째 벼슬등급)으로 있다가 궁예에게 가담한 아버지

룡건을 따라 20대부터 태봉국에 복무하였다.
무예에 능하였던 왕건은 여러차례의 전투들에서 공을 세워 궁예의 신임을 얻었으며 913년에는 최고관직인 시중이 되였다.
그는 폭군인 궁예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지반을 닦기에 힘썼다.
왕건은 궁예의 폭정이 극도에 이르고 인민대중과 지어는 봉건통치층속에서 그를 반대하는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진 918년 6월에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등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궁예의 태봉국을 뒤집어엎고 새 왕조를 세웠다.
왕건은 나라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고려》라고 부르고 《천수》라는 년호를 제정하였다.
그는 919년 1월 수도를 철원으로부터 송악으로 옮기고 개주(개성)라고 불렀고 왕궁과 각급 통치기관들을 짓고 시장, 거리들을 꾸렸다.
왕건은 고려봉건국가를 세운 후 국토통일에 힘을 기울이였다.
우선 그는 신라말기 전국적규모의 농민폭동때 각 지방에 할거하여 독립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성우두머리들과 장군들을 포섭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930년대초까지 이 일을 기본적으로 끝냈다.
그후에 후삼국통합에 달라붙은 왕건은 국력이 쇠약해진 신라왕조를 포섭하면서 견훤의 후백제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취하였다.
그는 고창군 병산전투에서 후백제군을 크게 격파한지 1년후인 931년 2월 신라왕인 경순왕의 초청으로 신라의 수도 경주를 방문하였다.
후삼국의 통합이 고려에 의하여 실현될것이 명백해지자 935년 11월에 신라의 경순왕은 귀족들을 이끌고 고려에 귀순하였다.
왕건은 그를 포섭하여 《위국공신》, 《락랑왕》으로 책봉하고 신라의 수도 왕경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그곳의 부호장이하 향리들을 통제케 하였으며 8 000여호의 식읍과 매해 5 000섬의 록을 주도록 하였다.
귀순한 신라왕에 대한 왕건의 우대는 후백제의 성우두머리들과 장군들에게 커다란 자극으로 되였다.
신라를 통합한 왕건은 모든 력량을 후백제에 대한 군사적공세에로 돌리였다. 그러자 934년 운주공격에서 고려군의 승리에 위압되여있던 후백제의 30여개의 성이 고려에 투항하여왔다.
후백제의 붕괴는 935년 3월에 견훤의 맏아들 신검의 정변에 의하여 촉진되였다.
936년 9월 왕건은 후백제에 대한 최종공격을 조직하였다.
왕건은 일리천(경상북도 선산군)전투에 8만 7 5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신검의 후백제군을 최종적으로 격파하였다. 신검은 나머지 문무관료들을 이끌고 찾아와서 항복하였다. 왕건은 후백제를 패망시키고 그 지역을 고려에 통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후삼국을 통합한 후에 왕건은 대동강이북의 옛 고구려땅을 되찾기 위한 북방진출에 힘을 돌리였다.
그는 서경(평양)건설부터 시작하여 대동강이북지역에 성쌓는 일을 추진시켜 고구려의 령토였던 압록강이남의 서북지역을 장악하였다.
926년에 동족의 나라인 발해가 멸망한 후 왕건을 비롯한 고려의 집권자들은 이주해오는 발해유민들을 받아들여 서북지방에서 살게 하였다.
이와 같이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고 발해유민들을 포섭하여 우리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단일민족의 통일국가를 세운 왕(시조)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성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몸소 왕건왕릉의 보존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왕건은 우리 나라에 첫 통일국가를 세운 왕인것만큼 릉을 잘 꾸려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왕건왕릉은 훌륭하게 개건되여 민족의 력사를 자랑하게 되였다. 릉문앞의 한옆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이 새겨진 **《고려태조왕건왕릉개건비》**가 정중히 세워져있다.

서 희 (942년-998년)

10세기말 고려시기의 명장이며 외교활동가이다.

어렸을 때 이름은 렴윤이며 시호는 창위이다. 그의 본은 리천인데 내의령 서필의 아들이다.

서희는 960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광평원외랑, 내의시랑 등 높은 벼슬을 하였다. 972년에 사신으로 송나라에 가서 반거란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하였다.

993년에 거란침략군이 수십만대군으로 침입했을 때 그는 중군사로 임명되여 고려군을 지휘하였다.

적장 소손녕이 거느린 80만의 거란침략자들이 봉산성(오늘의 평안북도 구성동남쪽 30리지점)을 강점하자 왕을 비롯한 비겁한 봉건통치배들은 적들에게 항복하자느니 또는 그들의 요구대로 서경이북지역을 내여주자는 등 반역적인 제의를 들고나왔다.

이러한 때 중군사 서희장군은 왕을 비롯한 일부 봉건관리들의 투항주의립장을 단호히 반대하고 항전을 주장하는 한편 주력부대의 일부를 지휘하여 봉산성을 다시 빼앗기 위한 공세를 취하였다. 서희장군이 지휘하는 고려군의 드세찬 반격을 받은 적장 소손녕은 담판의 방법으로 고려를 굴복시키려고 꾀하였다.

적들은 담판의 막뒤에서 비교적 방어가 약하다고 보이는 안융진을 점령하고 고려군의 총지휘부가 있는 안북부(안주)를 측면과 배후로부터 공격해보려고 꾀하였다.

적들은 안융진으로 달려들었다가 이 성을 지키고있던 군대와 인민들의 강력한 방어에 된타격을 받고 쫓겨가지 않을수 없었다. 청천강이북으로 몰려난 적들은 더는 남쪽으로 진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담판을 서둘렀다.

이때 적장과의 담판에 서희장군이 대표로 나섰다.

담판에 앞서 적장은 두 대표가 처음 만나 인사할 때 고려측대표는 뜰아래에서 절을 해야 한다는 오만무례한 요구를 들고나왔다. 이것은 고려사신의 기를 꺾고 제놈들이 《승리자》의 립장에서 담판을 진행해보려는 오만한 술책이였다.

이에 대하여 서희장군은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뜰아래에서 절을 한다는것은 례법에 있는 일이다. 두 나라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찌 그럴수 있는가》라고 론박하면서 대등한 립장에서 담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서희장군은 적장이 부당한 요구를 철회할 때까지 담판에 나가지 않고 시일을 끌었다.

바빠맞은 적장은 오만한 요구를 버리고 하루빨리 담판을 진행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담판은 서희장군의 주장대로 두 나라 대표가 대등한 립장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또한 적들은 담판장으로 들어가는 길 좌우편과 담판장에 어마어마하게 칼과 창을 든 거란군사들을 세워놓고 고려측 대표를 위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희장군은 그런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무당당히 담판장으로 들어가서 적장 소손녕과 담판을

진행하였다.

적장 소손녕은 《당신의 나라는 신라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어째서 당신들이 침범하였는가. 또한 당신들은 우리와 땅을 린접하고있으면서 어찌 바다를 건너 송나라와 거래하는가.》라고 하면서 고구려 옛땅을 제놈들에게 떼여주며 송나라와의 국교를 끊고 거란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횡포한 요구를 들고나왔다.

서희장군은 소손녕의 강도적요구에 대하여《아니다. 우리 나라는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만일 경계를 가지고 말한다면 당신의 나라의 〈동경〉(료양)도 우리 국토안에 들어와야 하겠는데 어떻게 우리더러 침략하였다고 말할수 있겠는가.》고 론박하였다. 그리고 서희장군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적사실과 정연한 론리로 소손녕의 요구를 여지없이 론박하였다. 또한 거란과의 관계는 고려령토에 속하는 압록강안팎의 땅을 녀진인들이 차지하고 교통을 방해하고있기때문에 앞으로 녀진인들을 내몰고 성을 쌓고 길이 열린다면 국교를 가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서희장군은 송나라와의 국교를 끊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고려자신이 결정할 내정문제였던만큼 그에 대답을 주지 않는것으로 소손녕의 요구를 부정해버리였다.

담판장에서 서희장군의 론리정연한 공세앞에서 소손녕은 완전히 막다른 궁지에 빠지였다.

그리하여 거란침략자들은 제놈들의 강제적요구를 철회하고 고려땅에서 쫓겨났다. 놈들은 쫓겨가면서 서희장군에게 락타 10필, 말 100필, 양 1 000마리와 각종 비단 500필을 주면서 외교적인 아부까지 하였다.

이렇게 서희장군은 7일간에 걸치는 담판을 통하여 적장 소손녕을 완전히 틀어쥐고 외교적승리를 달성함으로써 거란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강 조 (?-1010년)

고려의 무관이다.

강조는 여러 관직을 거쳐 중추사 우상시로 되였으며 외직으로 나가서 서북면도순검사로 되였다.

바로 이때인 1009년 1월에 외척 김치양이 천추태후(목종의 어미)와 짜고들어 목종을 페위시키려고 시도하자 불안을 느낀 목종은 왕의 후계자로 대량원군 순을 데려오도록 하는 한편 서경에 사람을 보내여 도순검사 강조에게 군사를 끌고와서 왕궁을 지키게 하였다. 이때 강조는 목종이 보낸 통지를 받고 한동안 동요하다가 이 기회에 정변을 일으킬것을 결심하고 5 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서경을 떠나 개경으로 향하였다. 강조는 김치양일당을 격파하면서 개경으로 들어가 왕궁을 점령하였다. 강조는 김치양부자를 비롯한 그의 일당을 처단하고 목종까지 죽여버린 후 대량군 순을 왕(현종)으로 앉히였다.

강조는 우선 중대사직을 차지하고 나라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이 강조의 정변이였다.

왕위에 오른 현종은 강조를 양국공으로 봉하고 얼마후에 리부상서 참지정사의 벼슬을 주었다.

1010년 11월에 거란왕이 직접 거느린 40만의 거란침략군이 목종의 페위와 그의 죽음을 따진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걸고 고려에 침입하였다.

왕은 강조를 행영도통사로 임명하면서 30만의 병력을 통솔하여 통주(동림군)계선에서 거란침략군을 막도록 하였다.

강조는 주력군을 3군으로 편성하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 강을 앞에 끼고 진을 친후 검차를 비롯한 각종 방어수단들을 리용하여 적을 소멸하도록 하였다. 한편 거란침략자들은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하여 고려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악착스럽게 달려들었으나 수많은 죽음을 냈을뿐 고려군의 방어선을 돌파할수 없었다.

첫 승리에 자만도취하여 차츰 적을 얕잡아보기 시작한 강조는 자기의 군막안에서 안일하게 장기를 두면서 전투지휘를 소홀히 하였다.

총지휘관으로서 적을 얕보는 강조의 분별없는 행동은 마침내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왔다.

고려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거란침략군의 기병들은 불의에 지휘부에 달려들었다.

지휘부를 기습한 적기병들은 강조를 포로하여 거란왕이 있는 곳으로 끌고갔으며 통주방어선은 무너지고말았다.

강조는 자기 신하로 되라는 거란왕의 거듭되는 회유에《나는 고려사람인데 어떻게 너의 신하로 될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단마디로 거절하였다.

거란왕은 군사들을 시켜 그의 살을 칼로 도려내는 등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면서 신하가 될것을 강요하였으나 강조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약이 오를대로 오른 거란왕은 강조를 잔인하게 죽이였다.

양 규 (?-1011년)

제2차 고려—거란전쟁시기 군공을 세운 고려의 무관이다.

양규는 목종때부터 벼슬하여 형부랑중에 이르렀다.

1010년 11월 거란침략군이 제2차로 대규모적인 침략을 감행하여왔을 때 양규장군은 도순검사(방면군지휘자)로서 압록강계선의 전략상 요충지인 흥화진에 나가있었다.

그리하여 적들로 하여금 흥화진부근에 20만의 방대한 병력을 남겨두지 않을수 없게 함으로써 국내로 침입하는 적의 력량을 크게 분산약화시켰다.

그후 양규장군은 남하한 적들이 서경에서 련속적인 타격을 받고있을 때 수백명을 이끌고 흥화진으로부터 통주계선으로 나왔다. 양규장군은 12월 17일 곽주성(곽산)을 불의에 들이쳐서 이곳을 강점하고있던 수천명의 거란침략군을 모조리 소멸하고 성안에 갇혀있던 7 000명의 인민들을 통주성으로 옮기게 하였다.

1011년 1월 18일 양규장군은 거란침략군이 저들의 안전한 퇴각을 목적으로 압록강연안의 무로대에 주둔시켰던 대부대를 기습하여 2 000명을 죽이고 놈들에게 랍치되였던 3 000명의 인민들을 구원하였다.

양규장군은 다음날인 1월 19일에 다시 부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달려가 리수(선천 동북쪽)에서 적을 공격하여 쳐부시였다. 양규장군은 도망치는 거란침략군을 석령(천마군)까지 추격하여 2 000명을 살상하고 1 000명의 주민들을 구원하였다.

양규장군은 1월 22일 여리참에서 적들과 세차례나 크게 싸워 세번 다 승리하였다.

양규장군은 1월 28일에 김숙흥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와 합세하여 포위속에 든 거란침략군을 애전에서 요격하여 1 000여명을 쓸어눕혔다.

바로 이때 포위된 제놈들의 패잔병을 살릴 심산으로 거란왕 성종이 끌고나선 무로대의 적들이 밀려들었다.

양규장군과 김숙흥장군의 부대는 련합하여 수적으로 우세한 거란침략군을 맞받아 용감하게 싸워 적들을 수많이 살상하였다. 양규장군과 김숙흥장군은 군사들의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온종일 전투를 지휘하다가 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양규장군과 김숙흥장군의 온몸에 얼마나 많은 화살이 박혔던지 마치 고슴도치를 방불케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양규장군은 적은 부대를 거느리고 불과 10여일동안에 7번이나 큰 싸움을 벌려 수많은 거란침략군을 격멸하고 적에게 붙들려가던 인민들을 30만명이나 구원하였으며 군인들과 인민들을 능숙히 지휘하여 구주－통주계선에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줌으로써 거란침략군의 제2차침입을 격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고려정부에서는 양규장군의 공훈을 평가하여 삼한후벽상공신칭호를 주었다.

경순왕 (김부) (?-978년)

시호는 효애, 왕호는 경순왕.

신라의 제56대왕, 문성왕의 후손인 이찬 김효종의 아들이다.

포석정사건이후 그가 왕이 된것은 신라왕조를 명색상 유지하되 고려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후백제왕 견훤에 의해서였다.

그가 집권한 후 신라는 후백제와 고려에 대부분의 령토를 빼앗기고 왕경주변의 일부 지역만 지배하는 형편에 있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935년 10월 국가를 보존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려에 투항하기로 하였으며 11월 귀족관료들과 장수들을 거느리고 개경으로 왔다.

이때 그 행렬은 30여리나 되였다고 한다.

그는 개경교외에서 왕건의 영접을 받고 고려왕궁결의 좋은 주택 1채를 사용하였으며 왕건의 맏딸 락랑공주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사촌누이를 왕건에게 시집보냈다.

그해 12월 고려왕조로부터 정승공으로 책봉받아 왕태자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고 5 000섬의 록봉과 경주를 식읍으로 받았다.

그후 고려 경종에게 자기 딸을 시집보냄으로써 976년 3월 상보도성령으로 책봉받고 추충신의숭덕수절공신칭호와 1만호의 식읍을 받았다.

그는 고려와 싸우지 않고 스스로 넘어와 국토통일위업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족사발전에 일정하게 긍정적영향을 미치였다.

강 감 찬 (948년-1031년)

고려시기의 관료이며 애국명장이다.

강감찬은 경기도 시흥군에서 왕건을 도와 고려건국에 공을 세워 삼한벽상공신칭호를 받은 강궁진의 아들로 태여났다. 어릴 때 그의 이름은 은천이다.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지혜가 있었으며 983년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례부시랑, 한림학사 등을 거쳐 고려봉건정부의 최고벼슬인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사람들은 수십만의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명장 강감찬장군의 지휘밑에 압록강과 구성에서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나라를 수호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1권, 552페지)

1010년 11월 거란침략자 40만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통주(평안북도 동림군)에서 고려의 방어군주력이 패하자 고려정부안의 왕과 일부 량반통치배들이 당황하여 적들에게 항복하자고 떠벌이였다.

이때 강감찬장군은 일시 적들에게 개경을 내주더라도 전투력량을 다시 정비하여 적과 싸우자고 주장하였다.

강감찬장군의 주장에 의하여 텅 비여있는 개경까지 기여들었던 거란침략군은 퇴각로를 차단당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였다. 거란침략군은 1011년 1월 도망치지 않을수 없었다. 때를 기다리고있었던 고려군사들은 도주하는 거란침략군을 쳐서 큰 타격을 주었다.

거란침략자들의 침입으로 고려측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기는 하였으나 거란침략군을 끝내 물리칠수 있은것은 강감찬장군의 주장이 큰 작용을 하였다.

그후 강감찬장군은 서북면행영도통사로 되여 서북지방의 방어를 준비하였다.

1018년 12월에 10만의 거란침략군이 제3차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상원수(총사령관)를 겸한 강감찬장군은 20만 8 300명의 방어군을 지휘하였다. 이때 강감찬장군은 흥화진(의주 동남쪽 25리지점)에서 적을 막았다. 그는 굵은 노끈으로 꿰맨 소가죽으로 강물을 막아놓았다. 적들이 기여들자 뚝을 터뜨려서 물벼락을 들씌우고 매복시켰던 1만 2 000명의 기병을 공격케 하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안기였다.

그러나 적들은 큰 손실을 입으면서도 계속 개경을 향해 남하하였다.

강감찬장군은 적들의 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병마판관 김종현으로 하여금 1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지름길로 적을 앞질러가서 개경방어군을 협력케 하였으며 동북면병마사가 거느리는 3 300명의 응원군을 개경에 파견하여 개경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한편 강감찬장군은 개경성부근의 인민들을 모두 개경성안으로 옮기게 하고 주변 100여리의 들판에는 한줌의 마초와 한줌의 쌀도 남겨놓지 않고 우물을 모조리 메움으로써 침략자들에게 한모금의 물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듯 강감찬장군의 청야수성전술에 걸려든 거란침략자들은 신은현(신계)부근에 이르러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 되돌아서 도망치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 강감찬장군은 반공격에로 넘어가 도망치는 적을 구주(구성)부근에서 포위하고 격멸시켰다.

이리하여 압록강을 건너온 거란침략군 10만가운데서 살아서 도망친자는 겨우 수천명이였다.

이와 같이 강감찬장군은 제3차 거란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데도 크게 기여한 애국명장이다.

윤 관 (?-1111년)

12세기초에 녀진족의 침입으로부터 고려의 동북변지대를 지키는데서 공훈을 세운 무관이다.

윤관의 자는 동현이며 시호는 문숙이다. 그는 검교소 부소감을 지낸 윤집형의 아들이다.

윤관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전투짬시간에도 진중에서 책을 읽었다고 한다.

11세기말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벼슬은 리부상서에 이르렀다.

1104년 3월에 동북면행영도통사로 임명된 그는 천리장성밑에까지 침입한 완안부녀진침략군을 격파하면서 정주(정평)성을 장악하였다.

3월초 윤관은 정주성부근의 적을 격파하고 벽동수까지 진격하여 적과 일대 격전을 벌려 적지 않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후 완안부녀진은 천리장성밖에 설치했던 성책을 자진하여 헐어버리고 6월에 화평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의 동북지방으로 침입한 녀진침략군에게 군사적타격을 주고 그의 남침야욕을 일단 저지시킬수 있었다.

1107년 녀진침략군이 또다시 침입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고려정부에서는 그 소굴을 소탕하기 위하여 윤관을 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임명하고 17만대군을 동원하였다.

고려원정군은 윤관의 지휘밑에 녀진족을 징벌하여 그들이 살고있던 135개의 촌락을 평정하고 적들에게 랍치되여갔던 고려인민들을 도로 찾아오며 동시에 동쪽은 화곶령, 북쪽은 궁한이령, 서쪽은 목타골령으로 경계를 확정하였다. 1108년 고려정부에서는 이 지역안에 영주, 웅주, 복주, 길주, 함주, 공험진 등 9개의 성을 쌓고 지방통치단위들을 설치하였으며 남쪽지방인민들을 이주시켜 방어케 한 후 원정군을 소환하였다.

그뒤 9성에 대한 녀진족들의 침습이 심해지자 1108년 7월에 윤관은 다시 행영병마원수로 임명되여 녀진징벌에 파견되였다.

그러나 부패무능하고 공명과 권력에 눈이 어두웠던 왕정내의 최홍사, 김경영, 김연 등의 주장으로 고려봉건정부는 1109년 7월에 9성을 포기하는 동시에 윤관에게 패전했다는 《죄》를 씌워 철직시켰다.

윤관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의 동북변경지대를 지키는데 일정한 공로가 있었다.

김 황 원 (1045년-1117년)

고려중기의 시인이다.

본은 양장, 자는 천민, 시호는 문간이다.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열중하였으며 특히 한시에 능하였다고 한다.

일찌기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원에 있었다.

그후 지방군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중서사인을 거쳐 벼슬이 례부시랑, 국자제주, 한림학사, 첨서중추원사에 이르렀다.

그는 당시 해동제일이라고 할만큼 한시에서 일인자로 꼽혔고 성격이 강직하여 권세가들에게 아부아첨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온 사신이 그의 시에 탄복하여 베껴가지고 갔다고 한다.

그는 학문에도 밝아서 숙종왕은 책을 보다가 모를것이 있으면 그에게 물었으며 선배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도 련광정기둥에 씌여져있는《장성일면 용용수 대야동두 점점산》이라는 시구절은 그가 부벽루에 올라 대동강의 경치를 담으려다가 그 절경에 너무도 탄복하여 끝맺지 못하고 붓을 꺾어버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전해오고있다.

정 지 상 (?-1135년)

고려시기 정치활동가이며 재능있는 시인이다.

그는 평양출신량반으로서 처음 이름은 지원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시를 잘 지었다.

정지상은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벼슬이 기거주에 이르렀다.

그는 리자겸의 반란을 진압한 후 한때 권력을 잡았던 탁준경을 제거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여 국왕 인종의 신임을 받았다. 그후 정지상은 묘청, 백수한과 함께 고려의 수도를 개경으로부터 평양(서경)으로 옮길것을 여러차례 왕에게 제기하였다.

그는 평양에 수도를 옮긴 다음 고려의 국력을 강화하여 강대한 나라로 만들며 대외관계에서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없애고 그에 대하여 강경책을 씀으로써 고려의 위세를 떨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경출신량반관료들의 평양천도계획을 반대하여온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량반들은 1135년 1월에 묘청이 정변을 일으키자 그에 협력하였다는 리유로 당시 개경에 와있던 정지상을 살해하였다. 그가 살해되자 당시 사람들은 김부식과 정지상은 평시에 글에서의 명망이 서로 비등하였으므로 김부식이 질투하여 묘청과 내통하였다는 구실로 그를 죽였다고 하면서 김부식의 처사를 비난하고 정지상의 죽음을 애석해하였다고 한다. 정지상은 원래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다정다감하여 유교의 속박을 싫어하고 자연과 풍류를 노래하였기때문에 량반사대부들의 미움을 받았다.

정지상은 생애에 자연경치와 인간의 내면세계를 생동하게 밝혀낸 인정세태적인 서정시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특히 평양을 몹시 사랑하였던 정지상은 평양, 대동강 등을 많이 노래하였다. 그의 시는 착상이 기발하고 묘사가 생동하며 강한 정서적여운을 안겨주는것으로 특징적이였다.

그의 시가 문집으로 전하는것은 없으나 많은 책들에 인용되고 정자와 명승지들에 새겨져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정지상은 평양이 낳은 재능있는 시인으로서 문학에서 현실반영의 진실성이 강하고 서정시의 예술성을 높이는데 긍정적기여를 하였다.

김 부 식 (1075년-1151년)

고려시기의 대관료이며 력사가이다.

김부식의 자는 립지이며 호는 뢰천이다. 시호는 문렬이다. 그는 개경 량반집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30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서서 례부시랑, 호부상서, 한림학사, 승지를 거쳐 평장사,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그는 당시 문무를 다 갖춘 재상으로서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새로 일어난 금나라와의 관계에서 굴욕적인 사대외교를 주장한 반동관료이다.

한때 일시 권력을 장악했던 리자겸일파가 쫓겨난 후에 봉건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김부식은 전 시기와 다름없이 금나라에 대한 사대가《국가를 보존하는 가장 훌륭한 방책》이라 하면서 금나라에 굴종하는 비굴한 립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대주의적립장에 섰던 그는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반대하여 진출한 묘청, 정지상, 백수한 등 서경출신량반들이 평양천도를 시도한것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러다가 1135년 1월에 묘청 등 서경량반들이 정변을 일으키자 그 진압에 앞장섰다.

그는 먼저 개경에서 묘청과 결탁되여있던 정지상, 백수한, 김안 등을 끌어내여 살해하였다.

그후 김부식은 《토벌군》의 총지휘자가 되여 1136년 2월까지 근 1년간 서경을 포위하고 투쟁에 일떠선 서경군대와 인민들을 진압하였다.

이처럼 그는 사대외교를 주장한 반동관료였을뿐아니라 서경군대와 인민들의 폭동을 무참히 진압한 반인민적관리였다. 김부식은 일련의 력사책들도 썼다.

그는《예종실록》,《인종실록》을 집필편찬하는데 참가하였으며 1145년에《삼국사기》를 썼다.

그가 편찬한《삼국사기》에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력사가 기전체형식으로 씌여져있다.

이 책은 김부식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당시 인민들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정확히 서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의 사대주의적립장과 신라중심주의적립장으로 하여 삼국시기의 력사 특히 고구려, 백제의 력사가 적지 않게 외곡되였거나 신라의 력사가 심히 과장되였다. 그러나 이 책은《삼국유사》와 함께 삼국시기의 력사를 연구하는데 기본사료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에게는 력사책들밖에 20여권의 문집이 있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고있다.

김부식은 이렇듯 문인으로서 활동했을뿐아니라 묘청의 정변으로 시작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한 서경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는데도 참가한 반동적인 대관료이며 사대주의자였다.

정 중 부(1106년-1179년)

정변을 일으켜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무신정권을 세운 고려시기의 무관이다.

정중부는 해주출신으로서 병졸로부터 출세하여 문하시중이 된자이다.

그는 무신들을 모욕하고 천대하는 국왕과 문관들을 처단하고 그들처럼 부귀와 향락을 누리며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려고 꿈꾸었다.

1170년 8월에 정중부는 리의방, 리고 등과 함께 정변준비를 해오다가 국왕(의종)이 문신들을 거느리고 보현원이라는 절에 가서 놀이를 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수많은 문신들을 처단하고 국왕을 내쫓고 의종의 동생 명종을 왕자리에 앉히였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정중부의 정변 또는 무신정변이라고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에는 인민을 억압하는 소수 통치배들이 인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로부터 강제로 정권을 만들었기때문에 그것은 항상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이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4권, 375페지)

1170년 정중부를 비롯한 무관들이 정변을 일으켜 우로부터 만들어낸 고려무신정권은 무신관료배들과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이였다.

무신정변후 봉건통치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지 못한 무관들이 집권함으로써 더욱 조폭하고 어설픈 통치수법이 적용되였으며 그들내부에서 끊임없는 권력다툼이 벌어져 봉건적통치질서전반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1171년 리의방이 리고를, 1174년에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리의방을 살해하고 정중부는 정권을 독차지하였다. 그는 정권을 장악한 후 문신들을 탄압하였을뿐아니라 각곳에서 일어나는 농민폭동을 가혹하게 진압하였다.

정중부는 1179년에 같은 무신 경대승에게 살해당하였다.

이처럼 정중부가 정권을 독차지한 후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

무신들 호상간에 자리다툼, 문신관료배들의 옛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반란음모, 무신통치배들의 포악한 정치와 악랄하게 감행되는 봉건적수탈을 반대하는 서북지방을 비롯한 각지의 농민폭동 등이 계속되였다.

조 위 총 (?-1176년)

고려중기의 서북폭동군의 주모자이다.

의종통치말년에 병부상서로 있다가 서경류수가 되였다.

1170년 정중부, 리의방 등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의종과 문신들을 추방, 처단하고 명종을 내세우자 1174년 9월 무신들을 타도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그는 동계와 북계의 여러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하여 대군으로 토벌하려 하는데 앉아서 살륙을 당할수 없으니 투쟁에 궐기하자고 호소하였다.

이에 절령이북의 40여개 성이 호응해나섰고 연주성(녕변)만이 성을 방어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무신정권은 평장사 윤린첨(윤관의 손자)의 3군을 보내여 공격하게 하고 례부랑중 최균을 동북도호지휘사로 임명하여 북로의 여러성들이 조위총의 폭동에 호응하지 않도록 설교하게 하였다.

서경폭동군은 처음 절령에서 윤린첨의 관군을 크게 격파하였으나 급히 출동한 리의방의 부대에 의하여 패하여 대동강이북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관군은 조위총의 아들 조경과 장군 우의선의 목을 뱄다.

이해 12월 리의방을 처단한 무신정부의 회유술책에 동요하여 일시 투항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관군의 《토벌》이 계속되자 다시 투쟁에 궐기하였다.

1175년 3월 련주(개천)를 지원하러 가던 서경폭동군은 중도에서 윤린첨의 관군과 격전하여 1 500명이 희생되고 250여명이 붙잡히는 참패를 보았다.

4월 분원전투에서도 760여명이 손실을 보았다.

그후 그는 3차에 걸쳐 금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지원을 받으려고 꾀하였으나 관군의 봉쇄로 파탄되였다.

정부군의 오랜 포위로 서경폭동군은 군량난에 빠졌고 내부에서 동요도 일어났다.

9월 서경폭동군은 절령에서 대장군 강점의 부대를 격파하였으나 이어 관군과의 격전에서 3 000여명이 희생되였다.

1176년 3월 그는 출격하여 거짓 패하는척 하다가 룡흥부, 룡덕부에서 반격을 가하여 수많은 관군을 격멸하였다.

6월 윤린첨의 부대는 통양문으로, 두경승의 부대는 대동문으로 평양성안으로 쳐들어오자 서경폭동군은 완전히 붕괴되였고 그는 관군에 붙잡혀 죽었다.

정부군은 조위총의 가족과 폭동참가자 100여명을 붙잡아 노비로 만들거나 류배보냈다. 조위총의 서경폭동군은 무신통치배들의 악정을 반대하는 서북지방인민들의 투쟁을 대표하였다.

망 이 (?-1177년)

12세기 후반기 공주 명학소 농민폭동의 지휘자이다.

망이는 공주 명학소 천민출신이다.

1176년 1월 22일 오랜 기간 억압자들과의 결전을 준비해오던 공주 명학소의 농민들이 망이를 산행병마사로 하는 전투부대를 뭇고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섰다.

망이는 명학소의 천민부락농민들을 이끌고 산간지대에 본거지를 두고 투쟁을 벌리였다.

망이농민군은 우선 자기들을 억압착취하는 봉건통치배들의 소굴이였던 공주를

공격하여 악질적인 량반관료들과 토호들을 처단하고 공주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공주가 농민군에 의하여 점령되였다는 급보를 받은 국왕과 무신집권자들은 우선 《선유사》를 보내여 회유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망이농민군의 완강한 항거에 의하여 회유책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정황재에게 관군을 주어 진압케 하였다.

망이농민군은 이해 3월초에 공주에 기여든 3 000명의 관군과 싸워 그를 격파하였다.

서경 《토벌》에 관군을 동원했던만큼 새로 관군을 보낼수 없었던 무신통치배들은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해 6월에 무신집권자들은 현령, 현위를 새로 파견하였다.

망이농민군은 새로 파견된 통치자들의 활동을 허용하는것과 같은 불철저한 립장을 취하였다.

그후에 망이는 국왕의 이른바 《인자한 정치》와 무신집권자들의 회유기만전술에 넘어가 1177년 1월에 통치배들과 《화의》를 맺었다.

《화의》를 맺고 공주로 돌아온 망이는 곧 적들에게 기만당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충청좌도병마사로 출두한 정세유는 관군을 이끌고 곧바로 명학소에 달려들어 망이의 어머니와 처를 랍치하였다.

이에 격분한 망이와 농민군은 1177년 2월에 다시 투쟁에 일떠섰다.

망이농민군은 우선 가야사(충청남도 례산군)를 습격하여 악질적인 중들을 처단하였고 계속하여 진주(충청북도 진천)와 황려현(경기도 려주군)을 들이쳤다.

3월에는 홍경원(충청남도 려주군)을 습격하여 절간을 불사르고 악질적인 중 10여명을 처단하였고 절간의 주지를 체포하여 농민군의 투쟁결의를 담은 편지를 주어 개경무신집권자들에게 보내였다. 편지에는 무신집권자들의 비렬성을 폭로한 다음 《오히려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개경까지 쳐들어가서 원쑤를 갚고야 말겠다》는 농민군의 견결한 립장이 적혀있었다.

망이농민군은 아주(충청남도 아산)를 비롯하여 여러 고을들을 공격하여 청주목의 55개 고을을 모두 점령하였다.

1177년 4월에 이르러 망이농민군은 충청남북도의 거의 전 지역과 경기도의 일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무신집권자들은 다른 지역의 농민폭동을 진압하자 정세유, 리부 등에게 각각 관군을 이끌고 망이농민폭동군진압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놈들은 동시에 《충순현》을 다시 명학소로 그 격을 낮추었다.

망이농민군은 이러한 정세에서 투쟁을 더는 확대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망이자신도 6월에 이르러 무신통치배들에게 또다시 《화의》를 맺으려는 불철저성을 나타냈다. 망이와 농민군은 국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왕의《인자한 조치》만 있으면 자기들의 생활처지도 개선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들은 봉건통치배들의 아성을 들이칠 대신에 지방관청이나 절간을 습격하여 악질적인 토호, 향리들을 처단하고 복수하는것으로 그치고말았다.

개경의 무신집권자들은 망이농민군이 가지고있는 약점을 리용하여 관군을 출동시켜 망이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적공세를 감행하면서 《화의》를 요구한 망이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77년 7월에 농민군은 관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결국 농민폭동의 지휘자이던 망이는 체포되고 농민군은 흩어지고말았다.

무신통치배들은 망이를 체포하여 청주감옥에 구금했다가 학살하였다.

리 녕

고려시기의 이름난 화가이다.

전주태생으로서 어려서부터 남다른 그림재주를 가지고있었다.

우수한 회화적기능과 재능으로 하여 커서는 봉건왕정에서 화원으로 복무하였다.

그는 1124년에 송나라로 가는 사신을 따라갔다가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송나라에서 그림그리기를 맡아보던 한림원의 화가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뛰여난 화법을 가르쳐주었다.

그의 대표적인 그림의 하나는 송나라임금(휘종)의 요청에 의하여 그린 풍경화《례성강도》이다.

송나라임금 휘종은 이 그림을 보고 《근래에 고려의 화가들이 사신을 따라 많이 왔으나 묘수(뛰여난 재간을 가진 사람)는 리녕뿐이다》라고 칭찬하면서 그에게 술, 음식과 비단을 선사하였다고 한다.

리녕에게 그림을 배워준 리준은 후배들이 그림을 잘 그려도 칭찬하는 일이 적었으나 리녕의 그림을 보고서는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고 한다.

국왕 인종이 리준을 불러 리녕이 그린 한폭의 풍경화를 보여주자 깜짝 놀라면서 《이 그림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나는 천금을 주고도 사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리녕은 당시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화폭에 담음으로써 애국적이고 사실주의적인 풍경화창작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의 아들인 리광필도 이름난 풍경화가였다.

최 충 헌 (1149년-1219년)

고려시기의 반동관료이다. 무신최가정권의 제1대집권자, 상장군이던 최원호의 아들로서 어려서 이름은 란이다.

최충헌은 1174년 2월에 조위총의 반란을 진압하는데서 공을 세워 출세하기 시작하여 섭장군으로 되였다.

그는 1196년 당시 무신집권자였던 리의민과 그 일당을 모조리 죽인 후 권력을 쥐였다.

1198년 최충헌은 인종왕의 동생 평양공 민(신종)을 왕자리에 앉히고 공신칭호를 받았으며 상장군의 관직에 올랐다.

그해 5월에 자기의 사노비인 개경노비폭동의 지휘자 만적의 폭동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자 그는 만적을 비롯한 100여명의 폭동가담자들의 목에 돌을 매달아 례성강에 빠뜨려 죽이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1199년 그는 병부상서로서 리부의 일까지 겸하여 병권과 관리임면권까지 틀어쥐였다. 그는 날래고 힘센자들을 뽑아서 제놈의 집을 호위하는 사병을 두었으며 이들을 관리하는 도방을 두었다.

1202년에 추밀사리병부상서 어사대로 된 최충헌은 나라의 실권을 잡고 도방에 앉아서 자기의 심복들과 뢰물을 먹이는자들을 제멋대로 관리로 임명하였다.

신종왕의 뒤를 이어 희종왕시기에 그는 문하시중으로 임명되고 진강후로 책봉되였으며 방대한 식읍을 받고 사적통치기구인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그는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민가 100여채를 허물어버리고 제놈의 집과 별장을 왕궁에 못지 않게 화려하게 꾸린 후 부귀영화를 누리였다.

그는 왕궁에 드나들 때 평시에 입던 평복을 입고 시종을 데리고 다니는 등 왕과

거의 동격으로 행동하였다.

당시 뢰물행위와 인민수탈로 살질대로 살진 최충헌의 집에는 문객만 하여도 3000명에 가까왔다고 한다.

최충헌의 권세는 왕권을 압도하고 조정의 관리들은 그가 아무리 못된짓을 많이 하여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하였다.

1212년에 최충헌의 전횡에 불만을 품은 일부 관료들이 왕을 끼고 그를 처리하려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최충헌은 왕 희종을 강제로 페위시키여 먼 섬으로 추방했으며 명종의 맏아들인 한남공정(강종)을 왕자리에 앉히였다.

최충헌은 1216년 거란침략군의 고려침입으로 나라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수많은 사병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들을 출동시키지 않았을뿐아니라 사병으로서 거란침략군을 치러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귀양보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는 1219년 고려군이 승전하고 개선한 후 그가 공을 세운 장수들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데 대해 불평을 말한 교위 손영과 그의 동료 100여명을 체포하여 목베여 죽이는것과 같은 귀축같은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고려정부의 사실상의 통치자가 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온갖 범죄적행위를 감행한 최충헌은 71살에 병으로 죽었다.

그는 자기의 림종때에 수많은 악공들을 불러들여 종일 음악을 연주케 하였다고 하며 그의 장례식은 국왕이 죽었을 때와 별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최충헌으로부터 시작된 최가무신정권은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 4대에 걸쳐 62년간 계속되면서 고려봉건통치를 문란시키고 인민들에게 말할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웠다.

만 적 (?-1198년)

1198년 5월 개경공사노비들의 폭동계획의 조직자였다.

1198년에 무신집권자 최충헌의 집종이였던 만적은 개경북산(송악산)에 나무하러 가서 여러 종들을 모아놓고 《경인, 계사년(1170년, 1174년)이래 높은 벼슬아치들이 〈천민〉가운데서 많이 나왔는데 대장이나 정승이 되는것은 종자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때가 오면 누구나 다 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찌 상전의 채찍밑에서 뼈빠지게 힘겨운 일에 시달리겠는가》라고 선동하면서 자기들의 착취자이며 압박자인 상전들과 무신정권을 반대하여 일어날것을 호소하였다. 그러자 모든 종들이 이에 호응하여나섰다.

만적은 폭동을 지지하는 종들에게 누런 종이에 《丁(고무래 정)》자를 수천장 써서 나누어주어 서로 단결의 표식으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만적은 구체적인 폭동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의하면 만적 등이 흥국사로부터 구정에 모여들어 북을 치고 고함을 질러 궁중에 있는 환자들을 호응하게 하고 관청의 종들은 관청에서 통치배들을 처단하며 상전집의 종들은 먼저 최충헌을 처단한 다음 각기 자기의 상전을 처단하고 노비문건들을 불태움으로써 《이 땅에서 종을 영원히 없애버리자》는것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 약속한 날에 모인 사람들이 수백명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행동계획날자를 연기하고 보제사에 다시 모일것을 약속한 후에 그대로 헤여졌다.

그러나 이때 률학박사 한충유의 종이던 순정이 이 사실을 자기의 상전에게 밀고함으로써 폭동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였다.

질겁한 최충헌과 통치배들은 만적을 비롯한 100여명의 종들을 붙잡아 목에 돌을 달아매고 례성강에 던져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만적이 세운 폭동계획은 성사를 보지 못하고 실패하고말았다.

만적은 무신집권시기 노비해방투쟁의 첫 봉화를 들고 용감하게 일떠선 최하층《천민》출신의 대표적인물이였다.

리 인 로 (1152년-1220년)

고려의 문인이며 문학가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을 잘 짓고 서예에도 능하였다. 정중부의 무신정변이 일어난 후 박해를 피하여 약 10년동안 산속에 들어가 은거생활을 하였으며 무신정변때에 겨우 목숨을 건지고 숨어살고있던 당시의 유명한 선비들인 오세재, 림춘, 황보항, 조통, 함순, 리담지 등과 친분관계를 맺고 시를 지으면서 《해좌 7현》이라는 문학류파를 이루었다.

그는 정중부가 타도된 후인 1180년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는 벼슬이 여러번 올라 우간의대부로 승직하였으나 의협심이 강하고 성미가 급하여 당시 무신집권자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므로 크게 등용되지 못하였다.

리인로의 문집으로 《은대집》 20권과 《후집》 4권, 《쌍명재집》 3권, 《파한집》 3권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는것은 그의 진보적미학견해가 반영되여있는《파한집》과 그밖에 《동문선》을 비롯한 몇가지 책들에 기록된 시와 산물들뿐이다.

시 《갈길 험해라》는 그의 랑만주의적경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작품이다.

리인로는 이밖에도 당대의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을 표시한《산중살이》,《꽃을 접붙이는 사람에게》,《지리산을 찾아서》등 많은 시들을 썼다. 그의 창작활동은 주로 문인으로서 무신정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에 기초한것으로서 인민적립장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그의 진보적미학견해와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한 작품들은 문학사상 뚜렷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 눌 (1158년-1210년)

고려시기 불교철학자이다.

지눌의 본래 성은 정가이며 호는 목우자이다.

그는 하층량반출신의 중으로서 일찍부터 불교에 뜻을 품고 대장경연구에 힘을 기울이였다.

그는 전라남도 순천 송광산 길상사에 있으면서 《조계산수선사》라는 서재를 꾸리고 자기가 새로 만들어낸 《조계종》불교교리를 가르쳤다.

지눌은 선행한 모든 불교철학파들과는 달리 《진심》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놓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자기의 철학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는 《진심》을 우주의 본체(본질), 세계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사물현상들이 운동할수 있게 하는 주재자로 보았다.

지눌이 세계의 근원으로 보고있는《진심》이란 본질상 사람의 주관적의식, 정신을 말하는것으로서 그의 철학사상은 주관적관념론이였다.

그는 이러한 주관적관념론에 기초하여 선행시기 모든 불교교리들을 분석비판하였다.

지눌의 불교철학은 철학적인 사유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선행교종불교철학에 비하여 한걸음 발전하였다.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불교를 전파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의 각계각층속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지눌의 철학사상은 그의 제자인 혜심에 의하여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그가 쓴 책으로서는《진심직설》,《수심결》,《화엄론절요》,《계초심학인문》,《정혜결사문》 등 수십권에 달한다.

리 규 보 (1168년-1241년)

고려시기 대표적 문인이며 철학가였다.

그의 자는 춘경이며 호는 백운거사이고 시호는 문순이다.

그는 호부랑중 리윤수의 아들로 태여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직심스럽게 공부를 하였고 탐구심이 강하였으며 9살 때부터 시를 잘 지었으므로 《신동》이란 별호를 받았다.

그는 청년시절에 무신정권에 불만을 품고있던 리인로, 림춘 등 《해좌7현》이라고 불리운 문인들과 사귀면서 당대 사회의 부패성을 알게 되고 무신집권자들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점차 키우게 되였으며 《해좌 7현》의 랑만주의적시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후에 랑만주의적서사시를 쓰게 되였다.

그는 22살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무신집권자들의 미움을 받아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천마산(개성)에 들어가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중년기에 이르러서야 벼슬길에 나선 그는 지방관청의 낮은 벼슬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의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으나 그 과정에 귀양살이도 하면서 곡절많은 길을 걸었다.

1232년 몽골침략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늙은 몸으로 침략자를 반대하는 싸움에 참가하였다.

리규보는 말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창작에 전심하다가 생애를 마쳤다.

그는 생애에 1만편에 가까운 시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썼고 진보적인 미학적견해와 철학적견해를 발표한 사회정치론설들을 많이 썼다. 문학사상 처음으로 되는 장편서사시 《동명왕편》을 창작하였다.

그가 지은《고금상정례서문》은 우리 나라 금속활자사용의 연원을 알수 있게 하는 가장 오랜 사료로 되고있다.

그는 혼돈상태의 물질적인 《원기》를 세계의 시원으로 보는 유물론적견해와 사물현상의 발생발전의 원칙을 그자체에서 찾는 긍정적인 사상을 내놓았으나 그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견해들은 총체적으로 당시의 진보적량반계층의 리해관계를 대변하였다.

그는 12세기 후반기～13세기초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농민폭동을 진압하는데 참가하였으며 창작활동에서 인민들의 근본적인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나서지 못한 제한성이 있지만 다양한 형식으로 된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고려시기의 진보적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작가의 한 사람이다.

리규보의 작품들은 문집 《동국리상국집》에 실려 전해지고있다.

림 춘 (12세기 후반기-13세기초)

고려시기의 문인이다.

림춘의 자는 기지이며 호는 서하이다.

당시 진보적인 문학류파였던 《해좌 7현》의 한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에 능하였으나 너무 가난하여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였다.

당대의 유명한 문인이였던 리규보와 시를 통하여 친교가 두터웠다.

정중부의 정변때에 온 가족이 무신들에게 화를 당하여 죽고 자기 혼자만 겨우 목숨을 건졌다.

림춘은 당시의 반동적문인들에 의하여 조장되고있던 형식주의, 모방주의 등 그릇된 창작태도와 경향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였다.

림춘은 억지로 남을 본따서 자기 본새를 잃어버리는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야말로 글쓰는 본령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진보적미학사상이 담겨져있는 대표적인 글로는 《리학사에게》를 들수 있다.

림춘은 시와 함께 고려 후반기에 새로운 산문형식으로 나타난 수의전체문학작품도 창작하였는데 대표작은 《국수전》과 《공방전》이다.

《국수전》에서 누룩과 술을 의인화하고《공방전》에서는 돈을 의인화해서 안일부화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운자들을 풍자하였다.

림춘의 작품들은 많이 없어지고 친구인 리인로가 수집한 문집 《서하선생집》이 전해내려오고있다.

김 극 기

12세기말~13세기초에 활동한 고려의 문인이다.

한때 한림원에서 벼슬살이도 하였으나 생애의 많은 기간 고향인 경주에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김극기는 리인로, 림춘 등 《해좌7현》의 문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시들과 산문을 썼다.

그는 권력을 등에 지고 온갖 전횡을 일삼는 무신집권자들을 미워하면서 놈들에 의하여 빚어지는 사회적불안과 당시 문인량반들의 《불우한》 처지가 빨리 개선되기를 바랬다.

김극기의 이러한 사상적경향은 그가 창작한 작품들에 반영되였다.

시 《취해서 부른 노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한 랑만주의적경향의 대표작이다.

그밖에 《늙은 어부》, 《늦은 가을 달밤에》 등 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는 오래동안 농촌에서 살면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그린 사실주의적경향의 작품들도 많이 썼다.

그의 시 《농사집의 네 절기》는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생동하게 반영한 대표작이다.

김극기의 시가들은 이 시기 진보적시가문학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의 시와 산문들은 135권으로 된 《김원외집》에 묶어서 출판되였다.

김 취 려 (?-1234년)

1216년-1219년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는데서 군공을 세운 고려의 장수이다. 그는 례부시랑을 지낸 량반집안에서 태여났다. 일찌기 벼슬길에 올라 여러번 승직되여 대장군에 이르렀다. 김취려는 수염이 유명하였는데 그가 옷을 입을 때에는 두명의 시녀가 수염을 받들었다고 한다. 그는 유명한 수염으로 대장군의 위풍을 시위했다고 한다.

그는 압록강 요새지대를 자주 돌아다니며 변경수비강화에 힘썼다.

1216년 8월 아아와 걸노를 두목으로 한 수만명의 거란군이 몽골군에게 쫓기여 고려에 쳐들어왔다. 놈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재물과 식량을 략탈하였다.

거란침략군은 압록강을 건느자 의주, 삭주, 창주(창성), 운주(운산) 등 오늘의 평안북도 산간지대에 침입하였고 계속 남하하여 9월초에는 조양진(개천)까지 침입하였다.

고려무신집권자들은 이 보고를 받자 황급히 대부대로 편성된 방어군을 조직하고 적들을 치도록 하였는데 김취려는 후군병마사로 임명되였다.

9월 25일에 고려의 방어주력은 개평역(녕변군)에서 적의 주력과의 대결전을 벌렸는데 이 전투를 지휘한 김취려는 용약 적진에 돌격하여들어가 용감히 싸우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고무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그의 맏아들이 전사하였다. 김취려는 방어군을 이끌고 도망치는 적들을 계속 추격하여 묘향산일대에서 2 400여명을 살상포로하였으며 또한 청해진(희천)부근에서 적을 소멸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향산의 남강에 빠져죽은 적들은 무려 1 000여명이나 되였다.

김취려는 1217년 2월 거란의 제2차침입을 물리치는데서도 결정적의의를 가진 제주(제천)대격전때에 방어군으로 하여금 박달령에 먼저 올라 유리한 진지를 차지하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가 기여드는 수만명의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줄수 있도록 옳게 지휘하였다.

김취려는 거란침략군이 제3차로 침입하여온 1218년 4월이후에는 부원수로서 방어군주력을 이끌고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김취려는 1218년 12월에 합진이 거느린 1만명의 몽골군과 2만명의 동진군이 거란군을 친다고 고려에 새로 침입하였을 때 능란한 외교로써 거란침략군을 최종적으로 격파할 협동작전을 준비하였다.

1219년 1월 김취려는 몽골군 동진군과 협동하여 강동성공격작전을 벌렸다. 강동성을 포위하고 거란침략군에 대한 총공격을 들이댔다. 도망칠수도 싸울수도 없게 된 적들은 그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 적장을 사살하고 모두 성문을 열고나와 항복하였다.

이처럼 거란침략자를 반대하는 3차례의 싸움에서 김취려는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여 용감히 싸워 나라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박 서

몽골침략자를 반대하는 전쟁시기 구주성을 지킨 고려의 장수이다.

박서장수는 죽산(경기도 안성)사람 호부상서 박인석의 아들로서 그의 벼슬은 문하평장사였다.

1231년 8월 적장 살례탑이 거느린 몽골침략군은 압록강을 건너 함신진(의주군)을 거쳐 철주(오늘의 철산)성을 점령략탈한 후 구주성(오늘의 구성)을 여러겹으로

포위하고 공격해왔다.

적들이 쳐들어오자 서북면병마사로서 박서장군은 구주성에 부근 여러 고을의 지방군을 집결시키고 싸울 준비를 철저히 갖추었다.

이해 9월초에 몽골침략자들의 제1차공격을 물리치는 싸움때 박서장군의 지휘밑에 구주성군민들은 치렬한 항전을 벌리였다.

적의 선봉대가 성에 접근하자 김경손이 거느린 12명의 결사대는 성문을 열고나가 앞장서 달려오는 적장수를 쏘아눕혔으며 적과의 4～5차에 걸치는 싸움끝에 적을 무수히 죽인 다음 유유히 성안으로 개선하였다.

적들이 기병 300명을 뽑아서 북문으로 공격해오자 그를 격퇴해버렸다. 악에 받친 적들은 루차(성벽에 기여오르기 위한 기재)와 큰 목상(나무상자)을 만들어 소가죽으로 겉을 싸고 그속에 병사들을 감춘 다음 성밑까지 들이밀어 굴을 파고 성안으로 기여들려고 하자 박서장군의 지휘밑에 방어군은 성안에서 내리굴을 뚫고 끓는 쇠물을 부어 루차를 불태워버렸으며 또 마른 풀에 불을 붙여서 큰 목상마저 불살라버렸다.

이번에는 성첩을 파괴하기 위하여 대포차(큰 돌을 날리기 위한 무기) 15문으로 성 남쪽을 공격하였다.

박서장군은 성우에 높이 대를 쌓고 그우에서 포차로써 돌을 날려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잔인무도한 적들이 사람기름을 뿌린 섶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공격하자 박서장군은 진흙물을 뿌려 이것을 꺼버렸으며 다시 적들이 수레에다 마른 풀을 싣고와서 불을 질러 성문루를 공격하자 미리 준비해둔 진흙물을 퍼부어 불을 꺼버렸다.

몽골침략군은 30일동안이나 성을 포위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으나 막대한 기재와 력량을 잃은채 그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참패를 거듭하였다.

적들은 포위를 풀고 달아나면서 《이와 같이 작은 성으로 대군을 막아내는것은 하늘의 도움이지 사람의 힘은 아니로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박서장군의 지휘밑에 구주성군민들의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투쟁으로 제1차 방어전투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몽골침략자들은 그해 10월말에 제2차로 구주성을 다시 공격해왔고 11월에 세번째침공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때에도 구주성군민들은 박서장군의 지휘밑에 그때마다 림기응변하여 적들을 쳐부시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해 12월초에 적장 살례탑은 고려정부와 강화를 교섭하면서 네번째로 구주성에 대한 큰 공격을 감행하였다.

구주성의 군민들은 대포차를 쏘는 적들에게 성우에 포차를 배치하고 돌을 날려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당황한 적들은 황급히 퇴각하여 목책을 쌓고 방어태세를 취하였다.

적장 살례탑은 박서장군에게 항복할것을 요구하였으나 박서장군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용맹하게 싸우는 인민들의 항전을 옳게 지휘하였다.

몽골침략자들이 이번에는 운제(사다리)를 만들어 성을 기여오르려 하자 박서장군은 대우포를 만들게 하여 적들의 운제를 분쇄하여 놈들을 쳐물리쳤다.

박서장군의 옳은 지휘밑에 단합하여 싸운 구주성군민의 투쟁은 제1차 몽골침략을 반대하는 고려인민의 투쟁을 가장 빛나게 장식하였다.

김 윤 후

고려－몽골전쟁에서 군공을 세운 중출신의 애국적무관이다.

1232년 8월에 살례탑을 괴수로 한 몽골침략군이 제2차로 고려에 침입하였을 때 김윤후는 처인성(경기도 룡인군)으로 피난하였다.

살례탑이 개경과 광주전투에서 련속 패배하고도 처인성으로 쳐들어오자 김윤후는 항전에 일떠선 성안의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고무되여 중의 몸으로 싸움에 참가하였다. 그는 이 전투에서 적장 살례탑을 활로 쏘아죽였다. 전투에서 괴수를 잃은 적들은 침략을 포기하고 황급히 도망치고말았다.

국왕은 김윤후의 공을 표창하여 상장군의 벼슬을 주었으나 그가 굳이 사양하였으므로 다시 섭랑장벼슬을 고쳐주었다.

김윤후는 그후 충주산성 방어별감으로 임명되였다.

1253년 7월 제5차로 고려에 침입한 몽골군이 그해 10월 충주성을 포위공격하였다.

이때에 김윤후는 성안의 군민들의 항전을 지휘하였다. 그의 능숙한 지휘밑에 충주성의 군민들은 적장 야굴이 이끈 주력의 포위공격을 70여일간이나 물리치면서 성을 고수하였다.

싸움이 오래 계속됨에 따라 식량이 떨어지는 위급한 순간이 닥쳐왔을 때 김윤후는《누구든지 힘을 다하여 싸우는 사람이라면 귀천의 차별없이 벼슬을 주겠다. 너희들은 내 말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관노비를 등록한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로획한 소와 말들을 나누어주었다.

김윤후의 이러한 조치에 고무된 노비들을 비롯한 성안의 군민들은 모두 있는 힘을 다하여 적과 싸워 끝까지 성을 사수하였다.

충주군민들의 결사적인 항전에 의하여 남쪽으로 기여들었던 적들의 기도는 여지없이 분쇄되였다.

이처럼 김윤후는 애국적인 고려군민들을 결사전에로 불러일으켜 충주성방어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몽골침략군의 제5차침입을 물리치는데 다시금 크게 이바지하였다.

혜 심 (1178년-1234년)

고려시기 불교철학자이다.

본래 성은 최가이며 호는 무의자이다. 하층량반출신으로서 처음에는 유학공부를 하였으나 후에 지눌에게서 《조계종》불교철학을 배우면서 중이 되였으며 불교철학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내놓았다.

그의 철학사상은 대체로 당시의 중소량반계층의 리해관계를 대변하였다.

혜심은 불교가 내리막길에 들어섰던 시기에 불교교리에 대하여 회의적태도를 취하고 《무심》(마음이 없다)을 기본으로 하는 철학적견해를 내놓고 지눌의 범신론적 경향을 더욱 발전시키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무심》은 사람의 마음을 허공과 같이 텅비게 하여놓은 상

태이지만 참으로《무심》은 마음을 텅비게 한다는 그 마음조차 없애버린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기 철학에서 선종불교철학의 기본개념으로서 오래동안 론의되여오던 심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을 부정하던 나머지 나중에는 심자체를 부정하여버림으로써 무신론에 많이 접근하였다.

그는 조물주나 신이 세상만물을 공평하게 창조하고 지배한다는 선행불교신학자들과 종교론자들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그는 인성 즉 사람의 본성문제에 대하여서 종래의 유학자들이나 불교학자들의 반동적인 선천설을 부정하면서 사람은 날 때부터 타고난《천성》이란 없으며 그가 처한 주위환경과 배우고 수양하는데 따라 좋은 사람으로도 되고 나쁜 사람으로도 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심》에 기초한 그의 철학사상은 아직 불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것이였으나 거기에 담긴 일부 합리적인 요소들로 하여 이 시기 철학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의 저작으로서는《진각국사이록》을 비롯하여《선문점승》,《선문감요》,《무의자시집》 그밖에 《조계록초》 수편이 있다.

혜심이 죽은 후 그는 진각국사로 불리웠다.

김 인 준 (?-1268년)

고려시기 반동관료로서 인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한 착취자이다.

그는 집권자 최이(최충헌의 맏아들)의 눈에 들어 선전승지라는 벼슬을 하였다. 그에 대한 최이의 신임은 매우 커서 바깥출입을 할 때면 반드시 김인준을 시켜 부축하게 하였다고 한다.

김인준은 최이의 애첩과 치정관계를 맺은것으로 하여 수년간 고성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돌아왔다.

최이가 자기 아들인 최항을 자기 뒤를 잇게 하도록 하는데서 그의 뒤받침이 컸으므로 최이가 죽은 후 무신집권자로 된 최항은 김인준을 별장으로 임명하고 더욱 총애하였다.

최가에 붙어 출세하였으나 더 큰 권력과 재물을 차지하려는 야심밑에 김인준은 최의(최항의 서자)에게 불만을 품은 삼별초의 중하층장교들과 손을 잡고 1258년 3월에 정변을 일으켜 최의를 타도하였다.

이 정변으로 하여 60여년간 내려오던 최가무신정권은 붕괴되였다.

김인준은 정변후 최가무신정권때 만들어놓은 사적통치기구를 그대로 타고앉아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하였으며 최가무신정권을 다시 복구하려고 시도한 반대파량반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다.

1259년 6월 고종이 죽은 다음 몽골에 가있는 태자 전(후에 원종)이 돌아오기 전에 그는 안경공 창(전의 동생)을 왕자리에 앉히려다가 문신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1260년 6월 최의를 타도하는데 참가한 류경을 밀어제낀 그는 1등공신이 되고 추밀원 부사로 임명되였다.

김인준은 1264년 교정별감이 되였으며 원종이 원나라에 갔을 때는 국가사업전반을 관할하는 감국의 자리에 앉아 권력을 틀어쥐였다.

그는 봉건정부의 실권을 틀어쥐자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량반관료들을 탄압하면

서 지방장관들을 마음대로 교체하는 전횡을 부리였다. 또한 그는 부정협잡과 강도적방법으로 토지를 빼앗아 대토지소유자 《농장주》로 되였으며 제놈의 앞잡이들을 시켜 농민들에게 벼종자 한말을 주고 가을에 가서 벼 한섬을 받아내는 등 강도적수탈을 일삼았다.

그는 팔관회를 다시 부활시키고 필요한 물자들을 각 주, 군들에 부담하게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김인준은 자기의 정치적실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경에로의 천도를 반대하면서 계속 강화도에 있기를 주장하였다.

그는 몽골정부가 사신을 보내여 자기 부자와 동생의 몽골방문을 강요하자 사신을 죽이고 먼 섬으로 들어갈것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반대한 국왕 원종을 갈아치우려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는 국왕과 대립되였다.

1262년 11월 김인준이 국왕에게 보내는 룡산별감의 진상품을 가로챈 사건으로하여 그들사이는 더욱 벌어졌다.

국왕은 김인준을 제껴버리려는 계획에 림연을 끌어들였다.

1268년 12월 림연이 김인준을 반대하는 정변을 일으킨 후 거짓 왕명으로 김인준을 왕궁에 불러들인것도 모르고 왕궁에 들어갔다가 무신 김상이 내리치는 몽둥이와 칼에 맞아죽었다.

이처럼 김인준은 야심가로서 최가무신집권자들을 타도한 후 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한 착취자였으며 반동적인 봉건관료였다.

배 중 손 (?-1271년)

1270년-1271년 몽골(원)군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삼별초 항전군지휘자의 한 사람이다.

무신집권자 림유무를 제거한 고려왕실은 몽골침략자들과 타협하여 1270년 5월 강화도로부터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강화도에 남아있던 삼별초군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삼별초는 폭동으로써 대답하였다.

6월 1일 삼별초의 장군 배중손은 《몽골의 대군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살륙하니 나라를 도우려는 사람들은 모두다 격구장으로 모이라!》고 웨치면서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이 호소에 호응하여 수많은 인민들 특히 노비신분의 천대받던 인민들이 모여들자 배중손은 무기고를 열고 그들을 무장시켰다.

배중손을 비롯한 항전군은 강화도에 남아있는 량반관료들과 몽골침략자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순식간에 강화도 전 지역을 차지하였다.

6월 3일에 배중손은 싸움을 장기적으로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조건이 유리한 진도로 가기로 결심하고 1 000여척의 배에 항전군을 나누어 태우고 강화도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갔다.

1270년 8월 19일 배중손의 지휘밑에 항전군은 무사히 진도에 도착하여 새로운 항전기지를 꾸리였다.

한편 배중손은 전라도일대의 각 고을에 격문을 보내여 싸움에 일떠설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고 각 지방관리들에게 삼별초의 활동을 방해하는자들은 처벌을 당할

것이라는것을 선언하였으며 전라도안찰사에게 《공문》을 보내여 수확한 곡식을 진도에 보내올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호소에 따라 많은 인민들이 진도에 찾아와서 싸울것을 결의했고 전주부사와 김주(경상남도 김해)의 고을원들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삼별초군과 싸워보려고 라주까지 왔던 정부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개경으로 도망쳐갔다.

9월에 항전군은 전라도 장흥부에 상륙하여 관군을 소멸하고 수많은 기재와 곡식을 로획하였다.

11월초에 삼별초군은 남해상의 중요한 군사기지인 제주도를 공격하여 정부군을 전멸시키고 섬을 완전히 차지하였다. 또한 삼별초군은 배중손의 지휘밑에 울돌바다싸움을 벌려 진도에 달려든 몽골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적장 아해는 배에서 내려 륙지로 도망치려고 하였고 정부군의 지휘관인 김방경이 탄 배는 포위되여 진도로 끌려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쳤다.

이에 당황망조한 몽골침략자들은 1271년 3월 진도항전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흔도를 우두머리로 하는 6 000명의 침략군을 파견하였다.

흔도는 두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여 《항복》할것을 요구하였다.

배중손은 몽골침략군이 철수하면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계속 싸울 결심을 표명하였다.

그후 삼별초항전군은 전라도와 경상도인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남해안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몽골침략자들의 일본침략계획에 큰 타격을 주었고 봉건정부의 조세수송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1271년 5월 질겁한 봉건정부와 몽골침략군은 수천명의 병력과 100여척의 함선으로 불의에 진도를 공격하였다. 이때 삼별초항전군안에 기여들었던 일부 량반관료들이 사전에 비밀을 적들에게 알려주었다. 항전군의 적지 않은 력량과 함선들은 남해연안 여러곳에 나가 싸우고있었으므로 불리한 형편에서 적들의 대병력과 싸우게 되였다.

적들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면서 힘겨운 싸움을 지휘하던 배중손은 진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후 1273년 4월까지 삼별초군은 김통정의 지휘밑에 제주도에서 싸웠다.

이처럼 배중손은 몽골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삼별초군과 인민들을 옳게 이끌어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애국적인 항전지휘자였다.

김 통 정 (?-1273년)

몽골(원)침략자들과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싸운 삼별초항전군의 지휘자의 한 사람이다.

김통정은 1271년 5월 진도앞바다싸움에서 배중손이 전사한 후 삼별초항전군의 지휘자로 되였다.

제주도에 도착한 김통정은 2중3중의 성을 쌓아 튼튼한 방어시설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김통정은 개경정부의 앞잡이들을 내쫓고 제주도인민들을 투쟁에 적극 인입하였다.

제주도에 항전기지를 새로 설정한 김통정은 남해연안일대에서 활동하던 80여척의 함선을 합하여 력량을 보강한 다음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김통정의 지휘밑에 항전군은 남해의 추자도, 거제도, 서해의 흑산도를 비롯한 여러 섬을 장악하고 그것을 해상에서 기동적인 활동을 벌릴수 있는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김통정의 지휘밑에 항전군은 1272년 봄부터 6월에 이르는 기간에 전라도의 여러 고을을 습격하여 적들을 처단하고 조세운반선들을 로획하여 군량을 해결하였다.

그는 이해 11월 항전군을 이끌고 안남도호부(경기도 부천시)를 기습하여 부사를 사로잡았으며 몽골군의 일본침략준비의 거점인 합포, 거제도에 쳐들어가 전함 수십척을 불살라버렸다.

그가 지휘한 항전군은 령활한 기동으로 해상습격전과 해상기습전을 벌려 서남해안과 남해안일대에서 제해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몽골침략자들과 그와 야합한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바빠맞은 개경통치배들은 1273년 봄부터 제주도공격을 서두르면서 회유술책에 매달렸으나 김통정은 적들이 보낸 사신들을 처단하고 끝까지 항전할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김통정의 지휘밑에 삼별초군의 항전이 날로 치렬해지는데 놀란 적들은 오랜 준비끝에 1273년 4월 드디여 160여척의 전함과 1만명의 병력으로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김통정의 지휘밑에 항전군은 적들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그들은 바위틈에 은페하여 집요하게 감행되는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점차 퇴각하였다.

김통정은 적들의 집요한 공격으로 제주성의 외성과 내성이 함락되자 살아남은 70여명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였다.

이처럼 김통정은 몽골침략자들과 그와 야합한 국왕을 비롯한 개경의 소수통치배들을 반대하여 3년간에 걸쳐 용감히 싸운 애국적인 항전지휘자이다.

일 연 (1206년-1289년)

고려시기 중출신의 학자로서 《삼국유사》의 저자이다.

일연의 본래 성은 김가이고 어릴 때 이름은 견명이며 자는 회연이며 호는 충조이다.

일연은 경주 장산군 평민집안에서 김언정의 아들로 태여났다.

9살 때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무량사에 가서 불교공부를 하였고 14살에 중이 되였다.

그는 남해 정림사, 현풍 용천사 등 여러 절간들을 다니면서 불교교리를 연구보급하였으며 말년에는 경상북도 의홍군 린각사에 있었다.

일연은 전생애를 중으로 살면서 불교의 연구와 선전에 주력하면서도 많은 글을 썼다.

그는 무려 100여권의 책들을 남겨놓았는데 그중 1281년을 전후한 시기에 내놓은 《삼국유사》외에는 모두가 불교와 관련되는 책들이였다.

일연은 다른 중들과는 달리 불교교리의 연구와 보급에 전념하면서도 조국의 력사와 문화에도 깊은 주의를 돌렸다.

그는 우리 나라의 고대와 삼국시기 력사는 물론이고 이 시기 설화, 가요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였으며 이에 토대하여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유명한 《삼국유사》를 내놓았다.

이 책은 불교선전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썼던것만큼 모든 사건, 사실, 설화들이 불교적으로 윤색되였다.

그러나 고대국가들의 건국신화, 전설들과 신라의 향가 14편을 비롯한 귀중한 력사문헌자료들이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 나라의 고대와 삼국시기력사연구의 기본사료로 되고있다.

안 향 (1243년-1306년)

고려시기의 유학자이다.

1289년에 원나라에 갔다가 《주자전서》를 가져다가 태학에서 처음 강의하였다.

그뒤 백이정, 우락, 권부 등이 그의 학문을 이었으나 다시 불교에 압도되여 고려때는 그다지 소개되지 못하였다.

그후 리조통치자들이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을 봉건통치의 리론적무기로 내세우면서부터 급속히 전파하였다.

그후 성리학은 16세기 리언적, 김린후 등을 거쳐 리황에 의하여 더욱 체계화되였으며 17세기 김장생, 송시렬, 18세기에 기정진 등을 통하여 더욱 관념론적체계를 공고화하였다.

리 제 현 (1287년-1367년)

고려시기의 시인이다.

리제현의 자는 중사, 호는 익재, 력옹, 시호는 문충이다.

개성의 량반집안에서 태여난 그는 일찍부터 벼슬길에 나섰으며 선부, 산랑, 서해도안렴사, 전서, 우정승을 거쳐 문하시중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에 원나라에 들어가있으면서 고려의 대외관계사업을 보았다. 그때 그는 원나라의 학자들과 접촉하면서 자기의 시적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러한 생활과정에 고국에 대한 그리움, 나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되였고 대국주의자들의 거만한 행동에 불만을 품게 되였으며 량반사대부들의 사대주의에 대하여 비판적립장에 일정하게 서게 되였다.

리제현은 작품에서 뜻을 명료하게 표현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언어표현들을 참신하게 할것을 주장하였으며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데만 급급하거나 남의 글을 모방하는데만 몰두하는 현상을 반대하였다.

그는 애국주의적감정을 가지고 《장안려관에서》, 《북쪽으로 가며》, 《백구에서》를 비롯한 애국적주제의 서정시들을 썼다. 이러한 시들에서 그는 원나라통치배들의 전횡과 간섭행위를 반대하였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였다.

그는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으로 인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그린 시들도 썼다.

《사리화》, 《그리운 님》 등이 이러한 작품들이다. 시 《사리화》에서는 비지땀을 흘려가며 한해동안 애써 농사지은 낟알을 봉건통치배들에게 깡그리 빼앗긴 농민들의 울분과 황폐화된 당시 농촌의 참혹한 광경을 생동하게 시적형상으로 그려지고있다.

리제현은 이밖에 《력옹패설》과 같은 산문도 썼다. 여기에는 력사산문, 전기적 산문, 구전설화 등이 담겨져있다.

리제현은 말년에 고려의 력사를 편찬하는 사업에도 참가하여 많은 글을 남겼다.

그는 고려말기의 재능있는 시인으로서 그의 문학적재능은 일찍부터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진보적경향의 시들은 이 시기 문학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의 문집으로는 《익재집》(15권)이 전해지고있다.

리 곡 (1298년-1351년)

고려시기 유학자이며 문인이다.

리곡의 자는 중부이며 호는 가정이다.

충청남도 한산군에서 아전인 리자성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였다.

그는 원나라에 가서도 높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예문관 검열을 거쳐 정당문학벼슬에까지 올랐다.

그는 지배계급의 립장에 서있었으나 고려말기의 부패한 현실속에서 점차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당시 사회의 불합리성을 일정하게나마 리해하게 되였다.

그는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가난하고 무권리한 인민들의 생활처지를 생동하게 반영한 일련의 시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서정시들을 썼다. 그는 시뿐아니라 정론, 려행기, 전기작품 등 여러가지 형태의 산문들도 많이 창작하였다.

정론 《본국재상에게 보내는 글》, 《장마당이야기》, 《수재와 한재에 대한 론의》, 《말빌린 이야기》, 려행기 《주행기》, 《동유기》, 《철령에 올라》, 의전체 산문 《죽부인전》 등을 썼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에 반영한 현실비판, 인민들에 대한 동정은 인민적립장에서 주어진것이 아니라 고려봉건국가의 운명에 대한 지배계급의 립장에서의 우려와 유교적인 《애민》정치의 리상을 실현해보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본질적인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리곡은 력사연구에도 힘을 돌렸다.

그는 리제현, 민지가 편찬한《편년강목》을 보충하였으며 기타 많은 력사문학책들을 저술편찬하였다.

그의 문집으로서 《가정집》(20권)이 세상에 전해지고있다.

리곡은 14세기 전후의 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기 진보적문학발전에 기여하였다.

라 세

13세기 후반기 왜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싸움에서 공을 세운 고려의 무관이다.

그는 원래 원나라태생으로서 고려에 귀화하여 고려군대에 복무하였다.

홍두적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웠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판도판서를 지냈다.

그후 교동만호를 거쳐 우왕초기에 상원수 겸 도안무사로 임명되였다.

1376년 7월 라세는 고려군을 지휘하여 50여척의 전함을 타고 부여에 기여들어 로략질을 일삼던 왜구 1 000여명을 행안산전투에서 소멸하였다.

이어 개경판부사로 된 라세는 강화도에 침입한 왜적을 격퇴하였다.

라세는 양백연과 함께 1377년 5월 강화만을 거쳐 수원으로 기여든 왜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함 50척을 이끌고 가서 왜적들을 격멸소탕하였다.

그후 그는 황해도해안일대에 기여든 왜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여러 전투를 지휘하였다. 그래서 라세는 해도원수로 임명되였다.

1380년 8월 라세는 진포바다싸움에서 최무선, 심덕부와 함께 화포를 장비한 100여척의 고려함대를 지휘하여 왜적함선 500척을 모조리 불사르고 수만명의 적들을 통쾌하게 전멸시키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가 지휘한 고려군은 적들에게 랍치되였던 수백명의 인민들을 데리고 유유히 개선하였다.

이때에 개경인민들은 노래와 춤으로 그들을 환영하였다.

라세는 집요하게 계속된 왜구의 침입을 막고 고려수군의 위력을 크게 떨치게 하는데 이바지한 애국적인 무관의 한사람이였다.

신 돈 (?-1371년)

고려후기의 관료, 자는 요공, 호는 정한거사이다.

본은 령산이며 이름은 편조이다.

계성현 옥천사 녀종의 자식으로서 중이 되여 일정한 학식을 쌓았고 오래전부터 공민왕과 친분이 있었다.

그는 1363년 국왕의 신임을 얻어 국왕의 스승인 《사부》가 되여 정치에 참여하게 되였다.

1365년 진평후, 삼한벽상공신, 령도첨의사사, 중방감찰사, 판사라는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행정, 군정, 감찰권을 모두 손아귀에 틀어쥐였다.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닦은 그는 《개혁》에 대한 국왕의 결심을 확인하고 《전민변정》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1366년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자신이 그 판사가 되여 대관료지주들에게 집중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본주인에게 돌려주는《변정》사업을 단행하였다.

이것을 력사에서 《신돈의 개혁》으로 전하고있다.

그는 개혁에 방해로 되는 일부 대관료들을 밀어내고《개혁》사업을 강력하게 추진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큰 권력을 틀어쥐였다.

변정사업에 착수하면서 공민왕은 의심치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써서 신돈에게 주었으나 그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데 불안을 느끼고 그를 점차 멀리 하게 되였으며 5도사심관제도를 복구하며 수도를 충주로 옮길데 대한 그의 제의를 부결하였다.

국왕의 배척을 받고 또 세신대족들의 드센 반항에 맞다들어 곤난한 처지에 빠진 그는 선손을 써서 공민왕이 현릉(광종), 경릉(문종)을 돌아보고 오는 길에 일당을 매복시켜 제거하는 정변을 꾀하였다.

그러나 1371년 선부의랑 리인의 밀고로 그 일당은 체포되고 그는 수원으로 류배당하였다가 얼마후에 처형되였다.

그리하여 그가 집권한 다음 약 5년간 진행되던 《변정》사업은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그러나 《신돈의 개혁》은 13세기 후반기이후 10여차례에 걸쳐 벌어진 《변정》사업들가운데서 비교적 철저하게 진행되였으므로 당시 봉건국가와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최 영 (1316년-1388년)

고려말기에 반침략투쟁에서 용맹을 떨친 애국명장이다.

개경에서 최원직의 아들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체격이 좋았고 힘이 셌다.

젊은 시절에 그는 양광도도순문사의 휘하에 있으면서 여러차례 왜적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웠다.

1356년 5월에 그는 압록강을 건너 원나라의 8개 군사요새를 공격하였으며 6월에 서북면병마사 인당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서북변지대를 위협하던 3개의 원나라 군사거점을 쳐서 침략자들을 멀리 쫓아버렸다.

홍두적이 침입하였을 당시 서북면병마사로 있던 최영은 여러 장수들과 힘을 합쳐 서경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능숙하게 지휘하여 적들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영은 1364년 1월 고려군을 총지휘하여 반역자 최유가 이끈 1만명의 원나라침략군을 격퇴하였으며 2월에는 동북면방어군과 합세하여 고려에 쳐들어온 삼선삼개가 이끈 녀진침략군을 격멸하고 적들이 일시 강점하였던 동북부지역을 되찾았다.

1373년 10월 6도도순찰사로 임명된 최영은 왜구의 침입을 결정적으로 막기 위하여 수군건설에 힘써 짧은 기간에 많은 전함을 무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1374년 도통사로서 2만 5천여명의 군대와 300여척의 함선을 거느리고 원나라침략세력의 마지막지탱점인 탐라(제주도)에 원정하여 침략자들을 완전히 격멸소탕하였다.

최영은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늙은 몸으로 출전하여 1376년의 홍산(충청남도 부여)전투와 승천부(개풍군)전투를 지휘하여 왜구를 소멸하였다.

왜적에게 랍치되였던 한 소년이 탈출해오자 여러 장수들이 그를 불러들여 적들의 동태를 물었는데 소년은 대답하기를 《적들이 늘 말하기를 무서운 사람은 백발의 최만호(최영)뿐이다. 그전날 홍산전투에 최만호가 오니 휘하병사들이 앞을 다투어 말을 몰아 우리들을 짓밟아댔으므로 아주 무서웠다》라고 한 사실로 보아 최영이 적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공포를 준 장수였는가를 알수 있다.

1388년초 리인임일파를 제거하고 고려정부의 최고관직인 문하시중자리를 차지한 최영은 고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나라통치배들의 침략야망을 미리 알고 이를 격파하기 위하여 1388년 4월에 랴오둥원정을 단행하였다.

최영의 랴오둥원정계획은 리성계의 배신적인 위화도군사돌림(위화도회군)에 의하여 파탄되였다.

원정을 지휘하기 위하여 서경에 와있던 최영은 리성계의 위화도군사돌림소식을 듣고 즉시 수도로 달려가 방어군을 조직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 리성계의 반란군에게 개경이 점령당하고말았다. 리성계는 가장 두려워하던 정치적적수인 최영을 체포하여 귀양보내고 다음 우왕을 내쫓고 그의 아들 창을 왕으로 앉히였다.

그후 최영은 리성계와 그 일당의 모략에 의하여 랴오둥원정을 주장하였다는 리유로 《반역자》의 루명을 쓰고 처형당하였다.

최영은 사형장에 나가서도 안색을 변하지 않고 떳떳하게 죽었다.

외적과의 싸움에서 패전을 모른 백전로장이였던 최영이 죽던 날 개경사람들은 장보는것을 그만두었으며 거리의 어린이들이나 시골부녀자나 할것없이 모두 슬퍼하였고 그의 시체곁을 지나는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 조의를 표시하였다

고 한다.

최영은 성격이 강직하고 의협심이 강하여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하였으며 권세를 부려 사리사욕을 채우는자들을 증오하고 배격하였다.

그는 일생 높은 벼슬을 지내면서 군대를 통솔하였으나 금덩이보기를 돌쪼각같이 여기라고 한 아버지의 유언을 명심하고 언제나 생활을 검소하게 하였으며 오로지 나라를 지키는것밖에 몰랐다. 그는 군대안에 봉건적인 강한 규률을 세우고 《상벌》을 엄격히 적용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싸움마다에서 패전을 모르게 한 비결의 하나였다.

그는 바쁜 나날에도 이따금 시를 읊는것을 락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가 읊은 시가운데서 조국방위를 위해서 《충의》를 떨치려는 자신의 애국감정을 노래한 시조가 특히 유명하다.

록이상제 살지게 먹여 시내물에 싯겨타고
룡천설악을 들게 갈아 둘러메고
장부의 위국충절을 세워볼가 하노라

최 무 선 (1326년-1395년)

고려시기의 화약 및 화약무기의 발명가이며 왜구격멸에서 공을 세운 무관이다. 그는 광흥창사 최동순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본은 영천이다.

14세기 후반기 왜구를 격멸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화약무기라고 생각한 최무선은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약제조법창안에 달라붙었다.

그는 염초를 만드는 초보적인 지식을 얻은데 기초하여 이를 더 연구하고 실험을 거듭한 끝에 드디여 염초를 원료로 하여 화약을 만드는 법을 발명하였다.

1377년에 봉건정부는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최무선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는 많은 화약을 만들었으며 대장군포 2장군포, 3장군포, 륙화석포, 화포, 신포, 질려포 등 여러가지 포들과 화전, 철령제, 피령전, 철탄자, 류화, 주화 등 불화살 또는 포탄들을 수많이 만들었다.

또한 최무선은 화포를 실을수 있는 배를 만드는데도 참가하여 좋은 의견들을 내놓았다. 그는 화포를 쏠 때에 배가 될수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높이를 낮추며 갑판의 구조도 더 견고하게 하여 대포를 고착시키도록 하였으며 습기가 화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최무선의 지휘밑에 화통도감에서 만든 화포들의 위력은 1380년 8월에 있었던 진포해전과 1383년 박두양해전에서 훌륭히 발휘되였다.

1380년 8월 왜적들은 500여척의 함선을 끌고 진포(금강하구)에 침입하여 뭍에 올라 여러 고을로 싸다니면서 략탈하였다.

이때 고려수군은 화포로 장비한 100여척의 싸움배로 기세당당하게 진포앞바다에 나타났다. 고려의 싸움배들이 왜선을 향하여 돌진하자 왜적들은 고려군의 함선이 적은것을 얕보고 일제히 배에 올라 싸울 태세를 취하였다. 왜적들은 여러척씩 묶은 선단을 끌고나와 대들었다. 고려함선은 달려드는 왜선을 향하여 일제히 포문을 열고 화포와 화통을 쏘아댔다. 일시에 적들의 배에는 불이 달리고 짙은 연기와 거센 불길

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 500여척의 왜선은 크게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고려수군의 위력한 화약무기앞에서 여지없이 격멸되고말았다. 이것이 유명한 진포해전이였다.

진포해전에서 최무선이 만든 화약과 화약무기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최무선이 화약과 화약무기를 창안하여 배에 화포를 설치하고 왜적을 섬멸한것은 세계해전력사에서 처음 있은 일이였다. 유럽에서 화포로써 큰 바다싸움이 벌어진 1571년 레빤토해전이 세계바다싸움의 처음이였다고 전해지고있지만 력사적사실은 이보다 200년전에 우리 나라에서 있은 진포해전이였다.

최무선은 화약과 화약무기발명 등 왕권강화에 힘쓴 공로로 하여 고려때 벼슬이 문하부지사에 이르렀고 리조때에는 검교참찬문하부사 겸 군기시판사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 최해산은 아버지의 화약 및 화포제조기술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다.

박 위 (?-1398년)

14세기 80년대에 왜구의 소굴인 쯔시마원정을 지휘한 고려의 무관이다.

14세기 80년대에 진포해전과 박두양해전이 있은 후 왜적들의 침략과 략탈행위는 전보다 적어졌으나 때때로 침입하여 학살과 략탈을 일삼았다.

침입하는 왜적들을 바다에서 기다렸다가 쳐부시는것만으로는 놈들의 침략을 완전히 막아낼수 없었다.

고려정부는 왜적들의 중요소굴의 하나인 쯔시마를 치기로 결정하였다.

1389년 2월 경상도원수 박위가 지휘하는 100척의 함대로 왜적의 소굴의 하나인 쯔시마를 공격할 원정부대가 조직되였다.

박위가 지휘하는 고려군은 쯔시마를 공격하여 부두에 정박해있는 300척의 왜선을 불사르고 연안의 적소굴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고려군의 불의의 출격에 혼비백산한 왜적들은 싸울것을 단념하고 험한 산속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지기에 급급하였다.

고려군은 왜적들의 해안시설을 파괴하였으며 적들에게 랍치되여간 100여명의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유유히 개선하였다.

박위의 쯔시마원정의 승리는 고려수군의 위력을 시위했을뿐아니라 왜구들과 결탁된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리 색 (1328년-1396년)

고려말기의 유학자이며 문인이다. 그의 자는 령숙이며 호는 목은이다.

13세기말~14세기초의 진보적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의 한 사람인 리곡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14살 때에 성균관시험에 합격하여 이름이 알려졌다. 공민왕때에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한 후 봉건정부의 여러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성리학(중국 송나라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간의 품성과 운명, 의리를 론한 봉건유교학설)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정계와 유교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활동하면서 문란해진 봉건통치질서를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리색은 젊은시절에 세신대족들의 토지겸병에 대한 악페를 조절하고 강력한 수군을 꾸려 왜적의 침입을 막으며 교육기관들을 정비하여 인재양성사업을 잘하고 불교행사로 인하여 재물을 랑비하는 페단을 없앨데 대하여 공민왕에게 제기한바 있다.

그후에도 그는 대량반관료, 불교사원들이 토지를 겸병하는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일부 정리할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부 관리들이 고려왕정의 토지제도자체를 《개혁》할데 대하여 들고나서자 《옛법을 경솔하게 고칠수 없다》고 하면서 보수적인 립장에 섰다.

리색은 고려말엽에 이름난 성리학자로서 성리학의 보급과 인재양성에 힘썼다. 그는 판개성부사 겸 성균대사성으로 있던 시기에 정몽주, 김고용, 리숭인 등과 함께 학생수를 늘이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성리학을 널리 보급하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리색은 또한 성리학유교철학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그의 철학사상은 유물론과 관념론이 뒤섞인것이였다.

그의 자연에 대한 견해에는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이 물질적인《기》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일부 유물론적인 요소도 있으나 《기》의 시원이 《태극》이라고 함으로써 결국 관념론의 립장에 떨어졌다.

그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객관적관념론의 립장에 서서 정신적인 《리》로서의 《태극》을 세계의 시원으로 보고 그것이 운동하고 정지하는데 따라 만물이 발생하고 운동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의 철학사상은 자연에 대한 견해에서 불철저하고 관념론적이였으며 특히 봉건국가의 왕권과 봉건적가족제도, 신분제도를 옹호하는 유교의 《5륜》을 《하늘이 내린 질서》,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까닭》이라고 미화분식하면서 극력 합리화한 본질적인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리색은 고려왕조의 운명이 경각에 이른 시기 반대파관료들을 몰아내고 정치적실권을 틀어쥐려는 야심밑에 리성계일파들이 꾸며낸《사건》들에 걸려들어 두번이나 귀양살이를 하였다.

리색은 고려왕조가 종말을 고한 후에 리왕조에 협력할데 대한 요청을 거절하고 고향인 려주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지조를 지켰다.

리색은 시와 글을 잘 지었으며 붓을 들면 거침없이 즉석에서 쓰군 하였다고 한다.

그의 재능은 널리 명나라에 알려져 그곳 관료들과 학자, 문인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문집으로서 《목은집》이 전해지고있다.

문 익 점 (1329년-1398년)

고려말기의 관리로서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목화씨를 들여다 보급한 사람이다.

그의 자는 일신이며 호는 삼거우사이고 시호는 충선이다.

그는 리부상서 문여준의 아들로 태여나 진주 강성현에서 자랐다.

그는 당시 유명한 학자인 리곡에게서 글을 배워 1360년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벼슬은 좌사의대부까지 지냈다.

문익점이 1363년경에 사신으로 원나라 연경(베이징)에 갔을 때 원나라통치배들은 그를 강제로 억류하여 고려침략에 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원나라지배층의 기도를 견결히 반대하다가 윈난(운남)에 귀양갔다. 귀양살이에서 놓여나와 조국으로 돌아올 때 윈난에서 생산되는 목화의 유용성을 알고 비밀리에 붓대속에 목화씨 10여알을 넣어가지고 와서 1364년 장인 정천익에게 심도록 하여 이를 보급시키기에 노력하였다.

첫해에 오직 한대만이 겨우 살았으며 거기서 가을에 100알의 씨를 얻었다.

그후 해마다 번식시켜 몇해후에는 이웃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널리 심도록 하였다.

또한 문익점의 손자 문래는 목화씨를 뽑는 씨아(토리개)와 실을 뽑는 물레를 만들어 이웃에 알려줌으로써 10년안팎에 목화재배법과 무명짜는 법이 넓은 지역에 퍼지게 되였다.

목화심기와 무명짜기에서 문익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새로운 작물을 받아들이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은 각별하였다.

문익점은 리인임 등 대토지소유자들을 반대하였으나 리색 등과 함께 이른바《온화한 개혁파》량반에 속하였기때문에 리성계일파의 배척을 받았다.

그의 저서로는 《원난풍토집》이 있으나 전해지지 않고있다.

정 도 전 (?-1398년)

자는 종지, 호는 삼봉이다. 고려말-리조초의 관료이며 학자이다. 본은 봉화이며 정은경의 아들이다.

고려 공민왕때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대사성, 판의흥부사, 3도도통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1375년 몰락하여가고있던 북원(몽골)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던 렴흥방일파의 대외정책을 반대하고 새로 선 명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것이 정세에 맞는다고 주장하다가 반대파에 의하여 전라도 회진현에 귀양간 일이 있다.

1388년 《위화도회군》이후 리성계일파에 가담한 그는 고려왕정에서 정치, 경제적실권을 잡고있으면서 무너져가는 고려왕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시도하던 우현보, 리색 등을 반대하다가 1391년 전라도에 귀양갔다.

1392년 고려왕조를 전복하는데서 주동적역할을 하였으며 리왕조수립후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고려말에 어지러워진 제반 통치제도를 저들의 구미에 맞게 고쳐 편성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부당한 압력을 가해오는 명나라와의 대외관계에서도 강경한 립장을 취할것을 주장하면서 부병제도를 정비하고 군사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불교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강한 비판을 가하였으나 그것은 유교성리학을 통치사상으로 내세움으로써 봉건통치제도를 공고히 하며 불교절간들의 세력을 꺾고 성리학을 퍼뜨리기 위한것이였다.

그는 국가의 중앙집권력을 강화하며 자기의 정치적지위를 더욱 튼튼히 다지려는 목적밑에 왕자들과 귀족들이 많이 가지고있던 사병들을 없앨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이를 추진시키려고 시도하다가 1398년 《왕자의 란》때 리방원(후의 태종)에 의하여 살해되였다.

저서로는 리조초기 국가의 기본법규로 된《경국전》,《경제문감》,《경제문감별집》과 불교를 반대한 《불씨잡변》, 《심기리편》 그리고 의학책인 《진맥도질》 등이 있으며 이밖에 군사관계저술과 음악악장, 시편들이 있다.

그는 중소토지소유자들의 리익을 대변한 사상가로서 고려말의 대토지소유자귀족들을 반대하여 싸운 점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정 몽 주 (1337년-1392년)

고려시기의 이름난 유학자이며 정치가이다. 그의 자는 달가이며 호는 포은이고 시호는 문충이다. 정몽주는 고려초의 문인이였던 정습명의 후손이다.

그는 날 때부터 특이하게 생겼으며 어깨에는 일곱개의 김이 북두칠성처럼 나있었다고 한다.

그는 유년과 소년시절에 몽란, 몽룡으로 불리웠다. 어려서부터 그는 글읽기를 좋아하여 남다른 재능을 보였으며 24살 때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그는 1361년에 예문관 검열로 임명된 후 례조정랑, 성균관 박사 등을 거쳤다.

정몽주는 고려말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던 시기에 어지러워진 봉건통치를 바로잡아보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고려봉건왕정의 절대적인 옹호자였던 그는 대토지소유자들의 전횡을 막고 고려왕권을 유지강화하는 자세에서 문제를 처리하였다.

그는 문란해진 지방관리임명제도를 뜯어고쳐 관리선발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도평의사 록사가 국왕의 비준을 받지 않고 나라의 돈과 쌀을 망탕 내던 종래의 제도대신에 경력과 도사라는 직제를 내오고 그들이 출납관계를 장부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재산을 사취하는 부정행위를 막게 하였다.

이밖에도 의창을 세워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고 수참을 설치하여 수상운수를 편리하게 만들었다.

정몽주는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착잡하게 엉켰던 대외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활동도 적극 벌렸다.

1368년에 고려정부에서는 명나라와 원나라와의 대외관계문제를 놓고 론쟁이 벌어졌는데 그는 새로 일어선 명나라와 대외관계를 맺을것을 주장하였고 친명외교에 나서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왔다.

정몽주는 1377년 9월 고려봉건정부로부터 왜적을 단속할데 대한 교섭의 임무를 받고 규슈에 사신으로 가서 왜구의 침입을 엄격히 단속할것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그의 능란한 외교교섭에 의하여 규슈를 통제하던 령주는 이듬해 6월에 왜구를 단속할 군사를 고려에 보내왔으며 7월에는 정몽주가 귀국하는편에 적들이 붙잡아갔던 수백명의 고려사람들을 돌려보냈다. 뿐만아니라 그는 동북방으로 끊임없이 침습하여 략탈행위를 일삼는 녀진징벌에도 참가하였다.

정몽주는 정치가로서만이 아니라 유학자로서도 이름이 높았다.

그는 고려말기에 우리 나라에 들어온 성리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조선성리학의 창시자라고까지 하였다.

그는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유명한 유학자인 리색과 함께 성리학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늘 리색보다 앞서 강의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개경에 5부학당과 지방들에 향교를 세워 유교교육을 발전시켰다.

정몽주는 말년에 리성계의 왕권탈취음모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리성계는 당시 수문하시중자리에 있으면서 유학자로서 이름이 높았던 정몽주의 지지를 받는것이 왕조성립에 유리하였으므로 수많은 반대파세력을 죽이면서도 그만은 죽이지 않고 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정몽주는 리성계의 이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는것은 물론 오히려 리성계일당을 정계에서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는 리성계가 해주에 사냥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상한것을 절호의 기회

로 삼아 리성계와 그의 일당인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을 처단할것을 계획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번은 리성계의 아들 방원이 자기 집에 정몽주를 초청해놓고 술을 권하며 이런 시조를 읊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는 이에 대답하여 《이 몸이 죽고죽어 열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여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 있으랴》라고 하면서 고려왕조에 끝까지 《충절》다하겠다는 자기 립장을 다시금 밝혔다. 물론 이것은 봉건유교사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왕위탈취음모를 끝까지 반대한 정몽주를 더이상 놔두는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리성계일당은 1392년 4월 개성 선죽교에서 그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그때 정몽주의 나이는 55살이였다. 정몽주의 문집으로 《포은집》이 있다.

리 성 계 (1335년-1408년)

무력으로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왕자리에 올라앉은 리조 최초의 왕이다.

그의 다른 이름은 단이며 자는 군진, 호는 송헌이고 묘호는 태조이다.

리성계는 함경도 영흥(금야)에서 원나라의 쌍성총관부 천호로 있던 리자춘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조상은 원래 전라도 전주사람이였다. 그의 고조부 리안사는 전주에서 관리로 있으면서 일처리를 잘못하여 봉건국가로부터 벌을 받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리안사는 1254년 나라와 인민을 배반하고 원나라(봉건몽골)로 투항해가서 그들의 앞잡이노릇을 하였다.

그의 아들 리행리, 손자 리춘 등도 원나라의 지방관리를 하였다. 리성계의 애비 리자춘(리춘의 아들)도 원나라의 쌍성총관부 천호노릇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있던 고려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이처럼 리성계의 집안은 고려를 배반하고 원나라로 투항해간 반역자의 집안이다.

14세기 중엽 원나라가 쇠퇴하여 내리막길을 걷게 되자 리자춘은 정세의 추이에 따라 다시 고려에 넘어왔다.

1356년 동북면병마사 류인우의 지휘밑에 고려군이 동북방으로 진격하여 원나라의 쌍성총관부를 치고 이 지역을 되찾을 때 쌍성총관부의 천호로 있던 리자춘은 총관부를 함락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여 리자춘과 리성계는 개경에 올라와 고려중앙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였다.

그후 리성계는 1361년 두만강류역에 침입한 녀진족을, 1362년에는 홍두적과 납합출의 침략군을 격파하였으며 1380년에는 왜구를 소탕하는 운봉전투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그는 자기의 정치군사적지반을 닦게 되였다.

때마침 고려정부에서 판을 치던 친원세력을 비롯한 세신대족들이 물러나게 되면서 리성계의 세력은 더욱더 큰 힘으로 자랐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함경도지방의 한 토호에 지나지 않았던 리성계는 중앙정계에서 자기의 세력이 큰 힘으로 자라나게 되자 왕권쟁탈의 야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리성계의 정권탈취야욕은 1388년 랴오둥원정시기에 로골화되였다.

고려정부는 이해초에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한것을 계기로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랴오둥원정을 단행하였다.

8도도통사로 최영, 좌군도통사로 조민수, 우군도통사로 리성계로 삼고 5만명으로 랴오둥원정군이 조직되였다. 5월초에 랴오둥원정군의 주력은 압록강의 위화도에 이르렀고 그 선두부대는 랴오둥지방으로 진격하여 적들을 족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리성계는 진군을 다그치라는 정부의 지시를 거역하고 장마를 핑게로 시간을 끌다가 마침내 5월말에 위화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돌려세워 수도인 개경으로 향하였다.

이것을 력사에서 《위화도회군》이라고 한다.

리성계는 반란을 일으키면서 랴오둥원정은《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것은 옳지 않은것》이라고 줴쳤다. 이렇듯 군사돌림은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치는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사대주의사상과 정권탈취의 목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리성계는 6월초에 반란군을 몰아 개경을 점령하고 정치군사적적수인 최영을 살해한 다음 우왕을 내쫓고 8살밖에 안되는 그의 어린 아들 창왕을 들여앉히였다.

1388년 7월 리성계일파는 《위화도회군》과 최영을 몰아낼 때 협력하였던 조민수가 탐욕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구실을 붙여 그를 추방하였으며 또한 왕씨의 피줄이 아닌 우왕을 왕으로 내세웠다는 《죄》를 들씌워 박해하였다. 이것은 리성계가 왕으로 되는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왕씨의 왕자리를 빼앗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한 비렬한 왕권탈취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날조였다.

리성계일파가 반대파관료들을 몰아내고 정치적실권을 완전히 틀어쥐게 된 중요한 계기는 1389년 11월 최영의 조카벌 되는 김저가 우왕과 공모하여 리성계를 죽이고 우왕을 다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는 사건이였다.

이때 리성계는 이 사건을 구실로 27명의 반대파관료들을 처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리성계는 우왕과 창왕을 죽인 다음 공민왕의 먼 친척인 공양왕을 왕자리에 앉히였다. 공양왕을 들여앉힌 리성계는 조준, 정도전을 비롯한 9명의 심복들을 중심으로 정계를 꾸리고 명망이 높았던 무관인 지용기, 박위를 쫓아내였다.

또한 리성계는 1390년 5월에 명나라에서 돌아온 사신들로부터 화평군 균이, 중랑장 리초 등이 명나라정부에 가서 리성계를 비방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또다시 대탄압의 선풍을 일으켰다.

리성계는 큰 관료이며 이름높은 학자인 리색을 비롯한 오랜 관료들과 왜적과의 싸움에서 이름있던 장수들을 귀양보내거나 살해하였다.

리성계의 살륙행위는 1392년 4월 자기의 왕위탈취음모를 끝까지 반대한 수문하시중 정몽주를 개경 선죽교에서 악착한 방법으로 살해하는것으로 일단락지었다.

리성계는 1392년 7월 고려의 마지막왕인 공양왕을 내쫓고 왕자리에 올라앉았다.

이리하여 474년간 존재한 고려왕조는 멸망하고 리씨왕조(리조)가 성립되게 되였다.

고려사람들은 리성계의 정권탈취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고려의 오랜 관료들 72명은 관복을 벗어 찢어버리고 두문동에 들어가 은퇴하였으며 인민들이 리성계가 들어가 자는 궁전에 돌을 던진것이 마침내 추녀를 넘도록

쌓여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올수 없는 지경이였다고 한다.

인민들의 반대투쟁에 견딜수 없었던 리성계는 8월에 수도를 한양(서울)으로 옮길것을 지시하고 2년후인 1394년 10월에는 궁궐과 관청을 짓지 못한채 관리들을 이끌고 옮겨앉지 않을수 없었다.

집권후 리성계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국가의 대외정책으로 내세웠으며 통치기구들을 개편하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후 리성계는 1398년 《왕자의 란》때 다섯째 아들 리방원의 압력에 못이겨 왕자리를 둘째 아들 리방과(정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였고 1400년 리방원(태종)이 정종을 밀어내고 왕자리를 차지하자 태상왕이 되였다.

1402년 리성계는 왕자들의 권력다툼에서 빚어진 후과로 하여 동북면에 내려가 오래동안 머물러있었다. 이때 리성계는 정권야욕에서 형과 동생을 죽이고 왕자리를 타고앉은 리방원에 대한 분풀이로 그가 보낸 사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함흥차사》라고 전해오고있다.

그후 리성계는 서울로 다시 돌아와 살다가 죽었다.

이 모든 력사적사실은 리성계가 왕권탈취를 위하여 여러 사건을 조작하고 고려의 반대파관료들을 류혈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이 갈망하던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진취적인 랴오둥원정을 말아먹고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 막대한 해독적후과를 남긴 사대주의자이며 반동적인 인물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리 방 원 (1367년-1423년)

자는 유덕, 묘호는 태종이다.

리조의 제3대왕, 리성계의 다섯째아들이다.

1382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말에 벼슬이 밀직대언에 이르렀다.

리조수립에서 정몽주를 제거하는 등 큰 역할을 하였으며 정안군의 칭호를 받았다.

리성계가 계비 강씨의 소생인 여덟째아들 리방석을 세자로 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398년 8월 반란을 일으켜 리방석을 지지하던 정도전, 남은, 배다른 동생 리방번을 죽이고 정치적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왕자리를 탐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리방과(리성계의 둘째아들 정종)를 왕위에 앉히고 자신은 왕세자가 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1400년 1월 그의 권력행사에 불만을 품은 리방간(리성계의 넷째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고 그해 11월 34살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리왕조의 중앙집권력을 저애하는 사원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토지와 노비를

1402년 이래 여러차례에 걸쳐 몰수하였으며 반란의 화근이였던 사병을 철폐하였다. 외척들의 세력확장과 그들의 정권참여를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그는 왕으로 있는 기간 민무구, 민무질(태종의 처남)형제를 죽이고 1418년 자신을 비난하였다는 구실을 붙여 심온(세종의 장인)을 처단하였다.

그는 왕으로 있는 기간은 물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는 기간에

도 군국의 크고작은 일을 직접 처결하였는데 1419년 병조참판 강상인이 이를 어기고 세종에게만 보고하였다고 하여 그를 처형하였다.

그는 1404년 세자로 책봉된 양녕대군이 방탕하고 학문을 게을리한다고 하여 페위시키고 셋째아들(세종)을 세자로 삼았다.

그는 통치에서 결단성이 있었으나 성격이 가혹하여 눈에 거슬리는 신하들을 가차없이 처단하였다.

리 천 (1376년-1451년)

15세기 재능있는 기술자, 발명가이며 유능한 군사지휘관이다.

리천은 경상도 례안의 무관집안에서 태여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402년 26살 때 과거(무과)시험에 합격하였으며 35살 때에는 무과중시에 합격하여 무관이 되였다.

그는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서 건주위녀진의 침략책동을 쳐물리치는 투쟁에 참가하였다.

리조정부에서는 평안도도절제사로 있던 리천에게 6 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건주위녀진을 평정하게 하였다.

리천은 1437년 원정군을 거느리고 만포에서 압록강을 건너 동가강을 지나 건주위녀진의 소굴인 올라산성을 공격하여 이를 완전히 소탕하고 개선하였다. 이 전투에서 그가 발명한 반동력을 리용한 화약무기인 화포는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리천은 나라의 대외안정을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리천은 과학과 기술발전에 쌓아올린 업적도 컸다.

리천은 공조참판으로 있을 때 출판인쇄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

1434년 리천의 지도밑에 만든 20만개나 되는《갑인자》활자는 글자체가 매우 깨끗하고 단정하였다.

《갑인자》활자를 만들어낸지 2년후인 1436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연활자를 만들어냈다. 연은 융점이 낮고 주물이 잘 되며 인쇄할 때에 먹이 잘 묻는 일련의 우점이 있다.

그는 종래의 자판에 황밀을 녹여붓고 밀이 굳기전에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대신에 자판에 활자를 세운 다음 그사이에 대나무쪼각을 끼워 활자를 고정시켜 인쇄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보급시켰다.

이처럼 리천은 1234년 이전에 처음으로 발명한 고려의 금속활자를 크게 발전시켜 세계최초의 연활자와 현대적조판기술의 원형을 창조하였던것이다.

리천의 높은 기술과 지식은 천문관측기구를 창안하는데서도 발휘되였다.

리천은 당시의 유능한 기술자 장영실 등과 함께 1443년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를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자동물시계인 자격루와 옥루기룬, 앙부일구를 비롯한 각종 해시계, 천체좌표측정기구인 간의 등 수많은 천문관측기구를 창안제작하는데서 주동적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든 활동은 봉건국가의 계급적리익을 위한것이였고 또한 그가 이룩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성과들은 봉건통치배들이 리용하였다.

로 중 례 (?-1452년)

리조전기의 과학자이며 세계최초의 의학백과전서인《의방류취》편찬자중의 한사람이다. 그의 본은 곡산이며 판서 로의의 아들이다. 그는 정의감정, 동지중추부사의 벼슬을 지냈다.

로중례는 우리 나라 약재와 력대의 의학유산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고려의학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였다. 그의 풍부한 림상경험은 당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그는 우선 국내산 생약과 약재들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1423년, 1430년에 그는 중국에 가서 조선약재와 그곳 약재의 성질, 효력 등을 대비하여 연구하였다.

1428년에 그는 유효통, 박윤덕 등과 같이 《향약채취월령》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는 수백종의 약초를 달별로 나누어 그 이름, 맛, 성질과 작용, 채취시기와 방법, 말리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자세히 써놓았다. 따라서 이 책을 보면 비록 약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구할수 있고 또 약재를 리용할수 있었다.

1431년에 로중례는 박윤덕, 유효통과 함께 고려의학을 집대성한 《향약집성방》저술에 착수하여 1433년에 완성하였다.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하여 그는 270여종의 의학서적을 참고하였다.

이 책에는 959종의 질병에 대한 처방 1만 706가지와 침뜸법 1479가지가 들어있는 고려의학전서이다.

그는 1434년 《태산요록》을 썼는데 이 책은 봉건정부의 녀의사양성용교과서로 쓰이였다.

로중례는 1442년부터 이때까지 고려의학이 달성한 모든 성과를 종합체계화한《의방류취》편찬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였다.

이 책은 력대 우리 나라 의학책은 물론 다른 나라의 의학책 153종을 참작하여 365권으로 된 방대한것으로서 1445년에 완성되였다.

《의방류취》는 선행한 고려의학의 모든 성과를 종합체계화한것으로서 과학리론수준이 높고 치료경험이 매우 풍부한 의학백과전서이다.

《의방류취》는 오늘날 동방의학의 3대백과사전가운데서도 첫번째로 꼽히고있으며 유럽에서 최초의 의학백과전서로 인정되고있는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 1807년에 출판된《의학 및 외과학사전》보다 시기와 규모에서 훨씬 앞선 방대한 전서이다.

로중례를 비롯한 의학자들이 편찬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치료예방법을 집대성한《향약집성방》과 당시 동방의학이 달성한 여러 부문의 성과를 종합한《의방류취》는 중세기의 동방의학발전력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로중례는 의학자로서의 의서저술과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을뿐아니라 자기의 뛰여난 의술로 직접 환자들의 질병치료에 노력과 지식을 아끼지 않았다.

명의로서의 그에 대한 소문은 전국에 퍼졌으므로 그에게는 많은 환자가 찾아왔다.

특히 당시 국왕이였던 세종을 비롯하여 왕족과 봉건관료들은 물론 온 나라 백성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있었다.

그는 한번도 환자들을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성을 내는 일이 없었으며 비록 돈이 없고《천한》신분의 백성들이 약에 대하여 물으러 오거나 병을 봐달라고 할 때에도 절대로 거절하는 일이 없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치료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명랑하고 정력적이여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권태증을 느끼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국왕 세종도 로중례의 깊고 넓은 학식과 뛰여난 의술에 탄복하였다.

일생을 두고 우리 나라 의학발전과 림상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의학자이며 명의인 로중례는 1452년에 자기의 생애를 마치였다.

김 종 서 (1390년-1453년)

15세기 전반기 국방강화사업에 공을 세운 관리이며 학자이다.

그의 자는 국경이며 호는 절재이고 시호는 충직이다. 그는 도총제 김충의 아들이다. 1405년에 김종서는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지냈다.

1433년에 그는 함길도도절제사로 임명된 후 나라의 북방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공을 세웠다.

그는 북쪽변방으로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삭풍은 나무끝에 불고
명월은 눈속에 찬데
만리변역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파람 큰 한소리에 거칠것이 없어라

그는 1440년까지 종성군, 경흥군, 온성군 등을 새로 설치하고 이곳에 남쪽지방 인민들을 이주시키고 수많은 성을 쌓는 등 두만강류역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6진지역의 개척사업을 추진시킨 이후 말공부만 일삼으면서 허송세월하는 썩어빠진 량반통치배들을 규탄하고 국토방위에 무훈을 세운 무인들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이해에 그는 형조판서로 임명되고 례조판서, 우참찬 등을 력임하다가 지춘추관사의 총 책임을 맡고 정린지 등과 함께 1451년에 《고려사》(139권), 다음해에 《고려사절요》(35권)를 편찬하였다.

그는 평안도 도절제사를 거쳐 1450년에 평안도 도체찰사로 일하였으며 1451년에 우의정에 올랐다.

그는 황보인 등과 함께 세종왕에 대한 봉건적충의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후계자인 어린왕 단종을 옹호하다가 수양대군(후에 세조 단종의 숙부)에 의하여 1453년에 두 아들과 함께 집에서 살해되였다.

저서로서는 북부국경방위사업경험에 기초하여 봉건군대편성에 대하여 쓴 병서 《제승방략》과 문집으로 《절재집》이 전해지고있다.

박 연 (1378년-1458년)

15세기 음악리론가이며 작곡가, 연주가이다.

박연의 자는 탄부이며 호는 란계이고 시호는 문헌이다.

박연은 충청북도 영동의 량반집에서 태여나 어려서부터 학문공부와 음악수업에 전심전력하였다.

1411년 문과에 합격하였고 벼슬은 관습도감제조를 거쳐 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량반출신으로 생활이 넉넉하였던 그는 벼슬살이보다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40살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 거문고타기와 음악리론연구에 힘써 가야금, 거문고, 저대 등 여러 악기의 악리와 연주에 정통하였다.

1425년이후 박연은 악학별좌, 봉상시판관 등 봉건국가의 음악관계의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음정표준을 위한 훌관제작과 민족악기의 복구, 문란해진 악제의 정비, 음악서적의 편찬준비를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는 봉건정부에 제기하여 악기도감을 설치하고 여러가지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우선 12률관을 제작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라는것을 포착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 음악에서 2개의 고정음들의 높이를 정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중에서도 그 출발음 즉 기음(당시에는 황종음이라고 함)을 규정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섰다. 박연은 실패를 거듭하던 끝에 기음을 낼수 있는 황종률관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민족악기들의 음률이 규정되게 되고 처음으로 악보를 작성리용할수 있게 되였으며 음악창작사업도 활발히 하게 되였다.

박연은 1427년에 12률관에 기초하여 편경을 비롯한 65종의 악기를 새로 만들거나 없어진것을 다시 만들었을뿐아니라 350여명의 대관현악단도 구성하였다.

박연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들은 《세종실록》악지에 기록되여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다.

박연은 음악표기법에서도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총보, 채보, 기록법을 크게 발전시키였는데 이것은 세계음악사상에서 자랑할만 한 사실이다.

이밖에도 그는 음악유산을 수집정리하여 악보집을 출판하는데도 기여하였으며 무용발전에도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박연은 이와 같이 정력적으로 음악활동을 하다가 셋째아들인 박계운이 세조의 왕위쟁탈사건과 관련되여 사형당하자 벼슬자리에서 밀려났다가 1458년 80살로 자기 생애를 마치였다.

그의 저서로는 《란계유고》가 전해지고있다.

박연은 궁중음악을 위주로 봉건통치배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는 음악을 창조한 력사적제한성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15세기 우리 나라 음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장 영 실

15세기 중엽에 천문관측기구를 창안제작한 발명가이며 기술자이다.

경상도 동래현의 천대받던 관노였던 그는 수많은 천문관측기구들과 새 형태의 금속활자를 만들어 당시 과학기술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장영실은 당시까지 우리 인민들이 생산실천에서 쌓은 경험, 지식과 기술의 제반 성과들에 기초하여 연구를 거듭해서 1432년에 목간의를 만들고 그것을 리용하여 한성의 경위도를 측정한 다음 이에 적응한 천문관측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오래동안 연구를 거듭하던 끝에 15세기 중엽에는 대간의, 소간의, 혼상, 혼천의,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 앙부일구, 일성정시의, 자격루 등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구리로 만든 이 기구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것이였다. 그중 보루각에 설치한 자격루장치는 물의 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확히 알리는 장치였다.

그밖에 그는 금속활자를 부어만드는 사업에도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장영실은 15세기 우리 나라 출판인쇄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악기제작사업에도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봉건국가에 기술적으로 적극 복무한 공로로 하여 상호군의 직첩(벼슬증명서)까지 받았다. 그러나 장영실을 비롯한 발명가, 기술자들이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은 인민의 향유물로 되지 못하고 봉건통치배들에게 리용되였다.

리 종 무 (1360년-1425년)

일본해적들의 소굴인 쯔시마를 공격한 조선원정함대의 총 지휘자이다.

1419년 5월에 충청도 비인현 도두움곶과 황해도 해주의 연평곶에 대한 일본해적들의 침입사건을 계기로 왜적의 소굴인 쯔시마를 공격하기 위하여 리종무가 삼군도체찰사로 임명되고 경상, 전라, 충청도의 싸움배 200여척을 견내량에 집결시켰다.

리조정부에서는 쯔시마도주에게 도두움곶과 연평곶에 침입했던 일본해적들을 체포하여 보낼것을 요구한지 거의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하였다.

6월 17일 리종무를 삼군도체찰사로 하여 싸움배 227척에 1만 7 285명으로 편성된 조선원정함대는 쯔시마를 향하여 거제도를 떠났다.

리종무가 거느린 조선원정함대는 바람이 사나와 일단 돌아왔다가 19일에 다시 떠나 20일에 쯔시마의 두지포에 이르렀다.

이때 쯔시마의 왜적들은 자기편 해적떼가 돌아오는줄로 알고 마음놓고있다가 조선함대가 들이닥치자 넋을 잃고 도망쳤다.

이와 같이 불의의 첫 기습작전에 성공한 원정군은 그전에 귀화하여온 일본사람을 보내여 쯔시마도주에게 투항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없었으므로 리종무는 포구를 샅샅이 뒤져 적들을 소탕할것을 명령하였다. 원정군은 포구에 대한 수색을 벌려 적들의 배 129척을 나포하고 그중 109척과 적들이 도사리고있던 1 939채의 집을 불살랐으며 적 110여명을 소멸하고 20여명을 포로하였다.

그후 랍치되여갔던 명나라사람들을 통하여 적들의 량식이 떨어져간다는것을 알게 된 리종무는 후나꼬시에 목책을 설치하고 두지포에 정박한 다음 적들을 끝까지 섬멸할 태세를 보이는 한편 날마다 군대를 파견하여 적의 소굴과 배들을 불사르게 하고 대항하는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도록 하였다.

쯔시마도주는 조선원정함대의 불의습격과 포위섬멸전에 기가 꺾인데다가 식량부족으로 궁지에 빠져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여 앞으로 우리 나라에 잘 순종할것을 다짐하였다.

이와 같이 쯔시마도주의 항복을 받은 조선원정함대는 7월 3일 거제도로 개선하였다.

쯔시마원정에서 리종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의 소극성에 의하여 적의 소굴을 철저히 소탕하지 못한 부족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건의 하나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세종(리도) (1397년-1450년)

자는 원정, 시호는 장헌, 묘호는 세종, 릉호는 영릉이다.

리조의 제4대왕, 태종의 셋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이다.

1408년 충녕군의 봉을 받았고 1418년 세자로 책봉되였으며 그해 8월 태종의 양위를 받아 21살 때 왕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8(1989)년 4월 력사학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리조 500년 력사의 력대왕들가운데서 민족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한 왕은 세종왕이였다고 하시면서 그는 우리 민족글자인《훈민정음》을 만들어놓았고 조선민족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였다.

세종왕은 학문을 좋아하였고 봉건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세종은 정음청을 설치하고 재능있는 학자들로 연구하게 하고 자신도 직접 연구하여 1443년(양력 1444년)《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1420년 궁중에 집현전을 내오고 재능있는 젊은 학자들을 두어 여러 방면의 문화를 연구하게 하였고 간의대, 흠경각, 혼의, 앙부일구와 자격루의 창제(1438년), 측우기의 제조(1441년) 등 과학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봉건통치에 요구되는 여러 종류의 서적을 편찬하게도 하고 박연 등에게 아악을 연구하게 하고 음악유산을 정리하며 각종 악기를 제작 또는 개량케 하였다.

한편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령토완정을 이룩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1419년 쯔시마에 원정하여 왜구의 소굴을 소탕케 하였으며 1433년, 1437년 두차례에 걸쳐 압록강을 건너 파저강의 녀진을 공격제압하고 4군6진을 설치하여 령토완정을 실현하였다.

그의 봉건통치의 정비에는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강화가 동반되였다.

당대에 한성에서 방화투쟁, 대성산농민군의 투쟁이 치렬히 벌어진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맏아들 문종이 병약하여 일찍 죽으면 손자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될것을 념려하여 죽을 때 집현전의 학자들에게 손자를 잘 돌보아줄것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정 린 지 (1396년-1478년)

리조전기의 관료이며 학자이다. 자는 백수, 호는 학역이다. 본은 하동이며 정흥인의 아들이다.

1414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은 병조좌랑, 충청도관찰사, 예문관대제학, 례조판서, 리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지내고 령의정에 이르렀다.

그는 성삼문, 신숙주, 최항 등과 함께《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또한 김종서 등과 함께 1451년《고려사》를, 1452년《고려사절요》를 편찬하였다.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크고작은 간의, 규표 등 천문의기들의 제작과 흠경각, 보루각 등의 설치사업을 주관하였으며 정흠지 등과 함께 력대의 력법을 연구하여 천문수학책인 《칠정산》의 내편을 편찬하였다.

그밖에 《자치통감훈의》, 《치평요람》, 《력대병요》 등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그는 수양대군(세조)의 음흉한 정권탈취를 지지해나섰으므로 당시 사람들의 저주를 받았다. 문집으로 《학역대집》이 있다.

성 삼 문 (1418년-1456년)

15세기 봉건관료이며 재능있는 학자이다.

그의 자는 군보이며 호는 매죽헌 또는 남옹이고 시호는 충문이다.

경상도 홍주 로은동의 외가에서 태여난 그는 1438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447년에 실시한 중시에 1등으로 합격하여 벼슬은 승지에 이르렀다.

그는 정린지, 박팽년, 강희안, 신숙주, 최항, 리개, 리선로 등과 함께 1443년 12월(양력 1444년 1월)에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참가하였고 1446년에는 《훈민정음》(해례)의 편찬에도 참가하여 완성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 말뿐아니라 중국말과 한자음운학에도 정통하여 1447년 9월《동국정운》을 편찬하는데 참가하였으며 《직해동자습》 머리글에서는 조선 한자음의 특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

1455년 수양대군(세조)이 어린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르자 그는 박팽년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기도하였다.

중국사신을 위한 연회날에 성삼문의 아버지인 성승과 유응부 등이 의장용큰칼인 운검을 들고 왕(세조)의 곁에 서게 될 기회를 리용하여 세조와 그의 지지자들을 없애고 단종을 다시 왕자리에 앉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김질의 밀고로 사전에 드러나 그 주모자로서 성삼문, 박팽년, 리개, 유응부, 하위지 등이 체포되고 성삼문의 아버지, 동생, 아들모두가 귀양갔다. 성삼문은 봉건적충의에서 출발하여 수양대군의 행위를 비인간적인 처사로 규탄하고 그의 회유기만과 위협앞에서도 단종을 지지하는 립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굳은 절개를 시에 담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락장송되였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박팽년, 리개, 유응부, 하위지, 류성원 등과 함께 처형되였다.

성삼문을 비롯하여 단종에 대한 충의를 지켜 세조에게 처형된 이 6명을 《사6신》이라고 한다.

그의 저서로는 《성근보집》, 《훈세평하》 등이 있다.

강 희 안 (1417년-1464년)

15세기 전반기 이름난 화가이며 학자이다.

그의 자는 경우이며 호는 인재이다.

학문과 서화로 알려진 량반집안에서 태여난 강희안은 어렸을 때부터 시짓기, 글씨쓰기, 그림에 능하여 《삼절》이라고 불리웠다.

그는 19살 때 진사시험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25살 때에는 파거에 급제하여 동녕부, 주부, 집현전, 직제학 등의 벼슬을 하였다.

그는 어학자로서 정린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1443년(양력 1444년)에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1446년에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설한 도서인 《훈민정음》(해레)의 편찬에도 참가하였다.

그리고 1447년 9월에 《동국정운》편찬사업에, 10월에는 한자시로 된 《룡비어천가》를 우리 말로 번역하는 사업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그는 원예에 대한 조예도 깊어 1449년에 관상용화초와 나무들을 재배하는 기술에 대하여 쓴《양화소록》을 내놓았으며 1455년에는 금속활자인《을해자》의 원본을 써서 서예가로서도 이름을 날리였다.

특히 그의 활동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것은 화가로서의 창작활동이다.

그는 문인화가로서 먹으로 작은 풍경들을 그리기 좋아하였으며 풀벌레, 날짐승, 꽃가지, 인물화도 잘 그렸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국내는 물론 이웃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1455년 세조를 반대하는 모의가 탄로되여 《사6신》이 처형당하게 되였을 때 강희안도 거기에 관련된것으로 의심을 받았으나 그 재능으로 하여 화를 면했다고 한다.

《용재총화》를 비롯한 옛날기록들에 그가 그린 《미인도》, 《청천강도》, 《청학동》, 《밭갈이(경운도)》, 12폭의 풍경화 등을 높이 평가하고있는데 현재 전해지고있는것은 없다. 지금 남아있는것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량반선비들의 한가한 생활을 그린 《생각에 잠겨(산수인물도)》, 《다리를 건느다(고사도교도)》 등인데 이 그림들은 화면구성이 복잡하지 않으나 힘있고 간략한 필치로써 인민들의 성격과 심리적움직임 그리고 물체의 특징을 잘 그려냈다.

그는 그림을 직업적으로 그리지 않은 화가로서 당시 유학과 문학을 내세우고 전문화가들을 멸시하던 량반사대부들의 사상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그림의 주제선택에서도 량반선비들의 안일한 생활과 그의 목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데 머물렀으며 일부 묘사에서는 필격과 뜻만을 추구하고 형태를 무시하는 요소도 발로시켰다.

그러나 그는 묘사대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 세련된 소묘력, 풍부한 표현력 등 높은 예술적기량을 가지고 조선화의 표현수법들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그는 안견, 리상화와 더불어 리조초기 3대화가의 한 사람으로 불리웠다.

남 이 (1441년-1468년)

15세기 중엽의 장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남이는 녀진침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에서 용맹을 떨치고 26살에 병조판서를 한 젊은이였다고 가르치시였다.

남이는 태종의 사위인 의산군 남휘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잘하고 특히 무예를 련마하여 검술에 능하였다.

남이는 17살에 무과에 합격하였고 26살에 병조판서의 벼슬을 지냈다.

1467년 9월에 이름있는 청년장수였던 그는 건주위녀진정벌에서 공을 세워 공신이 되였다.

이해 9월 26일 우상대장의 임무를 맡은 남이장군은 만포에서 압록강을 건너 파저강류역의 건주위녀진을 공격하여 그 두목 리만주이하 부하들을 수많이 살상포로하였다.

이때 그가 지은 한구절의 시는 그의 애국심과 패기를 잘 보여준다.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먹여 다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이처럼 짧은 시이지만 반침략애국주의감정을 힘있게 반영하고있다.

그후 1468년에 남이장군이 혜성을 보고 낡은것은 없애고 새것을 펼 현상이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의 공로를 시기한 류자광이 그를 해치기 위하여 이 말을 거짓으로 꾸며 그가 반역을 꾀하고 공주를 겁탈하였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이장군은 모진 고문끝에 죽었다.

신 숙 주 (1417년-1475년)

15세기 봉건관료이며 학자이다.

그의 자는 범옹이며 호는 보한재, 회현당이고 시호는 문충이다.

1439년 문과시험에 합격하여 그는 집현전 부수찬으로 있었다.

1442년 그는 훈련주부가 되여 통신사 변효문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가서 조선측의 요구를 관철시켜 쯔시마도주와 매해 무역선수를 규정한 《계해약조》를 체결하고 돌아온 후 려행기《해동제국기》를 썼다. 여기에는 당시 일본과 류뀨(오끼나와)의 력사, 정치경제형편, 풍속, 관제, 족계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려있다.

그는 1443년(양력 1444년 1월) 정린지, 박팽년, 성삼문 등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참가하였고 1445년에 새 왕조에 대한 송가인 《룡비어천가》의 주해를 달았다.

그는 1446년에 새로 만든 우리 글자에 대한 과학리론적해설서인《훈민정음》(해례)을 편찬하는데 참가하였다.

1447년에 그는 최항과 함께 《동국정운》과 《사성통고》를 편찬하였다.

1455년에 그는 수양대군(후에 세조)이 나어린 단종을 내쫓고 왕권을 찬탈하는데 참가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공신칭호를 받았다. 그후 그는 세조를 적극 보좌한

것으로 하여 다시 공신칭호를 받고 예문관 대제학이 되였으며 병조판서, 우찬성, 대사성 등을 지냈다. 그후 그는《세조실록》,《예종실록》편찬에 참가하였고 그밖에《동국통감》, 《국조오례의》편찬사업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1457년에 우의정, 1459년에 좌의정이 되였다.

1460년에 그는 강원도, 함길도(함경도) 도체찰사가 되여 변경을 수시로 침범하는 모련위의 녀진족을 쳐서 징벌하였다.

그는 1462년에 령의정이 되였으며 그후 남이를 《숙청》한 공으로 또다시 공신칭호를 받았다. 말년에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국자감에 들어가 《성종실록》편찬사업에 참가하였다.

신숙주는 이처럼 리왕조의 통치체제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복무한 대관료이며 학자였다. 그의 문집으로서 《보한재집》이 있다.

량 성 지 (1415년-1482년)

15세기 봉건학자이며 정치가이다.

그의 자는 순부이며 호는 눌재이고 시호는 문양이다.

그는 전라북도에서 량구주의 셋째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27살 때에 문과시험에 합격하여 집현전 학사, 리조판서, 공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등의 벼슬을 력임하면서 나라의 과학문화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471년에 공신칭호를 받고 남원군으로 되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자연과 교통운수, 성곽, 물산 등 선행시기의 지도 및 지리를 깊이 연구하여 수많은 지도와 지리지를 만듦으로써 우리 나라의 지도학과 지리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팔도도》, 《팔도각도》, 《주부군현각도》, 《황극치평도》, 《경성도》 등의 지도와《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지는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는 《고려사》편찬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학자였을뿐아니라 당시 량반출신의 사상가들가운데서는 진보적인 인물로서 나라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부문의《개혁안》을 봉건정부에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그의 정치문화활동은 당시 리조봉건정부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 복무한것이였다.

그는 자기의 문집 《눌재집》에 봉건국가의 정책적인 문제에 관한 건의서, 잡저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그는 여기에서 15세기 중말엽에 조성되고있던 사회경제적모순을 완화함으로써 계급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국방력강화를 위한 대책, 봉건적문화발전에 대한 정책적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그는 이 문집에서 15세기의 정치, 경제, 군사, 대외관계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의 형편과 국방상태를 적었다.

이처럼 량성지의 문집 《눌재집》은 15세기의 력사, 지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된다.

서 거 정 (1420년-1488년)

15세기의 봉건관리이며 학자이다.

서거정의 자는 강중이며 호는 사가정이고 시호는 문충이다.

1444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은 대제학 등을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다.

1447년 동지중추부사로 있을 때 리조봉건정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편찬사업에 참가하였다.

15세기 중엽에 리조봉건국가의 중요한 문서들은 모두 서거정에 의하여 작성되였다.

1471년 그는 리왕조의 정권을 강화하는데서 《공로》가 있다고 하여 공신칭호를 받았다.

그는 1476년에 《삼국사절요》, 1481년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1478년에 그는 신라시기이래 우리 나라 시문을 모아서 《동문선 》을 편찬하였고 1484년에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그밖에 그는 《력대년표》, 《필원잡기》, 《태평한화》, 《동인시화》, 《사가정집》, 《골계전》 등을 썼거나 편찬하였다.

안 견 (1418년-?)

15세기 중엽에 활동한 이름있는 화가이다.

그의 자는 가도 또는 득수이며 호는 현동자 혹은 주경이라고 하였다.

그는 도화서 화원으로서 봉건왕정에 복무하여 벼슬은 호군을 지냈다.

안견은 산수화와 인물화에 모두 뛰여난 재간을 가지고있었으나 당시 사회력사적인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주로 산수화를 많이 그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조시기 화가 안견이나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을뿐아니라 필치가 힘있고 아름답습니다.》(《**김일성**전집》 제37권, 325페지)

안견의 우수한 작품들가운데는《청산의 흰구름》,《만가닥 개울물》 등 이름난 작품들이 많이 있다.

지금 남아있는 대표작은 1447년의 작품인《꿈에 본 동산(몽유도원도)》이다. 이 그림의 소재자체는 환상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나 금강산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이름난 산들의 봉우리와 시내물, 폭포수들을 생동하게 그린것이다.

그는 조선화의 아름답고 밝은 색채를 잘 살리였다. 필치가 힘있고 아름다운 그의 우수한 그림수법은 그후 석경, 신사임당 등 여러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청산의 흰구름(청산백운도)》은 그가 한평생 온갖 정력을 들여 그린 뛰여난 걸작품이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그림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화폭에 사색의 심도가 반영되여있는것이다.

그림에 산을 넘고 또 넘어 무수한 산들이 겹싸였으나 그 모두가 하나도 같은것이 없고 각이한 산으로 그려져있으며 흐르는 물에서도 그 깊이와 흐름속도, 물빛 등 이모저모를 다각적으로 형상하려는 고심이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이것은 안견이 자연을 매우 폭넓고 세밀하게 관찰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안견의 그림은 화면세계의 규모가 웅장하고 검밝기처리수법이 능숙하여 그림이 힘차고 장중한 맛을 주며 정서적이고 운률적인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실적화풍, 힘있고 아름다운 그의 필치는 그후 조선화발전에서 훌륭한 밑천으로 되였다.

이처럼 조선화화법의 기초를 쌓은 안견은 강희안, 리상좌 등과 함께 리조초기 3대화가로 널리 알려졌으며 그후 조선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 시 습 (1435년-1493년)

15세기 작가이며 철학가이다.

그의 자는 열경이며 호는 매월당, 동봉, 청한자, 설잠, 오세이고 시호는 청간이다.

서울 성균관 뒤마을의 빈곤한 선비가정에서 태여난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시를 잘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가 어릴적에 솔잎에 맺힌 이슬을 보고

솔잎에 맺힌 이슬은 푸른 하늘에
꿰인 구슬인양 하여라

라는 시를 지어읊었는데 그 소문이 널리 알려져서 마침내 궁중에 불리여가서 시를 지어《다섯살문장가》라는 칭찬을 받고 상으로 수십필의 비단까지 받았다고 한다.

학문연구에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던 그는 삼각산에 들어가 집현전의 선배학자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일심전력하였다.

그러나 그가 20살 되던 해인 1455년에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것을 기회로 그의 삼촌 수양대군(후에 리조 7대왕 세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자리를 빼앗자 김시습은 이에 불만을 품고 끝내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으며 일생을 방랑생활로 보냈다.

그는 시통을 걸머지고 손에는 막대기를 짚고 우리 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는 과정에 불공평하고 모순에 찬 리조봉건사회의 현실을 직접 볼수 있었다.

그가 당시로서 진보적인 사회정치사상을 내놓고 작품을 창작할수 있었던것은 이러한 생활경위와 관련되여있었다.

김시습은 10년동안 방랑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를 썼다.

그가 지은 대표적인 시집은《탕유관서록》,《탕유금오록》,《탕유관동록》,《탕유호남록》 등이다.

그는 1464년부터 경주의 금오산에 들어가서 약 6년간 계속된 창작생활과정에 소설문학작품들을 내놓게 되였다. 이 시기에 창작한 단편소설 《리생의 사랑(리생규장전)》,《만복사의 윷놀이》,《부벽루의 달맞이》,《꿈에 본 남염부주》,《룡궁의 상량잔치》 등 다섯편을 써서《금오신화》라는 단편집에 묶어놓았다. 이 작품들에는 한결같이 인간의 개성을 억누르는 봉건유교도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진보적인 지향과 애국적인것이 기본사상으로 되여있다.

1472년부터 그는 경기도 양주군 수락산에 들어가 창작생활을 계속하는 한편 특히 철학적사색에 몰두하였다.

그는 선행철학가들의 진보적인 리론을 연구하고 계승발전시켜 유물론적요소가 풍부한 철학체계를 세웠다.

그는 자연세계의 본질과 근본시원을 기라고 인정하였으며 기로 이루어진 모든 사물현상은 운동변화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물현상의 운동변화의 원인을 음기와 양기의 호상작용으로 보았다.

이러한 철학적견해는 비록 소박하고 심도가 깊지 못한것이기는 하나 유물론적인 견해로서 리조시기 유물론적철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후에 그는 또다시 방랑생활을 하면서 집권한 봉건통치자들에 대하여 불평을 표시하고 그들을 풍자하는 작품들을 지었다. 그가운데에는 당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관료, 지주들의 가혹한 봉건적착취가 봉건제도의 강화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것을 우려하면서 쓴 작품들도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그는 백성들을 억압착취하는 봉건관료배들과 부자놈들을 기생충이라고 폭로하였으며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동정하였으나 모순에 찬 봉건제도를 고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의 계급적 및 력사적제한성과 관련되여있다.

1493년 3월에 마지막으로 충청도 홍산 무량사에서 병들어 눕게 되자 그는

일생을 방랑하여 산수간에 떠돌으니
궂은 비, 흐린 날씨 시름도 하도 할사
강촌에 밤을 새워 바람은 뼈를 에고
굴살이로 추위에 몸이 얼어…

라는 글을 쓰다가 파란많은 일생을 마치였다.

그가 평생 지은 많은 시작품들과 산문들은 거의다 없어지고 오늘까지 보존되여 있는것은 《매월당집》과 《금오신화》뿐이다.

성 현 (1439년-1504년)

15세기 후반기의 봉건유학자이다. 그의 자는 경숙이며 호는 허백당 또는 용재이고 시호는 문대이다.

그는 지중추부사 성념조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1462년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은 지중추부사까지 지냈다.

그는 당시로서는 다방면적으로 깊은 지식을 지녔던 학자로서 15세기말에 리왕조의 봉건통치체제를 정비강화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복무하였다.

1493년 례조판서로 있을 때 음악에 대한 연구가 깊었던 성현은 장악원 주부가 되여 류자광과 함께 《악학궤범》(9권)을 편집하여 봉건정부의 례악집행의 기본을 규정하였다.

이 책에는 당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우수한 음악성과들이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였다.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이 컸던 성현은 천문, 지리, 의학, 외국어 등 이른바 《잡학》을 장려할것을 봉건정부에 제기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은 《용재총화》이다. 이 책은 10권에 달하는 큰 규모의 패설집이다. 이 책에는 당시까지의 문학, 음악, 미술, 력사연구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들을 적지 않게 싣고있다.

《용재총화》는 량반들의 신변잡사를 주로 취급한것을 비롯하여 중세기적이고 미신적인 이야기, 량반관료들의 저속한 생활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는 등 일련의 제한성을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리규보, 림춘, 리곡, 리제현, 리색, 리석형, 서거정, 강희맹 등 15세기까지의 이름난 작가, 시인들과 안견, 리마지, 김대정 등 이름난 예술가들에 대하여 소개하기도 하고 문인들의 문체상특성과 작품의 우결함에 대한 론평, 가야금과 같은 민족악기의 연원을 밝히기도 하였고 애국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력대 도읍들과 명승지들, 아름다운 풍속 등을 소개하고 금속활자를 비롯한 문화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등 그 진보적인 내용과 자료들로 하여 당시의 현실과 문화예술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되고있다.

최세진 (?-1542년)

16세기 전반기 이름난 언어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의 자는 공서이다.

그는 량반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던 중인신분의 역관(통역관)의 집안에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한어(중국어)를 배웠는데 그의 지극한 열성은 어학적재능을 활짝 꽃피워나갔다.

그는 통역이나 번역에 머물지 않고 한어의 과학적기초를 닦았으며 조선말과 리두문자도 깊이 연구하였다.

한어에 정통한 그는 일찍부터 역관이 되여 중국에 드나들었으며 문장이 뛰여나 국가적으로 제기되는 문건과 외교문건을 거의다 작성하여 문장가로 소문이 났다.

최세진은 출신이 중인이라는것으로 하여 량반들의 온갖 멸시와 천대, 갖은 비방과 박해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으나 그에 굴하지 않고 학자적정열과 애국적지성으로 연구와 저술활동을 멈추지 않았을뿐아니라 그 폭을 넓히고 그 깊이를 더하여 마침내 그 권위는 대단히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봉건정부도 1503년부터 1539년까지의 기간에 4번에 걸치는 과거시험에 우수하게 합격한 그에게 가선대부(종2품)의 벼슬등급까지 주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의 이름난 어학자의 한 사람인 최세진은 한자학습을 위한 교재로서《훈몽자회》를 편찬출판하였을뿐아니라 중국한자음에 관한 운서인 《사성통해》와 한자옥편인 《운회옥편》을 짓고 중국말교과서인 《박통사》와 《로걸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책들을 우리 말과 글로 번역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책들의 보급은 곧 우리 글인 훈민정음의 보급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세진은 《훈몽자회》(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글자모임이라는 뜻)의 첫머리에 쓴 알아두기에서 훈민정음의 매 글자의 차례를 고치고 이름을 처음으로 규정해놓았다. 그리고 어울러쓰는 방법, 받침쓰는 방법 등을 요령있게 설명하였다.

그는 훈민정음의 과학적리론과 인민대중의 생활적실천을 훌륭히 결부시켜 우리 말을 실용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한 뛰여난 어학자였다.

《훈몽자회》에서는 또한 매개 한자마다 그 음과 뜻을 우리 글로 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문으로 그 뜻을 보충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당시의 상용한자 3 660자의 통용음을 찍어놓아 한자의 조선음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을뿐아니라 그 뜻을 새김에 있어서 고유어휘 1

700여개와 한자어휘 400여개를 수록하여놓음으로써 조선어휘연구에서도 귀중한 사료적가치가 있다.

최세진의 학문의 폭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 그는 문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최세진이 쓴 책들은 그의 사상적제한성으로부터 일정한 결함이 있으나 당시 우리 나라의 언어학발전과 문화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서 경 덕 (1489년-1546년)

16세기 전반기 기일원론철학을 체계화한 조선중세철학에서 대표적인 유물론철학자이며 선진적인 학자이다.

그의 자는 가구이며 호는 화담 또는 복재이고 시호는 문강이다.

그는 개성 동문밖 화정리의 가난한 선비집안에서 서호번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으나 살림이 구차하여 14살에 이르러서야 겨우 공부를 시작하였다.

15세기말-16세기 전반기에 걸쳐 리조봉건사회의 모순이 격화되던 력사적환경에서 성장한 그는 일찍부터 봉건통치배들의 권력다툼과 전횡, 억압에 대한 불만으로 벼슬살이를 단념하고 일생을 화담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대교육에 힘썼다. 때문에 세상사람들은 그를 흔히 화담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는 25살 때에 벌써 자기의 독자적인 학습방법, 실천을 통한 경험,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로써 진리를 탐구해내는 방법에 의하여 유물론적우주관을 훌륭히 형성하였다.

그의 학문은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의 존경과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31살 때에 정부에서 천거과를 설치하였는데 개성에서는 서경덕을 추천하였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고 나가지 않았다.

34살 때에 금강산, 속리산, 지리산 등 명승지들과 백성들의 살림형편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하여 노래한 시를 많이 썼다.

그는 화담언덕우에 서재를 짓고 일생동안 빈곤한 생계를 유지하면서 후대교육에 힘썼다.

43살 때 어머니의 권고로 과거시험인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의연히 벼슬살이를 거절하였으며 56살 때 성균관 유생들의 추천으로 후릉참봉에 임명되였으나 역시 병을 구실로 취임하지 않았다.

서경덕은 말년에 평생을 통하여 체계화한 자기의 철학을 서술한 론문인《원리》, 《리기설》, 《태허설》, 《귀신사생론》을 비롯하여 몇편의 글을 남기였다.

이것들은 모두 그의 문집인 《화담집》에 실렸다.

그는 론문에서 세계의 본질을 이루며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의 발생발전과 그 운동변화를 좌우하는것은 신이나 리인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적인 기라고 하였다. 그는 《기》를 먼지와 같은 미세한 립자로 보면서 세계도처에서 운동하고있을뿐아니라 시초와 종말도 없는 하나의 물질적실체로 리해하고있었다.

이와 같이 서경덕은 물질적실체인 기는 시초도 발생도 없으며 따라서 종말도 소멸도 없는 영원한 존재라고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서경덕은 세계사물들의 발생발전에 대하여서도 그것은 물질적기의 작

용에서 오는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세계의 물질적기초이며 그 본질로 되여있는 기는 본래 그자체안에서도 성질이 다른 두 요소인 음과 양을 가지고있어서 그것들사이의 모순과 투쟁에 의하여 모든 사물현상들이 생겨나고 우주자연도 형성되는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서경덕은 사람을 둘러싸고있는 주위자연세계에 대하여서는 그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소박하게나마 유물론적으로 또는 변증법적인 견지에서 고찰하려고 하였다.

서경덕은 사회에 대한 고찰에서도 일부 진보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원래 촌선비로서 일찍부터 벼슬을 단념하고 당시 부패타락하여가는 봉건사회에 대하여 일정하게 불만을 품고있었다.

그는 봉건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페해와 비참한 현상들은 다 량반관료배들과 지주들이 자기의 권세를 리용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략탈하고 그들에게 막대한 부역의 부담을 들씌우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서경덕은 당시 봉건사회에서 빈부귀천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봉건사회의 모순과 페해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 부정의성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사회에 대한 서경덕의 견해에는 보수적이며 관념론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그는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에서 음양의 원리와 법칙을 그대로 리용하면서 당시 봉건사회의 신분제도, 봉건적인 통치질서를 긍정적인 또는 불가피한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량반계급적립장으로부터 흘러나온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이다.

그는 또한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그 어떤 《어진》 왕이나 《영웅》들의 출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으로써 력사에 대한 반동적이고 관념론적인 견해에 빠졌다.

사람에 대한 견해도 매우 부정확하였다. 그는 사람도 역시 자연계의 다른 사물현상과 같이 기의 산물이며 사람의 정신지각도 기가 모여서 가장 오래된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서경덕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사람의 본질과 지위,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를 옳바로 밝히지 못했다.

이처럼 서경덕의 철학은 당시 자연에 대한 견해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이고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사회와 인간에 대해서는 매우 락후하고 보수적이였다.

그러나 그의 우주자연에 대한 원리적인 탐구는 다른 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계속 발전되면서 리조봉건사회에서의 기일원론적인 유물론적철학사조를 이루었으며 중세철학사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리 시 애 (?-1467년)

함길도농민전쟁의 지휘자이다.

리시애는 길주출신 대토호로서 한때 회령부사를 지내다가 밀려나 길주류향소의 품관으로 있었다.

그는 리조봉건정부가 함길도지방토호들을 차별대우하는데 불만을 품고 3년동안 반란을 준비해왔다.

1464년에 어머니초상을 계기로 토호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은 기회에 리시애는 반변을 일으킬것을 모의하였다.

1467년 5월에 리시애는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악질관료로 알려져있던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을 습격처단하였다. 이와 함께 길주에 와있던 북평사, 부령부사,

길주목사 등을 처단하고 길주를 점령하였다.

리시애는 반란을 일으킨 후 곧 정부에 사람을 보내여 강효문 등의《반란을 진압하였다》고 국왕에게 보고하고 《함길도의 민심이 소란하니 본도사람으로 도안의 각급 지방관들을 임명할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 고을에 련락하여 미리 계획했던대로 봉건정부에서 파견되여온 관료들과 각 고을원들을 처단할것을 선동하였다.

길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삽시에 함길도의 여러 고을에 퍼졌다.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려오던 함길도농민들은 그것을 계기로 각지에서 들고일어나 제각기 고을관청들을 습격하고 중앙정부에서 파견되여온 남도출신 관료들을 처단하였다.

이리하여 투쟁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큰 농민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리시애는 그 지휘자로 되였다.

농민군과 《토벌군》과의 큰 싸움은 6월 하순 북청에서 벌어졌다.

농민군의 세찬 공격을 받은 《토벌군》은 홍원쪽으로 도망치고말았다.

7월 하순에 《토벌군》은 력량을 수습하여가지고 또다시 북청으로 공격해왔다. 농민군은 일시적인 승리에 자만한 지휘층의 전술상 착오로 하여 크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토벌군》에게 북청성을 내주고 퇴각하였다.

농민군과 《토벌군》과의 마지막결전은 8월초 만령에서 벌어졌다.

농민군은 관군에게 타격을 안기면서 완강하게 방어하였으나 력량상 엄청난 차이로 진지를 지켜내지 못하였다.

농민군은 마운령을 넘어 단천으로 들어갔다. 력량을 수습하여《토벌군》에게 타격을 주어야 할 이 결정적시간에 농민군내부에 기여들었던 토호출신 지휘성원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농민군이 북대천가에서 하루 묵으면서 싸움준비를 하고있을 때 적지 않은 지방토호출신 지휘관들은 리시애를 체포하려는 음모까지 꾸미였다. 이 기미를 알아차린 리시애는 동생 리시합과 함께 진지순찰을 핑게로 길주쪽으로 피하였다.

리시애는 다시 부대를 수습하여《토벌군》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룡성(수성)쪽으로 퇴각하던 도중 8월 12일에 경성부근에서 배신자들에 의하여 체포되였다. 체포된 리시애와 리시합 등은 마천령을 넘어 림명역앞벌에 주둔하고있던《토벌군》지휘부에 넘겨졌다.

함길도농민전쟁의 지휘자인 리시애가 체포처형되고 농민전쟁은 실패하였으나 봉건통치배들에게 준 타격은 매우 컸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리 상 좌 (1465년-?)

16세기 초중엽의 이름있는 화가이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노비신분이였으나 어려서부터 그림재주가 뛰여난것으로 하여 마침내 도화서의 화원으로 되였다.

《패관잡기》에《그의 산수와 인물그림은 당시에 누구도 따르지 못하였다》고 한것으로 보아 그는 짐승, 꽃, 새뿐아니라 풍경도 인물도 잘 그려 당시 도화서의 첫째가는 화가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의 대표작품으로는《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송하보월도》), 《산수도》, 《범(맹호도)》, 《꽃과 새》 등이 있다.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는 그의 회화적기량을 보여주는 걸작품의 하나이다. 그는 그림에서 어둡고 침침한것을 피하기 위하여 밤경치를 그리면서도 화면에 달을 그려 밤을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사시장철 푸르른 소나무 즉 모진 풍상을 이겨내고 억센 자세로 솟은 늙은 소나무의 형상을 통하여 화가자신이 걸어온 불우한 처지와 생활로정, 그의 강의한 의지, 굳센 기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있다.

그가 달밤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둥근 달과 사물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똑똑히 그림으로써 주제내용을 선명하게 인식하도록 처리한것은 조선화화법에서 전통적인 처리방법이며 높은 예술적표현수법의 하나이다.

리상좌의 그림들에는 량반들이 즐기는 고요한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당대인민들의 생활처지와 모습이 형상적으로 잘 묘사되였다. 특히 그의 그림에는 인간의 심리가 잘 반영됨으로써 사실주의적인 요소들이 뚜렷하며 그것은 그뒤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에서 그는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모습을 그리는데까지 나가지 못하였다.

신사임당 (1504년-1551년)

16세기의 유명한 녀류화가이다.

그의 성은 신씨이며 호는 사임당이다. 대학자였던 리률곡의 어머니이다.

신사임당은 강원도 강릉의 량반집안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신명화는 학문과 덕행이 뛰여났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진사로 있으면서 후대교육에 힘썼으며 어머니 리씨는 성품이 순진하고 소박하였고 자녀교양에서는 인자하면서도 엄격하였다. 신진사는 아들이 없이 딸만 다섯을 두었는데 둘째딸이 바로 사임당이다.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여 글짓기, 글씨쓰기, 그림그리기, 수놓이 등을 다 잘하였다. 특히 그림을 뛰여나게 잘 그렸는데 7살 때에 벌써 이름난 화가 안견의 그림을 본보기로 산수화와 포도를 그려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그는 평생에 수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화첩, 족자, 병풍 등에 풍경그림, 못과 새, 물고기, 날짐승그림 등을 수백폭이나 남기였다.

신사임당이 나서자란 강릉은 산수가 수려한 경치좋은 고장이였는데 그는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화폭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생활적으로 친근한 대상들을 민족적인 정서가 흘러넘치게 형상하였다.

당시에 적지 않은 화가들이 다른 나라의 풍경과 4군자(매화, 란초, 국화, 참대)에만 매달려있던 형편에서 그것은 매우 진보적인 화풍이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의 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물오리》,《쏘가리》,《기러기》, 《련못의 해오라기》, 《가지》, 《포도》 등이다.

그의 사실적인 형상이 얼마나 뛰여났던지 그가 그린 풀벌레그림을 닭들이 달려들어 막 쪼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도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신사임당이 어떤 집 잔치에 갔는데 한 부인이 수심에 가득차 안절부절 못하며 안타까와하고있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부인의 말이 남에게서 빌려입고온 치마를 실수하여 어지럽혔는데 새것을 사서 갚으려고 해도 가난하여 비싼 치마값을 치를수 없다는것이였다. 그 사연을 들은 신사임당은 곧 붓을 들어 더럽혀진 치마폭에 소담한 포도를 그려주었는데 그 포도넝쿨과 잎, 포도송이가 어찌나 소담하고 생

동하였던지 탐스럽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신사임당의 그림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 정교한 필치와 선명한 색채 등 생활을 사랑하고 다정다감하며 민족적인 정서가 넘치는 섬세한 녀성화가로서의 창작적 개성을 뚜렷이 하고있다.

신사임당이 자기 그림에서 표현한 애국심과 풍부한 인간성은 그가 지은 시와 자녀교육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19살 때 감찰이라는 그리 높지 않는 벼슬을 한 리원수와 결혼하였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아버지 신명화가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를 집에 둔채 시집살이를 한 그는 언제나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과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그는 오래간만에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반갑게 만나뵈였는데 리별의 시각이 다가왔다. 어머니와 울며 작별한 신사임당은 대관령(강릉에서 서울쪽으로 가는 길에 가로놓인 높은 령)에 올라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을 바라보며 그리움에 젖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읊었다.

늙으신 어머니 강릉에 외로이 계시는데
이 몸은 홀로 서울로 가네
다시한번 머리돌려 고향마을 바라보니
흰구름 갈앉은 곳에 저문 산만 푸르구나

신사임당은 훌륭한 어머니로서 자녀교양에서도 남달랐다.

그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모두를 나라에 이바지할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매일 자식들에게 공부할 분량을 정해주고 엄격히 통제하였다.

어머니의 교양에 감화된 자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당대의 유명한 인물이 되였는데 그중에서도 3살 때부터 글을 배웠으며 8살 때에는 시를 지어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셋째아들 리이(호는 률곡)와 어머니의 필법을 이어받은 막내아들 리우도 당대의 유명한 명필이였다.

우리 나라 녀류화가이며 자제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운 어머니인 신사임당은 서울 삼청동에서 47살로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신사임당은 현실주제작품들을 창작하지 못한 사회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취미를 반영한 주관주의적인 먹그림에 비하여 진실하고 생동한 채색화를 그림으로써 사실주의적인 조선화를 발전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황 진 이 (1516년-?)

16세기에 활동한 녀류시인이다. 그의 호는 명월이다.

1516년 개성의 진사집안에서 첩의 딸로 태여난 황진이는 용모가 아름다운데다가 어릴 때부터 유교경서인 4서3경을 통달하였으며 시짓기와 노래, 서예에서도 뛰여난 재능을 보여주면서 여러가지 일화들을 남기였다.

황진이는 비록 리조봉건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층이였던 기생이였지만 지성으로 하여 서경덕의 고결한 인품을 알아보았고 그를 스승으로 삼고 존경하였다.

당시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3절(세가지 뛰여난것)로 이름이 높았던 황진이는 시조에서도 격식을 깨뜨리고 인간의 깊은 내면세계를 높은 시형상으로 노래

한것으로 하여 그의 시조는 이채를 띠였다.

황진이의 용모와 시적재능이 얼마나 뛰여났던지 10년동안이나 천마산에 들어가 도를 닦으며 생불이라고 자처하던 지족선사도 그를 본 후에는 불교의 계률을 어기였다고 한다.

그는 주로 남녀간의 애정을 짙은 서정으로 섬세하면서도 자유분방하게 노래한 시조작품을 많이 남기였다.

청산은 내뜻이요 록수는 님의 정이라
록수는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소냐
록수도 청산 못 잊어 울어예며 가는고

황진이는 명필이였는데 박연폭포의 소엽 너럭바위에 새겨져있는 한자시《비류직하 삼천척 의시은하 락구천》은 그가 머리태를 잘라서 만든 달비로 쓴것이라고 전해오고있다. 글씨는 초서인데 매우 신묘한 경지에 이른 필적이라고 할만 하다.

림 꺽 정 (?-1562년)

16세기 농민군지휘자이다.

그는 총명하고 힘장사였다.

경기도 양주의 백정출신으로서 1559년초부터 황해도 연안과 우봉(금천구)에서 무장대오를 뭇고 투쟁을 벌리였다.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으로 살아갈수 없게 된 농민들은 자체로 칼과 창, 활과 철퇴를 마련하여 깊은 산골짜기에서 도를 닦고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였다.

림꺽정은 투쟁초기부터 폭동지휘부를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1559년 3월경에 황해도 연안과 우봉에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여 투쟁기지를 개성부 장통방에 꾸리고 경기, 황해도 일대에로 투쟁을 확대하여나갔다.

림꺽정무장대는 린근고을들을 습격하여 악질관리들을 처단하였다.

연안과 우봉의 봉건관리들이 관군을 풀어 무장대의 일부 성원들을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이에 격분한 림꺽정무장대는 대낮에 관청을 습격하여 관리들을 처단하였으며 감금된 무장대성원들을 구출하였다.

림꺽정무장대는 고을들에 진출하여 재물을 빼앗고 관리들을 모조리 처단하였다.

이에 당황한 봉건통치배들은 농민무장대를 체포하기 위한 흉계를 꾸미였다.

여러 고을원들에게 50～60명의 군사를 주어 림꺽정무장대를 찾아다니게 하는 한편 림꺽정을 체포하는자에게는 량인이면 군관벼슬을 주고 노비인 경우에는《천인》신분을 벗겨주고 고을원인 경우에는 벼슬등급을 높여준다는 등 여러가지 《표창》을 한다고 공포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의 발악이 심해질수록 무장대의 활동은 더욱더 격렬하게 벌어졌다.

1561년 10월 림꺽정무장대는 황해도 평산에서 봉건지주들을 습격처단하는 한편 일부 무장대성원들을 서울에 진출시켜 활동을 벌리게 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질겁하여 서울의 성문을 닫아매고 군사를 풀어 온종일 장안을 샅샅이 수색하는 소동을 벌렸다.

놈들은 인민들의 가장집물을 파괴략탈하며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는 행패를 하

였으나 림꺽정무장대성원을 한 사람도 잡지 못하였다.

봉건정부는 남치근을 황해도 토포사로, 백유검을 강원도 순검사로 하는 대규모적인 《토벌군》을 내몰았다.

1561년말에 림꺽정무장대는 힘에 부치는 《토벌군》과의 접전을 피하여 황해도 구월산으로 들어갔다.

림꺽정무장대는 3년동안에 걸쳐 경기,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고 강원도, 평안도 등지에서 봉건통치배들에게 된타격을 줌으로써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있던 인민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리 황 (1501년-1570년)

16세기의 반동적성리학, 관념론철학의 대표자이다.

그의 자는 경호이며 호는 퇴계이다.

량반집안에서 출생한 그는 과거에 합격하여 사간을 거쳐 우찬성을 지냈다. 《을사사화》(1545년)를 계기로 사림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자 고향인 경상도 안동에 은퇴하여 그곳에 도산서원을 건립하고 학문연구와 후대교육에 종사하였다.

그가 쓴 책으로서는 《퇴계집》이 있다.

리황의 철학에서 근본적인 시발점으로, 기본범주로 되고있는것은 《리》이다.

그는 기일원론을 반대하면서 세계가 《리》를 기초로 하여 구성되여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세계 즉 자연, 사회, 인간 등 모든것은 다 《리》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며 《리》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리황은《리》라는것을 사물에 앞서 존재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원리라고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사물에 내재하는 합법칙성을 그 사물로부터 분리시켜 초자연적인것으로 절대화하여놓은 하나의 정신적실체에 불과하며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늘신을 철학적개념으로 표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리황은 자기가 내세운 《리》는 바로 《천신》(하느님)과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대체로 천(신)은 《리》이며 세상에는 《리》가 들어있지 않는 사물이란 없다고 하였다.

리황은 이러한 종교적이고 관념론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모든것을 거꾸로 설명하였다.

그는 리와 기의 호상관계를 론하면서 리는 기의 주재자이며 기는 리의 재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세계의 물질적시원인 기의 일차성을 부정하고 리의 일차성을 주장하였다.

리황은 또한 모든 사물현상들의 운동변화와 발전도 다 리의 주재자적역할에 의하여 이룩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리황의 자연계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견해는 모두 초자연적인 리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전도시켜 보고있는 객관적관념론이다.

사회정치적견해에서도 리황은 리를 사회의 최고주재자로 내세우면서 봉건사회의 모든 정치도덕적질서와 신분제도는 다 《천리》(하늘이 정한 리치)의 발현이며 따라서 누구나 다 《천리》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그 제도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동시에 그는 봉건적인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일어나는 농민봉기자들에 대하여서는《도적의 무리》라고 모욕하면서 그에 대한 탄압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리황의 사회정치적견해는 봉건적착취제도를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것이였다.

리황은 사람자체에 대하여서도 매우 반동적인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모든 문제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리의 산물》이며 리의 지배를 받는 피동적인 존재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외곡하면서 사람이란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임금에게 복종하고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품성을 타고난다고 하면서 사람은 본래 하늘로부터 받는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리황은 륜리도덕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3강5륜의 봉건륜리도덕을 《인도의 대본》이라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군신, 부자, 부부, 장유(늙은이와 젊은이), 붕우(친우)사이의 《존비귀천》의 관계는 《천리》와 《천도》(하늘이 정한 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누구도 어길수 없는 관계라고 하였다.

리황의 이러한 반동적인 륜리도덕적견해는 봉건사회의 위계제도와 가부장적종법제도를 변호하는 리론적기초였다.

종합적으로 말하여 리황의 리일원론철학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고찰에서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정신적실체인 《리》를 중심으로 하여 설교한 관념론적이며 반동적인 철학으로서 그것은 리조봉건통치계급의 사상적도구로 복무하면서 당시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발전과 창조적활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리 이 (1536년-1584년)

16세기 후반기 봉건관료이며 유학자이다.

그의 자는 숙현이며 호는 률곡 또는 석림이고 시호는 문성이다.

리이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여났는데 그의 아버지 리원수는 낮은 벼슬을 지낸 량반이였고 어머니는 그림과 글씨로 유명한 신사임당이다.

그는 3살때부터 글을 배웠으며 8살때에는 시를 지어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3살때 진사초시에 합격하였고 14~15살때에는 벌써 이름있는 문장가로 자라났다.

그는 16살때 어머니를 여의고 19살 때부터 금강산에 들어가 불경을 공부하였다.

그는 29살에 과거에 급제한 후 청주목사, 황해감사, 대사간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봉건지배층내부에서 발생한 동인과 서인사이의 당파싸움을 조정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서인파의 편에 들게 되였는데 그것으로 하여 반대파세력의 배척을 받았다.

그후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황해도 벽성에 내려가 소현서원에서 후비양성과 학문연구에 힘썼다.

말년에 리조판서로 임명되여 서울에 올라가있다가 1584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당시 봉건국가앞에 나서고있던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봉건관료들보다는 진보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봉건국가가 인민들로부터 수탈하는 공물의 현물납부에 따르는 페단들을 지적하고 공물대신에 쌀로 받아들이자고 하였다. 이것은 인민들을 착취하는데서는 본질상 차이가 없었으나 당시 상업과 수공업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의의가 있는 제안이였다.

그는 또한 봉건국가의 국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적을 정리하고 성곽을 고쳐쌓으며 10만병정을 양성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당시 통치배들이 국방에 관심이 없고 더 많은 토지와 노비, 권세를 얻기 위한 당파싸움에만 몰두하고있던 조건에서 진보적인 제안이였다.

그밖에도 그는 정책적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많이 내놓았다.

그는 리황과는 달리 철학에서 리기이원론적철학사상을 내놓았다.

리이는 우선 리와 기는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둘이 다같이 세계의 시원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리이는 결국 나중에는 리의 선차성을 인정하는 관념론에 떨어지고말았다. 국가사회에 대한 견해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념론자였으며 봉건국가와 봉건사회의 옹호자였다.

리이의 사회력사적견해는 당시 반동적이며 보수적인 유학자들에 비해서는 일련의 진보성을 보이고있으나 봉건량반계급으로서의 계급적제한성과 당시의 력사발전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결함들을 많이 가지고있었다.

리이는 또한 봉건통치질서와 봉건륜리도덕은 변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변호하고 합리화하였다. 이것은 인민들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봉건제도와 봉건륜리도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것이였다.

다음으로 리이는 인식론에서 선행철학자들과는 달리 사람은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을 능히 인식할수 있다는 립장에 서있었다. 동시에 그는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데서 실천행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당시 공리공담을 일삼던 보수적인 반동적유학자들과는 견해를 달리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사상을 신조로 삼는 서인-로론파량반들은 그의 사상의 반동적측면만을 이어 끝없는 공리공담을 벌려놓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서 현실문제에 주의를 돌린 점을 비롯하여 일련의 진보적인 측면은 실학자들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그의 저서로는 《률곡전서》가 있다.

림 제 (1549년-1587년)

16세기 작가이다.

그의 자는 자순이며 호는 백호이다.

림제는 절도사 림진의 아들로서 전라도 라주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시문학을 잘하였을뿐아니라 군사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러한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어려서부터 예술적재능이 뛰여났으며 부정의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성미였다.

리왕조의 문벌제도를 증오하던 림제는 소년시절에 성혼(대학자이며 벼슬은 우찬성)이 《그대는 어느 가문의 자제인가?》고 묻는 말에 서슴없이 《나는 이름없는 평민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는 28살에 과거에 응시하여 생원진사과에 합격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찰방, 평사, 례조정랑 등 벼슬을 지냈다.

관리로 있는 동안에 지배계급내부의 당파싸움의 쓴맛을 체험한 그는 너절한 벼슬길을 단념하고 오직 문학창작에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오래 살지 못하였으나 그 기간 벼슬살이도 해보았으며 관서와 관북, 제주

도 등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보고 선조들이 남긴 력사유적을 더듬었으며 가난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도 목격하였다.

이러한 생활체험은 그의 창작활동에 긍정적작용을 하였다.

벼슬을 차버린 그는 속리산에 들어가 학자인 성혼을 스승으로 삼고 수많은 학자들과 사귀였다.

고루한 선비들과 벼슬아치들은 그를 봉건유교적인 례법과 도학(유교도덕의 학문)에서 벗어난 방탕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대학자이며 교육자였던 리이와 허봉, 정철 등은 그를 높이 칭찬하였다. 성격이 호방하고 강직하였던 그는 소박하고 진실하면서도 생활이 해학적이였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일화들이 수많이 전해지고있다.

그가 어느날 말을 타고 나들이를 갔을 때에 왼발에는 갓신을 신고 오른발에는 짚신을 신었다. 말몰이군이 그에게《술에 취하셨나 봅니다. 갓신과 짚신을 짝짝이로 신었습니다.》라고 말하자 림제는 꾸짖기를《길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은 나더러 갓신을 신었다고 할것이며 길 왼편으로 가는 사람은 나더러 짚신을 신었다고 할것이니 누가 제짝아닌 신을 신었다고 할것이냐.》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봉건통치배들이 당파를 무어 제각기 편협한 소견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차리려고 개싸움하는 현상을 신랄하게 풍자한것이였다.

림제는 우수한 소설작품도 창작하여 중세소설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소설은《재판받는 쥐》(《서옥설》),《꽃력사》(《화사》),《시름의 성》(《수성지》),《원생몽유록》등 4편이 있다.

그는 시도 많이 썼다. 대표적으로《장령민정》,《마소노래》등이며 이밖에《두메사람》,《맵짠 추위》,《님을 맞이하는 노래》,《님을 보내는 노래》등이 있다.

그의 이 작품들 특히 소설들은 지배계급의 생활만을 취급하고 유교도덕을 기준으로 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규정하고있는 점에서나 줄거리가 단순한것 등 적지 않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풍자적인 수법을 다양하게 써서 불합리한 당대사회현실과 봉건통치배들의 부패상을 여러모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이 시기 소설의 주제를 넓히고 그 예술적형상을 다채롭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림제는 38살로 1587년에 일찍 생애를 마치였다.

그가 남겨놓은 문학유산은 우리 나라 사실주의적문학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허란설헌 (1563년-1589년)

16세기 후반기의 녀류시인이다.

그의 성은 허씨이고 자는 경변이며 호는 란설헌이다.

량반집안에서 태여난 그는 오빠 허균과 함께 진보적인 시인인 리달에게서 글을 배웠다.

허란설헌은 어려서부터 시를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렸다.

일찍 가정을 이루었으나 단란하게 살지 못하였으며 26살나이에 일생을 마쳤다.

그는 짧은 생애에 많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시만 하여도 방안에 찰만큼 많았다고 하는데 죽을 때 다 불태워버렸기때문에 남은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의 시들은 오빠인 허균이 여기저기서 모아 편찬한 《란설헌집》에 200여편이 실려있다.

허란설헌은 주로 봉건유교적인 《남존녀비》사상의 구속밑에 불우한 처지에 놓여있던 녀성들의 비극적운명을 그린 시들을 많이 썼다.

서정시 《가난한 처녀의 노래》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밤은 깊어가도 베짜는 손 쉬지 않네
짤가닥 짤가닥 쓸쓸히 울리는 바디소리
말코에 감겨지는 이 피륙
마침내 뉘의 옷감 되고마려나
가위든 열손가락
추위에 곧아들건만
남의 집 첫날옷만 지어주는 신세
해마다 홀로 늙어만 가네

그는 반침략애국주의사상감정을 노래한《성쌓는 괴로움》,《변방노래》등과 같은 시들도 썼다.

그의 시들은 시인자신의 녀성으로서의 사회적처지와 관련하여 주제범위가 넓지 못하고 내용상 서글픈 색조를 띤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섬세한 필치와 부드러운 정서로 녀성들의 생활감정을 노래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 시문학의 다양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권 문 해 (1534년-1591년)

16세기 후반기의 언어학자이다.

그의 자는 호원이며 호는 초간이다.

한때 이름난 학자인 리황에게서 학문을 배운 일이 있다.

그는 28살때 과거에 합격하여 주로 중앙통치기관에서 벼슬살이를 하였다.

그는 34살때 춘추관 기주관으로 임명된 후 여러번 편수관을 겸하였고 37살때 문과정시에 장원급제하였다.

한때 당파싸움에 몰려 대구부사로 7년간 내려가 있었다.

그후에 다시 승정원 좌부승지로 올라와 경연참찬관을 력임하면서 벼슬을 하던 그는 날로 치렬해지는 당파싸움을 증오하여 벼슬살이를 단념하고 후대교육과 학문연구로 여생을 보내다가 1591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선비들이 다른 나라의 력사를 잘 알면서도 자기 나라의 력사에는 관심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우리 나라의 말과 력사, 지리, 민속, 생물 등의 연구에 힘썼다.

그는 조선력사와 조선어 그리고 한자학에 대한 깊은 연구에 기초하여 1589년에 《대동운부군옥》을 편찬하였다.

《대동운부군옥》은 우리 나라 최초의 한자고사사전으로서 20권 20책으로 되여있다.

이 책은 고조선이래 16세기말까지의 력사적사실을 문자에 의하여 분류하고 해설하였다. 이 책은 그 내용을 지명, 국호, 성씨, 인명, 효자, 렬녀, 선명, 옥명, 화명, 금명 등 11개의 목으로 나누고있으며 올림말로는 일반어휘를 비롯하여 사람이름, 땅이름, 나라이름 등의 고유명사와 함께 식물, 동물, 천문, 지리, 철학, 력사,

문학, 예술 등 전문용어들을 싣고있다.

이 책에는 우리 나라 책 174종과 다른 나라 책 15종의 자료 등이 리용되고있다.

이 책은 우리 나라 봉건시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분류사전형식의 책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랜 귀중한 유산이다.

권문해가 쓴 책은 많았는데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것은 《대동운부군옥》과 《초간집》뿐이다.

조 헌 (1544년-1592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장이다.

그의 자는 연석이고 호는 중봉이며 시호는 문렬이다. 그는 조은지의 아들이다.

조헌은 리이의 제자로서 1567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은 도사 등을 지냈다.

1574년에 그는 당시로서 긍정적의의를 가지는 사회정치적인 개혁안을 담은《동환봉사》를 썼다.

그가 도사로 있을 때 공안의 폐단을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리조봉건국가의 리익에 맞게 얼마간이라도 개혁할것을 제기하였다.

1589년에 일본의 침략기도가 드러났을 때 그는 나라를 방비할 대책을 정부에 제기하였다.

1592년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보은, 홍성 등지에서 적을 격멸하였다.

그는 령규가 지휘하는 의병부대와 함께 싸워 청주성을 되찾았다.

그후 금산에서 왜적의 대부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의 아들 조완기도 이 전투에서 싸우다가 희생되였다. 그의 저서로는 《중봉집》이 있다.

김 시 민 (1554년-1592년)

임진조국전쟁시기 무관이다.

그의 자는 면오이고 시호는 충만이다. 그는 지평 김충갑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1578년 무과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은 병마사에 이르렀다.

1591년 진주목 판관으로 임명되였는데 그후 목사가 아직 부임되지 않았을 때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났다. 목사가 없었으나 그는 무기를 수리하고 진주성을 수축하는 등으로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끝까지 지킬 준비를 갖추었다.

그후 진주목사로 임명되여 사천, 고성, 진해 등지에 출전하여 왜적을 쳐부시고 큰 공을 세웠으므로 경상우도병마사로 승급되였다.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서울로 가던중 금산에서 적군을 만나 크게 쳐부셨다.

이해 10월에 왜적들이 진주성으로 밀려든다는 소식을 들은 김시민은 급히 진주성으로 돌아와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왜적들은 14일동안 대병력으로 맹렬하게 성을 공격해왔다. 그는 군사들과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에 고무되면서 방어와 공격을 배합하여 수많은 적들을 쓸어눕힘으로써 유명한 진주대승리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왜적이 도망친 후 김시민은 진주성을 순찰하던중 시체의 무더기속에 숨어있던 적패잔병이 쏜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반침략투쟁에 참가하여 그가 크게 승리한 진주성방어전투를 지휘한것은 애국적인 행동이였으며 당시 일부 비겁한 봉건량반들에 비하여서는 긍정적이였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 그의《충성》을 높이 평가하여 봉건정부에서는 그에게 령의정벼슬과 상락부원수의 칭호를 주었다.

계 월 향 (?-1592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녀성이다.

계월향은 평양관청에서 량반통치배들로부터 천대를 받던 기생이였다.

1592년 6월 중순 일본침략자들이 평양성을 강점하였을 때 그는 미처 피난가지 못하고 성안에 남아있었다.

평양성을 강점한 왜적들이 감행하는 야수적만행을 목격하면서 그는 비록 천대받던 신분의 녀성이였으나 나라와 겨레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왜적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에 한몸 바칠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계월향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 시중을 드는척 하면서 적정을 탐지하여 아군부대들에 통보해주었다. 기회를 엿보던 그는 마침내 평안도방어사였던 김응서장군을 비밀리에 성안으로 안내하여 적장을 처단하도록 도와주고 그를 성밖으로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피할수 없어 적에게 체포되여 애국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희생되였다.

이렇듯 그는 목숨바쳐 용감히 싸움으로써 평양성탈환전투승리에 직접 이바지하였다.

후에 평양성인민들은 계월향의 애국심을 높이 찬양하여 평양에 사당을 짓고 비를 세워 그를 잊지 않게 하였으며 그가 살던 곳을 《월향동》이라 불러 오늘까지 전하고있다. 월향동에 세웠던 비는 지금 련광정 남쪽에 옮겨세워졌다.

리 장 손

16세기의 기술자로서 임진조국전쟁때 위력있는 포탄을 만든 발명가이다.

리장손은 화포를 만드는 수공업자로서 봉건통치배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신분적처지에 있었다.

애국심이 강한 그는 일본침략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왔다.

마침내 그는 임진조국전쟁이전시기부터 써오던 진천뢰를 개량하여 더 위력한 비격진천뢰를 창안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포탄은 신관장치가 달려있는 일종의 시한탄으로서 대완구포로 발사하도록 되여있었다.

비격진천뢰는 1592년 8월에 경주성을 되찾기 위한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적들은 비격진천뢰를 모르고 모여들어 구경하다가 그것이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소리와 함께 터질 때에 철파편에 맞아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적들은 모두《귀신의 조화》라고 하면서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처럼 리장손은 새로운 무기를 발명함으로써 임진조국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론 개 (?-1593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진주성에서 왜적을 반대하여 싸운 애국녀성이다. 의암이라고도 불렀다.

전라도 순창에서 태여난 론개는 진주에서 량반관료들과 부자놈들의 천대를 받던 기생이다.

1593년 6월에 진주성이 왜적들에게 강점되자 몸을 피하지 못하여 놈들에게 붙잡히였다.

성안에 침입한 왜놈들은 무려 6만명이나 되는 무고한 인민들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학살하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창고에 몰아넣고 불태워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또한 성안의 온갖 재물을 략탈하고 불태워버렸으며 짐승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성벽마저 허물어버리였다.

이를 본 론개는 철천의 원쑤를 기어이 복수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왜적의 우두머리놈들은 진주 촉석루에서 술판을 벌려놓고 론개를 끌어내여 노래와 춤을 강요하였다. 론개는 이 기회에 적장 게다니놈을 없애버릴 결심을 가지고 그놈에게 취하도록 술을 잔뜩 먹인 다음 촉석루아래 남강기슭 절벽으로 끌어냈다. 론개는 그놈을 유인하여 그러잡고 높은 절벽아래 남강물에 몸을 던졌다.

이렇듯 론개는 자기의 한목숨을 바쳐 적장을 죽여버림으로써 진주성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의로운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임진조국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후 이 지방인민들은 론개의 애국적소행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순창기생 의암이는
우리 나라 건지고
가등청정 목을 안고
진주남강에 떨어졌네

(실지 죽인 놈은 게다니이지만 인민들속에서는 가등청정을 죽였다고 전해지고있다.)

인민들은 비를 세워 그를 기념하였으며 《진주의기사》(진주의 의로운 기생의 사당)까지 세워 제사하였다.

권 률 (1537년-1599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군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공을 세운 장수이다.

1592년 7월에 일본침략자들은 파탄에 직면한 《수륙병진계획》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야망밑에 바다에서 수군의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륙지에서는 전라도지역을 강점하려고 발악하였다.

적들은 고바야가와 다까가게가 거느린 침략군부대를 내몰아 전주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벌리였다.

이에 대처하여 대렬을 수습한 리조의 관군과 의병들은 련합하여 전라도에 침입하는 적의 공격을 물리칠 싸움준비를 다그치였다.

도절제사 권률과 동복현감 황진 등이 거느린 관군은 리치의 험한 지형을 리용하여 진을 쳤다.

그리고 왜적들의 거듭되는 공격을 막아 용감히 싸움으로써 적의 기도를 파탄시켰다.

적들은 종내 리치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많은 시체와 무기, 군량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패주하던 적들은 1593년 2월초에 행주산성(서울 서쪽 40리 부근)에 몰려들어 제놈들의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발악하였다.

경기도지방으로 투쟁무대를 옮겨간 권률은 관군과 의병들을 거느리고 행주산성에 들어가 방어를 준비하였다.

서울에 몰려든 적들은 2월 12일에 우끼다놈의 지휘밑에 3만명의 침략군을 긁어모아가지고 크지 않은 행주산성으로 달려들었다. 적들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9차례나 련속 공격하였다. 권률의 지휘밑에 행주산성의 2 300여명의 군사들과 의병들은 산성에 의거해서 완강한 방어전을 벌려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성안의 부녀자들도 싸움에 떨쳐나서 치마폭에 돌을 담아 날라다주면서 싸우는 군인들을 돕고 적극 고무하였다. 우리 나라에서《행주치마》라고 부르는 녀성들의 앞치마의 이름은 이 행주산성싸움에서 생긴것이라고 전해지고있다.

행주산성안의 군민들의 완강한 방어에 부닥친 적들은 많은 죽음만을 내고 도망치고말았다.

이밖에도 권률은 1596년 6월에 일본침략군의 재침책동이 감행되자 도원수로 되여 경상좌도의 대구 공산성에 부대를 배치하고 이 일대에 침입하는 적을 소탕했다.

1597년 9월에 도원수 권률은 충청병사 리시언과 함께 부대를 지휘하여 직산계선으로 공격해오는 적을 사수평에서 격멸함으로써 북쪽으로 기여들려던 적의 선봉부대인 구로다부대에 섬멸적타격을 주고 가또부대의 예봉을 꺾어버렸다. 그리하여 아군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수 있는 계기를 열어놓았다.

또한 권률은 159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초까지 울산 도산성에 대한 포위작전을 벌려 일본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때 3군으로 편성된 조선군대는 권률의 지휘밑에 12월 23일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아군은 새벽에 적의 보루로 육박하였다가 퇴각하는척 하면서 적을 성밖으로 끌어낸 다음 강력한 반격을 가하여 약 500명을 소멸하였다.

다음날 권률은 조선군대가 반구정과 태화강가에 진을 친 적을 각각 포위공격케 하였다. 아군은 세찬 바람을 리용하여 적진에 불을 지르고 돌격전을 벌려 반구정과 태화강가의 적의 진지를 소탕하였다. 이날 싸움에서 아군은 수천명의 침략군을 섬멸하고 외성을 점령하였다. 살아남은 적들은 도산성안에 들어박혀 응원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도산성공격전투에서 권률의 부대는 성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하였으나 2만명의 침략군가운데서 거의 절반을 섬멸하였으며 적들로 하여금 성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후에도 권률은 경상좌도에서 일본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여 련이어 공을 세웠다.

김 천 일 (1537년-1593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의병장이다.

그의 자는 사종이고 호는 건재이며 시호는 문렬이다. 그는 사헌부 지평, 부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1592년 4월 왜놈들이 침입하자 김천일은 6월 전라도 라주에서 의병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7월 북으로 진격하여 전라도관군의 한 부대와 함께 서울을 탈환할 목적으로 수원 독산성에 자리잡은 다음 주변의 적들을 기습하였고 얼마후에는 금령(룡인지방)의 적들을 소탕하였다.

7월말 김천일의병부대는 강화도를 근거지로 하여 남북전선의 련계를 맺어주면서 서울과 그 근방에 기여든 왜적들을 격멸하였다.

행주산성전투이후 김천일의병부대는 한강하류류역에 본거지를 정하고 서울인민들과의 련계밑에 서울탈환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서울시내에 파견하여 적정을 정찰하고 인민들을 투쟁에 동원하는 한편 충청도와 경기의 수군으로 하여금 한강하류의 로량을 차단하고 적들이 한강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천일의병부대는 또한 한강하류연안에서 소규모의 매복전을 자주 벌려 400여명의 적을 살상하였다.

경상도남해안의 좁은 지역으로 쫓겨난 침략자들은《강화》의 막뒤에서 패배를 만회하여보려고 하였다. 놈들은 전라도지방으로 침략을 확대하여 군량을 해결하며 조선수군기지를 배후로부터 타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침략계획에 따라 1593년 6월 진주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진주성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제2차 방어전을 벌리게 되였다.

적들은 우끼다놈의 지휘밑에 12만 3 000명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였다. 적들은 아군이 진주성으로 무력을 집결시키지 못하고 아직 각지에 널려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먼저 공격해왔다.

의병장 김천일은 진주를 끝까지 방어함으로써 적의 침략기도를 파탄시키려고 결심하였다.

진주를 방어할데 대한 김천일의 작전적발기에 호응하여 여러 지방의 의병과 관군이 진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진주성안에는 김천일, 최경회 등이 거느리는 의병과 관군이 모두 3 000명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적아간의 력량대비는 40대 1이였다.

방어의 총지휘는 김천일, 경상우도병사 최경회가 책임졌고 수성장의 임무는 충청병사 황진 등이 담당하였다. 김천일을 비롯한 성의 방어자들은 적의 9주야 계속되는 공격으로 하여 실로 헤아릴수 없이 간고한 속에서도 과감히 싸워 무수한 적들을 살상하였다.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성을 지켜 영용하게 싸웠다.

촉석루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김천일은 성이 적들에게 함락되자 아들 김상건, 의병장 량산도 등과 함께 남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의 투쟁은 당시 부패무능한 봉건량반들에 비하여 애국적이고 적극적이였던것으로 하여 임진조국전쟁의 승리사에 한페지를 차지하고있다.

그의 저서로는 《건재집》이 있다.

김 덕 령 (1567년-1595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애국적인 의병장이다.

1593년 11월 김덕령은 담양에서 의병을 조직하였다.

김덕령은 힘과 용맹이 비상하였으며 언제나 허리의 량쪽에 무거운 쇠망치를 차고다녔다.

그는 의병을 조직하면서 각지에 격문을 보내여 투쟁에 호응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인민들이 모여들어 그의 부대는 크게 장성하였다.

김덕령은 조선에서 왜적을 완전히 내쫓고 일본본토에까지 쳐들어가 적의 두목 도요도미 히데요시놈이 도사리고있는 오사까성을 공격하여 놈들의 침략행위를 끝장내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김덕령의병들의 불타는 적개심과 열렬한 애국심의 표현이였다.

김덕령의병부대는 다른 의병부대들보다도 규률과 질서가 있고 전투력이 강하였다.

김덕령의병부대는 1594년 2월에 담양을 떠나 진주에 이동하여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하여 둔전을 경작하면서 전투훈련을 힘있게 벌렸다.

김덕령의병부대의 이름이 높아가자 봉건정부는 군량을 보장하는 일과 의병을 통제하는것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1594년 4월 여러개의 의병대들을 김덕령의병부대에 통합하도록 하고 도원수 권률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김덕령의병부대는 수천명으로 장성하였다.

1594년 9월 김덕령의병부대는 최강이 거느리는 의병과 협동하여 고성에 상륙한 왜적 200명을 소탕한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전투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김덕령은 그후 그의 공로를 시기하는자들의 음모와 당파싸움에 말려들어 1595년에 리몽학의 반란에 가담했다는《죄명》으로 서울에 끌려가 옥사하고 그의 부대는 해산되고말았다.

정 철 (1536년-1593년)

16세기 대봉건관료이며 국문시인이다.

그의 자는 계함이며 호는 송강이고 시호는 문청이다.

서울의 높지 않은 벼슬을 한 량반관료집안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이름있는 학자들에게서 글을 배웠다.

남다른 열성과 뛰여난 재능으로 하여 20살 전후에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다.

그는 일찍부터 벼슬길에 나서서 수찬, 교리, 감사, 좌의정 등을 지냈다.

그는 서인당파의 거두로서 당파싸움에 몰두하다가 반대파에게 몰리워 정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차례 귀양살이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인민들의 생활처지와 인정세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게 되였는데 이것은 국문시가창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였다.

정철은 1580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여 원주에 가있을 때 고성이남의 금강산부근과 울진 망양정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일대의 명승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의 경치에 감동되여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였다.

그는 중세기의 국문시가발전사상 기교면에서 높이 평가되였다.

봉건량반이였던 정철은 계급적립장으로부터 당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절박한 념원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외면하였으며 현실에서 유리된 순수한 자연미를 구가함으로써 봉건사회를 미화하려는데만 치우쳤다.

그는 일생동안 적지 않은 가사, 시조 등 국문시가들과 한자시, 산문들을 써서 《훈민정음》창제이후 국문시가발전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성산별곡》등 4편의 가사와 80여수의 시조가 전해지고있다. 그의 작품들은 문집인 《송강집》과 《송강가사》에 실려서 전해오고있다.

리 순 신 (1545년-1598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순신장군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한 거북선을 만들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에 기여드는 왜적을 바다우에서 물리쳤습니다.》(《**김일성**전집》 제24권, 105페지)

리순신장군은 임진조국전쟁때에 거북선을 만들어 왜적을 바다에서 쳐물리치는데서 큰공을 세운 애국명장이다.

그의 자는 여해이며 시호는 충무이다. 그는 1545년에 리정의 셋째아들로 태여나 어려서부터 군사관계서적과 유교경전연구에 힘썼으며 1576년에 무과에 합격하여 훈련원봉사, 발포만호, 사복시주부 등을 지내고 벼슬이 3도수군통제사에 이르렀다.

1587년 그가 조산포만호로 있을 때 두만강어구에 있는 록둔도의 수자리땅까지 맡아보았다. 이때 그는 이곳에 병력을 증강할것을 여러번 제기하였으나 함경도절도사 리일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해 녀진추장 마니응개 등이 곡식을 략탈할 목적으로 록둔도에 침입하였을 때 그의 부대는 어려운 조건에서 적들을 물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일은 방비를 소홀히 했다는 구실을 붙여 리순신을 처형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당한 론거를 무시할수 없어 다만 만호에서 떼여 한개 병사로 종군하게 하였다.

그후 그는 전라도 조방장이 되였고 1589년 정읍현감이 되였다가 진도군수, 가리포첨사로 임명되였다.

임진조국전쟁직전에는 전라도수군절도사로 되였다. 그는 당시 조성된 정세로 보아 일본해적들이 침략하여올것을 미리 짐작하고 거북선을 만들고 해안방어를 강화하였다.

1592년 왜적이 침입해오자 5월 리순신함대는 거북선을 선두로 경상도 앞바다로 출전하여 옥포해전에서 적선 50여척중 26척을 격파하였으며 사천선창에서 12척 격파하고 1척을 나포하였으며 당항포해전에서는 30여척의 적선을 격파하였다. 이는 임진조국전쟁에서 조선군대가 거둔 첫 승리였다.

7월 8일 리순신함대는 중세기해전력사에서 이름을 떨친 한산도해전을 벌리였다.

리순신장군은 견내량의 좁은 해협에 있는 적선 73척을 유인전술로 한산도앞의 넓은 바다에 끌어내여 59척을 완전히 격파하고 수천명을 살상하였다. 한산도해전에서 거둔 이 승리를 《한산대첩》이라고 한다.

8월말에 리순신장군은 련합함대를 이끌고 적선이 둥지를 틀고있는 부산을 공격하여 9월 1일 100여척을 격파하고 개선하였다.

리순신장군은 전쟁과정에도 계속 무기를 만들고 무관을 선발하는 등 바다의 방비를 강화하는 한편 수자리땅을 부치고 고기를 잡게 하며 소금을 굽게 하고 도자기를 만들어 팔게 하는 등으로 군량미를 저축케 하였다.

1594년에 리순신장군은 곽재우, 김덕령의병장들과 협동하여 거제도의 적을 포위공격하였다.

1597년 1월말에 봉건정부는 경상우수사였던 원균을 옹호하는 서인당파들의 책

동에 따라 정부의 출동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죄》로 리순신장군을 수군통제사의 직책에서 철직시키고 무능한 원균을 그 자리에 임명하였다.

그후 리순신은 적들의 흉계에 넘어간 량반들에 의하여 사형까지 당할번 하였으나 애국적여론의 강력한 항의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권률부대에서 《백의 종군》(처벌로서 보통병사로 복무하는것)하게 되였다.

수군통제사로 된 원균은 안일과 향락을 일삼으면서 지휘체계와 군사규률을 문란시키고 리순신장군이 키운 지휘관들을 배척하고 장병들을 함부로 처벌하는 망동을 부림으로써 수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였다. 적의 간계에 빠진 3도수군통제사 원균은 1597년 7월 칠천도해전에서 크게 패하여 우리 함대를 거의 전멸케 하였다. 전라수사 리억기, 충청수사 최호를 비롯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였고 원균도 거제도에 기여올랐다가 적들의 손에 살해당하였다.

이렇게 되자 봉건정부는 8월에 리순신장군을 3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리순신장군은 이때 겨우 12척의 배와 120명의 수군을 넘겨받았다.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수군이 강화될 때까지 륙지에 올라가 방어할것을 지시하였으나 리순신장군은 계속 싸우기 위하여 그곳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수군방비를 강화하였다.

리순신장군이 다시 3도수군통제사가 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애국적인민들이 리순신에게로 모여들었다. 리순신장군은 애국적인민들과 함께 배를 수리하고 싸움준비를 다그쳤다.

1597년 9월 16일 리순신함대는 330척의 적함대를 울돌에서 맞받아침으로써 30여척을 격침하고 적장 구루시마놈을 비롯하여 4 000여명의 적들을 격멸하였다.

전쟁의 마지막시기에 참전한 명나라함대까지 함께 지휘하게 된 리순신장군은 1598년 11월 19일 전쟁에서 패하여 퇴각하는 왜적의 마지막주력부대를 실은 500여척의 적함선을 로량앞바다에서 격전을 벌려 200여척을 격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진두지휘하던 리순신장군은 싸움이 끝날무렵에 흉탄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전사하면서 손에 쥐였던 지휘기를 곁에 있던 조카 리완에게 주면서 《지금 싸움이 한창고비이니 내가 죽은것을 숨기고 대신 지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봉건정부에서는 그의 전투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표창하여 리순신장군에게 덕풍부원군의 칭호와 좌의정의 벼슬을 주었다.

그는 뛰여난 전략전술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 중세해군전쟁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적명장으로 손꼽히고있다.

그의 저서로는 《리충무공전서》가 있다.

※ 거북선

임진조국전쟁시기(1592년-1598년)에 완성된 세계최초의 철갑선 .

1413년에 거북선을 만들어 림진강에서 시험하였다는 자료가 있다.

《리충무공전서》에 의하면 3도수군통제영에 있던 거북선은 길이 35m, 너비 11.8m, 높이 5.2m이다. 좌우에 각각 10개의 노가 있으며 포와 총통 활을 쏠수 있는 70여개의 화구(구멍)가 있었다. 갑판은 두꺼운 판자 또는 철판으로 씌우고 칼날이나 송곳을 박아 적이 기여오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십자로 좁은 길을 내여 다닐수 있게 하였다. 거북선의 내부는 2층으로 되여있고 아래층이 다시 2층으로 되였으므로 실제상 3층이나 같았다.

포판(맨 웃층, 포쏘는 곳) 아래에 24간의 방이 있어 무기를 보관하고 군사들의 병실로 리

용하게 되여있었다. 거북선의 앞부분은 거부기 머리로 되여있는데 류황, 염초를 태워 내뿜어 연막으로 리용하였다.

거북선은 돛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거북선은 견고하고 속도가 빠르며 화력장비가 매우 우수한 병선이였다.

외국의 한 《군사백과사전》에서는 거북선을 《16세기말 유럽함대의 주력함이였던 에스빠냐의 목선 〈갈레이〉호와 17세기의 위력한 영국의 범선, 미국 남북전쟁시기 개발된 철갑선 〈메리마크〉호의 모든 장점들을 다 갖춘 완전무결한 전투함선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서산대사 (1520년-1604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애국적인 중출신 의병장이다.

그의 본래이름은 최현응인데 불교의 승려로서 법휘(불교에서 부르는 이름)는 휴정이며 법호(불교에서 부르는 별호)는 청허 또는 서산이라고 하였다.

그가 서산대사로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그의 법호인 서산에서 온것인데 묘향산 즉 서산에서 오래동안 산대사(봉건국가에서 불교의 선종계통의 높은 급의 중에게 주는 칭호)였기때문이다.

서산대사는 1520년 안주고을의 빈곤한 량반가정에서 출생하였다.

불행하게도 그는 8살 때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로 되였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지 않을수 없었던 그는 계급적모순으로 가득찬 당시 사회에서 참을수 없는 천대와 멸시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그의 총명하고 영특한 재능을 발견한 안주고을의 군수는 그를 동정하여 서당에서 공부할수 있는 길을 틔워주었다. 서당에서 글과 무예를 공부한지 3년만에 사회에 대한 울분에 사로잡혀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한 그는 당시 어지럽던 관료계에서 벼슬할 생각을 단념하고 전라도 지리산으로 들어가 18살에 중이 되였다.

이리하여 그는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였으며 큰 절의 이름있는 학자 중을 찾아다니면서 불교공부를 착실히 하고 또 스스로 불교교리를 깊이 연구하였다. 30대에는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의 교리에 정통하고 수양이 깊고 지위가 높은 중으로 널리 세상에 알려졌으며 많은 제자들을 가지게 되였다.

서산대사는 불교에 조예가 깊었을뿐아니라 당대의 뛰여난 시인의 한사람이기도 하였다.

서산대사는 당대의 고승, 서승으로서 유명하였을뿐아니라 임진조국전쟁시기 중의병장으로서 더욱 이름을 떨치였다.

1592년에 일본침략자들이 불의에 침입하여왔을 때 서산대사는 나이가 벌써 73살의 고령이였다. 그러나 남달리 애국심이 강한 그는 사랑하는 조국강토가 무지막지한 왜적들에게 짓밟히는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서산대사는 장검을 비껴차고 의주로 후퇴하여간 국왕에게 찾아가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 늙은 몸을 바칠것을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봉건정부는 그를 선교에 속한 16개 종파에 망라되여있는 전국 8도의 중들을 총 지휘할 권한을 가진 승병의 총사령격인 《8도선교 16종도총섭》으로 임명하였다.

서산대사는 곧 전국의 중들에게 《늙고 병들어 싸울수 없는자는 모두 거처하는 절간에 남아서 조국수호와 왜적격멸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를 올리며 싸울수 있는 장

정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무기를 들고 의병에 궐기하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서산대사는 솔선 순안 법흥사에서 1 500여명의 중들을 묶어세워 의병을 조직하였다.

서산대사의 호소에 호응하여 전국각지의 중들은 의병투쟁에 나섰다.

금강산 유점사에 있던 사명당(혹은 송운대사)이 강원도지방에서 700여명의 중들로 의병을 일으킨것을 비롯하여 호남에서는 처영이 1 000여명을, 공주에서는 기허(령규)가, 진주에서는 해안(중관)이 그리고 의암, 법흥 등이 투쟁에 나서서 중의병들의 대렬은 나날이 큰 력량으로 확대되여갔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중의병들의 수는 수만명에 달하였다.

1593년 1월 8일 평양성탈환을 위한 총공격이 진행되자 서산대사는 승병을 거느리고 모란봉일각에 돌입하여 적진을 갈라놓음으로써 우리 군대의 진격로를 개척하여 전투승리를 보장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평양이 탈환되고 적들이 남으로 패주하자 사명당, 처영이 거느리는 의병들은 적들에 대한 추격전을 벌리였다.

서산대사는 용사 100여명을 거느리고 국왕과 함께 서울로 개선하였다.

왜적들이 경상도 남해안일대에 머물러있었으나 고령의 몸으로 계속 의병을 거느리고 싸운다는것은 서산대사로서는 매우 힘든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국내깊이 침입했던 왜적들을 일단 남해안으로 물리치고 나라의 위급한 고비를 넘기게 되자 중의병의 통수권을 사명당과 처영에게 넘기고 《8도선교16종도총섭》의 도장을 국왕에게 반환한 다음 묘향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서산대사는 싸우는 사명당과 처영 그리고 전체 중의병들을 고무격려하는것을 멈추지 않았다.

서산대사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시각을 예측하였던지 1604년 1월 23일 묘향산 원적암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향불을 피우고 기도한 다음 사명당과 처영에게 각각 유서를 남기고 84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후 묘향산 보현사와 금강산 유점사 백화암에 부도(뼈를 넣어 두는 돌탑)를 세우고 금강산과 전라남도 무륜산에 그를 추모하여 비석을 세웠다.

그의 저서로 《선가구감》, 《청허당집》 등이 전해지고있다.

리정암 (1541년-1600년)

자는 중훈, 호는 사류재, 회우당, 시호는 충목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의병장, 본은 경주이며 사직령 리탄의 아들이다.

1561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양주목사, 연안부사, 동래부사, 병조참의, 전라감사 등을 지냈다.

동래부사로 있을 때 우호관계를 간청하여온 일본과의 관계를 신중히 처리하는데 관심을 돌렸다.

1592년 9월에 왜적들이 황해도에 기여들자 그는 퇴각하면서 개성류수로 있던 동생과 함께 개경방어전을 벌렸고 지난날 부사를 지낸 곳인 연안으로 가서 인민들을 동원하여 의병을 조직하고 의병장으로서 부대를 지휘하였다.

이때 왜적들은 황해도 일대의 곡창지대를 장악할 목적으로 래주, 강음 등지에 기여들어 대병력으로 연안성을 공격해왔다.

그는 다른 의병부대와 함께 여러 부대를 편성하고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연안대첩》이라고 한다.
1597년 왜적이 재차 침입하였을 때에는 순찰사, 전라감사 등으로 활약하였다.
저서는 《사류재집》이 있다.

한 호 (1543년-1605년)

16세기 이름높은 서예가이다.
그의 자는 경홍이고 호는 석봉 또는 청사이다. 그는 한석봉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1567년 진사시험에 합격하였고 벼슬은 가평군수 등을 지냈다.
어려서부터 글씨공부에 힘썼는데 집안이 구차하여 종이를 얻기 어려웠으므로 밖에 나가면 돌우에, 방안에 들어오면 사기그릇에 글씨련습을 하였다.
결과 그는 당시 봉건통치배들이 숭상하는 한자서예의 여러 부문 즉 해서, 초서 등에 숙달하여 명필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사신을 따라 명나라에 가서 이름을 날렸으므로 당시 우리 나라에 온 명나라사신들은 그의 글씨를 얻어가지고 가는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의 필법의 특징은 당시 명필로 불리워진 사람들이 대개 중국사람의 서체를 위주로 삼았지만 자기의 독자적필체를 창조한데 있다.
당시 서예가들은 한석봉을 리용, 김구, 양사언 등과 함께 리조시기의 4대명필로 일러주면서도 그를 첫자리에 꼽았다.
그러나 그의 필적과 필법들은 봉건통치배들의 권위를 높이며 그들의 서사활동에 복무하였다.
그의 필적을 묶은 《석봉필적》, 《석봉서법》과 그가 쓴 《천자문》을 비롯하여 《서화담신도비》 등이 전해지고있다.

류 성 룡 (1542년-1607년)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정치가이며 군사전략가이다.
그의 자는 이견이며 호는 서애이고 시호는 문충이다.
그는 관찰사 류중용의 아들로서 1566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은 령의정에 이르렀다.
1591년 일본침략자들의 침략적야망이 로골화되자 그는 봉건정부의 군사지휘관을 보충할 대책으로 리순신, 권률, 리일, 신립 등을 등용하는 한편 이름만 남아있고 실속이 없는 지방군지휘체계인 진관제를 고쳐꾸리고 정비강화할것을 극력 주장하였다.
1592년 전쟁이 개시된 후 당파싸움에 몰리워 벼슬에서 밀려난 일도 있었으나 그는 봉건정부의 주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전쟁승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1593년 그는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속오군을 새로 편성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조선중세시기에 국방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성곽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고찰한 연구성과를 남기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의 침입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는데서 그가 논 역할은 컸다.
그는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뒤에 반대파들의 책동으로 벼슬을 박탈당하고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서 지내면서 《징비록》을 썼다.

그의 저서로서 《징비록》, 《서애집》이 있다. 이밖에 《신종록》, 《영모록》, 《란하록》, 《운암잡기》, 《무모당적》, 《산례고증》, 《칠경요결》 등이 있다.

사 명 당 (1544년-1610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중출신 의병장이며 외교활동가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임응규인데 법휘는 유정이며 별호는 사명당 혹은 송운이라고 불렀다.

사명당은 밀양에서 태여나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슬하에서 자랐다. 13살에 중이 되여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였으며 불교선종의 교리를 통달한 중으로서 이름이 높았다. 그후 그는 금강산 유점사로 자리를 옮겼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왜놈장교 모리 오시나라가 이끄는 침략군의 한 무리가 금강산의 유점사를 비롯한 절간들에 침입하여 방화략탈을 감행하자 사명당은 직접 적진에 들어가 불교도의 립장에서 적장에게 함부로 인명피해를 내지 말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그후에 묘향산에 있던 서산대사가 전국의 중들에게 왜적을 쳐물리치는 싸움에 일떠설것을 호소하자 사명당은 이에 호응하여 관동지방의 700여명의 중들로 의병부대를 뭇고 고성읍에 들어가 군기고의 병장기 등을 꺼내여 무장시키고 평안도 순안 법흥사로 달려왔다.

당시 스승인 서산대사가 승병도총섭으로 임명되였으나 늙어서 임무를 수행할수 없었으므로 사명당은 부총섭으로서 실지 승병을 지휘하였다.

그는 다른 의병부대 및 관군과의 협동작전으로 침략군이 평양이북으로 침공하지 못하게 길목을 막았으며 1593년 1월초에 평양성탈환전투가 시작되자 승병을 거느리고 도체찰사 류성룡의 지휘밑에 평양성전투에 참가하여 칠성문쪽으로 쳐들어가 침략군을 소멸하는데 한몫 하였다.

그후 도원수 권률부대에 배속되여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였으며 경상도 의령일대에 주둔해있으면서 왜적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학식이 높고 지략이 있었으며 대담하고 애국심이 강하였던 사명당은 1594년 봄부터 우리측 군영의 대변자로서 정치활동, 화의교섭 등의 중책을 맡고 여러차례 적진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그는 부산에 있던 적장 가또 기요마사의 군영에 세차례나 들어가 능숙한 외교활동으로 놈들의 오만무례한 침략행위를 규탄하였으며 적장들사이의 모순을 리용하여 적의 력량을 분산시켜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후에도 그가 지휘한 중의병대는 룡기산성, 팔공산성, 금오산성 등의 축조와 군량의 모집사업을 통하여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였다.

적들이 재침하였을 때 1597년 울산도산성전투와 1598년 순천(전라도) 왜다리에서 적들을 격퇴하는 마지막전투에 참가하였다.

임진조국전쟁이후 일본에서 정권을 잡은 도꾸가와막부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사죄하고 평화적외교무역관계를 다시 맺을것을 간청하여왔다.

이때 사명당은 1604년 국서를 가지고 일본땅에 가서 도꾸가와 이에야스와 강화담판을 하였으며 귀국할 때에 놈들에게 랍치되여갔던 3 000명의 조선사람들을 되찾아왔다.

사명당은 중으로서 의병장, 외교활동가로서 임진조국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므로 사명당은 서산대사와 함께 송운대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권 필 (1569년-1612년)

16세기말~17세기초의 시인이다.

그는 이렇다 할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시인으로 알려져있던 아버지와 형들의 영향밑에서 자라면서 일찍부터 시를 지었다.

그는 그후 정철, 허균을 비롯한 이름난 문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창작적재능을 키워나갔다.

16세기 후반기 지배계급내부에서의 당파싸움을 목격하면서 자란 그는 벼슬길을 단념하고 오직 창작에 힘썼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싸움에 직접 나섰고 전후에 동몽교관으로 임명되여 얼마간 후대교육에 종사하다가 그후 당파싸움을 피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문학창작으로 일생을 보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여 많은 작품을 썼으나 적지 않은것이 없어지고 지금 전해지고있는것은 소설 《주생전》과 한자시 550여수뿐이다.

권필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조국방위의 애국적감정을 읊은 작품들이다.

그는 또한 봉건적학정과 략탈에 시달리는 가난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도 노래하였다. 그리고 그는 호화방탕한 봉건관료들의 생활을 폭로하고 량반들의 위선과 허위를 조소한 작품들도 적지 않게 썼다.

권필은 사회현실적주제를 취급하면서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상과 부패상을 폭로하고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처지를 동정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고 시형식면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 사실주의적경향의 진보적인 시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권필은 말년에 왕의 외척을 풍자한 시를 지은것이 죄가 되여 봉건통치배들에게 살해되였다. 그의 작품들은 《석주집》에 실려 전해지고있다.

곽 재 우 (1552년-1617년)

임진조국전쟁시기 경상도지방에서 활동한 애국적인 의병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곽재우를 비롯한 애국자들은 의병을 일으켜 도처에서 왜적을 격멸하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1권, 552~553페지)

1592년 4월 일본침략군이 부산에 침입하자 경상도 의령에서 처음으로 곽재우의병부대가 조직되였다.

적들이 침입해오자 경상도 감사와 고을의 장관들은 거의다 도망쳐버렸다.

의령에서 살던 유생인 곽재우는 인민들에게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적들이 우리 나라에 침입한지 열흘이 되는 날인 4월 22일에 먼저 자기 집종 10여명으로 의병대를 조직하였다. 그후 지방의 애국적인 농민장정들과 일부 하급관리들이 여기에 참가하여 그 대오는 잠간사이에 1 000여명으로 늘어났다.

곽재우의병대는 5월에 의령으로 침입하는 적을 물리쳤고 이어 기강(락동강지류)으로 침입하는 30척의 적선을 쳐부시였다.

6월에 고바야가와부대의 일부가 전라도를 향해 솥나루로 침공해왔다. 솥나루전투에서 곽재우의병부대는 기만전술을 써서 적들을 소멸하였다.

곽재우는 출전할 때마다 항상 붉은 군복을 입고있었기때문에 《홍의장군》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이름만 들어도 왜적들은 무서워서 감히 접어들지 못하였다.

솥나루전투승리후에 곽재우는 의병대대오를 확대강화하면서 7월 하순에 현풍, 령산탈환전투를 벌리였다.

은밀히 락동강을 건너간 곽재우의병부대는 현풍성에 접근하여 적들을 성밖으로 유인하여 섬멸하려고 하였으나 의병들의 위력에 겁을 먹은 적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다. 곽재우는 의병의 한 부대를 산에 올려보내여 낮에는 북소리, 나팔소리, 함성 등을 울리게 하고 밤에는 100리에 이르는 구간에 수많은 홰불을 일제히 올려 위세를 보이도록 하면서 당장 적진을 공격할듯이 위협전술을 썼다. 마침내 겁에 질린 적들은 밤을 타서 도망치고말았다. 그리하여 적과 싸움하지 않고 현풍성을 탈환하였다.

그후 곽재우의병부대는 3일동안의 격전끝에 령산성의 적을 소멸하고 령산성도 탈환하였다.

곽재우의병부대는 현풍, 령산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락동강좌안의 적들의 중요한 전방기지를 탈환하였으며 전라도지역으로의 침략로를 끊어놓았다.

1593년에 곽재우는 성주목사, 진주목사, 경상우도 조방장이 되여 왜적을 소멸하는 여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1596년에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장들의 공로를 시기하는자들의 음모와 당파싸움에 걸려들어 리몽학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곽재우는 체포되여 서울에까지 붙들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그후 봉건통치배들의 당파싸움으로 말미암아 의병부대가 모두 해산되고 적들의 재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어렵게 되였다.

1597년 곽재우는 일본침략자들이 대규모적으로 다시 침입해오자 경상좌도 방어사로서 령산, 화왕산성을 지키여 적의 침입을 좌절시켰다.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글읽기와 시읊기를 하다가 말년에 비파산(경상북도 영양에 있는 산)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

봉건국가는 국왕에 대한 그의 충정을 평가하여 경상좌도 방어사로부터 1604년에는 찰리사로, 후에 한성리윤으로 임명하였다. 그의 저서로는《망우당집》이 있다.

허 균 (1569년-1618년)

16~17세기의 작가이며 시인이다.

그의 자는 단보이며 호는 교산이다. 서울량반집안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 진보적인 시인 리달에게서 글을 배웠다.

그의 아버지 허엽과 형들인 허성, 허봉, 누이인 허란설헌도 당시 이름난 문인들이였다.

허균이 진보적문학가로 된데는 이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그는 문과에 급제한 후 황해도 도사, 춘추관 기사관 등을 지냈으나 1610년 봉건관료들의 모해를 입어 류배살이를 하게 되였다.

류배살이과정에 농촌생활을 일정하게 알게 되였다. 류배살이에서 풀려나와 다시 벼슬길에 올라 형조참의 등을 하였다. 그는 서자들에 대한 차별정책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준비하고있던 심우영, 박응서, 서양갑 등과 련계를 가지고있었고 김개, 신고아업, 하인준, 황정필 등과 더불어 정부를 뒤집어엎을 기도를 하고있은 사실이 드러나는바람에 체포되여 1618년에 사형당하였다.

허균은 중세소설가로서 이름이 높았다.

그는 유명한 고전소설《홍길동전》을 비롯한《엄처사전》,《손곡산인전》,《남궁선생전》등과 함께《궁사》100수를 비롯한 적지 않은 시를 썼다.

이밖에 허균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보적사상과 견해를 담은 책들을 썼는데《지소록》에서는 우리 나라 명인들의 일화를 소개했고《한성록》에서는 농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생산기술적문제들을 썼으며《도문대작》에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물산과 음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또한《성수시화》라는 시평론집을 썼고 시묶음집《국조시산》도 편찬하였다.

그의 작품들가운데서 문집《성수부부고》와《홍길동전》등이 전해지고 있다.

김 응 서 (1564년-1624년)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애국적무관이다.

후의 이름은 경서이며 자는 성보이고 시호는 양의이다.

그는 평안도 룡강지방의 무관가정출신으로서 20살에 무파에 합격하여 리진권관, 고산진병마첨절제사를 지냈다.

1592년 6월(임진조국전쟁초기)에 별장 및 방어사가 되여 활동하였다.

그는 평양이 왜적들에게 강점되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성안의 인민들과 특히 애국녀성 계월향의 도움으로 성안의 적정을 알아내고 왜놈적장을 처단하였다.

1593년 1월초 그는 선봉장으로 평양성탈환전투에 참가하여 관군과 의병을 지휘하여 성의 서쪽과 남쪽으로 공격하였다.

1월 8일 평양성탈환을 위한 총공격이 개시되자 김응서는 대오의 선두에서 저항하는 적들을 쓸어눕히면서 돌진하여 외성을 성과적으로 돌파하였다. 이 싸움에서 김응서부대가 선봉적인 역할을 놀았다. 김응서는 평양성탈환싸움에서 공을 세워 첨지중추부사 겸 평안방어사로 되였다.

그후 김응서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서 여러 군공을 세웠다.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에 김응서는 평안도를 비롯한 여러 도의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여 봉건국가의 방위력강화에 힘썼다.

정 문 부 (1565년-1624년)

임진조국전쟁시기 함경도지방에서 의병투쟁을 조직지휘한 의병장이다.

그의 자는 자희이며 호는 농포이고 시호는 충의이다.

부사 정신의 아들로 태여난 정문부는 1588년 23살에 문파에 합격하여 함경도 북평사로 임명되였다.

그가 함경도 경성에 있을 때인 1592년에 우리 나라를 침범한 가또 기요마사(가등청정)부대가 함경도에까지 기여들었다.

북평사였던 정문부는 경성지방사람들인 최배천, 리붕수 등과 함께 의병부대를 조직하였다.

8월에 경성, 해촌(어랑군 무계리)에서 열린 참의회에서는 정문부가 의병대장으로 선출되였고 종성부사 정현령이 차장으로, 리붕수가 별장으로, 강문우가 척후장으로 각각 선출되였다.

정문부는 애국적인민들의 지원밑에 자체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고 훈련과 적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면서 전투준비를 다그치게 하였다.

9월 16일 정문부는 100여명의 의병들을 이끌고 경성남문으로 돌입하여 적들에게 투항한 국세필을 비롯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경성성을 탈환하였다.

10월말에 정문부의병대는 길주 장평 돌고개전투에서 800여명의 적들을 살상하였고 수많은 군수품을 로획하였다. 계속하여 정문부의병부대는 림명과 쌍포전투에서 400명의 적을 거의 전멸시켰다. 쌍포전투후 함경도 북부지방에 침입하였던 적들은 완전히 수세에 빠지게 되였다.

이러한 때 정문부의 공로를 시기하면서 그를 의병장자리에서 철직시키는 함경감사 윤탁연의 비렬한 행동이 감행되였다. 이것은 의병부대의 활동에 큰 난관을 조성하였다.

정문부를 철직시킨 후과가 엄중하고 그에 대한 의병들의 항의가 높아지자 윤탁연은 하는수없이 그를 다시 의병장으로 임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 정문부는 의병부대를 정비하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였다.

1593년 1월 28일 정문부는 3 00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림명(김책시)에서 적의 대부대와 전투를 벌리였다.

정문부의 주력부대는 처음에 얼마간 뒤로 물러섰다가 2월초에 백탑에 매복하고 있던 기병들로 적을 맞받아나가면서 쓸어눕혔다.

백탑전투에서 녹아난 적들은 불안과 공포에 잠겨 그날 밤으로 길주성에 불을 지르고 총퇴각하였다.

백탑전투의 승리로 마천령이북지방이 회복되였다.

정문부의병부대가 가또가 거느린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줌으로써 2월말에 적들은 철령을 넘어 서울로 도망쳐갔다.

그후 그는 영흥(금야)부사, 온성부사, 길주목사 등으로 임명되였다.

1624년에 당쟁에 몰두하던 통치배들은 그가 지은 시에 왕을 반대하는 뜻이 있다는 거짓을 꾸미여 검거케 하였다. 그는 가혹한 고문을 당하여 옥사하였다.

그의 문집으로 《농포집》이 있는데 임진조국전쟁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된다.

허 준 (16세기 중엽-17세기 초엽)

16세기 후반기-17세기초의 뛰여난 명의이며 의학자이다.

그의 자는 청원, 호는 구암이라고 한다.

그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의 이름없는 집안의 서자로 태여나 벌써 20대에 명의로 이름을 떨쳤으며 30대에 이르러서는 의학계에서 두각을 뚜렷이 나타냈다.

그는 1575년부터 국왕(선조)의 주치의사로서 33년간이나 궁중에 있었으며 임진조국전쟁시기에는 국왕을 따라 의주까지 갔다온것으로 하여 호성공신이 되고 양평군의 칭호를 받았다. 명의로서 림상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서적을 깊이 연구하여 박식하였던 그는 1581년에 와서 《찬도방론맥결집성》(4권 4책)을 수정보충하여 전국에 출판배포함으로써 림상치료에 도움을 주었다.

그의 의학적공적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동의보감》을 저술한것이다. 《동의보감》은 17세기초까지의 우리 나라 고려의학의 모든 성과들을 집대성한 고려의학백과전서이다. 이 책은 1596년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집필에 착수하여 1610년까지 15년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편찬완성되였으며 1611년에 출판되였다.

25권으로 구성된 《동의보감》은 목록,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으로 되여있다.

그는 이 저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내외의 의학서적을 무려 560여종이나 참고하였으니 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심화하였는가를 능히 알수 있다.

《동의보감》은 의사들의 림상치료에 널리 리용되였을뿐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귀중한 의서로 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국내에서 여러번 재판되였을뿐아니라 일본에서도 1663년 3월에 이 책을 가져다 여러번 출판하였으며 1738년에는 중국사절단의 특별한 요청으로 이 책을 가져다 여러번 출판하였다. 1763년 건륭판 《동의보감》에는 《천하의 보물은 응당 온 세상이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고 씌여있다. 그후 《동의보감》은 서유럽, 각국의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여 연구의 대상으로 되였다.

허준은 이밖에도 종래 인민들이 알아볼수 없게 어려운 한자말로 의학책을 편찬하던 낡은 방법을 버리고 누구나 쉽게 보고 전염병과 구급질환들을 치료할수 있게 우리 말로 된 《언해두창집요》, 《언해구급방》, 《언해태산집요》 등의 의학책들을 저술하였으며 1612년에 당시 굉장히 퍼지고있던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하여《벽온신방》을 썼고 1613년에는 《신찬벽온방》을 저술하여 그를 막고 치료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물론 허준이 저술한 책들에는 봉건유교사상과 유신론적인 내용,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내용, 미신적이며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부족점도 가지고있으나 《동의보감》은 《향약집성방》, 《의방류취》와 함께 우리 나라 3대고려의학고전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 고려의학의 이른 시기 높은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한 백 겸 (1552년-1615년)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이다.

그의 호는 구암이다.

민족적자각과 애국적감정이 깊었던 그는 조국의 력사와 지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는《동국지리지》와《기전유제설》,《조석변》,《접목설》 등의 론문들을 집필하면서 현실생활과 결부된 문제들을 연구함으로써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동국지리지》에서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에 관한 외국의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대하면서 그에 추종하는 그릇된 견해들을 지적하고 자기의 고증과 분석을 통하여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예맥에 관한 문제, 삼한의 위치에 대한 일부 앞선 시기 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그는 예와 맥의 위치를 갈라보았으며 삼한이 모두 한강 남쪽에 위치하고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백겸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고조선이후 진국—삼한, 삼국시기 등 각 시기의 많은 력사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해당한 사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고증을 하였기때문에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한것도 적지 않다.

그의 실사구시적인 학풍은 그후 실학자들의 학문연구방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실학의 터전을 마련하는데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리 수 광 (1563년-1628년)

16~17세기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학자, 실학의 선구자이다.

자는 윤경이며 호는 지봉이고 시호는 문간인데 병조판서 리희검의 아들이였다.

1585년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은 리조판서까지 지냈다.

임진조국전쟁때 조국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경상도방어사 조경의 부대에서 싸웠고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 함경도에서 의병투쟁을 지원하였다.

그후 그는 령의정이였던 도체찰사 류성룡의 종사관이 되여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는 유학자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실천과 유리된 공리공담을 반대하고 자연과학에 많은 관심을 돌리면서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할것을 주장하였다.

리수광은 현실생활과 결부된 학문을 연구할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348종의 책에서 찾아낸 과학기술적지식과 정치, 도덕, 문화일반에 관한 지식들을 문집《지봉류설》에서 크게 25개의 부류로 나누어 정리해놓았다. 이 25개의 큰 부류는 대체로 기상천문학, 지리학, 정치, 철학, 언어학, 문학, 인간의 재능과 성격, 기술과 예능, 종교, 의식주생활 및 생물학 등 11개 부분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이것은 리수광의 세계관과 학문연구에서의 새로운 학풍을 체현한것이였다.

리수광이 《지봉류설》에서 체계화하여 전개한 새로운 학풍은 유교성리학자들의 부패타락한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실제적인 사물 또는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며 봉건국가의 부강발전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는것을 기본으로 삼은 실학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리수광은 실사구시적인 립장에서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수광은 또한 력사, 지리부문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진조국전쟁을 통하여 민족적의식이 높아진 그는 유교성리학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리 나라 력사, 지리를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의 봉건사가들이 대국주의적립장에서 고조선을 정복한듯이 조선고대사를 외곡한 사실, 고구려의 안시성위치 등을 밝히려고 하였다.

리수광의 력사, 지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단편적이며 그 론거가 불충분한 자료로 안받침되여있으나 조국의 력사, 지리에 대한 사대주의자들의 민족허무주의사상관점을 배격하고 이를 실사구시적립장에서 밝히려는 그의 애국적립장을 찾아볼수 있다.

리수광의 실학적학풍은 생물학분야에 대해서 진지하고 세심한 연구를 거듭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밖에도 리수광은 당시 부패한 봉건관리들의 당파싸움을 증오하였고 해외통상을 발전시킬것과 외국의 문화를 섭취할것을 주장하였으며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들

의 활동과 리순신장군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백성들에 대한 무질서하고 가혹한 착취를 조절하는것이 곧 봉건국가의 부국강병책으로 된다는것을 봉건관리의 립장에서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러가지 봉건제도에 대하여서도 일련의 개혁안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의 저서 《지봉류설》(20권)을 비롯한 《채신잡록》, 《경어잡편》, 《병촉잡기》, 《승평지》, 《찬록군서》 등에도 있고 그의 문집인 《지봉집》(34권)에도 묶어져있다.

김 명 국 (17세기 전반기)

17세기 전반기 화가이다.

자는 천여이고 호는 련담 또는 취옹이다.

김명국은 도화서 화원으로서 인물화, 풍경화, 보석화 등으로 량반통치배들의 위선과 비행을 조소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는 그림에서 단붓질로 대상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힘있는 자기의 화풍을 창조하여 당시의 《이단적》인 화가로 평가되였다.

당시 기록에서는 그의 새로운 화법에 대하여《그의 화법은 선배의것을 답습하지 않고 제멋대로 고유한 화법의 규칙밖에 넘놀았다. 그는 작게 그릴수록 더욱 묘했고 크게 그릴수록 더욱 기이하였다. 그리고 그의 력량이 웅대하고 그림의 필치도 규모도 광범하였다.》라고 전하고있다.

김명국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바둑싸움》,《깊은 산을 찾아서》,《박쥐를 날리며》, 《비바람》, 《글씨를 보는 로인들》, 《달마》, 《지옥》 등이다.

김명국은 1636년과 1643년에 통신사 수행화원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회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일본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석과 같이 귀중히 여겼다고 한다.

《백로도》, 《수로도》를 비롯하여 10여점의 그의 그림이 일본땅에 남아있다.

그는 신선사상을 긍정하고 량반통치배들의 요구에 맞는 그림들을 적지 않게 그렸으며 형상에서 생신한감이 부족한 그림들을 그리는 등 일련의 제한성이 있었으나 당시 우리 나라 회화발전과 일본회화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박 인 로 (1561년-1642년)

16~17세기 애국적무관이며 시인이다.

자는 덕옹, 호는 로계이다.

가난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여나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하였는데 문장이 뛰여나 《신동》이라고 불리웠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닦기에도 힘썼다.

1592년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붓을 던지고 전장으로 나가 군공을 세웠다.

1597년 왜적이 다시 전쟁을 확대하였을 때에는 강화절도사 성윤문의 부대에 속

하여 싸웠다.

1598년 임진조국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그는 가사 《태평사》를 지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였다.

하루아침에 덮쳐든 백만 왜적 맞받아
용감한 백성들은 칼을 메고 달려갈제
백골은 무참하게 벌판에 널려있고
서울이며 고을들은 승냥이굴이 되였어라
… …
눈부신 칼빛이 하늘중천에 번쩍인다
너울너울 춤을 추니 즐거움이 절로 나고
환희에 찬 노래 그칠줄을 몰라라
사람의 경사 이같은 일 또 있으랴

가사《태평사》는 임진조국전쟁의 전 과정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애국심과 적에 대한 증오, 자기 조국의 안녕과 무궁한 번영에 대한 지향 등을 보여주었다.

《태평사》는 그 주제사상적내용에 어울리는 장중한 운률과 탄력있는 시어, 시적정서의 변화에 알맞는 다양한 표현수법들을 능숙하게 써서 애국적감정을 여러모로 생동하게 재현하는 우점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봉건시기 반침략애국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또한 1605년 부산진 첨사로 있을 때 《선상탄》을 지어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굳게 지키려는 열정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시 《선상탄》에서 왜적들에 대한 증오와 놈들이 또다시 침략해온다면 일격에 소탕하고야말리라는 투지,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다가 통치배들이 당파싸움에만 몰두하는것을 본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창작에 힘썼다. 그가 지은 시들에는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한것들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은 봉건유교사상의 견지에서 현실을 보고 느낀것을 쓴것이다.

이처럼 박인로가 발휘한 애국주의사상은 봉건국왕에 대한 충군사상에 기초한것이였으며 그가 지켜싸운 조국은 봉건국가였다.

그의 저서로는 《로계집》이 있다.

허 임 (1570년-1647년)

17세기의 고려의학자로서 자는 인수이다.

그는 무과에 합격하여 벼슬은 병마사를 지낸바 있다.

그는 17세기초에 의관으로 있으면서 봉건왕정에 복무하였다.

그는 침구료법을 깊이 연구하여 1644년에 자기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종합하여 침놓고 뜸뜨는 방법과 그 기술적문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침구경험방》을 씀으로써 우리 나라 고려의학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가 연구한 침구술은 순전한 경험의학인데다가 그것을 비파학적인 음양5행설과 억지로 결합시킴으로써 미신적이며 신비적인 면을 가지고있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일본에까지 보급되였는데 1725년에는 일본 오사까에서 출판되여 일본침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김 육 (1580년-1658년)

17세기의 봉건관료로서 자는 백후이며 호는 잠곡이고 시호는 문정이다.

1605년에 생원시험에 합격한 그는 여러 벼슬을 거쳐 령의정에 이르렀다.

1638년에 충청감사로 임명되여 충청도에서 공물의 페해가 심한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봉건통치에 불리하다는것을 타산하고 그것을 지세화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상품화페관계의 발전에 맞추어 조세제도개정을 실시하는것이 통치배들에게도 유리하다는것을 력설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충청도에서만이라도 대동법을 실시할것을 여러번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1651년에는 충청도에서, 1657년에는 전라도에서 각각 대동법이 실시되였다.

그는 금속화페의 류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국가는 1651년 그의 제기에 의하여 상평통보를 많이 주조하여 서북지방과 서울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력서의 개정, 수차의 사용, 금속활자의 주조 및 출판인쇄사업, 국방정책 기타 사회발전에 부합되는 일련의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1653년에 그는 《인조실록》을 책임지고 편찬하였다.

저서로는 《잠곡유고》, 《해동명신록》, 《송도잡기》, 《류원총보》, 《잠곡필담》, 《고사증산》 등이 있다.

신 숙 (1600년-1661년)

17세기 농법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벌린 학자이다.

그의 자는 호중이며 호는 이지당이다. 벼슬은 홍주목사를 지냈다.

신숙은 1655년에 농업관계책인 《농가집성》을 편찬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을 15세기에 경상도일대에서의 오랜 농사경험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출판한 《농사직설》과 경기도 시흥지방에서의 농산경험을 서술한 《금양잡록》에다가 몇편의 개별적인 글들을 보충하여 하나의 농산기술집으로 묶어놓았다.

여기에서 그는 《농사직설》에 지적된 농법을 쓴 다음 농민들사이에서 적용되고 있는 좋은 농법들을 서술하였다.

그러한 실례들중의 하나는 농민들이 생산실천속에서 발견한 척박한 땅(밭)에 녹두를 심었다가 무성하였을 때 갈아엎으면 잡초와 해충들이 적어지고 비옥해지는 록비리용법을 들수 있다.

그리고 목화재배법과 불로 김을 잡는 화수법 등을 새롭게 서술하였다.

이처럼 신숙이 편찬한 《농가집성》은 15세기 이후에 농민들의 생산실천에서 얻어진 좋은 경험들을 소개함으로써 17세기 나라의 생산력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숙이 편찬한 《농가집성》은 《농사직설》을 보충한 가치있는 농업기술책으로서 이 시기 농업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윤 선 도 (1587년-1671년)

17세기 국문시가창작에서 이름높은 시인이다.

그의 자는 약이이며 호는 고산 혹은 해옹이고 시호는 충헌이다.

윤선도는 서울량반집안에서 출생하여 일찍부터 글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읽었다.

그는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라 호조좌랑, 례조참의, 한성서윤, 성주현감 등을 지냈다.

그가 벼슬살이를 하던 시기는 봉건통치배들속에서 당파싸움이 우심하게 벌어지던 시기였다. 결백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니였던 그는 그 더러운 당파싸움으로 하여 자주 억울한 처지에 놓이군 하였다.

그는 집권당파인물인 리인첩의 부정행위를 까밝히고 그것을 상소하였다가 도리여 그의 모해를 당하여 이듬해부터는 경상도 무인고도에서 8년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문학창작생활이 시작되였는데 그는 곡절많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불합리와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처지를 일정하게 반영하였다.

그는 1616년에 첫 류배지인 함경북도 경원에서 시 《북쪽국경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시조《비온 뒤의 노래》등을 썼으며 두번째 류배살이후 고향인 해남에 가 있을 때에는 시조 《산중신곡》, 《봄새벽의 노래》, 련시조 《어부사시사》 등 많은 작품을 썼다.

윤선도의 초기작품들가운데는 어지러운 당시 현실에 대한 불만을 노래하거나 농민생활의 이모저모를 비교적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들이 있다.

그러나 량반시인으로서의 제한성으로 하여 그는 인민들의 생활처지를 반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지 못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노래하면서 자연에 의탁하여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지향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그것은 류배살이때에 쓴 《산중신곡》에 들어있는 련시조 《어부사시사》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윤선도는 시조작가로서 독특한 경지를 개척한 시인이다. 그는 당시 량반사대부들이 천시하던 우리 말로 우리 나라의 자연을 노래하였으며 시조형식에서도 련시조들과 련시조형식의 독특한 형태인 장시를 창작함으로써 평시조의 형태상 제한성을 상당히 극복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조들은 현실비판의 기백이 매우 약하고 자연경치의 형상에 지나치게 치우친 근본결함을 가지고있다.

그의 문집으로는 《고산유고》가 전해지고있다.

류 형 원 (1622년-1673년)

17세기 실학의 사상리론적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실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의 자는 덕부이며 호는 반계이다. 서울의 량반집안에서 태여난 류형원은 어려서부터 강의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품성을 지녔으며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전라도 부안군 우반동에 내려가 일생을 학문연구에 바쳤다.

그는 정치, 경제, 천문, 지리, 군사, 언어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실학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일련의 사회정치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는《왕도정치》를 리상적인것으로 생각하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였던 일련의 문제들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봉건국가를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봉건적대토지사유를 비판하고 봉건적국유제의 원칙에서 토지를 다시 나누어줄것을 주장하였다.

매 농가마다 토지 1경씩을 주되 경작자가 죽거나 딴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땅을 회수하고 상인, 수공업자들에게는 반경을 주고 관리들은 벼슬에 따라 최고 12경까지 토지를 주자고 하였다. 그리고 4경에 1명의 군인을 내며 나머지 3명은 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세는 실지 수확의 10분의 1만을 국가에 바치고 그밖의 모든 세금을 페지할것을 주장하였다.

류형원은 이와 같이 《공전제》를 실시하게 되면 만사가 다 잘되여 농민들은 농사일에 안착하여 일하게 될것이고 병역제도도 바로 되여 나라의 방비도 강화될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공전제》로 토지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봉건사회에서 농민들이 봉건적인 온갖 착취에서 벗어날수는 없었다. 당시의 조건에서 류형원이 제기하였던 《공전제》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었다.

그러나 개별적인 량반지주들에게 토지가 집중됨으로써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떼우고 류리도산하고있던 시대적조건에서 토지제도를 고칠데 대한 그의 사상은 일정하게 진보적의의를 가졌다.

류형원은 또한 수공업과 상업 및 화폐류통을 발전시킬데 대하여서도 진보적인 사상을 제기하였다. 특히 수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천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였다. 류형원은 본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에 대한 신분적차별, 출신지방의 차별을 반대하고 봉건지배계급안에서 인재본위로 하는 관리등용을 주장하였으며 환자, 군포 등 봉건정부의 착취제도와 문벌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병서를 연구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조총과 말을 마련하여 시골청년들에게 말타기, 조총쏘기 등을 련습시켰다.

류형원은 이와 같이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을 일정하게 비판하면서 봉건통치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수많은 자료들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1737년에 《반계수록》(26권)을 내놓았다. 이밖에 그의 저서는 《기행일록》, 《동국지》, 《지리군서》 등이 있다.

김 만 중 (1637년-1692년)

17세기 국문소설작가이다.

그의 자는 중숙이며 호는 서포이고 시호는 문효이다.

김만중은 풍덕군(개풍군)에서 대대로 벼슬해온 량반가정에서 유복자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 김익겸은 20대의 젊은 나이인 1637년 우리 나라에 침략해온 청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강화도에서 싸우다가 정황이 불리하게 되자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였다.

그는 학식있는 어머니밑에서 글을 배우고 유학공부를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책읽기를 좋아하였을뿐아니라 아들의 문학수업을 도와주었다.

김만중이 우리 글로 된 국문소설을 창작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서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1665년 그는 과거(문과)에 급제하여 례조참의, 병조판서, 대제학 등 높은 벼슬에 올랐다.

어려서부터 국문소설에 흥미를 가지고있던 그는 민간구두창작에 주의를 돌려왔다.

그는 당시 싹트기 시작한 실학을 지지하였고 실용적인 과학기술의 섭취에도 일정한 관심을 가지였다.

비록 그의 미학적견해와 세계관은 당시로서는 일정한 진보성을 가지고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봉건제도를 유지강화하려는 량반의 계급적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는《사씨남정기》,《구운몽》과 같은 장편소설을 창작하여 중세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음악에도 일정한 조예가 있어 가곡, 가사들도 지었다.

로론파의 가문에서 자란 그는 1689년에 국왕 숙종의 비위를 거슬린탓으로 남인파에게 몰리여 생의 마지막시기에 남해로 귀양을 가서 거기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소설로서 《사씨남정기》, 《구운몽》 그밖에 시집으로서 《서포집》, 수필집으로서 《서포만필》이 있다.

김만중은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살려 국문소설을 씀으로써 15세기에 발생한 중세국문소설문학을 새로운 높이에로 올려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안 룡 복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봉건령주들의 침략야욕을 분쇄한 애국자, 그는 동래부의 배타는 능로군 출신으로서 일본말을 잘하였다.

1693년 여름 그는 울산의 어부 40여명과 함께 고기잡이를 떠났다가 풍파를 만나 울릉도에 닿았다.

이때 그곳에 불법침입한 일본해적들은 오만하게도 울릉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안룡복과 박어둔은 시비를 명확히 가르기 위하여 오끼시마(오랑도)에 가서 그곳 도주와 담판하였다.

그는 울릉도가 조선땅이라는것을 론증하고 침입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

그를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안 도주는 그를 백기주로 압송하였다.

백기주의 태수는 그를 재물로 매수하려 했으나 안룡복은 단연 물리치고 마침내 일본관백(막부의 쇼궁)과 태수로부터 울릉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것을 확인받고 귀국하다가 쯔시마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 교활한 나가사끼령주와 쯔시마도주는 저들의 울릉도침범사건을 뒤집어 조선사람들이 그곳에《침범》한것으로 날조하여 조선정부에서《사죄》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진상이 폭로될것이 두려워 안룡복을 90일간 강제억류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당한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돌려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 귀국한 그가 왜적들의 침입을 근심하여 1696년 다시 울릉도에 갔더니 과연 놈들이 또 와있었다.

그는 그길로 다시 백기주에 가서 태수에게 쯔시마령주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그의 이러한 활동에 의하여 그후 왜적들은 감히 울릉도와 독도에 침범하지 못하

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국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외국인과 교섭하였다는 《죄》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구만을 비롯한 일부 관료들의 반대로 겨우 처벌을 면하였다.

그는 애국적활동을 벌려 울릉도와 독도를 견결히 고수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강의한 애국적기개를 시위하였다.

정 선 (1676년-1759년)

17~18세기 저명한 사실주의적풍경화가이다.

그의 자는 원백이며 호는 겸재 또는 란곡이다. 서울의 가난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여나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살림을 자기 손으로 꾸려나가는 속에서도 짬만 있으면 밤을 꼬박 새우며 그림을 그렸다.

정선은 앞선 시기 화가들의 사대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내는데 힘썼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의 애국적사상감정을 그림에 옮겼으며 조선중세의 풍경화분야에서 낡은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실주의적경지를 개척하였다.

《만폭동》, 《구룡폭》, 《반석》, 《혈망봉》, 《인왕산》, 《봄비》, 《옛성터의 가을》, 《나무아래에서》, 《포구》 등은 그의 대표적작품이다.

그러나 그는 인물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을 화폭에 담지 못하였다. 또 화법에서 간결한 조선화의 전통적수법을 살린 점에서는 일정하게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채색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묵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리 익 (1681년-1763년)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실학자이다.

자는 자신이고 호는 성호, 대사헌 리하진의 아들이다.

그는 당시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을 일정하게 폭로하고 그것을 《개혁》할데 대한 안들을 내놓았으며 생산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에 힘썼다.

그는 남인당파에 속했던 자기의 둘째형이 정권을 잡은 로론파에게 죽게 된것을 계기로 벼슬할 생각은 그만두고 경기도 광주 점성촌에서 학문연구를 하였다.

그는 류형원의 실학적학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유교경전 이외에 토지제도, 법률제도, 관직제도를 비롯한 봉건국가의 여러 제도들을 따져보고 당시 사회에 끼치고있는 그 해독적작용을 해명하고 해당한 시정대책들을 제기하였을뿐아니라 력사, 지리, 풍속, 종교, 생물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함으로써 처음으로 실학을 체계화하였다.

당시 문벌, 당파에 의한 사람들사이의 교제에 일정한 장벽이 쌓여있던 조건에서 그들은 자연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개 학파를 형성하게 되였는데 이 학파를 흔히 성호학파라고 부른다.

성호학파에 속한 실학자들로서는 안정복, 리중환, 정상기와 그의 아들 정항령, 윤동규, 신후담 등을 들수 있다. 정약용, 우하영 등도 그의 학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리익은 학문연구의 성과들을 자손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실학적인 학풍을 신조로 삼고 여러가지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는데 특히 천문,

기상에 대하여 당시로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리해를 가지고있었으며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세계의 시원을 우주공간에 차있는 기라고 보면서 인간도 역시 기의 산물이며 하늘과 땅, 생물은 모두 기와 리의 결합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의 철학사상은 중세유물론적요소가 풍부하였으나 객관적관념론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인식론분야에서는 외부세계의 인식이 감각기관들과 심에 의하여 수행되며 뇌수가 사유의 기관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대토지소유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균전론》을 실시할것을 제기하였다. 즉 한 농가에 필요한 땅이 얼마라는것을 정하고 그것을 해당 농호가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는 영업전으로 만들고 팔고사는것을 금지하며 그 이상의 토지매매만을 인정하면 몇해안에 농민들이 토지를 고르게 가지게 될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당시의 현실을 고려한 기초우에서 량반관료들의 리익을 다치지 않으면서 점차적방법으로 《균전》을 이룩하려는 극히 소극적인 대책안이였다.

즉 농민들이 봉건적억압과 착취밑에서 생활을 점차 개선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한것 자체가 선비의 한갖 공상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나라가 가난하고 농사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은 6가지의 《좀》이 있기때문이라고 하고 그것은 노비제도, 과거제도, 량반문벌제도, 미신, 중, 게으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좀》들은 도적보다도 그 해독이 크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없애버릴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제기한 이러한 요구는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는것이였으며 따라서 실현될 길이 없었다.

또한 그는 문묘와 함께 무묘를 세워 강감찬, 리순신장군을 제사함으로써 봉건관리들과 인민들을 봉건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교양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화폐경제의 부정적측면을 보고 그것을 페지할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이렇듯 여러 부문에 걸쳐 주장하고 제기한것을 따져보면 봉건제도와 유교교리를 반대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는 일정하게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견해를 내놓음으로써 실학사상이 더 발전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볼수 있다. 그의 저서로서는 《성호새설》, 《성호문집》 등이 있다.

김 두 량 (1696년-1763년)

18세기 전반기 사회생활을 반영한 사실주의그림을 그린 화가이다.

그의 자는 도경이고 호는 남리 또는 운천이다. 김두량의 집안은 대대로 도화서에 근무하였다. 그는 인물화와 함께 풍경화, 동물화 등을 많이 그렸다.

당시 농촌생활에서 자기 작품의 주인공들을 찾아냄으로써 18세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풍경화의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 되였다.

전해지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소몰이군》(《목우도》), 《사시절》, 《들판에서의 사냥》, 《달밤의 계곡》, 《개》 등이다.

《소몰이군》에서는 소를 매여놓고 나무밑에서 깊이 잠든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

여 당시 농민들의 고된 로동생활과 함께 로동속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는 근면하고 소박한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해학적정서에 담아 재미있게 보여주었다.

화가는 그림에서 간결하고 선명한 조선화의 화법적특징을 잘 살려내였다.

당시 농촌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낸 그의 사실주의적인 화풍은 그후 사실주의적그림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김 수 장 (1690년-?)

18세기의 시인이다. 그의 자는 자평이고 호는 로가재이다.

그는 37살 때 김천택을 도와 국문시가들을 모아 《청구영언》을 편찬하였다.

1763년에 그는 《해동가요》를 편찬하였으며 1769년에 다시 편찬하였다.

그의 시는 《해동가요》에 100여수가 실려있다.

그의 시들에는 봉건지배계급의 근본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량반통치배들의 부화하고 타락한 생활을 일정하게 비판폭로한 내용들이 적지 않으며 당시로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사상감정과 미학적취미를 반영하고있으며 묘사에서 구체적이며 입말을 그대로 사용하고있고 생활에 접근하고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의의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는 봉건유교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흔히 유교도덕인 3강5륜을 시의 주제로 삼았을뿐아니라 하층인민들의 반봉건적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었다.

그는 김천택과 함께 18세기 대표적인 시조 및 가사작가로서 일생을 국문시가의 창작에 바쳤다.

음악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있은 그는 자기 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노래짓는 법, 노래부르는 법, 연주법 등을 가르쳤다.

리 중 환 (1690년-1753년)

18세기의 지리학자이며 실학자이다. 그의 자는 행중이며 호는 청화산이고 청당이다. 그는 리익의 증손자이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은 병조좌랑을 지냈다.

실학자인 그는 조선지리책 《택리지》를 썼는데 이 책의 본문을 사민총론, 8도총론, 8도의 각론과 복거총론 등의 편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는 사민총론에서 지리적조건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의 특성을 설명하여보려고 하였다.

8도총론에서는 우리 나라 각 지역의 위치 및 자연조건, 자연부원들에 대하여 썼으며 이것들에 대한 경제적평가와 자연 및 력사적조건에 의하여 형성된 생산배치의 특성, 도시와 운수망의 상태 등을 일정한 지리학적지식과 방법으로 체계화하고있다.

다음으로 이 책의 후반부분을 이루는 복거총론은 지리, 생물, 인심, 산수 등의 작은 제목으로 나누어 각 지방의 지리적환경과 농업, 수공업, 상업, 교통, 운수 등 경제지리적내용들을 담고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미신적인 풍수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자의 제한성이 반영되여있다.

그러나 이전의 지리책들보다는 사실에 가까우며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일정한 목적밑에서 전국의 지리를 체계화하고있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지리적환경이 사람들의 생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대평가하는 잘못이 있으나 18세기 초중엽의 경제형편을 비교적 실감있게 묘사한 점에서 봉건시대 경제사연구자료로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

신 경 준 (1712년-1781년)

18세기의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이다. 그의 자는 순민이며 호는 려암이다.

그는 1754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은 성균관 전적을 거쳐 승정원 동부승지까지 지냈다. 실학자 리익의 영향을 받았고 지리, 어문, 력사, 철학, 의학 등 각 분야에 걸쳐 연구가 깊었다. 그의 사상과 립장은 당시 진보적이였으나 봉건지배계급의 립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조선의 지리, 언어에 대하여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여 18세기에 지리, 언어학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다.

《여지고》, 《도로고》, 《강계고》, 《산수고》, 《부안도》, 《의표도》 등은 그의 대표적인 지리관계책들이다.

그는 당대의 우수한 어학자로서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를 거듭한 끝에 1750년에는 《훈민정음운해》를 썼다.

이밖에 그는 선박기술을 비롯한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도 깊었다.

그의 이러한 연구들은 당시의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에서 특기할만 하다.

그의 많은 저작들은 《려암집》에 종합되여있다.

홍 대 용 (1731년-1783년)

18세기 후반기의 실학자이며 자연과학자이다.

그의 자는 덕보이며 호는 담헌이다.

그는 목사 홍력의 아들로 태여나서 글공부에 열중하여 1774년에 선공감 감역으로 되여 사헌부 감찰, 영천군수의 벼슬을 지내다가 1783년부터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연구에 전력하려 하였으나 그해에 급병으로 죽었다.

그는 서경덕, 리이, 리익 등의 학풍을 이어 천문, 력학, 수학 등 자연과학과 철학, 정치, 경제, 병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하였다.

그는 지원설과 지전설을 인정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은하수도 수많은 별이 모여서 이루어진것이며 이런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 없다고 하였다.

또 혼돈상태에 있는 《기》가 엉켜서 우주세계를 이루었다가 그것이 다시 《기》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우주의 시간적 및 공간적무한성에 관한 사상을 앞선 시기 학자들보다 더 구체적인 표상을 가지고 내놓았다.

또한 그는 모든 천체는 《기》가 엉켜서 질로 된것이며 덩어리를 이루어 우주에 분포되였으며 그것들은 다 운동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지구가 한번 회전하면 1주야가 된다고 하였으며 회전하는 지구의 표면에 만물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것은 마치 물레바퀴에 붙어있는 개미가 그것이 돌때 떨어지지 않는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의 지동설에는 지구의 자전만을 인정한 결함도 있으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지동설을 내놓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는 일식, 월식, 밀물과 썰물, 비, 눈, 구름, 안개, 우뢰, 번개, 화산, 온천 기타 여러가지 자연현상에 대하여서도 근대과학에 접근한 해석들을 내놓았다.

그는 세계만물은 《작은 먼지》인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에 생성, 소멸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그는 박지원과 함께 조선중세철학에서 기일원론적유물론사상을 더 발전시킨 학자라고 말할수 있다.

그는 자연관에서뿐아니라 인식론, 사회정치적, 륜리도덕적견해에서도 부분적으로 진보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유교성리학에서 흔히 내세우는 《리》가 《기》를 《주재》한다고 하는 리론을 부인하였을뿐아니라 사람의 본성은 착한데 봉건적유교도덕은 이러한 사람의 본성에서 나왔다고 하는 《성선설》까지도 부정하면서 사람의 성격에서 착하고 악한것이 생기는것은 성장과정에 받은 영향과 관련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극도로 신비화된 《음양5행설》, 《지리도참설》 등 미신들을 반대하였다.

그는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무원칙한 사대주의사상을 비판하면서 조선도 세계의 중심이 될수 있다고 하였다.

홍대용은 자기의 저술에서 성리학에서 쓰는 범주와 개념을 그대로 쓰고있을뿐아니라 실례로 그 많은 부분을 낡은 유교적정치도덕적관념론의 해석에 돌리고있으며 그가 이러한 학문을 연구한 목적은 바로 봉건국가의 국력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그는 당시 중소지주계급출신의 진보적경향을 가진 량반의 립장에서 당파싸움의 해독을 강조하였으며 실제 생활에서 쓸모있는 과학기술적문제의 연구에 힘을 더 돌릴것을 제기하였고 자신이 천문관측기구를 만들고 관측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토지제도를 고치며 봉건국가의 방위와 봉건적유교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방도를 제기하였다.

그는 관리등용에서 신분적차별을 없애며 관리가 봉건국가에 복무하는것까지도 일하는것으로 치면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그가 생각한 이 모든것은 당시의 조건에서 실현할수도 없는 한갖 공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것마저도 량반지배계급의 리익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그의 저서로는 《담헌서》가 있다.

임 성 주 (1711년-1788년)

18세기 기일원론을 주장한 철학자이다. 그의 자는 중사이고 호는 록문이며 시호는 문경이다. 그는 판관 임적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당시 로론당파계렬의 봉건유학자였던 리재에게서 글을 배웠고 한때 세마, 주부, 부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러나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공주의 록문에 살면서 유교공부에 힘썼다.

그는 서경덕의 철학을 계승하고 심화하여 자기의 기일원론적인 철학세계관을 내놓았다.

그는 인식론적인 견해에서도 진보적인 요소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륜리도덕관에 있어서는 완전히 유교적륜리도덕을 옹호하는 반동적립장에 서있었다. 그는 또한 경제기술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저서로는 《록문집》이 있다.

강 필 리 (1713년-1767년)

18세기의 농학자이다. 그의 자는 석여이다.

그는 감저(고구마)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첫 시기에 합리적인 재배법을 오래동안 연구하여 보급시킨 한 사람이다.

그는 1747년 문과에 합격하여 동래부사, 승지 등을 지냈다.

1763년에 리광려가 고구마재배에 성공한 이후 그는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고구마재배법에 대하여 여러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새 재배법을 창안하였으며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감저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하였다.

박 지 원 (1737년-1805년)

18세기 중엽～19세기초의 문학가이며 실학자이다. 그의 자는 중미이며 호는 연암이고 시호는 문도이다.

량반집안에서 태여났으나 젊었을 때 몸이 약하였던 그는 결혼한 후에야 처삼촌 리량천에게서 글을 배우고 나이가 들어 명천군수, 양양부사 등을 지냈다.

그는 당시 국내외 학자들이 쓴 책들을 연구하여 철학, 정치, 경제, 력사, 천문, 지리, 풍속, 제도, 문화 기타 각 방면에 걸쳐 당시로서는 깊은 지식을 가지였다.

그는《허생전》,《량반전》,《범의 꾸중》,《말거간전》,《예덕선생전》,《민옹전》,《광문전》,《김신전전》,《우상전》 등 작품을 통하여 진보적량반의 립장에서 당시 부패타락한 량반통치배들의 기생충적생활을 일정하게 폭로하였으며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도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20대에 벌써 실학사상가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홍대용, 박제가, 리덕무, 류득공, 리서구 등과 친교를 맺고 학문적으로도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당시의 부패한 량반통치를 일정하게 폭로한 그의 진보적사상과 글들은 량반통치배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1769년에는 당시 큰 권력을 잡고있던 홍국영 등이 그를 해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린 그는 황해도 금천군에 몸을 피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학문을 연구하였으며 중국에 갔다온 기행문인《열하일기》(26권)를 비롯한 많은 책들을 썼는데 거기에 그의 철학사상이 여러모로 반영되여있다.

그는 홍대용과 함께 《천원지방설》을 반대하고 지구는 둥글고 천체들은 돌고있다는 설을 주장하였으며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것으로 보려는 소박한 자연관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이 시기에 또한 실학파들과 함께 《북학파》를 형성하고 여러 나라들의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킬것을 주장하였다.

그는《한민명전의》,《과농소초》를 써서 토지문제와 농업기술적문제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내놓았고 그밖에 첩의 자손에 대한 차별의 철폐, 화페제도의 개선, 상업의 발전 등을 위한 많은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큰 나라를 무턱대고 떠받드는 부패타락한 량반통치배들의 사대주의를 반대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들은 당시로서는 선진적이였으나 기본적인 립장은 부분적인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극도로 첨예화된 봉건사회의 모순을 완화시키며 붕괴에 직면한 봉건제도를 다시 수습해보자는것이였다.

또한 그는 봉건유교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립장도 철저하지 못하였다.

전해지지 않는 그의 작품으로서 《역학대도전》, 《봉산학자전》 등이 있다.

그는 《총석정에서 해돋이를 구경함》을 비롯한 많은 시편들도 남겼다.

그의 저서는 《연암집》(57권)에 종합되여 전해지고있다.

박 제 가 (1750년-1805년)

18세기의 실학자이다. 그의 자는 차수이며 호는 초정 또는 정유이다.

그는 농업, 수공업, 상업을 앞세워 나라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킬것을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실지 생활과 국방에 리익을 줄수 있는 연구사업을 한 학자이다.

그는 서자로 태여나 어려서부터 봉건적신분차별제도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박지원의 영향을 받아 철학사상가로 되였으며 정약용과 친한 사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의 서자들에 대한 대우가 약간 개선된것과 관련하여 재간이 있고 유교경전에 대한 연구가 깊었던 그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제발되였다.

1790년에는 리덕무, 백동수 등과 함께 《무예도보통지》, 《총본》을 편찬하였다.

그는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형편에 대한 연구와 3차에 걸친 중국려행에서 얻은 자료를 참고로 하여 농업, 수공업 및 대내외상업을 발전시켜 봉건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진보적사상은 실학파의 대표적저작의 하나로 알려져있는 그의 저서 《북학의》에 실려있다.

그는 로동도구, 병기 등의 개선, 영농법의 개량, 앞선 기술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으며 천연두의 전염을 막기 위하여 종두술을 연구하여 성공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과 활동은 당시 봉건통치배들이 술이나 마시고 시나 읊으며 허송세월하면서 나라의 기술발전을 저애하고있던 조건에서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성격을 띠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외국의 기술을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당시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덮어놓고 받아들이려는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편향이 있었으며 또 그가 리상으로 한 부강한 나라는 량반지배계급을 위하여 더욱 잘 복무할수 있는 나라였다.

1801년 그는 카톨릭교사건에 걸려들어 4년간 함경도 종성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집에 돌아와 사망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문집 《초정집》과 시집 《정유집》이 있다.

리 규 경 (1788년-1863년)

19세기초 중엽에 활동한 실학자이며 철학가이다. 그의 자는 백주이며 호는 오주 또는 소운이다. 리규경은 량반가정의 서자로 태여났다.

그는 박지원의 제자였던 할아버지 리덕무를 통하여 박제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

고 당대의 이름난 실학자들과 사귀면서 김정희의 학풍과 최한기의 선진사상의 영향도 많이 받았으며 또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는 사회정치문제에도 많은 주의를 돌리였으나 주로 농학,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의학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연과학연구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자연과학을《유용지학》이라고 하면서 공리공담을 일삼는 주자학을 반대하고 그것을 실지 생활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당시로서는 새롭고 진보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가운데서도 기일원론적인 중세유물론을 발전시킨 그의 철학적견해, 천문을 비롯한 새로운 자연과학지식, 기계에 대한 기술지식, 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견해, 고질적이며 부패한 낡은 유습을 반대한것 등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인것들이였다.

선교사놈들이 침입하여 활동하고 우리 나라 해역에 이양선들이 빈번히 나타나는 등 복잡다단한 당시 정세속에서 그는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실지 생활에 쓸모있는 학문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모든 사실을 검토하고 변증함으로써 자기로서는 깊이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리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교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세계관과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부터 정치사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일련의 부족점이 있었다.

리규경의 학문연구성과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실려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리조봉건국가를 중심으로 외국도 포함하여 력대의 제도, 력사, 지리, 정치, 경제, 군사, 철학, 문학, 천문, 수학, 자연, 기술, 농업, 수공업 등에 관하여 무려 1 400여개의 항목에 걸쳐 해박한 고증을 하고 자기 견해를 담은 백과전서형식의 방대한 책이다.

리 인 문 (1745년-1821년)

18세기 사실주의풍경화가였다. 그의 자는 문욱이고 호는 유춘이다.

그는 서울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여났으며 도화서 화원으로 복무하였다.

그는 실학사상의 영향과 김홍도를 비롯한 사실주의화가들의 영향밑에 사대주의적이며 모방주의적인 창작태도에서 벗어나 사실주의적풍경화작품을 창작하였다.

그의 그림에서 특징적인것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풍경을 자기 시대의 사회적현실과 결합시키고 또 그의 묘사에서 근대적인 원근법을 새롭게 도입한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항상 대하고 보는 조국산천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았으며 그것을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그렸다. 현재 남아있는 그의 작품들가운데 《강산은 끝없어라》, 《김매기》, 《사공》, 《어촌》, 《심산마을》, 《꽃과 나비》, 《포도》 등이 있다. 그는 그림에서 당시의 사회현실을 재현하려고 일정하게 노력하였으나 력사적,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풍경그림에 치우쳤으며 일부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부패하고 문란해진 봉건제도의 진면모를 전면적으로 그려내지는 못하였다.

리인문은 창작의 다양성과 독특한 구도형식, 섬세하고 간결한 필치 특히 다채로운 색을 씀으로써 당시 사실주의풍경화발전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되였다.

정 약 용 (1762년-1836년)

19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문인이다.

그의 이름을 용이라고도 불렀으며 자는 미용 혹은 송보이고 호는 다산 또는 여유당, 삼미자, 렬수라고 불렀고 시호는 문도이다.

그는 량반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유학공부를 하였다.

그는 어렸을적에 실학자인 리익의 증손자인 리가환과 사돈인 리승훈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학연구에 뜻을 두게 되였으며 천문, 력학, 지리, 력사, 의학, 영농기술, 수리기술, 측량 및 그밖의 과학기술연구에 힘을 넣었다.

그는 1789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홍문관, 수찬, 승지, 사헌부, 지평사간원, 정언, 병조참의, 곡산부사,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16살 때 리익의 문집을 읽었고 《반계수록》을 비롯한 많은 선행학자들의 저서들을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같은 시기의 선배학자들의 영향도 받으면서 선진사상을 키웠고 과학기술연구에도 힘을 기울였다.

병조참의로 승진되였을 때 그는 반대파들로부터 카톨릭교관계자로 주목되여 중앙정계에서 밀려나 충청도 홍주의 금정찰방, 황해도 곡산부사 등 지방관을 지냈다.

그는 벼슬살이를 하는 기간에 실학의 《리념》을 현실에 구현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던중 그는 1801년 카톨릭교도들을 처단하는 《신유사옥》에 걸려들어 처음에는 경상도 장기에, 다음에는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가서 1818년까지 18년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오랜 귀양살이에서 그는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직접 보았고 봉건제도의 각종 폐단과 불합리한 측면을 잘 알게 되였으며 집권량반들의 전횡에 대한 증오심이 강해졌다.

1818년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서 벼슬과 인연을 끊고 여러 부문의 학문연구와 저술사업에 힘썼다.

그는 지구는 둥글고 자체로 운동한다는 설을 인정하였으며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그릇된 사대주의사상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그의 사상은 불철저하였다.

그는 또한 비, 눈, 우뢰, 밀물과 썰물 등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그것이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술을 발전시킬것을 주장하면서 직접 농업, 방직, 선박건조, 교량건설, 성건축에 관한 연구사업을 했다. 수원성의 설계와 성건축에서 큰 역할을 논 거중기도 그가 창안한것이였다.

그는 1800년에 박제가와 함께 종두술을 시험연구하여 성공하였다.

정약용의 자연 및 기술과학에 대한 연구성과는 18세기말～19세기초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그는 력사, 지리, 언어에 대하여서도 애국적정열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여 앞선시기 학자들의 업적을 이어 적지 않은 문제들에서 그것을 상당한 높이에로 발전시켰다.

그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저애하며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썩어빠진 통치배들의 정치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당시 첨예한 사회정치적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대책적의견으로서 문벌제도의 페지, 인재본위의 관리등용, 환곡제도의 페지 등 일련의 개혁안을 제기하였다.

그가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에서 제기한 정치적개혁안들은 봉건유교정치관에 기초하여 문란해진 봉건통치체계를 정리하고 봉건제도를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나 그가운데는 진보적인 립장에서 부분적으로 타락한 봉건관료들의 가혹한 착취를 폭로하고있다.

이밖에 《원목》, 《탕론》, 《전론》 등에서는 봉건정치경제문제에 대한 자기의 《리상적》구상에 대하여 썼다.

그는 임금과 법의 발생발전과정을 서술하면서 백성이 임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금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상과 법도 처음에는 《백성》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되였고 《백성》을 위한것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려전제》를 실시하여 동리를 단위로 농사를 짓게 하고 《일역부》에 따라 자기 몫을 받고 세납과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이런 원칙과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각 계층의 리해관계를 조절할수 있고 봉건국가의 국력도 충실해지고 국방력도 강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다른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인민을 대표하거나 근로인민을 위하여 리상적인 제안을 내놓은것은 아니였다.

《원목》이나 《탕론》에서 그가 말하는 《백성》이란 노비신분인민들을 배제한 여러 계급과 계층을 념두에 둔것이였으며 《전론》에서 그가 제기한 대책은 봉건적농본사상에 기초하여 대토지소유자들에 의한 토지겸병과 가혹한 착취를 다소 조절함으로써 봉건국가의 리익, 전체로서의 지주계급의 리익을 더 잘 보호하자는것이였다. 즉 그가 내놓은 《전론》에서는 량반관리들은 여전히 후한 봉급을 받고 심부름군을 부리면서 호화롭게 살도록 되여있다.

그는 원래 노비문제와 같이 봉건통치계급의 리익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소한 변경까지도 반대하는 보수적립장에 서있었다.

또한 정약용은 다른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대하였다.

정약용은 다른 편으로 뛰여난 문학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18년동안의 오랜 귀양살이체험을 하면서 봉건통치배들에게 불평불만을 품게 되였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가지게 되였다.

그는 환자제도의 페단을 형상한 《더운 날에 술을 마시다》(《하일대주》), 군포수탈의 가혹성을 형상한 《애절양》, 《적성촌의 오막살이》, 《굶주리는 백성의 노래》, 《범사냥》 등 2 000여편이나 되는 시문을 남겼다.

그가 남긴 저서는 500여권에 달한다. 그가운데서 추려서 《여유당전서》에 실었다.

김 정 희 (1786년-1856년)

19세기 중엽의 진보적인 실학자이며 명필, 여러 분야에 이름있는 학자이다.

그의 자는 원춘이며 호는 완당 또는 추사이다.

그의 아버지는 호조판서를 지낸적이 있는 이름있는 유학자였다. 어려서부터 그는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커가면서 실학자인 박제가로부터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다.

24살 때에 그는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벼슬은 규장각 대교, 성균관 대사성, 병조참판 등을 지냈다.

통치배들의 권력싸움으로 하여 1840년부터 그는 10년동안 제주도에서, 그후 2년동안은 함경도 북청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그는 24살 때 사신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 중국 베이징에 가서 중국의 학자들

과 시문, 서화를 론한 일도 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후대들을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이였다.

김정희는 유학자로서 유교경전을 연구하면서도 《실사구시설》에서 쓴것처럼 당시의 실학 각 부문의 연구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금석학을 력사과학의 한 분야로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1816년에 처음으로 서울 북한산 비봉의 비를 답사하여 그것이 신라의 진흥왕순수비임을 고증하였고 함경도(함경남도 영광군) 황초령에서도 진흥왕순수비를 발견하였다.

그가 쓴 《금석과안록》은 이 두 비에 대한 연구성과를 담은것인데 세나라의 력사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

그는 또한 북청에서 류배살이를 하던 때 청해토성자리에서 나온 유물들을 옛사람들이 쓰던 돌도끼, 돌활촉이라고 보았으며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무덤들을 신라의 왕 또는 귀족들의 무덤이라고 보고 《신라진흥왕릉고》를 썼다.

그는 조국의 력사외에도 천문, 력학, 지리학, 음악 등에 대해서도 당시로서는 매우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정희는 서예력사상 재능있는 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사체》라는 독특한 글씨체를 창안하였다.

그의 글씨는 당시 조선사람들에게뿐아니라 중국사람들에게도 매우 귀중한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는 또한 한자시인이며 먹그림화가로서도 알려졌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시서화3절》(시와 글씨와 그림의 3가지가 다 최고수준이라는 뜻)이라고 일렀다고 한다.

김정희는 리조봉건사회말기의 실학자로서 그의 학풍과 예술기량은 일련의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으나 당시로서는 진보적인것이였다.

김정희의 글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출판되여 전해지고있다.

그의 저서로는 《완당선생집》이 있다.

이 저서는 저자의 계급적 및 봉건관리로서의 처지와 봉건유교적세계관에 바탕을 둔 일련의 부족점이 있으나 우리 나라 력사 및 금석문연구에 참고로 된다.

김 홍 도 (1760년-?)

18세기의 대표적인 사실주의화가이다.

그의 자는 사능이며 호는 단원 또는 단구이며 시호는 고면거사이다.

김홍도는 어려서부터 뛰여난 회화적재능으로 하여 도화서 화원으로 되였으며 그의 아들 김량기도 이름있는 도화서 화원이였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때가 있었으며 그림을 팔아서 생활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그는 20살 이전에 벌써 당시의 대표적인 화가로 나타났다.

그는 17살때에《신선무리》를 그렸고 1788년에 선배인 김응환을 따라서 금강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고 1789년에는 쯔시마에 건너가서 그곳 지도를 그려 일본의 침략에 대처하여 봉건국가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기여하였다.

김홍도의 그림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을뿐아니라 필치가 힘있고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리조시기의 화가들을 대표한다.

그는 화가들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현실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였으며 당시의 풍속을 주제로 한 풍부한 내용을 담은 그림들을 그렸다.

그의 진보적인 창작태도와 높은 예술적재능은 그의 창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풍속화 즉 사회생활을 반영한 사실주의그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마당질》, 《집짓기》, 《야장간》, 《씨름》, 《춤》, 《서당》, 《밭갈이》, 《물고기잡이》, 《평양감사의 례도》, 《천낳이》, 《빨래》, 《우물가》 등 풍속화들에서는 당대의 사회생활을 여러모로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특히 그는 근로하는 인민들에 대한 깊은 동정을 가지고 근면하고 락천적인 그들의 성격을 매우 생동하게 그렸다.

이밖에 《구룡폭》, 《숲속의 달밤》, 《파도》 등의 풍경화와 동물의 특징, 털의 질감 등을 생동하게 그려낸 《표범가죽》, 《개》, 《늙은 사자》 등에서도 잘 표현되였다.

김홍도의 많은 그림들은 어느것이나 정확한 소묘, 기발하고 표현적인 화면구성, 성격들의 개성화, 대상에 적응한 선들의 변화 특히 힘있고 아름다운 필치가 특징적이다.

그는 사회력사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자기 작품에서 모순에 찬 당대의 사회관계를 폭넓고 예리하게 반영할수 없었을뿐아니라 지배계급의 비위에 맞는 화상과 궁중생활을 그린 화상, 종교주제화 등의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김홍도는 신윤복, 김득신과 함께 18세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화단에서 대표자로 되였으며 그의 사실주의적회화작품들은 리조회화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신 윤 복 (1758년-?)

18세기 후반기의 화가이다. 그의 자는 립부이며 호는 혜원이다.

그는 1758년에 도화서 화원인 신한평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에 흥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서 그림그리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 그는 자라서 도화서 화원이 되였다.

화가로서 재능을 가지고있었던 그는 풍속화를 잘 그렸고 풍경화와 동물화도 잘 그렸다.

그의 풍속화에서는 그 시대의 여러 계층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낮은》신분계층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였으며 또 봉건적구속을 받고있던 녀성들의 형상도 묘사하였다.

그가 화폭에 인민들을 등장시킨것은 화원으로서 봉건국가에 복무하면서도 심한 신분적천대를 받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도 관련되여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당시의 계급적대립을 묘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인민들을 동정하는 기분이 반영되였으나 부화방탕한 량반통치배들의 생활을 그린것을 포함하여 당시 각 계층의 세태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가 기본으로 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그네놀이》, 《주막》, 《풍악놀이》, 《거리에서》, 《배놀이》, 《길쌈》 등이 있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보면 도시와 거리, 집안 등에서 벌어지는 각계각층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예리한 관찰에 기초하여 그것을 간결하고도 함축성있는 필치로 표현한것이며 매개 인물들의 자세와 표정, 심리를 정확한 소묘력에 기초하여 개성적으로 그리면서도 사건을 반드시 환경묘사와 결부시켜 처리하고있는것이다. 그의 그림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서정적인것이다.

김 득 신 (1754년-1822년)

18세기 사실주의그림의 전성기를 장식한 화가이다.

그의 자는 현보이며 호는 긍재이다.

김득신은 세습적인 도화서 화원의 집안에서 태여났으며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도화서 화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주로 인물풍속화를 많이 그렸으며 주제선택과 소묘, 채색 등에서 독자적인 높은 예술적기량을 발휘하였다.

그는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 량반선비들의 일상생활과 오락장면, 시장의 면모 등 당시의 사회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렸다.

전해지고있는 그의 작품들로는 《농민과 량반》, 《마당질》, 《행락도》, 《술에 취한 신선》, 《범》 기타 풍속화첩 등을 들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속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김득신의 작품《농민과 량반》을 보시고 량반과 상민과의 계급적관계를 잘 반영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농민과 량반》은 량반행차를 만나 상민부부가 길가에서 절하는 모습을 통하여 량반과 상민사이의 불평등한 신분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하늘소를 탄 량반의 거만한 표정, 하인들(종)과 상민부부의 심리, 성격들이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그려졌다.

김득신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근로하는 인민, 천대받고 억압받는 인민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리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사회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인물풍속화를 통하여 사실주의그림을 잘 그린 점에서 18세기 화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서 유 구 (1764년-1845년)

18세기말-19세기 전반기 학자이다.

그의 자는 준평이며 호는 풍석이고 시호는 문간이다.

그는 판서 서호수의 아들로 태여나서 1790년 문과에 합격하였고 벼슬은 리조판서까지 지냈다.

1794년에 일본에 가서 통신사편에 흉년에 《구황식물》인 고구마를 들여다가 전라도 각 고을에 보급시켰으며 1834년에는 우리 나라의 풍토에 맞는 고구마재배법을 쓴 《종감저보》를 내서 전국에 보급시켰다.

그는 여러가지 새로운 영농방법을 연구하였고 그 성과를 포함한 농업관계지식을 자기의 저서 《림원십륙지》에 실었다.

이 책은 일정한 제한성이 있으나 그중 많은 자료는 18～19세기 우리 나라 농업기술, 경제형편연구의 참고로 된다.

홍 경 래 (1780년-1812년)

1811년-1812년 평안도농민전쟁의 지휘자이다.

홍경래는 1780년 평안도 룡강군의 농민집안에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 중화에 있는 외삼촌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이때 뛰여난 재능과 기질을 보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8살때 해압산을 바라보며 그 자연경치를 《해압산에 걸터앉아 요포강에 발을 씻으리》라는 시로 읊었다.

8살밖에 안되는 그의 시적재능도 비상하거니와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그 나이로서는 너무나도 큰 포부를 가진것이였다.

그는 학문연구와 함께 무술도 익혔다.

그는 19살 때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평안도출신인탓으로 하여 합격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홍경래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게 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는 풍수쟁이로 가장하고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국내형편을 료해하는 한편 투쟁의 앞장에 설 동료들을 규합하기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량인출신으로서 홍삼무역상인 겸 광산경영주인 구성사람 우군측을 비롯하여 곽산의 역노출신으로서 청천강이북지방의 큰 부자로 알려진 대상인 리희저, 태천사람인 소작농이면서 막벌이군인 김사용, 곽산의 중소지주인 김창시, 배군인 평양사람 양시위, 빈민인 개천사람 리제초, 막벌이군인 곽산사람 홍총각 등과 함께 싸울것을 약속하고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폭동준비를 다그쳤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폭동준비를 위한 본거지를 설정하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합의를 보고 평안도 가산군 다복동을 거점으로 선정하였다.

홍경래는 우선 우군측, 리희저로부터 폭동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고 광군(광산로동자), 고용농, 빈농, 류랑민, 도시빈민, 배군, 노비, 일부 소상인들을 농민군에 망라시켰다. 그리고 다복동에 모인 이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켰고 그가운데서 농민군지휘관을 뽑아서 대렬을 편성하였다.

그는 또한 칼과 창, 활, 조총 등을 자체로 만들게 하고 군량을 마련하였고 군복을 준비하였다.

다음으로 홍경래를 평서대원수(총사령)로 하는 농민군지휘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농민군을 남진군, 북상군으로 나누었다.

만단의 폭동준비를 갖추었다고 본 그는 1811년 12월 18일 드디여 다복동에서 투쟁을 시작하였다.

1 000여명의 농민군을 두 부대로 나누어 행동을 개시하였다.

홍경래는 리희저, 홍총각 등과 함께 남진군을 거느리고 가산읍으로 진격하였고 북상군은 김사용의 지휘밑에 곽산에서 봉기하여 북으로 진격하였다.

가산읍과 박천, 정주를 점령한 홍경래는 평안도에서 가장 큰 상업중심지였던 진두장으로 가서 청천강건너 안주를 공격할 계획을 하였다.

홍경래는 12월 29일 송림전투에서 패한 농민군을 이끌고 정주성으로 퇴각하였다.

홍경래는 견고한 정주성에 의거하여 방어전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1812년 1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벌어진 정주성방어전은 참으로 치렬하였다.

적들은 8 000여명의 정부군을 동원하여 여러차례 지휘관을 교체하면서 각종 공성무기를 가지고 매일과 같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왔다. 홍경래는 이러한 적의

공격에 맞서 전투사기가 높은 2 000여명의 농민군을 지휘하여 완강한 방어전과 반공격전, 야간기습전 등 각종 전술로써 적을 소멸하였다.

4월 19일 농민군은 성밑에 굴을 뚫고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정주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안으로 공격해오는 정부군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다.

홍경래는 어려운 싸움에서 동요함이 없이 부대를 지휘하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다.

4개월동안 서북지방을 뒤흔들어놓은 평안도농민전쟁은 종말을 마쳤으나 홍경래를 비롯한 농민군의 투쟁은 우리 나라 중세력사발전에 큰 의의를 가지였다.

김 창 시 (?-1812년)

평안도농민전쟁때 농민군의 참모이다.

일찌기 진사시에 합격하여 학자로서 평안도일대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였다.

1811년 평안도농민전쟁준비당시에 그는 운산광산의 금전군들과 곽산, 정주, 가산 등지의 인민들을 투쟁에 인입하는 공작을 진행하였으며 전쟁시기에는 농민군의 참모역할을 수행하여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1812년 4월 정주성방어전투에서 농민군이 실패한 후 구성부근산중에서 변절자에 의하여 살해되였다.

김병연(김삿갓) (1807년-1863년)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재능있는 풍자시인이다.

그의 이름은 김병연이며 자는 성심이고 호는 란고 또는 이명이다.

그는 늘 삿갓을 쓰고다녔으므로 사람들속에서 본이름보다 《김삿갓》이란 별명으로 흔히 불리웠다.

서울 량반집안에서 출생한 김병연이 6살 되던 해에 선천부사로 있던 그의 할아버지 김익순이 평안도농민전쟁때에 농민군에게 투항하였다는 《죄명》으로 집안이 모두 처단당하게 되였다. 그때 어린 그는 자기 집 종의 도움을 받아 황해도 곡산으로 피해가서 살았다.

19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였으나 그가 《역적》의 자손이라 하여 취소당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봉건집권자들에 대한 불만이 더 커졌으며 그후 22살에 집을 떠나 방랑생활로 일생을 보냈다.

량반신분에서 물러난 자기의 처지와 방랑과정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는 현실을 얼마간 비판적으로 볼수 있게 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당시 집권자들과 량반들에 대한 불평과 항의에 찬 수많은 즉흥시를 읊었다.

김병연의 시 《옳고 그름의 노래》, 《량반의 자식을 조롱함》, 《량반에 대한 시비》, 《온종일 머리를 수그린 나그네》, 《잰내비생원》, 《어린 갓쟁이를 비웃는다》 등 여러 시에서 량반, 토호, 중, 풍수쟁이 등 당시 사회의 낡고 추악한 기생충들을 신랄하게 비웃었다.

또한 그는 한자로써 직접 조선말을 표기하는 독특한 파격시도 지었다.

당시 방랑객들을 구박하고 밥한끼 제대로 주지 않는 량반부호들을 비웃는 시에서 그는 스무나무를 《20수》로, 서러운 나그네를 《30객》, 쉰밥을 《50반》, 선밥을 《30식》 등으로 썼다.

이밖에 그는 방랑생활에서 볼수 있었던 농민들의 가난한 생활처지를 반영한 약간의 시와 조선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서정시들도 지었다.

그의 시들은 풍자가 예리하고 착상이 기발하며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한자의 뜻과 음을 재치있게 쓴 우점이 있다. 그의 시들은 진보적인 내용과 기발한 착상, 익살과 풍자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널리 알려지고 전해졌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당시의 사회현실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비판하지 못하고 자기자신의 개인적인 불평불만과 울분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고 개별적량반들을 폭로하고있는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일생을 방랑생활을 하면서 시를 쓰던 김삿갓은 1863년 56살에 전라도에서 객사하였다.

최 한 기 (1803년-1879년)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이름난 실학자이며 철학가이다. 그의 호는 동강 또는 명남루이다.

그는 서울의 량반가정에서 태여나 첨지벼슬까지 지냈으나 주로 학문연구에 종사하였다.

실학자 리규경, 김정호 등과 사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세계의 과학문화의 발전에 관심을 두었고《해국도지》등 책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지식도 넓혔다.

최한기는 철학, 천문학, 지리학, 물리학, 수학, 심리학, 교육학 및 정치, 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자연현상 특히 천문, 기상, 물리 및 생리현상들에 대하여 쓴 당시 국내외의 책들을 널리 읽었으며 자신이 대기와 진공현상, 렌즈의 초점 등에 대하여 실험연구도 진행하였다.

그는 물질적인 《기》가 세계의 근원을 이룬다는 앞선 시기 기일원론철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하고 이를 당시의 자연과학적성과들에 기초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봉건시대 철학에서 인식론의 기본범주로 쓰인 심, 성, 정 등을 물질적, 육체적인 《기》의 작용과 관련시켜 리해하였다.

그는 인식이 외부사물과 이에 대응한 감각기관의 접촉에 의해서만 반영될수 있으며 따라서 만약 외부사물과의 접촉이 없거나 감각기관이 소멸된다면 인식이란 있을수 없다고 보았으며 경험의 심화와 발전은 곧 인식의 변화와 발전의 기초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자기의 학문을 《기학》(기에 관한 학문)이라고 부른 그는《리》를 절대화한 유교성리학과 대립시켰으며 세계의 《창조자》로서의 《리》의 존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의 중세유물론적견해는 아직도 소박한 강조적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가 물질과 운동간의 뗄수 없는 관계, 운동과 정지의 호상이행관계문제에서 제기한 사상도 자연발생적인 변증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륜리사상과 사회정치적견해에서 그는 봉건적유교도덕과 유교의《왕도정치》사상에 사로잡혔으며 관념론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는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일정하게 리해하고있었으며 또 그것이 부단히 발전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고 제도와 풍속이 나라에 따라서 다르

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보았으며 이 점에서 완고한 봉건유학자들의 사대주의적이며 복고주의적인 태도를 반대하였다.

최한기는 조선중세철학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련결시키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논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로서는 일정하게 진보적이였다.

그는 봉건적독선주의와 쇄국정책을 반대하였다. 봉건적 선과 악의 기준은 《백성》들이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그의 견해에는 민권옹호사상의 일부가 반영되고있다.

세계정치지리에 대한 저작인《지리전묘》에서 그는 자본주의나라들에 수립된 대의제를 찬동하였고 외국과 문물을 교류하여 외국의 좋은것을 섭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르죠아민주주의에 공감을 표시하고 봉건통치배들의 완고한 쇄국정책을 비판한 점에서 그의 견해는 긍정적의의를 가지고있었으나 유교사상에서 벗어날수 없었으므로 봉건국왕의 존재를 합리화하고 나라의 흥성이 왕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하는 《왕도사상》에 머물러있었다.

그는 이전 시기에 활동한 진보적인물들에 비하여 유교성리학의 사상적질곡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벗어난 진보적견해를 내놓았고 새로운 사회제도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봉건제도를 자본주의제도로 교체할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봉건국가를 유지공고화할것을 지향한것은 그의 계급적 및 력사적제한성으로 된다.

그의 철학에 관한 책은《기측체의》가 있고 이밖에 그의 모든 글을 모은 수백권의 《명남루전서》가 있다.

김 정 호 (?-1864년)

19세기 중엽의 실학자이며 재능있는 지리학자이다.

그의 자는 백은 또는 백원이며 호는 고산자이다.

황해도의 서민계층에서 태여난 그는 서울교외에서 자라면서 일찍부터 지리학과 지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였다.

그는 아직 교통이 불편하고 현대적관측기구가 없었던 당시의 어려운 조건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 전국각지를 걸어다니며 지형을 조사하였다.

또한 봉건통치배들의 박해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과학문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정신을 발휘하였다.

1834년에 그는 처음으로 《청구도》라는 우리 나라 지도첩(그림)을 만들었다.

《청구도》는 자연지리만이 아니라 력사지리와 경제지리의 내용들까지도 일정하게 주고있는 편람지도였다.

그러나 《청구도》는 너무 번잡하고 도면구성이 착잡하였으며 일부 자료들은 부정확하였다. 이러한 부족점들을 김정호자신이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는 27년동안 꾸준히 실측하고 지리학적고증을 진행하여 1861년 드디여《대동여지도》를 만들어냈다.

《대동여지도》는 우리 나라 지역을 지구우의 위도선을 따라 22개 부분으로 나누어 16만 2 000분의 1축척에 기초하여 그려놓은 아주 정확하고 근대적인 체계를 갖춘 전조선적인 지도이다.

김정호는 지도에 반영해야 할 대상을 결정하는데서 나라의 상업과 교통운수를

발전시키며 외래침략자들의 침공을 막을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들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렸다.

《대동여지도》는 19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 지도학에서 가장 큰 성과였으며 그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있다.

1864년에 그는《대동여지도》를 재판함과 함께 이 지도와 서로 참고보충할수 있도록 산과 강, 섬과 항만, 바다, 길, 나루, 역, 읍성, 창고, 뚝 등 37항목의 풍부한 내용을 군현별로 상세히 서술한 《대동지지》를 출판하였다.

그의 이러한 성과들에서 당시 상품관계의 발전, 시장의 확대, 도로망의 확대 등 사회발전과 인민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김정호의 애국사상을 엿볼수 있다. 또한 김정호가 당시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리용후생》과 《부국강병》에 이바지하려는 실학자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진지한 실학적학풍을 찾아볼수 있다.

당시 부패타락한 봉건통치배들은 그가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봉건국가의 기밀을 루설했다는 부당한 죄명을 씌워 그를 체포구금하였다. 그는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우 진 호 (1832년-?)

19세기의 화가이다. 그의 자는 양수이며 호는 송파 그리고 별명은 우수관이다.

우진호는 개성의 평민가정에서 태여났다. 천한 신분이였으나 힘이 센것으로 하여 1884년에 궁전을 호위하는 군사(별성군관)로 뽑혔다가 얼마 못가서 파직되고 말년에는 행상으로 떠돌아다녔다.

어려서부터 그림공부에 열중하였고 많은 그림을 그렸다.

초기에 단청무늬, 수렵도, 신장도와 같은 그림들을 그렸으나 점차 예술적기량을 높여 인물화, 풍속화, 화초화 등 여러가지 그림을 그렸다.

특히 우진호는 불평등한 당시의 사회상을 진실하게 반영한 《농민생활도》(경직도)들을 창작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지고있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농민생활그림으로 10폭과 12폭의 병풍 《농민생활도》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진호의 그림 10폭 병풍 《농민생활도》를 보시고 이 그림은 계급사회에서 사회의 불평등한 생활을 부자의 생활과 농민의 생활과의 대비속에서 잘 그렸다고 교시하시였다.

우진호의 작품 10폭 병풍 《농민생활도》는 당시 농촌의 계급관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림은 《달구경》, 《밭갈이》, 《베짜기》, 《김매기》, 《판이한 생활》, 《지주집》, 《량반과 상민》, 《마당질》, 《나루배》, 《사냥》 등으로 정월부터 섣달까지 한해동안의 농촌생활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공정들과 시기적으로 벌어지는 농산작업, 여러가지 행사나 명절놀이 기타 민간풍속들을 달 또는 절기에 따라 련속화의 형식으로 반영하였다.

그는 이 그림에서 상민들과 천민들, 량반관료들과 지주, 중들과 상인들에 이르기까지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의 생활을 폭넓게 보여주었다.

특히 그림에서는 《판이한 생활》을 비롯한 《농민생활도》의 매 폭들에서 근로하는 인민들의 고된 로동과 비참한 생활형편을 량반지주들의 안일하고 부화한 생활

과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당대사회의 계급적대립관계와 피착취근로인민들에 대한 량반지주들의 착취상과 억압상을 뚜렷하게 밝히고있다.

이렇듯 우진호는 자기 작품의 심오한 예술적형상과 개성적이며 생동한 인물성격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계급적모순에 대한 불만과 근로하는 인민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였다.

오늘 우진호의 작품 《농민생활도》는 19세기 우리 나라 봉건사회말기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남 병 철 (1817년-1863년)

자는 자명, 호는 규재, 시호는 문정이다.

리조후기의 천문수학자, 본은 의령이며 판관 남구순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글공부와 문장짓기에 능하였다.

1837년 문과에 급제하여 철종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 리조판서 겸 대제학의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당파싸움으로 조정에서 밀려났고 학문연구와 그림그리기관련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당시에 쓰고있던 10여종의 천문관측기구의 구조와 리용방법들을 그림과 수표로 자세히 해설한《의기집설》(2권 2책)을 써냈는데 여기에 소개된 혼천의는 적도경위기, 황도경위기, 시평경위기의 역할을 하면서 북극고도를 비롯한 별과 태양에 관한 19가지의 각이한 관측을 할수 있게 된 만능관측기구였다.

또한 자기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직접 수륜의, 지구의, 추시계 등을 만들어 관측에 리용하였으며 기하학과 대수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설한《해경세초해》(12권)를 써서 천문수학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문집으로는 《규재집》이 있다.

남 병 길 (1820년-1869년)

리조시기의 천문수학자, 자는 자상, 호는 륙일재, 본은 의령이며 남병철의 동생이다. 아이적에는 남병길이라고 불렀고 커서는 남상길이라고 하였다.

1850년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례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는 천문학과 수학분야에서 첫째가는 학자로서 1850년대초에 천문계산과 항해 및 측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서는 구면삼각법의 공식을 푸는 복잡한 계산을 기계적으로 빠르고 손쉽게 할수 있는 《량도의》라는 계산기구를 발명하였다.

이러한 수학계산문제를 계산기구로 풀어보려고 당시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시도하고있었으나 그가 처음으로 해결하였다.

이것은 천문학에서뿐아니라 계산수학과 계산기제작분야에서도 의의가 큰것이였다.

그는 또한 항성들의 위치와 밝기를 관측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표시한 적도자리표 목록책인 《성경》(2권)이라는 가치있는 참고서를 써냈는데 이 책에는 1850년대 세계 여러 나라의 천문수학분야의 성과들을 비롯하여 필자의 독특한 천문리론들도 동시에 해설되여있다.

특히 시선속도에 대한 그의 리론은 세계천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저서로 《시헌기요》(2권 2책), 《추보첩례》가 있다.

대 원 군 (1820년-1898년)

리조의 26대왕인 고종의 아버지로서 1863년부터 1873년까지의 10년간 실권을 장악했던 리조봉건국가의 통치자였다.

그의 이름은 리하응, 자는 하백이고 호는 석파이며 봉호는 흥선대원군, 시호는 헌의이다.

대원군은 리조 16대왕 인조의 6대손인 남연군(리구)의 넷째아들로 태여나 커서 흥선군의 봉호를 받았다.

그는 척실(왕의 외켠, 처켠)세력인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에 큰 불만을 품고 그것을 물리칠 마음을 굳게 다지며 자랐다.

1863년 12월에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고 리하응의 둘째아들인 리명복이 11살에 왕이 되자 리하응이 대원군이 되여 어린 왕의 정사를 돕는다는 구실밑에 실권을 틀어쥐게 되였다.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는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에 의하여 봉건제도가 무너져가고 다른편으로는 자본주의침략이 강화되여 민족적위기가 심화되여가던 시기였다.

정권을 틀어쥔 대원군은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져가는 봉건왕권을 유지해보려고 하였다.

대원군집권시기에 봉건국가가 실시한 모든 대내외정책은 이러한 보수적인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대원군은 봉건국가, 봉건제도를 수습하기 위한 대내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세도정치의 청산, 3정착취의 조절, 서원정리, 국방력강화, 경복궁의 복구건설 등을 실시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외래자본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편 나라의 문을 꼭 닫아매는 《양이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지난날의 대원군처럼 쇄국정책을 쓰거나 고립주의로 나가서는 안되며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을 반대하여서는 안됩니다.》(《**김일성**전집》 제40권, 122페지)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나라의 근대적발전에 심각한 부정적후과를 미치였다.

우선 다른 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일수 있는 길, 대외무역과 교류를 통하여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외부세계와 완전히 담을 쌓고 페쇄된 환경에서 봉건제도를 유지하려는 정책이였다.

이와 같이 대원군이 집권한이래 10년간(1863년-1873년) 실시한 모든 정책들은 본질에 있어서 멸망에 부닥친 봉건왕권을 추겨세우고 무너져가는 봉건국가를 유지해보려는 복고주의적이며 반동적인것이였다.

1873년 11월 대원군은 민비일파에 의하여 정계에서 쫓겨났다. 민비일파는 국왕고종과 짜고 《친정》(왕이 직접 정사를 한다는 뜻)이라는 구실밑에 대원군을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대원군은 정계에서 물러나 운현궁에서 세월을 보냈다.

1882년 군인폭동때 국왕의 요구로 정계에 다시 나섰다가 청국무력간섭자들에게 랍치되여 1885년까지 청국 티엔진에 감금되여있었다.

1885년 8월에 귀국하여 운현궁에서 살던중 1894년 6월 다시 정계에 나섰다가 11월에 또 쫓겨난 후 연금생활을 하다가 1898년에 병으로 죽었다.

민 비 (1851년-1895년)

리조봉건국가의 26대왕인 고종의 왕비로서 근대 민가세도정권의 우두머리였다.

그의 성은 민이고 이름은 자영이며 봉호는 명성왕후이다.

민비는 경기도 려주에서 한때 장호원 첨정벼슬에 있은 민치록의 외딸로 태여났다.

그는 8살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되였으며 양오빠인 민승호(대원군 리하응의 처남)의 집에서 자랐다.

당시 집권자였던 대원군은 모든 세도정치를 근절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가친척이 없는 며느리를 고르던중 1866년 3월 고종의 어머니 민씨(대원군의 처)의 주선으로 15살인 민자영을 왕비로 맞았다. 이때 고종의 나이는 14살이였다.

왕비로 된 자영은 정권야욕을 가지고 민씨일족으로 지반을 꾸린 다음 1873년 11월에 국왕 고종과 짜고 《친정》이란 구실밑에 대원군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국왕이 정권을 잡게 하였다.

이때부터 민비일파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였다.

민비일파는 정권장악후 안으로는 반동적봉건통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였으며 밖으로는 《개국정책》을 표방하면서 외래침략세력에 의거하여 자기들의 통치를 유지하려고 책동하였다.

민비일파의 《개국정책》의 결과 1876년 2월에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이 조작되고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침입할수 있는 침략의 길이 열려지게 되였으며 련이은 유럽, 미국침략자들과 불평등적이며 침략적인 《조약》들이 체결되였다.

민비일파의 외세의존정책의 후과로 나라가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인민들은 민비일파의 통치를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다.

1882년 서울의 군인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폭동을 일으켜 민비가 거처하고있는 창덕궁으로 쳐들어갔다. 군인들이 《민비를 처단하라!》고 웨치면서 물밀듯이 창덕궁으로 돌입하자 바빠맞은 민비는 궁녀옷을 입고 왕궁을 빠져 충주 장호원으로 도망하여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수 있었다.

민비는 자기의 충복들을 시켜 국왕으로 하여금 청국군대를 끌어들여 군인폭동을 진압케 하였다.

1884년《갑신정변》때에도 민비는 심복인 심상훈을 시켜 청국의 위엔스카이(원세개)와 결탁하여 개화파의 정변을 뒤집게 하였다.

또한 1894년 갑오농민전쟁때에도 민비일파는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농민군을 진압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케 하는 반인민적책동을 감행하였다.

청국세력을 등에 업고 통치권을 유지해오던 민비는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패하고 조선에서 청국세력이 밀려나자 이번에는 우리 나라에 세력을 뻗치고있던 짜리로씨야세력에 의거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은 조선봉건정부안에서 친로파세력의 우두머리인 민비를 살해할 흉계를 꾸미였다.

1895년 8월 20일 조선주재 일본공사놈의 지휘밑에 일본인 깡패들이 왕궁을 습격하였다. 놈들은 궁전내실에까지 침입하여 민비를 칼로 쳐서 쓰러뜨리고 끌고나와 채 죽지 않은 민비를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불태워 학살하는 귀축같은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고종의 왕비로 된 후 근 30여년간 청나라와 짜리로씨야 등 외세에 의존

하여 자기 통치권을 유지해오던 민비는 외래침략자들사이의 각축전의 소용돌이속에서 포악하고 잔인한 일제야수들에게 살해되고말았다.

그는 살아있는 마지막날까지 오직 자기의 통치권을 유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여 나라와 인민에게 재난을 들씌운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인물이다.

최 제 우 (1824년-1864년)

19세기 중엽 동학의 창시자(동학 1세교주)이다.

처음의 이름은 제선이며 어릴 때 이름은 복술이고 호는 수운이다.

그는 경상도 경주의 몰락한 량반인 최옥의 서자로 태여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웠다.

그는 커가면서 서자의 울분과 몰락량반의 쓰디쓴 생활을 맛보았으며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도 직접 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6살 때에 어머니를 잃고 16살 때에 아버지를 여읜 최제우는 스무해가까이 전국을 방랑하면서 악정, 악페로 가득차있는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낼 길을 모색하던 끝에 1860년 4월 마침내 우리 나라 근대력사발전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 천도교의 교리를 발표하고 동학의 창시자가 되였다.》(《**김일성**저작집》 제49권, 383페지)

최제우가 성장하던 시기는 안으로는 세도정치와 당쟁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진해지고 밖으로는 외래침략이 강화되던 시기였다.

그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시대의 선각자로서 《보국안민》의 《재세술》을 얻으려고 유학공부와 인연을 끊고 집을 뛰쳐나와 20년 가까이 전국 8도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방랑생활을 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낼 길을 모색하던 그는 1860년 4월에 마침내 우리 나라 근대력사발전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 동학의 창시자로 되였다.

최제우가 새 교리를 동학이라고 한것은 《서학》인 카톨릭교에 대치시켜 동방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신앙철학이라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최제우가 내놓은 동학사상의 철학적기초를 이루는것은《지기》에 관한 사상이다. 동학에서는 《지기》를 세계의 시원이며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울》 즉 우주전체가 《지기》라고 하는 그 어떤 특수한 기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자연도 사람도 신도 모두 《지기》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동학의 《지기설》은 모든 물체에 령혼이 있다고 보는 령혼설의 일종으로서 범신론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동학의 기본사상은 《신인일체》, 《인내천》 곧 사람이 《한울님》이라는것이다. 《인내천》의 사상은 사람을 하늘에 비기여 존중했다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이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자체를 신적존재로 보는것으로 하여 리론적불합리를 면치 못하고있다.

최제우는 《보국안민》, 《광제창생》, 《척양척왜》의 기치밑에 부패한 봉건통치를 바로 잡으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구제할데 대한 사회정치적견해도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종교적인 신앙의 방법에 의한 사람들의 도덕적완성으로 보는 제한성을 발로시켰다.

이처럼 최제우의 동학사상은 그 내용에서 일부 반봉건반침략적측면도 가지고있

었으나 종교적이며 관념론적인것이 적지 않게 뒤섞여있었다.

동학은 그의 반봉건반침략적요소로 하여 설교된 첫날부터 농민들속에 급속히 퍼져나갔다. 최제우가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한지 3년 후인 1863년에는 동학발생지인 경상도 경주는 물론 삼남일대와 멀리 경기지방에까지 미치였다. 이렇게 되자 봉건통치배들은 동학에 대한 탄압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동학의 첫 교주인 최제우는 1863년에 경상도감영에 체포구금되였다가 1864년 3월 대구에서 참형을 당하였다.

최제우는 《동경대전》과 그밖에 《룡담가》, 《도덕가》, 《안심가》 등 여러편의 글을 남겨놓았다.

오 경 석 (1831년-1879년)

개화사상의 선구자이다. 자는 원거, 호는 역매이다.

역관의 가정에서 나서 청년시절부터 대외정세에 밝고 봉건통치제도에 불만을 가졌다.

실학자들의 진보적개혁사상의 영향밑에 애국정신을 키웠다.

1860년대에 역관으로서 청나라에 자주 다녀오면서 청나라에 전해진 근대적인 문물제도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것을 소개한 서적들을 구입해다가 류홍기를 비롯한 친우들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에게 개화사상을 보급선전하였고 개화파의 형성을 적극 추동하였다. 자신도 개화파성원으로 되여 개화파세력확장에 적극 활동하였다.

그는 화가로서도 이름을 남겼다. 저서로 《삼한금석론》이 있다.

리 제 마 (1837년-1900년)

자는 무평, 호는 동무이다.

리조후기의 의학자,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이며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남달리 즐겨하였다.

성장하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학의 원리를 깊이 탐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구할수 있는 책들은 모두다 구해읽었다.

그는 림상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체질과 성격에 따라 똑같은 병일지라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약물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는것을 포착하고 환자들을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사람마다의 체질, 내장기관의 상태, 정신상태, 성격, 식성 등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대책을 세웠다.

이러한 림상치료경험에 기초하여 사람의 체질을 네가지형(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나누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 림상체계를 세우고 약물치료와 예방법을 적용하는 독특한 4상의학설을 내놓음으로써 고려의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또한 체질에 기초한 림상체계를 세웠을뿐아니라 체질에 따르는 약물을 분류하고 체계화하였으며 그 어느 약물에도 맞지 않는 특이한 체질도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그의 4상의학설은 그전에 있던 보수적인 체질의학론과는 달리 참신한 리론에 기초한 림상체계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보급되였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체질을 도식적으로 갈라놓고 치료대책을 세웠으며 음양5행설에 기초하여 질병의 원인을 찾았으므로 비과학적인 치료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의 학설은 1894년에 쓴 《동의수세보원》(4권)에 실려 전해지고있다.

류홍기(?-1884년)

우리 나라에서 개화사상을 주장한 선진사상가, 부르죠아활동가이다. 호는 대치이다.

중인출신 의관으로서 일찍부터 유교, 불교교리들과 당시의 선진적학문유산들을 깊이 연구하였다. 특히 실학파의 사회경제사상과 실사구시적인 학풍을 배우면서 문란한 봉건통치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내외의 새롭고 진보적인 지식과 견해들을 광범히 탐구하여 그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의 대외정세연구는 벗인 오경석이 역관으로 청나라를 래왕하던 1850년대말-1860년대초부터였다.

이러한 학문연구과정에 근대적인 사상인 개화사상을 가지였고 그에 기초하여 부르죠아개혁을 시도하였다.

1870년대부터 김옥균의 개화파성원으로서 그의 정치활동을 적극 방조하였으며 갑신정변준비사업에 헌신하였다. 병석에서 김옥균의 정변단행계획을 검토하고 지지해주었다.

정변이 실패한 후 반동들의 박해가 있을것을 예견하고 금강산의 어느 절간에 피신해있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김 옥 균 (1851년-1894년)

1884년 갑신정변을 지도한 부르죠아개혁운동가이다.

그의 자는 백온이며 호는 고우 혹은 고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옥균이 친일파가 아니라 우리 나라를 개명시키기 위하여 부르죠아개혁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내리심으로써 우리 나라 근대력사가 진통속에서도 자기 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었다는것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습니다.》(《**김정일**선집》 제1권(증보판), 345페지)

김옥균은 개화파의 중심인물이다.

그는 충청남도 공주에서 몰락량반인 김병태의 맏아들로 태여나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하였다.

3살때 집을 천안으로 옮겼는데 아버지는 그곳에서 서당훈장을 하였다.

6살때 5촌인 김병기의 양아들이 되여 서울로 올라갔다.

11살때 강릉부사로 임명된 김병기를 따라 강릉으로 가서 소년시절을 보냈다. 16살때 다시 서울로 올라와 량반들이 사는 북촌에서 살았다.

그는 봉건적신분제도에 관계없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안팎의 정세를 잘 알게 되였다. 특히 그는 박규수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를 통해서 나라안팎의 정세에 대하여 들을수 있었고 박규수의 할아버지인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책들을 빌려볼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는 박규수를 통하여 류홍기를 비롯한 개화사상가들과 만나게 되였다. 김옥균은 그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면서 점차 개화사상의 대표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싹트기 시작한 개화사상을 더욱 폭넓게 발전완성시켜나갔다.

김옥균은 1870년대초 개화사상가들로 개화파를 형성하였다.

그는 22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홍문관 교리, 사간원 정언, 승정원 우부승지 등으로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면서 개화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을 꾸리기 위한 비밀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30살 전에 쟁쟁한 청년정치가로 두각을 나타내였다.

그는 홍영식, 박영교를 비롯한 정부안의 혁신관료들, 봉건유생들, 군인들, 상업가들, 승려들,《천인》들 그리고 왕의 측근자들인 환관들, 궁녀 등 각이한 계층을 자기의 영향밑에 넣었다. 그리고 개화파의 비밀조직인 《충의계》를 조직하였다.

김옥균은 나라의 근대화를 위하여 국정개혁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그는 자기 세력을 확대하여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는 한편 《기화근사》를 써서 개화사상을 보급선전하였다.

그는 국왕과 정부안의 혁신관료들을 추동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구도 점차 개조해나갔다.

1880년 12월에 국내외의 정치와 군사관계의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할할 권한을 가진 통리기무아문을 창설하였으며 1881년에는 5영을 2영으로 통합하고 별기군을 조직하였다.

한편 개화파계렬의 청년들을 외국에 류학생과 실습생으로 파견하여 근대적지식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1881년부터 김옥균은 자신이 직접 여러차례에 걸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실정을 연구하며 그들의 정치적동향을 알아본 후에 청나라세력을 견제하는데 일본을 리용하려고 하였다.

1882년군인폭동후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부르죠아개혁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이무렵 김옥균은 통상교섭사무아문 참의, 리조참의, 호조참판 등 직책에 있으면서 개화파성원들을 이끌었다.

개화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1882년 7월에 기무처가 조직되였는데 기무처는 나라의 모든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협의제기관인 동시에 사실상 최고권력기관이였다.

이와 함께 우정국, 치도국, 순경국, 박문국 등을 새로 설치하였으며《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또한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1883년 봄부터 경기도 광주에 1 000명에 달하는 신식군대를 조직하고 군대편성과 훈련을 근대적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의 부르죠아개혁활동이 표면화되자 수구파량반들은 이를 파탄시키기 위한 책동을 하였다.

우선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주요인물들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냈다.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로 남해바다가로 내쫓았으며 홍영식을 미국에 가는 조선정부의 수신사성원으로 해서 미국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개화파가 경기도 광주에서 키우던 1 000명의 신식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여 관군에 편입시켜버렸다.

이렇게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부르죠아개혁활동이 일대 탄압을 받게 되자 그들은 평화적방법으로는 부르죠아개혁을 수행할수 없다고 간파하였다.

김옥균은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락성연회를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수구파거두들을 처단한 후 정권을 장악하였다.

10월 18일에 김옥균은 개화파의 새 정부를 구성하고 19일 아침에는 새 정부 정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때에 위엔스카이가 이끄는 1 500명의 청국군대가 무력간섭을 하여 창덕궁으로 침입하였다.

대세가 이렇게 되자 일본군대는 도망치고 개화파성원들만이 창덕궁을 지켜 청국군대와 싸웠으나 개화파세력은 거의 희생되고 김옥균을 비롯한 일부 인원이 살아서 인천으로 피하였다.

이리하여 김옥균의 지휘밑에 진행된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고말았다.

김옥균은 그후에 일본으로 망명하여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부르죠아개혁활동을 벌리려고 하였다.

1886년 7월까지 일본 도꾜에 있다가 일본반동정부의 탄압으로 김옥균은 1888년초까지 오가사하라섬에, 그후 1893년까지는 혹가이도에 강제추방당하여 류배생활을 하였다.

1894년 2월 22일에 상하이로 건너간 김옥균은 다음날 봉건정부가 파견한 자객 홍종우에게 살해당하였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은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큰뜻을 이룩하지 못하고 죽었으나 그는 우리 나라 근대력사에 커다란 공적을 남기였다.

그의 저서로는 《갑신일록》, 《기화근사》 등이 있다.

갑신정변이 《3일천하》의 운명을 면치 못한 주요한 원인은 개화파들이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궁정내부세력에만 의거한데 있었다.

이것은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지도층의 세계관적 및 계급적제한성과 관련되였다.

황 도 연 (1808년-1884년)

19세기 전반기 이름이 높았던 고려의학자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여나 뛰여난 의술로써 당시 손꼽히게 된 황도연은 변화된 시대적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고려의학의 부족점을 통절히 느끼고《의종손익》이라는 의학책을 썼다.

1855년에 첫 저서로 《부방편람》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필요없는 부분을 없애고 빠졌거나 부족한 부분에 보충수정을 가하여 1868년에 《의종손익》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의종손익》은 19세기 전반기 고려의학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동의보감》, 《제중신편》과 함께 림상의사들속에서 가장 널리 리용되였다.

이 책은 병을 64개 부분, 113개 조항으로 나누고 그 치료법을 밝힌 다음 514종의 약에 대한 약성가(약성을 노래로 푼것)를 실었는데 그가운데서 73수는 황도연자신이 지었다.

황도연은 《의종손익》을 쓴 다음 그보다 더 리용하기 편리하고 처방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1869년에 《의방활루》를 썼다.

그후 1885년에 그의 아들 황필수는 아버지가 남긴 유고를 정리하고《의종손익》과 《의방활루》의 내용을 합하여 《방약합편》을 내놓았다.

《방약합편》에서는 처방의 3통분류법(황도연이 새로 고안한것인데 여러가지 처방들을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보는 방법을 말한다.)이 더욱 구체화되고 그 내용도 훨씬 풍부화되였다. 즉 병종들은 369개 조목이 아니라 538개 조목으로 나뉘여지

고 처방도 14개 더 첨가되였으며 여러가지 약의 제조법, 약달이는 법, 약을 먹을 때 금해야 할 음식, 임신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 마마에 먹어서 좋은것과 나쁜것 등 《의방활루》에는 없는 내용들이 더 들어있다.

이와 같이 《방약합편》은 그 내용이 풍부하고 실용적가치가 많으므로 의학자들 속에 널리 리용되였다.

이처럼 황도연에 의하여 고려의학의 면모는 실용적인 면에서 뚜렷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종래의 허황한 리론과 미신을 배격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리론에서 아직 실천과학적인 기초를 가지지 못하는 본질적인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최 시 형 (1827년-1898년)

호는 해월, 동학의 제2대교주이다. 본은 경주이며 고향은 경주 동촌 황오리이다.

17살때 종이공장에서 일하다가 32살때에 최제우의 영향을 받아 동학도가 되였다.

최제우가 사형당한 후 2대교주로 되였다.

봉건통치배들의 탄압을 피하여 다년간 태백산중에 숨어살면서 1880년 5월 강원도 린제군 남면 갑둔리에 경전간행소를 설치하고 《동경대전》(4편)을 발행하였으며 1881년 6월 충청도 단양에서 《룡담유사》(8편)를 간행하여 동학교리를 비밀리에 류포시키면서 포교활동을 벌리였다.

농민대중의 반침략반봉건기세가 앙양되자 그것을 리용하여 동학을 합법화하고 동학상층의 사회적지위를 개선하려고 1892년에는 삼례에서, 1893년에는 서울 강화문앞에서와 보은에서 교조(최제우)의 《교조신원운동》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 투쟁에 대한 봉건정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인민들을 버리고 물러서고 말았다.

갑오농민전쟁때에 애국적농민들과 합세한 동학하층인 일반농민군중은 봉건통치배들과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시종일관 견결하게 싸웠으나 그를 비롯한 일부 동학지도층은 갑오농민군의 적극적인 무장진출을 론산계선에서 막아나서려고 하면서 봉건정부와의 타협로선을 취하였다.

동학상층의 강경파와 무저항주의파사이에서 기회주의적립장을 취하던 그는 봉건정부에 체포되여 동학의 선전자라는 죄명으로 서울에서 사형당하였다.

전 봉 준 (1854년-1895년)

1894년(갑오)농민전쟁의 지휘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천도교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것은 갑오농민전쟁이 낳은 녹두장군 전봉준에 대해서 알게 된 때부터였다.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선렬들의 이름이 렬거될 때마다 녹두장군의 이름은 홍경래, 리준, 안중근, 홍범도 등의 이름과 함께 나란히 놓이군 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전봉준에 대한 지식은 그가 갑오농민전쟁의 주인공이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은 용감무쌍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것뿐이였다.》(《**김일성**저작집》 제49권, 381~382페지)

그의 어릴 때 이름은 녹두, 명숙이다.

전라도 고창군에서 태여난 전봉준은 서당훈장을 하던 아버지 전창혁의 슬하에서 유학공부를 하였다.

농촌에서 자라면서 그는 봉건통치배들의 극심한 수탈행위를 직접 보았으며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도 알았다.

청년시절에 그는 고부, 전주, 태인 등지에서 아버지와 함께 서당훈장노릇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전창혁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행위를 규탄하는 농민들의 투쟁의 선두에 섰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억울하게 매를 맞고 살해되였다.

아버지의 죽음에서 소극적인 항의투쟁으로써는 결코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은 그는 결정적인 투쟁에 나섰다.

1894년 3월에 전라도 고부농민봉기를 계기로 갑오농민전쟁이 시작되였다. 이때 농민군의 총대장으로 된 전봉준은 당시 농민들의 반봉건반침략적지향을 반영한 격문을 발표하여 광범한 농민들을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그는 농민군을 지휘하여 황토현에서 전라도감영군을 격파하고 계속 남쪽으로 진격하여 정읍, 흥덕, 고창, 무창, 령광, 함평 등 지역으로 전과를 확대하였다.

4월 23일에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서울군대)과 맞다들어 격파하였으며 북상하여 4월말에는 전주성을 함락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전주성을 빼앗기고 수세에 빠진 봉건정부는 농민군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농민군에게 《화의》를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5월 8일에 농민군과 봉건정부사이에 《전주화의》가 체결되였다.

《전주화의》체결후에 전봉준은 전주를 비롯하여 전라도의 53개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전주화의》에서 체결된 농민군의 요구조건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였다.

1894년 9월 중순에 전봉준은 우리 나라에 기여든 일본침략자들을 구축하고 유린되고있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투쟁에 일떠섰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농민군은 서울로 진격하다가 11월에 공주계선에서 일제침략군과 대격전을 벌리였다.

공주대격전에서 수십만의 농민군은 용감히 싸웠으나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전봉준은 차후의 투쟁을 계획하고 농민군의 퇴각을 명령하였다. 일제침략군은 방어로부터 퇴각하는 농민군을 추격하였다. 전봉준은 추격해오는 일제침략군과 금구, 월평계선에서 싸우려고 대렬을 수습했으나 실패하였다.

전봉준은 적은 인원의 직속부대만을 거느리고 순창으로 갔다.

순창군 피로리에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던 전봉준은 12월초에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였다.

전봉준은 서울에 압송되여 갖은 악형을 받았으나 끝까지 굴하지 않고 투쟁하다가 1895년 3월말에 사형당하였다.

전봉준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왕에 대한 환상을 비롯한 일련의 제한성을 발로시키기는 하였으나 갑오농민전쟁을 이끈 농민군지휘자로서 우리 나라 근대농민전쟁사를 빛나게 장식한 애국적인물이였다.

김 홍 집 (1842년-1896년)

19세기말에 나라의 근대화를 위하여 활동한 부르죠아개혁운동가이다.

그의 처음이름은 광집이며 자는 경능이고 호는 도원 또는 이정학재이다.

김홍집은 서울에서 이름있는 량반인 김영학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김영학은 리조, 호조, 병조, 형조의 참판과 한성부의 좌부윤, 대사헌, 홍문관

제학 등 고위관리직에 있은 사람이였다.

김홍집은 26살때 문과에 합격한 후 벼슬길에 나섰다. 벼슬길에 오른후 그는 개화사상에 공감한 혁신관료로서 개화파의 개혁운동을 지지해주었으며 때로는 그들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관료생활 첫시기에 그는 재능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여 예문관, 홍문관 등에 있었으며 례조에서 주로 외교가로 활약하였다.

1880년 7월에 례조참의로 있던 그는 《강화도조약》조작후 제기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밑에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었다.

일본에서 그는 일본정계인물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일본의 형편과 세계의 움직임을 잘 알수 있었다.

일본에서 돌아와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우리 나라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네데를란드가 어떻게 되여 일본에 군사기술을 배워줄수 있었는가라는 국왕의 질문에 《나라가 크고작은데 관계없이 무기를 정예하게 하고 나라자체의 힘을 강하게 키우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나라의 근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1882년 7월 개화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부안에 새로운 기구인 기무처가 조직되고 자신이 그 성원으로 된 이후에는 개화파의 부르죠아개혁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1882년 군인폭동을 계기로 일제가 강요한 《제물포조약》을 체결할 때 그는 전권대표인 리유원과 함께 전권부사로 참가하였다.

그후 그는 경기감사로 나와 외교무대를 떠난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외무독판에 례조판서로 임명되였다.

1884년갑신정변때 그는 이 정변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개화파의 새 정부에서 한성판윤의 벼슬자리를 받았다.

그는 일제침략자들이 갑신정변후 강요한 《한성조약》체결시 전권대사로서 치욕의 도장을 찍기도 하였다.

그후에 김홍집은 우의정, 좌의정, 판중추부사 등 높은 자리에서 일하면서도 개화의 뜻을 계속 지켜나갔다.

1894년(갑오)농민전쟁에 의하여 개혁활동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자 그는 어윤중 등 혁신관료들과 함께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렸다.

1894년 6월말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새 혁신정권이 수립되자 주동적역할을 한 김홍집은 새 정부의 수반인 령의정(후에 총리대신)으로, 군국기무처의 총재로 되였다.

새 정부는 일제침략자들이 로골적으로 간섭훼방하는 조건에서도 부르죠아개혁(갑오개혁)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갔다.

새 정부의 혁신관료들은 중앙통치기구를 근대적인 내각제로 개혁하는것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부르죠아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진보적인 부르죠아개혁은 일제의 파괴책동을 이겨내지 못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1894년 11월 21일 군국기무처는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제해산되고 결국 부르죠아개혁은 파탄되고말았다.

그후에도 김홍집은 총리대신으로 계속 있다가 1896년 2월 아관파천사건때 파벌싸움의 소용돌이속에서 친로파들에게 타살되였다.

이처럼 김홍집은 량반출신의 혁신관료로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근대화를 지향하는 애국적립장에서 일련의 개혁활동을 벌렸으나 일제침략자들과의 투쟁에서는 우유부단하였다.

그는 또한 자체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개혁운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벌리지 못하였을뿐아니라 1894년(갑오) 농민전쟁과 같은 인민대중의 반침략반봉건투쟁에 대해서는 보수적태도를 취하고있었다.

장 승 업 (1843년-1897년)

19세기 후반기의 화가이다. 그의 자는 경유이며 호는 오원이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자란 그는 어릴때부터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고 그후 오랜 방랑생활속에서도 창작을 하고 후에 도화서 화원으로 되였다.

장승업은 조선화의 훌륭한 전통으로 되여온 풍부한 내용과 선명하고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화법을 자기의 그림에 구현하기 위하여 힘썼다.

그는 꽃과 그릇, 인물, 풍경, 동물 등 여러가지 사물을 화폭에 담았으며 모두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특히 꽃과 새, 동물그림에 능하였는데 동식물의 생태를 깊이 연구한 기초우에서 그 특성을 잘 살려 진실성있게 반영한것들을 찾아볼수 있다. 그의 그림에는 힘과 기백이 충만되여있는것이 많으며 전통적인 채색화를 독창적수법으로 발전시킨 측면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많은 화가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그도 봉건지배계급의 취미에 맞는 자연풍경, 동식물들을 주로 그렸으며 근로인민의 생활감정을 나타내는 생활풍속도는 그리지 못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련못가의 물새》, 《말》, 《매》, 《매화》, 《게》, 《꽃병》 등과 그밖에 많은 풍경화들이 있다.

최 익 현 (1833년-1906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익현은 대마도로 잡혀갔어도 원쑤들의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으로 순국하였다.》(《**김일성**저작집》 제45권, 16페지)

19세기말 20세기초 봉건유생출신의 반일의병장이다.

그의 자는 찬겸이며 호는 면암이다.

봉건유생집안에서 출생한 그는 어려서 이름있는 유학자이며 위정척사론자인 리항로에게서 글을 배우면서 영향을 받았다.

최익현은 봉건유생이였으나 애국적립장에서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정책과 외래침략자들의 침략행위를 폭로비판하였다.

1876년 2월에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일본침략자들과 불평등적이며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자 그는 이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최익현은 《조약》이 체결되자 류린석을 비롯한 50여명의 유생들과 함께 상소투쟁을 벌리였다. 상소문에서 그는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매국적인 민가일당의 투항주의정책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이것때문에 그는 귀양살이까지 하였으나 굴함없이 계속 싸웠다. 봉건정부는 유학자들속에서 이름높은 최익현을 회유하기 위하여 벼슬까지 주었으나 그것도 모두 거절하였다.

1905년에 일본침략자들에 의하여 비법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되자 최익현은 이 《조약》을 반대하는 상소투쟁을 벌리는 한편 인민들속에 반일의병투쟁에 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발표하고 70살이 넘은 늙은 몸으로 의병장이 되여 전라도 순창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지휘하는 반일의병대는 1906년 6월에 순창의 적통치기관들을 습격한데 이어 남양, 곡성 등지에서 맹렬한 활동을 벌리였다.

그런데 투쟁을 벌린지 얼마 못되여 그는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은 그를 회유하려고 여러가지 술책을 쓰다가 실패되자 쯔시마로 류배보냈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애국적지조를 꿋꿋이 지키다가 류배지에서 사망하였다.

봉건유생인 그가 발휘한 헌신적인 투쟁은 물론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봉건국가를 보위하려는것이였으나 침략자들과 맞서 굴함없이 싸운 그의 애국정신은 당시 인민들 특히 봉건유생들의 반침략투쟁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그의 문집으로는 《면암집》이 있다.

류 린 석 (1842년-1915년)

19세기말 20세기초 유생출신의 반일의병장이다. 그의 자는 여성이며 호는 의암이다.

강원도 춘천의 봉건유생집안에서 출생한 그는 당시 이름있는 유학자이며 위정척사론자인 리항로에게서 글을 배우면서 그의 사상적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자신이 위정척사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갑오농민전쟁후 인민들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이 반일의병투쟁에로 발전하고있던 1895년 11월에 류린석은 인민들의 반일의병투쟁에 고무되여 충청도 제천에서 반일의병투쟁에 나섰다.

류린석은 1896년 2월에 《8도의 여러 고을 인민들에게 호소한다.》라는 격문을 발포하여 전국인민들이 반일투쟁에 일떠설것을 호소하였다.

류린석의병대는 도처에서 일제침략자들과 친일매국노들을 소탕하였다.

그가 지휘한 의병대는 2월 중순에 충청도의 정치행정중심지인 충주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충주성을 빼앗으려고 여러차례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호된 타격을 받고 패주하였다. 반일의병대는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근 한달동안 충주성을 지켜싸우면서 일본침략자들에게 된벼락을 안기였다.

1896년 가을에 류린석은 중국 랴오둥지방으로 갔다가 1900년에 다시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였다.

1904년 로일전쟁이 일어난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더욱 격화되자 류린석은 평안도 개천을 중심으로 평안도지방에서 반일의병대를 뭇고 투쟁하였다.

류린석은 1907년이후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 반일활동을 벌렸다.

그는 1910년 1월에 13도의병도총재가 된 후에는 일제의 식민지《총독정치》를 반대하여 싸웠다.

그는 1913년이후 남만 관티엔현에서 반일활동을 계속하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류린석은 유학자였고 이름높은 반침략애국시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세상을 걱정하여》, 《국내인민들에게》, 《의병들에게》, 《망국노를 저주한다》, 《5적7적놈들에게》를 비롯하여 조국애와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한 시작품들, 《앞마을 가난한 집》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한 시작품 등 적지 않은 시작품을 썼다. 그의 시들은 애국적기백과 호소성이 강하고 시적표현이 예리하다.
류린석은 반일투쟁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계급적 및 사상적제한성을 나타냈으나 민족의식을 끝까지 지키고 반일투쟁에 몸바쳐나섰던 열렬한 애국적측면을 찾아볼수 있다. 그의 저서로는《의암집》이 있다.

홍 영 식 (1855년-1884년)

자는 중육, 호는 금석, 시호는 충민이다.
개화파의 핵심인물, 본은 남양이며 령의정 홍순목의 아들이다. 홍만식의 동생이며 철종의 사위이다.
1879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 승지를 거쳐 참판이 되였다.
일찌기 김옥균과 교제하면서 개화사상을 가지게 되였으며 개화파 핵심인물의 한 사람으로 되였다.
1881년 5월 박정양, 어윤중 등과 같이 사찰단성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였고 이해에 군부당상이 되여 군제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1883년 보병사 부사로서 미국을 다녀왔고 1884년 3월 우정국이 창설되자 그 총관이 되였다.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락성식에 각국 공사들과 6조의 대판들을 초대한 후 김옥균 등 개화파성원들과 함께 자중추부사 조녕하, 좌찬성 민태호, 후영사 윤태준, 전영사 한규직을 비롯한 일부 수구파거두들을 숙청하고 우리 나라에 첫 부르죠아정권을 세우는데 참가하였으며 개화파정부의 좌우영사 및 우의정으로 임명되였다.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실패한 후 국왕을 호위하다가 청나라침략자들과 수구파들에 의하여 살해되였다.

민 긍 호 (?-1908년)

20세기초 무관출신의 반일의병장이다.
려흥에서 출생한 민긍호는 1905년부터 강원도 원주진위대의 하급장교로 있었다.
1907년 8월 1일 일제가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서울에서는 조선군인들의 대규모적폭동이 있었다. 뒤이어 지방진위대들도 폭동을 일으켰다.
진위대를 해산시키려는 일제의 책동에 맞서 강원도 원주진위대는 민긍호의 지휘밑에 8월 5일 폭동을 일으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을 잡고 반일의병투쟁에 떨쳐나섰다.
민긍호는 반일의병대를 지휘하여 일제침략군 서울강점 47련대 3대대장 시모바야시놈이 이끄는 적《토벌대》의 공격을 쳐물리치고 활동지역을 급격히 넓혀나갔다.
의병대는 평창, 강릉, 양양, 간성, 고성, 통천지방과 횡성, 화천지방, 경기도의 려주, 리천, 죽산지방, 충청도의 제천, 충주지방 등 4개 지역을 무대로 하여 맹렬

한 활동을 벌렸다.

의병대는 여러차례의 전투에서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충주습격전을 통하여 적들에게 준 타격은 실로 컸다.

8월 22일 민긍호가 지휘한 800여명의 반일의병대는 놈들에게 《충주를 점령하겠다.》고 선언하고 충주를 두개 방면으로 포위공격하였다.

일제는 《토벌대》를 동원하여 의병대의 충주공격을 막으려고 발악하였다. 그러나 의병대는 놈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23일 새벽에 충주를 공격하였으며 적들과 일대 격전을 벌려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그곳을 장악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908년 2월 민긍호가 지휘하는 반일의병대는 강원도와 충청도 접경지대인 강림에서 포위공격해오는 일제《토벌대》놈들과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민긍호는 희생되였다.

이처럼 민긍호는 봉건군대출신으로서 강원도와 충청도 등 넓은 지대를 차지하고 마지막까지 잘 싸운 반일의병장이다.

신 돌 석 (?-1908년)

근대시기 반일의병장, 고향은 경상북도 영덕이다.

일제에 의하여 망국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되자 그는 평민출신으로서 반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06년 4월 강원도 평해(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에서 이 지방에서 활동하던 농민폭동자들과 산포수, 농민들로 의병대를 조직하였으며 1907년 대오를 더욱 확장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정미7조약》이 날조된 후 그는 의병대를 이끌고 일월산, 소백산 등 험한 산지에 의거하여 유동전을 적극 벌리였다.

그는 리강년과 함께 협동작전을 능숙하게 벌리면서 경상도와 강원도의 산악지대인 삼척, 울진, 례천, 청송 등지에로 활동범위를 넓혀나갔다.

1907년 11월 11일 리강년과 함께 순홍을 공격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관들을 파괴, 소각하고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처단하였다.

당시 일제는 《11월에 들어와 적리(의병장) 리강년, 신돌석의 무리는 경상북도 일월산부근에서부터 례천에 걸쳐 〈략탈〉과 〈횡포〉가 극심하다.》고 비명을 질렀다.

간악한 일제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많은 상금까지 걸어놓고 《토벌》에 미쳐날뛰였으나 1908년에도 그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의병대를 지휘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해 11월 일제의 간계에 넘어간 고모사촌형 김상렬(김자성)이 그를 집으로 유인하여 독한 술을 먹인 다음 밤에 삼형제가 달려들어 도끼로 그를 학살하였다.

그는 원쑤일제에 대한 증오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높았으나 계급적 및 민족적자각의 미숙성으로 하여 반일투쟁에서 일련의 제한성을 나타내였다.

리 린 영 (1867년-1909년)

근대시기 반일의병장, 리인영이라고도 하였고 별명은 리시영이다.

경기도 려주의 유생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일찌기 의병투쟁에 나서서 의병대장으로 활동하였다.

1896년 문경에서 의병투쟁을 벌렸으며 1905년이후 강원도, 경기도일대에서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강원도 원주에서 각지에 격문을 띄우고 의병모집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전국의 수많은 의병들을 한 대오에 련합시키였다.

련합편성된 의병대의 13도창의대장으로 된 그는 경기도 양주에 가서 활동하다가 1908년 1월 이미 준비해온 서울공격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병부대들이 서울로 육박하고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지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의 반일의병대는 서울공격에서 실패하였으며 그후 다시 추서지 못하였다.

그는 충청북도 황간지방에 은신하여 있다가 체포되여 희생되였다.

리 동 휘 (1873년-1935년)

애국문화운동가이며 반일독립운동가이다.

호는 성재, 함경남도 단천의 빈농가에서 태여났다.

리조말기 무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07년까지 조선군대 륙군참령으로, 강화진위대 대대장을 하다가 조선군대해산후 애국문화운동에 나섰다.

그는 강화도에 보창학교를 세운 다음 산하에 21개의 분교를 내왔으며 1908년 2월에는 섬안의 청소년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국적인사들을 망라하여 《학우회》를 뭇고 섬안에 56개의 사립학교를 세우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서북학회》에서 주동적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비밀정치단체인 《신민회》에 참가하였다.

1911년 일제가 조작한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과 관련하여 1년간 징역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후 만저우에 가서 독립군인재양성에 힘쓰면서 반일독립운동을 벌렸다.

1917년 로씨야에서 10월혁명이 승리하자 씨비리에서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였으며 1918년 6월에는 하바롭스크에서 사회주의적사상단체인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고 그 의장으로 되였다.

1919년 상하이에 가서 《상하이림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얼마동안 하였다.

1921년 상하이에서 《한인사회당》을 《고려공산당》으로 개칭하는데 참가하였다.

이것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의 한 종파집단인《상하이파》로 되였다.

《상하이림시정부》내에서 민족주의자들사이의 파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직을 내놓고 울라지보스또크에 가서 조선공산당창건준비사업을 하였으나 파쟁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1928년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후 울라지보스또크의 《혁명자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죽었다.

홍 범 도 (1868년-1943년)

20세기초 반일의병장이며 그후 독립군지휘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명한 의병대장인 홍범도는 자체로 쇠돌을 녹여 화승대를 만들고 철알을 부어가지고 왜놈들을 무찔렀습니다.》(《**김일성**전집》 제27권, 225페지)

홍범도는 자체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고 반일의병대오를 뭇고 반일투쟁을 힘있게 벌린 유명한 반일의병장이다.

평양에서 출생한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15살까지 머슴살이를 했고 1883년부터 평양감영군에 복무하다가 회피하여 1888년부터 황해도 수안군 제지공장에서 로동을 하였다.

1894년(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고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책동이 더욱 강화되자 그는 반일투쟁을 벌릴 결심을 품고 함경도 풍산군(김형권군) 로은리에서 포수생활을 하였다.

1907년 홍범도는 포수들을 묶어세워 반일의병대오를 조직하고 풍산을 비롯한 함경도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의병대는 1907년 11월 하순에 삼수, 갑산지방으로 드나드는 길목인 북청, 후치령에 매복하였다가 일제《토벌대》 미야베중대를 소멸하였다.

12월말에 홍범도가 거느리는 의병대는 포위공격해오는 일제《토벌대》와 혜산진 및 갑산수비대와 치렬한 격전을 벌려 적들을 소멸하였다.

홍범도의병대는 1908년 1월초에 적의 수비대가 도사리고있는 갑산읍을 공격하였으며 그후 대오를 나누어 함경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적들에게 련속 타격을 주었다.

1909년 4월에 홍범도의병대는 후창읍(김형직군)을 공격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홍범도의병대는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전투를 벌려 일제침략군과 그 주구놈들을 소탕하였으며 삼수, 갑산일대를 비롯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지역의 인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함경도의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홍범도의병대는 일제의《토벌》공세가 극심해지자 1910년 가을에 압록강을 건넜다. 그는 첫시기 로씨야 원동지방에서 활동하다가 1917년에 베이만(북만)으로 이동하였으며 거기에서 독립군부대를 조직하였다.

수백명에 달하는 큰 무장성원으로 이루어진 홍범도의《조선독립군》은 초기에 지엔다오(간도)의 엔지현 밍웨거우와 왕칭현 봉오골 등지를 거점으로 활동을 벌렸다.

홍범도의 《조선독립군》은 당시 지엔다오지방에서 활동한 독립군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큰 부대였다.

1919년 3.1인민봉기를 계기로 홍범도는 200여명의 성원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갑산, 혜산 등지를 오가면서 일본병영을 습격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타격을 주었다.

1919년 10월 홍범도는 다시 부대를 이끌고 강계와 만포, 자성 등지를 기습하여 일제침략군을 수많이 소탕하였다.

홍범도의 《조선독립군》은 1920년 6월초에 왕칭현 봉오골전투를 벌려 120여명을 살상하였고 그해 10월에는 허룽현 칭산리전투에서 일본침략군 련대장을 포함한 10여명의 장교들과 수백명의 일본침략군놈들을 격멸소탕하였다.

칭산리전투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들이 대대적인《토벌》만행을 감행하여나오자 이에 겁을 먹은 독립군은 그와 맞서 싸우지 못하고 허이룽강연안의 국경지방으로 이동하였다. 독립군은 여기에서 전투력량을 재정비한 후에 일제침략군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벌리자는것이였으나 자기의 계급적제한성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권력싸움을 벌리였다.

1921년 독립군병사들이 서로 총질을 하고 칼부림을 하여 흑하를 조선청년들의 붉은피로 물들인 흑하사변후에 여러 독립군부대는 4분5렬되고 홍범도는 로씨야 원동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여 활동을 계속하다가 1943년에 로씨야에서 사망하였다.

이처럼 홍범도는 자체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의병대오를 뭇고 독립군을 조직하여 일제와 굴함없이 싸워 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는 하였으나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정확한 방침과 전략전술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다른 의병대오나 독립군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싸우지 못함으로써 반일투쟁에서 실패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탁월한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송 병 준 (1868년-1925년)

리조말기 일제의 조선강점을 적극 협력한 친일매국역적이다.

송병준은 함경남도 장진에서 출생하였다. 이자는 과거(무과)에 합격하여 도호부도사, 사헌부감찰 등의 벼슬을 하였다. 오직 출세의 길만을 노리던 그는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왕의 비밀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가서 김옥균을 살해하려고 날뛰였다. 그후 귀국하여 봉건왕정에서 벼슬자리를 얻어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놈의 주구로 전락되였다.

1904년 로일전쟁이 일어나자 《통역》의 간판을 가지고 기여든 이자는 일본놈의 조종밑에 윤시병과 함께 친일주구단체인 《유신회》를 조작하였으며 그 명칭을 《일진회》로 고쳤다.

그는 로일전쟁은 《조선의 독립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떠벌이면서 일본침략군의 군사행동을 《협조》할것을 설교하였다.

송병준은 1907년 헤그밀사사건후 리완용놈과 함께 고종을 찾아가 왕자리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이해에 리완용친일내각이 조작되자 그는 농상공부대신자리에 들어앉았으며 그후 내무대신이 되였다.

1909년 그는《한일합방성명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천추에 용서 못할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1910년후에 그는《총독부》중추원의 고문자리를 얻어하면서 일제의 식민지총독정치에 협력하였다.

일제의 주구 송병준은 이러한 매국배족의 대가로 일본의 백작칭호를 받았다.

송병준은 나라와 민족을 일제놈들에게 팔아먹은 천추에 용서할수 없는 친일매국역적이다.

리 용 구 (1868년-1912년)

리조말기의 친일매국역적이다.

리용구는 경상도 상주에서 출생하였다. 그후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의 영향을 받아 동학도가 되였다.

1894년(갑오)농민전쟁후 최시형과 함께 체포되여 감옥에 갇히였다가 변절하여 출옥한 후 친일주구로 전락되였다.

1904년 로일전쟁이 개시된 후 친일매국역적 송병준과 결탁하여 《일진회》를 조작하고 일본침략군의 침략행위를 적극 협조하여나섰다.

그는 《일진회》회장이 되여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는 1909년 12월에 《한일합방성명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일제의 조선강점을

《요청》하는 매국배족적인 놀음을 벌리였다.

그는 리완용, 송병준놈과 함께 삼천리 아름다운 강토와 2천만동포를 일제놈들에게 팔아넘긴 친일매국역적이다.

리 완 용 (1858년-1926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일제에게 넘겨준 천추에 용서못할 극악한 친일매국역적이다. 리완용은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하여 10살때 리호준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는 25살때 문과에 합격하여 규장각 대교, 홍문관 수찬, 의정부 검상 등을 지냈다. 29살때 육영공원(반동지배층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다.

리완용은 대원군과의 사돈관계를 리용하여 1887년 10월 첫 주미전권대사인 박정양을 따라 참찬관으로 미국에 갔으며 다음해에 귀국하여 승정원 동부승지, 리조참의, 외무참의 등을 지냈다. 그는 이해에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대리공사로 임명되여 2년간 미국에 있었다.

1890년 미국에서 돌아온 그는 성균관 대사성, 형조참판 등을 지내면서 친미파로서의 본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일전쟁후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나라안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정치적사건이 련이어 일어나게 되자 리완용은 민족반역자로서의 본성을 드러냈다.

민비살해사건후 정부가 친일파로 꾸려지자 당시 학부대신으로 있던 이자는 정변을 일으켜 친미정권을 조작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895년 10월에 미제침략자들이 영춘문사건(혹은 춘생문사건)을 도발하였을 때 이 왕궁습격사건에 적극 가담하였다. 영춘문사건이 실패하게 되자 리완용은 리범진 등 친로파들과 손을 잡고 짜리로씨야세력에 붙었다.

친미파로부터 친로파로 변신한 그는 1896년 2월에 리범진, 리윤용과 함께 국왕(고종)과 그의 아들을 짜리로씨야공사관으로 유인해내였다. 이것이 이른바 《아관파천》이다.

친로파들은 《아관파천》사건후 국왕을 강박하여 친로정권을 조작하였으며 리완용은 이 정권의 외무대신자리를 차지하였다.

1897년 고종이 짜리로씨야공사관으로부터 왕궁으로 돌아오고 친로파정권이 무너진후 리완용은 평안남도관찰사, 전라북도관찰사를 지냈다.

로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에서 짜리로씨야세력이 밀려나게 되자 만고역적 리완용은 친로파로부터 친일파로 넘어갔다.

1905년 11월 17일 이또 히로부미의 강박밑에 진행된 《을사5조약》초안을 토의하기 위한 내각대신들의 회의에서 당시 학부대신자리에 있던 리완용은 참정대신 한규설 등 여러 대신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조약》초안을 적극 찬성해나섰다. 그리하여 비법적인 《을사5조약》(《한일협상조약》)이 날조되게 되였다.

리완용은 1907년 5월 이또 히로부미의 추천으로 친일괴뢰정부의 총리대신으로 되였으며 헤그밀사사건후 고종의 강제퇴위와 조선군대의 강제해산, 비법적인 《정미7조약》의 강제날조에 발벗고나섰다.

친일매국역적인 리완용은 1910년 8월 22일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합법화

하기 위하여 날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는 《모임》에서 한마디의 보충이나 수정도 없이 15분만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천인공노할 매국역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그후에도 리완용은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으로 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적극 복무하였으며 친일앞잡이노릇을 계속하다가 1926년에 서울에서 죽었다.

이처럼 리완용은 정세의 추이에 따라 친미파로부터 친로파로, 친로파로부터 친일파로 번져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침략자들에게 팔아바치며 치부해온 사대매국노였으며 첫째가는 친일매국역적이다.

박 은 식 (1860년-1926년)

20세기초 애국문화운동가이다. 그의 호는 백암, 겸곡이다. 박은식은 황해도 은률의 량반집안에서 태여났다.

구국의 뜻을 품고 자란 그는 30대에 들어서서는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무대에 직접 나섰다.

그는 민족이 정치적으로 각성되여 애국열의가 높아지고 교육이 발전하여 사람들의 문화적수양이 높아지면 능히 국권을 회복할수 있다고 보면서 애국적인 언론출판활동을 벌렸다.

그는 장지연과 함께 《황성신문》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지예속화책동과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박은식은 비법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 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당한 엄중한 정세하에서 국권회복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 1906년 10월에 애국문화단체인 《서우학회》를 조직하였다.

비법적인 《정미7조약》의 강압날조와 조선군대의 강제해산후 일제의 침략책동이 강화된 조건에서 애국문화운동의 통일과 단합을 이룩하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이리하여 1908년 1월에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를 통합하여 《서북학회》를 내왔다. 박은식은 그 회장으로 되였다.

1910년에 그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지엔다오지방,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11년에 베이징에서 반일정치단체인 《동제사》를 조직하고 조선독립운동에 대한 대외선전에 힘썼다.

그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을 반대하고 우리 나라의 력사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나라 력사편찬사업도 벌렸다.

1914년에 우리 나라의 근대력사 특히 반침략투쟁사를 기본내용으로 하는《한국통사》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망명지에서 구국활동을 계속하다가 1926년에 사망하였다.

장 지 연 (1864년-1921년)

19세기말 20세기초 애국문화운동가이다.

그의 이름은 지윤 또는 지연이고 자는 희명이며 호는 위암, 숭양산인이다.

장지연은 경상북도 상주의 선비집안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서당에 가기 전에 《천자문》을 뗐고 6살때 이미 《동몽선습》을 비롯한 책들을 다 배우고 익

혀 마을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라고 하였다.

그는 유학공부를 하여 30대에 들어서서 과거(진사)에 합격하였으며 봉건정부의 사례소 내부주사로 되였다.

장지연은 1894년(갑오)농민전쟁후에 일제의 조선강점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 정세밑에서 봉건정부의 관료직을 스스로 그만두고 국권회복을 위한 언론출판활동무대에 진출하였다.

그는 《황성신문》의 주필,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론설을 통하여 일제의 침략책동과 봉건통치배들의 매국적죄행을 폭로하였으며 부패한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모든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할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그는 신문에 발표한 수많은 론설가운데서도 1905년 비법적인《을사5조약》을 강제로 날조한 전말을 실은 《시일야방성대곡》은 일제의 침략책동을 낱낱이 폭로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졌다.

일제는 론설이 발표된 후에 장지연을 체포구금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언론활동이 더욱 강화되자 질겁하여 1906년 1월에 장지연을 석방하고《황성신문》의 발간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황성신문》을 통하여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일련의 애국적계몽활동도 벌렸다.

1904년 3월에 장지연을 비롯한 애국적지식인들은 55개 조로 된 정치개혁안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 정치개혁안에서는 외국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체로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부르죠아적립헌군주제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는 의미에서 진보적이고 애국적이였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당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일투쟁의 요구를 전면에 제기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장지연은 이렇듯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적언론출판활동을 하였을뿐아니라 정치계몽운동도 벌렸다.

1906년 3월 그는 국권회복을 위한 정치단체인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였다.

《대한자강회》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조건에서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며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을 정치조직에 결속시키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놀았다.

이 정치단체가 1907년 8월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게 되자 장지연을 비롯한 애국적지식인들은 1907년 11월에 《대한자강회》의 직접적계승인 《대한협회》를 조직하였다.

장지연은 그후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계속할수 없게 되자 1908년 울라지보스또크로 가서 계속 문필활동을 벌렸다. 거기에서도 자기 활동을 더 할수 없게 되자 국내로 돌아와 언론출판활동을 계속하였다.

장지연은 이처럼 애국문화운동가로서 언론출판활동과 정치계몽운동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민족적자각을 높여주고 반일애국정신을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애국문화운동가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장지연도 자기 활동을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선진지식보급에 그치고 대중을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로 궐기시키는 적극적인 활동은 벌리지 못하였다.

남 궁 억 (1863년-1940년)

근대시기 애국문화운동가이다.

자는 치만, 호는 한서, 도사 남궁영의 아들이다.

1884년 관립영어학교(통변학교)를 졸업하고 1886년 내무부 주사로 임명되여 왕궁에서 통역을 하였다.

1893년부터 칠곡부사, 양양군수를 거쳐 1895년 내무부의 토목국장을 하였다.

1896년 《독립협회》를 창설하고 부회장이 되였으며 《만민공동회》의 주요인물로 민권운동을 조직하였다.

1898년 9월 《황성신문》을 창간하고 사장으로 되여 애국적인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1903년 신문에 반일기사를 실었다는 리유로 4개월간의 금고형을 받았으나 그후 반일언론활동과 애국문화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렸다.

1907년부터 《대한협회》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08년부터 순 우리 글로 된 《교육월보》를 발간하였다.

일제에 의한 1910년 《한일합병》조작후에는 그리스도교신자의 간판밑에 배화녀학교 교원으로, 청년학원 원장으로 있다가 1918년 강원도 홍천 모곡에 가서 모곡서당을 세우고 그것을 점차 사립학교로 전환시켜놓고 반일애국교육에 힘을 넣었다.

1933년 학생들에게 조선력사를 가르쳤다는 리유로 일제에게 체포되여 3년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징역살이를 하였고 출옥후에 죽었다.

저서로는 《동사략》(4권), 《조선최근사》(1권 필사본)가 전해지고있다.

주 시 경 (1876년-1914년)

19세기말 20세기초 언어학자이며 교육자, 애국문화운동가이다.

그의 이름은 상호 또는 시경이며 호는 한흰샘이다.

그는 황해도 봉산군의 선비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13살에 고향을 떠나 양할아버지가 사는 서울에서 유학공부, 한문공부를 하였다.

그는 한문을 학습하면서 서당훈장이 한문의 뜻을 조선말로 새겨주는것을 보고 만일 우리 글로 한문을 대신하여 쓰면 배우기 쉽고 쓰기에도 편리할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를 늘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있던 그는 커가면서 조선어를 연구하여 우리 말과 글을 잘 다듬으며 그것을 널리 쓰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일생을 바칠 굳은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유학공부를 그만두고 조선어와 함께 신학문을 공부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1894년에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 국문통일운동을 발기하였으며 1895년에는 《국문동식회》를 조직하고 국문연구를 조직지도하였다.

이렇듯 주시경은 20대청년시기에 벌써 조선어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애국문화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주시경은 리봉운, 최광옥, 지석영을 비롯한 애국적인 언어학자들과 함께 국문운동을 더욱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주시경은 우선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조선인민의 민족어로서의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널리 쓸것을 해설선전하였다.

그는 1896년-1898년에 독립신문사에서 첫 국문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문필활동을 벌렸다.

1904년에는 상동청년학원에서 조선말강사로 활동하였고 1906년에는 《서우학회》기관지 《서우》를 발간하였는데 그는 《서우》 제2호에 《국어와 국문의 필요》라는 글을 발표하여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널리 쓸데 대하여 해설선전하였다.

주시경은 조선어를 깊이 연구하여 우리 말과 글을 다듬고 세련발전시키는데도 힘을 넣었다.

그는 1907년 당시 봉건정부 학부안에 조직되였던 《국문연구소》를 지도하였다. 《국문연구소》에서는 국문의 원리와 연혁, 현재의 통용과 장래발전 등의 방법을 연구하였다.

1910년에 그는 《조선어강습원》을 조직하여 인민들속에서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하고 조선말을 교육하는데 힘썼다.

그의 저서로는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말의 소리》 등이 있다.

주시경은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에 항거하여 조선말을 보존하며 그것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려고 노력한 이름있는 언어학자이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지 석 영 (1855년-1935년)

20세기초 애국문화운동가이며 의학자이다. 그의 자는 공윤, 호는 송촌이다.

서울에서 태여난 지석영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두법을 도입하고 보급하였으며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한 의학자의 한 사람이였다.

그는 우두접종법을 널리 보급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준 천연두를 일정하게 막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1879년에 직접 우두를 접종해본 성과에 기초하여 1880년에 두묘(우두원료약)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1882년에 전라도 전주, 충청도 충주에 우두국(우두접종소)을 내오도록 하는 한편 여러 군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두접종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는 또한 1885년 《우두신설》이라는 책을 써서 자체로 400부 인쇄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책은 우리 나라 학자가 쓴 첫 신의학책으로서 우리 나라 신의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석영은 신의사를 키우기 위해 1899년에 서울에 세운 의학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여 일제가 이 학교를 《대한의원》에 강제편입시킬 때까지 10년간 일하면서 수십명의 의사를 키워냈고 신의학책들을 우리 말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그는 또한 신의사들과 함께 위생에 대한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특히 전염병이 위생을 잘 지키지 않는데서 생긴다는것을 널리 선전하였으며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급격히 퍼지기 시작한 성병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것을 열렬히 주장하였다.

지석영은 의학자였을뿐아니라 애국문화운동가로서 국문활동을 통하여 대중을 반일애국운동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봉건통치배들의 민족허무주의적행위로 하여 우리 말과 글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는 형편에서 우리 나라의 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1905년에 《신정국문》을 써서 조선어의 연구성과를 공고히 하였으며 1907년 봉건정부안에 조직되였던《국문연구소》에 망라되여 주시경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과 함께 국문의 원리와 연혁, 현재의 통용과 장래발전 등을 연구하였다.

지석영의 이러한 활동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으나 우리 나라의 의학과 언어학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량 기 탁 (1871년-1938년)

근대시기 애국적정치문화활동가이다.

호는 운강, 고향은 평양이며 일찍부터 반일애국정신이 강하였다.

외국에서 류학하고 돌아와 1903년부터 례식관을 하다가 사직하고 1905년부터 《대한매일신보》의 총무로 있으면서 반일언론활동의 앞장에 섰다.

1907년부터는 비밀정치단체인 《신민회》의 경기도와 삼남일대의 지부책임자로 있으면서 애국문화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그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한영사전》을 편찬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을 지도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후 만저우로 망명하여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벌리다가 일제에게 체포되여 8년형을 받았다.

형기를 마친 그는 1920년대에 남만저우에서 오동진과 함께 《통의부》, 《정의부》 등 민족주의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는데 참가하였다.

1931년 일제가 만저우를 강점하게 되자 티엔진, 베이징을 거쳐 상하이로 갔다. 《상하이림시정부》(국무령), 《고려혁명당》(위원장)조직에도 관계하였다.

그는 난만에서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사업이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던 때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통합운동에 인입되여 활동하였다. 중국 쟝쑤성에서 죽었다.

신 채 호 (1880년-1936년)

애국문화운동가이며 력사가이고 문학가이다.

그의 호는 무애 또는 단재이다.

신채호는 충청북도 연의군 문의지방의 봉건유생집안에서 태여났다.

그는 어린 시기 유교경전을 공부하여 벌써 20살때에 리조봉건국가의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박사벼슬을 지냈다.

그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민족적위기가 더욱 격화되자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반일투쟁에 나섰다.

그는 첫시기 애국문화운동에 참가하여 1902년부터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하여 잡지 《서우》, 《서우학회월보》 등에 인민들의 민족적감정을 높이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는 문필활동을 하는 한편 1907년 9월에는 량기탁, 리동휘, 리갑, 리승훈 등과 함께 반일비밀정치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정치활동을 벌렸다.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그는 1909년에 로씨야의 연해주에 망명하여 1912년 울라지보스또크에서 리동휘, 리갑 등과 함께《광복회》를 조직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그후 그는 1914년에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잡지 《천고》를 발간하여 반일애국사상을 선전하기에 힘썼으며 1919년 3.1인민봉기가 있은 뒤에는 상하이로 가서 조선사람들이 발간하는 신문을 맡아보았고 중국신문에도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애국문화활동가일뿐아니라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력사가이며 문학가였다.

그는 나라의 독립을 제대로 유지하자면 인민들이 자기 나라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자신이 조선력사를 깊이 연구하고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국내에서 활동할 때는 물론 해외에 나가서도 력사연구를 계속하였다.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 《을지문덕전》, 《리충무공전》 등 수많은 력사책들을 저술하였다.

그는 문학작품도 많이 썼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소설 《꿈하늘》, 《룡과 룡의 대격전》, 《건륭황제의 꿈》을 비롯하여 시 《너의것》, 《새벽과 별》, 정론 《선언》, 《력사와 애국심과의 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투쟁정신, 나라의 독립에 대한 념원이 반영되여있다.

신채호는 자신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반일의병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했다.

1920년이후에는 무정부주의련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8년에 일제헌병대에 체포되여 10년형을 받고 뤼순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다가 1936년 2월에 옥사하였다.

리 준 (1859년-1907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준은 제국주의렬강대표들의 면전에서 스스로 배를 갈라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정신을 보여주었고 안중근은 할빈역두에서 이등박문을 격살하고 독립만세를 웨쳐 조선사람의 기개를 과시하였다.》(《**김일성**저작집》 제45권, 16페지)

20세기초의 반일애국운동가이다. 그의 이름은 성재, 여천, 신재, 춘이며 자는 순칠이고 호는 해사, 청하 혹은 해옥이다.

리준은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하였다.

29살때 과거(초시)에 합격하였으며 함흥 순릉참봉으로 잠간 일했다.

1895년에 새로 설치된 법관양성소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졸업후 한성재판소의 검사보가 되였다.

1896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와세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돌아왔다.

귀국후 리준은 당시 치렬하게 벌어지던 인민들의 반봉건반침략투쟁에 고무되여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그는 1904년 6월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의 토지략탈을 감행하기 위하여 황무지개간을 강요하였을 때에 놈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의 앞장에 섰다.

이해 12월에는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와 대항하기 위하여 애국적지식인들과 함께 《공진회》를 조직하고 그 회장이 되여 친일주구들과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다.

《공진회》가 강제해산당한 후 그는 1905년 5월에《헌정연구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여 근대적인 국가제도를 세우기 위한 활동을 벌렸다.

리준을 비롯한《헌정연구회》성원들은 군중강연과 모임을 조직하고 강령과 취지의 내용을 침투하였으며 《황성신문》과 출판물들을 통하여 《헌정요의》를 체계적으로 대중속에 선전하였다.

비법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 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당하고 일제식민지의 처지로 전락되자 그는 1906년 10월에 애국문화운동자들과 함께 서울에서《한북흥학회》를 조직하고 청소년들과 대중속에 애국심과 교육열의를 고취하였다.

1907년 2월이래 벌어진 국채보상운동의 주요인물로서 맹렬한 활동을 벌렸다.

리준의 활동이 적극화되자 일제와 봉건통치배들은 그의 애국적인 정치활동을 거세하기 위하여 그를 봉건정부의 평리원 검사(최고재판소 판사 격)로 임명하였다. 봉건정부의 법관이 된 그는 합법적인 벼슬자리를 리용하여 부패한 봉건관료배들의 죄행을 폭로하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고위급관료들과의 충돌을 가져왔으며 결국 1907년 봄 검사자리에서 파면당하게 되였다.

1907년 6월에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것을 알게 된 리준은 이 회의를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의 비법성에 대한 국제적사회여론을 환기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다.

그는 《만국평화회의》에 환상을 가지고 이 회의에서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이 일제의 날강도적인 행위로 날조되였다는것을 폭로함으로써 유미자본주의렬강들의 동정을 얻어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리준은 리상설(전 의정부 참찬), 리위종(전 로씨야주재 조선공사관 서기관)과 함께 고종의 밀서(비밀서한)를 가지고 헤그로 갔다. 헤그에 도착한 리준일행은《만국평화회의》에 조선대표로 참가하겠다는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회의의장인 짜리로씨야대표를 비롯하여 제국주의자들은 각종 구실밑에 조선대표의 참가를 거부하였다.

리준일행은 회의에 정식대표로 참가할수 없는 조건에서 헤그에 있는 국제기자협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들을 통하여 조선에서 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날날이 폭로규탄하고 그것을 파탄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해줄것을 세계여론에 열렬히 호소하였다.

회의정식대표로 참가하지 못한 리준은 회의 마지막에 연단에 뛰여나가 일제의 조선침략책동을 폭로단죄하고 렬강들의 동정을 얻어 국권을 회복하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리준은 회의연단에서 배를 갈라 죽음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항거하였다. 이것이 조선근대력사에서 말하는 헤그밀사사건이다.

리준의 죽음은 피끓는 애국심에서 나온것이기는 하지만 제국주의자들, 외세에 의거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안 중 근 (1879년-1910년)

20세기초의 반일애국운동가이다. 그의 어릴때 이름은 응칠이다.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에서 비교적 일찌기 개명한 안태훈의 맏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높고 성품이 강직하였다. 그는 조국의 력사를 연구하고 선조들의 애국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총다루는 법도 열심히 배워 사격술을 꾸준히 련마하였다.

1894년(갑오)농민전쟁과 반일의병투쟁을 목격하면서 안중근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에 가슴끓이며 조국과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반일투쟁에 나설 각오를 굳게 다지게 되였다.

그는 군사학을 연구하고 자기 집 재산을 팔아서 무기도 구입하였으며 지방 소년들로 《향군회》를 조직하고 군사훈련도 은밀히 진행하였다.

1905년에 안중근은 중국 상하이에 가서 동료들을 규합하여 애국적인 활동을 벌리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였다.

1906년 삼화부(남포시 룡강군)로 이사하여 애국적인 지식인들과 련계를 맺고 애국문화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서우학회》를 조직하는데 참가하였으며 남포지방에 삼흥학교를 세우고 애국적인 인재양성에 힘썼다.

1907년 8월이후 안중근은 전국적규모로 확대발전하는 반일의병투쟁에 고무되면서 손에 무기를 들고 반일의병투쟁에 나섰다. 그는 초기에 동료들과 함께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반일의병투쟁을 준비하다가 사전에《일진회》도당들의 반역행위로 비밀이 탄로되자 해외로 망명하였다.

1907년말에 로씨야의 연해주로 간 그는 동료들을 규합하여《단지동맹》을 뭇고 거기에서 반일의병양성에 힘을 기울이였다.

그는 1909년 6월에 반일의병대를 이끌고 북부국경일대에 진출하여 함경북도 경흥 등지에서 일본수비대를 습격함으로써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애국문화운동과 반일의병투쟁을 통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안중근은 침략의 원흉을 처단함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09년 10월에 일본 추밀원의장자리에 있던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이등방문)놈이 베이만시찰단의 명목으로 만저우로 간다는 정보를 들은 안중근은 이 기회에 그놈을 처단할것을 결심하였다.

1909년 10월 19일 안중근은 우덕순과 조도선, 류동하를 창춘과 하얼빈사이의 중간역인 채가구에서 그놈을 사살하도록 하고 자신은 마지막역인 하얼빈역을 맡아나섰다.

채가구에서 원쑤놈을 사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그놈을 처단할 결심을 가지였다.

10월 26일 아침 하얼빈역두에는 로씨야군대, 청국군대가 삼엄한 경계를 펼쳐놓고 개미 한마리 얼씬 못하게 하였다. 홈에는 이또놈과 회견하기로 되여있었던 로씨야의 재무대신 꼬꼬흐체브와 각국 령사들을 비롯한 고위관리들 그리고 일반군중들로

붐비고있었다.

정각 9시 특별렬차가 하얼빈역에 들어서고 이또 히로부미놈이 차에서 내려 꼬꼬흐체브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들과 인사를 마치고 뒤이어 그곳에 정렬하고있던 로씨야위병대를 사열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안중근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이또 히로부미놈의 가슴에 복수의 총탄을 퍼부어 즉사시키고 계속하여 이또놈의 비서관과 령사, 만철리사놈을 쏘았다.

원쑤를 쐈죽인 그는《조선독립 만세!》를 몇번이나 소리높이 부름으로써 조선인민의 불굴의 애국적기상을 시위하였으며 침략자들을 전률케 하였다.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여 뤼순감옥에 압송된 안중근은 놈들의 갖은 고문과 온갖 회유기만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1910년 3월 26일 일제교형리들에 의하여 사형당할때까지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열혈청년 안중근의 애국적소행은 일제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당시 조선인민들의 반일투쟁을 고무하였다.

그러나 안중근의 애국적소행은 조선침략의 원흉을 처단했을뿐 일제의 조선침략을 막지 못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하여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하자면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탁월한 령도자의 지도밑에 단합된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장 인 환 (1877년-1930년)

조선정부의《외교고문》으로 조선에 기여들었던 미국놈 스티븐스를 처단한 애국청년이다.

평양에서 태여난 그는 생활난으로 하여 1905년 2월 하와이에 이민으로 끌려가 사탕농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1906년 8월 공부를 해보려고 철도로동자, 어업로동자로 일하였다.

언제나 일본침략자들에 대한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있던 그는 그후 반일의병운동과 애국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해외에서 애국활동을 하였다.

1904년 8월에 침략적인《한일협정서》일명《외국인고문용빙협정》의 강압체결후 일제와 공모하여 봉건정부의《외교고문》으로 기여들어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을 집행해오던 미국놈 스티븐스는 1905년 11월 비법적인《을사5조약》의 날조로 일제의 조선강점이 실현되자 자기 자리를 일본놈에게 넘겨주고 제 소굴인 미국으로 돌아갔다.

1908년 3월 21일 쌘프랜씨스코에 도착한 이놈은《기자회견》이란것을 벌려놓고 미국신문기자앞에서《일본이 조선을〈보호〉하게 되면서부터 조선에 유익한것이 많아졌다.》느니 뭐니 하면서 일제의 조선강점을 정당화하고 조선인민을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미국신문들에 보도되였다.

이에 격분한 장인환은 전명운과 함께 재미조선동포들이 3월 22일에 쌘프랜씨스코공립관에서 공동모임을 가지고 대표를 뽑아 스티븐스놈이 들어있는

려관으로 찾아가 사태의 진상을 외곡한데 대하여 항의하고 그놈의 죄행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이놈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일찌기 짜리로씨야에 먹히웠을것이다.》, 《일본이 조선에서 실시하는 〈통감정치〉는 조선의 개발과 조선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있다고 줴치면서 제놈의 발언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지껄이였다.

장인환은 우리 민족을 모독하고 일제침략자들의 침략행위를 극구 찬양하는 스티븐스놈을 처단해버릴 결심을 하였다.

때마침 스티븐스놈이 쌘프랜씨스코를 떠나 워싱톤으로 가기 위하여 3월 23일 오클랜드역에 나간다는것을 알아낸 장인환은 전명운 애국청년과 함께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구내에 나가 그놈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오전 9시 30분 드디여 스티븐스놈이 미국주재 일본공사놈과 함께 역에 도착하여 승용차에서 내리고있었다. 이때 전명운이 먼저 스티븐스놈을 저격하려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되였다. 이 순간에 다른쪽에서 원쑤를 노리고있던 장인환이 복수의 명중탄을 퍼부었다.

총에 맞은 스티븐스놈은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이틀만에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스티븐스놈의 처단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국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였다.

미국경찰들은 장인환을 체포하여 25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하였으나 그는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0년만에 출옥하였다.

장인환의 이러한 애국적투쟁은 국내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애국적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일제와 미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강 우 규 (1855년-1920년)

《조선총독》 사이또놈에게 폭탄세례를 안긴 독립운동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환갑이 넘은 강우규로인까지도 사이또총독의 면전에 폭탄을 던지였다.》
(《**김일성**저작집》 제45권, 16페지)

그의 자는 찬구이며 호는 일우이다.

평안남도 덕천군출신인 강우규는 30살에 함경남도 홍원으로 이사하여 고려의술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한편 사립학교를 세워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활동을 벌렸다.

일제의 조선강점후 로씨야의 연해주 울라지보스또크 신한촌에 망명하여 그곳에 조직되였던 독립운동단체에 망라되여 활동하였다.

1919년 9월에 악명높은 살인마인 사이또놈이 제3대《조선총독》으로 기여든다는 소식을 들은 강우규는 61살의 늙은 몸이였으나 사이또놈을 처단할 결심을 품고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1919년 9월 2일 일제헌병경찰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사이또놈이 기여드는 서울 남대문역에 들어가 사이또놈이 마차에 올라 떠나려는 순간에 품속에 감추었던 폭탄을 던졌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남대문역사는 일대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강우규로인이 던진 폭탄에 의하여 《조선총독부》무관 무라다소장놈을 비롯하여 29명의 중경상자가 났다.

강우규로인은 비록 사이또놈을 처단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조선인민의 불굴의 애국적투지를 보여주었으며 적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리 재 명 (1890년-1910년)

반일애국청년, 고향은 평양이며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13살에 그리스도교신자로 되였다.

선교사의 부추김을 받고 미국에 건너가 수년간 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1907년에 귀국하여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을 규합하여 반일투쟁을 벌렸다.

그후 한동안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에 가있다가 귀국한 그는 신문들에 일제가 조선을 《합병》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실리자 매국역적들의 괴수들을 처단하면 망국의 비운을 가실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정익, 박태은 등과 함께 그 준비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재명은 망국의 한을 풀려고 단도로 리완용을 찔렀다.》(《**김일성**저작집》 제45권, 16페지)

1909년 12월 22일 리완용이 서울 종로에 있는 프랑스교회당에서 열리는 벨지끄황제의 추도모임에 참가한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군밤장사로 가장하고 교회당문앞에서 길목을 지키고있다가 모임을 마치고 나온 리완용이 인력거에 오르려고 할 때 달려들어 놈의 허리와 어깨, 잔등에 복수의 비수를 박았다.

리완용을 호위하던 경찰들이 달려들어 체포함으로써 매국역적을 완전히 요정내지 못하였다.

매국역적 리완용에 대한 대담한 습격은 나라를 팔아넘기는데 피눈이 되여 돌아치는 매국역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일제는 1910년 9월 13일 애국청년 리재명을 교수형에 처하였다.

홍 란 파 (1897년-1941년)

20세기초 음악가이다.

그는 경기도 수원에서 태여나 어릴 때부터 음악을 즐겨하였으며 1915년에 조선정악전습소 양악부를 마치고 이 전습소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에 그는 일본에 건너가서 2년간 음악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1925년에 제1회 바이올린독주회를 가졌으며 우리 나라 최초의 음악잡지 《음악계》를 발간하여 현대음악의 보급에 힘썼다.

그는 음악뿐아니라 문학에도 조예가 있었는데 《처녀혼》, 《폭풍우 지난 뒤》를 비롯한 여러편의 소설을 썼다.

그는 그후에도 일본, 미국 등지에 가서 음악공부를 하고 그곳 악단들에서 바이올린연주도 하였다.

그는 조국에 돌아온 후 현대음악의 보급에 힘썼는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관현악단을 조직하였다.

그는 수많은 계몽기가요들을 창작하였는데 널리 알려진것은 《봉선화》, 《 고향

의 봄》, 《옛 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 등이다.

홍란파의 선률에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힌 조국에 대한 절절한 애착이 넘쳐흐르고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상적이며 애수에 잠긴 결함이 있다.

그의 저서로서는 《음악만필》, 《세계의 악선》 등이 있다.

최 서 해 (1901년-1932년)

진보적인 작가, 본명은 최학송, 호는 서해이다.

함경북도의 의사가정에서 태여나 보통학교를 중퇴한 후 가난한 생활속에서 독학으로 문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917년 중국 동북지방에 건너가 막로동자, 두부장사 등 헐벗고 굶주린 방랑생활을 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에 접근하였다.

1923년 귀국하여 단편소설 《고국》을 발표한 후 서울에서 신문잡지사의 기자로 있으면서 《탈출기》를 비롯하여 《기아와 살륙》, 《박돌의 죽음》, 《매월》, 《큰물진 뒤》 등 단편소설과 수필 등을 창작하였으며 1925년 《카프》의 창건에 참가하였다.

그는 근로하는 인민들을 열렬히 동정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의 모순과 착취자들의 죄악을 사실주의적으로 폭로비판하였다.

이러한 사상주제의 내용은 그의 대표작 《탈출기》의 주인공의 형상에서 집중적으로 반영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세계관의 미숙성으로 하여 착취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을 개인적인 항거의 범위에서 묘사하는데 그치고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의 높이와 간결하고 힘있는 문체 등으로 하여 이 시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리 상 화 (1901년-1943년)

시인, 경상북도 대구의 지주의 가정에서 태여나 중학을 거쳐 도꾜외국어학교 프랑스어과를 졸업하였다.

귀국후 대구교남학교에서 여러해 교편을 잡았다.

1922년 1월 부르죠아시문학류파의 하나인 《백조》의 창간호에 《나의 침실로》를 발표하였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그는 주로 퇴폐적이며 현실도피적인 시들을 썼다.

그후 선진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무산대중을 위한 계급문학을 제창하게 되였으며 《백조》에서 나와 진보적문학단체인 《파스큐라》에 들어갔으며 그후 1925년 8월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카프)결성에 참가하였다.

이후부터 그는 문학은 응당 생활에 발을 붙이고 사회를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당대 현실을 저주하고 비판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에 대한 지향을 노래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들은 주제의 적극성과 심각성, 사실주의적묘사와 랑만주의적 수법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대표적으로 《시인에게》,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통곡》, 《가장 비통한 기욕》, 《바다의 노래》, 《선구자의 노래》, 《오늘의 노래》 등의 시들은 그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는 1926년 《새벽》 6월호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하여 시창작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후 1930년이후부터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앙양되는 투쟁세계에 뿌리박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이 혹심하여짐에 따라 문단에서 물러나 방황하다가 대구에서 죽었다.

라 운 규 (1901년-1937년)

1920년대 활동한 우리 나라의 영화연출가, 배우, 영화문학작가이다.

함경북도 회령시의 학자의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소년시절부터 문학작품을 탐독하였으며 연극써클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16살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국동북지방에 가서 고학으로 중학교를 다녔다.

1919년 3.1인민봉기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1년 남짓한 기간 머슴살이를 하다가 베이만일대와 연해주지방을 류랑하였다.

1920년 조국으로 돌아왔으나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2년간 청진감옥에서 감옥생활을 하였다.

감옥생활은 그의 사상적성장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비로소 모순에 찬 당대현실을 맞받아나가려고 마음먹었다.

이때에 그의 대표작인 예술영화 《아리랑》이 구상되였다.

라운규의 예술활동은 1923년 그가 부산조선키네마의 연구생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시작되였다. 이 시기 그는 주로 영화배우로 활동하면서 영화문학과 영화연출에 대한 기량을 쌓았다.

특히 그는 우리 나라 영화예술분야에서 지배적이였던 반사실주의적예술조류를 반대하는 립장을 견지하였으며 1926년 진보적예술영화 《아리랑》을 창작하였다.

라운규는 자기 창작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1926년-1929년사이에 《풍운아》, 《잘 있거라》, 《사랑을 찾아서》, 《벙어리 삼룡이》 등 사실주의적인 영화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시기 그의 작품들에서는 일제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의 불행한 생활처지와 비극적운명을 동정하고 불합리한 착취사회의 모순을 일정하게 비판하였다.

그의 창작의 저조기라고 할수 있는 《아리랑》 후편을 창작한 때로부터 1937년 사망하기까지는 연극《철도광부의 죽음》을 비롯하여《홍염》,《리순신장군》 등 비교적 경향성이 좋은 영화작품을 창작하였으나 《아리랑》 후편에 비하여 사상예술적으로 떨어진 작품들도 창작하였다.

그의 이러한 제한성은 영화예술창작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도 관계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한 그의 세계관적제한성과 전적으로 관련된다.

라운규는 자기 창작활동의 전기간 18편의 영화문학을 썼으며 19편의 영화연출을 하였고 25편의 영화의 주역으로 출연함으로써 해방전 우리 나라 영화예술발전에 일정하게 이바지하였다.

라 도 향 (1902년-1927년)

1920년대 전반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비판적사실주의작가이다.

그의 이름은 경손이며 호는 도향 또는 빈이다.

서울의 한 의학자의 가정에서 태여난 라도향은 의학전문학교를 중퇴하고《계몽》,《시대일본》 등 잡지사, 신문사들의 기자로 있으면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그는 초기에 퇴폐적인 부르죠아문학단체인《백조》의 동인으로서 단편소설《젊은 시절》,《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걸》,《옛날의 꿈은 창백하더이다》, 장편소설《환희》 등 감상주의적이며 랑만주의적인 경향의 작품을 썼다.

3.1인민봉기후 앙양되는 로동운동과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영향밑에 감상주의적이며 랑만주의적인 창작세계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당대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립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작품인《행랑자식》,《자기를 찾기전》,《물레방아》,《지형근》을 비롯하여 20편의 단편소설과 3편의 장편소설을 썼다.

이 소설들에서 비판적사실주의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그는 천대받고 짓밟히는 불행한 인간의 운명을 통하여 악착한 착취사회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인간의 존엄을 여지없이 유린하는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뜨거운 인간적동정으로 그의 존엄을 옹호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 존재하는 불행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 해결방도에 대하여서는 전혀 제기조차 못하였다. 때문에 라도향은 1920년대의 비판적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남아있게 되였다.

강 경 애 (1906년-1944년)

우리 나라의 진보적인 녀류작가이다.

황해도 장연군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린시절부터 소설을 많이 읽고 이야기를 잘하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생활이 하도 구차하여 10살이 지나서야 겨우 소학교에 들어갔으며 18살때에는 아저씨(언니의 남편)의 도움을 받아 평양숭의녀학교에 다니게 되였다.

이 시기 그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의 영향을 받는 한편 선진적인 사회정치서적과 진보적문학작품들을 읽으면서 사회적모순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동맹휴학에 참가한것으로 출학당한 후 강경애는 고향에 돌아와 학교시절부터 힘써오던 창작수업에 전력하였다.

그는 생활난에 쫓기여 1929년에 중국 동북지방(지엔다오)에 갔다가 다시 1931년말에 고향에 돌아왔으며 이듬해에 다시 중국 룽징으로 들어가 1939년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문학창작활동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인간문제〉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녀류소설가 강경애는 룡정에서 간도인민들의 원군운동을 형상한 〈소금〉이라는 중편소설을 썼다.》(《**김일성**저작집》 제49권, 55페지)

이 시기 강경애는 만저우광야에서 혈전을 벌리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아낌없이 표시하고있는 지엔다오인민들의 원군운동을 형상한 중편소설 《소금》을 비롯하여 장편소설 《인간문제》, 자서전적장편소설 《어머니와 딸》, 단편소설 《채전》, 《해고》, 《축구전》 등 수많은 소설들과 수필들을 썼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그는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인민들의 생활과 지향을 깊은 동정과 애정을 담아 형상하였다.

그는 장편소설 《인간문제》에서 일제와 그 주구놈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싸우는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강경애는 그후에 《지하촌》, 《어둠》, 《마약》 등 단편소설들을 썼는데 이러한 작품들에는 자연주의적요소가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이 시기 사회생활로부터 유리되였던 그의 사상적제한성과 함께 일제의 파쑈적탄압이 강화되던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자기의 생활체험을 기초로 하여 당시의 사회적모순과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재능있는 녀류작가였던 강경애는 1944년 병으로 사망하였다.

조 선 력 사 자 료 집

집 필 교수 박사 리명원, 부교수 김덕성, 부교수 제갈명, 부교수 전룡호, 부교수 오영철,
부교수 박창우, 부교수 김옥동, 부교수 백경희, 김성남, 전동건, 고성심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공훈기자 부교수 박종원, 최창길, 콤퓨터편성 김은아

장 정 김은아 교 정 리유미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인 쇄 주체101(2012)년 4월 23일 발 행 주체101(2012)년 5월 7일

교－12－보－718 3 000부 값 2 000원